세계문학의 어제와 오늘(2)

문학예술출판사
주체100(2011)

차 례

유 럽 편

아메리카편

일화, 상식편

유 럽 편

I. 고대그리스, 로마문학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문학과 예술은 시대의 산물이며 시대가 발전하는데 따라 끊임없이 변화발전합니다. 이것은 문학예술발전의 합법칙적과정입니다.》

문학과 예술은 시대의 산물이다. 따라서 해당한 력사적시대의 문학에 대한 인식을 바로 가지기 위하여서는 먼저 그 문학을 낳은 시대부터 파악하여야 한다.

고대에 대한 개념

고대란 인류력사상 첫 계급사회인 노예소유자적구성상태가 존속하던 시대를 말한다. 노예소유자사회는 원시공동체사회 말기에 발생한 노예제가 더욱 발전하여 노예와 노예소유자사이의 모순이 더욱 격화된 결과에 나타난 인류력사발전의 합법칙적산물이다. 그리고 이 사회제도는 그안에서 발생발전한 봉건적관계에 의하여 봉건제도(그 사회를 봉건사회라고 하며 그것이 지배하던 시대를 중세라고 한다.)로 넘어갔다.

고대사회는 노예에 대한 노예소유자들의 완전한 소유와 절대다수 노예에 대한 극소수 노예소유자들의 착취에 기초하고있다. 고대에는 피착취계급인 노예들과 착취계급인 노예소유자들사이의 계급적대립과 투쟁이 사회관계의 기본을 이루고있었다. 따라서 고대 전기간에 걸쳐 노예소유자들의 가혹한 압박과 착취를 반대하며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노예들과 평민들의 투쟁이 끊임없이 벌어졌다.

아시아는 훨씬 이른 시기에 고대가 시작되여 오랜 기간 계속되였다. 그런것으로 하여 우리 나라와 메소포타미아, 중국, 인디아를 비롯한 아시아지역은 고대문명의 오랜 력사를 가지고있다.

유럽의 고대시기는 아시아보다 훨씬 뒤늦게 시작되였으며 그것의 존속기간도 짧았을뿐아니라 그 지리적판도도 협소하였다.

유럽의 고대시기는 B.C.8세기부터 A.D.5세기까지이며 그 기간에 고대문화를 창조한것은 고대그리스와 로마뿐이였다.

그리스와 로마에서 고대문명이 발전하고있을 때 유럽의 다른 지역들에서는 여러 종족들이 씨족공동체사회 말기에 있었다. 그들은 5세기에 종족대이동을 시작하여 고대로마제국을 멸망시켰으며 고대사회를 거치지 않고 직접 봉건사회로 넘어갔다.

고대그리스, 로마문학의 특징

고대그리스, 로마문학은 유럽에서 가장 일찌기 발생한 문학이며 가장 오랜 문학이다. 유럽의 고대문학유산은 고대그리스, 로마문학유산뿐이다. 그러므로 문예부흥기의 인문주의문학과 17세기의 고전주의문학, 18세기의 계몽주의문학을 비롯하여 후세의 유럽문학은 고대그리스, 로마문학을 표본으로 삼고 거기에서 많은것을 배웠다. 이런 의미에서 고대그리스, 로마문학은 유럽문학의 토대로 되였다.

고대그리스, 로마문학은 유럽에서 남먼저 계급

국가로 형성된 고대그리스, 로마노예소유자사회의 사회력사적현실을 반영한 첫 계급문학으로서 계급적성격을 띠고있다.

고대사회에서 서사문학의 창조자로 된것은 서사수단을 독점한 신관들과 노예주들, 지식인들이였다.

그러므로 그들이 창작한 문학작품에 지배계급의 사상과 감정, 리해관계가 반영된것은 당연한 일이였다.

이 시기 글로 된 최초의 문학작품들은 어느것이나 다 새로 창조된것이 아니고 이미 전해져내려오던 인민구전문학에 기초하여 창작된것이였다. 다만 그것을 그대로 옮긴것이 아니라 지배계급의 사상과 감정에 맞게 가공, 윤색한것이였다. 그러나 지배계급에 복무한 지식인들가운데는 시대와 인민의 지향과 요구를 일정하게 반영하려고 애쓴 진보적인 사람들도 있었다.

보다 이른 시기에 노예소유자적민주주의에 기초하여 발전한 고대그리스문학이 소박하고 건전하며 생기발랄하였다면 제정(군주정치체제)으로 이행한 이후시기에 발전한 고대로마문학은 지배계급의 문학으로서의 성격을 보다 강하게 드러내고 지어 퇴페적인 경향까지 나타냈다.

당시 고대그리스, 로마의 작가들은 자연과 사회에 대한 인식이 미약하고 사회적의식이 낮은 수준에 있었던것으로 하여 생활을 있는 그대로 진실하게 그리지 못하였으며 환상적인 수법을 많이 썼다. 이 시기에 나온 문학작품들에 환상적인 이야기가 많고 수준이 낮은 유치한 표현들이 적지 않은것은 고대인들의 이러한 인식적미숙성때문이였다.

그러나 고대그리스, 로마문학은 문학의 형태발전에서 큰 성과를 이룩하였다. 특히 고대그리스문학은 점차적으로 문학의 거의 모든 종류와 형태를 창조하고 발전시켰다.

B.C.8세기에는 서사시가, B.C.7～6세기에는 서정시가, B.C.5～4세기에는 비극과 희극이 그리고 B.C.6세기에는 력사산문이 발생하였으며 A.D.1세기에는 전기작품에서 예술산문이 갈라져나오고 3세기이후에는 소설이 발생하는 등 시와 극, 산문의 거의 모든 형태에서 풍부한 유산을 남겼다.

고대그리스문학과 로마문학은 그 내용과 형식의 독창성의 측면에서 차이가 있다.

그리스문학은 그것이 발생발전할 때 참고하거나 본받을만 한 선행경험이 없었기때문에 자기식으로 고대문학창조의 길을 개척해나갔다. 이로부터 이 문학은 독특한 고대문학으로서의 특성을 뚜렷이 보여주었다.

이와는 달리 그리스문학보다 뒤늦게 발생한 로마문학은 선행한 그리스문학의 경험을 본받고 모방하였으며 그에 기초하여 자기의 문학을 창조하였다. 로마문학이 그 내용과 형식에서 그리스문학과 류사한것은 이와 관련된다. 그렇다고 하여 로마문학을 그리스문학의 단순한 모방으로, 그 반복으로 볼수는 없다. 로마문학은 그리스문학을 모방하면서도 고대로마의 현실과 로마사람들의 여러가지 생활면모를 담고 그 형식을 더욱 세련시켰으며 그것으로 하여 세계문학의 보물고를 더욱 풍부히 하였다.

고대로마문학은 고대그리스문학을 후세에 전하는 다리의 역할을 하였다.

후세에 사람들은 로마문학을 통하여 고대그리스문학을 알게 되였으며 로마시기에 편찬된 자료들을 통하여 고대그리스에 대하여 알게 되였다.

이러한 모든 특징과 의의로 하여 고대그리스, 로마문학은 세계문학사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였다.

1. 고대그리스문학

1) 신화와 전설에 토대하여 발생 발전한 고대그리스문학

고대그리스문학은 B. C. 8세기부터 A. D. 5세기까지 노예소유자사회에서 창조된 문학이다.

고대그리스는 지중해 동북부에 있는 오늘의 그리스본토와 그 주변의 섬들 및 린접지역(소아시아 즉 오늘의 뛰르끼예 서부연안, 이딸리아 남부에 있던 그리스식민지들)을 포괄하였다.

그리스인들의 조상은 원래 흑해와 까스삐해에서 살던 유목민들이였다고 한다. 그들은 B. C. 2000년기에 발칸반도로 이주하여왔으며 자기들을 자칭 헬레네스라고 하였다. 그리스인이라는 말은 후에 로마사람들이 붙인것이다.

헬레네스는 네개의 종족 즉 에올리아, 이오니아, 도리아, 아카이아로 나누어 살았는데 B. C. 2000년기말에 그 일부가 에게해의 섬들과 소아시아의 서부해안으로 이주하여 고대에 번영한 에게문화를 창조하였다. 끄리띠섬과 미케네시에서 그 당시의 유적유물이 많이 발굴되였다고 하여 이 시기를 《끄리띠—미케네시대》라고 한다. 이 시대는 그리스의 가장 오랜 시대로 되였다.

그후 아카이아족이 주변의 다른 종족들을 공격하고 에게해의 섬들과 소아시아의 연안으로 원정하여 고대에게문화의 중심지가 펠로폰네스 동부해안으로 옮겨졌다. 그러나 B. C. 11세기경에 아카이아족은 남하해온 도리아족에 의하여 정복당하였다.

이 시기부터 씨족제도의 붕괴과정이 시작되여 B. C. 8세기에는 그리스가 노예사회에로 이행하기 시작하였다. 그리스가 노예사회로 넘어가던 시기 발칸반도에는 약 200개의 도시국가(폴리스)들이 형성되였다. 그가운데서 그리스본토의 아테네와 스파르타, 소아시아의 밀레토스와 에페쏘스 등의 도시들이 가장 유력한 도시국가였다.

이 도시국가들은 서로 동맹을 맺기도 하고 패권을 다투기도 하였다. 그리스—페르샤전쟁시기에 련합하여 강력한 페르샤군을 타승한것이나 펠로폰네스전쟁시기 아테네와 스파르타가 치렬한 싸움을 벌린것들을 그 실례로 들수 있다.

고대그리스문학은 이러한 여러 도시국가들과 지방들을 거점으로 하여 발전하였다. 서사시와 서정시가 이오니아지방에서 발전했다면 비극과 희극, 산문은 앗티카(아테네를 중심으로 한 지방)에서 발전하였다.

고대그리스문학의 발전단계를 흔히 네 시기 즉 노예제도형성기(B. C. 8—6세기), 노예제도전성기(B. C. 5—4세기), 헬레니즘시기(B. C. 3—2세기), 로마의 속주시기(B. C. 1—A. D. 5세기)로 구분한다.

노예제도형성기의 문학

고대그리스문학의 원천으로 되고있는것은 신화와 전설 등 구전문학이다. 옛 그리스사람들은 일찌기 태고시기부터 올림포스의 12신을 비롯한 신들에 대한 이야기와 헤라클레스를 비롯한 반인반신의 장수들에 대한 이야기와 같은 풍부한 신화, 전설을 창조하고 전승해왔다. 고대그리스의 서사문학은 이 신화와 전설에 기초하여 발생발전하였다.

호메로스시대

고대그리스의 가장 오랜 문학작품은 B. C. 8세기경의것으로 짐작하고있는 호메로스의 서사시 《일리아스》와 《오듀쎄이아》이다. 이 두 서사시는 B. C. 12세기경에 있었던 트로야전쟁과 관련한 신화, 전설을 내용으로 하고있다. 이 서사시들의 높은 수준으로 보아 그 이전시기부터 서사시의 오랜 전통이 있었던것으로 보아지나 남아있는것은 없다.

그리스인들은 B. C. 14—12세기에 미케네문

화라고 불리우는 발전된 고대문화를 창조하였지만 B.C.12세기에 그리스안에서의 종족싸움의 결과 모두 파괴되여 그 유산이 전해지지 못하였다.

따라서 그리스문학의 력사를 보통 호메로스의 서사시가 나온 B.C.8세기부터 취급하고있다.

B.C.8세기는 고대그리스문학에서 서사시의 시대였다. 이 시기를 흔히 호메로스시대로 부르고있다.

호메로스보다 좀 뒤늦게 나온 시인 헤씨오도스는 영웅서사시를 창조한 호메로스와는 달리 농사일을 노래한 《로동과 나날》과 같은 교훈서사시와 《신들의 계보》(테오고니아)와 같은 신화적서사시를 내놓았다.

그리스의 서사시(에포스)는 헥사메트로스(6각운)라는 특별한 운률로 된 시로서 그후에도 창작되였다.

서정시의 시대

고대그리스문학에서는 서사시의 시대에 뒤이어 B.C.7—6세기에 서정시의 시대가 도래하였다.

서정시를 의미하는 영어 《리리크》는 그리스어 《리리코스》에서 유래된 말이다. 이 말을 처음으로 쓴것은 B.C.3세기 알렉싼드리아의 학자들이였다. 그 어원에서 알수 있는것처럼 고대그리스의 서정시는 오늘의 서정시와는 달리 아직 음악과 분리되지 못한 가사적인 성격이 강한 작품이였다. 그것은 공공장소나 집회에서 현악기와 피리의 반주밑에 노래하거나 읊는것을 전제로 하였기때문이다.

그리스의 서정시에는 두종류가 있었다. 하나는 국가나 집단을 위한 《합창시》(코로이디아)이고 다른 하나는 개인의 감정을 노래한 《독창시》(모노이디아)였는데 그중에서도 합창시가 더 중시되였다. 독창시는 혼자서 노래하거나 읊었으며 합창시는 훈련된 합창대가 지휘자의 지휘밑에 합창하였다.

서정시의 형식으로는 그 내용과 운률에 따라 엘레게이아, 이암보스, 토르카이오스 등 여러가지 시형식을 썼다.

고대그리스서정시의 소재와 주제사상은 다양하였다. 처음에는 신화와 전설을 주제로 한것이 많았으나 점차적으로 현실적인 주제를 다루고 개인의 사상감정을 노래하려는 경향이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였다.

이 과정에 국가적인 체육경기에서 우승한 사람을 축하한 《경기우승가》를 지은 아테네의 핀다로스(B.C.520년경—438년경)와 씨모니데스(B.C.556년경—468년경), 나라를 위해 죽는것을 최고의 영예로 찬양하는 군가를 지은 스파르타의 티르타이오스(B.C.7세기 후반), 신화, 전설에 기초하여 제사나 축전때 부르도록 지은 합창시 《헬레네의 노래》와 《다프니스의 노래》의 창작가 스파르타의 알크만(B.C.7세기 중엽) 등이 배출되였다.

독창시에서는 최초의 풍자시인인 이오니아의 아르킬로코스(B.C.8세기 후반기), 《칠현금의 노래》를 비롯하여 사랑가와 결혼축하시를 많이 지은 레스보스섬의 녀류시인 싸포(B.C.612년경—?), 당파투쟁으로 하여 망명생활을 하게 된 울분을 토로한 같은 섬의 시인 알카이오스(B.C.620년경—?), 방랑생활을 한 교훈시인 테오그니스(B.C.6세기 후반기), 술에 대한 시를 많이 지은 아나크레온(B.C.572년경—482년경) 등이 배출되였다.

고대그리스의 서정시작품들은 대부분이 일부만 전해지고있으나 그것만 가지고도 당시 수준이 상당히 높았다는것을 알수 있다.

고대그리스의 서정시는 후세 유럽서정시의 발전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아이소포스의 우화

B.C.6세기의 그리스문학에서 중요한 몫을 차지하는것은 아이소포스(흔히 영어로 이소프라고 부르고있다.)의 우화이다.

그의 생애와 활동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설이 전해지고있으며 거의 전설적인 인물로 되고있다. 어느 한 옛 기록에는 사모스섬의 노예살이에서 해방되여 자유민이 된 그가 여러 도시로 다니면서 우화를 이야기해주고 시민들을 위로하다가 델포이에서 피살되였다고 전하고있다.

아이소포스가 만들었다고 하는 많은 우화들이 구전되여오다가 B.C.2세기경부터 책으로 묶어졌으며 그후 여러가지 이본들이 나왔다. 지금의 《이소프우화집》은 14세기에 비잔티아의 수도승 프라누데스가 라틴어로 편찬한 우화집에 기초한것이다.

《이소프우화집》에는 아이소포스가 만든 우

화뿐아니라 종래의것을 개작한것도 있고 다른 사람이 만든것도 있으며 인디아를 비롯한 동방우화도 들어있다.

그의 우화들가운데는 《토끼와 거북》, 《시골쥐와 도시쥐》, 《쥐들의 회의》, 《박쥐이야기》, 《개와 그 그림자》, 《여우와 황새》, 《여우와 까마귀》를 비롯하여 이름난 작품들이 많다.

이 우화들은 주로 동물의 행동과 성격을 통하여 노예제사회의 정치생활을 풍자하고있으며 당시 사회에서의 처세술과 륜리도덕을 교훈적으로 보여주고있다.

《이소프우화집》은 세계에서 가장 이른 시기에 나온 우화집의 하나로서 그후의 우화문학발전에 큰 영향을 주었다.

노예제도전성기의 문학

노예제도의 전성기였던 B.C.5—4세기 고대그리스에서는 극문학이 발전하였다.

이 시기를 흔히 《앗티카시대》로 부르고있다. 앗티카란 아테네를 중심으로 한 고장이름이다. 아테네는 B.C.6세기까지 일개 지방도시국가에 불과했으나 점차 스파르타와 함께 그리스의 지도적세력으로 등장하면서 그리스문화의 중심지로 되였다. 그리하여 그리스 각지로부터 학자, 작가, 예술인들이 모여들어 각종 행사가 화려하게 진행되였다. 그러한 속에 비극과 희극이 발생하였다.

비극과 희극의 시대

비극의 시원은 명백하지 않으나 대체로 B.C.6세기 디오니쏘스신의 축전때 진행된 합창과 춤에서 나온것으로 보고있다. 합창대로부터 한사람이 떨어져나와 합창대와 대화하는 형식으로 비극의 첫 막을 올리였다. 그후 이 축전때마다 비극이 공연되였으며 이러한 계기들을 통하여 비극이 발전하였다.

첫 비극작가는 B.C.534년에 경연에서 우승한 테스피스로 전해지고있으나 초기의 비극을 극다운 극으로 발전시킨것은 아이스큘로스이다. 그는 1명의 배우를 2명으로 늘이고 합창대의 비중을 줄이였으며 대사를 많이 넣고 극구성을 보다 째이게 하였다. 그의 대표작으로서 후세에까지 널리 알려진것은 《묶이운 프로메테우스》이다.

그다음에 나온 쏘포클레스는 배우수를 3명으로 하고 줄거리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으며 극형식을 다듬고 구성을 보다 긴밀하게 하는 등 비극을 더욱 발전시켰다. 그의 대표작은 《오이디푸스왕》이다.

그보다 10년이나 나이가 어린 에우리피데스는 종전의 비극의 소재였던 신화와 영웅전설을 인간화, 현실화하고 주인공의 심리를 해부하려고 노력하였다. 그 대표적인 작품이 《메데야》이다.

아이스큘로스, 쏘포클레스, 에우리피데스는 고대그리스의 《3대비극시인》(그들이 쓴 극작품들은 다 운문극이였다.)으로 불리우고있다. 그후에 그리스비극은 급속히 쇠퇴하였다.

희극은 비극보다 좀 뒤늦게 출현하였으나 그 발생은 디오니쏘스축전과 관련되여있다. 희극도 비극과 마찬가지로 합창대를 가지고 대화하는 형식을 취하였다. 그러나 내용에서는 전반부를 시사문제와 관련한 맹렬한 풍자로 구성하고 후반부는 그것을 이어받은 웃음거리와 명절소동으로 구성하였다.

앗티카희극의 대표자는 아리스토파네스이다. 그의 희극가운데서 《녀자들의 평화》, 《구름》, 《개구리》가 알려져있다.

그밖에도 크리티노스, 에우포리스, 메난드로스등의 희극작가가 있었다. 메난드로스(B.C.342년경—291년경)는 B.C.4세기 후반기부터 아테네에서 한때 활발했던 《신희극》의 대표자이다. 《신희극》은 아리스토파네스의 희극과 같은 현실에 대한 강한 풍자보다 풍속극, 인정극을 기본으로 하였다.

산문의 출현

고대그리스문학에서 산문은 시나 극보다 뒤늦게 발생하였다.

그리스에서는 원래 문학이라고 하면 시(운문)를 말하였으며 산문은 문학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산문은 주로 법령, 기록, 비문 등에 쓰이였는데 그후 이오니아지방에서 여러 나라 전설, 우화, 풍속 등을 수집하고 의학, 철학, 력사를 서술하는 등 여러 분야에 널리 쓰이기 시작하였다.

고대산문이 일반적으로 그러했던것처럼 그리스의 산문도 오래동안 자기의 형태를 갖추지 못하였으며 문학으로서의 예술산문이 발생하기까지

는 상당한 시간이 걸렸다.

B.C.5세기 그리스산문의 대표작은 헤로도토스(B.C.484년경—428년경)의 《력사》(9권)와 고대세계 최대의 력사가라고 하는 투키디데스(B.C.460년경—400년경)의 《력사》(미완성, 8권)와 같은 력사산문이였다.

고대그리스에서 산문창작이 활발해진것은 B.C.5세기말부터 4세기에 걸치는 시기였다. 당시 아테네에는 이쏘크라테스의 웅변술학교, 플라톤의 철학학교 등 여러 학교가 운영되였고 많은 제자들을 키워냈다. 그들은 웅변술에도 정통하고 문장을 보다 재치있게 꾸밈으로써 산문발전을 추동하였다. 그들의 저술가운데서는 플라톤의 《대화편》이 알려져있다. 다방면적인 저술가였던 크쎄노폰(B.C.430년경—355년경)이 쓴 종군기 《아나바씨스》, 력사책 《헬레니카》(그리스사), 교육론《큐로스에 대한 교육》도 알려져있다.

헬레니즘시기와 로마의 속주시기 문학

B.C.4—2세기는 고대그리스문학사에서 헬레니즘시대 또는 알렉싼드리아시대라고 불리우고있다.

헬레니즘이란 그리스를 의미하는 헬레니스에서 나온 말로서 그리스풍문화, 그리스화된 문화를 의미한다.

마께도니아의 알렉싼드로스대왕(B.C.356—323)이 그리스를 포함한 광대한 땅을 정복하고 대제국을 세운 이후 그리스어와 그리스문화가 제국의 전 판도에 퍼져 마께도니아, 소아시아, 에짚트 등 넓은 지역이 빠른 속도로 그리스화되였다. 특히 에짚트의 알렉싼드리아(엘 이스깐데르)는 B.C.3—1세기사이에 문화의 중심지로 되였다.

이 시기를 알렉싼드리아시대, 이 시기의 문화를 헬레니즘문화라고 부른다.

이 시기 작가, 시인, 문예학자들가운데서 이름이 난것은 알렉싼드리아시대 최대의 학자로 알려진 칼리마코스(B.C.305년경—240년경), 목가시의 창시자로 알려진 테오크리토스(B.C.300년경—260년경), 장편서사시 《아르고원정의 노래》를 지은 아폴로니오스(B.C.295년경—215년경), 문예리론가 아리스토텔레스(B.C.384—322)이다.

칼리마코스는 일생동안 알렉싼드리아도서관에서 일하면서 온갖 분야의 이름난 인물과 그 작품에 대한 목록 《피나케스》(120권)를 편찬한 문헌학자로뿐아니라 《아이티아》(4권)를 비롯한 잘 다듬은 시를 쓴 시인으로서 널리 알려져있다. 특히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은 로마시인 호라티우스의 《시론》과 함께 고대의 두 문학론, 문학리론책으로서 후세에 큰 영향을 주었다.

그리스는 B.C.2세기에 지중해나라들의 지배자로 등장한 로마의 통치밑에 들어가 그 속주로 되였다. 하지만 그 이후시기에도 그리스어는 라틴어와 함께 로마제국의 공용어로 되였으며 로마문학은 그리스문학을 본보기로 하여 발전하였다.

이 시기 그리스문학에서는 예술산문이 발생하고 문예평론이 활발해졌으며 전기작품과 소설이 창작되였다.

문예평으로는 니오니씨오스 할리카르나쎄우스(?—B.C.8년경)의 문체론 《어구의 배렬에 대하여》, 데메트리오스(1세기경)의 《문체론》, 롱기노스(1세기)의 《숭고한것에 대하여》 등이 나왔다.

《플루타크영웅전》

전기로서 유명한것은 《플루타크영웅전》이다.

플루타크(영어식발음)의 원명은 플루타르코스(46년경—120년이후)이다. 《대비렬전》이 원제목인 이 전기에는 아테네의 군사전략가 테미스토클레스와 웅변의 명수 데모스테네스, 카르타고의 백전로장 한니발, 마께도니아의 알렉싼드로스대왕, 로마를 강대국으로 만든 케자르, 로마의 공화주의자 브루투스를 비롯하여 그리스와 로마의 이름난 력사적인물 50명의 생애가 서술되여있다.

전기에는 그들의 영웅적인 성격과 특기가 생활적으로 잘 그려져있다. 전기는 력사적사실에 근거하면서도 그것을 잘 돋구어 형상함으로써 후세의 전기문학에 큰 영향을 주었다.

소설의 발생

이 시기 그리스문학에서 주목되는것은 소설이 발생한것이다. 그리스문학에서는 B.C.부터 여러가지 설화, 이야기작품들이 많이 창작되다가 A.D. 2세기 루키아노스의 단편소설을 거쳐 3~4세기에는 장편소

설의 체모를 갖춘 소설작품이 여러편 나오게 되였다.

루키아노스(120년경—195년경)는 수리아태생으로 소아시아에서 수사학을 공부한 다음 아테네에 영주하여 적극적인 창작활동을 벌리였다. 그는 주로 대화형식으로 된 80여편의 단편소설들을 썼는데 그중에서 《수닭》, 《카론》(저승의 강의 사공이름), 《신들의 대화》 등이 알려져있다.

그의 대표작은 환상적인 려행기 《정말이야기》이다. 거짓말이야기를 정말이야기로 제목화한 이 작품에서 작가는 달나라려행, 굉장히 큰 고래의 배속에 들어간 이야기를 통하여 당시에 류행되던 황당무계한 려행담을 풍자하였다.

루키아노스는 플루타르코스와 함께 로마제정시기에 활동한 그리스계 문인들속에서 가장 많은 작품을 창작하여 널리 알려졌다.

또한 이 시기 장편형식의 소설들가운데서 전문이 남아있는것만 해도 5편이나 되며 그 일부가 발견된것은 10여편이나 된다는 사실로 보아 당시에 소설창작이 상당히 류행되였다는것을 알수 있다.

현재까지 전문이 전해지고있는 장편형식의 소설은 롱고스(3세기)의 《다프니스와 클로에》, 헬리오도로스(3세기)의 《에티오피아이야기》, 카리톤(1～2세기)의 《카이레아스와 칼리로에》, 크쎄노폰(3세기)의 《에페쏘스이야기》, 아킬레우스 타티오스(3세기경)의 《레우킷페와 클레이토폰》의 5편이다.

소설들은 모두 아름다운 청춘남녀들의 사랑이 여러가지 장애와 아슬아슬한 위기를 이겨내고 끝내 행복에 도달하는 틀에 박힌 련애이야기, 모험이야기들을 취급하고있다. 소설들은 당시의 부유하고 한가한 상층사람들, 그것도 유한부인들을 독자대상으로 하고 그들의 취미에 맞게 씌여진 오락소설, 통속소설의 작품들로서 비록 문학적품위는 높지 못하나 가장 이른 시기의 고대소설유산으로서 문학사에서 일정한 자리를 차지하고있다.

2) 신화와 전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신화와 전설은 고대와 중세의 여러 사회적의식형태에 많이 침투하였으며 특히 문학이 발생발전하는데서 중요한 토대로 되였습니다.》

고대그리스문학이 발생발전하는데서 중요한 토대로 된것은 신화와 전설이다.

고대그리스의 신화와 전설은 그리스력사의 태고시기 즉 B.C.2000년기부터 B.C.8세기 이전까지의 시기에 창조전승되였다. 이 시기 그리스는 원시사회가 붕괴되고 계급사회가 발생하던 력사적시기에 있었으며 청동기문화로부터 철기문화로 넘어가는 과도적시기에 놓여있었다.

고대그리스의 신화와 전설은 당시 사람들의 신화적사고방식에 기초하여 만들어진 이야기로 되여있다. 그러므로 신화와 전설이 모두 꾸며낸 이야기에 그 내용이 허황한것으로 되여있지만 거기에는 그 시기 사람들의 요구와 념원, 생활이 담겨져있는것으로 하여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고대그리스의 신화와 전설은 구전설화형식으로 오랜 기간을 거쳐 전해져내려왔으며 그 과정에 수많은 사람들에 의하여 가공윤색되고 다듬어져 비교적 풍부하고 다양한 이야기들로 정리되였다.

그리스신화와 전설을 수집하고 집대성한 문헌은 전해진것이 없으나 호메로스의 서사시 《일리아스》와 《오듀쎄이아》, 헤씨오도스의 서사시 《신들의 계보》, 아이스큘로스, 쏘포클레스, 에우리피데스의 비극 등 여러 력사책과 철학책들을 통하여 당시 그리스신화와 전설의 전모를 잘 알수 있다. 오늘 류포되고있는 그리스신화집은 이러한 책들에 담겨져있는 신화들을 모아 정리한것이다.

그리스의 신화와 전설은 크게 신들에 대한 이야기와 반인반신의 장수들에 대한 이야기로 나누어져있다.

그가운데서도 신들에 대한 이야기가 더 많은 자리를 차지하고있다. 그것은 당시 사회적의식이 낮았던 사람들이 세상만물의 리치를 다 신과 련결시켜 설명하려고 하였기때문이다.

그들은 그리스에서 제일 높은 산인 올림포스산꼭대기에 자연계와 인간세상을 지배하는 신들이 살고있다고 생각하였다. 그들의 이러한 상상으로부터 제우스를 비롯한 올림포스의 12신이 꾸며졌으며 그밖에도 수많은 신들에 대한 이야기가 꾸며졌다.

올림포스의 12신으로 신들의 왕인 제우스, 그의 안해 헤라, 바다의 신 포쎄이돈, 태양신 아폴

론, 사냥과 해산의 수호신이며 녀성들의 보호자인 아르테미스, 야장신 헤파이스토스, 미의 신 아프로디테, 전쟁신 아레스, 지혜와 공예 및 전쟁의 녀신 아테네, 신들의 전령병 헤르메스, 땅의 신이며 오곡의 녀신인 데메테르, 부엌의 신 헤스티아가 있으며 그밖에도 지하계의 신 하데스, 사랑의 신 에로스, 인간의 수호신 프로메테우스, 술의 신 디오니쏘스를 비롯하여 수많은 신들이 있다.

신들에 관한 이야기에는 천지개벽과 신들의 탄생, 신들의 계보, 인류의 시원, 사물현상의 시원과 그 변화발전의 리치를 인식하고 해설해보려는 당시 사람들의 지향과 요구가 반영되여있다.

인간에게 불을 가져다준 프로메테우스에 대한 신화에는 자연을 정복하고 보다 행복하고 문명한 생활을 누리려는 당시 사람들의 념원이 잘 반영되여있고 우라노스, 가이아, 크로노스, 제우스 등에 대한 신화에는 천지개벽에 대한 설명이 담겨져있으며 데메테르에 대한 신화에는 계절의 바뀜과 오곡의 성장에 대한 설명이 주어져있다.

신화에 의하면 데메테르의 딸 페르쎄포네가 들에 꽃을 꺾으러 나갔다가 지하계의 왕 하데스에의해 랍치당한다. 어머니 데메테르는 딸을 찾아 헤매다가 엘레우씨스의 신전에 들어간다. 그가 너무나 비탄에 잠긴탓으로 오곡은 자라지 않고 초목은 말라버렸으며 집짐승은 새끼를 낳지 않았다. 그리하여 신들이 모여 페르쎄포네를 지상에 돌려보낼 토의를 하며 제우스의 명령이 지하계의 왕에게 전달된다. 그후 페르쎄포네는 1년중 절반은 지하계에서 살고 절반은 지상에서 어머니와 함께 살게 된다. 이때로부터 지상에서는 또다시 오곡이 자라게 되였다는것이다.

신들과 관련한 이야기에 비하여 반인반신의 장수들에 대한 신화, 전설은 보다 후기 씨족공동체사회말기에 나온것으로 보아진다. 그것들은 자연을 정복하기 위한 투쟁, 사회악과 불행을 없애기 위한 정의로운 행동을 찬양하는 내용, 악한 행동을 징계하는 내용, 도덕적순결성을 찬양하는 내용과 같은것을 담고있다.

그들은 말그대로 반인반신 즉 절반은 사람이고 절반은 신인 장수들로서 대다수가 신의 아들이고 신과 같은 힘을 지니고있으나 단지 영생하지 못하고 죽는다는 점에서만 신과 구별된다.

헤라클레스는 반인반신의 장수들가운데서 가장 이름난 인물이다. 제우스를 아버지로, 인간계의 왕녀 알크메네를 어머니로 하여 태여난 헤라클레스는 질투심많은 헤라의 박해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비길데 없는 장수힘과 담력을 가진 용감무쌍한 장수로 자라난다. 그는 인류를 위해 말없이 좋은 일을 많이 하는데 제일 유명한것이 그가 수행한 12가지 대업에 대한 이야기이다.

수많은 대가리를 가진 괴물뱀 휴도라를 잡아치우고 칼도 화살도 맥을 쓰지 못하게 하는 네메아의 괴물사자를 팔로 졸라죽였으며 3만마리나 되는 소가 30년간이나 똥을 눈 아우게아스왕의 소외양간을 강물을 끌어들여 단번에 씻어내치운것 등은 다 이 12가지 대업에 속하는 이야기이다.

그밖에도 괴물 고르곤의 대가리를 잘라온 도시국가 미케네의 창건자 페르쎄우스, 끄리띠왕궁의 미궁속에서 사는 괴물 미노타우로스를 잡아치운 아테네도시국가의 창건자 테쎄우스, 황금양털을 구해오는 《아르고》선(배)의 주인공인 이아쏜, 트로야전쟁에서 용맹을 떨치는 그리스의 장수 아킬레우스, 수수께끼를 풀어 괴물 스핑크스를 타승하고 테베왕이 된 오이디푸스 등 수많은 장수들에 대한 이야기가 있다.

이러한 신화와 전설들을 깊이 분석해보면 그 시대 사람들의 요구와 념원, 생활을 알수 있다.

신화와 전설은 고대와 중세 유럽의 여러 사회적의식형태에 많이 침투하였으며 특히 고대그리스, 로마와 유럽의 문학이 발생발전하는데서 중요한 토대로 되였다. 호메로스의 서사시나 그리스비극들이 모두 신화와 전설에 토대하여 창작되였다는것은 다 잘 아는 사실이다.

신화와 전설은 고대그리스, 로마의 문학예술작품들의 내용을 옳게 리해하는데서도 중요한 의의를 가지며 그것이 나온 시기의 여러가지 력사적사건, 사실을 옳게 해명하는데서도 귀중한 자료로 된다.

신화와 전설은 오랜 기간을 거치는 과정에 여러 계급과 계층의 요구와 리익에 맞게 꾸며지게 되였다. 지배계급의 영향밑에 꾸며진 신화와 전설에는 지난날 왕들이 다 보통사람과는 다른 하늘이 낸 사람, 신비스러운 재간을 가진 사람으로 우상화되여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점들에 대하여 옳게 가려보아야 한다.

3) 호메로스의 두 서사시

호메로스는 B.C.8세기경에 고대그리스문학의 기초를 빛나게 장식한 서사시 《일리아스》와 《오듀쎄이아》를 창작한 시인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고대희랍시인 호메로스가 썼다고 하는 〈일리아스〉라는 서사시도 귀중한 력사자료로 되고있습니다. 이 서사시는 트로야전쟁과 관련되여 있는 수많은 전설과 그 이전에 만들어진 수많은 신화에 토대하여 씌여진것입니다. 따라서 서사시에는 사람들뿐아니라 신들과 〈반인반신〉의 장수들도 수많이 등장하며 그들이 한데 어울려 벌리는 행동과 사건에 의하여 작품의 줄거리가 뻗어나갑니다.》

호메로스문제

호메로스는 전설적시인으로서 그의 생애에 대해서는 잘 알려져있지 않다. 맹인시인이였다는 설이 있으나 확실치 않다. 다만 직업적인 이야기군—가수의 한사람으로서(당시에는 현악기의 반주밑에 구전가요나 이야기를 노래하는 이러한 이야기군—가수의 집단이 있었다.) 수백년전부터 구전되여오던 트로야전쟁에 관한 전설에 기초하여 두 서사시를 만들어냈을것이라고 보고있다.

호메로스라는 시인이 실재한 인물인가 아닌가 하는데 대하여 력사적으로 론쟁이 많았다. 그러나 그리스사람들은 호메로스라고 하는 유명한 시인이 살아있었다는것을 믿어의심치 않았다. 그들은 시인이라고 하면 의례히 호메로스를 첫번째로 꼽았다.(고대그리스시기에 만들어진 호메로스의 가슴상이 오늘까지 남아있다.)

호메로스의 생존년대와 그의 출생지, 호메로스가 과연 두 서사시의 창작가가 맞는가 하는 문제를 두고 호메로스문제가 생겨났다.

호메로스의 생존년대와 관련해서는 우로는 B.C.12세기경까지 거슬러올라가는 주장이 있는가 하면 아래로는 B.C.6세기경까지 내려오는 엇갈린 주장들이 있으나 대체로 B.C.8세기경 사람으로 보는 견해가 압도적이다.

호메로스가 태여난 고장에 대하여서는 여러 지방사람들이 자기 고장을 호메로스의 고향이라고 하는데 그러한 곳이 무려 12곳이나 된다고 한다. 그러나 대체로 이오니아지방으로 보고있다.

호메로스가 두 서사시의 창작가가 맞는가 하는 문제가 론점으로 된것은 《일리아스》와 《오듀쎄이아》를 비교한 연구사들이 두 작품에서의 문체의 차이와 《일리아스》가 보다 옛시대를 반영하고있으며 《오듀쎄이아》와 적어도 수십년의 간격이 있다고 보았기때문이다. 그러나 이 문제에서도 역시 두 서사시의 창작가를 호메로스라고 보는 견해가 우세하다.

트로야전쟁과 관련한 전설

서사시 《일리아스》와 《오듀쎄이아》의 토대로 된것은 트로야전쟁과 관련한 수많은 전설과 그전에 만들어진 신화이다.

전설에 의하면 B.C.12세기경(후에 고고학적 발굴에 의하여 확증되였다.)에 다다넬스해협 남쪽 소아시아연안(오늘의 뛰르끼예 서부)의 성시 트로야를 공격한 그리스원정군과 트로야수비군사이에 10년동안이나 싸움이 계속되였다고 한다. 이 전쟁을 일으킨 장본인은 트로야의 왕자 파리스였다.

파리스는 트로야왕 프리야모스와 왕비 헤카베의 아들이며 헥토르의 동생이다.

그는 어머니가 임신중에 불길한 꿈을 꾼것으로 하여 출생후 버림받아 이다산속에서 메돼지에 의하여 양육된다. 성장한 후 그는 이다산에서 양떼를 기르는 목동이 되며 선녀 오이노네를 안해로 삼는다.

녀신들인 헤라, 아테네, 아프로디테사이에 서로의 아름다움을 다툴 때 그 심판원이 되였던 파리스는 아프로디테로 하여금 승리하게 한다. 그것은 아프로디테가 파리스에게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녀인을 대주었기때문이다. 그가 바로 스파르타왕비 헬레네였다.

대단한 미남자인 파리스는 그리스를 방문하여 스파르타왕 메넬라우스의 손님으로 되였다가 돌아갈 때 헬레네를 유혹하여 재물과 함께 트로야로 빼앗아간다.

분노한 메넬라우스의 호소로 그의 형인 아르고스의 왕 아가멤논을 총대장으로 한 수만명의 그리스련합군이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10년동안이나 성시를 포위하여 싸운다. 그리스군은 마감에 커다란 목마로 트로야사람들을 속여 성시를

함락시킨다.

그런데 그후 고국으로 돌아가는 과정에 풍파를 만나 수많은 그리스군사들이 돌아오지 못한다.

고대그리스에서는 이 트로야전쟁과 관련한 신화, 전설이 오래동안 전해내려왔는데 그것이 집대성되고 다듬어져 오늘과 같은 큰 형식의 서사시로 되였다.

《일리아스》의 줄거리

《일리아스》란 일리움(트로야의 별명)의 노래라는 뜻이다.

서사시는 직접 트로야전쟁과정을 취급하면서 10년동안의 트로야전쟁전반을 포괄한것이 아니라 마지막시기에 있은 51일동안의 전투이야기를 기본으로 담고있다.

서사시는 토막이야기의 테두리안에서 수많은 장수들, 신들의 활동에 대한 이야기와 전설적자료들이 엉키여 전24편에 15 693줄에 달하는 방대한 내용을 이루고있다.

《일리아스》의 주제는 그리스군의 가장 용맹한 장수 아킬레우스(아킬레스라고도 부른다.)의 분노와 그 결과에 대한 이야기이다. 전편은 이것을 중심으로 하여 전개되고있다.

노래하라 뮤즈여 펠루스의 아들
　아킬레우스의 그 무서운 복수를
그로부터 그리스인에게 가지가지
　불행이 닥쳐와
그 숱한 장수들 어두운 저승으로 쫓기고
그 주검 싸움의 벌판에 랑자히 널리여
주린 개들과 수리개의 밥된 사연을

이야기는 아킬레우스가 그리스군 총대장 아가멤논과 다투고 싸움터에서 물러나는것으로부터 시작된다.

아킬레우스없이 트로야군과 맞선 그리스군은 여러 장수들이 잘 싸웠음에도 불구하고 왕자 헥토르를 대장으로 하는 트로야군의 반격을 당해내지 못해 바다기슭까지 밀려나오며 위기에 처한다.

궁지에 빠진 아가멤논이 아킬레우스에게 노여움을 풀고 출전해줄것을 요청하였으나 그는 이를 거절한다. 아킬레우스의 친우 파트로클로스가 이를 보다못해 아킬레우스에게 청을 드려 그의 갑옷을 입고 아킬레우스로 변장하여 싸움터로 나간다. 그리스의 공격에 앞장섰던 파트로클로스는 적진속에 너무 깊이 들어간탓으로 헥토르의 손에 희생된다.

친우가 희생되였다는 소식을 듣고 슬픔에 잠긴 아킬레우스는 그의 복수를 위하여 아가멤논과 화해하고 다시 싸움터로 나간다. 아킬레우스가 나온것을 알고 용기백배한 그리스군은 맹렬한 기세로 트로야군을 밀고나가 성안에 몰아넣으며 홀로 남은 헥토르는 아킬레우스와의 결투에서 죽는다.

헥토르의 아버지인 늙은 트로야왕 프리아모스는 아킬레우스를 찾아가 아들의 시체를 돌려줄것을 간청하며 아킬레우스는 그것을 허락한다. 서사시는 트로야사람들이 헥토르의 장례식을 성대히 치르는것으로 끝난다.

《오듀쎄이아》의 줄거리

《오듀쎄이아》란 오듀쎄우스에 대한 노래라는 뜻이다.

《오듀쎄이아》는 《일리아스》의 련속편으로서 역시 트로야전쟁에 관한 전설에 기초하고있으나 전쟁자체에 대한 전설이 아니라 전쟁이 끝난 다음 배를 타고 고향으로 돌아가던 그리스사람들이 풍파를 만나 바다에서 표류당한 전설에 기초하고있다. 그 분량은 《일리아스》와 비슷한데 이것 역시 전 24편, 12 110시행이나 되는 방대한 장편서사시이다.

서사시의 기본내용을 이루는것은 트로야전쟁에서 승리한 그리스군장수의 한사람이며 이타케섬의 왕인 오듀쎄우스가 고향으로 돌아가는 과정에 겪은 가지가지의 모험과 불행, 20여년만에 고향에 도착한 그가 겪은 사건에 대한 이야기이다. 이와 함께 그의 부재중에 안해인 페넬로페아가 겪은 일, 아들 텔레마코스가 아버지를 찾아다니는 이야기, 오듀쎄우스가 돌아온 후 자기 안해를 괴롭힌자들을 처단하는 이야기가 벌어진다.

주인공 오듀쎄우스는 자기 부하들과 함께 배를 타고 돌아가는 과정에 어느 한 섬에서 바다의 신 포쎄이돈의 아들인 폴류페모스라는 외눈의 거인에게 붙잡혔다가 그의 눈을 멀게 만들고 도망친다. 포쎄이돈은 자기 아들의 눈을 멀게 한 오듀쎄우스에게 원한을 품고 가는 곳마다에서 무서운 화를 들씌운다. 하여 오듀쎄우스는 마술을 쓰는 무서운 마녀 키르케가 사는 섬, 아름다운 목

소리로 항해자들을 유인하고는 그 피를 빨아먹는 쎄이렌이 사는 섬, 동굴안에 숨어있다가 지나가는 배우에 있는 사람들을 잡아먹는 무서운 괴물 스큐레가 있는 바위산과 그 일대의 바다물을 하루에 세번 몽땅 빨아들였다가 세번 내뿜는 칼리뷰디스라는 괴물이 있는 곳 등 참으로 아슬아슬하고 위험천만한 구역을 통과하지 않으면 안되였다.

그사이에 부하들은 다 죽고 오듀쎄우스는 혼자 오기기에섬에 다달으며 선녀 칼리프소에게 붙잡혀 7년세월을 보낸다. 그는 트로야를 떠난지 10년만에야 올림포스신들의 도움으로 마침내 고국으로 돌아오게 된다.

한편 그의 정숙한 안해 페넬로페아는 남편이 집을 비운 20년동안 변함없이 남편에 대한 사랑을 고이 간직해오며 무례한 청혼자들의 강요를 지혜로써 물리친다. 아들 텔레마코스는 아버지의 생사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집을 떠난다. 고향에 돌아와 그리운 처자를 만난 오듀쎄우스는 안해를 괴롭히던 청혼자들을 모조리 처단하고 다시 왕위에 오른다.

두 서사시의 사상예술적특징

호메로스의 서사시 《일리아스》와 《오듀쎄이아》는 무엇보다도 씨족공동체사회로부터 계급사회로 이행하는 과도적시기인 고대그리스사회의 면모를 생동하게 반영하고있다.

두 서사시에 반영된 B.C.12세기경부터 B.C. 8세기경까지는 아직 계급사회가 형성되기 전시기로서 원시씨족공동체사회가 붕괴기에 처해있었으나 사회경제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아직 씨족적인 관계가 많이 남아있던 시대라고 볼수 있다. 작품에 그려진 사람들사이의 관계는 노예사회에서 볼수 있는 그러한 관계인것이 아니라 씨족공동체적인 관계이며 거기에 반영된 현실도 완전한 노예사회의 현실이 아니다.

서사시는 또한 고대사회의 사람들의 면모를 비교적 실감있게 보여주고있다.

작품은 그리스군에서 가장 힘세고 용감하며 전우애와 의협심이 강한 장수 아킬레우스, 트로야군에서 가장 용감하고 지혜있으며 자기 처자와 공동체에 대한 뜨거운 사랑을 지니고있는 대장 헥토르, 대담하고 용감할뿐아니라 기지가 있고 지혜로우며 향토와 처자에 대한 사랑이 강한 오듀쎄우스, 아름다움과 정숙함을 지닌 총명하고 지혜로운 녀인 페넬로페아를 비롯한 수많은 인물들의 형상을 통하여 고대그리스사람들의 성격과 사상감정, 생활처지들을 생동하게 보여주고있다.

서사시는 당시 시대와 사회의 특징을 반영하고 고대사람들의 면모를 실감있게 보여주고있을뿐아니라 당시의 군사활동과 생활방식, 세태풍속을 비롯하여 고대사회에 대한 풍부한 자료를 담고있다. 《일리아스》가 주로 전쟁과 관련한 자료를 담고있다면 《오듀쎄이아》는 개인의 생활과 운명, 세태풍속적인 내용을 보다 많이 담고있다.

서사시 《일리아스》와 《오듀쎄이아》는 고대작품이기는 하나 비교적 다듬어져 예술작품으로서의 면모를 갖추었다.

우선 그 구성이 째여있는것이 주목할만 하다. 《일리아스》는 10년간의 트로야전쟁에서 마지막시기 51일간의 사건을 기본으로 하면서도 등장인물들을 통하여 10년간의 전쟁기간에 있었던 여러가지 사건들을 펼쳐보여 트로야전쟁의 전모를 알수 있게 한다. 《오듀쎄이아》에서도 10년동안에 있은 주인공의 방랑과 모험을 순차적으로 보여주는 방법을 택한것이 아니라 그가 부재중 그의 고향과 가족의 형편부터 이야기를 시작하여 제5편에서 비로소 주인공을 내세웠으며 10년간의 모험에 대해서는 연회석상에서 그자신의 말로 이야기하며 13편이후의 후반부에 가서야 청혼자처단에 대한 기본이야기에 들어가고있다.

이러한 재치있는 구성으로 서사시들은 단조로움을 피하고 방대한 사건들을 폭넓게 보여주면서도 작품의 중심을 뚜렷이 살리고있다.

서사시에서는 또한 시어와 표현수법이 다양하고 잘 다듬어져있다. 서사시는 그리스방언의 하나인 이오니아방언을 쓰고있으며 헥사메트로스라는 독특한 운률을 쓰고있다. 그때의 서사시는 노래하는것으로 하여 특별한 운률에 맞는 시어를 구사하였다. 서사시의 시어와 운률은 매우 정교하고 복잡하다.

작품은 구전서사시로서 눈으로 읽은것이 아니라 청중들이 귀로 들었으므로 이야기의 흐름속도가 완만하고 반복이 많으며(반복구가 총량의 3분의 1이나 된다.) 형용어와 비유법을 많이 쓰고있다.

호메로스의 두 서사시에서는 이러한 성과가 있는 반면에 사회발전과 문학발전의 낮은 단계를 반영한 사상예술적제한성과 미숙성도 나타내였다.

호메로스의 두 서사시는 신화와 전설에 토대하여 씌여진것만큼 환상적이고 신화적인 내용을 많이 담고있다. 서사시에는 사람들뿐아니라 신들과 반인반신의 장수들이 수많이 등장하며 그들이 한데 어울려 벌리는 행동과 사건에 의하여 작품의 줄거리가 뻗어나간다.

따라서 여기서는 사람이 사람답게 그려지지 못하고 생활을 자연스럽게 보여주지 못하고있으며 신화적인 환상의 세계와 현실세계, 신과 사람이 뒤범벅이 되여 혼란에 빠지고 등장인물들은 신의 의사에 따라 움직이는 꼭두각시처럼 되여있다.

그밖에도 아직 인물들에 대한 심리묘사가 제대로 되여있지 못하고 세부묘사를 지루하게 준것이라든가, 시공간적개념과 원근법을 무시한것을 비롯하여 여러가지 예술적미숙성을 나타내였다.

호메로스의 서사시 《일리아스》와 《오듀쎄이아》는 구전문학에 깊이 뿌리박고있는 고대그리스의 최초의 문학으로서뿐만아니라 고대인류사회의 면모를 실감있게 묘사하고 당시의 인간관계와 사회관계를 생동하게 반영하였으며 잘 다듬어진 시형식을 가진것으로 하여 그리스와 로마, 유럽문학의 발전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호메로스의 시와 슐리만

호메로스의 서사시가 중요한 력사자료로 된다는것을 확증한것은 도이췰란드 고고학자 슐리만이였다.

8살때부터 호메로스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큰 충격을 받은 하인리히 슐리만(1822—1890)은 장차 어른이 되면 트로야성을 발굴하리라는 결심을 굳게 다지였다.

호메로스의 서사시 《일리아스》를 거의 외우다싶이 한 슐리만은 트로야전쟁이야기를 사실로 믿고 어른이 된 다음 뛰르끼예의 힛사리크언덕에서 20년에 걸쳐 네차례의 발굴사업을 진행하였다.

결과 그는 트로야성시와 왕궁자리, 왕관을 비롯한 수많은 유적유물들을 발굴해내는데 성공하였다.

그리하여 허황하게 꾸며진 전설로만 인정되여오던 트로야전쟁이 력사적사실로 고증되였다.

서사시의 전승 판본문제

호메로스의 두 서사시는 구전서사시로서 호메로스자신이 글을 쓴것이 아니라 구술한것이다. 호메로스가 B.C.12세기경부터 구전되여 내려오던 트로야전쟁이야기에 기초하여 B.C.8세기경에 서사시의 기본틀거리를 만든 후 약 200년동안 구전되여오다가 B.C.6세기경에 이르러 글자로 기록된것으로 보아진다.(파피루스와 양피지에 쓴 사본의 토막이 남아있다.)

전문이 기록된 가장 오랜 사본은 10세기 중엽의것이며 (이딸리아의 베네찌아도서관에 보존되여있다.) 처음으로 인쇄된것은 15세기(이딸리아의 피렌쩨판)이다.

이것은 두 서사시의 작자가 호메로스라고는 하지만 오랜 구전과정에 여러 사람에 의하여 윤색, 가공, 정리, 보충되였음을 짐작케 한다.

4) 비극과 희극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희곡은 생활을 극적방식으로 반영하는 문학가운데서 가장 대표적인 형태입니다.》

희곡은 오랜 력사를 가진 문학의 한 형태이다.

유럽문학에서 희곡 즉 극문학이 처음으로 발생발전한것은 고대그리스였다.

고대그리스에서 극문학의 갈래는 비극과 희극으로 구분되여있었다.

비극의 발생, 아이스퀼로스, 쏘포클레스, 에우리피데스의 비극

비극의 발생

고대그리스에서 비극은 B.C.6세기 후반기에 발생하고 B.C.5세기에 발전하였다.

비극으로 번역되고있는 그리스어 《트라고이디아》는 《트라고스》(산양)와 《오데》(노래)가 결합된 말로서 그 원뜻은 《산양의 노래》이다.

고대그리스에는 예로부터 동물의 모습으로 분장하여 노래하고 춤추는 즉흥극 비슷한것과 신들의 제례행사와 축전때 노래하는 합창대가 있었

다. 이 두가지가 결합되여 나온것이 비극이다.

《산양의 노래》라는 원뜻이 보여주는바와 같이 산양으로 분장한 합창대의 노래와 춤이 비극의 시초형식이였다. 이 합창대에 대화와 연설이 섞이고 그후 배우의 연기가 배합되는 과정에 연극적요소가 많아지면서 점차 연극으로 발전하였던것이다.

이렇게 비극이 발생하고 발전해가는 과정에 문학의 형태로서의 극문학 즉 희곡이 발생하였다.

고대그리스에서 비극은 아테네의 대로천극장에서 한해에 한두번 디오니쏘스(술의 신 또는 수확의 신)축전때 경연형식으로 공연되였는데 비극경연에서 첫 우승자(B.C.534)가 테스피스라는 기록이 있다.

그러나 고대그리스에서 비극이 발전하게 된것은 3대비극시인으로 불리우는 아이스퀼로스, 쏘포클레스, 에우리피데스의 활약과 관련되여 있다.

아이스퀼로스

고대그리스의 문학예술사에서 아이스퀼로스는 비극의 형식을 확립한 극작가로서 비극의 아버지로 불리우고있다.

아이스퀼로스(B.C.525—456)는 아테네에서 서쪽으로 10㎞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한 데메테르녀신의 성지 테레우씨스의 오랜 신관가문에서 태여났다.

이런 가문에서 태여나 신앙심이 강하고 무사기질을 가지게 된 아이스퀼로스는 그리스—페르샤전쟁시기(B.C.500—449) 군인으로 여러 전투에 참가하여 무훈을 세웠다.

그는 25살때부터 비극배우가 되여 무대에 출연하기 시작하였으며 동시에 비극작품을 쓰는데 참가하여 명성을 떨쳤다. 그의 비극작품들은 아테네의 연극경연에서 18번(다른 설에 의하면 28번)이나 우승했다고 한다. 그러다가 무슨 리유에서인지 그후 씨칠리아섬으로 가서 그곳에서 세상을 떠났다고 한다.

아이스퀼로스는 적극적인 창작활동을 벌려 80～90편이나 되는 많은 비극을 썼다고 하는데 오늘까지 전문이 남아있는것은 《페르샤사람들》, 《테베를 공격하는 일곱장수》, 《구원을 청하는 녀인들》, 《묶이운 프로메테우스》, 《아가멤논》, 《공양하는 녀자들》, 《인자한 녀신들》의 7편뿐이다. 그중 마지막 3편은 《오레스테이아 3부작》이라고 부른다.

아이스퀼로스의 비극들은 거의다 고대그리스의 신화와 전설들을 소재로 하고있으나 그 당시 그리스사람들의 생활과 사상감정, 지향과 념원을 반영하고있다.

그의 비극은 이전시기 비극의 약점이였던 조잡성과 유치한 극작술을 일정하게 극복하고 웅대한 구성, 풍부한 상상력, 힘있는 대사를 구사하여 관중들의 심금을 틀어잡았다고 한다.

아이스퀼로스는 비극의 형식을 확립한 극작가이다. 그 이전의 그리스극은 극이라기보다 합창에 더 가까운것이였다. 그는 그전에 한명이였던 배우수를 2명으로 늘이고(마감에는 3명을 쓰기도 하였다.) 배우들이 쓰는 가면을 개혁하였으며 배우들에게 화려한 의상을 입히였다. 그는 또한 합창대의 구성과 비중을 바꾸고(합창의 몫을 줄이고 대화를 늘이였으며 춤을 도입하였다.) 소도구와 무대장치를 더 발전시킴으로써 그리스비극이 처음으로 연극맛이 나게 하였다.

그리하여 아이스퀼로스의 비극들은 고대그리스 아테네의 노예소유제민주주의의 첫 단계에서 혁신적인 작품으로 되였다.

아이스퀼로스의 대표작은 비극 《묶이운 프로메테우스》이다.

《묶이운 프로메테우스》

이 비극은 인간에게 큰 혜택을 가져다준 거인신 프로메테우스의 수난에 대한 신화에 기초하여 창작되였다.

세계의 통치자였던 크로노스를 뒤집어엎고 새 통치자로 나선 최고신 제우스는 올림포스산우에 있는 신들의 궁전에 틀고앉아 하늘에 있는 신들에게만 모든 혜택을 베풀어주고 지상에서 원시적인 생활을 하고있던 인간들에게는 아무런 혜택도 베풀지 않았다.

인간을 동정하는 거인신 프로메테우스는 이러한 제우스의 처사를 못마땅하게 여기고 하늘의 신들만이 쓰게끔 정해져있던 불을 훔쳐다가 인간에게 가져다주었으며 여러가지 기술도 배워주었다. 이때부터 인류에게는 문명한 생활을 할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되였다.

이것을 알고 성이 난 제우스는 프로메테우스를 세계의 끝에 있는 가장 높은 바위산꼭대기에 묶

어놓고 헤아릴수 없는 고통을 주었다. 그러나 자기가 한 일이 옳다고 생각한 프로메테우스는 인간의 압박자이며 인류의 모든 불행의 근원인 제우스를 미워하면서 그 혹독한 징벌도 마다하지 않고 끝까지 제우스와 맞서싸운다.

그는 끝내 제우스의 더 큰 노여움을 사서 땅속 깊은 곳으로 굴러떨어지고만다.

비극은 프로메테우스의 형상을 통하여 전제폭군들의 압제를 반대하고 온갖 간난신고를 이겨내면서 자기의 앞길을 개척해나간 고대그리스인들의 지향과 투쟁정신을 반영하고있다. 동시에 비극은 제우스신의 정의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고 제우스신을 비난하며 지어 부정함으로써 신의 구속을 반대하고 그로부터 벗어나려는 고대사람들의 지향을 반영하였다. 비극에는 또한 프로메테우스의 미래에 대한 승리와 인류의 밝은 앞날에 대한 락관주의적기분이 반영되여있는것이 특징적이다.

비극은 웅대한 구성과 그에 알맞는 장중하고 힘있는 대사, 배우와 합창대의 긴밀한 결합과 같은 특징도 보여주고있다.

《묶이운 프로메테우스》는 극문학발생의 초시기에 나온 비극으로서 비록 그 내용과 형식에서 유치하고 미숙한 점이 적지 않으나 압제를 반대하는 불굴의 투쟁정신을 찬양하고 비극의 형식을 발전시킴으로써 그리스와 유럽문학발전에 큰 영향을 주었다.

후세작가들은 프로메테우스를 인류의 진보를 위한 투쟁의 상징으로 여기면서 그에 대한 작품창작에 힘을 넣었다. 18세기도이췰란드시인 괴테, 19세기초 영국시인 바이런과 쉘리, 로씨야시인 뿌슈낀 등의 창작이 그 실례로 된다.

아이스큘로스의 뒤를 이어 비극을 더욱 발전시킨것은 쏘포클레스이다.

쏘포클레스

쏘포클레스(B. C. 496년경－406년경)는 페리클레스(당시 아테네의 통치자)시대로 불리우는 아테네노예제민주주의 전성기를 대표하는 비극작가이다.

그는 아테네교외의 부유한 상공인(무기제조업자)가정에서 태여나 고등교육을 받으며 자랐다. 건장한 미남자인 그는 아테네도시국가의 고위급인물이 되여 정치군사활동에 적극 참가하였다. 그는 사모스원정, 펠로폰네스전쟁에서 장군의 직무를 수행했으며 씨칠리아원정후에는 프로브로스(평의회 의원)의 중책을 맡았었다. 그는 정치가 페리클레스, 조각가 페이디아스와 함께 아테네 황금시대의 전형적인물로 전해지고있다.

그는 비극창작에서도 두각을 나타내였는데 B. C. 468년에는 비극경연에 참가하여 아이스큘로스를 타승한 후 24번(다른 설에는 18번)이나 경연에서 승리하였다.

그는 123편이나 되는 많은 비극을 썼지만 지금까지 남아있는것은 《아이아스》, 《엘레크트라》, 《오이디푸스왕》, 《콜로노스의 오이디푸스》, 《안티고네》, 《트라키스의 녀자들》, 《필로크테스》의 7편뿐이다.

쏘포클레스는 자기의 비극작품들에서 고대그리스의 신화와 전설을 취급하면서도 초자연적인 힘의 작용을 통하여 인간의 운명을 고찰한 아이스큘로스와는 달리 인간의 성격자체를 파고들었으며 아이스큘로스비극의 단순한 성격형상에 비해 보다 복잡한 성격을 창조하였다. 그는 이 과정을 통하여 보다 현실적이며 절박한 문제를 제기하고 당시의 사회적모순을 반영하였다.

그의 주요작품의 하나인 《안티고네》(B. C. 441년경)는 오이디푸스와 관련한 테베전설에 기초한것이다. 작품은 국왕의 금지령을 어기고 오빠의 장례를 지냈다가 사형당한 왕녀 안티고네(오이디푸스의 딸)의 비극에 대한 이야기를 기본줄거리로 하고있다. 여기에는 자기의 명령을 법으로 여겨 강권을 행사하는 왕(안티고네의 외삼촌)과 인간의 도덕륜리를 지키려는 녀주인공사이의 갈등을 통하여 당시의 사회적모순을 반영하였다.

쏘포클레스는 아이스큘로스의 정서적이며 장면흐름속도가 느린 3부작형식을 고쳐 극성이 강하고 구성이 째인 단부작을 만들었다.

그는 또한 배우를 종래의 2명으로부터 3명으로 늘이고 무대장치와 합창대를 개량함으로써 그리스비극의 형식을 더욱 발전시켰다.

쏘포클레스의 비극작품들은 현실반영이 미약하고 숙명론적견해가 강하며 침울한 점들이 있으나 아이스큘로스의 뒤를 이어 그리스비극의 내용과 형식을 더욱 발전시킴으로써 유럽의 비극발전에 큰 영향을 주었다.

쏘포클레스의 대표작은 《오이디푸스왕》이다.

《오이디푸스왕》 B. C. 430～420년경에 공연된 비극 《오이디푸스왕》은 장수 오이디푸스와 관련한 세 비극 (《오이디푸스왕》, 《클로노스의 오이디푸스》, 《안티고네》)중의 한편이다.

작품은 주인공 오이디푸스가 신이 미리 정해놓은 운명의 지배에서 벗어나보려고 완강하게 노력하였으나 끝내 그 올가미에서 빠져나가지 못하는 비극적인 내용이다.

오이디푸스왕이 통치하는 도시국가 테베에 무서운 전염병이 돈다. 왕의 명을 받고 아폴론신전에 다녀온 처남 크레온이 이전 왕 라이오스의 살해자를 제거하라는 신탁(신의 계시)을 전한다. 그 죄인을 찾아내기 위하여 소경예언자 테이레씨아스를 데려온다. 왕의 물음에 침묵을 지키고 있던 예언자는 왕의 강박과 모욕에 더 참지 못하고 살인자는 다름아닌 오이디푸스라고 웨친다.

오이디푸스는 처음 이것을 왕위를 노리는 처남의 음모로 오해하고 그와 다툰다. 하지만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 진상이 하나하나 밝혀진다.

왕비 이오카스테의 이야기에 의하여 이제 태여날 아이가 앞으로 자기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와 간통하게 되리라는 무서운 신탁을 들은 이전 왕 라이오스가 애기가 태여나자 곧 산속에 버리게 했다는것과 라이오스가 세 갈래 갈림길에서 어떤 젊은이(그가 바로 오이디푸스였다.)와 다투고 살해되였다는것이 알려진다.

이때 코린트에서 사신이 도착하여 왕(오이디푸스의 양아버지)이 세상을 떠나 오이디푸스가 코린트의 왕으로 추대되였다는것을 통지한다. 그리고 그가 바로 산속에서 양몰이한테서 애기를 넘겨받아 코린트왕의 양자로 되게 했다는것이 판명된다. 게다가 늙은 양몰이군까지 도착하여 그 사실을 증언한다.

그리하여 다름아닌 오이디푸스왕이 친아버지를 죽이고 친어머니를 안해로 삼은 무서운 죄인이라는것이 밝혀진다. 신탁이 그대로 실현된것이다. 조사과정에 미리 이 사실을 알아차리고 궁전안에 들어간 왕비는 목을 매고 자살하며 오이디푸스는 왕비 즉 어머니의 옷빈침으로 자기 두눈을 찔러 스스로 자신을 징벌한다.

비극에는 신을 떠나서 세상만물의 리치를 설명할수 없었던 당시 사람들의 유치한 사고방식과 신앞에서 그들이 느낀 공포감이 반영되여있다. 또한 신이 정해놓은 운명의 희롱에 맞서 필사적으로 투쟁하는 오이디푸스의 형상을 통하여 신에 대한 항거정신을 보여주고 그 과정에 발휘된 주인공의 완강성과 용감성을 찬양하였다.

비극은 신화에 기초하면서도 현실속에서 살아움직이는 산인간을 형상하고 주인공의 비극적성격을 부각시켰다.

또한 신화의 내용을 그대로 설명적으로 전달한것이 아니라 왕의 사건조사과정에 사실이 하나하나 밝혀지도록 하는 독창적이고 째인 극작술을 구사하였다.

이러한 특징을 보여준것으로 하여 비극 《오이디푸스왕》은 고대그리스비극의 걸작의 하나로 당대뿐아니라 후세에 이르기까지(아리스토텔레스는 이 작품을 비극의 전형으로 불렀다.) 널리 알려졌다.

에우리피데스 에우리피데스(B. C. 484－406)는 고대그리스노예소유제에 기초한 아테네도시국가의 민주주의가 위기를 겪기 시작한 시기에 활동하였다.

그는 앗티카의 중산층출신으로 충분한 교육을 받았으나 비사교적이며 염세적인 기질로 하여 공적인 사업에 종사하지 않고 주로 서재속에 들어박혀 독서와 창작, 명상에 잠겨있었다고 전해지고있다.

그는 B. C. 455년에 처음으로 비극경연에 참가한 후 90편이상이나 되는 비극을 썼으나 경연에서 승리한것은 다섯번뿐이였다. 새로운 사상을 담고 대담한 시도를 한 그의 비극들은 당시에는 호평을 받지 못하였으나 후세에 이르러 높은 평가를 받게 되였다. 그는 말년에 마께도니아왕 아르께라오스의 초빙을 받고 갔다가 그곳에서 객사하였다.

에우리피데스는 많은 비극작품을 썼으나 그중에서 남아있는것은 《메데야》, 《안드로마케》, 《헤카베》, 《힛포류토스》, 《헬레네》, 《오레스테스》, 《아울리스의 이피게네이아》, 《헤라클레스의 후예》, 《미친 헤라클레스》, 《이온》, 《페니키아의 녀자》를 비롯한 19편뿐이다.

에우리피데스의 창작적특징은 신화와 전설을 취급하는데서 날로 격화되는 사회적모순을 반영하여 그들의 생활을 인간적으로 해석하려고 시

도하고 개인의 감정과 정열, 내면세계를 깊이 파고든것이다.

막다른 처지에 이른 녀성의 심리를 추구한 《헤카베》, 트로야왕자의 안해를 죽이려고 하는 스파르타왕 메넬라우스와 그 딸들의 비렬성과 간악성을 보여준 《안드로마케》 등에는 에우리피데스의 비극의 특징이 잘 반영되여있다.

에우리피데스의 비극작품들은 개인주의적경향과 종교적색채가 강한 제한성을 가지고있으나 신화와 전설에 기초한 그리스비극을 생활에 접근시키고 사회비판적경향을 강화하였으며 인간의 심리를 깊이 해부하고 극구성과 음악, 합창대의 리용 등에서 새로운 경험을 보여준것으로 하여 유럽비극발전에 큰 영향을 주었다.

에우리피데스의 대표작은 《메데야》이다.

《메데야》

비극 《메데야》(B. C. 431)는 보물 황금양털을 구하려 모험의 길에 오른 《아르고나우타이》(《아르고》선 항해자들)의 원정에 대한 그리스신화의 후날이야기를 현실과 결부시킨 작품이다.

비극에서 녀주인공 메데야는 동방의 나라 콜키스의 왕 아이에테스의 딸이다. 그는 태양신 헬리오스의 손녀이고 마녀 키르케의 조카이며 숙모와 마찬가지로 마술에 능하고 약초에 대한 지식이 높다.

메데야는 자기 나라에 황금양털을 구하러 온 그리스의 장수 이아손을 도와 보물을 손에 넣게 해주었으며 그의 안해가 되여 그리스의 도시 코린트에서 살게 된다. 그들사이에 두 자식이 태여난다.

그런데 코린트왕 클레온이 이아손을 사위로 삼고 왕위를 계승시키려는 의향을 비치자 이아손은 메데야를 배반하고 왕녀와 결혼하는데 동의한다. 클레온왕은 메데야보고 두 아이를 데리고 당장 떠나갈것을 명령한다.

분노한 메데야는 하루동안의 여유를 얻은 후 복수하기 위해 독약을 묻힌 옷을 신부에게 선물로 보낸다. 그 옷을 입은 신부와 그를 구원하려고 옷에 손을 댄 부왕이 둘 다 잘못된다. 급히 달려온 이아손을 조소한 메데야는 두 자식까지 죽이고 룡이 끄는 수레를 타고 날아가버린다.

작품은 버림받은 녀자와 안해를 버린 남자의 심리를 추구하면서 당대 사회의 악을 비판하고 녀성들의 비참한 처지를 동정하였다. 작품은 억압받은 녀성의 사랑이 증오로 변하고 복수의 길로 나가게 되는 과정을 생동하게 형상했으며 녀주인공의 행동을 신의 섭리로가 아니라 인간의 리지적인 행위로 묘사하였다.

《메데야》는 고대그리스비극들중에서 걸작의 하나로 알려져있다.

희극의 발생, 아리스토파네스의 희극

희극의 발생

희극은 비극보다 50년정도 뒤늦게 발생하여 B. C. 486년에 처음으로 디오니쏘스축전에 등장하였으며 역시 경연형식으로 승부를 겨루었다.

희극을 의미하는 그리스어 《코모이디아》는 《코모스의 노래》라는 뜻이다. 《코모스》란 술에 취하여 소동을 피우며 돌아치는 군중을 가리키는 말이다.

코모이디아는 디오니쏘스축전의 비공식적인 유흥놀이와 관련되여있는것으로 보고있다. 축전의 유흥부분에서는 쾌활하고 해학적인 농촌청년들의 자원적인 행렬이 있었는데 이들은 술에 취한채 유쾌하게 어리광을 피우면서 노래를 불렀다고 한다.

이러한 쾌활한 민속놀이에 기초하여 먼저 풍자극의 한 형태인 미모스극이 발생하였다. 미모스극은 일반적으로 생활풍속적인 또는 신화적인 소재에 의거하였다. 미모스극에서는 어리광대적수법들이 다양하게 리용되였으며 흔히 중심인물의 독백대사에 부차적인물의 간단한 응답이 배합된 형태와 혹은 대사없이 동작만으로 진행되는 독자극형식을 취하였다.

고대그리스희극에서 대표적작가는 희극의 아버지로 불리우는 아리스토파네스이다.

아리스토파네스의 희극

아리스토파네스(B. C. 445년경—385년경)가 활동한 시기는 그리스에서 펠로폰네스전쟁(B. C. 431—404)이 한창 진행되던 때이고 아테네에서 페리클레스가 죽고 호전적인 정치가 클레온이 정권을 쥐고있던 때였다. 전쟁이 장기화되고 그로 인한 부담과 고통이 커지자 아테네사람들속에서는 불만이 증대

되여갔다. 이러한 속에서 아테네가 스파르타에 패전하는 사태가 빚어졌다. 그리하여 아테네도시국가의 노예소유제적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하게 되였다.

이러한 시기에 아테네교외에서 태여나(그의 출신은 자유민으로 짐작되고있다.) 극작가의 조수생활을 거쳐 B.C.427년부터 희극경연에 참가하였고 40여년동안 활동한 아리스토파네스는 당시 자기의 작품들에 아테네의 사회생활을 생동하게 반영하였다.

그가 쓴 작품제목이 44편이나 전해지고있으나 전문이 남아있는것은 《아카르나이사람들》, 《구름》, 《새》, 《녀자들의 평화》, 《녀성의회》, 《개구리》를 비롯한 11편뿐이다.

아리스토파네스는 정의감과 애국심을 가진 보수적인 평화주의자의 립장에서 당시의 극단적이고 호전적인 정치가들과 사상가들을 야유하였으며 정치, 철학, 교육, 문학, 사회사상 등 여러 분야의 문제들을 풍자, 조소, 희화하였다.

희극 《아카르나이사람들》(B.C.425)은 스파르타의 침입으로 농경지와 과수원이 못쓰게 되고 곤난에 처한 아테네농민들의 생활을 통하여 호전적인 통치자들을 비난하고 평화를 주장하였으며 희극 《구름》(B.C.423)은 유명한 관념론철학자 쏘크라테스를 직접 등장시켜 당시에 류행한 신식교육과 궤변철학을 풍자한 작품이다.

아리스토파네스의 반전평화애호적인 립장은 특히 희극 《녀자들의 평화》(B.C.411)에서 뚜렷이 표현되였다.

희극의 무대는 아테네의 아클로폴리스(산성)성문앞이며 사건의 중심은 스파르타와의 전쟁을 중지시키고 화해하게 하기 위한 아테네녀성들의 활동이다.

류씨스트라테가 이끄는 아테네의 녀성들은 남자들에게 일체 곁을 주지 않음으로써 전쟁을 끝내고 화해를 이룩하기로 결정한다. 그들은 아클로폴리스를 점령하고 롱성투쟁을 벌리며 그곳에 보관되여있는 전쟁자금도 꺼내가지 못하게 한다.

그리하여 전쟁자금을 꺼내려고 담판하러 온 관리도 실패하고 처를 만나러 온 남자들도 소원을 이루지 못한다. 녀자들속에서는 자체의 투쟁을 강화하여 모두가 한결같이 버티여내도록 한다.

한편 그들은 스파르타의 녀자들과도 내통하여 자기들의 투쟁에 합세하도록 함으로써 이에 견디지 못한 스파르타남자들이 먼저 사신을 파견하여 화해를 제기하고 여기에 아테네측이 동의함으로써 드디여 전쟁이 끝난다.

희극은 위정자들의 무능성과 부패성, 비행을 신랄히 풍자하였으며 전쟁을 반대하고 평화를 바라는 아테네시민들의 지향과 념원을 생동하게 반영하였다.

아리스토파네스의 희극작품들은 정치적립장에서 온건하고 보수적이며 노예소유자적민주주의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한 제한성과 구성이 째이지 못하고 전반부와 후반부가 조화를 이루지 못하며 인물성격이 비슷한 예술적약점을 가지고있다. 그러나 B.C.5세기말 —4세기초 아테네의 정치생활과 사회생활의 이모저모를 풍자적웃음과 과장의 수법을 통하여 생동하게 그려내고 희극창작기교를 높인것으로 하여 유럽희극의 발전에 큰 영향을 주었다.

2. 고 대 로 마 문 학

1) 선행한 고대그리스문학의 경험을 본받아 새롭게 발전한 고대로마문학

고대로마문학이란 고대국가인 로마제국시기에 로마사람들이 라틴어로 창조한 문학을 말한다. 라틴어로 썼다고 하여 라틴문학이라고도 한다.

고대로마문학의 력사는 B. C. 3세기부터 A. D. 5세기까지의 시기를 포괄하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동서고금의 력사를 보면 침략자들은 언제나 다른 나라를 정복하고 영원히 지배하려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러나 침략자들의 성공과 지배는 다 일시적인것이였으며 그들은 멸망의 운명을 면치 못하였습니다. 한때 구라파와 아세아, 아프리카의 여러 지역을 정복하고 〈번영〉을 자랑하던 고대의 로마제국도 멸망하고말았습니다.》

로마는 원래 이딸리아중부에 있던 소도시에 불과하였다.

그러던것이 B. C. 3세기에 남부로 세력을 뻗쳐 그곳에 있던 그리스식민지들을 통합하고 온 이딸리아땅을 통일하여 노예제공화국을 수립하였다. B. C. 1세기에는 황제가 통치하는 제국으로 되였으며 그 판도가 소아시아와 북부아프리카에까지 확대되여 강대한 나라로 되였다. 로마의 력사는 5세기(475년)에 게르만족에 의하여 서로마제국이 멸망될 때까지 계속되였다. 그후에도 동로마(비잔티아)에 의하여 그 명맥이 유지되였으나 그 시기는 로마력사와 구분되고있다.

로마문학의 력사를 흔히 공화정시기와 제정시기로 구분하고있다.

공화정시기의 로마문학

B. C. 6세기부터 B. C. 1세기말까지 로마는 귀족노예소유자공화국으로서 소수의 귀족노예소유자들에 의하여 통치되였다. 귀족노예소유자들은 정복전쟁을 끊임없이 벌려 유럽과 아프리카북부의 방대한 령토를 점령하고 토지와 노예들을 대대적으로 략탈하였다.

노예주들의 가혹한 압박과 착취는 대규모적인 노예폭동을 산생시켰다. B. C. 73년에 남부이딸리아에서 일어난 스파르타쿠스노예폭동을 그 대표적인 례로 들수 있다.

대규모적인 노예폭동과 함께 로마에 의하여 정복당한 지역의 몰락귀족과 로마귀족사이의 투쟁, 로마귀족과 평민들사이의 계급투쟁이 심각하게 벌어졌으며 중소노예주와 파산된 소농들의 리익을 대표하는 개혁파와 귀족적보수파사이의 투쟁도 날카롭게 벌어졌다.

반귀족노예주운동이 격화되자 로마의 귀족노예주들은 B. C. 1세기말에 공화제적통치형태를 군사독재정권과 군주제로 교체하였다. 그 이후시기의 로마력사를 제정(군주정치체제)시기로 부른다.

이러한 사회력사적배경밑에 로마문학이 발생발전하였다.

로마의 력사가 B. C. 6세기부터 시작되였음에도 불구하고 로마문학의 발생을 B. C. 3세기부터 보게 되는것은 라틴어로 씌여진 문학작품이 그때에 처음으로 나타났기때문이다.

그 이전시기에도 소도시 로마의 언어였던 라틴어로 씌여진 비문, 법령, 짧은 기록, 종교적가요들이 있었으나 그것들은 문학이라고는 할수 없는 것들이였다.

이러한 상태에서 B. C. 3세기에 남이딸리아의 그리스식민지들이 통합되고 B. C. 2세기에 그리스가 정복당하면서 로마사람들은 매우 발전된 그리스문화를 접하게 되였다. 이때부터 그리스문화는

로마문화의 기초를 이루게 되였으며 두 문화는 합류되기 시작하였다.

B.C.272년 남이딸리아의 그리스식민지가 함락되였을 때 포로로 로마에 끌려온 그리스인들속에는 리비우스 안드로니쿠스(B.C.284년경－204년경)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로마의 학교에서 그리스어를 가르치면서 호메로스의 서사시 《오듀쎄이아》를 라틴어로 번역하였다.

그후 초기로마문학계의 대표적시인인 엔니우스(B.C.239－169)가 20편의 비극과 2편의 희극을 쓴 외에 로마력사를 다룬 서사시 《년대기》를 창작함으로써 처음으로 라틴어로 된 로마문학작품이 나오게 되였다. 이로 하여 그는 라틴문학의 아버지로 불리우게 되였다.

로마의 극문학을 자기 발전의 궤도에 올려놓는데 기여한것은 희극작가 플라우투스였다. 그는 그리스희극을 섭취하면서도 자기 나라의 특성에 맞는 특색있는 희극들을 내놓았다. 그의 뒤를 이어 테렌티우스가 글을 만드는 기교에서 솜씨를 나타내여 로마의 희극을 더욱 발전시켰다.

B.C.2세기까지 로마의 산문문학에서는 로마산문의 아버지로 불리우는 큰 카토(B.C.234－149, 아들인 작은 카토와 구별하기 위하여 이렇게 부르고있다.)가 알려져있다.

로마문학의 력사에서 중요한 시기로 된것은 공화정말기인 B.C. 1세기 전반기이다. 이 시기에 유명한 시인 루크레티우스와 카툴루스(B.C.84년경－54년경)가 활동하였다.

그들은 그리스와 알렉싼드리아의 시에서 영향을 받고 그것을 본보기로 자기의 독자적인 경지를 개척하여 로마의 시문학을 발전시켰다. 특히 루크레티우스의 철학적서사시 《사물의 본성에 대하여》는 문학사적의의가 크다. 카툴루스는 짧은 시에서 기교를 나타내였다.

이 시기 산문을 대표하는것은 키케로와 케자르이다. 그들은 작가가 아니라 정치가, 군인, 웅변가들이고 서로 적수였다. 키케로는 수많은 저술과 연설에서 라틴문장을 련마함으로써 고전라틴문학의 귀감으로 간주되게 되였으며 케자르는 《갈리아전쟁기》를 비롯한 저술들에서 독자적인 문체와 힘있는 표현을 씀으로써 라틴산문발전에 영향을 주었다.

이들과 함께 건국시기부터 아우구스투스황제까지의 력사를 다룬 《건국이후의 로마사》 142권을 쓴 리비우스, 그후 네로황제의 죽음까지의 력사를 취급한 《년대기》의 필자 타키투스, 수많은 서한들에서 단문, 대구, 경구를 자유롭게 구사한 세네카 등이 로마의 산문발전에 이바지하였다.

제정시기의 로마문학

B.C.1세기말에 로마에서는 공화정치가 붕괴되고 황제의 독재정치가 실시되는 제정(군주정치체제)이 확립된다. 그 첫 황제가 옥타비아누스(아우구스투스)였다. 로마는 제정으로 이행한 다음 일시적으로 번영하였으나 다시 쇠퇴의 길에 들어섰다. 2세기 후반기에 이르러 로마제국은 심각한 위기를 겪게 되였으며 5세기말에는 노예주들을 반대하는 노예들과 평민들의 투쟁이 앙양되고 로마에 대한 고트족의 침입이 계속되였다.

제정초기 로마문학에서는 여러명의 시인들이 배출되였다. 그중에서도 베르길리우스, 호라티우스, 오비디우스가 대표적이다.

베르길리우스는 《몰가》, 《농사시》에 이어 로마건국신화를 소재로 한 장편서사시 《에네이스》(11년동안 창작)를 창작함으로써 라틴서사시의 고전을 마련하였다.

베르길리우스의 서사시와 견주는 라틴서정시의 고전으로 된것은 호라티우스의 《서정시집》이였다. 그의 《시론》도 알려져있다.

오비디우스는 《사랑의 기교》와 같이 사랑의 희롱을 노래하였지만 그리스신화를 로마식으로 가공한 《변형이야기》로써 후세에 영향을 주었다.

1－2세기의 로마문학사에 흔적을 남긴것은 시문학에서 풍자시인 페르씨우스, 잃어진 공화정과 자유를 노래한 서사시인 루카누스, 《이소프우화》의 라틴어번역을 시도한 파에도르스, 풍자시인 유베나리스 등이다.

산문에서는 앞에서 지적한 세네카(수사학자인 아버지 세네카와 구분하기 위해 작은 세네카로 불렀다.), 풍속이야기 《싸티리콘》의 작자 페트로니우스, 수사학자 쿠인티리아누스 등이다. 세네카와 페트로니우스는 폭군 네로의 희생자로 되였다.

소설형식의 《황금하늘소》를 쓴 작자 아플레이우스도 이 시기에 활동하였다. 이 작품에 들

어있는 삽화 《쿠피도와 프슈케이야기》(일명 《사랑과 령혼》)는 후세에 널리 알려졌다.

2세기말부터 5세기까지는 로마제국이 정치적혼란에 빠져 점차 쇠퇴되여가던 시기였다.

이 시기의 이름있는 시인으로는 클라우디아누스로 알려져있다.

고대로마문학은 476년 서로마의 멸망으로 종말을 고하였다.

2) 극문학

로마문학의 유산가운데서 가장 이른 시기의 것은 극문학 특히 희극이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극문학예술의 한 갈래로서 희극이 가지는 본질적특성은 웃음을 통하여 사람들을 교양한다는데 있습니다.》

로마의 희극은 고대의 민간명절가무와 민간희극, 그리스희극의 영향밑에 공화정시기 중기에 발생한 후 한동안 활발히 창작공연되였다.

고대그리스에서 비극이 먼저 발생한것과는 달리 로마에서 희극이 먼저 발생하고 보급되게 된것은 희극에 대한 지배층의 요구가 높았기때문이였다.

끊임없는 략탈전쟁을 통하여 수많은 재부와 노예들을 축적하여 부유해진 로마의 노예주귀족, 기사들은 사치한 생활을 하면서 오락을 중시하였으며 희극의 창작과 공연을 장려하였다.

로마의 희극은 그 대부분이 그리스희극을 모방한것이였다. 따라서 그 내용과 형식에서 모방적인 성격이 강하였다.

로마의 희극은 그 주제에서 그리스희극에서처럼 당대의 중요한 사회정치적문제를 다루지 못하고 세태생활을 많이 취급하였으므로 오락적이고 흥미본위적인 경향이 강하였으나 반면에 로마의 사회생활을 반영하고 부유한 사람들을 풍자하면서 재간있는 노예들을 긍정하는 등 민주주의적경향도 보여주었다.

로마의 희극은 희극의 형식을 더 세련시키고 발전시킴으로써 그리스희극보다 후세 유럽의 희극발전에 준 영향이 더 컸다.

로마에서는 희극과 함께 비극도 창작되였으나 희극만큼 발전하지 못하였으며 그리스비극의 모방에서 더 벗어나지 못하였다.

로마의 극작가들로서는 희극에서는 플라우투스와 테렌티우스, 비극에서는 세네카를 들수 있다.

그중에서도 플라우투스와 테렌티우스가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있다.

플라우투스의 희극

티투스 막키우스 플라우투스(B. C. 254년경－184)는 이딸리아 중부의 작은 도시 싸르씨나의 가난한 집안에서 태여났다. 그는 로마에 올라가 연극소도구를 만드는 일도 하고 제분소에서 일하기도 하면서 그 여가에 희극을 쓰기 시작하였는데 그것이 좋은 평을 받아 이름을 날리게 되였다.

그의 작품수가 130편이나 된다고는 하나 확인된것은 21편뿐이다. 그중 20편이 거의 전문 그대로 남아있다. 그러나 창작 및 공연년대는 고증되지 못하였다. 그가운데서 《포로》, 《보물단지》, 《피많은 노예》, 《허풍쟁이병사》, 《유령》, 《안피트루오》 등 작품들이 잘 알려져있다.

《포로》는 전쟁포로교환사건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희극적인 이야기이다. 아에트리아(도시)의 늙은 시민 헤기오는 아리스(도시)와의 전쟁에서 적측에 포로된 맏아들 필로포레무스때문에 걱정이 많다. 그는 자기 아들과 교환할수 있는 사람을 얻으려고 적측포로를 노예로 사들인다. 그가 지목한것은 두명의 포로노예 필로클라테스와 튠달로스였다. 그들은 서로 주인과 몸종의 관계였다.

도주계획을 짠 두 포로는 서로 옷을 바꾸어입고 주종관계를 숨긴 다음 헤기오에게 한명이 인질로 남고 한명은 아리스에 가서 그의 아들을 찾아오겠다고 제기한다. 몸종인 튠달로스(실은 주인인 필로클라테스이다.)가 떠나간 후 헤기오는 남아있는 포로를 확인하기 위해 동생의 집에 가서 그 사람을 안다는 포로 한명을 데리고 온다. 그의 증언으로 남아있는 포로 필로클라테스가 가짜라는것이 밝혀진다. 분노한 헤기오는 노예들을 시켜 그를 묶어놓고 죽여버리겠다고 야단친다.

이러한 때에 기쁜 소식이 전해진다. 헤기오의 맏아들과 그를 데리러 갔던 포로 그리고 헤기오의 둘째아들을 4살때 유괴하여 도망쳤던 노예가

함께 항구에 도착했다는것이다. 그 노예가 그때 헤기오의 둘째아들을 아리스에 가서 팔아넘겼는데 그를 사들인 사람이 필로클라테스의 아버지였다는것이다. 그는 사들인 노예를 아들의 몸종으로 삼았었다.

그리하여 튠달로스가 필로포레무스의 동생이며 헤기오의 둘째아들이라는것이 판명되여 모두가 기쁨에 넘친다.

작품은 종막에서 배우일동이 《이 연극은 미풍량속을 장려할 목적으로 만들었다.》고 한 대사에서와 같이 라틴어입말을 재치있게 구사하여 희극적웃음으로 로마의 세태풍속을 생동하게 반영하였다. 그러나 작품에서는 노예주와 노예사이의 계급적대립이 무마되고 현실이 미화되고있다.

《보물단지》는 우연히 발견한 보물단지를 놓고 안절부절 못하는 늙은 린색한을 풍자한 희극이다.

늙은 린색한 에우클리오가 자기 집 마당에서 우연히 보물이 들어있는 작은 단지를 발견하게 된다. 그는 그것을 곧 묻어버리고 일체 내색을 하지 않지만 누가 훔쳐가지 않을가 하고 늘 걱정하며 단지를 묻어놓은 땅우에서 먹이를 쫓던 닭까지 죽여버린다.

이런 때 그의 딸 에듈리아가 청년 류코니데스에 의하여 유괴되는 사건이 일어난다. 한편 그 청년의 삼촌이 딸을 자기 안해로 달라고 청혼해온다.

령감은 보물단지가 있다는것이 알려져 이런 일이 벌어진것으로 오산하고 단지를 여기저기 옮겨놓는데 그 비밀을 알게 된 류코니데스의 하인이 단지를 훔쳐낸다. 류코니데스는 그 단지를 돌려주는 대신 그 집 딸과의 결혼을 승낙받는다.

희극에서는 보물단지를 얻은 후 주인공이 그것을 잃을가봐 낮에도 온종일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밤에도 자지 못하며 사람들이 자기를 부자로 생각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자그마한 소비마저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린색한 수전노의 형상을 생동하게 그려냈다. 이 에우클리오의 형상은 후세에 몰리애르의 희극 《수전노》의 소재로 되였다.

희극 《허풍쟁이병사》에서는 아테네의 한 청년의 애인을 허풍치기를 하여 빼앗았다가 지혜많은 노예의 꾀에 넘어가 도로 빼앗기고마는 한 허풍쟁이직업군인을 풍자하였다.

플라우투스의 희극은 그리스희극을 단순하고 기계적으로 모방한것이 아니라 로마식으로 개작한것이였다. 그는 같은 줄거리를 리용하면서도 당시 로마사람들의 요구에 맞게 보다 행동적인 극으로 만들었으며 기교를 피운 복잡한 줄거리와 신선하고 활기있는 대화, 자유분방한 표현을 쓰고 운문과 운률을 극작품에 맞게 신축성있게 구사한것 등 새로운 특징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특성으로 하여 플라우투스의 희극은 문예부흥기이후 유럽의 희극작가들에게 큰 영향을 주었다.

테렌티우스의 희극

첫 흑인작가로 알려져있는 푸블리우스 테렌티우스 아페르(B. C. 195년경—159)는 북아프리카태생이였다.

그는 어릴 때 노예로 로마에 끌려갔으나 총명하고 재간이 있는것으로 하여 주인의 마음에 들어 교육을 받고 해방되였다. 그후 그는 귀족지식인 스키피오의 문학쌀롱에 출입하면서 희극창작을 권고받고 극작품을 쓰기 시작하였으며 말년에 그리스에 갔다가 객사하였다.

그의 대표작인 희극 《안드로스에서 온 처녀》는 아들의 결혼문제와 관련하여 한 가정에서 일어난 사건을 다루고있다.

아테네에 사는 부유한 로인 씨모에게는 품행이 단정한 판필로스라는 아들이 있었다. 소문을 듣고 같은 도시의 부호 클레메스가 그를 사위로 삼겠다고 혼담을 제기해온다.

아버지 씨모는 대환영이나 아들 판필로스는 난처한 처지에 빠진다. 그는 이미 이웃에 사는 안드로스에서 온 처녀 글류케리움과 정분이 나 임신시켰던것이다.

그는 기지많은 노예의 도움으로 혼담을 질질 끌었는데 그만 그 처녀가 해산하는 바람에 일이 탄로되여 혼담이 깨지고만다.

노발대발하여 날치는 아버지, 당황망조한 아들…

이런 때 안드로스에서 사람이 찾아와 글류케리움이 언니의 재산을 횡령했다고 신소한다. 씨모와 클레메스가 따져묻는 과정에 글류케리움이 원래 안드로스태생이 아니라 어릴 때 아테네에서 끌려왔다는것, 실은 그가 어릴 때 잃어졌던

클레메스의 딸이라는것이 판명된다.

그리하여 아버지와 딸이 기쁨속에서 상봉하고 클레메스는 글류케리움을 판필로스한테 시집보내게 되여 만사가 풀린다.

희극의 소재는 그리스의 희극작가 메난드로스의 두 작품 《안드로스에서 온 처녀》와 《페린토스의 처녀》에서 취한것이다. 작가는 이 두 희극을 절충하여 작품을 만들었다.

희극의 줄거리는 매우 평범하고 단순하며 별다른 특색이 없다. 다만 갈등의 장본인인 안드로스에서 온 처녀가 무대에 한번도 등장하지 않고 배경인물로 남아있으며 무대에는 제각기 자기 리해관계에 따라 움직이는 인물들이 우왕좌왕함으로써 희극적웃음을 자아낼뿐이다.

그렇지만 등장인물이 플라우투스의 희극에서 형상된 인물과 같이 희화되거나 과장되지 않고 자연스러우며 플라우투스의 희극에서 볼수 있는 기지와 활기, 조잡한 광대극적요소가 없고 문체가 우아하며 언어가 잘 다듬어지고 격언화된것과 같은 특징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특징으로 하여 테렌티우스는 극을 만드는 기교를 발전시킨 극작가로 되였으며 후세 유럽의 희극발전에 큰 영향을 주었다.

3) 시문학

로마의 시문학은 극문학보다 좀 뒤늦게 공화정말기인 B.C.1세기경부터 발전하기 시작하였다.

그보다 이른시기의 시인으로서 풍자시의 시초로 간주되고있는 루킬리우스(B.C.180년경－102년경)가 있으나 작품이 남아있지 않다.

로마의 시문학이 본격적으로 발전하게 된것은 B.C.1세기에 활약한 서사시인 루크레티우스때부터이다. 그의 뒤를 이어 제정시기의 시인 베르길리우스에 이르러 서사시가 더욱 세련되였다.

서사시문학을 대표하는 시인은 이 두사람이고 서정시문학을 대표하는 시인은 호라티우스와 오비디우스이다.

그밖에도 카툴루스(B.C.84년경－54년경), 프로페르티우스(B.C.50년경－16년경), 티불루스(B.C.48년경－19년경), 유베날리스(67년경－130년경), 루카누스(39년－65년)를 비롯한 여러 시인들의 이름이 전해져있다.

루크레티우스

티투스 루크레티우스 카루스(B.C.94년경－5년경)는 공화정시기 로마의 대표적인 서사시인이며 철학가이다.

그의 생애에 대한 기록은 남아있지 않다. 전하는데 의하면 로마의 부유한 가정에서 태여나 정계에는 나서지 않고 고대그리스의 시인, 철학가들의 책을 읽는데 열중하였다고 한다. 그러다가 약을 지나치게 쓴 후과로 정신착란이 일어나 44살에 자살하였다고 한다.

그의 창작유산은 철학적서사시 《사물의 본성에 대하여》(전 6권) 하나뿐이나 이 작품으로 하여 그는 문학사와 철학사에서 확고한 자리를 차지하게 되였다.

그는 《헥사메트로스》(6각운)라고 하는 서사시체로 씌여진 이 작품에서 고대그리스의 유물론철학가 데모크리토스와 에피쿠로스의 원자론에 기초하여 비교적 전개된 유물론사상을 내놓았다.

이 시에서 그는 신이 세상만물을 좌지우지하는 지배자라는 전통적인 종교적관념과 미신을 타파하고 우주는 그 모든것이 원자로 구성되여있다는 유물론적견해를 제기하였다. 그는 이러한 견해에 기초하여 존재는 신의 의지에 의하여 무로부터 생겨날수 없으며 무로 돌아가지 않는다, 그 어떤 초자연적인 힘이 작용한다 하여도 아무것도 없는데서는 사람, 집짐승 등이 생겨날수 없다고 하면서 자연의 모든 현상을 유물론적으로 설명하려고 하였다.

그는 철학이 일반적으로 관념론적철학의 길을 걷고 종교의 신비주의적경향에로 기울어지고있을 때 이 철학시를 내놓음으로써 데모크리토스와 에피쿠로스의 원자론적유물론을 고수하고 발전시켰으며 자유민 민주파의 립장에 서서 로마노예소유자적민주주의를 옹호하였다.

서사시는 힘있는 시적서술과 뛰여난 시적표현, 락천적기백, 고조된 음조로 특징적이며 특히 생동한 예술적비유로 추상적인 철학적개념을 알기 쉽게 표현하였다. 례를 들어 초원에서 방목하는 양떼를 정지된 물체라고 한다면 그 양떼를 구성한 하나하나의 양을 운동하는 원자라고 할수 있다는것이다.

루크레티우스의 서사시는 생동하고 풍부한 시적형상으로 고대유물론을 시화하고 그 전통을 후세에 전함으로써 문학사와 철학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였다.

베르길리우스 푸블리우스 베르길리우스 마로(B. C. 70－19)는 고대로마문학계에서 가장 이름난 시인이다.

전기에 의하면 그는 이딸리아북부 만또바부근의 비천한 가정에서 태여났다. 그의 아버지는 도자기공 또는 농민이였다고 한다. 그는 끄레모나, 밀라노 등지에서 기초교육을 받은 후 로마에 올라가 철학, 수사학, 의학, 법학 등을 배웠으나 도중에 뜻을 바꾸고 시인이 되였다.

베르길리우스의 시창작은 루크레티우스의 철학시와 카툴루스의 서정시의 영향밑에 시작되였다. 그는 재능있는 시인으로서 일찌기 문단의 인정을 받았으며 특히 33살에 쓴 《목가(부콜리카)》(B. C. 37)가 당시의 로마황제 아우구스투스의 눈에 들어 그때부터 황제의 비호를 받게 되였다.

10편의 짧은 시로 이루어진 이 작품은 농촌의 아름다운 자연속에서 사는 목동들의 목가적인 생활을 노래한 시이다. 시는 고대그리스의 전원시인의 시를 모방한것이지만 그속에 당대 현실을 진실하게 반영한 점이 적지 않으며 서정시창작기교를 세련시킨것으로 하여 고대로마의 서정시발전의 새로운 단계를 열어놓았다.

시인은 고대그리스시인 헤시오도스의 교훈시 《로동과 나날》을 모방한 시 《농사시(게오르기카)》(전 4권, B. C. 30)에서 낟알의 경작과 포도재배, 목축과 양봉 등 소토지소유자들의 생활과 농사일에 대하여 노래하였다. 그러나 시에서는 자연과 농사일에 대한 사랑의 감정이 표현된 반면에 농촌생활이 현실적인 사회적관계와 유리되여 목가적으로 노래된 약점을 드러내였다.

시인은 그후 10여년을 장편서사시 《에네이스》(전 12권) 창작에 바쳤다. 서사시는 시인의 사망으로 미완성작품으로 남았다.

《에네이스》 《에네이스》(이딸리아어발음으로는 《아에네이쓰》)라는 제목은 《에네아스에 대한 노래》라는 뜻이다.

아우구스투스황제에게 바친 이 서사시는 신화와 전설에 기초하여 녀신의 아들 에네아스가 트로야멸망후 제2의 트로야 즉 로마를 건국할 천명을 지니고 오래동안의 방랑과 간난신고끝에 로마건국의 기초를 쌓는 과정을 노래하고있다.

신화, 전설에 의하면 에네아스는 트로야의 왕 안키세스와 미의 녀신 비너스(아프로디테)의 아들로서 트로야전쟁에 참가했다가 트로야함락후 오랜 세월의 방랑끝에 이딸리아땅에 표착하여 로마건국의 시초를 열어놓았다고 한다.

서사시의 전반부(1－6권)는 주인공의 7년동안의 오랜 류랑에 대한 이야기로서 명백히 《오듀쎄이아》의 로마판이다.

트로야가 그리스군에 의하여 함락된 후 배를 타고 겨우 탈출한 에네아스일행은 도중에 폭풍을 만나 난파당하고 카르타고의 해안에 표착하여 녀왕 디도의 환대를 받는다. 표류중의 사건은 그가 녀왕에게 이야기하는 식으로 펼쳐진다. 이것도 《오듀쎄이아》와 같은 수법이다. 그곳에 머물러있는 동안에 두사람은 서로 사랑하는 사이가 되나 신의 계시를 어길수 없었던 에네아스는 녀왕의 간청을 물리치고 밤중에 몰래 배를 타고 떠나간다. 뒤늦게 이를 알게 된 녀왕은 그를 저주하던 나머지 스스로 불속에 몸을 던져 자결한다.

서사시의 후반부(7－12권)는 이딸리아상륙후 원주민과의 치렬한 싸움에 대한 이야기인데 《일리아스》를 많이 모방하고있다.

이딸리아에 상륙한 에네아스는 라티움왕 라티누스와 루투리족의 두령 투르누스의 련합군과 맞서 싸우게 된다. 투르누스는 라티누스의 딸을 에네아스에게 빼앗길가봐 강경하게 저항한다. 하늘에서는 에네아스를 지지하는 신들과 그를 반대하는 신들사이의 갈등이 생긴다. 신들의 회의에서 유피테르(제우스)가 승패를 운명에 맡긴다. 싸움끝에 끝내 에네아스가 투르누스를 타승한다.

서사시는 그 소재와 시형식을 호메로스의 두 서사시에서 모방하고 라틴어로 옮긴것이지만 로마식으로 개작하고 세련시켰다.

우선 그 내용에서 로마식색채가 진하게 나타나고있다. 시인은 리상적인 주인공 에네아스를 로마황제의 조상으로 내세움으로써 로마황제를 신성시하고 왕제정권을 옹호하는 동시에 고대이딸리아사람들의 애국심을 고취하려고 시도하였다. 서사시에서 신의 계시에 따라 로마건국 위업을 수행한 신의 아들 에네아스를 로마황제의 조상으로 만들어놓은것은 로마건국의 력사를 장식하고 황실의 영광을 찬양하려고 한것

이다.

서사시가 로마노예소유자국가가 공화정시기로부터 제정시기로 넘어간 초기에 창작되였음에도 불구하고 날로 첨예화되는 사회계급적모순과 유리되여 로마제국을 리상화하고 무제한한 독재권력을 틀어쥔 황제를 찬양한것은 시인자신의 계급적제한성에서 나온것이다.

그러나 서사시는 그 형식이 매우 세련되였다.

서사시는 11년동안 창작된것으로 하여 예술적으로 높은 수준에 이르고있다.

서사시는 전반부에서 비장성과 극적긴장성, 고전적인 균형미, 세련된 시형식, 화려하고 류창하며 운률적인 시어 등 고대그리스서사시에서는 볼수 없었던 새로운 예술적특성을 보여주고있다.

이러한 특징을 가진것으로 하여 서사시는 후세 유럽시문학발전에 큰 영향을 주었다.(단떼가 서사시 《신곡》에서 베르길리우스를 스승으로, 인생의 길잡이로 내세운 이야기는 널리 알려져있다.)

호라티우스

루크레티우스와 베르길리우스가 서사시에서 로마문학을 대표하는 시인이라면 호라티우스는 서정시에서 가장 이름난 시인이다.

쿠인투스 호라티우스 클락쿠스(B.C.65—8)는 베르길리우스와 동시대에 활약한 시인이다. 이딸리아남부에서 해방노예의 아들로 태여나 로마와 아테네에서 교육을 받은 호라티우스는 케자르가 암살되고 공화제옹호파와 군주제옹호파사이에 내란이 일어난 소란한 시기를 거쳐 제정이 확립되고 아우구스투스황제의 군주통치밑에서 한동안 평화가 깃든 시기에 시창작활동을 벌렸다.

그는 초기에 공화제옹호파에 속하여 브루투스가 이끄는 공화군의 장교로 되였으나 패전하여 숨어다니다가 군주제와 타협하였다. 재간있는 시인이였던 그는 베르길리우스와 친교를 맺고 그를 통해 당시의 세도가였던 황제측근의 대귀족 마에케나스의 비호를 받았으며 나아가 황제의 눈에 들게 되였다.

하지만 시인은 황제에게 비굴하게 아부아첨하는 어용시인으로 전락되지 않았다. 그것은 그가 황제가 마련해준 비서관자리를 마다하고 한생을 독신으로 지내면서 시창작에만 몰두한데서 볼수 있다.

이로부터 그의 시창작에는 해방노예의 아들로서의 평민적인 감정과 제정과 타협하고 대귀족의 비호를 받는 로마제국시인으로서의 감정이 모순속에서 혼합되여있다.

그는 《풍자시》(전 2권)에서 공화정말기와 제정초기 노예주귀족들의 부패타락한 생활과 그들속에서 심하게 나타난 허영심, 질투심, 명예욕 같은것을 풍자하고 시집 《에포디》(17편의 시를 수록)에서는 국내전쟁을 반대하고 평화로운 생활을 갈망하는 소소유자들의 념원을 표현하였다.

그런가 하면 《서정시집(카르미나)》(전 4권)과 같은 작품에서는 아우구스투스황제통치하의 로마의 평화로운 생활을 리상화하고 황제를 찬양하였다.

호라티우스가 높은 시창작기교를 발휘하여 내놓은 간결하고 우아하며 잘 다듬어진 서정시들은 라틴어의 최고봉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호라티우스의 창작유산으로 또한 유명한것은 《시론》이다. 이 글은 체계정연하게 정리된 문학론이 아니라 시인자신의 창작경험에 기초하여 문학작품의 소재와 언어, 운률, 구성, 창작에서의 모방과 독창성, 시인의 재능과 노력 등에 대한 견해를 서술한것이지만 로마문학사에서의 유일한 문학론으로서 후세에 큰 영향을 미쳤다. 17세기 프랑스의 고전주의작가들은 빨로의 번역을 통해 이 책을 알게 되자 그것을 자기들의 창작적규범으로 삼았다고 한다.

오비디우스

호라티우스와 함께 오비디우스의 이름도 잘 알려져있다.

푸블리우스 오비디우스 나쏘(B.C.43—A.D.17년경)는 해방노예의 아들인 호라티우스와는 달리 부유한 기사의 아들로 태여나 로마와 아테네에서 충분한 교육을 받고 재부와 기지, 뛰여난 기억력, 재치있는 사교술로 상류사교계의 총아로, 시인으로 되였다.

그는 《입에서 나오는 말이 스스로 시가 된다.》고 하는 재간있는 시인이였으나 《련애시집》, 《녀주인공들》, 《사랑의 기교》와 같은 작품들에서 쾌락주의적이며 련애지상주의적인 경향으로 나가 퇴폐적인 시인으로 되였다. 그

의 이러한 창작활동은 지나친 풍기문란을 통제하려고 한 아우구스투스황제의 시책에 대한 도전으로 간주되여 흑해연안의 도시 토미스(지금의 로므니아의 꼰쓰딴짜)에 추방되였으며 그곳에서 객사하였다.

오비디우스는 시인으로서보다 《변신이야기》를 통하여 후세에 그리스, 로마신화를 안내한 이야기작가로서 더 잘 알려져있다.

《변신이야기》(전 15권, 원명 《메타모르포쎄스》)는 약 200편의 변신(사람이 모습을 바꾸는것.)이야기를 담은 이야기시이다. 작품은 혼돈상태에 있던 하늘과 땅에 점차 질서가 잡히게 되였다는 고대그리스의 천지개벽신화로부터 시작되여 케자르의 넋이 하늘의 별로 변신했다는 로마전설로 마감짓는다. 작품에는 예로부터 많이 전해진 사람의 몸이 여러가지 동식물이나 무생물로 바뀌여졌다는 신화, 전설들이 집대성되여있다.

실례로 파에톤이 태양의 수레를 몰고 나갔다가 제우스의 노여움을 사 지상에 떨어져 죽으며 그 죽음을 슬퍼한 누이들이 뽀뿌라나무로 화한 이야기, 에코의 사랑을 거절한 나르키쏘스가 뽀뿌라나무로 화한 이야기, 데메테르녀신의 딸 페르쎄포네가 지하의 신한테 유괴당했다가 봄의 꽃으로 화한 이야기 등을 들수 있다.

여기에는 그리스신화에 기초한 작은 서사시풍의 이야기가 압도적으로 많고 거기에 로마의 신화, 전설, 바빌로니아의 전설 등이 첨부되여있다.

작품에 담긴 그리스, 로마신화의 소재와 그 시적환상은 후세 유럽문학에 영향을 주었다. 례를 들어 쉐익스피어의 이야기시 《비너스와 아도니스》(1593)도 이 작품에서 소재를 택한것이다.

4) 산문문학

고대로마문학의 발전력사에서는 극문학, 시문학과 함께 산문문학도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였다.

로마의 산문 역시 고대그리스의 산문과 마찬가지로 력사 및 정치산문으로부터 예술산문이 갈라지는 과정을 거쳐 발전하였다. 이 과정에 웅변(변론)산문, 력사산문, 서한체산문 등이 발전하다가 1~2세기에 이르러 예술산문이 출현하였다.

웅변, 력사, 서한체산문

로마의 산문에서 먼저 발전한것은 웅변(변론)산문이였다.

그것은 당시 웅변이 개인과 당파가 권력의 자리에 오르는 중요한 수단으로 되였기때문이다. 그들은 귀족원로원과 법정, 대중집회에서 높은 웅변술로 자신과 자기 당파의 주장과 정당성을 사람들에게 납득시켰다.

고대로마 웅변산문의 제1인자는 키케로였다.

키케로(B.C. 106—43)는 기사계층출신으로 원로원 의원, 집정관, 삼두정치의 한사람으로까지 출세하였다가 케자르파의 적수가 된것으로 하여 케자르가 암살된 후 안토니우스가 보낸 자객의 손에 살해당한 로마의 정치가이다.

철학에서는 절충주의의 전형적인 대표자였으며 정치에서는 공화정치말기 귀족공화제적보수파의 완고한 옹호자였던 키케로가 문학사에서 한자리를 차지하게 된것은 뛰여난 웅변술과 문장의 세련성때문이였다. 그는 라틴문장의 모범으로 간주되였다.

그는 《웰레스탄핵》, 《카틸리아탄핵》, 《의무에 대하여》, 《우정에 대하여》, 《국가에 대하여》를 비롯하여 57편의 웅변글과 900통이상의 서한을 남겼다.

뜻을 로련하고 재치있게, 명확하게 표현한 그의 산문은 엄격한 수사학적규칙에 의하여 구성되고 어휘를 잘 선택하였으며 비유, 풍자, 반복 등 여러가지 수단을 능란하게 구사한 설득력이 강한 문장으로서 이른바 키케로식문장으로 불리우게 되였다.

로마의 력사책은 처음 그리스어로 쓰이다가 점차 라틴어로 편찬되게 되였다. 제일 오랜 력사책인 큰 카토의 《기원사》는 잃어졌으나 케자르(영어로는 씨저, B.C. 101년경—44)가 쓴 8년간에 걸친 갈리아총독의 재임기간 보고서라고 할수 있는 《갈리아전쟁기》(7권)와 《내란기》(3권)가 전해지고있다. 이 책들은 간결한 표현으로 뜻을 잘 나타내고 평이한 서술로써 극적인 정황을 생동하게 그려보인것으로 하여 잘된 라틴문장의 하나로 간주되게 되였다.

로마의 력사가들가운데서 1인자로 알려진것

은 타키투스(55년경－115년경)이다. 그는 폭군 도미찌아누스황제 치하에서 원로원 의원, 국가법무관, 집정관, 소아시아속주 총독 등을 력임하였다. 그가 남긴 《력사》(14권)와 《넌대기》(18권)는 아우구스투스황제 사망후부터 도미찌아누스황제 사망까지의 로마제국의 력사를 년대기편찬원칙에 따라 서술한 책이다. 이 두 책은 예리한 관찰력과 랭철한 추리로 력사적인물과 사건의 중심을 잘 잡았을뿐아니라 인물과 사건을 생동하게 그려낸것으로 하여 중요한 자료로 되고 있다.

예술산문의 출현

로마에서 예술산문이 출현한것은 1～2세기이다. 로마의 예술산문으로는 전기작품과 이야기작품(소설로 보는 견해가 있다.)이 있다.

전기작품에서 대표적인것은 수에토니우스(69년경－160년경)의 《12황제전》(8권)이다. 케자르, 아우구스투스로부터 칼리굴라, 네로를 거쳐 도미찌아누스에 이르는 12명의 로마황제의 전기인 이 작품은 황실문서들에 기초한 풍부한 자료를 리용하여 공화정말기와 제정초기의 로마력사에 관한 구체적사실들을 수많이 전한것으로 하여 귀중한 사료로 되고있다.

로마의 예술산문발전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것은 이야기작품들인 페트로니우스의 《사티리콘》과 아플레이우스의 《황금하늘소》이다.

《사티리콘》의 작가로 전해지고있는 페트로니우스는 네로황제의 측근신하였던 페트로니우스 아르비테르(?－65)로 짐작되고있다.

원래는 장편이야기였으리라고 짐작되는데 지금까지 전해지고있는것은 15, 16권뿐이다. 주인공이 1인칭으로 서술한 이 책에는 한 청년이 벗과 소년노예를 데리고 남부이딸리아의 항구도시들을 돌아다니는 이야기를 담고있다.

고대의 이야기작품들은 거의다 사랑과 모험을 주제로 한 랑만적인 이야기를 취급하였으나 이 작품은 한 부자의 초대연이야기를 통하여 네로황제의 사치하고 부패타락한 생활을 풍자하고 당시 관리들의 무능과 부패, 시민들의 곤난한 처지 등을 보여주었다.

아플레이우스(123년경－?)는 로마의 속주였던 아프리카에서 태여났다. 그는 카르타고에서 변론과 수사학교원으로 있으면서 라틴어로 창작활동을 벌렸다.

그의 대표작인 소설 《황금하늘소》(원제목 《변신이야기》)는 마술약을 잘못 쓰고 하늘소로 변했던 주인공이 산적에게 붙잡힌것을 비롯하여 여러가지 봉변을 당하다가 녀신 이씨스의 꿈의 계시로 다시 인간의 모습으로 되돌아오는 이야기이다.

작품은 사람이 하늘소로 변신하는 민간설화와 루키아노스의 작품에 기초하였지만 그것을 재치있게 윤색하고 여러가지 삽화를 도입하였으며 이모저모로 당시의 현실을 반영하고 부정에 대한 풍자를 강화하여 독자들의 흥미를 끌었다.

작품에 삽입된 이야기들가운데서 유명한것은 《쿠피도와 프슈케》(일명 《사랑과 령혼》)이다. 아름다운 처녀 프슈케가 미의 녀신 비너스의 미움을 사 제물로 내던져지게 되였으나 사랑의 신 쿠피도에 의해 구원되는데 금지령을 어기고 그의 모습을 본것으로 하여 온갖 고생을 겪은 후 천상에서 결합된다는 이야기이다.

문학사가들속에서는 《사티리콘》과 《황금하늘소》를 고대소설로 보는 견해가 많다. 로마의 속주로 있던 시기 고대그리스에서도 롱고스(3세기)의 《다프니스와 클로에》, 헬리오도로스(3～4세기)의 《에티오피아이야기》를 비롯한 5편의 이야기작품이 소설로 간주되고있다.

이 작품들이 소설전단계의 이야기작품인지, 소설인지 하는 문제는 더 연구되여야 하지만 고대그리스, 로마시기에 이러한 류의 장편이야기작품(또는 소설)이 나오게 됨으로써 고대문학의 한폐지를 빛나게 장식하였다.

Ⅱ. 중세유럽문학

1. 종교적색채를 강하게 띤 중세유럽문학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력사상 자주성을 위한 피착취근로대중의 첫 진출이라고 말할수 있는 노예폭동과 그리고 중세기농민들의 반봉건투쟁으로 말미암아 노예제도나 봉건제도가 붕괴된것은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위한 투쟁에서 전진이였습니다.》

유럽에서는 노예폭동과 게르만인들의 침입으로 하여 476년에 서로마제국이 멸망하고 봉건제도가 수립됨으로써 고대력사가 끝나고 중세기가 시작되였다.

중세에 대한 개념

중세란 인류력사상 첫 계급사회였던 노예제도가 허물어지고 봉건제도가 형성되여 존재한 시대를 말한다.

유럽력사에서 중세라고 하면 476년 서로마제국의 멸망으로부터 1640년대 영국부르죠아혁명까지 약 1 200년기간을 말한다.

유럽에서 봉건사회의 형성과정은 500～600년이라는 오랜 기간을 걸쳐 완만하게 진행되였으며 그 시기는 나라와 지역에 따라 차이난다. 오늘의 프랑스, 도이췰란드, 이딸리아령토에 세워졌던 프랑크왕국에서는 칼(샤를만뉴)대제에 의하여 8～9세기에 봉건화과정이 진행되고 10세기에 가서야 세 나라가 갈라져나왔으며 브리타니아섬에서 봉건왕국인 영국이 형성된것은 9세기였다. 동유럽의 슬라브족들은 8세기말～9세기초에 봉건사회로 넘어갔으며 그가운데서 끼예브루씨(로씨야)가 10～11세기에 강력한 봉건국가로 등장하였다. 북유럽에서 봉건화과정이 시작된것은 훨씬 뒤늦은 11세기에 이르러서였다.

중세봉건사회에서 사회관계의 기본을 이룬것은 농노농민을 비롯한 피착취계급과 봉건지배계급사이의 계급적대립과 투쟁이였다. 고대인들은 오랜 투쟁끝에 마침내 노예제도를 허물어뜨렸으나 그것은 인민대중을 얽매여놓은 노예의 철쇄를 봉건의 사슬로 바꾸어놓았을뿐이였다.

유럽봉건사회에서는 봉건귀족들과 승려들이 정권과 생산수단을 독차지하였으며 엄격한 신분위계제도가 지배하였다. 기사로부터 여러가지 작위를 가진 귀족, 왕, 황제에 이르는 위계제가 철저하였으며 농민과 수공업자들은 귀족과 승려의 가혹한 압박과 착취를 받았다. 신분은 보통 국왕(황제)밑에 세가지 신분층 즉 1신분인 승려, 2신분인 귀족, 3신분인 평민(서민)으로 구분되였으며 농노농민은 신분밖의 존재로서 인간이하의 천대와 멸시를 받으며 기아와 빈궁속에서 헤매이지 않으면 안되였다.

피압박인민들은 자기들에게 신분적멸시와 빈궁을 강요한 봉건지배계급을 반대하여 완강히 싸웠다. 봉건사회의 력사는 봉건지배계급을 반대하는 농민들의 피어린 투쟁의 력사라고 볼수 있다. 중세기농민들의 반봉건투쟁은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위한 투쟁이였다. 로씨야의 뿌가쵸브농민폭동, 영국의 왓트 테일러농민폭동, 프랑스의 쟈끄리폭동, 도이췰란드농민전쟁 등을 그 실례로 들수 있다.

유럽봉건사회의 특성은 령주제가 지배하는 분권적인 봉건사회였다는데 있다.

아시아에서는 중앙집권적인 봉건전제제도가 지배적이였지만 유럽의 봉건국가들은 수많은 소공국들로 이루어져있었으며 그것들은 상당히 페쇄적이고 고립적이였다. 하여 국왕은 명색뿐이고 지방마다 대봉건귀족(령주)들이 주인행세를 하였다. 이러한 지방분권상태가 극복되고 봉건절대군주제가 확립된것은 퍽 후인 16～17세기에 이르러서였다.

유럽중세기는 카톨릭교가 모든것을 지배한 암흑의 시기였다.

유럽 전체 토지의 3분의 1을 장악한 카톨릭교는 유럽의 모든 나라들을 조밀한 교회망으로 뒤덮고 엄격한 승려제도와 종교재판제도를 세워 교회의 권위가 모든것을 지배하게 만들었다.

당시 카톨릭교의 종교교리는 법과 같은것으로 되여있었으며 거기에 어긋나는 사소한 요소도 탄압의 대상으로 되였다. 과학과 문화는 신학의 지배를 받고 승려들이 모든 사상문화를 장악하였으며 허위적인 래세의 사상과 금욕주의를 설교하고 인간의 리성과 과학적탐구를 부정하였다. 따라서 중세유럽의 진보적인 사상문화는 종교적탄압속에 이단으로 취급되였다.

마찬가지로 중세기 유럽인민대중의 반봉건투쟁은 카톨릭교의 정신적예속에서 벗어나기 위한 반종교투쟁과 결합되게 되였으며 그것은 종교개혁운동으로 번져졌다.

유럽봉건사회의 특성은 또한 도시가 특수한 위치를 차지하고 사회발전에서 큰 역할을 놀았다는데 있다.

봉건화과정이 추진되는 과정에 수공업이 농업에서 완전히 분리되고 상품화페관계가 발전하면서 수공업자, 상인들의 거주지역이 형성되였는데 이것이 유럽봉건사회에서의 최초의 도시로 되였다. 도시가 발전함에 따라 봉건사회안에는 하나의 새로운 시민계층이 생겨나게 되였다. 봉건귀족지주와 승려를 일방으로 하고 시민계층과 농민을 다른 일방으로 하는 투쟁이 강화되였으며 그 투쟁에 의하여 도시는 봉건령주로부터 벗어나 일정한 독립적지위를 얻게 되였다. 이 도시들은 봉건적번영을 이룩하는데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을뿐아니라 중세문화, 특수하게는 중세문학의 발전을 추동하였다.

중세유럽문학의 특징

중세유럽문학은 력사와는 달리 일반적으로 5세기부터 13세기까지(물론 나라마다 빠르고 늦은 차이가 있다.)로 구획짓고있으며 그 다음시기인 14—16세기는 문예부흥기로 구분하고있다.

중세유럽문학의 력사에서 그 전반기인 5—10세기는 흔히 암흑의 시기, 불모의 시기로 부르고있다. 그것은 이 시기가 봉건제도의 형성기이며 카톨릭교가 모든것을 지배하던 시기로서 일부 종교문학작품외에는 일반서사문학유산이 많이 전해지지 못한 사정과 관련되여있다. 그러나 이 시기에도 인민들의 창조적역할에 의하여 구전문학작품들이 적지 않게 창조되였다. 중세유럽문학의 후반기인 11—13세기는 유럽나라들이 봉건적번영을 이룩한 시기로서 문학발전에서도 일정한 성과를 거두었다.

중세유럽문학은 그 내용에서 봉건제도가 지속된 중세유럽의 모습과 당시 사람들의 지향과 요구를 반영하고있다. 봉건지배계급의 문학인 승려문학과 기사문학, 궁정문학이 봉건사상을 담고 승려, 기사, 귀족 등 봉건지배계급의 생활과 그들의 지향과 요구를 반영하였다면 인민영웅서사시와 도시평민문학, 진보적귀족문인들의 작품에는 당시 시대와 함께 봉건적 및 종교적예속에서 벗어나려는 인민들의 자주적인 지향과 요구가 반영되였다.

중세유럽문학은 종교적색채를 강하게 띠고있는데서도 특징적이다. 그것은 이 시기에 카톨릭교가 지배적인것으로 되여있던 사정과 관련된다.

따라서 당시의 문학작품도 그 영향을 받지 않을수 없었다. 그리하여 종교문학인 승려문학은 말할것도 없고 기사문학과 궁정문학 지어 인민구전문학과 도시평민문학, 진보적귀족문인들의 작품에 이르기까지 중세유럽의 문학작품들은 거의다 종교적색채를 강하게 띠게 되였다.

중세유럽문학 역시 고대문학과 마찬가지로 아직 사실주의적묘사방법을 확립하지 못하고있었으며 오래동안 중세기적인 환상과 꿈, 상징과 풍유 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있었다. 그러한 제한성을 점차 극복하고 근대적인 요소, 사실주의적인 요소를 나타내기 시작한것은 퍽 후기인 14세기에 이르러서였다.

중세유럽문학의 형태에서 주되는것은 여전히 시문학이였다. 중세기 유럽문학작품은 거의다 운문으로 씌여졌는데 서정시, 서사시와 같은 고유한 시문학작품뿐아니라 이야기작품과 극작품도 운문으로 쓰는것이 일반적인 관례로 되고있었다. 산문작품으로 제일 이른시기에 나온것이 12～13세기 북유럽의 《싸가》였다. 기사소설도 처음에는 서사시나 이야기시형태로 보급되다가 13세기에 들어서면서 산문화, 소설화되였다.

중세유럽문학에서는 대체로 10～11세기까지 교회언어인 라틴어를 위주로 쓰이다가 11～12세기에 가서야 민족어를 쓰기 시작하였다. 유럽나라들에서 자기 나라 민족어를 통일적인 문학어로 쓰게 된것은 13세기경이였다. 그 이후시기에도 라틴

어가 오래동안 중요한 서사수단으로 리용되였다.
중세유럽문학에서 성행한것은 승려문학과 기사문학이였다.

승려문학 승려문학은 그리스도교의 교리를 퍼뜨리고 그리스도교에 대한 신앙심을 높이기 위하여 교회, 승원, 사원에 복무하는 승려들이 만들어낸 종교문학이다. 일명 교회문학, 그리스도교문학이라고도 한다. 승려문학은 주로 교회언어인 라틴어를 썼으나 일부 해당나라의 민족어를 쓴것도 있다.

승려문학은 그리스도교의 시조인 그리스도가 처형된 후 여러 세기가 지나서 4세기경에 발생하고 7세기이후에 활발히 창작되였으며 특히 그리스도교문예부흥으로 불리우는 13세기를 전후한 시기에 성행하였다.

이 문학에는 종교시(서정시, 서사시), 종교극(례배극, 성탄제극, 수난극, 신비극—성사극, 기적극 등), 전기작품(성자전, 순교자전 등), 이야기작품(기적이야기 등) 등이 있었다.

승려문학의 대표적인 작품들로는 종교시에서 영국의 승려시인 캐드먼(7세기)이 쓴 《캐드먼의 찬가》와 키네울프(8～9세기)가 쓴 《그리스도의 승천》, 《엘레네》, 9세기에 도이췰란드에서 나온 장편서사시 《구세주》, 이딸리아승려들인 또마조(13세기)가 쓴 《신이 분노하는 날》과 야꼬뽀네(13세기)의 《성모수난송가》 등을 들수 있다. 그중에서도 중세라틴종교시의 최고봉으로 알려진 신이 분노하는 날은 최후의 심판장면을 노래한 시로서 장중하고 간결할뿐아니라 엄엄한 아름다움으로 충만되여 사람들에게 종교적령감을 불러일으켰다고 한다.

종교극에서는 13세기에 그리스도가 사형당하는 이야기를 형상한 수난극이 류행하였다.

성자전, 순교자전, 기적이야기로서는 프랑스의 《알렉씨성자전》(11세기)을 들수 있다.

이러한 승려문학작품들은 산인간과 인간생활을 그리는것이 아니라 신과 성인같은 신비적인 존재와 천당과 지옥같은 비현실적인 저승생활을 주로 묘사하였으며 그 형상에서 중세기적인 꿈과 환상, 풍유와 상징의 수법에 의거하였다.

종교문학작품들은 봉건제도를 신성화하고 그리스도교의 금욕주의와 무저항주의사상을 선전하면서 지상생활에서의 모든 고통과 비애를 말없이 참아내고 하느님만 믿으면 죽은 다음에 천당에 가서 영원히 락을 누릴수 있다는 종교의 황당한 설교를 그대로 늘어놓았다.

승려문학은 피압박인민대중을 기만하고 그들로 하여금 봉건적, 종교적질서를 존중하도록 함으로써 봉건제도를 옹호하는데 복무한 반동적인 문학이였다.

기사문학 기사문학은 승려문학과 함께 중세유럽봉건지배계급의 2대문학의 하나로서 기사들의 지향과 요구를 반영하여 자기들의 손으로 창작한 문학이다.

기사란 말을 탄 무사라는 뜻으로서 원래 프랑크제국의 기병이였다. 봉건제도가 발전하면서 기병들의 지위가 높아지고 봉건적특권층에 속한 하나의 군인귀족지주신분으로 고착된것이 바로 기사이다.

기사들은 그리스도교신자이며 직업적무사로서 십자군원정 등에 참가하여 그리스도교와 국왕을 위해 복무하는 과정에 견문을 넓히고 기사도라고 불리우는 법도를 가지게 되였으며 자기 식의 독특한 문화를 만들어냈다. 이러한 속에서 발생한것이 기사문학이다.

기사문학의 내용에서 주되는것은 전쟁이나 무술시합에서의 기사들의 무훈, 귀부인에 대한 봉사와 련애에 대한 이야기이다. 당시 기사들속에서는 자기가 숭배하는 귀부인을 위해 목숨도 아끼지 않고 그에게 봉사하는것이 하나의 풍속으로 되여있었다.

기사문학은 대체로 11세기에 발생하여 12～13세기에 성행하다가 14세기에 들어서면서 쇠퇴하였으나 에스빠냐, 이딸리아 같은 일부 나라들에서는 퍽 뒤늦게(15～16세기) 류행되였다.

기사문학에는 기사서정시, 기사서사시, 기사소설이 있었다.

기사서정시에서 대표적인것은 프랑스의 기사시인집단 뜨루바두르와 뜨루베르의 시들과 도이췰란드의 기사시인집단 민네징게르의 시들이다.

뜨루바두르는 프랑스 남부 쁘로방스지방에 자리잡고있던 음유시인들이다. 그들은 11—13세기에 여러 나라로 편력하면서 악기에 맞추어 기사서정시와 사랑가를 비롯한 시와 노래들을 보급하였다.

뜨루바두르의 기사서정시는 화려한 궁정생활과 녀성찬미를 내용으로 한 궁정시문학이였다.

뜨루바두르가 프랑스 남부에서 활동한 음유

시인들이라면 뜨루베르는 프랑스 북부에서 활동한 음유시인들이다. 그들 역시 뜨루바두르와 마찬가지로 12～13세기에 국내 각지와 여러 나라를 편력하면서 악기에 맞추어 기사서정시와 기사서사시를 비롯한 기사문학작품들을 보급하였다. 뜨루베르의 특징은 뜨루바두르보다 사람들속에 접근하고 보다 분별있게 처신한것이다.

민네징게르는 12－15세기에 궁정을 중심으로 기사서정시, 사랑가(민네장그)를 짓고 노래한 도이췰란드 귀족기사출신의 서정시인, 가수들의 집단이다. 그들은 자기들이 지은 시에 곡을 붙여 노래하기도 하였다.

민네징게르에는 두가지 경향이 있었는데 하나는 프랑스음유시인들인 뜨루바두르의 영향밑에 신분이 높은 녀성 특히 유부녀들에 대한 련애를 내용으로 한것이다. 다른 하나는 민간서정시와 접근하고 산인간으로서의 처녀에 대한 사랑과 지상적인 감정을 노래한것으로써 민네징게르의 신분적제한성을 일정하게 극복하였다. 그 대표자가 왈테르 폰 포겔와이데였다.

민네징게르의 시는 1190－1220년경에 제일 성행하고 14세기에 들어서면서 쇠퇴하기 시작하였으며 15세기에는 사라졌다.

기사문학에서 제일 성행하고 널리 류포된것은 기사소설이다.

오늘 흔히 기사소설로 부르는 기사문학작품은 원래 소설이 아니였다. 12세기에 류행된 기사소설은 다 운문으로 쓴 로만스로서 이야기시, 서사시형태의 작품들이였다. 《궁정풍기사도이야기》, 《기사도련애이야기》, 《기사서사시》 등 여러가지로 불리우고있는것은 이와 관련되여있다.

기사 로만스의 대표적작품으로 프랑스에서 나온 끄레띠앙 더 뜨로아(12세기)의 《빠르스발 또는 성배이야기》와 작가미상의 《뜨리스땅이야기》(12세기), 도이췰란드에서 나온 하르트만 폰 아우에의 《가련한 하인리히》와 월프람 폰 에쉔바흐의 《파르찌발》(12세기), 이딸리아에서 나온 뿔치의 서사시 《큰 모르간떼》(15세기)와 보이아르도의 서사시 《사랑을 하는 오를란도》(15세기) 등을 들수 있다.

13세기에 들어서면서 운문로만스를 산문으로 고쳐쓰고 소설화하는 사업이 활발해지면서 명실공히 기사소설로 부를수 있는 기사문학작품들이 많이 나오게 되였다.

프랑스에서는 13세기에 나온 산문로만스로서 《성배이야기》, 《호수의 란슬로》, 《아르뛰르(아서)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들이 류포되였으며 영국에서는 15세기에 산문으로 된 기사소설 《아서의 죽음》 등이 널리 알려졌다. 에스빠냐에서는 몬딸보의 《아마디스 데 가울라》(1508)가 출판된것을 계기로 16세기에 기사소설이 류행하여 문단에서 판을 치게 되였다. 에스빠냐의 기사소설은 쎄르반떼스가 기사소설의 페단을 없애기 위하여 유명한 소설 《돈 끼호떼》를 쓰고 기사소설을 조소한 다음에야 종지부를 찍었다.

기사문학은 봉건지배계급에 속하는 기사들의 생활리상을 반영하고 련애와 모험을 추구한 퇴페적인 내용을 담았으며 종교적색채가 진하고 초현실적인 환상과 신비주의로 가득찬 문학이였다.

그러나 이 문학은 중세기교회의 금욕주의와 상반되게 지상생활을 긍정하고 서정시와 서사시, 소설 등 다양한 형태를 발전시켰으며 작품의 언어와 수법을 세련시킨것으로 하여 문학발전에 기여를 하였으며 후세작가들에게 영향을 주었다.

중세유럽문학에는 지배계급의 문학인 승려문학과 기사문학만 있은것이 아니라 그와 대립된 인민적이며 진보적인 문학도 있었다.

봉건통치배들과 카톨릭교회가 이러한 문학을 억제하고 탄압하였지만 그것은 강한 생명력을 가지고 인민들과 진보적사회층속에서 계속 창조, 보급되였다.

여기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것이 인민구전문학이다.

인민구전문학

당시 서사문학은 그리스도교승려와 기사, 귀족문인 등 특권층의 독점물로 되고 인민대중은 서사생활에서 완전히 제외되고있었다. 그러나 예술의 진정한 창조자였던 인민대중은 구비창작을 통하여 자기들의 창작적재능을 발전시켰으며 자기들의 지향과 념원, 사상감정을 표현하였다.

중세유럽의 인민구전문학유산에는 신화와 전설을 비롯한 설화, 민요, 구전가요 등이 있다.

인민구전문학유산에서 대표적인것은 아일랜드에서 전해진 켈트족의 구전설화와 영국에서 전해진 앵글로쌕손족의 구전가요, 북유럽의 이슬란드에서 전승된 《엗다》와 《싸가》 등이다. 특히 《엗다》와 《싸가》는 북유럽의 신화, 전설을 집대성한것으로 하여 그 의의가 크다.

중세유럽의 민요유산으로 널리 알려져있는것

은 14～15세기에 영국에서 보급된 로빈 후드에 대한 발라드(담시)이다. 전설적인 인물인 의적단두령 로빈 후드와 그 부하들의 활약에 대하여 노래한 이 작품들은 인민들의 지향과 념원을 반영하고 인민들이 리해하기 쉬운 형식을 리용하여 알기 쉽게 만들어진것으로 하여 인민들의 사랑을 받았다.

영웅서사시유산

인민구전문학과 함께 영웅서사시유산이 또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있다.

영웅서사시유산으로는 중세초기의 게르만서사시 《힐데브란드의 노래》와 앵글로쌕슨서사시 《베이오울프》, 11～12세기에 유럽의 여러 나라에서 창조된 《롤랑의 노래》(프랑스), 《씨드의 노래》(에스빠냐), 《니벨룽겐의 노래》(도이췰란드), 《이고리공원정담》(로씨야) 등이 있다.

8세기에 기록된 《힐데브란드의 노래》는 4—6세기인 민족대이동시기 게르만전설의 한 토막을 노래한 서사시로서 그 일부토막(68시행)만이 남아있으나 10세기초의 수사본이 남아있는 《베이오울프》는 3 182행이나 되는 완전한 서사시이다.

11～12세기의 영웅서사시들은 게르만전설을 내용으로 한 《니벨룽겐의 노래》를 제외하고는 다 실재한 인물, 실재한 력사적사건에 기초한 작품들이며 그 주인공들은 장수가 아니면 귀족, 제후들이다. 또 전승과정에 윤색, 가공되여 봉건지배계급의 사상과 종교적사상이 적지 않게 가미되고있다.

그러나 이 서사시들은 오래동안 음유시인들, 방랑가수들에 의하여 구두랑송되여오던것을 서사화한 작품들로서 여기에는 인민들의 지향과 념원이 담겨져있다.

도시평민문학

12～13세기에 들어와 도시가 발전하고 도시평민층이 형성되면서 그들의 지향과 요구, 사상감정을 반영한 평민문학이 발생하였으며 그후 여러세기에 걸쳐 주로 서유럽나라들에서 성행하였다. 주로 도시에서 나왔다고 하여 도시문학이라고 부르지만 도시에만 국한된것은 아니였다.

도시평민문학이 얼마나 성행하였는가 하는것은 여러 도시들에 시인조합, 수난극조합 등 직업적인 예술인들의 동업조합(길드)까지 조직되고 창작경연에서 자기들의 재간을 겨루었다는 자료만 보아도 알수 있다.

도시평민문학은 승려문학이나 기사문학과는 달리 상인, 수공업자, 도시자유민, 농민 등 광범한 평민들의 생활을 민간문학형식에 담았다. 하여 이 문학은 반봉건적, 반교회적경향이 강하였다.

이 문학의 창조자로는 음유시인, 이야기군 등으로서 문학사에 이름을 남긴 사람이 많지 못하다. 프랑스의 류뜨베프(13세기)와 쟝 더 망(《장미이야기》, 13세기), 비용(시집 《소유언》, 《대유언》, 담시 《교수형을 당한자들에 대한 담시》, 15세기), 영국의 농민출신시인 랭글랜드(《농부 피어즈에 대한 꿈》, 14세기), 도이췰란드의 자유도시 뉴른베르그의 구두쟁이이며 장공시인인 한스 작스(16세기) 등이 그 대표적인 평민작가들이다.

도시평민문학의 종류와 형태는 서정시와 서사시, 이야기작품, 극작품 등 다양하였다. 그것들은 주로 소품형식의 작품들이였는데 일부 큰 작품들도 있었다.

민간문학소품 《파불리오》(짤막한 운문이야기), 동물서사시 《여우이야기》, 풍유서사시 《장미이야기》와 《농부 피어즈에 대한 꿈》, 로빈 후드에 대한 발라드(담시), 《파르스》(웃음극), 사육제극 등을 들수 있다.

중세유럽의 도시평민문학은 창조자들의 낮은 의식수준을 반영한 사상적제한성과 중세문학으로서의 예술적제약성을 많이 가지고있으나 승려문학, 기사문학과 달리 민간문학의 전통을 계승발전시킨것으로 하여 진보적문학의 중요한 유산으로 된다.

과도기의 문학

중세유럽문학은 중세말기로부터 문예부흥기로 넘어가는 과도기에 두명의 큰 시인을 배출하였다. 그것이 이딸리아의 단떼와 영국의 쵸써이다.

단떼는 장편서사시 《신곡》으로써 중세기 문학의 발전과정을 총화하고 문예부흥기 인문주의문학을 예고하였으며 이딸리아가 자랑하는 시인, 중세유럽 최대의 시인으로 세계문학사에 확고한 자리를 차지하였다.

쵸써는 장편이야기시 《캔터베리이야기》에서 봉건적관계가 무너져가는 영국의 사회현실을 생동하게 반영하고 사실주의적인 요소를 확연히 드러냄으로써 영국인문주의문학의 선구자로 되였다.

2. 프 랑 스 문 학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매개 민족에게는 력사적으로 이루어진 민족성과 그에 따르는 고유한 미감과 정서가 있다. 다른 민족에게는 없거나 있어도 서로 독특하게 구별되는 민족성은 매개 나라 인민의 생활양식과 언어, 관습, 세태풍속 같은데서 집중적으로 나타난다.》

프랑스문학의 력사는 고대를 뛰여넘어 중세부터 시작되였다.

오늘의 프랑스땅에는 옛날에 골(갈리아)로 불리우는 종족이 살고있었는데 그들은 로마의 케자르에 의하여 정복당하고 언어나 문화에서 라틴(로마)화되였다. 프랑스어는 라틴어입말이 변화된것으로서 이딸리아어, 에스빠냐어와 함께 로만어군의 한 갈래이다.

프랑스라는 나라이름은 게르만족의 갈래인 프랑크에서 유래된것이다. 프랑크의 건국시조는 샤를만뉴(칼)대제(재위768—814)인데 그는 오늘의 프랑스와 도이췰란드, 이딸리아를 합한 광대한 령토에 제국을 세우고(수도는 도이췰란드의 아헨) 통치하였다. 9세기에 그의 손자들이 나라를 세등분하여 나누어가지면서 샤를(칼번대머리왕)이 통치하는 프랑스왕국이 갈라져나왔다.

프랑스문학은 약 1 000년의 력사를 가지고있으며 그 시작은 11세기부터이다. 그전시기에도 라틴어로 씌여진 문학이 있었으나 프랑스의 지방말로 씌여진 문학작품이 나오기 시작한것은 이때부터이다.

초기 프랑스문학의 창조자, 전파자는 당시의 유일한 지식계층이였던 교회승려들과 쫑글레르라고 불리운 방랑광대들이였다. 그들에 의하여 11세기에 《알렉씨성자전》을 비롯한 종교문학과 《롤랑의 노래》를 비롯한 영웅서사시가 보급되였다. 성자전은 교회의 선전수단으로 리용되였으나 영웅서사시에는 당시 인민들의 지향과 념원이 반영되여있었다.

이러한 작품들은 수사본 또는 구전으로 전해지다가 인쇄술이 발명되면서 책으로 만들어졌다.

이 시기 프랑스어는 몇가지 지방방언으로 나뉘여져있었는데 그중에서도 남부의 쁘로방스어와 북부의 빠리를 중심으로 한 일 더 프랑스방언이 많이 씌여졌다. 그후 프랑스방언이 널리 전파되여 13세기경에는 통일적인 문학어로 쓰이게 되였다.

쁘로방스어를 기본으로 쓰는 남부프랑스의 시인집단 뜨루바두르는 북부프랑스의 시인집단 뜨루베르와 후세의 단떼에까지 영향을 미쳤다. 이들이 지은 서정시는 기사서정시였다.

십자군원정시기(11세기말—13세기)에 봉건기사들의 문화가 발생하면서 《기사도련애이야기》와 같은 이야기작품들이 류행되게 되였다. 이 이야기들은 흔히 기사소설(로만스)로 불리웠으나 산문이 아니라 운문으로 씌여진 이야기시와 같은것이였다.

초기의 성자전이나 영웅서사시는 작가미상의 작품들이 대다수였으나 12세기 후반기부터 작가를 밝힌 작품들이 나오기 시작하였다. 그중에서 기사이야기의 대표적작가 끄레띠앙 더 뜨루아(1135년경—1190년경)가 알려져있다. 프랑스의 첫 이야기작가로 알려진 그는 《랑슬로 또는 수레를 탄 기사》, 《이방 또는 사자의 기사》, 《빠르스발 또는 성배이야기》 등의 작품들을 썼다.

문학에 취미를 가진 귀부인들과 그 보호를 받는 시인들에 의하여 창작보급된 기사이야기에서는 이전문학의 주인공이였던 신과 국왕에게 충성을 맹세하는 용사대신에 자기가 사모하는 귀부

인의 명령에 무조건 복종하는 기사들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며 그들의 련애모험이야기가 펼쳐진다. 그 대표적인 작품이 작가미상의 《뜨리스땅이야기》(12세기)이다. 작품은 잘못 마신 마술약의 힘으로 사랑하게 된 기사 뜨리스땅과 왕비 이주(이졸데)의 비극적사랑과 모험이야기를 담고 있다.

13세기 도시의 발전에 따라 도시평민문학이 발생하였다. 그 대표적인 작품으로서 풍자작품인 《여우이야기》, 풍유작품인 《장미이야기》, 단편소설의 시원으로 볼수 있는 《파불리오》 등을 들수 있다.

《장미이야기》(기용 더 로리스가 1230년경에 쓴 전편과 쟝 더 맹이 1270년경에 쓴 후편으로 구성되여있다.)는 주인공이 꿈속에서 리성, 질투, 위선 등 추상적인 감정의 방해를 물리치고 장미꽃송이를 얻는 과정을 이야기한 풍유서사시이다. 작품은 풍유적인 비유로 위선적인 종교교리를 비판하고 인간의 자유로운 사랑을 추구하였다.

《파불리오》는 웃음을 자아내는 짤막한 운문이야기형식으로 승려들의 위선과 부르죠아들의 탐욕성, 린색성 등을 풍자한 작품이다. 이밖에도 《하늘소의 유언》, 《꽁삐엔뉴의 세 장님》, 《끊어진 말덤치》를 비롯한 많은 작품들이 있다.

13세기이후에는 개인이 독자적으로 창작한 서정시도 나왔다. 서정시인으로는 평민시인들인 13세기의 류뜨베프와 15세기의 비용을 들수 있다.

류뜨베프(년대미상)는 생애의 대부분을 빠리에서 보낸 방랑광대였다. 그는 거리로 돌아다니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어려운 처지에 있었지만 틀에 박힌 중세문학작품들이 판을 치던 시기에 개성적인 특성을 가진 참신한 작품을 내놓아 이름을 남겼다. 《류뜨베프의 호소》, 《류뜨베프의 빈궁》, 《겨울의 쓰라림》, 《여름의 쓰라림》을 비롯한 8편의 시와 종교극 《떼오필의 기적》이 그의 주요작품이다.

프랑쓰와 비용(1431－1463이후)은 빠리의 평민가정에서 태여나 어릴 때부터 승려에 의하여 양육되고 교회당구내에서 자라났다. 비용이라는 이름은 양아버지인 승려의 성이다. 그는 교회에서 절도행위를 했다는 의심을 받고 빠리를 떠나 오래동안 방랑생활을 하였으며 여러번 감옥에 갇히고 사형언도도 받았으며 추방당한 일도 있다. 1463년이후 그의 경력에 대해서는 전해진것이 없다.

그의 작품으로서는 시집 《소유언》(1456)과 《대유언》(1462), 담시 《교수형을 당한 자들에 대한 담시》(1462) 등이 있다.

그의 대표작인 《대유언》에는 파란곡절에 찬 시인의 생활을 반영한 시들이 수록되여있다. 이 시들에는 착취자들에 대한 하층민들의 항의가 담겨져있으며 중세기문학에서 특징적인 죽음의 주제가 이색적인 지상생활의 기쁨에 대한 주제와 결부되고 반금욕주의적인 사상이 표현되였다.

이로서 프랑스문학에서 처음으로 비용에 의하여 개인의 체험이 노래되였으며 자기 나라와 민족에 대한 사랑의 감정이 토로되였다.

비용의 시들에는 문예부흥기의 시문학을 예고하는 특징들이 나타났다.

중세프랑스의 극문학으로는 14～15세기에 《기적극》, 《성사극》(신과 성인에 관한 력사극)으로 불리운 종교극과 평민적인 민간희극인 파르스(웃음극), 바보극, 교훈극이 대중오락으로 류행되였다. 파르스의 대표작은 《빠뜨랭선생》이다.

산문은 시와 극보다 뒤늦게 발생하였다. 산문은 처음 십자군의 력사를 중심으로 한 각종 년대기를 쓰는데 사용되다가 15세기에 이르러서야 일련의 산문이야기가 나오게 되였다.

중세프랑스문학의 력사는 민족문학의 발생, 형성기의 력사라고 할수 있다. 그러나 프랑스에서 자기의 민족문학이 확립된것은 다음시기인 문예부흥기에 가서였다.

중세프랑스문학의 대표적인 작품은 영웅서사시 《롤랑의 노래》이다.

《롤랑의 노래》

《롤랑의 노래》(작가미상)는 1050년경에 창작되여 방랑시인들에 의하여 구전된 영웅서사시이다. 291시련, 4 002시행이나 되는 이 장편서사시는 오래동안 수사본으로 전승되여오다가 19세기에야 인쇄되였다. 그 판본이 20여종이나 되며 판본마다 내용에서 일정한 차이가 있다.

서사시는 에스빠냐로 원정한 프랑크군대가 이교도군대와 진행한 싸움을 기본내용으로 하면서 그 싸움에서 프랑크용사들이 발휘한 애국주의 정신을 찬양하고있다.

이야기는 778년 샤를만뉴왕이 인솔한 프랑크군대가 에스빠냐원정에서 돌아오던 도중 삐레네산중에서 바스끄족의 습격을 받았던 력사적사실과 그때 잘 싸운 롤랑이라는 용사에 대한 전설에 기초하고있다.

에스빠냐에 원정하여 7년째 싸우고있던 프랑크왕 샤를만뉴는 이교도 사라쎈족의 마르씰왕이 제기해온 거짓항복에 속히워 사신을 보내게 된다. 그 사신으로 뽑힌 갸느롱은 위험한 적구로 들어가는 일에 자기를 추천한 이붓아들 롤랑백작에게 앙심을 품고 적과 내통한다.

샤를만뉴왕이 이끄는 프랑크군 10만이 삐레네산줄기를 넘어 프랑스땅에 들어섰을 때 롤랑을 비롯한 12장수가 이끄는 후위부대 2만은 삐레네산줄기의 롱스발골짜기에서 적병 10만의 매복에 걸린다.

산봉우리에 올라 적진을 살펴본 올리비에가 롤랑에게 왕이 준 뿔나팔을 불어 주력군이 되돌아오도록 신호할것을 제기한다. 그가 세번이나 거듭 제기했으나 롤랑은 비겁하다고 매번 거절한다.

드디여 치렬한 싸움이 벌어진다. 격전끝에 부대는 거의 괴멸된다. 이때에야 롤랑이 뿔나팔을 불어 왕에게 신호하며 마지막 한사람이 남을 때까지 용감히 싸우다가 숨이 진다.

뿔나팔소리를 듣고 주력군을 되돌려세운 샤를만뉴왕은 이교도군대를 모조리 요정내고 롤랑과 올리비에의 시신을 고국으로 운반하여 성대한 장례를 지낸다. 롤랑의 약혼녀 오드(올리비에의 누이동생)는 기절한채 숨지고만다.

이어 갸느롱에 대한 재판이 진행된다. 그가 자신의 반역죄를 끝까지 부정하고 그를 비호하는자들도 많았으나 그의 죄상이 날날이 드러나 끝내는 유죄판결이 내려진다. 갸느롱은 사지를 찢어죽이는 극형을 당하며 그의 일가족속 30명이 교수형을 당한다.

《롤랑의 노래》를 봉건전쟁에서의 귀족, 기사들의 무훈을 노래한 무훈시(프랑스에서 11—13세기에 많이 창작되여 오늘까지 80여편이 전해지고있다.)로 보는 견해도 있다. 작품은 봉건적이며 종교적인 색채를 진하게 띠고있다.

그것은 황제를 리상화하고 황제에게 충의를 다하는 기사도정신을 찬양하며 침략전쟁을 이교도를 정복하는 그리스도교의 성전으로 미화하고 그리스도교에 대한 신앙과 십자군원정을 찬양한것 등에서 표현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서사시가 인민들의 사랑을 받으며 널리 류포되게 된것은 오래동안 구전되는 과정에 방랑시인들에 의하여 작품에 프랑스인민들의 지향과 사상감정이 적지 않게 담겨졌기때문이다.

방랑시인들은 서사시의 주인공 롤랑이 비록 귀족이며 중세기의 기사이지만 그를 명예욕과 리기주의, 잔인성과 조폭성, 귀부인숭배사상과는 인연이 없는 인물로, 자기 한몸 바쳐 조국을 위하려는 애국정신의 산 모범으로, 정직하고 관대하며 전우애가 강한 인민적품성의 소유자로 형상해놓았다. 샤를만뉴왕도 봉건적분권화를 반대하고 통일국가를 바라는 민족적지향의 체현자로 리상화하였으며 반역자 갸느롱의 부정적형상을 통하여 국가통일을 반대하는 리기주의적 대봉건령주들을 비판하였다.

서사시는 시구가 소박하고 간결하며 과장법, 의인법을 비롯한 중세인민시가의 작시법을 잘 살려쓰고있다.

이러한 특성을 가진것으로 하여 서사시는 중세프랑스문학의 중요한 유산으로 되였다.

중세프랑스문학의 유산으로는 또한 《여우이야기》가 주목된다.

《여우이야기》

《여우이야기》는 도시평민문학의 대표작의 하나로서 운문으로 씌여져 12세기 후반기부터 13세기 중엽까지 북부프랑스에서 널리 류포되였다. 《여우이야기》는 단일한 작품이 아니라 내용적통일성이 보장되여있지 않는 수많은 짧은 이야기(이를 《가지편》이라고 부른다.)들로 이루어져있는데 후세에 《여우이야기》로 총칭되게 되였다. 따라서 그 작가도 각이하며 작가이름이 밝혀져있지 않은것도 많다.

《여우이야기》의 모든 내용에는 르나르라는 여우가 주인공으로 등장한다. 르나르는 배불리 먹고 잠을 자는 시간을 내놓고는 늘 먹이감을 노리고있는 꾀많은 여우이다. 여우의 먹이감으로는 닭, 참새, 까마귀, 고양이와 같은 약한 동물들인데 르나르의 교활한 술책도 그들을 이겨내지 못하여 늘 패배자의 쓴맛을 본다.

그러나 힘이 비등하거나 자기보다 강한 동물과 맞설 때는 늘 르나르가 승리자로 된다.

승냥이 이잔그랑과의 관계가 바로 그러하다. 승냥이 이잔그랑은 여우보다 힘이 센데 자기보다 힘이 약한 여우의 꾀를 이겨내지 못하여 언제나 패한다.

여러 짐승들의 신소를 받고 드디여 사자왕 노블이 여우재판을 하게 된다. 그런데 피고인 여우는 나타나지 않고 그를 데리러 갔던 승냥이와 곰은 속히워 빈손으로 돌아온다.

초기에 나온 《가지편》의 줄거리는 이러하였다. 이 작품이 나오자 곧 크게 성공하여 주인공인 여우 르나르의 모험에 대한 수많은 이야기가 련이어 창작되여 르나르는 여우를 의미하는 대명사로 되였다.

《여우이야기》의 진보성은 의인화된 동물들의 형상을 통하여 봉건통치배들의 부패성과 추악성을 풍자비판한데 있다.

중세도시평민층의 반봉건사상을 반영한 이 작품에서 독재자인 사자는 봉건왕과 령주를, 탐욕스러운 략탈자인 승냥이는 귀족, 기사를, 간교한 하늘소는 교회의 주교를 의인화하였다.

한편 여우 르나르는 보다 복잡하게 형상되여있다. 그는 사자, 승냥이와 같은 강한 적수와의 싸움에서는 반항자로 되지만 닭, 토끼 등 약한 동물에 대해서는 압박자, 략탈자로 되여있다. 이것은 이야기에 따라 여우가 여러 계층의 성격을 체현하여 서로 다르게 형상된것과 관련된다.

《여우이야기》는 여우 르나르의 생동한 형상과 재미있는 이야기, 예리한 관찰력과 묘한 화술로 하여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다. 그러나 시간이 흐름에 따라 그 성질이 달라져 후에는 순전히 풍자를 목적으로 한 교훈작으로 되였다.

《여우이야기》는 프랑스에서 나왔으나 도이췰란드, 영국, 이딸리아 등 여러 나라에 영향을 주었다. 도이췰란드에서는 《여우 라이네케이야기》로 류포되였으며 괴테도 여우 라이네케에 대한 작품을 썼다.

3. 영 국 문 학

영국문학의 력사는 7세기부터 시작되였다.

영국의 기본령토를 이루고있는 브리튼섬에서는 B.C.부터 켈트족이 씨족공동체생활을 하고있었으나 A.D.1세기부터 로마제국의 지배밑에 들어갔다. 5세기에 민족대이동이 일어나 북유럽의 게르만족에 속하는 앵글로쌕슨족이 들어와 7세기경에 섬을 정복하였다. 그들은 지방별로 7개의 소왕국을 세웠다가 829년에 잉글랜드라는 이름밑에 하나의 봉건왕국을 통합하였다.

이러한 시대적배경밑에 영국문학은 7세기경에 고대영어 즉 앵글로쌕슨어에 기초하여 발생하였다.

중세영국문학사의 시기구분은 보통 7—11세기의 중세전기와 그 이후시기의 중세후기로 가르고있다.

중세전기 즉 7세기부터 11세기까지는 암흑시대로 불리울 정도로 서사문학유산을 거의 남겨놓지 못하였다.

승려시인 캐드먼(7세기)이 쓴 《캐드먼의 찬가》와 키네울프(8～9세기)가 쓴 《그리스도의 승천》, 《엘레네》(헬레네) 등 종교시 몇편이 시유산의 전부이고 산문은 9세기경에 라틴어책을 영어로 번역한것밖에 없다.

그러나 이 시기는 인민구전문학의 풍부한 유산을 남긴 시기라는 점에서 결코 암흑시대라고 말할수 없다.

구전문학유산에는 켈트족의 설화와 앵글로쌕슨족의 시가 있다. 켈트족은 전문적인 씨족가수—이야기군들을 가지고 다양한 구전설화들을 창조전승하였다. 그것을 크게 세 계렬로 즉 아일랜드 북쪽에 살던 울라드족계렬의 구전설화, 아일랜드 남부에 살던 씨족들인 펜니라는 특수한 군사조직체와 그 씨족군의 우두머리 핀에 대한 전설 및 노래를 짓는 명수였던 핀의 아들 오이씬에 대한 전설, 항해에 대한 구전설화로 나눌수 있다. 대표적인것은 울라드의 씨족장 콘호발의 조카인 쿠홀린이라는 장수에 대한 전설이다.

앵글로쌕슨족에게도 글리먼, 스코프라는 직업적인 이야기군, 가수가 있었다는 기록이 있는것으로 보아 풍부한 구전문학유산이 있었을것이라고 생각되나 현재까지 전해진것은 얼마 되지 않는다. 6세기경의 구전시 《데오의 하소연》, 《려행자의 노래》, 《항해자》, 8세기경의 서사시 《베이오울프》가 전해지고있다.

여기서 중요한것이 《베이오울프》이다.

《베이오울프》

《베이오울프》(작가미상)는 3 182행의 시구로 이루어진 두운형의 영웅서사시이다. 원본은 전해져있지 않고 10세기초의 수사본이 유일하게 남아있다.

북유럽의 게르만전설에 기초한 서사시는 게아트족의 장수 베이오울프의 공적에 대하여 노래하고있다.

데네(단마르크)에 그랜델이라는 괴물이 나타나 밤마다 궁전에 기여들어 무사들을 잡아가는것으로 하여 궁전은 황폐화되고 사람들은 비탄에 잠긴다. 바다건너 게아트(스웨리예)에 있는 장수 베이오울프(왕의 조카)가 이 소식을 듣고 그들을 도우러 오며 괴물과 결투를 벌려 그 한팔을 잘라낸다. 숲속의 소굴로 겨우 도망쳐온 그랜델은 곧 죽고만다. 다음날 그의 어미가 복수를 하러 온다. 베이오울프는 괴물을 숲속 소굴까지 추격하여 격투끝에 그 대가리를 잘라가지고 돌아온다. 그는 데네사람들의 감사와 많은 선물을 받고 고국으로 돌아간다.(제1부)

50년후 게아트의 나라는 불을 내뿜는 괴물룡에 의하여 온 나라가 황폐화되게 된다. 왕이 된 늙은 베이오울프가 괴물과의 싸움에 직접 나서 악전고투끝에 괴물을 죽이나 자기도 치명상을 입고 죽는다. 온 나라의 커다란 애도속에 그를 화장하는 의식이 진행된다.

서사시는 5—6세기 스칸디나비아의 력사를 배경으로 당시 북유럽사람들의 생활과 처지, 희망과 념원을 반영하고있다. 특히 대단한 힘장수이며 싸움에서 용감무쌍하고 물러설줄 모르며 남의 불행에 대한 동정심이 많고 자기 겨레의 행복을 위하여 한몸을 희생시키는 베이오울프의 형상에는 당시 사람들의 리상이 체현되여있다.

작품은 전승과정에 그리스도교의 종교적색채가 부여되고 봉건사상이 담겨지긴 했으나 옛 게르만족의 전설에 기초하여 창작된 구전서사시이며 앵글로쌕슨시가운데서 오늘까지 남아있는 가장 오랜 서사시로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고있다.

11세기 후반기부터 영국문학의 력사는 중세후기로 넘어간다. 그 전환점으로 된것이 1066년 노먼인들에 의한 브리텐섬정복이였다. 그때까지 이 섬으로 자주 침입해오던 프랑스의 노먼인들이 드디여 그해에 섬나라에 대한 지배권을 확립하였다. 그리하여 프랑스의 노르망디공 기욤(윌리엄1세)이 영국국왕을 겸하게 되였으며 프랑스어를 쓰는 노르만귀족들이 영국의 정치와 문화를 좌우지하게 되였다.

이후 약 200년간 영국문단에서는 프랑스어와 라틴어가 지배하고 영어는 배제되다싶이되였다.(이 시기 승려, 학자들은 라틴어, 귀족들은 프랑스어, 인민들은 영어를 썼다.)

그러나 1204년 당시의 영국왕 죤이 프랑스왕과 다투어 대륙에 있는 노르망디령토를 잃어버림으로써 영국에 있는 노르만귀족들이 대륙의 발판을 잃고 영국섬에 영주하게 되였다. 이것은 앵글로쌕슨인들과 노먼인들의 동화과정을 급속히 촉진시켰으며 영어가 프랑스어를 누르고 영어로 씌여진 문학작품이 점차 늘어나게 하는 결과를 빚어냈다.(이 시기의 영어를 중세영어라고 한다.)

중세후기 영국문학에서 지배적인것은 봉건지배계급의 문학인 승려문학과 기사문학이였다.

승려문학으로 이전시기를 이어 종교시들이 계속 창작되였으며 이와 함께 년대기가 새로 나왔다. 영어로 씌여진 영국의 년대기로 사제 라야먼이 쓴 《브루트》(13세기초)와 수도승 로버트가 운문으로 쓴 《년대기》(13세기말)가 있다.

이 시기 종교시, 년대기와 같이 교회를 중심으로 승려들이 쓴 종교문학과 궁정을 중심으로 궁정시인들이 창작한 기사문학작품이 왕성하게 창작보급되였다. 기사문학작품에는 프랑스에서 들어온 로만스라고 불리운 기사들의 련애와 모험에 대한 이야기와 아서왕전설에 기초한 여러편의 기사소설들이 나왔다.

그 대표작은 14세기의 운문이야기 《이웨인과 가웨인》, 《기사 가웨인과 푸른 기사》, 15세기 말로리의 소설 《아서왕의 죽음》이다. 특히 《아서왕의 죽음》은 아서왕전설을 산문으로 집대성하여 쓴 세련된 작품으로서 후세영국문학에 큰 영향을 주었다.

중세 후기 영국문학에는 진보적인 문학유산도 있다.

그 하나는 14세기말에 나온 서사시 《농부 피어즈에 대한 꿈》이다.

작품은 농민출신의 시인 윌리엄 랭글랜드(1330년경—1400년경)가 창작한것이다. 서사시에서는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등장하여 진리에로의 길을 찾아 헤매이는데 오직 한사람, 평범한 농부인 피어즈만이 그 길을 대줄수 있는것으로 이야기되였다. 또한 밭갈이를 하는 피어즈의 형상을 통하여 로동이 없이는 이 사회가 유지될수 없으므로 모두가 성실하게 일해야 한다는 사상을 제기하였다.

작품은 종교서사시형식을 취하고 중세기적인 풍유적수법으로 씌여지긴 했으나 중세영국문학작품들가운데서 반봉건적경향을 비교적 강하게 나타낸 작품으로 당시에 널리 퍼졌다.

다른 하나는 인민구전문학유산인 발라드(담시)이다. 오늘 발라다(발라드)라고 하면 극적인 이야기형식의 시를 말한다. 그러나 그 시원은 춤을 동반하는 중세유럽의 민요였다. 그것이 13～14세기에 프랑스의 쁘로방스지방으로부터 이딸리아에 전파되면서 춤과 분리되고 엄격한 형식을 갖춘 시의 한 형태로 되였다.

발라드는 유럽대륙에서 영국섬으로 건너가 그곳 민요와 결부되면서 력사적인물이나 전설을 소재로 하고 극적인 이야기를 담은 이야기형식을 띠게 되였다.

영국에서는 이 발라드가 14～15세기에 가서 인민들속에서 널리 보급되였으며 그 사상주제도 점차 다양해졌다. 력사적인 주제와 함께 사회정치적성격을 띤 반봉건적인 주제가 늘어났으며 인정세태, 생활세태를 취급한 작품도 나왔다.

그 대표적인것이 로빈 후드에 대한 발라드이다.

로빈 후드에 대한 발라드

로빈 후드는 영국인민의 사랑을 받는 전설적인물이다. 그는 자기 부하들과 함께 푸른 숲에서 봉건사회의 법과 온갖 구속에 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생활하면서 봉건령주, 귀족지주, 부유한 승려와 상인들을 털어내고 가난하고 압박받는 사람들을 비호해주는 의적단 두령이다.

로빈 후드에 대한 발라드는 14세기 후반기부터 점차 많이 창작되여 농민봉기가 빈번했던 15세기

에 가서 더욱 발전하였으며 16세기에는 그것을 수집한 여러종의 책이 출판되는데까지 이르렀다.

오늘까지 전해내려온 로빈 후드에 대한 발라드는 약 40편가량 된다. 그 내용은 로빈 후드의 생애에 대한 이야기, 그의 개별적인 모험에 대한 이야기, 로빈 후드가 의적단을 형성하는 이야기, 죤 《꼬맹이》, 《승려》 덕크를 비롯한 로빈 후드에게 충실한 부하들의 활동에 대한 이야기, 로빈 후드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 등 매우 다양하다.

로빈 후드를 주인공으로 한 이러한 발라드들에는 봉건적인 노예생활에서 벗어나 보다 훌륭한 생활을 이룩하려는 그 당시 영국인민들의 지향과 념원이 반영되였으며 인민들을 억압착취하는 봉건통치배들에 대한 인민들의 증오심이 표현되였다. 이 발라드들은 인민들이 리해하기 쉬운 형식을 리용하여 알기 쉽게 만들어진것으로 하여 인민들의 사랑을 받았다.

중세영국문학에서 가장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것은 쵸써와 《캔터베리이야기》이다.

쵸써와 《캔터베리이야기》

《영국시문학의 아버지》로 불리우는 쵸써는 비록 궁정시인이였으나 중세문학의 틀에서 벗어나 근대문학의 요소를 적지 않게 나타내고 중세영국시문학을 가장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렸으며 문예부흥기문학에로 다리를 놓은 시인이다.

죠프리 쵸써(1340년경－1400)는 런던의 부유한 포도주상인의 아들로 태여나 왕궁에서 복무하면서 국왕의 신임을 얻어 외교활동에도 참가하고 여러가지 높은 벼슬도 지낸 봉건관료였으나 문학창작에 큰 관심을 돌려 당대의 이름난 시인으로 되였다.

그의 작품으로는 트로야전쟁을 배경으로 한 비극적인 사랑이야기를 담은 서사시 《트러일러스와 크리쎄이데》를 비롯한 몇편의 시작품들과 장편이야기시 《캔터베리이야기》(1393－1400)가 있다.

쵸써는 이 작품들을 라틴어로 쓰던 종래의 관례를 깨뜨리고 처음부터 민족어인 영어(런던방언)로 썼다.

쵸써는 이딸리아에 여러번 려행하면서 보까치오와 뻬뜨라르까의 인문주의문학을 배우고 반봉건적기운이 높아가고있던 시대의 영향을 받은것으로 하여 비교적 비판적인 립장에서 중세영국봉건사회의 현실을 반영할수 있었다. 그러나 자신의 계급적제약성으로 하여 그 비판은 매우 온건하였다.

《캔터베리이야기》는 약 17 000행의 운문과 2개의 산문이야기로 되여있는 장편이야기시이다. 작품은 하나의 일관된 주제와 통일적인 이야기줄거리가 없이 캔터베리사원으로 가는 순례자들의 이야기를 묶어놓는 독특한 방식을 취하고있다.

어느 한 봄날 시인은 캔터베리사원에 다녀오기 위해 집을 떠나 런던교외의 한 려관에 들렸다가 여러명의 순례자들을 만나게 된다. 그들일행 30명은 려관집주인의 제의로 캔터베리로 가는 길에 지루하지 않도록 재미나는 이야기들을 하기로 한다.

제비뽑기를 하여 첫날에는 기사와 제분소주인, 마름과 료리사가, 둘째날에는 려관집주인의 요청으로 변호사와 수부, 녀자수도원장과 시인자신, 수도승과 사제 등이 이야기를 한다. 셋째날에는 의사와 《면죄부》판매인, 바스의 아낙네, 걸식승과 종교재판소 호출원, 신학생과 상인 등이 차례로 이야기하며 마지막날에는 경리원과 시골목사가 이야기를 한다. 이렇게 재미나는 이야기를 하는 사이에 일행은 무사히 캔터베리사원에 도착하게 되며 작품은 여기서 끝난다.

이 4일간에 한 이야기는 모두 24편인데 그 이야기들의 성격과 내용이 다종다양하다. 기사소설에서 따온 이야기와 종교도덕적인 이야기, 《파불리오》 비슷한 이야기와 동물우화 등 여러가지이며 그 주제와 사상적내용도 각양각색이다.

작품에는 봉건관계가 무너지고 자본주의적관계가 발생하던 14세기말 영국봉건사회의 현실이 비교적 폭넓고 생동하게 반영되여있다.

작품에는 또한 승려들의 부패타락과 교회의 폐단을 야유하고 도시의 부유한 시민들의 탐욕성을 풍자한것을 비롯하여 당시 영국봉건사회의 부정면도 비판하고있다.

작품은 그 형식과 묘사, 현실반영과 성격창조에서 중세문학의 제한성을 일정하게 극복하고 사실주의적경향을 나타냈으며 해학과 유모아의 수법을 능숙하게 구사하는 등 근대적성격을 보여주었다. 작품은 이딸리아작가 보까치오의 단편소설집 《데까메론》의 영향을 많이 입었으나 영국의 현실을 반영하고 영국문학의 전통을 계승발전시켰다.

쵸써의 《캔터베리이야기》는 그 당시 영국봉건사회의 생활을 비교적 생동하게 반영하고 중세기문학의 추상적인 현실묘사의 제약성을 일정하게 극복함으로써 영국문학의 문예부흥기에로의 길을 닦았다.

4. 도이췰란드문학

도이췰란드문학의 시원으로 된것은 게르만족의 신화, 전설, 구전가요이다.

8세기에 중앙유럽의 넓은 지역에 프랑크왕국을 세운 칼(샤를만뉴)대제의 통치시기에 교회언어인 라틴어와 함께 고지의 방언에 기초한 고대고지도이취어가 쓰이게 되고 도이취어로 게르만가요들이 수집, 기록되였다고 한다. 그러나 8세기말경에 그리스도교세력이 강화되면서 그것들이 그리스도교선전에 해롭다고 인정되여 말살되였으므로 게르만구전문학유산으로 남아있는것은 8세기의 영웅서사시 《힐데브란드의 노래》의 토막밖에 없다.

두 승려가 신학책 사본의 표지뒤면에 기록해놓은 이 작품은 4—6세기, 민족대이동시기 게르만영웅전설의 한 토막을 내용으로 하고있다. 서사시는 다른 나라에 갔다가 30년만에 돌아오는 장수 힐데브란드가 아들을 만났지만 아들이 아버지라는것을 인정하지 않고 도전해나선것으로 하여 부자간이 싸우게 되는 비극적이야기를 담고있다.

작품은 비록 일부 토막(68시행)만이 전해졌지만 민족대이동시기 게르만족의 생활을 반영하고 게르만두운시의 형식을 전한것으로 하여 도이췰란드문학의 귀중한 유산으로 되고있다.

9세기에 도이췰란드가 프랑크왕국에서 갈라져나오고 10세기 중엽에 옷토1세가 도이췰란드에 신성로마제국을 세우면서 라틴어가 중시되고 민족문학은 침체기에 들어서게 되였다. 도이췰란드적인 소재의 서사문학작품이 몇편 나오긴 했으나 그것은 다 라틴어로 씌여진 종교문학작품들(주로 종교시)이였으며 그 창작가도 교회, 승원의 승려들이였다. 도이취어로 씌여진것은 이야기시 《구세주》(6 000시행, 9세기) 한편뿐이다. 도이췰란드사람들속에 그리스도교를 선전하기 위해 그리스도교의 성서에 기초하여 그리스도의 생애를 노래한 이 작품은 왕의 명령으로 한 승려가 쓴것이였다.

그러나 이 시기에도 게르만구전문학은 방랑시인 스코프와 음유시인들에 의하여 계속 전승되였다.

중세도이췰란드문학이 활기를 띠기 시작한것은 12세기부터이다. 이 시기에 이르러 문학에서는 라틴어보다 도이취어(이 시기의 도이취어를 중기 고지도이취어라고 한다.)를 많이 쓰게 되였고 승려들이 독점하던 문학창작에 속세사람들이 적극 참가하였다.

12—15세기 중세 도이췰란드문학은 크게 세가지 흐름을 이루었다. 이 시기 도이췰란드문학의 주류를 이룬것은 지배계급의 문학인 기사문학이였으며 그와 대립된 문학으로서 인민문학유산인 영웅서사시와 도시평민문학이 있었다.

도이췰란드기사문학

중세도이췰란드문학에서 12—13세기는 기사문학의 시대였다.

도이췰란드기사문학은 다른 나라 기사문학과 마찬가지로 그리스도교신앙과 충군사상, 무사정신과 귀부인숭배가 융합된 황당무계한 모험과 련애이야기로 엮어졌으며 그 소재는 거의다 프랑스기사문학에 기초한것이였다. 그러나 그 형식을 더욱 세련시키고 언어를 문학적으로 련마하였으며 도이췰란드문학의 특성을 잘 살린 작품들도 몇편 내놓았다.

도이췰란드기사문학은 서사시와 서정시로 구분되여있다.

기사(궁정)서사시의 대표적시인으로는 12세기부터 13세기로 넘어가는 시기에 활동한 3명의 기사시인이 알려져있다.

하르트만 폰 아우에(1165년경—1215년경)는 도이췰란드기사서사시의 창시자라고 할수 있는 시인이다. 그는 아서왕의 원탁기사를 주인공으로 한 작품 2편(《에레크》, 《이웨인》)과 종교적인 이야기 2편(《그레고리우스》, 《가련한 하인리히》)을 남겼다.

그의 대표작인 《가련한 하인리히》는 문둥병에 걸려 다 죽게 된 훌륭한 기사 하인리히가 자기 령지에서 사는 농민의 딸인 나어린 소녀의 순진하고 헌신적인 사랑을 받고 신의 혜택으로 기

적적으로 살아나는 황당한 이야기를 담고있다. 그러나 이 작품은 귀부인숭배라는 종전의 기사문학의 구속과 신분적차이를 초월하여 귀족령주인 기사와 농민소녀의 사랑을 도이취어로 소박하고 아름답게 그려내였다.

평민출신의 고트프리드 폰 슈트라스부르그(1170년경－1210년경)는 《트리스탄과 이졸데》에서 그리스도교의 금욕주의사상과 배치되게 남녀주인공들의 비극적인 사랑을 찬미하였다. 또한 그는 하르트만이 작품들에 쓴 우아한 도이취어의 우점을 자기의 작품에 잘 살려씀으로써 음악적인 아름다움을 가진 운문으로 세련시켰다.

월프람 폰 에쉔바흐(1170년경－1220년경)가 쓴 25 000시행이나 되는 방대한 서사시 《파르찌팔》은 아서왕전설과 에스빠냐계의 성배전설을 결합하여 주인공 파르찌팔이 뛰여난 기사로 자라나는 이야기이다. 작품은 파란곡절에 찬 주인공의 운명을 따라 광활한 세계를 펼쳐보이면서 한 인간의 정신적인 성장과정을 진지하게 파고들었다.

도이췰란드의 기사서정시는 《민네장그》(사랑의 노래)라고 불렀다.

도이췰란드의 기사서정시는 프랑스 쁘로방스의 궁정련애시인들인 뜨루바두르의 련애시들이 들어와 발생한것이다. 하여 민네장그에는 뜨루바두르의 시들에서와 마찬가지로 리상화된 귀부인에 대한 례찬, 귀부인을 위해 바친 헌신적인 봉사에서 오는 기쁨과 리별의 슬픔이 아름다운 운문으로 노래되였으며 그 형식에서 일정한 규칙과 시형식을 따르고있다.

그러나 도이췰란드의 민네장그는 점차 종전의 프랑스식, 궁정식의 형식적인 시풍에서 벗어나 민요에 기초한 새로운 내용과 형식을 담게 되였다. 즉 신분이 높은 귀족부인에 대한 련애봉사가 아니라 순진하고 소박한 처녀에 대한 사랑을 민요형식에 담아 진실하고 사랑스럽게 노래한것이다.

그 대표적시인이 200편이상의 서정시를 지은 왈테르 폰 델 포겔웨이데(1170년경－1230년경)이다.

우에서 지적한 4명의 시인의 뒤를 이어 수많은 기사시인들이 출현하고 그들이 쓴 작품들도 대단히 많았으나 문학적인 발전이 없이 계속 하강선을 그었으며 기사문학의 아류로 화하고말았다.

도이췰란드기사문학은 봉건지배계급에 속한 기사들의 요구와 지향에 맞게 창작된 봉건적이며 종교적인 문학으로서의 본질적제한성을 가지고있었으나 승려들에 의해 독점되여있던 문학을 세속화하고 종교적이며 중세기적인것으로부터 일정하게 벗어났으며 그 형상수준을 높임으로써 문학사에서 상대적인 의의를 가지게 되였다.

기사문학이 류행되던 시기에 도이췰란드문학은 구전문학에 기초한 인민영웅서사시유산도 남겨놓았다. 민족대이동시기로부터 전해내려온 영웅전설을 집대성한 《니벨룽겐의 노래》가 바로 그 대표작이다.

《니벨룽겐의 노래》

《니벨룽겐의 노래》(작가미상)는 1204년경에 나온 영웅서사시이다. 게르만족의 니벨룽겐전설에 기초한 작품은 전설적인 장수 지그프리드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이야기를 통하여 중세기 도이췰란드의 어두운 현실을 보여주고있다.

네데를란드의 왕자 지그프리드는 라인강반에 있는 성곽의 주인 부르군드족의 왕인 군테르의 누이동생 크림힐드가 천하절색이라는 소문을 듣고 찾아가 청혼한다. 그는 이전에 난쟁이종족을 정복하고 니벨룽겐의 보물을 얻을 때 보물을 지키고있던 룡을 무찌르면서 그 피를 온몸에 맞은것으로 하여 불사신으로 되였다. 다만 보리수나무잎이 떨어졌던 잔등의 한곳에만 피를 맞지 못해 그것이 유일한 약점으로 되였다.

이슬란드의 아름다운 녀왕 브륜힐드와 결혼하고 싶었으나 승산이 없어 모대기던 군테르왕은 크림힐드와의 결혼을 허락하는 조건으로 지그프리드의 도움을 받아 브륜힐드를 왕비로 맞이한다.

귀국한 지그프리드는 10년후 안해와 함께 다시 군테르왕을 방문한다. 이때 서로 남편자랑을 하던 크림힐드와 브륜힐드사이에 싸움이 벌어져 브륜힐드가 모욕을 당한다. 군테르왕의 신하 하겐은 왕비의 명령으로 지그프리드를 암살할 음모를 꾸민다. 그는 크림힐드를 속여 지그프리드의 약점을 알아낸 다음 사냥터로 가는 도중 지그프리드가 샘물을 마실 때 뒤에서 그의 등을 찔러 죽이고 니벨룽겐의 보물을 라인강물에 던져버린다.

남편을 장례지낸 크림힐드는 가슴속 깊이 복수를 다짐한다. 그후 상처한 훈족의 왕이 크림힐드에게 청혼하자 이에 응한다. 그로부터 13년후 크림힐드는 부르군드족을 초대하여 성대한 연회를 베풀며 그 기회에 군사를 풀어 복수전을 벌린다. 이 싸움에서 량편의 군사들이 거의다 죽는다.

크림힐드는 포로한 오빠 군테르왕의 목을 베게 하고 원쑤인 하겐을 자기 손으로 죽인다. 이때

궁전에 손님으로 와있던 동고트족의 늙은 장수 힐데브란드는 너무나도 잔인한 크림힐드의 만행에 격분하여 그의 목을 벤다. 살아남은 훈족의 왕과 녀인들은 눈물속에 잠긴다.

서사시는 5세기경에 라인강류역의 게르마니아 옛땅에서 정착생활을 하고있던 게르만족의 생활을 반영하고있다. 작품은 실지 있었던 력사적사실들을 통하여 그 당시 게르만인들의 풍속, 환경, 사회제도, 사상감정 등을 반영하고있다.

특히 당시에 아직 중앙집권적인 봉건국가를 세우지 못하고 무정부상태에 있었던 도이췰란드의 력사적환경과 봉건령주들과 귀족들의 전횡, 략탈, 음모, 살륙이 판을 치던 중세기의 현실을 잘 반영하고있다.

작품에서 상전을 위해서는 어떠한 비행도 서슴없이 감행하는 하겐, 복수심에 사로잡힌 나머지 혈육간에 살륙음모를 꾸미는 크림힐드 등의 형상에는 봉건통치배들의 죄행이 일반화되여있다. 그들과는 달리 전설적인 장수 지그프리드의 형상에는 용감하고 대담한 무사들에 대한 인민들의 지향이 구현되여있다.

게르만인민창작과 밀접한 련계를 가지고있는 작품은 약 2 300시련이나 되는 장편서사시로서 예술적으로도 잘 다듬어져있다.

서사시에는 다른 나라의 영국서사시들과는 달리 조국방위주제와 반침략애국사상이 담겨져있지 않으며 매우 어두운 양상을 띠고있지만 도이췰란드영웅서사시의 대표작으로서 문학사적의의를 가지고있다.

이 서사시는 그후 희곡과 음악으로 옮겨졌다. (19세기 도이췰란드극작가 헷벨의 희곡 《니벨룽겐사람들》, 19세기 도이췰란드작곡가 와그네르의 음악극 《니벨룽겐의 가락지》)

14－15세기는 중세도이췰란드문학에서 도시평민문학의 시대라고 할수 있다.

13세기말부터 도이췰란드황제의 지배권과 기사들의 세력이 약화되였으며 그에 따라 기사문학도 쇠퇴하였다.

그와 반면에 도시평민층이 무시할수 없는 세력으로 자라났다.

상업과 수공업이 발전하는데 따라 점차 재부를 늘여간 도시의 상인들과 수공업자들은 벌써 13세기 후반기부터 기사계층과 함께 정치, 문화령역에서 자기들의 지위를 차지하기 시작하였다.

이 시기 도시에서 창작된 평민문학은 한동안 기사문학과 구전문학작품들을 평민들의 지식욕과 정신문화적요구에 맞게 개작하고 산문화하는 방향으로 나갔다. 이렇게 되여 류행된것이 이른바 《민중본》이라고 불리운 산문이야기책이였다. 그 대표적인것이 《파우스트이야기》이다.

이와 함께 그때까지 구전되여오던 민요들이 서사화되기 시작하여 민요집이 나오게 되였다.

15세기에 들어서면서 장공시인들이 출현하여 도시수공업자, 장공들의 생활과 그들의 지향과 요구를 반영한 노래를 내놓았다. 그들은 노래의 학교에 모여 작시, 작곡훈련도 하였으며 직업적시인들의 동업조합을 무어 시와 노래경연을 벌리기도 하였다.

이 시기의 평민문학이 도이췰란드민족문학발전에 기여한 공적의 하나는 그때까지 매우 뒤떨어져있던 극문학의 발전을 촉진시킨것이다.

중세도이췰란드극은 크게 종교극과 세속극으로 가를수 있다.

교회의 례배와 의식에서 유래된 종교극은 처음 단순한 례배극이였던것이 점차 성탄제극, 수난극, 부활제극 등으로 분리되였다가 다시 결합되는 등 점차 규모가 큰 극작품으로 발전하였다. 작품이 커지면서 무대는 좁은 교회안으로부터 교회밖으로, 도시의 광장으로 옮겨졌으며 도시평민들이 그 창조와 출연에 적극 참가하였다.

이러한 극작품이 15세기에 이르러 도이췰란드전국에 파급되였다.

이렇듯 종교극이 세속화되였을뿐아니라 종교극과는 완전히 다른 세속극도 발생하였다. 그것을 《사육제극》이라고 한다. 사육제명절의 소란한 놀음과 관련하여 발생한 이 극은 서민적인 익살극으로서 15～16세기에 도이췰란드에서 류행되였다.

집안이나 거리의 광장, 술집 등에서 공연된 사육제극은 흔히 대사에 의한 소개로 시작되고 춤으로 끝났는데 여기에는 독백, 대화, 일문일답, 무언극 등 여러가지 형식이 도입되였고 소도구도 일부 리용되였다. 사육제극은 처음 풍기문란하고 비속한 촌극이였던것이 점차 정치, 도덕, 종교문제까지 다루는 익살극으로 되였으며 도덕적교훈, 당대 사회에 대한 풍자가 포함되게 되였다. 사육제극의 주요작가는 한스 로젠블류트, 한스 폴쯔이며 특히 한스 작스가 알려져있다. 사육제극의 대표작은 작스의 《바보를 베다》, 《굉장한 연기》 등이다.

사육제극은 16세기 후반기에 가서 쇠퇴하였다.

5. 에 스 빠 냐 문 학

유럽대륙 서남부 이베리아반도에 위치하고 프랑스와 린접되여있는 에스빠냐에서 문학의 력사는 중세부터 시작되였다.

에스빠냐에 첫 봉건국가로서 5세기에 서고트왕국이 세워졌으나 그후 왕위를 둘러싼 내란으로 하여 까스띨랴왕국, 아라곤왕국, 레온왕국, 나바라왕국 등 여러개의 왕국과 백작령으로 분렬되였다.

한편 북으로부터는 프랑크왕국군이 침입해오고 남으로부터는 북아프리카(마로끄)의 이슬람교세력이 들어와 거의 전체 이베리아반도를 정복하였다. 이슬람교세력은 지배층인 소수의 아랍족과 부족집단을 이룬 다수의 베르베르인으로 구성되여있었는데 그들을 무어(에스빠냐에서는 모로)인으로 불렀다. 그들이 이베리아반도에 세운 이슬람교주국(교주 즉 깔리프의 왕국)은 10세기에 바그다드교주국과 힘을 겨루는 큰 세력으로 자라났다.

그리하여 에스빠냐인민들은 중세 전기간에 국토회복운동을 벌려 이슬람교세력과 맞서 끊임없는 투쟁을 벌리지 않으면 안되였다.

이러한 복잡한 시대를 배경으로 에스빠냐문학의 력사가 시작되였다.

로마시대에 이베리아반도에 들어온 통속라틴어는 로만어계렬의 세 그루빠를 낳았다. 동북부의 바르쎌로나를 중심으로 한 까따로니아말, 서북부의 갈리씨아 뽀르뚜갈말, 중앙 고원지대의 까스띨랴를 중심으로 한 까스띨랴말이 그것이다. 이 까스띨랴말이 오늘의 에스빠냐어이다. 따라서 에스빠냐문학이란 이 까스띨랴말로 씌여진 문학을 의미한다.

현재까지 알려져있는 에스빠냐의 가장 오랜 문학작품은 12세기 중엽에 씌여진 영웅서사시 《씨드의 노래》(작가미상)이다. 그러나 그것이 에스빠냐의 첫 서사시는 아니다. 서사시들의 일부 토막만 남아있는 서사시들이 있는가 하면 년대기에 산문으로 기록된 자료가 있는것으로 보아 그보다 3～4세기전부터 서사시들이 있었으리라고 짐작된다.

《씨드의 노래》는 이러한 서사시문학의 발전에 기초하여 창작된 성과작인것이다.

《씨드의 노래》

서사시는 1140년경에 음유시인, 방랑가수들이 창작한것으로 보고있다. 원본은 남아있지 않으며 14세기의 사본을 필사한 책이 남아있다.

서사시는 에스빠냐인민들이 아라비아봉건령주들의 예속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투쟁을 벌리고있던 11세기 후반기를 시대적배경으로 하면서 용감한 무사 씨드의 활동을 통하여 반침략애국정신을 노래하고있다.

작품의 주인공 엘 씨드 깜뻬아도르(본명, 로드리고 루이 디아스 데 비바르, 1040년경—1099)는 실재한 력사적인물이다.

서사시는 3편으로 되여있다. 서사시의 첫 부분에서는 에스빠냐 까스띨랴왕국의 왕 알폰쏘7세에게 복무하던 기사 로드리고가 간신들의 책동으로 왕의 신임을 잃고 추방당한 후 아라비아봉건령주들이 통치하는 지역으로 원정하여 싸라고싸를 비롯한 많은 땅을 되찾는 과정이 이야기되고있다. 그는 동북부의 큰 해안도시 바르쎌로나를 차지한 아라비아봉건귀족들을 공격하여 빛나는 승리를 쟁취한다.

다음 부분에서는 로드리고의 두 딸의 결혼이야

기가 벌어진다. 군사를 이끌고 진격을 계속하여 발렌씨아까지 해방한 로드리고의 명성은 날로 높아지며 그는 깜뻬아도르(전사)의 칭호외에 엘씨드(아랍어로 군주를 의미)의 칭호까지 받는다. 국왕 알폰쏘도 그에 대한 노여움을 풀게 되며 그의 두 딸을 깔리온백작형제에게 시집보내는 조건에서 로드리고를 용서한다. 제2편은 딸들의 결혼으로 끝난다.

마지막부분에서는 로드리고와 대귀족 깔리온백작형제사이의 갈등이 이야기된다. 아라비아 정복자들과의 싸움에서 비겁하게 처신하여 로드리고 부하들의 조소를 받은 깔리온백작형제는 그 분풀이로 안해들인 로드리고의 두 딸을 반죽음시켜 숲속에 내버린채 달아난다. 로드리고가 국왕에게 신소하자 처형받을가봐 겁이 난 깔리온백작형제는 무력행사를 한다. 할수없이 로드리고는 그들을 기습하여 처단해버린다. 그의 두 딸은 아라곤과 나바라의 왕자들과 재혼한다.

작품의 주인공 씨드의 형상에는 침략자와의 비타협적인 투쟁정신과 애국심에 대한 인민적리상이 구현되여있다. 서사시는 주인공이 국왕의 배척을 받고 추방당한 불우한 처지에서도 일신의 안락을 추구한것이 아니라 나라찾는 싸움의 길에 나서 빛나는 위훈을 세운것을 찬양하면서 에스빠냐사람들이 힘을 합쳐 자기 나라 땅에서 외래침략자들을 몰아낼것을 호소하고있다.

작품에서는 용감하고 애국심이 강한 씨드의 형상에 비겁하고 배신적인 명문대귀족 깔리온백작형제의 형상을 대치시키고있다.

서사시는 서유럽나라들의 중세영웅서사시에 비하여 주인공에 대한 리상화가 적고 종교적신비주의와 환상이 거의 없으며 세태적인것이 특징이다. 문체는 소박하고 남성적이며 언어는 단순하고 직설적이다. 작품은 당시 에스빠냐의 민족적인 풍습도 잘 반영하고있다.

서사시는 봉건왕에 대한 충군사상을 진하게 담고있으나 애국주의사상을 강하게 표현한 에스빠냐민족서사시의 가장 오랜 유산으로서 문학사적의의가 있다.

에스빠냐문학의 최초의 시인은 곤쌀로 데 베르쎄오(1185년경—1264)이다. 그는 이야기시집 《성모의 기적》을 비롯한 종교시와 성자전을 쓴 종교시인이였다.

에스빠냐문학에서 처음으로 개성적특성을 표현한 시인은 13세기말에 태여나 14세기 중엽에 옥사한것으로 알려지고있는 이따의 승정 후안 루이스이다. 그의 유일한 작품인 《훌륭한 사랑에 대한 책》은 운문으로 씌여진 자서전적인 이야기인데 그자신의 련애체험으로 생각되는 일화에다가 현실에 대한 풍자를 뒤섞어 후세의 악당소설에 영향을 주었다.

시에서 개성적인 첫 시인이 후안 루이스라면 산문에서 개성을 살린 첫 작가는 후안 마누엘(1282—1349년경)이다. 그의 대표작 《루까노르백작》(1335)은 빠뜨로니오라는 인물이 루까노르백작이 제기하는 질문에 우화로 대답하는 형식으로 씌여진 우화집이다. 동양시원의것, 서양시원의것 등 다양한 우화를 담은 이 작품에는 작가의 개성적특성이 뚜렷이 나타나있다.

산문에서는 또한 15세기말에 싼 뻬드로의 감상적인 련애소설 《사랑의 감옥》, 에스빠냐의 첫 기사소설 《아마디스 데 가우라》 등이 나와 에스빠냐국내뿐아니라 유럽나라들에 널리 퍼졌다.

에스빠냐의 극문학도 다른 유럽나라들과 마찬가지로 처음 종교극에서 출발하였다. 종교명절날에 교회에서 공연된 《신비극》이 그러한 종교극이였는데 에스빠냐에서는 그것이 그리 성행하지 않았다. 한편 그와 병행하여 서민극인 광대극이 류행하였는데 남아있는 작품은 없다.

이와 같이 중세에스빠냐의 문학유산은 그리 풍부하지는 못하였지만 16세기 후반기부터 17세기말까지의 황금세기에스빠냐문학의 토대로 되였다.

6. 이 딸 리 아 문 학 과 단 떼

5세기에 서로마제국이 멸망한 후 이딸리아에서 봉건제도의 수립과정은 복잡한 환경속에서 진행되였다.

로마제국의 페허우에 세워졌던 동고트국가는 불과 61년만에 동로마제국(비잔티아)에 의하여 정복당했으며 그나마 8세기에 프랑크왕국의 판도안에 들어가고말았다. 프랑크왕국에서 갈라져나와 이딸리아왕국이 형성된것은 9세기에 이르러서였다.

그러나 이딸리아왕국은 명색뿐이고 실제상 수많은 독립적인 소왕국(봉건령주들의 독립령지)으로 분렬된데다가 법왕령이 형성되고 법왕과 그리스도교교회의 세력이 어느 나라보다 강하게 자라났다. 한편 베네찌아, 제노바, 피렌쩨를 비롯한 도시공화국들이 형성되고 날로 강성해졌다. 그리하여 중세이딸리아에서는 그 어느 나라보다도 세력다툼에 의한 내란이 빈번하게 벌어졌다. 이딸리아가 분렬되고 내란이 그칠새 없는 틈을 타서 외부세력인 도이췰란드봉건귀족들이 끊임없이 침략해 들어와 이 나라 강토를 파괴략탈하였다.

이러한 복잡한 환경속에서 이딸리아인민들은 봉건령주와 도시귀족들, 법왕과 교회의 봉건적, 종교적예속에서 벗어나기 위한 투쟁을 벌리는것과 동시에 외래침략자들을 반대하는 투쟁을 벌려야 하였다.

고대로마제국의 언어였던 라틴어는 로마제국이 멸망한 후에도 오래동안 이딸리아의 유일한 언어로 사용되여왔다. 라틴어는 교회와 학교의 공용어로 되였으며 글자를 아는 사람들은 다 라틴어로 글을 썼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서 라틴어가 여러 지방의 토착어와 결합되는 동화과정이 일어났으며 제각기 지방방언이 형성되고 발전해갔다.

그가운데서 우세한것이 남부이딸리아 씨칠리아왕국에서 쓰이던 방언과 중부이딸리아에서 피렌쩨를 중심으로 하여 쓰이던 또스까나방언이였다. 오늘의 이딸리아민족어는 바로 이 또스까나의 지방어를 모체로 하여 형성된 언어이다.

이딸리아민족어의 형성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것은 14세기 이딸리아의 《3대작가》로 불리운 단떼와 뻬뜨라르까, 보까치오였다. 또스까나방언이 13세기말～14세기초에 단떼의 시집 《신생》과 서사시 《신곡》에 의하여 세련되고 14세기에 뻬뜨라르까의 《서정시집》에 의하여 더욱 다듬어진데 기초하여 보까치오의 단편소설집 《데까메론》에 이르러 이딸리아의 문학어로 고착되였던것이다.

이딸리아에서 민족어에 기초한 최초의 문학작품이 나온것은 유럽의 다른 나라들보다 퍽 뒤늦은 13세기초에 이르러서이다.

그것이 남부이딸리아의 섬나라 씨칠리아왕국의 빨레르모궁정에서 꽃피웠다고 하여 《씨칠리아파》로 불리운 궁정시인들의 서정시이다.

문학애호가였고 즐겨 시를 짓군 하던 씨칠리아왕 페데리끄2세의 비호와 장려밑에 이 궁정에는 이딸리아 각지에서 많은 시인들이 모여들어 제마끔 재간을 겨루었다.

씨칠리아파의 시는 귀족궁정시인들의 시이며 그 내용에서 프랑스 쁘로방스시인들의 련애시를 모방한 기사서정시풍의 작품이였으나 라틴어를 숭상하고 이딸리아어를 속된 말로 천시하던 시기에 이딸리아어를 쓴것으로 하여 이딸리아문학의 요람기를 마련하였다.

13세기 후반기에 씨칠리아왕국의 세력이 쇠퇴하면서 빨레르모궁정에 모여들었던 씨칠리아파시인들은 사방에 흩어지고 그들의 작시법은 북이딸리아로 퍼졌다.

이 시기 시문학의 중심은 도시공화국들인 아레쪼, 볼로나를 거쳐 피렌쩨로 옮겨지게 되였다. 이 과정에 《과도기파》로 불리우는 아레쪼의 구이또네(1235년경－1294), 《청신체파》로 불리우는 볼로나의 구이니쩰리(1235년경－1276)와 피렌쩨의 까발깐띠(1250년경－1300)와 같은 개인창작시인들이 출현하였다.

구이또네는 귀부인에 대한 사랑을 주제로 한 기사서정시의 틀을 마스고 전쟁에서 패한 피렌쩨

시민들을 고무한 《피렌쩨에 드리노라》와 같은 정치시를 내놓아 현실을 반영하는 새로운 주제령역을 개척하였다.

구이니쩰리는 사랑을 노래하면서도 종전과 같이 기사도정신에서 노래한것이 아니라 거기에 철학적인 내용을 부여하여 사랑이 사람의 마음을 청신하게 만든다는것을 강조함으로써 청신체파의 선구자로 되였다.(대표작 《사랑은 언제나 고귀한 마음속에 자리잡도다》) 까발깐띠는 그것을 더욱 발전시킴으로써 청신체파의 대표적시인으로 되였다.

이러한 성과에 토대하여 이딸리아시문학을 높은 경지에 올려세운것은 피렌쩨의 단떼이다.

단떼와 서사시 《신곡》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단떼의 〈신곡〉이나 쉐익스피어의 희곡들, 괴테의 〈파우스트〉를 비롯한 이름난 작가들의 작품들은 당시의 시대상을 파악하는데 좋은 작품입니다.》

단떼의 생애와 창작활동

단떼 알리기에리(1265—1321)는 당시 이딸리아 도시공화국의 하나였던 피렌쩨에서 몰락해가는 귀족의 아들로 태여났다. 그의 아버지는 귀족이였지만 령지를 잃고 금융업을 했다고 한다.

단떼는 수도원과 볼로냐대학에서 중세기적인 종교적교육을 받고 고대로마의 고전문학을 깊이 연구한데 기초하여 1292년부터 시창작을 시작하였으며 그 다음해에 첫 시집 《신생》을 내놓았다.

시집에서 시인은 베아뜨리체라는 처녀를 사랑하게 된 경위를 노래하면서 아름다운 녀인에 대한 사랑이 인간을 도덕적완성에로 추동한다는 사상을 강조하였다. 비록 중세기 기사문학에서 나타난 녀성숭배사상의 영향이 강하게 표현되였으나 매우 섬세한 내면세계묘사와 다양한 운률, 우아하고 부드러운 언어구사로 하여 널리 알려지게 되였다.

이 시기 단떼는 사회정치활동에도 적극 참가하였다. 그는 비록 그리스도교의 종교적세계관의 영향을 강하게 받았지만 나라의 지방적분산성을 극복하고 중앙집권적인 통일을 이룩하며 계속되는 분쟁과 반목을 없애고 평화로운 생활을 바라는 이딸리아사람들의 지향을 실현하기 위한 활동을 벌렸다. 그는 황제파와 대립된 법왕파안의 백색파(소수 귀족계급의 리해관계를 대변하여 법왕과 손을 잡으려는 흑색파와는 달리 광범한 시민들의 지지를 얻고 피렌쩨의 자치권을 지키려고 한 파이다.)의 주요인물이 되여 한때 상당한 자리까지 차지하였다. 그는 1296년에 제정문제심의기관인 100인위원회의 성원으로 선발되고 1300년에는 6명으로 구성된 두령들중의 한사람으로 선출되였다.

그러나 1302년에 흑색파가 피렌쩨에서 권력을 잡게 되면서 이 파의 적수였던 단떼는 반역자로 규정되여 추방령을 받았으며 붙잡히는 경우에는 화형에 처한다는 통지를 받았다. 그리하여 당시 특사로 로마법왕에게 파견되여있던 단떼는 다시는 고향도시에 돌아가지 못하고 망명생활을 하지 않으면 안되였다.

단떼는 그후 베로나, 라벤나 등에 체류하면서 언어학론문 《속어론》(1305), 철학론문 《향연》(1309), 정치론문《제왕론》(1318), 서사시 《신곡》(1307—1321) 등 많은 글들을 썼다.

이러한 글들에서 이딸리아력사에서 처음으로 나라의 중앙집권적통일에 대한 지향과 민족적자각이 표현되였다. 그러나 그는 귀족적제한성으로 말미암아 이딸리아의 봉건적분산성을 극복할수 있는 옳은 길을 찾을수 없었다. 그리하여 《향연》에서는 계속되는 분쟁과 반목을 인간의 도덕적자아완성의 방법으로 없앨수 있는듯이 설교하였으며 《제왕론》에서는 신성로마제국의 황제에게 의거하여 이딸리아의 정치적통일을 이룩하려는 그릇된 견해를 내놓았다.

그는 《속어론》에서 통일적인 이딸리아민족어의 필요성을 주장하였으며 과학저서와 문학작품을 라틴어가 아니라 일상적으로 쓰이는 이딸리아방언으로 창작함으로써 이딸리아민족어형성에 이바지하였다.

단떼는 1315년에 피렌쩨당국으로부터 대사령을 받았으나 거기에 조건부가 달린것으로 하여 그 통지를 거절하고 망명생활을 계속하다가 열병에 걸려 라벤나에서 사망하였으며 그곳 교회에 매장되였다. 그후 피렌쩨당국은 시인의 유해를 가져오기 위해 여러번 교섭하였으나 단떼를 아끼는 라벤나당국에 의해 거절당하여 오늘까지 실현되지 못하고있다.

단떼는 서유럽 중세문학의 마지막시기를 대

표하는 시인으로서 이딸리아와 유럽문학사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며 유럽문학의 발전에 큰 영향을 주었다.

《신곡》 작품은 처음 《희곡(기쁜 곡)》(원명: 《디비나 꼬메디아》)이라는 제목의 필사본으로 전승되여오다가 1472년에 처음으로 출판되였으며 1555년에 새로 편집출판된 책에서부터 《신곡》이라는 제목을 달게 되였다.

서사시는 사람이 죽은 다음에 가게 된다는 이른바 래세(저승세계)에 대한 그리스도교의 허황한 교리에 따라 《지옥》, 《련옥》, 《천당》의 3편으로 구분되여있으며 매 편은 33곡으로 구성되고 거기에 서곡이 붙어 총 100곡으로 되여있다. 전체의 시줄수가 14 233행, 매편의 시줄이 4 700행이나 되는 장편이며 시형식은 3행시이다.

서사시의 내용은 시인 단떼자신의 저승세계에 대한 환상적인 려행기로 되여있다.

고민속에서 살던 시인은 35살때 꿈속에서 길을 잃고 컴컴한 숲속을 헤매게 된다.

> 인생이 살아 70, 그 절반 나이에
> 바른길을 잃고 헤매이던 이 몸은
> 컴컴한 숲속에 서있노라

마침 언덕우의 빛을 발견하고 그곳으로 가려고 하는데 도중 3마리의 사나운 짐승(표범, 사자, 암승냥이)이 길을 막아나서는 바람에 다시 되돌아서려고 한다.

이런 때 비르질리오(베르길리우스)가 나타나 그를 구원해준다. 이 로마시인은 천당에 있는 베아뜨리체(일찌기 세상을 떠난 단떼의 애인)의 부탁을 받고 단떼를 인도하기 위해 찾아온것이다. 이리하여 그의 안내를 받아 단떼는 저승세계에 대한 려행의 길에 오른다.

그들은 먼저 지옥으로 들어간다. 지옥은 땅밑으로 깊이 내려가면서 9개의 층을 이루고있는데 밑으로 내려갈수록 더욱더 몸서리치는 광경이 벌어진다. 거기에서는 음탕한자, 탐욕스러운 행동을 한자, 깍쟁이, 폭군과 살인자, 기만자, 반역자 등 살아있을 때 그리스도교의 교리를 어긴자들이 그에 맞는 무서운 벌을 받고있었다.

그들은 다음 련옥을 려행한다. 련옥은 7개의 라선형계단을 이룬 산인데 그 매 계단마다에서 가벼운 죄를 씻으며 수양을 쌓고있는자들의 모습을 보게 된다. 여기서는 거만한자, 시기질투가 많은자, 분노심이 많은자, 게으름뱅이, 탐욕스럽거나 린색한자, 게걸스러운자, 부화한자 등이 자기의 죄를 씻고있다. 그들이 련옥산의 꼭대기—지상락원에 이르자 그때까지 단떼를 안내하던 로마시인은 그와 작별하고 그대신 꽃구름속에서 베아뜨리체가 나타난다.

단떼는 베아뜨리체의 안내로 천당을 려행하게 된다. 천당은 련옥산의 꼭대기, 지상락원우에 무연히 펼쳐져있는 하늘 즉 천상계에 있다. 단떼는 구름처럼 하늘에 둥둥 떠서 높이높이 올라가면서 9가지 단계로 구분되여있는 천상계를 구경한다. 거기서는 신앞에서 다진 맹세를 끝까지 지킨자, 선행을 베푼자, 사랑때문에 죽은자, 철학자와 신학자, 신앙을 위해 죽은자, 정의를 지킨자, 그리스도교와 교회에 복무한자들을 볼수 있다.

천상계의 려행길마감에 단떼는 신과 천사들, 성자들이 살고있는 천국에 이르게 된다. 드디여 단떼에게 최고의 순간이 닥쳐온다. 그가 신을 보는 영광에 접하게 된것이다.

이러한 내용으로 하여 《신곡》은 얼핏 보면 허황한 종교서사시인듯 한 인상을 준다. 하여 예로부터 매우 난해한 작품으로 알려져있다.

이처럼 《신곡》이 그리스도교적색채를 강하게 띠게 된것은 그 당시에 그리스도교가 하나의 사조로서 유럽에 널리 퍼져 지배적교리로 되여있었으며 사회생활의 모든 측면이 그리스도교적색채를 띠지 않을수 없었던 사정과 관련되여있다.

그러나 《신곡》이 종교적색채가 강하고 비현실적인 환상적내용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력사적으로 진보적인 작품으로 될수 있은것은 거기에 그리스도교와 중세기의 구속에서 벗어나려는 새로운 사상주제적내용과 예술적형식이 적지 않게 담겨져있기때문이다.

서사시는 그리스도교의 교리가 지배하던 중세기에는 보기 드문 새로운 사상주제적내용을 담고있다.

그 하나는 강한 반교회, 반승려사상이다. 그것은 작품에서 로마법왕을 비롯한 교회당국자들과 그리스도교승려들을 이딸리아의 통일을 가로막는 장애물로, 신의 교리를 저버린 부정부패의 무리로 신랄히 규탄하고있는데서 표현되고있다.

시인은 지옥을 려행할 때 성직매매자들이 거꾸로 매달려 발바닥을 불로 지지는 고문을 받고있는 장소에서 로마법왕 니꼴로3세를 만난다. 그

자리에서 시인은 법왕을 맞대놓고

금과 은 이것은 지금 너희들의 신이로다
너희들과 우상을 믿는자와 무엇이 다르단 말
이냐
그들은 하나를 숭배하고 너희들은 백가지를 숭
배하는 그것이 다르달뿐이로다

라고 꾸짖고있다.

교회와 승려들에 대한 규탄은 지옥편 제33곡 우골리노백작에 대한 형상에서 더욱 고조되고 있다.

《신곡》이 담고있는 새로운 사상주제적내용의 다른 하나는 반금욕주의사상이다. 금욕주의는 중세기에 지배하던 그리스도교의 교리가운데서 기본을 이루는 비과학적이며 비인간적인 반동적사상이였다.

그리스도교는 이 사상으로 사람들의 눈을 가리우고 그들을 몽매하게 만들었다. 그런데 이 서사시에서는 바로 이 금욕주의에 배치되는 새로운 사상이 표현되였다.

그것은 작품에서 현실생활을 차요시하고 죽은 다음의 저승생활을 내세우는 금욕주의교리와 어긋나게 현실세계의 다양성과 그 아름다움을 인정하고있는데서 금욕주의교리를 어겼다고 하여 지옥에 떨어진 사람들을 동정하고 그들에 대한 신의 판결에 의혹을 표시하면서 인도주의적립장에서 사람들을 대하고있는데서, 신학과 금욕주의교리와 다른 과학과 진보적사상을 옹호하고 있는데서 볼수 있다.

단떼가 《지옥》편 제26곡에서 그리스전설에 나오는 지혜롭고 용감한 장수 오듀쎄우스를 만났을 때 그는 단떼에게 세계의 머나먼 곳을 탐구하려는 자기의 욕망을 이렇게 토로한다.

아, 천만번 위험 뚫고 서쪽에 다달은
나의 형제여
너희들에게 이렇게라도 아직 목숨이
남아있는 한
태양을 쫓아가 사람 없는 세계를 찾으려는
그 생각일랑 버리지 말라

너희들이 태여남을 생각해보라
너희들은 짐승처럼 살기 위하여 태여난것이
아니라
덕과 지식을 위해 태여난것이 아닌가

여기에는 과학과 지식을 탐구하고 새것을 창조하려는 당시 사람들의 진보적인 지향이 뚜렷이 표현되여있다.

《신곡》은 당시 이딸리아를 지배하던 사회적불행들 특히 나라의 분산성과 반목, 그와 련결된 이딸리아사람들의 고통이 반드시 극복되고야말리라는 확신에 넘쳐있는 점에서도 특징적이다.

《신곡》은 또한 그 예술적형식에서 중세기문학의 도식을 벗어난 새로운 특징들을 나타내고있다.

서사시는 비록 중세기 교회문학의 낡은 형식인 꿈을 리용하고있으나 실지 자료에 기초하여 당대의 현실생활을 다양하게 반영하고있으며 적지 않은 형상들을 구체화, 개성화하고있다. 특히 《지옥》편에서의 특징적인 형상들은 그 조형성과 심각성, 개성적특성으로 하여 후세사람들의 높은 평가를 받았다. 여기에는 불타는 증오심, 무자비한 복수, 순결한 사랑 등 사람들의 감정을 여러가지 측면에서 형상하고있으며 이 형상들을 몇마디 말로써 간결하게 잘 그려내고있다.

서사시는 그 언어에서도 중세기문학에서 지배적이였던 라틴어를 쓴것이 아니라 당시 이딸리아의 민간어였던 또스까나방언(이에 기초하여 이딸리아민족어가 형성되였다.)을 썼으며 그 언어표현수법과 문체에서도 중세기문학에 고유한 추상적인 제한성에서 많이 벗어나 화려하고 색갈이 풍부하며 대담하고 간결한 언어표현과 문체를 썼다.

이러한 모든 특징들은 중세기문학에서 볼수 없었던 새로운것이였으며 문학발전의 다음단계인 문예부흥기에 가서 보게 되는 특징들이였다.

이와 반면에 《신곡》은 그 내용과 형식의 모든 측면에서 그리스도교적색채를 진하게 띠고있으며 낡은 중세기문학의 특징도 강하게 가지고있다.

그것은 이딸리아에서의 모든 불행을 가시고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게 될 방도를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교의 교리를 잘 지켜 자신을 도덕적으로 완성하는데서 찾고있으며 인간의 범죄에 대한 징벌과 선행에 대한 표창이라는 그리스도교의 교리를 옹호하고있는데서, 중세기 종교문학의 전형적인 꿈형식을 따르고 극도로 상징적이며 풍유적인 형상들로 가득차있는데서 표현되고있다.

서사시는 이처럼 그리스도교적이며 중세기적인 색채를 진하게 띠고있으나 중세기문학의 발전과정을 총화하고 근대문학의 길을 개척한 작품으로서 이딸리아와 유럽문학사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고있다.

7. 북 유 럽 과 동 유 럽 문 학

1) 북유럽문학

4—5세기의 민족대이동을 거쳐 북유럽에 오늘의 스웨리예, 단마르크, 노르웨이가 3국병립형식으로 봉건왕국을 형성한것은 6—9세기경이다.

원래 북유럽에는 원주민이 없었다. 오늘의 북유럽사람들은 다 대륙에서 이동해온 게르만족에 속하는 사람들이다. 이 게르만족에 속하는 단족이 세운 나라가 단마르크이고(6세기), 스이오네스족이 세운 나라가 스웨리예(9세기경), 노르족이 세운 나라가 노르웨이(9세기)이다. 당시 핀란드는 아직 나라가 형성되지 못하여 스웨리예에 속해있었다. 노르웨이사람들이 이주하여 살던 섬 이슬란드는 13세기에 노르웨이에 통합되고 14세기부터는 단마르크의 지배를 받았다.

유럽대륙의 북방 변두리에 위치한 북유럽은 추위가 엄혹한데다가 바다와 호수, 험한 산과 빙하에 의해 외부와 격리되여있어 외부세력의 침략을 받지 않았다. 하여 일찍부터 북유럽어를 쓰는 독특한 문화권을 형성하고 비교적 잘 보존해왔다.

영국, 도이췰란드와 같은 다른 게르만계 나라들에서 일찌기 사라진 고대게르만의 오딘, 또르를 기본으로 한 북유럽신화의 신들에 대한 신앙이 후세까지 전해지고 이러한 신들과 고대장수들을 노래한 옛시와 신화전설이 고스란히 전해지고있는것을 그 실례로 들수 있다.

중세초기에 북유럽문학이 먼저 발생한 나라는 노르웨이였으나 그것이 개화한 곳은 이슬란드였다. 그것은 왕권이 확대되고 그리스도교가 류포되는데 불만을 품고 게르만의 신앙과 독립생활을 지향한 사람들이 870년경부터 대대적으로 이 외진 섬으로 건너와 자기들의 문화를 창조하였기때문이다. 화산과 빙하의 섬 이슬란드에 정착한 그들은 930년경에 《알딩》이라는 주민회의제도를 세우고 일종의 의회정치를 실시하였다. 항해술에 능한 그들은 비킹(스칸디나비아의 해상원정대)을 무어가지고 여러 나라를 다니며 견문을 넓히고 자기들의 독특한 문화를 창조하였다.

그리하여 이슬란드에서는 북유럽의 다른 나라들과는 달리 중세초기에 문학이 발전하였다.

중세초기 북유럽의 문학유산을 크게 세가지, 즉 《엗다》, 《스칼드의 시》, 《싸가》로 나눌수 있다.

엗다 《엗다》는 북유럽의 신화, 영웅전설을 집대성한 운문 및 산문작품을 총칭하는 말이다. 그것이 나온 시기는 대략 6～7세기경부터 12세기경까지이며 노르웨이와 이슬란드에서 창조되였다.

《엗다》는 본래 13세기 이슬란드의 학자이며 시인인 스노리 스투를루쏜(1178—1241)이 젊은 시인들을 위하여 산문으로 쓴 일종의 시학참고서의 명칭이였다. 일명 《오디(시인이 시를 배운 지방명)의 책》이라고도 하였다. 이 책에서 옛시를 해설하면서 많은 옛시를 인용했으므로 그 시들이 《엗다시》로 불리우게 되였다.

《엗다》에는 두가지 종류가 있었다. 시기적으로 보다 오래고 운문으로 씌여진것을 《고(옛)엗다》 또는 《시의 엗다》라고 하였으며 시기적으로 보다 후기이고 산문으로 씌여진것을 《신(새)엗다》 또는 《산문엗다》라고 부른다.

《고엗다》에 수록된 시는 고대게르만시에서 공통적인 힘있는 두운을 가진 서사시형식을 취하고있다.

처음 발견된 사본은 29편을 수록하고있었는데 그후에 발굴된것까지 합하면 40편가까이 된다. 그것까지 총칭하여 《엗다시편》으로 부른다.

《고엗다》는 내용적으로 《신들에 대한 시편》과 《영웅시편》으로 갈라진다. 《무당의 예언》(300시행)을 비롯한 《신들에 대한 시편》에서는 천지개벽으로부터 시작하여 신들의 유래와 행적에 대하여 노래하고있다. 《영웅시편》

은 도이췰란드서사시와 마찬가지로 전설적인 장수 지그프리드에 대한 전설을 담고있다.

《고엗다》의 시들은 모두가 예로부터 구전되여오던것(오랜것은 6～7세기경, 후기의것은 12세기경)을 기록, 정리한것으로 보아진다.

스노리가 편찬한 《신엗다》는 《고엗다》가 노래한 신화전설을 시를 섞은 산문으로 이야기한 부분과 그후의 스칼드시인들의 시를 해설한 부분, 스노리자신이 지은 장시 한편을 두고 작시법을 설명한 부분으로 이루어져있다.

《엗다》는 북유럽의 신화전설을 집대성하고 중세초기 북유럽문학의 면모를 전하고있는것으로 하여 귀중한 문학유산으로 되고있다.

스칼드의 시

스칼드란 원래 옛 북유럽어로 시인, 특히 궁정시인을 의미하였다.

문학사에서 스칼드는 9—13세기에 노르웨이와 이슬란드에서 활동한 궁정시인을 가리키는 말로 쓰이였다.

9세기말—10세기초에 노르웨이를 통치한 하랄드왕의 궁정에 시를 애호하는 많은 시인들이 모여들었다. 그들은 연회때에는 왕의 옆자리를 차지하였고 싸움터에서는 왕의 친위대로 싸우면서 시로써 군사들의 사기를 돋구었다.

그후 노르웨이왕들이 본래의 민족적인 신앙을 버리고 그리스도교로 개종하게 되자 그에 불복한 많은 귀족들이 이슬란드로 이주하였으며 그에 따라 스칼드의 본거지도 이슬란드로 옮겨졌다.

스칼드시인들은 비킹을 따라 북유럽의 궁정은 물론 영국, 아일랜드, 로씨야 등의 궁정을 방문하면서 시와 노래를 왕에게 헌납하여 높은 대우를 받군 하였다.

대표적인 스칼드시인으로는 《아들의 죽음》을 쓴 에길 스칼라그림쏜(920년경—990), 충실치 못한 애인에 대한 시를 쓴 코르마크(935년경—970년경)를 들수 있다. 그밖에도 많은 시인들이 배출되였으나 이슬란드가 그리스도교를 받아들이고(1000년경) 이어 독립을 잃게 되면서(1261) 급속히 쇠퇴하였다.

스칼드의 시는 좀 거칠고 서사적인 《엗다》의 기교를 따른 서정시계렬이였다. 스칼드의 시유산은 13세기의 문헌자료에 단편적으로 전해져있으며 스칼드시인들의 생애에 대해서는 전기적인 《싸가》에 구체적인 기록으로 남아있다.

싸 가

《싸가》는 주로 이슬란드에서 발전한 독특한 이야기형식의 산문작품(《싸가》란 《이야기》라는 뜻이다.)으로서 12세기말부터 약 100년동안에 활발히 창작, 보급되였다. 분량이 20페지가량 되는것으로부터 300페지가량 되는것까지 길고 짧은 작품 30여편이 전해져있다. 문장은 간결하고 소박하고 힘이 있으며 묘사와 대화는 사실적인 특징을 보여주고있다.

싸가는 그 성격과 내용으로 보아 대체로 4가지로 갈라볼수 있다.

그 첫째는 《력사싸가》로서 력사이야기, 사화와 같은 작품이다. 이슬란드섬의 발견과 이 섬으로의 북유럽사람들의 이주력사에 대해 쓴 아리(1067—1148)의 《이민에 대한 책》, 《엗다》의 편찬자 스노리가 노르웨이왕조사를 쓴 《헤임스크링글라》, 그린랜드 및 북아메리카발견에 대해 쓴 귀족 에리크부자의 《빨간머리 에리크의 싸가》가 그 대표작이다.

특히 《헤임스크링글라》(한 하늘, 네 바다)가 널리 알려져있다. 스노리가 살던 시기에는 이미 여러가지 왕조사의 사본이 있었는데 그것들은 서로 련관이 없는 무질서한 력사책들이였다. 스노리는 독자적인 안목에 기초하여 그것들을 집대성하였다. 이 책은 단순한 력사이야기로서만이 아니라 그 아름다운 언어구사로써 중세작가들에게 큰 영향을 주었으며 19—20세기에 노르웨이에서 가장 많은 독자들을 쟁취한 책으로 되였다.

그 둘째는 《문학싸가》로서 문학적으로 잘 다듬어진 소설가까운 작품이다. 장수이며 시인이였던 에길 스칼라그림쏜의 생애에 대해 이야기한 《에길의 싸가》, 그레틸이라는 10세기장수의 무훈담을 이야기한 《그레틸의 싸가》, 자존심이 높은 한 녀성에 대한 이야기를 담은 《라크스골짜기의 싸가》, 현자 니얄일가를 불태워죽이는 경위를 이야기한 《니얄의 싸가》가 대표적인 작품들이다. 작품들은 모두 12—13세기의것이며 500～1 000매나 되는 장편이다.

그 셋째는 《모험싸가》로서 전설적인 장수의 모험담을 취급하고있으며 기사소설에 가까운 작품이다. 지그프리드를 주인공으로 한 《볼

숭그일가의 싸가》, 단마르크의 전설적인 장수왕을 취급한 《롤프의 싸가》 등이 여기에 속한다.

그 넷째는 《동화싸가》로서 허구적인물을 주인공으로 설정하고 공상적이고 환상적인 이야기를 펼쳐놓고있다. 이러한 작품들은 거의다 대륙에서 들어온 《로만스》의 번안이였다.

싸가는 당시 북유럽사람들의 생활을 생동하게 반영하고 산문문학, 이야기문학의 발전을 추동하였으며 후세문학에 풍부한 소재를 제공한것으로 하여 중요한 문학사적의의를 가지고있다.

북유럽에서 이슬란드를 중심으로 《엗다》와 《싸가》가 발전하던 시대는 12～13세기에 끝나고 그 이후에는 라틴어에 기초한 그리스도교의 종교문학이 판을 치게 되였으나 별로 발전하지 못하였다.

북유럽의 중세문학 역시 다른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그리스도교교회의 압박밑에서 침체기, 불모의 시대를 겪지 않으면 안되였다.

2) 동유럽문학

중세초기 동유럽에서는 주로 슬라브족이 살았다.

슬라브족은 그들이 사는 지역에 따라 동슬라브족, 서슬라브족 및 남슬라브족으로 나눈다. 그들은 6～7세기이후에 노예사회를 거치지 않고 봉건국가들을 세웠다.

동슬라브족은 드네쁘르강류역, 드비나강상류와 오까강 및 볼가강 상류에 퍼져있었으며 9세기에 이르러 끼예브루씨국가를 세웠다. 서슬라브족은 10세기초까지에 체스꼬, 뽈스까 등 국가를 세웠으며 남슬라브족은 6～7세기에 발칸반도에 퍼진 후 첫 벌가리아왕국(7－11세기)을 세웠다. 슬라브족의 하나인 쎄르브족이 쎄르메아(오늘의 쓰르비아)국가를 세운것은 12세기에 이르러서였다.

이 나라들도 10세기 후반기에 서방교회가 류포시킨 그리스도교를 국교로 삼음으로써 서유럽나라들과 마찬가지로 점차 그리스도교화되였다.

따라서 문학에서도 그후 수세기동안 라틴어에 의한 교회문학이 판을 침으로써 민족어에 기초한 민족문학의 발전은 큰 지장을 받았다. 동유럽나라들에서 민족문학이 발족하기 시작한것은 15세기이후이며 더 늦어진 나라도 있다.

이러한 사정으로 하여 11세기부터 14～15세기에 이르는 중세동유럽의 문학발전은 서유럽나라들에 비하여 매우 뒤떨어졌으며 주목할만 한 문학유산을 남겨놓지 못하였다.

여기서 례외로 되는것은 12세기에 로씨야에서 창조된 서사시 《이고리공 원정담》이다.

《이고리공 원정담》

《이고리공 원정담》(작가미상)은 1185－1187년에 창작된 서사시이다. 작품은 오래동안 알려지지 않고있다가 18세기말에 그 사본이 발견되여 1800년에 출판되면서 널리 알려지게 되였다.

서사시는 1185년에 실지 있은 력사적사실에 기초하여 노브고로드북부공국의 이고리공과 그의 친병들이 단행한 원정에 대하여 이야기하고있다. 이고리공은 다른 민족의 침입으로부터 로씨야땅을 지켜내기 위하여 단독으로 남방의 유목민 뽈로베쯔족에 대한 원정을 감행하나 패배하며 그자신도 포로로 되였다가 탈출하여 고향으로 돌아온다.

서사시는 이러한 원정과정을 독특하고 아름다운 운률을 가진 운문과 우크라이나구전문학의 수법으로 생동하게 형상하고있다.

당시 로씨야는 여러 제후국으로 갈라져 그것들사이에 알륵과 분쟁이 그칠새 없었으며 그 틈에 외부세력의 침략을 쉽게 당할수 있는 위험에 처해있었다.(실지로 서사시가 씌여진 때로부터 30～40년만에 따따르족 즉 봉건몽골군의 침입을 당하였다.)

이러한 시기에 제후들의 내란을 비난하고 로씨야땅을 지키기 위해 민족적통일을 이룩하며 힘을 합칠것을 열렬히 호소한 그 높은 애국적기백으로 하여, 민족성이 강하고 서정성이 풍부한 작품인것으로 하여 서사시는 동시대의 중세유럽서사시들가운데서 두드러져있다.

Ⅲ. 문예부흥기문학

1. 반봉건투쟁과 인민대중의 창조적활동에 의해 발전한 14—16세기 서유럽문예부흥기문학

14—16세기는 유럽문학사에서 문예부흥기로 불리운 력사적시기이며 인문주의문학이 개화한 시기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문예부흥기는 서구라파의 일련의 나라들에서 문학과 예술을 비롯한 전반적문화분야에서의 변혁과 발전이 이룩된 14～16세기를 말하는것인데 이 시기는 서구라파의 여러 나라들에서 봉건사회가 붕괴기에 들어서는 시기였습니다.》

문예부흥 문예부흥(프랑스어로 《르네쌍스》)이라는 말은 두가지 뜻으로 쓰이고있다.

문예부흥은 우선 서유럽문학예술력사의 한 시기를 가리켜 부른 말이다. 유럽의 일부 나라들에서 문학과 예술을 비롯한 전반적문화분야에서 변혁과 발전이 이룩된 14—16세기를 력사에서는 문예부흥기라고 하였다. 이 시기에 서유럽의 여러 나라들은 봉건사회의 붕괴기에 들어섰다.

14세기 후반기에 이딸리아가 제일먼저 문예부흥기에 들어섰으며 15세기 후반기부터는 영국, 프랑스, 에스빠냐, 도이췰란드, 네데를란드 등 서유럽의 여러 나라들이 문예부흥기를 맞이하였다.

일부 나라들에서는 문예부흥기가 17세기초～17세기 전반기까지 계속되였다.

문예부흥은 또한 당시에 벌어진 사상계몽운동에 대한 명칭이기도 하다.

문예부흥기의 기본특징은 인민대중의 반봉건적진출이 그 어느때보다도 강화된데 있다. 거의 1 000년에 걸치는 장구한 기간 중세기의 가혹한 봉건적 및 종교적억압을 반대하여 줄기찬 투쟁을 벌려온 인민대중은 이 시기에 이르러 반봉건적진출을 그 어느때보다도 강화하였다. 이딸리아의 돌치노농민폭동과 촘피폭동, 도이췰란드농민전쟁, 영국의 웟트 테일러폭동, 프랑스의 쟈끄리폭동 등이 그 대표적인 투쟁이다. 인민대중의 반봉건투쟁은 서유럽나라들에서 봉건제도의 붕괴를 촉진시키고 반봉건적이며 반종교적인 문화운동이 일어나도록 추동하였다.

한편 이 시기 서유럽나라들에서는 도시들의 급속한 발전에 토대하여 자본주의적요소가 자라나 널리 퍼지기 시작하였다. 여기에서 제일 앞선것이 이딸리아였으며 이것으로 하여 이딸리아는 유럽문예부흥의 조국으로 되게 되였다.

이 시기 자연을 개조하기 위한 인민대중의 창조적활동에 의하여 이룩된 많은 성과들도 문예부흥운동의 발전을 추동하였다. 이 시기 이딸리아의 꼴룸부스에 의해 아메리카대륙이 발견되였으며 뽀르뚜갈의 바슈끄 다 가마에 의해 서유럽에서 인디아로 가는 항로가 개척되였으며 에스빠냐의 마젤란에 의해 세계일주항행이 성공하였다. 뽈스까의 꼬뻬르니끄의 지동설과 이딸리아의 갈릴레오 갈릴레이에 의한 천체망원경의 발견을 비롯한 수많은 과학적성과들이 이룩되였다.

이러한 모든 성과들은 종교의 온갖 비과학적이며 불합리한 교리에 커다란 타격을 주었으며 그리스도교교리만을 신봉하던 당시 사회에 큰 파문을 일으켰다.

이 시기 그리스, 로마의 고대문화가 발견된것도 문예부흥운동의 발생에 적지 않은 영향을 주

었다. 1453년에 비잔티아제국이 뛰르끼예에 의하여 정복된 후 그곳에서 고대그리스, 로마의 수많은 문화유물이 발굴된것은 그때까지 고대문화와 접촉하지 못했던 서유럽문화인들의 눈을 뜨게 했다.

※ 문예부흥이라는 말은 고대문화의 《부흥》, 《재생》이라는 뜻이다. 당시에 새로 발굴된 고대그리스, 로마의 유물들을 통하여 그 나라들의 찬란한 문화를 알게 된 서유럽의 진보적지식인들이 고대문화를 부흥시켜 중세기문화와 다른 새로운 문화를 창조할데 대한 요구를 들고나온것과 관련하여 이런 말이 생겨났다.

신흥부르죠아출신의 진보적인 지식인들속에서는 중세기의 봉건적이고 그리스도교적인 문화와는 다른 새로운 문화를 창조할데 대한 요구가 제기되였으며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운동이 벌어지였다. 이것이 바로 문예부흥운동이였다.

문예부흥운동은 새로운 문화, 근대문화의 시초를 마련하는 운동이였다. 문예부흥운동을 통하여 서유럽의 여러 나라들에서는 문학예술을 포함한 문화의 모든 분야에서 획기적인 변혁과 발전을 이룩하고 근대적인 발전의 길에 들어서게 되였다.

문예부흥운동은 당시에 새로운 진보적사조로 출현한 인문주의사상에 토대하여 벌어진 운동이였다. 따라서 서유럽에서 일어난 문예부흥운동은 본질에 있어서 문학과 예술의 형식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인문주의를 보급하는 사상계몽운동이라고 볼수 있다.

종교개혁운동

문예부흥운동은 종교개혁운동과의 밀접한 련관속에서 진행되였다.

종교개혁운동은 카톨릭교회를 반대하는 형태로 전개된 반봉건적사회정치운동이였다. 중세기 유럽에서 카톨릭교회는 봉건체제와의 불가분리의 관계속에 있은 대봉건토지소유체로서 봉건제도를 신성화하고 유럽나라들의 진보적발전을 가로막는 제동기적역할을 하였다. 따라서 카톨릭교의 개혁을 떠나서 봉건제도의 붕괴를 생각할수 없었다.

카톨릭교회와 봉건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은 카톨릭교가 지배하던 당시의 환경에서 종교적이단의 형태로 진행되였다.

종교개혁운동에서 주되는것은 교회의 지배적역할, 카톨릭교계층제와 승려생활, 수도원에 대한 부정이였으며 방대한 교회토지의 몰수를 동반하였다.

종교개혁운동은 크게 세가지로 전개되였다. 첫째는 상층시민과 부르죠아지의 리해관계를 대변하여 도이췰란드의 루테르, 프랑스의 깔빙 등에 의하여 진행된 종교개혁운동이며 둘째는 1525년에 도이췰란드의 농민전쟁지도자 토마스 뮌쩨르에 의하여 농민들과 도시평민들의 리해관계를 반영한 심각한 사회적요구를 제기하여 진행된 운동이다.

셋째는 여러 나라의 세속귀족들과 국왕들이 자기의 정치경제적세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카톨릭교회를 반대하고 그 토지를 빼앗아가진것이다.

종교개혁운동은 일찌기 14세기에 영국, 15세기에 체스꼬에서 시작되여 16세기에 유럽의 대부분 나라들에 퍼지였다. 이 운동의 중심은 도이췰란드였다.

종교개혁운동은 여러 나라들에서 봉건제도의 기초를 뒤흔들어놓았다. 결과 많은 유럽나라들이 카톨릭교회의 지배에서 떨어져나가 카톨릭교회는 서유럽에서 자기의 독점적지위를 상실하였다. 한편 종교개혁이 진행된 나라들에서는 새로운 신교(프로테스탄트교, 퓨리탄교) 교회들이 발생하였다.

문예부흥운동과 이 시기 문학에 대하여 알자면 그것이 토대하고있는 인문주의에 대한 리해를 가져야 한다.

인문주의

인문주의는 봉건제도가 붕괴기에 들어선 시기의 시대적요구를 반영하여 나온 새로운 사조이다.

한마디로 말하여 인간을 무시하고 짓누르는 봉건적신분제도와 그리스도교교리를 반대하고 인간의 존엄과 인간성을 내세우는 사상이다. 인문주의를 인도주의 또는 인본주의라고 부른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다.

인문주의자들이 들고나온 주장은 세가지내용으로 되여있었다.

그 하나는 인간은 다같이 지성과 리성을 가진 평등한 존재이므로 마땅히 서로 존중해야 하며

그 어떤 압박도 받아서는 안된다는것이였다.

다른 하나는 중세기의 그리스도교적세계관에 반기를 들었으며 특히 인간과 그의 현실생활을 부정하고 래세의 행복을 설교하는 종교적금욕주의를 반대하는데 화살을 집중한것이다. 이로부터 인문주의자들은 인간은 래세가 아니라 지상의 현실세계에서 자유롭고 행복한 생활을 누려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인문주의자들은 또한 인간이 자유롭고 행복한 생활을 누리자면 선이 악을 타승하고 세상을 지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들은 이러한 주장에 기초하여 선을 긍정하고 찬양하며 악을 비판하고 규탄하는 문필활동과 창작활동을 벌렸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인문주의사상은 력사발전의 견지에서 볼 때 진보적인것이였다.

그러나 인문주의사상은 심각한 계급적 및 시대적제한성을 가지고있었다.

인문주의사상의 계급적제한성은 그것이 신흥부르죠아지의 리해관계를 대변하는 사상으로서 인민대중의 계급적해방을 위한 사상이 아니였다는데 있다. 인간을 신분제와 교회의 구속에서 벗어나게 할데 대한 인문주의자들의 주장은 진보적인것이였으나 본질에 있어서는 부르죠아지의 개성해방의 요구를 반영한것으로서 인민들을 봉건적압박과 착취에서 해방할데 대한 요구는 아니였다. 인문주의자들은 사회의 계급적분렬과 대립을 없앨데 대한 요구를 제기하지 못하고 사람일반에 대한 사랑을 내세워 선이 악을 이겨내게 하는 방법으로 인간의 해방을 이루어보려고 하였다.

인문주의사상의 시대적제한성은 또한 봉건제도를 뒤집어엎을데 대한 요구도, 새로운 근대적인 사상에 대한 리상도 제기하지 못하였다는데 있다. 인문주의자들은 인간을 봉건적신분제도와 교회의 압박과 구속에서 벗어나게 할것을 주장하였으나 그 근원인 봉건제도를 뒤집어엎자는 부르죠아혁명의 요구는 제기하지 못하였으며 신분제도나 그리스도교세계관자체도 철저하게 비판하지 못하였다. 그들은 다가오는 미래의 사회에 대하여서도 초계급적립장에서 극히 추상적으로 리해하였다. 그들은 인문주의가 실현되면 사회악과 불행이 없어지고 모든 사람들이 자유롭고 행복하게 사는 리상사회가 오리라고 생각하였다.

이런것으로 하여 인문주의는 사상, 문화의 진보와 발전에는 크게 이바지하였으나 인민대중의 사회적해방을 위한 실천활동에서는 큰 역할을 놀지 못하였다.

인문주의문학

인문주의문학은 이러한 인문주의의 주장을 뚜렷이 구현하여 창작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인문주의문학은 문예부흥운동의 한 고리였습니다.

인문주의문학은 인문주의의 진보적이고 긍정적인 주장을 뚜렷이 구현하였습니다.》

인문주의문학은 문학과 예술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인문주의를 보급하는 사상계몽운동이였던 문예부흥운동의 한 고리로 창조된 문학이였다.

인문주의문학의 창조자들은 모두가 인문주의자들이였으며 주로 문예부흥운동을 적극 벌린 신흥부르죠아출신의 진보적인 지식인들이였다. 그 대표적인물로 이딸리아의 뻬뜨라르까와 보까치오, 프랑스의 라블래, 에스빠냐의 쎄르반떼스와 로뻬 데 베가, 영국의 토마스 모어와 쉐익스피어 등을 들수 있다. 그들의 문필활동과 창작활동은 사람들에게 인문주의를 보급하여 그들을 사상적으로 계몽시켰다. 그들이 창작한 문학작품들은 인문주의의 진보적이고 긍정적인 주장을 뚜렷이 구현한 동시에 그 제한성도 그대로 나타냈다.

인문주의문학의 력사적진보성은 우선 그 내용에서 봉건적신분제도와 그리스도교교리를 비판하고 그 구속에서 벗어나려는 인간과 그의 생활을 찬양한것이다. 보까치오의 《데까메론》에 들어있는 많은 단편소설들, 라블래의 장편소설 《가르강뛰아와 빵따그뤼엘》, 《열두번째 밤》, 《한 여름밤의 꿈》을 비롯한 쉐익스피어의 희극들, 구두쟁이가 런던시장이 되는 이야기를 담은 데커의 희극 《구두쟁이의 명절》 등을 그 례로 들수 있다.

인문주의문학의 내용에서는 또한 인문주의에는 없는 여러가지 사회악을 폭로비판한것이 많다. 쉐익스피어의 극작품 《햄리트》, 《오셀로》, 《매크베스》, 《베니스의 상인》, 로뻬 데 베가의 극작품 《푸엔떼 오베후나》, 쎄르반떼스의 장편소설 《돈 끼호떼》는 봉건사회말기의 사

회악을 예리하게 폭로비판한 대표적인 작품들이다.

인문주의문학은 인문주의가 실현된 리상사회에 대한 동경심을 표현하기도 하였다. 토마스 모어의 《유토피어》와 깜빠넬라의 《태양의 도시》와 같은 공상소설이 그러한 작품들이다.

인문주의문학의 진보성은 다음으로 창작방법에서 중세기의 그리스도교문학과는 달리 래세가 아니라 지상의 현실생활에 관심을 돌렸으며 그것을 사실주의적으로 묘사하는데로 나아간것이다.

이 문학은 사실주의적전형화의 방법으로 예술적형상을 창조하며 사실주의적인 세부형상화에로 나아가는데서 큰 걸음을 내디디였다. 이 문학은 또한 새로운 구성형식을 탐구하고 언어구사와 형상에서 혁신을 이룩하였으며 형태가 다양해지는 등 근대적성격을 뚜렷이 나타냈다.

그리하여 인문주의문학은 유럽에서 첫 사실주의문학사조로 되였다.

인문주의문학에는 인문주의의 제한성이 그대로 체현되여있다.

인문주의문학의 제한성은 무엇보다도 이 문학이 계급적기초가 없이 인간일반을 내세운데서 표현되였다. 그들의 성격적특질에서 기본으로 된것은 초계급적인 도덕적원리인 선과 그 표현인 사랑, 우정, 인간성, 관대성, 진심, 순결성 같은 것이였다.

인문주의문학의 제한성은 또한 이 문학의 주인공들이 봉건적구속에서 벗어나 마음대로 활동하며 향락과 호화로운 생활을 누리려는 부르죠아지의 지향과 리해관계를 다분히 체현하고있는 인물들로 형상되였다는데 있다. 이 문학은 인민대중을 주인공으로 등장시키지 못하였으며 인민대중의 생활과 투쟁을 반영하지 못하였다.

인문주의문학의 제한성은 그밖에도 자기들의 리상을 공상적으로 제시한데서, 문예부흥운동의 말기에 활동한 작가들이 인문주의의 위기를 간파한데로부터 염세주의와 비관주의를 나타낸데서, 이 문학에 부분적이기는 하나 중세문학의 잔재가 남아있은데서 표현되였다.

서유럽나라들에서 인문주의문학의 발전정형

유럽에서 인문주의문학이 발전한것은 주로 서유럽나라들이였으며 그중에서도 이딸리아, 프랑스, 영국, 에스빠냐가 더 발전하였다. 서유럽의 문예부흥운동과 인문주의문학은 북유럽나라들과 동유럽나라들에도 영향을 미치였으나 그 나라들에서는 그것의 발전이 매우 미약하였다.

서유럽나라들가운데서 제일먼저 문예부흥기에 들어선 나라는 이딸리아였다. 이딸리아는 14세기 중엽부터 문예부흥기에 들어섰고 16세기말～17세기초까지 오래동안 지속되였다. 이딸리아가 선참으로 문예부흥기를 맞이하게 된것은 이 나라에서 자본주의적관계가 가장 빨리 발전하였기때문이다.

이딸리아인문주의문학의 대표자는 단편소설집 《데까메론》을 쓴 보까치오이다. 《데까메론》은 이딸리아의 부패한 봉건사회현실을 비판적립장에서 사실주의적으로 그려내고 인문주의적지향을 뚜렷이 표현하는 등 그 내용과 창작방법에서 근대문학의 새 시원을 열어놓는데 기여하였다.

이딸리아인문주의문학에서는 또한 서정시집 《깐쪼니에레》를 내놓은 뻬뜨라르까와 서사시 《광란하는 오를란도》를 쓴 아리오스또, 서사시 《해방된 예루쌀렘》을 발표한 땃쏘 등 시인들이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있다.

이딸리아인문주의문학은 공상소설 《태양의 도시》를 내놓아 널리 알려진 깜빠넬라와 같은 초기공상적사회주의자도 배출하였다.

이딸리아와 린접한 프랑스는 이딸리아보다 100년이상 뒤늦게 15세기말부터 16세기말까지 약 1세기동안 문예부흥기에 있었다. 프랑스에서는 문예부흥운동이 종교개혁운동과 뒤엉키여 구교와 신교사이의 종교적대립과 투쟁속에서 복잡하게 진행되였다.

프랑스인문주의문학의 대표자는 왕과 그 아들이 거인으로 자라난 괴이하고 환상적인 이야기를 통하여 당시의 프랑스현실을 여러모로 비판하고 인문주의를 찬양한 장편소설 《가르강뛰아와 빵따그뤼엘》의 작가 라블래이다. 이 시기 프랑스에서는 보까치오의 《데까메론》을 모방한 《엡따메론》과 같은 단편소설집도 나왔다. 이 소설집의 작가는 나바르녀왕으로 전해지고있다.

프랑스문학은 소설뿐아니라 시와 수필형태에서도 인문주의자를 배출하였다. 시문학에서 인문주의문학의 특징을 뚜렷이 드러낸것은 쁠레야

드시파(칠성파) 시인들과 롱싸르이다. 롱싸르를 비롯한 7명의 쁠레야드시인들은 문예부흥기의 시대정신을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시형식을 세련시켰으며 민족어에 의한 시창작을 적극 장려함으로써 프랑스민족시문학의 발전을 추동하였다. 몽땐뉴는 전 3권으로 된 《엣쎄》(수필)를 내놓음으로써 프랑스문학에서 수필이라는 새로운 형식을 개척하였다. 이것을 계기로 유럽에서는 수필창작이 왕성하게 진행되였다.

도바해협을 사이에 두고 프랑스와 가까운 거리에 있는 섬나라 영국도 프랑스와 비슷한 시기에 문예부흥기를 거치였으나 이 나라에서 인문주의문학이 개화한것은 16세기 후반기부터 17세기초였다.

영국문학에서 맨먼저 인문주의작품을 들고나온 사람은 토마스 모어이다. 그는 작가가 아니라 봉건관료이며 법관이였지만 인문주의사상의 영향밑에 공상소설 《유토피어》를 내놓음으로써 16세기초 인문주의문학의 길을 열어놓았다.

영국에서 인문주의문학을 대표한것은 극문학의 대가인 쉐익스피어이다. 대표작인 《햄리트》를 비롯한 그의 《4대비극》과 《베니스의 상인》을 비롯한 희극들에는 인문주의자로서의 쉐익스피어의 창작적특징이 뚜렷이 구현되였다.

영국인문주의문학은 극문학분야에서 쉐익스피어외에도 선행자인 말로우와 키드, 동시대인인 벤 죤슨과 같은 이름난 극작가들을 낳았다.

극작가인 동시에 시인이기도 했던 쉐익스피어는 극작품외에 154편의 쏘네트(14행시)를 묶은 시집을 내놓아 시문학의 발전에도 이바지하였다. 시문학에서 인문주의를 대표한 시인은 스펜써이다. 그의 대표작인 서사시 《선녀녀왕》은 아름다운 운률로 문예부흥기의 시대풍조를 표현하였다.

인문주의문학은 유럽대륙의 서남단 이베리아반도에 위치한 에스빠냐에서도 발전하였다.

종교개혁운동을 가로막고 자기의 지배적세력을 계속 유지한 카톨릭교회당국의 종교적압박도, 전제적인 봉건왕권의 압제도 시대사조인 인문주의운동을 가로막을수 없었다.

에스빠냐인문주의문학에서는 극문학과 소설이 크게 발전하였다. 극문학계에서는 《푸엔떼오베후나》를 비롯한 수많은 희곡들을 창작하여 에스빠냐극문학의 황금세기를 열어놓은 로뻬 데 베가와 그를 이은 깔데론과 같은 이름난 극작가들이 활동하였다. 소설에서는 뒤늦게 류행된 기사소설과 목가소설, 새로 출현한 악당소설과 같은 소설발전의 성과에 토대하여 쎄르반떼스(16세기말—17세기초)의 장편소설 《돈 끼호떼》가 창작되였다.

문예부흥기 인문주의문학은 그밖의 나라들에서도 발전하였다.

뽀르뚜갈에서는 민족극의 창시자인 비쎈떼(1465년경—1536년경)에 이어 뽀르뚜갈이 자랑하는 시인 까몽이슈(1525년경—1580)가 민족서사시 《루지아다스》(1572)를 내놓았다.

아프리카의 희망봉을 돌아 인디아로 가는 항로를 발견한 항해가 바슈꾸 다 가마의 활동을 주제로 하고 여기에 극적인 일화를 담아 뽀르뚜갈력사를 시화함으로써 애국주의를 고취한 이 서사시는 뽀르뚜갈문학의 기념비적인 작품으로 되였다.

종교개혁을 둘러싸고 혼란상태에 빠져있던 도이췰란드에서는 문예부흥운동이 문학예술분야가 아니라 학문과 사상분야에서 활발히 벌어졌으며 인문주의문학으로서는 손꼽을만 한 성과작이 나오지 못하였다.

여기서 주목되는것은 도시평민문학이 계속 발전하여 한스 작스(1494—1576)와 같은 이름난 구두쟁이작가가 나온것이다. 그는 뉴른베르그 구두동업조합의 부유한 직공장이였는데 구두를 만들면서도 다양한 문학작품들을 수많이 창작하였다. 그는 장공시인으로서 4 000편이 넘는 장공의 노래를 짓고 1 700편에 이르는 격언시를 썼으며 61편의 비극과 64편의 희극, 85편의 사육제극을 창작하였다. 특히 《바보의 치료》, 《천국에서 내려온 편력학생》, 《온천》을 비롯한 그의 사육제극은 중세 사육제극의 전통을 계승발전시켜 완성함으로써 문예부흥기의 극문학과 연극발전에 이바지하였다.

네데를란드도 서유럽의 문예부흥운동에 한몫한 나라이다. 네데를란드는 에라스무스(1469년경—1536)와 같은 유명한 인문주의학자를 배출하고 렘브란트, 루벤스와 같은 세계적인 미술가를 낳았다.

2. 이 딸 리 아 문 학

1) 유럽문예부흥의 조국으로 불리운 이딸리아의 문예부흥기문학

이딸리아는 서유럽나라들가운데서 제일먼저 문예부흥기에 들어선 나라이다. 서유럽의 다른 나라들이 문예부흥기에 들어선것은 대체로 15세기 후반기부터이지만 이딸리아는 벌써 14세기 중엽부터 문예부흥기에 들어섰다. 그래서 력사에서는 문예부흥운동을 개척한 나라라는 의미에서 이딸리아를 흔히 유럽문예부흥의 조국이라고 부르고있다. 이딸리아가 유럽문예부흥의 조국으로 될수 있은것은 이 나라에서 자본주의적관계가 가장 빨리 발전하였기때문이다.

중세기에 이딸리아의 도시들은 유럽의 다른 나라들보다 일찌기 반봉건투쟁을 전개하였으며 그 과정에 점차 자치권을 획득하고 도시와 그 주변지대까지 합쳐 도시공화국을 형성하였다. 이러한 도시공화국들가운데서 대표적인것이 베네찌아(베니스), 제노바, 피렌쩨(플로렌스) 등이였다. 이 도시들은 경제적으로 빨리 발전하여 상공업이 번창해졌으며 서유럽과 아시아사이의 중계무역을 통하여 급속히 부유해졌다.

이에 따라 이 도시들에서는 자본주의적관계가 일찌기 발생하였으며 신흥부르죠아지들이 경제권을 틀어쥐고 나날이 살쪄갔다.

그런데 인간자체를 무시하는 중세기의 봉건적, 종교적질곡이 그들의 자유로운 활동을 구속하였다. 서유럽에서 중세기는 봉건귀족계급의 가혹한 신분적압박과 봉건적착취, 카톨릭교회와 그리스도교의 정신적예속이 지배하고 인간의 자주성이 무참히 짓밟힌 암흑시대였다.

이딸리아의 신흥부르죠아지들은 바로 이 중세기를 부정하고 봉건적, 종교적구속을 반대하여 인문주의운동으로 불리운 반봉건적사상문화운동을 벌렸다. 이리하여 이딸리아에서 남먼저 문예부흥이 시작되였던것이다.

이딸리아에서 문예부흥은 서유럽에서 제일먼저 시작되고 제일 오래 지속되였다.(14세기 중엽부터 16세기까지 약 250년동안 계속되였다.)

이딸리아문예부흥과 인문주의문학의 발전단계를 세 시기로 갈라 고찰할수 있다.

그 첫 단계는 14세기 후반기이다.

이 시기에 자치권을 가진 도시공화국들에서 자본주의적관계가 장성하는 속에 인문주의운동이 일어나고 활발해졌다.

이 시기 이딸리아인문주의문학의 대표자는 뻬뜨라르까와 보까치오이다.

뻬뜨라르까 프란체스꼬 뻬뜨라르까(1304—1374)는 단떼와 동시대에 활동하였으나 단떼보다 앞서 고대그리스, 로마의 문헌을 발굴, 수집, 연구하는 사업에 나섬으로써 이딸리아문예부흥의 토대를 쌓고 인문주의운동을 추진시킨 선구자이다.

그는 아렛쪼에서 공증인의 아들로 태여났다. 그의 아버지는 피렌쩨에서 백색파에 속했다가 단떼와 함께 추방당한 사람이였다. 뻬뜨라르까는 몽뻴리에와 볼로나의 대학들에서 법학을 공부하고 1326년에 수도사가 되였다. 그후 그는 아비니용과 발끼우싸 등지에서 법왕청과 추기경에 복무하기도 하고 전문적인 문필활동을 벌리기도 하면서 많은 시를 써내여 단떼와 견주는 이름난 시인으로 되였다. 하여 그는 1341년에 로마원로원으로부터 시인들의 최고의 영예인 월계관을 수여받았다.

뻬뜨라르까는 1340년이후에 고대그리스, 로마의 고전연구에도 힘을 넣어 당시 이딸리아에서 류포되기 시작했던 인문주의운동의 지도적인물로 되였다.

그의 대표작으로는 고대로마의 력사적사실을 라틴어로 시화한 애국적인 서사시 《아프리카》(1338년경—1343), 빠르마를 둘러싼 에스떼가문과 곤자가가문의 싸움을 내용으로 하면서 분

쟁과 내란을 반대하고 이딸리아의 통일을 지향한 시 《나의 이딸리아》(1344), 유명한 서정시집 《깐쪼니에레》(1327—1373)가 있다.

《깐쪼니에레》(원제목: 《속어단편시집》)는 시인이 1327년에 아비니용의 교회당에서 만난 아름다운 녀성 라우라에 대한 사랑을 노래한 시집이다. 속어(이딸리아어)로 쓴 이 시집은 각종 시형식으로 된 366편의 시를 수록하고있는데 그 내용에서 인문주의적이며 근대적인 경향이 강하고 독특한 시창작기교를 구사한것으로 하여 단떼의 서사시 《신곡》과 함께 14세기 이딸리아시문학이 이룩한 최대의 성과작으로 간주되였다.

뻬뜨라르까의 공적은 이딸리아의 시를 중세기적인 신비성, 추상성, 풍유성에서 해방하고 지상적인것, 현실적인것을 인간적으로, 정열적으로 노래하였으며 쏘네트라고 불리운 서정시형식을 완성함으로써 단떼가 미처 해결하지 못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근대시문학에로의 길에서 큰걸음을 내디딘것이다.

14세기 후반기에 이딸리아문학을 근대화하는데서 뻬뜨라르까와 함께 큰 역할을 한것은 보까치오이다.

보까치오는 단편소설집 《데까메론》을 들고나와 산문문학에서 인문주의문학의 사상예술적특징을 뚜렷이 보여주었다. 보까치오는 시문학이 위주로 되여있던 이딸리아와 유럽문학에서 사실주의적산문발전의 길을 개척함으로써 《산문의 아버지》로 불리우게 되였다.

단떼의 추종자는 많지 못하였으나 뻬뜨라르까와 보까치오의 모방자는 많았으며 이딸리아문예부흥기 문인들은 이러저러하게 그들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뻬뜨라르까풍의 시는 뻬뜨라끼즈모로 불리워 에스빠냐, 뽀르뚜갈, 프랑스에서 류행되였으며 온 유럽에 이딸리아문학모방시대가 도래하게 하였다.

이딸리아문예부흥의 둘째 단계는 15세기이다.

이 시기 이딸리아력사에서 특징적인것은 많은 도시국가들이 봉건제후들의 세력밑에 들어가 왕국, 공후국으로 넘어간것이였다. 도시국가내부에서 도시귀족층과 신흥상공부르죠아지사이의 대립과 투쟁, 부유한 시민들과 가난한 시민들사이의 대립으로 하여 분쟁이 분분해지고 그것을 계기로 도시를 둘러싼 봉건제후들의 약육강식이 치렬해졌다. 이러한 속에서 많은 도시들에는 봉건공후들의 독재적인 지배가 확립되였다.

15세기의 력사적환경은 인문주의작가들이 세력있는 봉건제후들의 비호를 받지 않고서는 활동하기가 어렵게 만들었다. 이것은 이 시기 문학을 궁정문학적성격, 귀족적제한성을 띠지 않을수 없게 만들었으며 고대문학의 전통과 멀어지게 하고 인민운동과의 련계를 상실하게 만드는 후과를 초래하였다.

대봉건공후 메디치가문이 지배한 피렌쩨가 당시 이딸리아시문학의 중심지로 되고 그곳에서 군주 로렌쪼 메디치(1449—1492)의 보호하에 메디치가문이며 시인, 인문주의학자인 뽈리찌아노(1454—1494), 시인 루이지 뿔치(1432—1484)가 활동한것은 이와 관련되여있다.

그중에서 보다 민주주의적인 경향을 보여준 상인출신의 뿔치는 메디치가문의 비호를 받는 궁정시인이였지만 민간문학의 전통을 따르고 민간문학의 언어표현을 구사하였다. 그는 14세기의 민간이야기시 《오를란도》(프랑스명:롤랑)에서 소재를 택하여 오를란도의 신하인 선량한 거인 모르간떼의 우습강스러운 형상을 창조한 희극적인 기사서사시 《대(큰) 모르간떼》(1483)를 대표작으로 창작하였다. 시인은 이 작품에서 당시 이딸리아 도시귀족들의 기사문학작품들을 야유하고 봉건기사도적인 리상을 조소하였다. 뿔치가 그린 환상적인 거인의 형상은 프랑스의 인문주의작가 라블래에게 영향을 주었다.

이딸리아문예부흥 둘째 단계에 활동한 시인들가운데서 또한 보이아르도와 아리오스또가 알려져있다. 그들은 이딸리아 북부의 소국 페라라공국에서 에스떼공작에게 복무한 문인들이였으며 기사서사시창작에 힘을 넣은 시인들이였다.

보이아르도(1440년경—1494)는 백작출신으로 페라라공국의 고관으로 활동하면서 시를 창작하였다. 그는 미완성장편기사서사시 《사랑을 하는 오를란도》(1476—1494)에서 초인간적인 기사들의 환상적인 련애와 모험이야기인 종전의 기사서사시, 기사소설의 낡은 틀에서 벗어나 주인공을 사랑과 군사적의무사이에 동요하는 산인간으로 그려냄으로써 근대문학에로 한걸음 전진하게 하였다.

이것을 이어받아 더욱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린 사람은 아리오스또이다.

아리오스또

루도비끄 아리오스또(1474—1533) 역시 보이아르도와 마찬가지로 귀족출신으로 생애의 대부분을 페라라공국 대공 에스떼의 신하로 복무하였다. 하지만 그는 고전문학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소유하고 인문주의적인 시창작활동을 벌려 이딸리아문예부흥에 이바지하였다.

아리오스또는 초기에 로마극작가 테렌티우스의 작품을 모방한 5편의 희극을 쓰고 이딸리아희극의 창시자로 간주되였으나 그의 진짜실력이 나타난것은 서사시 《광란하는 오를란도》(1516—1532)에서였다. 이 작품으로 하여 그는 이름을 날리게 되였다.

서사시 《광란하는 오를란도》는 선행한 시인 보이아르도의 미완성기사서사시 《사랑을 하는 오를란도》의 속편으로 시도된것이였으나 그것을 훨씬 릉가한 작품으로 되였다.

서사시는 《사랑을 하는 오를란도》에서 중단된 이야기를 이어받아 같은 소재, 같은 인물로 그리스도교도와 이교도의 전쟁과 기사도적인 사랑이야기를 펼쳐놓고있다. 이야기는 사랑하는 이슬람교국가의 공주 앙젤리까가 도망쳐 다른 청년을 사랑한다는것을 알고 정신이 나가 광란하던 오를란도가 마감에 가서 다시 정신을 차리고 전쟁을 승리에로 이끄는것으로 결속되고있다.

작품은 기사서사시형식으로 기사들의 사랑과 무훈에 대한 환상적인 이야기를 펼쳐나가면서 그들을 야유하고 조소함으로써 기사문학을 황당무계한것으로 보는 시인의 립장을 명백히 하고있다. 환상적인 줄거리와 작품의 이모저모에는 당대 이딸리아현실이 다양하게 반영되여있고 인문주의적지향이 뚜렷이 나타나고있다. 작품은 풍부한 상상력, 또스까나방언을 재치있게 구사한 언어적특성, 세련된 8행시형식 등의 예술적특성도 보여주었다.

그리하여 서사시는 중세문학을 사상예술적으로 총화한 단떼의 서사시 《신곡》과 함께 이딸리아문예부흥기 시문학을 대표하는 작품으로 중요한 문학사적지위를 차지하게 되였다.

이딸리아문예부흥의 셋째 단계는 16세기이다.

이 시기에 이딸리아는 정치경제적으로 쇠퇴하고 국내에서 봉건카톨릭교세력의 지배가 강화되여 인문주의가 위기에 처하게 되였다. 중세기부터 계속되여온 나라의 정치적분산성이 여전히 극복되지 못한 상태에서 점차 쇠퇴하기 시작한 도시국가들은 프랑스, 에스빠냐 등 외래침략자들의 침략을 받게 되였다. 그러나 이딸리아의 봉건통치배들과 카톨릭반동들은 외래침략자들과 싸울 대신에 우유부단한 태도를 취하고 그들과 결탁하였으며 자기 나라의 진보적세력에 대한 탄압을 강화하였다. 외래침략자들의 부단한 침입과 이딸리아사회의 정치적분산성, 봉건군주제와 법왕청의 지배는 이 나라의 형편을 더욱 악화시켰다.

이러한 환경에서 이딸리아의 인문주의문화는 위기에 처하여 점차 쇠퇴하게 되였다. 이 시기 대표적인 인문주의작가는 땃쏘와 깜빠넬라이다.

땃 쏘

또르꽈또 땃소(1544—1595)는 이딸리아문예부흥기 문학계에서 마지막대표자의 한사람이다.

그는 시인 쏘렌또의 집안에서 태여나 빠도바와 볼로냐에서 대학교육을 받은 후 페라라공국에 가서 루이지 데스떼추기경에 복무하였으며 1572년부터 그곳 대공 알폰쏘2세의 궁정시인으로 있었다. 그는 1577년부터 정신병의 징후가 나타나 1579년부터 7년동안 정신병원에 갇혀있었으며 1586년에 탈출하여 로마에서 지냈다. 그는 말년에 로마법왕에 의하여 계관시인으로 선정되였으나 병으로 하여 월계관을 쓰지 못하고 수도원에서 사망하였다.

파란에 찬 시인의 생애는 후세 작가, 예술인들의 주목을 끌어 괴테의 희곡 《또르꽈또 땃쏘》(1789), 바이런의 《땃쏘의 비탄》, 리스트의 교향곡 《또르꽈또 땃쏘》 등 작품들에 형상되였다.

이딸리아에서 인문주의운동이 쇠퇴하고 봉건카톨릭교세력의 지배가 강화되던 시기에 활동한 땃쏘는 선행한 인문주의시인들의 전통을 이어받으면서도 타협적인 립장에 서서 인문주의와 신비주의, 이교적인것과 그리스도교적인것이 뒤섞인 모순된 시작품을 창작하였다.

그의 대표작은 전 20곡, 1 917련의 8행시로 된 장편서사시 《해방된 예루쌀렘》(1575)이다. 제1차 십자군원정때 예루쌀렘으로 진격한 그리스도교군대가 이슬람교군대와 싸우는 이야기를 내용으로 한 이 작품은 호메로스와 베르길리우스의 서사시에 비길만큼 구상이 웅대한 《그리스도교적영웅서사시》로 창작되였다. 시인은 카톨

릭교의 이교도적인 공세가 강화된 조건에서 자기의 작품을 종교서사시형식으로 만들었지만 카톨릭교의 금욕주의교리와 배치되게 그리스도교도인 기사와 이교도녀성과의 사랑을 파고들고 녀주인공 알미다를 비롯한 이교도녀성들의 형상을 감동적으로 그려냈으며 그들의 감정과 움직임을 섬세하게 추구하였다.

깜빠넬라와 《태양의 도시》

똠마조 깜빠넬라(1568—1639)는 이딸리아 남부 깔라브리아에서 태여나 수도승생활을 하면서 철학, 종교, 문학 등에 대한 다방면적인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는 유물론을 선전한것으로 하여 1592년과 1593년에 종교재판을 받았다. 깜빠넬라는 그후 에스빠냐침략자들을 반대하는 투쟁을 벌리다가 체포되여 1599년부터 27년동안 감옥살이를 하였으며 출옥후에 프랑스에 가서 객사하였다.

《태양의 도시》는 1602년에 그가 감옥에서 라틴어로 쓴 공상소설이다. 소설이 인쇄출판된것은 1623년이다.

작품은 빈민구제원 원장과 제노바의 선장사이의 대화를 통하여 사람들이 다같이 일하고 다같이 잘사는 리상적인 사회에 대한 공상을 펼쳐보이고있다.

제노바의 선장은 빈민구제원 원장의 요청으로 세계일주항해를 하던중 마지막으로 쎄일론(스리랑카)섬에 상륙했다가 구경하게 된 태양의 도시에 대하여 이야기한다. 《1. 태양의 도시의 구성, 통치체계 등에 대하여, 2. 그들의 생활상태에 대하여, 3. 그들의 생업에 대하여》 등의 체계로 된 이야기에서는 《태양》이라고 부르는 승려의 통치밑에 모두가 평등하게 골고루 잘 사는 이 태양의 도시가 그야말로 리상사회라는것이 강조되고있다. 여기에는 행복한 사회에 대한 그 당시 광범한 인민대중의 지향과 념원이 일정하게 반영되였다.

그러나 작품에 그려놓은 리상사회는 승려들이 통치하는 종교적인 나라이며 신비적인 점성술에 의하여 모든것이 규정되는 나라이다. 그나마도 비현실적인 공상에 그치고 그러한 리상을 실현하기 위한 방도에 대해서는 아무런 예측도 내놓지 못하였다. 작품은 예술적으로 매우 생경하고 미숙한 산문이야기로서 그보다 약 100년전에 나온 영국의 토마스 모어의 《유토피어》(1516)를 모방한 점이 많다.

《태양의 도시》는 이러한 제한성을 가지고 있으나 일찌기 미래의 사회주의사회에 대한 공상을 펼쳐보인 작품으로서 토마스 모어의 《유토피어》, 베이콘의 《신애틀랜티스》와 함께 근대초기의 3대공상적사회주의소설로 간주되고있다.

2) 보까치오와 《데까메론》

보까치오는 문예부흥기 이딸리아인문주의문학계의 대표자이며 그의 단편소설집 《데까메론》은 유럽인문주의문학에서 대표작의 하나이다.

죠반니 보까치오(1313—1375)는 14세기 이딸리아에서 상공업이 가장 번창한 도시였던 피렌쩨의 부유한 상인의 집안에서 태여났다. 보까치오는 프랑스녀자와의 사이에 태여난 사생아였다.

그의 아버지는 자기 아들을 상인이 아니면 법률가로 키우려는 희망을 품고 처음 6년동안은 이름난 상인에게, 다음 6년동안은 이름난 법학교수에게 맡겼다. 그러나 보까치오는 상업이나 법학에는 아무런 흥미도 느끼지 못하였다.

그후 보까치오는 아버지가 시키는대로 상업을 실습하러 나뽈리에 갔다가 그곳 궁정에 출입하면서 궁정작가들과 접촉하는 과정에 점차 문학에 뜻을 품고 1330년대 중엽부터 문학작품을 쓰기 시작하였다. 그 과정에 대표작인 《데까메론》을 비롯하여 서사시 《피에졸란의 요정》, 중편소설 《피야멧따》 등 여러편의 시와 소설들을 창작하였다.

보까치오는 1360년에 피렌쩨부근의 작은 거리 체르딸도에 은퇴한 이후 창작에서 손을 떼고 주로 과학활동에 종사하였다. 한때 그는 한 참회승으로부터 협박을 받고 자기의 문학작품과 장서들을 모두 불태우고 문필활동을 그만두려고까지 했다가 시인 뻬뜨라르까의 만류로 생각을 다시 고쳐먹었다고 한다. 이 시기 그는 고대그리스와 로마의 언어와 문화, 력사를 연구하고 그에 대한 책을 썼으며 피렌쩨의 대학에 초빙되여 단떼의 《신곡》에 대한 강의도 하였고 단떼의 첫 전기를 쓰기도 하였다. 그러다가 병을 만나 62살에 사망하였다.

1349년에 탈고하고 1353년에 발표한 《데까메론》은 보까치오가 나뽈리왕이였던 로베르또

의 손녀 죠반나의 요청으로 100편의 단편소설을 창작하여 《10일이야기》라는 하나의 체계로 묶은 작품집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보까치오는 〈데까메론〉에서 봉건적신분제도의 부당성과 잔인성을 날카롭고 대담하게 폭로규탄하고 인간의 평등을 주장하였으며 교회의 허위적인 처사와 승려들의 위선과 탐욕, 정신도덕적부패성을 신랄하게 풍자조소하면서 교회와 금욕주의에서 벗어난 인간들이 생활에서 느끼는 환희와 락천적기분을 표현하였습니다. 문예부흥운동의 첫 시기에 나온 이 작품은 봉건통치배들에게 큰 타격을 주었으며 봉건제도가 붕괴의 길에 굴러떨어지기 시작하고 근대의 려명기가 시작되던 전환의 시기의 사회풍조와 분위기를 선명하게 반영하였습니다.》

《데까메론》은 1340년대말 피렌쩨에 무섭게 돌았던 페스트의 피해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하고있다. 그때 7명의 젊은 녀성과 3명의 청년이 교외의 한 시골별장에 피신하여있으면서 너무 심심하여 날마다 매 사람이 이야기를 한가지씩 하였는데 하루에 10가지씩 하는 이야기가 10일간이나 계속되여 열흘동안에 100가지 이야기를 하였다고 한다. 《데까메론》이란 《10일이야기》라는 뜻이다.

1일에는 사회자의 제기로 지혜와 기지로써 곤경에서 벗어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2일에는 주인공이 여러가지 간난신고끝에 모든 예상을 뒤집어엎고 행복한 결말에 이르는 이야기가, 3일에는 련애를 하다가 불행에 빠질번 했던것을 요행 모면한 이야기가, 4일에는 그와 반대로 사랑으로 인하여 비극적인 사태를 빚어낸 이야기가 벌어진다. 이런 식으로 작품에서는 사랑에서 성공하는 이야기, 재치있는 말로 남의 야유를 막아내거나 기민한 답변으로 위험에서 벗어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 모욕을 당하거나 협잡에 걸렸던 사람들의 복수이야기, 미덕이 있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 등 다양한 소재를 다룬 이야기들이 펼쳐진다.

《데까메론》에 나오는 이야기형식의 단편소설들에는 퇴페적이고 추잡한 내용이 적지 않지만 그속에는 봉건과 종교를 반대하는 진보적인 사상이 깔려있다. 인문주의자인 보까치오는 이 작품들에서 인간은 봉건적신분제도의 억압에서 해방되여야 하며 무조건적인 순종을 요구하는 종교의 올가미에서 정신적으로 벗어나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하였다.

단편소설집 《데까메론》에는 무엇보다도 봉건적신분제도의 부당성과 잔인성을 날카롭고 대담하게 폭로규탄하고 인간의 평등을 주장한 작품들이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있다.

그 대표적인 작품이 4일째 되는 날의 첫번째 이야기인 단편소설《기스몬다공주의 이야기》이다. 이 작품에서 씨레루모의 대공 단꾸레디의 외동딸 기스몬다가 궁전에서 기스까르도라는 젊은 병졸을 사랑하게 되는데 그것을 안 대공은 비천한 사람과 사랑을 맺았다고 하여 그 병졸을 죽이고 그의 심장을 황금접시에 담아서 딸에게 보여준다. 자기의 사랑을 실현할수 없게 된 기스몬다는 기스까르도의 심장이 담긴 접시에 입을 맞춘 다음 거기에 독약을 부어 마신다. 대공이 황급히 달려왔을 때 기스몬다는 아버지를 저주하며 기스까르도의 무덤옆에 자기를 묻어줄것을 유언한다.

공주가 아버지에게 한 다음의 대사는 작품의 기본사상을 뚜렷이 표현하고있다.

《그리고 귀천에 대해서 말한다면 평등하게 태여나 앞으로도 평등해야 할 우리들사이에 차별이 생긴다면 그것은 다만 그 사람의 사람됨에 달린 거라구 저는 생각합니다.… 허심하게 말한다면 아버지는 그이가 가장 고귀한 사람이며 아버지와 같은 귀족들이 저속한 인간들이라는것을 아시게 될거예요.》

작품에는 봉건적신분제도를 반대하고 인간의 평등을 요구한 문예부흥운동자들의 사상이 기본주제속에 체현되여있다.

문예부흥운동사상을 반영한 작품들은 이외에도 신분이 낮은 의사의 딸이 신분이 높은 백작과 결혼하고 자기를 업신여기는 남편으로 하여금 끝내 태도를 고치게 만든 이야기(3일 아홉번째 이야기), 부유한 상인의 딸 리자벳따가 가난한 고용인 로렌쪼와 사랑을 맺았다가 악독한 오빠들이 그를 죽여버리자 비탄끝에 죽고마는 이야기(4일 다섯번째 이야기), 신분이 낮은 피렌쩨의 빵 굽는 장사군이 신분이 높은 귀족과 맞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머리를 숙이게 만든 이야기(6일 두번째 이야기), 령주와 결혼한 농민의 딸이 온갖 시련을 이겨내고 귀족녀자들보다 우월하다는것을

확증시킨 이야기(10일 열번째이야기) 등 많다.

《데까메론》에는 또한 카톨릭교회의 승려들과 수도원의 허위와 위선을 폭로비판하고 반종교사상을 주제로 한 작품들도 적지 않다. 그런 작품들로는 《치뽈로형제에 대한 이야기》를 비롯하여 여러편이 있다.

《치뽈로형제에 대한 이야기》는 6일째 되는 날의 마지막이야기이다. 성지와 령지를 돌아다니는 순례승 치뽈로가 뻐꾸기날개를 천사 가브리엘의 날개라고 하면서 그것으로 사람들을 축복해주고는 그 축복을 받은 사람들의 집에서 키우는 짐승들은 성인들의 보호를 받는다고 거짓말을 한다. 승려가 허황한 거짓말을 하면서 돈을 기증받는것을 본 두 익살군이 치뽈로의 뻐꾸기날개통에서 가브리엘의 날개를 훔쳐내고 대신 석탄을 넣는다. 치뽈로는 날개가 없어진것을 보고 깜짝 놀라지만 인차 그 석탄을 순교자 라우렌쮸스의 재이라고 하면서 그것으로 몸에 십자를 그으면 1년동안은 아무런 화상도 입지 않는다고 사람들을 속이고 그 자리에서 또 돈을 기증받는다.

작품에서는 이처럼 교회의 위선과 허위성, 승려들의 파렴치하고 교활한 사기협잡행위를 예리하게 폭로비판하였다.

첫날의 네번째 이야기에서도 수도원의 한 소녀를 놓고 늙은 수도원장과 젊은 수도승이 암투를 벌리면서 추잡한 행동을 하는것을 통하여 승려들의 위선과 도덕의 내막을 낱낱이 발가놓았다. 4일 두번째 이야기(승려 알베르뜨에 대한 이야기)도 같은 주제의 단편소설이다.

《데까메론》에는 이밖에 종이 주인의 안해와 가까이 지내면서 모자라는 주인을 골려 마당의 과일나무를 찍어버리게 하는 이야기와 같이 천민의 지혜를 평가한 작품과 인간의 순정에 대한 작품도 있으며 악마를 지옥에 보낸 이야기와 같이 순수 웃음만을 자아내는 작품도 있다.

단편소설집 《데까메론》에 나오는 대부분의 이야기들이 상스럽고 속된 생활로 엮어져있지만 그속에는 작가의 인문주의적견해와 립장이 뚜렷이 구현되여있다.

단편소설집 《데까메론》은 그 창작방법에서도 중세기적인 낡은 틀을 마스고 근대적인 사실주의적특성을 뚜렷이 나타냈다.

작품에서는 환상적인 신이나 성인, 죽은 사람의 령혼이 아니라 산인간들이 등장하고있으며 비현실적인 저승세계가 아니라 산 현실이 묘사되여있다. 여기에는 황제와 국왕, 령주와 귀족 등 귀족계급에 속한 인물들, 법왕과 대사교, 사교와 신부, 참회승과 수도승, 수녀 등 승려계층에 속한 인물들, 농민과 목수, 하인과 하녀 등 하층출신인물들 등 각계각층의 인물들이 등장하고있으며 그 무대도 이딸리아에 국한된것이 아니라 유럽 각지와 아프리카, 중근동 등 그 폭이 매우 넓다.

작품에서는 또한 비현실적인 환상과 꿈, 추상적이고 도식적인 상징과 풍유로 충만된 중세기문학의 형식과 방법을 배격하고 산인간과 그들의 생활을 그대로, 사실주의적으로 묘사하는데로 지향하였다.

이딸리아에서는 12세기까지 라틴어와 각이한 지방방언들이 씌여오다가 13세기에 들어와서 피렌쩨를 중심으로 한 또스까나지방의 방언으로 통일되기 시작하였으며(여기에는 단떼의 공로가 컸다.) 14세기 중엽에 와서는 그 방언이 압도적으로 우세해졌다. 그리하여 이 시기 또스까나방언에 기초하여 이딸리아민족어가 형성되게 되였다. 보까치오는 《데까메론》에서 피렌쩨에서 널리 쓰이던 생기있는 입말을 사용하면서 아름답고 탄력있는 문체로 생활을 생동하게 그려내였다.

그리고 《데까메론》에 들어있는 100개의 짧은 이야기형식의 작품은 그때까지 운문을 중시하고 산문을 경시하던 유럽문학에서 산문문학, 특히 단편소설의 시원으로 되였다.

단편소설집 《데까메론》은 초계급적리상과 부르죠아적평등을 비롯한 인문주의의 제한성을 극복하지 못하였으며 예술적으로 유치한 점이 적지 않다. 그러나 작품은 이딸리아의 부패한 봉건사회를 비판적립장에서 사실주의적으로 그려놓음으로써 현실을 똑바로 인식하고 봉건사회의 신분제도와 카톨릭교의 세기적인 구속과 억압에서 벗어나려는 인민대중의 사상의식발전에 긍정적인 작용을 하였으며 문학작품의 내용과 창작방법에서 근대문학의 새 시원을 열어놓는데 기여하였다. 바로 여기에 《데까메론》의 사회력사적 및 문학사적의의가 있다.

죠반니 보까치오는 말년에 반동적교회의 위협에 굴복하였지만 《데까메론》의 사회력사적 및 문학사적의의로 하여 후세에 길이 전해지고 있다.

3. 프 랑 스 문 학

1) 귀족적성격이 강하고 종교개혁 운동과 밀착된 프랑스 문예부흥기문학

프랑스에서 문예부흥기는 15세기말에 시작되여 16세기말까지 약 한세기동안 계속되였다. 프랑스는 유럽문예부흥의 조국인 이딸리아와 지리적으로 린접한 나라인데다가 1498—1589년에 걸치는 이딸리아와의 장기적인 전쟁과정에 이 나라와의 접촉이 많아졌던 관계로 그 어느 나라보다도 이딸리아문예부흥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프랑스의 문예부흥운동은 문예부흥과 인문주의운동 일반이 가지고있는 특징과 함께 자기 나라의 고유한 특징을 나타냈다.

그 특징의 하나는 귀족적성격이 강한것이다. 프랑스에서는 이딸리아나 영국에 비하여 부르죠아지의 성장이 뒤떨어졌던것으로 하여 인문주의자들이 부르죠아들속에서가 아니라 귀족출신의 선각적인 청년들속에서 많이 배출되였다. 이것은 프랑스의 인문주의사상속에 귀족적세계관이 혼합되게 하였다.

특징의 다른 하나는 문예부흥운동이 종교개혁운동과 밀착되여 진행된것이다. 16세기 프랑스는 유럽나라들가운데서 구교와 신교의 종교적대립과 투쟁, 종교개혁운동이 가장 치렬하게 진행된 나라의 하나였다. 구교(카톨릭교)도들과 신교도(유그노)사이의 대립과 투쟁이 얼마나 심하였는지 1572년 8월 빠리에서 약 4천명, 지방에서 약 5만명의 신교도들이 학살된 성 빠쏠로뮤의 학살사건까지 빚어졌다. 16세기 후반기에는 프랑스의 종교전쟁에 에스빠냐, 도이췰란드, 네데를란드, 영국 등 외부세력까지 개입함으로써 매우 복잡한 양상을 띠게 되였으며 그 피해는 대단히 컸다.

이러한 시대적배경속에서 프랑스의 인문주의문학은 귀족적성격을 강하게 띠였다. 인문주의의 비호자였던 나바르녀왕의 문학소조에 속한 시인들도 귀족들이였고 롱싸르를 비롯하여 쁠레야드시파에 뭉친 시인들도 귀족청년들이였다. 반봉건적인 인문주의사상을 들고나온 사람들자신이 귀족들이였다는 사정은 이 문학의 반봉건적성격을 약화시키지 않을수 없었다.

프랑스인문주의문학에서 기본은 산문문학과 시문학이였으며 극문학은 극히 미약하였다.

프랑스인문주의소설문학에서 1인자는 라블레이다. 종교교육을 받고 수도사로 있다가 반종교적인 사상을 품은것으로 하여 추방된 라블레는 고대문화를 연구하고 인문주의자로 되였다. 그는 5부작장편소설 《가르강뛰아와 빵따그뤼엘》에서 문예부흥기의 시대정신을 뚜렷이 표현하였으며 인문주의리상을 구가하였다. 이 작품으로하여 라블레는 프랑스인문주의문학을 대표하는 작가로 공인되게 되였다.

나바르녀왕과 《엡따메론》

프랑스문예부흥기 소설문학에서 다음자리를 차지하는것은 나바르녀왕이 썼다고 하는 단편소설집 《엡따메론》(1559)이다.

마르그리뜨 나바르(1492—1549)는 프랑스왕 프랑씨스1세의 누이였다. 그는 두번째 결혼으로 에스빠냐 나바르왕의 왕비가 되였다가 남편이 죽은 후 자신이 나바르녀왕이 되여 나라를 통치하였다. 그는 비록 소국의 녀왕이였지만 인문주의에 공감을 가지고 많은 인문주의자들이 자기 궁정에 체류하면서 활동하도록 조건을 보장해주었다. 세상사람들은 그들을 가리켜 나바르녀왕의 문학소조라고 불렀다. 인문주의사상을 담고 풍부한 음악성과 시어의 운률성, 표현의 유연성과 자연스러움으로 특징적인 근대적인 시(《서한시》, 1527)를 쓴 마로(1496년경—1544)와 같은 시인이 이 문학소조에서 배출되였다.

나바르녀왕은 자기도 직접 창작하였는데 그것이 단편소설(꽁뜨)집 《엡따메론》이다.

이 소설집은 녀왕이 한 신하가 프랑스어로 번역하여 바친 보까치오의 단편소설집 《데까메론》을 읽고 큰 충격을 받아 쓴것이다.

작품은 10명의 남녀귀족들이 온천에서 돌아가던중 큰 비로 강을 건느지 못하게 되자 수도원에 며칠간 머물러있으면서 매일 한사람이 한가지씩 재미나는 이야기를 하는 형식을 취하고있다. 이렇게 《데까메론》과 비슷한 구성과 형식을 취하면서도 보까치오와는 달리 진짜가 아닌 이야기는 아예 쓰지 않기로 하고 자기가 각지를 순회할때 들은 이야기나 소문들, 일화들을 소재로 하여 진짜로 있었던 이야기만을 담으려고 하였다. 역시 100편을 계획했으나 녀왕의 죽음으로 72편만 수록되였다.

이 이야기들은 중세의 꽁뜨, 파불리오 등의 계렬에 속하는것으로서 우스개이야기와 롱담을 즐기는 녀왕의 취미에서 태여난것이지만 승려들과 귀족들의 도덕적부패성을 비판한것을 비롯하여 문예부흥기의 시대정신, 인문주의사상을 일정하게 담았다.

작품은 봉건소국의 녀왕이였던 작가자신의 계급적제한성으로 하여 주로 도덕적인 훈계의 범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봉건정신이 미약하며 종교적색채가 진한것과 같은 제한성을 나타내였으나 프랑스의 산문문학 특히 단편소설의 발전에 일정하게 이바지하였다.

쁠레야드시파와 롱싸르

시문학에서 프랑스인문주의문학을 대표하는것은 쁠레야드시파, 특히 롱싸르의 창작이다.

쁠레야드란 16세기 1540년대에 학원에 입학하여 고전문학을 연구하고 인문주의를 지향하게 된 롱싸르를 비롯한 7명의 귀족청년시인들이 조직한 시파이다. 원래 쁠레야드(7성별자리)는 B.C.3세기에 활동한 알렉싼드리아의 7명의 이름난 시인집단을 가리켜 부르던 말이다. 롱싸르를 비롯한 7명의 프랑스시인들은 이 명칭을 따서 자기들을 《쁠레야드》라고 불렀던것이다.

쁠레야드의 대표적시인은 롱싸르이며 듀 벨레, 바이프, 벨로, 도라, 조델, 띠야르 등이 속하였다.

쁠레야드시인들은 문예부흥기의 시대정신을 민감하게 받아들여 봉건통치배들의 부패성을 비판하고 카톨릭교의 금욕주의에 반기를 들었으며 송시, 애가, 쏘네트 등 시형식을 다듬고 민족어에 의한 시창작을 장려하는 등 긍정적인 활동을 하였다. 특히 듀 벨레는 《프랑스어의 옹호와 발양》(1549)에서 당시에 판을 치던 라틴어와 그리스어를 배제하고 민족어인 프랑스어로 시를 창작하는것을 규범으로 삼으며 자기 나라 말의 풍부한 표현을 적극 살려쓸것을 호소하였다.

쁠레야드의 창작적특징은 이 파의 주도적시인인 롱싸르의 창작에서 선명하게 표현되였다.

삐애르 더 롱싸르(1524－1585)는 원래 귀족가정에서 태여나 궁정에서 시동으로 복무하면서 무인이 되기를 바랐던 사람이였다. 그가 방향을 전환하여 시인으로 된것은 18살때 귀머거리가 되여 자기의 희망을 실현할수 없게 되였기때문이다. 이때로부터 그는 그리스와 로마의 고전문학연구와 시창작에 몰두하였으며 꼬끄레학원 재학중인 1540년대에 다른 6명의 귀족청년들과 쁠레야드시파를 조직하였다.

그가 지은 많은 서정시와 서사시들은 시집들인 《송가집》(1550), 《찬가집》(1555－1556), 《서사시집》(1560－1569) 등에 수록되였다. 그가운데서 서정시 《까쌍들에게 보내는 송가》, 《자연송》, 정론시 《황금에 대한 찬가》, 《부를 반대하는 정론시》를 비롯한 일련의 시작품들에는 롱싸르의 창작적특징이 잘 나타나있다. 그밖에도 미완성서사시 《프랑씨아드》, 시집 《엘레느를 노래한 쏘네트집》이 알려져있다.

롱싸르는 비록 귀족적립장에서나마 반동적봉건통치배들의 부패성을 비판하고 시대의 요구를 반영하여 인문주의적리상을 노래하였다. 그의 시들은 주로 련애와 환락적인 생활, 자연에 대한 찬미를 통하여 중세기의 종교적인 금욕주의사상과 래세에 대한 설교를 반대하였으며 현실세계와 지상생활을 긍정하고 찬양하였다. 그의 시는 시형식과 시어가 세련되고 격조가 높으며 시적정서가 풍부한 점에서 특징적이다.

롱싸르를 비롯한 쁠레야드시파 시인들은 창작에서 귀족적인 계급적제한성과 퇴폐적인 요소, 탐미주의적경향을 나타냈으나 중세시문학의 제한성을 극복하고 민족어로 인문주의적내용을

을 담은 세련된 시를 창작하였으며 근대적인 요소를 강화함으로써 프랑스민족시문학의 발전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였다.

몽땐뉴의 《엣쎄》

프랑스인문주의문학의 마지막대표자는 수필작가인 몽땐뉴이다.

미쉘 더 몽땐뉴(1533—1592)는 신귀족가정출신으로서 법학을 공부하고 보르도고등법원에 15년간 복무하였으며 4년동안 보르도시장으로 있은 귀족지식인이다. 당시의 시대사조였던 인문주의사상에 공감한 그는 오래동안 고향집에서 독서와 사색, 집필에 몰두하면서 《엣쎄》(처음 1580년에 보르도에서 2권으로 출판, 그후 가필, 보충하여 전 3권으로 1588년에 빠리에서 출판되였다.)를 내놓았다.

※《엣쎄》라는 말은 오늘 수필로 번역하고있으나 몽땐뉴가 처음 그 말을 작품제목으로 썼을 때는 《시도》, 《시험》이라는 겸손한 뜻을 담고있었다. 그후 집필이 진척되면서 거기에 《생활의 음미》, 《생활의 길의 탐구》라는 깊은 뜻이 첨가되게 되였다.

《엣쎄》는 필자자신의 견해와 읽은 책에 대한 감상, 도덕에 대한 생각 등을 수필형식으로 자유롭게 서술한 예술산문이다.

이 수필들에서 몽땐뉴는 카톨릭교회가 설교하는 종교교리를 포함하여 그 무엇이나 의문시할수 있는 인간의 권리를 인정하면서 교회의 권위와 중세기적인 번쇄철학에 반박해나섰으며 교회의 령혼불멸설을 비판하고 종교교리에 어긋나는 합리적인 도덕을 선전하였다. 그의 수필들은 인간의 복잡한 모습을 그려내는데 알맞는 치밀하고 섬세하며 독특한 문장으로 씌여진 점에서 두드러졌다.

반면에 지나치게 회의주의적립장에 선데로부터 인간의 리성과 과학에 대해서까지 회의적으로 대하였으며 보수주의적인 제한성을 드러냈다.

몽땐뉴의 《엣쎄》는 많은 제한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전에 대한 지식을 집대성하고 인문주의사상을 담았으며 진리를 탐구하려는 진지한 태도와 비판정신을 보여준것으로 하여 동시대와 후세지식인들에게 교양도서로서 환영을 받았다. 또한 프랑스문학에서 《엣쎄》(수필)형태를 개척함으로써 그후 유럽에서 수필문학이 왕성하게 창작되게 하는데 이바지하였다.

2) 라블레와 《가르강뛰아와 빵따그뤼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프랑스작가 라블레의 소설 〈가르강뛰아와 빵따그뤼엘〉은 주인공들인 왕과 그의 아들이 거인으로 자라나고 활동하는데 대한 괴이하고 환상적인 이야기를 통하여 당시의 프랑스현실을 여러모로 비판하고 인문주의를 찬양하였습니다.》

프랑쏘아 라블레(1494년경—1553년경)는 미농근교에서 변호사인 신흥부르죠아지의 아들로 태여났다. 그는 수도원에서 중세기적인 종교교육을 받고 수도사생활을 하다가 이단자로서 추방된후 그리스어를 공부하고 고대문화연구에 열중하면서 인문주의자로 되였다.

그는 1528년에 빠리에 올라가 대학에서 의학공부를 하여 의사의 자격을 얻었으며 동시에 철학, 법학, 고고학, 지형학 등 여러부문의 학문을 연구하였다.

그는 1532년에 리옹시병원 의사로 일하던중 그 도시의 책방들에서 대인기로 되고있던 민간이야기에 기초한 《괴이한 거인 가르강뛰아에 대한 무쌍한 년대기》(세칭 《대년대기》)라는 닉명의 이야기책에서 충동을 받고 그 속편을 쓰는데 달라붙었다. 이렇게 되여 태여난것이 《괴이한 거인 가르강뛰아의 아들이며 딥쏘드국의 왕인 이름난 빵따그뤼엘의 놀라운 언행과 무훈에 대한 이야기》(세칭《제2의 책 빵따그뤼엘이야기》)이다. (그가 가명으로 출판한 이 책이 후에 유명한 5부작장편소설의 제2부로 되였다.)

《대년대기》의 주인공 가르강뛰아는 예로부터 프랑스 각지의 민간전설에 나오는 거인이며 《대년대기》는 가르강뛰아전설을 당시 류행되던 기사이야기의 틀에 맞추어 꾸며놓은 유치한 이야기였다. 그러나 라블레의 빵따그뤼엘이야기는 그와는 달리 문예부흥기의 인문주의적특징을 뚜렷이 나타낸 독특한 작품이였다. 라블레의 소설은 성공하여 큰 인기를 끌었다.

라블레가 일단 빵따그뤼엘이야기를 만들고보니 그의 아버지 가르강뛰아에 대한 《대년대기》

의 이야기가 너무나 빈약하고 볼품없는것으로 되였다. 그래서 아무래도 빵따그뤼엘의 아버지로서 부끄럽지 않게 가르강뛰아에 대한 이야기를 써야겠다는 충동이 생겼다.

그는 1534년에 로마로 가는 프랑스사절의 수행의사로 두달동안 이딸리아려행을 한 다음 다시 리옹병원 의사로 일하면서 《빵따그뤼엘의 아버지 대가르강뛰아의 세상에 놀라운 생애에 대한 이야기》를 썼다. 그것이 5부작의 제1부로 되였다.

그는 그후 빠리의 사교, 지방총독대리의 전속의사 겸 비서로 있으면서 창작을 계속하려고 하였으나 복잡한 국내정세와 인문주의자들에 대한 반동공세의 강화로 창작을 마음대로 할수 없었다. 1543년에는 빠리최고법원이 그를 고발한데 이어 빠리대학 신학부가 그의 작품에 대한 금지처분을 내렸다.

이러한 사정으로 하여 5부작의 제3부는 제2부가 출판된 때로부터 10여년이 지난 1546년에, 제4부는 1552년에야 출판될수 있었다. 제3, 4부도 제2부와 비슷한 체계를 갖추고있으나 실제적으로는 독립적인 작품이다.

제3부에서는 초인간적모험도, 사건다운 사건도 없으며 빵따그뤼엘이 거인이라는것도 잊혀지고있다. 그런가하면 제4부는 항해이야기로 되고있다.

라블레는 1551년부터 무돈의 주임사제로 있다가 사직하고 1553년에 빠리에서 사망하였다.

그가 사망한 후 1562년에 라블레의 유고인 제5부의 일부가 출판되였으며 다시 2년이 지난 1564년에 그것까지 합하여 제5부가 누구인가에 의하여 출판되였다. 이와 관련하여 제5부가 라블레가 쓴것인지 의문시되고있으며 그의 일부 초고에 기초하여 누구인가 정리한것이 아닌가고 추측하고있다.

라블레는 《가르강뛰아와 빵따그뤼엘》이라고 불리우는 이 환상적인 대장편소설을 씀으로써 문예부흥기 프랑스인문주의문학의 대표자로 공인되게 되였다.

《가르강뛰아와 빵따그뤼엘》

라블레의 5부작장편소설 《가르강뛰아와 빵따그뤼엘》은 왕과 그의 아들이 거인으로 자라나 활동하는 괴이하고 환상적인 이야기를 통하여 당시의 프랑스현실을 여러모로 비판하고 인문주의를 찬양한 작품이다.

소설의 이야기줄거리는 가르강뛰아와 그의 아들 빵따그뤼엘의 성장과정 및 활동에 대한 이야기와 빵따그뤼엘이 벗으로 삼은 학생 빠뉘르쥬의 결혼문제와 관련한 론쟁, 그들의 모험적인 인문주의적려행담으로 엮어지고있다.

소설의 제1, 2부에서는 거인왕부자인 가르강뛰아와 빵따그뤼엘의 유년시절과 교육과정, 그들의 놀라운 무훈에 대한 이야기가 벌어진다.

거인왕족의 한사람인 구랑구지에의 아들 가르강뛰아는 《마시고싶다, 마시고싶다.》고 부르짖으면서 어머니의 왼쪽귀를 뚫고 세상에 나왔다. 그는 어찌나 컸던지 내의를 하나 해입히는데도 900m나 되는 천이 요구되였다. 다섯살때에 그는 지능이 뛰여나 사람들의 주목을 끌었으나 독경주의적인 스콜라식교육을 받으면서 바보가 된다. 그러나 그는 다시 인문주의교육을 받고 놀랄만큼 발전한다.

그는 가정교육을 끝마친 다음 빠리로 류학가서 실천과 결부된 인문주의적인 교육을 받다가 구랑구지에왕과 린접한 나라의 왕 피끄로꼴사이에 전쟁이 일어났다는 급보를 받고 고국으로 급히 돌아와 적을 치는 전투에 참가한다. 이때 수도사 쟝이 큰 공훈을 세운다. 전쟁이 승리한 후 가르강뛰아는 수도사 쟝이 세운 공로에 대한 표창으로 그가 요구하는대로 리상적인 뗄렘승원을 세워준다.

가르강뛰아가 524살나던 해에 아들 빵따그뤼엘이 태여난다. 그는 태여나자마자 아버지가 태여날 때처럼 심한 갈증을 느끼며 그 역시 빠리로 류학간다. 거기서 그는 빠뉘르쥬라고 하는 매우 총명한 청년을 만나 한평생 그를 사랑하게 된다. 빵따그뤼엘은 그와 함께 번쇄철학가들의 공리공담을 비판하고 실천에 기초한 인문주의지식을 쌓는다.

얼마후 빵따그뤼엘은 아버지 가르강뛰아가 요정의 나라로 끌려가고 딥쏘드인들과 거인족이 침입해왔다는 소식을 듣고 급히 떠난다. 현지에 도착한 빵따그뤼엘은 맹활약을 벌려 딥쏘드인들과 거인족을 타승하는데서 무훈을 세우며 딥쏘드국의 국왕으로 추대된다.

소설의 제3—5부는 빠뉘르쥬의 결혼문제에 대한 론쟁과 그들일행의 항해에 대한 이야기로 되여있다.

빠니르쥬가 갑자기 결혼하고싶다고 제기한것과 관련하여 여러 사람들이 론쟁한다. 그러나 누구도 명확한 해답을 주지 못해 궁지에 빠진다. 그에 대한 해답을 얻자면 현명한 예언을 하는 신탁병(신탁이 들어있는 병사리)을 찾아야 하였다.

그리하여 신탁병을 찾아 고난에 찬 모험적인 려행을 떠난다. 그들은 사기군들과 궤변가들이 사는 섬, 그리스도교단식자들이 사는 섬과 그들의 원쑤인 순대족이 사는 섬, 법왕조롱족의 섬과 법왕숭배족의 섬, 지혜있는 발명가들이 사는 섬, 교회의 승려, 수도승, 사교, 승원장 등을 모두 잡아먹는 새들이 살고있는 소리나는 섬, 어린이들을 잡아먹는 고양이와 그립쁘씨노공작이 사는 섬, 추상, 범주, 공식 등 철학용어를 먹고 사는 사람들이 있는 섬 등 환상적인 섬들을 지나 목적지인 인디아이웃나라에 도착하여 신탁병을 찾게 된다.

《신탁병》은 《마시라!》라는 대답으로써 일행의 의문을 풀어준다. 그 대답에 대한 해석을 두고 또 론쟁이 벌어지나 결국 지식욕에 불탄 인간에게 지식의 샘물을 마시게 하라는 뜻으로 해석된다.

소설에서 작가는 무엇보다도 종교의 허황성을 폭로하는데 화살을 돌리고있다. 종교의 허황성을 폭로하는 목소리는 소설의 첫시작부터 강하게 울려나오고있다. 작가는 가르강뛰아의 출생과 관련하여 그가 어머니의 왼쪽귀구멍을 뚫고 밖으로 나왔다는 황당무계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아닌보살하고있다.

《여러분은 이처럼 기괴한 출생을 믿지 않으리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나로서는 이렇게 태여난것을 아니라고 부정하는 말을 성서에서 발견하지 못하였다. 신에게는 불가능이란것이 전혀 없는 이상 만일 신이 바라기만 한다면 금후 부인들은 이처럼 귀에서 애기를 낳을수 있을것이다.

과연 박카스는 쥬피터의 허벅다리에서 태여나지 않았단 말인가?

아도니스는 미르나무껍질에서 태여난것이 아니란 말인가?

레다의 자식들이 그가 낳은 알속에서 나오지 않았단 말인가?》

이 말은 그리스도교의 시조인 예수 그리스도가 숫처녀인 성모 마리아의 몸에서 태여났다는 이야기를 비롯한 온갖 허황한 종교선전에 대한 신랄한 풍자폭로로 된다. 소설에서는 이런 식으로 도처에서 종교의 허황성을 웃음을 통하여 폭로조소하고있다.

소설에서 작가는 또한 인문주의가 실현된 리상사회에 대한 공상적인 화폭을 펼쳐보이고있다. 소설의 제1부 마감부분에는 가르강뛰아가 전쟁에서 공을 세운 수도승 쟝에 대한 표창으로 그가 요구하는 뗼렘승원을 세워주는 이야기가 나온다. 다른 수도원과는 달리 울타리를 치지 않고 남녀가 다 들어갈수 있으며 아무때나 들어오고 나갈수 있는 이 승원에서는 《원하는바를 행할지어다》라는 구호밑에 모든 사람들이 그 어떤 구속도 받지 않고 자유롭게, 평등하게 살면서 마음껏 배우고 능력껏 발전하고있다. 이 뗼렘승원을 묘사한 부분에서는 인문주의가 실현된 리상사회에 대한 공상적인 화폭이 펼쳐지고있다.

소설에서 작가는 이와 함께 봉건적신분제도와 그리스도교의 금욕주의, 중세의 낡은 교육제도, 봉건통치배들이 감행하는 략탈전쟁과 여러가지 사회악을 풍자비판하고있다.

작가는 소설의 제1부 제1장 가르강뛰아의 가계에 대하여 이야기한 부분에서 《현재 이 세상에서는 황제, 왕, 왕족, 귀족, 법왕의 지위에 있는자들도 그 원천을 따져보면 보통 중이나 집군들의 후예인 경우가 얼마든지 있다.》고 강조하면서 봉건적신분제도의 부당성을 까밝히고있다.

그리스도교의 금욕주의교리와 상반되게 거인왕들은 굉장하게 먹고 마시는데 애기때 가르강뛰아에게 먹일 우유를 보장하는데 17 913마리의 젖소가 필요했으며 그의 아버지 구랑구지에왕이 사육제날에 쓸 내포료리를 만드는데 살찐 소 36만 7 014마리를 잡아야 했다.

가르강뛰아는 빠리로 공부하러 갔다가 종교 성지인 노뜨르담사원의 종을 마음대로 떼서 자기 말의 목에 방울로 달아주며 빵따그뤼엘과 빠니르쥬의 항해기에서는 그리스도교도 단식자들의 섬과 그들의 원쑤인 순대족의 섬, 법왕숭배족의 섬과 법왕조롱족의 섬들의 대립투쟁을 통하여 그리스도교의 금욕주의를 조롱했을뿐아니라 사교와 승원장, 수도승을 비롯한 성직자들을 잡아먹는 새들이 있는 섬에 대한 이야기까지 설정하여 금욕주의를 신랄하게 비웃고있다.

소설에서 중세의 낡은 교육제도에 대한 풍자비판은 가르강뛰아의 교육과정에 대한 이야기에서 집중적으로 나타나고있다. 구랑구지에왕은 아

들 가르강뛰아에게 훌륭한 교육을 주기 위해 처음 여러 스콜라학자들을 가정교사로 초빙하여 중세기적인 교육을 받게 하였다. 그런데 얻은것은 아무것도 없고 머리가 이상해져 머저리로 되였다. 성이 난 왕은 가정교사를 내쫓고 인문주의적교육을 하는 뽀노끄라뜨에게 아들을 맡긴다. 가르강뛰아를 빠리로 데리고간 새 교원은 하루 한시간도 헛되이 보내지 않도록 강한 규률을 세우고 리론과 실천, 정신수양과 육체단련을 결합하면서 실천적인 학문을 체득하도록 교육을 주었다. 그것이 은을 내여 가르강뛰아는 훌륭한 사람이 되였다.

빠리에서 공부하던 가르강뛰아가 자기 나라에서 전쟁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급히 고향으로 돌아와 적국의 삐끄로꼴왕과 싸운 이야기는 봉건통치배들이 감행하는 략탈전쟁에 대한 풍자비판으로 되고있다. 두 나라사이에 대전쟁이 일어난 원인이란 주민들사이에 일어난 사소한 분쟁에 불과하였다. 침략야망에 불탄 삐끄로꼴왕은 그것을 트집잡아 전군비상소집을 일으켜 수만의 군사를 이끌고 이웃나라를 기습하였던것이다. 구랑구지에왕이 전쟁을 피하고 평화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마지막까지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세계제패에 대한 망상에 사로잡힌 삐끄로꼴왕은 전쟁을 확대하고 온갖 략탈을 일삼는다. 그러나 그는 가르강뛰아가 이끄는 군사들의 반격을 당해내지 못해 참패하며 제 혼자 겨우 도망쳐 타지방에서 인부로 살아가지 않으면 안되게 된다. 소설은 삐끄로꼴왕의 형상을 통하여 끊임없이 침략전쟁을 벌려 략탈을 일삼는 봉건통치배들을 풍자조소하였다.

그밖에도 소설은 봉건사회에서 벌어지는 여러가지 사회악을 풍자비판하였다.

《가르강뛰아와 빵따그뤼엘》은 환상적인 이야기로 꾸며진 작품이다. 그러나 이 작품의 환상은 중세문학의 환상과는 구별된다. 중세기에 많이 나온 환상적인 이야기는 중세문학의 예술적미숙성을 말해주는것이지만 라블레의 소설에서의 환상적수법은 작가가 자기의 의도를 더 잘 표현할 목적으로, 당대사회현실을 비판하는 수단으로 의식적으로 리용한것이다.

당시에 직선적으로 사회현실을 비판한 작품은 제대로 출판될수 없었으며 그러한 작품을 쓴 작가들은 탄압과 박해를 받았다. 그러므로 라블레는 현실에 대한 비판적태도를 환상적으로 에둘러 표현하였던것이다. (그렇지만 라블레는 탄압을 받았다.)

이 소설은 비록 환상적인 수법으로 씌여졌지만 현실을 반영하고있는 사실주의적작품으로 된다.

라블레의 소설에서는 환상의 수법이 풍자적수법과 결합되여 리용되고있는것이 특징이다.

소설 제4부 빵따그뤼엘일행의 항해이야기속에는 법왕조롱족이 살고있는 섬에 대한 이야기가 있다. 그들은 이전에 부유하고 자유롭고 락천적인 사람들로서 《락천족》으로 불리웠다. 그런데 이웃섬인 법왕숭배국에 명절구경갔다가 법왕의 초상화에 손가락질했다고 하여 온 섬이 습격당하고 황페화되였으며 섬주민들은 모두 법왕숭배족에 예속되게 되였다. 그때로부터 그들은 가난과 불행에서 벗어나지 못하고있다는것이다.

이 환상적인 화폭은 법왕을 우두머리로 하는 카톨릭교회당국에 대한 신랄한 풍자로 되고있다.

라블레의 소설은 인문주의가 발전하던 시대를 반영하여 생기발랄하며 해학과 웃음이 넘쳐흐르고있다. 작품은 인민구전문학의 수법들과 해학적이며 희극적인 수법들을 활용하고있으며 언어구사에서 인민들이 일상적으로 쓰는 입말을 기본으로 풍부하고 활달한 문장을 재치있게 쓰고 속담과 격언, 외래어와 사투리, 전문술어들을 배합하여 그 표현력을 높이고있다.

그러나 소설이 담고있는 진보적인 사상적내용은 인문주의자체의 제한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작품에 그려진 리상사회도 공상적인것에 불과하다.

소설은 구성이 째이지 못하고 산만하며 내용의 통일성과 일관성을 보장하지 못하였을뿐아니라 성격을 위주로 하지 못하고 사건위주로 되여있으며 묘사문학으로 되지 못하고 이야기형식의 작품으로 되고있는것과 같은 예술적미숙성을 가지고있다. 이것은 소설이 문예부흥기시기 새로운 인문주의문학의 특징을 뚜렷이 나타내면서도 아직은 중세문학의 잔재를 적지 않게 가지고있다는것을 말해준다.

이러한 부족점을 가지고있으나 라블레의 장편소설 《가르강뛰아와 빵따그뤼엘》은 문예부흥기의 시대정신을 생동하게 반영하고 봉건사회의 여러가지 사회악을 대담하게 풍자비판함으로써 사람들의 반봉건, 반종교의식발전에 이바지하였으며 프랑스문학과 유럽문학에서 사실주의적인 환상소설발전의 길을 개척하였다.

4. 영 국 문 학

1) 부르죠아적성격으로 극문학에서 자기 얼굴을 뚜렷이 한 영국문예부흥기문학

유럽대륙에서 일어난 문예부흥운동과 인문주의사조는 섬나라 영국에도 파급되여 15세기말부터 17세기초까지 약 한세기동안 이 나라를 휩쓸었으며 특히 16세기 후반기에 최전성기를 이루었다.

영국의 문예부흥기는 국왕 헨리7세가 즉위한 1485년부터 엘리자베스녀왕이 사망한 1603년까지에 이르는 츄더왕조통치시기와 년대적으로 거의 일치하고있다.

이 왕조에 속한 5명의 왕들중에서도 근 반세기동안 이 나라를 통치한 엘리자베스녀왕(재위 1558—1603)때에 황금세기를 맞이하였다.

문예부흥기에 영국은 문학예술을 포함한 문화의 모든 분야에서 획기적인 변혁과 발전을 이룩하였을뿐아니라 정치경제적으로도 비약하여 근대적인 발전의 길에 확고히 들어서게 되였다.

이 시기에 영국은 유럽의 후진국으로부터 일약 제일강국으로 비약하였다.

14—15세기에 프랑스와 100년전쟁(1337—1453)을 벌린데다가 국내에서 장미전쟁(1455—1485)까지 일어나 국력이 쇠퇴되였던 영국은 16세기 츄더왕조시기에 절대주의군주제를 수립하고 통치체제를 강화하였으며 헨리8세때인 1534년에는 로마카톨릭교회로부터 독립을 선포하고 영국왕을 우두머리로 하는 영국국교회를 만들어냄으로써 종교까지 틀어쥐였다.

또한 카톨릭국가이며 당시 유럽의 최강국이였던 에스빠냐의 무적함대를 격파하여 제해권을 쟁취하였다.

이 시기에 자본주의적경제가 급속히 발전한 영국은 자본주의적관계가 유럽의 그 어느 나라보다도 가장 빨리 발전한 나라로 되였다.(17세기 중엽에 영국에서 부르죠아혁명이 일어난것은 이러한 전제에 기초한것이였다.)

그러나 문예부흥기 영국의 《번영》은 가혹한 자본주의적시초축적에 의하여 담보된것이였다.

이 시기의 영국의 력사는 수백만대중에 대한 략탈과 살륙, 피와 땀으로 이루어진 자본주의적시초축적의 본보기로 되였다.

이 나라에서 중세기적인 낡은 봉건세력들은 벌써 15세기말부터 약화되고 그대신 권력을 쥔 신귀족들이 부르죠아지와 결탁하여 부르죠아적발전의 길로 나갔다. 국왕을 비롯한 영국의 봉건통치배들은 이 신귀족들과 부르죠아지의 리해관계를 대변하여 자본주의적시초를 축적하기 위한 재부를 늘이기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

그들은 악명높은 울타리치기의 방법으로 농민들의 땅을 강제로 략탈하여 양을 기르는 목장으로 전환시킴으로써 수많은 농민들을 거지로, 류랑자로 만들었으며 공장제수공업을 통하여 수공업자들과 로동자들을 가혹하게 수탈하였다.

그들은 이에 반발하여 1549년 로버트 케트의 지휘하에 일어난 농민봉기를 비롯한 인민들의 반봉건투쟁을 야수적으로 탄압하였다.

그들은 특히 인디아를 비롯한 광대한 지역을 식민지로 만들고 식민지를 략탈하여 자본주의적발전을 위한 밑천을 축적하였다.

이리하여 봉건사회에서 신분적차별과 종교적환상에 의거한 근로인민대중에 대한 착취를 직접적인 잔인한 착취로 바꾸어놓고 사람의 인격적가치를 교환가치로 전환시킨 근대부르죠아사회의 력사가 시작되였다.

문예부흥기 영국의 인문주의문학은 이러한 시대적배경밑에서 이전에 볼수 없었던 새로운 발전을 이룩하였다.

이 시기 전례없이 거의 300명에 달하는 많은 작가들이 창작활동을 벌렸으며 극문학을 비롯하여 시와 산문 등 여러 형태에서 새로운 양양이

일어났다.

영국인문주의문학은 귀족적성격이 강한 프랑스인문주의문학과는 달리 부르죠아적성격이 강한것이 특징적이다.

16세기에 유럽의 그 어느 나라보다도 자본주의적발전이 빨랐던 영국에서는 인문주의자들이 부르죠아지와 평민들속에서 배출되였다. 영국인문주의문학의 대표적인 작가들인 쉐익스피어, 말로우, 죤슨, 스펜써 등이 모두 그러하였다. 쉐익스피어는 상공인출신이였으며 말로우는 구두쟁이출신, 죤슨은 벽돌직공의 이붓아들이였다.

영국인문주의문학은 그 내용에서 다른 나라 문학에서 볼수 없는 새로운 경향 즉 새로 자라나는 자본주의적관계가 낳은 사회악에 대한 비판을 가장 일찌기 들고나온 점에서도 특징적이다.(쉐익스피어의 희극 《베니스의 상인》, 벤 죤슨의 희극 《련금술사》 등에 잘 나타나있다.)

영국인문주의문학에서 가장 발전한것은 극문학이다. 이 시기 영국에서 극문학이 얼마나 발전하였는가 하는것은 1588년부터 1603년까지의 15년동안에 수백편의 극작품이 나왔다는 자료만 보아도 잘 알수 있다.

이전시기에는 중세기극인 《도덕극》과 막간희극, 라틴어로 쓴 대학생들의 극인 《학교극》 등이 나왔을뿐이다. 영국에서 극문학의 본격적발전은 최초의 극장들이 건설되고 연극이 성행한것과 관련되여있다.

이 나라에서 연극이 큰 규모로 발전한것은 16세기 70년대부터이며 그것도 주로 런던에서였다. 그때까지 런던에는 왕궁안에 궁정극장이 있었을뿐 일반시민들이 들어갈수 있는 극장은 없었다. 그러던것이 1576년에 런던시내에 첫 공개극장이 건설되고 련이어 극장들이 건설되였으며 1599년에는 쉐익스피어가 주로 활동한 《지구》 극장이 세워졌다. 여러 극장들이 건설되고 연극에 대한 사회적관심이 높아진것은 자연히 극작가들의 극작활동을 추동하였다.

문예부흥기 영국극문학의 제1인자는 쉐익스피어이다. 쉐익스피어는 영국뿐아니라 서유럽 문예부흥기 인문주의문학의 대표자이며 세계적인 문호로서 당당한 자리를 차지하고있다.

문예부흥기 영국의 극문학발전을 추동한것은 쉐익스피어와 그의 선행자이며 비극의 선구자인 말로우, 쉐익스피어와 동시대인이며 쉐익스피어가 사망한 후에도 활동을 계속한 희극작가 벤 죤슨이다.

말로우

크리스토퍼 말로우(1564—1593)는 가난한 구두쟁이의 아들로 태여났다. 그는 활동과정에 무신론자의 혐의까지 받았으나 왕성한 지식욕과 진지한 탐구력을 가지고 전문극단에 들어가 정열적인 극작활동을 벌렸다.

그는 세계제패를 꿈꾼 유목족의 군주 티무르를 주인공으로 한 첫 비극 《탬벌레인대왕》(1587)에서 처음으로 무운시형을 훌륭히 구사한데 이어 지식욕때문에 악마에게 넋을 판 파우스트전설을 각색한 《포스터스박사의 비극》(1604 출판), 물욕이 악마같은 유태인상인을 형상한 《말따의 유태인》(1633 출판) 등 무운시로 된 작품들을 련달아 써내여 이름난 극작가가 되였다.

《말따의 유태인》은 한 유태인의 형상을 통하여 잃어버린 재부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희생시키는 부르죠아지의 잔인무도한 행위를 비판한 작품이며 《포스터스박사의 비극》은 괴테의 《파우스트》의 시초로 된 작품이다.

말로우는 29살에 런던교외의 술집에서 칼에 맞아 요절함으로써 극작활동을 더 계속하지 못하였으나(그가 살해된것과 관련하여 문학사가들은 무신론자의 혐의를 받은 그가 그 어떤 정치적사건에 말려든것으로 짐작하고있다.) 영국문학에서 처음으로 무운시형으로 쓴 운문희곡을 내놓았으며 문예부흥기의 현실을 생동하게 반영하고 간결한 문체로 웅대한 비극을 창작한것으로 하여 쉐익스피어의 비극창작에 영향을 주었다.

벤 죤슨

벤 죤슨(1572—1637)도 당대의 이름난 극작가였다. 그는 모든 면에서 쉐익스피어와 대조되는 작가였다.

죤슨은 벽돌직공의 이붓아들로서 가난탓으로 대학교육을 받지 못했으나 박식하고 특히 고전에 정통한 사람이였다.

온화한 성격의 쉐익스피어와는 달리 죤슨은 벗을 죽인것으로 사형선고를 받기도 하고 정치풍자극을 써서 비위에 거슬린것으로 하여 투옥되기도 하는 등 우여곡절을 많이 겪었다.

쉐익스피어가 다른 나라 이야기나 옛이야기를 취급한것과는 달리 죤슨은 런던을 무대로 한 현대풍자극을 즐겨 창작하였다.

그는 또한 리지적인 인간으로서 무지몽매를 증오하고 우둔한 행위를 경멸하였다.

그의 대표작은 희극작품들인 《볼폰 또는 여우》(1606)와 《련금술사》(1610)이다.

이 희극들에서는 주로 부르죠아적인 탐욕과 금전축적욕, 돈밖에 모르는 부르죠아황금만능사상이 인문주의적립장에서 비판되였다.

《볼폰 또는 여우》에서는 교활한 방법으로 자기 리속을 채우는 베네찌아의 한 부자의 속임수에 넘어가 돈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으며 지어 자기 안해를 파는 행위도 서슴지 않는 썩어빠진자들을 풍자하였으며 《련금술사》에서는 늑거리금속을 가지고 금을 만드는 비결을 연구한다고 사람들을 속여 뢰물을 받아 배를 불리는 두 사기군을 통하여 돈벌이를 위해서는 사기협잡행위도 서슴지 않는 부르죠아지들을 비판하였다.

그의 극작품들은 인물성격을 발전속에서 보여주지 못하고 고전주의적인 극작법에 의거한 제한성이 있는 반면에 당대사회를 잘 반영하였으며 부정인물들을 어느 정도 전형화하고 그들의 성격을 대사와 행동을 통해 잘 부각시킨 우점을 보여주었다.

죤슨은 문예부흥기 극문학에서 새로운 형태인 세태풍자희극의 창시자로도 알려져있다.

영국인문주의문학은 극문학과 함께 시문학에서도 뚜렷한 성과를 거두었다.

영국문학에서는 전통적으로 시문학이 기본으로 되였으며 그것은 문예부흥기에도 마찬가지였다.

이 시기 시문학에서는 극시가 류행되여 시인들이 극시창작에 치중하였다.

극작품이 다 운문으로 씌여졌으므로 극문학도 산문과 운문의 관계에서 보면 운문극(극시)으로서 언어문체에서는 넓은 의미에서 시문학에 소속시킬수 있다.

그렇다고 고유한 의미에서의 시문학에 속하는 서정시나 서사시가 창작되지 않은것은 아니였다.

서정시에서는 쏘네트(14행시)형식이 류행하였다. 쏘네트는 이딸리아에서 발생한 서정시형식이였다. 영국시인들은 처음에 쏘네트를 모방하다가 영어의 특성에 맞는 영국식쏘네트를 만들어냄으로써 쏘네트형식을 더욱 발전시켰다.

쏘네트발전에 제일 많이 이바지한것은 쉐익스피어였다. 쉐익스피어는 극작품외에 154편의 쏘네트를 묶은 유명한 《쏘네트집》(1609 출판)을 창작하였는데 이것은 영국문학사상 최대의 쏘네트집으로 되였다.

이 시기 영국시문학을 대표하는 시인은 스펜써이다.

스펜써

에드먼드 스펜써(1552년경—1599)는 런던에서 포물상의 아들로 태여나 케임브리지종합대학을 졸업한 후 귀족의 보호를 받고 시인으로 활동한 사람이다. 그의 처녀시집은 1579년에 발표한 목가적인 서정시집 《목동의 력서》이다.

그리스시의 목가취미의 전통을 이어받은 이 시집에서는 목동들이 언덕우에 모여 네계절의 변화에 대해 노래하는 목가적인 생활을 동경하고 거기에서 일종의 리상사회를 찾으려고 하였다. 이 작품에서 주목되는것은 고어와 신어를 적당히 배합하여 참신한 맛을 주고 운률을 자유롭게 구사한것이다.

이러한 시인의 창작적개성은 당시 시단을 놀래웠으며 이것으로 하여 일약 일류급시인으로 되였다.

스펜써의 대표작은 그가 아일랜드총독의 비서로 있던 시기에 쓴 서사시 《선녀녀왕》(1590—1596 창작, 1609 출판)이다. 엘리자베스녀왕을 원형으로 한 서사시는 신선세계의 선녀녀왕 글로리아나가 매해 12일간의 연회를 베풀고 12가지 미덕을 대표하는 12명의 기사를 매일 한사람씩 기사수업에 파견하는 모험이야기형식으로 카톨릭교회와 로마법왕을 비판하고 봉건적 및 종교적질곡에서 벗어나려는 문예부흥기의 시대풍조를 반영하였다.

서사시는 전 2부 12권중 7권까지밖에 발표되지 못한 미완성작품으로서 군주에 대한 환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중세기적인 제한성을 완전히 극복하지 못하였지만 시대의 지향에 맞는 인문주의적내용과 화려한 그림을 펼쳐놓은듯 한 시적화폭, 운률의 음악적인 아름다움으로 하여 널리 알려졌다.

시는 스펜써시련으로서 영국시의 작시법을 풍부히 하는데 이바지하였다.

16세기 영국문학에서 기본은 운문이였으며 산문은 차요시되였다. 그렇다고 하여 산문문학이 쇠퇴한것은 아니였다.

산문문학에서 기본은 소설이였는데 이 시기에는 이렇다할 성과작이 없었으나 18세기이후에

는 본격적으로 발전하였다.

이 시기 소설문학에서 성과작의 하나는 토마스 모어의 《유토피어》이다.

모어와 《유토피어》

《유토피어》는 초기 공상적 사회주의사상을 표현한 공상소설로서 소설다운 맛은 적으나 그 의의로 보아 단연 영국인문주의문학에서 대표작의 하나로 된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영국의 토마스 모어가 쓴 소설 〈유토피어〉와 이딸리아의 깜빠넬라가 쓴 소설 〈태양의 도시〉는 다같이 인문주의적리상을 공상적으로 보여주는 작품들입니다.》

토마스 모어(1478—1535)는 런던의 법관의 집안에서 태여나 옥스퍼드대학에서 공부하였으며 중도에 법률협회에 들어가 법률공부를 하였다.

그후 그는 변호사로 있다가 1504년에 의회 의원이 된 다음 국왕 헨리8세의 신임을 얻어 런던부시장, 상소법원 원장, 추밀원 고문관 등의 관직을 거쳐 1529년에는 대법관으로까지 등용되였다.

그러나 로마카톨릭교의 옹호자로서 법왕의 최고권력을 주장하고 영국왕의 최고권력행사를 반대해나선것으로 하여 사형당하였다. 그후에 로마카톨릭교회는 그를 순교자로 선포하고 성자로 등록하였다.

그의 대표작은 라틴어로 쓴 공상소설 《유토피어》(1516)이다.

《유토피어》는 초기 공상적사회주의사상에 기초하여 자본주의로 이행하던 시기에 창작된 작품으로서 영국봉건사회의 여러가지 사회악을 비판폭로하고 사람들이 다같이 일하고 다같이 잘사는 리상사회에 대한 그리움을 표현하였다.

작품은 두편으로 구성되여있으며 1인칭주인공(모어자신)과 가상적인 인물인 라파엘 하이스로디라는 려행가사이에 벌어진 담화내용(주로 하이스로디의 이야기)을 기록하는 형식으로 되여있다.

영국왕의 공사로서 외국에 파견되여있던 1인칭주인공은 어느날 거리에서 우연히 라파엘 하이스로디라는 려행가를 만나게 된다.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에 그가 많은 나라를 려행하면서 보고 들은것이 많은 박식한 사람임을 알게 된 주인공은 그를 자기 집에 초대하여 장시간 이야기한다.

하이스로디는 자기가 려행과정에 보고 느낀 문제에 대하여 이야기하면서 영국을 비롯한 유럽봉건국가들에서 나타난 여러가지 모순과 불합리, 사회악의 현상들을 폭로비판하였다.

그는 특히 울타리치기의 강도적방법으로 농민들의 땅을 빼앗아 수많은 농민들을 류랑걸식하게 하는 부자들, 귀족들, 승려들을 규탄하면서 이러한 모든 사회악의 근원이 바로 사유재산에 대한 욕구에 있다고 주장한다.

다음편에서 하이스로디는 항해중에 우연히 가닿게 되여 5년동안 살았다는 가상적인 나라 유토피어섬에 대하여 이야기한다. 그의 말에 의하면 이 섬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사유재산이란것이 없으며 모두가 다같이 일하고 다같이 잘사는 리상적인 나라라는것이다.

그는 이 섬의 길이와 면적, 그 생김새와 유래에 대해 말한 다음 유토피어의 도시와 수도에 대하여, 위원에 대하여, 미술과 공업에 대하여, 시민들사이의 호상교제에 대하여, 유토피어사람들의 려행에 대하여, 노예와 전쟁에 대하여, 유토피어의 종교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이야기한다.

하이스로디는 유토피어를 자유의 나라라고 부르면서 그곳에서는 모든것이 공동소유로 되여있으며 모든것이 풍족하기때문에 누구 하나 부족감을 느끼지 않는다는것, 가난한 사람도 거지도 없고 모두가 다 즐겁고 평화롭게, 근심걱정없이 생활할수 있다는것, 따라서 그보다 아름다운 재부가 이 세상 어디에 있는가고 말한다.

이야기를 다 듣고난 주인공은 유토피어의 제도를 찬양하면서 유토피어사람들에게 있는 모든것을 다 찬성할수는 없으나 그중 많은것을 가지고싶다고 고백하면서 《나는 그것을 원하기보다는 오히려 열망한다.》고 웨친다.

작품은 봉건사회로부터 자본주의사회로 이행하던 시기 봉건통치배들뿐아니라 신흥부르죠아지에게도 수탈당하여 봉건제도는 물론 자본주의적관계에 대해서도 저주하면서 착취와 압박이 없는 행복한 사회를 갈망한 당시 소소유자들과 근로자들의 지향과 념원을 문학적으로 표현하였다. 여기에는 초기공상적사회주의자인 모어의 미래사회에 대한 공상과 약간의 추측도 들어있다.

그러나 작품에 그려놓은 리상사회는 근로인

민대중이 온갖 예속에서 벗어나 자연과 사회의 주인으로서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리상사회가 아니라 사람일반을 위한 초계급적인 사회에 대한 리상이며 락후한 사회경제제도에 토대한 리상이다. 소설에 제시된 리상사회는 과학적인 예견에 기초하지 못하고 실현방도가 없는 공상적인것이였다.

《유토피어》는 비록 공상적이기는 하지만 오랜 옛날부터 사람들이 간직하여온 다같이 일하고 다같이 잘사는 사회에 대한 념원을 반영함으로써 사람들로 하여금 착취사회의 반동성과 반인민성을 더 깊이 깨닫고 사회적진보에 대한 지향을 가지도록 하는데 이바지하였다.

《유토피어》는 《태양의 도시》와 함께 초기공상적사회주의사상을 담은 대표적인 유산으로 되였으며 19세기 공상적사회주의사상의 중요한 원천으로 되였다.

16세기 영국의 소설문학으로는 《유토피어》 외에 수공업자출신인 방직공 토마스 딜로우니(1543년경—1600년경)가 쓴 라사제조업을 찬양한 《뉴베리에서 온 재크》(1597), 구두쟁이를 찬양한 《영예로운 직업》(1598), 영국의 첫 악당소설로 간주되고있는 토마스 내쉬(1567—1601)의 《불행한 나그네》(1594), 그리스의 리상사회를 무대로 한 필리프 씨드니(1554—1586)의 《아르카디아》(1590)와 같은 소설들이 알려져있다.

2) 쉐익스피어의 극문학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쉐익스피어의 극문학은 인문주의문학에서 가장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고 말할수 있습니다. 그것은 쉐익스피어의 극문학이 문예부흥기의 시대적특징과 인문주의문학의 긍정면과 약점을 가장 선명하게 나타내고있기때문입니다.》

쉐익스피어의 생애와 창작활동

윌리엄 쉐익스피어는 영국과 서유럽 문예부흥기의 대표적인 작가이다. 쉐익스피어가 사망한지도 수백년이 지나갔으나 그의 이름은 지금도 사람들속에 널리 전해지고있다.

윌리엄 쉐익스피어(1564—1616)는 영국 중부지방의 소도시 스트래트퍼드 온 에이번(에이번강변의 스트래트퍼드라는 뜻)에서 부유한 상공인의 아들로 태여났다. 그의 아버지는 가죽가공업을 위주로 하면서 농작물과 모직물의 중개업도 했으며 한때 시장으로 선거된적도 있었다.

※ 쉐익스피어의 사망날자가 4월 23일이라는것은 확실하지만 4월 23일이 출생일이라는것은 추측이다. 그가 세례받은 날이 4월 26일이기때문에 그의 생일을 4월 23일이라고 본것이다.

쉐익스피어는 이러한 가정의 맏아들로서 유족하게 유년시절을 보내고 그곳 문법학교(보통학교)에서 공부했으나 그무렵 집안이 몰락하여 상급학교에 진학하지 못하였다. 그는 1582년 18살때에 8살이나 나이가 우인 녀성과 결혼하여 두 아들, 두 딸의 아버지가 되였다.

10년후 1592년에 그는 이름을 날려 신진극작가로서 런던의 극장에 등장하였다.

※ 쉐익스피어가 런던으로 가게 된것과 관련해서는 여러가지 설이 있다. 그 하나는 그가 근처의 지주집 정원에서 장난으로 사슴을 훔친 일이 드러나 고향에 있을수 없었기때문이라고 하고 다른 하나는 그곳에 온 순회극단에 자원하여 들어가 순회공연을 하는 과정에 런던에 도착했다고도 한다.

그는 1580년 후반기에 런던으로 갔다. 그것도 처음에는 하찮은 일자리(말당번을 했다는 설도 있다.)에 있다가 얼마후 배우가 되고 여가시간에 희곡을 습작하는 과정에 극작가가 되였다고 한다. 그리하여 그가 28살때인 1592년에는 이미 선배나 동료작가들이 질투할 정도로 문학계에 두각을 나타냈다.

쉐익스피어는 1590년대 중엽에 런던의 2대극장으로 손꼽히는 극장에서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게 되였으며 말엽에 새로 건설된 《지구》극장의 공동경영주가 되였다.

그는 정열적인 극작활동을 벌려 약 20년동안 극단의 제1인자로 있었다.

그러다가 1611년경에 갑자기 연극계에서 은퇴하여 고향에 돌아가 여생을 보냈으며 1616년에 세상을 떠났다.

쉐익스피어는 자기 생애에 37편의 극작품과 한

권의 쏘네트집을 비롯한 4편의 시작품을 창작하였다.

쉐익스피어는 초기에 희극을 썼으며 다음에는 비극, 말년에는 환상적비희극을 썼다. 그가 자기 생애에서 뚜렷한 창작적구획을 짓게 된것은 사회에 대한 그의 세계관이 시기마다 달라졌기때문이다.

쉐익스피어가 창작활동의 제1기(1595—1600)에 주로 희극을 쓴것은 당시 작가의 머리속에 봉건적질곡과 종교적압제, 자본주의적 착취관계가 빚어내는 온갖 사회적부정과 악덕을 반대하고 자유롭고 문명한 생활을 누릴수 있는 새로운 사회를 지향한 부르죠아인문주의적리상이 지배하고있었기때문이다.

그의 희극작품들가운데서 대표적인것은 《한여름밤의 꿈》(1595), 《베니스의 상인》(1596), 《윈저의 유쾌한 아낙네들》(1600), 《열두번째 밤》(1600)들이다.

그는 이 시기에 비극 《로미오와 쥴리에트》(1594)도 썼는데 이 경우에도 현실생활에 대한 락관주의를 담았다.

이 시기에 작가는 비극뿐아니라 《리쳐드2세》(1595), 《존왕》(1596), 2부작 《헨리4세》(1598)와 같은 력사극들도 썼다. 이 작품들에서 작가는 절대주의왕권에 의거하여 봉건적분렬과 동란을 없애고 영국을 중앙집권적으로 통일시키며 국왕의 《어진》정치로써 사회적모순을 없앨수 있다는 사상을 표현하였다.

쉐익스피어창작의 제2기는 1601년부터 1608년까지의 시기이다.

17세기에 들어서면서 날로 로골적으로 드러나는 봉건왕권과 신흥부르죠아지의 반동성과 자본주의적관계가 빚어내는 사회적모순을 목격하게 된 쉐익스피어는 당대 현실을 비극적으로 보고 그것을 작품에 반영하기 시작하였다.

쉐익스피어의 4대비극으로 불리우는 《햄리트》(1600), 《오셀로》(1604), 《리어왕》(1605), 《매크베스》(1605)가 바로 이 시기에 창작된 작품들이다.

《쥴리어스 씨저》(1599), 《안토니오와 클레오파트라》(1607), 《코리올레이너스》(1607) 등 고대로마력사에서 있은 사건들을 취급한 《로마비극》도 이 시기에 창작되였다.

쉐익스피어는 자기의 비극작품들에서 인간의 정의와 아름다운 지향은 반드시 부정의와 악덕을 이겨낼수 있다는 사상을 표현하였는데 그것 역시 어디까지나 그의 인문주의적리상에서 벗어나지 못하였다.

창작활동의 말년인 제3기(1609—1612)에 가서 인문주의적리상에 환멸을 느낀 쉐익스피어는 현실생활과 멀리 떨어진 《씸벨린》(1609), 《겨울밤의 이야기》(1610), 《폭풍》(1611)과 같은 환상적인 비희극을 썼다. 이 작품들에는 작가의 현실에 대한 타협적인 사상이 반영되여있다.

쉐익스피어의 거의 모든 작품들에는 선과 악의 충돌이 제시되고있으며 선을 긍정하고 악을 규탄하는 사상이 표현되고있다.

그의 희극작품들에서는 선을 체현한 긍정인물들이 언제나 승리자로 되는것으로 그리고있으며 비극작품들에서는 육체적으로 죽으면서 도덕적으로 승리하는것으로 그려지고있다.

쉐익스피어는 자기의 극작품들에서 선과 악의 충돌을 통하여 봉건적신분제도와 금욕주의, 중세의 낡은 봉건도덕과 유습, 현실에서 벌어지는 여러가지 사회적악덕과 모순, 나아가서는 봉건귀족과 봉건통치배들을 비판하였다.

그러나 쉐익스피어의 극작품들에서는 인문주의문학의 일반적제한성이 그대로 나타나고있다.

쉐익스피어의 희극

쉐익스피어는 자기의 희극작품들에서 인문주의를 찬양하는 정신과 인문주의가 실현되리라는 기대를 표현하였으며 봉건적신분제도와 종교적금욕주의에서 벗어나 마음껏 활동하며 삶을 즐기려는 사람들의 지향이 높아가던 문예부흥기의 시대적풍조를 반영하였다.

쉐익스피어의 희극의 특징은 《베니스의 상인》, 《열두번째 밤》과 같은 한두편의 작품들만 분석해보아도 잘 알수 있다.

《베니스의 상인》

희극 《베니스의 상인》은 극도로 린색하고 간악한 고리대금업자 샤일로크가 선량한 상인 안토니오를 살해할 음모를 꾸몄다가 실패하고 파멸되는 이야기를 담고있다.

이딸리아의 도시공화국 베니스(베네찌아)의 무

역상인 안토니오는 친우인 바싸니오를 급한 처지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평시에 미워하던 유태인고리대금업자 샤일로크한테서 돈 3천냥을 꿔쓰게 된다. 샤일로크는 이 기회에 그동안 쌓인 원한을 풀려고 제 기한에 갚지 못하면 안토니오의 몸에서 살 한근을 베여내도 좋다는 증서를 꾸며 그의 수표를 받는다. 안토니오의 도움으로 바싸니오는 포샤와의 결혼에 성공하나 기다리던 무역선이 돌아오지 않아 제때에 빚을 갚지 못해 안토니오가 기소당한다. 리자를 받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돈을 꿔주는 안토니오에게 평소부터 앙심을 품고있던 샤일로크는 바싸니오가 내미는 돈도, 자비심에 호소하는 령주의 말도 다 물리치고 오직 법대로, 채용증서대로 살점을 떼낼것을 집요하게 고집한다. 안토니오의 목숨이 경각에 이른 위급한 때에 법학박사로 변장한 포샤가 나타나 사태를 급전시킨다. 결국 샤일로크는 재판에서 질뿐만아니라 베니스시민의 생명을 빼앗으려 한 죄로 재산을 모조리 압수당한다. 이렇게 되여 안토니오와 포샤 등이 승리한다.

작품의 부정인물 샤일로크는 린색한자 일반을 의미하는 인물로가 아니라 자본주의시초축적시기의 부르죠아지의 잔인성과 략탈성을 부분적으로 체현하고있는 인물로 그려지고있다. 이 인물형상을 통하여 작품은 자본주의적관계가 급속히 발전하고있던 당시의 현실을 반영하고 부르죠아적황금만능주의의 부패성을 폭로비판하였다. 쉐익스피어는 황금만능의 부르죠아사상과 자본주의적관계의 부패성을 일찌기 간파하고 비판한 작가의 한사람이다.

희극 《베니스의 상인》은 긍정인물들이 부정인물들과의 대결에서 승리하고 기쁨에 넘쳐 재판정에서 나오는 장면을 통하여 인문주의를 긍정하고 찬양하였으며 인문주의운동이 한창 벌어지던 시기의 시대풍조를 반영하였다.

작가는 희극에서 부르죠아지들인 안토니오와 샤일로크를 긍정인물과 부정인물로 설정하고있다. 이것은 작가가 사회악을 비판하는데서 초계급적립장에 있었다는것을 말해준다. 또한 샤일로크가 체현하고있는것과 같은 사회악이 부르죠아지일반에 고유한것이며 자본주의적관계의 필연적산물이라는것, 다가오는 사회가 자본주의사회라는것을 작가자신이 깨닫지 못하고있었다는것을 말하여준다.

《열두번째 밤》

희극 《열두번째 밤》은 사랑과 결혼에 대한 인문주의적태도를 보여주는 작품이다.

《열두번째 밤》은 두 녀성이 자기의 사랑과 행복을 위해 대담하게 행동하고 정열적으로 노력하여 끝내 성공하는 이야기를 담고있다.

사건은 지중해의 가상적인 나라 일리리아에서 벌어진다. 처녀 바이올라와 그의 오빠 쎄바스찌안은 얼굴이 똑같이 생긴 미모의 쌍둥이이다. 항해중에 바다에서 조난당하여 먼저 일리리아섬에 당도한 바이올라는 남자로 변장하여 이 섬의 령주 오시노우공작의 시동으로 복무하는 과정에 그를 사모하게 된다. 한편 공작은 백작의 딸 올리비아에 대한 사랑에 사로잡혀 바이올라를 그에게 보내여 설복하려고 한다. 그런데 올리비아는 심부름 온 바이올라에게 반하여 그에게 사랑을 고백하며 뒤늦게 이 섬에 도착하여 거리를 헤매던 쎄바스찌안을 바이올라로 잘못 알고 그와 약혼한다. 사건은 이렇게 희극적으로 전개되여나가다가 서로의 오해가 마감에 오누이의 대면으로 풀리고 바이올라는 오시노우공작과, 쎄바스찌안은 올리비아와 결합되는것으로 끝난다.

작품의 줄거리는 대략 이러하지만 결코 심심풀이이야기나 단순한 련애이야기가 아니다. 작품에는 봉건적신분제도와 종교적금욕주의의 구속에서 벗어나려는 당시 사람들의 지향과 락천적인 생활태도가 반영되여있다.

작가는 작품에서 두 주인공의 형상을 통하여 신분의 귀천이나 재산정도에 관계없이 누구나 마음에 들면 서로 사랑하고 결혼할수 있다는것과 자기의 지향과 소원을 성취하기 위하여서는 그 어떤 난관이나 구속도 박차고 적극적으로 행동하여야 한다는것을 강조하고있다.

작품에는 또한 사람은 신이 없이도 살수 있으며 저승이 아니라 래세에서 행복을 누려야 한다는 반종교사상과 신분제의 구속에서 벗어나 자유롭고 평등한 생활을 누려야 한다는 반봉건사상이 뚜렷이 표현되여있다.

작품의 제한성은 봉건귀족을 긍정인물로 설정한데서 집중적으로 나타나고있다. 인문주의적지향과 리상을 체현한 긍정인물들이 봉건귀족으로 형상된것은 인문주의가 현실생활에 구현할수 없는 사상이라는 작가의 공상적인 견해때문이다. 이것은 또한 작가가 사람은 다 같다는

초계급적립장에서 인간을 대하고있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쉐익스피어의 비극

쉐익스피어는 자기의 비극작품들에서 인문주의가 사회현실에 구현될수 없다는것을 깨달은데로부터 오는 위구심과 미래에 대한 비관의 느낌을 표현하면서 인문주의와 문예부흥운동이 위기에 처하기 시작한 시대적분위기를 반영하였다.

비극작품들에서는 희극작품에 비하여 봉건적현실이 빚어내는 여러가지 사회악과 모순, 봉건귀족과 봉건통치배들에 대한 폭로비판이 보다 강하게 제기되고있으며 선을 체현한 긍정인물들이 죽으면서 도덕적으로는 승리하는것으로 그려지고있다.

쉐익스피어의 비극 《로미오와 쥴리에트》, 4대비극의 하나인 《오셀로》에는 비극의 특징이 잘 나타나있다.

《로미오와 쥴리에트》

비극 《로미오와 쥴리에트》는 사랑과 결혼에 대한 인문주의적태도를 보여주면서 그와 대치되는 봉건도덕과 봉건유습을 비판한 작품이다.

비극의 사건은 중세기 이딸리아의 도시공화국 베로나에서 벌어진다.

작품의 남녀주인공들인 로미오와 쥴리에트는 문벌을 다투는 두 봉건귀족가문(몬타규가문과 캐풀레트가문)의 외아들과 외딸이다. 그들은 봉건적질서와 부모들의 강박을 피하여 비밀리에 애정관계를 맺고 로렌스신부의 도움으로 결혼한다. 그러나 얼마 못 가서 두 가문사이의 문벌싸움의 희생물이 되여 비극적인 죽음을 당한다.

주인공들의 비극적운명을 통하여 작품은 사랑과 결혼을 가로막을뿐아니라 사람들을 죽음에까지 이르게 하는 잔인한 봉건도덕과 유습을 비판하면서 거기서 벗어나려는 당시 사람들의 지향을 보여주고있다.

작품에서는 두 주인공을 적극 도와주는 신부의 형상을 통하여 반봉건적 및 반금욕주의적사상이 강조되고있다. 그는 비록 신부로 등장하지만 인문주의의 체현자로 형상되여있다. 비극은 또한 두 가문사이의 잔인한 문벌싸움과 그 후과를 보여주면서 봉건사회의 부패한 내막을 폭로비판하고있다.

작품은 주인공들이 죽은 다음 두 가문이 잘못을 뉘우치고 화해하는것으로 끝나는데 이것으로 하여 봉건사회에 대한 비판이 약화되고있다. 작품이 이렇게 끝나는것은 작가가 봉건사회현실을 계급적립장에서 대하지 못하고 초계급적인 사랑, 우정, 관대성을 주장하는 인문주의적립장에서 대한데 원인이 있다. 이것은 또한 작가가 이 작품을 창작할 때만 하여도 아직 인문주의의 위기를 느끼지 못하고 그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다는것을 보여준다.

《오셀로》

비극 《오셀로》는 사랑과 결혼에 대한 인문주의적리상을 제시하면서 그것이 실현되는것을 가로막을뿐아니라 사람들을 비극적죽음에 빠뜨리는 당시 사회를 강하게 비판한 작품이다.

주인공들인 오셀로와 그의 안해 데스디모나는 인문주의가 내세우는 도덕적원리를 리상적으로 체현한 인물들이다. 오셀로는 이딸리아의 베니스공화국에 복무하는 아프리카 무어족출신의 흑인장군으로서 용감성과 결단성을 지니고있을뿐아니라 인정이 많고 관대하며 정직하고 순박한 인간이다. 하기에 원로원 의원인 백인귀족의 딸이며 대바르고 강직하며 순결한 데스디모나는 피부색과 인종의 차이를 초월하여 오셀로의 인간적매력에 끌려 그를 사랑하게 되며 여러가지 장애를 이겨내고 그와 결혼한다.

그러나 극단한 리기주의와 탐욕, 출세욕에 눈이 어두운 청년장교이며 기수인 이아고의 작간에 의하여 오셀로는 질투심에 사로잡혀 안해를 의심하다가 끝내 그를 죽인다. 그후 이아고의 음모가 드러나고 안해의 순결성이 밝혀지자 그는 자결하고만다.

작품에 그려진 오셀로는 단순한 질투쟁이가 아니며 그가 자기 안해를 죽인것은 질투심때문만이 아니다. 이아고의 간계를 가려보지 못하고 안해에 대한 믿음을 잃게 된 오셀로는 그처럼 순결하던 안해마저 믿을수 없다면 이 세상에 믿고 따를 정의와 진실이 있을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며 정의와 진실을 유린하는자들을 복수하기 위하여 안해를 죽였던것이다. 이것은 그가 안해를 죽인것은 질투심때문이 아니라 정의를 위해서였다고 말하는데서 잘 알수 있다.

오셀로의 살인행위와 자결은 그것을 빚어내는 당시 사회에 대한 강한 비판으로 되며 인문주의의 실현에 대한 확신을 잃은데로부터 오는 작가의 절망감과 인문주의의 위기가 시작되던 당시 현실의 반영이였다.

당대의 사회악에 대한 비판은 특히 부정인물인 이아고의 형상을 통하여 뚜렷하게 전개되고있다. 비극에서 이아고는 봉건사회 말기의 부패성과 당시 자본주의적관계가 낳은 사회악을 모두 체현한 인물이다. 그의 성격에서 특징적인것은 겉과 속이 판이하며 우에는 아첨하고 발라맞추며 아래에는 호통과 위협으로 대하는 2중적성격이다. 그는 또한 자기보다 잘되는 사람에 대한 시기와 질투, 출세욕과 탐욕이 강하고 개인의 리익과 향락을 위하여서는 남의 생명과 재산을 희생시키는것도 서슴지 않는 극단한 리기주의자이다.

비극 《오셀로》는 쉐익스피어의 다른 작품들과 마찬가지로 제기한 문제를 더 깊이 파고들지 못하고 선과 악의 추상적인 도덕적문제로 기울어지고있으며 권선징악에서 더 벗어나지 못하고있는 제한성을 가지고있으나 오셀로, 이아고와 같이 당대 현실을 반영한 개성적인 형상을 창조한것으로 하여 의의가 있다.

그밖에도 쉐익스피어의 4대비극에 속하는 작품들인 옛 브리턴왕 리어와 그 딸들에 대한 이야기를 통하여 봉건왕의 전제통치와 반동적봉건통치배들의 죄행을 폭로한 비극 《리어왕》, 권세욕에 사로잡힌 나머지 국왕을 암살하고 왕위를 찬탈하며 나아가 온갖 무도한짓을 감행하다가 멸망하고마는 주인공 매크베스와 그 부인의 형상을 통하여 봉건통치배들의 몸서리치는 죄행을 폭로한 비극 《매크베스》와 같은 작품들에도 쉐익스피어의 비극의 특징이 잘 나타나고있다.

세계문학사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 쉐익스피어의 4대비극가운데서 가장 잘된 작품은 《햄리트》이다.

《햄리트》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비극 〈햄리트〉는 쉐익스피어의 가장 대표적인 작품이라고 말할수 있습니다. 이 작품은 쉐익스피어의 작품들뿐아니라 서구라파 인문주의문학전반이 가지고있는 본질적특징과 긍정면과 약점을 집중적으로 반영하고있습니다.》

비극 《햄리트》는 북유럽의 옛 전설에 기초하여 영국의 현실을 반영한 이야기이다.

작품은 《밑으로부터 썩어들어가는 단마르크왕국》에서 태여난 왕자 햄리트가 무서운 부정과 악을 물리치고 정의를 찾기 위하여 투쟁하며 그 싸움에서 원쑤들을 징벌하고 마지막에 자기도 죽는 비극적인 내용을 담고있다.

사건은 중세 초기 단마르크의 수도에 있는 엘시노어궁전을 중심으로 벌어진다.

어느해 외국에 가서 공부하고있던 햄리트는 왕인 아버지가 갑자기 죽었다는 급보를 받고 조국으로 돌아오게 된다.

조국에 와보니 벌써 삼촌인 클로디어스가 왕위에 올라앉아있었고 얼마후에는 자기의 어머니마저 클로디어스에게 재가하게 된다. 헤아릴수 없는 슬픔과 의혹에 잠긴 햄리트는 미칠 지경이 된다. 그러던 어느날 왕궁보초병에게서 아버지의 망령이 밤마다 나타난다는 말을 듣고 그곳에 가서 아버지를 만나게 되며 비로소 왕위와 아름다운 왕비를 탐낸 클로디어스가 잠자는 아버지의 귀에 독약을 부어넣어 독살하였다는것을 알게 된다. 그리하여 햄리트는 극악무도한 클로디어스를 복수하고 원한을 풀것을 결심한다.

햄리트는 아버지에 대한 독살사건을 확인하며 자기를 왕궁에 가두어넣고 감시하는 클로디어스의 눈을 피하기 위해 애인 오필리어로부터 배반당하여 정신이상이 생긴것처럼 가장한다.

이러한 때에 류랑연극단이 왕궁에 순회공연을 온다. 햄리트는 그들에게 아버지의 독살사건과 꼭같은 장면을 만들어 공연하도록 한다. 이것을 본 클로디어스는 당황망조하여 꽁무니를 빼며 드디여 햄리트는 독살사건이 사실이라는것을 확인한다.

클로디어스는 자기의 죄행이 드러나기 시작하자 시종장관 폴로니어스를 시켜 햄리트와 어머니가 만나 이야기하게 해놓고 장막뒤에 숨어 엿듣게 하였는데 폴로니어스마저 햄리트의 칼에 찔리워 죽게 되자 햄리트를 영국에 보내여 없애버리도록 한다. 그러나 영국으로 가는 도중에 햄리트의 계교에 의하여 오히려 간신들이 처단당하게 되며 햄리트는 다시 조국으로 돌아온다.

이때에 시종장관의 딸이며 햄리트의 애인인 오

필리어가 아버지의 죽음과 햄리트에 대한 사랑의 곡절로 하여 미치여 강물에 빠져죽는다.

음모에서 거듭 실패한 클로디어스는 시종장관의 아들이며 오필리어의 오빠인 레어티즈에게 햄리트가 아버지를 죽이고 동생까지 죽게 하였다고 말함으로써 햄리트와 결투하게 하고 그것마저 실패하게 되면 독살시키려고 독술까지 준비해놓는다. 좀처럼 판가리가 나지 않는 긴장한 결투를 보게 된 어머니는 타는 목을 추기기 위해 독술을 마시고 죽으며 치명상을 입은 레어티즈도 잘못을 뉘우치며 왕의 간교를 폭로하고 죽는다. 독약이 발린 레어티즈의 칼끝에 상처를 입은 햄리트는 운명의 시각에 왕 클로디어스를 찔러죽이고 자기도 죽는다.

작품은 이렇게 비극적으로 끝난다.

비극 《햄리트》는 주인공 햄리트의 비극적 운명을 통하여 온갖 탐욕과 방탕, 사기와 협잡으로 가득찬 썩어빠진 봉건왕조와 봉건사회의 내막을 예리하게 폭로비판하고 정의롭고 공평한 새로운 사회적진보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봉건적사회악을 말끔히 없애버려야 한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이것이 비극의 기본사상이다.

이러한 비극의 기본사상은 주인공 햄리트의 성격형상에 체현되여있다.

주인공 햄리트는 왕자로 등장하지만 인문주의를 지향한 반봉건적인물이다.

그는 인문주의의 도덕적원리인 사랑, 우정, 정의감, 용감성, 관대성 같은것을 모두 체현하고있다. 그러므로 그는 사회악을 증오하며 봉건통치배들에게 비판적태도를 취한다.

왕궁과 나라안에서 벌어지는 어지러운 현실에 더는 참을수 없게 된 햄리트는 사회악을 반대하여 싸울것을 결심한다.

그는 부정부패와 악의 화신인 왕을 처단함으로써 아버지의 원쑤를 갚을뿐아니라 자기의 의무도 실행하려고 한다. 햄리트가 결심하고 나선 싸움은 개인복수행위도 아니고 자신이나 자기 가정 또는 몇몇 사람들의 행복을 위한 싸움도 아니다. 그것은 봉건사회의 사회악과 부정의를 없애기 위한 사회적의의가 큰 투쟁이다. 이에 대해서는 주인공이

오, 이 무슨 운명이냐!
내가 이 세상 바로잡으려고 태여나다니

라고 말하는데서 잘 알수 있다.

싸움을 준비하면서 햄리트는 이 세상의 악을 없애자면 왕이나 처단하여서는 안되며 부정부패와 악의 소굴인 왕궁전체와 맞서 싸워야 한다는것을 깨닫는다. 그러나 그는 왕궁전체와 맞서 싸우는것이 너무나도 힘에 부치기때문에 번민에 잠기며 결연히 싸움에 나서지 못하고 동요한다. 그러나 햄리트는 결코 우유부단한 사람이 아니며 비겁하고 나약하거나 결단성과 용감성이 부족한 사람도 아니다. 그가 주저하고 동요한것은 자기 혼자의 힘만으로는 사회악을 없앨수 없다는것을 깨달았기때문이며 그렇다고 하여 자기의 의무와 결심을 쉽게 저버릴수 없었기때문이다.

햄리트는 결연히 싸움에 나서나 끝내 뜻을 이루지 못하고 죽는다.

햄리트의 죽음이 비극으로 되는것은 그가 자기의 숭고한 사명과 열렬한 지향을 실현하지 못하였을뿐아니라 그것이 실현될 가능성이나 전망을 내다보지 못하고 죽었기때문이다. 작품에서는 햄리트가 비록 죽었지만 정신도덕적으로는 승리자로 되였다는것과 그의 죽음으로 하여 착취사회의 악과 허위가 더욱 드러났다는것이 밝혀지고있다.

햄리트의 비극적죽음은 많은 의미를 담고있다. 그의 죽음은 봉건사회와 봉건통치배들에 대한 강한 비판으로 되는 동시에 봉건사회를 무너뜨릴 방도와 력량을 모르고 사회발전의 전도를 내다보지 못한 작가의 인문주의적세계관의 제한성을 보여준다.

비극 《햄리트》의 긍정적측면의 하나는 봉건사회와 봉건통치배들의 반동성과 부패성을 비교적 강하게 폭로비판한것이다. 작가는 봉건왕을 온갖 부패성과 악을 체현한 부정인물로 설정하고 그를 우두머리로 하는 봉건통치집단에 비판의 화살을 집중하고있으며 주인공 햄리트의 운명을 통

하여서는 당시 봉건사회를 사회악이 판을 치는 더러운 세상으로, 하나의 감옥으로 락인찍고있다.

그러나 《햄리트》에서는 영국봉건사회의 썩어빠진 현실을 발가놓고 그것을 반대하여야 할 필요성을 제기하였지만 봉건사회제도를 뒤집어엎어야 한다는 문제는 제기하지 못하고있다. 작품에는 미래에 대한 작가의 절망감을 반영하는 비관주의적색조가 진하게 나타나고있다.

이것은 쉐익스피어의 사회력사적 및 세계관적제한성의 필연적인 귀결이다.

비극 《햄리트》는 극조직과 성격형상, 시화된 대사를 비롯하여 예술적면에서도 잘된 작품이다.

작품은 그 이야기자체가 극적으로 되여있으며 매 세부가 극으로 이루어졌다. 왕자 햄리트가 아버지의 부고를 받고 돌아오는 첫 계기부터 심각한 극성을 동반하고있으며 주인공 햄리트자신이 극적성격을 체현한 인물로 그려지고있다. 작품은 이렇게 시작부터 심각한 극으로 출발하여 아버지를 죽인 놈이 클로디어스라는것을 알게 되고 그 원쑤를 갚자고 하는 햄리트, 자기의 정체가 드러날가보아 햄리트를 없애치우려고 갖은 음모를 다 꾸미는 클로디어스, 아들을 사랑하면서도 어쩌지 못하는 어머니, 햄리트와 클로디어스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충신과 간신들의 투쟁이 심각한 극적사건으로 얽혀져있다. 특히 마지막대결장면에서는 작품의 전반에 얽혀진 극이 폭발되며 드디여 쓰라린 비극으로 끝난다.

《햄리트》는 작품의 극조직이 심각하며 빈틈이 없다. 세부 하나도 모두 전반 극구성에 안받침되게끔 극적으로 꾸며져있다. 류랑연극단이 클로디어스가 왕을 죽이는 광경을 재현하여 공연하는 장면이나 햄리트가 시종장관의 아들 레어티즈와 결투하게 되는 계기, 어머니가 독술을 마시는 세부가 다 극적인 세부이다.

비극 《햄리트》는 등장인물의 성격형상에서도 주목할만 한 일련의 특성을 보여주었다. 주인공 햄리트는 낡고 부패하고 추악한 봉건왕권을 반대하는 시대적요구의 대변자이고 선과 정의의 체현자이며 자유롭고 평등한 새 사회를 지향하는 당대 사회의 전형이다. 반면에 부정인물인 클로디어스는 선하고 정의로운것을 무참히 짓밟는 악한이고 음모가이며 조국과 인민에 대하여서는 꼬물만큼도 생각지 않고 일신의 안일과 향락만을 추구하는 추물, 단마르크봉건사회의 모든 악덕을 체현한 봉건왕의 전형이다.

작품에서는 햄리트의 성격형상에 당대 시대의 긍정을 집중시켰으며 클로디어스의 성격형상에 꼭 없애야 할 사회적부정을 집중시켰다. 그러므로 작가의 인문주의적리상이 주관적으로 비끼였지만 긍부정인물이 당대 사회의 계급과 계층의 고유한 본질적인 특성과 속성을 체현하고 전형화, 개성화될수 있었다. 이 작품에서는 등장인물의 성격이 매우 생동한것이 특징이다. 등장인물의 성격이 생동하게 안겨오는것은 본질적인 생활환경과 집약화된 심각한 극속에서 인간들호상간의 사상감정이 표현되였기때문이다.

비극 《햄리트》는 모든 대사가 시화되고 격언화되였지만 어느 하나 어색한데가 없다.

작품의 내용에 맞는 철학적인 대사들은 상당한 수준이다. 특히 햄리트가 봉건왕권지배하의 단마르크는 하나의 감옥이라고 웨치는 대사는 작품의 사상을 강조하는 명대사이다.

단마르크란 나라가 감옥이란 말이네
…
훌륭한 감옥이구말구
고문실이며 감방이며
토옥굴들이 수두룩하이
그중에도 단마르크가 제일 고약한데라네

비극 《햄리트》는 자기 시대의 사회적모순에 대한 비판정신의 높이와 심오한 극적형상, 성격창조의 다면성과 생동성으로 하여 영국과 서유럽문예부흥기문학의 대표작으로, 세계문학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명작으로 된다.

5. 에 스 빠 냐 문 학

1) 종교적, 중세기적요소가 인문주의사상과 융합되여 류다른 모습을 나타낸 에스빠냐문예부흥기문학

에스빠냐는 서유럽나라들에서 문예부흥기가 제일 늦게 끝난 나라이다. 이딸리아가 14세기 후반기에 제일먼저 문예부흥기에 들어섰고 여러 나라들이 15～16세기부터 문예부흥기가 시작되여 16세기말～17세기초까지 끝난데 비해 에스빠냐는 16세기 후반기부터 17세기 전반기까지 문예부흥기가 이루어졌으며 그 여파는 17세기 후반기까지 계속되였다.

이 시기 에스빠냐는 유럽의 강국으로부터 점차 내리막길을 걸으면서 쇠퇴해가고있었다.

16세기 전반기까지 에스빠냐는 서유럽의 제일 강국으로 되여있었다. 그렇게 된데는 몇가지 요인이 있었다.

그 하나는 장기간의 국토회복운동(레 꽁끼스따)을 통하여 아랍인들의 강점으로부터 나라를 해방한 후 이 나라에 비교적 강력한 봉건왕권이 수립되고 인민들의 기세가 높았던것과 관련된다.

에스빠냐는 8세기부터 15세기까지 약 800년동안이나 북아프리카로부터 침입해온 아랍인들에게 강점되여있었다. 에스빠냐인민들은 외래침략자들을 몰아내고 빼앗긴 땅을 도로 찾기 위한 국토회복운동을 힘있게 벌려 11세기 중엽에 반도의 3분의 1이상을 빼앗아내고 여러개의 소왕국들을 만들었으며 11－13세기에 결정적전환을 이룩하고 15세기말에는 국토를 완전히 회복하였다. 이때까지도 나라는 통일되지 못하고 아라곤왕국과 까스띨랴공국을 비롯한 몇개의 소국으로 분렬된 상태에 있었다. 1479년에 통일적인 봉건국가를 형성하였으며 지중해로부터 대서양으로 나가는 어구에 놓여있는 유리한 지리적 위치를 리용하여 무적함대를 건설하고 강대한 해양국가로 등장하였다.

다른 하나는 이 나라에서 카톨릭교세력이 매우 강하여 종교개혁운동이 거의 일어나지 못하였으며 신앙에서 비교적 안정되여있었던 사정과 관련된다.

에스빠냐의 봉건통치배들은 카톨릭교회를 봉건통치의 기둥으로 여기고 그를 적극 비호조장하였으며 유럽적으로 벌어진 종교개혁이 자기 나라에 파급되지 못하도록 그 싹부터 짓뭉개버렸다. 에스빠냐에는 카톨릭교의 여러 파들가운데서 가장 악질적인 예수수회파가 군림하고 수십만의 신부, 성직자들이 집단적으로 신교사상을 압박했을뿐아니라 종교재판을 휘둘러 온갖 반카톨릭교적, 진보적요소들을 가혹하게 탄압하였다. 그리하여 신교가 대두하고 종교개혁운동이 대대적으로 벌어지던 문예부흥기에 에스빠냐는 카톨릭반동의 온상으로 되였다.

에스빠냐는 또한 15세기말부터 약 한세기동안 대대적인 식민지정복전쟁을 벌려 남아메리카의 거의 전대륙과 유럽대륙의 뽀르뚜갈, 네데를란드남부, 이딸리아의 씨칠리아섬, 아시아의 필리핀, 아프리카의 일부 등 광활한 식민지를 차지한 식민지제국으로 되였다. 에스빠냐식민주의자들은 식민지인민들을 가혹하게 착취하고 략탈함으로써 막대한 부를 짜냈다.

이리하여 강국이 된 에스빠냐국왕 칼1세는 자신을 해가 지지 않는 나라의 군주로 자칭하고 《세계제국》창설을 떠벌이였다. 그러나 에스빠냐의 우월성과 번영은 오래가지 못하였다.

서유럽에서 벌어진 문예부흥기의 강력한 반봉건, 반종교투쟁은 에스빠냐에도 미쳤다. 그리하여 봉건적압제와 종교적예속을 반대하는 인민들의 강력한 투쟁에 의하여 봉건제도의 지반이 뒤흔들리고있었다. 에스빠냐의 봉건통치배들은 어떻게 하나 봉건제도를 지탱해보려고 17세기에 절대주의군주제를 세웠으나 봉건제도의 쇠퇴몰락

을 멈춰세울수 없었다.

한편 식민지로부터 대량적으로 흘러들어온 귀금속 특히 금, 은은 그 교환물자인 모직물공업을 발전시켰으나 상인층의 리익을 대표하는 의회가 그 생산을 통제하고 과중한 소비세를 부과한것으로 하여 영국제품에 압도당하였다. 국내의 통화팽창은 소귀족(이달고)층을 령락시켜 에스빠냐에 특유한 악당소설에서 볼수 있는것과 같은 부랑인들을 격증시켰다.

에스빠냐는 대외적으로도 영국, 네데를란드와의 경쟁에서 패하고 1588년에 무적함대나 영국함대에 격파당함으로써 제해권을 빼앗기고 내리막길에 들어서기 시작하였다. 17세기에 들어서면서 영국, 네데를란드, 프랑스와의 전쟁에서 거듭 패한 에스빠냐는 더는 추서지 못하고 말았다.

이러한 시대적배경속에서 에스빠냐문학은 16세기 후반기부터 17세기에 이르는 시기에 문예부흥문학의 황금세기를 맞이하였다.

문예부흥기에 이딸리아와 영국의 인문주의문학에서는 부르죠아적성격이 강하고 프랑스문학에서는 귀족적성격이 강하였다면 에스빠냐의 인문주의문학은 종교적성격이 강한것이 특징이였다. 원래 반봉건적, 반종교적지향이 강한 인문주의문학에서 종교적성격이 강하다면 그것이 인문주의문학으로 될수 있겠는가 하는 의문이 제기되겠지만 카톨릭교의 지반이 강하고 종교개혁운동이 일어나지 못했던 에스빠냐의 형편에서 그것은 불가피한 사정이였다. 그러나 종교적성격이 강하고 종교적주제가 많았던것은 외면상일뿐이고 그 밑바닥에는 반종교적경향이 깔려있었다.

에스빠냐인문주의문학의 특징은 또한 다른 나라들에 비하여 중세기적인 요소가 진하게 남아있으면서 그것이 새로운 인문주의정신과 융합되여 나타난것이다. 중세극인 종교극이 여전히 창작공연되고 중세문학에서 류행되다가 14세기에 사라진 기사소설이 16세기에 출현하여 거의 한세기동안 판을 친것을 그 례로 들수 있다.

에스빠냐인문주의문학에서는 소설과 극문학이 주도적으로 발전하였으나 시문학은 뒤떨어져있었다. 그러므로 에스빠냐문학의 황금세기란 말은 소설과 극문학, 특히 극문학의 성과를 두고 나온 말이다.

극문학

문예부흥기 에스빠냐는 유럽에서 극문학이 가장 발전한 나라들중의 하나였다.

에스빠냐문학에서 희곡다운 희곡이 나오기 시작한것은 16세기부터이며 그 이전시기의것으로서 극문학유산이 남아있는것은 없다. 다만 15세기까지 중세기의 교회의식에서 유래된 종교극과 《조소극》이라고 불리운 세속적인 웃음극이 류행되였다는 기록이 남아있을뿐이다. 교회로부터 벗어나 문예부흥의 영향을 뚜렷이 나타낸 첫 작품으로 간주되고있는것은 16세기초에 나온 엔씨나(1469—1529)의 《목동극》(목동들의 소박한 대화극)이였다. 그러나 이 작품은 귀족들의 저택내부에서만 공연되고 광범한 대중의것으로 되지 못하였다.

에스빠냐의 극을 교회와 귀족의 구속에서 벗어나 대중적인것으로 되게 한것은 로뻬 데 루에다(1505년경—1569)였다. 그의 작품은 웃음극 《빠쏘》이다.

산문으로 쓰고 현실을 사실주의적으로 반영했으며 동작보다 대화에 중점을 둔 짧은 웃음극인 《빠쏘》는 에스빠냐극문학의 황금세기에 꽃핀 꼬메디아의 기초로 되였다.

에스빠냐극문학에서 황금세기를 열어놓은것은 16세기말—17세기 전반기에 활동한 로뻬 데 베가였으며 그이후 여러 극작가들을 거쳐 17세기 후반기 깔데론에 의하여 유지되였다.

로뻬 데 베가

로뻬 데 베가(1562—1635)는 문예부흥기 에스빠냐문학의 대표자의 한사람이며 이름난 극작가, 시인, 소설가이다. 그의 본명은 로뻬 펠릭스 데 베가 까르삐오이지만 흔히 로뻬 데 베가로 불리우고있다.

마드리드의 가난한 수공업자의 가정에서 태여난 로뻬 데 베가는 한 주교의 비호를 받아 알깔라종합대학에서 공부할수 있었으나 문학창작에 뜻을 두고 중퇴하였다. 그는 한 배우를 중상한 죄로 8년간 수도에서 추방당하자 무적함대에 자원입대하여 군사복무를 하였으며 그후 발렌씨아, 또레도, 마드리드 등지에서 전문적인 창작활동을 벌려 가장 유명한 극작가로 되였다. 그러나 생활난으로 하여 권세있는 귀족들에게 복무하지 않을수 없었으며 1614년에는 신부의 승

직을 얻었다.

베가의 창작활동은 사람들의 상상을 초월하였다. 그는 극작품만 해도 2 000편이상을 창작했으며(하루에 한편씩 쓴적이 적지 않다.) 그밖에 20편이상의 서사시와 많은 시집, 여러편의 장편소설들을 썼다. 하여 그는 《자연의 기적》, 《불사조》, 《시가의 바다》 등으로 불리웠다.

베가는 시창작에도 큰 힘을 넣어 당대의 뛰여난 시인의 한사람으로 되였으나 그보다는 극작가로서 세계적인 명성을 떨치였다.

그의 극작품들은 크게 세 부류 즉 사회정치극, 애정세태극, 종교극(성찬기적극)으로 구분되여 있다. 앞의 두 부류의 희곡이 약 1 800편, 종교극이 약 400편 된다고 한다.(그러나 오늘까지 전해진것은 약 400편정도밖에 없다. 그밖에 제목만 남아있는것이 200편가량 된다.)

사회정치극은 중세 년대기와 로만쎄(로만스)에서 소재를 찾은 민족력사극이고 애정세태극은 《만또와 검의 희극》으로 부른 서민적인 련애희극이였는데 둘 다 《꼬메디아》라고 불렀다.

베가는 인민의 리익에 맞는 《리상적인 군주》에 대해 공상한 인문주의자였으나 압제에 반항하여 투쟁할수 있는 인민의 권리를 시인하였다.

그 대표작은 희곡 《푸엔떼 오베후나》(1619)이다.

작품은 령주의 압박과 전횡을 반대하는 농민봉기를 취급한 특색있는 극작품이다.

푸엔떼 오베후나마을은 기사단 단장 페르난 고메스의 관할하에 있었다. 이자는 시집간 녀자이건 처녀이건 가리지 않고 마을의 녀자들을 붙잡아다가 마음대로 롱락하고 그들의 남편과 아버지들을 죽음에로 내모는 포악무도한 압제자이다. 이자의 폭압과 압제로 고통을 당한 마을농민들은 더는 참을수 없어 어느날 밤 그의 집을 습격하고 그자를 붙잡아 처단한다.

얼마후 국왕이 조사관을 파견하여 마을사람들을 심문하였는데 모든 피고들의 대답은 한결같이 푸엔떼 오베후나가 죽였다는것이다.

《기사단 단장을 누가 죽였는가?》 《푸엔떼 오베후나입니다.》 《그럼 푸엔떼 오베후나란 누구냐?》 《푸엔떼 오베후나입니다.》

보고를 받은 두 왕—페르난드왕과 이싸벨녀왕은 어쩔수 없어 마을사람들전원을 무죄로 인정하고 석방한다.

작품은 이러한 이야기를 통하여 령주, 기사, 귀족들의 봉건적압제와 전횡을 신랄히 규탄하고 자신의 인권을 지키기 위해 궐기한 농민들의 봉기를 정당한것으로 긍정하였다.

1476년에 실지 있은 력사적사실에 기초한 이 희곡은 그 당시로서는 보기 드문 농민폭동주제를 취급하고 폭동을 일으킨 농민들을 옹호하였으며 농민들의 집단적인 심리를 잘 그려낸것으로 하여 걸작품으로 널리 알려지게 되였다.

로뻬 데 베가에게는 그밖에도 력사극 《뻬리바네스와 오까냐기사단장》(1614), 희극 《건초우의 개》(1618), 《항아리를 쥔 처녀》를 비롯하여 이름난 희곡들이 많다.

의의있는 사회정치적문제를 취급하고 고전극의 답답한 3일치법을 타파하였으며 희극과 비극의 구별조차 무시하고 극문학과 연극을 대중의것으로 만든 로뻬 데 베가의 희곡들은 에스빠냐민족극발전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으며 현대에 와서도 여러 나라들에서 공연되였다.

에스빠냐문학에서는 로뻬 데 베가에 이어 많은 극작가들이 배출되였다. 작품 《쎄빌랴의 호색한과 돌손님》(1625년경)에서 돈 후안전설을 처음으로 극화한 띠르쏘 데 몰리나(1581년경—1648), 《의심스러운 진실》(1634)을 비롯한 성격희극을 쓴 루이스 데 알라르꼰(1581년경—1639) 등 극작가들을 들수 있다.

깔데론

로뻬 데 베가와 거의 대등한 위치에 있은 작가는 깔데론이다.

로뻬 데 베가가 에스빠냐극의 황금세기 전반기의 중심인물이였다면 깔데론은 그 후반기의 중심인물이였다.

뻬드로 깔데론 델 라 바르까(1600—1681)는 마드리드의 귀족가정에서 태여나 쌀라만까종합대학에서 법학을 공부하였으며 1638년 프랑스와의 전쟁을 비롯한 일련의 전투에 참가하였다.

그는 1619년에 극창작을 시작하여 1625년이후에는 전적으로 창작에 종사하였다. 그는 궁정과 련계를 가지고 국왕의 비호를 받으면서 적극적인 극작활동을 벌려 희극, 종교극(성찬신비극), 막간극 등 약 400편의 극작품들을 썼다.

주로 명예, 신앙, 국왕에 대한 충의와 같은 문제들을 다루면서 거기에 애정관계를 결합시킨 그

의 극작품들은 문예부흥문학의 전통을 이으면서도 인문주의에 대한 허무를 반영하였다. 그의 희곡들에 드러나고있는 염세주의적요소는 이와 관련된것이다. 깔데론의 작품들에서 화려하고 장중한 극형식은 바로끄예술의 영향을 받은것이다.

그의 대표작은 《인생은 꿈이라네》(1636)와 《살라메아의 촌장》(1636)이다.

력사극 《살라메아의 촌장》은 자기 딸을 랍치하여 겁탈하고도 결혼을 거절한 군사를 범죄자로 몰아 끝내 사형에 처하는 촌장에 대한 이야기이다. 작품은 명예를 귀중히 여기는 에스빠냐농민의 불굴의 성격을 창조하고 에스빠냐농촌풍속을 생동하게 재현하였다.

깔데론의 극작품으로는 그밖에 《신기한 마술사》, 《의리가 깊은 왕자》, 《명예를 귀중히 여기는 의사》 등이 알려져있다.

그의 극작품들은 궁정작가였던 그의 세계관적제한성을 반영하여 많은 약점을 나타내였으나 로뻬 데 베가의 인문주의극의 전통을 이어받은 진보적인 내용과 묘한 극작술로 하여 에스빠냐극문학발전에 이바지하였다.

에스빠냐인문주의극문학의 마지막대표자였던 깔데론이 1681년에 사망하자 동시에 에스빠냐극문학과 연극의 황금세기도 종말을 고하였다.

소설문학 문예부흥기 에스빠냐는 유럽나라들가운데서 소설이 가장 발전한 나라의 하나였다.

에스빠냐에서는 16세기 전반기에 기사소설, 목가소설같은 비현실적이며 공상적인 소설이 성행하다가 16세기 후반기에 현실을 반영한 사실주의적경향의 악당소설이 발전하였으며 그러한 성과에 토대하여 17세기초에 《돈 끼호떼》와 같은 사실주의적인 장편소설이 출현하였다.

에스빠냐기사소설의 대표작은 1508년에 출판된 몬딸보의 《아마디스 데 가울라》이다. 기사들의 환상적인 련애무훈담을 엮은 이 소설이 나오자 련이어 이러한 기사소설이 련속 출판되여 거의 한세기동안 문단에서 판을 치다가 17세기초에 호탕한 웃음과 풍자로써 기사소설을 조소한 《돈 끼호떼》가 나오면서 무대에서 사라지고 말았다.

목가소설(목동소설)은 16세기 중엽부터 에스빠냐에서 류행한 소설종류이다. 목가소설은 목동과 목동처녀의 목가적인 사랑을 운문과 함께 산문으로 쓴 소설이나 실지로는 귀족들이나 작가들자신의 련애담을 내용으로 한것이였다.

이딸리아작가 싼나잘로의 《아르까디아》의 본을 딴 목가소설은 에스빠냐에서 인기있는 소설종류로 되면서 《라 디아나》(1559), 《사랑의 디아나》(1564), 《필리다의 목동》(1582)을 비롯한 많은 작품들을 창작하였다. 목가소설의 인기가 얼마나 높았는가 하는것은 《돈 끼호떼》를 쓴 쎄르반떼스도 처녀작으로 《라 갈라떼아》(1585)라는 목가소설을 썼으며 이름난 극작가인 로뻬 데 베가도 《라 아르까디아》(1598)라는 목가소설을 쓴것을 보고도 알수 있다.

기사소설과 목가소설은 다 현실을 떠난 공상의 세계나 리상사회를 그린 소설로서 상층귀족사회의 유한계층들속에서 유흥거리로, 심심풀이로 읽히웠지 광범한 대중속에 보급되지는 못하였다.

그리하여 독자들속에서는 이러한 비현실적인 소설이 아니라 현실을 반영하고 사회적문제를 담은 소설을 창작할데 대한 요구가 높아지게 되였다. 이러한 요구를 반영하여 16세기 후반기부터 17세기에 걸쳐 수많이 창작보급된것이 악당소설이였다.

악당소설 악당소설(삐까레스꾸소설)은 사회하층출신의 주인공들이 겪은 곡절많은 운명을 자서전적으로 펼쳐보인 작품이다.

악당소설은 구성이 산만하고 문체도 통일되지 못하였으며 여러가지 면에서 결함이 많았다. 이러한 소설이 광범한 독자들의 인기를 독점하고 오래동안 류행된것은 공상적이며 진부한 기사소설이나 목가소설과는 달리 그 내용과 형식이 참신했기때문이다.

악당소설은 부랑인, 거지, 망나니 등 《악당》(삐까로)으로 불리우는 사회하층인들이 살아가는 과정에 겪은 온갖 불행과 행운을 통하여 당시 에스빠냐의 현실을 생동하게 반영하였다.

악당소설은 현실을 객관적으로 반영하기만 한것이 아니라 힘있고 간결한 묘사와 랭소가 흐르는 주인공의 대사로써 당대의 사회악을 적라라하

게 폭로풍자하고 사실주의적경향을 뚜렷이 나타냈다.

악당소설의 첫 작품은 1554년에 출판된 《라사릴료 데 또르메스의 생애》이다. 소설에서는 소경거지의 손을 잡아 인도하는 길잡이일로부터 시작하여 가지각색 주인에게 봉사하는 주인공이 겪은 불행과 행운을 자서전식으로 펼쳐보이였다.

대단한 인기를 얻은 이 작품에 뒤이어 나온 마떼오 알레만의 《악당 구스만 데 알파라체》(제1부, 1599)는 악당의 성격창조와 그 폭넓은 구성으로 하여 더 많은 인기를 독점했으며 악당소설이 류행될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이 두 작품을 계기로 광범히 창작된 악당소설은 17세기에 들어와 더욱 류행되였다. 17세기초에 악당 구스만의 제2부가 나온것을 비롯하여 바르바딜죠의 《쎌레스띠나의 딸》(1612), 에스삐넬의 《마르꼬스 데 오브레곤의 생애》(1618), 풍자작가 궤베도의 《처세술의 명수 돈 빠블로스의 생애》(1626) 등 많은 작품들이 나와 성행하였다.

그러나 17세기 중엽까지 널리 류행되던 악당소설은 그 이후시기에 이르러 일종의 풍속소설로 되여 자취를 감추었다.

악당소설이 비록 이 시기에 이르러 사라지긴 하였지만 그 전통은 에스빠냐문학에 계속 이어져 현대에도 악당소설류의 작품이 계속 창작되였다.

소설발전의 이러한 성과에 기초하여 17세기초에 그 최고봉인 쎄르반떼스의 장편소설 《돈 끼호떼》가 창작되였다.

2) 쎄르반떼스와 《돈 끼호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에스빠냐작가 쎄르반떼스가 쓴 소설 〈돈 끼호떼〉도 문예부흥기의 이름있는 작품의 하나입니다.》

장편소설 《돈 끼호떼》는 문예부흥기 에스빠냐의 이름난 작가 쎄르반떼스의 대표작으로서 당대 사회뿐아니라 먼 후세에까지 영향을 미친 세계고전문학작품의 하나이다.

미겔 데 쎄르반떼스 싸아베드라(1547—1616)는 에스빠냐에서 문예부흥기문화가 바야흐로 성숙기에 들어서고있던 시기에 수도 마드리드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는 소도시 알깔라 데 에나레스에서 외과의사의 아들로 태여났다. 그의 가족은 대식구인데(작가는 이 가정의 7명의 자녀중 네번째였다.) 아버지가 귀까지 멀어 집안이 넉넉하지 못하였다.

그는 소년시절에 가족을 따라 발라도리드, 마드리드, 쎄빌랴 등지로 자주 옮겨다니며 살았으며 정규교육은 거의 받지 못하였다. 그의 학력이란 1569년에 마드리드의 개인서당에서 공부한것뿐이다.(다른 설에 의하면 어려운 속에서도 간신히 대학교육을 받을수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쎄르반떼스는 파란곡절에 찬 인생행로를 통하여 풍부한 생활체험을 쌓고 독학으로 세계적인 작가로 되였다.

쎄르반떼스는 22살때에 에스빠냐에 와있던 로마법왕의 사절 아크바비바추기경에게 복무하게 되였으며 추기경이 고국으로 돌아가게 되자 그를 따라 이딸리아로 건너갔다. 다음해 추기경은 세상을 하직하였다. 보호자를 잃은 쎄르반떼스는 이딸리아에 주둔해있던 에스빠냐군대에 입대하여 병사로 되였으며 곧 해군에 들어가 1571년 뛰르끼예함대와 싸운 유명한 레반또해전에서 부상을 당하였다. 그후에도 그는 여러 전투에 참가하였다.

그는 1575년에 에스빠냐해군사령관의 감사장을 가지고 귀국의 길에 올랐으나 이번에는 프랑스해안부근에서 알제리해적선의 습격을 받아 5년동안 노예살이를 하지 않으면 안되였다. 그동안 여러번 탈출을 기도하였으나 매번 실패하였으며 1580년에야 몸값을 물고 자유로운 몸이 되였다.

그가 귀국해보니 가족은 령락되고 그의 전투공로에 대해서 생각해주는 사람도 없었다. 쎄르반떼스는 시인이 되여 명성을 떨쳐보려는 꿈을 안고 시창작을 시작하였으며 동시에 고대로마제국군대의 침략을 반대하여 용감히 싸운 에스빠냐인민들의 투쟁을 보여준 력사비극 《누만씨아》(1582)를 비롯한 희곡과 아름다운 인간생활에 대한 인문주의적리상을 공상적으로 표현한 목가소설 《갈라떼아》(1585) 등의 작품들을 창작하였으나 성공하지 못하였다.

이렇게 창작에 미쳐있던 그는 1584년에야 37살의 로총각으로 19살아래인 부유한 농민의

딸과 결혼하였다.

작가로서 성공하지 못한 쎄르반떼스는 한동안 창작활동을 중단하고 무적함대의 식량징발원, 안달루씨아지방의 세금징수관리 등으로 일하였다. 그는 이 기간에 쎄빌랴사제단의 식량을 비법적으로 징발했다는 항의를 받고 파문당하였으며 1597년에 공금을 맡았던 은행가가 파산도주하는 바람에 공금을 잃은 죄로 감옥살이를 하고 5년후에 다시 투옥되였다.

생애의 마지막 15년동안 쎄르반떼스는 어려운 생활처지에서도 또다시 펜을 잡았다. 그는 이 기간에 창작적개화기를 맞았다. 54살부터 69살까지의 생애말년에 작가는 사실주의적인 장편소설 《돈 끼호떼》 제1부(1605)를 발표하여 성공하였으며 《교훈소설집》(1613), 풍자작품 《빠르나스에로의 려행》(1614), 《새로 만든 희극 8편과 막간극 8편》(1615), 《돈 끼호떼》 제2부(1615), 장편소설 《뻬르씰레스와 씨히즈문드》(1617 출판) 등 작품들을 련이어 써냈다.

쎄르반떼스는 생애의 마지막까지 정열적인 창작활동을 벌려 에스빠냐문예부흥문학의 발전에 큰 기여를 하였으나 그 당시에는 응당한 평가를 받지 못하였다. 그는 빈궁에서 벗어나지 못한채 1616년 4월 23일 쉐익스피어가 세상을 떠난 바로 그날 69살의 나이로 마드리드에서 사망하였다. 쎄르반떼스의 작품이 가지는 진정한 가치가 옳바로 평가된것은 18세기이후 특히 19세기에 이르러서였다.

쎄르반떼스의 대표작은 장편소설 《돈 끼호떼》이다. 《돈 끼호떼》의 제목을 제대로 부르면 《기지가 풍부한 이달고 돈 끼호떼 라 만챠》이다.

2부작으로 된 《돈 끼호떼》는 세상의 불의를 바로잡으려는 기사도적인 리상을 품고 모험행각의 길에 올라 온갖 광기를 부리는 주인공 돈 끼호떼와 그에 대조적인 부하 싼쵸 빤사의 인상적인 성격형상을 통하여 당대 현실을 폭넓게, 사실주의적으로 반영한 소설작품이다.

에스빠냐의 라 만챠지방의 한 농촌마을에 나이 50이 가까운 소귀족출신의 한 사나이가 살고있었다. 그는 당시에 류행했던 기사소설에 정신이 팔려 자기 재산의 대부분을 밀어넣고 책을 사들여 밤낮 그 책만 읽었다. 그러던 나머지 그만 머리가 돌아 오늘의 현실이 옛날과 다르다는것을 잊어버리고 자기도 기사가 되여 온 세상을 돌아다니며 의로운 일을 할 결심을 품게 된다.

그는 심사숙고한 끝에 자기 이름을 《라 만챠의 돈 끼호떼》라고 고쳐지으며 헛간에서 조상들이 남겨놓은 갑옷과 투구, 녹쓴 창을 꺼내서 닦고 땜질하고 갈아 무장을 갖춘다. 기사는 말을 타야 하기때문에 그는 자기 집 비루먹은 말에 《로씨난떼》라는 명마의 이름을 달아준다. 그런데 귀부인이 문제로 된다. 기사에게는 자기가 늘 사모하며 자기가 세운 공훈을 보고하고 표창을 받을 귀부인이 있어야 했다. 그는 두루 물색하던 과정에 이웃마을에 사는 농민의 딸을 귀부인으로 둔갑시켜 그에게 둘씨네아 델 또보쏘라는 그럴듯한 이름을 붙인다.

이렇게 준비를 끝낸 돈 끼호떼는 혼자서 기사수업의 길에 오른다. 그는 주막집을 성곽으로 착각하고 기사의 칭호를 수여받는 의식을 치르기도 하고 주인에게 매를 맞고있는 목동소년을 구원하기도 하며 상인들의 무리를 만나 다툼끝에 죽도록 얻어맞기도 한다.

그는 기사에게는 꼭 시종이 있어야겠다고 생각하고 두번째 행각부터는 이웃에 사는 소작농민 싼쵸 빤사를 꾀인다. 기사행각이 성공하면 섬나라 총독을 시키겠다는 꾀임에 솔깃해진 싼쵸는 돈 끼호떼를 상전으로 모시기로 승낙한다.

이렇게 되여 투구에 갑옷을 떨쳐입고 손에는 창과 방패를 들고 비루먹은 《로씨난떼》를 탄 바싹 마른 키다리 돈 끼호떼와 하늘소를 탄 키가 작은 땅딸보 싼쵸 빤사의 기사행각이 이루어진다.

이 행각의 길에서 돈 끼호떼는 멀리 들판에서 돌아가는 풍차를 발견하자 거인악마가 나타났다고 소리치면서 창을 꼬나들고 《로씨난떼》에 박차를 가하여 풍차를 공격했다가 그만 나가떨어져 온몸에 부상을 입기도 하고 술을 담은 가죽부대를 괴물로 착각하고 창으로 찔러 못쓰게 만들기도 하며 주막집주인이 숙박료를 내라고 하자 기사는 돈을 모른다고 뻗대다가 된매를 맞기도 한다.

그는 양떼를 100만대군으로 착각하고 마구 무찌르며 죄수들을 끌어가는 호송병들을 사람의 자유를 구속한다고 꾸짖으며 마차를 타고가는 녀

인과 그 일행을 도적떼가 공주를 랍치해가는 것이라고 넘겨짚고 공주를 구원하려고 달려들기도 한다.

세차례에 걸치는 이러한 모험행각과정에 돈 끼호떼는 몸을 가눌수 없을 정도로 얻어맞기도 하고 조소를 받기도 하며 갖은 봉변을 다 당한다. 그래도 그는 기사는 응당 이러한 고행을 겪어야 한다고 하면서 끄떡하지 않고 기사행각을 계속한다.

그러다가 돈 끼호떼는 그의 행동을 걱정하는 친구들의 꾀에 걸려 집으로 붙들려온다. 기진맥진하여 집으로 돌아온 돈 끼호떼는 자기의 행동이 시대착오적이라는것을 깨닫고 사람들에게 기사소설을 읽지 말라는 유언을 남기고 죽는다.

쎄르반떼스가 소설에 창조한 주인공의 형상, 현실과 환상을 갈라보지 못하고 허허벌판에 서있는 커다란 풍차를 거인악마로 생각하며 중세기 기사의 갑옷차림에 기다란 창을 비껴들고 말을 타고 돌진하는 돈 끼호떼의 우습강스러운 모습은 뭇사람들의 머리속에 깊은 인상을 남겼다.

그러면 작가가 돈 끼호떼의 형상을 통하여 보여주려고 한것은 무엇이며 소설에 담긴 뜻은 무엇인가?

이 문제를 둘러싸고 오래전부터 많은 론의가 벌어졌다. 어떤 사람은 이 작품을 《인류의 책》으로 부르면서 소설에서 주되는것은 인간이 가지고있는 두가지 경향 즉 리상적인 면과 현실적인 면을 작중인물을 통하여 표현한것이라고 하였으며 또 어떤 사람은 돈 끼호떼의 성격을 햄리트의 성격과 대비하면서 햄리트는 회의형이며 돈 끼호떼는 락천형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견해는 다 《돈 끼호떼》에 대한 추상적이며 관념론적인 해석에 기초한것이였다.

쎄르반떼스가 처음 이 소설을 쓰게 된 동기는 당시까지 류행하던 기사소설의 인기를 떨어뜨리자는데 있었다. 이에 대해서는 그가 제1부의 서문에서 벗의 입을 빌어 《이 책은 세상과 보통사람들속에서의 기사소설의 권위와 영향력을 타파하자는것이 바로 그 목적》이라고 한것만 보아도 잘 알수 있다.

또 실지로 소설에서는 모든것이 우습강스러운 돈 끼호떼의 기사차림새와 말투, 사고방식과 행동들을 희극적으로 묘사함으로써 기사소설의 허황성을 신랄하게 풍자조소하고있다.

그러나 《돈 끼호떼》는 여기에만 그치지 않고 보다 심오한 내용을 담았다.

장편소설 《돈 끼호떼》는 멸망의 운명이 눈앞에 다가온것도 모르고 허장성세하던 당시의 에스빠냐 봉건통치배들과 중세기의 낡은 유물인 기사도와 기사문학을 신랄하게 풍자조소하고 인간성, 자비심, 동정심, 자기희생성과 용감성 같은 인간의 특질을 긍정하고 찬양하였다.

작품의 심오한 내용은 서로 모순되는 두가지 성격적특질을 가진 주인공 돈 끼호떼의 형상을 통하여 표현되고있다.

돈 끼호떼는 무엇보다도 시대의 변천을 모르고 지나간 시대의 낡은 정신에 사로잡혀 어리석게 행동하는 인간으로 형상되였다. 작가는 돈 끼호떼의 이 부정적측면에 대한 묘사를 통하여 중세기의 낡은 유물인 기사도와 기사문학을 풍자조소하는 한편 주로는 자기시대를 다 산 낡은 봉건기사계급의 후예인 에스빠냐봉건통치배들이 지나간 옛 처지를 회복하려고 종교재판과 군사적모험, 전제폭정을 휘두르는 시대착오를 풍자하고 끝없는 치부욕과 황금에 눈이 어두워 국내외로 떠돌아다니며 사기와 협잡을 일삼던 에스빠냐의 기사, 모험주의자들을 신랄하게 풍자조소하였다.

다른 한편 돈 끼호떼는 우의 성격과 모순되게 주관적으로는 인간을 사랑하고 정의를 귀중히 여기며 불의와 허위를 증오하는 고결한 정신을 가지고있는 인간으로 형상되여있다.

작가는 돈 끼호떼의 이러한 긍정적면을 통하여 봉건주의를 반대하는 인문주의적리상을 제시하고있다. 작가는 당대의 진보적사조였던 인문주의사상의 영향밑에 봉건적멍에와 종교적편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사회악과 부정의를 반대하고 《자비심》과 《인간성》이 지배하는 그 어떤 새로운 시대에 대한 인문주의적리상을 믿고 그것을

소설에 담았던것이다.

돈 끼호떼의 행동은 언제나 시대착오적이고 우습강스러운것이였으나 그 행동의 주관적인 동기와 의도가 《인류를 위하여 헌신》하자는데 있었기때문에 그는 《세계를 돌아다니며 비뚤어진 일을 바로잡고 피해를 없애는것》을 자기의 직분으로, 본업으로 여겼다. 그는 다른 사람들이 겪고있는 불행에 깊은 동정을 표시한다. 그는 또한 부정의를 반대하여 싸우려는 강의한 정신을 가지고있으며 겸손하고 사심이 없다. 싼쵸 빤사의 말에 의하면 그의 주인은 《비둘기의 심장》을 가지고있다. 기사도적인 광증에서 벗어나 때때로 제정신으로 돌아오면 돈 끼호떼의 입에서는 인간성과 자비심, 자유 등에 대한 인문주의적 언사가 흘러나온다.

작품에서 싼쵸 빤사의 형상도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있다. 돈 끼호떼와 싼쵸 빤사는 그 외모에서 한사람은 바싹 여윈 키다리인데 다른 한사람은 키가 작은 땅딸보이며 성격도 한사람은 공상과 현실을 가려보지 못하고 언제나 공상의 세계에서 헤매이는데 한사람은 현실에 든든히 발을 붙이고 언제나 현실적으로 사고한다. 싼쵸는 또한 에스빠냐농민의 건전한 리성을 체현한 인물로서 인민적인 총명성과 지혜, 선량함과 락천성 등 긍정적인 면을 많이 가지고있다.

싼쵸 빤사의 형상은 돈 끼호떼의 형상에 대한 예술적보충으로 되며 돈 끼호떼의 기사도적인 광증의 허황성을 두드러지게 하는 역할을 놀고있다.

작가의 인문주의적립장은 소설에 통치배들의 묘사는 될수록 피하고 농민, 수공업자, 목동, 병사, 주막집 심부름군 등을 등장시켜 하층인민들의 생활을 폭넓게 반영하면서 그들의 긍정면을 이모저모에서 돋구고 그들에게 깊은 동정을 기울이는데서 표현되고있다.

《돈 끼호떼》는 예술적인 면에서 그때까지 류행되던 악당소설, 목가소설, 기사소설 등 선행소설들의 형태적특성을 리용하면서도 그것들이 가지고있던 중세기적인 제한성을 적지 않게 극복하고 근대적인 사실주의적장편소설의 풍격을 갖추는데서 크게 전진하였다. 소설은 당대 에스빠냐의 사회생활을 비교적 폭넓게 반영하면서 시대의 특징을 잘 표현하였으며 특히 돈 끼호떼와 싼쵸 빤사의 성격묘사에서 작가의 특기를 발휘하였다.

소설은 언어형상도 개성적이며 사실주의적이다. 등장인물들의 말은 그들의 사회적처지와 개성적특성에 맞게 색갈이 있고 개성적이다. 낡은 투이면서도 기사적인 정중성과 화려성을 띠고있는 돈 끼호떼의 말과 조잡하면서도 속담과 격언으로 충만된 기지있고 생동한 싼쵸 빤사의 말은 매우 개성적이다.

이와 반면에 소설은 시대적 및 계급적제한성을 나타내고있다.

그 하나는 소설의 내용에서 인문주의사상의 부르죠아적제약성을 그대로 드러내고있는것이다. 작가가 작품에서 강조하고있는 모든 사람에게 베푸는 동정심과 관대성, 인간평등과 자유에 대한 사상은 모두가 부르죠아인도주의에 그 바탕을 두고있으며 작품에는 봉건을 반대하는 적극적인 투쟁이 아니라 선과 자비심, 도덕적자기완성이 강조되고있다.

또한 작품에서는 당시의 전제통치와 억압밑에서 작가의 사상을 직선적으로 표현하지 못하는 객관적인 조건에 의하여 사상들이 풍유적으로, 암시적으로, 반대말로 표현되고있다.

작품의 제한성은 또한 예술적으로 세련되지 못한것이다. 소설전체의 구성이 치밀하지 못하고 산만하며 일부 중세기적인 잔재가 남아있다.

장편소설 《돈 끼호떼》는 일련의 제한성이 있지만 그 진보적인 내용과 비교적 높은 형상성으로 하여 세계문학의 보물고를 풍부히 하고 유럽문학에서 근대사실주의소설의 길을 개척하는데 이바지하였다.

Ⅳ. 17—18세기 유럽문학

1. 고전주의, 계몽주의, 감상주의사조의 발생발전

시대적배경 14—16세기 문예부흥기에 뒤이은 17—18세기는 유럽나라들에서 봉건제도의 붕괴와 자본주의적발전이 더욱 촉진되여 봉건제도로부터 자본주의제도에로 넘어가던 시기이다.

17세기 영국부르죠아혁명은 봉건제도로부터 자본주의제도에로의 이행의 성숙된 요구였으며 18세기 프랑스부르죠아혁명은 봉건사회로부터 사회발전의 다음단계인 자본주의에로 이행의 전환적국면을 열어놓은 중대한 사변이였다.

그러나 이러한 력사발전의 합법칙성도 결코 순조롭게 이루어진것은 아니였다.

17세기까지만 하여도 봉건세력은 아직 강한 힘을 가지고 사회발전을 막아나섰다.

영국에서 일어난 부르죠아혁명은 다른 나라들에 파급되지 못하고 한 나라의 범위에 머물러있었다.

프랑스에서는 중앙집권적인 전제통치가 강화되여 반봉건세력을 탄압하였으며 14세기에 남먼저 자본주의적발전의 길에 들어선 이딸리아에서도 봉건세력이 다시 머리를 쳐들었다. 도이췰란드는 30년전쟁후 나라가 수많은 소공국으로 분할되였으며 에스빠냐에서도 자본주의적경제가 쇠퇴하고 봉건세력이 종교세력과 결탁하여 반봉건세력을 가차없이 진압하였다.

그러나 18세기에 들어와서 형세는 달라지게 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서구라파나라들의 봉건제도는 18세기에 이르면서 더욱 위기에 처하게 되였으며 그것을 청산하는것이 일정에 오르게 되였습니다. 이 시기 여러 나라들에서는 봉건제도를 뒤집어엎는 부르죠아혁명이 성숙되여갔으며 그를 수행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계몽주의운동이 벌어지기 시작하였습니다.》

18세기는 유럽나라들에서 인민대중의 반봉건적진출이 전례없이 강화되고 부르죠아혁명의 기운이 그 어느때보다도 고조된 시기였다.

봉건제도가 생겨난 이래 천년이상의 장구한 기간 봉건적인 신분제도에 얽매여 노예생활을 강요당하여온 유럽의 인민대중은 봉건적인 노예생활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18세기에 봉건제도를 뒤집어엎기 위한 결정적인 투쟁에 일떠섰다.

그 결과 17세기 영국부르죠아혁명에 뒤이어 18세기말에 프랑스에서 부르죠아혁명이 일어났다. 18세기는 유럽에서 부르죠아혁명이 성숙되여 부르죠아혁명이 광범히 벌어진 시기였다.

봉건제도를 뒤집어엎기 위한 투쟁에서 결정적역할을 한것은 봉건적인 노예생활속에서 신음하던 광범한 근로인민대중이였다.

이와 함께 봉건적신분제도와 교회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자유롭게 활동할수 없었던 부르죠아들이 또한 반봉건, 반종교투쟁에 나섰다.

이러한 시기의 시대적요구를 반영하여 벌어진것이 계몽주의운동이였다. 새로운 사조로서 계몽주의를 들고나온것은 신흥부르죠아출신의 진보적인 지식인들이였다.

그들은 다가올 부르죠아혁명을 맞이하기 위하여 봉건제도와 카톨릭교에 대한 정치적 및 종교적환상으로 가득찬 사람들을 계몽시키는것을 자기들의 과업으로 내세우고 적극적인 활동을 벌렸다.

계몽주의라는 말이 나오게 된것은 이와 관련되여있다.

계몽주의자들은 이 투쟁에서 리성을 중요한 기준으로 내세우고 봉건주의와 카톨릭교회를 리성에 맞지 않는다고 공격하였다.

그들은 봉건국가와 교회의 강압에서 벗어난 자유로운 인간을 리성적인간으로 간주하고(루쏘가 《자연으로 돌아가라!》는 구호를 들고 자연인을 리상화한것은 이와 관련된것이다.) 봉

건제도를 뒤집어엎으면 모든 사람들에게 자유와 평등, 박애가 보장되는 《리성의 왕국》이 도래한다고 선전하였다.

부르죠아사상계몽운동으로서의 계몽주의는 력사발전의 견지에서 볼 때 부르죠아혁명운동이 대두하고있던 시기에 낡은 봉건주의와 카톨릭교의 교리를 폭로규탄하고 그를 반대하여 투쟁하도록 사람들을 깨우치고 추동함으로써 유럽에서 근대적인 자본주의발전에 이바지한 진보적인 운동이였다.

그러나 계몽주의사상은 심한 계급적 및 시대적 제한성을 가지고있었다.

계몽주의는 신흥부르죠아지의 리해관계를 대변하는 사상이였다. 봉건국가와 교회의 강압에서 벗어난 자유로운 인간, 리성적인간에 대한 계몽주의자들의 주장은 본질적으로 신분제와 교회의 구속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활동하려는 신흥부르죠아지의 요구를 대변한것이였다. 그들이 떠든 《리성의 왕국》이란 다름아닌 한줌도 못되는 부르죠아지가 절대다수의 근로대중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부르죠아지들의 왕국이였다.

17—18세기 유럽문학은 이러한 시대를 배경으로 하여 발전하였다.

여러 나라들에서의 문학의 발전정형

문예부흥기에 이어 17—18세기에 들어와서도 문학발전이 앞선것은 여전히 서유럽나라들이였다. 그중에서도 남들보다 자본주의가 빨리 발전한 영국과 프랑스가 문학발전에서도 앞서고있었다.

17세기 부르죠아혁명시기에 서사시 《실락원》을 쓴 밀턴과 같은 시인을 배출한 영국문학계는 18세기에 소설 《로빈슨 크루소우》의 작가 디포우, 소설 《갈리버려행기》의 작가 스위프트, 편지체소설로 유명한 리쳐드슨, 소설 《톰 죤즈》창작으로 알려진 필딩과 같이 이름난 작가들을 배출하였다. 18세기 영국은 유럽에서 제일먼저 근대소설이 발전한 나라로 되였다.

프랑스도 17—18세기 유럽에서 문학발전이 앞선 나라의 하나였다.

프랑스에서는 17세기에 고전주의문학이 발전하여 비극에서 라씬과 꼬르내이, 희극에서 몰리애르, 우화에서 라 퐁땐, 리론에서 빌로와 같은 이름난 작가들이 활동하였다.

18세기에는 이 나라에서 계몽주의문학이 발전하였다.

18세기말에 부르죠아혁명이 일어난 이 나라에서는 계몽주의자들이 문학을 중시하고 그것을 계몽활동의 수단으로 여긴 결과 문학창작이 활발하게 벌어졌다.

18세기 프랑스에서 활동한 대표적작가들로서는 볼떼르, 디드로, 루쏘, 보마르쉐를 들수 있다.

에스빠냐에서는 17세기까지만 해도 로뻬 데 베가, 깔데론과 같은 재간있는 극작가들이 나와 극문학발전에서 당당한 자리를 차지하고있었으나 깔데론이 죽은 다음부터는 극문학뿐아니라 전반적인 문학이 저조해졌다.

도이췰란드에서는 계속되는 내란으로 국토가 황페화되여 17세기에는 다른 나라들보다 문학발전이 뒤떨어졌다.

그러나 18세기에 이르러 괴테와 쉴레르, 레씽과 같은 세계적인 작가들이 배출되였으며 프랑스, 영국과 함께 계몽주의문학이 발전한 나라로 되였다.

17—18세기에 북유럽나라들, 로씨야를 비롯한 동유럽나라들은 서유럽나라들에 비하여 문학발전이 여전히 뒤떨어져있었으며 아직은 세계문학의 보물고를 풍부히 하는데 이바지할만 한 세계적인 작가와 작품을 내놓지 못하였다.

이 나라들에서 문학발전이 본격화되고 서유럽나라들을 따라잡은것은 19세기에 와서였다.

17—18세기 유럽문학력사에서 특징적인것은 고전주의, 계몽주의, 감상주의 등 새로운 문학사조들이 발생발전하여 문학발전을 추동한것이다.

고전주의문학

문예부흥기에 발전한 인문주의문학에 이어 17세기에 출현한 문학사조는 고전주의문학이였다.

고전주의라는 술어는 라틴어 《클라씨쿠스》(《규범적인》이라는 뜻)에서 나온 말로서 고대 그리스 및 로마시대의 문화를 절대적인 규범으로 내세우고 그것을 모방하여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있다.

고전주의는 먼저 프랑스에서 봉건적지방분권주의가 무너지고 중앙집권적인 왕권에 의거하여 민족적통일국가와 부르죠아사회의 기초가 이루어진 환경속에서 귀족과 신흥부르죠아지의 리해관계를 반영하여 발생하였다.

고전주의는 나라에 따라 제각기 자기의 고유한 민족적특성을 가지고있으나 일반적으로는 절대주의군주국가의 궁정문화에 뿌리를 두고있다.

프랑스에서 고전주의문학은 국왕 루이14세의 궁정을 중심으로 성립되였다. 이런 점에서 봉

건적이며 귀족적인 성격이 강하지만 당시 프랑스의 왕권이 부르죠아지와 야합한 정권이였던 관계로 부르죠아적성격도 진하게 띠였으며 귀족과 함께 부르죠아지의 리해관계도 반영하게 되였던것이다.

고전주의는 모든 사회계층들과 개인들의 리해관계는 국가적리익, 즉 민족통일국가의 리념에 복종되여야 한다고 설교하면서 절대주의군주를 이 리념의 체현자로 리상화하였으며 봉건귀족과 신흥부르죠아지사이의 서로 대립되는 리해관계도 이 절대주의왕권에 의하여 조절될수 있다는 환상을 표현하였다.

고전주의의 주요한 특징은 어느때, 어디서나 변함없이 진리와 아름다움의 기준으로 되는것은 리성이라고 주장하면서 그것을 절대화하였으며 이른바 리성의 법칙에 비추어 자연과 사회의 모든 현상을 합리적으로 해석하고 평가한것이다.

고전주의는 예술에서 개인적인것이나 생활세태적인것을 일률적으로 배척하고 주로 국가적으로 의의있는 큰 사건들과 장엄하고 위대한 현상들을 묘사대상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많은 경우 궁정생활을 비롯한 귀족과 상층부르죠아지의 생활을 묘사하였으며 고대그리스와 로마에서 작품의 주제를 많이 택하였다.

고전주의는 이러한 사회적 및 미학적요구로부터 출발하여 《3일치》, 《쟌르의 구별》과 같은 인위적이며 도식적인 미학원칙과 규범들을 내세웠다.

하여 고전주의극작품이라고 하면 사건은 24시간이내에 진행되여야 하고 반드시 한 장소에서 진행되여야 하며 등장인물들의 행동과 지향은 하나의 사건속에서 련결되고 하나의 목적에 복종되여야 한다는 《3일치》규범을 지켜야 하였다.

고전주의문학에서는 또한 비극과 송시, 서사시를 고상한것으로, 희극과 풍자작품, 우화를 천한것으로 여기고 소설을 배척하였으며 운문을 내세우고 산문을 천시하였다. 이로부터 희곡과 우화들이 다 운문으로 씌여졌다.

고전주의를 리론적으로 정식화한것은 프랑스의 평론가 뽈로(저서 《시학》)였다. 뽈로에 의하여 리론적인 기초가 이루어진 고전주의는 비극작가 라씬과 꼬르내이, 희극작가 몰리애르, 우화작가 라 퐁땐 등에 의하여 17세기 후반기 프랑스에서 가장 발전하였다.

고전주의는 프랑스에서 발생한 후 17세기 후반기와 18세기에 영국, 이딸리아, 도이췰란드, 에스빠냐, 로씨야 등 여러 나라들에 퍼졌다. 이딸리아의 알피에리, 도이췰란드의 괴테(일부 작품들에서 표현), 로씨야의 로모노쏘브와 폰 비진 등이 그 대표적작가들이다.

고전주의는 절대주의군주제도에 기초한 민족국가형성을 촉진시킴으로써 일정한 기간 진보적역할을 하였다.

또한 문학예술의 인식교양적역할을 강화하면서 귀족사회와 부르죠아지들의 부정적측면을 비판하고 사회적전형과 생활론리에 맞는 형상을 창조함으로써 유럽사실주의문학발전에 이바지하였다.

그러나 고전주의는 그 본질적인 사회계급적 및 사상미학적제한성으로 하여 문학의 사실주의적발전을 억제하였으며 프랑스에서는 17세기말에, 다른 나라에서는 18세기 후반기에 자기의 존재를 끝마치였다.

계몽주의문학

계몽주의문학은 17세기의 고전주의문학에 이어 18세기 유럽나라들에 널리 류포된 문학사조이다.

계몽주의문학은 계몽주의운동의 한 고리로 창조된것으로서 계몽주의사상의 력사적진보성과 그 계급적 및 시대적제한성을 다같이 반영하고있다.

계몽주의문학의 특징은 첫째로, 그 주제사상적내용에서 계몽주의사상을 선전하기 위한 경향과 교훈적성격이 강한것이다.

계몽주의작가들은 작품을 통해 사람들에게 교훈을 주고 그들을 도덕적으로 계몽시키려고 하였다. 이로부터 그들은 예술적형상보다 사상을 더 중시하여 작품에서 사상을 직선적으로 로출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계몽주의작가들은 무엇보다도 신분과 귀천을 따지는 봉건신분제도와 귀족적편견에 강한 비판을 가하였으며 봉건적전제통치에 반기를 들고 봉건사회를 리성에 맞지 않는 암흑사회로 규탄하였다.

그들은 또한 종교적몽매주의와 광신주의를 인간의 리성에 어긋나는것으로 공격하였다.

그들은 특히 인간의 리성을 내세우고 자유, 평등, 박애에 대한 계몽주의적리상을 선전하면서 봉건을 청산하면 자유, 평등, 정의가 실현된 리성의 왕국이 올것이라는 환상을 표현하였다.

계몽주의문학의 특징은 둘째로, 문학에 새로운 주인공을 내세운것이다. 인문주의문학과 고전주의문학의 주인공들은 대체로 특권계층에 속하는 왕이나 왕자, 귀족들이 아니면 상층부르죠아지들이였다. 그러나 계몽주의문학은 새로

운 환경과 시대적요구를 반영하여 부르죠아출신인물들뿐아니라 사회하층인물들을 주인공으로 내세웠다. 그것도 주로 긍정적주인공으로 내세우고 귀족에 비한 그들의 정신도덕적우월성을 강조하였다.

계몽주의문학의 특징은 셋째로, 현실을 사실주의적으로 묘사하는데서 한걸음 더 전진한것이다.

유럽에서 첫 사실주의문학사조였던 인문주의문학이 중세기 그리스도교문학과는 달리 래세가 아니라 지상의 현실생활에 관심을 돌리고 그것을 사실주의적으로 묘사하였으며 계몽주의문학은 그것을 더욱 발전시켰다.

계몽주의문학은 살아움직이는 사람들의 객관적현실생활, 특히 일상적인 세태생활을 보다 구체적으로 생동하게 묘사하였으며 등장인물들의 성격묘사와 심리묘사에 힘을 넣었다.

또한 생활자료의 선택과 평가, 묘사와 구성에서 중세기적잔재를 가시고 근대문학의 풍격을 확고히 갖추었다.

그리하여 계몽주의문학은 인문주의문학에 뒤이어 유럽의 두번째 사실주의문학으로 되였다. (문학사에서 《계몽기사실주의》라는 말이 나오게 된것은 이와 관련된것이다.)

그렇다고 하여 계몽주의작가들이 현실생활을 시종일관하게 사실주의적으로 묘사하는데로 나간것은 아니다.

그가운데는 부분적으로 감상주의적경향을 나타낸 작품도 있고 고전주의적경향을 나타낸 작품도 있다. 루쏘의 소설 《신엘로이즈》와 리쳐드슨의 소설 《파밀라》, 괴테의 소설 《젊은 웨르테르의 번민》과 같은 작품들에는 감상주의적경향이 나타났으며 괴테와 볼때르의 극작품들에는 고전주의적경향이 나타났다. (이와 관련하여 문학사에서는 《계몽적고전주의》라는 말이 쓰이고있다.)

계몽주의문학은 문학의 종류와 형태를 정리하고 다양화하는데서 전진을 이룩하였다.

소설문학에서는 장편소설창작이 활발해졌으며 철학소설, 대화체소설, 편지체소설, 기행소설, 가정세태소설 등 다양한 종류의 소설들이 많이 창작되였다.

디드로의 《라모의 조카》는 대화체소설이고 볼때르의 《깡디드》는 전형적인 철학소설이다. 리쳐드슨의 《클라리싸》와 몽떼스큐의 《페르샤사람들의 편지》는 편지체소설이다. 디포우의 《로빈슨 크루소우》와 스위프트의 《갈리버려행기》는 기행소설이며 리쳐드슨의 《파밀라》는 가정세태소설이다.

극문학에서는 비극과 희극뿐아니라 근대적인 정극작품이 나왔다.

다른 한편 계몽주의문학에는 계몽주의사상의 제한성이 그대로 나타났다.

계몽주의문학은 신흥부르죠아지의 리해관계를 체현한 인물들만 내세우면서 봉건제도를 뒤집어엎는 부르죠아혁명의 요구를 철저히 제기하지 못하고 도덕적완성이나 계몽의 방법으로 사회개조를 이룩하려고 하였다.

적지 않은 계몽주의작가들은 현실을 사실주의적으로 묘사하는데서 그 본질을 깊이 파고들지 못하여 현실을 보다 생동하고 풍부하게 그리지 못하였다.

그들은 작품에서 자기들의 주관적론리를 인물성격에 강요하여 주인공을 작가의 전성관으로 만드는 약점도 나타냈다.

18세기 유럽에서 계몽주의문학이 가장 발전한 나라는 프랑스였으며 그다음은 영국과 도이췰란드였다.

계몽주의문학은 그밖의 여러 나라들에서도 발전하였다.

계몽주의문학에서 대표적인 작가와 작품은 프랑스에서 몽떼스큐와 소설 《페르샤사람들의 편지》, 볼때르와 소설 《깡디드》, 디드로와 소설 《라모의 조카》, 루쏘와 소설 《신엘로이즈》, 《에밀》, 보마르쉐와 희극 《쎄빌랴의 리발사》, 《피가로의 결혼》, 영국에서 디포우와 소설 《로빈슨 크루소우》, 스위프트와 소설 《갈리버려행기》, 리쳐드슨과 소설 《파밀라》, 필딩과 소설 《고아 톰 죤즈에 대한 이야기》, 도이췰란드에서 괴테와 극시 《파우스트》, 소설 《젊은 웨르테르의 번민》, 쉴레르와 희곡 《도적들》, 《윌헬름 텔》, 로씨야에서 라지쒜브와 려행기 《뻬쩨르부르그로부터 모스크바에로의 려행》 등이다.

감상주의문학

18세기 유럽문학에서 계몽주의에 뒤이어 출현한 문학사조는 감상주의이다.

감상주의란 리성과 질서, 조화를 중시한 고전주의나 리성적인것을 절대화한 계몽주의와는 달리 개인의 감정과 감성적인것을 중시한 창작경향 또는 그에 기초한 문학사조를 의미하는 말이다.

감상주의문학은 18세기 후반기 유럽의 일부 나라들에서 발생하였는데 그것이 나오게 된 력사적

환경, 반영한 내용, 특징에 있어서는 나라마다 차이가 있다.

그때까지 유럽문학에서는 17세기에 고전주의가, 18세기에 계몽주의가 지배적인 사조로 류행되였다. 이 사조들은 리성과 질서, 조화를 중시하면서 감성적인것을 홀시하고 개인의 감정을 억누르는데서 공통된 점을 가지고있었다.

감상주의는 이에 대립되는 창작경향, 사조로서 발생하였다. 감상주의는 고전주의나 계몽주의처럼 큰 견인력을 가지고 여러 나라에 파급되지 못하고 제한된 테두리안에 머물러있었다.

감상주의가 하나의 뚜렷한 사조로서 문학사에 등장한것은 영국과 로씨야에서뿐이며 프랑스나 도이췰란드 같은 나라에서는 개별적작가들의 창작발전의 한 시기 또는 일부 작품들에서 경향적으로 나타났다.

감상주의는 당시 조성된 현실에 대한 소부르죠아계층의 불만을 반영하고 계몽주의문학과는 다른 새로운 문학을 지향한 사조로서 발생하였다.

이 문학은 18세기에 들어서면서 머리를 들기 시작한 제3신분층, 즉 수공업자, 상인, 농민 등 주로 소자산계급의 리해관계를 반영하였으며 동시에 당시 광범한 인민들의 불만도 일정하게 반영하였다.

감상주의문학은 선행한 고전주의나 계몽주의문학과는 확연히 구별되는 일련의 특징을 나타냈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작품에 빈부의 차이와 사회적불평등을 반영하면서 그로 인한 사람들의 불행과 고통에 대하여 한탄과 애수로 대하거나 종교교리에 귀를 기울이며 지나간 가부장적농민생활을 그리워한것이다.

감상주의문학은 대체로 귀족이나 특권층이 아니라 평민들, 하층인물들을 주인공으로 내세웠다.

감상주의문학의 특징은 또한 인간의 감정을 리성보다 앞세우고 감성적인것을 절대시하였으며 감정묘사에 치우친것이다.

이 문학은 작가의 주관을 중요시하고 작가자신의 주관적감정, 개인적취미를 자유롭게 나타냈으며 개인의 감정묘사, 심리묘사에 특별한 관심을 돌렸다.

이것은 예술적일반화를 약화시켰으며 전형적인 인간성격을 창조할수 없게 하였다.

감상주의문학은 형태면에서 감상적인 서정시, 작가의 주정토로에 치중한 려행기, 감상적인 소설들을 적지 않게 창작하였고 언어문체에서도 정서적이며 감성적인 표현을 즐겨 썼다.

서유럽에서 감상주의가 하나의 사조로 형성된것은 영국이였다. 영국감상주의문학의 대표자는 스턴, 골드스미스, 그레이였다.

프랑스와 도이췰란드 같은 나라들에서는 감상주의가 사조로 형성되지 못하고 일부 작가들의 창작에서 경향적으로 나타났다.(루쏘의 《신엘로이즈》, 괴테의 《젊은 웨르테르의 번민》 등)

동유럽에서는 로씨야에서 감상주의가 하나의 사조로 형성되였다. 로씨야에서는 봉건사회내에서 자본주의적관계가 발전하고 봉건사회의 계급적모순이 더욱 격화되였으며 이것을 반대하는 인민들의 반봉건투쟁이 강화되였다.

또한 프랑스부르죠아혁명의 영향도 적지 않게 받았다.

이러한 사회력사적환경을 배경으로 하여 로씨야에서는 18세기말에 감상주의가 발생하였다.

로씨야에서 감상주의는 서유럽나라들에서와 류사한 특징을 나타냈다.

다만 이 나라에서는 제3신분출신이 아니라 귀족문인들이 감상주의를 들고나온것으로 하여 귀족적제약성을 심하게 드러냈을뿐이다. 로씨야감상주의는 까람진의 중편소설 《불쌍한 리자》와 산문들, 쥬꼽스끼(1783—1852)의 초기시들에서 표현되였다.

18세기 후반기 유럽문학에 출현했던 감상주의문학은 세계문예사에서 일정한 자리를 차지하였다.

감상주의문학은 선행한 문학사조에 비하여 문학을 현실에 접근시키고 묘사대상의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농민과 도시평민을 비롯한 사회하층인물들을 등장시켜 압박받는 사람들에 대한 동정과 평등사상을 일정하게 제기하였다.

또한 인간의 감정표현을 구체화하였으며 산문과 시문학에서 새로운 형식과 표현수법을 탐구하였다.

감상주의문학은 현실을 객관적으로 보지 못하고 애수에 잠겨 감성적으로 대하는 등 자체의 제한성으로 하여 널리 보급되지 못하고 인차 자기의 사명을 끝마쳤다.

2. 프 랑 스 문 학

17—18세기는 프랑스에 있어서 력사적으로 볼 때 봉건주의로부터 자본주의에로의 이행과정이 급속히 추진되고 그것이 부르죠아혁명으로 결속된 획기적인 시기였으며 문학사적으로 볼 때에는 17세기에 고전주의문학사조가, 18세기에 계몽주의문학사조가 발생발전하여 문학의 내용과 형식에서 전환이 일어난 중요한 시기였다.

1) 프랑스고전주의문학과 몰리애르

프랑스고전주의문학

17세기 프랑스에서는 중앙집권적인 봉건절대주의왕권이 점차 강화되고 카톨릭교가 자기 세력을 회복하여 또다시 정신적인 지배자로 나섰다.

이러한 시대를 배경으로 이 시기 프랑스문학에서는 왕권에 의거한 궁정문학인 고전주의문학이 주되는 문학사조로 발생발전하였다. 그러나 엄밀한 의미에서 고전주의문학의 최성기는 루이14세의 통치가 시작된 1661년부터 20여년간의 짧은 기간이였으며 그때까지는 준비기로서 경향적으로 존재하였다.

17세기 전반기에 프랑스귀족문학의 중심으로 된것은 사교계와 아까데미였다.

17세기초에 프랑스에서는 귀족상류사교계(쌀롱)가 형성되여 그 사교계(대표적인것이 람부이에후작부인의 쌀롱이였다.)에 모여든 귀족문인들이 문단에서 중요한 역할을 놀았다. 녀류작가 라파이에트(1634—1693)와 쎄비니에(1626—1696), 비극작가 꼬르내이 등이 다 이 쌀롱에 출입하였다. 이 쌀롱문학이 번성한것은 1624년부터 1648년사이이다. 여기서는 새로운 작품이 화제로 되여 섬세한 심리분석, 우아하고 세련된 취미가 존중되였으며 그것이 극단화되면서 《쁘레씨오지떼문학》(귀족적허식문학)이 형성되였다. 그중에서 라파이에트는 후에 섬세한 심리분석과 균형이 잡히고 간결한 구성적특징을 보여준 장편소설 《끌레브부인》(1678)을 내놓음으로써 소설창작에서 고전주의리념을 구현한 작가로 알려졌다.

17세기에는 쌀롱들이 많이 생겼을뿐아니라 문학가들의 모임도 잦아졌다. 1637년에는 당시의 재상 리슐류에 의하여 어문학을 통제하는 공식적인 기관으로서 《아까데미 프랑쎄즈》(프랑스과학원의 전신)가 창설되였다. 40명의 회원으로 구성된 아까데미는 프랑스어사전도 편찬하고 어문학문제도 론의하는 등 문학발전에 일정하게 기여하였다.

이 시기 《쁘레씨오지떼문학》에 대한 반발로서 우스개소리를 통하여 당시의 전제적인 지배층에 대한 반항과 풍자를 표현한 부률레스끄파(자유사상파)문학이 나왔다. 이 문학은 귀족문학이 판을 치던 당대 프랑스문학에서 신흥부르죠아지의 진취적인 정신을 표현하였다. 그 창시자는 소설 《우스개이야기》를 쓴 스깔롱(1610—1660)이다. 희극 《웃음거리가 된 현학자》(1654)에서 이 파의 반항정신을 표현한 씨라노 더 베르쥬라끄(1619—1655)는 공상적인 과학환상소설 《딴세상 또는 달나라들과 제국에 대한 희극적이야기》(세칭 《달세계려행기》, 1657 출판)와 《태양의 나라들과 제국들에 대한 희극적이야기》(세칭 《태양세계려행기》, 1662 출판)를 내놓아 과학환상소설의 선구자로 되였다.

프랑스에서 고전주의문학의 선구자는 시가를 개혁하여 리성적인것을 내세운 시인 말레르브(1555—1628)였고 고전주의문학의 기본은 극문학이였다. 17세기 전반기에는 희극과 비극이 명확히 구별되지 않은 비희극을 쓰는 작가들이 많았다. 그러던것이 꼬르내이가 문학계에 등장하여 1636년에 《르 씨드》를 발표함으로써 고전주의비극형식이 확립되였다. 고전주의비극은 1660—

1670년대에 라씬에 의하여 더욱 발전하였으며 그는 고전주의비극의 대표자로 되였다.

희극에서 고전주의의 대표자는 몰리애르이다. 몰리애르는 고전주의작가들가운데서 민주주의적경향이 강하였으며 그 창작의 진보적내용과 사실주의적경향으로 하여 17세기 프랑스문학계에서 1인자로 되였다.

시문학에 고전주의를 구현한 작가는 우화시인으로 널리 알려진 라 퐁땐이다.

프랑스의 고전주의문학은 평론가 봘로(1636—1711)의 미학저서 《시학》(1674)에 의하여 리론적으로 정식화되였다.

17세기 80년대에는 봘로와 뻬로의 론쟁을 발단으로 하여 유명한 《신구론쟁》이 벌어졌다. 고전숭배를 옹호한 고전주의자들과 그를 반박하여 근대의 우월성을 주장한 반대파들사이에 벌어진 치렬한 론쟁은 고전주의문학이 자기 시대를 다 살았다는것을 보여주었다.

꼬르내이

뻬애르 꼬르내이(1606—1684)는 북부의 도시 루앙의 법관가정에서 태여나 변호사의 자격까지 얻었으나 극작가로 방향전환을 한 사람이다. 그는 빠리에 올라와 몇편의 희극을 쓴 경험에 기초하여 첫 비극 《르 씨드》(1637)를 발표한 때로부터 이름을 날리기 시작하였다.

5막운문비극 《르 씨드》는 중세기 에스빠냐의 씨드전설에 기초하여 창작된 작품이다. 작품은 가문들사이의 봉건적알륵을 배격하고 국가적인 의무에 복종할데 대한 봉건절대주의적리념을 긍정하였다.

귀족 돈 디에그의 외아들 로드리고와 백작 돈 고메스의 딸 쉬메느는 서로 사랑하는 사이이다. 그런데 어느날 쉬메느의 아버지가 질투를 부려 로드리고의 아버지를 모욕한다. 디에그는 아들 로드리고를 시켜 고메스와 결투하게 하여 그를 죽게 만든다. 아버지를 잃은 쉬메느는 가문의 명예를 위하여 사랑하는 로드리고를 처형하도록 왕에게 청원한다. 이때 외적이 쳐들어와 로드리고는 왕명을 받고 싸우러 나가 큰 공을 세운다. 그의 공을 표창하여 왕은 그에게 《르 씨드》라는 칭호를 준다. 왕은 계교를 꾸며 로드리고와 쉬메느를 짝사랑하는 싼슈사이에 검술시합을 하게 하여 이긴자가 쉬메느와 결혼하도록 명령한다. 이 시합에서 로드리고가 승리하여 쉬메느와 결혼하게 된다.

비극의 기본갈등으로 되고있는것은 개인감정과 국가적의무사이의 갈등이다. 작품에서는 이러한 갈등으로 모대기는 주인공들의 심리를 펼쳐보이면서 그들이 결국은 개인감정을 누르고 보다 큰 문제, 나라를 방위하는 문제와 같은 국가적의무에 충실하는것으로 해결하고있다.

비극이 제기한 사상은 그 당시에 있어서는 새로운것이였으며 상대적인 진보성을 띤것이였다.

이 비극은 주로 운명에 순종한 인간의 불행과 고통을 취급해온 이전 비극과 달리 인간의 심리적갈등을 취급하고 그것을 의지의 힘으로 극복해나가는 새로운 인간성격을 창조한 점에서도 혁신적인 극작품으로 간주되였다.

비극 《르 씨드》의 창작후 작품의 성공에 질투한 여러 작가들에 의해 《르 씨드론쟁》이 벌어지고 이와 관련하여 아까데미가 작가에게 불리한 결론을 내리였다. 그러나 꼬르내이는 이에 굴하지 않고 1640년대에 《오라스》(1640), 《씬나》(1642), 《뽈류끄뜨》(1643) 등 비극을 련이어 발표하여 아까데미회원으로까지 선거되였다.

그러나 생애말년에는 인기가 떨어져 극작활동을 그만두었으며 빠리에서 사망하였다.

절대주의통치가 확립되던 시기 현실을 반영하고 전형적인 균형미를 갖춘 고전주의극을 완성한 꼬르내이는 비록 절대주의적인 사상미학적리상을 표현하고 봉건왕권을 찬양해나선 제한성을 나타내였으나 프랑스에서 고전주의극문학의 발전을 추동하는 중요한 역할을 놀았다.

라 씬

쟝 라씬(1639—1699)은 소부르죠아가정출신의 극작가이다.

그는 21살때 국왕 루이14세의 결혼을 축하하여 송시를 쓴것으로 하여 궁정시인으로 되였으며 비극창작에서 거둔 성과로 아까데미회원으로 되였다.

라씬은 20—30대에 《앙드로마끄》(1667), 《브리따니뀨스》(1669), 《이피제니에》(1674), 《페드르》(1677) 등 고대그리스와 로마의 력사에서 취재한 비극작품들을 련이어 내놓아 꼬르내이 이후의 가장 인기있는 비극작가로 되였다.

그러나 라씬은 38살때 극작활동을 중단하고말았다. 그것은 그의 작품들에 담긴 절대왕권에 대한 비판적경향이 보수적인 상층귀족들의 비난을 불러일으켰으며 비극 《페드르》의 공연을 둘러싸고 작가에 대한 비렬한 음모까지 꾸며졌기때문이였다.

그후 라씬은 볼로와 함께 루이14세의 력사편찬관으로 임명되여 말년까지 왕실의 력사를 쓰는데 종사하였다.

라씬의 극문학에는 꼬르내이와 달리 절대군주제도와 절대왕권에 대한 비판이 담겨져있다.

대표작인 비극 《앙드로마끄》에는 트로야전쟁에서 패하여 포로가 된 트로야왕자 헥또르의 안해 앙드로마끄와 그리스의 에삐르왕 삐류스사이의 갈등이 취급되여있다. 앙드로마끄의 미모에 매혹된 삐류스는 약혼녀 에르미요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앙드로마끄에게 청혼하나 거절당한다. 이러한 때 그리스련맹군 사신 오레스뜨가 헥또르의 아들을 넘겨줄것을 요구한다. 이 기회를 리용하여 삐류스는 앙드로마끄에게 아들을 넘기겠느냐 아니면 자기와 결혼하겠느냐 두가지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강박한다. 앙드로마끄는 아들을 살리기 위하여 결혼을 승낙하며 결혼식후 자결할것을 결심한다. 자기를 배반한 삐류스에 대한 증오심에 불타오른 에르미요느는 자기를 짝사랑하는 오레스뜨를 시켜 결혼식장에서 삐류스를 암살하게 한다. 하지만 삐류스가 죽자 후회한 에르미요느는 자결하고만다.

이를 통하여 작품은 전제왕권의 무제한한 권력이 리기주의적정열의 소유자들을 불가피하게 폭군으로 만들고 그 권력의 희생물로 되게 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작가는 또한 《브리따니뀨스》에서 로마제국의 폭군 네론(네로)과 그의 이복형 브리따니뀨스사이의 갈등을 통하여 정권야욕과 녀색에 눈이 어두운 전제적인 왕을 비판하였으며 《페드르》에서는 아테네왕의 후처인 왕비 페드르가 이붓아들 이뽈리뜨에게 불의의 사랑을 품었다가 그를 죽게 만들고 자신도 멸망하는 이야기를 통하여 부화방탕한 생활을 일삼는 상층귀족녀성들을 비판하였다.

라씬의 비극은 또한 꼬르내이의 비극과는 달리 3일치법의 틀안에서 극의 줄거리보다도 성격창조와 인물의 내면세계묘사에 힘을 넣었으며 인간의 정열을 추구하고 긴밀한 구성과 정확하면서도 시적으로 조화된 문체를 쓴것이 특징이였다.

라씬은 궁정시인으로서의 계급적제한성을 드러내였으나 고전주의비극을 더욱 발전시킨것으로 하여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있다.

라 퐁땐

꼬르내이와 라씬이 고전주의비극의 대표자라면 라 퐁땐은 우화시에서 고전주의를 구현한 시인이다.

쟝 더 라 퐁땐(1621—1695)은 지방산림감독관의 집안에서 태여나 고전문학을 공부하였고 30대에 빠리에 올라가 볼로, 꼬르내이 등과 교제하면서 창작활동을 시작하였다. 그의 대표작은 239편의 우화시를 묶은 《우화시집》(전 12권, 1668—1694)이다. 《우화시집》은 주로 동물들의 의인화된 형상을 통하여 륜리도덕적인 교훈을 주고있다.

그의 우화들가운데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있는것은 반동적봉건통치배들, 교회와 승려들, 신흥부르죠아들을 풍자한 작품들이다. 그러한 작품들로서는 사자와 승냥이의 의인화된 형상을 통하여 포악한 통치자들, 폭군들의 전횡을 풍자한 《사자와 합작한 송아지와 염소와 면양》, 《승냥이와 어린 양》, 하느님의 사도라는 교인들, 신부, 목사들의 기만성과 기생충적인 생활을 풍자한 《속세에서 물러난 쥐》, 《목사와 송장》, 부르죠아들의 탐욕과 린색을 조소한 《수전노와 원숭이》, 《구두수리공과 은행가》 등을 들수 있다.

그의 우화들가운데서 다음으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있는것은 인민들의 근면성과 선량성, 그들의 지혜와 기지, 서로 돕고 이끌어주는 정신을 보여주고 긍정한 작품들이다.

일을 하지 않고 밤낮 노래만 부르며 놀고먹다가 량식이 떨어져 구걸하러 다니는 매미와 부지런히 일을 하여 겨울량식을 넉넉히 마련한 개미의 형상을 통하여 로동의 중요성과 근로인민의 근면성을 찬양한 《매미와 개미》를 비롯하여 《파리와 개미》, 《사자와 쥐》, 《비둘기와 개미》, 《농부와 그의 자식들》 등이 여기에 속한다.

그밖에도 도덕적교훈을 주는 우화들이 창작되였다.

그는 우화창작에서 고대그리스와 로마, 인디아의 우화와 같은 전통적인 우화유산들을 리용하였

을뿐아니라 프랑스민간문학유산에도 깊은 관심을 돌렸으며 종래부터 내려오던 우화의 전통적인 틀을 마스고 현실반영의 폭을 더 넓힘으로써 고전주의문학의 테두리에서 적지 않게 벗어났다. 그는 우화를 희곡화한것을 비롯하여 우화형식을 다양하게 하였으며 생동한 시어를 활용하였다.

그의 우화들은 계몽된 군주에 대한 환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비판의 목적이 명백치 않으며 고대우화를 그대로 옮겨놓거나 모방한것과 같은 약점을 가지고있으나 그것이 거둔 사상예술적 성과로 하여 프랑스뿐아니라 세계우화문학발전에 이바지하였다.

몰 리 애 르

생애와 창작활동

몰리애르(1622—1673)의 본명은 쟝 바띠스뜨 뽀껠랭이다. 그는 빠리의 부유한 궁전실내장식업자의 가정에서 태여나 법률교육과정을 거쳐 변호사의 자격까지 받았으나 연극에 취미를 가지고 21살때부터 연극계에 나섰다. 그는 극단을 조직하고 운영하다가 실패하였지만 그래도 뜻을 굽히지 않고 순회극단에 들어가 12년간이나 방랑생활을 하였다. 그 과정에 생활체험을 쌓고 연출과 연기, 극단운영에 대한 경험을 얻은 그는 1658년에 국왕 루이14세앞에서 하는 시연회에서 성공함으로써 빠리의 이름난 극장에서 공연할수 있는 자격을 얻었다.

이때부터 그는 빠리의 극장무대에서 극작가, 연출가, 배우로 정열적인 연극활동을 벌렸다.

그는 자기가 내놓은 작품들의 반귀족적, 반종교적경향으로 하여 귀족, 승려들로부터 박해를 받았으나 애로와 난관을 이겨내면서 창작 및 공연활동을 계속하였으며 희극 《없는 병을 앓는 사람》을 공연하던중 무대우에 쓰러져 세상을 떠났다.

몰리애르의 희극들가운데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것은 위선자의 형상을 통하여 종교의 위선을 폭로한 《따르뛰프》(1664), 파렴치하고 부화타락한 귀족의 전형을 창조한 《동 쥬앙》(1665), 귀족사교생활의 허식을 풍자한 《사람이 싫증난다》(1666), 자본의 시초축적시기 부르죠아지의 린색과 리기주의를 조롱한 《수전노》(1668)와 같은 작품들이다.

그의 희극가운데는 《어색하게 잘난체 하는 녀자》(1659), 《남편의 학교》(1661), 《안해의 학교》(1662)와 같이 신흥부르죠아계층 녀성들의 교육교양문제를 취급하면서 녀성에 대한 봉건적구속과 귀족계층녀성들의 지식의 기형성 등을 비판한 작품들도 있다.

그는 그밖에도 《평민귀족》, 《강제결혼》, 《녀학자의 무리》, 《본의 아닌 명의노릇》을 비롯하여 많은 희극작품들을 내놓았다.

그는 이러한 작품들을 창작함에 있어서 중세기 프랑스의 파불리오형식을 계승하고 이딸리아즉흥희극의 요소도 받아들여 그것들을 발전시켰다.

그는 성격희극으로 불리울 정도로 뚜렷한 극적 성격을 창조하고 주인공들의 성격을 통하여 당대 프랑스봉건사회의 현실을 집약적으로 보여주었으며 절박한 사회정치적문제를 제기하였다. 그는 웃음을 통하여 당시 사회의 악습을 고치는데 희극의 사회교양적역할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위선자를 폭로하고 학자연하는자들의 가면을 벗기였으며 잘난체 하는 귀족녀자들의 걸치레를 조소하였다. 그는 대사와 광대놀음으로 억지웃음을 자아낸것이 아니라 등장인물들의 희극적성격과 생활적인 대화를 통하여 기지에 충만된 명랑한 웃음을 자아내였다.

그의 희극은 하인, 하녀 등 사회하층인물들을 즐겨 등장시키면서 그들을 귀족, 부르죠아주인들보다 현명하고 슬기로운 사람으로 형상한데서도 특징을 보여주고있다.

그는 고전주의극형식에 의거하면서도 창작에서 사실주의적경향을 강하게 나타냈으며 대사형상에 큰힘을 넣었다. 몰리애르가 창작한 희극의 대사들은 그후 격언처럼 널리 퍼지였다.

그의 극문학은 이러한 성과로 하여 프랑스민족극발전에 크게 이바지하였으나 극발전에서 반드시 극복되여야 할 제한성을 가지고있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지난날 고전극에서는 시간, 장소, 사건의 일치성을 절대화하면서 하나의 사건이 펼쳐지는 시간안에서는 장소를 변화시켜서는 안된다는것을 법칙처럼 여겨왔기때문에 극속에서 생활이 발전하고 시간이 흘러가도 장소와 무대를 끊임없이 변화시킬수 없었습니다.》

몰리애르의 극작품들에서 나타난 제한성은 봉

건왕권에 대한 환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신흥부르죠아지의 리해관계를 반영한것이며 3일치법의 낡은 극작법에서 벗어나지 못한것이다.

그의 극작품들은 고전주의극작법의 규범인 3일치법에 얽매이다보니 복잡하고 다양한 생활을 몇개의 막안에 무리하게 몰아넣고 인물들의 뒤생활과 막전생활을 대사를 통하여 장황하게 설명함으로써 현실을 립체적으로 실감있게 반영하지 못하였다.

몰리애르의 작품을 비롯한 고전주의극문학은 이러한 제한성으로 하여 더 발전하지 못하고 다음세기에 가서 계몽주의극문학과 교체되였다.

《따르뜌프》

희극 《따르뜌프》(5막)는 위선자의 전형인 따르뜌프의 형상을 통하여 봉건제도의 정신적기둥으로 되고있던 종교의 위선과 허위성을 풍자한 작품이다.

희극은 빠리의 부유한 상인 오르공의 집에서 벌어진 이야기를 담고있다. 자기도 귀족이 되여 귀족행세를 해보려는 공상을 품고있던 오르공은 위선자인 따르뜌프를 자기의 소원을 풀어줄수 있는 위인으로 오판하고 집에 끌어들인다. 교활한 따르뜌프는 하느님의 교리로 오르공의 어머니까지 속이고 그의 집에서 모든것을 좌우지하게 된다. 가족들은 모두 그가 허풍쟁이, 위선자라는것을 간파하지만 오르공과 그의 어머니는 계속 청맹과니노릇을 한다. 오르공은 지어 자기 딸 마리앙느까지 파혼시켜 그를 따르뜌프와 결혼시키려고 한다.

오르공의 안해 엘미르는 남편의 이러한 처사를 바로잡으려고 따르뜌프를 만난다. 교활한 따르뜌프는 엘미르와 단둘이 있는 기회에 사랑을 고백한다. 그것을 목격한 아들 다미스는 아버지에게 따르뜌프는 나쁜 놈이라고 이야기하나 오르공은 그 말을 믿지 않고 오히려 아들을 집에서 내쫓는다. 엘미르는 오르공의 눈을 띄우려고 자기 방안에 그를 숨겨두고 따르뜌프와 만난다. 그 수에 걸린 따르뜌프가 엘미르에게 치근거리는것을 보고서야 자기 잘못을 깨달은 오르공은 그를 내쫓으려고 한다. 그러나 이미 재산상속권이 따르뜌프의 손에 넘어가 이 집에서 쫓겨나게 된것은 그가 아니라 오르공과 그의 가족들이였다.

이렇게 오르공일가가 망하게 되였을 때 국왕이 그 전후사연에 대한 보고를 받게 되며 국왕의 령에 따라 따르뜌프는 체포된다.

희극은 따르뜌프의 형상을 통하여 종교의 위선적인 본질을 풍자조소하였다. 희극에서 따르뜌프는 어느 한 교파를 대변한것이 아니라 종교일반을 체현한 인물로 형상되여있다. 또한 오르공의 형상을 통하여 사람이 종교에 미치면 어느 지경에까지 이르는가 하는것을 보여주면서 프랑스부르죠아지의 보수주의와 권세욕, 탐욕성을 폭로하고있다. 희극은 또한 이들과 대치되는 평민출신의 하녀 도리느의 형상을 통하여 인민들의 건전하고 슬기로운 풍모를 긍정하였다.

작품은 고전주의극작법의 도식적인 틀에 얽매인 제한성을 가지고있으나 종교의 허위성을 비판하고 하층인민들을 긍정하였으며 고전주의희극의 특성을 잘 보여주었다.

※ 《따르뜌프》는 강한 풍자적성격으로 하여 1664년 베르싸이궁전극장에서 공연되자마자 금지처분을 받았다. 몰리애르가 국왕에게 세번이나 청원서를 올리고 여러가지 곡절을 겪은 후 5년만인 1669년에 가서야 해제되였다.

《수전노》

희극 《수전노》(5막)는 고리대금업자 아르빠공의 희극적형상을 통하여 자본주의시초축적시기 부르죠아지의 린색성과 극단한 리기주의를 풍자한 작품이다.

사건은 빠리의 돈 많은 늙은 홀애비 아르빠공의 집에서 벌어진다. 린색한 수전노로 소문난 아르빠공에게는 아들 끄레앙뜨와 딸 엘리즈가 있었다. 엘리즈는 자기를 사모하여 자기 집 하인으로 들어온 청년 바래르와 가까와지고 끄레앙뜨는 가난한 처녀 마리앙느를 마음에 둔다. 그런데 돈에 환장이 된 아르빠공은 딸은 돈 많은 재산가인 나이 50이 다 된 앙쎌름에게, 아들은 돈 많은 과부에게 강제로 시집, 장가보내려고 한다. 그리고 자기는 아들의 애인인 마리앙느와 결혼하겠다고 한다. 이로 하여 부자간에 갈등이 생기고 문제가 복잡해진다.

이러한 때에 아르빠공이 마당에 파묻어두었던 돈궤가 없어진다. 그러자 그는 결혼이고 뭐고 다 집어치우고 돈궤를 찾기 위해 눈이 벌개서 돌아친다.

희극은 바래르와 마리앙느가 앙쎌름의 자식

이라는것이 판명되고 끄레앙뜨가 감추어두었던 돈궤를 내놓는것으로 해결되며 두쌍의 결혼식이 성립되는것으로 끝난다.

희극에서 풍자와 조소의 대상으로 되고있는 것은 고리대금업자 아르빠공이다. 그의 성격에서 특징적인것은 탐욕과 린색이다. 그는 돈밖에 모르는 지독한 수전노이며 비싼 리자로 고리대를 놓아 돈을 악착스럽게 긁어모으는 탐욕스러운 부르죠아이다.

희극은 극적정황에 맞게 장면들을 희화하여 재치있게 보여주면서 주인공 아르빠공의 성격형상을 통하여 황금만능의 자본주의적관계가 날로 장성하고있던 당시에 돈이 인간을 어떻게 기형화하고 인간관계를 어떻게 파괴하는가를 생동하게 보여주었다.

희극은 주인공의 성격이 매우 도식화되여있고 극의 갈등이 우연한 계기에 인위적으로 해결되는것과 같은 고전주의극작법의 도식적인 틀에서 벗어나지 못한 제한성을 가지고있으나 봉건사회안에서 날로 득세하고있던 신흥부르죠아지의 부정면을 신랄하게 폭로풍자한 풍자극의 양상을 뚜렷이 살린것으로 하여 프랑스고전주의극문학에서 이채를 띠고있다.

2) 프랑스계몽주의문학과 볼때르, 디드로, 루쏘

프랑스계몽주의문학

18세기 프랑스는 유럽나라들가운데서 계몽주의문학이 가장 발전한 나라이다. 그것은 이 나라에서 1789년 프랑스부르죠아혁명이 성숙되여가고 부르죠아혁명을 사상적으로 준비하기 위한 운동으로서 계몽주의운동이 힘있게 벌어진것과 관련된다.

18세기 프랑스는 겉으로는 여전히 강력한 봉건전제국가, 유럽의 강국으로서의 체면을 유지하고있었으나 실지로는 나날이 국력이 약화되고 사회경제형편이 악화되고있었다.

18세기 전기간 계속된 전쟁으로 국고는 텅 비고 인민들은 극심한 빈궁속에서 허덕이였다. 그러나 부패무능한 봉건귀족들은 아무런 수습대책도 없이 자기들의 사치한 생활에 국고를 계속 탕진하였으며 모든 부담을 제3신분인 평민들, 특히 농민들과 로동자들에게 뒤집어씌웠다.

이것은 봉건지배계급과 피지배계급사이의 모순과 대립을 격화시키고 도처에서 농민들과 로동자, 빈민들의 폭동을 폭발시켰다. 자본주의적관계의 발전으로 경제적으로는 부유해졌으나 제3신분에 속하여 신분적구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마음대로 활동할수 없었던 부르죠아지도 반봉건투쟁에 궐기하였다. 봉건제도를 뒤집어엎는 부르죠아혁명은 성숙되여갔다. 그리하여 1789년에 프랑스부르죠아혁명이 일어났다.

프랑스에서 부르죠아혁명이 성숙되여갈 때 그를 수행하기 위한 수단으로 계몽주의운동이 벌어졌으며 문학에서는 이를 반영하여 계몽주의문학이 발생발전하였다.

프랑스계몽주의문학은 계몽주의문학일반의 특징을 그대로 가지고있었으며 특히 그 주제사상적내용에서 봉건적신분제도를 반대하고 비판하는 경향이 매우 강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봉건적신분제도를 반대하고 비판하는것은 계몽주의사상의 가장 중요한 진보적측면입니다. 계몽주의작가들은 자기들의 작품에서 봉건귀족의 부패무능과 기생적인 생활을 신랄하게 폭로비판하고 평민의 정신도덕적우월성과 실천능력을 긍정하였으며 봉건사회를 〈악마의 왕국〉으로 규탄하고 도래할 사회를 자유와 평등, 정의가 실현될 〈리성의 왕국〉으로 찬양하였습니다.》

봉건사회를 악마의 왕국으로 규탄한 볼때르의 소설 《깡디드》와 디드로의 소설 《라모의 조카》, 봉건적신분제도를 직접적으로 비판한 루쏘의 소설 《신엘로이즈》, 평민의 정신도덕적우월성과 실천능력을 긍정한 보마르쉐의 희극 《피가로의 결혼》 등은 프랑스계몽주의문학의 대표적인 작품들이다.

프랑스계몽주의문학은 창작방법에 있어서 인문주의의 뒤를 이어 사실주의를 더욱 발전시켰다. 그러나 일부 작품들에서는 고전주의적경향(볼때르의 비극)과 감상주의적경향(루쏘의 소설 《신엘로이즈》와 쁘레보의 소설 《마농 레스꼬》)도 나타냈다.

17세기 프랑스고전주의문학에서는 비극과 희극 등 극문학이 기본이였다면 18세기 프랑스

계몽주의문학에서는 소설이 기본이였다. 이와 함께 극문학이 발전하였으나 시문학은 여전히 부진상태에 있었다.

볼때르, 디드로, 루쏘, 몽때스끼와 같은 이름난 계몽주의자들이 모두 소설을 썼을뿐아니라 장편소설 《질 블라스》(1715—1735)를 쓴 르 싸쥬(1668—1747), 장편소설 《마농 레스꼬》(1731)를 쓴 쁘레보(1697—1763), 장편소설 《뽈과 비르지니》(1787)를 쓴 쌩 삐애르(1737—1814), 서한체소설 《위험한 관계》(1781)를 쓴 라끌로(1741—1803)와 같은 많은 창작가들이 소설창작에 합류하였다. 극문학에서는 비극(대표자;볼때르)보다 희극이 두드러졌는데 보마르쉐의 《쎄빌랴의 리발사》와 《피가로의 결혼》, 르 싸쥬의 《뜌르까레》(1709)같은 희곡들이 주목되였다.

시문학에서는 부르죠아혁명에 참가한 쉐니에(1762—1794)가 기본으로 활약하였다.

18세기 프랑스계몽주의문학의 대표자는 볼때르, 디드로, 루쏘 세사람이다. 그들과 함께 몽때스뀨와 보마르쇄가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몽때스뀨 샤를 루이 몽때스뀨(1689—1755)는 프랑스계몽주의문학발전의 초시기에 활동한 계몽사상가이며 작가이다.

몽때스뀨는 남프랑스 보르도부근의 귀족가정에서 태여나 1708년부터 1714년까지 빠리에서 법률을 연구하였다. 그는 혼란에 빠지고 썩을대로 썩은 당시 현실을 목격하면서 전제군주제에 대한 불만을 가지게 되였다. 그는 1714년부터 아버지의 직업을 이어받아 보르도고등법원에 근무하였으며 1716년에 백부로부터 남작의 작위와 법원 원장의 직위를 물려받아 1726년까지 그 자리에 있었다. 그동안 그는 정치와 력사, 자연과학을 연구하고 많은 론문을 써내여 보르도과학원에 제출하였으며 특히 1721년에 닉명으로 된 서한체소설 《페르샤사람들의 편지》를 출판하여 일약 유명해졌다. 그후 그는 유럽 각국을 려행하면서 그 나라들의 제도와 력사를 연구하여 력사저서 《로마인들의 성쇠의 원인에 대한 고찰》(1734), 법학저서 《법의 정신》(1748) 등을 썼다.

그는 자기가 쓴 글들에 봉건절대군주제도를 반대하고 그것을 부르죠아립헌군주제로 개혁하려는 지향을 명백히 하였다. 그리하여 그는 계몽주의사상운동의 선구자로 되였다.

그가 문학사에 이름을 남기게 된것은 서한체소설 《페르샤사람들의 편지》와 관련되여있다.

161통의 편지묶음형식으로 되여있는 이 작품에는 세계를 려행하기 위하여 자기 나라를 떠난 두 페르샤사람(귀족인 유스베끄와 리까)들이 등장한다. 그들은 온 유럽을 돌아다니며 특히 프랑스의 빠리에 오래 체류한다. 그들은 자기들이 보고 느낀 놀라운 이야기들을 편지로 고향 이스파한에 있는 벗들과 처첩들, 하인들에게 날마다 써보낸다.

이런 식으로 작품은 유럽사람들이 미개인으로 간주하고있는 동방사람들을 프랑스사회에 뛰여들게 하고 그들이 공명정대하고 단순한 안목으로 프랑스봉건사회현실을 객관적으로 해부하도록 함으로써 비판의 도수를 높이고있다. 작품에서는 당시 프랑스의 사회생활과 풍습, 궁정의 뒤생활을 비판적으로 흥미있게 그려놓았으며 봉건전제통치의 불합리성을 까밝히고 립헌정치의 필요성을 암시하고있다.

작품은 각계각층의 인물들과 그들의 초상을 잘 그려내고 당시의 풍속을 생동하게 재현하였으며 유모아도 있고 풍자도 있게 예술산문체를 활용한것으로 하여 프랑스계몽주의문학의 중요한 유산의 하나로 간주되였다.

몽때스뀨의 문필활동은 반봉건적립장이 불철저하며 부르죠아적이고 관념론적인 제한성을 가지고있으나 봉건적구속에서 벗어나기 위한 계몽주의운동발전에 이바지하였다.

보마르쇄 삐애르 오귀스땡 까롱 더 보마르쇄(1732—1799)는 빠리에서 시계공의 아들로 태여났다.

그는 왕궁시계사를 거쳐 왕녀의 음악교사로 왕궁에 출입하였으며 귀족의 과부와 결혼하여 귀족의 작위까지 얻었다.

그는 그후 여러가지 사업에 종사하면서 풍부한 생활체험을 쌓은데 기초하여 1760년대 후반기부터 계몽주의사상의 영향밑에 극작활동을 시작하였다. 그러나 귀족들의 타락성과 사회적불평등을 비판한 그의 초기희극들은 성공하지 못하였다.

그가 유명해진것은 두편의 희극 《쎄빌랴의 리발사》(1775)와 《피가로의 결혼》(1784) 창작으로였다.

이 두 희극에서 작가는 천민인 리발사로서 신분이 높은 귀족(백작)의 결혼을 도와나서며 후에는 그 백작의 하인으로 백작과 대결하여 그의 마수로부터 자기 애인(시녀 슈쟌느)을 지켜내는 주인공 피가로의 형상을 생동하게 창조하였다.

희극은 피가로의 형상을 통하여 귀족에 비한 평민의 정신도덕적우월성을 보여주고 자기 시대를 다 산 낡은 봉건귀족들을 야유조소하였다.

동시에 이 두 희극은 18세기 프랑스극의 낡은 틀을 마스고 생동한 성격형상과 빠른 행동, 밝고 명랑한 양상, 발랄한 대화 등 새로운 사실주의적 특성을 나타냈다.

※ 《피가로의 결혼》은 1780년에 창작되였으나 봉건귀족들을 자극하는 내용으로 하여 공연을 금지당하였다. 작가의 적극적인 활동으로 1784년에야 극장무대에 올랐는데 굉장한 파문을 일으켜 68회나 련속공연되였다. 부르죠아혁명전야의 프랑스인민들은 이 극을 열광적인 박수로써 맞이하였다.

보마르쉐는 부르죠아혁명의 철저한 옹호자는 아니였다. 그는 왕의 첩자노릇도 하고 재산을 모으기 위하여 여러가지로 노력하였다. 하여 그는 과거의 불쾌한 일들을 속죄하는 심정으로 《피가로의 결혼》의 속편 《죄 많은 어머니》(1792)를 썼다. 작품에는 지난날의 잘못을 뉘우치는 피가로가 등장한다. 그는 프랑스부르죠아혁명시기 구속되고 재산을 압수당하였으며 반혁명파에 대한 테로가 강화되던 시기에는 외국으로 망명해있었다. 그는 1796년에야 귀국하여 그로부터 세해만에 빠리에서 사망하였다.

보마르쉐는 제한성이 많은 작가이나 희극 《쎄빌랴의 리발사》와 특히 《피가로의 결혼》을 창작한것으로 하여 18세기 프랑스계몽주의문학에 뚜렷한 흔적을 남겼다.

볼 때 르

생애와 창작활동

력사에서는 18세기를 《볼때르의 세기》라고 말하고있다. 그것은 볼때르가 18세기 계몽주의사상과 문학발전을 위하여 커다란 역할을 하였기때문이다.

볼때르(본명:프랑쏘와 마리 아르에, 1694—1778)는 프랑스계몽주의 우파에 속해있으면서 대부르죠아지의 리익을 대표한 작가이며 철학가였다.

그는 빠리에서 부유한 공증인의 아들로 태여나 그리스도교의 한 교파가 운영하는 학교에서 교육을 받은 후 정열적인 학습을 통하여 당대의 가장 박식한 사람이 되였다. 일찍부터 자유사상의 영향을 받고 무신론적인 사상을 가지게 된 그는 23살때에 섭정을 반대하는 자유애호적인 시를 쓴것으로 하여 1년가량 바스띠유감옥에 투옥되였다. 그가 옥중에서 쓴 비극 《오이디푸스왕》이 다음해(1718)에 극장에서 공연되면서부터 이름을 날리게 되였다.

그후 유명한 인사가 되여 빠리에서 문필활동을 하던 그는 1725년에 한 귀족과 다투고 다시 바스띠유감옥에 투옥되였다. 이것을 계기로 그는 봉건전제제도와 신분제도의 불합리를 깊이 느끼게 되였다. 그는 그후 3년동안 영국에 망명해있으면서 부르죠아혁명을 먼저 한 영국의 정치제도와 문학, 철학 등을 연구하고 반봉건사상을 더욱 강하게 가지게 되였다.

귀국후 그는 서사시 《앙리아드》(1728), 전제제도를 반대하고 공화주의를 찬양한 비극 《브루따스》(1730)와 종교적광신주의를 비판한 비극 《자이르》(1732)를 썼으며 《철학적서한(일명 〈영국통신〉)》(1734)에서 영국의 제도, 문화와 대비하여 봉건절대주의가 지배하는 프랑스의 제도와 문화를 신랄히 풍자비판하였다. 낡은 제도에 던져진 첫 폭탄으로 평가된 이 글은 소각처분을 당하고 필자에게는 체포령이 내렸다.

탄압을 피하여 씨레에 있는 한 귀족부인의 별장에 몸을 숨긴 그는 그곳에 10여년동안 머물러있으면서 반종교적인 사상을 담은 비극 《마호메드》(1742), 공화주의를 옹호한 비극 《씨저의 죽음》(1735) 등을 쓰는 한편 자연과학연구에 종사하였다.

작가는 1744년에야 체포령이 해제되여 프랑스궁정에도 출입하고 시종으로도 임명되였다. 이 시기에 그는 철학소설 《자디그》(1747)를 써서 계몽주의사상을 선전하였다. 그는 1749년에 프

로씨아왕 프리드리히2세의 초빙을 받고 몇해동안 그 나라 왕궁에 손님으로 가있었으나 계몽된 군주에 대한 환상이 깨여지면서 그곳에서 떠나고말았다. 그후 그는 1754년부터는 스위스의 제네바교외에, 1759년부터는 스위스—프랑스국경지대에 있는 뻬르네에 자리를 잡고 적극적인 정치활동을 벌렸다. 이 시기에 그의 대표작의 하나인 철학소설 《깡디드》(1759)를 비롯하여 소설 《순진한 사나이》(1767), 저작들인 《풍속시론》(1756), 《관용론》(1763), 《철학사전》(1764) 등이 창작되였다.

그는 또한 뻬르네시기에 디드로, 루쏘 등과 함께 《백과전서운동》을 지원하고 계몽주의사상을 선전하는데 많은 힘을 넣었다.

그는 오랜 망명생활끝에 1778년에야 고국으로 돌아갈수 있는 가능성을 얻어 빠리로 귀환하여 열렬한 환영을 받았으나 그해에 84살의 나이로 사망하였다.

그는 다방면적인 작가로서 소설과 희곡, 시, 평론 등 여러 형태에 걸쳐 다양한 창작활동을 벌렸을뿐아니라 정치, 철학, 력사, 종교, 과학과 관련한 많은 저서를 남겼다. 신흥부르죠아지의 사상적대변자였던 그는 부르죠아계몽주의적세계관의 제한성으로 하여 부르죠아적인 계급적 편견과 미신적이며 형이상학적인 견해를 강하게 나타내고 고전주의미학의 영향을 나타내였으나 낡은 봉건제도와 카톨릭교회를 신랄히 풍자비판하고 계몽주의사상을 널리 선전함으로써 18세기 프랑스부르죠아혁명을 사상적으로 준비하고 계몽주의문학을 발전시키는데 이바지하였다.

볼때르의 대표작은 철학소설 《깡디드》이다.

《깡디드》

《깡디드 또는 락천주의》(1759)는 주인공의 기구한 운명을 통하여 봉건사회를 미화분식하는 락천주의철학을 풍자하고 봉건사회를 악마의 왕국으로 규탄한 장편소설이다.

도이췰란드의 한 남작의 집에서 양육된 순진한 청년 깡디드는 가정교사인 철학가 빵글로스의 교육을 받고 이 세상에는 선한 일만 있고 모든 일이 잘되여나간다는 락천주의철학을 굳게 믿게 된다. 그러나 깡디드가 운명의 희롱으로 세계를 방랑하면서 얻은 결론은 이 세상은 선이 아니라 악이 판을 치는 《악마의 왕국》이라는것이였다.

그는 남작의 딸인 아름다운 뀨네공뜨공주를 사랑한것이 죄가 되여 그 집에서 쫓겨난 후 프로씨아군대에 끌려가 전쟁판에서 죽을번 하며 군대에서 탈주한 후 네데를란드와 뽀르뚜갈, 남아메리카, 이딸리아, 뛰르끼예 등 세계 여러 나라를 방랑하면서 많은 현실체험을 한다. 그 과정에 깡디드는 이단자로 몰려 종교재판을 받고 화형대에 오르기도 하고 식인종한테 잡혀 먹히울번 하는 등 아슬아슬한 고비를 여러번 넘긴다.

그는 또한 많은 사람들의 불행을 직접 목격하기도 하고 이야기도 듣는다. 그의 가정교사였던 빵글로스는 매독에 걸려 거지로 류랑생활도 하고 노예선에서 노예살이도 하며 온갖 불행에 시달린다. 깡디드가 사랑했던 뀨네공뜨공주는 란리통에 겁탈을 당하고 첩으로, 노예로 팔리는 등 큰 재난을 당하여 그 아름답던 용모는 다 없어지고 볼품없는 로파처럼 된다.

편력끝에 그들과 다시 만난 깡디드는 자기가 사들인 땅에서 공동생활을 한다. 그런데 이들은 매일같이 철학에 관한 공담만 하면서 허송세월하다나니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그들은 한 농민의 충고를 듣고서야 일을 하여야 하겠다고 결심하고 부지런히 땅을 갈고 씨를 뿌리며 농사를 지은 결과 먹고 살아갈 걱정에서 벗어나게 된다.

《깡디드》는 전형적인 철학소설이다. 작품에서는 인물의 성격묘사나 심리묘사, 환경묘사도 없이 허구에 기초한 이야기를 펼쳐나가면서 작가의 철학적, 사회정치적, 륜리도덕적, 미학적견해를 피력하고있으며 계몽주의사상을 선전하고있다.

볼때르가 작품에서 강조하려고 한것은 당시 류행하던 락천주의철학은 아무런 현실성이 없는 비현실적이고 비리성적인 해로운 학설이며 봉건사회는 선이 지배하는 락천적인 사회가 아니라 사회악에 충만된 악마의 왕국이라는것이다. 작품에는 또한 이러한 사회는 빨리 청산되여야 한다는것과 인간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로동을 하여야 한다는 계몽주의사상이 반영되여있다.

작가는 또한 주인공이 남아메리카편력과정에 우연히 들리게 되였다는 《엘도라도(황금의 나라; 인까족의 전설에 나오는 리상적인 사회)》에 대한 이야기를 통하여 사람들이 모두다 잘사는 리상사회에 대한 공상을 표현하였다.

볼때르의 철학소설 《깡디드》는 계몽주의문

학이 가지고있는 일반적제한성과 함께 이야기문학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한 제한성을 가지고있으나 무사상적이고 허식적인 문학이 류행되던 시기에 반봉건적이고 근대적인 사상적지향을 뚜렷이 구현하고 현실을 폭넓게 반영하였으며 해학과 풍자로 충만된 생동한 산문체를 활용함으로써 근대소설의 발전에 영향을 주었다.

디드로

생애와 창작활동

디드로는 루쏘와 함께 계몽주의 좌파에 속하여 소부르죠아지의 립장을 대표한 계몽주의작가이며 철학가, 학자였다.

드니 디드로(1713—1784)는 샹빠뉴주 랑그르의 수공업자(식칼따위를 만드는)의 아들로 태여났다. 그는 어릴 때부터 지식욕이 강하였다. 그는 빠리에서 학원을 졸업한 후 교회를 통하여 출세할것을 바란 아버지의 뜻을 어기고 철학과 문학 등 학문연구에 몰두한것으로 하여 의절당하였다. 하여 약 10년동안 가정교사, 번역 등으로 가난한 생활을 하면서 자기의 길을 개척하지 않으면 안되였다.

이 시기 그의 유물론적립장과 반종교사상은 초기작품인 《눈뜬 사람에게 교훈을 주는 눈먼 사람의 편지》(1749)에서 뚜렷이 표현되였다. 그는 이 글을 쓴것으로 하여 박해를 받고 3년간 감옥살이를 하였다.

출옥후 백과전서편찬을 의뢰받은 그는 20년동안 여기에 비상한 열정을 쏟아부었다. 그는 편찬사업의 총책임자로서 많은 공헌을 하였다.

도중에 두번이나 출판금지령을 받고 공동편찬자인 달랑베르(수학자, 문학가 1713—1783)가 물러선 다음에도 마지막까지 이 사업을 계속하여 1772년에 전 17권, 도해판 11권으로 된 백과전서를 내놓았다. 이것을 계기로 그는 온 유럽에 이름을 날리게 되였다.

그는 백과전서 편찬기간과 그 이후시기에 정열적인 저술활동을 벌려 문학, 철학, 미학, 자연과학에 대한 수많은 책들을 내놓았다. 그중에서도 《달랑베르와 디드로의 대화》(1769)와 《달랑베르의 꿈》(1769)에는 문학과 철학에 대한 그의 진보적인 견해가 명백히 서술되여있다. 그의 철학은 기본적으로 기계적유물론이였으나 후기에 변증법적세계관과 진화적견해에 접근하였다.

그는 미학원론 《미의 기원에 관하여》, 미술평론집 《쌀롱》, 소설론 《리챠드슨에게 바치노라》, 연기론 《배우에 관한 역설》 등 계몽주의사상으로 일관된 미학론문들에서 고전주의미학의 봉건적내용과 인위적인 규범, 도식적인 틀을 반대하고 수공업자를 비롯한 도시소부르죠아계층의 생활과 념원을 반영하는 문학예술을 창작할것을 주장하였다. 그의 미학리론은 일련의 제한성이 있었으나 당시에는 사실주의적창작방법의 수립에 이바지하였다.

그는 고전주의극과는 다른 정극에 관한 견해를 서술한 유명한 《연극론》(1758)과 《사생아》(1757), 《가족의 아버지》(1758), 《그가 좋은 사람이냐, 나쁜 사람이냐》(1781) 등 일련의 정극작품들을 내놓음으로써 유럽사실주의연극발전에 이바지하였다.

그는 소설이 가지는 생활반영의 풍부한 가능성에 주목을 돌리고 자기의 창작에 다양한 묘사수법과 이야기줄거리를 도입하였으며 대화체소설에서 특기를 발휘하였다. 봉건귀족제도와 수도원의 비인간적인 생활을 폭로한 소설 《수녀》(1760), 지배계급의 기생충적인 생활을 풍자한 대화체 장편소설들인 《운명론자 쟈끄와 그의 주인》(1774 창작, 1796 발표), 《라모의 조카》를 비롯한 그의 소설작품들은 유럽근대소설의 형성과정을 보여주었다.

디드로의 대표작은 《라모의 조카》이다.

《라모의 조카》

《라모의 조카》는 1762년경에 창작되고 1765, 1772년에 수정가필된 대화체철학소설이다. 출판은 작가가 사망된 이후에 실현되였다. 먼저 도이췰란드에서 괴테가 번역한 도이취어판이 1805년에 출판되고 프랑스에서는 도이취어판을 프랑스어로 번역하여 1823년에 출판되였다. 빠리에서 디드로의 자필원고가 발견되여 그에 기초한 출판이 실현된것은 1891년에 가서였다.

작품은 1인칭설화자인 나와 라모의 조카사이에 벌어진 대화로 엮어져있다. 철학가인 나는 날씨가 좋거나 나쁘거나 관계없이 매일 저녁 5시경에는 공원에 나가 산보하는 습관을 가지고있다. 공원의자에 앉아 몽상에 잠기거나 자문자답하며 춥거나 비가 오면 레쟝스카페에 뛰여

들어 장기를 두는것을 보면서 시간을 보내군 한다.

어느날 점심식사후에 나가 그 카페에 앉아있는데 이 나라에서 가장 기묘한 인물의 한사람이 접근해왔다. 그가 바로 이름난 음악가 라모의 조카였다. 그리하여 나와 라모의 조카사이에 대화가 벌어진다.

그들은 생활, 도덕, 국가, 천재, 교육 등 여러가지 문제를 놓고 이야기를 나눈다. 라모의 조카는 도덕도 명예도 자존심도 버리고 권세있고 돈 많은자들의 집을 돌아다니며 부자들의 방 한구석에 앉아서 그들의 비위를 맞추어 어리광을 부리고 웃음을 팔아 살아가는 식객이다.

그는 자신의 생활체험을 통하여 귀족부르죠아사회에서는 천재도 무맥하고 건전한 량심도 소용이 없으며 훌륭한 교육도 무익하고 참다운 친우도 가질수 없다고 생각하며 이로부터 사회생활의 일반적흐름에 순응하는것이 상책이라는 결론을 내린다.

라모의 조카는 천재에 의하여 사회에 좋은 변화가 생길것이 없으니 천재는 다 혐오스러운 존재라고 말하며 옳바른 사고와 례절바른 행동 역시 아무 쓸모없는 허무한것이며 오히려 우환거리로 된다고 하면서 그것을 거부하여나선다. 교육에 대하여 그는 현사회에서는 그것이 고통밖에 줄것이 없다고 하면서 문법, 력사, 지리 등 지식의 주입을 배격하며 처세에 대해서도 사회의 일반관례를 따라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강도와 비렬한자들이 사는 이 사회에서 도덕이요, 량심이요, 정의요 하는것은 다 불필요한것이라고 하면서 권세있고 돈 많은자들처럼 일하지 않고 놀고먹을수 있는 유일한 길인 식객이 되는 길을 택하였다.

나는 그의 생각이 잘못된것이라는것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장시간 론쟁하였으나 종당에는 나의 론리가 비현실적이라는것을 자인하지 않을수 없게 된다.

이렇게 3～4시간동안이나 대화를 나눈 후 라모의 조카는 가극극장에 갈 시간이 되였다고 하면서 작별인사를 하고 가버린다.

작품에서는 이 대화과정에 당대 프랑스사회의 진상이 날날이 까밝혀지며 사회악이 판을 치고 썩을대로 썩은 봉건사회야말로 악마의 왕국이라는 사상이 밝혀지고있다.

《얼마나 악마같은 제도입니까?…자연에서는 모든 동물들이 서로 잡아먹고있으며 사회에서는 모든 계급이 서로 잡아먹고있습니다. 지배계급은 전횡을 부리며 부자들은 동물적리기주의로 가득차있습니다. 돈있는자는 무슨짓을 해도 부끄러운줄 모릅니다. 부가 죄악과 범행을 덮어주니까요.》라고 하는 라모의 조카의 말에는 작품의 기본사상이 집약적으로 표현되여있다.

작품에서 라모의 조카는 이러한 악마의 왕국이 낳은 남의 덕에 살아가는 기생충들, 남의 노예가 되여 목숨을 부지하는자들, 비렬하고 사람값에 들지 못하는자들의 전형적형상이다.

작품에서 나는 작가의 계몽주의적리상을 구현한 인물이다. 그는 악마의 왕국인 봉건사회를 비난하고 인도주의와 선행으로써 새 사회인 리성의 왕국을 세우려는 꿈을 가지고있다. 이런 의미에서 나는 지배계급의 사상을 대변하는 라모의 조카와 대치되여있다. 작품에서 나의 도덕적원칙은 라모의 조카의 패덕적인 도덕적원칙과의 대결에서 패배당하고만다. 그는 라모의 조카와의 론쟁과정에 자기의 계몽주의적리상을 실현하려던 꿈을 포기한다.

이를 통하여 작품은 당시에 자유와 평등, 박애를 부르짖으며 리성의 왕국을 꿈꾸던 계몽주의자들의 리상이 공상적이며 비현실적이라는것을 보여주었다.

작품은 당대 현실을 배경으로 전형적성격을 창조하고 모든 이야기를 라모에게 집중시킴으로써 구성의 통일을 보장하였으며 유연하고 변화무쌍한 산문체를 활용한것 등 사실주의적인 소설로서의 특성을 뚜렷이 보여주었다.

이러한 성과로 하여 《라모의 조카》는 18세기 프랑스계몽주의소설의 대표작의 하나로 되였으며 19세기 비판적사실주의문학발전의 토양으로 되였다.

루 쏘

생애와 창작활동

루쏘는 디드로와 마찬가지로 프랑스계몽주의좌파에 속해있으면서 소부르죠아지의 립장을 대변한 작가이다.

쟝 쟈끄 루쏘(1712－1778)는 스위스의 제네바에서 시계직공의 아들로 태여났다. 그는 출

생직후에 어머니를 잃고 10살때에는 아버지마저 탈가하여 숙부에 의해 양육되다가 13살때부터 도제로 일하였다. 그는 어려운 생활고에서 벗어나보려고 16살때 제네바를 떠나 프랑스, 이딸리아 각지를 3년동안이나 방랑하였다. 그런 과정에 한 프랑스부인을 알게 되여 그의 도움으로 샹베리에 있는 그의 집에서 약 10년동안 음악, 문학, 력사, 철학, 자연과학을 독학하여 매우 박식한 사람으로 되였다. 이 과정에 그는 소부르죠아계층의 요구와 리해관계를 대변하는 급진적인 부르죠아계몽주의사상가로 되였으며 봉건적예속과 압박을 반대하여 나섰다.

그는 1742년에 빠리로 가서 사회계에 진출하였으며 디드로, 달랑베르 등 철학가들과 교제하면서 적극적인 문필활동을 벌렸다. 그는 50년대에 많은 학술저서들을 발표하였다. 문명의 진보가 풍속의 부패타락을 초래한다고 주장함으로써 프랑스봉건사회를 비판한 《과학예술론》(1750), 봉건사회의 신분계급적불평등을 비판하고 인간의 평등을 주장한 《인간불평등기원론》(1755), 자기의 정치적견해를 담은 《정치경제론》(1755) 등은 루쏘의 대표적저서들이다.

그는 1760년대에 문학창작에 달라붙어 《신엘로이즈》(1761)와 《에밀》(1762)과 같은 소설들을 련이어 내놓았다. 《신엘로이즈》와 《에밀》은 루쏘가 이 시기에 쓴 저서 《사회계약론》(1762)과 함께 세상에 나오자마자 내외의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한편 이러한 작품들을 창작한것으로 하여 그는 프랑스정부와 제네바당국으로부터 체포령까지 받았다. 그리하여 그는 박해를 피하여 다시 방랑의 길에 오르며 근 10년이 지난 1770년에야 빠리로 돌아왔다. 그는 빠리근교에서 은퇴생활을 하다가 1778년에 66살의 나이로 사망하였다.

그가 죽은 다음에 회고록작품인 《고백록》(1782—1789 출판)이 공개되였다. 그밖에도 그는 연극론을 서술한 《달랑베르에게 보내는 편지》(1759), 《언어기원론》, 음악에 관한 론문들과 가극론 등 많은 작품들을 남겼다.

그의 창작은 《자연으로 돌아가라!》는 자기의 주장을 구현하여 인간의 자연적상태와 가부장적관계를 리상화하였으며 비현실적이고 공상적인 제한성을 가지고있으나 낡은 봉건주의를 강하게 비판하고 평등사상을 옹호하였으며 인간의 내면심리세계를 섬세하게 분석한것으로 하여 프랑스와 유럽문학발전에 영향을 주었다.

루쏘의 대표작은 소설 《신엘로이즈》와 《에밀》이다.

《신엘로이즈》

《신엘로이즈》는 평민청년과 귀족처녀의 비극적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통하여 봉건적신분제도와 봉건사회의 사회적불평등을 비판한 서한체소설이다. 작품의 제목(원제목은 《쥴리 또는 신엘로이즈》이다.)은 12세기에 프랑스에서 있었던 아벨라르와 엘로이즈의 비극적사랑에 대한 이야기의 신판이라는 뜻을 담고있다.

아름답고 리지적인 귀족처녀 쥴리는 가정교사로 초빙되여온 쌩 쁘레가 비록 평민이지만 지식에서나 정신도덕적인 면에서 귀족청년들보다 훨씬 우월하다는것을 깨닫고 순진한 마음으로 그를 사랑하게 된다. 쌩 쁘레도 쥴리가 마음에 들어 그에 대한 뜨거운 사랑을 품게 된다. 그들은 자기들의 자연스러운 사랑이 봉건적신분제도와 봉건도덕의 요구에 맞지 않는 죄스러운것이라고는 추호도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들의 사랑은 성취되지 못한다. 그들사이의 관계를 알게 된 쥴리의 아버지가 쌩 쁘레를 집에서 내쫓고 쥴리를 중년의 귀족 볼마르에게 시집보냈던것이다.

6년후 안해의 지난날 이야기를 들은 볼마르가 관용을 베풀어 쌩 쁘레를 자식들의 가정교사로 초빙한다. 볼마르의 령지에서 다시 만난 그들사이에는 옛사랑이 또다시 불타오른다. 그들은 그 감정을 억제하느라고 무진 애를 쓴다.

그후 물에 빠진 아이를 건지러 호수에 들어갔다가 감기에 걸린 쥴리는 그만 합병증이 와 생명이 위독하게 된다. 그는 림종시에 자기가 하루만 더 살았더라면 아마 죄를 지었을것이라고 고백한다.

쥴리가 죽은 후 쌩 쁘레는 세계일주려행의 길을 떠나며 문명에 물들지 않은 섬을 찾아내여 자연의 품속에서 살아간다.

작품은 주인공들을 불행에 빠뜨린 봉건적신분제도와 봉건사회의 사회적불평등을 리성과 자연의 요구에 맞지 않는것으로 규탄하였으며 자

유와 법의 불구대천의 원쑤인 귀족신분이 낳은것은 인민에 대한 억압과 학정뿐이라고 폭로하였다.

소설은 이러한 계몽주의적인 사상적내용을 아름다운 자연묘사, 주인공들의 감정과 심리에 대한 섬세한 묘사와 결합하여 매우 서정적으로 펼쳐보인것으로 하여 강한 호소성과 견인력을 가지고 수많은 독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으며 감상주의작품으로 간주되게 되였다.

《에밀》 《에밀》은 루쏘의 리상적교육론을 펼쳐보인 교육소설이다. (작품에는 《교육에 관하여》라는 부제목이 달려있다.)

작품은 에밀이라는 귀족출신의 어린이가 요람기로부터 성인이 되여 결혼하기까지 리상적인 가정교사의 주도세밀한 교육밑에 성장해가는 과정을 서술과 묘사를 뒤섞어 이야기식으로 보여주고있다.

에밀의 양육을 맡은 가정교사는 조물주의 손에서 태여날 때에는 누구나 선량했던 사람이 타락하는것은 이 세상의 습관과 교육법이 글러먹은데 있다고 보면서 사람을 자연인으로 키울데 대한 리상밑에 25년동안 에밀 하나를 키워내는데 모든 힘을 바친다. 그의 교육목적은 외적인 환경(사회와 가정)이나 습관과 편견의 나쁜 영향으로부터 아이를 보호하고 아이에게 있는 자연적인 싹을 될수록 조장시키는데 있었다.

이를 위하여 에밀은 갓난애기때부터 부모에게서 떨어져 어지러운 사회를 등지고 자연의 품속에서 간소하게 양육된다.

교사는 유년시기에는 에밀에 대한 교육에서 감각훈련을 중시하고 소년시기에는 육체단련을 중시하면서 책과 말로 하는 교육을 피하고 에밀이 자신의 경험을 통하여 스스로 자연에 순응하는 법을 배우도록 한다. 독서는 유년기에 저주로운것으로 간주되여 책이라고는 《로빈슨 크루소우》하나만이 허용된다. 또한 소년시기에는 실물교육을 위주로 하면서 감정교육, 직업교육에 관심이 돌려진다. 그때까지는 사상교양, 도덕교양을 하지 않는다. 도덕교양은 16살이후의 청년시기에 이르러서야 진행된다.

이 과정에 에밀은 육체적으로나 실천적으로 준비될뿐아니라 선과 악에 대한 감정과 관념을 소유하게 되고 인도주의적인 사상을 가지게 된다. 나이가 들자 에밀은 역시 자연속에서 자란 소박하고 정직한 처녀 쏘피를 안해로 맞아 행복을 누리게 된다. 그는 자신의 견문을 더욱 넓히기 위하여 외국려행의 길에 오른다.

작품은 에밀에 대한 교육과정을 통하여 부르죠아계몽주의사상가였던 루쏘자신의 《자연교육론》을 펼쳐보이고있다. 사람은 원래 선량한데 봉건사회의 부패한 환경이나 봉건적교육이 사람을 망쳐버린다고 하면서 《자연으로 돌아가라!》고 주장한 루쏘는 자연인이 가진 선과 량심을 육성발전시킨다는 랑만적인 리상주의에 기초하여 자기의 교육관을 전개하였다. 작품의 주인공 에밀은 작가의 이러한 교육관을 구현한 랑만적이며 리상적인 인물이다.

루쏘의 교육소설 《에밀》은 력사적진보성을 가지였다. 그것은 작품이 사회악에 충만된 봉건사회를 폭로하고 사람들을 봉건사회와 봉건지배계급에게 복종시키도록 하는 봉건교육을 날카롭게 비판하였으며 봉건적예속에서 벗어나려는 근로대중의 지향을 담았기때문이다.

그러나 작품은 부르죠아개인주의자, 인도주의자를 키워내려는 부르죠아교육사상을 담은것으로 하여 력사적제한성을 나타내였다.

루쏘는 작품에서 어린이들에게는 그저 감각훈련이나 정서교육을 하면 되지 사상교양을 해서는 안된다고 하였는데 이것은 아이들에 대한 혁명적사상교양을 반대하는 부르죠아교육리론과 다를바 없었다. 사회적존재인 사람을 사회관계를 떠나 순수 자연속에서 키우려는 루쏘의 사상자체가 매우 관념론적이고 공상적이며 비현실적인 것이였다. 루쏘의 《에밀》은 그후 부르죠아교육학의 발전에 큰 영향을 주었다.

3. 영 국 문 학

1) 17세기 영국문학과 밀턴

17세기 영국문학

시대와 문학의 특징

17세기 영국력사는 봉건제도를 옹호하려는 봉건세력과 그것을 뒤집어엎으려는 반봉건세력사이의 치렬한 투쟁이 벌어져 그 결과 부르죠아혁명이 일어나고 자본주의제도가 수립된 복잡하고 혼란된 시기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영국에서 17세기중엽에 있은 부르죠아혁명은 부르죠아지와 신귀족이 타협하여 립헌군주제를 세우는것으로 끝난 불철저한 혁명이였습니다. 혁명후 영국사회는 자본주의의 길에 들어섰지만 여전히 봉건적잔재를 많이 가지고있는 부르죠아귀족적인 사회였습니다.》

17세기 중엽에 이르러 봉건제도를 뒤집어엎기 위한 농민대중과 도시빈민들의 투쟁이 전례없이 앙양되였으며 이에 편승한 부르죠아지와 신귀족(자본주의적경영활동에로 넘어가 점차 부르죠아화되여가던 중소귀족들)들이 국왕을 우두머리로 하는 봉건통치배들에 대한 결정적인 공세를 취하였다. 그것은 정치적으로는 국왕세력과 의회세력사이의 투쟁으로, 종교적으로는 영국국교회(구교)파와 신교인 청교(퓨리탄교)파사이의 투쟁에서 뚜렷이 표현되였다.

드디여 1642년에 내란이 터지고 1646년에 의회군이 국왕군을 타승하여 정권을 장악함으로써 국왕 챨즈1세가 처형되고 크롬웰을 위시하는 부르죠아공화국이 수립되였다. 그러나 전복된 봉건세력들이 1660년에 다시 군주제도를 복귀하여 28년동안 왕정복귀시기를 겪게 되였다. 이것은 부르죠아지와 신귀족이 1688년 궁중정변의 방법으로 명예혁명을 일으켜 부르죠아립헌군주제를 세우는것으로 막을 내렸다.

이렇게 17세기 영국부르죠아혁명은 부르죠아지와 신귀족이 타협한 불철저한 혁명이였다.

17세기 영국문학의 중요한 특징은 당대 현실을 반영하여 멸망해가는 봉건지배계급의 리익을 옹호한 봉건문학과 그를 반대하는 반봉건세력의 리익을 대변한 반봉건문학사이에 치렬한 투쟁이 벌어진것이다.

봉건문학은 왕당파, 형이상학파, 카를르파 등 여러가지 류파를 이루고 산문과 시, 극 등 여러 형태를 리용하여 무너져가는 봉건군주제와 봉건세력을 옹호하고 반봉건세력을 공격해나섰다.

17세기 영국고전주의문학의 대표자의 한사람인 죤 드라이던(1631—1700)도 왕당파에 속하였다. 그는 청교도가정의 출신으로서 부르죠아혁명시기에 크롬웰을 찬양하는 송시까지 썼으나 왕정이 복귀되자 변절하여 왕당파에 들어가고 신앙도 카톨릭교로 개종하였다. 그는 국왕을 찬양하는 송시를 쓰고 궁중에 들어가 계관시인으로 되였으나 1688년 명예혁명후 실각되였다.

그의 대표작은 이른바 영웅극으로 불리운 《인디아녀왕》 (1662), 《인디아황제》(1665), 《에스빠냐인들의 그라나다정복》(1672)과 같은 극시들이다. 이 작품들에서 시인은 봉건기사, 식민지략탈자, 침략자들을 영웅으로 내세우고 그들을 허위적인 호언장담으로 칭송하였다.

드라이던의 작품들은 심각한 사상적제한성을 가지고있었으나 다양한 극형식을 구사하고 여러가지 시형식을 리용하였으며 운률을 잘 조성한것으로 하여 후세의 시인들에게 일정한 영향을 주었다.

형이상학파는 이 류파에 속한 시인들의 시가 그 내용에 있어서 극히 추상적이고 사변적이며 종교적색채가 짙었던데서 붙은 명칭이며 카를르파는 처단된 국왕 챨즈1세의 이름을 라틴어로 부른 명칭이다. 이 두 파는 다 왕당파에 속한 시인들의 류파였다.

그들가운데서 비교적 알려진 시인은 존 돈(1572—1631)이다. 그는 카톨릭교도인 부유한 상인가정에서 태여났으나 후에 영국국교도로 신앙을 바꾸고 성직자로 되였으며 사원의 사제장으로 있었다.

그는 청년시기에 시를 쓰기 시작하여 처음에는 인문주의문학의 정신을 이어 대담한 풍자시, 서정시들을 썼으나 후기에 종교시인으로 넘어가 형이상학파의 시조로 되였다. 그의 대표작인 서사시 《세계의 해부》(1611), 그 속편인 《령혼의 진보》(1612)는 어두운 종교시로서 난해하고 추상적인 내용으로 일관되여있었다. 그의 시는 후세의 모더니즘시인들에게 영향을 주었다.

이러한 봉건문인들과는 달리 진보적작가들은 문학을 반봉건투쟁의 무기로 삼고 봉건제도와 봉건계급을 반대하는 투쟁에 적극 참가하였다. 반봉건문학의 류파로는 청교파에 속한 독립교회파, 평등파, 개간파(딕거)와 같은것들이 있었다.

독립교회파는 부르죠아지와 신귀족의 중간층과 부유한 농민들의 리익을 대변한 류파로서 여기에 속한 작가들속에서 반봉건적경향이 강한 작품들이 적지 않게 나왔다. 밀턴과 소설가 바니언이 그 대표적인 창작가이다.

평등파는 소부르죠아지와 농민들의 리해관계를 반영하여 독립교회파로부터 떨어져나온 파이다. 《영국의 새로운 쇠사슬》을 비롯한 산문들에서 새로운 지배계급으로 등장한 부르죠아지와 신귀족을 규탄한 존 릴번(1618—1657)이 그 대표자이다.

개간파는 빈농민들의 리익을 대변한 파로서 시 《딕거의 노래》를 쓴 윈스턴리(1609—?)가 그 대표자이다.

17세기 영국의 진보적문학계에서 특출한 자리를 차지하는것은 밀턴이다. 그와 함께 바니언도 잘 알려져있다.

바니언

존 바니언(1628—1688)은 농촌주석도금공의 집안에서 태여나 구리그릇을 만드는 직공으로 일하였다. 그는 영국부르죠아혁명시기 의회군편에서 총을 들고 싸웠으며 왕정복귀시기에 반국교죄를 뒤집어쓰고 12년간이나 감금당하였다.

그의 대표작인 우의소설 《천로력정》(《천당으로 가는 길에 지나가는 로정》이라는 뜻, 1678—1684)은 바로 이 감금기간에 쓴것이다.

작품에서는 꿈이야기형식으로 주인공이 순례자가 되여 성서에 나오는 그리스도교의 성지를 순례려행하는 내용을 펼쳐보이면서 왕정복귀시기의 폭압과 봉건통치배들의 부패타락, 부르죠아지들의 장사군근성을 비판하였다. 작품은 비록 종교적색채가 진하고 우의성이 강한 제한성을 가지고있지만 인물과 장면들을 생동하게 묘사하고 소박한 문체와 간결한 언어를 쓴것으로 하여 영국근대소설의 발전에서 선구적인 역할을 하였다.

밀턴과 서사시 《실락원》

밀턴은 17세기 영국문학을 대표하는 시인일뿐아니라 영국최대의 시인으로 알려져있다.

존 밀턴(1608—1674)은 런던에서 신흥부르죠아계급에 속하는 변호사 및 공증인의 집안에서 태여나 청교사상(퓨리타니즘)과 인문주의사상의 영향을 받으며 자랐다. 아버지는 아들을 장차 영국국교회의 성직자로 만들려고 하였으나 일찍부터 시를 좋아한 밀턴은 시인으로 될 결심을 다졌다.

그는 케임브리지종합대학에 다니던 시기부터 시창작을 시작하여 대학시절과 졸업후 몇해사이에 《리씨다스》(1637)를 비롯한 여러편의 시작품들을 발표하였다.

그는 영국에서 부르죠아혁명이 대두하고 인민들의 반봉건투쟁이 앙양되던 17세기 40—60년대에 봉건군주제도를 반대하는 사상적립장을 취하고 부르죠아혁명을 지지하여 창작활동을 벌리였다.

그는 1638년에 유럽대륙에로의 해외려행의 길에 올랐다가 국내에서 내란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급히 귀국하여 봉건군주제도를 반대하고 부르죠아혁명과 공화제도를 옹호하는 투쟁에 자기의 모든 힘을 다 바쳤다.

영국부르죠아혁명이 승리한 후인 1649년에 크롬웰의 외국어비서관으로 임명된 그는 국가의 요직에서 국제적인 외교서신교환을 맡아보면서 수많은 글들을 써내여 봉건군주제도를 옹호하고 부르죠아혁명과 공화제도를 공격하는 적수들, 왕당파들과 치렬한 론쟁을 벌렸다. 출판의 자유를 옹

호한 《아레오파지티카》(1644), 봉건군주를 재판하고 처형할수 있는 인민의 권리를 피력한 《우상파괴자》(1649)와 《영국인민을 위한 변호》(1651, 1654)와 같은 유명한 정론들이 이 시기에 발표되였다. 이 글들로 하여 그의 이름은 일약 유럽에 알려졌다.

그는 과로한 탓으로 1652년경에 완전히 실명당하였으나 조수들의 도움을 받으며 왕정이 복귀될 때까지 그 지위에서 일하였다.

1660년에 왕정이 복귀되여 영국에 다시 군주제도가 선 후 그는 체포되였다가 간신히 놓여나온 다음에도 계속 박해를 받고 빈궁속에서 여생을 보냈다. 그는 시력을 완전히 잃은데다가 나이도 많았으나 세상을 떠날 때까지 10여년동안 구술로써 대장편서사시 《실락원》(1667)과 《복락원》(1671), 비극 《투사 쌈슨》(1671)과 같은 문학작품들과 함께 《라틴어문법》, 《영국사》와 같은 저서들을 집필출판하는 등 정력적인 활동을 계속하였다.

《실락원》과 《복락원》은 다 그리스도교의 성서에 나오는 이야기를 소재로 한 종교적색채가 진한 작품이지만 시인의 반봉건투쟁정신이 뚜렷이 표현되여있는 작품들이다. 《실락원》이 싸탄의 유혹에 빠져 신의 벌을 받은 아담과 이브의 락원상실이야기라면 《복락원》은 제2의 아담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싸탄의 유혹을 이겨내고 상실했던 락원을 인류에게 다시 찾아주는 이야기이다. 《투사 쌈슨》에서는 자기의 목숨을 바쳐 원쑤들을 타승하는 고대헤브라이족의 힘장수 쌈슨의 형상을 통하여 근로대중을 왕정복귀를 반대하는 투쟁에로 호소하였다.

밀턴의 창작은 부르죠아적이며 종교적인 제한성을 많이 가지고있으나 서사시 《실락원》과 같이 봉건적예속에서 벗어나기 위한 17세기 영국인민들의 투쟁을 힘있게 반영한 고전적인 작품을 내놓고 전투적인 정론과 시문학을 발전시킨것으로 하여 영국과 유럽의 진보적문학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있다.

서사시 《실락원》은 천상세계에서의 싸탄의 봉기와 아담과 이브의 락원상실에 대한 그리스도교의 종교전설을 통하여 봉건을 반대하는 부르죠아혁명이 벌어지고있던 17세기 중엽 영국의 현실을 반영한 작품이다.

12편으로 구성된 장편서사시는 천국으로부터 지옥에 떨어진 싸탄과 그를 추종한 천사—패잔병들에 대한 이야기로부터 시작된다.

싸탄은 천국에서도 제일가는 천사였는데 신을 반대하는 폭동을 일으켰다가 신의 군대와의 싸움에서 패하여 지옥에 떨어진다. 정신을 차린 싸탄은 부하들을 일으켜세워 자기들이 살 궁전을 세우고 스스로 지옥의 왕이 된다.

싸탄은 신과의 싸움을 계속하기 위한 방도를 모색하던 끝에 신이 만든 최상의 락원이라고 하는 에덴동산을 파괴함으로써 신에게 타격을 가할것을 결심하고 대담하게 혼자서 원정의 길에 오른다.

우주로 날아올라 오랜 비행끝에 에덴동산에 이른 싸탄은 소천사로 혹은 뱀으로 자기 모습을 바꾸며 에덴에 사는 두 원인(그리스도교의 전설에 나오는 첫 인간) 아담과 이브에게 접근한다. 드디여 그는 온갖 감언리설을 다하여 나약한 이브로 하여금 신이 먹을것을 금지한 지식의 나무열매를 따먹게 하는데 성공한다. 이브혼자 천벌을 받게 내버려둘수 없었던 아담도 이브를 따라 그 열매를 먹는다.

그러자 열매의 효력이 나타나 그들은 원인으로부터 산 인간으로 되며 사람으로서의 지식과 리성을 얻게 된다. 이 일이 비상사건으로 신에게 보고되며 신은 죄를 범한 아담과 이브를 지상으로 추방한다.

한편 싸탄은 에덴동산을 파괴함으로써 신에게 타격을 가한 기쁨을 안고 지옥으로 개선한다. 그러나 신의 판결이 지옥에까지 따라와 싸탄과 그의 부하들은 모조리 뱀의 모습으로 변해버리며 영원히 뱀으로 살아가게 된다.

《실락원》은 그 진한 종교적색채와 환상적내용으로 하여 예로부터 난해한 작품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작품으로 여겨져왔으며 종교서사시로 보는 견해가 많았다. 그러나 《실락원》은 종교서사시가 아니라 종교적외피를 쓰고 당대의 시대정신을 뚜렷이 반영한 작품이다.

《실락원》은 17세기 영국문학에 널리 퍼진 종교전설형식속에 그리스도교의 구약 및 신약성서의 내용을 담아 신의 폭압을 반대하는 천사들의 투쟁을 그려보이면서 온갖 압박에 대한 영국인민들의 증오심과 반봉건투쟁정신을 비유적으로 형상한 작품이다.

이 작품이 그리스도교적색채를 진하게 띠게 된

것은 무엇보다도 그 당시에 그리스도교가 유럽에 널리 퍼졌던 사정과 관련되여있다. 그리스도교가 지배적교리로 되여있던 당시 영국의 환경에서 문학작품도 그리스도교적색채를 띠지 않을수 없었던것이다.

이와 함께 시인이 이 작품을 봉건군주제가 복귀된 후 박해를 받으면서 창작했던 사정과도 관련되여있다.

이러한 형편에서 시인은 공개적으로 봉건군주제를 반대하는 작품을 쓸수 없었으며 비유적인 형상에 의거하지 않을수 없었던것이다.

이처럼 서사시는 종교적외피를 쓰고 창작되였지만 부르죠아혁명시기 영국의 사회생활과 시대정신을 힘있게 반영하고 반봉건적경향을 강하게 보여주고있다.

서사시에서 싸탄이 지휘하는 군대와 신의 군대와의 격전에서 싸탄군의 패배, 패배이후에도 계속 신을 반대하여 투쟁하는 싸탄의 형상에는 영국부르죠아혁명의 력사, 봉건세력과 반봉건세력사이의 치렬한 투쟁이 진행되였던 당시의 현실이 풍유적으로 반영되여있다.

특히 남에게 예속되여 살기를 원하지 않고 자유를 갈망하며 신의 예속을 반대하여 봉기를 일으켰다가 싸움에서 패한 다음에도 굴함없이 반항을 계속하는 주인공 싸탄의 형상에는 17세기 영국부르죠아혁명시기 봉건제도를 뒤집어엎기 위하여 투쟁한 영국인민들의 반봉건투쟁정신과 그들의 투쟁과정이 적지 않게 체현되여있다.

목에 칼을 차며
무릎을 꿇고 허리를 굽히는것을
어찌 참을수 있으랴

이것이 싸탄의 기개이다.

작품에서 싸탄과 대치되여있는 하늘의 독재자이며 전제군주인 신의 형상은 봉건군주의 전제통치를 대변한것이다.

서사시는 봉건적예속에서 벗어나기 위한 지난날 사람들의 투쟁을 반영하고 그것을 긍정한 력사적진보성과 웅장하고 균형이 잡힌 구성, 세련되고 표현력이 강한 시어, 생동한 시적묘사 등 새로운 예술적특징을 보여준것으로 하여 영국문학, 특히 서사시문학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있다.

2) 18세기 영국문학과 디포우, 스위프트

18세기 영국문학

시대의 특징

18세기는 영국력사에서 자본주의제도가 확립되고 산업혁명으로 현대적공업이 건설된 전환의 시기였다.

1707년에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가 련합하여 세운 련합왕국인 영국은 형식적으로 왕국이지 내용적으로는 왕권이 무력해져 의회제에 기초한 부르죠아지와 신귀족의 독재가 수립된 근대적인 부르죠아귀족사회였다. 부르죠아혁명에 의하여 정권을 장악한 부르죠아지와 신귀족은 자기들의 리익을 대표하는 휘그당(자유당)과 토리당(보수당)의 2대정당을 만들어가지고 교대로 정부를 구성하면서 나라의 권력과 재부를 독점하였다.

국내에서는 겉으로 17세기 동란의 후과도 가시여져 정치정세가 안정된듯이 보였으나 새로운 지배계급으로 등장한 부르죠아귀족통치배들과 인민대중사이의 모순과 대립이 날로 격화되였다. 부르죠아귀족통치배들은 국가권력에 의한 법적비호를 받으면서 근로인민대중을 가혹하게 착취하고 략탈하였다. 그들은 이에 그치지 않고 기계파괴운동과 기아폭동을 비롯하여 여러가지 형태로 벌어진 인민들의 투쟁을 류혈적으로 탄압하였다.

영국통치배들은 대외적으로는 식민지략탈전쟁에 광분하여 새로운 식민지들을 더 많이 강탈하였으며 식민지인민들을 가혹하게 수탈하였다.

부르죠아혁명과 식민지략탈에 의한 국내외시장의 확대는 자본주의경제발전을 추동하였다. 이러한 성숙된 객관적요구로부터 18세기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났다. 방직공업부문에서의 기술적발명으로부터 시작된 산업혁명은 와트에 의한 증기기관의 발명으로 급속히 추진되였으며 19세기초에 가서 증기기선과 증기기관차가 나오고 철도가 운영되는데 이르러 산업부문전반에 새로운 앙양을 일으켰다.

산업혁명은 영국의 사회경제생활에서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다. 산업혁명의 결과 자본주의제도가 확립되고 현대적공업이 건설되였으며 근대

자본주의사회의 기본계급인 산업프로레타리아트와 산업자본가계급이 형성되였다.

문학의 특징

18세기 영국문학은 이러한 력사적환경을 반영함으로써 이전시기 문학과는 다른 새로운 특징을 띠게 되였다.

18세기 영국문학은 반봉건주제를 기본으로 봉건적잔재와 부르죠아귀족사회의 부정면에 대한 비판을 전개하였다.

이 시기 문학은 또한 새로운 자본주의사회현실을 폭넓고 구체적으로 반영하면서 당시 영국의 각계각층사람들, 부르죠아지와 신귀족 등 상층부로부터 가난한 하층인민들에 이르기까지 그들의 성격과 생활을 다양하게 그려내기 시작하였다.

18세기 영국문학은 현실을 예술적으로 재현하는데서 한걸음 전진함으로써 사실주의문학발전의 새로운 단계에 올라섰으며 근대문학의 면모를 확고히 갖추게 되였다.

이 시기 문학에서는 종류와 형태에서 사실주의적이며 근대적인 장편소설이 본격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하였다.

영국에서 소설은 17세기에 나온 바니언의 소설 《천로력정》을 거쳐 18세기초 디포우의 소설 《로빈슨 크루소우》에 이르러 근대소설발전의 길이 열리게 되였다. 영국소설은 스위프트의 풍자소설 《갈리버려행기》가 나온 후 18세기 중엽에 개화기를 맞이하였다. 소설의 개화는 리쳐드슨, 필딩, 스몰리트 등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소설과 함께 예술산문도 발전하였다. 당시에 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발간사업이 활발해지면서 수필, 전기, 평론 등 산문창작에 대한 열의가 높아졌다. 여기서는 《시인전》(1779—1781)을 쓴 쌔뮤얼 죤슨(1709—1784)과 《쌔뮤얼 죤슨전》(1791)을 쓴 제임즈 보드웰(1740—1795)이 널리 알려져있다.

시는 소설만큼 활발하게 창작되지는 못하였으나 17세기 고전주의시인 드라이던의 뒤를 이어 18세기에도 고전주의시를 쓴 알렉싼더 포우프(1688—1744), 감상주의시를 쓴 토마스 그레이(1716—1771) 등이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시문학발전에서 특기할것은 스코틀랜드의 농민출신시인 로버트 번즈의 활동이다. 그는 인민가요의 전통을 이어받아 인민생활을 반영한 민요풍의 시를 많이 써서 인민들의 사랑을 받았다.

18세기 영국문학에서 극문학창작은 활발하지 못하였으며 다음세기인 19세기도 역시 마찬가지였다. 극을 비도덕적인것으로 여긴 청교도들이 환영하지 않았고 독자대중의 취미가 소설에 쏠린것 등 여러가지 요인으로 문예부흥기에 개화했던 극문학은 쇠퇴하여 손꼽을만 한 성과작을 내지 못하였다. 극문학에서는 쉐리단(1751—1816)의 희극 《비방의 학교》(1777)가 알려졌을뿐이다.

18세기 영국문학에서 지배적인 사조로 된것은 다른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계몽주의문학사조였다. 영국의 계몽주의문학은 18세기초에 발생하여 1740—1750년대에 발전하였다가 1770년대 이후에 쇠퇴하였다.

18세기 전반기에는 계몽주의문학과 함께 고전주의문학을 지향한 작가들이 나왔으나 시문학에 국한되여 포우프와 같은 일부 시인들의 창작에서만 표현되였다. 력사에서는 18세기 영국고전주의를 의고전주의로 부른다.

18세기 후반기에는 감상주의문학사조가 나타났다.

그 대표적인것이 윌리엄 고드윈(1756—1836)의 소설 칼레브 윌리암스(1794)이다.

영국계몽주의문학

영국계몽주의문학은 영국에서 발생한 부르죠아계몽주의사상을 사상적기초로 하고 그 당시의 부르죠아민주주의적인 사회계층의 리해관계를 대변한 문학사조로서 18세기초에 발생하였다.

그러나 영국계몽주의문학은 영국에서 17세기에 이미 부르죠아혁명이 수행되고 반봉건적투쟁과업이 기본적으로 끝난 시기에 출현한것으로 하여 다른 나라의 계몽주의문학과는 다른 자체의 고유한 특징을 가지게 되였다.

그 특징은 우선 이 문학이 공개적경향성과 교훈적성격이 강하고 다른 나라에서와 같이 반봉건, 반종교주제가 기본으로 된것이 아니라 봉건적인 잔재에 대한 비판과 함께 새 제도에 대한 지지와 긍정, 새로 형성된 자본주의사회의 사회악에 대한 비판이 많은 자리를 차지한것이였다.

스위프트의 신랄한 풍자와 필딩의 비판적경향을 내놓고도 리쳐드슨과 같은 보수적인 작가의 작품인 경우에도 신분의 귀천을 따지는 귀족적편

견에 대한 비판은 공개적인 경향을 띠였다. 영국의 계몽주의작가들은 자기들의 작품을 통하여 독자들에게 교훈을 주고 그들을 도덕적으로 계몽시키려고 하였다.

영국계몽주의문학의 특징의 다른 하나는 작품에 새로운 주인공을 내세운것이였다. 이전 시기 문학의 주인공들은 대체로 봉건적특권계급에 속한 인물들이였다면 이 시기 문학은 새로운 현실을 반영하여 평민들, 부르죠아지들뿐아니라 사회하층인물들을 주인공으로 내세우기 시작하였으며 그것도 주로 긍정적주인공으로 내세웠다. (로빈슨, 갈리버, 파밀라, 톰 죤즈 등)

영국계몽주의문학은 사실주의창작방법의 발전에서 새로운 단계로 되였다. 쉐익스피어를 배출한 문예부흥기 인문주의문학에 의하여 그 길이 열려진 사실주의창작방법은 계몽주의문학에 이르러 더욱 발전하게 되였다.

이 문학에 이르러 사람들이 살아움직이는 객관적현실생활, 특히 일상적인 생활세태를 보다 구체적으로 생동하게 묘사하였으며 등장인물들의 성격과 심리묘사에서 전진이 이룩되였다. 또한 생활의 선택과 평가뿐아니라 묘사와 구성에서 중세기적잔재를 가시고 근대문학의 풍격을 명확히 갖추게 되였다. 그러나 이 시기 영국의 사실주의문학은 아직 력사주의적원칙을 잘 구현하지 못하고 주인공들의 성격발전이 자연스럽지 못하며 작가의 사상의 전성판처럼 된것이라든가 전형화의 수준이 낮고 구성이 째이지 못한것과 같은 일련의 부족점을 가지고있었다.

영국계몽주의문학은 이 시기에 와서 비로소 사실주의적근대소설이 발생발전하였으며 산문문학, 특히 장편소설이 왕성하게 창작되는 새로운 특성을 보여주었다.

이처럼 18세기 계몽주의문학은 영국문학의 발전력사에서 중요한 단계를 이루었다.

영국계몽주의문학의 발전단계를 세 시기로 갈라볼수 있다.

그 첫 단계는 18세기초부터 1730년대까지의 시기이다. 영국문학에서는 이 시기에 처음으로 사실주의적근대소설이 발생하였다. 첫 근대소설로 디포우의 《로빈슨 크루소우》(1719)가 나오고 뒤이어 스위프트의 《갈리버려행기》(1726)가 나왔다.

영국계몽주의문학은 둘째 단계인 18세기 1740—1760년대에 와서 더욱 발전하게 되였으며 특히 장편소설창작에서 성과를 보게 되였다. 이 시기에 리쳐드슨, 필딩, 스몰리트가 활약하였다.

영국계몽주의문학은 셋째 단계인 18세기 1770—1780년대에 위기에 처하게 되였다. 이 시기에 자본주의사회의 계급적모순과 사회악이 더욱 자라나고 인민대중의 불만이 증대되였으며 새 제도에 환상을 품었던 계층도 그에 환멸을 표시함으로써 계몽주의적리상의 허황성이 명백히 드러나고 계몽주의문학은 시대와 인민의 요구에 맞지 않게 되였다. 그리하여 이 시기에 계몽주의문학은 쇠퇴하고 새로운 문학사조가 나오게 되였다.

영국계몽주의문학의 대표적인 작가들로 디포우, 스위프트, 리쳐드슨, 필딩, 스몰리트를 들수 있다.

리쳐드슨

쌔뮤얼 리쳐드슨(1689—1761)은 18세기 영국계몽주의작가들가운데서 보다 온화하고 보수적인 립장을 취한 작가였다.

그는 더비셔의 가구 만드는 소부르죠아가정출신으로 런던의 인쇄소에서 일하다가 유리한 결혼을 하여 인쇄출판소의 기업주로 되였다. 그는 정규교육을 받지 못하고 독학으로 공부하였다.

그가 유명해진것은 편지를 잘 쓰기 위한 례문을 모은 책을 편집하다가 착상한 서한체소설 《파밀라, 또는 보수를 받은 미덕》(1740)을 발표하면서부터이다. 작품은 한 귀족지주의 집에서 시녀로 일하는 농민의 딸 파밀라가 주인의 유혹과 박해를 물리치고 끝까지 자기를 지키며 그 미덕으로 하여 주인과 정식 결혼을 하는 이야기를 담은 도덕교훈적인 가정세태소설이다. 소설은 귀족을 비판하고 평민의 정신도덕적우월성을 강조한 민주주의적측면과 감상주의적특성, 서한체소설형식으로 하여 널리 애독되였으나 반면에 지나치게 감상적이고 진실성이 희박한것으로 하여 필딩의 강한 반박을 받았다.

그의 대표작은 장편소설 《클라리싸》(1—7권, 1747—1748)이다. 작품은 분량이 방대한 서한체소설로서 500여통의 편지로 구성되여있다. 소설에서는 부유한 부르죠아가정에서 고이 자란 클라리싸 하로우가 방탕한 귀족청년 라브레이스의 꾀임에 빠져 몸을 망치고 비탄끝에 죽는 이

야기를 담고있다. 소설은 가정의 울타리를 벗어나 귀족, 부르죠아지들과 당대 사회의 부패성이 보다 강하게 비판되였으며 녀주인공의 심리를 깊이 파고든 특성을 보여주었다.

작가가 마지막으로 쓴 장편소설 《찰즈 그랜디슨》(1—7권, 1754)에서는 긍정적주인공을 창조하려는 시도가 보이였으나 성공하지 못하였다.

필 딩

헨리 필딩(1707—1754)은 18세기 영국계몽주의문학의 대표자의 한사람이며 이름난 소설가이다.

그는 영국 서남부 싸머씨트주의 령락한 귀족가정에서 태여나 보통교육을 마친 후 네데를란드의 레이덴종합대학에서 류학하였으나 학비를 보장할수 없어 중퇴하였다.

그는 처음 극작가로서 창작활동을 시작하여 1720년대말부터 1737년까지 20여편의 희곡을 창작하였다. 그는 《영국의 돈 끼호떼》(1734), 《파스크윈》(1736)을 비롯한 희곡작품들에서 부르죠아귀족적인 영국의 반인민적정치제도를 예리하게 풍자비판한것으로 하여 정부당국의 탄압을 받고 한때 창작활동을 중지당하였다.

그는 1738년부터 법률공부를 시작하여 1740년에는 법률가로 되였으며 1747년부터 생의 말년까지 런던에서 판사의 직무를 수행하였다.

그는 법기관에 있으면서 소설창작을 시작하여 장편소설 《죠젭 앤드류즈와 그의 벗 아브라함 아담즈의 모험이야기》(1742), 《고아 톰 죤즈에 대한 이야기》(1749)를 발표함으로써 소설가로서 이름을 날리였다.

《죠젭 앤드류즈》(략칭)는 한 녀지주의 하인으로 일하는 농촌청년 죠젭이 당한 수난과 모험에 대한 이야기를 통하여 극소수의 특권계급만이 주인행세를 하고 절대다수의 인민들은 무권리와 가난속에서 헤매이고있는 당대사회의 불평등을 비판한 작품이다. 이 작품은 동시대의 작가 리쳐드슨의 장편소설 《파밀라》의 위선을 야유할 목적으로 씌여졌다.

그의 대표작인 장편소설 《고아 톰 죤즈에 대한 이야기》는 시골지주의 집에서 양육된 고아 톰 죤즈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있다. 소설은 시골지주 올워디의 집에서 자라던 톰 죤즈가 지주조카의 모해로 집에서 쫓겨난 후 세상을 떠돌아다니면서 여러가지 모험과 고생을 겪은 끝에 애인 쏘피아와 다시 만나 결혼하게 되는 이야기를 줄거리로 하고있다.

작품은 주인공의 운명을 통하여 당대 영국의 각계각층의 생활과 세태풍속을 사실주의적으로 폭넓게 펼쳐보이면서 자본주의적현실의 불합리와 모순을 비판하였다.

작가는 그밖에도 《큰 도적 죠나싼 와일드의 생애》(1743), 《아밀리아》(1751)와 같은 소설들을 창작하였다.

그는 자기의 작품들에서 력사적진보성과 함께 자연적상태에 있는 인간의 선천적인 선량성에 기대를 걸고 도덕적교양으로 사회를 개조할수 있으리라는 환상을 보여준 부르죠아계몽주의적제한성도 드러냈다.

그는 18세기 영국부르죠아귀족사회의 불합리를 비교적 날카롭게 비판하고 천대받고 학대받는 하층인민들을 동정하였으며 현실에 대한 사실주의적재현과 형상수법을 발전시킨것으로 하여 영국에서 사실주의적근대소설발전에 이바지하였으며 19세기 영국비판적사실주의작가들에게 영향을 주었다.

스몰리트

터바이어스 죠지 스몰리트(1721—1771)는 18세기 영국계몽주의문학의 마지막대표자이다.

그는 스코틀랜드의 귀족가정에서 태여나 글라즈고종합대학 의학부에 입학했으나 학비난으로 중퇴하였다. 그는 1740년부터 1744년까지 군의의 조수로 영국함대에 복무하였으며 그후 런던에서 외과의사로 일하다가 문학창작의 길에 들어섰다. 그는 1763년에 외국에 료양갔다가 이딸리아에서 객사하였다.

그는 현실에 대한 예리한 관찰에 기초하여 비교적 민주주의적립장에서 당대 영국사회현실을 강하게 비판하였다.

그가 창작한 작품들로는 장편소설들인 《로더리크 랜덤의 모험》(1748), 《페리그린 픽클의 모험》(1751), 《페르디난드 페통각하의 모험》(1753), 《험프리 클린커의 려행》(1771) 등이 있다. 대표작은 《로더리크 랜덤의 모험》이다. 소설에서 작가는 외과의사의 조수로 영국함대원정에 참가한 주인공의 체험을 통하여 영국함대생활의 썩어빠진 진상을 폭로하였다.

계몽주의문학에서 새로운 모습을 보인 이 소설은 19세기 비판적사실주의문학의 출현을 예고하는 작품으로 되였다.

영국감상주의 문학

영국에서 지배적인 자리를 차지했던 계몽주의문학이 사라지고 문학계에 새로운 사조인 감상주의가 출현하게 된것은 17세기에 수행된 부르죠아혁명의 결과 자본주의적관계의 사회계급적모순이 더욱더 뚜렷하게 드러나기 시작하였기때문이다.

18세기 후반기 영국에서 농민들에 대한 계속되는 수탈결과 농촌은 황페화되고 수많은 농민들이 류랑의 길에 올라 도시에는 실업자, 류랑자들이 차넘치고 산업혁명의 후과로 로동자들의 처지는 더욱 악화되였다. 반면에 국가의 권력과 재부를 틀어쥔 신귀족, 지주, 자본가들은 더욱더 부유해졌으며 사회악이 늘어만 났다. 이것은 인민들의 불만을 불러일으키고 새 제도에 대한 환상을 품었던 계층들까지도 돌아서게 하였다.

이러한 사회적환경속에서 인간의 자유와 평등, 박애를 부르짖던 계몽주의적리상은 더는 사람들을 현혹시킬수 없게 되였다. 이러한 때 조성된 현실에 대한 소부르죠아계층의 불만을 반영하여 감상주의가 발생하였다.

영국감상주의문학의 대표자는 스턴, 골드스미스이다.

로런스 스턴(1713－1768)은 륙군중위의 아들로 아일랜드에서 태여나 친척의 도움으로 케임브리지종합대학을 졸업하고 1738년부터 1759년까지 지방목사로 있었다. 그는 1740년대 후반기에 창작활동을 시작하였는데 7～8년이나 걸려 9권으로 된 장편소설 《트리스트램 섄디》(1760－1767)를 발표하여 유명해졌다. 이야기줄거리가 뚜렷하지 않으며 구성이 산만한 대신 현실에 대한 주인공들의 감성적인 느낌을 토로하는데 힘을 넣은 이 소설은 유럽문학에서 첫 감상주의소설로 되였다.

그는 려행기 《감상적려행》(1768)에서 프랑스와 이딸리아를 려행하면서 있은 일들을 기행과 수필형식에 담아 인간심리를 미묘하게 분석하고 감정이 내키는대로 쓰는 등 새로운 특징을 뚜렷이 보여주었다.

감상주의라는 말이 나오게 된것은 직접적으로는 이 작품의 제목과 관련되여있다.

올리버 골드스미스(1728－1774)는 아일랜드의 목사가정에서 태여나 아일랜드와 영국에서 대학공부를 하였다. 그는 의학공부를 하기 위해 1754년에 네데를란드로 건너갔다가 뜻을 이루지 못하게 되자 유럽대륙을 방랑하였으며 1756년에 런던으로 돌아왔다. 그후 그는 출판사에서 편집사업을 하다가 작가로 되였다.

골드스미스의 작품으로는 장편소설 《웨이크필드의 목사》(1766), 서사시 《황페한 마을》(1770), 희극 《호인》(1768), 《지는것이 이기는것이다》(1773) 등이 있다.

《웨이크필드의 목사》는 시골에서 마을목사로 있던 동정심 많고 사람좋은 늙은이 프림로즈일가가 겪은 불행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있다. 맏딸은 그곳 대지주에게 롱락당하고 둘째딸은 유괴당하며 가정이 파산당하고 화재까지 난데다가 주인공이 감옥에 갇히는 등 거듭되는 불행을 겪다가 고생끝에 락을 본다.

소설은 목사일가의 운명을 감상적으로 묘사하면서 그들이 당하는 불행과 고통을 눈물겹게 보여주고있다.

반면에 소설에서는 작중인물의 감정선이나 심리묘사, 주정토로들이 생활과 밀착되지 못하여 진실하지 못한감을 주며 주인공들의 운명처리도 생활적으로 타당치 못하게 한 부족점을 나타내였다.

서사시 《황페화된 마을》은 어린시절의 평화롭고 살기 좋았던 농촌마을에 대한 추억속에 고향을 찾았던 주인공이 황페화된 마을을 목격하고 느끼게 된 비애의 감정을 담은 작품이다.

서사시는 황페화된 마을의 전경을 통해 18세기 영국에서 농촌에 대한 수탈의 가혹성과 그 후과를 보여주고있다.

또한 자기들의 치부를 위해 농민들의 생활을 무참히 짓밟고 농촌을 황페화한 지주, 자본가들을 비난하고 농민들을 동정하였다.

그러나 작품은 참혹한 현실에 대한 혁명적대책이 없이 그저 특권계급을 향해 그러한 죄행을 삼가하고 공정하게 살것을 도덕적으로 설교하는데 그치고있으며 가부장적농촌생활을 리상화하고 그러한 락후한 생활에로 되돌아갈것을 설교하고있다.

번 즈

18세기 영국문학에서 특출한 자리를 차지한 사람은 빈농출신의 스코틀랜드시인 번즈이다.

로버트 번즈(1759—1796)는 스코틀랜드의 벽촌 에어셔에서 태여나 가난한 탓으로 학교에도 못가보고 마을학교 교원의 도움으로 독학하였다.

그는 농사일을 하면서 15살때부터 시를 쓰기 시작하여 27살때인 1786년에 《시집, 주로 스코틀랜드방언으로》(일명 《번즈시집》)를 출판하였다. 소박하고 생동한 방언으로 씌여진 번즈의 민요풍의 시들은 온 스코틀랜드에 알려지게 되였다.

그후 그는 시집출판으로 얻은 수입으로 자그마한 농장도 사서 경영하고 하급수세관의 관직도 얻었으나 시창작을 중단하지 않고 계속하여 농민생활을 반영한 적지 않은 시들을 내놓았다. 그러나 그는 술을 많이 마신 탓으로 건강이 나빠져 37살의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다.

그는 프랑스부르죠아혁명, 스코틀랜드와 영국에서의 민주주의운동의 앙양을 환영해나섰으며 스코틀랜드민요의 전통에 기초하여 독창적인 시들을 창작하였다.

그가 쓴 시들가운데서 당시 사회적불평등을 비판하고 자기의 존엄을 지켜가려는 인민들의 사상감정을 반영한 《청빈》, 민간가요에 새로운 내용을 담아 통치배들의 탄압을 무릅쓰고 용감하게 싸운 인민들의 투쟁정신과 강의성을 찬양한 《보리알 죤》, 대화에 대한 론쟁의 형식으로 당대사회의 불합리를 까밝힌 《두마리의 개》, 압제를 반대하고 자유애호사상을 노래한 《자유의 나무》, 우정과 사랑을 노래한 《탐글랜》을 비롯한 일련의 작품들이 잘 알려져있다.

번즈의 시는 소부르죠아적청빈사상에 머무른 제한성을 가지고있으나 농민들의 지향을 반영하고 민요형식을 받아들였으며 감정표현을 자유롭게 함으로써 영국랑만주의문학에 영향을 주었다.

디포우와 소설 《로빈슨 크루소우》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소설 〈로빈슨 크루소우〉에는 반봉건적인 계몽주의운동이 벌어지기 시작하던 18세기 구라파의 사회력사적환경과 계몽주의 사상과 운동의 진보성과 제한성이 반영되여있습니다.》

《로빈슨 크루소우》는 영국의 계몽주의작가 대니얼 디포우가 18세기초에 발표한 소설이다.

대니얼 디포우(1660년경—1731)는 청교도인 런던의 육고집 아들로 태여나 청교계렬의 신학교를 졸업하였다. 아버지는 그가 목사로 될것을 바랐으나 그는 그 뜻을 어기고 상인이 되였으며 독자적인 상사를 만들어 적극적인 무역활동을 벌렸다.

그는 1697년부터 문필활동을 벌려 신문도 발간하면서 정치계에 나서 유력한 인물로 되였다. 그 과정에 정부를 비판하는 글(《비국교도들에 대한 때이른 처분》, 1702)을 써서 화를 입고 옥에 갇히기도 하였다.

그가 소설을 쓰기 시작한것은 말년에 와서였다. 그는 60살이 다 된 때인 1719년에 장편소설 《로빈슨 크루소우》를 발표하였다. 소설은 굉장한 인기를 끌었다. 이에 힘을 얻어 그후 《씽글턴선장의 모험》(1720), 《몰 플렌더스》(1722), 《재크대좌에 대한 이야기》(1722) 등의 소설들을 련이어 내놓았다. 그러나 이 소설들은 《로빈슨 크루소우》를 릉가하지 못하였다.

그는 소설 《로빈슨 크루소우》로써 영국과 유럽문학에서 사실주의적인 근대소설발전의 길을 열어놓는데 이바지하였다.

그는 당시 유럽의 지배적인 사조였던 계몽주의사상의 영향을 받고 계몽주의작가로 활동하였다. 따라서 그의 대표작인 소설 《로빈슨 크루소우》에는 계몽주의사상의 긍정적측면과 부르죠아적 제한성이 다같이 반영되여있다.

《로빈슨 크루소우》의 원제목은 《요크출신의 선원 로빈슨 크루소우의 생애와 이상하고 놀라운 모험》이다.

소설의 기본내용은 항해중에 파산당하여 무인도에 오른 주인공 로빈슨 크루소우가 고국으로 돌아가기까지 28년동안 어떻게 살아갔는가 하는데 대한 이야기이다.

작품은 회상기형식의 기행소설로서 주인공자신이 1인칭설화자로 등장한다.

선원이 되려는 열망이 컸던 주인공은 법률가가 되기를 바라는 부모의 희망과는 달리 한 선장에게 청하여 외국으로 가는 배에 오르게 된다. 그해가 바로 1651년이였다. 그러나 도중 해적선의 습격을 받아 포로된 후 2년동안이나 노예살이를 하였다. 겨우 도망쳐 브라질에 가서 4년을 살았는데 벌이가 괜찮았다. 그는 더 많이 벌기 위해 아프리카해안으로 가려고 다시 배를 탔는데 이번

에는 무서운 폭풍을 만나 파선당하여 구사일생으로 무인도에 오르게 된다.

외롭고 쓸쓸한 무인도에 홀로 남게 된 로빈슨은 절망에 빠지지 않고 살아가기 위해 이악하게 일한다. 그는 집을 짓고 울타리를 세우며 짐승을 기르고 농사를 짓는다. 또한 필요한 살림도구와 생산수단을 만드는 등 모든것을 자체로 해결한다. 그는 비록 무인도에서 살지만 어떻게 하나 인간의 모습을 잃지 않으려고 무진 애를 쓴다.

이렇게 홀로 살아가던 로빈슨은 섬에 오른지 25년만에 다른 섬에 사는 토인들이 죽이려고 한 토인청년을 구원하여 (그에게 《프라이디》즉 금요일이라는 이름을 붙인다.)하인으로 삼는다.

그는 28년만인 1686년에 드디여 영국배를 만나 고국으로 돌아오게 된다. 그가 집으로 돌아온것은 집을 떠난지 36년만이였다.

소설에서는 주인공이 살기 위하여 여러가지 로동을 하는 이야기와 그 과정에 그가 겪은 수많은 모험에 대한 이야기가 흥미있게 전개되고있다.

소설 《로빈슨 크루소우》에는 반봉건적인 계몽주의운동이 벌어지기 시작하던 18세기 유럽의 사회력사적환경과 계몽주의사상의 진보성과 제한성이 반영되여있다.

이 소설의 사건이 당대 봉건사회현실과는 완전히 동떨어진 곳에서 펼쳐지고 주인공이 리성에 의거하여 생활을 개척해나가며 로동을 사랑하고 로동에서 놀라운 성과를 거두는 인물로 묘사된것은 다 계몽주의사상의 긍정적측면을 반영한것이다.

소설은 인간에게 있는 리성의 힘이 얼마나 큰가하는것을 잘 보여주고있다. 소설은 28년동안이나 외로운 무인도에서 살면서 자기의 리성에 의거하여 생활을 개척해나간 로빈슨의 체험과정을 생동하게 보여주면서 사람은 아무리 불행하고 비참한 처지에 빠져도 자기의 리성에 의거하여 꾸준하고 인내성있는 노력을 기울인다면 반드시 자기 앞길을 개척해나갈수 있다는것을 교훈적으로 보여주고있다.

소설은 또한 로동의 중요성을 강조하고있다. 작품은 주인공의 무인도생활에 대한 묘사를 통하여 로동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주인공이 발휘하는 완강성, 근면성, 창발성을 찬양하였다.

그밖에도 작가는 로빈슨의 성격에 인도주의적측면과 무신론적측면을 부여함으로써 식민주의자들의 원주민학살과 종교의 해독성에 대해서도 비판하고있다.

소설은 영국문학에서 처음으로 근대소설의 풍격을 갖춘 작품으로서 그 주제사상적내용에서뿐아니라 예술적면에서도 지난 시기의 작품들과는 다른 새로운 특징을 보여주었다. 그것은 중세기적환상, 우의적인 현실반영, 강한 종교적 색채 등과 같이 그 이전시기의 작품들에서 흔히 볼수 있었던 중세기문학의 잔재를 완전히 가시고 현실을 생활의 론리에 맞게 사실주의적으로 진실하고 생동하게 그려낸데서 표현되였다.

이와 반면에 소설에는 계몽주의사상의 부르죠아적제한성도 뚜렷이 나타나고있다.

소설에서는 로빈슨의 로동생활이 개인주의적이고 비현실적인 립장에서 묘사되고있다. 로빈슨은 사회와는 완전히 동떨어진 곳에서 오직 자기 자신만을 위하여 일하며 로동을 통하여 생산한 재부를 혼자서 독차지한다. 로빈슨의 로동생활같은것은 그 어떤 사회에서도 있을수 없는것이다.

소설에는 또한 로동과 자연개조에 대한 비현실적인 태도가 반영되여있다. 작가는 소설에서 누구나 자연을 개조하는 로동에 열심히 참가하면 풍부한 재부를 창조할수 있고 부유하고 행복한 생활을 누릴수 있다는 사상을 강조하면서 사회개조문제는 외면하고있다. 작가가 로빈슨의 로동생활을 찬양하면서도 사회개조문제를 외면한것은 인간의 자연적상태와 자연환경을 중요시하고 내세우던 계몽주의자들의 립장을 반영하였기때문이다.

소설에는 부르죠아지를 긍정하는 립장도 표현되여있다. 소설의 주인공은 부르죠아가정출신으로서 리해타산이 밝고 모든것을 실용주의적립장에서 대하며 돈을 벌기 위하여 집요하게 돌아치는 인물이다. 로빈슨의 성격에는 사회의 새로운 지배계급으로 등장하기 시작한 부르죠아지의 특질이 체현되여있다. 작가는 주인공의 이러한 사고와 행위를 당연한것으로 여기면서 아무런 비판도 하지 않고있다.

디포우의 소설 《로빈슨 크루소우》는 18세기의 시대적모습과 당시 유럽에서 벌어진 계몽주의운동에 대한 인식을 보다 심화시킬수 있게 하고 근대소설의 풍격을 명백히 갖춘것으로 하여 영국문학사와 세계문학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있다.

스위프트와 소설 《갈리버려행기》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소설 〈갈리버려행기〉는 영국계몽주의문학작품들가운데서 현실을 가장 날카롭게 비판한 작품의 하나입니다. 이 작품은 환상의 수법으로 흥미있게 씌여졌을뿐아니라 심각한 사회비판적내용을 담은것으로 하여 세계에 널리 알려졌습니다.》

소설 《갈리버려행기》를 쓴 스위프트는 18세기 영국계몽주의문학을 대표하는 작가의 한사람이다.

죠너선 스위프트(1667—1745)는 아일랜드의 수도 더블린에서 영국 이주민의 유복자로 태여났다. 그의 아버지는 일자리를 찾아서 영국을 떠나 아일랜드로 갔다가 그가 태여나기 몇달전에 죽었다. 그는 홀어머니슬하에서 어렵게 자랐으며 변호사인 큰아버지의 도움으로 더블린의 트리니티대학을 졸업할수 있었다.

그는 1689년에 영국으로 건너가 정계에서 은퇴한 외교관이며 정치가인 템플의 서기로 취직하여 그의 집에서 살았다. 그는 1694년에 일시 그 집에서 나와 아일랜드로 가서 목사가 되였으나 다시 이전 주인집에 돌아와 주인이 죽을 때까지 그 집에 눌러있었다.

그는 그후 아일랜드에 다시 돌아가 성직에 종사하면서 정계에 진출할 야심을 가지고 자주 런던으로 왕래하였다. 그는 당시 영국의 2대 당파였던 휘그당과 토리당에 다 관계하면서 적극적인 활동을 벌려 한때 영국정계의 중요인물로 등장하기까지 하였다. 그는 1713년에 더블린의 성 파트리크대성당 사제장으로 임명되였는데 후에 사람들은 이것을 적수들이 위험한 인물인 그를 따돌린것이라고 보고있다. 1730년대말부터 그에게 정신착란의 징후가 나타났으며 1742년에는 발광상태에 빠졌다.

그는 비록 목사였으나 계몽주의의 영향을 받고 자신의 체험을 통하여 식민지 아일랜드인민의 비참한 처지와 영국귀족부르죠아사회의 부패성을 인식한것으로 하여 진보적인 립장에서 창작활동을 벌릴수 있었다.

그가 쓴 작품으로는 영국부르죠아종교의 위선을 폭로한 풍자산문 《통이야기》(1704)와 학자들을 풍자한 《책들의 전쟁》(1704), 아일랜드인민들을 교활하게 착취하는 영국부르죠아지를 폭로한 풍자산문 《직조업자의 편지》(1724), 대표작인 장편풍자소설 《갈리버려행기》(1726)가 있다.

스위프트는 사실주의적환상수법에 의한 풍자소설을 개척함으로써 세계풍자문학발전에 영향을 주었다.

《갈리버려행기》

《갈리버려행기》는 파선당한 상선의 의사 갈리버의 환상적인 나라들에 대한 려행이야기를 통하여 18세기 초엽의 영국현실을 신랄한 풍자로 비판한 장편소설이다.

소설은 제1부 《소인국려행》, 제2부 《대인국려행》, 제3부 《날아다니는 섬나라려행》, 제4부 《말나라려행》으로 구성되여있다.

제1부에서는 갈리버가 항행중에 폭풍을 만나 파선당하고 키가 여섯치도 될가말가하여 손바닥우에 올려놓을수 있을 정도로 조그마한 사람들이 사는 나라에 표착하여 겪은 이야기를 펼쳐놓고있다. 이 나라는 영국과 마찬가지로 당파싸움이 치렬하고 이웃나라와의 전쟁이 그칠새 없었다. 그는 국왕으로부터 의식주를 보장받고 한때는 총애까지 받았으나 침략전쟁에 적극 참가하는것을 거절한것으로 하여 반역죄로 몰리웠다가 간신히 이웃나라로 탈출하여 자기 나라로 돌아온다.

제2부는 다시 항행의 길에 오른 갈리버가 이번에는 굉장히 큰 사람들이 사는 나라에 가닿는것으로부터 시작된다. 그는 한 농민에게 붙잡혀 그의 딸의 애용물이 되였다가 소문이 왕궁에까지 퍼지는 바람에 그곳에 들어가게 된다. 국왕의 요청으로 그는 영국의 정치제도와 정당들의 활동, 전쟁에 대하여 이야기한다. 이 나라 왕은 갈리버의 말을 듣고 조소하며 매우 격분한다. 어느날 바다가에 나갔던 갈리버는 자기가 들어있는 상자를 커다란 독수리가 물어가는 바람에 망망한 바다우에 떨어지게 된다. 때마침 지나가던 배가 다행히도 그를 구원한다.

제3부는 갈리버가 날아다니는 섬으로 려행하면서 체험한 이야기로 되여있다. 자석의 힘으로 날아다니는 이 섬은 《라퓨타》라고 하는데 여기서

사는 사람들은 줄곧 명상에만 잠겨있다. 그런데 여기서 갈리버는 통치배들이 공중을 나는 이섬을 타고다니면서 지상에 있는 나라들을 식민지로 만들고 그곳 인민들을 못살게 굴며 가혹하게 탄압하는것을 목격하고 몸서리친다.

제4부는 갈리버가 언어와 리성을 가진 말들(우후힘)이 사람모습을 한 야후우를 데리고 사는 나라에 머물러있으면서 체험한 일들을 보여주고 있다. 그는 말들의 보호를 받으며 살아가는 과정에 허위와 기만이 없고 매우 리성적인 우후힘들의 사회에 마음이 끌려 그곳에서 계속 살것을 희망하나 거절당하여 귀국하게 된다.

인간사회에 돌아온 갈리버는 부패한 사회에 혐오감을 품고 우후힘들이 사는 나라를 그리워한다.

이 작품은 얼핏 보기에는 환상적이고 괴이한 이야기들로 엮어진것 같지만 실상은 심각한 사회적문제성을 담고있다.

작품은 무엇보다도 당시 영국의 사회제도와 사람들의 정치, 경제, 문화, 군사생활, 생활풍습들을 다양하게 반영하면서 사회악이 가득찬 썩고 병든 귀족부르죠아사회를 신랄하게 폭로풍자하고 있다.

소설의 제1부 《소인국려행》에서 영국의 기만적인 립헌군주제와 의회제, 썩어빠진 궁정내부생활과 영국통치배들이 벌리는 식민지략탈전쟁 같은것이 풍자비판되였다면 제2부 《대인국려행》에서는 작가가 리상으로 간주하는 나라를 그리면서 그와 대치시켜 영국현실을 비판하였다. 제3부 《날아다니는 섬나라려행》에서는 세계에 수많은 식민지를 가지고있으면서 그곳 인민들을 가혹하게 압박하고 략탈하고있는 섬나라 영국통치배들을 비판하였다. 제4부 《말나라려행》에서는 영국사회에 대한 작가의 환멸과 증오심을 표현하였다.

작가는 소설에서 영국의 력대 왕들과 귀족들의 죄행과 추악한 내막을 들추어내기도 하고 황금욕, 치부욕으로 하여 빚어지는 여러가지 사회악과 돈에 의하여 좌우되는 법률제도, 영국통치배들이 감행하는 해적행위도 날카롭게 비판하였다.

작품은 또한 대인국과 말나라제도에 대한 긍정적인 묘사를 통하여 계몽주의적리상을 표현하고있다.

《갈리버려행기》는 사실주의적인 환상수법으로 씌여진 대표적작품의 하나이다. 이 작품에서는 환상수법과 풍자수법이 적절하게 결합되여 쓰이였다.

이 소설의 환상수법은 작가가 자기의 의도를 더 잘 표현할 목적으로 의식적으로 리용한것이다. 당시에는 직선적으로 사회를 비판하는 작품이 제대로 출판될수 없었으며 그러한 작품을 쓴 작가들은 탄압과 박해를 받았다. 그리하여 스위프트는 현실에 대한 비판적태도를 환상적으로 에둘러 표현하였던것이다. 그러므로 이 소설은 비록 환상적이지만 어디까지나 현실을 반영하고있는 사실주의적인 작품이다.

작품에서는 환상수법이 예술적과장과 왜소화, 희화화, 반어 등 다양한 풍자적수법과 결합되여 쓰이였다.

이 소설에는 작가의 세계관적제한성으로부터 일련의 결함도 나타나고있다.

작가는 소설에서 사회악으로 가득찬 당대 영국부르죠아귀족사회를 계몽주의적립장에서 강하게 폭로비판하였으나 이러한 현실에서 벗어날 출로를 찾지 못하고 사회발전에 대한 리해를 옳게 가지지 못한데로부터 심한 염세주의적경향을 나타냈다.

작가는 처음에 대인국과 같은 락후한 농업국가나 고대로마와 같은 공화제국가를 리상으로 제시하였으나 마감에는 《말나라려행》에서 보는바와 같이 인간과 인간사회전체에 대한 절망감을 표현하였다. 이것은 작가가 부르죠아혁명이 이미 수행된 영국의 현실을 체험하면서 계몽주의적리상이 실현될수 없다는것을 깨닫기는 하였으나 그것을 대신할 새로운 리상을 가지지 못하였다는것을 말하여준다. 계몽주의자였던 작가의 세계관으로서는 부패하고 반인민적인 자본주의현실의 모순과 사회악을 없애는 방도를 찾아낼수 없었던것이다.

작가가 소설에서 부패한 영국현실과 반동통치배들을 날카롭게 비판하면서도 그것을 반대하는 투쟁을 호소하지 못한것이라든가, 온갖 전쟁을 덮어놓고 다 반대하는 립장을 표현한것도 계몽주의사상의 제한성과 관련되여있다.

4. 도 이 췰 란 드 문 학

1) 17세기 도이췰란드문학

17세기는 도이췰란드에 있어서 매우 혼란된 시기였다. 그것은 16세기부터 종교개혁으로 인한 혼란에 빠져있던 이 나라가 17세기 30년전쟁(1618—1648)으로 더 큰 혼란에 빠져들었기때문이다.

도이췰란드는 유럽나라들가운데서 종교개혁바람이 제일 세차게 일어난 나라였다. 16세기 전반기에 루테르가 들고나온 신교와 낡은 구교세력사이의 분쟁으로 빚어진 일대혼란이 1555년 신구량파가 《아우구스부르그종교화의》에서 타협함으로써 일단 싸움이 끝난듯 하였다. 그러나 후반기에 구교세력이 예수수회라는 강력한 종교조직을 만들어 신교를 내리누르게 됨으로써 로마교회가 다시 머리를 쳐들게 되였다.

그리하여 17세기초에 신교제후련합과 카톨릭교제후련합이 대립되여 싸우다가 1618년 베멘의 신교군봉기를 계기로 국내전쟁이 터져 1648년에 화의할 때까지 30년동안이나 종교전쟁이 계속되였다.

30년전쟁은 온 도이췰란드를 대혼란속에 몰아넣었다. 포화와 략탈, 기아와 질병으로 온 나라가 황페화되고 인구의 3분의 1이 줄어들었으며 왕권은 유명무실해지고 도이췰란드땅은 300여개의 소공국으로 분렬되여 제후들, 지방령주들이 저마다 소왕노릇을 하는 무정부적인 사태가 조성되였다. 인민들은 도탄속에 빠지고 그때까지 쌓아놓은 문화의 기초도 거의다 파괴되였다.

이런 형편으로 하여 도이췰란드는 영국, 프랑스 등이 근대사회에로의 큰 걸음을 내디디고있던 시기에 매우 뒤떨어진 나라로 남아있었다. 도이췰란드에서는 자본주의적발전이 미미하게 진행되고 문화발전도 침체상태에 있었다.

도이췰란드문학 역시 18세기 중엽까지 부진상태에 있었다.

예술부문에서는 당시 교회의 공식예술로 되여있던 바로끄양식이 판을 치고있었다.

※ 바로끄란 뽀르뚜갈어로 이지러진 진주를 의미한다. 바로끄양식은 지나친 파장과 장식에 치중하고 초현실적이며 종교적인데로 기울어진것이 특징이였다.

이 표현이 문학에서도 쓰이면서 고전적인 조화가 결핍된 이 시대의 귀족문학을 바로끄문학으로, 17세기의 도이췰란드문학을 바로끄시대의 문학으로 불렀다.

부진상태에 있던 17세기 도이췰란드문학이 세계적인 작가와 작품을 배출하지 못했다는것은 두말할것도 없다. 도이췰란드문학사에 오른 작가로는 시문학에서 오피츠, 극문학에서 그리피우스, 소설에서 그림멜스하우젠이 있을뿐이다. 그나마 고전주의작가들이였던 오피츠는 군주를 칭송한 귀족시인이였고 그리피우스는 영국왕 찰즈1세의 처형을 예수의 수난과 같은것으로 묘사한 종교작가였다.

마르틴 오피츠(1597—1639)는 도이췰란드작시법의 아버지로 불리우는 시인이다. 그는 고전주의문학리론을 전개한 《도이췰란드시론》(1624)에서 엄격한 작시규범을 정하고 종래의 장단식작시법대신 력점식작시법을 제창하여 도이췰란드고전주의문학에 영향을 주었다. 그는 또한 도이췰란드와 외국군주들을 칭송한 송시, 헌시, 서사시들을 썼다. 그의 대표적인 시작품은 30년전쟁에 의한 불행을 한탄하고 전쟁을 끝장낼것을 호소한 시 《전쟁의 불행을 위로하는 노래》(1623)이다.

도이췰란드바로끄 최대의 시인, 도이췰란드비극의 선구자로 불리우는 안드레아스 그리피우스(1616—1664)는 쏘네트시를 쓴 외에 고전주의극작법에 기초하여 《페터 스크벤츠》를 비롯한 4편의 희극과 영국왕 찰즈1세의 처형을 통하여 염세적인 사상을 표현한 《카를로스 슈트아르두스》를 비롯한 5편의 비극을 발표함으

로써 도이췰란드 고전주의문학발전의 길을 개척하였다. 그후 도이췰란드의 극문학은 오래동안 빈 공백을 메꾸지 못하였다.

17세기 도이췰란드문학은 이러한 귀족시인, 종교시인과는 달리 당시 인민들의 지향을 반영한 작가와 작품도 배출하였다. 그것이 바로 그림멜스하우젠과 그의 장편소설 《씸플리찌스무스의 모험》(일명 《바보이야기》)이다.

《씸플리찌스무스의 모험》

그림멜스하우젠(1621년경－1676)은 당시 도이췰란드를 휩쓸었던 30년전쟁에 말려들어 파란곡절을 겪은 작가이다. 그는 자신의 체험에 기초하여 작품에서 30년전쟁의 참화와 고통받는 인민들의 생활을 반영함으로써 당시의 귀족문학, 바로끄문학에 맞서나섰다.

그의 대표작은 17세기 도이췰란드 최대의 소설로 알려져있는 장편소설 《씸플리찌스무스의 모험(일명 《바보이야기》)》(1669)이다.

씸플리찌스무스란 가장 단순한 사나이 또는 알짜 바보라는 뜻이다. 소설은 고아인 무식하고 순진한 주인공이 운명의 희롱으로 전쟁으로 혼란된 세상을 떠돌아다니면서 광대, 병사, 서기, 순례, 도적, 마술사 등으로 되여 갖은 체험을 겪은 후 숲속에서 은둔생활을 하게 되는 이야기를 담고있다. 작품은 황페화된 도이췰란드의 현실과 인민들이 겪는 고통과 불행을 통하여 전쟁과 순종, 사회적부정의를 비판하였다.

작품은 에스빠냐에서 류행된 악당소설형식에 당시의 시대적모습, 특히 인민생활과 풍속을 생동하게 반영하고 예리한 관찰력과 풍부한 표현력, 신랄한 풍자와 유모아 등으로 특색이 있으며 근대소설의 요소를 담은것으로 하여 도이췰란드소설에서 걸작의 하나로 알려지게 되였다.

2) 18세기 도이췰란드계몽주의 문학과 괴테, 쉴레르

18세기 도이췰란드계몽주의문학

시대적배경

17세기에 이어 18세기에 들어와서도 도이췰란드는 다른 서유럽나라들에 비하여 정치경제적으로 여전히 뒤떨어진 나라로 남아있었다.

겉으로 도이췰란드는 신성로마제국이라는 국호를 유지하고있어 하나의 봉건국가처럼 보였으나 내적으로는 지방에 할거하고있는 300여개의 소공국들의 령주들, 제후들이 군주행세를 하는 중세기적인 나라였다.

17세기 중엽 영국에서 부르죠아혁명이 승리하고 18세기말에 프랑스에서 부르죠아혁명이 일어나 이 나라들이 근대적인 자본주의적발전의 길에 들어서고있을 때 도이췰란드는 여전히 몽매한 봉건전제국가로 남아있었다.

도이췰란드는 16세기 농민전쟁과 18세기 30년전쟁으로 인하여 경제가 파괴되고 국토가 황페화되는 등 형편이 매우 어려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숱한 소공국의 공후들이 프랑스궁전의 사치한 생활을 본받아 저마다 호화로운 궁전을 짓고 방탕한 생활을 일삼은것으로 하여 인민들은 경제적빈궁속에서 벗어나지 못하였다.

이러한 속에서 도이췰란드인민들앞에는 하루빨리 분렬된 나라를 통일하고 봉건제도를 뒤집어엎으며 다른 나라들처럼 근대적인 사회를 건설해야 할 과업이 나섰다.

도이췰란드에서 계몽주의운동은 신흥부르죠아지가 정치경제적으로 취약했던 탓으로 일부 귀족부르죠아지식인들속에서 벌어졌다. 그나마 그들이 사상적으로 나약하고 정치적으로 타협적인것으로 하여 이 운동이 매우 미약하게 진행되였다. 도이췰란드계몽주의운동은 사상운동으로서보다 주로 문학운동으로 벌어졌다.

도이췰란드계몽주의문학의 발전과정을 크게 1730－1740년대 초기계몽주의문학시기, 1750－1760년대 레씽시기, 1770－1780년대 질풍노도운동시기, 그후 쉴레르와 괴테시기로 갈라 고찰할수 있다.

초기계몽주의문학

17세기의 바로끄시대에 종교에 치중되였던 도이췰란드 문단에서도 18세기에 들어와 리성을 내세우고 합리주의적인것을 지향하는 계몽주의문학이 발생하였다.

그 초기 대표자가 고트쉐드(1700－1766)였다. 라이프찌히대학 교수였던 고트쉐드는 리론저서 《도이췰란드사람을 위한 비판적시론》(1730)에서 문학은 자연의 모방이고 교화의 수

단이며 상상력은 리성의 시녀로 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바로끄적인 과장과 장식을 배척하고 도이취어를 정리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그는 또한 똑똑한 대본도 없이 저속한 광대극을 업으로 삼고있던 도이췰란드연극을 개선하기 위하여 프랑스고전주의극을 모방한 민족극을 만들려고 시도하였다.

그러나 고트쉐드는 프랑스고전주의가 제창한 합리주의를 교조적으로 받아들이고 무미건조한 형식주의에 빠짐으로써 도이췰란드계몽주의문학을 건전한 방향으로 끌고가지 못하였다.

고트쉐드의 무미건조한 합리주의적경향에 반기를 든것이 보드머, 브라이딩거 등 스위스시인들과 도이췰란드시인 클로프슈토크(1724—1803)였다.

서정시, 서사시, 희곡 등 여러 형태에서 창작활동을 벌린 클로프슈토크는 궁정문학과 고트쉐드의 계몽적고전주의문학을 반대하고 독자적인 민족문학을 창조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그의 대표작은 예수의 수난과 부활에 대한 이야기인 종교서사시 《구세주(메씨아스)》(1748—1773)이다. 작품은 비록 종교적색채가 진하나 시작품으로서의 예술적특징을 뚜렷이 보여줌으로써 도이췰란드 근대시발전의 초석으로 되였다.

이러한 성과에 기초하여 문학리론과 극문학에서 근대도이췰란드문학의 기초를 쌓은것은 레씽이였다.

레 씽

고트홀드 에프라임 레씽(1729—1781)은 신교목사의 아들로 태여나 신학을 공부하였으나 연극을 애호하여 극작가, 연극평론가로 활동하였다. 그는 전국각지를 떠돌아다니면서 고정된 직업이 없이 지내다가 41살때에야 한 공국의 도서관장이 되여 안착된 생활을 하게 되였다.

그런 속에서도 창작활동을 중단하지 않았던 그는 여러편의 희곡과 미학저서, 평론집을 내놓아 도이췰란드계몽주의문학발전에 크게 이바지하였다.

그는 소공국들로 분렬된 락후한 도이췰란드를 단일한 민족국가로 통일할것을 주장하면서 전제적봉건절대주의를 비난하고 평민들의 립장을 대변해나섰다. 그는 또한 다른 나라에 대한 맹목적인 숭배와 고트쉐드의 고전주의아류극을 반대하고 독자적인 민족극을 창조할것을 주장하였다.

그의 이러한 립장은 창작에서 뚜렷이 표현되였다.

《라오콘—또는 회화와 시의 한계에 대하여》(1766)는 고대조각 《라오콘》(큰 뱀에 감겨 죽어가는 라오콘과 그의 아들들을 형상한 조각)을 기본으로 조형예술과 문학의 형태적특징, 그 차이를 밝힌 예술론이다. 여기서 그는 생활과 유리된 고전주의미학의 도식적인 규범들을 반대하고 예술에 대한 생활의 우위를 인정하였다.

평론집 《함부르그연극론》(1767—1769)에서는 민족형성에서 연극이 노는 역할을 강조하면서 연극은 왕을 비롯한 상층귀족계층이 아니라 평민들의 생활과 감정을 재현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것은 신흥중소부르죠아지의 대변자였던 그의 계급적립장의 반영이였다. 이 책에서는 또한 프랑스고전주의극에 대한 맹목적인 숭배를 비난하고 고대그리스비극과 문예부흥기 쉐익스피어의 극문학경험에 기초하여 독자적인 민족극을 창조할것을 주장하였다.

그는 자기가 내놓은 리론을 창작에 구현하여 《자라 잠프존아가씨》(1755), 《민나 폰 베른헬름》(1767), 《에밀리아 갈로티》(1772), 《현자 나탄》(1779) 등의 희곡들을 내놓았다.

그중에서 그의 대표작으로 된것은 《에밀리아 갈로티》이다.

희곡은 녀주인공 에밀리아 갈로티의 비극적운명을 통하여 봉건령주들의 폭정을 폭로비판한 작품이다.

희곡의 사건은 도이췰란드 소공국의 하나였던 구아스탈라에서 벌어진다. 령주 곤차가는 어느날 산간벽지에서 자라난 마음씨 곱고 도덕적으로 순결한 처녀 에밀리아 갈로티의 모습을 보고 나쁜 마음을 먹게 된다. 아첨쟁이인 시종장 마리넬리는 강도들을 매수하여 신부 에밀리아 갈로티와 신랑 아피아니백작의 결혼식행렬을 습격하여 신랑을 살해한다. 그리고는 신부를 구원하여 령주의 별궁으로 데려간다. 에밀리아의 아버지 오도아르도대좌가 령주의 애인 오르씨나의 통보를 받고 그곳으로 달려간다. 에밀리아는 자기가 령주의 손탁에서 벗어날수 없음을 깨닫고 아버지더러 자기를 죽여달라고 애원한다. 아버지는 눈물을 머금고 단도로 딸을 찌르며 처녀의 주검앞에서 놀라는 령주를 신

랄히 규탄한다.

작품은 에밀리아의 비극적운명을 통하여 일신의 향락과 탐욕을 위해서라면 그 어떤 파렴치한 짓도 서슴지 않는 령주의 잔인무도한 행위를 신랄히 비판하였다. 희곡에서는 이러한 압제에 굴하지 않고 항거하는 평민들을 대치시키고 귀족에 대한 평민의 정신도덕적우월성을 강조하였다.

희곡은 이러한 계몽주의적인 사상적내용과 고전주의극의 도식에서 벗어나 뚜렷하게 개성화된 인물성격, 극적긴박감의 조성 등 근대극의 특징을 보여줌으로써 도이췰란드계몽주의문학발전에 이바지하였다.

질풍노도 운동

18세기 1770－1780년대는 도이췰란드문학에서 질풍노도(슈트름 운트 드랑그)운동이 벌어진 시기이다.

질풍노도운동은 봉건전제주의를 반대하는 부르죠아급진주의자들의 문학운동이였다. 질풍노도라는 말은 이 운동의 대표적인물의 한사람인 클린게르의 희곡 《질풍노도》(1776)의 이름을 딴것이다.

헤르데르의 저서 《최근 도이췰란드문학에 대한 단상》, 《비평집》 등에 미학적기초를 두고있는 이 운동의 중요한 특징은 그 열렬한 반전제주의적폭동사상에 있다.

클린게르(1752－1831), 헤르데르(1744－1803), 뮬레르(1749－1825), 뷔르게르(1747－1794), 렌쯔(1751－1792), 와그네르, 슈바르트, 쉴레르, 청년시절의 괴테 등 이 운동의 참가자들은 자기들의 작품에서 도이췰란드 봉건전제주의에 대한 폭동적사상을 구현하였다. 이들의 작품에 구현된 반전제주의적폭동사상은 주로 도이췰란드의 락후한 중세기적봉건질서의 불합리와 봉건통치배들의 전횡에 대한 반항, 농민과 도시소부르죠아지들의 비참한 생활에 대한 동정을 통하여 표현되였다.

이와 함께 이 운동의 참가자들은 상류귀족계층의 저속한 취미와 기호를 반영한 현실도피적이고 형식주의적인 시가와 프랑스의 고전주의 등 고루하고 도식적인 창작경향과 규범들을 배격하고 감정을 내세웠으며 천재들에 대한 숭배를 고취하였다.

그들은 또한 창작에서 력사와 예술의 전통, 인민시가와 인민들의 일상적인 언어에 관심을 돌리였다.

클린게르의 희곡 《질풍노도》, 쉴레르의 희곡 《도적들》, 괴테의 희곡 《괴쯔 폰 베를리힝겐》과 소설 《젊은 웨르테르의 번민》 등은 이 운동의 사상적경향을 뚜렷하게 반영하고있는 대표적인 작품들이다.

이 운동은 당시의 비참한 도이췰란드현실을 개혁할 뚜렷한 정치적목표를 내세우지 못하고 자유에 대한 주장과 반봉건적항거에서 극단한 개인주의에 기초하고있으며 흔히 감상주의적경향을 띠고있었다.

질풍노도운동은 이러한 제한성을 가지고있었지만 새로운 사상적내용과 형식, 미학사상으로 하여 당시로서는 진보적인 역할을 하였으며 도이췰란드민족문학창조에 이바지하였다.

질풍노도운동의 중심을 이룬것은 젊은 시절의 괴테와 쉴레르였다. 괴테와 쉴레르는 질풍노도운동시기에 두각을 나타내고 그후 18세기 도이췰란드계몽주의문학의 대표적인 작가로 되였다.

쉴레르와 극문학

생애와 창작활동

쉴레르(흔히 《쉴러》로 불리우고있다.)는 괴테와 함께 18세기 도이췰란드계몽주의문학을 대표하는 2대작가의 한사람이였다.

요한 프리드리히 폰 쉴레르(1759－1805)는 도이췰란드 남부 슈와벤지방의 소도시 마르바하에서 하급장교(군의)의 아들로 태여났다. 그가 태여난 소공국 뷔르템베르그의 령주 칼 오이겐은 대국의 국왕처럼 부귀영화를 추구하여 인민들을 가혹하게 억압착취한 무서운 폭군이였다.

남달리 총명한것으로 하여 령주의 눈에 든 쉴레르는 령주가 경영하는 칼학원에 입학하여 처음에는 법률을, 후에는 의학을 공부하였다. 이 학원에서는 엄격한 군대식규률이 지배하여 학생들의 자유애호사상을 구속하고있었다. 병영과 같이 숨막히는 학원에도 질풍노도운동의 바람이 스며들어와 그 영향밑에 그는 봉건전제적폭압에 대한 증오심을 품고 학생시절부터 포악한 군주에 대한 반항정신을 담은 시와 희곡을 쓰기 시작하였다.

그는 1780년에 학원을 졸업하고 슈투트가르트의 련대견습군의로 배치되면서 학생시절에 시작했던 희곡 《도적들》(1781)을 자체비용으로 출판하였다. 이 희곡은 만하임극장에서 공연되여 커다란 사회적반향을 불러일으켰으며 이로 하여 그의 이름은 널리 알려지게 되였다. 그러나 얼마 못 가 작품이 담고있는 봉건령주의 압제와 전횡에 대한 강한 반항정신으로 하여 공연이 금지당하고 창작도 금지당하였다.

그후 그는 군대에서 탈출하여 만하임, 드레즈덴 등 전국각지로 떠돌아다니였다. 그는 어려운 생활을 계속하는 가운데 《게누아에서의 피에스코의 음모》(1784), 《간계와 사랑》(1784)과 같이 봉건전제제도의 모순을 폭로한 희곡들을 썼다. 이 작품들에서 그는 도이췰란드의 민족적통일에 대한 지향과 봉건적전횡과 압제가 없는 공화주의제도에 대한 리상을 표현하였으나 주인공을 모두 비극적운명의 체현자로 그리거나 모순으로 찬 현실과 타협하는 길로 나가는것으로 형상하였다. 이것은 신흥부르죠아지의 사상을 대변하고있던 작가의 세계관, 즉 소시민적제한성에서 나온것이며 당시로서는 락후한 봉건제도를 뒤집어엎을만 한 새로운 사회적력량이 아직 준비되지 못하였던 사정에 기인한것이였다.

그의 이러한 사상적모순은 희곡 《돈 까를로스》(1787)에서처럼 현실이 계몽된 군주에 의한 우로부터의 개혁으로써 고쳐질수 있으리라고 믿은데서도 나타났다. 그 이후시기 그의 창작에서는 질풍노도의 강한 열정과 반항정신이 식어지고 리상주의적경향이 진하게 나타났다.

1787년에 당시 계몽주의문학운동의 중심지였던 와이마르에 거처를 옮긴 그는 괴테의 추천으로 예나종합대학 직외교수가 되여 겨우 안착된 생활을 하였다. 얼마동안 창작에서 물러나 력사와 고대그리스문화의 연구에 몰두하던 그는 거기서 압제와 전횡이 없고 인간의 조화로운 발전이 보장되는 그 어떤 리상적인 사회를 찾아보려고 하였다.

그는 18세기말 프랑스부르죠아혁명을 환영하였으나 후에 와서는 그 폭동적성격에 겁을 먹고 멀리하게 되였다. 그는 폭력적인 사회개조를 반대하고 예술이 사회개조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인정하면서 차별과 압제가 없는 행복한 사회를 건설하려면 사람들을 미적교양으로 개조해야 한다는 리론을 내놓았다.

그는 1799년말 와이마르의 괴테의 저택부근에 이사하여 살다가 6년후에 생애를 마쳤다.

그 집은 지금 쉴레르박물관으로 꾸려졌다.

그는 생애말년에 페병으로 모진 고통을 당하면서도 거의 해마다 희곡을 창작하여 내놓았다. 그가운데서 30년전쟁을 통하여 봉건적압제와 속박을 반대하는 사상을 표현한 3부작희곡 《왈렌슈타인》(제1부 《왈렌슈타인의 진영》 1798, 제2부 《핏콜로미니》 1799, 제3부 《왈렌슈타인의 죽음》 1799), 애국주의사상을 고취한 비극 《오를레앙의 처녀》(1801), 반침략애국사상을 표현한 희곡 《윌헬름 텔》(1804) 등이 잘 알려져있다.

그의 극작품들에는 작가의 사상이 주인공들의 격동적인 주정토로와 대화로 표현되는것이 특징적이였다. 이로부터 그의 작품들은 강한 정치적호소성을 띠는 반면에 현실이 다면적으로 묘사되지 못하고 흔히 작가의 사상이 직선적으로 표현되는것과 같은 약점을 나타내였다.

쉴레르의 창작은 자유애호사상과 더불어 민족적통일에 대한 지향, 사실주의적묘사 등으로 하여 도이췰란드계몽주의문학, 특히 극문학발전에 크게 이바지하였다.

그의 희곡들가운데서 대표적인것이 《도적들》과 《윌헬름 텔》이다.

《도적들》

《도적들》은 질풍노도운동의 열렬한 폭동정신을 구현한 계몽주의희곡이다.

희곡은 전제주의적소공국들에서 봉건령주들의 폭행이 판을 치고있던 18세기 후반기 도이췰란드사회를 시대적배경으로 폭압과 략탈, 기만으로 가득찬 봉건전제주의를 반대하여 일떠선 하층인민들의 반항을 보여주고있다.

늙은 백작 모오르에게는 두 아들 칼과 프란츠가 있었다. 맏아들 칼은 외지에 나가 공부하고있었고 동생 프란츠는 아버지의 령지에 남아있었다.

둘째인것으로 하여 아버지의 상속권을 넘겨받을수 없다는데 불만을 품고있던 프란츠는 형이 집에 없는 기회에 그를 모해할 음모를 꾸민다. 프란츠는 칼이 난봉을 피우며 돌아다니다가 4만금의 빚을 졌으며 게다가 살인죄까지 저지르

고 행적을 감추었다고 아버지에게 거짓말한다.

이 음모로 하여 아버지의 사랑을 잃고 애인을 빼앗긴 칼은 사회의 온갖 속박에서 벗어나기 위해 보헤미야산림속에 들어가 도적단의 두령이 된다. 그의 도적단은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을 해치는 봉건관료들과 승려나부랭이들을 족치는 의로운 일을 한다.

칼은 프란츠를 복수하기 위하여 아버지의 령지로 쳐들어간다. 궁지에 빠진 프란츠는 목을 매고 자살한다. 칼은 아버지와 애인 아밀리아를 구원한다. 가지 말라고 자기의 앞길을 막으며 매달리는 아밀리아를 도적단의 규률에 따라 찔러죽이기까지 한 칼은 자기 혼자의 힘으로 세상을 바로잡으려고 한것이 어리석은짓이였음을 깨닫고 칼과 총을 내던진다.

보헤미야의 맹세를 어긴 칼은 도적들에게 잡힌다.

작품에서 주인공 칼은 봉건적인 침체와 부정의를 반대하여 일떠선 폭동아로 형상되였다. 그는 비록 뚜렷한 사회적리상을 가지고있지 못하였으나 도이췰란드전제주의가 빚어낸 모든 사회악을 반대하는 정신만은 뚜렷하였다. 이런 의미에서 그의 행동은 순수한 도적과 구별되였다.

칼의 운명은 울분과 정열에 휩싸여 질풍노도처럼 줄달음치면서 개인테로의 방법으로 폭군들에게 징벌을 가하려고 하였으나 그 출로를 찾지 못하고 좌절당하고마는 당시 70년대 폭동자들의 운명 그대로이다.

작품은 칼과 그 동료들의 형상을 통하여 도이췰란드의 전제주의적현실을 폭로하고 그것을 개조하기 위한 폭동정신을 구현하고있다.

작품은 또한 당시 봉건제도의 중요한 사상적기둥으로 되고있던 교회와 그 교리를 폭로비판하고 있다. 작품에서 종교적법규를 반대하여 중놈을 처단하는 주인공의 행동은 이 작품의 반종교사상을 뚜렷이 확증해주고있다.

작품은 작가의 계몽주의적세계관의 미숙성으로 하여 부르죠아적인도주의를 내세운데 머물고있으나 그것이 거둔 사상예술적성과는 근대 도이췰란드민족문학의 형성에 영향을 주었다.

《윌헬름 텔》

《윌헬름 텔》은 13세기 스위스의 윌헬름 텔전설에 기초하여 오스트리아강점자들의 압제를 반대하는 스위스인민들의 투쟁을 반영한 작품이다.

오스트리아황제의 대리인인 성주 게쓸러를 비롯한 강점자들의 지배와 압박밑에서 말할수 없는 불행과 고통을 당하던 스위스인민들앞에는 그것을 그대로 참고 노예로 살아가느냐 아니면 자유를 위해 일어나 싸우느냐 하는 두 갈래의 길이 나서게 된다. 여기서 그들은 투쟁의 길, 침략자, 압제자들을 몰아내기 위한 폭동의 길을 택한다.

뤼틀리에 모인 스위스의 세개주 대표들은 일치하게 폭동을 일으킬것을 결정하고 동맹을 맺는다.

이 폭동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것은 이름난 사냥군 윌헬름 텔이였다. 세상을 등지고 산속에서 살던 텔은 어느날 봉기에 대한 소식을 알려고 아들을 데리고 거리로 내려왔다가 게쓸러에게 걸려들었다. 장대끝에 걸어놓은 오스트리아황제의 모자에 절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 그를 체포한 게쓸러는 텔에게 80보의 거리에서 아들의 머리우에 올려놓은 사과를 활로 쏘아맞히라고 하면서 사과를 맞혀야 돌려보내겠다고 위협한다. 게쓸러는 텔이 사과를 명중시켰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화살 2개를 가지고 나간것을 트집잡아 그를 체포하여 류배살이를 보낸다.

배에 실려 섬에 끌려가던 도중 폭풍을 리용하여 탈출하는데 성공한 텔은 산에 올라 게쓸러가 지나갈 길목을 지키고있다가 활로 그놈을 쏘아죽인다.

이를 계기로 스위스인민들은 곳곳에서 봉기를 일으키고 용감히 싸움으로써 오스트리아침략자들을 몰아내고 드디여 잃었던 자유를 찾게 된다.

작가는 이러한 이야기와 특히 주인공 윌헬름 텔의 형상을 통하여 자유를 잃고 노예로 사느니보다는 용감하게 싸우다 죽는것이 낫다는 자유애호사상을 표현하였다. 그리고 도이췰란드사람들도 스위스사람들처럼 침략자와 압제자를 반대하여 용감히 싸워야 한다고 호소하였다.

희곡이 제기한 이러한 사상은 그 당시 봉건제도와 봉건적분권주의를 반대하는 반봉건투쟁과 함께 나뽈레옹의 침략을 막기 위한 반침략투쟁과 업이 나섰던 도이췰란드의 시대적요구에도 부합되였다.

그러나 희곡에는 선량한 왕과 귀족에 대한 환상이 표현되였으며 주인공의 형상에서 추상적이고 도식적인 측면과 장면설정에서 부자연스럽고 인위적인 제한성도 나타났다.

이러한 제한성과 예술적약점이 있으나 희곡 《윌헬름 텔》은 외래침략자들을 반대하는 인

민들의 투쟁을 반영한것으로 하여 유럽계몽주의문학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며 도이췰란드사실주의문학발전에 이바지하였다.

괴테와 《파우스트》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세계적으로 우수한 문학작품은 민족적특성을 가지면서도 해당 시대 인류의 진보적문학이 이룩한 성과와 경험을 반영하고있습니다.》

《파우스트》는 18세기 후반기부터 19세기 30년대초까지 창작활동을 벌린 도이췰란드의 이름난 작가 괴테의 대표작이다.

쉴레르와 함께 18세기 도이췰란드문학계를 대표하는 작가인 괴테는 18세기뿐아니라 도이췰란드 최대의 작가로, 단떼나 쉐익스피어와 같은 급에 놓이는 세계적인 문호로 알려져있다.

생애와 창작활동

요한 월프강 폰 괴테(1749－1832)는 도이췰란드 서부에 있는 자유도시 프랑크푸르트의 부유한 부르죠아가정에서 태여났다.(이 도시는 봉건령주의 지배를 받지 않는 제국직속도시였는데 당시 도이췰란드황제의 지배력이 약했으므로 실지로는 독자적인 자유도시로 되여있었다.) 아버지는 법률가이고 시참사였으며 어머니는 시장의 딸이였다.

그는 고향도시의 자유로운 분위기속에서 충분한 가정교육을 받은 후 도이췰란드의 라이프찌히와 프랑스의 스뜨라스부르대학들에서 법학을 공부하였으며 동시에 철학과 문학, 자연과학에 대한 지식도 폭넓게 섭취하였다. 이 시기에 그는 범신론적유물론의 영향을 받았다.

1771년에 학업을 마친 그는 고향도시에 돌아와 변호사사무소를 개업하면서 문학창작에 몰두하였다. 그는 봉건전제주의를 반대하는 부르죠아청년들의 문학운동이였던 질풍노도운동에 참가하여 《프로메테우스》를 비롯한 서정시들과 희곡 《괴츠 폰 베를리힝겐》, 소설 《젊은 웨르테르의 번민》과 같은 많은 작품들을 련이어 써냈다.

이러한 작품들에는 당시 수많은 소공국들로 분렬되여있고 정치경제적으로 뒤떨어진 도이췰란드의 락후한 현실과 봉건적압제에 대한 부르죠아청년층의 반항정신, 급진주의적기분이 반영되였다. 또한 여기에는 고전주의의 도식적인 규범을 반대하고 사실주의적인 문학을 창작하려는 지향도 표현되였다.

특히 16세기 도이췰란드농민봉기를 형상한 《괴츠 폰 베를리힝겐》(1773)에는 작가의 반봉건정신이 강하게 나타났으며 감상주의적작품인 《젊은 웨르테르의 번민》에는 봉건적전제주의가 지배하던 도이췰란드의 암담한 현실과 새로 형성된 부르죠아지의 나약성이 반영되였다.

이러한 작품들로 하여 벌써 20대에 이름난 작가로 알려진 괴테는 1775년 26살때 와이마르공작의 초빙으로 와이마르로 가게 되였다. 처음에는 일시적인 체류예정이였으나 결국은 그곳에 머물고말았다. 와이마르공국은 인구 10만밖에 안되는 소국이였으나 당시 도이췰란드계몽주의문학의 중심지로 되였다. 그때부터 10년간 그는 추밀고문관, 대신, 재상(내각수반) 등 요직에 있으면서 창작활동은 얼마 하지 못하였다.

이 시기 그의 세계관에서는 계급적제한성이 더욱 로골적으로 나타났다. 그는 1786－1788년 이딸리아려행을 계기로 고대예술의 조화와 균형을 맹목적으로 동경하였고 사람들의 도덕적교양에 의하여 사회의 진보를 이룩할수 있다고 그릇되게 주장하였다. 이때부터 그의 창작에서는 이전의 현실부정과 항거의 정신이 사라지고 인간의 도덕적완성과 같은 문제들을 취급하게 되였다. 그가 이 시기에 창작한 비극 《타우리스의 이피게니에》(1787), 《에그몬트》(1788), 《또르콰또 땃쏘》(1790)들에는 작가의 이러한 제한성이 반영되였다.

그후 괴테는 창작활동을 정열적으로 벌림으로써 성과작들을 많이 내놓았다.

서사시 《헤르만과 도로테아》(1797), 장편소설 《윌헬름 마이스테르》와 《친화력》(1809), 극시 《파우스트》, 시집 《서동시집》(1819), 저서 《시와 진실》(1833 발표) 등이 그러한 작품들이다.

괴테는 이밖에 수많은 서정시들을 창작하였는데 그가 창작한 일부 시들은 후에 인민가요로 불리워졌다. 《들장미》, 《환영과 리별》, 《5월의 노래》, 《나그네》, 《겨울의 하르츠기

행》, 《어부》, 《나그네의 밤노래》, 《마왕》 등이 그 대표적인 작품들이다.

그는 인민구두어를 자기 창작에서 잘 살리면서 도이췰란드문학어를 세련시키고 풍부화시키는데도 이바지하였다.

범신론적유물론사상으로 일관된 괴테의 계몽주의적창작은 도이췰란드력사발전의 특수성과 작가의 현실타협적립장에서 오는 제한성을 가지고있으나 도이췰란드 근대민족문학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였다.

괴테의 대표작은 극시 《파우스트》이며 이와 함께 중편소설 《젊은 웨르테르의 번민》과 장편소설 《윌헬름 마이스테르》가 널리 알려져있다.

《젊은 웨르테르의 번민》

중편소설 《젊은 웨르테르의 번민》(1774)은 18세기 후반기 부르죠아혁명전야의 도이췰란드현실을 시대적배경으로 봉건전제제도의 옹호자인 귀족들을 폭로비판하고 소부르죠아인테리들의 사상과 기분을 반영한 작품이다.

주인공의 편지와 일기로 구성되여있는 작품은 다정다감한 평민출신청년 웨르테르의 비극적인 사랑이야기를 기본내용으로 하고있다.

대학에서 법률을 배우고 법무관계의 일을 하고있던 웨르테르는 유산상속사건을 해명하기 위하여 한 촌락에 갔다가 그곳에서 사는 법관 S씨의 딸인 리지적이며 순박하고 활동적인 처녀 샤를로테를 알게 되여 그를 열렬히 사랑하게 된다. 그러나 샤를로테는 이미 다른 남자와 약혼한 사이였다.

후에 샤를로테가 결혼했다는 소식을 듣고 주인공은 비관과 절망에 사로잡힌다. 게다가 웨르테르는 평민출신으로서 이 지방의 공사를 비롯한 상류사회의 각계층 인물들속에서 멸시와 조소를 받는다. 웨르테르는 실패한 사랑의 번민과 천박한 출세욕에 피눈이 되여 날뛰는 자들의 압력에서 벗어나지 못한채 그들에 대한 증오심과 격분의 감정을 안고 권총자살한다. 웨르테르의 죽음에 대한 비통한 소식을 들은 샤를로테는 기절한다.

소설은 비록 비극적사랑이야기를 취급하고있지만 사회적인습에 대한 반항정신을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그러한 사상은 공사를 비롯한 귀족들을 인간쓰레기로, 새것을 반대하는 보수주의자로, 력사의 오물로 형상하면서 주인공을 그와 대치시키고있는데서 잘 표현되고있다.

또한 소설에는 부르죠아혁명전야의 부르죠아지의 시대적모습이 사실주의적으로 반영되여있다. 웨르테르의 성격속에는 봉건전제주의를 반대하면서도 자체의 나약성으로 하여 그앞에 굴복하고만 당시 부르죠아지의 특성이 생동하게 구현되여있다. 웨르테르는 자기의 리상과 현실과의 모순으로 하여 심각한 고민을 하면서도 그 부정적인 현실을 반대하여 적극적인 투쟁을 벌리지 못하며 개인문제해결에서도 자살이라는 비극적인 출로를 찾는다.

이처럼 웨르테르의 형상에는 당시 도이췰란드에서 발생하고있던 부르죠아계급의 반봉건적성격과 융케르귀족의 위압에 억눌려 굴복하고마는 부르죠아출신인테리들의 일반적성격이 반영되여있다. 소설은 봉건전제주의자들에 대한 신흥부르죠아지의 정신도덕적우월성을 보여주고 평범한 인간의 감정세계를 개방하였으며 도시생활보다 목가적인 전원생활묘사에 치중하고 서한체형식을 취한것 등 감상주의적인 소설의 특징을 뚜렷이 보여주었다.

소설은 인간생활의 참다운 가치를 개인생활, 이성에 대한 사랑에서 찾는 부르죠아적인생관을 비롯하여 성격형상에서 부르죠아적사상감정을 드러내고있으나 반전제주의적인 기운을 보여준것으로 하여 도이췰란드문학사에서 뚜렷한 자리를 차지하고있다.

《윌헬름 마이스테르》

《윌헬름 마이스테르》(흔히 영어식으로 《윌헬름 마이스터》로 부르고있다.)는 제1부 《수업시대》(1796), 제2부 《편력시대》(1829)로 구성되여있는 2부작장편소설이다.

소설은 작가가 그 완성에 무려 50년세월을 바친 력작으로서 《파우스트》와 함께 괴테의 이름난 대표작의 하나로 되고있다.

작품은 주인공의 인간수업과 편력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통하여 사회앞에서의 인간의 의무와 조화로운 인간육성문제에 대한 작가의 계몽주의적리상을 예술적으로 피력하고있다.

부유한 상인의 아들로 태여난 주인공 윌헬

름은 사회앞에서의 인간의 의무를 깨닫고 조화로운 인간으로 자라나는 과정에 술한 수업과 편력기간을 거친다. 초기에 윌헬름은 한 녀배우와의 사랑에 미쳐 돌아가는 철없는 청년에 불과하였다.

그러던 그는 연극에 마음이 끌려 극단을 뭇고 순회공연을 하기도 하며 귀족사교계에 출입하여 귀족생활의 내막도 알게 된다. 그러한 과정에 연극활동과 귀족생활에 다 싫증을 느끼고 한때 종교에 빠지기도 한다.

윌헬름은 새로운 농장경영법으로 얻은 수입을 소작인들에게 나누어주는 귀족 로탈리오, 장원일에 몸을 잠그는 그의 애인 테레제와 같이 실천적인 활동을 하고있는 사람들을 알게 되며 그들에게 끌리게 된다. 윌헬름은 그들을 통하여 이전에 부상을 입었던 그를 구원해준 백마의 귀부인 나탈리에와 만나게 되여 그와 결합된다.

이무렵 펠릭스라는 소년이 그앞에 나타났는데 그 소년이 이전에 자기와 사랑을 맺었던 녀배우가 낳은 자기의 아들이라는것을 알게 된 윌헬름은 그를 자기 아들로 인정하고 말아 키운다.

윌헬름은 인간수업을 계속하기 위해 안해를 남겨두고 아들과 함께 새로운 편력의 길에 오른다.

이번 길에서 그는 실천활동으로 행복을 얻고 사회에도 이바지하고있는 여러가지 류형의 사람들을 만나게 된다. 그가운데는 알프스산속에서 로동을 하면서 살아가는 신앙심이 높은 목수 요세프, 기술로써 인류에 공헌할것을 바라는 레나르도, 자기 장원을 리상적으로 꾸리고있는 레나르도의 백부와 같은 사람들이 있다.

이 과정에 윌헬름은 과도한 수양이나 지나치게 다방면적인 활동에 치우칠것이 아니라 한가지라도 똑똑한 일을 하는것이 사회에 이바지하는 길이라는것을 깨닫고 자신도 외과의사가 될 결심을 다지게 된다.

또한 그는 《교육주》라고 불리우는 학원을 알게 되여 사회를 위해 복무하면서도 개인의 리익을 살리고있는 이 학원의 교육내용에 공감하면서 아들의 교육을 이 학원에 맡긴다.

윌헬름은 마감에 신대륙인 미국에 이주하여 구대륙인 유럽에서는 볼수 없는 리상적인 사회를 건설하려는 집단을 만나 그에 공감하며 자신도 미국에 건너갈 준비를 한다.

소설은 당시 시대사조였던 계몽주의사상에 기초하여 사회앞에서의 인간의 의무문제를 제기하면서 무위도식하는 귀족들을 비판하고 로동의 의의를 강조하였으며 사람이 조화로운 존재로 되려면 일정한 직업을 가지고 근면하게 일해야 한다는 사상을 밝히였다. 소설은 또한 프랑스부르죠아혁명과 산업혁명과 같이 당시에 일어난 력사적사변들을 반영함으로써 그 시대를 잘 알수 있게 하고있다.

소설은 수많은 인물성격을 생동하게 창조하고 그들의 심리적움직임을 섬세하게 그려냈으며 세태묘사를 선명하게 하고 서정성과 서사성을 밀접히 결합함으로써 사실주의적인 근대소설의 풍격을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이와 반면에 소설은 봉건을 반대하는 부르죠아혁명이 일정에 오른 시기에 근본적인 사회개조문제를 외면하고 현실과 타협하면서 개인적인 수양과 로동문제에 국한시키고 수공업적인 공동체에 의한 리상사회건설을 꿈꾸는것과 같은 사상적제한성을 드러냈다. 소설은 삽입된 이야기와 일기, 편지 등이 지나치게 많은것으로 하여 줄거리가 뚜렷하지 않고 구성이 산만하며 신비주의적요소가 있는것과 같은 예술적약점도 가지고있다.

이러한 제한성이 있으나 작품은 그것이 거둔 사상예술적성과로 하여 도이췰란드문학에 특징적인 교양소설의 최고봉으로, 《파우스트》와 쌍벽을 이루는 괴테의 대표작으로, 도이췰란드소설의 걸작으로 널리 알려졌으며 후세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파우스트》

파우스트는 15～16세기경에 도이췰란드에 실재했다고 전해지고있는 전설적인 마술사이다. 어릴 때부터 인형극을 통해 파우스트의 모습에 친숙해진 괴테는

파우스트이야기를 희곡화하려는 구상을 가지고 짬짬이 《초고 파우스트》(1775), 《파우스트 단편》(1790), 극시 《파우스트》 제1부(1808), 제2부(1831)를 썼다. 그리하여 《파우스트》는 시작부터 계산하면 그 창작기간이 60여년이나 되였다.

《파우스트》는 봉건사회로부터 자본주의사회에로 이행하던 시기를 배경으로 진리를 탐구하기 위한 주인공 파우스트의 형상을 통하여 괴테의 계몽주의적리상을 보여준 작품이다.

일생을 과학탐구에 바쳐온 늙은 파우스트박사는 지식에 대한 한생의 탐구도 자신을 정신적으로 만족시켜주지 못한 사실에 절망하여 자살까지 기도했다가 겨우 자신을 다잡는다. 그는 인간생활의 의미를 리해하기 위하여 생활속으로 들어갈것을 결심한다.

이때 인간생활의 보람과 의의를 부정하는 부정과 의혹의 화신인 악마 메피스토펠레스가 나타나 파우스트와 인간과 생활의 의의에 대한 론쟁을 벌린다. 파우스트는 인간의 희망은 끝이 없고 만족을 모르나 그것은 반드시 성취될수 있으리라고 말한다. 이와는 달리 메피스토펠레스는 파우스트의 주장을 잡꼬대로 일축하면서 인간의 만족은 미래보다도 순간의 쾌락에 있다고 주장하며 원한다면 파우스트에게도 그러한 만족을 가져다주겠다고 장담한다.

인생을 처음부터 다시 체험함으로써 인간이란 무엇이며 인간에게서 생의 의의가 어디에 있는가를 알아내려는 결심밑에 파우스트는 메피스토펠레스가 자기의 요구를 다 들어주는 대신 자기가 만족을 느끼는 순간에 자기의 넋을 넘겨주겠다는 약속을 한다.

메피스토펠레스를 따라나선 파우스트는 마녀의 부엌으로 가서 마약을 먹고 청춘으로 되살아난 다음 세상을 두루 돌아보게 된다.

그는 먼저 거리에서 만난 아름답고 순진한 처녀 마르가레테(그레트히엔)와의 사랑을 성취하면 그이상 행복한 일은 없으리라고 생각한다. 메피스토펠레스의 도움으로 처녀와의 사랑이 실현되였으나 마르가레테는 곧 애기를 죽게 한 죄로 처형된다.

그후 주인공은 프랑스의 베르싸이궁전에 체류하면서 부귀영화도 누려보고 마술의 힘으로 고대의 최고미인이라고 하는 헬레네를 불러내여 결혼하기까지 하나 여전히 만족하지 못한다.

오랜 생의 로정과 진리탐구과정에 다시 백발의 고령이 되였지만 원기왕성하게 계속 진리탐구의 길을 걷던 파우스트는 드디여 바다와 땅을 개간하여 새 왕국을 건설하는 사람들의 로동속에서 생의 의의와 보람을 느끼며 크나큰 행복과 환희에 충만된다. 그 순간에 그는 그 자리에 쓰러져 죽는다.

그는 비록 죽었지만 그의 목적이 실현됨으로써 작품은 락천적으로 끝난다.

작품은 주인공 파우스트의 형상을 통하여 인류를 위한 로동속에 인간의 행복과 리상이 있다는 계몽주의적사상을 밝히고있다.

작품은 또한 메피스토펠레스의 형상을 통하여 인간생활의 고상한 목적과 의의를 부정하면서 무의미한 향락과 쾌락만을 주장하는 모든 비속한 인간들, 당시 도이췰란드의 귀족주의적반동철학과 염세주의를 비판하고있다.

작품은 이 두 인물의 대조적인 형상을 통하여 염세적이며 비관적인 반동철학에 대한 락관주의와 생활긍정의 열정을 체현한 계몽주의철학의 승리를 확인하였다.

또한 봉건제도의 부패한 현실을 비판하고 왕이나 승려들에 대하여 조소와 멸시를 표시하였으며 부르죠아지의 금전욕에 대하여 비판적태도를 보여준것 등 진보적인 측면을 보여주었다.

작품은 작가의 긍정적인 리상과 주장들이 심히 초계급적인 립장에서 제시되고 반봉건적립장도 매우 불철저하게 표현되고있으며 형상이 몹시 추상화되고있는것과 같은 제한성을 가지고있으나 당시로서는 진보적인 계몽주의사상을 구현하고 그를 체현한 주인공의 형상을 창조함으로써 도이췰란드계몽주의문학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5. 북 유 럽 과 동 유 럽 문 학

1) 북유럽문학

문예부흥기에 뒤이어 17—18세기에 서유럽에서 문학이 발전하고 세계적인 작가들과 작품들이 배출되고있을 때 북유럽에서는 문학이 여전히 부진상태에 있었었다.

그것은 북유럽나라들의 력사 및 문화발전의 특수성과 관련되여있었다.

북유럽 5개 나라들가운데서 핀란드는 13세기부터 19세기초까지 스웨리예에 통합되여있었으며 이슬란드는 노르웨이에 합병되여있었다. 핀란드에서 독립운동이 활발히 벌어지면서 자기 나라 말로 된 민족문학을 창조하려는 기운이 높아진것은 19세기초였다. 이슬란드문학도 14세기부터 18세기까지 침체상태에 있었으며 문학활동이라고는 중세문학유산인 《싸가》의 사본보급이 있었을뿐이였다. 이슬란드에서 민족적독립을 위한 투쟁이 앙양되는 가운데 문학운동이 다시 일어난것도 역시 19세기에 들어와서였다.

14세기말에 단마르크가 스웨리예와 노르웨이를 지배하게 된 후 약 400년동안 단마르크에 예속되여있던 노르웨이에서도 단마르크말이 공용어로 쓰이고 노르웨이말에 기초한 문학은 발전할수 없었으며 암흑시대가 계속되였다.

이 기간에 노르웨이문학에 흔적을 남긴 작가들로서는 애국주의정신을 표현한 시인 베이에르(1528—1575), 시 《북국의 나팔》로 알려진 목사시인 다쓰(1647—1707) 가 있었다.

홀베르의 이름도 널리 알려졌으나 주로 단마르크에서 활동하여 단마르크문학발전에 이바지한 공적이 크기때문에 단마르크문학에서 취급한다.

노르웨이에서도 18세기에 독립운동이 앙양되고 계몽주의사조가 들어오면서 노르웨이민족문학에 대한 지향이 강화되였으나 노르웨이문학발전에서 새로운 국면이 열린것은 19세기에 가서였다.

17—18세기 북유럽나라들가운데서 문학발전에서 일정한 성과를 거둔것은 단마르크와 스웨리예 두 나라였다.

그러나 스웨리예도 문학발전에서 순탄한 길을 걷지 못하였다.

스웨리예는 14세기말에 단마르크의 지배밑에 들어가 100년나마 예속되여있다가 16세기초에 가서야 독립을 이룩하였다. 스웨리예는 17세기 구스타브2세가 국왕으로 있던 시기에 국력을 강화하고 방대한 령토를 획득했으며 북유럽의 제일강국으로 되였으나 18세기초에 북방전쟁에서 패함으로써 다시 약소국가로 전락되였다.

스웨리예에서 서사문학이 발생한것은 서유럽나라들보다 훨씬 뒤늦은 13~14세기였으며 스웨리예문학이 활발히 발전한것은 이 나라에 문예부흥운동과 인문주의사조가 들어온 이후인 17세기부터였다.

17세기 스웨리예의 대표적시인은 쉐른옐름(1598—1672)이였다. 그는 서사시 《헤라클레스》(1648)를 비롯한 작품들에서 당시 스웨리예의 현실과 농민생활을 반영함으로써 인문주의적인 경향을 뚜렷이 표현하였으며 스웨리예말을 더욱 다듬고 운률을 정리하여 스웨리예문학의 기초를 쌓았다.

그후 18세기에 들어와 달린 (1708—1763)이 계몽주의문학을 보급하였으며 첼그렌(1751—1795), 벨만(1740—1795) 등 시인들이 활동하였다.

14세기말에 스웨리예, 노르웨이와 3국통합을 실현하고 북유럽의 제1강국으로 되였던 단마르크는 17세기에 스웨리예와의 전쟁에서 패함으로써 많은 령토를 잃고 쇠퇴하였다.

그러한 속에서도 단마르크는 15세기말에 쾨벤하븐종합대학을 창립하고 16세기에 종교개혁운동을 거쳐 문화발전에서도 일정한 성과를 거두었다.

문학에서는 16—17세기에 찬송가시인 킹고

(1634－1703), 극문학의 기초를 쌓은 극작가 란크(1539－1607) 등이 활약하였다.

단마르크문학이 세계문학에서 독자적인 지위를 차지하게 된것은 18세기에 홀베르가 등장한 때부터이다. 그와 함께 시극 《어부》(1789)를 쓴 시인 에왈(1743－1781)이 알려져있다.

홀베르 요한 루드비그 홀베르(1684－1754)는 노르웨이의 베르겐에서 장교의 아들로 태여나 코뻰하븐종합대학을 졸업하고 영국류학을 거쳐 이 대학의 철학, 문학, 력사교수로 있으면서 계몽주의운동에 참가하였다.

그는 적극적인 극작활동을 벌려 희극창작에서 두각을 나타냈다. 1722년에 코뻰하븐에 처음으로 극장이 생기자 그의 희극이 련속 공연되여 호평을 받았으며 그는 《북유럽의 몰리애르》로 불리우게 되였다.

농민을 등장시킨 《산에서 내려온 예뻬》(1722), 진리를 위해 박해를 받는 대학생을 주인공으로 한 《에라즘 보따누스》(1723), 프랑스귀족생활에 대한 모방을 조소한 《쟝 드 프랑스》(1722)를 비롯한 그의 희극들은 서민생활을 생동하게 보여주고 예리한 사회풍자를 담은것으로 하여 두드러졌다. 몰리애르의 희극과 이딸리아가면극의 전통에 의거하면서도 민족적특성을 뚜렷이 살린 그의 희극들은 그때까지 프랑스극의 번안에 그치고 볼만한 극작품이 없었던 당시 북유럽의 극문학을 혁신시켰다.

그는 또한 풍자소설 《닐스 크림의 지하려행》(1740)에서 스위프트와 류사한 창작적특징을 보여주었다.

홀베르의 창작은 단마르크와 북유럽의 근대사실주의문학의 형성에 영향을 미쳤다.

2) 동유럽문학

17－18세기까지에 동유럽나라들의 문학은 서유럽나라들에 비하여 매우 뒤떨어진 상태에 있었다.

동유럽나라들은 서쪽으로는 오스트리아(합스부르그왕조), 남쪽으로는 오스만제국(뛰르끼예), 동쪽으로는 로씨야와 같은 강국들에 둘러싸여 대국들의 압력으로 하여 자주적인 발전의 길을 억제당하였다.

동유럽나라들가운데서 발칸반도에 위치한 벌가리아, 로므니아, 이전 유고슬라비아, 알바니아는 14세기말부터 19세기초까지(알바니아는 20세기초까지) 400년이상이나 오스만제국의 지배밑에서 독자적인 민족적발전을 이룩할수 없었으며 마쟈르도 16세기에 오스만제국과 오스트리아에 의하여 국토가 세 부분으로 분할되여 문화발전에 커다란 지장을 받았다.

그가운데서 서부슬라브족에 속해있은것으로 하여 일찍부터 서유럽의 영향을 받았던 뽈스까와 체스꼬가 문화발전에서 비교적 앞설수 있었으나 그나마 체스꼬는 17세기초 빌라 호라(흰 산)의 패전(1620)으로 오스트리아의 압제밑에 있었고 뽈스까는 18세기말에 로씨야, 프로이쎈, 오스트리아 세 나라에 의하여 분할되였다.

뽈스까에서는 15세기에 들어서면서 문예부흥과 종교개혁의 영향을 받아 독자적인 민족문학이 발생하였으며 16세기에 레이(1505－1569), 꼬하놉스끼(1530－1584), 씨모노비츠(1558년경－1629) 등 재간있는 시인들을 배출하였다.

그중에서 주되는 작가가 꼬하놉스끼이다. 문예부흥기 뽈스까문학의 대표자인 꼬하놉스끼는 발전된 서유럽문학의 성과를 받아들이면서도 자기 민족의 생활을 담고 민족적형식을 살리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인문주의적내용에 뽈스까말로 창작된 그의 시작품들(서사시 《쑤싼나》, 시집 《가요》 등)은 문예부흥기 뽈스까문학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였으며 뽈스까민족시문학의 형성에서 큰 역할을 하였다.

17세기 뽈스까에서는 불안한 정치정세로 하여 문학활동이 활발히 진행되지 못했으나 18세기 중엽에 이르러 크라씨쯔끼를 비롯한 작가들의 활약으로 민족문학부흥의 기운이 높아갔다.

크라씨쯔끼 이그나취 크라씨쯔끼(1735－1801)는 18세기 뽈스까계몽주의문학의 대표자이다.

그는 령락한 백작가문에서 태여나 주교, 대주교까지 되였으나 계몽주의운동에 참가하여 풍자시, 서사시, 교훈소설 등 여러가지 형태의 문학작품들을 창작하였다.

그의 주요작품으로 뽈스까귀족들의 편견과 봉건뽈스까의 락후한 풍속을 풍자한 서사시 《쥐들의 무리》(1775), 뽈스까승려층의 침체성과 위

선을 조소한 서사시 《승려들에 대한 노래》(1773), 뽈스까의 첫 근대소설로 보고있는 장편소설 《미끌라이 도스비아친스끼의 모험》(1776) 등이 있다. 모험적이며 공상적인 색채가 강한 이 소설에서 작가는 뽈스까의 부패한 현실을 신랄히 폭로하고 귀족들에 대한 교양문제를 제기하였으며 리성에 기초한 리상사회에 대한 계몽주의적공상을 펼쳐보이였다.

그는 또한 자기 작품들에서 애국적립장에 서서 자기 나라에 무관심한 귀족들을 비판하고 농민들의 어려운 처지를 개선할데 대한 사상도 제기하였다. 그러나 작가는 농노제를 반대하여 투쟁할 필요성을 제기하지 못한 제한성을 드러냈다.

크라씨쯔끼는 애국적이며 계몽주의적인 내용과 높은 예술적기교, 언어의 순결성으로 하여 뽈스까사실주의문학의 개척자의 한사람으로 되였다.

체스꼬에서 민족문학이 창조되기 시작한것은 14～15세기부터이다.

여기서 큰 역할을 한것이 종교개혁의 선구자 얀 후스(1369년경—1415)였다. 그는 보헤미야의 신학자로서 쁘라하종합대학의 교수로 있는 동안 저술과 설교활동으로 사회발전에 적지 않은 기여를 했으며 이것으로 하여 법왕과 교회당국의 탄압을 받고 끝내 화형을 당하였다. 웅변가인 동시에 문필가였던 후스의 설교집과 서한집은 문학가들에게 큰 영향을 주었다.

17세기초에 체스꼬가 민족적독립을 잃게 되면서 수많은 문화인들이 국외로 망명하였는데 그들가운데서 《세계의 미로와 마음의 락원》(1623)을 쓴 신교목사 꼬멘스끼(1592—1670)가 잘 알려져있다.

오스트리아의 통치밑에서 자유를 빼앗긴 17—18세기 체스꼬에서는 자기 나라 말로 된 민족문학이 쇠퇴하였으나 18세기말부터 계몽주의사조의 영향을 받고 또다시 민족문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기 시작하였다.

이 시기 마쟈르에서는 오스만제국을 반대하는 전쟁에 참가하여 활약한 군인출신의 시인들인 바라씨(1554—1594)와 즈리니(1620—1664), 마쟈르말산문의 초기 대표작인 《뛰르끼예로부터의 편지》의 작가 미께슈(1690—1761) 등이 활약하였다.

동유럽나라들가운데서 18세기에 문학발전에서 비교적 성과가 있는 나라는 로씨야이다.

3) 로씨야문학

서유럽에 비하여 뒤떨어졌던 로씨야문학이 자기 발전의 궤도에 들어서기 시작한것은 18세기부터이다.

18세기에 뾰뜨르1세(재위 1682—1725)에 의하여 개혁이 일어나자 근대화가 급속히 추진되여 로씨야는 유럽강국의 하나로 되였다. 이것은 로씨야문학의 발전을 힘있게 추동하였다. 이 시기에 로씨야문학은 교회의 지배에서 벗어나 세속적인것으로 되였으며 여러 형태에서 문학창작이 적극화되였다.

18세기 로씨야문학은 고전주의, 계몽주의, 감상주의 등 여러 문학사조의 형성, 교체과정을 통하여 발전하였다.

18세기 전반기는 로씨야문학에서 고전주의가 주되는 조류로 지배한 시기였다. 18세기 30—40년대를 전성기로 하는 로씨야고전주의는 귀족적, 보수적경향과 평민적, 민주주의적경향으로 갈라졌다. 첫 경향의 대표자는 시인 깐쩨미르(1708—1744)와 극작가 쑤마로꼬브(1717—1777)였으며 둘째 경향의 대표자는 로모노쏘브와 폰비진이였다.

로모노쏘브

미하일 와씰리예비치 로모노쏘브(1711—1765)는 농민출신으로 과학원 교수까지 되여 로씨야의 과학과 문화발전에 큰 공적을 남긴 학자였다.

그는 《로씨야작시법에 대한 서한》(1739)을 내놓아 뜨레지아꼽스끼가 시작했던 새로운 음절력점식작시법을 확립함으로써 로씨야말작시체계를 개혁하였으며 《3문체론》을 내놓아 언어의 혼란상태를 수습하고 고유로씨야어와 교회슬라브어를 혼합하여 로씨야문학어를 규범화하는데 이바지하였다.

로모노쏘브는 헌시, 풍자시, 영웅서사시들을 썼는데 특히 《호찐점령에 대한 송시》(1738)에

서 그 당시 로씨야가 흑해연안지방을 쟁취하기 위하여 뛰르끼예와 진행한 전쟁을 반영하면서 애국적감정과 민족적자부심을 표현하였다.

자기의 정력적인 활동으로 로모노쏘브는 로씨야의 민족문학을 더한층 발전시키기 위한 기초를 쌓는데서 큰 역할을 놀았다. 19세기에 가서 벨린스끼가 그를 가리켜 로씨야문학의 뾰뜨르대제라고 부른것은 이러한 점을 념두에 둔것이다.

폰비진(1745—1792)은 18세기 로씨야 최대의 극작가로서 계몽주의사상을 표현하고 극작술에서 고전주의형식의 제약성을 적지 않게 타파하였다.

폰비진은 로씨야의 첫 사회풍자희극 《려단장》(1769)을 쓰고 이름을 날렸다. 그는 이어 대표작인 희극 《미성년》(1782)에서 한 농노주가정에서 벌어지는 희극적인 이야기를 통하여 당시 로씨야의 지배계급이였던 귀족농노주계급의 무지몽매와 부패성을 희화화하여 신랄하게 풍자하였다.

폰비진은 이러한 작품을 쓴것으로 하여 황제 예까쩨리나2세의 노여움을 사 문필활동을 금지당했으며 불우하게 세상을 떠났다.

로씨야에서는 18세기말에 계몽주의문학이 발생하였다.

로씨야의 특수성으로 하여 계몽주의사상을 들고나온것은 부르죠아지가 아니라 귀족들이였는데 짜리당국의 가혹한 탄압으로 하여 널리 보급되지 못하였다.

로씨야계몽주의문학에서 선구적인 역할을 한 사람은 잡지출판활동을 벌린 노비꼬브(1744—1818)였다. 노비꼬브는 계몽활동을 벌린것으로 하여 황제의 명령으로 요새감옥에 감금되고 재산을 몰수당했으며 빈궁속에서 죽었다.

로씨야계몽주의문학의 대표자는 라지쉐브이다.

라지쉐브 알렉싼드르 니꼴라예비치 라지쉐브(1749—1802)는 인간평등사상으로부터 출발하여 사회악의 근원인 농노제와 전제정치 그자체를 부정한 당시로서는 급진적인 계몽주의자였다.

그는 처음 전도유망한 청년으로서 정부가 외국류학까지 보내여 국가일을 보게 한 귀족지식인이였다. 그러나 외국류학기간에 로씨야의 봉건전제제도와 농노제의 락후성을 깨닫고 계몽주의자가 된 라지쉐브는 노비꼬브 등과 교제하면서 1790년에 대표작인 《뻬쩨르부르그로부터 모스크바에로의 려행》을 자비출판하였다.

감상주의적인 려행기형식으로 된 이 작품은 한 귀족려행가가 마차를 타고 려행하는 도중에 도시와 농촌에서 보고 듣고 느낀것을 적은 작품이다.

여기서 작가는 비참한 노예생활속에서 허덕이고있던 농노들의 고통과 귀족지주, 관리들의 악랄성을 예리하게 그려냈으며 농노제와 전제제도의 밀착관계를 명백히 보여주었다. 나아가서 혁명으로 그것을 페지해야 한다고 하면서 그 힘을 농민들에게서 찾았다.

예까쩨리나2세는 이 책을 읽고 그 여백에 《그는 뿌가쵸브보다 더한 대악당이다.》라고 써넣었으며 그 책을 압수하고 작가를 사형에 처하도록 명령하였다. 사형이 씨비리류형으로 감형되여 10여년간 류형살이를 하고 돌아온 라지쉐브는 자기의 사상을 바꾸지 않고 자결하였다.

라지쉐브의 사상은 12월파와 뿌슈낀에게 강한 영향을 주었다.

18세기말에는 감상주의도 발생하였다. 로씨야감상주의의 대표자는 까람진(1766—1826)이다.

일찍부터 다른 나라 감상주의문학의 영향을 받고 감상주의적인 시와 려행기를 썼던 까람진은 대표작으로 중편소설 《불쌍한 리자》(1792)를 내놓았다. 작품에는 귀족청년한테 버림받고 못에 몸을 던져 자살한 농민의 딸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져있다.

작가는 신분적불평등을 비판하였으나 도시생활과 대비하여 농촌생활을 미화하고 농민들의 모습도 목가적으로 그리였다.

그러나 이 작품은 농민도 사람이며 농민의 딸도 기쁨과 슬픔, 사랑의 감정을 가지고있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로씨야문학은 다음세기인 19세기에 가서 본격적으로 발전하였다.

Ⅴ. 19세기 유럽문학

1. 진보적랑만주의와 비판적사실주의와의 교체과정을 통하여 발전한 유럽문학

시대적배경 19세기는 유럽나라들에서 자본주의제도가 확립되여 발전한 세기였다.

1640년대부터 영국에서 부르죠아혁명이 일어났지만 그것은 유럽적인 범위에서 자본주의에로 이행의 결정적계기로는 되지 못하였다. 그러던것이 18세기말 프랑스부르죠아혁명으로 전유럽에서 자본주의제도가 수립되였다.

그렇다고 하여 19세기에 들어와서 자본주의가 순탄한 발전의 길을 걸은것은 아니였다. 프랑스에서는 혁명후 나뽈레옹의 독재시기를 거쳐 부르봉왕조가 복귀된 시기도 있었으며 도이췰란드와 로씨야에서도 봉건전제통치가 계속되고 봉건세력의 힘이 강화된 때도 있었다.

그러나 프랑스에서의 1830년 7월혁명과 영국에서의 1832년 선거법개혁으로 이 나라들에서 부르죠아지의 정치적지배가 확립되였으며 유럽봉건세력의 동맹인 신성동맹이 무너지고말았다. 서유럽과 멀리 떨어져있던 봉건의 아성 짜리로씨야에서도 1861년 농노개혁이후 자본주의화과정이 급속히 추진되였다.

19세기 유럽에서 자본주의의 상승과정은 산업혁명에 의한 자본주의공업의 급속한 발전을 동반하였다. 16세기경부터 기술발명이 시작되고 18세기에 과학기술이 급속히 보급된데 기초하여 18세기 후반기부터 19세기초에 걸쳐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시작되였다. 영국에서 발명되고 생산된 기계는 19세기초에 유럽에 수출되여 여러 나라들에서 산업혁명을 다그치게 하였다. 그 결과 산업의 중심이 농업에서 공업으로 옮겨지고 도시에 공장, 기업소들이 일어나 도시중심의 사회가 형성되게 되였으며 자본주의경제가 급속히 발전하게 되였다.

19세기는 유럽에서 자주성을 옹호하기 위한 인민대중의 투쟁이 앙양된 세기였다. 피착취근로대중의 완강한 반봉건투쟁으로 말미암아 봉건제도가 붕괴된것은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위한 투쟁에서 전진이였다. 그러나 그것은 봉건의 사슬을 자본의 멍에로 바꾸어놓았을뿐 계급적지배와 압박자체는 없애지 못하였다. 인류력사에서 자본주의사회는 자주성에 대한 인민대중의 지향과 요구를 짓밟는 최후의 착취제도이며 계급적지배와 민족적압박을 결합시킨 횡포한 억압제도이다.

하여 력사무대에 등장한 로동계급은 처음부터 자본을 반대하는 투쟁에 일떠섰다. 도이췰란드를 비롯하여 봉건적잔재가 강하게 남아있은 나라들에서는 부르죠아민주주의혁명이 불타올랐으며 이딸리아, 그리스, 벌가리아와 같이 외국에 예속된 나라들에서도 민족해방투쟁이 힘있게 벌어졌다. 특히 1871년 프랑스의 로동계급이 력사상 처음으로 첫 프로레타리아정권인 빠리꼼뮨을 선포한것은 자주성을 옹호하기 위한 인민대중의 투쟁에서 획기적인 사변으로 되였다.

19세기는 사상, 문화, 사회과학령역에서 새로운 진보와 개화가 이룩된 세기이기도 하였다. 철학을 비롯한 사회과학과 사상분야에서 새로운 전진이 이룩되였다. 공상적사회주의사상과 혁명적민주주의사상이 보급되는 가운데 맑스와 엥겔스가 로동계급의 첫 혁명학설인 맑스주의를 내놓음으로써 프로레타리아혁명의 려명기에 로동계급과 피착취근로대중에게 계급투쟁의 무기를 안겨주었을뿐아니라 그들을 자본을 반대하는 투쟁에로 추동하고 국제공산주의운동의 시원을 열

어놓았다.

맑스, 엥겔스는 문학예술분야에서도 사회적 의식형태의 하나로서의 문학예술의 인식교양적역할, 그 발전의 력사적합법칙성을 비롯한 미학의 근본문제들에 해명을 줌으로써 문예사상발전에서 근본적전환으로 되는 맑스주의문예리론을 창시하였다.

이러한 시대를 배경으로 하여 19세기 유럽문학은 크게 전진하였으며 그 풍부한 유산으로 세계문학의 보물고를 장식하고 수많은 이름난 대가들을 낳았다.

19세기 유럽 진보적문학의 발전은 기본적으로 두가지 문학사조, 즉 진보적랑만주의와 비판적사실주의의 교체과정을 통하여 이루어졌다.

진보적랑만주의문학

18세기말부터 19세기 30년대까지(일부 나라들에서는 더 오래 계속되였다.) 유럽문학에서 하나의 사조를 이룬것은 진보적랑만주의문학이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구라파의 여러 나라들에서는 진보적랑만주의문학이 18세기말부터 19세기 30년대까지 하나의 사조를 이루었으며 그후에도 일부 작가들에 의하여 계속 창작되였습니다.》

유럽의 진보적랑만주의문학은 부르죠아혁명의 결과에 출현한 자본주의적, 봉건적현실에 대한 사회의 여러 진보적인 계급, 계층의 불만과 새로운 사회에 대한 그들의 념원을 반영하여 발생하였다.

당시 적지 않은 진보적작가들은 자기들의 리상과 현실간의 모순에 기초하여 그러한 현실을 부정적으로 대하고 자기들의 리상에 맞는 인간이나 생활을 공상의 힘을 빌어 그려냄으로써 그것을 당대 현실에 대치시키려 하였다. 이러한 작가들의 창작에 의하여 발생한 문학사조가 진보적랑만주의였다.

진보적랑만주의문학은 또한 반동적랑만주의문학을 반대하는 투쟁속에서 발생하였다.

반동적랑만주의문학은 부르죠아혁명의 결과에 조성된 자본주의적현실에 대한 낡은 계급, 계층의 불만과 전복된 봉건제도를 되살리려는 그들의 반동적인 지향을 반영하여 18세기말에 진보적랑만주의문학보다 먼저 발생하였다. 그 대표적작가들로는 영국의 호반파시인들인 워즈워스, 싸우디, 코울리지, 프랑스의 사또브리앙, 라마르띤, 비니, 도이췰란드의 슐레겔형제, 노발리스, 티크 등을 들수 있다. 반동적랑만주의작가들은 자기들의 작품에 중세기적인 봉건적현실에 대한 동경을 표현하고 현실을 떠난 환상적이고 신비적인 세계를 그렸으며 그것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주어진 운명에 순종하고 하느님의 교리대로 살것을 설교해나섰다.

사회의 여러 진보적인 계급과 계층의 지향과 념원을 반영한 진보적랑만주의문학이 이러한 반동적랑만주의문학과 대립되여 투쟁한것은 합법칙적이였다.

진보적랑만주의문학은 착취사회의 부패성과 반인민성을 여러모로 폭로비판하였다. 진보적랑만주의작가들은 봉건적신분제도와 종교의 부당성과 허위성을 비판하는 동시에 부와 금전이 빚어내는 여러가지 사회악을 비판하였으며 인민들의 무권리하고 가난한 처지를 깊이 동정하였다.

진보적랑만주의문학은 이러한 불만스러운 현실에 작가가 념원하는 생활에 대한 공상적인 화폭을 대치시키였다.

진보적랑만주의문학은 현실생활보다는 주로 작가가 주관적으로 념원하는 생활을 그리였다. 랑만주의작품에서는 현실생활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기는 하지만 공상적인 생활에 대한 이야기가 기본으로 되고있다. 랑만주의작가는 자기가 념원하는 생활에 대한 공상적인 화폭을 불만스러운 현실에 대치시키는 방법으로 착취사회현실에 대한 비판정신과 미래의 훌륭한 사회에 대한 지향을 표현하였다.

진보적랑만주의문학에서는 주인공을 선진적인 계급과 계층을 대표하는 인물로 등장시키지만 리상화하는것이 특징이다. 랑만주의작품의 주인공은 대체로 초인간적인 힘을 가지고있으며 례외적이고 조건적인 환경에서 행동한다.

랑만주의작품에서는 지나친 과장, 비유, 상징, 격동적이고 시적인 언어표현, 자유분방한 서정, 기이한 사건줄거리 같은것이 많이 쓰인다.

하여 이 문학은 생활의 본질과 사회발전의 합법칙성을 정당하고 깊이있게 일반화하여 반영하지 못하였으며 특히 인민들의 생활과 투쟁을

옳게 그리지 못하였다.

진보적랑만주의문학의 대표적작가로는 시문학에서 영국의 바이런과 쉘리, 로씨야의 뿌슈낀(초기창작)과 레르몬또브(초기창작), 뽈스까의 미쯔끼에비츠, 소설문학에서 프랑스의 유고와 쌍드, 뒤마(아버지), 도이췰란드의 샤미쏘를 들수 있다.

비판적사실주의문학

비판적사실주의문학은 진보적랑만주의문학에 이어 19세기 유럽에서 주되는 사조를 이루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구라파에서는 19세기에 비판적사실주의문학이 주되는 사조를 이루었습니다. 그때에 우수한 작품이 많이 나왔으며 그 작품과 함께 작가들의 이름도 세상에 널리 알려지게 되였습니다.》

비판적사실주의문학의 발생시기는 지역별, 나라별로 일정한 차이가 있으나 유럽에서는 대체로 19세기 30년대였다.

유럽에서 비판적사실주의문학은 자본주의사회와 붕괴기 봉건사회의 사회악과 모순이 더욱더 드러나고 그에 따라 자본주의와 봉건전제제도의 압박과 민족적억압을 반대하는 인민대중의 투쟁이 앙양된 시기의 시대적요구를 반영하여 발생하였다.

유럽에서 비판적사실주의는 또한 선행한 진보적랑만주의문학의 사상예술적제한성이 확연히 드러나 그에 대한 불만이 커지던 시기 새로운 사상미학적요구를 반영하여 발생하였다. 그러나 진실성과 설득력이 부족한것으로 하여 독자들로부터 불만을 야기시켰다.

19세기 30년대에 새로운 미학적원칙을 탐구하는 진보적작가들의 창작경향이 하나의 공통된 문학사조를 이루게 되였는데 그것이 바로 비판적사실주의였다.

비판적사실주의문학의 중요한 특징은 착취사회현실을 비판한것이다. 비판적사실주의라는 이름도 이 문학이 가지고있는 이러한 특성과 관련하여 붙여진것이다. 물론 사회현실에 대한 비판은 과거의 진보적문학에서도 있었다. 인문주의문학이나 계몽주의문학, 진보적랑만주의문학 등 지난날의 진보적문학은 례외없이 사회현실에 대하여 비판하였다. 그러나 과거의 진보적문학에서는 그것이 주되는것으로 되지 못하였다. 사회현실을 비판하면서 인문주의문학은 인문주의사상을 선전하고 계몽주의문학은 사람들의 머리를 깨우치려 했으며 랑만주의문학은 광명한 미래를 지향하였다. 하지만 비판적사실주의문학에서는 사회현실에 대한 비판이 주되는것으로 되였으며 그 폭이 넓고 심도가 깊었다. 착취사회에 대한 이러한 비판은 과거의 진보적문학에서는 찾아볼수 없는 새로운것이였다.

비판적사실주의문학은 생활속에서 본질적이며 의의있는 현상들을 찾아내고 그것을 력사적현실과 결부시켜 구체적으로 진실하게 반영하는데서 큰 전진을 이룩하였다.

여러가지 사실주의적묘사수법이 많이 탐구리용되고 비교적 세련된 문학어가 풍부하게 사용된것도 비판적사실주의문학이 거둔 중요한 성과의 하나로 된다.

그러나 비판적사실주의문학도 자기의 시대적 및 계급적제한성에서 벗어날수 없었다. 비판적사실주의문학은 착취사회현실을 비판하면서도 사회악의 근원과 그것을 없애는 방도를 밝히지 못하였다. 비판적사실주의작품들은 개별적인 착취자들과 부패한 현실을 비판하였으나 착취사회제도와 착취계급자체를 비판하지 못하였다. 이렇게 된것은 그들이 부르죠아 또는 봉건귀족출신의 문인들로서 자기 계급의 세계관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였던 사정과 관련된다.

비판적사실주의문학은 일반적으로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있었으나 그 발전과정에 시기와 지역, 나라에 따라 일련의 차이점도 나타냈다. 프랑스나 영국같은 서유럽나라들의 비판적사실주의문학이 주로 자본주의적관계가 낳은 사회악과 모순을 비판하였다면 19세기 전기간 봉건제도가 존재했던 로씨야나 도이췰란드와 같은 나라에서는 비판적사실주의문학이 주로 봉건적인 농노

제도와 전제제도가 낳은 사회악과 모순, 새로 자라나는 자본주의적관계로 하여 빚어지는 사회현실을 비판하였다.

19세기 유럽비판적사실주의문학의 대표적인 작가로는 프랑스의 스땅달, 발자끄, 플로베르, 졸라, 모빠쌍, 영국의 디킨즈, 새커리, 하디, 로씨야의 뿌슈낀, 고골리, 레브 똘스또이, 체호브, 노르웨이의 입쎈 등을 들수 있다.

19세기 유럽의 진보적문학에서는 진보적랑만주의문학, 비판적사실주의문학과 함께 혁명적민주주의문학과 프로레타리아문학이 일정한 자리를 차지하고있다.

혁명적민주주의 문학

19세기 30—60년대에 일련의 유럽나라들에서 발전한 혁명적민주주의문학은 과학적사회주의사상에까지는 이르지 못하였으나 계급적불평등과 착취와 압박이 지배하는 낡은 사회제도를 반대하고 그 혁명적개조를 지향하는 혁명적민주주의자들의 정치적견해와 공상적사회주의에 기초한 그들의 리상을 반영하고있다.

혁명적민주주의문학은 그 창작방법에서 기본적으로 비판적사실주의에 의거하였다.

혁명적민주주의문학은 먼저 19세기 30—40년대에 영국, 프랑스, 도이췰란드 등 서유럽나라들과 마쟈르, 벌가리아와 같은 동유럽나라들에서 출현하였으며 그후 40—60년대에 로씨야에서 발전하였다.

서유럽나라들과 로씨야의 혁명적민주주의문학은 그 나라들의 사회력사적조건에 따라 서로 다른 특성을 나타내였다.

서유럽나라들의 혁명적민주주의문학은 19세기 30—40년대에 앙양되였던 혁명운동과 로동운동, 특히 프랑스의 1848년 6월폭동과 1848년 도이췰란드혁명, 영국의 챠티즘운동과 같은 력사적사변들이 벌어지고 로동계급이 력사무대에 출현하였으며 맑스, 엥겔스의 과학적사회주의사상이 나온 사회력사적환경에서 발전하였다. 영국의 챠티즘문학, 프랑스의 인민문학, 1848년 도이췰란드혁명시기의 시문학들이 여기에 속한다.

혁명적민주주의문학의 특징은 직업적인 작가, 시인들뿐아니라 근로하는 인민들까지 그 창작에 참가하였으며 자기의 작품들에서 착취제도와 착취계급을 폭로비판하는데 그치지 않고 그를 반대하는 투쟁과 폭동에로 호소하였으며 훌륭한 미래에 대한 인민대중의 념원과 신념을 반영하였다는데 있다. 특히 이 문학은 이미 계급으로 형성되여 계급투쟁의 무대에 나선 로동계급의 리해관계까지도 어느 정도 반영하였다.

도이췰란드의 하이네와 웨에르트, 영국의 죠운즈, 프랑스의 베랑제, 마쟈르의 뻬뙤피 등이 이 문학의 대표자들이다.

로씨야에서 혁명적민주주의문학은 로동계급이 아직 계급으로서 형성되지 못하고 락후한 전제농노제도가 지배하고있던 조건에서 농민혁명에 의하여 그것을 뒤집어엎고 농촌공동체를 토대로 한 사회주의를 실현하려고 공상했던 혁명적민주주의자들에 의하여 창조되였다.

벨린스끼, 게르쩬, 도브롤류보브, 체르늬쉡스끼들이 그 대표자들이였다.

유럽의 혁명적민주주의문학은 그 발전의 사회력사적환경과 구체적인 사상적지향 및 계급적기초에 있어서 일련의 차이를 가지고있으나 다같이 현실폭로적이며 선동적인 주제의 작품창작을 통하여 모순된 사회제도를 뒤집어엎기 위한 투쟁에로 피압박인민들을 불러일으켰다는데서는 공통적이였다.

혁명적민주주의문학은 비록 당시의 사회력사적환경과 작가들의 세계관적제한성으로 하여 과학적사회주의사상에까지는 이르지 못하고 주로 공상적사회주의사상을 보여주는데 그치였지만 그후 혁명적인 프로레타리아문학의 발전에 영향을 주었다.

프로레타리아 문학

프로레타리아문학은 말그대로 프로레타리아트의 계급적자각과 요구에 의하여 발생하고 그 사상감정을 반영한 문학이다. 프로레타리아문학을 일명 무산계급문학이라고도 한다.

프로레타리아문학은 로동계급이 계급으로서

력사무대에 등장하여 로동운동이 발전하고 로동계급의 계급적리해관계와 요구를 반영하려는 작가들이 출현한 력사적시기에 이르러서야 발생할수 있었다. 유럽의 프로레타리아문학은 그러한 조건이 조성된 19세기말에 프랑스와 영국, 로씨야 등 일부 나라들에서 발생하였다.

유럽의 프로레타리아문학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것은 빠리꼼뮨문학이다. 빠리꼼뮨문학의 대표작은 뽀찌에의 가사 《인터나쇼날》이다. 자본의 철쇄를 끊어버리고 새 사회건설을 위한 로동계급의 혁명투쟁을 직접 반영한 빠리꼼뮨문학은 프랑스와 유럽프로레타리아문학의 귀중한 유산으로 되였다.

프로레타리아문학은 일찌기 자본주의적발전의 길에 들어섰고 로동계급이 주민의 절대다수를 이룬 영국에서도 출현하였다. 짐 코넬의 시 《붉은기》, 허크니스의 중편소설 《도시의 처녀》(1887) 등을 그 대표작으로 들수 있다. 영국의 프로레타리아문학은 19세기 80년대 후반기에 발전하다가 90년대에 가서는 기회주의자들의 책동으로 건전하게 발전하지 못하고 쇠퇴하였다.

프로레타리아문학은 프로레타리아혁명운동이 힘있게 벌어지던 19세기 90년대 로씨야에서도 발생하였다. 로씨야에서 로동계급이 혁명의 령도계급으로 등장하고 로동운동과 맑스주의가 결부된 객관적현실은 무산계급의 계급적 리해관계를 대변하는 프로레타리아문학이 발생할수 있은 현실적바탕으로 되였다. 로씨야프로레타리아문학의 대표자는 고리끼, 쎄라피모비치이다.

부르죠아문학사조

19세기 후반기는 유럽문학의 력사에서 부르죠아문학사조들이 활개치기 시작한 시기라는 점에서도 특징적이다.

자본주의제도가 확립되여 제국주의단계로 넘어간 19세기 후반기는 유럽에서 부르죠아지와 제국주의자들의 사상문화적공세가 전례없이 강화된 시기였다.

이에 보조를 맞추어 진보적문학에 대립해나선 부르죠아작가들은 착취계급의 반동사상을 퍼뜨리기 위하여 각양각색의 부르죠아문학사조와 류파들을 들고나와 사람들의 계급의식을 마비시키고 그들을 부패타락시키려고 악랄하게 책동하였다.

부르죠아문학사조의 조류로서 먼저 자연주의가 대두하였다. 자연주의는 우연적이며 비본질적인것을 기계적으로 묘사함으로써 생활의 본질과 진실을 외곡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착취사회의 모순을 보지 못하게 하며 자본주의의 영원성을 설교하려고 하였다. 자연주의는 먼저 프랑스에서 발생한 후 온 유럽에 류포되였다. 자연주의문학의 대표적작가는 프랑스의 공꾸르형제와 유이스망스, 영국의 기씽이다.

19세기 후반기 유럽부르죠아문학사조의 주되는 조류의 다른 하나는 상징주의였다. 상징주의를 들고나온 부르죠아작가들은 사람이 리해할수 없는 주관의 세계를 추상적인 상징적형식에 담아 제멋대로 그려냄으로써 문학의 사상적내용을 흐리게 하고 인식교양적기능을 마비시키려고 하였다. 프랑스의 배를랜, 말라르메가 상징주의의 대표적인 작가들이였다.

그밖에도 유럽부르죠아문단에서는 19세기말에 보들래르(프랑스)의 《악마주의》, 로제티(영국) 등이 들고나온 라파엘전파, 와일드(영국) 등이 제창한 유미주의를 비롯하여 형형색색의 부르죠아문학사조, 류파들이 활개쳤다.

그리하여 19세기 유럽문학은 온갖 이색적인 부르죠아문학조류들을 반대하는 진보적문학의 심각한 투쟁을 통하여 발전하였다.

2. 프 랑 스 문 학

1) 시문학보다 소설문학이 우세했던 프랑스문학

19세기 프랑스에서는 정치적파동이 거듭되는 속에서 자본주의가 확립되였다. 이와 함께 귀족부르죠아반동세력을 반대하고 자주성을 옹호하기 위한 프랑스인민들의 투쟁이 세차게 벌어졌다.

18세기말에 일어난 프랑스부르죠아혁명은 봉건제도를 뒤집어엎고 자본주의발전의 길을 열어놓았다. 그러나 봉건세력과 반동세력이 아직도 남아 집요하게 저항해나섰다. 혁명후 수립된 제1공화국은 10년도 채 되기 전에 독재자 나뽈레옹에 의하여 무너지고 이때부터 나뽈레옹의 독재(1799—1814)가 시작되였다. 또한 와떼를로의 격전으로 나뽈레옹이 거꾸러지자 쫓겨갔던 루이18세의 부르봉왕조가 복귀(1814—1830)되여 봉건제도가 부활되는 사태가 빚어졌다. 이때부터 시작된 봉건귀족들의 통치는 1830년 7월혁명후 오를레앙왕조의 루이 필리쁘의 통치로 교체되였는데 이 시기에 와서 왕권은 유명무실해지고 실제 부르죠아지들이 실권을 쥔 부르죠아귀족사회로 되였다. 그것이 1848년 2월혁명으로 거꾸러지고 짧은 시기나마 제2공화국(1848—1851)이 수립되였다가 1851년 나뽈레옹의 조카 루이 보나빠르뜨가 일으킨 군사정변에 의해 무너지고 제2제국(1851—1871)이 세워지게 되였다.

이처럼 프랑스부르죠아혁명이후에도 봉건제도가 되살아나는 등 정치적편파가 매우 심하였다. 그러나 그 과정에 자본주의적관계가 더욱더 자라나 이 나라에서 자본주의제도가 확고히 수립되게 되였다. 이에 토대하여 프랑스는 19세기말에 제국주의에로 이행하였다.

프랑스부르죠아혁명을 통해 피로써 쟁취한 정권을 부르죠아지들과 귀족들에게 빼앗긴 프랑스인민은 19세기 전기간 봉건과 자본을 반대하고 자주성을 옹호하기 위한 피어린 투쟁을 계속하였다. 1830년 7월혁명과 1848년 2월혁명 등 련이은 부르죠아민주주의혁명의 주력은 언제나 인민대중이였으며 인민대중이야말로 력사발전의 추동력이였다. 1871년 빠리꼼뮨은 불과 72일간밖에 존재하지 못하였지만 프랑스로동계급과 인민들의 위력을 과시하였고 혁명투쟁의 중요한 교훈을 남겼다.

19세기 프랑스문학은 이와 같은 복잡다단한 시대를 배경으로 하여 자기 발전의 길을 걸어왔다.

18세기말～19세기초 프랑스문학에서 먼저 발생한것은 전복된 봉건귀족계급을 대변하여 낡은 사회를 동경한 작가들이 들고나온 반동적랑만주의문학이였다. 그리스도교를 옹호하고 지나간 중세기를 동경한 샤또브리앙의 산문 《그리스도교의 진수》와 거기에 일화로 삽입된 중편소설 《아딸라》와 《르네》는 그 뚜렷한 실례로 된다. 《명상시집》을 쓴 라마르띤과 비니도 이에 속한다.

이들과 대립되여 유고가 희곡 《크롬웰》 서문에서 진보적랑만주의의 리상을 선언하였다. 유고는 희곡도 쓰고 시도 썼지만 특히 소설창작에서 자기의 재능을 발휘하였다. 유고와 함께 죠르쥬 쌍드, 뒤마(아버지)도 랑만주의소설발전에 이바지하였다.

이렇게 랑만주의소설이 활발히 창작되던 시기인 19세기 30년대에 현실을 보다 진실하게 반영하며 당대 사회의 사회악을 예리하게 비판해나선 진보적작가들에 의하여 비판적사실주의문학이 발생하였다. 이 문학은 그후 진보적문학의 주류를 이루었다.

그 첫 창작가가 장편소설 《붉은것과 검은것》을 쓴 스땅달이다. 프랑스비판적사실주의문학의 대표자는 발자끄이다. 그는 방대한 소설묶음인 총서 《인간희극》에 프랑스부르죠아귀족사회를 사실적으로 폭넓게 반영함으로써 사실주의소설의 대가로 공인되게 되였다.

19세기 후반기에는 장편소설 《보바리부인》을 창작한 플로배르가 등장한데 이어 대가들인 졸라와 모빠쌍이 프랑스의 사실주의문단을 장식하였다.

19세기 후반기는 프랑스문학에서 각종 부르죠아문학사조, 류파들이 발생한 시기이기도 하였다.

소설부문에서는 자연주의가 발생하였다. 공꾸르형제가 장편소설 《제르미니 라쎄르뚜》(1864)의 서문에 자연주의적견해를 서술한데 이어 평론가 땡이 그것을 리론적으로 안받침하였다. 그후 자연주의는 유이스망스에 의하여 계속 유지되였으며 졸라와 모빠쌍 같은 사실주의작가들에게도 영향을 미쳤다. 졸라는 초기에 자연주의로 기울어져 《실험소설론》이라는 론문을 쓰기까지 하였다.

시문학에서는 상징주의가 주도적인 사조로 나타났으며 유미주의, 악마주의 등이 류포되였다. 상징주의를 들고나온것은 시인들인 배를랜, 말라르메, 렘보이고 유미주의로 나간것은 조형미를 추구한 르공뜨 드 릴 등의 고답파(빠르나스파)였다. 그 산하에 있던 시인 보들래르는 약 150편의 퇴폐적인 시들을 묶은 시집 《악의 꽃》(초판 1857, 제2판 1861)을 내놓아 세기말시인, 악마주의 시인으로 불리웠다.

자연주의는 베끄의 희곡 《까마귀들의 무리》등 극문학에도 침투하였으나 더 류포되지는 못하였다.

2) 프랑스랑만주의문학과 유고

19세기 프랑스문학의 발전과정에서 제일먼저 발생한것은 랑만주의문학이였다. 프랑스랑만주의문학은 18세기말에 발생하여 19세기 20년대까지 문단에서 지배적인 자리를 차지하였으며 30년대이후에는 비판적사실주의문학과 병존하다가 1850년대에 쇠퇴하였다. 그러나 일부 작가들은 그 이후시기에도 랑만주의작품을 계속 창작하였다.

프랑스랑만주의는 다른 나라의 랑만주의에 비해 반동적랑만주의의 영향을 강하게 받았고 시보다 소설이 우세했으며 그 발전시기가 오래 계속되였다.

프랑스에서 반동적랑만주의를 먼저 들고나온것은 샤또브리앙, 라마르띤, 비니와 같은 귀족작가들이였다. 이들에 의하여 18세기말～19세기초 프랑스문단에서는 반동적랑만주의가 성행하였다.

왕정복귀시기에 외무대신을 지낸 귀족작가 프랑쓰와 르네 더 샤또브리앙(1768—1848)은 도서 《그리스도교의 진수》(1802)에 삽입된 이야기인 중편소설 《아딸라》와 《르네》에서 반동적랑만주의작가로서의 면모를 확연히 드러냈다. 그는 미국 인디안처녀의 종교적인 비극적사랑을 그린 《아딸라》에서 광신의 무서움을 강조하고 정열과 신앙의 조화를 설교했으며 누이와 남동생사이의 근친사랑에 대한 비극을 그린 《르네》에서는 불안과 권태, 우울 등을 고취하였다.

《명상시집》, 《속명상시집》 등을 내놓은 알퐁스 더 라마르띤(1790—1869)은 유부녀와의 사랑과 같은 순수 비도덕적인 사랑관계를 파고들어 불안, 고독, 절망, 죽음 등을 애상적이고 목가적으로 노래하였으며 아무런 사상적내용도 없는 그 어떤것에 대한 막연한 동경, 넋의 한숨을 잡꾀대와 같이 읊조리였다.

알프레드 더 비니(1797—1863)도 《고금시집》(1826), 력사소설 《쌩 마르》(1826), 소설 《스뗄로》(1832) 등 작품들을 들고나와 프랑스의 반동적랑만주의문학계에서 한자리를 차지하였다.

이와 같이 프랑스의 반동적랑만주의문학은 지나간 봉건사회와 중세기의 현실을 리상화하고 찬미하였으며 현실을 떠나 순수 자연, 순수 사랑, 종교적이며 신비적인 세계를 보여줌으로써 사람들의 사상의식을 마비시켜 력사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돌려보려고 하였다.

프랑스에서 진보적랑만주의문학은 이러한 반동적랑만주의작가들과의 대립, 투쟁속에서 19세기 20년대 후반기에 발생하였다.

19세기 프랑스진보적랑만주의문학의 대표적인 작가는 빅또르 유고이다.

유고와 장편소설 《레 미제라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그는 19세기 프랑스의 진보적랑만주의대표자이며 세상에 널리 알려진 문학예술의 거장입니다.》

빅또르 유고(1802—1885)는 나뽈레옹제국시기 프랑스지방도시 브쟝송에서 장군의 아들로 태여났다. 그는 어려서부터 아버지를 따라 다니며 이딸리아와 에스빠냐원정을 목격하여 많은 생활체험을 쌓았다. 그후 아버지가 어머니를 버려 어머니의 슬하에서 자라난 유고는 부르봉왕조를 적극적으로 찬양한 어머니의 영향을 받아 초기에 왕당파를 지지하여 창작활동을 벌렸다.

그는 20살에 처녀작 《서정시집》(1822)을 발표하여 문단의 인정을 받았다. 그후 부르봉왕조를 반대하는 사회적기운이 날을 따라 커지던 시기의 영향을 받아 20년대 후반기에 왕당파 진영으로부터 자유주의적이며 민주주의적인 진영으로 넘어갔다.

그의 이러한 새출발을 뚜렷이 반영한것이 희곡 《크롬웰》(1827)이였다. 특히 이 희곡의 서문은 프랑스진보적랑만주의의 선언서로 되였다.

이와 함께 1830년에 공연된 희곡 《에르나니》가 문학운동에서 획기적인 작품으로 되였다. 이 희곡은 첫 공연부터 공연을 방해하려는 반대파와 유고옹호자들사이의 싸움으로 대혼란이 벌어졌으나 45일간이나 련일 공연되였으며 크게 성공하였다.

《에르나니》의 성공은 유고의 사회적지위를 높여주었다. 라마르띤을 중심으로 한 반동적랑만주의작가들을 제외한 거의 모든 랑만주의작가들이 유고두리에 모여들어 《쎄나끌》이라는 집단을 조직하고 적극적인 활동을 벌리였다.

유고는 시집을 련속 출판하였고 《루이 블라스》(1838) 등의 희곡들을 썼을뿐아니라 소설창작에 넘어가 《사형수의 마지막 날》(1829), 《노뜨르담대사원》(1831), 《끌로드 구》(1834)와 같은 장편소설들을 내놓았다. 그가운데서도 중세기현실을 배경으로 집시처녀 에스메랄다와 노뜨르담대사원의 종지기 까지모도를 둘러싼 랑만적이야기를 통하여 교회의 반인민성을 폭로하고 인간의 존엄을 지키려는 프랑스인민들의 지향을 보여준 《노뜨르담대사원》은 이 시기 유고의 대표적인 랑만주의작품으로 되였다.

문학계에서 성공한 유고는 정치계에 진출하였다. 1830년 7월혁명후 초기의 보수적경향으로부터 점차 민주주의, 공화주의로 넘어간 유고는 1840년대에 창작을 거의 중단하고 좌익민주당의 간부로서 정치활동을 하였으며 1851년 나뽈레옹3세의 군사정변과 제2제정수립을 반대하여 활동하다가 국외로 추방되였다.

18년동안의 망명기간에 그는 대표작인 장편소설 《레 미제라블》(1862), 시집 《징벌》(1853)과 《세기의 전설》(제1집 1859, 제2집 1877, 제3집 1883) 등 작품들을 창작하였다.

1870년 제2제정이 붕괴된 후에야 빠리에 돌아온 그는 제3공화국의 국회의원으로 선거되여 정치활동을 하면서 마지막력작인 장편력사소설 《93년》(1874)을 내놓았다. 이 작품에서 작가는 18세기말 프랑스부르죠아혁명시기 대내외의 반혁명세력을 반대하는 공화주의자들의 희생적인 투쟁을 보여주었다.

1885년 83살 고령의 나이에 사망한 유고의 장례식은 국장으로 진행되였으며 그의 유해는 국가적인물들의 릉인 빵떼옹에 안장되였다. 그가 사망하였을 때 100만명의 조객들이 찾아갔다는 자료가 있는데 이것은 유고가 대단한 인기를 끈 사람이였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그는 비록 사회개량주의적이며 무저항주의적인 제한성을 나타냈으나 사회적진보와 평등, 정의와 인도주의에 관한 진보적사상을 구현하고 진보적랑만주의문학의 높은 창작기교를 구사한것으로 하여 프랑스가 낳은 세계적인 거장으로 되였다.

그의 대표작인 장편소설 《레 미제라블》은 부르죠아사회에서 버림받은 사람들의 비참한 운명과 그로부터의 출로를 기본문제로 제기한 작품이다. 프랑스말로 《레 미제라블》은 《버림받은 사람들》이라는 뜻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장편소설 〈레 미제라블〉은 심각한 제한성이 있지만 자본주의사회의 추악성과 반동성, 반인민성을 신랄하게 폭로하고 인민대중이 그 질곡에서 벗어나려면 사회를 반드시 개조하여야 한다는 열렬한 지향을 표현한것으로 하여 19세기 구라파의 진보적문학의 대표적인 작품의 하나로 됩니다.》

소설은 19세기 초엽부터 중엽에 이르는 시기에 프랑스와 서유럽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배경으로 하여 주인공 쟝 발쟝의 비참한 운명을 보여주고있다.

소설은 주인공이 19년동안 징역살이를 하고나

온 다음 생활부터 시작된다. 그가 징역살이를 하게 된것은 굶주림으로 허덕이는 조카들에게 주려고 빵 한쪼각을 훔친것때문이였다. 그는 비록 감옥에서 나왔지만 죄인이였기때문에 사람들의 랭대를 받는다.

쟝 발쟝이 어느날 사교 밀리에르의 집에서 하루밤 묵게 되나 그는 사교의 그 고마움도 잊고 감옥살이로 하여 생긴 거친 습성 그대로 주인집 은식기를 몰래 훔쳐가지고 도망친다. 그러나 그는 인차 경시에게 잡히여 사교의 집으로 끌려오게 된다. 사교는 쟝 발쟝에게 오히려 은식기와 은초대를 더 주면서 그의 도적혐의를 부정한다.

이렇게 사교의 자비심에 의하여 도적의 루명을 벗은 쟝 발쟝은 깊은 가책을 받고 도덕적으로 재생하는 길에 들어서게 된다. 그는 사교처럼 살것을 결심하고 자기와 같은 불행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며 거기에서 삶의 보람을 찾는다.

그는 자기의 이름을 마들레느라고 고치며 인조흑진주제조공장을 경영하면서 도시의 가난한 사람들에게 자선사업을 한다. 그리하여 그는 시민들의 존경을 받게 되며 시장으로까지 출세한다.

마들레느의 경력을 의심하며 계속 감시하던 경시 쟈벨이 이를 눈치채고 그를 더욱 집요하게 미행한다. 그러나 그는 온갖 위험을 무릅쓰고 달구지바퀴에 치운 마부를 구원하고 굶주림속에서 허덕이는 불쌍한 녀성로동자 팡띠느와 그의 어린 딸 꼬제뜨도 도와준다.

그는 다른 사람이 쟝 발쟝이라는 루명을 쓰고 억울하게 체포된것을 알고 스스로 자수하여 다시 감옥으로 간다. 뚤롱항에서 작업중에 모험적으로 탈출한 쟝 발쟝은 빠리의 어두운 뒤골목에 숨어사는 신세가 되지만 무권리와 가난속에서 허덕이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그들을 남모르게 도와준다.

그는 꼬제뜨를 자기의 양딸로 삼고 마리우스를 사위로 맞으며 그들에게 숨겨두었던 많은 돈을 준다. 그러나 마리우스는 솔직하게 자기의 과거를 고백하는 쟝 발쟝을 배척한다. 쟝 발쟝은 거기에서 심한 충격을 받고 마음의 고충을 이기지 못하여 병석에 눕게 되는데 마리우스가 바리케트전투에서 자기를 구원해준 은인이 바로 쟝 발쟝이라는것을 알고 꼬제뜨와 함께 달려왔을 때 그는 이미 림종을 앞두고있었다.

쟝 발쟝은 이렇게 자비와 관대, 도덕적자아완성의 깨끗한 길을 걸으면서도 밝은 세상을 보지 못하고 불행하게 한생을 마치고만다.

소설은 나무군이였던 주인공 쟝 발쟝의 비참한 운명뿐아니라 먹고 살기 위하여 이발과 정조마저 파는 팡띠느의 피눈물나는 생활, 1832년 바리케트전투에서 영웅적으로 희생되는 앙졸라와 가브로슈소년을 비롯하여 온갖 착취와 빈궁에서 허덕이는 최하층인민들의 비참한 생활을 통하여 자본주의사회의 악과 반인민성을 폭로비판하였다.

또한 경시 쟈벨과 려인숙주인 떼날디에부부의 생활을 통하여 탐욕과 가혹성으로 가득찬 자본주의사회의 내막을 낱낱이 폭로하였다.

작가는 작품에서 불합리한 자본주의사회를 반드시 개조하여야 한다는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무기를 들고 싸우는 인민대중의 투쟁모습도 그렸지만 주인공은 자비와 관대, 도덕적완성의 길을 걷는 인간으로 형상하였다. 작가는 이러한 주인공의 형상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계급협조와 도덕적완성을 설교하였다. 이것은 이 작품의 심각한 제한성이다.

작가는 계급협조와 도덕적완성을 추구하던 나머지 주인공의 자비를 받은 경시가 가책을 받고 자살하는것으로까지 그렸다.

그러나 소설은 당대 사회를 예리하게 비판하고 지나친 과장, 비유, 격동적인 언어표현, 기이한 사건줄거리 등 진보적랑만주의의 특징을 뚜렷이 나타내고있다.

소설에서 긍정인물들인 주인공 쟝 발쟝이나 밀리에르사교는 다같이 작가의 희망과 의도에 의하여 리상화된 인물들이다. 특히 주인공의 형상은 너무 과장되여 진실성을 잃고있다.

장편소설 《레 미제라블》은 이러한 제한성을 가지고있으나 자본주의사회의 추악성과 반동성, 반인민성을 신랄하게 폭로하고 인민대중이 그 질곡에서 벗어나려면 사회를 반드시 개조하여야 한다는 사상을 표현하였으며 진보적랑만주의의 특징이 뚜렷한것으로 하여 19세기 유럽진보적문학에서 대표적인 작품의 하나로 되였다.

19세기 프랑스진보적랑만주의문학의 대표적인 작가로는 유고와 함께 쌍드, 뒤마(아버지)가 널리 알려져있다.

쌍 드 남자이름으로 된 필명으로 활약한 녀류작가 죠르쥬 쌍드(본명:오로르 뒤뻥, 1804—1876)는 남복차림으로 다니면서 녀성해방을 주장하였고 공상적사회주의자들과 교제하면서 그 영향을 받았다.

쌍드는 녀성에 대한 사회의 속박에 반항을 표시한 《앵디아나》(1832), 평범한 목수들의 생활을 반영한 《방랑하는 도제》(1840), 전형적인 부르죠아출세주의자인 주인공의 형상을 통하여 귀족부르죠아사회현실을 비판한 《오라스》(1841), 농민청년과 처녀의 행복한 결합에 대한 이야기를 담은 목가적인 《귀신늪》(1846)을 비롯한 여러편의 장편소설들과 《말하는 떡갈나무》를 비롯한 동화들을 내놓아 이름을 날렸다.

뒤마(아버지) 알랙쌍드르 뒤마(아버지, 1802—1870)는 랑만주의적인 력사극들과 모험적인 력사소설의 창작가로서 널리 알려져있다.

그는 빠리부근 빌레꼬또레에서 나뽈레옹군대의 장군의 아들로 태여나 소학교를 다니였고 자습으로 해박한 지식을 소유하였다. 그는 1823년에 빠리로 올라가 공증인의 서기를 거쳐 후에 국왕(루이 필리쁘)이 된 오를레앙공작의 서기로 일하면서 극작활동을 벌렸다.

그는 프랑스랑만주의극의 첫 작품의 하나인 력사극 《앙리3세와 그의 궁정》(1829)을 무대에 올린 다음부터 이름을 날리기 시작하였다. 그는 이에 신심을 가지고 《앙또니》(1831), 《넬스의 탑》(1832), 《낑》(1836)을 비롯한 많은 희곡들을 창작하였다.

그는 1835년부터 력사소설창작으로 넘어가 빠리의 신문들에 3부작장편소설들을 련이어 발표하여 랑만주의소설가로서도 이름을 날렸다. 모험적인 3부작력사소설 《세 총사》(1844), 《20년후》(1845), 《브라제롱자작》(1848)과 3부작 《왕후 마르고》(1845), 《몽쏘르부인》(1846), 《45》(1848) 등이 이 시기 창작된 작품들이다.

그는 당시의 현실을 반영한 모험소설도 썼는데 그 대표적인것이 장편소설 《몽떼 끄리스또백작》(1846)이다. 소설은 모해를 받아 인생을 좌절당했던 주인공이 역경을 이겨내고 끝끝내 원쑤를 갚는 이야기를 담고있다. 작품은 기발한 생활세부와 복잡하게 뒤엉킨 사건이 서로 교차되면서 엮어져나가지만 고도의 론리성과 순서정연한 이야기전개, 작가의 신랄하고도 재치있는 필치로 하여 독자들의 흥미를 자아냈다. 또한 작품에서는 환상적수법과 풍부한 어휘구사로 인물들의 성격이 생동하게 안겨오게 하였다.

그의 대표작인 《몽떼 끄리스또백작》은 작품이 가지고있는 높은 예술성으로 하여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지게 되였다.

그는 그밖에도 방대한 수의 장편소설들과 희곡, 동화, 려행기, 회상기 등을 썼다. 그가운데는 다른 사람의 협조를 받은것도 있는데 그의 이름으로 나간 작품수만 해도 소설이 257권, 희곡이 25권에 달한다.

뒤마의 소설들은 내용이 깊지 못하고 력사를 외곡한 점과 흥미본위적인 오락적경향을 가지고있으나 현실비판에 일정하게 낮을 돌리고 이야기줄거리와 사건을 긴장하게, 흥미있게 끌고나가며 사랑과 우정을 위하여 용감하게 싸우는 주인공들의 리상화된 형상을 창조한것으로 하여 당시에 대단한 인기를 끌었다.

3) 프랑스비판적사실주의문학과 스땅달, 발자끄, 플로배르, 졸라, 모빠쌍

19세기 프랑스는 서유럽에서 비판적사실주의문학이 가장 발전한 나라였다. 프랑스의 비판적사실주의문학은 19세기 20년대 후반기에 발생하여 30—40년대에 개화하였으며 50—60년대에 일시적으로 약화되였다가 70—80년대에 다시 발전하였다.

프랑스비판적사실주의문학은 당대 자본주의사회에 대한 비판이 서유럽나라들의 비판적사실주의문학가운데서 가장 강하고 예리하였을뿐아니라 현실을 구체적으로 진실하게 반영하는데서 큰 전진을 이룩하였다. 이 문학은 사실주의적묘사수법을 탐구하고 세련된 문학어를 풍부하게 사용하였으며 사실주의적소설, 특히 장편소설창작에서 큰 성과를 거두었다.

프랑스에서는 19세기에 비판적사실주의문학이 주되는 사조를 이루었으며 우수한 작품과 작가들이 많이 배출되였다.

19세기 프랑스비판적사실주의문학의 대표적

인 작가들로는 30—40년대의 스땅달과 발자끄, 50—60년대의 플로배르, 70—80년대의 졸라와 모빠쌍을 들수 있다.

스땅달과 장편소설 《붉은것과 검은것》

스땅달(본명:앙리 벨, 1783—1842)은 남부의 소도시 그로노블의 변호사가정에서 태여났다. 그는 대학입학시험을 치기 위해 빠리로 갔다가 시험을 포기하고 나뽈레옹군대에 입대하여 이딸리아원정과 로씨야원정에 참가하였다.

그는 1814년 나뽈레옹몰락후 밀라노에 가서 이딸리아의 문학가들과 교제하였으며 오스트리아의 강점을 반대하는 이딸리아사람들의 민족해방운동에 공감하였다. 이 시기에 그는 《이딸리아회화사》(1817), 《련애론》(1822), 《라씬과 쉐익스피어》(1825) 등을 발표하였다.

그는 44살때 첫 장편소설 《아르망스》(1827)를 내놓았으나 호평을 받지 못하였다. 그는 1830년 7월혁명후 이딸리아주재 프랑스령사가 되여 이딸리아의 뜨리에스떼에 있으면서 그해 말에 두번째 장편소설 《붉은것과 검은것》을 출판했으나 여전히 문단의 인정을 받지 못하였다. 그는 그 다음해 법왕령으로 부임지를 옮긴 후 사망하는 해까지 령사로 있으면서 장편소설 《루씨앙 루벵》(미완성), 《까스뜨로의 녀승》(1839), 《빠르므의 승원》(1839) 등을 썼다.

19세기 10년대 이딸리아의 빠르므공국을 배경으로 주인공인 귀족청년 파브리스의 운명을 통하여 봉건전제제도를 비판하고 인간의 행복과 개성해방에 대한 지향을 담은 《빠르므의 승원》은 발자끄의 격찬을 받았다.

1842년에 빠리의 길가에서 뇌출혈로 사망하기까지 그는 비직업작가로서 많은 작품을 남기였으나 그의 생존시에는 널리 알려지지 않았다. 그가 쓴 작품의 가치가 인정된것은 20세기에 들어와서였다.

예술적일반화의 높은 기교, 풍자적수법과 과장, 형상성이 높은 묘사, 언어의 명료성과 론리성 등 다른 작가들의 창작과 구별되는 개성이 뚜렷한 그의 창작은 후세작가들의 창작에 영향을 주었다.

스땅달의 대표작인 장편소설 《붉은것과 검은것》은 지나친 서정, 과장된 표현과 공상에 빠진 랑만주의소설이 류행하던 1830년대초 프랑스문단에서 생활을 진실하게 사실주의적으로 묘사한 비판적사실주의소설의 면모를 뚜렷이 보여준 의의있는 작품이다.

작품은 얼핏 보면 랑만주의문학에서 흔히 볼수 있는 주관적인 련애소설같은 인상을 주고있으나 그와는 달리 당대의 시대상을 잘 반영하고있다. 작품의 제목에서 붉은것은 군복을 , 검은것은 승복을 상징하고있으며 나뽈레옹숭배자인 주인공이 출세를 위하여 부득이 검은것을 걸치게 되였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소설의 이야기줄거리는 쥴리앙 쏘렐의 운명선을 따라 전개되고있다.

쥴리앙은 남다른 재간과 뛰여난 기억력을 가지고있으나 신분이 낮은것으로 하여 받는 멸시와 압박에 불만을 품고 어떻게 하든지 출세하여 귀족들과 돈 많은자들을 보복할 야심을 가진다. 그는 고향도시의 시장네 집에 가정교사로 들어갔다가 젊은 레날부인의 총애를 받고 그와 깊은 사랑에 빠진다. 그 관계가 폭로될 위험이 조성되자 쥴리앙은 그 집을 떠나 신학교에 입학한다. 그후 교장의 추천으로 빠리의 권세있는 귀족 라 몰후작의 개인서기로 들어간다. 후작의 딸 마띨드는 쥴리앙을 미래의 당똥처럼 여기면서 호의를 가진다.

쥴리앙은 귀족에 대한 복수심으로 하여 어느날 밤 사다리를 타고 마띨드의 방에 기여들어 처녀를 정복한다. 임신한 자기 딸과 쥴리앙의 결혼을 승인하지 않을수 없게 된 후작은 할수없이 쥴리앙을 경기병 중위로 임명하는 한편 그의 신원을 확인한다. 그런데 레날부인이 참회승의 강요로 쥴리앙을 중상하는 편지를 써보낸다.

격노한 쥴리앙은 고향에 내려가 교회당에서 부인을 저격한다. 옥중에 갇힌 몸으로 부상당한 부인의 방문을 받은 쥴리앙은 부인의 변함없는 사랑을 알고 단두대에 오른다. 그가 사형당한 후 사흘만에 레날부인도 죽으며 마띨드는 자기 애인의 잘린 목을 그러안고 장례식을 치른다.

장편소설 《붉은것과 검은것》은 프랑스왕정복귀시기 교회와 국가의 파렴치한 위선에 대한 강렬한 반항을 내용으로 한 작품이다. 소설은 그 당시 프랑스사회현실을 생동하게 반영하고 왕정복귀시기 프랑스귀족부르죠아사회의 위선과 어두운 내막을 폭로하였을뿐아니라 주인공의 형

상을 통하여 그에 대한 강렬한 반항정신을 보여주고있다. 주인공 쥴리앙의 성격은 2중적이며 매우 복잡하지만 귀족부르죠아사회에 대한 강한 비판정신을 가지고있다.

소설은 간결하고 사실주의적인 문체와 생동한 심리묘사로 특징적이다.

소설은 삼각련애를 주선으로 하고있는것을 비롯하여 적지 않은 제한성을 가지고있으나 프랑스문학에서 근대적인 장편소설의 풍격을 갖춘 최초의 비판적사실주의소설의 하나로 문학사적의의를 가지고있다.

발자끄와 총서 《인간희극》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발자끄는 프랑스비판적사실주의문학의 대표적인 작가의 한사람입니다. 발자끄는 수십편의 소설을 묶은 총서 〈인간희극〉에서 19세기 전반기의 프랑스사회현실을 비판하였습니다.》

오노레 더 발자끄(1799—1850)는 남부의 소도시 뚜르에서 농민출신관리의 아들로 태여났다. 그는 20살에 빠리의 법률학교를 졸업하고 법학사의 자격을 받았다. 그는 공증인이 되기를 바라는 부모의 의향도 마다하고 작가가 되였다.

그는 빠리의 다락방에서 2년만에 닉명으로 처녀작인 희곡 《크롬웰》을 내놓았으나 실패하였다. 그후 그는 출판사 인쇄소를 경영했으나 그것마저 실패하여 파산당하였다.

그는 새로운 결심을 안고 1829년에 처음 자기 이름으로 력사소설 《부엉이당》을 내놓았는데 이 작품이 그의 출세작으로 되였다. 이때 그의 나이는 30살이였다. 그러나 그의 특기는 4년후에 발표한 장편소설 《외제니 그랑데》(1833)에서 뚜렷이 나타났다.

놀라운 정열가였던 발자끄는 1834년부터 당대 프랑스의 현실을 폭넓게 반영하는 방대한 수의 작품을 포괄할것을 예견한 소설총서 《인간희극》창작에 달라붙었다. 90여편의 크고작은 소설들을 묶은 이 총서가운데는 《고리오령감》(1835), 《절대의 탐구》(1834), 《골짜기의 나리꽃》(1836), 《환멸》(1843), 《농민》(1844), 《사촌누이 베뜨》(1846), 《사촌형 뽕스》(1847) 등 유명한 작품들이 많다.

그가 얼마나 정력적으로 일하였는가 하는것은 자비출판을 위하여 진 막대한 금액의 부채를 갚으려고 련속 진한 커피를 마시면서 매일 16시간이상이나 집필을 계속하였다는 일화가 말해주고있다. 그동안 그는 프랑스국내는 물론 유럽대륙을 돌아다녔으며 두번이나 국회의원선거에 나서고 두차례나 잡지경영을 맡아보았다.

발자끄는 이처럼 정열적이고 긴장한 창작활동을 벌려 자기 생애에 162편이나 되는 소설을 썼으나 그의 생활은 불우하였다. 그는 일생을 독신으로 지내다가 생애말기인 1850년 5월에야 그사이 18년동안이나 서신거래를 하고있던 뽈스까의 부유한 녀지주 한스까야부인과 결혼하였다. 그러나 그는 과도한 창작활동의 후과로 석달후 빠리에서 세상을 떠났다.

발자끄의 창작은 시대적 및 계급적제한성을 가지고있으나 당대 프랑스의 사회현실을 낱낱이 파헤치고 그 모순을 예리하게 폭로비판하였으며 높은 사실주의적묘사기교를 구사한것으로 하여 프랑스의 범위를 벗어나 유럽비판적사실주의문학발전에 큰 영향을 주었다.

발자끄의 창작에서 중심적인 자리를 차지하고있는것은 총서 《인간희극》이다.

《인간희극》이라는 제목은 중세 이딸리아시인 단떼의 서사시 《신곡》(신성한 희극)의 제목을 본받아 중세기현실대신 당대 프랑스귀족부르죠아사회의 현실을 포괄적으로 재현하려는 시도밑에 붙여진것이다.

발자끄는 총서에서 1789년 부르죠아혁명으로부터 1848년혁명시기까지 프랑스의 정치, 경제, 풍속을 비롯한 사회의 여러면을 폭넓게 그려 부르죠아사회의 진면모를 보여주려고 하였다.

그는 이 총서에 총 143편의 소설을 포함할것을 계획했으나 실지로는 91편의 장편, 중편, 단편소설들이 씌여졌다.

작가는 이 작품들을 세 부류로 나누었는데 제1부류 《풍속연구》에 속한 소설들에서는 당시 프랑스사회의 이모저모를 묘사하고 제2부류 《철학적연구》에서는 그러한 사회현실의 원인으로 되는 인간의 정열과 사상을 탐구하며 제3부류 《분석적연구》에서는 생활에 대한 판단을 내릴수 있게 하는 원리들을 제시하려고 하였다.

그가운데서도 제일 많은 작품들을 포함하고 있는 《풍속연구》(72편)는 다시 《사생활정

경》, 《군대생활정경》, 《전원생활정경》 등의 6개부분으로 나뉘여져있다.

《인간희극》에 들어있는 수많은 소설들은 그 자체로서는 제각기 독자적인 작품들이지만 내적으로 련관되고있으며 전체적으로는 당대 프랑스의 풍속사를 폭넓게 재현하려는 작가의 의도에 복종되고있다. 이러한 련계는 총서에 나오는 2 000여명의 인물중 주요인물 400여명이 여러 작품들에서 반복하여 등장하는 방법으로 맺어지고있다.

총서 《인간희극》에 들어있는 많은 소설들은 당시의 프랑스사회가 황금만능에 기초한 부패한 사회라는것을 폭로비판하는 내용으로 되여있다. 이러한 주제를 취급한 대표적인 소설은 《곱쎄끄》, 《외제니 그랑데》, 《고리오령감》 같은것이다. 이 작품들의 주인공들은 무서운 수전노로 세상에 널리 알려져있다. 이 작품들을 통하여 작가는 돈이 모든것을 지배하는 자본주의사회에서 돈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허위와 기만, 사기협잡행위와 같은 사회악을 발가놓고 황금에 대한 탐욕이 사람을 어떻게 추악하고 기형적인 존재로 만드는가 하는것을 보여주었다.

총서에는 또한 황금이 지배하는 자본주의사회에서의 각계각층 사람들의 운명을 보여준 작품들이 적지 않은 자리를 차지하고있다. 재능있는 젊은이들이 겪는 불행을 보여준 《환멸》과 《고등매춘부의 성공과 몰락》(1847), 예술가의 운명을 보여준 단편소설 《알려지지 않은 걸작》(1831)과 과학자의 운명을 그린 중편소설 《절대의 탐구》를 비롯한 많은 소설들이 여기에 속한다.

총서에는 인민들의 생활을 반영한 작품들도 들어있다. 프랑스농민들의 비참한 생활형편을 생동하게 보여주고 땅을 얻기 위한 그들의 투쟁을 반영한 장편소설 《농민》을 비롯하여 물지게군의 인간성을 그린 단편소설 《무신론자의 기도》(1836), 가난한 농촌처녀를 형상한 중편소설 《삐에레뜨》(1839)와 같은 작품들을 그 례로 들수 있다.

다른 한편 총서에는 사회개조에 대한 작가의 환상을 반영하여 리상적인 인간을 그린 《시골의사》(1833), 《마을목사》(1839)와 같은 공상소설들도 들어있다.

총서 《인간희극》은 그것이 달성한 사실주의적일반화의 심도와 부르죠아사회의 부패한 현실에 대한 폭로비판의 예리성, 독특한 소설창작기교로 하여 유럽비판적사실주의문학의 중요한 유산으로 되고있다.

《고리오령감》

발자끄의 총서 《인간희극》 중에서 대표적인 장편소설의 하나로 《고리오령감》을 들수 있다.

《고리오령감》은 자본주의적관계가 급속히 발전하고 부르죠아사회의 모순이 로골적으로 드러나던 19세기 20년대 프랑스의 현실을 시대적배경으로 주인공 고리오령감의 운명을 통하여 황금만능의 자본주의사회현실을 폭로비판한 작품이다.

빠리의 가장 구석지고 어지러운 곳에 과부인 보께르부인이 경영하는 초라한 하숙집이 있다. 거기서는 69살난 고리오령감과 대학생 라스띠냐끄를 비롯하여 18명의 하숙생들이 비좁게 들어박혀 근근히 살아가고있었다.

고리오로 말하면 한때는 밀가루장사로 벼락부자가 되여 세상에 부러운것이 없이 잘살던 사람이였다. 안해가 죽은 후 홀아비가 된 그는 두 딸자식에게 기대를 걸고 그들의 행복을 위하여 자기의 모든 재산과 정열을 다 바쳤다. 고리오는 부르죠아륜리에 따라 맏딸은 귀족인 레스또백작한테, 둘째딸은 은행가인 누칭겐남작한테 시집을 보내면서 지참금으로 자기의 재산을 다 나누어주었다.

딸들과 사위들은 아직 돈이 넉넉한 고리오에게 존경도 하고 사랑도 표시하는척 하다가 그의 밑천이 거덜나자 그를 업신여기고 끝내는 헌신짝처럼 차버린다. 딸들에게서 쫓겨난 고리오는 하숙집으로 거처를 옮기고 이 일로 하여 심화병에 걸린다. 고리오가 심화병으로 앓아누웠어도 누구하나 그를 거들떠보지 않아 라스띠냐끄와 의학대학 학생 비앙숑이 그를 불쌍히 여겨 간호해준다.

라스띠냐끄로 말하면 한때 법률을 공부하겠다고 지방에서 빠리로 나왔으나 이런 세상에서 공부나 해가지고는 소용이 없다는것을 깨닫고 귀족부르죠아사회의 생활방식에 따라 손쉬운 방법으로, 즉 부르죠아유한부인들의 정부가 되여 그들의 힘을 빌어 부자가 되고 출세하는 길을 택한 청년이다. 고리오의 두 딸과 치정관계를 맺고 상류사교계에 진출하였던 라스띠냐끄가 고리오의

림종을 앞두고 딸자식들에게 아버지의 위급한 병세를 알려주나 맏딸 아나스따지는 가정불화로, 둘째딸 델피느는 무도회에 갔다가 감기에 걸렸다고 하면서 아버지에게 오지 않는다.

그리하여 고리오는 자기가 그처럼 모든 정성과 사랑을 다 바쳐 키운 딸자식들로부터 완전한 버림을 받은채 비참하게 죽는다.

작품은 고리오의 비극적형상을 통하여 사람의 인격도 돈에 의하여 평가되고 돈없는 사람은 물건처럼 취급당하는 썩어빠진 자본주의사회의 현실을 잘 보여주고있다. 돈벌이를 할 때에는 모든것을 현금주의적으로 대하던 고리오가 딸들과의 관계에서는 인정만을 앞세우고 자기의 돈주머니를 다 털어주다나니 결국은 딸들에게서까지 버림을 받게 된것이다. 황금이 모든것을 지배하는 썩어빠진 자본주의사회의 본질은 림종의 순간 《돈만 가지면 모든것을, 심지어 딸까지도 살수 있다》고 하는 고리오의 웨침에서 강하게 폭로되고있다.

돈이 모든것을 지배하는 자본주의사회의 부패한 현실은 고리오의 두 딸의 형상을 통해서도 폭로되고있다. 고리오의 두 딸은 부르죠아사회의 썩어빠진 사회풍조와 부르죠아교육의 영향밑에 극단적인 개인리기주의사상에 물젖어 남이야 죽든지 살든지 자기 혼자만 잘살고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부화타락한 생활을 하는 부르죠아녀성들의 전형이다. 작품은 두 딸의 형상을 통하여 귀족부르죠아들의 부패타락한 생활을 신랄히 폭로하였으며 동시에 그들을 이처럼 타락시킨것이 바로 돈이 모든것을 지배하는 부르죠아사회의 해독적인 영향이라는것을 밝혔다.

소설에서는 또한 처음에는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것을 결심하였으나 부르죠아생활풍조에 점차 물젖어 극단한 개인리기주의자로, 출세주의자로 변모되여가는 라스띠냐끄의 형상을 통하여 약육강식의 법칙이 지배하는 부르죠아사회의 진면모를 폭로하였다.

소설에서는 그밖에도 여러번 감옥에서 탈옥하면서 범죄의 방법으로 이 사회의 승리자가 되려고 하는 보뜨랑, 방세를 받을수 없는 병자라고 하여 고리오령감의 림종의 시각에 백포마저 침대에서 벗겨가는 하숙집주인 보께르 등 여러 인물들의 형상을 통하여 자본주의사회의 부패한 현실을 폭넓게 보여주고있다.

소설은 성격과 환경묘사의 생동성과 개성화, 생동한 대조법 등 예술적특성도 잘 보여주고 있다.

소설은 작가의 세계관적제한성과 시대적조건으로 하여 자본주의사회모순의 근원과 그것을 없애기 위한 방도를 밝히지 못한 본질적인 약점을 가지고있으나 귀족부르죠아사회를 예리하게 폭로한 강한 비판적기백과 사실주의적전형화의 높은 기교로 하여 19세기 프랑스와 유럽의 비판적사실주의문학에서 대표적인 작품의 하나로 되였다.

플로배르와 장편소설 《보바리부인》

스땅달과 발자끄가 19세기 전반기 주로 30—40년대 프랑스비판적사실주의문학을 대표하는 작가라면 플로배르는 19세기 후반기, 50—70년대 프랑스비판적사실주의문학을 대표하는 작가의 한사람이다.

귀스따브 플로배르(1821—1880)는 노르망디지방 루앙의 외과의사집안에서 태여나 빠리종합대학에서 법학을 전공하였다. 그러나 어릴때부터 감수성이 예민하고 문학작품읽기를 즐겼으며 12살때부터 단편소설과 희곡을 습작하기 시작했던 그는 법학을 포기하고 작가생활에 들어갔다.

그는 몇번의 해외려행과 빠리방문을 내놓고는 거의 은둔생활을 하다싶이하면서 창작에 몰두하였다.

그는 40년대부터 작품을 쓰기 시작하였으나 1857년에 장편소설 《보바리부인》을 발표한 때에야 비로소 작가로서 인정을 받게 되였다.

그는 다음해에 아프리카로 건너가 력사유물과 사료들을 구체적으로 연구한데 기초하여 력사소설 《쌀람보》를 창작하였고 다음에는 현실주제의 장편소설 《감정교육》(1869)을 내놓았다.

1870년대에 이르러 그는 창작에서 하강선을 그었다. 1871년 빠리꼼뮨의 력사적의의를 옳게 리해하지 못한 그는 그후의 창작에서 사회적진보에 대한 불신과 염세주의적경향을 드러냈다. 이러한 경향은 이 시기에 발표된 장편소설 《성 앙뜨완의 유혹》(1874), 단편소설집 《세 이야기》, 미완성장편소설 《부바르와 뻬퀴쉐》 등

에서 표현되였다.

프랑스의 자본주의사회현실을 비판적으로 대하면서도 그로부터의 출로를 찾지 못하고 종당에는 염세주의에 빠진 플로배르의 창작은 많은 제한성을 가지고있으나 사실주의적특성, 묘사와 언어구사의 적중성과 명백성, 풍부한 표현력, 구성의 째임새 등으로 하여 프랑스사실주의문학발전에 이바지하였다.

그의 대표작은 장편소설 《보바리부인》이다. 이 소설에서 작가는 당대 프랑스의 지방풍속을 묘사하면서 의사의 안해인 녀주인공 보바리부인의 운명을 통하여 저속하고 속물적인 부르죠아적현실을 랭정하게 비판하였다.

수도원에서 교육을 받아 현실을 모르고 미래에 대한 아름다운 꿈만 간직하고있던 노르망디의 부농의 딸 엠마는 좀 모자라는 시골의사 샤를 보바리와 결혼하여 그의 후처가 된다. 그러나 원래 정서가 없이 메마르고 돈밖에 모르는 속물인 샤를은 늘 무엇인가 새것을 지향하고 열정적이며 다정다감한 엠마의 정신적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한다.

점차 남편을 배척하게 된 엠마는 젊은 공증인 레옹을 사모하다가 그가 빠리로 떠나가자 호색한인 의사 로돌프의 유혹에 걸려든다. 로돌프는 엠마를 일시적인 롱락물로 삼았다가 어느날 그를 버리고 도망친다. 엠마는 그후 빠리에서 돌아온 레옹과 다시 사랑에 빠진다.

그사이 엠마는 거액의 빚을 지고 그것을 갚지 못하여 집까지 차압당하게 된다. 궁지에 빠진 엠마는 사태를 수습해보려고 로돌프와 레옹을 찾아가 도와줄것을 애걸했으나 그들은 모두 외면한다.

엠마는 절망끝에 그들을 원망하며 독약을 먹고 자살한다. 자기 처가 자살한 다음에야 그가 남긴 편지를 통해 모든것을 알게 된 샤를은 자기 운명을 비관하면서 비참하게 죽는다.

작품은 녀주인공 엠마의 형상을 통하여 꿈많던 그를 비극적운명에 몰아넣은 부르죠아사회현실을 예리하게 비판하였다. 엠마를 불행에 빠뜨린 로돌프와 레옹, 모자라는 샤를의 형상 역시 개인리기주의가 지배하는 저속하고 속물적인 부르죠아적현실에 대한 비판으로 된다.

작품 《보바리부인》이 출판된 후 플로배르는 사회풍조를 문란케 했다는 리유로 고발되기까지 하였다. 그러나 실지 있은 사건에서 취재하고 5년동안이나 추고한 이 소설은 프랑스의 지방풍속을 정확히 포착하고 당시 프랑스사회의 진면모를 발가낸 전형화의 높은 예술적기교로 하여 19세기 중엽 프랑스비판적사실주의문학에서 이채를 띠는 작품의 하나로 되였다.

졸라와 총서 《루공－마까르일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에밀 졸라 역시 발자끄의 총서 〈인간희극〉을 본받아 모두 20편으로 된 총서 〈루공－마까르일가〉에서 1851년이후 프랑스 제2제국과 제3공화국의 사회적면모를 여러 면에서 진실하게 펼쳐보임으로써 황금만능의 부르죠아사회를 발가놓았습니다.》

졸라는 플로배르와 같은 시기에 창작활동을 벌리다가 플로배르가 사망한 다음 20여년이나 더 활약하여 많은 창작유산을 남김으로써 19세기 프랑스와 유럽비판적사실주의문학발전에 크게 기여한 세계적인 문호이다.

에밀 졸라(1840－1902)는 빠리의 건설기사의 집안에서 태여나 일찌기 아버지를 여의고 빈궁과 고독속에서 청소년시절을 보냈다. 그는 리과대학입학자격시험에 응시했다가 락제하자 지망을 바꾸고 60년대 중엽부터 작가생활에 들어섰다.

그는 공화주의사상에 공명했으나 처음에는 자연주의작가로 문단에 등장하였다. 한때 자연주의와 실증주의에 사로잡힌 그는 《실험소설론》(1880)이라는 론문을 발표하였는데 여기서 객관적인 현실생활을 정확하게 반영하기 위해서는 문학창작을 확고한 과학적토대우에 올려놓아야 한다고 하면서 과학적실험과 관찰의 방법을 창작에 도입할것을 주장해나서기까지 하였다. 이로부터 그의 창작에는 의학적, 생물학적, 생리학적수법까지 도입되였다. 이렇게 자연주의는 그의 창작에 강한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그의 창작에서는 처음부터 반동적인 자연주의작가들과는 구별되는 다른 특징이 나타났다. 그것은 계급적모순에 가득찬 자본주의사회의 현실을 진실하게 그려내려는 강한 지향과 착취계급을 미워하고 인민들에게 호의를 가진 민주주의적경향이였다.

이러한 경향은 19세기 60년대말—70년대초 제2제정의 위기와 1871년 빠리꼼뮨의 영향으로 하여 더욱 뚜렷이 나타났으며 그는 점차 자연주의의 영향에서 벗어나 사실주의적인 창작의 길로 나갔다. 소설총서 《루공—마까르일가》(전 20편)에는 그의 이러한 탐구과정이 잘 반영되여 있다.

그후 그는 련작장편소설들인 《세 도시》(《루르》 1894, 《로마》 1896, 《빠리》 1898)와 《네 복음서》(《풍요》 1899, 《로동》 1901, 《진리》 1903 등)를 창작하였다.

이 작품들에는 부르죠아사회에 대한 작가의 비판과 사회주의에 대한 지향이 강하게 표현되여있다.

그는 드레이퓨스사건(한 유태인장교가 무고하게 체포된 사건)이 일어나자 유태인장교를 옹호하고 정부와 군부를 탄핵하는 공개서한을 발표하는 등 인도주의와 민주주의를 옹호하는 활동을 벌렸다. 그는 1902년 가을 난로의 가스중독으로 사망하였다. 반드레이퓨스파의 음모라는 설도 있으나 진상은 해명되지 못했다.

졸라의 창작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것은 총서 《루공—마까르일가》이다. 《루공—마까르일가》(1871—1893)는 졸라가 인생의 황금시기인 청장년시기 22년간을 바쳐 완성한 소설묶음이다. 작가는 이 총서에서 발자끄의 총서 《인간희극》을 본받아 19세기 후반기 프랑스의 사회생활을 전면적으로 반영하고 프랑스민족의 력사를 재현하려고 시도하였다.

총서에는 《제2제정하 한 가족의 자연적, 사회적력사》라는 부제목이 달려있다. 이 부제목이 말해주는바와 같이 총서는 나뽈레옹의 조카 루이 보나빠르뜨가 국가정변을 일으켜 1848년 2월에 수립되였던 공화제를 폐지하고 자신이 황제가 되여 제2제정을 선포한 1851년 12월부터 제2제정이 무너진 1871년까지를 시대적배경으로 하여 루공—마까르일가의 생활사와 당대 사회생활을 폭넓게 반영하고있다.

이 일가의 1대는 아데라이드 푸끄라는 녀자와 그의 남편인 농민 루공 그리고 루공이 죽은 후 그 녀자의 정부가 된 주정뱅이 마까르이다. 이들을 조상으로 이 일가는 5대에 34명을 헤아리게 된다. 전 20편으로 구성된 총서의 매 작품은 이들중 한두사람을 주인공으로 등장시켜 그들의 운명을 통해 당대 현실을 보여주고있다.

첫 작품인 《루공일가의 경력》(1871)을 비롯하여 총서에 포함된 20편의 장편소설들은 그 주제사상적내용에 따라 크게 세 부류로 갈라볼수 있다.

첫 부류는 제2제정하 프랑스지배계급의 생활을 반영하면서 그들의 반동적본질과 부패한 생활을 폭로한 작품들이다. 《획득물》(1871), 《쁠라쌍의 정복》(1874), 《외젠 루공각하》(1876) 등이 여기에 속한다.

둘째 부류의 작품들은 겉보기에는 번영하는듯 한 제2제정하 프랑스사회가 속으로는 얼마나 곪고 썩어가고있는가를 밝혀내고있다. 《선술집》(1877), 《나나》(1880), 《끓는 남비》(1882) 등이 그 대표적작품들이다.

셋째 부류의 작품들은 자본가계급과 로동계급사이의 비타협적인 계급적대립과 모순을 까밝히고 자본가계급을 반대하는 투쟁에 일떠선 로동계급의 형상을 창조하고있다. 그 대표작이 《제르미날》(1885)이다.

총적으로 졸라는 총서 《루공—마까르일가》에서 1851년이후 프랑스 제2제국과 제3공화국의 사회적면모를 진실하게 펼쳐보임으로써 황금만능의 부르죠아사회를 비판하였다.

그러나 졸라는 총서에서 사회력사적 및 세계관적제한성으로 하여 부르죠아사회의 내막을 폭로비판하는데 그쳤기때문에 인민대중에게 새 사회건설을 위한 참다운 길을 밝혀줄수 없었다. 또한 자연주의적경향도 강하게 드러냈다. 그리고 총서는 당대 사회생활풍속, 세태의 이모저모에 대한 장편소설들을 체계없이 묶어놓았기때문에 생활발전의 일관한 흐름이 없고 전일적인 구성도 갖추지 못하였다.

총서에서 제일 잘된것은 《제르미날》과 《선술집》이다. 특히 《제르미날》은 의의가 큰 작품이다.

《제르미날》

졸라가 1885년에 발표한 장편소설 《제르미날》은 19세기말에 프랑스에서 장성한 로동운동, 로자간의 첨예한 대립과 투쟁을 반영하고있다.

기계수리공이였던 주인공 에띠엔느 랑띠에청년은 감독놈과 싸운탓으로 해고당하여 실업자로 정처없이 헤매다가 몽쑤탄광에 탄부로 들어가

게 된다. 탄부가 된 에띠엔느는 암흑과 비참한 로동생활속에서도 인간의 량심을 잃지 않고 살아가며 앞날에 대한 리상과 꿈을 안고 점차 투쟁의 길에 나서게 된다.

그는 로동을 하면서 사회주의출판물들을 탐독하는 과정에 자기의 처지뿐아니라 학대받는 로동대중의 생활과 그들의 해방문제에 대하여 깊이 생각하게 된다. 그 과정에 그는 사람이 사람을 착취하는 사회를 뒤집어엎고 정의와 평등과 우정으로 인류의 행복을 보장할 미래사회를 그려본다.

에띠엔느의 지도밑에 마외를 비롯한 탄부들은 기업주의 부당한 처사를 반대하고 생활처지의 개선을 요구하여 동맹파업을 일으킨다. 탄부들은 기업주측의 온갖 위협과 회유를 박차고 혹심한 굶주림과 빈궁을 극복하면서 견결히 싸운다. 파업은 폭동으로 발전하였으나 군대의 류혈적인 탄압으로 실패하고만다.

소설은 일자리를 구하러 탄광에 찾아왔던 에띠엔느가 파업과 폭동에서 실패하였으나 승리를 약속하는 새봄—제르미날이 다가온다는 신심을 안고 이 탄광을 떠나는것으로 끝나고있다.

이 소설의 혁신성은 당시 자본주의사회에서 로동계급의 처지, 특히는 마외일가를 비롯한 탄광로동자들의 비참한 로동조건과 생활처지를 지배인 엔보부부와 주주 그레그와르부부의 사치하고 호화로운 생활과의 대조속에서 생동하게 반영함으로써 착취사회의 계급적모순과 대립을 명백히 까밝힌데 있다.

나아가서 작품은 로동자들의 빈궁화가 그들을 타락과 파멸에로 이끄는것이 아니라 반대로 자신의 권리를 자각하는데로, 자본가계급을 반대하는 투쟁에로 이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작품의 이러한 사상은 생활의 시련을 거쳐 자신의 꾸준한 노력으로 사회주의사상의 진리성을 깨닫고 로동자들을 생존의 권리를 위한 투쟁에로 이끄는 로동계급의 선각자 에띠엔느의 형상에 구현되여있다.

그러나 작품에는 작가의 세계관적제한성과 자연주의의 영향이 농후한 심각한 결함도 나타나고있다. 작가는 로동계급의 생활과 투쟁을 그리면서도 로동계급의 계급적특성과 위력을 옳게 보여주지 못하고 탄부들의 파업투쟁을 많은 경우에 자연발생적인것으로, 의식적인 행동으로가 아니라 본능의 결과처럼 묘사하고있으며 폭동장면에서는 폭동을 일으킨 로동자들을 거칠고 사나운 인간들로 외곡하여 그리고있다. 소설에는 그밖에도 로동자들의 생활과 남녀관계, 세부묘사와 언어구사에서 자연주의의 경향을 강하게 나타내고있다.

졸라의 장편소설 《제르미날》은 일정한 제한성을 가지고있으나 19세기 80년대의 시대적조건에서 그것도 비판적사실주의작가가 자본가계급을 반대하는 로동계급의 투쟁을 정면에서 묘사하고 그 정당성을 보여준것으로 하여 문학사적의의가 큰 작품으로 되였다.

모빠쌍과 소설

앙리 르네 알배르 기 드 모빠쌍(1850—1893)은 프랑스 북부노르망디에서 태여났다. 그의 조상들은 오랜 귀족과 지방부르죠아들이였다. 그는 부모가 리혼한 후 어머니의 슬하에서 자유로운 청년시절을 보냈으며 루앙의 고등학교에 입학할무렵부터 약 10년동안 어머니의 벗이였던 플로배르의 창작지도를 받았다.

그는 졸업후 빠리로 가 교육성, 해군성에 10년가량 있으면서 소설창작에 몰두하였으며 1880년에 플로배르가 주관한 단편소설집 《메당의 저녁》에 《비게덩어리》를 발표하여 플로배르의 격찬을 받고 일약 문단의 총아로 되였다. 그후 약 10년동안에 6편의 장편소설과 200여편의 단편소설을 발표하여 세계적인 명성을 얻게 되였다.

그의 장편소설로는 《그 녀자의 일생》(1883), 《벨라미》(1885), 《몽뜨리올》(1887), 《삐애르와 쟝》(1888), 《죽음보다 강하다》(1889) 등이 있다.

그는 1880년경부터 일종의 신경병발작증세를 나타냈는데 그것이 심해져 1891년에 권총자살까지 기도하였으며 2년후 정신병원에서 《아, 어둡다, 어둡다.》라는 말을 남기고 세상을 떠났다.

그는 장편소설보다도 단편소설작가로서의 명성이 더 높았다. 그는 사람의 일생이나 사회의 전모를 포착하는것을 피하고 길가의 조약돌을 들추어보고 그밑에 숨겨져있는 인간생활의 희로애락을 누구나 알수 있는 친숙한 필치로 재치있

게 그려내는 특기를 발휘한 개성적인 단편소설가였다.

그의 단편소설들가운데는 애국주의와 용감성, 인간성과 의협심 등 인민들의 고상한 정신세계를 이모저모에서 보여준 《포로들》, 《어머니》, 《휘휘아가씨》, 《밀롱령감》, 《씨몽의 아버지》, 《의자수리공》, 부르죠아들의 위선과 리기주의, 비인간성과 잔인성을 폭로한 《비게덩어리》, 《정변》, 《달빛》, 《비호자》를 비롯한 재치있는 작품들이 적지 않다.

모빠쌍이 자기의 작품들에서 억압받고 천대받으며 굶주리고있는 인민대중에 대한 동정심을 가지고 부르죠아사회의 진면모를 폭로비판한것은 그가 당대 사회를 옳게 보았다는것을 말해준다.

그렇기때문에 그는 인민들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부르죠아사회의 비인간성과 패륜패덕한 소부르죠아지들의 허영심, 파렴치성, 종교적금욕주의를 비판한 재치있는 단편소설을 많이 쓸수 있었으며 프랑스사실주의문학의 대표적작가의 한사람으로 될수 있었다.

모빠쌍의 창작은 모순된 현실에 대한 비판정신이 투철하지 못하고 주어진 환경과 타협하려는 경향, 염세주의, 자연주의, 퇴페주의의 요소를 나타내였으나 작품이 달성한 진보적성과로 하여 19세기 프랑스비판적사실주의문학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있다.

그의 대표작은 단편소설에서 《비게덩어리》, 장편소설에서 《그 녀자의 일생》이다.

단편소설 《비게덩어리》는 프랑스—프로씨아전쟁시기를 배경으로 려행도중에 벌어진 짤막한 이야기속에 당시의 프랑스사회현실을 반영한 작품이다.

어느 추운 겨울날 새벽 대형마차가 루앙의 거리를 떠나간다. 프로씨아군에게 점령된 이 거리의 부르죠아지들이 프로씨아군 사령관을 매수하여 려행허가증을 얻어가지고 프랑스군대가 있는 곳으로 가는것이다. 마차의 기본승객은 포도주도매상인부부와 현의회 대의원인 제사공장주부부, 명문귀족인 로백작부부이며 거기에 민주주의자 한명과 두 녀승, 비게덩어리라는 별명이 붙은 살이 찐 매춘부가 섞여있다.

그날 밤 마차가 어느 한 거리에 머물렀을 때 말썽이 생긴다. 프로씨아장교가 비게덩어리에게 눈독을 들여 자기와 하루밤을 같이 지내지 않으면 마차를 통과시키지 않겠다고 언명한것이다. 비게덩어리는 장교의 요구를 단호히 거절한다. 처음 그의 애국적소행을 칭찬하던 승객들은 날이 갈수록 초조감에 사로잡혀 온갖 구실을 붙여가며 자기희생정신을 발휘하라고 그를 설복한다.

드디여 마차가 떠날수 있게 된다. 그러나 승객들은 비게덩어리에게 곁을 주지 않고 따돌리며 점심도 자기들끼리 먹어버린다. 민주주의자는 내내 프랑스혁명가를 노래부르고 비게덩어리는 내내 울며 지낸다.

이를 통하여 소설은 당시 프랑스부르죠아사회의 축도를 펼쳐보이면서 귀족이나 공장주, 상인들은 나라의 운명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제 리속만 채우기에 급급한 위선자들이며 리기주의자들이라는것을 예리하게 폭로하였다.

동시에 프랑스의 진정한 애국자는 하층인민들속에 있다는것을 보여주었다. 여기서는 남의 고통에 대한 동정심도, 순진한 애국심도, 용감한 반항정신도, 겨레를 위한 희생정신도 다 비천한 매춘부에게서만 찾아볼수 있다. 교양이 높은 귀족상인들은 국난에는 아랑곳없이 일신의 보호와 치부에 눈이 어두워 돌아친다.

작품은 부르죠아사회에 대한 예리한 비판정신과 단편소설창작의 높은 기교로 하여 모빠쌍의 작품중에서 대표작의 하나로 평가되였다.

《그 녀자의 일생》

장편소설 《그 녀자의 일생》은 19세기 중엽 프랑스귀족부르죠아사회의 부패한 현실을 폭로한 작품이다.

소설은 프랑스에서의 부르죠아혁명후 한 귀족가문이 3대에 걸쳐 몰락하는 과정을 통하여 부르죠아귀족사회의 내막을 폭로비판하였다.

소설은 17살난 녀주인공 잔이 5년동안의 수도원생활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장면부터 시작되고있다. 바깥세상과 담을 쌓고 수도원안에서만 생활해온 잔은 세상물정을 전혀 알지 못한채 앞날에 대한 희망과 랑만적인 꿈을 안고 새생활을 시작한다.

그러나 가혹한 현실은 잔의 그 꿈과 희망을 여지없이 짓뭉개버린다.

그는 얼마후 부모들이 정해준대로 미남의 귀족

청년 쥴리앙 라마르자작과 결혼한다. 그런데 그처럼 동경을 가지고 맞았던 남편이 파렴치한 부르죠아속물이라는것을 알게 된다. 남편은 약혼을 하고 신혼려행기간에만 그를 사랑하는척 하였을뿐 신혼려행에서 돌아온 그날 밤부터 침실마저 달리하고 쟌을 배반하였다. 그는 처음에는 하녀 로잘리와, 그다음에는 부근에 사는 프로빌백작부인과 부화한 관계를 계속 가지다가 백작부인의 남편에 의해 벼랑에서 굴러떨어져 죽는다.

쟌은 가장 믿던 부모가 세상을 떠난 다음에야 그들이 신성한 사람들이 아니였다는것을 깨닫게 된다.

그는 남편이 죽은 다음 아들에게 마지막희망을 품었는데 그마저 주색에 빠져 방탕한 사람으로 되고만다.

소설은 이처럼 녀주인공이 사람들을 부패타락한 인간으로 만드는 프랑스부르죠아귀족사회에 대한 환멸을 느끼는 과정을 통하여 당대 부르죠아귀족사회를 예리하게 비판하였다.

소설은 자연지리적환경묘사를 정확하게 하고 있으며 자연묘사와 인물들의 성격묘사를 능란하게 밀착시키고있다.

소설은 작품전반에 쓸쓸하고 비관주의적색조가 지배하고있으며 자연주의적요소를 나타낸것과 같은 제한성이 있으나 당대 프랑스부르죠아귀족사회를 비판적으로 잘 보여주고 소설묘사의 기교가 높은것으로 하여 19세기 프랑스비판적사실주의소설문학의 성과작의 하나로 널리 알려져있다.

그밖에도 19세기 프랑스비판적사실주의작가로서는 메리메와 도대도 있다.

메리메

19세기 30—40년대에 창작활동을 벌린 쁘로스뻬르 메리메(1803—1870)는 빠리의 미술가의 집안에서 태여나 법학을 공부하였고 오래동안 력사유물감독관으로 있으면서 고고학과 력사, 언어학을 연구한 비직업작가였다.

그는 단편소설과 중편소설창작에서 재간을 나타내였는데 단편소설 《따망고》(1829)와 《마떼오 빠르꼬네》(1829), 중편소설 《꼴롬바》(1840)와 《까르맹》(1845)을 비롯한 많은 작품들을 발표함으로써 널리 알려지게 되였다.

《따망고》에서는 백인들의 흑인노예장사행위를 폭로하였다면 《마떼오 빠르꼬네》에서는 서민출신의 자유애호적이며 정열적인 인물들을 위선적이며 리기주의적인 부르죠아사회의 대표자들과 대치시켰고 《까르맹》에서는 부르죠아생활환경이 인간성격에 미치는 해독적후과에 대해 형상적으로 보여주었다.

그는 창작에서 고전주의와 반동적랑만주의를 배격하고 비판적사실주의로 나갔으며 당대 현실과 지난날의 력사를 비교적 진실하게 반영하여 사회비판적경향을 뚜렷이 하였다.

인상적인 개성적성격을 창조하고 예민한 감수성과 강렬한 정열, 째인 구성, 간결한 문체로 특징적인 메리메의 단, 중편소설들은 19세기 프랑스비판적사실주의소설문학의 귀중한 유산으로 되였다.

도 대

알퐁스 도대(1840—1897)는 1870—1880년대에 창작활동을 벌린 재간있는 소설가이다.

그는 남프랑스, 쁘로방스지방의 령락한 직물업자의 집안에서 태여나 초등학교 교원으로 있다가 빠리에서 문필활동을 시작하였다. 그는 시와 희곡, 소설과 수필 등 여러 형태의 작품들을 창작하였으나 주로 소설창작에서 재간을 나타냈다.

그는 고향 쁘로방스의 풍물과 전설을 이야기한 작품집 《풍차방아간소식》(1869)을 발표하여 작가로서의 지위를 확립한 후 프랑스—프로씨아전쟁때(1870—1871)의 현실을 반영한 단편소설집 《월요일이야기》(1873), 한 청년의 생활고에 대한 묘사를 통하여 당시의 사회현실을 풍자한 장편소설 《동생 프로몽과 형 리슬레르》(1874), 중류부르죠아들의 생활을 폭로한 장편소설 《쌉포》(1884) 등의 작품들을 썼다.

그는 특히 단편소설 《마지막수업》(1873)에서 프로씨아군대에게 강점된 프랑스의 한 지방 학교에서 민족어를 사랑하는 로교원이 마지막 프랑스어수업을 하는 형상을 통하여 프랑스인민의 애국적감정을 보여주었다. 그는 또한 3부작장편소설 《따라스꽁태생의 따르따랭》(1872)에서 허장성세하면서 아프리카의 사자잡이를 떠나는 주인공 따르따랭에 대한 이야기를 통하여 당대의 돈 끼호떼인 프랑스부르죠아지의 전형적인 성격적특징을 풍자적으로 그려내였다.

그의 창작은 프랑스비판적사실주의의 전통을 이어받아 현실을 사실주의적으로 묘사하였으며 서정성과 익살, 해학을 결합시킨 독특한 수법을 구사한것으로 하여 19세기 후반기 프랑스문학에 한페지를 기록하게 되였다.

4) 빠리꼼뮨문학과 뽀찌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공산주의운동은 빠리꼼뮨으로부터 계산하여도 100여년의 력사를 가지고있습니다. 공산주의사상은 세계의 수많은 나라들에서 지배적인 사상으로 되였으며 사람들의 심장속에 깊이 자리잡고있습니다.》

빠리꼼뮨문학이란 빠리꼼뮨참가자들과 그 지지자들에 의하여 창작된 문학을 말한다. 빠리꼼뮨문학은 꼼뮨이 존재했던 72일간과 그 이후 약 20년간에 걸쳐 창작된 문학으로서 꼼뮨의 력사적사변과 제반 시책, 경험과 교훈을 시대와 력사발전과의 련관속에서 폭넓게 반영하고 있다.

1871년 3월 18일 무장한 프랑스 빠리의 로동계급은 부르죠아국가기구를 때려부시고 빠리꼼뮨을 선포하였으며 일련의 혁명적인 시책들을 실시하였다. 꼼뮨을 세운 로동계급은 혁명의 전취물을 고수하기 위하여 영웅적으로 싸웠으나 혁명투쟁을 정확히 령도할수 있는 탁월한 수령과 혁명적당을 가지지 못하였기때문에 내외원쑤들의 반혁명적공세앞에서 꼼뮨을 끝까지 지켜낼수 없었다.

꼼뮨은 비록 실패하였으나 력사상 첫 프로레타리아독재정권으로서 국제공산주의운동과 로동운동에 커다란 경험과 교훈을 남기였다.

빠리꼼뮨문학은 빠리꼼뮨의 업적을 아로새겨놓은 전투적이며 혁명적인 문학으로서 초기공산주의운동의 본질적특성을 반영한 첫 프로레타리아문학으로 되였다.

꼼뮨문학은 꼼뮨의 수립과 꼼뮨의 경험, 꼼뮨에 의하여 개척된 혁명운동의 새로운 단계를 반영하면서 프로레타리아혁명투사의 형상을 창조하고 부르죠아반동문학의 반인민적본질을 폭로하였다.

꼼뮨문학은 진정으로 인민에게 복무하고 혁명에 복무하는 문학이였다.

꼼뮨문학의 이와 같은 혁명적인 내용은 정론적이면서도 정서적인 언어표현과 대중적이고 통속적인 다양한 형상수법에 의하여 커다란 감화력을 나타내였다.

빠리꼼뮨문학의 대표적인 작가들로는 꼼뮨참가자들인 뽀찌에를 비롯하여 샤뜰렝, 미쉘, 끌레망 등의 시인들과 발레스, 끌라델과 같은 소설가들을 들수 있다.

빠리꼼뮨문학에서 기본은 시문학이였다.

빠리꼼뮨시문학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것은 빠리꼼뮨을 세우고 고수한 꼼뮨전사들의 영웅적투쟁과 불멸의 업적을 노래한 작품들이다.

시인 뽀찌에의 혁명적가사 《인터나쇼날》과 시 《폭동자》, 《빠리꼼뮨은 이 길을 걸었다》, 《잊지 못할 1871년 3월 18일》, 《지키라 빠리여》, 로동자출신의 시인이며 국민자위군 중앙위원회 위원이였던 샤뜰렝의 시 《빠리꼼뮨 만세!》, 빠리꼼뮨의 적극적인 지지자였던 시인 위그의 시 《빠리꼼뮨에 바치노라》, 케일러의 시 《꼼뮨의 마지막전사》 등이 여기에 속한다.

빠리꼼뮨시문학에는 반혁명적폭력으로 꼼뮨을 야수적으로 진압하고 꼼뮨전사들과 인민들을 닥치는대로 학살한 부르죠아교형리들의 만행을 규탄하고 원쑤들에 대한 치솟는 적개심을 표현한 작품들도 적지 않다.

뽀찌에의 《백색테로》와 《너는 아무것도 모른단 말이냐?》, 끌레망의 《외마디대장》과 《피의 한주일》, 미쉘의 《수도 배르싸이》, 샤뜰렝의 《좐나》, 뜨로아일의 《희생자와 도살자》, 쟈르쏘의 《배르싸이파》 등이 모두 그러한 작품들이다.

빠리꼼뮨시문학에는 또한 꼼뮨전사들이 못다 이룬 뜻을 이어받아 혁명승리를 위하여 억세게 싸울 굳은 결의를 노래하고 빠리꼼뮨이 시작한 투쟁의 정당성과 승리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보여준 작품들이 많은 자리를 차지하고있다.

뽀찌에의 《꼼뮨은 죽지 않았다》와 《쥴 발레스》, 미쉘의 《혁명은 실패하여도》, 《수인의 노래》, 《빠리꼼뮨》, 위그의 《옥중가》, 와일마이쇄의 《방화자》를 비롯한 많은 작품들이 이에 속한다.

빠리꼼뮨시문학에는 이밖에도 빠리꼼뮨의 경험과 교훈, 그 세계사적의의를 밝힌 뽀찌에의 《빠리꼼뮨성원기념비》와 스웨뜨로의 《부활한 빠리꼼뮨》과 같은 시들, 빠리꼼뮨의 모범을 따라 착취자, 압박자들을 쳐부시는 투쟁에 떨쳐나설것을 호소한 뜨로아의 《무산자의 노래》와 같은 작품들도 있다.

빠리꼼뮨문학의 유산에는 일부 소설작품도 있다. 발레스의 3부작장편소설 《쟈끄 벵뜨라》와 끌라델의 장편소설 《쟈끄 라따스》가 그 대표작이다.

쥴 발레스(1832—1885)는 지방의 가난한 중학교 교원의 아들로 태여났다. 그는 빠리꼼뮨이 수립되자 꼼뮨위원으로 선거되였으며 꼼뮨이 진압된 후 영국에 망명했다가 1883년에 귀국하였다. 그후 그는 1871년에 창간했던 신문 《인민의 웨침소리》를 복간하고 신문활동을 벌리였다.

그는 대표작인 3부작장편소설 《쟈끄 벵뜨라》(제1부 《소년》 1879, 제2부 《학생시절》 1881, 제3부 《폭동자》 1886)에서 주인공의 유년시절부터 시작하여 그가 꼼뮨투사로 되기까지의 성장과정을 그려보이면서 꼼뮨투사의 형상을 창조하고 빠리꼼뮨위업의 정당성을 예술적으로 확증하였다.

마구공의 아들이였던 레옹 끌라델(1835—1892)은 빠리꼼뮨사변에서 큰 충격을 받고 장편소설 《쟈끄 라따스》(1872—1882, 1921 출판)를 창작하였다. 작품은 농촌출신의 무식한 청년으로부터 빠리꼼뮨로동자부대의 지휘관으로 자라나 투쟁과정에 체포되여 교형리들에게 처형당하는 주인공 쟈끄 라따스의 형상을 통하여 빠리꼼뮨의 발전과 함께 투쟁속에서 자라나는 꼼뮨투사의 성격을 창조하였다.

이와 같이 빠리꼼뮨문학은 력사상 첫 프로레타리아독재정권이였던 빠리꼼뮨을 세우고 그것을 고수하기 위한 로동계급의 투쟁을 예술적으로 일반화하였으며 꼼뮨의 영향밑에 인민출신의 광범한 사람들이 혁명투쟁의 길에 나서는 력사적과정을 생동한 형상으로 보여주었다.

빠리꼼뮨문학은 과학적사회주의사상에 의하여 안받침되지 못한것으로 하여 일련의 제한성을 나타내였으나 자본의 철쇄를 끊어버리고 사회주의를 위한 로동계급의 혁명투쟁을 정면으로 반영한것으로 하여 프랑스의 프로레타리아문학과 사회주의적사실주의문학의 형성발전에 귀중한 토대로 되였다.

뽀찌에와 가사 《인터나쇼날》

에젠 뽀찌에(1816—1887)는 빠리의 가난한 수공업자의 집안에서 태여나 겨우 초등교육까지 받고 13살때부터는 짐포장군이였던 아버지를 도와 일하였다. 그는 비록 교육은 얼마 받지 못했지만 어려서부터 시창작에 특별한 취미를 가지고있었으며 혁명적민주주의시인 베랑제의 지도를 받아 시인으로서의 자질을 갖추게 되였다.

그는 1830년대초부터 직물화공으로 일하면서 시를 썼다. 그는 1864년 제1국제당이 창건되자 프랑스화공로동조합을 조직하고 제1국제당에 가입하였으며 많은 시를 창작하여 로동운동을 고무추동하였다.

빠리꼼뮨이 수립되자 그는 꼼뮨위원회 위원으로 선출되였고 예술가동맹의 조직자, 꼼뮨문예시책의 집행자의 한사람으로 사업하였다. 꼼뮨실패후 그는 반동세력의 추적을 피해 빠리의 뒤골

목에 피신해있으면서 혁명적가사 《인터나쇼날》을 창작하였다.

그는 그후 약 10년동안 외국에서 망명생활을 하다가 1880년에야 귀국하였다. 고국으로 돌아온 그는 정력적인 시창작활동을 벌려 《폭동자》, 《빠리꼼뮨은 이 길을 걸었다》, 《꼼뮨은 죽지 않았다》, 《잊지 못할 1871년 3월 18일》, 《백색테로》를 비롯한 많은 시들을 썼다.

이 작품들에서 시인은 꼼뮨의 력사적사변을 회상하고 그 경험을 분석하면서 꼼뮨의 혁명적립장을 견지하였으며 자본주의멸망의 불가피성을 확인하였다. 또한 자본주의사회기구를 해부하고 목적의식적으로 싸우는 혁명적로동자의 형상을 창조하려고 지향하였다.

그의 창작은 과학적사회주의사상을 완전히 체득하지 못한데로부터 제한성을 가지고있으나 프랑스와 유럽의 혁명적시문학발전에 큰 영향을 주었다.

그의 대표작인 《인터나쇼날》은 자본의 철쇄를 짓부시고 착취와 압박이 없는 새 사회를 건설하는 투쟁에 피압박, 피착취인민대중이 나설것을 호소한 전투적인 혁명적시가이다.

오늘날 보급되고있는 가사는 모두 3개 절로 되여있다.(이것은 뽀찌에의 원작에서 제1, 2, 6절에 해당하는 부분을 개작한것이다.)

가사는 굶주리고 짓밟히는 모든 근로대중은 압제자들과 착취자들을 반대하는 결사전에 떨쳐나 압박받고 천대받던 사람들이 주인된 자유로운 새 세계를 세울데 대하여 격조높이 호소하고있다.

일어나라 저주로 인맞은
주리고 종된자세계
우리의 피가 끓어넘쳐
결사전을 하게 하네

또한 가사는 착취사회에서 근로인민대중의 비참한 생활처지는 하느님이나 제왕에 의해서도, 그 어떤 영웅에 의해서도 구원될수 없음을 노래하면서 오직 자신의 투쟁으로써만 사회적해방을 쟁취할수 있다는것을 형상적으로 노래하고있다.

억제의 세상 뿌리빼고
새 세계를 세우자
짓밟혀 천대받은자
모든것의 주인이 되리

가사는 매 절의 후렴구마다에서 로동계급의 계급적련대성을 힘있게 강조함으로써 가요의 정치사상적예리성과 전투성, 호소성을 더욱 부각시키고있다.

이는 우리 마지막
판가리싸움이니
인터나쇼날로
인류가 떨치리

가사는 인간에 의한 인간의 착취와 압박을 없애고 인류의 찬란한 미래인 사회주의, 공산주의사회를 건설하기 위하여 싸우는 로동계급의 력사적사명을 명료하고도 장엄한 시적형상으로 훌륭히 형상하고있다. 가사에서 풍겨나오는 높은 혁명적열정과 지향, 호소성과 승리의 신심은 이 작품의 중요한 특징으로 되고있다.

1871년에 뽀찌에가 쓴 이 가사는 그후 1888년에 벨지끄출신의 프랑스로동자작곡가 삐애르 데게이떼르에 의하여 작곡되여 혁명가요로 전세계에 널리 퍼지게 되였다.

혁명가요 《인터나쇼날》은 자본의 착취와 예속에서 해방되려는 근로인민대중의 사상감정을 높은 예술적경지에서 반영한것으로 하여 민족적 및 사회적해방을 위하여 싸우고있는 전세계 로동계급을 비롯한 혁명적인민들속에서 널리 불리우면서 단결과 투쟁, 련대성의 상징으로 되였다.

3. 영 국 문 학

1) 이름난 시인들과 함께 많은 소설가들을 배출한 영국문학

부르죠아변호론자들은 빅토리아녀왕이 국왕으로 있던 19세기를 마치도 영국력사에서 안정과 번영의 시대였던듯이 미화분식하고있다. 그의 문학적반영으로 19세기 중엽에 빅토리아주의문학이라는 현실분식의 부르죠아문학조류까지 류행하였다.

그러나 19세기는 영국에서 부익부, 빈익빈의 자본주의제도가 확고하게 수립된 모순에 찬 시대였다.

이 시기 영국에서는 근로인민대중에 대한 부르죠아지들의 가혹한 착취와 야수적인 식민지략탈에 의하여 산업자본주의가 빨리 발전하였다. 그 결과 도시와 농촌에서 자본주의적관계가 전일적으로 지배하게 되여 농민은 농업로동자로 전락되였다.

1832년 선거법개혁으로 확고하게 지배적지위를 차지하게 된 영국의 산업부르죠아지는 대내적으로는 로동계급을 비롯한 광범한 인민대중에 대한 압박과 착취를 더욱 강화하고 대외적으로는 식민지략탈에 더욱 미쳐날뛰였다. 이미 차지한 인디아외에도 아프가니스탄과 뉴질랜드, 중국의 일부와 먄마, 아프리카나라들에까지 강도적인 침략의 마수를 뻗친 영국식민주의자들은 19세기 중엽에 이르러 1억 2 000여만의 인구를 포괄하는 520여만㎢의 광대한 령토를 식민지로 만들었다.

그리하여 실제적으로 영제국의 안정과 번영이란 국내로동계급과 식민지인민들의 피와 땀을 짜낸 대가로 이루어진 피비린내나는것이였다.

19세기는 영국에서 자본의 철쇄를 짓부시기 위한 로동계급의 투쟁이 발생발전한 시기이기도 하였다. 산업혁명의 결과 계급으로 형성된 영국의 산업프로레타리아트는 기계파괴운동과 같은 초기의 자연발생적인 투쟁으로부터 점차 조직화된 적극적인 투쟁으로 넘어갔다. 19세기 30—40년대 영국로동운동의 첫 대중적정치투쟁인 챠티즘운동, 19세기 후반기 영국에서의 과학적사회주의사상의 보급과 사회주의운동의 발생 등은 그것을 뚜렷이 실증해주고있다.

19세기 영국의 진보적문학은 이러한 력사적현실을 반영하여 반동적문학과의 투쟁속에서 발전하였다.

19세기 영국의 진보적문학으로는 진보적랑만주의문학과 비판적사실주의문학, 챠티즘문학이 있었다.

바이런과 쉘리에 의하여 대표되는 영국의 진보적랑만주의문학은 19세기 10—20년대의 짧은 기간에 존재하였으나 영국의 진보적문학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으며 후기문학발전에 큰 영향을 주었다.

영국에서는 19세기 30년대에 비판적사실주의문학이 발생하였다. 이 문학은 30—40년대의 발전기, 60—70년대의 일시적쇠퇴기, 80—90년대의 앙양기를 거치면서 19세기 전반에 걸쳐 영국진보적문학의 지배적인 조류로 큰 자리를 차지하였다.

19세기 30—40년대에는 로동계급의 조직적운동인 챠티즘운동을 반영한 챠티즘문학이 발전하여 인민문학발전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였다.

이러한 진보적문학과 대립된 반동적인 문학조류로 18세기말—19세기초의 반동적랑만주의문학, 19세기 중엽의 빅토리아주의문학과 라파엘로전파운동, 19세기 말의 자연주의문학과 세기말문학 등이 발생하였으나 그 내용의 반인민성과 퇴페성, 예술적형식의 공허성으로 하여 광범한 인민대중들로부터 배척당하였다.

19세기 영국문학에서는 소설(주로 장편소설)이 주도적인 형태로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시문학은 소설보다 뒤떨어졌으며 극문학은 저조한 상태에 머물러있었다. 디킨즈와 새커리, 하디 등 대가들로부터 브론티, 개스켈, 엘리오트 등 녀류작가들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소설가들이 출현하

여 소설문학에서 큰 성과를 거둔데 비하여 시문학에서는 19세기초에 활약한 바이런과 쉘리외에는 대시인들을 배출하지 못하였다. 19세기 후반기에 부르죠아문단에서 크게 떠든 테니슨, 브라우닝, 아놀드, 로쎄티 등 시인들로 말하면 빅토리아주의문학의 추종자가 아니면 유미주의의 추종자들이였다.

2) 영국랑만주의문학과 바이런, 쉘리

영국에서 진보적랑만주의문학은 1800년대초에 발생하여 1820년대초까지 짧은 기간 존재하였다. 여기에서 주류를 이룬것은 시문학이였다.

영국에서도 반동적랑만주의문학이 진보적랑만주의문학보다 먼저 발생하였다.

이 문학은 영국에서의 산업혁명의 결과에 령락된 귀족들과 보수적인 부르죠아지의 사상과 기분을 반영하였다. 18세기말 프랑스부르죠아혁명은 급진적성격을 띠고 진행되였으며 주변의 여러 나라들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 영국의 통치배들과 귀족, 부르죠아들은 프랑스부르죠아혁명이 영국에도 파급되여 인민들의 반항과 투쟁을 불러일으키지 않겠는가고 겁을 먹었으며 한편으로는 프랑스가 자본주의적으로 발전하여 강한 적수가 될가봐 우려하였다. 이로부터 그들은 국내적으로는 인민대중의 사상의식을 마비시키려고 하였으며 대외적으로는 프랑스부르죠아혁명을 적대적으로 대하였다.

영국의 반동적랑만주의문학은 이러한 영국반동계층의 리익을 대변하여 나왔다. 영국의 반동적랑만주의문학에서도 시문학이 기본으로 되였으며 여기서도 호반파라고 불리운 시인들이 기본역할을 하였다. 호반파라는 명칭은 이 파에 속한 시인들이 잉글런드 북부의 호수가 많은 지방에 살면서 사회현실을 외면하고 순수 자연속에 도피하여 명상적인 시를 쓴데로부터 나온것이다.

호반파시인들의 창작은 일부 시창작기교를 련마한 긍정적측면도 있으나 대부분 현실을 떠난 환상적이며 신비로운 세계를 추구하였다. 호반파의 대표자는 워즈워스와 코울리지, 싸우디이다.

윌리엄 워즈워스(1770—1850)는 변호사의 아들로 태여나 대학졸업후 시인이 되였는데 현실을 도피하여 농촌의 자연속에 파묻혀 시창작에 전념하였다. 그는 말년에 왕실로부터 계관시인칭호를 받고 귀족부르죠아시단의 대시인으로까지 인정받았다.

그의 대표작은 시집 《서정담시집》(1798, 코울리지와 합작)과 자서전적장시 《서곡》(1798—1805)이다. 《서정담시집》에는 코울리지의 시 5편과 워즈워스의 시 19편이 수록되였다. 워즈워스의 시가운데서 대표작으로 알려져있는 서정시 《틴탄사원》은 사원부근을 다시 찾은 서정적주인공의 시적감흥을 노래하면서 현실을 떠난 순수 자연과의 정신적교감을 추구한 작품이다.

쌔뮤얼 코울리지(1772—1834)는 벽촌 목사의 아들로 태여났다. 그는 한때 급진적인 사상에 공감했다가 점차 반동적인 립장으로 기울어졌으며 마지막에는 아편중독자가 되여 암담한 생활을 보내였다. 그의 대표작은 《서정담시집》에 수록된 담시 《늙은 수부의 노래》이다. 한 늙은 수부가 항해과정에 체험한 신비로운 사건에 대하여 이야기한 이 시에서 시인은 현실을 떠난 환상적이고 신비로운 세계를 그리면서 그것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주어진 운명에 순종하고 하느님의 교리대로 살것을 설교하였다.

영국의 진보적랑만주의문학은 반동적랑만주의문학을 반대하는 투쟁속에서 19세기 10년대에 발생하여 10여년동안 존재하였다. 이 문학은 자본주의적현실에 불만을 품고 그에 항거하면서 압제를 반대하고 정의와 자유가 보장된 행복한 미래를 동경해나선 진보적사회층의 사상과 기분을 대변하였다. 여기에는 자본주의적착취와 압박, 민족적억압을 반대하여 일어난 광범한 인민대중의 기분도 어느 정도 반영되였다. 문학형태에서는 서정시와 서사시가 많았으며 일부 시극도 있었다.

영국진보적랑만주의문학의 대표자는 바이런과 쉘리이며 키츠도 알려져있다.

또한 랑만주의문학이 발전하던 시기 영국문학에서 특수한 위치를 차지한 인물로는 스코트도 있다.

월터 스코트

월터 스코트(1771—1832)는 영국문학에서 처음으로 력사소설을 개척하고 력사소설창작을 통하여 사실주의에 접근하였으며 랑만주의로부터 비판적사실주의에로 넘어가는 다리의 역할을 논 작가이다.

그는 스코틀랜드 에딘버러에서 변호사가정의 12자녀중 아홉번째로 출생하였다. 그는 스코틀랜드최고재판소의 2급서기관을 25년이나 하고 영국왕으로부터 준남작의 칭호까지 받았다.

그는 초기에 랑만적인 시를 쓰다가 점차 소설을 창작하기 시작하여 영국력사소설의 창시자로 되였다.

그는 서사시 《호수의 미인》과 같은 랑만주의 작품을 쓴외에 《웨이벌리》, 《로브 로이》, 《아이번호우》를 비롯하여 27권의 력사소설을 썼는데 그 대표작이 《아이번호우》이다.

장편력사소설 《아이번호우》(1819)는 12세기말 영국에서 리쳐드왕이 십자군원정을 떠난 틈을 타서 왕권을 빼앗으려는 리쳐드왕의 동생 죤친왕의 음모와 리쳐드왕을 지지하는 기사들사이의 권력다툼, 노르망디귀족통치를 반대하는 농민들의 투쟁을 반영한 작품이다.

소설은 왕에 대한 충군사상이나 사회의 모순을 타협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는것과 같은 결함을 가지고있지만 19세기에 창작된 력사소설가운데서 력사소설의 특성을 비교적 잘 살린 작품으로서 영국의 대표적인 첫 력사소설로 된다.

소설은 700여년전의 력사적사실을 현실을 보는것처럼 생동하게 재현하였을뿐아니라 그때시대의 인간들을 개성적으로 진실하게 형상하였다. 소설에는 당대 사회의 력사적환경과 사건, 풍속과 기물에 이르기까지 모든 내용이 진실하게 묘사되여있으며 그 시기 사회계급적모순이 사실주의적으로 잘 그려져있다. 소설은 특히 당대 사회의 생활을 통하여 봉건령주들과 귀족들의 전횡과 부패한 현실을 폭로하고 인민들을 긍정함으로써 력사소설분야에서 새로운 경지를 개척하였다.

바이런과 서사시 《챠일드 하롤드의 편력기》

바이런은 영국진보적랑만주의문학의 대표자의 한사람이다.

죠지 고든 바이런(1788—1824)은 런던의 몰락한 귀족가문에서 태여났다. 그는 소년시절부터 프랑스계몽주의자들의 영향을 받아 진보적인 사상을 가지게 되였다.

조숙한 시인이였던 그는 일찌기 중학시절부터 시를 쓰기 시작하였으며 대학시절에는 반동적랑만주의시인들을 공격한 풍자시 《영국시인들과 스코틀랜드의 평론가들》(1809)을 비롯하여 반동적이며 위선적인 영국의 부르죠아귀족사회를 비판하는 시를 썼다. 그는 특히 1812년에 3년동안의 유럽려행의 인상에 기초하여 에스빠냐인민들과 그리스인민들의 민족해방투쟁을 노래한 서사시 《챠일드 하롤드의 편력기》 1, 2편을 발표하여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으며 시인으로서의 명성을 떨치였다.

이어 시인은 1813—1816년사이에 《이단자》, 《어바이도스의 신부》, 《해적》, 《라라》, 《코린트의 포위》 등 서사시들을 련이어 써냈다. 이 서사시들은 주로 동방나라들에서 소재를 취한것으로서 세칭 동방서사시로 불리우고있다.

그는 당시 유럽을 휩쓴 귀족반동통치에 항거하였으며 앙양되는 부르죠아민족주의운동과 동남유럽에서의 민족해방운동을 지지해나섰다. 그러므로 이 시작품들은 반항과 투쟁에로 호소하는 선동성이 강하였다.

그는 반동적이고 위선적인 귀족부르죠아사회를 미워하면서도 자기의 계급적제한성으로 하여 그 사회의 낡은 사상과 생활인습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였으며 영국사회발전의 전망을 똑똑히 내다보지 못하였다. 이런것으로 하여 그의 창작에는 자기 나라의 현실을 떠난 다른 나라들에 대한 막연한 동경이 나타나게 되였으며 사회와 떨어진 인간의 개인주의적반항, 고독감, 염세주의적기분, 자기본위주의적경향 등이 나타났다. 력사에서는 그의 이러한 개성적이면서도 제한적인 경향을 가리켜 바이런주의라고 불렀다.

이 시기 그는 시창작활동과 함께 사회정치활동도 벌렸다. 그는 국회의원으로 있으면서 기계파괴운동에 참가한 로동자들에 대한 류혈적인 탄압법안을 반대하여 연설하는 등 영국의 반동적통치배들에게 항거해나섰다. 이미전부터 바이런을 이단시하고있던 영국의 지배계층은 이것을 기회로 그에게 온갖 비방중상을 다하여 그로 하여금 더는 영국에 있을수 없게 하였다.

그리하여 그는 부패와 위선이 판을 치는 자기 조국에 대한 혐오감을 안고 1816년 4월 영원히 영국을 떠나 이딸리아에 가서 살게 되였다. 이 시기 그는 이 나라 민족해방운동자들과 련계를 맺고 실천활동에 참가함으로써 개인주의적반항정신과 고독한 반항자의 염세주의적기분을 일정하게 극복하기 시작하였다.

이때로부터 그의 창작에서는 인민의 힘에 대한 믿음, 현실의 사실주의적반영 등 사상예술적전진이 이루어졌다.

서사시 《쉬론의 수인》(1816), 장편서사시 《챠일드 하롤드의 편력기》 3, 4편(1816—

1818), 장편풍자시 《청동시대》(1823), 극시 《맨프레드》(1817)와 비극 《카인》(1821), 미완성장편서사시 《돈 쥬안》(1819—1824) 등이 이 시기의 중요한 작품들이다.

그는 자기가 직접 지원하던 이딸리아인민들의 비밀무장조직 까르보나리(숯구이당)성원들의 반오스트리아투쟁이 당국의 가혹한 탄압으로 진압당하게 되자 1823년 7월 그리스로 옮겨가 뛰르끼예의 예속에서 벗어나기 위한 그리스인민들의 해방투쟁을 지원하였다. 그는 이 투쟁에 자기의 모든 힘과 재산을 깡그리 바치고 36살의 젊은 나이에 열병으로 세상을 떠났다.

그의 대표작은 장편서사시 《챠일드 하롤드의 편력기》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영국작가가 쓴 시극 〈해방된 프로메테우스〉와 서사시 〈챠일드 하롤드의 편력기〉, 로씨야작가가 쓴 서사시 〈동승〉 같은것도 구라파 랑만주의문학의 대표적인 작품이라고 말할수 있습니다.》

《챠일드 하롤드의 편력기》는 귀족청년 하롤드의 유럽려행기행시이다. 작품은 유럽의 여러 나라들의 자연경치와 사회현실에 대한 주인공 하롤드의 인상담을 통하여 압박받는 인민들에 대한 동정을 표시하고 침략자와 압제자를 반대하는 투쟁에로 호소하였다.

귀족상류사회에서의 방탕한 생활에 싫증을 느낀 하롤드가 기분전환을 위해 해외려행의 길에 오른다. 이 려행과정에 그는 점차 모순에 찬 현실에 대한 비판자로, 압제를 반대하는 투쟁에로 호소하는 선동가로 변모된다.

먼저 배를 타고 뽀르뚜갈로 건너간 주인공은 경치 아름다운 이 나라 사람들이 나뽈레옹침략군의 압제밑에 있는것을 보고 동정심을 품게 된다. 그다음 그는 에스빠냐로 가 여러 도시와 유적들을 돌아보는 과정에 나뽈레옹의 침략이 에스빠냐에까지 미치고있는것을 보고 격분을 느끼며 민족적독립을 찾기 위해 무기를 잡고 일떠선 에스빠냐인민들에게 지지성원을 보낸다.

이어 그는 지중해를 건너 그리스와 알바니아로 찾아간다. 여기서 그는 뛰르끼예압제자들을 반대하는 싸움에 나선 알바니아사람들을 찬양하며 뛰르끼예의 예속밑에서 묵묵히 노예살이를 하고 있는 그리스사람들을 꾸짖는다.(1—2편)

몇해후 두번째 해외려행의 길에 오른 하롤드는 벨지끄에 건너가 얼마전에 있은 와떼를로격전터를 돌아본다. 여기서 그는 독재자 나뽈레옹은 거꾸러졌으나 여전히 암담한 유럽의 정세를 깊이 우려한다. 이어 라인강을 따라 스위스에 들어가 유람한 다음 이딸리아로 간다. 그는 베네찌아, 로마, 피렌쩨 등을 유람하면서 고대로마의 유적을 찾아보는 과정에 고대에는 강국이였던 이딸리아가 지금은 오스트리아의 예속밑에서 인민들이 불행하게 살아가는것을 보고 동정을 금치 못한다. 하기에 그는 이딸리아사람들을 자유를 위한 투쟁에로 부르면서 그들이 반드시 자유를 찾게 되리라는 확신을 표시한다.(3—4편)

서사시는 외래침략자들의 압제로 말미암아 겨레가 겪고있는 참담한 비운에 대한 작가의 비통한 감정과 인민들을 해방투쟁에로 부르는 호소로 일관되여있다.

서사시에는 어지러운 귀족부르죠아사회에 대한 환멸과 반동적통치배들의 압제와 외래침략자들의 억압으로 하여 자기 겨레가 겪는 불행과 고통에 대한 서정적주인공의 피로운 심정이 토로되여있다. 이러한 사상감정은 작품의 서두와 여러 장면에서 토로되고있는 하롤드의 심정에서, 나뽈레옹침략군에 강점된 뽀르뚜갈과 에스빠냐사람들, 뛰르끼예의 기반밑에 들어간 그리스와 알바니아사람들, 오스트리아에 예속된 이딸리아사람들에 대한 서정적주인공의 우려 등에서 표현되고있다.

서사시는 또한 침략자와 압제자들을 규탄하면서 민족을 배반하고 침략자와 압제자들앞에 무릎을 꿇은 매국노들과 반동통치배들에게 격분을 표시하고 자유를 위하여 침략자와 압제자를 반대하는 해방투쟁에 일어날것을 열렬히 호소하고있다.

대를 이어온 노예들이여! 너희들은
  모르느뇨
해방되기 바라는자들 몸소 적들을
  쳐부셔야 함을
승리는 자기들자신의 손으로 얻어
  져야 함을

서사시는 형식상 주인공 하롤드의 유럽려행기행시로 되고있으나 작품에서 주인공의 성격형상은 뚜렷하지 않으며 보다는 부닥친 현실에 대한 시인의 태도가 정면에 나서고있다. 이것은 작품에서 서정성이 우세를 차지하게 하고있다. 서사시의 시

어는 세련되고 그 표현성이 풍부하며 음악적이지만 해방투쟁에로의 호소는 한갖 열정으로 끝나고있으며 서사시적구성도 매우 산만하다.

《챠일드 하롤드의 편력기》는 이러한 사상예술적제한성을 가지고있으나 그것이 이룩한 성과로 하여 영국진보적랑만주의문학을 대표하는 작품으로 되였다.

쉘리와 시

쉘리는 바이런과 함께 19세기 초엽 영국진보적랑만주의문학을 대표하는 시인이다.

퍼씨 비쉬 쉘리(1792—1822)는 부유한 귀족가문의 맏아들로 태여나 귀족적환경에서 자라났으나 공상적사회주의사상, 영국로동운동과 유럽 여러 나라들에서의 민족해방운동의 영향을 받아 진보적인 사상을 가지게 되였다.

그는 대학에 입학한지 얼마 안되여 1811년에 《무신론의 필요성》이라는 소책자를 써낸것으로 하여 대학에서 출학당했으며 아버지에게서는 상속권을 박탈당하고 의절당하다싶이 되였다. 이듬해 그는 영국의 민족적억압을 반대하는 아일랜드인민들의 투쟁을 지원할 목적으로 아일랜드에 갔다가 돌아와서 초기대표작인 《매브녀왕》(1813)을 창작하였다. 그는 이 서사시에서 영국의 귀족부르죠아정치를 반대하는 자기의 립장을 명백히 하였다.

그는 또한 이 시기에 쓴 서사시 《이슬람의 반란》(1818)에서 근로대중을 가혹하게 착취하는 폭군들과 궁전신하들, 부르죠아들을 비판하고 로동자의 형상을 창조하였다.

그가 쓴 진보적인 작품들은 영국지배층의 분노를 불러일으켰다. 그들은 시인의 사생활을 들추어 외곡중상하였으며 나중에는 그를 무신론자이며 비도덕적인 사나이라고 하면서 결석재판에서 모욕적인 판결을 내리였다.

이러한 비렬한 비방중상과 박해로 하여 그는 1818년에 고국을 떠나 이딸리아로 가서 시창작을 계속하였다. 그의 주요작품들은 이 시기에 창작되였다.

그는 1819년 8월 영국의 맨치스터부근 피터스필드에서 선거법개혁을 요구하는 투쟁을 벌린 로동자들이 반동당국의 손에 수없이 학살되였다는 소식을 듣고 격분에 넘쳐 써낸 《1819년의 영국》, 《영국의 인민들에게》 등의 정치적서정시들과 서사시 《무정부의 가면》을 통하여 인민들을 지배계급을 반대하는 투쟁에로 호소하였다.

그는 또한 이 시기에 대표작인 《해방된 프로메테우스》(1820)를 비롯하여 압제에 대한 반항정신으로 충만된 《첸치일가》(1819), 인민들의 해방위업의 승리에 대한 신심을 표현한 《헬라스》(1821) 등의 시극과 《서풍송가》, 《구름》, 《종달새》, 《자유》와 같은 많은 서정시들을 발표하였다. 이러한 작품들에서 시인은 부르죠아군주제의 전횡을 폭로하고 자본의 억압을 뒤집어엎을것을 호소하였으며 광명한 미래에 대한 희망을 표현하였다.

나의 말들을 뿌려다오 온 세계 인민
　들에게
내 입이 나팔이 되여 이 세상 깨여
　나라고
예언의 신호소리 울리게 하여다오 오
　서풍이여!
겨울이 다가왔으니 봄인들 멀소냐?

(《서풍송가》 중에서)

《해방된 프로메테우스》는 프로메테우스에 대한 고대그리스신화에서 소재를 택하여 자본주의적압제를 반대하고 그로부터 인류를 해방할데 대한 지향을 랑만적으로 노래한 작품이다. 작품은 폭군쥬피터에 의하여 결박당하고 압박받던 인류의 옹호자 거인 프로메테우스가 드디여 해방되고 폭군이 타도되며 드디여 자유와 정의를 찾는것을 통하여 사람들이 불행과 고통에서 벗어나 자유롭고 행복하게 살게 될 새 사회에 대한 동경과 그러한 사회가 오고야말리라는 굳은 신념을 랑만적으로 보여주었다. 특히 주인공 프로메테우스의 성격에는 자본주의적압제를 견결히 반대하고 노예로 살기보다는 반항하다 죽으리라는 투쟁정신이 강하게 표현되여있다. 시극은 그 수법에서 심한 상징과 비유, 강한 서정성, 변화무쌍한 시형식과 운률 등 랑만주의적특성을 두드러지게 보여주고있다.

이러한 특성으로 하여 시극 《해방된 프로메테우스》는 영국랑만주의문학의 대표작의 하나로 되였다.

쉘리는 1822년 여름 요트를 타고 바다에 나갔다가 폭풍을 만나 30살의 젊은 나이에 익사하였다.

그가 남긴 시유산은 영국의 진보적문학발전에 큰 영향을 주었다.

3) 영국비판적사실주의문학과 디킨즈, 새커리, 하디

19세기 서유럽에서 비판적사실주의문학이 사조적인 경향을 띠고 발전한 나라는 프랑스와 영국이였다.

영국의 비판적사실주의작가들 역시 프랑스의 비판적사실주의작가들과 마찬가지로 부르죠아사회를 예리하게 해부하고 그 모순과 불합리성을 폭로비판하는데 선차적인 관심을 돌렸으며 생활반영에서 진실성과 비판성을 강하게 드러냈다. 영국비판적사실주의문학에서는 시로부터 산문에로의 이행이 뚜렷해졌으며 소설이 주도적인 형태로 되고 근대적인 단편, 중편, 장편소설이 왕성하게 창작되였다. 또한 그 예술적형상성도 선행문학에 비하여 훨씬 높아졌다.

영국비판적사실주의문학은 해당 시기 이 나라의 사회경제관계와 자주성을 옹호하는 인민대중의 투쟁발전에 따라 몇개의 단계를 거쳤다.

그 첫 단계는 19세기 30—40년대이다. 이 시기에 디킨즈, 새커리, 브론티자매, 개스켈 등 작가들의 활동에 의하여 비판적사실주의소설문학이 상당히 발전하였다. 그가운데서도 디킨즈와 새커리가 큰 역할을 하였다.

19세기 영국비판적사실주의문학발전의 둘째 단계는 60—70년대이다.

이 시기는 영국의 비판적사실주의문학이 일시적으로 약화된 시기였다. 그것은 1850년대 이후에 와서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끝나고 영국이 발전된 자본주의나라로 된 환경에서 부르죠아지의 반동공세가 더욱 강화되고 각종 반동적부르죠아사상과 기회주의사상조류들이 성행하게 되였으며 로동운동내에 기회주의적인 트레드 유니온주의가 강화되였기때문이다.

이 시기에 사실주의문학에서는 선행시기에 비하여 현실반영의 폭이 좁아지고 그 비판성이 약해졌으며 염세주의, 회의주의경향이 강하게 나타났다. 이 시기의 대표적인 작가들로서는 죠지 엘리오트, 메레디스, 바틀러 등을 들수 있다.

19세기 영국비판적사실주의문학발전의 셋째 단계는 80—90년대이다. 이 시기는 영국에서 독점적련합체들이 형성되고 제국주의단계에로 이행하기 시작하였으며 제국주의자들의 착취와 략탈이 강화되고 그를 반대하는 로동계급의 투쟁이 적극적으로 벌어진 시기였다. 이러한 력사적현실을 반영하여 영국문학에서는 진보적문학과 반동문학사이의 투쟁이 더욱 격화되였으며 비판적사실주의문학이 다시 앙양되기 시작하였다. 이 시기 대표적작가는 하디이다. 19세기 영국비판적사실주의문학을 대표하는 작가는 디킨즈와 새커리, 하디이다. 이들은 모두 세계적인 작가들이였다.

디킨즈와 장편소설 《돔비와 아들》

찰즈 디킨즈(1812—1870)는 지방항구도시 랜드포드에서 해군경리부 서기의 아들로 태여나 어릴 때 아버지가 빚을 못 물어 부채감옥에 투옥되였기때문에 초등학교를 채 졸업하지 못한채 소년시기부터 공장의 도제로 일하였다.

그후 그는 변호사의 서기로 있으면서 속기술을 배워 신문사의 국회통신원이 되였으며 여기서 인정을 받아 신문기자로 되였다. 그는 신문기자로 활동하면서 자본주의영국의 사회생활을 구체적으로 관찰하였는데 이것은 후에 작가로 되는데 좋은 밑천으로 되였다.

그가 문단에 알려지기 시작한것은 탐방기자로 있을 때 써낸 런던시내 견문기 《보즈의 스케치집》(1836)을 발표한 때부터이다. 그는 여기서 자신을 얻고 이어 《피위크구락부의 수기》(1836—1837)를 매달 한 분책씩 발표하였는데(디킨즈의 작품은 거의다 이런 형식으로 출판되였다.) 그것이 성공하여 마침내 작가로서 인정을 받게 되였다. 이 작품들에는 사회중하층들의 생활과 인물상, 일화들이 해학적으로 그려져있다.

그의 다음작품인 장편소설 《올리버 트위스트의 모험》(1839)도 독자들의 호평을 받았다.

그러자 그는 1839년에 아예 신문기자생활을 그만두고 직업적인 작가로 되였다. 그후 그는 왕성한 창작의욕을 가지고 련이어 장편소설들을 써냈는데 1840년대에 창작된 작품들은 그 사상예술성이 높은 수준에 이르렀다. 그는 자기의 작품들에 19세기 30—40년대 영국부르죠아사회에서 심각화되고있던 인민대중의 빈궁과 불행, 사회적모순을 반영하였다. 그는 또한 챠티즘운동도 반영하였다.

그는 영국의 사립기숙학교체계와 그 교육방법을 희비극적으로 풍자한 《니콜라스 니클비》(1839)를 발표한데 이어 1842년 미국려행의 인상을 담은 려행기 《미국의 이모저모》(1842)와

장편소설 《마틴 쳐즐위트》(1844)를 내놓았다. 이 작품들에서 그는 그때까지도 흑인노예제도를 그대로 두고 민주주의국가라고 자처하던 미국식민주주의의 허위성과 기만성, 딸라문명의 부패성과 추악성을 예리하게 폭로비판하였다. 이 시기 그의 창작에서 가장 중요한 성과작으로 된것은 자본가를 비판한 장편소설 《돔비와 아들》(1848)이다.

그는 19세기 50년대에도 적극적인 창작활동을 벌려 널리 알려진 《데이비드 코퍼필드》(1850), 《오막살이》(1853), 《곤난한 시대》(1854) 등 여러편의 장편소설들을 내놓았다. 그중에서 《곤난한 시대》는 챠티즘운동의 영향밑에 자본가계급과 로동계급사이의 적대적인 계급적대립관계와 영국로동자들의 동맹파업을 반영한 작품으로서 주목을 끌었다.

그의 말기창작은 영국에서 자본주의적관계가 일시적인 안정기에 들어서고 로동운동이 상대적으로 약화된 시기인 19세기 60년대에 진행되였다. 하여 그의 작품들에는 현실과 타협하고 계급협조를 설교하는 등 제한성이 강하게 나타났다. 말기의 주요작품으로서는 력사소설 《두 도시이야기》(1859)와 장편소설 《거대한 유산》(1861)을 들수 있다.

그는 1830년대에 창작활동을 시작한 후 1870년대에 사망할 때까지 30여년간의 창작활동기간 15편의 장편소설을 비롯하여 단편소설과 실화문학작품, 려행기 등 수많은 작품들을 창작하였다. 그는 이 작품들에서 영국부르죠아지의 랭혹한 리기주의적본성과 포악성을 풍자비판하고 근로인민대중의 비참하고 무권리한 처지를 동정하였으며 영국자본주의사회의 부패한 현실을 폭로하였다.

그는 또한 인상적인 장면들과 수많은 개성적인 인물형상을 창조했으며 당시의 현실을 생동하게 그려내였다.

반면에 디킨즈의 작품들에는 현실비판의 불철저성, 가벼운 해학과 감상적이며 랑만적인 색채로 현실을 분식하는 경향, 생활의 론리에 맞지 않는 인위적인 행복한 결말, 구성의 조잡성 등 일련의 약점도 나타냈다.

그의 창작은 당대 영국의 현실을 폭넓게 사실주의적으로 반영하고 소설창작의 기교를 높인것으로 하여 영국과 유럽비판적사실주의소설문학의 발전에 크게 이바지하였다.

디킨즈의 대표작은 장편소설 《돔비와 아들》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디킨즈의 장편소설 〈돔비와 아들〉, 쌔커리의 장편소설 〈허영의 시장〉은 영국의 대표적인 비판적사실주의작품입니다.》

장편소설 《돔비와 아들》은 돈밖에 모르는 자본가 돔비의 랭혹한 실무적성격과 그것이 빚어내는 후과를 통하여 돈이 모든것을 지배하고 사람들사이의 모든 관계가 돈에 의하여 규정되고있는 19세기 중엽 영국자본주의사회의 부패한 현실을 폭로비판한 작품이다.

돔비는 런던의 중심거리에 자리잡고있는 큰 무역회사인 돔비부자회사의 사장이다. 황금만능사상에 물젖은 돔비는 돈만 있으면 그 무슨 소원도 다 이룩될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그의 생각과는 달리 돔비의 가정은 날이 갈수록 불행해만 진다.

결혼후 10년만에 고대하던 아들을 보게 되나 그 기쁨도 오래 가지 못한다. 아들을 낳은 직후에 안해가 산후병으로 죽고 그 아들(폴)마저 시들시들 앓다가 채 자라지도 못하고 죽고만다. 그가 후처로 맞이한 에디스도 남편의 거만성과 랭혹성에 견디다못해 달아나며 딸 플로렌스마저 아버지의 구박을 참다못해 집을 뛰쳐나가고만다.

이처럼 아들도 딸도 안해도 다 잃고 외토리가 된 그에게 회사의 파산이라는 결정적인 타격이 가해지자 그토록 랭혹하고 오만하던 돔비도 끝내 쓰러지고만다. 돔비가 앓아눕자 그가 내쫓은 딸이 와서 돌봐준다.

돔비의 딸 플로렌스가 집에서 나가게 된것은 돔비회사의 하급사무원 월터와 사랑하는 사이였기때문이다. 그것을 알게 된 돔비는 둘사이를 갈라놓기 위해 월터를 멀리 인디아에 있는 출장소로 쫓아버린다. 그런데 도중에 풍랑을 만나 죽은줄로만 알았던 월터가 구사일생으로 살아돌아와 플로렌스와 가정을 이루었던것이다. 돔비는 딸의 정성에 감동되여 자기 과오를 깨달으며 딸과 화해한다. 플로렌스는 아들과 딸을 낳고 행복한 생활을 하며 돔비는 딸네 집에서 여생을 보낸다.

소설의 주인공 돔비는 작가의 눈을 통해 본 19세기 중엽 영국부르죠아지의 전형이다. 그의 형상에는 영국자본가들에게 특징적인 황금만능사상에 기초한 극단한 개인리기주의적성격과 랭혹

한 실무주의적성격이 일반화되여있다. 소설은 돔비의 인생관과 인간관계, 그의 랭혹하고 오만한 말과 행동 등 여러 측면에 대한 분석적인 묘사를 통하여 자본가로서의 돔비의 성격적특징을 형상적으로 밝혀내고 극단한 개인리기주의와 황금만능사상으로 살아가는 부르죠아지의 비인간성과 랭혹성을 신랄하게 폭로비판하고있다.

소설은 또한 돔비의 성격을 보충해주고있는 부정인물들인 지배인 카커, 에디스의 어머니인 귀족계급의 찌꺼기 스큐톤부인, 퇴역군인 백스토크소좌, 로처녀 톡스 등의 형상을 통하여 돈밖에 모르는 극단한 리기주의자들인 부르죠아들과 썩고병든 상류사회를 비판하고있다.

소설에서는 이러한 부정인물들의 형상에 비록 돈과 권세는 없으나 인간성이 풍부하고 선량한 보통사람들의 형상을 대치시키고있다. 월터와 플로렌스, 월터의 삼촌 질스로인과 그의 친구 카틀선장, 돔비의 아들의 유모와 그의 남편인 기판차화부 투들, 플로렌스의 하녀 수잔과 카커의 누이동생 해리에트 등이 그러한 형상들이다.

작품에서 형상된 이 모든 인물들과 그들사이의 인간관계는 하나로 얽히면서 돈밖에 모르고 돈에 의하여 모든 관계가 규정되는 랭혹한 현금주의가 어떻게 돔비를 기형화하고 도덕적으로 파멸시키는가 하는 주제사상적과제를 해명하는데 복종되고있다.

작품은 소설창작의 높은 예술적기교도 보여주고있다. 성격창조에서 초상묘사와 행동묘사, 심리묘사를 적절하게 배합함으로써 매개 인물의 개성적특성을 두드러지게 하고있으며 자연 및 환경묘사를 주인공들의 성격을 부각시키는데 복종시키고 풍자와 해학의 수법을 다양하게 적용하고있다.

그러나 소설에서는 자본주의사회의 사회악을 폭로비판하면서도 그 근원인 자본주의제도자체는 비판하지 않고있으며 자본가 돔비에 대한 비판도 주로 도덕적측면에 대한 비판에 머물고있다. 작가는 자본주의사회의 심각한 사회계급적모순을 선과 악의 대립이라는 도덕적인것으로 바꾸어놓고 결국에 가서는 악이 망하고 선이 승리하리라는 막연한 기대를 표명하고있다. 이러한 립장으로부터 작가는 생활의 론리를 무시하면서까지 거의 모든 긍정인물들에게 인위적으로 행복한 결말을 부여하고있다.

이러한 제한성을 가지고있으나 소설은 당대 사회현실을 사실주의적으로 반영하고 자본주의적모순이 극도로 드러나고있던 19세기 영국부르죠아사회현실을 예리하게 폭로비판하고있으며 소설창작의 높은 기교를 보여준것으로 하여 영국과 유럽비판적사실주의소설문학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있다.

새커리와 장편소설 《허영의 시장》

윌리엄 메이크피스 새커리(1811—1863)는 인디아의 칼커타에서 영국식민지관리(세무관)의 아들로 태여나 어린시절을 인디아에서 보내다가 일찌기 아버지를 여의고 6살때 영국으로 돌아왔다. 아버지의 유산으로 비교적 유족하게 살수 있었던 그는 런던에서 보통교육과정을 마치고 케임브리지대학으로 진학하였다. 그러나 그는 곧 대학을 중퇴하고 도이췰란드, 프랑스로 래왕하면서 법률공부도 하고 미술공부도 하며 통신기자생활도 하는 등 일정한 목표가 없이 지내는 과정에 점차 문학창작의 길에 들어서게 되였다.

그가 작가로서의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한것은 1840년대초부터였다. 이 시기는 영국에서 허위와 기만, 사기와 협잡이 판을 치며 돈이 모든것을 지배하는 부르죠아사회의 진면모가 명백히 드러나고 국내에서 자본주의적착취와 압박을 반대하는 로동계급의 투쟁이 더욱 앙양된 시기였다. 그는 이러한 사회현실을 진실하게 반영할것을 지향하여 당대 부르죠아귀족사회의 모순에 날카로운 눈초리를 돌리고 사회현실의 부정면을 예리하게 비판하였다.

그러한 작품의 하나가 1846—1847년에 잡지에 련재한 《영국의 속물들》이였다. 이 작품에서 작가는 영국부르죠아귀족사회에서 보편적으로 볼수 있었던 웃사람에게 아첨하고 아래사람에게는 호령하며 돈과 권세앞에서는 쪽을 못쓰면서 겉으로는 점잔을 빼는 귀족들의 위선적인 속물근성(이를 당시 영국에서는 스노비즘이라고 하였다.)을 야유하였다.

그가 이 작품에 뒤이어 1848년에 내놓은것이 장편소설 《허영의 시장》이였다. 여기에는 당대 사회에 대한 작가의 예리한 풍자와 비판이 더욱 심화되여있다. 그는 이 작품창작으로 하여 작가로서의 명성을 얻었다.

그후 그는 한 귀족사생아의 일생을 통하여 18세기초 영국의 현실을 보여준 력사소설 《헨리 에즈먼드의 생애》(1852), 소부르죠아청년과

그의 아버지의 운명을 통하여 영국사회를 해부한 장편소설 《뉴컴일가》(1855)를 비롯한 여러편의 소설들과 수필을 창작하였으며 잡지발간사업도 진행하였다.

그의 작품들은 주로 당시 영국의 귀족들과 부르죠아들의 생활을 통하여 돈이 모든것을 지배하는 자본주의사회의 현실과 그들의 더러운 생활리면을 풍자비판하고있다. 또한 묘사대상이 귀족, 부르죠아 등 소수 특권계급의 생활에만 국한되고 사회의 주인으로 되여야 할 절대다수 인민대중의 생활은 전혀 반영하지 못하였으며 염세주의적이고 비관주의적인 경향이 많은것과 같은 제한성도 나타내고있다.

그의 이러한 창작적특징은 대표작인 장편소설 《허영의 시장》에 잘 반영되여있다.

《허영의 시장》은 19세기 초엽 돈이 모든것을 지배하는 영국자본주의사회 귀족부르죠아지들의 부패한 생활을 폭로풍자한 작품이다.

작품에는 《주인공이 없는 소설》이라는 부제목이 달려있다. 이것은 특별한 주인공이 없이 각이한 성격을 가진 여러 계층들의 생활, 특히 당시 부르죠아영국의 상류사회, 특권계급의 생활을 보여주려는 작가의 의도로부터 출발한것이다.

소설의 이야기줄거리는 베키(레베카) 샤프와 아밀리아 쎄들리라는 두 부르죠아녀성의 운명선을 따라 전개되고있다.

가난한 화가와 프랑스인인 극단녀배우의 딸로 태여난 베키는 고아로서 머리가 돌고 재치가 있으나 돈이 없는탓으로 천대받는 처지에 놓여있다. 그는 어떻게 하나 빨리 부자가 되여 잘살아보자는 허영심에 들떠 약삭바르게 움직인다. 그는 녀자기숙학교를 나와 일자리를 얻으러 가는 도중 아밀리아의 집에 들렸다가 그의 오빠 죠지프와 눈을 맞추어 결혼해보려다가 실패한다. 그러자 가정교사로 들어간 귀족 크롤리준남작의 집에서 도박군인 그 집 둘째아들 로든대위와 서둘러 비밀결혼을 한다. 그후에 상처한 크롤리준남작이 그에게 청혼을 한다. 베키는 자기가 너무 서두른것을 후회했으나 때는 이미 늦었다.

한편 런던의 돈많은 상인의 딸인 아밀리아는 머리가 돌지 않고 재간도 없는 녀자였지만 돈이 많은것으로 하여 베키와는 달리 상류사회에서 부러운것을 모르고 자라난다. 그러나 그 역시 돈이 모든것을 지배하고 돈없는 사람은 물건처럼 취급당하는 자본주의사회에서 우여곡절을 겪게 된다. 그는 이미 죠지 오스번이라는 장교와 약혼한 사이였는데 자기 아버지가 갑자기 파산당하게 되자 죠지의 아버지는 파혼을 요구해나선다. 그런것을 죠지의 친우인 도빈대위의 노력으로 죠지와 결혼하나 죠지가 아버지로부터 의절당했기때문에 가난한 처지에 빠진다. 게다가 남편이 와떼를로전투에서 전사하는 바람에 아밀리아는 과부의 신세가 된다.

그와는 달리 베키는 그후 사교계에 진출하여 빠리와 런던에서 화려한 생활을 하면서 뭇남자들의 인기를 끄는 존재가 된다. 그러다가 돈많은 귀족 스타인후작과의 추문이 탄로나 그만 남편한테 리혼당한다. 그래도 그는 귀부인으로 행세하면서 돌아친다. 가난한 과부로 살아가던 아밀리아는 도빈대위한테 재가하여 다시 부유한 생활을 하게 된다.

소설은 이 두 주요인물들과 함께 명문귀족, 지주, 자본가, 목사, 장교, 식민지관리, 외교관 등 각이한 인물들에 대한 생활묘사를 통하여 당시 영국과 서유럽특권계급의 퇴폐적인 생활을 그대로 보여주고있다.

작품에 등장한 인물들의 공통적인 성격적특징은 극단한 개인리기주의이며 그들사이의 관계는 허위와 기만, 사기와 협잡의 관계이다. 자기의 허영심을 충족시키기 위하여서는 그 어떤 파렴치한짓도 꺼리낌없이 하며 허위와 기만, 사기와 협잡을 례사로 여기는 베키 샤프는 그 대표적인 인물이다. 또한 대귀족인 스타인후작, 시골귀족인 크롤리준남작, 자본가인 아밀리아의 시아버지 오스번로인, 고급장교인 터프토, 목사인 뷰토와 그의 처, 로든대위를 비롯한 수많은 인물들이 베키의 형상을 보충하고있다.

작가는 이들모두가 돈으로 사고팔수 있으며 돈으로 조종할수 있는 어리광대들이고 꼭두각시들이며 당대 사회는 이러한 꼭두각시들이 팔다리를 놀리고있는 허영의 시장이라고 말하고있다. 이를 통하여 소설은 온갖 부정부패가 판을 치며 돈이 모든것을 지배하는 자본주의사회현실을 예리하게 폭로풍자하고있다.

소설은 또한 자본주의사회의 악의 근원과 그것을 없애기 위한 방도를 밝히지 못하고 앞날에 대한 비관과 염세주의, 회의주의에 빠져있으며 사회의 극소수를 이루는 특권계급의 생활만을 반영하고 인민대중의 생활에 대해서는 도외시하고

있는 제한성도 나타냈다.

이처럼 장편소설 《허영의 시장》은 썩어빠진 자본주의사회의 현실, 특히 특권계급의 타락한 생활을 날카롭게 폭로비판한 작품으로서 19세기 30—40년대 영국비판적사실주의소설의 대표작의 하나로 되였다.

하디와 장편소설 《테스》

토마스 하디(1840—1928)는 영국 남부 도쎄트주의 한 농촌마을에서 건축석공청부업자의 아들로 태여났다. 그는 처음 건축가가 되려는 희망을 가지고 17살에 중학교를 마치고는 주소재지인 도체스터에 가서 건축가의 제자가 되였으며 5년후에는 다시 수도 런던으로 올라가 이름난 교회건축가의 제도조수로 되였다.

한편 어릴 때부터 문학창작에도 뜻을 두었던 그는 런던체류기간에 건축술을 배우면서 문학창작수업을 시작하였으며 고향에 돌아가 건축가의 조수로 일하면서도 소설창작을 중단하지 않았다.

이처럼 꾸준히 노력한 결과 그는 1871년에 처음으로 장편소설 《궁여지책》을 창작출판하는데 성공하였다.

이 작품에 뒤이어 《광란하는 무리를 멀리하고》를 비롯한 3편의 장편소설들을 더 창작하였다. 이 과정에 자신심을 가지게 된 그는 1874년부터 건축업을 그만두고 직업적인 작가생활의 길에 들어섰다.

그는 1890년대 중엽까지 주로 소설을 창작하였다. 이 시기에 그는 《귀향》(1878), 《캐스터브릿지의 시장》(1886), 《테스》(1891), 《미천한 쥬드》(1895)를 비롯한 여러편의 장편소설들과 수많은 단편소설들을 내놓았다. 그로하여 그는 이 시기 영국의 일류급소설가로 공인되게 되였다.

그는 1890년대 중엽부터 소설창작에서 손을 떼고 주로 시를 창작하였다. 그것은 장편소설 《테스》와 《미천한 쥬드》에서 표현된 강한 사회비판적경향으로 하여 작가에 대한 부르죠아사회계의 비난과 중상이 심해졌던 사정과 관련되였다. 그는 시창작에서도 왕성한 창작의욕을 보여주어 《웨쎅스시집》, 《고금서정시집》을 비롯한 여러권의 시집을 출판하였다. 이러한 시들로 하여 그는 시인으로서도 영국문단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게 되였다.

그는 50여년간의 창작생활기간에 14편의 장편소설과 4편의 단편소설집, 918편의 시를 수록한 8권의 시집, 시극 《패왕들》을 비롯한 몇편의 극작품을 창작하였다. 그가운데서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져있는것은 《테스》와 《미천한 쥬드》이다.

그의 창작에서 특징적인것은 그때까지 비판적사실주의계렬의 작품들에서는 보기 드물게 평범한 근로자들을 긍정적주인공으로 설정하고 자본주의사회에서 그들이 처해있는 무권리하고 불행한 생활처지를 반영하였으며 그에 깊은 동정을 표시한것이다. 그는 여러 작품들에서 지방의 도시와 농촌근로자들의 생활을 반영하면서 자본주의사회에서 초보적인 권리와 자유마저 가지지 못하고 온갖 인격적모욕과 멸시를 받고있는 보통사람들, 근로하는 사람들의 불행을 깊은 동정을 담아 묘사하였고 당대 사회의 사회적불평등을 비교적 높은 형상성과 예술성을 가지고 비판하였다.

이와 반면에 작품들에는 소부르죠아민주주의사상의 계선을 넘어서지 못했던 작가의 세계관적제한성으로 하여 비판적사실주의문학일반이 가지고있는 제한성과 염세주의적기분이 진한것과 같은 제한성이 나타나고있다.

그의 창작은 당시 영국의 사회현실을 생동하게 반영하였으며 자본주의사회에서 근로자들의 무권리하고 불행한 처지를 진실하게 그려낸것으로 하여 이 시기 영국과 서유럽의 진보적문학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있다.

그의 대표작은 장편소설 《테스》(원제목 《더버빌가문의 테스》)이다. 소설은 19세기말 영국의 자본주의현실을 배경으로 농촌의 평범한 근로녀성 테스의 비극적운명을 통하여 착취사회에서 근로자들의 불행하고 무권리한 처지를 보여주고있다.

가난한 행상인 죤 더버빌드는 어느날 길가에서 우연히 만난 목사로부터 자기가 노르만의 오랜 명문귀족 더버빌가문의 직계후손이라는 뜻밖의 사실을 알게 된다. 이것을 안 그의 안해는 돈많은 친척의 도움으로 팔자를 고쳐볼 희망을 품고 17살난 맏딸 테스를 더버빌이라는 성을 가진 부자집에 들여보낸다.

사실 그 집은 그들과 아무런 관계도 없는 장사군집안이였으나 그 집의 방탕하고 불량한 외아들 알레크는 세상물정을 모르는 순박한 시골처녀 테스를 친척이라고 얼려 자기 집에서 일하게 하고는 기회를 노리다가 그의 정조를 유린한다.

집으로 되돌아온 테스는 가짜더버빌한테 속히워

몸을 망친 녀자라고 소문이 난데다가 아이까지 낳게 되자 동네사람들앞에서 낯을 들고 다닐수 없게 된다. 그런데 그 애기마저 병이 나 죽고만다.

그는 3년만에 다시 집을 떠나 타고장에 있는 젖소목장에서 젖짜는 로동자로 일하게 된다. 여기서 그는 목장에 실습왔던 목사의 아들 엔젤 클레아의 사랑을 받는다. 테스는 그의 청혼을 그냥 받아들이지 않고있다가 그가 하도 극성스럽게 대하는데 마음이 움직여 결혼을 승낙하고만다. 그러나 솔직한 테스가 첫날밤에 지난날에 있었던 일을 고백하자 그토록 테스를 따르던 클레아는 태도를 일변하여 혼자 브라질로 떠나가버린다.

그후 테스는 자기를 버리고 간 클레아를 잊지 않고 농업로동자로 일하면서 가난하게 살아간다. 이런 때 아버지가 죽고 어머니와 6명이나 되는 동생들이 모두 테스에게 의탁하게 된다. 그의 절망적인 처지를 리용하여 알레크가 다시 손을 뻗친다. 알레크의 말을 들을것을 바라는 어머니, 류랑걸식하게 된 동생들, 기약없는 클레아… 이런 절망적인 사태앞에서 자포자기한 테스는 끝내 알레크의 손아귀에 들고만다.

이때 편협했던 자신을 뉘우치고 클레아가 테스에게 다시 돌아오나 이미 때는 늦었다. 클레아를 만나보고 자신의 거듭되는 불행에 몸부림치던 테스는 자기를 비웃고 모욕하는 알레크를 보자 분노를 참지 못해 식칼을 들고가 그를 찔러죽인다. 테스는 그 길로 클레아를 뒤쫓아가 그와 함께 며칠동안 숲속을 헤매며 순간이나마 행복을 맛보다가 추격해온 경찰에 체포되여 재판끝에 사형당한다.

소설의 진보적인 측면은 자본주의사회에서 근로대중의 무권리하고 비참한 처지를 진실하게 반영하고 근로자들을 억압하며 착취하는 당대 사회를 비판한데 있다.

소설은 인물 잘나고 마음씨 고운 소박하고 순결한 농촌녀성 테스의 불행한 운명을 통하여 자본주의사회에서 근로대중은 사람다운 대우를 받지 못하며 죽도록 일을 해도 그들에게 차례지는 것은 가난과 고통밖에 없다는것을 밝히고있다.

소설에서는 녀주인공인 근로녀성 테스의 형상에 특권계급에 속하는 인물들인 알레크와 클레아의 형상을 대치시키면서 테스를 불행에 빠뜨린 이자들을 위선자로, 리기주의자로 비난하고있다.

소설은 테스를 사형에 처한 부르죠아법에 대해서도 의문시하면서 객관적으로 부르죠아법은 극소수의 특권계급을 옹호하는 법이며 절대다수의 근로자들을 억압하는 법이라는것을 일정하게 보여주고있다.

소설은 이러한 주제사상적내용을 생동한 생활적화폭을 통하여 비교적 높은 예술적필치로 그려내고있다.

그러나 작가는 왜 테스와 같은 근로자들이 온갖 모욕과 멸시를 당해야 하며 그들에게는 가난과 슬픔만이 차례지는가 라는 문제를 제기하는데 그치고 그에 대한 해답을 주지 못하고있다. 소설에서는 사람들에게 불행을 끼치는 그 어떤 보이지 않는 신비적인 힘이 작용하고있는것처럼 묘사하고있으며 이로부터 어둡고 염세주의적인 기분이 표현되고있다.

그러나 장편소설 《테스》는 근로녀성을 주인공으로 설정하고 자본주의사회에서 근로자들의 무권리하고 불행한 생활처지를 진실하게 그려낸것으로 하여 19세기말 영국과 서유럽의 비판적사실주의문학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였다.

19세기 영국비판적사실주의문학계에는 디킨즈, 새커리, 하디와 같은 세계적인 대가들뿐아니라 브론티자매들과 개스켈, 엘리오트 등 녀류작가들도 있었으며 메레디스와 바틀러도 일정한 자리를 차지하였다.

브론티자매들은 셋이 모두 녀류작가로 되였다. 맏이는 샬러트, 둘째는 에밀리, 셋째는 앤이라고 불렀다.

그들은 요크샤에서 농촌목사의 딸들로 태여나 불우한 가정적환경에서 어렵게 자라났으며 교원으로, 가정교사로 일하였다.

그 과정에 세 자매가 다 문학창작을 시작하여 1846년에 벨형제의 필명으로 공동작품인 시집을 발표하였으며 1847년부터 장편소설들을 내놓았다.

세 자매중에서 제일 이름이 난것은 맏이인 샬러트 브론티(1816—1855)였다. 그가 쓴 작품으로는 대표작인 《제인 애어》(1847)를 비롯하여 《샬리》(1849), 《빌레트》(1853)가 있다. 이 소설들은 모두 녀성을 주인공으로 설정하고 그들의 기구한 운명을 통하여 자본주의사회의 불평등과 모순을 비판한 특색있는 작품들이다.

작가는 특히 《제인 애어》에서 일찌기 부모를 여의고 고아가 된 주인공 제인 애어의 기구한 운명을 통하여 자본주의사회의 불평등을 비판하였으며 녀주인공의 개성적인 성격을 창조하였다.

영국비판적사실주의문학계에서 대표적인 녀류작가인 일리저버스 개스켈(1810—1865)은 소부르죠아가정출신으로 목사의 안해가 되여 영국의 산업중심지의 하나였던 맨치스터지방에서 살면서 빈민구제사업에도 종사하였다. 이 과정에 그는 로동자들의 비참한 생활도 목격하고 챠티스트운동의 발전과정도 보게 되였다.

이러한 체험에 기초하여 그는 대표작인《매어리 바튼》(1848)을 비롯하여 《루스》(1853), 《북과 남》(1855) 등의 장편소설들을 창작하였다.

이 작품들에는 자본주의사회에서 가난과 굶주림에 쪼들려 어려운 생활을 하고있던 공장로동자들의 비참한 처지와 자기들의 처지를 개선하기 위하여 일떠선 로동자들의 투쟁모습이 일정하게 반영되여있다. 특히 《매어리 바튼》에는 영국비판적사실주의문학에서 처음으로 챠티즘운동을 직접적으로 반영하였다.

남자의 필명으로 작품을 발표한 농촌출신의 녀류작가 죠지 엘리오트(본명: 매어리 앤, 1819—1880)는 40살때부터 소설을 쓰기 시작하였다. 그는 자기의 작품들에 주로 영국의 농촌현실을 반영하면서 농민들의 생활을 동정하고 유산계급의 리기주의와 비도덕성을 비판하였다.

장편소설 《아담 비드》(1859)는 한 처녀를 둘러싼 목수 아담과 지주사이의 갈등을 통하여 지주의 비도덕성을 비판한 작품이며 이름난 중편소설 《싸일러스 마나》(1861)는 평범한 수공업자의 운명을 통하여 당대 영국부르죠아사회의 불합리를 비판한 작품이다.

죠지 메레디스(1828—1909)는 장편소설 《보챔프의 출세》(1876), 《리기주의자》(1879)에서 엘리오트보다 좀더 강하게 부르죠아사회의 부정면을 비판하였으며 반면에 회의주의적립장을 취하였다.

쌔뮤얼 바틀러(1835—1902)는 목사가정에서 태여나 자신도 목사교육을 받았으나 종교에 반기를 들고 작가가 되여 당대 현실을 비판한 풍자소설들을 내놓았다. 그가 쓴 《에레혼》(1872)과 《다시 가본 에레혼》(1901)은 환상적인 나라 에레혼에 대한 견문기형식으로 영국자본주의사회를 풍자비판한 소설이며 《누구나 체험하는 길》(1883)은 그리스도교목사가정의 생활을 통하여 영국부르죠아지의 위선을 풍자비판한 장편소설이다.

4) 챠티즘문학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진보적인 시는 자주성을 위한 인민대중의 투쟁을 힘있게 고무한다. 로동계급은 자본의 철쇄를 마스기 위한 투쟁에 나선 첫시기부터 시를 전장에 울리는 북소리나 진군의 나팔소리와도 같이 만사람의 심장을 격동시키는 위력한 전투적 무기로 삼아왔다.》

챠티즘문학이란 1830년대말—1850년대초에 영국의 로동계급이 벌린 챠티즘운동과정에 로동자시인들에 의하여 창조되고 이 운동의 사상적 무기로 복무한 문학을 말한다.

챠티즘운동은 영국에서 산업혁명에 의하여 로동자들이 더욱더 빈궁과 무권리속에서 신음하게 된 결과 일어난 운동이다. 챠티즘운동참가자들이 피플즈 챠터(인민헌장)를 내걸고 선거법개혁을 위한 독자적인 대중운동을 전개한데로부터 챠터(헌장)라는 말이 이 운동을 상징하는 대명사로 되였다. 챠티즘이란 헌장주의, 헌장운동이라는 말이다.

챠티즘운동은 1836년 5월에 런던로동자협회가 인민헌장을 내놓은것으로부터 시작되였다. 2년후 1838년에는 챠티즘운동참가자들이 의회에 국민청원서를 제출하고 그 승인을 요구하는 대회와 군중시위를 벌렸다. 한편 그들은 기관지 《북극성》을 발간하고 다양하고 적극적인 선전계몽활동을 벌렸다. 이 운동은 40년대까지 고조되였다가 50년대초에 가서 사라지고말았다.

챠티즘운동은 아직 자체의 독자적인 당을 가지지 못했던 영국로동운동의 미숙성과 반동통치배들의 가혹한 탄압으로 말미암아 비록 실패하였으나 영국로동계급의 최초의 대중적인 정치투쟁으로서 영국로동계급에게 큰 경험과 교훈을 주었다.

챠티즘운동을 반영한 문학인 챠티즘문학은 선행한 진보적랑만주의문학이나 동시대의 비판적사실주의문학과는 다른 새로운 특징을 보여주었다.

그것은 우선 이 문학이 로동자들자신이 창조하거나 로동자들의 편에 선 사람들에 의하여 창작되였으며 로동자들의 생활과 지향을 직접 반영하고 그들의 사랑을 받은 인민적인 문학이라는데 있다.

챠티즘문학은 영국문학에서 새로운 주인공인 로동자들의 형상을 내세웠으며 시, 가사, 소설,

희곡, 실화, 정론, 평론 등 다양한 형태를 포괄하였다. 그가운데서도 시와 가사, 정론과 평론이 주되는 자리를 차지하였다.

챠티즘문학의 대표적인 작가로는 어니스트 죠운즈(1819—1869), 토마스 후드(1799—1845), 에버니저 엘리오트(1781—1849), 토마스 쿠퍼(1815—1892), 제랄드 매씨(1828—1907) 등을 들수 있다.

그들에 의하여 《새 세계》, 《붉은기》, 《하층계급의 노래》, 《로동자의 노래》, 《자유행진곡》, 《곡물법의 노래》, 《증기왕》, 《샤쯔에 대한 노래》, 《한숨의 다리》, 《선거권없는 사람들에 대한 송가》 등 많은 작품들이 창작되였다.

《새 세계》(1851)는 챠티즘운동참가자의 한 사람이였던 어니스트 죠운즈가 감옥안에서 새의 깃으로 펜을 만들고 자기의 피를 잉크로 삼아 기도책의 행간에 쓴 장편서사시이다.(작품은 1857년에 《힌두스탄의 봉기》라는 제목으로 고쳐 출판되였다.)

서사시는 가상적인 나라 힌두스탄인민들의 해방투쟁에 대한 이야기를 통하여 챠티즘운동의 교훈을 예술적으로 일반화하였으며 평화적시위에 의거한 인민헌장운동의 무익성을 인정하고 오직 적극적인 계급투쟁을 통해서만 인민의 자유와 해방을 쟁취할수 있다는것을 보여주었다.

서사시는 그 내용이 추상적이며 예술적으로 미숙한 약점을 가지고있으나 그 높은 사상적지향으로 하여 챠티즘문학의 대표작의 하나로 되였다.

페늘의 시 《붉은기》는 인민들을 착취와 압박을 반대하는 투쟁에로 호소하면서 그 승리에 대한 신념과 락관주의를 노래한 대표적인 작품이다.

인민을 위한 투사들의 피로 물든
우리의 붉은기는 공화국의 영예
성스러운 권리와 정의의 상징
그 기발 우리를 승리와 자유에로
  부른다

…

그 기발앞에
폭군들은 얼굴이 해쓱해지고
사시나무 떨듯 하리
그 기발앞에
놈들은 기어이 무릎을 꿇고야말리

폭군을 때려부시는 투쟁과 폭동에로의 호소는 미드의 시 《증기왕》(1843)에서도 힘있게 울려나오고있다.

시는 당시 영국의 자본주의적공장제도에 대한 로동자들자신의 견해를 표현하면서 광범한 로동자들의 감정을 옳게 반영하였다. 시는 자본가들과 자본주의적공장제도를 증기라는 임금으로 비유하면서 이 증기왕의 포악성과 죄행을 폭로한 다음 폭군을 때려부시는 투쟁과 폭동에로 호소하고있다.

때려부시라 이 폭군을 사형리폭군을!
천백만 로동자야 앞으로 나가자!
그놈의 팔을 꽁꽁 동여매자
이 땅에 드리운 암흑이 만민을 삼켜버리기
  전에

그대들의 분노가 터져 함성이 진동하면
구렁텅이에 처박히고야말리라
황금으로 걸치레한 기생충의 무리도!
잔인한 저들의 하느님도!

가사 《샤쯔에 대한 노래》(후드, 1843)도 챠티즘운동시기와 그 이후에 영국로동자들속에서 많이 불리워졌다. 작품은 어둑컴컴한 공장에서 고역에 시달리며 굶주린 창자를 끌어안고 밤낮을 이어 샤쯔를 만드는 녀공들의 비참한 생활처지를 진실하게 반영하면서 그들이 류배지에서 고역을 치르는 류형수들처럼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쉬임없이 일하지만 그들에게 차례지는것은 고통과 비애뿐이라는것을 강조하였다.

챠티즘문학은 로동계급의 혁명리론이 발생기에 있었고 로동운동과 창작가들의 세계관이 미숙했던것으로 하여 혁명적민주주의사상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하였으며 형상성과 예술성이 높지 못한 제한성을 가지고있다.

그러나 챠티즘문학은 자본주의를 반대하는 영국로동계급의 투쟁과정에 그들의 지향과 념원을 반영하여 나온 문학으로서 영국의 인민적이며 진보적인 문학발전에서 중요한 역할을 놀았으며 프로레타리아문학의 시원으로 되였다.

4. 도이췰란드문학

1) 반동적랑만주의가 성행하는 가운데 어렵게 발전한 도이췰란드진보적문학

영국, 프랑스와 같은 나라들이 근대적인 자본주의발전에서 앞장서고있던 19세기 전반기에 도이췰란드는 여전히 뒤떨어진 봉건국가로 남아있었다.

그것은 이 시기에 와서도 도이췰란드가 하나로 통합되지 못하고 38개의 공국들로 분렬되여있었으며 근대화운동이 반동적봉건세력에 의하여 가혹한 탄압을 받았기때문이다. 1848년부터 근 1년동안 베를린폭동을 비롯하여 부르죠아민주주의혁명운동이 온 도이췰란드를 휩쓸었으나 성공하지 못하고 진압되고말았다.

19세기 후반기에 프로이쎈(프로씨아)왕국이 자기 세력을 급속히 확대강화하고 1870—1871년 프로이쎈—프랑스전쟁에서 승리한 후 도이췰란드를 통합하였다.

이 과정에 도이췰란드에서는 자본주의가 서서히 발전하고 나라의 근대화가 추진되였으며 19세기 70—80년대에 이르러 세계적인 강국의 하나로 되였다.

이러한 사회력사적환경속에서 도이췰란드문학에서는 18세기말부터 19세기 30년대에 이르는 시기에 랑만주의문학이 지배적인 사조로 되였다. 랑만주의문학발전에서 선구자적역할을 한것은 유모아와 풍자, 풍부한 감상으로 특징적인 소설을 쓴 쟌 파울과 서정시인 휠데를린(휠더린)이였다. 도이췰란드랑만주의는 1800년전부터 대두하여 1820—1830년경에 제일 성행하였다.

도이췰란드랑만주의문학에서는 이 나라 력사발전의 특수성으로 하여 반동적랑만주의가 우세를 차지하였으며 진보적랑만주의는 미약하였다.

도이췰란드랑만주의문학을 흔히 전기랑만파와 후기랑만파로 구분하는데 전자나 후자나 다 보수적, 반동적랑만주의계렬에 속한다.

전기랑만파는 예나에서 발생하여 후에 베를린으로 옮겨졌으며 슐레겔형제, 노발리스, 티크 등이 그 주요인물로 되였다. 그들은 현실을 외면하고 옛 중세기의 화려한 기사생활과 신비로운 카톨릭교적신앙을 동경하였으며 공상의 자유를 최대한으로 허용하였다.

후기랑만파는 활동장소와 시기에 따라 몇개의 갈래로 갈라지고있다. 그가운데서도 서남도이췰란드의 하이델베르그를 중심으로 하여 활동한 그림형제, 브렌타노, 아르님 등은 사상적으로는 보수적이였으나 자기 민족의 구전가요, 동화, 신화전설을 수집정리함으로써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그림형제의 《어린이와 가정을 위한 동화》(일명 《그림동화》)와 《도이췰란드전설집》, 브렌타노와 아르님이 수집한 민요집 《소년의 마술뿔피리》 등이 그러한 작품들이다.

그밖에 희곡과 단편소설에 힘을 넣은 클라이스트, 귀신이야기 비슷한 무시무시한 환상을 도입한 북부도이췰란드의 호프만, 서정시인 아이헨도르프 등 여러 작가들이 알려졌다.

도이췰란드랑만주의작가들가운데서 진보적경향을 뚜렷이 나타낸것은 샤미쏘이다. 그는 중편소설 《페터 슐레밀의 기괴한 이야기》에서 악마에게 그림자를 판 사나이의 랑만적이야기를 통하여 황금만능의 자본주의적관계를 비판하였다.

1830년대이후에는 도이췰란드문학에서도 사실주의적경향이 강하게 나타났다. 우선 청년도이췰란드파의 활동이 눈에 띄였다. 그들은 문학은 시대의 정치적, 사회적, 정신적요구에 따라서야 하며 그에 복무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인민들속에 민주주의사상을 고취, 선전하였다. 맑스와도 교제한바 있고 혁명적민주주의시인으로서의 면모를 뚜렷이 한 하이네는 서정시 《실레지아방직공》에서 로동계급을 낡은 도이췰란드의 매장자로 묘사하고 장편서사시 《도이췰란드, 겨울이야기》에서 암담한 도이췰란드의 현실을 비판하였다. 하이네의 시문학은 도이췰란드사실주의시문학의 발

전에 크게 기여하였다. 웨에르트, 프라일리히라트, 뵈르네도 하이네의 뒤를 따랐다.

산문, 소설에서는 슈토름, 라베, 폰타네 등이 사실주의의 길로 나갔다.

이와 같이 이 시기 사실주의길로 나간 작가들이 많았으나 19세기말에 가서야 비로소 비판적사실주의가 발전하게 되였다.

1871년 도이췰란드에 통일적인 제국이 수립된 후 이 나라는 제국주의단계로 넘어갔다. 이러한 환경속에서 19세기말 도이췰란드문학에서는 각종 부르죠아문학사조, 류파들이 대두하였다. 먼저 자연주의가 출현하였다. 리론적으로 자연주의를 제창한 것은 홀츠와 슐라흐였으며 그것을 실천에 옮긴 것은 하우프트만이였다. 그러나 하우프트만은 자연주의로부터 비판적사실주의로 넘어가 희곡 《방직공》과 같이 로동계급의 비참한 처지와 그들의 항거를 묘사한 문제작을 내놓았다. 19세기말 도이췰란드문학에서는 자연주의와 함께 게오르게의 상징주의, 에른스트의 신랑만주의를 비롯하여 신고전주의, 인상주의, 표현주의, 기타 여러가지 문학사조, 류파들이 류행하였다. 여기에 속한 부르죠아작가들가운데서 대표적인것은 호프만스탈, 게오르게, 릴케 등 서정시인들이였다.

2) 도이췰란드랑만주의문학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랑만주의문학예술은 거기에 표현된 창작가의 지향과 념원이 지나간 과거를 향한것인가 아니면 미래를 향한것인가 하는데 따라 반동적인것과 진보적인것으로 갈라집니다. 우리가 보통 랑만주의라고 할 때에는 진보적랑만주의문학예술을 념두에 둡니다.》

도이췰란드는 서유럽에서 반동적랑만주의가 가장 성행한 나라였다. 그것은 이 나라가 수많은 소공국들로 분렬되고 봉건세력이 아직 강하였으며 부르죠아혁명세력이 약했던 력사발전의 상대적락후성에 기인한것이였다.

도이췰란드에서는 반동적랑만주의가 18세기말부터 전기랑만파(예나파), 후기랑만파(하이델베르그파) 등 여러 파를 이루고 19세기초까지 문단의 지배적인 세력을 이루었다.

전기랑만파의 중심으로 된것은 노발리스, 티크 등 작가들이였으며 이 파를 리론적으로 안받침한 것은 슐레겔형제였다.

형 아우구스트 윌헬름 슐레겔(1767—1845)과 동생 프리드리히 슐레겔(1772—1829)은 1798—1800년에 문학잡지 《아테네움》을 발간하고 그 주위에 노발리스, 티크를 비롯한 반동적인 작가들을 집결하여 반동적랑만주의문학단체 예나파를 만들었다. 그들은 일련의 문예리론저서들과 문학작품들에서 반동적랑만주의리론을 정식화하고 그것을 실천에 구현하였다.

슐레겔형제가 제창한 랑만주의리론은 도이췰란드관념론철학자 피히테의 사상을 그 리론적기초로 하고있다. 이 리론은 《모든것은 자아와 주관우에 립각해야 한다.》는 주장에서 명백히 드러난바와 같이 내용에서 관념론으로 일관되여있다. 슐레겔의 주장에 의하면 랑만주의의 중심사상인 로만틱 즉 랑만적이라는 말은 고대문학에 비하여 근대문학의 특징을 가장 잘 표현한 소설(로만)에서 끌어낸 개념으로서 시에서와 같은 흥취, 감흥, 정서적감정, 공상, 무한에로의 동경, 비론리적인것 등 여러가지로 이루어져있다.

슐레겔형제는 이러한 주장을 들고나와 고전주의문학에 대항해나섰으며 창작실천에서는 력사발전의 합법칙성을 무시하고 과거를 리상화하면서 중세기적신분제도의 복귀와 카톨릭교의 종교적사상을 설교하였다.

노발리스(본명: 프리드리히 폰 하르덴베르그, 1772—1801)는 도이췰란드반동적랑만주의문학의 대표자의 한사람이다.

노발리스의 창작에서 특징적인것은 력사발전의 합법칙성을 무시하고 중세기적과거를 리상화하면서 도이췰란드문학의 진보적인 전통을 거부해나선것이다. 그가 내놓은 시집 《밤의 찬가》(1800)는 묘지부근에서 떠오른 환상을 노래하면서 육체에 대한 이른바 령혼의 승리, 즉 죽음의 영원성을 설교하였으며 대표작인 미완성장편소설 《파랑꽃》(원제목: 《하인리히 폰 오프테르딩겐》)은 신비적인 파랑꽃의 탐구에 정열을 깡그리 쏟아붓는 주인공의 형상을 통하여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그 어떤 신비적인 사랑에 대한 미련, 중세기의 낡고 침체한것에 대한 환상을 표시하였다. 파랑꽃의 형상은 그후 도이췰란드반동적랑만주의의 상징으로, 대명사로 되였다.

노발리스의 창작은 그후 도이췰란드와 유럽나라들에서 반동적인 각종 문예류파들을 조장시키는 뿌리로 되였다.

후기랑만파로 불리우는 하이델베르그파에 속한 반동적랑만주의작가들가운데서는 아힘 폰 아르님(1781—1831)이 잘 알려져있다. 그가 유명

해진것은 브렌타노와 함께 도이췰란드 각지에서 전해져온 옛 가요들을 수집하여 가요집 《소년의 마술뿔피리》(3권, 1806—1808)를 만든때부터이다. 약 600편의 가요가 수집되여있는 이 가요집은 민족문학유산을 풍부히 하였으며 도이췰란드시문학발전에 기여하였다.

이 가요집에는 아르님의 민족주의적이며 반동적인 립장도 반영되여있다.

도이췰란드에서는 반동적랑만주의가 성행한 속에서도 진보적랑만주의문학이 자기의 면모를 나타냈다. 진보적랑만주의작가로는 소설가 샤미쏘를 들수 있다.

샤미쏘 아델베르트 폰 샤미쏘(1781—1838)는 프랑스 샹빠뉴의 봉꾸르성곽에서 오랜 귀족의 아들로 태여났다.

그는 프랑스부르죠아혁명시기 도이췰란드로 망명하였으며 1796년부터 베를린에서 살았다. 그는 이때부터 도이취어를 배우고 1801—1806년에 프로씨아군대 장교로 복무하였으며 퇴역후 1812—1815년에 베를린의 대학에서 식물학과 동물학, 의학을 공부하였다. 그는 1815년부터 3년동안 범선을 타고 세계일주탐험려행을 하였으며 1818년에 베를린종합대학 명예박사학위를 받고 식물원 원장으로 임명되였다.

그의 대표작은 중편소설 《페터 슐레밀의 기괴한 이야기》(일명 《그림자를 판 사나이》, 1816)이다.

소설은 도이췰란드민간전설에 기초한 작품으로서 그림자를 판 사나이에 대한 환상적이야기를 통하여 황금만능의 자본주의적관계를 비판하고있다.

가난한 실업자 페터 슐레밀은 회색옷을 입은 음울한 사나이(악마)한테서 끝없이 금화를 쏟아놓는 마술주머니와 그림자를 교환하자는 제기를 받는다. 너무도 가난했던 주인공은 유혹에 넘어가 별로 소용이 없다고 생각되는 자기 그림자를 넘겨주고 그 주머니를 받는다.

그는 굉장한 부자가 되고 백작의 작위까지 얻어 부유한 생활을 하게 된다. 그러나 그림자가 없기때문에 사람들의 눈을 꺼리여 대낮에 바깥출입을 삼가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는 산림국장의 아름다운 딸 미나와 결혼하게까지 되나 결혼식직전에 하인 라스칼이 주인의 비밀을 폭로하는 바람에 파혼당한다. 라스칼은 주인한테서 훔쳐낸 거액의 돈으로 미나를 가로챈다.

약속된 1년이 지나자 회색옷을 입은 사나이가 다시 나타나서 그림자와 마술주머니를 도로 바꿔주는 대신 죽은 다음의 령혼을 요구한다. 페터는 그 요구를 단호히 물리치고 주머니를 깊은 물속에 던져버린다. 그리하여 그는 그림자를 되찾지 못했지만 령혼은 구원한다.

그후 그는 우연히 한걸음에 수십리를 가는 환상적인 구두를 손에 넣게 되는데 그것을 신고 온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자연을 연구하는데 한생을 바친다.

소설은 주인공 페터 슐레밀자신이 작가에게 써보낸 원고의 형식으로 되여있다.

작품은 주인공 페터 슐레밀의 형상을 통하여 황금에 희롱당하는 인간의 운명을 보여주면서 돈이 모든것을 지배하는 자본주의적관계를 비판하고 인류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할수 있는 창조적로동과 자연과학의 유익성을 강조하였다.

회색옷을 입은 음울한 사나이의 행동을 통하여 당시 도이췰란드의 가혹하고 비인간적인 부르죠아적관계를 보여주고있으며 교활한 하인 라스칼의 형상은 그것을 보충하고있다.

소설은 인간생활에서 극히 무의미하고 미미하게 생각되던것이 일단 잃어진 다음에야 그 귀중함을 깨닫는 경우가 많다는 교훈적인 사상도 담고있다.

소설은 자본주의적현실에 대한 비판이 예리하지 못하고 생활묘사를 깊이있게 하지 못한 제한성을 가지고있으나 그 사상예술적특징으로 하여 19세기 도이췰란드진보적랑만주의문학의 대표작의 하나로 되였다.

3) 도이췰란드혁명적민주주의 문학과 하이네

19세기 도이췰란드의 진보적문학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것은 혁명적민주주의문학이다. 도이췰란드에서 혁명적민주주의문학은 1830년대에 발생하고 1840년대에 발전하였다.

도이췰란드에서는 19세기 30년대부터 로동계급이 장성하기 시작하고 농민폭동이 빈번히 일어났으며 40년대에는 맑스와 엥겔스의 활동이 시작되여 《공산당선언》이 발표되고 공산주의자동맹이 결성되는 등 과학적사회주의운동이 발생하였다.

이러한 시대적요구에 화답하여 혁명적민주주의사상을 가진 작가들이 문단에 진출하였는데 그들에 의하여 혁명적민주주의문학이 창작되였다.

도이췰란드혁명적민주주의문학은 낡은 사회와 억압자, 압제자들에 대한 증오심, 착취 없고

압박 없는 새 사회에 대한 지향, 농민혁명 및 프로레타리아혁명에 대한 요구가 강한것이 특징적이였다.

그러나 아직은 혁명적민주주의사상에 머물러 있거나 일부 과학적사회주의사상을 지향한 경우에도 철저하지 못하였다.

도이췰란드혁명적민주주의문학은 그 창작방법이 사실주의적이였으며 여기에서는 시문학이 주류를 이루었다.

이러한것으로 하여 도이췰란드혁명적민주주의문학은 19세기 도이췰란드진보적문학을 높은 단계에 올려세웠으며 인민들을 각성시키고 진보적문학을 선도하는데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19세기 도이췰란드혁명적민주주의문학계에서 대표적인 시인은 하이네이다. 하이네와 함께 30년대의 뷔흐네르, 40년대의 웨에르트, 헤르베그, 프라일리히라트 등이 그 대표적인 작가들이다.

게오르그 뷔흐네르(1813—1837)는 혁명적민주주의자이며 자연과학자, 작가였다.

그는 1834년에 혁명적인 비밀조직 인권협회를 조직하고 농민봉기를 선동하다가 탄압을 받고 피신해있으면서 연구사업과 창작활동을 벌리던중 병으로 젊은 나이에 사망하였다.

뷔흐네르가 문학창작활동에 종사한것은 불과 2년 남짓한 짧은 기간이였으며 그의 작품은 희곡 《단톤의 죽음》(1836) 한편뿐이다. 희곡은 프랑스부르죠아혁명을 소재로 하고 한때 혁명을 위해 큰일을 한 단톤이 혁명과 인민을 배반함으로써 종당에는 사형당하는 이야기를 통하여 인민을 배반한 가짜혁명가들의 멸망의 불가피성을 보여주었다.

웨에르트와 헤르베그, 프라일리히라트는 모두 맑스와 친교를 맺고 《신라인신문》에서 활동한 혁명적시인들이다.

웨에르트

게오르그 웨에르트(1822—1856)는 엥겔스가 도이췰란드 프로레타리아트의 최초의 가장 중요한 시인으로 평가한 작가이다. 그는 1843년부터 맑스, 엥겔스와 친교를 맺고 공산주의자동맹에 가맹하였으며 《신라인신문》의 문예란을 담당하여 활동하다가 신문이 금지된 후에는 무역에 종사하였다. 그후 그는 34살에 병으로 아바나에서 사망하였다.

그의 작품으로 련시 《랑카샤의 노래》(1845)를 비롯한 많은 정치시들과 풍자소설 《유명한 기사 슈나판스키의 생애와 업적》(1849) 등이 있다. 그의 정치시들가운데서 《대포주조공》, 《그들은 걸상에 앉아있었다》, 《도이췰란드사람과 아일랜드사람》 등이 잘 알려져있다.

《대포주조공》에서 시인은 젊어서부터 늙을 때까지 가난과 질병, 재난에 시달리면서 대포를 주조해온 로동자들이 이제는 각성하여 자기들이 주조한 대포를 착취계급에게 돌려댈 때가 왔다고 격조높이 노래하였다.

때는 가깝다
저주할 놈들 그때는 오리라
네놈들에게 무거운 대포를
우리들이 돌려댈 때가!

웨에르트는 《신라인신문》에 속한 시인들가운데서 특출한 존재였다.

게오르그 헤르베그(1817—1875)는 맑스와 함께 《신라인신문》의 공동편집자로 있으면서 혁명을 노래한 정치시집 《생명을 가진자의 노래》(전 2권, 1841—1844)를 발표하여 이름을 날렸다. 그는 특히 정치시 《당》(1842)에서 시는 당의 혁명사업에 복무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예리한 칼날처럼 시를 다듬어》 가지고 《들먹이는 가슴을 안고 이 투쟁속으로 달려오라》고 호소하였다. 하이네는 그를 혁명의 철의 종다리라고 불렀다.

페르디난드 프라일리히라트(1810—1876) 역시 《신라인신문》의 편집자의 한사람이였으며 공산주의자동맹에 가맹한 혁명적시인이였다. 1848년 3월혁명시기의 대표적시인으로 활동한 그는 《신념의 고백》(1844), 《현대사회정치시집》(1, 2권, 1849—1851)을 내놓았다. 특히 그는 《신라인신문》의 폐간과 관련하여 쓴 정치시 《신라인신문의 리별사》에서

검이여 강철의 창이여
잘있거라! 그러나 영원한 리별은 아니다
놈들은 우리의 정신을 죽이지는 못할지니
오 동포들이여!
때는 오리라 그러면 그때 다시 일어나
나(혁명을 의미함—필자 주)는 살아 그대
　들에게 돌아오리라

라고 혁명을 끝까지 계속하리라는 전투적인 정신을 표현하였다.

하이네

하인리히 하이네(1797—1856)는 뒤쎌도르프의 유태인상인가정에서 태여났다. 그는 1816년부터 함부르그에 있는 작은아버지의 집에서 은행일을 견습하였고 상업학교를 거쳐 1819—1825년에 본, 괴팅겐, 베를린종합대학들에서 법학을 공부하였으나 시인이 될것을 결심하고 시창작의 길에 나섰다.

그는 초기에 도이췰란드의 봉건적전제정치를 반대하는 부르죠아민주주의적립장을 취하면서도 아직은 나약하고 감상적이며 랑만주의적경향이 강한 시를 썼다. 대학에 다니던 시기인 1820년대초부터 시를 쓰기 시작한 그는 1824년에 전국각지를 려행하고 받은 인상에 기초하여 산문작품 《하르쯔기행》을 발표하고 작가적기질을 인정받았으며 졸업후에 발표한 시집 《려행화첩》(1, 2권 1826—1827)과 《노래의 책》(1827) 등을 통하여 시인으로서의 명성을 떨치였다. 시인은 이 작품들에서 자기가 보고 듣고 체험한 사실에 기초하여 도이췰란드를 지배하던 봉건전제제도와 귀족부르죠아들의 속물적근성을 폭로하였다.

그는 도이췰란드반동들을 반대하는 진보적립장을 취한것으로 하여 반동당국의 박해를 받고 1831년에 프랑스로 망명하였으며 그후 그곳에서 나머지 반생을 보냈다.

그는 빠리에서 공상적사회주의자들과 접촉하였고 발자끄, 쌍드, 베랑제, 쇼뺑 등 진보적인 작가, 예술인들과도 교제하였으며 로동계급의 진출과 그 투쟁을 직접 목격하면서 현실을 새로운 눈으로 보게 되였다. 그에 기초하여 《랑만파》(1833), 《도이췰란드종교철학사에 대하여》(1834) 등을 써냈다. 그는 글에서 도이췰란드반동지배층과 고루한 민족주의, 반동적랑만주의, 종교적몽매주의의 온갖 락후성을 비판하였다.

1840년대는 하이네의 창작이 가장 높은 단계에 올라선 시기였다.

그는 1843년 빠리에서 맑스를 알게 되면서 그와 친교를 맺었으며 맑스의 영향밑에 공상적사회주의사상에서 벗어나 과학적사회주의사상에 접근하였고 로동계급의 력사적사명에 대하여 깨닫게 되였다.

하여 그는 혁명적민주주의립장에 서서 봉건적, 자본주의적착취와 압박이 지배하는 침체한 도이췰란드현실을 풍자비판하고 압박없는 새 사회에 대한 지향을 노래하였으며 로동계급의 혁명적진출을 지지해나섰다.

그는 장편서사시 《아타 트롤》(1843)에서 흉물스러운 곰 아타 트롤의 형상을 통하여 소부르죠아급진주의자들의 허위적인 《혁명성》을 풍자하였으며 서정시 《실레지아방직공》(1844)에서는 도이췰란드로동계급의 첫 혁명적진출을 격찬하였다. 특히 그는 대표작인 장편서사시 《도이췰란드, 겨울이야기》(1844)에서 당시 도이췰란드의 모순된 사회현실을 풍자폭로하고 새 사회에 대한 리상을 표시하였다.

그는 이밖에도 시집 《신시집》(1844), 《로만체로》(1851)를 비롯한 많은 창작유산을 남겼다.

그의 시는 강한 시적정열과 호소성, 서정의 부드러움, 랑랑히 울려오는 음악성, 민요에서 출발한 진실하고 소박한 심정의 토로로 하여 사람들의 마음을 끌어당겼다.

낡은 사회를 증오하고 로동계급의 혁명투쟁에 공감을 표시하면서도 소부르죠아적근성을 버리지 못하고 오래동안 병석에 누워있던 하이네는 프랑스, 도이췰란드 등지에서 일어난 1848년 부르죠아혁명이 실패하자 말년에는 로동계급의 혁명투쟁과 도이췰란드로동운동의 발전과 미래에 대하여 비관주의적태도를 취하였다. 하지만 생애의 마지막순간까지 창작적열정에 불타고있던 시인은 림종직전에도 《종이와 펜을 달라!》고 웨치면서 이국땅 빠리에서 객사하였다.

하이네의 창작은 시인자신의 세계관의 모순으로부터 오는 일련의 제한성을 나타내고 있으나 도이췰란드봉건전제제도와 자본주의적사회관계가 낳은 부패성에 대한 증오심과 낡은 사회를 반대하는 도이췰란드로동계급과 인민의 투쟁을 사실주의적으로 반영하고 혁명의 북소리를 높이 울린것으로 하여 도이췰란드와 유럽의 진보적시문학발전에 크게 이바지하였다.

《실레지아방직공》

《실레지아방직공》은 1844년 6월 당시 프로씨아에 속해있던 쁠스까의 실레지아주 방직공들이 일으킨 큰 규모의 폭동에 호응하여 하이네가 창작한 정치적서정시이다.

이 시기 도이췰란드에서는 이 폭동에 대한 각이한 견해가 있었다. 소부르죠아급진주의자들은 이 폭동의 의의를 옳게 리해하지 못한데로부

터 이것을 로동자들의 《기아의 폭동》이라고 보았다. 그러나 혁명적민주주의자들은 그것을 도이췰란드로동계급의 첫 대중적진출로 평가하면서 이 폭동이 도이췰란드사회정치운동의 발전에서 획기적인 사변으로 된다고 보았다.

하이네도 이러한 혁명적립장에 서서 시를 창작함으로써 폭동을 일으킨 로동자들을 기아와 착취로 인하여 지쳐버린 사람들로가 아니라 항거하는 대중으로, 낡은 사회의 매장자로 형상하였다.

> 눈물없는 메마르고 엄한 눈길
> 직포공들 직기에 마주앉아 이를 악문다
> 도이췰란드야! 우리는 너의 수의를 짠다
> 세겹의 저주와 원한을
> 우리는 짠다 수의를 짠다

그는 시에서 저주와 원한을 담아 짜는 세겹의 수의는 누구에게 줄것인가 라는 수사학적물음을 제기하고나서 한겹은 《추위와 굶주림에 못견디여 매여달려도》 로동자들의 《간절한 기대와 소원도 아랑곳없이》 그들을 《기만희롱하고 멸시한》 《무자비한 하느님》에게 줄것이며 또 한겹은 인민들의 《고통과 재난에 아랑곳없이》 그들의 《호주머니푼전마저 털어내고》 그들을 《개처럼… 쏘아눕힌》 《기름진 왕》에게 줄것이며 다른 한겹은 오직 《치욕과 허위만 더해갈뿐 그 어떤 꽃도 피여나자 꺾이고마는 썩은 곰팡이에 구데기만 쓸어가는》 《거짓에 찬 조국》에 주련다고 격조높이 웨치였다.

시는 이처럼 낡은 사회를 미워하고 새 사회를 동경하는 도이췰란드인민들의 지향과 념원을 반영하였다.

이 시는 도이췰란드문학사에서 처음으로 자본주의사회로동계급의 생활과 투쟁을 노래한 작품으로서 19세기 도이췰란드 혁명적민주주의 시문학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있다.

《도이췰란드, 겨울이야기》

장편서사시 《도이췰란드, 겨울이야기》는 1848년 부르죠아혁명을 앞둔 시기 반동적인 도이췰란드의 현실을 폭로하면서 이 암담한 현실을 뒤집어엎고 그 터우에 세워질 민주주의적이며 통일된 자유로운 도이췰란드에 대한 리상을 노래한 작품이다.

《도이췰란드, 겨울이야기》라는 제목자체가 반동의 엄동설한에 휩싸여있는 도이췰란드현실을 암시하고있다. 전 27장으로 이루어져있는 서사시의 기본내용은 빠리로부터 함부르그에로의 려행과정에 시인자신이 보고 느낀것을 노래한것이다.

음산한 겨울날 국경을 넘어 12년만에 조국땅에 발을 들여놓은 주인공은 어디를 가나 진창길을 걷게 되며 서푼짜리려관들에서 꿈자리 사나운 밤들을 보내게 된다. 그는 이르는 곳마다에서 프로씨아융케르들의 눈꼴사나운 행동, 이에 아부하며 굽신거리는 시정배들의 비굴성, 인민을 기만하는 승려들의 위선적인 설교를 목격하게 된다.

그러나 그는 자기 눈앞에 펼쳐진 반동적인 도이췰란드현실앞에서 결코 실망하지 않는다. 그는 그속에서 오래지 않아 불어올 혁명적폭풍을 온몸으로 느낀다.

시인은 여기서 추악한 봉건통치배들과 이 암담한 도이췰란드를 리상화하는 반동적랑만주의자들에게 증오를 표시하면서 착취와 압박이 없고 모든 사람이 자유와 평등, 행복을 누리게 될 새 사회가 반드시 오리라는 지향을 표현하고있다. 또한 시인은 자기자신이 이러한 신념을 실현하는데 충실하리라는 결의를 표명하고 모두다 낡은 사회를 짓부시는데 떨쳐나서라고 호소하였다.

> 노래하자 새 노래 더 좋은 노래를
> 오, 벗들이여! 내 그대들을 위해
> 노래를 엮으리니
> 여기 이 땅우에
> 우리의 락원을 이룩해보자
> 이 땅우에서 행복한 삶을 누려보자
> 더는 넘겨주지 말라
> 부지런한 손길이 애써 벌어들인것으로
> 게으른 배를 더는 불리우지 않도록

서사시에서는 낡은 도이췰란드의 온갖 부패와 침체를 날카로운 풍자와 재치있는 야유로 폭로규탄하고있으며 비유와 상징, 회상의 수법들과 인민구전문학의 형상수법들을 다양하게 도입하고있다.

그러나 서사시는 반동적인 현실을 변혁하여야 한다는것을 주장하면서 구체적인 전망을 주지 못하고있다. 따라서 작품에 표현된 새 사회에 대한 리상은 공상적성격을 면하지 못하고있다. 이것은 시인자신이 당시 발생중에 있던 과학적공산주의사상을 철저히 리해하지 못하였던 사정과 관련된다.

이러한 제한성을 가지고있으나 서사시는 그것이 이룩한 성과로 하여 하이네의 대표작으로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져있다.

5. 그밖의 서유럽나라들의 문학

1) 그밖의 서유럽나라들의 문학유산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매개 민족에게는 력사적으로 이루어진 민족성과 그에 따르는 고유한 미감과 정서가 있다.》

19세기 서유럽에서 프랑스, 영국, 도이췰란드가 문학이 앞서발전하고있을 때 이딸리아와 에스빠냐, 스위스, 오스트리아, 벨지끄, 네데를란드와 같은 그밖의 서유럽나라들에서도 문학이 서서히 발전하기 시작하였다.

19세기 서유럽나라들의 문학발전과정은 시기적으로 빠르고 늦거나 그 유산이 많고 적은 차이는 있으나 대체로 19세기 초엽의 랑만주의시기와 그 이후의 사실주의시기, 19세기 후반기 부르죠아문학사조의 대두를 거친 점에서 공통성을 가지고있다.

스위스에서 민족적특색이 뚜렷한 문학작품이 창작된것은 19세기에 들어와서였다.

이 시기 스위스문학에서는 사실주의문학이 주류를 이루었다. 스위스사실주의문학에 제일 먼저 등장한것은 고트 헬프(1797－1854)였다. 그는 《머슴군 울리》(1841), 《소작농 울리》(1849)를 비롯한 장편소설들에서 소박한 농민들의 생활을 사실주의적으로 묘사하였다.

19세기 스위스사실주의문학의 대표자는 켈레르(1819－1890)이다. 미술가의 반생을 묘사한 그의 장편소설 《푸른 하인리히》(1879－1880)는 괴테의 장편소설 《윌헬름 마이스테르》계렬의 교양소설로서 널리 알려졌다.

마이에르(1825－1898)도 이 시기 대표적작가이다. 그는 《스위스의 20편의 담시》와 같은 랑만주의적인 시를 쓴 시인으로뿐아니라 애국자를 형상한 《유르그 예나츠》(1876), 종교의 희생자를 그린 《성자》(1880)를 비롯한 장편력사소설들을 쓴 력사소설가로서 문학사에서 뚜렷한 자리를 차지하고있다.

19세기말에 활동한 슈피텔레르(1845－1924)도 서사시 《프로메테우스와 에피메테우스》(1881), 《올림피아의 봄》(1900)을 내놓아 널리 알려져있다. 그의 시작품들은 인도주의사상과 고대세계에 대한 깊은 관심으로 두드러져있다.

오스트리아에서도 19세기에 들어서면서 문단이 활기를 띠기 시작하고 일련의 이름있는 작가들이 배출되였다.

19세기 전반기에는 오스트리아에서 랑만주의문학이 지배적인 사조로 류포되였다. 그 대표자는 오스트리아고전극의 창조자인 극작가 그릴파르쩨르(1791－1872)였다. 그는 랑만주의비극에서 《옷토카르왕의 행운과 말로》(1823)를 비롯한 민족적특성이 뚜렷한 극작품들을 창작하고 계몽주의사상을 옹호하였다. 이 시기 라이문드(1790－1836)는 사회적비판을 담은 희극을 창작하여 윈민중극의 발전을 추동하였다. 그들의 뒤를 이어 시인 레나우(1802－1850)가 진보적랑만주의의 립장을 뚜렷이 하고 극작가 네스트로이(1801－1862)가 신랄한 비판으로써 오스트리아의 극단에 활기를 불어넣었다.

19세기 후반기에는 오스트리아에서 비판적사실주의경향이 강화되였다. 이 시기 장편소설 《늦은 봄》(1857)을 쓴 소설가 슈티프테르(1805－1868)와 단편소설에서 재간을 나타낸 에브네르－에쉔바흐(1830－1916)의 창작으로 랑만주의로부터 사실주의로 이행하였다. 특히 이 시기에 소설가이며 극작가인 앙쩽그루베르(1839－1889)가 농민생활을 진실하게 묘사하는 등 자기의 창작으로 비판적사실주의문학발전에 이바지하였다.

벨지끄에서도 1830년 독립을 전후하여 랑만주의문학이 발생하였다. 벨지끄에서는 오끄따브 삐르메와 같은 반동적랑만주의시인들과 대립되여 벨지끄문학에서 처음으로 로동자의 형상을 창

조한 시 《기관차》, 《용광로》의 작가 우스땅라뜨, 자유와 민주주의를 노래한 시인 뽀방과 같은 진보적랑만주의작가들이 활약하였다.

벨지끄에서는 1850년대이후에야 로동운동의 앙양을 배경으로 사실주의문학이 출현하였다. 벨지끄문학에서 첫 사실주의장편소설은 끄스떼르의 《울렌슈삐겔의 전설》이다. 작품은 16세기 플랑드르인민들의 민족해방운동을 반영하여 민족적해방을 위해 용감히 싸운 전설적인물의 형상을 창조하였다. 끄망스, 녀류작가 그라비에르 등 작가들이 이 시기 활동하였다.

19세기 80년대에는 25종이나 되는 각종 문학잡지가 발간되여 문단이 활기를 띠였다. 그 중심적인 잡지가 《청년벨지끄》였다. 여기에 독자적인 민족문학창조를 지향하는 여러 작가들이 뭉치였다. 로모니에, 배르아랑, 로단바끄, 발레르 등이 그 대표적인물들이다. 그러나 그들사이의 의견상이로 하여 잡지발간은 1897년에 중단되였다. 배르아랑(1855—1916), 로모니에 등은 진보적립장을 견지하는데로 나가고 로단바끄(1855—1898), 발레르 등은 순수예술을 지향하는데로 나갔다.

이 시기에 부르죠아문단에서 이름난 상징주의극작가 매떼를랭끄(1862—1949)가 나왔다. 그의 동화극 《파랑새》(1908)는 당시 널리 알려졌다.

네데를란드는 19세기초에 나뽈레옹에 의하여 프랑스에 통합당했다가 1815년 윈회의에 의하여 벨지끄를 통합한 네데를란드왕국으로 되였다. 이 시기 나라의 정세는 비교적 안정되여있었으나 문화는 인차 회복되지 못하였고 문학도 한동안 저조한 상태에 있었다. 1837년에 와서 민족문학의 발전을 표방한 문학잡지 《도표》가 창간되면서 그를 중심으로 하여 랑만주의문학운동이 벌어졌다. 이 시기 녀류작가 뚜쌍을 비롯한 여러 작가들이 랑만적인 력사소설들을 련이어 창작하였다.

그후 인차 랑만주의에서 벗어나 사실주의를 지향하는 작가들이 등장하면서 당시 네데를란드의 시민생활을 밝은 해학과 풍자를 섞어 사실주의적으로 묘사한 베쯔의 단편소설집 《카메라 옵스큐라》, 동인디아를 무대로 네데를란드의 식민주의정책을 예리하게 비판한 물따뚤리(1820—1887)의 장편소설 《막스 하벨라르》(1860)와 같은 유명한 작품들이 발표되였다.

19세기 후반기에 문단은 일시 침체기에 들어갔다. 《80년파》라고 불리운 젊은 시인들이 잡지 《신도표》에 의거하여 적극적인 창작활동을 벌렸으나 대부분의 작품들은 개인주의적이며 예술지상주의적인 제한성을 나타냈다. 그러나 일부 시인들만은 거기서 벗어나 사회주의사상의 영향밑에 새로운 길을 모색하였다. 그 대표자가 호르떼르(1864—1927)였다.

이무렵 어민들의 비참한 생활을 그린 희곡 《희망호》(1900)를 내놓아 잘 알려진 하이에르망스(1864—1924)와 같은 사실주의작가도 활약하였다. 이렇게 19세기 서유럽나라들가운데서 스위스, 오스트리아, 벨지끄, 네데를란드가 적지 않은 문학유산을 남겼지만 문학유산이 보다 풍부한 나라는 이딸리아와 에스빠냐였다.

2) 이딸리아문학

이딸리아력사에서 18세기말—19세기는 자본주의적관계가 확립되고 민족적통일이 실현된 시기로 특징지어진다. 이 시기에 들어서면서 이딸리아에서의 정치, 경제, 문화발전과 날로 고조되는 인민들의 반봉건투쟁은 신흥부르죠아지의 장성을 적극 추동하였다. 또한 나라의 통합은 전민족적인 문제로 그 어느때보다 절실하게 제기되였다. 그리하여 봉건주의를 청산하고 자본주의적관계를 확립하며 민족적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장기간의 투쟁이 벌어지게 되였다. (이 시기를 《리쏘르드지멘또》시기라고 부른다.)

이러한 사회력사적환경으로 하여 19세기에 발전한 이딸리아 진보적문학에서는 민족정신의 앙양을 반영하고 애국적정열이 맥박친 랑만주의문학이 주도적인 사조를 이루었다. 이딸리아에서 랑만주의문학은 서유럽의 다른 나라들보다 훨씬 오래 지속되고 활발히 창작되였다. 이 나라에서 사실주의문학이 발생한것은 1870년대이후였다.

19세기 이딸리아 진보적랑만주의문학의 대표자는 만쪼니, 레오빠르디, 죠바놀리이다.

만쪼니 알렉싼드로 만쪼니(1785—1873)는 이딸리아의 이름난 시인, 소설가, 극작가이며 이딸리아 진보적랑만주의문학의 대표자의 한사람이다.

그는 밀라노의 오랜 귀족가정에서 태여나 1800년에 교육과정을 마치고 창작활동을 시작하였다. 그는 처음에 시창작에 전념하였다. 그가 쓴 시들은 《자유의 승리》(1801), 시집 《우리니아》(1809), 찬가 《수난》(1815) 등이다. 그후 그는 희곡과 소설을 창작하였다.

그는 특히 력사극 《까르마뇰라백작》(1820)에서 종래의 고전주의극의 3일치법을 타파하였으며 대표작인 장편력사소설 《약혼자》(1821—1827)에서 이딸리아랑만주의를 확립하였다.

장편력사소설 《약혼자》는 200년전 에스빠냐의 지배밑에 있었던 북이딸리아를 무대로 령주의 압제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농민 렌쪼와 그의 약혼녀 루찌아의 노력을 보여주고있다. 폭군 로드리고가 루찌아에게 눈독을 들여 그에게 마수를 뻗치자 교회에서는 폭군이 무서워 렌쪼와 루찌아의 결혼식을 해주지 않는다. 그러자 그들은 한 수도사의 도움으로 고향에서 도망치는데 렌쪼는 밀라노에, 루찌아는 수도원에 피신한다. 렌쪼는 천짜는 직공으로 일하는 과정에 여러가지 곡절을 겪으며 루찌아도 유괴당했다가 간신히 구원된다. 이러한 우여곡절끝에 두사람은 드디여 만나 결혼하게 된다.

이를 통하여 소설은 자기 고향, 자기 나라에 대한 사랑을 고취하고 오스트리아압제자들을 반대하는 투쟁에 일떠설것을 힘있게 호소하였다. 절절한 향토애와 애국주의정신, 생동한 묘사, 높은 형상성, 재치있게 구사된 언어표현 등으로 특징적인 이 소설은 이딸리아 진보적랑만주의문학에서 대표작의 하나로 되였다.

레오빠르디

쟈꼬모 레오빠르디(1798—1837)는 단떼, 뻬뜨라르까, 땃쏘들처럼 이딸리아문학사에 뚜렷한 흔적을 남긴 이름난 시인이다.

귀족가정에서 태여난 그는 어릴 때부터 공부에 몹시 취미를 붙여 18살까지 방대한 장서가 있는 아버지의 서재에 꾹 박혀 자습하였다. 결과 그는 영어, 프랑스어, 도이취어 등 근대어는 물론 고대그리스어, 라틴어, 헤브라이어까지 소유한 박식가로 되였다.

그러나 그는 오래동안 해가 들지 않는 방안에서만 생활했기때문에 발육과 건강에 지장을 받아 허약해졌다.

조숙한 시인으로서 18살때부터 시를 쓰기 시작한 그는 장중한 단떼의 서사시와 화려한 뻬뜨라르까의 서정시를 배합하여 자기식의 개성적인 시를 련이어 써냄으로써 이딸리아시단에서 널리 알려지게 되였다.

그의 대표적인 작품으로는 《이딸리아에 드리노라》(1818), 《단떼의 기념비앞에서》(1819), 《앙젤로 마이에게》(1820) 등의 랑만주의적장시들을 들수 있다. 이 작품들은 리성을 내세우고 숨막히는 어두운 현실에 대한 반항정신을 고취하였으며 자유를 위해 용감히 싸운 고대이딸리아사람들을 찬양하고 적극적인 투쟁에 나서지 못하고있는 비겁한 부르죠아사상가들을 풍자비판하였다. 하여 작품들은 그 진보적인 내용과 함께 《간또》라고 불리운 독특한 서정서사시적인 시형식과 세련된 시어, 운률의 특징으로 하여 이딸리아시단에 참신성을 더해주었다.

이밖에도 그는 《무한》(1819), 《쌉포의 마지막노래》(1822)를 비롯한 서정시들(그의 시들을 묶은 《깐띠》가 출판되였다.)과 《교훈소품집》(1827)과 같은 산문작품집, 《명상집》(1898—1900, 출판)과 같은 수기도 남겼다.

그는 비록 39살의 젊은 나이에 사망하였으나 그가 남긴 창작유산들은 이딸리아문학사에서 확고한 자리를 차지하고있다.

죠바뇰리

랍파엘로 죠바뇰리(1838—1915)는 청소년시절부터 이딸리아의 통일과 독립을 위해 투신하였으며 오스트리아침략군을 반대하고 나라의 해방을 위해 싸운 가리발디군에 복무한 애국자였다. 그는 1870년에 제대된 후 로마고등사범학교 교장을 비롯하여 교육부문에서 일하면서 문학창작을 하였다.

그는 주로 력사소설, 력사극, 시극을 창작하였는데 그 대부분의 력사소설들은 고대로마인민들의 생활에서 소재를 잡은것이였다. 력사소설 《싸뚜르니노》(1879)와 《메쌀리나》(1885)가 그러한 작품들이다.

그의 대표작은 장편력사소설 《스빠르따꾸스》(1874)이다. 작품은 B.C. 1세기 스빠르따꾸스의 지도밑에 압제자들을 반대하여 일떠섰던 노예폭동을 랑만주의적이며 사실주의적으로 생동하게 보여주었다. 작품은 자유와 해방을 위한 노예들의 투쟁을 지지하고 노예들과 특히 그들의 지

도자인 스빠르따꾸스를 진실하게 형상하였다.

베리즈모 나라가 통합된 후 사회적모순이 날로 첨예화되여가던 1870년대 이딸리아의 력사적현실을 배경으로 각이한 조류와 류파들이 형성되는 과정에 현실을 보다 진실하게 반영하는 새로운 방법을 탐구한 작가들속에서 《베리즈모》(진실주의)라고 불리운 류파가 형성되였다.

베리즈모는 기본적으로 비판적사실주의계렬에 속하는 류파라고 볼수 있다. 베리즈모의 특징은 빈민들, 특히 농민들의 세태생활에 대한 관심, 주인공들의 체험묘사의 중시, 첨예한 극적갈등의 조성, 정치적색채의 강조 등으로 표현되였다. 베리즈모는 진실성과 과학성을 강조하고 사실주의와 랑만주의를 결합하려고 시도하였다. 베리즈모의 대표적작가는 베르가이다.

베르가 죠반니 베르가(1840—1922)는 씨칠리아섬의 귀족가정에서 태여났으나 애국적인 비밀결사조직인 까르보나리(숯구이당) 성원이였던 할아버지의 영향을 받아 소년시기부터 선진적이였다.

19세기 60년대에 처음으로 장편소설 《산속의 까르보나리들》(1861)을 발표하여 랑만주의소설가로서 문단에 등장한 그는 70년대에 이르러 각이한 문학류파들과의 론쟁을 통하여 베리즈모의 리론적기초를 쌓았으며 그 대표작들로 중편소설 《넷다》(1874), 단편소설집 《전원생활》(1880)과 《전원소설집》(1883)을 내놓았다.

《전원생활》과 《전원소설집》은 19세기 씨칠리아농촌생활을 묘사한 작품으로서 가난에 시달리는 근로농민들에 대한 동정심과 지주, 관리들과 신흥부르죠아들에 대한 증오심을 보여주었다.

그의 대표작으로는 5부작으로 계획되였던 장편소설 《피정복자들》(미완성)중에서 《말라볼리아일가사람들》(1881)과 《공장주 돈 제주알리도》(1889)이다.

이 작품들은 이딸리아민족해방운동이후 출현한 부르죠아계급의 진면모와 부르죠아혁명의 불철저성 그리고 19세기 이딸리아의 사회적지위와 어두운 현실을 사실주의적으로 묘사하였다. 작품들은 또한 인민적언어와 자연과 인간성격에 대한 구체적이며 간결한 묘사, 짙은 생활향기 등 예술적측면에서도 특색을 보여주었다.

그의 작품들에서 표현된 베리즈모의 사상과 예술적수법들은 제2차 세계대전후 이딸리아에서 네오레알리즈모(신사실주의)문학의 발생에 영향을 주었다.

3) 에스빠냐문학

19세기 에스빠냐에서는 자본주의가 발전하고 자주성을 옹호하는 로동계급과 근로인민들의 투쟁이 강화되였다. 특히 19세기초 나뽈레옹의 침략을 반대하는 에스빠냐인민들의 투쟁(1808—1814)으로 하여 애국적기운이 높아졌다. 1833년에 페르난드7세가 죽은 후 부르죠아민주주의운동이 강화되고 1854—1856, 1868—1874년에 부르죠아혁명이 일어났다.

이러한 환경속에서 19세기 에스빠냐문학은 전반기에 애국적인 계몽주의문학과 랑만주의문학, 꼬스뚬브리스모(세태풍속주의)문학, 후반기에 비판적사실주의문학으로 교체되면서 발전하였다.

랑만주의문학이 발생하기 전 19세기초의 에스빠냐문학은 기본적으로 18세기 계몽주의문학의 계속이였다. 이 시기 계몽주의문학의 대표자는 시인 낀따나이다. 낀따나를 비롯한 진보적작가들은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위한 애국적주제의 작품들을 창작하여 인민들을 반침략투쟁에로 고무하였다.

마누엘 호쎄 낀따나(1772—1857)의 작품들에서 기본은 자유와 진보, 조국에 대한 사상이였다. 그는 나뽈레옹군의 침략과 관련하여 《프랑스를 반대하는 에스빠냐 여러 주들의 무장봉기를 노래하노라》(1808)를 비롯한 애국심이 불타는 시들을 지었다.

에스빠냐에서 랑만주의문학은 1820년대에 발생하여 1830년대에 자기의 체모를 갖추었으며 19세기 전반기에 주도적인 사조로 되였다. 에스빠냐의 랑만주의문학은 희곡 《돈 후안 떼노리오》(1844)를 쓴 호쎄 쏘릴랴(1817—1893)를 중심으로 하는 반동적랑만주의문학과 에스쁘론쎄다를 중심으로 하는 진보적랑만주의문학과의 투쟁속에서 발전하였다. 에스빠냐 진보적랑만주의문학을 대표하는 작가들로는 시에서 에스쁘론쎄다, 극문학에서 싸아베드라, 산문에서 라라 등이다.

리바스공작으로 불리운 안헬 데 싸아베드라(1791—1865)는 희곡 《돈 알바로》(1835)를 내놓아 에스빠냐에서 랑만주의극문학을 발생시켰다. 이 희곡의 공연은 당시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으며 프랑스의 유고의 희곡 《에르나니》의 공연을 방불케 하였다.

마리아노 호쎄 데 라라(1809—1837)는 15세기 에스빠냐시인 마씨아스의 생활을 주제로 한 장편력사소설 《고민하는 돈 엔리끄의 시동》(1834)을 창작하여 산문형태에서 랑만주의를 확립하였다.

랑만주의문학과 병행하여 《끄스뚬브리스모》로 불리우는 사실주의문학류파가 발생하였다. 라라가 랑만주의로부터 끄스뚬브리스모로 넘어가 자기의 창작에서 세태풍속묘사와 깊이있는 사회비판, 예리한 풍자를 배합하였으며 에스떼빠네스 깔데론(1799—1867)이 고향 안달루씨아의 생활을 그린 향토문학을 들고나왔다. 그 대표작이 《안달루씨아풍경》(1847)이다.

끄스뚬브리스모문학의 발전에 토대하여 19세기 중엽에 비판적사실주의문학이 형성되였으며 후반기에는 그것이 주도적인 사조로 되였다. 19세기 에스빠냐 비판적사실주의문학의 대표자는 소설가 뻬레스 갈도스이다. 그와 함께 귀족시장과 방아간녀주인에 대한 이야기를 통하여 평민주인공의 승리를 보여준 중편소설 《삼각모자》(1874)를 내놓은 뻬드로 안또니오 데 알라르꼰(1833—1891)과 서한체소설 《뻬삐따 히메네스》(1874)에서 종교적금욕주의를 반대하고 지상에서의 행복과 인간생활을 옹호한 후안 발레라(1824—1905) 등이 활동하였다.

극문학에서 비판적사실주의를 대표하는 작가는 에체가라이이다. 호쎄 에체가라이(1832—1916)는 1874년부터 극문학창작을 시작하여 약 60편의 희곡을 썼다. 그는 자유주의적립장에서 허위와 위선에 충만된 부르죠아도덕을 비판하였으나 염세주의적이며 허무주의적인 제한성을 드러냈다. 그의 희곡은 줄거리가 째이고 상상력이 풍부한 반면에 성격묘사가 약하고 과장이 심하였다. 그의 대표작은 《무서운 중매》(1881)와 《씻어진 치욕》(1895)이다.

19세기 에스빠냐 진보적문학을 대표하는 작가는 시분야에서 에스쁘론쎄다, 소설분야에서는 뻬레스 갈도스이다.

에스쁘론쎄다

호쎄 데 에스쁘론쎄다(1808—1842)는 19세기 에스빠냐랑만주의문학계의 대표자이며 유명한 시인이다.

일찌기 소년시절에 《누만씨아당》이라는 비밀결사에 참가했던 그는 생애의 대부분을 부르죠아혁명운동에 바쳤다. 비밀결사가 드러나 국외로 망명한 그는 정열적인 시창작활동을 벌려 《에스빠냐의 바이런》으로까지 불리웠다.

그는 자기의 시들에서 봉건적압제를 반대하고 자유를 열렬히 갈망하였으며 호방한 운률을 구사함으로써 당시 에스빠냐 진보적사회계와 독자들의 환영을 받았다. 대표작은 《서정시집》(1840)에 수록된 《해적의 노래》, 돈 후안전설을 취급한 이야기시 《쌀라만까의 대학생》(1840), 괴테의 《파우스트》를 모방한 서사시 《악마환생》(미완성, 1841)이다.

뻬레스 갈도스

베니또 뻬레스 갈도스(1843—1920)는 에스빠냐 비판적사실주의문학의 대표자의 한사람이다.

그는 까나리아군도의 도시 라스 빨마스에서 태여나 마드리드종합대학을 졸업한 후 직업적작가로 활동하는 한편 공화주의를 지지하는 사회정치활동에 참가하여 여러번 국회의원으로 선거되였다.

그는 전생애에 약 80편의 장편소설과 24편의 희곡, 수많은 단편소설과 평론을 썼다.

그의 작품들가운데는 방대한 력사소설총서 《민족삽화》(전 50권, 1873—1912)도 있다. 총서에는 1805년 뜨라팔가르해전으로부터 1868—1874년 부르죠아혁명의 실패와 왕정복귀에 이르기까지 19세기 에스빠냐력사가 사실주의적으로 반영되여있다. 그중에서도 《사라고사》(1874), 《후안 마르띤 엘엠뻬씨나도》(1874) 등 나뽈레옹을 반대하는 독립전쟁에 대한 제1부류의 력사소설들이 두드러져있는데 여기에는 압제를 반대하는 인민들의 용감한 투쟁모습이 묘사되여있다.

또한 총서 《현대에스빠냐소설》(약 25편, 1881—1915)에는 에스빠냐의 당대 사회생활이 반영되여있다. 그가운데는 마드리드의 중하층의 생활을 진실하게 반영한 사실주의적소설들이 적지 않다.

뻬레스 갈도스의 창작은 20세기 에스빠냐사실주의소설발전에 큰 영향을 주었다.

6. 로씨야문학

1) 근대적발전을 위한 진보적인 사회운동과 밀착된 로씨야문학

19세기 로씨야문학의 력사는 크게 두 시기, 즉 19세기 전반기와 후반기로 갈라진다.

전반기는 19세기초부터 1850년대까지, 후반기는 1860년대이후시기를 포괄한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19세기 전반기까지도 로씨야는 농노전제제도가 지배하는 뒤떨어진 봉건국가로 남아있었습니다. 이 시기에 로씨야에서는 나라의 근대적발전을 위한 진보적인 사회운동의 주도권을 부르죠아지가 아니라 봉건귀족출신의 선각자들이 쥐고있었습니다. 당시의 진보적작가들도 대부분이 이러한 귀족출신의 선각자들이였습니다.

그들은 자기 세계관의 귀족적제한성때문에 활동에서 심각한 약점을 나타냈으며 나라의 근대적발전에 크게 이바지하지 못하였습니다.》

19세기 서유럽나라들에서 근대적인 자본주의사회가 빨리 발전하고있을 때 로씨야에는 여전히 락후한 봉건전제농노제도가 그대로 남아있었다. 하지만 이 시기에 와서 로씨야의 전제농노제도는 이미 흔들리기 시작하였다.

19세기 전반기에 알렉싼드르1세(통치년간:1801—1825)와 니꼴라이1세(통치년간:1825—1855)를 우두머리로 한 봉건귀족계급은 인민들의 반전제, 반농노제투쟁을 가혹하게 탄압하고 자기들의 통치를 유지하려고 발악하였으나 이미 기울어지기 시작한 봉건사회의 몰락과정을 멈춰세우지 못하였다.

19세기 전반기에 로씨야에서는 자본주의적관계가 장성하고 농노제가 위기에 처하게 되였으며 농노개혁이 준비되였다.

이러한 시대적배경밑에서 19세기 전반기 로씨야문학은 19세기 초엽의 랑만주의시대를 거쳐 19세기 30년대이후 비판적사실주의시대에로 급속히 발전하기 시작하였다.

1812년 나뽈레옹군의 침입과 그에 뒤이은 로씨야군대의 서유럽원정으로 전제통치와 폭정에 고통받던 로씨야에 자유사상이 밀려왔다.

원정에 참가했던 청년귀족장교들은 비밀결사를 뭇고 전제제도를 뒤집어엎기 위한 1825년 12월폭동을 일으켰다가 실패하였다. 력사에서는 그들을 《12월파》라고 불렀다.

이러한 환경속에서 19세기 초엽 로씨야문학에서는 랑만주의가 문단의 지배적조류로 되였다. 인간의 내면세계에 대한 관심, 환상과 꿈, 세계에로의 미적동경과 같은 새로운 요소를 로씨야시에 끌어들인 쥬꼽스끼가 반동적랑만주의의 대표자로 나섰다. 12월폭동에 참가하여 교수형을 당한 릴레예브, 규헬베께르, 오도옙스끼 등의 12월파시인들, 초기의 뿌슈낀의 창작활동과 레르몬또브가 진보적랑만주의문학을 대표하였다. 뿌슈낀의 랑만주의적인 서정시와 서사시들, 레르몬또브의 서사시 《동승》은 그 뚜렷한 표현으로 된다.

초기랑만주의시인으로 되였다가 사실주의로 나간 뿌슈낀, 레르몬또브와 함께 우화시로써 로씨야인민의 민족적성격을 그려낸 크릴로브, 희극 《지혜의 설음》에서 사실주의적인 현실비판에로의 길을 열어놓은 그리보예도브가 로씨야민족문학의 형성에 이바지하였다.

여기서 가장 큰 역할을 한것은 민족적시인 뿌슈낀이였다. 그는 로씨야문학어를 다듬고 문학에서 사실주의의 길을 개척하였으며 로씨야근대문학을 창시하고 나라의 문학을 일약 세계적수준으로 끌어올렸다.

뿌슈낀은 서정시와 함께 운문소설 《예브게니 오네긴》, 중편소설 《대위의 딸》, 력사극 《보리스 고두노브》를 내놓음으로써 랑만주의로

부터 사실주의에로의 길을 열어놓았다.

뿌슈낀의 전통을 이어 로씨야문학에 새로운 페지를 장식한 사람은 레르몬또브와 고골리였다. 12월파의 폭동실패후에 활동한 레르몬또브는 세련된 필력으로 로씨야시어를 더욱 다듬었으며 장편소설 《현대의 영웅》을 창작하여 산문발전에도 기여하였다.

고골리의 작품들은 뿌슈낀이 개척한 비판적 사실주의문학을 확립하고 로씨야문학에서 산문이 우위를 차지하게 하였다. 그의 장편소설 《죽은 넋》(제1부)은 로씨야사실주의문학발전에 뚜렷한 흔적을 남겼다.

또한 이 시기에 사실주의문학리론을 정립하고 문학평론의 지위를 확립한 벨린스끼가 활동하였으며 혁명적민주주의의 선구자의 한사람인 게르쩬도 활동하였다.

19세기 30—50년대는 로씨야의 지식인들, 작가들이 보수적인 슬라브파와 진취적인 서유럽파로 갈라져 대론쟁을 벌린 시기이기도 하였다.

19세기 후반기는 로씨야에서 봉건전제농노제도가 붕괴되기 시작하고 자본주의가 급속히 발전하기 시작한 시기이며 진보적인 사회운동이 앙양되던 시기였다.

1853—1855년 크림전쟁의 패배와 농민봉기의 격화로 타격을 받은 짜리정부는 1861년 2월 부득불 농노제를 페지하였다. 1861년 농노개혁은 비록 타협적인 성격의 개혁이긴 하였지만 봉건전제제도의 붕괴를 가속화하고 자본주의가 급속히 발전하게 하였다. 그리하여 로씨야에서는 서유럽나라들에서 몇세기에 걸쳐 진행된 자본주의과정이 불과 몇십년동안에 수행될수 있었다. 결과 로씨야에서는 자본주의가 19세기 말에 벌써 독점적자본주의, 제국주의단계로 넘어갔으며 이와 함께 1890년대에 들어서면서 산업프로레타리아트가 장성하고 로동운동도 발전하게 되였다.

1860년대는 1861년 농노개혁후 진보적인 사회적운동이 앙양되기 시작한 시기이다. 60년대에 들어서면서 사회적운동뿐아니라 문학의 주도권도 자유주의적귀족지식인들로부터 평민민주주의자들의 수중으로 옮겨지게 되였다.

이전에 뿌슈낀이 창간한 문학잡지 《쏘브레멘니크(현대인)》는 시인 네크라쏘브가 주관하게 되고 그 편집을 벨린스끼, 게르쩬 등이 하게 되면서 적극적인 진보적문학운동을 추동하였으며 여기에 체르늬쉡스끼와 도브롤류보브가 참가하게 됨으로써 혁명적민주주의문학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였다. 그후에 쌀띄꼬브—쉐드린과 극작가 아. 오스뜨롭스끼가 합세하여 이 시기 문학발전을 추동하였다.

이 시기 문학을 대표하는것은 체르늬쉡스끼의 장편소설 《무엇을 할것인가?》이다.

이 시기는 또한 귀족자유주의작가들과 기타 작가들속에서 소설창작이 활발히 전개된 시기이기도 하였다. 40—50년대 로씨야문학에서의 사실주의의 확립은 시에 대한 산문의 확립이기도 하였다. 그리하여 그후 로씨야문학에서는 소설이 압도적인 자리를 차지하고 극문학도 발전하였다.

60년대말까지에 뚜르게네브는 《사냥군의 수기》, 《귀족의 보금자리》, 《전야》, 《아버지와 아들》을, 도스또옙스끼는 《학대받는 사람들》, 《죄와 벌》을, 레브 똘스또이는 《까자크들》과 《전쟁과 평화》를, 곤챠로브는 《오블로모브》를 내놓았다. 그리하여 10년안팎에 로씨야의 사실주의소설문학은 커다란 성과를 이룩하였다.

시문학에서는 네크라쏘브, 극문학에서는 《뢰우》를 쓴 아. 오스뜨롭스끼가 대표자이다.

70년대는 인민주의운동이 일어난 시기이다. 이 시기 급진적인 지식인들은 인민속으로, 즉 농민들속으로 들어가 그들을 각성시켜 농민혁명을 일으키려고 하였다. 그후 그들의 활동은 사상계와 문학계에 큰 영향을 주었으며 결과 우스뻰스끼와 같은 작가가 나오게 하였다.

80년대 로씨야사회에서는 염세주의적풍조가 짙어지고 레브 똘스또이의 악에 대한 무저항주의사상(똘스또이주의)이 지식인들속에 류포되였다. 이 시기의 어두운 기분은 시인 나드쏜, 소설가 가르쉰의 작품에 반영되였으며 반면에 꼬롤렌꼬와 체호브와 같이 그러한 기분에서 벗어져나오려는 지향도 컸다. 이 시기에 또한 도스또옙스끼의 《까라마조브형제》, 레브 똘스또이의 《안나 까레니나》, 《부활》이 나왔다.

19세기말부터 로씨야는 제국주의와 프로레타리아혁명시기에 들어섰으며 프로레타리아문학이 발생한 반면에 퇴페주의문학도 나왔다.

2) 로씨야랑만주의문학

로씨야의 랑만주의문학은 로씨야인민의 반침략, 반봉건운동이 앙양되고 귀족계급내부에서까지 농노전제제도를 반대하는 기운이 높아지던 19세기 초엽에 로씨야의 락후한 봉건적현실에 대한 귀족계급내부의 서로 다른 태도와 불만을 반영하여 발생하였다.

로씨야의 랑만주의문학 역시 진보적랑만주의와 반동적랑만주의와의 치렬한 대결속에서 발전하였다.

반동적랑만주의문학은 반봉건운동의 앙양에 겁을 먹고 어떻게 하나 농노전제제도를 옹호하려는 봉건통치배들의 사상동태와 기분을 반영해나왔다. 반동적랑만주의작가들은 현실에서 도피하여 중세기적과거를 리상화하거나 종교적신비주의를 설교해나섰다.

그 대표자가 쥬꼽스끼(1783—1852)였다. 그는 《스베뜰라나》, 《숲속의 짜리》를 비롯한 시작품들에서 세상일이 비록 조화롭지 못하다하더라도 허망한 리상을 버리고 운명에 순종하라고 강조함으로써 모순된 봉건사회의 현실을 미화하고 종교적신비주의를 설교하였다.

반동적랑만주의는 쥬꼽스끼의 작품외에도 끄즐로브, 베네직또브 등의 시와 자고스낀의 소설, 꾸꼴니크의 희곡들에서도 표현되였다.

로씨야의 진보적랑만주의문학은 이러한 반동적랑만주의문학을 반대하는 투쟁속에서 발생발전하였다.

이 문학은 당대 로씨야의 모순된 봉건적현실을 날카롭게 비판하고 그와의 투쟁을 호소하였으며 보다 공정한 생활과 정치적자유가 보장될 미래를 동경하였다. 또한 농노제의 철페와 전제제도의 개혁을 지향한 귀족출신의 일부 선각자들과 진보적사회계층의 사상과 감정을 반영하였다.

로씨야 진보적랑만주의문학에서 기본은 시문학이였으며 그 대표자는 12월파에 속한 시인들과 그 지지자, 동정자였던 뿌슈낀과 레르몬또브였다.

12월파문학 12월파문학은 12월파의 사상감정을 반영한 랑만주의문학류파이다.

12월파는 짜리전제제도와 농노제를 뒤집어엎고 근대적인 자본주의길로 나갈것을 지향한 19세기초 로씨야의 선각적인 귀족장교, 지식인들의 비밀결사였다. 그들이 1825년 12월에 무장폭동을 일으킨것과 관련하여 후에 《12월파》로 불리우게 되였다.

이들은 문학을 자기들의 사상을 선전하기 위한 수단으로 여기고 문학창작을 중시하였다.

12월파는 《로씨야문학애호가협회》(1816—1825), 《록등회》(1819—1820)와 같은 문학단체를 가지고있었으며 기관지 《북극성》을 발간하였다.

12월파문학은 시대정신을 반영하고 애국적사상감정을 표현하였으며 사람들을 12월파의 리상실현을 위한 투쟁에로 추동하였다. 또한 외국문학에 대한 맹목적인 모방을 반대하고 문학의 민족적독자성을 주장하였으며 민간문학에 관심을 돌리고 랑만주의적창작방법을 구사하였다. 문학형태에서는 시문학이 위주로 되였으나 일부 산문과 희곡도 창작하였다.

12월파문학의 대표적시인은 릴레예브(1795—1826)이며 그의 대표작은 시집 《두마》(1825), 서사시 《워이나롭스끼》(1825), 《날리바이꼬》(1825)이다. 그밖에 뀨헬베께르, 베스뚜제브, 오도옙스끼 등이 있다.

뿌슈낀과 그리보예도브는 12월파의 지지자, 동정자들이였다.

12월파문학은 자체의 귀족적제약성에서 벗어나지 못하였으나 로씨야의 진보적문학발전을 추동하는데서 일정한 역할을 하였으며 19세기 중엽의 혁명적민주주의문학에 영향을 주었다.

로씨야 진보적랑만주의문학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것은 12월파문학과 함께 뿌슈낀과 레르몬또브의 초기 시작품들이다.

문학창작초기에 진보적랑만주의시인으로 등장한 뿌슈낀은 《자유》, 《농촌》, 《챠아다예브에게》를 비롯한 서정시들과 《루슬란과 류드밀라》, 《집씨들》을 비롯한 서사시들에서 진보적랑만주의문학의 사상예술적특성을 뚜렷이 표현하였다.

레르몬또브 역시 《돛》, 《예언》, 《뛰르끼예사람의 하소연》을 비롯한 서정시들과 《동승》(1839), 《악마》(1841) 등의 서사시들에서 그러한 특징을 선명하게 보여주었다.

로씨야 진보적랑만주의문학의 대표적인 작품의 하나는 서사시 《동승》이다.

《동승》

《동승》은 수도원에서 노예살이를 하던 한 동승의 자유를 위한 피어린 투쟁과 비극적인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통하여 당대 현실을 비판하고 압박과 예속을 반대하여 투쟁에 나설것을 호소하였다.

짜리로씨야의 압박을 반대하여 싸우던 어느 한 종족의 소년이 어릴 때 로씨야군에 포로되여 그루지야의 오랜 수도원에서 노예적인 동승생활을 강요당한다. 이러한 주인공에게는 수도원이 감옥으로 여겨져 그의 마음속에는 세월이 흐를수록 자유에 대한 갈망과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가득찬다.

드디여 번개가 치고 소낙비 쏟아지는 어느날 밤 주인공은 결심품고 수도원을 탈출한다. 그는 밀림속을 정처없이 헤매다가 사나운 표범과 맞다들어 싸움끝에 심한 상처를 입는다. 이렇게 3일간의 방황끝에 밀림속에서 빠져나와보니 그앞에는 또다시 저주로운 수도원이 나타난다. 그가 길을 잃고 밀림속을 헤매며 빙빙 돌기만 하다보니 다시 제자리로 돌아온것이다.

표범과의 싸움에서 입은 상처와 밀림속에서의 악전고투의 후과로 다 죽게 된 그는 로승에게 자기를 고향 깝까즈산줄기가 보이는 높은 곳에 묻어달라는 유언을 남기고 눈을 감는다.

작품에서 동승이 노예살이를 강요당한 수도원은 전제제도의 감옥으로 화한 당대 봉건로씨야의 암담한 현실의 상징으로, 동승은 이러한 현실을 반대하는 반항아로, 봉건적인 노예살이에서 벗어나기 위한 투쟁에 일떠서는 인물로 형상되였다. 주인공은 자기 생애를 총화하면서 자랑차게 웨친다.

> 나의 일생은 짧았고 그나마
> 포로의 일생이였소
> 허나 만일 할수만 있다면 나는
> 이런 두가지 생활을 하나의 생활
> 오직 투쟁에 찬 생활과 바꿀것이요

이 말에는 노예가 되여 목숨을 부지하기보다는 자유를 위해 싸우다 죽는것을 더 영예로운것으로 여기는 주인공의 심정이 토로되여있다.

서사시는 선행한 랑만주의시와 같이 시인자신의 주관적감정이나 일반적인 열정을 토로하고있는것이 아니라 주인공자신의 내면분석을 위주로 하고있다. 서사시는 또한 구성의 단순성, 주인공의 내면세계에 대한 섬세한 묘사와 독백과 대화의 결합, 생동한 자연묘사를 유기적으로 결합한 구성상 특징을 나타내고있으며 시어는 명확하고 표현력이 있으며 운률은 류창하고 음악적이다.

이러한 사상예술적특징으로 하여 서사시 《동승》은 로씨야랑만주의문학에서 대표작의 하나로 되고있다.

3) 로씨야비판적사실주의문학과 뿌슈낀, 고골리, 체르느쉡스끼, 레브 똘스또이, 체호브

로씨야문학발전력사에서 19세기 20—30년대는 랑만주의문학의 제한성을 극복하기 위한 사상미학적탐구가 강화되고 랑만주의로부터 비판적사실주의에로의 이행이 시작된 시기이다.

로씨야 비판적사실주의문학의 초기작품들로서는 크릴로브의 우화와 그리보예도브의 희극 《지혜의 설음》(1824), 뿌슈낀의 비극 《보리스 고두노브》(1825)와 운문소설 《예브게니 오네긴》(1830)을 들수 있다.

크릴로브(1769—1844)의 우화들은 랑만주의문학의 추상성과 도식성을 극복하고 사실주의적특성을 뚜렷이 나타냈으며 그리보예도브(1795—1829)의 《지혜의 설음》 역시 근대적인 사상적지향과 거기에 표현된 근대문학의 요소들로 하여 확고히 사실주의극에 접근하였다.

로씨야문학에서 사실주의원칙을 확립한것은 뿌슈낀이였다. 뿌슈낀은 시, 소설 등 자기의 작품들에서 사실주의원칙을 확립하였다. 그의 창작에 이어 레르몬또브의 시와 소설, 특히 고골리의 소설과 40년대의 자연파문학에 이르기까지 비판적사실주의는 로씨야문학에서 지배적인 자리를 차지하게 되였다.

로씨야비판적사실주의의 특징은 부르죠아사회를 예리하게 해부하고 그 모순과 불합리성을 비판폭로하는데 선차적인 관심을 돌린 서유럽의 비판적사실주의와는 달리 부르죠아사회의 모순이 아직 정면에 드러나지 않은 로씨야의 현실

로부터 비판의 예봉을 봉건적인 사회관계와 그 사회악을 들추어내는데 선차적으로 돌린것이다.

로씨야 비판적사실주의문학은 봉건적전제농노제도의 반동성과 불합리성, 봉건귀족들과 관리들의 착취적본성과 비인간성을 예리하게 비판한 수많은 우수한 작품들을 내놓음으로써 로씨야와 유럽사실주의문학발전에 크게 이바지하였다.

로씨야 비판적사실주의문학은 그 발전단계를 크게 세 단계로 갈라볼수 있다. 첫 단계는 30—40년대이고 둘째 단계는 50—70년대이며 셋째 단계는 80—90년대이다.

첫 단계인 19세기 30—40년대에 로씨야비판적사실주의문학은 로씨야의 락후한 농노전제제도에 대한 폭로비판을 기본으로 인민들의 생활에 대한 관심을 점차 높이였다.

이 시기의 대표적인 작가는 뿌슈낀과 고골리이다. 또한 레르몬또브와 벨린스끼, 게르쩬(1812—1870)의 역할도 컸다.

둘째 단계인 19세기 50—70년대는 이 문학의 개화기였다.

이 시기 비판적사실주의문학은 선행시기에 비하여 봉건사회에 대한 비판을 더욱 강화하였으며 급속히 자라나는 자본주의적관계의 모순과 불합리성에 대한 비판도 강화하였다. 또한 인민들의 생활을 보다 폭넓고 깊이있게 하였으며 평민민주주의자들을 주인공으로 내세웠다. 로씨야 비판적사실주의문학에서는 장편소설이 기본으로 창작되였으며 시문학과 극문학창작도 활발해졌다.

이 시기에 레브 똘스또이를 비롯한 대가들이 여러명 출현하고 우수한 작품들이 많이 창작됨으로써 로씨야문학이 세계문학에서 당당한 자리를 차지하게 되였다.

비판적사실주의계렬의 작가들은 그 경향성에 따라 크게 두 부류로 갈라지는데 그 하나는 혁명적민주주의계렬의 작가들이다.

그 대표자들은 40년대의 벨린스끼와 게르쩬, 50—70년대에 체르늬쉡스끼와 도브롤류보브, 그들과 같은 립장을 취한 시인 네크라쏘브, 이들을 동조해나선 극작가 아. 오스뜨롭스끼와 소설가 쌀띄꼬브—쉐드린들이다.

그중에서도 체르늬쉡스끼는 혁명적민주주의문학의 중심인물이였다.

비판적사실주의계렬의 다른 부류는 귀족자유주의적립장을 취한 작가들이였다. 이 부류의 중심에는 레브 똘스또이가 있었으며 뚜르게네브, 곤챠로브와 같은 작가들도 이 문학의 발전에 이바지하였다. 도스또옙스끼는 이 부류에서 특수한 지위를 차지하였다.

셋째 단계인 19세기 80—90년대는 로씨야에서 자본주의가 점차 제국주의단계에 들어서기 시작하고 자본주의와 짜리제도를 반대하는 로동계급의 혁명투쟁이 시작된 새로운 력사적시기였다.

이 시기 비판적사실주의문학은 더욱더 격화된 사회계급적모순을 반영하여 불합리한 현실에 대한 비판정신과 학대받는 사람들의 비참한 운명에 대한 동정을 더 한층 강화하였으며 인민대중의 지향과 새로이 앙양되여가는 혁명투쟁의 시대적분위기를 일정하게 반영하였다.

이 시기의 대표적인 작가는 레브 똘스또이와 체호브이다. 또한 이 시기 꼬롤렌꼬, 마민—씨비랴크, 가르쉰, 꾸쁘린들이 활동하였다.

이렇듯 19세기 로씨야 비판적사실주의문학의 발전과정에 수많은 재간있는 작가들이 배출되였으며 그중에서도 뿌슈낀, 고골리, 체르늬쉡스끼, 레브 똘스또이, 체호브가 큰 역할을 하였다.

뿌슈낀의 시와 소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뿌슈낀은 로씨야의 농노전제제도현실을 비판하는 작품을 많이 썼습니다. 뿌슈낀이 쓴 많은 서정시들과 운문소설 〈예브게니 오네긴〉, 중편소설 〈대위의 딸〉을 비롯한 산문작품들은 로씨야 비판적사실주의문학의 발전에 크게 이바지하였습니다.》

뿌슈낀은 로씨야문학사에서 커다란 공헌을 한 문호이다. 그는 로씨야에서 근대문학, 사실주의문학을 확립하고 로씨야문학을 세계적수준으로 끌어올린 재간있는 작가였다.

그는 나뽈레옹군의 침략을 물리친 후 로씨야에서 농노전제제도를 반대하는 기운이 높아지던 시기에 창작활동을 벌렸다. 그는 이러한 력사적시대의 민족적인 사상감정을 반영하고 지난날 로씨야문학의 성과를 집대성함으로써 로씨야문학을 새로운 발전단계에 올려세웠다.

알렉싼드르 쎄르게예비치 뿌슈낀(1799—1837)은 모스크바의 귀족가정에서 태여나 1811년부터 6년동안 뻬쩨르부르그에 갓 창설된 고등귀족학원에서 공부하였으며 졸업후 외무성에서 일하였다.

조숙한 시인이였던 그는 일찌기 학생시절에 시를 쓰기 시작하였는데 그가 졸업시험때 읊은 서정시가 당시 시단의 거두였던 스승의 격찬을 받았다는 일화가 전해지고있다.

초기에 랑만주의시인으로 등장한 그는 서정시 《자유》(1817), 《챠아다예브에게》(1818), 《농촌》(1819)에서 농노전제제도현실을 비판하고 자유애호사상을 옹호한것으로 하여 1820년에 수도에서 추방되였으며 남부와 북부로씨야의 여러곳에서 6년동안 귀양살이를 하였다.

이 기간에도 그는 《깝까즈의 포로》(1821), 《강도형제》(1822), 《집시들》(1824)과 같은 랑만주의서사시들을 썼으며 귀양살이말기에는 랑만주의로부터 점차 사실주의로 이행하였다. 비극 《보리스 고두노브》(1825)는 이 시기에 창작된것이다. 작품은 대중의 의사를 무시하는 독재자는 멸망을 면치 못한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12월파의 반정부폭동이 진압된 뒤인 1826년에 가서야 황제의 회유책으로 귀양살이에서 풀려나 수도로 돌아온 그는 일시 황제에게 기대를 가지였다. 그러나 그는 황제의 자비가 사회여론을 무마하고 자기를 어용시인으로 만들어보려는 술책임을 깨닫고 자기의 립장을 대변한 작품들을 창작하여 이에 대답하였다. 시 《씨비리로 보냄》(1827), 《아리온》(1827) 등은 이때 창작된것이다. 시들에는 12월파에 대한 동정과 련대의 감정, 밝은 미래에 대한 기대가 노래되고있다.

※ 후에 게르쩬은 이 시기를 회상하면서 《예속과 고민의 골짜기에서 오직 뿌슈낀의 노래만이 소리높이 널리 울려퍼졌다.》 고 말하였다.

1830년대에 들어서면서 그는 대표작인 운문소설 《예브게니 오네긴》(1823—1830)을 완성하는 한편 단편소설집 《벨낀씨의 이야기》(1830), 단편소설 《스페드의 녀왕》(1834), 중편소설 《대위의 딸》(1836)과 같은 산문작품들을 창작하였다. 이 작품들에는 첨예한 사회정치적문제들에 대한 시인의 관심이 더욱 뚜렷이 표현되여있다.

그는 창작활동의 개화기에 봉건통치배들이 꾸민 비렬한 음모에 의하여 한 외국인망명자와 결투를 하게 되였는데 여기에서 그만 치명상을 입고 1837년 1월 38살의 한창나이에 사망하였다. 시인의 장례식에는 정부의 방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뻬쩨르부르그의 수많은 사람들이 참가하였다.

《예브게니 오네긴》

운문소설 《예브게니 오네긴》은 뿌슈낀의 대표작의 하나이며 로씨야문학의 걸작의 하나이다.

운문소설은 19세기 20년대 로씨야귀족들의 생활을 통하여 귀족계급을 비판한 작품이다.

작품의 이야기줄거리는 귀족가정의 청년 예브게니 오네긴의 운명선을 따라 전개된다. 수도에서 귀족가정의 귀동자로 태여나 귀족 상류사회에서 교육을 받으며 자란 그는 귀중한 청년시절을 방탕한 사교계생활로 헛되이 흘러보낸다. 그러다가 점차 수도에서 사는 귀족들의 썩어빠진 생활에 권태와 불만을 느낀 그는 시골의 령지로 옮겨앉으며 거기에서 순진한 귀족처녀 따찌야나의 사랑을 물리치기도 한다.

또한 그는 따찌야나의 생일축하모임때 약혼한 사이인 렌스끼와 올가의 사랑에 찬물을 끼얹는 변덕을 부리다가 렌스끼의 질투를 불러일으켜 결투를 하게 된다. 결투과정에 오네긴은 친구인 렌스끼를 죽이고 고민속에서 어디론가 정처없이 떠나가고만다.

방랑끝에 또다시 수도로 돌아온 오네긴은 어느날 무도회에 갔다가 공작부인이 된 이전날의 시골처녀 따찌야나를 보게 된다. 갑자기 따찌야나에 대한 련정에 사로잡힌 오네긴은 그에게 편지를 쓰며 직접 찾아까지 가나 따찌야나는 자신의 존엄을 지켜 오네긴의 사랑을 물리친다.

작품은 주인공 오네긴의 형상을 통하여 귀족가정의 사치한 생활환경에서 귀족적교양을 받으며 자란 한 청년이 자기가 속한 봉건사회의 무의미하고 썩어빠진 생활에 처음에는 권태를 느끼고 다음에는 의문을 가지게 되며 나아가서는 불만을 품게 되나 귀족으로서의 계급적립장, 생활환경과 인연을 끊지 못함으로써 어떠한 적극적행동에

도 나서지 못하고 번민속에서 파멸해가는 과정을 그리였다.

이를 통하여 작품은 다른 좋은 환경에서 좋은 교양을 받으며 자랐더라면 사회를 위하여 유익한 일을 할수도 있었을 청년들을 아무 쓸모없는 무용지물로 만들고 파멸시키는 귀족계급의 생활과 농노전제제도현실의 불합리성을 비판하였다.

작품에서 귀족계급에 대한 비판은 민족적성격의 구현자인 녀주인공 따찌야나의 형상과 그 당시 로씨야귀족계급의 썩어빠진 생활에 대한 묘사를 통하여서도 전개되고있다.

운문소설 《예브게니 오네긴》은 그 예술적가치에 있어서 로씨야문학발전에서 하나의 리정표로 되였다. 그것은 이 작품이 로씨야문학에서 처음으로 비판적사실주의특징들을 뚜렷이 나타냄으로써 선행소설들의 예술적제한성을 극복하고 로씨야에서 첫 사실주의적근대소설의 풍격을 갖추었기때문이다. 이 작품은 소설이라고 하지만 운문으로 씌여졌기때문에 그 형식이 매우 간결하고 언어가 음악적이며 서사적묘사와 서정이 결합되여 정서적감흥을 강하게 불러일으키고있다.

이와 반면에 작품은 귀족계급을 비판하면서도 여전히 귀족계급과 봉건제도자체를 없앨데 대해서는 밝히지 못하고있으며 봉건사회의 불합리를 없애는데서 량심적인 귀족의 역할에 기대를 거는것과 같은 시대적 및 계급적제한성을 드러냈다.

그러나 운문소설 《예브게니 오네긴》은 귀족계급과 농노전제제도현실을 비판한 진보적내용을 담았으며 로씨야문학사에서 비판적사실주의원칙을 확립하고 민족적특성을 뚜렷하게 나타낸 첫 사실주의소설로서 확고한 문학사적위치를 차지하고있다.

《대위의 딸》 중편소설 《대위의 딸》은 18세기 70년대 예까쩨리나녀황통치시기의 농노전제제도현실을 반영한 력사소설이다. 소설은 귀족청년 그리뇨브를 설화자로 등장시키고 그의 체험담을 통하여 뿌가쵸브농민폭동을 생동하게 반영하고있다.

엄한 아버지의 분부로 늙은 노복 싸벨리츠를 데리고 군사복무의 길을 떠난 그리뇨브는 도중에 눈보라때문에 길을 잃어 고생한 일이 있었다. 그때 한 사나이가 길을 안내해주어 곤경에서 벗어났기에 감사의 표시로 토끼털외투를 주었는데 그가 바로 후날 농민폭동의 두령이 된 뿌가쵸브였다.

변강의 쓸쓸한 초원가운데 있는 한 요새에서 소위보로 복무하게 된 그리뇨브는 수비대장 미로노브대위와 친교를 맺고 그의 외딸 마샤를 사랑한다. 하여 그리뇨브는 마샤를 짝사랑하고있던 못된 장교 슈바브린과 사이가 나빠져 그와 결투까지 한다.

이러한 때 뿌가쵸브농민폭동이 일어나 폭동군이 이 요새에까지 이르게 된다. 대다수 병사들이 폭동군편에 넘어가는 바람에 요새는 곧 함락되고 미로노브대위와 그의 처, 장교들이 다 교수형을 당한다. 그러나 그리뇨브만은 그 전날일로 하여 뿌가쵸브의 용서를 받으며 마샤도 신부의 집에 숨어 겨우 목숨을 구원한다. 뿌가쵸브편에 넘어간 슈바브린은 요새수비대장이 된다.

그리뇨브는 이 지방의 중심지인 오렌부르그시로 가서 군사복무를 계속하는데 이 성시마저 폭동군에 포위당한다. 그러던 어느날 그는 슈바브린의 학대로부터 구원을 청하는 마샤의 비밀편지를 받게 된다.

마샤를 구원하기 위하여 성시를 탈출한 그리뇨브는 폭동군의 통제구역을 뚫고가다가 붙잡혀 뿌가쵸브앞에 끌려나간다. 뿌가쵸브는 그리뇨브의 청을 받아들여 마샤와 그를 놓아준다. 그리뇨브는 마샤와 싸벨리츠를 고향에 보내고 자신은 정부군에 남아 전투를 계속한다. 드디여 폭동은 진압되고 싸움이 끝난다. 그러나 체포된 슈바브린의 허위증언으로 그리뇨브는 뿌가쵸브의 밀정이라는 루명을 쓰고 군사재판에 회부되며 씨비리종신류형의 판결을 받는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마샤는 녀황제를 찾아가 직접 청원을 한다. 마샤의 필사적인 노력에 의하여 그리뇨브와 그의 일가는 구원된다. 그후 그리뇨브는 고향으로 돌아가 마샤와 함께 행복하게 여생을 보낸다.

소설에서는 설화자인 그리뇨브의 선을 따라가면서 시골과 수도, 귀족과 천민, 장교와 병사, 농민폭동군에 이르는 각계각층의 생활이 비교적 폭넓게 묘사되여있다.

작품에서 가장 주목을 끄는 인물은 농민폭동군

의 두령 뿌가쵸브의 형상이다. 뿌가쵸브의 형상을 창조하면서 작가는 당시의 반동적인 작가, 력사가들이 뿌가쵸브를 천하에 몹쓸 악당으로 비방중상하던것과는 달리 그에 대한 인민설화와 민요의 자료들을 리용하여 뿌가쵸브를 비교적 긍정적으로 형상하였다. 소설에 형상된 뿌가쵸브는 남에게 예속되여살기를 원하지 않으며 노예로 살기보다는 자유를 위하여 싸우다 죽을것을 바라는 투지와 반항심, 담대하고 호방한 성격을 가진 인물이며 아량이 있고 공정하며 총명한 인간이다.

소설에서는 또한 간악하고 리기적인 슈바브린과 같은 못된 귀족과 청렴하고 인도주의적인 그리뇨브와 같은 선한 귀족을 대비하면서 그리뇨브류의 귀족들을 긍정하고있다. 싸벨리츠의 성격도 생동하게 개성적으로 그려져있다.

소설은 량심적인 귀족들과 어진 군주에 기대를 걸고 그들의 힘으로 사회계급적모순을 해결하려고 한 작가의 계급적제한성을 드러내고있으나 그 긍정적인 내용과 함께 각계각층의 생동한 인물형상의 창조, 함축되고 째인 구성, 간결하고 정확한 언어구사 등의 예술적성과로 하여 로씨야문학에서 사실주의적력사소설을 발전시키는데 이바지하였다.

고골리와 장편소설 《죽은 넋》

고골리는 19세기 전반기 로씨야비판적사실주의문학의 대표자의 한사람이다.

그는 산문에서 뿌슈낀의 직접적인 계승자였다. 그는 뿌슈낀에 대한 회상기에서 《뿌슈낀의 조언없이는 아무것도 구상하지 못했고 아무것도 쓰지 않았다.》고 하였으며 《검찰관》과 《죽은 넋》의 소재도 뿌슈낀이 준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고골리와 뿌슈낀은 서로 뚜렷한 개성으로 작품들을 창작하였다. 뿌슈낀이 아름답고 시적인것에 보다 많은 주의를 돌린 시인형의 문호였다면 고골리는 생활속에서 추악하고 저속하고 희극적인것에 예리한 주목을 돌리고 그것을 확대하여 그려낸 산문형의 문호였다. 고골리의 작품들은 민족의 발전에 해로운것을 들추어내고 풍자조소함으로써 아름다운것을 긍정하고 리상적인것에 대한 동경을 표현한것이 특징이다.

니꼴라이 와실리예비치 고골리(1809—1852)는 우크라이나 뽈따바현 미르고로드의 지주가정에서 태여났다. 10대의 소년시절에 뻬쩨르부르그에 올라온 그는 어머니가 보내주는 돈으로 공부도 하고 외국려행도 했으며 관청근무도 하고 녀학교와 뻬쩨르부르그종합대학의 력사교원노릇도 하였으나 그 무엇에도 마음을 붙이지 못하고있다가 1830년대 중엽부터 작가로 되였다.

그에게서 작가적재능을 발견하고 떠밀어준것은 뿌슈낀이였다. 1830년대초부터 고골리를 알게 된 뿌슈낀은 그가 우크라이나의 민간설화에서 취재하여 창작한 단편소설집 《지깐까근교마을의 밤이야기》(1831—1832)를 읽고 감동되여 그후에도 많은 조언을 주었다. 고골리의 처녀작은 랑만주의적인 작품이였으나 벌써 그는 자기의 첫 창작에서부터 특징적인 풍자수법과 사실주의적필치를 나타내였다.

그의 사실주의적경향은 소설집 《미르고로드》(1835)의 창작을 계기로 하여 더욱 강화되였다. 그의 사실주의적경향은 시골지주들의 속되고 무의미한 생활을 폭로한 단편소설 《낡은 풍의 지주들》과 《이완 이와노비치와 이완 니끼포로비치가 싸운 이야기》, 중편력사소설 《따라스 불바》 등에도 잘 나타나있다.

특히 《따라스 불바》에서는 16세기에 우크라이나땅을 탐내던 뽈스까귀족들을 반대하여 용감히 싸운 까자크련대장 따라스 불바를 비롯한 까자크들에 대한 이야기를 통하여 그 당시 애국주의와 자기희생성, 용감성을 보여주고 자기 고향을 열렬히 사랑하고 조국과 겨레, 자유를 더 귀중히 여긴 조상들을 찬양하였다.

같은 해에 발표한 소설집 《아라베스끼》(1835)와 그후에 쓴 중편소설 《외투》(1841)에서 그는 가난하고 학대받는 사람에 대한 형상을 생동하게 창조함으로써 로씨야문학을 민주화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그는 소설외에 희곡도 썼는데 희극 《검찰관》(1836)이 그 대표작이다. 로씨야희극의 최고걸작의 하나로 평가된 이 작품에서 작가는 한 귀족건달군이 도박으로 빈털터리가 되여 지방도시의 려관에 머물러있는것을 순찰중에 있는 《검찰관》(암행어사)으로 오판한 시장과 관리들이 일으킨 소동을 통하여 19세기 봉건적로씨야사회제도의 부패성과 추악성을 풍자하였다.

그의 예리하고 신랄한 풍자작품들은 당시 진보적문학계의 지지를 받았으나 귀족지배층들로부터

는 신랄한 공격을 받았다.

그는 1836년에 로씨야를 떠나 여러해 스위스, 프랑스, 이딸리아 등 나라들에 체류하였다. 이 시기에 그는 1835년부터 쓰기 시작한 장편소설 《죽은 넋》의 창작을 계속하였으며 1841년에 로씨야로 돌아와 《죽은 넋》 제1부(1842)를 출판하였다. 작품은 진보적사회계의 절찬을 받았다.

그러나 1840년대에 와서 그는 보수성을 강하게 나타내였다. 이 시기 많은 나날을 외국에서 보낸 그는 자기 조국의 현실을 깊이 리해할수 없었으며 특히 반동적인 슬라브지상주의자들과 접촉하는 과정에 그들의 사상적영향을 받게 되였다. 그는 농노전제제도를 반대하는 인민들의 투쟁이 장성하는데 공포를 느꼈으며 농노제도의 존재를 불가피한것으로 인정하면서 군주통치밑에서의 가부장적생활을 리상화하고 귀족지주들을 비롯한 착취자, 위정자들을 종교적으로 교양함으로써 부패몰락해가는 로씨야봉건사회를 구원할수 있으리라는 현실과 뒤떨어진 립장을 취하게 되였다. 이와 같은 사상은 장편소설 《죽은 넋》 제2부(미완성)에서 집중적으로 나타났다. 그는 심한 사상적혼란속에서 자기 생애의 마지막 10년을 바쳐 완성한 제2부의 원고를 불태우고 숨을 거두었다.

고골리의 대표작인 장편소설 《죽은 넋》은 당시 로씨야에서의 자본주의적관계발전과 그의 침습으로 인한 가부장적농노제경리의 붕괴과정을 보여주면서 봉건지주, 농노주들의 사회, 경제, 도덕적와해와 짜리관료배들의 부패타락한 생활을 폭로비판한 작품이다.

소설 제1부의 이야기줄거리는 치치꼬브라는 사기협잡에서 비상한 수완을 가진 모리배가 죽은 농노를 사러 마차를 타고 지주들의 장원을 찾아다니면서 협잡흥정을 붙이는 려행기형식으로 되여있다. 이야기는 현소재지인 어느 한 지방도시에 치치꼬브가 나타나는것으로부터 시작된다.

그는 우선 현소재지의 지사, 검사, 재판소장, 경찰서장 등 벼슬아치들을 방문하여 세련된 사교술로 그들의 환심을 사 신임을 얻은 다음 죽은 농노들을 사러 주변농촌으로 떠난다. 그의 목적은 실지로는 사망하였으나 문서상으로는 아직 산 사람으로 등록되여있는 농노들을 헐값으로 사가지고 국가에 저당함으로써 막대한 대부금을 받아 일약 백만장자가 되려는데 있었다.

이렇게 농촌을 돌아다니는 과정에 그는 게으름뱅이지주 마닐로브, 린색한 녀지주 꼬로보츠까, 놀음과 싸움, 거짓말의 명수인 노즈드료브, 우직한 소지주 쏘바께비츠, 탐욕과 수전노의 화신인 쁠류슈낀 등 지방지주들을 차례로 방문하여 죽은 농노 400명을 사들이는데 성공한다.

협잡흥정을 마치고 다시 현소재지에 돌아온 치치꼬브가 농노매매등기수속까지 끝내자 그가 100만루블이나 되는 농노들을 사들인 백만장자라는 소문이 온 시내에 퍼져 숱한 사람들이 그의 환심을 사려고 애쓴다. 이러한 속에서 현지사댁의 무도회에 초대된 치치꼬브는 지사의 아름다운 딸과 결혼하여 아들딸 낳고 자기 령지에서 잘 살 꿈을 꾼다. 그러한 때에 도시에 나타난 녀지주 꼬로보츠까와 도박군 노즈드료브에 의하여 죽은 농노 매매사건의 진상이 폭로되여 치치꼬브는 황급히 현소재지에서 도망치고만다.

제2부에서도 치치꼬브의 이러한 협잡려행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된다.

소설에서 중심을 이루고있는것은 농노전제제도가 지배하는 로씨야의 무능하고 썩어빠진 귀족, 농노주들에 대한 예리한 비판이다. 소설에서는 치치꼬브가 려행하는데 따라 각이한 류형의 로씨야지주들의 루추하고 가소로우며 가증스러운 몰골들이 등장한다. 작품은 인민의 고혈로 살찌고 무위도식하는 지주들을 인간의 모습을 잃어버린 무능하고 썩어빠진자들로 신랄히 규탄하고 그들의 리익을 옹호하는 농노전제제도를 비판하였다.

그가운데서도 특히 그저 무위도식하면서 허송세월하는 건달지주 마닐로브, 일체 바깥사람들과 접촉을 안하며 외부세계와 완전히 차단된 상태에서 인간계의 곰팽이처럼 살아가는 지독한 수전노 쁠류슈낀 등 지주들에 대한 풍자는 매우 신랄하다. 소설은 치치꼬브에 대해서도 부르죠아모리배의 극단한 리기주의사상, 파렴치한 략탈성에다가 봉건귀족들의 사교술과 걸치레수완까지 모두 갖춘 보다 위험하고 교활한 착취자로 풍자하고있다.

이와 함께 치치꼬브가 접촉하게 되는 현지사, 재판소장, 검사, 경찰서장으로부터 하급관리에 이르는 짜리관료배들의 형상을 통하여 봉건관료배들의 부정부패를 폭로하고있다.

작품은 이러한 특권계급의 예속밑에 신음하는 인민들의 처지에 대해서도 일정하게 반영하고 그에 동정을 표시하고있다.

그러나 작가는 자기가 풍자비판한 사회악과 부정부패를 없앨데 대하여 주장하면서도 그로부터의 출로를 찾지 못하고 어떤 리상적인 지주나 어진 통치자, 부패한 귀족지주들의 도덕적완성에 의하여 해결될수 있는듯이 설교하는 심한 계급적 제한성을 나타내였다. 이러한 제한성은 특히 제2부창작에서 더욱 심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소설은 진보적인 사상적내용과 함께 세태환경묘사의 진실성, 성격의 전형성, 잘 째인 구성과 예리한 풍자적수법 등 비교적 높은 예술성을 보여준것으로 하여 로씨야 비판적사실주의소설발전에 이바지하였다.

체르니쉡스끼와 장편소설 《무엇을 할것인가?》

체르니쉡스끼는 19세기 50—60년대 로씨야 혁명적민주주의운동의 중심인물이였으며 당시 선진적인 철학가, 작가의 한사람이였다.

니꼴라이 가브릴로비치 체르니쉡스끼(1828—1889)는 싸라또브의 목사의 가정에서 태여나 신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수도 뻬쩨르부르그에 올라가 종합대학에 입학하였다. 그는 대학의 진부한 교육내용에 실망하여 자습으로 폭넓은 지식과 진보적인 사상을 탐구하기에 힘썼다. 이 과정에 그는 헤겔의 관념론철학으로부터 시작하여 포이에르바흐의 유물론철학을 거쳐 공상적사회주의사상의 공명자로, 혁명적민주주의사상의 소유자로 되였다.

그가 본격적인 문필활동을 시작한것은 1855년에 시인 네크라쏘브가 발간하던 진보적잡지 《쏘브레멘니크(현대인)》의 동인으로 된 다음부터였다. 그의 지도밑에 이 잡지는 혁명적민주주의사상을 전문적으로 선전하는 기본선전수단으로 되였다.

평론 《로씨야문학의 고골리시대개관》(1856)을 비롯한 그의 수많은 문예비평론문들과 철학, 정치경제학, 미학에 관한 론문들이 이 잡지를 통하여 발표되였으며 짜리전제제도를 반대하는 농민혁명사상이 선전되였다. 그의 미학에 관한 학위론문 《현실에 대한 예술의 미학적제관계》(1855)도 이 시기에 발표된것이다. 그는 이 론문에서 예술과 현실의 호상관계문제를 취급하면서 예술은 현실생활의 반영이며 《아름다운것은 생활이다.》고 주장하면서 순수 예술리론을 배격하였다.

그러나 그는 반동당국의 박해로 말미암아 활동을 계속할수 없었다. 날로 커가는 체르니쉡스끼의 영향력에 위구를 느낀 짜리정부는 1862년에 그를 비법적으로 체포하여 재판도 없이 가장 중한 정치범을 가두는 뻬뜨로빠블롭스크요새감옥에 감금하였다.

그렇지만 그는 굴하지 않고 투쟁을 계속하였으며 요새감옥에 갇혀있는 2년동안에 장편소설 《무엇을 할것인가?》(1862—1863)를 비롯하여 여러편의 글을 써서 내보냈다.

그는 그후 짜리당국이 벌려놓은 재판에서 날조된 죄명으로 14년간의 징역살이와 씨비리종신류형을 언도받고 21년동안이나 갇혀있었다. 그는 21년만에 형식상 류배살이에서 놓여나온 다음에도 계속 엄격한 감시밑에서 온갖 활동의 자유를 구속당한채 6년동안이나 고통스러운 생활을 계속하다가 비참하게 최후를 마쳤다.

그러나 이 기간 그는 반동당국의 온갖 회유와 압력을 물리치고 자기의 신념을 굽히지 않았으며 끝까지 혁명적민주주의사상에 충실하였다. 그리고 그 어려운 조건에서도 순간도 집필활동을 멈추지 않고 장편소설 《서곡》(1867—1869)을 비롯한 일련의 작품들과 론문들을 남겨놓았다.

그는 공상적사회주의사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인간을 사회계급적제관계와 떼여놓고 생물학적으로 본것을 비롯하여 적지 않은 제한성을 나타냈다.

그러나 그는 혁명적민주주의작가, 문예리론가, 평론가, 철학가로서 19세기 후반기 로씨야의 진보적인 사상운동과 문학발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그의 대표작은 장편소설 《무엇을 할것인가?》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로씨야장편소설 〈무엇을 할것인가?〉도 널리 알려진 좋은 작품의 하나입니다.

…체르니쉡스끼의 장편소설 〈무엇을 할것인

가?》에는 혁명적민주주의자로서의 작가의 사상미학적견해가 그대로 반영되여있습니다.》

작품은 19세기 50년대와 60년대에 로씨야에 등장한 혁명적민주주의세력의 대표자들을 형상하고있다.

소설은 외견상으로 세 주인공들사이의 련애문제로 일관되고있는듯 한 인상을 주고있으나 그것은 당시 짜리당국의 가혹한 검열을 피하기 위한 외피에 불과하고 실제에 있어서는 중요한 사회적문제를 취급하고있다.(작품은 작가가 감옥안에서 쓴것이다.)

소설의 사건은 평민출신의 녀성 웨라 빠블로브나의 운명선과 사랑선을 따라 전개되고있다. 개명하지 못한 소시민의 가정에서 자라나 봉건적인 가정적질곡에 얽매여 모대기던 녀주인공 웨라는 돈밖에 모르는 어머니가 자기를 부자집머저리자식에게 강제로 시집을 보내려고 한것을 계기로 가정교사인 의학대학 학생 로뿌호브의 도움을 받아 집을 뛰쳐나가며 그와 결혼함으로써 불행에서 벗어난다. 웨라는 보다 적극적인 사회활동을 지향하여 협동조합형식의 재봉소를 운영하고 불행한 녀성들의 사회적, 경제적해방을 위하여 활동한다.

그런데 웨라는 그사이 남편의 친구인 끼르싸노브의사와 몹시 가깝게 되며 나중에는 그를 사랑하게 된다. 이에 대해 알게 된 로뿌호브는 그들의 행복을 위해 자기가 물러날것을 결심하고 가짜투신자살을 꾸며놓고 해외로 떠나간다. 그는 몇해후 외국인으로 변성명하고 돌아와 생산의 장성과 사람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사업에 헌신하며 까쨔라는 녀성과 결혼한다. 그후 이 두 부부는 앞뒤집에 살면서 매우 가깝게 지낸다.

소설에서는 웨라, 로뿌호브, 끼르싸노브 외에 라흐메또브라는 직업적인 사회활동가에 대한 이야기가 곁가지처럼 삽입되고있으며 소설의 마감장에서는 1865년에 로씨야에서 사회적변혁이 이룩되는것으로 묘사되여있다.

이와 같이 소설에는 평민출신의 주인공이 여러명 등장한다. 그들은 사회주의에 대한 리상을 지니고 그것을 앞당겨오기 위하여 여러가지 긍정적인 사회, 경제, 문화활동을 벌린다. 그들이 지닌 사상정신적 및 도덕적풍모도 새롭고 선진적이다.

작품의 주인공들은 19세기 50—60년대 로씨야에 등장한 평민출신민주주의자들의 주장과 지향을 그대로 체현하고있다. 이들의 형상을 통하여 작품은 새로운 리상사회인 사회주의를 실현하려면 어떤 사람들이 요구되며 그들앞에 나서는 과업은 무엇인가 하는데 대하여 밝히고있다.

작품은 낡고 썩어빠진 농노전제제도를 비판하고 그것을 혁명적으로 변혁하기 위한 투쟁에로 호소하였으며 사람들을 광명한 미래에로 고무추동하려고 하였다. 이러한 사상적내용은 당시의 비판적사실주의문학에서는 볼수 없었던 새로운것이였으며 긍정적인것이였다.

그러나 이 소설에 등장하는 긍정적주인공들은 사회주의를 위하여 싸우는 인간답게 그려지지 못하였을뿐아니라 당시의 현실에는 있을수 없는 인간들로 그려졌다. 작품에서는 사회주의혁명이 일어났다는것이 암시되기만 하고 그것이 수행되는 과정이 구체적으로 그려지지 않고있으며 미래의 사회주의사회를 보여주는 장면은 심한 공상적성격을 띠고있다.

이러한 제한성을 가지고있으나 소설은 농노전제제도를 반대하는 투쟁정신과 미래사회에 대한 지향을 결부시킨 일종의 공상소설로서 새로운 주제사상을 제기하여 로씨야사실주의문학을 풍부화시켰으며 비록 공상적이기는 하나 사회주의를 위하여 싸우는 긍정적주인공들의 형상을 창조함으로써 새 사회건설을 위해 투쟁하는 진보적인 민들에게 커다란 고무를 주었다.

레브 똘스또이의 창작활동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레브 똘스또이는 로씨야의 유명한 비판적 사실주의작가의 한사람입니다.》

똘스또이의 비판적 사실주의의 특징

레브 니꼴라예비치 똘스또이(1828—1910)는 뚤라시부근에 있는 야스나야 뽈랴나마을에서 백작인 귀족지주의 아들로 태여났다. 그는 어렸을 때 량부모를 다 여의고 삼촌어머니의 슬하에서 자라면서 령지에서 농촌생활을 많이 체험하였다.

다정다감하고 정열적인 그는 어릴 때부터 내성적이면서도 주위환경을 매우 예민하게 감각하

는 남다른 감수성을 가지고있었다. 그의 이러한 류다른 특질은 그가 작가로 될수 있는 예술적감각의 자양분으로 되였다.

그는 부유한 귀족가문에서 태여난것으로 하여 까잔대학에도 다니고 대학공부가 마음에 들지 않자 도중에 중퇴하여 자기 령지와 모스크바, 뻬쩨르부르그를 전전하면서 걱정없이 생활하였다. 그는 자기 령지에서 일하는 농민들과 친숙하게 지내면서 그들의 비참한 생활과 운명에 관심하는 과정에 점차 인도주의사상에 공감하여 당시 유럽계몽주의사상의 열렬한 지지자로 되였다.

그가 작가가 될것을 결심하고 소설을 쓰기 시작한것은 1851—1855년 로씨야군대의 포병장교로 복무하던 때부터였다. 그는 크림전쟁에 참가하여 조국 로씨야를 위해 용감하게 싸웠으며 군대복무기간에 사랑하는 고향땅에서 흘러간 자신의 어린시절을 추억하며 첫 중편소설 《유년시절》을 썼다.(이 작품은 후에 쓴 《소년시절》, 《청년시절》과 함께 똘스또이의 자서전적3부작으로 되였다.)

그의 창작활동은 군대에서 제대되여 고향에 돌아온 후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되였다. 그는 자기 령지에서의 생활과 군대생활을 반영한 여러편의 단편소설들(《쎄바스또뽈이야기》, 《산림채벌》, 《지주의 아침》 등)과 중편소설 (《까자크들》 1863)을 쓴데 이어 사망할 때까지 60여년간에 걸쳐 《전쟁과 평화》(1863—1869), 《안나 까레니나》(1873—1877), 《부활》(1889—1899)을 비롯한 여러편의 장편소설들과 《어둠의 힘》(1886), 《계몽의 열매》(1890), 《산 송장》(1900)과 같은 희곡 그리고 많은 산문들을 세상에 내놓았다.

그의 작품들은 한결같이 로씨야사회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과 현실에 대한 사실주의적묘사로 일관되여있으며 그자신의 세계관적특수성과 사상적모순으로 하여 일련의 특징을 가지고있다. 그것은 그가 창작한 작품들에서 구체적으로 표현되고있다.

중편소설 《까자크들》을 비롯한 초기작품들은 귀족계급의 기생충적생활과 썩어빠진 문화와 도덕을 비판하고 로씨야의 농노제밑에서 비참한 생활을 하고있는 가난한 농민들을 동정하면서도 지주와 농민간의 관계를 평화적방법으로 조절할데 대한 사상을 제기하고있다. 이것은 량심적인 지주인 작가자신의 사상적립장의 반영이였다. 그는 귀족들이 자기처럼 농민들의 소박한 생활을 깊이 리해하게 되면 귀족사회의 모순도 해결되게 되리라고 생각하였다. 그의 이러한 생각은 사회현실에 대한 자신의 비판적관점과 모순되는것으로서 똘스또이식공상에 지나지 않았다.

똘스또이식공상은 그 이후의 작품들에서 더욱 심하게 나타났으며 이것이 하나의 세계관으로 굳어지게 되였다.

그의 세계관적모순은 로씨야에서 농노개혁이후 악화된 농민들의 처지를 목격하고 귀족부르죠아사회의 제관계를 비판하면서부터 보다 심하게 표현되였다. 사회현실에 대한 비판적태도와 그 해결을 위한 방도간의 모순은 그의 세계관에 정치에 대한 무관심, 신비주의, 염세주의, 봉건적 및 자본주의적권력에 대한 증오와 같은 가부장적농민들의 보수적인 기분을 대변하는 사상이 지배하였기때문이다.

그는 생애말년에 자기가 내놓은 교리와 현실간의 심각한 모순을 깨닫고 날이 갈수록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되였다. 재산을 포기하고 땅을 농민들에게 분배하려는 계획도 가족들의 강한 반대로 실현할수 없었다. 드디여 생활적인 모든 특권을 버리고 일개 농민으로서의 소박한 생활을 하려고 82살의 고령으로 몰래 집을 뛰쳐나간 그는 려행도중 페염에 걸려 아스따뽀보철도역의 역장집에서 사망하였다.

그의 창작에서는 똘스또이적인 심각한 제한성이 발로되였으나 작품의 거대한 폭과 깊이, 심오한 성격형상과 묘사능력으로 하여 로씨야 비판적사실주의문학에서 특출한 자리를 차지하였으며 세계문학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

《전쟁과 평화》

장편소설 《전쟁과 평화》는 똘스또이의 대표작의 하나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그의 장편소설 〈전쟁과 평화〉는 걸작입니다.》

장편소설 《전쟁과 평화》는 프랑스 나뽈레옹침략자들을 반대하는 로씨야에서의 조국전쟁과 그를 전후한 력사적시기의 사회정치활동을 대

서사시적화폭에 담아 보여주고있다.

전4권으로 구성되여있는 소설의 제1권에서는 로씨야—오스트리아련합군과 프랑스군사이의 1805년전쟁을 중심사건으로 다루고있으며 제2권에서는 1805년전쟁후부터 1812년전쟁사이의 평화적시기사건들이 묘사되여있다. 제3권에서는 1812년 나뽈레옹의 침략을 물리치기 위한 로씨야인민의 조국전쟁이 기본내용으로 묘사되여있으며 제4권에서는 모스크바로부터 나뽈레옹군의 퇴각과 로씨야군대의 반격, 프랑스침략군의 파멸과 로씨야인민의 승리를 보여주고있다.

소설에는 이처럼 거창한 사변들이 벌어지는 가운데 귀족주인공들의 운명이 펼쳐지고있다. 작품은 안드레이와 삐에르, 나따샤와 마리야, 꾸뚜조브 등의 형상을 통하여 침략자들을 반대하는 로씨야인민들의 애국심을 높이 찬양하면서 전쟁승리의 요인이 바로 인민들의 영웅적투쟁에 있었다는것을 확인하고있다.

소설은 또한 19세기초 로씨야의 량심적인 귀족들의 사상적탐구과정을 묘사하면서 그들이 나아갈 길을 예술적으로 밝혀주고있다. 소설의 주인공들인 안드레이 볼꼰스끼공작과 삐에르 베주호브백작은 둘 다 당대 로씨야의 농노전제제도에 불만을 품고 그것을 개혁하기 위한 길을 모색하며 사회를 위해 유익한 활동을 하려고 지향하는 진보적인 귀족들이다.

작품은 오직 자신의 리익만을 추구하는 대다수 귀족들과는 달리 부정의를 미워하고 정의를 사랑하며 자기의 리성과 량심에 따라 조국과 민족을 위해 복무하려고 애썼으나 결국은 정신적위기에 빠져 비극적으로 죽지 않으면 안되였던 안드레이 볼꼰스끼의 형상을 통하여 사회개조의 필요성을 느끼면서도 그 합리적인 출로를 찾지 못해 애쓰던 진보적귀족지식인의 사상적고민과 그 탐구과정을 보여주고있다.

또한 안드레이가 생전에 찾지 못했던 삶의 목적을 찾고 농노전제제도를 반대하는 투쟁의 길에 나서는 삐에르 베주호브의 형상은 로씨야의 선각적인 귀족지식인들의 사상정신적발전과정을 보여주는 동시에 작가자신의 복잡한 정신적탐구과정을 반영하고있다.

소설에서는 애국심과 민족적감정이 강하며 예민하고 열정적이며 감정이 풍부하고 서정적인 처녀 나따샤 로스또바를 비롯한 녀주인공들의 인상적인 성격도 창조하고있다.

이처럼 소설은 조국과 민족의 운명에 관심을 가지고 그를 위해 나서는 량심적인 귀족들을 긍정적으로 묘사하면서 그들과는 달리 조국과 민족의 운명에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일신의 안일과 향락만을 추구하는 부패무능한 황제와 와씰리 꾸라긴공작을 비롯한 귀족통치배들, 베니그쎈과 같은 귀족출신장교들의 반동성을 신랄하게 폭로비판하고있다.

작품에는 당시 로씨야봉건사회의 정치, 경제, 군사, 문화, 도덕생활과 각 계급간의 호상관계 등에 대한 풍부한 자료들이 반영되여있으며 특히 1805년과 1812년 전쟁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들이 담겨져있다. 이러한 자료들은 그 당시 로씨야와 프랑스, 오스트리아 등 서유럽나라들의 정세와 국제관계, 나뽈레옹의 침략전쟁에 대하여 잘 알수 있게 하며 력사발전의 합법칙적과정에 대한 인식에 도움을 준다.

소설은 사건과 생활규모가 방대하고 500여명의 인물이 등장하는 대서사시적형식의 다부작장편소설이지만 구성의 째임새와 립체성을 잘 보장하고있으며 인물들의 내면세계를 매우 생동하게 그려내고 인상깊은 성격을 창조하고있다. 작품은 다양한 묘사수법을 솜씨있게 리용하여 생동한 형상을 창조하는 능숙한 묘사기교를 보여주었으며 선명하고 소박하며 표현력이 강하고 색갈이 다양하며 매우 론리적인 언어를 구사하고있다.

이와 반면에 소설에는 력사발전을 숙명론적으로 리해한 작가의 관념론적인 력사관이 강하게 나타나고있으며 가부장적농민경제의 락후한 측면을 리상화하고 악에 대한 무저항주의와 인간의 도덕적자아완성을 설교한것을 비롯하여 부정적인 측면들이 적지 않다.

장편소설 《전쟁과 평화》는 작가가 제기한 심각한 문제성과 작품이 거둔 사상예술적성과로 하여 세계문학사에서 이름있는 걸작으로 확고한 자리를 차지하고있다.

《안나 까레니나》

장편소설 《안나 까레니나》는 19세기 70년대 로씨야의 귀족부르죠아사회현실을 배경으로 상층귀족계급의 생활을 기본으로 묘사하면서

농노개혁후 더욱 첨예해진 짜리로씨야사회의 모순을 비판하고 그로부터의 출로를 모색한 작품이다.

소설의 이야기줄거리는 주인공 안나 까레니나와 그의 남편 까레닌 및 안나의 애인 우론스끼사이에 벌어지는 애정갈등선과 안나의 비극이다.

로씨야정부의 대신 까레닌의 안해인 젊고 아름다운 귀족녀성 안나는 뻬쩨르부르그의 세련된 청년귀족장교 우론스끼와 깊은 사랑에 빠진다. 인간적감정을 전혀 모르는 랭정한 관료인 까레닌과 8년동안이나 무미건조한 생활을 해오던 안나는 우론스끼와의 자유로운 사랑속에서 사람다운 생활과 삶의 행복을 찾으려고 지향한다.

그러나 남편은 안나의 리혼제기를 들어주지 않으며 위선적인 수도의 귀족사교계는 로골적으로 안나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를 높인다. 우론스끼마저 점차 안나의 사랑에 구속을 느끼게 된다. 사람다운 생활에 대한 자기의 지향과 그것을 가로막는 인습적이며 봉건적인 귀족부르죠아가정, 위선적인 상류사회의 구속에서 출로를 찾지 못하고 홀로 모대기며 몸부림치던 안나는 끝내 달리는 화물렬차밑에 몸을 던져 자살하고만다.

소설에서는 안나—까레닌—우론스끼의 선과 교차되면서 레빈—끼찌의 애정선과 사회개량을 위한 레빈의 정신적탐구과정이 다른 한 줄거리를 이루고있다.

지방의 젊은 귀족지주인 레빈은 공작의 딸 끼찌에게 청혼했다가 그만 거절당하고만다. 그러나 후에 우론스끼에게 배반당하고 앓아누웠던 끼찌는 다시 레빈의 청혼을 받아들여 그와 행복한 가정을 이룬다. 레빈은 끼찌와 함께 자기 령지에서 살면서 로씨야귀족사회가 나아가야 할 길을 탐구하는 과정에 신앙의 기초우에서 농민들과 정신적으로 융합하는 길을 찾는다. 그리하여 마침내 리성을 거부하고 신앙에 의하여 그리스도교적인 영원한 진리를 확인하며 자기 개인의 욕망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넋을 위하여 진실하게, 신의 뜻에 어긋나지 않게 살아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소설은 이러한 이야기줄거리의 전개과정에 농노개혁후 로씨야의 사회경제생활에서 일어난 커다란 변화를 폭넓게 반영하고있다.

작품은 무엇보다도 주인공인 젊은 귀족녀성 안나 까레니나의 불우한 생활과 운명을 통하여 당대 사회가 참다운 생활과 행복을 갈망하는 녀성들의 지향과 념원에 적대되는 모순에 찬 사회라는것을 보여줌으로써 귀족부르죠아적로씨야사회의 불합리성을 비판하고있다. 안나 까레니나의 비극은 한 녀성의 개인적비극이 아니라 당대 귀족부르죠아사회에서는 그렇게밖에 달리는 될수 없었던 하나의 사회적비극이였다.

작품은 동시에 그의 남편 까레닌을 비롯한 짜리정부요인들의 사업과 생활을 통하여 짜리로씨야 관료기구의 반인민적성격을 폭로비판하였으며 매일과 같이 술과 녀자로 인생을 랑비하는 안나의 오빠 오블론스끼, 방탕한 벧씨공작부인, 광신적인 리지야백작부인 등의 형상을 통하여 귀족들의 부패타락한 생활을 예리하게 폭로하였다.

작품에는 이러한 도시의 타락한 상층귀족들의 형상에 농촌의 량심적인 귀족지주 레빈의 형상이 대치되고있다. 레빈의 형상에는 귀족들의 건전한 가정생활에 대한 작가의 리상이 구현되여있으며 농촌경리의 합리적운영과 지주와 농민의 융합에 대한 공상, 삶의 의의에 대한 작가의 정신도덕적탐구과정이 반영되여있다.

레빈의 형상에는 또한 지주와 농민사이의 적대적관계를 가부장적장원경리의 울타리안에서 능히 풀수 있으리라고 생각한 작가의 계급적 및 사상적립장이 집중적으로 반영되여있다.

작품은 묘사의 섬세성과 정확성, 진실성과 생동성을 잘 보장하고 대조의 수법을 능숙하게 썼으며 잘 다듬어지고 적중한 언어표현수법을 쓴것을 비롯하여 그 형상성이 높은 점에서 특징적이다.

장편소설 《안나 까레니나》는 종교적신앙과 도덕적자아완성에 의하여 사회적모순을 해결할것을 설교하고 녀성들의 사회적해방에 대하여 부정적태도를 취하였으며 주인공들의 인간관계가 주로 삼각련애관계로 얽혀있는것과 같은 제한성을 가지고있으나 그 내용에 담긴 진보적인 사상과 작품이 거둔 성과로 하여 로씨야와 유럽의 비판적사실주의소설문학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있다.

《부활》

장편소설 《부활》은 19세기말 제정로씨야의 현실을 시대적배경으로 하층출신의 처녀 까쮸샤의 비참하고 고통스러

운 생활로정과 귀족 네흘류도브의 정신도덕적 부활과정에 대한 묘사를 통하여 당대 사회의 심각한 모순을 폭로하고 그로부터 자기나름의 출로를 제시한 작품이다.

큰 부자이며 명문귀족인 공작 네흘류도브는 어느날 배심원으로서 재판에 참가하라는 통지를 받고 재판소에 가게 된다. 거기서 그는 뜻밖에 자기가 8년전에 롱락했던 까쮸샤가 매춘부가 되여 살인죄인으로 재판을 받는것을 목격하게 된다. 그의 고모네 집 하녀였던 순진한 까쮸샤는 네흘류도브에게 롱락당하고 임신한 몸으로 주인집에서 쫓겨난 후 살길을 찾아 방황하다가 매춘부로까지 굴러떨어져 오늘은 이렇게 살인죄를 뒤집어쓰고 재판까지 받게 된것이다.

네흘류도브는 자기의 잘못으로 죄인으로 된 까쮸샤를 자기가 재판하게 되였다는것을 알고 소스라쳐 놀란다. 이것이 계기가 되여 그의 생활에는 근본적인 전환이 일어난다. 그는 자기의 죄를 뉘우치고 속죄하기 위하여 억울하게 징역살이를 하게 된 까쮸샤를 무죄석방시키고 그와 결혼하기로 결심한다.

그는 감옥과 재판소, 고위관리들을 찾아다니면서 까쮸샤의 석방을 위하여 주선하는 과정에 죄없는 사람들이 가득차있는 감옥의 실태와 나라와 인민의 운명에 대해서는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 리속만을 채우는 관리들이 로씨야를 지배하고있는 현실을 뼈아프게 느끼게 된다. 그리하여 그는 자기가 속한 계급인 귀족지주들과 관료들을 미워하고 인민들을 동정하게 된다.

까쮸샤를 석방시키려던 계획이 실패하여 그가 씨비리류형지로 떠나가게 되자 네흘류도브는 까쮸샤의 무죄석방에 대한 청원서를 황제에게 낸 다음 자기의 전재산을 다 정리하고 그를 따라나선다. 그는 씨비리에서 까쮸샤를 석방한다는 통지서를 받는다. 그러나 까쮸샤는 그와의 결혼을 거절하고 인민주의자인 정치범 씨몬쏜을 따라간다. 까쮸샤와 헤여진 네흘류도브는 로씨야감옥을 참관하러 온 영국인이 준 복음서를 읽고 그리스도교의 교리에 공감하면서 하느님의 뜻대로 살아갈 결심을 한다.

이를 통하여 작가는 부패타락한 로씨야를 어떻게 하면 구원할수 있겠는가 하는 문제를 제기하고 그에 해답을 주려고 하였다.

소설에서는 먼저 당시 짜리로씨야 국가통치기구의 반동성, 법률과 재판제도의 반인민성과 기만성, 교회의 위선 등을 낟낱이 발가내고 국가의 모든 권력과 재부를 다 장악한 특권계급의 부정부패를 신랄하게 폭로비판하였다. 또한 이러한 제도와 지배자들의 착취와 압박밑에서 신음하는 로씨야인민들의 비참하고 무권리한 처지를 여러모로 생동하게 보여주었다.

또한 소설은 이처럼 썩어빠진 로씨야와 버림받는 인민들을 구원하는 방도를 제나름으로 밝히고 있다. 소설은 모든 사람은 원래 선량한 천성을 가지고있기때문에 정신수양을 잘하여 이 본성을 부활시키는데 그 길이 있다고 하면서 모순된 현실을 개조하는 방도를 그리스도교적인 박애주의, 악에 대한 무저항주의, 종교적인 정신도덕적자아완성에서 찾았다.

소설은 이러한 제한성을 가지고있으나 강한 비판정신과 함께 현실묘사의 생동성과 진실성, 사실주의적심리묘사의 섬세성, 예리한 대조와 풍자적수법, 강한 정론성 등으로 하여 로씨야 비판적사실주의소설문학의 대표작으로 되였으며 로씨야와 유럽문학의 발전에 큰 영향을 주었다.

체호브의 단편소설과 극문학

19세기 80—90년대에 활동한 체호브는 단편소설과 극문학의 혁신자로서, 로씨야 비판적사실주의문학의 마지막대표자로서 로씨야문학사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있다.

안똔 빠블로비치 체호브(1860—1904)는 흑해연안에 있는 따간로그시의 소상인집안에서 태여났다. 그가 창작활동을 시작한것은 1884년에 모스크바종합대학 의학부를 졸업하고 모스크바부근 워스크레쎈스크(현재 이스뜨라)시 자치회병원에서 일하면서부터이다. 그는 로씨야의 첨예한 사회정치환경으로부터 격페되여 시골 소도시의 침체한 소시민적환경에서 자랐으나 평민민주주의인테리의 립장에 서서 당시 불합리한 현실을 관찰하고 그것을 자기의 작품에 반영하였다.

그는 창작활동의 첫시기에 해학적인 단편소설들을 많이 썼다. 군사경찰관료통치가 낳은 기형적인 인간들과 통치배들의 전횡, 신분차별제도를 비판한 《관리의 죽음》, 《뚱뚱보와 말라꽁이》, 《카멜레온》, 《쁘리쉬베예브하사》 등

과 전제제도하에서 불행과 고통을 겪고있는 인민들의 처지를 반영한 《불행》, 《완까》, 《자고싶어》 등 단편소설들은 비판적사실주의작가로서의 그의 면모를 잘 보여주었다. 그러나 이 시기 그의 세계관과 창작에서는 정치에 대한 소부르죠아적무관심성이 나타났다.

이와는 달리 1880년대 후반기에 그가 창작한 단편소설 《행복》과 《답답한 이야기》, 중편소설 《초원》(1888)들에는 당시 로씨야의 모순된 현실에서 벗어나려는 작가의 모대김이 반영되여있다.

특히 1890년대에 창작된 단편소설 《6호병실》, 《갑속에 든 사나이》, 《이오부츠》와 중편소설 《농군들》 등의 작품들에서 허물어져가는 부르죠아사회의 낡고 반동적인것을 신랄하게 폭로하였으며 그속에서 고통받는 농민들, 평민들, 가난한 인테리들의 처지를 보여주면서 당시의 어두운 현실은 물러가고 사람들이 자유롭게 살게 될 날이 오리라는 희망을 표시하였다.

그는 또한 중편소설 《골짜기에서》(1900), 단편소설《약혼녀》(1903) 등에서 낡은 사회는 반드시 멸망하고 근로하는 사람들이 미래의 주인이 되리라는 사상을 표현하였고 제1차 로씨야혁명전야의 사회적분위기를 재현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작품들에는 사회개조에서 노는 인테리들의 역할에 대한 작가의 초계급적인 환상이 나타나고있다.

그의 단편소설들은 한두가지 정황과 몇가지 특징적인 세부를 가진 간단한 이야기줄거리, 몇명 안되는 등장인물들과 단일하고 명확한 구성속에서 당시의 사회생활의 특징을 일반화하고있을뿐아니라 매우 간결하고 표현력이 풍부하며 인상적이고 매혹적인것이 특징이다.

그는 단편소설창작에서뿐아니라 극문학에서도 커다란 발전을 이룩하였다.

그는 《갈매기》(1896), 《와냐아저씨》(1897), 《세 자매》(1901), 《벗나무동산》(1904)과 같은 대표적인 희곡들에서도 먼저 낡은 로씨야의 반동적인 현실을 비판하면서 생활은 반드시 개변되여야 한다는 사상을 담았다. 그는 일상생활에서 흔히 볼수 있는 평범한 사건들과 인물들의 형상을 통하여 중요한 사회적문제를 제기하고 생활을 보다 진실하게 반영할수 있는 새로운 극형식을 창조하였다.

그러나 소부르죠아적인테리의 사상적 및 계급적제한성으로 하여 그는 낡은 사회를 부정하고 새 사회를 지향하면서도 그 방도를 찾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창작은 당대의 현실을 예리하게 해부비판하고 단편소설과 극발전에서 혁신적성과를 이룩한것으로 하여 로씨야 비판적사실주의문학발전에 이바지하였다.

《갑속에 든 사나이》

1898년에 창작된 단편소설 《갑속에 든 사나이》는 19세기말 제정로씨야의 반동적현실을 반영하면서 자기의 사상도 옷차림도 언행도 다 갑속에 넣고다니는 인물인 주인공 벨리꼬브의 형상을 통하여 반동적현실과 타협하고 노예살이에 만족하던 시정배들을 풍자비판한 작품이다.

소설의 주인공인 중학교 그리스어교원 벨리꼬브는 외부의 영향으로부터 보호될수 있는 갑을 만들려는 허황한 꿈에 사로잡혀있는자이다. 그에게는 현실의 모든것이 다 두렵고 놀라왔으며 불안스러웠다.

그래서 그는 맑은 날에도 덧신을 신었고 우산을 들고 솜외투를 입고야 다녔으며 자기가 쓰는 우산, 시계, 칼 등 모든 소지품은 다 주머니를 만들고 그속에 넣고 다녔다. 뿐만아니라 그는 얼굴도 외투깃으로 가리웠으며 눈에는 검은 안경을 끼고 귀는 솜으로 막군 하였다.

벨리꼬브는 자기의 사상도 역시 갑속에 감추려고 하였다. 그는 반동들이 강요하는 숨막히는 생활에 만족하면서 지시문이나 금지령의 내용을 철저히 지켰다.

이러한 벨리꼬브의 영향으로 하여 그가 사는 도시에서는 10여년동안이나 모든것을, 심지어는 큰 소리로 말하는것, 편지 보내는것, 가까이 사귀는것, 책읽는것,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는것, 글을 가르치는것까지도 두려워하게 되였다.

이렇게 현실생활에서의 새것, 온갖 전진운동을 두려워하고 갑속에 숨는 벨리꼬브의 형상은 짜리반동통치가 침묵과 순종을 강요하던 19세기 80－90년대 로씨야사회생활의 전형적인 반영이였다.

소설은 이러한 반동적현실에 대한 항거의 정신을 일정하게 제기하고 이대로 노예살이를 계속할

수 없다는 호소를 내놓았으나 그 출로에 대해서는 밝히지 못하였다.

《벚나무동산》

《벚나무동산》은 체호브가 1903년에 발표한 장막희곡이다. 작품은 한 귀족지주가정에서 벌어지는 생활을 통하여 짜리로씨야의 현실을 폭로비판하고 새 사회, 새생활에 대한 동경이 날로 커가고있던 당대의 사회적분위기를 반영하였다.

오래동안 빠리에 가서 타락한 생활을 하다가 지친 녀지주 류보비 라넵스까야가 5년만에 아름다운 벚나무동산에 둘러싸여있는 자기 집으로 돌아온다. 그는 그동안 가져갔던 돈을 마지막 한푼까지 다 써버리고 빚만 지고 돌아왔으므로 이제 그에게 남은 재산이란 조상대대로 물려오던 벚나무동산뿐이였다.

지난날에는 그 집 농노의 자손이였으나 지금은 부유한 상인이 된 로빠힌이 벚나무동산을 구원하려면 그것을 자기에게 대여하고 별장지로 만들라고 권고한다. 그러나 라넵스까야와 그의 오빠 가예브는 100년동안이나 소유해온 령지를 내놓기가 아쉬워 우유부단하게 날자만 질질 끈다. 그들은 먼 친척에게 기대를 품기도 하고 양딸 와랴를 로빠힌과 결혼시켜 그의 도움을 받아 해결해보려고도 생각한다.

이렇게 그들이 공담만 하는 사이에 벚나무동산은 드디여 경매에 붙여져 로빠힌이 그것을 사게 된다. 자기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종살이하던 지주네 령지를 소유하게 된 로빠힌은 만족해서 우쭐댄다.

한편 자기 집 농노의 자손에게 령지를 넘겨주게 된 라넵스까야와 그의 가족들은 비탄에 잠겨 뿔뿔이 헤쳐가고만다. 라넵스까야는 령지를 판 나머지 돈을 가지고 다시 빠리로 떠나가고 가예브는 은행사무원자리를 얻어 도시로 떠나간다.

다만 라넵스까야의 딸 아냐와 그의 남동생의 가정교사였던 대학을 중퇴한 청년 뜨로피모브만은 낡은 생활과 작별하게 된것을 기뻐하면서 활기있게 새생활을 향해 나아간다.

희곡은 무엇보다도 라넵스까야와 가예브 등의 형상을 통하여 몰락해가는 귀족지주계급의 부패타락과 무위도식, 무능력을 비판하면서 그들을 허물어져가는 낡은 생활에 매달리는 희극적인 존재로 풍자하고있다.

희곡은 또한 벚나무동산의 새 주인으로 등장한 신흥부르죠아 로빠힌에 대해서도 부정적으로 대하면서 돈벌이에만 눈이 어두운 그를 모든것을 집어삼키는 맹수라고 비난하고있다.

희곡에서 새 세대로 긍정되고있는 인물은 아냐와 뜨로피모브이다. 그들은 무위도식하는 착취자, 기생충들인 귀족지주들을 비판하고 낡은 생활을 거부하면서 그들이 살아온 벚나무동산보다 더 화려한 동산을 꾸리기 위하여 새생활을 향해 나간다.

희곡은 이러한 등장인물들의 형상과 그들사이의 호상관계를 통하여 몰락해가는 낡은 계급, 허물어져가는 낡은 생활을 부정하고 다가오는 새 생활, 새 사회를 지지하고 동경하였다.

희곡은 새생활, 새 사회건설의 담당자를 량심적인 인테리들속에서 찾고 새생활의 구체적 내용과 방도에 대해서 밝히지 못한 제한성을 가지고있으나 거기에 담긴 진보적인 내용과 참신한 극작술로 하여 로씨야비판적사실주의극문학의 발전에 이바지하였다.

19세기 로씨야 비판적사실주의문학은 뿌슈낀, 고골리, 체르늬쉡스끼, 레브 똘스또이, 체호브와 같은 대가들외에도 여러명의 이름있는 작가들을 배출하였다.

레르몬또브, 벨린스끼, 도브롤류보브, 알렉쎄이 오스뜨롭스끼, 네크라쏘브, 곤챠로브, 뚜르게네브, 도스또옙스끼, 쌀띄꼬브—쉐드린 등이 그러한 작가들이다.

레르몬또브

미하일 유리예비치 레르몬또브(1814—1841)는 직업적작가는 아니지만 짜리군대 장교로 복무하면서도 농노전제제도를 반대하는 자유애호사상을 가지고 진보적인 창작활동을 벌린 재간있는 시인이며 소설가였다.

12월파의 폭동이 실패한 후 1830년대의 반동기에 활동한 그는 민족적시인 뿌슈낀의 희생에서 큰 충격을 받고 반동통치배들을 단죄한 시 《시인의 죽음》(1837)을 쓴것으로 하여 깝까즈로 추방되였으며 반항과 항거를 계속하다가 통치배들이 꾸민 음모로 한 장교와의 결투에서 죽었다. 그때 그의 나이는 27살이였다.

그의 대표적인 작품으로 서정시 《돛》, 《시인의 죽음》, 서사시 《동승》, 장편소설 《현대

의 영웅》을 들수 있다.

《현대의 영웅》(1840)은 특이한 주인공의 성격형상으로 하여 널리 알려진 작품이다.

소설의 주인공 청년귀족장교 뻬쵸린은 19세기 30년대 로씨야 일부 귀족계급의 성격적특질을 체현한 인물이다. 그는 이 세상의 모든것에 대하여 랭담하고 그 무엇도 믿지 않으며 언제나 고독하게 지내면서 주위사람들을 내려다보고 덮어놓고 그들모두가 자기에게 복종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하여 온갖 리기주의적행동으로 주위사람들에게 불행만 끼치다가 그 누구의 동정도 못받고 홀로 객사하고만다.

뻬쵸린의 형상에는 12월파의 리상이 희미해지고 반동공세가 강화되던 시기의 모순된 현실에 환멸을 느끼고 그로부터 벗어져나오려고 애쓰면서도 자기가 설 자리를 찾지 못하여 아무 쓸모없는 일에 힘과 지혜를 탕진하다가 파멸한 일부 귀족청년층의 성격적특징이 반영되여있다.

소설은 당대의 사회적질병을 해부하고 모순된 현실을 비판하였으며 높은 소설창작기교를 보여준것으로 하여 19세기 30—40년대 로씨야 비판적사실주의문학의 대표작의 하나로 되였다.

벨린스끼

위싸리온 그리고리예비치 벨린스끼(1811—1848)는 농노제의 폐지를 절박하게 요구한 로씨야농민들의 리해관계와 정신을 대변해나선 평민출신의 혁명적민주주의평론가였다.

그는 문학평론을 통하여 농노제와 전제제도를 가차없이 공격해나섰으며 사회를 위하여 복무하는 문학을 창조할것을 주장해나섰다. 《알렉싼드르 뿌슈낀의 작품》(1843—1846), 《1847년 로씨야문학개관》(1848)을 비롯하여 이 시기에 발표된 론문들에는 그의 이러한 립장이 뚜렷이 반영되였다. 특히 그가 도이췰란드에서 료양중에 쓴 《고골리에게 보내는 편지》(1847)에서는 농노제의 페지를 주장하고 전제제도와 교회를 증오하는 그의 사상이 강하게 표현되였다.

그의 평론들은 문학을 전제제도와 농노제를 반대하는 정치투쟁의 중요한 수단으로 되게 하였으며 진보적작품들에 대한 평가로써 독자들을 계몽하고 진보적작가들의 창작성과와 오유를 분석일반화하여 그들의 창작발전을 추동하였다.

그는 짜리당국의 가혹한 탄압과 생활난으로 하여 페결핵에 걸려 37살에 사망하였다. 그의 혁명적민주주의평론은 체르늬쉡스끼, 도브롤류보브 등에 의하여 계승되였으며 로씨야의 사실주의문학발전에 크게 이바지하였다.

도브롤류보브(1836—1861)는 뚜르게네브의 소설 《전야》에 대한 평론 《그날은 언제나 오는가》를 비롯하여 곤챠로브, 아. 오스뜨롭스끼, 뚜르게네브 등 작가들의 작품에 대한 평론들에서 체르늬쉡스끼와 같은 립장을 취하고 혁명적민주주의사상을 선전하였다.

알렉싼드르 오스뜨롭스끼(1823—1886)는 대표작인 장막희곡 《뢰우》(1859)에서 완고한 상인가정의 착한 며느리 까쩨리나의 비극적운명을 통하여 그를 둘러싼 불합리한 사회현실을 비판하고 전제제도를 반대하는 투쟁기운이 높아지고있었던 시대의 분위기를 반영하였다. 그의 희곡 《숲》(1870), 《혼사금 없는 처녀》(1878), 《죄없는 죄인》(1884) 등도 당대 사회의 불합리성과 부정면을 비판하면서 신흥부르죠아지, 귀족지주, 관료배들의 부당한 리기주의와 탐욕성, 위선을 폭로비판하였다.

쌀띄꼬브—쉐드린(1826—1889)은 19세기 40년대부터 80년대에 이르는 오랜 기간 적극적인 창작활동을 벌려 로씨야문학사에 뚜렷한 흔적을 남긴 비판적사실주의작가이다.

그는 40년대에 공상적사회주의사상의 영향을 받아 짜리로씨야의 사회적불평등과 모순을 비판한 소설들을 내놓았으며(《모순》, 《헝클어진 사건》) 60년대이후에는 혁명적민주주의사상의 지지자가 되여 짜리통치의 반동성을 풍자한 작품들(《현청소재지의 수기》, 《한 도시의 력사》)과 귀족지주계급의 부패성을 폭로한 작품(《골로블료브일가의 사람들》) 그리고 일련의 옛말들도 썼다.

풍자소설 《한 도시의 력사》(1870)에서는 글루뽀브라는 가상적도시 시장들의 통치에 대한 환상적인 이야기를 통하여 짜리전제제도를 신랄하게 풍자폭로하였다. 장편소설 《골로블료브일가의 사람들》(1880)은 지주 골로블료브일가의 3대에 걸치는 가정생활내막을 그린 년대기적인 가정소설이다. 소설에서는 유두슈까(유다) 뽀르피리를 비롯한 지주들의 형상을 통하여 극단

적인 개인리기주의에 기초하고있으며 약육강식의 법칙이 작용하는 로씨야귀족부르죠아사회의 부패성과 반동성을 예리하게 폭로비판하였다.

네크라쏘브

니꼴라이 알렉쎄예비치 네크라쏘브(1821—1878)는 직업적시인으로서 19세기 40년대초에는 벨린스끼로부터, 50—60년대에는 체르늬쉡스끼로부터 강한 영향을 받고 당대의 선진사상이였던 혁명적민주주의사상에 공명해나섬으로써 귀족지주계급의 계급적울타리에서 벗어나 전제제도를 반대하고 민주주의와 인민의 리익을 옹호하는 진보적립장을 취하였다.

그는 1840년대 후반기부터 잡지 《현대인》(1846—1866)과 《조국잡지》(1868—1870)를 운영하면서 그를 통해 당시 로씨야의 진보적문학운동을 선도하였다.

그는 19세기 40년대부터 70년대까지 근 40년동안의 창작기간에 수많은 서정시와 서사시유산을 남겼다. 그가운데서 로씨야인민의 생활, 특히 농민들의 생활을 진실하게 반영하고 그들의 비참한 처지와 운명에 깊이 동정해나선 작품들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서정시 《정원사》, 《뜨로이까》, 《고향》, 《어두운 밤거리로…》, 《정문앞에서의 묵상》, 《아이들의 울음》 등이 그 대표적인 작품이다.

서사시 《눈보라, 빨간 코》(1863)에서는 직접 농민을 주인공으로 하여 한 농민의 죽음과 장례, 과부가 된 농민의 안해의 체험과 그가 겪은 불행에 대하여 깊은 동정을 표시하였으며 서사시 《철길》(1864)에서는 차칸에서 서정적주인공인 와냐라는 소년에게 이 철길건설의 진상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형식으로 인민들의 비참한 처지를 보여주고 인민의 압박자, 착취자들의 죄행을 폭로하였다.

시인은 자기의 작품들에서 인민들의 힘을 긍정하고 인민들이 행복하게 살게 될 훌륭한 미래에 대한 믿음을 표시하였으며 그러한 미래를 앞당기기 위한 투쟁에로 호소하였다. 서사시 《할아버지》(1870), 장편서사시 《로씨야에서는 누가 살기 좋은가》(1866—1876)와 같은 작품들에는 이러한 사상이 뚜렷이 표현되여있다.

특히 대표작인 《로씨야에서는 누가 살기 좋은가》에서는 행복한 사람을 찾아 로씨야땅을 방랑하는 7명 농민들의 형상을 통하여 로씨야농민들의 행복을 위해 짜리전제제도를 반대하는 투쟁에 나선 사람들이 바로 로씨야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는것을 암시하였다.

그는 당시에 류행하던 귀족적이며 예술지상주의적인 시형식을 배격하고 인민들이 리해할수 있는 새로운 시형식, 새로운 시어를 창조하기 위하여 애썼으며 로씨야인민들이 사랑하는 민요형식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였다. 그의 시는 현실반영의 진실성과 소박성, 음악적인 운률에서도 특징적이였다.

그는 혁명적민주주의사상자체의 제한성에서 벗어나지 못하였으나 뿌슈낀, 레르몬또브의 뒤를 이어 시를 생활과 밀착시켜 로씨야시의 내용과 형식을 더욱 민주화하고 보다 높은 수준에 올려세움으로써 로씨야사실주의문학의 새로운 단계를 열어놓았다.

이완 알렉싼드로비치 곤챠로브(1812—1891)는 관리생활을 하면서 소설창작을 한 비판적사실주의작가로서 그가 쓴 작품은 얼마 되지 않는다. 그는 장편소설 《오블로모브》(1847—1859)에서 농노제도하에서 무위도식하는 지주들을 생동하게 형상하였다. 장편소설이 창작된 후 이 작품에 대한 인기가 대단하였는데 사람들속에서는 오블로모브근성이라는 말이 게으르고 무기력한 인물의 대명사로 되였다.

뚜르게네브

이완 쎄르게예비치 뚜르게네브(1818—1883)도 세계적으로 알려진 로씨야의 이름있는 비판적사실주의작가이다.

그는 부유한 귀족지주가정에서 자랐지만 량심적인 지식인으로서 당대 로씨야의 현실을 비판한 우수한 장편소설들을 여러편 내놓았다.

그가 작가로서의 명성을 떨치게 된것은 단편소설 및 실화작품 《사냥군의 수기》(1847—1852) 창작으로였다. 이 작품에서 작가는 지주, 농노주들의 가혹한 착취와 압박으로 하여 비참해진 사람들의 운명을 비교적 진실하게 반영하였을뿐아니라 농노들과 무권리하고 가난한 인민들의 정신도덕적아름다움과 창조적재능을 긍정해나섰다.

그는 1850년대 중엽부터 장편소설창작에로 넘

어가 몇해사이에 《루진》(1856), 《귀족의 보금자리》(1859), 《전야》(1860), 《아버지와 아들》(1862) 등 여러편의 장편소설들을 련이어 내놓았다.

그의 대표작인 《전야》와 《아버지와 아들》은 사회생활에서 전환이 일어나고있던 시기에 시대가 요구하는 인물은 어떤 사람인가 하는 문제에 해답을 주려고 시도한 작품들이다.

작가는 《전야》에서 귀족출신의 로씨야처녀 옐레나와 평민출신의 벌가리아청년 인싸로브와의 관계를 통하여 당시 로씨야의 진보적사회층이 요구하는 인물, 시대의 요구에 맞는 인물은 나약하고 무능한 귀족출신인테리들이 아니라 고상한 사회적리상을 가지고 그 실현을 위해 완강하게 일하는 평민출신의 인물들이라는것을 보여주었다.

또한 《아버지와 아들》에서는 평민출신의 보통청년 바자로브의 형상을 통하여 남의 덕으로 살아가는 귀족지주들과 달리 자기의 노력으로 생활을 개척하며 명석한 두뇌와 강한 의지를 가진 평민지식인의 성격을 창조하였다. 그러나 이 작품에서 작가는 평민출신인물들이 가지고있는 정신도덕적우월성과 실천적능력을 평가하면서도 귀족과 평민의 타협과 전제농노제의 점차적개량을 주장하는 계급적제한성을 드러냈다.

그러나 그의 작품들은 진보적인 사상적경향과 예술적가치로 하여 로씨야비판적사실주의문학의 발전에 이바지하였다.

도스또옙스끼

표도르 미하일로비치 도스또옙스끼(1821—1881)는 19세기 로씨야비판적사실주의작가들가운데서 사회적모순이 심한 작가이다.

평범한 가정에서 태여난 그는 25살에 처녀작인 장편소설 《가난한 사람들》을 발표하여 벨린스끼에게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그는 공상적사회주의자 뻬뜨라쉡스끼의 비밀소조에 가입한 죄로 1849년에 체포되여 뻬뜨로빠블롭스크요새감옥에 갇혀있었으며 사형선고를 받고 사형장에 끌려나갔다가 구사일생으로 사형을 면하였다. 그대신 그는 씨비리의 또볼스크감옥에서 4년동안 징역살이를 하고 그에 뒤이어 5년동안 병사로서 씨비리수비대에서 병역살이를 치르고난 다음 1859년에야 풀려나와 뻬쩨르부르그로 돌아올수 있었다.

이 기간의 고통스러운 체험은 그의 사상정신상태에 큰 후과를 미쳤다. 진보적세계관으로 확고히 무장되지 못한채 죽음의 고비를 넘고 고통스러운 류형살이를 하게 된 그는 점차 반동적인 짜리전제제도를 타승할수 없으며 투쟁으로써 현실을 개조할 가능성이 없다는 비관주의에 빠지게 되였다. 하여 그는 자신의 고통을 이겨낼 지탱점을 종교에서 찾게 되였으며 혁명투쟁을 거부하고 그리스도교적순종과 종교적신앙속에 인민을 가난과 불행에서 구원하는 길이 있다는 반동적설교에 귀를 기울이게 되였다. 그렇다고 그의 마음속에서 청년시기에 품었던 반항적이며 무신론적인 경향이 완전히 없어진것은 아니였다.

그리하여 그후 그의 창작에서는 이러한 두 경향이 한데 얽히여 매우 모순된 양상으로 나타났다. 즉 사실주의적경향과 반사실주의적경향이 동시에 나타나게 되였다. 그는 씨비리류형에서 돌아와 첫 2년동안에 뻬쩨르부르그빈민들의 생활을 반영한 장편소설 《학대받는 사람들》(1861)과 한 류형수의 수기형식으로 자신이 겪은 씨비리류형생활을 보여준 장편소설 《죽음의 집의 기록》(1861—1862)을 발표하였다.

그후 그는 《죄와 벌》(1866), 《백치》(1868), 《악령》(1872), 《미성년》(1875), 《까라마조브형제》(1879—1880) 등 여러편의 장편소설들을 창작하였다.

그의 대표작인 장편소설 《죄와 벌》은 19세기 60년대 수도 뻬쩨르부르그의 도시빈민생활을 배경으로 대학중퇴생인 가난한 청년 라스꼴니꼬브가 범하게 된 살인죄와 그 후과, 그로 인한 주인공의 심리적체험과정을 그려보이면서 자본주의사회의 현실을 강하게 폭로한 반면에 사람들에게 투쟁과 반항이 아니라 순종을 설교한, 고통에 대한 그리스도교적리상화에로 나간 작품이다.

이처럼 그가 창작한 작품들은 심각한 모순을 내포하고있으나 거기에 담긴 자본주의사회현실에 대한 강한 비판과 사실주의적측면, 소설창작의 높은 기교로 하여 로씨야와 유럽문학의 발전에 적지 않은 영향을 주었다.

7. 동 유 럽 문 학

1) 근대문학의 길로 확고하게 들어선 동유럽문학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문학예술작품에 시대정신을 옳게 구현하는것이 중요합니다. 문학예술작품의 교양적가치는 시대정신을 어떻게 구현하는가 하는데 의하여 좌우됩니다.》

19세기는 로씨야를 제외한 동유럽나라들에서 나라의 해방과 독립을 위한 민족해방운동이 앙양된 격동적인 세기였다.

14－15세기부터 400～500년동안 오스만(뛰르끼예)제국의 지배밑에 있던 벌가리아, 로므니아, 알바니아, 오스트리아의 합스부르그군주국의 예속밑에 있던 체스꼬와 마쟈르, 슬로베니아와 흐르바쯔까, 18세기말에 프로씨아, 오스트리아－마쟈르제국, 짜리로씨야의 분할통치를 받은 뽈스까 등 동유럽나라인민들은 19세기에 외래침략자들의 예속에서 벗어나기 위한 과감한 투쟁을 벌려 실패와 곡절을 겪으면서 성과를 확대해나갔다.

이러한 시대를 배경으로 지난날 민족문학발전에서 부진상태에 있던 이 나라들에서도 19세기에 들어와 시대정신을 반영한 민족문학이 발전하기 시작하고 근대문학에로의 길에 확고하게 들어서게 되였다.

19세기 동유럽문학은 나라마다 특성이 있지만 대체로 19세기 전반기의 랑만주의시기와 후반기의 비판적사실주의시기를 거쳐 발전하였으며 이름난 혁명적민주주의작가들을 배출하였다.

19세기 동유럽나라들가운데서 문학발전이 비교적 앞서고 풍부한 문학유산을 남긴것은 뽈스까, 벌가리아, 마쟈르였다.

이와 함께 서슬라브족에 속한 체스꼬에서도 19세기에 들어와 민족문학이 본격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하였다.

19세기 전반기 체스꼬문학을 대표하는 작품은 진보적랑만주의시인들인 꼴라르(1793－1852)가 쓴 서사시 《슬라바의 딸》(1832)과 마하(1810－1836)의 서사시 《5월》(1836)이다. 《슬라바의 딸》에서 슬라바란 슬라브민족전체를 상징하는 녀신의 이름이다. 이 시에서 꼴라르는 조국에 대한 열렬한 사랑을 노래하면서 모든 슬라브족들이 힘을 합쳐 민족의 리익을 지켜 투쟁할것을 호소하였다. 《5월》은 자유를 열정적으로 노래한 애국적내용과 함께 풍만한 서정과 정서적앙양, 시어의 생동성으로 특징적이다.

1850년대에는 녀류작가 넴쪼바(1820－1862)가 쓴 농촌주제의 장편소설 《외할머니》(1855)와 같은 우수한 작품이 나왔다. 평범한 농촌할머니의 형상을 통하여 체스꼬인민들의 생활을 생동하게 반영한 이 작품은 국내에서 거듭 재판되였으며 여러 나라말로 번역되였다.

19세기 후반기에 체스꼬에서는 얀 네루다(1834－1891), 할레끄 (1835－1874), 체흐(1846－1908), 이라쎄끄(1851－1930) 등 작가들의 활동으로 비판적사실주의문학이 발전하였다.

쁘라하시 구시가사람들의 생활을 그린 네루다의 단편소설집 《마라 스뜨라나이야기》(1878), 억압자들을 반대하는 근로자들의 항거를 반영한 체흐의 서사시 《노예의 노래》(1895) 그리고 《흐름속에서》(1891)를 비롯한 이라쎄끄의 력사소설들은 체스꼬비판적사실주의문학의 발전에 이바지하였다.

라틴계민족에 속하는 로므니아도 19세기에 민족문학발전에서 성과를 이룩하였다.

로므니아근대문학의 기초를 쌓는데 이바지한 작가는 랑만주의시인이며 극작가인 알렉싼드리(1821－1890)이다. 그는 시집《파스텔화》

(1875)와 《전설집》(1877)을 비롯한 작품들을 창작하여 뛰르끼예의 지배에서 벗어나려는 로므니아인민들의 불타는 지향을 힘있게 노래하였다. 압제를 반대하는 정신이 강하고 애국정신이 높으며 민족적이고 인민창작과의 련계가 깊은 알렉싼드리의 작품들은 로므니아의 이름난 작가들의 창작에 큰 영향을 주었다.

19세기 후반기에는 시인 에미네스꾸(1850—1889)와 꼬쉬부끄(1866—1918), 소설가 끄랸가(1837—1889)와 슬라비치, 극작가 까라잘레(1852—1912)와 같은 이름난 작가들이 출현하여 로므니아의 비판적사실주의문학을 발전시켰다.

특히 근대로므니아 최대의 시인으로 불리운 에미네스꾸는 로므니아문학에서 처음으로 로동자의 형상을 그린 서사시 《황제와 프로레타리아》(1871)를 비롯하여 민주주의적지향과 애국적감정이 강한 많은 작품들을 내놓아 로므니아의 진보적문학발전을 추동하였다.

그밖에도 꼬쉬부끄의 시 《땅을 원한다》(1894)와 《담시와 목가》(1893), 끄랸가의 장편소설 《어린시절의 추억》(1880), 까라잘레의 희곡 《잃어진 편지》(1884) 등이 19세기 로므니아비판적사실주의문학의 주요작품으로 되였다.

발칸반도에 위치한 남슬라브족계렬의 쓰르비아, 쯔르나고라, 흐르바쯔까, 슬로베니아 등에서도 19세기에 민족문학창조를 위한 기운이 높아졌다. 그러한 속에서 19세기 전반기에 남슬라브족의 3명의 이름난 민족시인들이 배출되였다. 쓰르비아의 니에고슈(1813—1851), 쯔르나고라의 마쥬라니츠(1814—1890), 슬로베니아의 쁘레쉐렌(1800—1849)이 그러한 시인들이다. 그들의 대표작으로 장편서사시들인 니에고슈의 《산의 꽃모자》(1847), 마쥬라니츠의 《스마일 아가 첸기츠의 죽음》(1846)과 쁘레쉐렌의 시집 《쏘네트집》이 있다.

19세기 후반기에는 사실주의문학이 활발해졌는데 쓰르비아의 라자레비츠(1851—1891), 스레마쯔(1855—1906), 마따불리(1852—1908) 등 소설가들이 그 대표적작가로 활동하면서 많은 작품들을 내놓았다.

2) 뽈스까문학과 미쯔끼에비츠, 씨엔끼에비츠

18세기말에 뽈스까의 령토는 짜리로씨야, 프로씨아, 오스트리아의 세 나라에 의하여 분할통치되게 되였다. 이것은 뽈스까인민들의 민족자주의식을 각성시키고 그들을 민족해방운동에로 추동하였다.

이러한 기운을 반영하여 19세기 전반기 뽈스까문학에서는 진보적랑만주의문학이 발생하였다. 그 대표자로 활동한것이 아담 미쯔끼에비츠였다. 서사시 《빤 따데우슈》를 비롯한 그의 시작품들은 뽈스까문학이 낳은 걸작으로서 국제적으로도 널리 알려져있다. 또한 스워바쯔끼(1809—1849)의 련시 《자유송가》(1830)와 시극 《발라디나》(1839)를 비롯한 적지 않은 랑만주의작품들이 창작되였다.

19세기 중엽에 이르러 자본주의가 더욱 발전하고 민족해방운동이 가일층 앙양되면서 뽈스까문학에서는 비판적사실주의가 발전하기 시작하였다. 시문학에서는 녀류시인 꼬노쁘니쯔까(1842—1910)가 인민들의 생활을 노래한 시를 썼으며 극문학에서는 녀류작가 자뽈스까(1860 또는 1859—1921)의 풍자희극 《들스까부인의 도덕》(1907) 등이 창작되였다.

뽈스까에서 비판적사실주의문학은 특히 소설분야에서 큰 발전을 이룩하였다. 뽈스까비판적사실주의소설문학의 대표자는 력사소설 《꾸오바디스》를 쓴 씨엔끼에비츠이다. 또한 녀류작가 오졔슈꼬바(1841—1910)가 장편소설 《네만강변에서》(1888)를 비롯한 많은 소설들을 창작하여 현실비판적경향과 민주주의적이며 애국적인 경향을 뚜렷이 하였다. 쁘루스(1847—1912)도 사실주의적립장에 확고히 선 작가였다. 복잡한 사회관계를 파고들고 깊이있는 심리분석으로 두드러진 《인형》(1890), 에짚트력사에서 소재를 택하고 현실적인 문제를 결합시킨 《파라옹》(1897)과 같은 장편소설들은 19세기 뽈스까비판적사실주의소설문학이 거둔 성과작으로 된다.

그가운데서도 19세기 뽈스까문학을 대표하

는 세계적인 작가는 미쯔끼에비츠와 씨엔끼에비츠이다.

미쯔끼에비츠

아담 미쯔끼에비츠(1798—1855)는 마쟈르의 뻬뙤피와 함께 동유럽최대의 시인으로 알려져있다. 그는 정열적이고 애국적인 시로써 뽈스까는 물론 세계 피압박인민들의 독립운동을 크게 고무해주었다.

리뜨바(당시 뽈스까에 소속)의 소지주가정출신인 그는 학생시절부터 뽈스까독립을 위해 투쟁하는 비밀단체에 참가한것으로 하여 짜리로씨야당국의 탄압을 받고 감옥살이와 정배살이를 거쳐 약 20년동안이나 망명생활을 하였다. 말년에는 뽈스까독립운동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고 크림전쟁때 뽈스까의용군을 조직하기 위한 활동을 벌리다가 뛰르끼예의 이스딴불에서 객사하였다.

그의 주요작품으로는 로씨야체류시기에 쓴 시집 《크림 쏘네트》(1826)와 서사시 《꼰라드 왈렌로트》(1828), 빠리체류기간에 쓴 극시 《조상제》(1832)와 서사시 《빤 따데우슈》(1834) 등이 있다.

사상미학적견해에서 혁명적민주주의의 립장에 서있었으며 봉건적 및 민족적예속에서 벗어나 참다운 자유와 평등을 누리려는 뽈스까인민들의 자주적지향을 랑만적형상을 통하여 진실하게 반영한 그의 창작은 19세기 뽈스까문학에서 특출한 자리를 차지하고있다.

작가의 대표작인 서사시 《빤 따데우슈》의 원제목은 《빤 따데우슈》또는 《리뜨바의 마지막습격》(12장으로 구성된 1811—1812년의 한 귀공자에 대한 이야기)이다.

1812년 프랑스—로씨야전쟁을 배경으로 한 서사시는 리뜨바(당시 뽈스까에 소속되여있었다.)의 귀족청년 따데우슈에 대한 이야기를 통하여 짜리로씨야의 예속으로부터 뽈스까를 해방할데 대한 애국주의정신을 고취하고있다.

류학을 마치고 고향마을에 돌아온 쏘뽈리짜가문의 후계자 따데우슈는 숙부의 양딸(실은 적대적인 호레씨아가문의 딸) 조샤와 사랑에 빠져 옛 성을 둘러싼 두 가문사이의 싸움에 말려든다. 호레씨아가문사람들에 의해 쏘뽈리짜가문에 대한 습격이 단행되며 이때 손님으로 와있던 승려 도보끄가 죽는다. 그는 죽은줄 알았던 따데우슈의 아버지 야쩨끄였다. 림종직전의 고백으로 그가 독립운동에 기여했다는것이 알려지면서 두 가문사이의 화해가 이루어진다.

이러한 때 나뽈레옹이 이끄는 프랑스군대가 로씨야로 진격한다는 소식이 전해진다. 하여 이 기회에 짜리로씨야의 예속에서 벗어나기 위한 뽈스까의용군이 편성되며 따데우슈도 의용군에 참군하기 위하여 떠나간다. 다음해 나뽈레옹군과 뽈스까의용군이 마을을 통과하며 창기병장교가 된 따데우슈도 돌아온다.

부상을 입고 마을에 남게 된 따데우슈와 조샤의 약혼식이 성대하게 벌어진다. 따데우슈는 조국이 해방되였으니 농노들도 해방되여야 한다면서 조샤와 합의하여 농노들을 다 해방한다는것을 선포한다. 모두가 그의 용단을 칭찬하고 농노해방을 열렬히 환영한다. 마을사람들은 그들의 약혼을 축하하여 악대의 반주에 맞추어 춤을 추며 즐긴다. 해는 떨어져 하늘에는 저녁노을이 붉게 물들었는데 노을비낀 하늘은 찬란한 래일을 약속해준다.

작품은 애국심이 강하고 진보적인 귀족청년 따데우슈의 형상과 령지문제를 둘러싼 두 가문사이의 싸움에 골몰하며 무장습격까지 일삼는 리기적인 귀족지주들을 통하여 부패무능한 귀족지주들을 폭로하고 열렬한 애국정신을 보여주고있다. 작품에서는 계몽주의적립장에서 인간의 자유평등사상도 제기되고있다.

전 12장, 약 1만 시줄로 된 이 서사시는 진보적랑만주의시인인 미쯔끼에비츠의 작품들가운데서 사실주의적지향이 강하고 랑만주의와 사실주의가 결합되였으며 리뜨바의 아름다운 자연과 민족적풍속을 생동하게 그린 점에서 두드러져있다.

서사시는 뽈스까인민들속에서 널리 애독되여 그들의 애국심을 고취하는데 이바지하였다.

씨엔끼에비츠

헨리크 씨엔끼에비츠(쎈께위츠라고도 한다. 1846—1916)는 귀족의 집안에서 태여나 일찍부터 작가생활을 시작하였다. 그는 1878년 미국려

행을 소재로 한 단편소설 《등대지기》(1881)를 내놓아 인정을 받았고 장편력사소설들을 련이어 발표하여 이름난 작가가 되였다.

그는 력사소설창작으로 당시 뽈스까가 짜리로씨야의 압제밑에 있었던 조건에서 과거력사에 대한 이야기를 통하여 뽈스까인민들속에 외래침략자들을 반대하는 반항정신을 심어주려고 하였다.

그의 이름이 알려지게 된것은 17세기의 뽈스까력사를 취급한 애국적인 3부작력사소설 《불과 검을 가지고》(1884), 《대홍수》(1886), 《빤 블로디옵스끼》(1888)를 내놓은 때부터이다. 3부작에는 지난날 뽈스까귀족들을 반대한 우크라이나인민들의 투쟁과 17세기 스웨리예의 침략을 반대하는 뽈스까인민들의 투쟁이 사실주의적으로 반영되여있다.

작가는 다음작품인 장편력사소설 《십자가의 기사들》(1900)에서 15세기 도이췰란드정복자들을 반대하는 뽈스까인민들의 투쟁력사를 생동하게 그려냈다.

애국적인 내용과 함께 풍부한 상상력, 회화적인 묘사, 력사에 대한 해박한 지식과 세련된 언어구사로 특징적인 그의 력사소설들은 사실주의적력사소설창작에서 새로운 단계를 열어놓음으로써 뽈스까문학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

그의 력사소설가운데서 세계적으로 제일 많이 읽히운것은 《꾸오바디스》(1896)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장편소설 〈쿠오봐디스〉는 뽈스까의 작가 쎈께위츠가 이딸리아의 네로폭정시기를 시대적배경으로 하여 쓴 작품입니다. 작가는 소설에서 인민들뿐아니라 종교인들까지 무자비하게 탄압하는 네로의 폭정을 폭로하면서 이딸리아민족의 운명을 우려하였습니다.》

소설은 폭군 네로가 황제로 있던 1세기 노예소유자국가 로마의 력사적현실을 시대적배경으로 하여 네로의 폭압을 반대하고 신앙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그리스도교도들의 투쟁을 보여주고 있다.

로마의 귀족청년 비니키우스는 네로황제가 인질로 잡아온 북방종족출신의 아름다운 그리스도교도처녀 리기아를 보고 단번에 반하게 된다. 그는 네로의 총애를 받는 삼촌 페트로니우스의 주선으로 처녀를 자기 집에 데려올 허락을 받는다. 그런데 도중에 그리스도교도들이 리기아를 빼돌린다.

비니키우스는 리기아가 숨어있는 집을 알아내여 그를 빼앗으려고 갔다가 리기아의 보호자인 힘장수 우르스스와 싸우게 되며 거기서 부상을 입는다. 그는 그리스도교도들의 간호를 받는 과정에 점차 리기아에 대한 정신적인 사랑에 눈뜨게 되며 리기아도 그를 사모하게 된다. 그후 비니키우스는 리기아와 약혼하고 사도 뻬뗴로의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교도로 된다.

이무렵 네로의 작간으로 로마에 큰 화재가 일어난다. 네로는 로마가 불에 탄 책임을 그리스도교도들에 넘겨씌워 수많은 그리스도교도들을 야외원형극장에서 학살한다. 리기아도 붙잡혀 사나운 황소앞에 나서게 된다. 우르스스가 황소와 격투하여 이김으로써 관중들의 일치한 요구에 의해 리기아는 네로의 용서를 받는다. 그후 비니키우스와 리기아는 씨칠리아섬에서 행복한 신혼생활을 하게 된다.

한편 페트로니우스는 간신의 모함으로 네로의 총애를 잃고 죽음을 당하게 되는 신세가 되자 주연을 베풀어 손님들을 청해놓고 그 자리에서 자결하고만다. 드디여 네로의 폭압통치를 반대하는 인민폭동이 일어난다. 이에 속주 장관들과 근위병들까지 합류하자 궁지에 빠진 네로는 도망치던 도중 자결하고만다.

소설은 주인공들의 사랑이 신앙의 차이라는 종교적구속과 폭군 네로의 폭압을 이겨내고 끝내 성립되는 이야기와 온갖 학정을 일삼던 로마황제 네로가 드디여 인민폭동에 의하여 멸망하고마는 이야기를 통하여 압제자들이 멸망하고 압제를 반대하는 인민들의 투쟁이 승리하는것은 필연적이라는 사상을 형상적으로 밝혀내고있다.

작가의 목적은 고대로마력사에 대한 이야기로써 그 당시 민족적독립을 잃고 짜리로씨야와 프로씨아의 압제밑에 있었던 뽈스까인민들에게 희망과 신심을 주고 그들을 민족해방을 위한 투쟁에로 고무하는데 있었다.

작품에서는 특히 폭군 네로황제의 음탕하고 사치한 궁중생활을 예리하게 폭로하고있으며 잔

인무도하고 포악한 압제자, 전제폭군으로서의 네로의 진면모를 낱낱이 드러내고있다. 소설은 로마황제 네로, 고관 페트로니우스, 사도 뻬뜨로와 빠울로를 비롯하여 실재한 력사적인물들을 수많이 등장시켜 그들의 생활을 통하여 그 당시 로마사회의 이모저모를 생동하게 그려내고있으며 고대로마의 현실을 방불하게 재현하고있다.

작품은 지난날의 력사에 대한 작가의 해박한 지식과 상상력을 충분히 구사하고있으며 묘사가 회화적이고 정밀하며 인물형상들이 생동한 점에서도 특징적이다.

이와 반면에 소설에는 력사발전에 대한 관념론적견해가 지배적이며 종교적색채가 진하고 리기아, 사도 뻬뜨로와 빠울로 등의 형상이 도식적인것과 같은 약점이 드러나고있다.

장편력사소설 《꾸오바디스》는 폭군 네로가 군림하던 로마의 력사를 생동하게 재현하고 지난날의 력사를 통하여 민족해방의 리념을 고취한것으로 하여 뽈스까뿐아니라 세계적으로 널리 읽히운 고전작품의 하나로 되였다.(소설의 제명인 《꾸오바디스》는 라틴어로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라는 뜻이다.)

3) 벌가리아문학과 바조브

벌가리아는 14세기말부터 19세기 70년대까지 약 500년동안 오스만(뛰르끼예)제국의 예속밑에 있었기때문에 자체의 독자적인 민족문학을 제대로 발전시킬수 없었다.

이 나라에서 민족문학이 발전하기 시작한것은 19세기 중엽부터였다. 벌가리아의 민족문학발전은 민족해방운동의 앙양과 밀접히 결부되여 진행되였다. 벌가리아의 진보적작가들은 거의다 민족해방운동에 적극적으로 참가한 독립지사들이였으며 진보적문학의 내용도 민족해방운동을 반영하거나 민족적독립과 해방에 대한 지향, 열렬한 애국심을 담은것이였다. 창작방법과 사조의 측면에서는 비판적사실주의가 우세를 차지하였다.

19세기 벌가리아민족문학의 발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것은 바조브, 보떼브, 슬라베이꼬브, 까라벨로브였다.

뻬뜨꼬 라체브 슬라베이꼬브(1827—1895)는 벌가리아의 녀성애국자를 칭송한 서사시 《볼로노고이샘》(1873)과 인민창작에 토대한 시집 《노래와 시》(1879)를 비롯한 작품들로써 벌가리아민족문학의 발전에 이바지하였다.

혁명적민주주의사상을 가지고있는 류벤 까라벨로브(1834년경—1879)는 해외(로므니아)에서 조직된 벌가리아혁명중앙위원회 위원장으로까지 선거된 독립운동자였다. 중편소설 《수난자》(1870), 《두령》(1870), 단편 및 중편소설집 《벌가리아민족의 고통》(1868)을 비롯한 그의 작품들은 뛰르끼예압제자들의 전횡과 벌가리아배신자들의 매국행위를 날카롭게 폭로비판하고 벌가리아인민들의 민족해방투쟁과 반봉건투쟁을 사실주의적으로 반영함으로써 벌가리아문학에서 비판적사실주의의 길을 열어놓았다.

보떼브 한생을 민족적독립을 위한 투쟁에 바친 혁명적민주주의시인인 흐리스또 보떼브(1848—1876)는 투쟁과 망명생활속에서 20여편의 시를 창작하여 자기의 시로써 벌가리아인민의 마음속에 애국적정열이 불타오르게 하고 그들을 독립을 위한 투쟁에로 힘있게 추동하였다.

그는 오래동안 망명생활을 하다가 1874년부터 뛰르끼예의 압제를 반대하는 투쟁단체인 벌가리아혁명중앙위원회 위원으로 있으면서 무장봉기를 준비하였으며 1876년 독립투사들과 함께 귀국도중 적들과 조우하여 전사하였다.

혁명적민주주의미학관에 기초한 그의 시들은 사회의 모순에 대한 비판폭로와 강한 애국적열정으로 특징적이다. 《애가》(1870), 《나의 첫 애인에게》(1871), 《애국자》(1872), 《나의 기도》(1873) 등이 다 그러한 작품들이다.

특히 민족해방투쟁의 전투적인 정신을 담은 시 《검은 구름》(1873)은 조국을 빼앗긴 벌가리아인민들의 비통한 감정과 조국땅에 혁명적폭풍을 안아올 그들의 불타는 의지를 힘있게 반영하였다.

그의 시들은 독립을 위한 투쟁에로 부르는 전투적인 시정신을 적극적으로 탐구한것으로 하여 벌가리아의 사실주의시문학의 발전에 이바지하였다.

19세기 벌가리아문학의 대표적인 작가는 바조브이다.

바조브

이완 민쵸브 바조브(1850－1921)는 발칸산줄기 남쪽기슭에 있는 해안도시 쏘뽀뜨의 부유한 상인가정에서 태여났다. 그는 초등교육과정을 마친 후 상업에 필요한 그리스어와 뛰르끼예어를 배우기 위해 뿔로브디브에 갔으나 거기에는 흥미를 가지지 못하고 로씨야어와 프랑스어책들을 탐독하였다. 그는 그후 상업을 견습하기 위해 로므니아에서 장사를 하고있는 숙부한테 갔으나 거기서도 뛰쳐나가 독립운동자들과 교제하였다. 귀국후 그는 프랑스인철도기사의 통역을 하다가 1874년에 고향으로 돌아가 혁명위원회에 들어갔다.

그는 1876년 4월봉기가 실패하자 로므니아에서 망명생활을 하다가 로씨야—뛰르끼예전쟁때 귀국하였으며 1878년 벌가리아독립후에는 사회활동을 활발히 벌려 정부 교육상까지 되였다.

소년시절부터 시를 쓰기 시작한 그는 시뿐아니라 소설, 희곡, 려행기 등 다양한 형태에서 재간을 나타내여 민족문학의 아버지로 불리우게 되였다.

그의 서정시들가운데서 《의용병》, 《빠나규리스뜨의 폭동자들》, 《소나무》, 《어머니의 하소연》을 비롯한 많은 시들이 널리 알려져있으며 서사시들인 《돌무데기》(1879), 《잊어버린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1884), 《산등성이》(1882) 등은 압제를 반대하는 인민들의 애국적투쟁을 반영한 시로서 그의 주요작품들이다.

특히 벌가리아의 소박한 청춘남녀의 애정선을 기본으로 하여 뛰르끼예침략자들, 그들과 결탁한 지주들을 반대하는 농민들의 투쟁을 생동하게 보여준 《돌무데기》는 작가가 심혈을 바쳐 완성한 대표작이다.

1880년대에 소설창작으로 넘어간 그는 반침략투쟁에 일떠선 벌가리아인민들의 슬기로운 기상을 보여준 장편소설 《기반밑에서》(1894), 절박한 사회적문제들을 취급한 중편소설 《버림받은 사람들》(1884), 단편소설 《하쥐 아힐》을 비롯한 많은 소설들을 내놓았다. 작가는 또한 도시소시민층의 속물근성과 부르죠아사회의 특권계층의 기생충적생활을 폭로한 《영광의 후비들》(1901), 《따스한 곳만 찾는자들》(1903) 등 극작품들도 창작하였다.

그는 시창작과 관련한 일련의 의의있는 미학견해도 내놓았다. 그는 사실주의적미학관에 기초하여 시문학분야에서 감상주의적, 반동적랑만주의견해를 배격하고 사실주의기치를 고수하였다.

그의 창작은 배타주의적경향이 있고 보수적인 가부장제도를 리상화한것과 같은 제한성을 가지고있으나 당대 벌가리아현실과 뛰르끼예의 압제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벌가리아인민들의 투쟁을 사실주의적으로 반영함으로써 19세기 벌가리아비판적사실주의문학에서 특출한 자리를 차지하고있다.

그의 작품들가운데서 제일 잘 알려져있는것은 장편소설 《기반밑에서》이다.

장편소설 《기반밑에서》는 19세기 70년대 뛰르끼예에 의한 강점시기를 배경으로 침략자들을 반대하는 벌가리아인민들의 민족해방투쟁을 그린 작품이다.

사건은 발칸반도의 소도시 뱔라 체르고바에서 벌어진다. 직업적인 독립운동자인 오그냐노브는 뛰르끼예로 추방되여 류배살이를 하다가 탈출하여 조국으로 돌아온 후 이 도시에서 교원으로 활동하면서 량심적인 지식인들, 농민들과 련계를 맺고 무장봉기를 준비한다. 이 과정에 그는 적들의 추격을 받아 위험에 처한 제분공 스또얀과 몇몇 농민들을 구원해준다.

주인공의 영향을 받고 각계각층의 많은 사람들이 각성한다. 그들은 사회적처지, 지식과 재산, 취미와 신앙에서 서로 차이는 있으나 벌가리아의 자유와 독립을 위한 투쟁의 한길에 나선다.

그들은 뛰르끼예강점자들과 그들과 결탁된 국내반동분자들, 배신자들을 처단하며 벌가리아의 해방을 앞당겨나간다.

작품은 19세기 70년대 벌가리아에서의 자유와 독립, 해방투쟁에 관한 문제를 제기하고 그 투쟁에서 선진적인 지식인들의 활동과 역할을 진실하게 보여주고있다. 작품은 주인공을 비롯한 긍정인물들의 형상을 통하여 뛰르끼예의 압제밑에서 신음하는 벌가리아인민들의 비참한 생활처지를 펼쳐보이고있으며 인민들의 계급의식의 장성과정과 투쟁에로 나아가는 모습을 사실주의적으로 보여주고있다.

작품은 또한 부정인물들의 성격을 통하여 침략자들과 그와 결탁한 반동계급의 략탈성과 포악성, 잔인성, 취약성을 폭로하고 그 멸망의 불가피성을 암시하고있다.

소설은 인상깊은 세부묘사, 작은것을 통하여 큰것을 보여주는 전형화의 특징, 특색있는 서정토로 등 예술적특징도 보여주고있다.

장편소설 《기반밑에서》는 혁명투쟁에서 량심적인 지식인들의 역할을 리상화한 부족점을 가지고있으나 광범한 인민대중이 민족해방투쟁에 떨쳐나서는 력사적과정을 서사시적화폭으로 폭넓게 재현한것으로 하여 19세기 벌가리아비판적사실주의문학이 거둔 중요한 성과작의 하나로 된다.

4) 마자르문학과 뻬뙤피

마쟈르 역시 동유럽의 다른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장구한 기간 외래통치의 예속밑에서 자유를 잃고 수난의 길을 걸어온 나라이다. 마쟈르는 16—17세기에 오스만(뛰르끼예)제국의 통치밑에 있었으며 그후에는 오스트리아의 합스부르그왕조의 지배밑에 있었다.

오래동안 독립을 위한 투쟁을 벌려온 마쟈르인민들은 19세기에 들어와서 더욱 힘찬 투쟁을 벌렸으며 1848—1849년에는 꼬슈뜨의 지도밑에 오스트리아의 예속에서 벗어나기 위한 마쟈르독립전쟁을 일으켰다. 전쟁은 비록 패하였으나 마쟈르인민들의 애국적감정을 크게 고조시켰다.

앙양되는 민족독립기운에 호응하여 마쟈르의 민족문학도 발전하기 시작하였다. 19세기 마쟈르문학에서는 30—40년대에 랑만주의문학이 발전하고 그 이후는 비판적사실주의문학이 발전하였다.

진보적랑만주의문학에는 까롤이(1788—1830)의 력사극 《마쟈르에서의 따따르인》(1819)과 까또나(1791—1830)의 력사극 《반크 반》(1821), 서사시인 뵈레슈마르띠(1800—1855)의 《잘란의 패주》(1825) 등 지난날 마쟈르의 력사적사건들을 다루면서 오스트리아의 지배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민족적, 애국적감정을 표현한것이 많다.(이러한 경향성으로 하여 《반크 반》은 공연금지당하였다.)

1830년대에 마쟈르진보적문학의 지도적인물로 공인된 뵈레슈마르띠는 첫 서사시 《잘란의 패주》를 내놓은 이후에도 담시 《아름다운 일론까》(1832), 1848년혁명을 환영한 시 《전투의 노래》, 전투적정신으로 충만된 시 《마쟈르국장》, 《호소》를 비롯한 많은 작품들을 발표하여 근대마쟈르문학의 기초를 닦는데 이바지하였다.

1848년 마쟈르부르죠아혁명을 전후한 시기에 혁명적민주주의시인들의 활약이 눈에 띄게 강화되였다. 내용에서 혁명적민주주의사상을 담고 창작방법에서 비판적사실주의에 의거한 마쟈르의 혁명적민주주의문학을 대표하는 시인으로는 뻬뙤피와 아라니를 들수 있다.

아라니 아라니 야노슈(1817—1882)는 부르죠아혁명이 실패하고 뻬뙤피도 전사했으며 오스트리아의 압제가 더욱 강화되던 어려운 시기에 마쟈르인민들에게 희망을 안겨주고 그들을 투쟁에로 고무한 애국적시인이였다.

그는 1845년부터 시를 발표하기 시작하여 1847년에 14세기 마쟈르의 민족적영웅을 주인공으로 한 애국적서사시 《똘디》를 발표하면서부터 유명해졌다. 그는 뻬뙤피와 함께 1848—1849년 마쟈르혁명에 적극 참가하였다. 이 시기 《민족근위병의 노래》, 《우리는 무엇을 하는가》를 비롯한 그의 시들은 뻬뙤피의 시와 함께 노래가 되여 온 나라에서 불리워졌다.

그러나 혁명의 실패와 뻬뙤피의 희생은 시인에게 커다란 정신적타격을 주었다. 그는 박해를 피하여 시골에 내려가 10여년동안 숨어살다가 1865년에야 다시 부다뻬슈뜨로 돌아왔다. 그런속에서도 그는 《똘디의 밤》(1854), 《똘디의 사랑》(1879)을 쓰고 똘디에 대한 3부작서사시를 완성한것을 비롯하여 수많은 서사시와 서정시를 창작하였다.

그는 뻬뙤피와 함께 애국적인 사실주의시가를 발전시킴으로써 마쟈르의 사실주의시문학을

풍부화하는데 이바지하였다.

1867년 오스트리아가 마쟈르를 합병하여 오스트리아―마쟈르제국이 형성된 이후시기에 활동한 작가는 요까이이다.

요까이 모르(1825―1904)는 랑만주의로부터 사실주의로 넘어간 작가로서 풍부한 상상력과 밝은 색갈, 재치있는 화술로 특징적인 수십편의 장중편소설들을 써내여 마쟈르문단에서 이름을 날렸다. 그의 주요작품으로는 《뜨란씰바니아의 황금시대》(1852)와 《마쟈르의 뛰르끼예사회》(1853), 《까르빠띠 졸딴》(1854)과 《신흥지주》(1862) 등의 장편소설들을 들수 있다.

뻬뙤피

뻬뙤피는 19세기 마쟈르문학을 대표하는 혁명적민주주의시인일뿐아니라 마쟈르가 낳은 최대의 시인으로서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져있다.

뻬뙤피 샨도르(1823―1849)는 시골 소상인의 아들로 태여나 소년시절부터 방랑생활을 하였으며 순회극단에 들어가 류랑하는 과정에 오스트리아강점자들에 의한 민족적예속과 봉건전제제도의 이중적인 멍에밑에서 신음하는 마쟈르인민들의 비참한 생활을 체험하였다. 이것은 그가 혁명적민주주의사상을 소유하게 하고 진보적작가로 자라나게 하는데 큰 영향을 미쳤다.

방랑배우생활기간에 쓴 시를 출판할 생각을 한 그는 당시 유명한 시인인 뵈레슈마르띠의 도움밑에 처녀시집을 출판하였다. 이 《시집》(1844)에 수록된 민요풍의 소박하고 매혹적인 서정시들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으며 이로 하여 그는 일약 문단의 주목을 끌게 되였다. 이어 발표된 그의 시집들도 마쟈르인민들의 열광적인 환영을 받았으며 그의 명성은 온 나라에 퍼지게 되였다.

마쟈르독립전쟁의 발단으로 된 1848년 3월 부다뻬슈뜨인민봉기때 그는 《일어나라 마쟈르사람들아》라는 애국적인 자작시를 인민들앞에서 랑송하였고 민족의 자유와 독립을 위한 투쟁의 앞장에 섰다. 독립전쟁이 불리해진 어려운 속에서도 그는 마지막까지 지조를 지켜 용감히 싸웠으며 다음해 남부 뜨란씰바니아의 결전장에서 26살의 젊은 나이에 장렬하게 전사하였다.

그는 혁명적민주주의시인이였다. 하여 그의 시들은 압제에 대한 증오와 반항심, 자유와 독립을 위한 투쟁과 폭동에로의 호소, 광명한 미래에 대한 신념으로 특징적이였다.

또한 그 창작방법에서 진보적랑만주의와 사실주의가 결합된 특징을 보여주었다. 그의 초기 련애시들에서는 랑만주의적경향이 우세를 차지하였으나 그의 풍자시와 애국적인 정치시들에서는 사실주의적경향이 우세하였다.

자유와 사랑과 투쟁으로 충만된 그의 시는 또한 그 진보적내용과 함께 인민들이 알기 쉬운 시어와 소박한 민요조의 형식, 민족적풍격으로 하여 마쟈르인민들의 사랑을 받았으며 마쟈르진보적시문학의 귀중한 유산으로 되였다.

그의 시유산가운데는 《사랑의 진주》(1845)와 같은 련애시집도 있고 《고향땅에서》(1848)와 같이 고향과 부모에 대한 사랑을 노래한 시집도 있으며 《마쟈르귀족》(1845)과 같이 외래통치에 아부하는 귀족통치배들을 폭로한 예리한 풍자시도 있다.

그러나 주되는 자리를 차지하는것은 압제를 반대하고 민족의 독립과 자유를 위한 투쟁에로 열렬히 호소한 애국적주제의 서정시들이다. 이런 시들로서는 1847―1848년사이에 씌여진 《다만 투쟁만이…》, 《나는 마쟈르사람》, 《자유여》, 《마쟈르인민》, 《마쟈르사람은 다시 마쟈르사람 되였네》, 《겨레여!》, 《혁명》, 《위대한 시각은 가까이, 가까이》, 《나는 말하노라, 마쟈르는 승리한다고》 등을 들수 있다.

그의 시가운데는 《용사 야노슈》(1844)를 비롯한 몇편의 서사시들도 있다. 민요풍의 장편서사시 《용사 야노슈》는 그의 대표작의 하나로 알려져있다.

시 《다만 투쟁만이…》는 사람의 행복은 투쟁속에 있고 모든 사람들이 평화와 자유속에 살게 될 때까지 손에서 총검을 놓을수 없다는 서정적주인공―시인의 높은 정신세계, 투쟁의 열정을 전투적인 서정으로 감명깊게 노래한 작품이다.

나의 생애에 오직 하나인
아름다운 꿈은 투쟁이랍니다
자유를 위하여 나의 심장에서
붉은 피 용솟음칠 투쟁이랍니다

서정적주인공이 바라는 투쟁속의 자유—그것은 곧 투쟁속의 평화를 의미하는것이며 투쟁속의 평화는 자유의 구체적인 생활내용으로 되고있다. 폭군의 사나운 욕심에서가 아니라 오직 자유의 슬기로운 힘으로써 싸워서 얻는 참된 평화를 바라기에 서정적주인공—시인은 손에서 총검을 놓지 않는다. 만사람들이 함께 누릴 평화가 깃들때까지 그때까지는 총검을 놓지 않고 용맹스럽게 싸울것을 다짐한다.

이것은 당시 마쟈르인민들의 전형적인 생활감정이였다.

시 《혁명》은 자유없는 조국, 철쇄로 묶이운 조국의 아픔을 심장으로 느끼며 권력의 노예로 사느니보다는 차라리 죽기를 서슴지 않는 서정적주인공—시인의 값진 삶에 대한 지향을 깊은 정서로 노래한 작품이다.

값진 삶—그것은 권력의 노예로 무의미하게 죽지 않는 삶이다. 폭군은 헛되이 죽은 사람들을 결박할것이며 그들의 무덤우에서 룡상을 타고앉아 영악스럽게 호통칠것이다. 그러나 서정적주인공—시인은 헛되이 죽기를 원치 않는다.

차라리 손수 숨끊고 죽음이 떳떳하리라
폭군의 사슬에 목매우길 기다리기보다는

압박에 대한 굴종과 예속이 아니라 반항과 투쟁의 열정으로 가득찬 서정적주인공은 조국의 불굴의 기상을 보여주면서 폭군, 압제자들에 대한 증오심으로 불타오르고있다.

시인의 이 분노의 감정은 적극적인 투쟁의 세계에로 지향된다. 이 축적된 감정선이 급격히 행동세계로 지향되면서 시형상을 사상정서적앙양에로 이끌어간다.

손에 칼을 들라 전투준비는 되였노라!
그대가 아니고서 누가 자유를 누릴소냐!

여기서 그대—조국이 억압의 철쇄에서 해방되여 자유를 누리게 될 시적계기는 전투의 시형상에 의하여 조건지어진다. 그리하여 서정적주인공은 도래할 전투속에서 혁명의 선풍을 앞질러 느끼는것이다.

시 《나는 말하노라, 마쟈르는 승리한다고》는 단결의 힘으로 도탄에 빠진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구원해야 한다는 사상을 보여주는 정론적호소와 정서적감동이 잘 배합된 우수한 작품의 하나이다.

서정적주인공—나는 지금은 비록 철쇄에 얽매여 신음하나 반드시 언제인가 마쟈르는 승리할것이라는것을 굳게 믿고있으며 승리의 그날까지 끝까지 원쑤들과 싸울것을 다짐한다.

나는 말하노라 마쟈르는 승리한다고
불벼락을 내리자 하늘땅에 본때를
　보이도록!

이 시는 당시 짓밟힌 조국과 민족에 대한 시인의 숭엄한 감정, 언제나 조국과 인민과 함께 숨쉬며 사랑하는 조국과 인민을 위해서는 모든것을 다 바쳐 싸워나가려는 불타는 의지를 깊은 정서와 랑만적열정으로 노래하고있다.

민족과 조국에 대한 사랑, 빼앗긴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구원하기 위한 투쟁에로의 호소—이것이 이 시의 가장 본질적인 사상감정이며 시인의 주되는 주장이다.

시는 짓밟힌 조국과 철쇄에 얽매인 민족의 슬픔을 한탄만 한것이 아니라 도탄에 빠진 조국의 운명을 기어이 구원하고야말 시인의 뜨거운 열정을 담고있는것으로 하여 그 양상이 밝고 명랑하며 서정의 흐름도 자연스럽다.

8. 북 유 럽 문 학

1) 민족문학발전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북유럽문학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매개 나라의 민족문학은 그에 고유한 민족성과 독자성을 가지고 세계문학발전에 이바지한다.》

19세기는 북유럽에서도 민족문학을 발전시키기 위한 기운이 높아지고 근대문학이 확립된 시기였다.

중세기에 봉건통치배들과 그리스도교의 압박밑에서 일반적으로 문학이 불모와 침체의 길을 걷고있을 때 북유럽문학 역시 다른 유럽나라들과 마찬가지로 침체기에 놓여있었다. 그후 15-16세기에 종교개혁을 거쳐 과학과 문화가 일정하게 전진했으며 17세기에 스웨리예가 강국이 되면서 과학문화의 발전이 추진되였다. 그것이 18세기의 계몽기에 더욱 발전하였다.

그러나 북유럽에서 민족문학발전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진것은 19세기에 들어와서이다.

북유럽문학에서 19세기 전반기는 한마디로 랑만주의시대라고 할수 있다. 게르만계렬의 민족들이 살고있던 북유럽에서는 랑만주의시대에 북유럽에 전해진 옛 게르만의 신화와 전설을 찾아내는 과정에 민족적감정이 더욱 커지고 자기의 고유한 민족문학을 창조하려는 기운이 높아지게 되였다.

그 봉화로 된것이 류학을 마치고 돌아온 단마르크의 젊은 시인 욀랜슐래게르가 내놓은 서사시 《황금뿔피리》(1802)였다. 시는 당시에 발굴된 유물인 황금을 박은 고대북유럽의 뿔피리를 소재로 용감한 고대북유럽사람들을 찬양하였다. 그의 뒤를 이어 북유럽 여러 나라들에서 구전문학유산을 수집하고 그에 기초하여 민족성과 독자성을 고취한 진보적랑만주의문학이 발전하게 되였다.

19세기 후반기는 북유럽문학이 황금시대를 맞이한 시기로 되였다. 이 시기에 입셴, 비외른쏜, 브란데스, 스트린드베리 등 세계적으로 이름난 대가들을 배출한 북유럽문학은 로씨야문학과 함께 세계문학에서 당당한 자리를 차지하게 되였다.

그것은 랑만주의시대에 자기 힘에 눈 뜬 북유럽의 작가들이 신흥세력인 노르웨이작가들을 선두로 하여 민족문학창조사업에 적극 달라붙은것과 관련되여있었다. 19세기 후반기 북유럽문학의 주류는 비판적사실주의였다.

19세기 후반기 북유럽문학은 극문학에서 커다란 발전을 이룩하였다. 입셴, 비외른쏜, 스트린드베리 등 극작가들은 희곡창작을 위주로 하면서 소설도 창작했으나 극문학에서 명작을 많이 냈다. 극문학과 함께 소설문학에서도 많은 작가들이 활약하여 북유럽문학유산을 풍부히 하였으며 특히 동화의 대가 안데르쎈이 활동하였다. 극문학과 소설문학, 동화에 비하여 시문학은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19세기 북유럽에서 문학발전이 보다 앞선것은 노르웨이와 단마르크였다.

스웨리예문학에서는 19세기 10년대에 랑만주의문학사조가 형성되였다. 랑만주의작가들가운데서 아테르봄(1790-1855), 스타그넬리우스(1793-1822) 등은 계몽주의와 사실주의를 반대하고 신비주의로 나가 반동적랑만주의류파를 이루었으며 고트회에 속한 작가들은 옛 스칸디나비아문화와 농민들의 가부장적생활양식을 리상화하는데로 나갔다. 그러나 고트회에 속한 작가들가운데서 테그네르와 같이 확고하게 민주주의적립장을 취한 시인도 나왔다.

에싸이아스 테그네르(1782-1846)는 스웨리예진보적랑만주의문학의 대표자의 한사람이다. 그의 초기 시들인 《스코네향토군에 드리

는 군가》(1808), 《스베아》(1811) 등은 당시 짜리로씨야와의 전쟁으로 하여 위기를 겪고있던 스웨리예인민들에게 열렬한 조국애를 불러일으켰다. 그의 대표작은 중세이슬란드전설에서 소재를 택한 서사시 《프리티오프이야기》(1825)이다. 작품은 인민시가에 기초하여 젊은 비킹그(해양원정대)들의 위훈과 사랑을 노래하였으며 특히 용사 프리티오프와 왕녀 잉게보리의 파란곡절에 찬 사랑이야기속에 민주주의적이며 인도주의적인 지향을 담았다.

또한 녀류작가 브레메르(1801—1865)의 작품에는 녀성해방의 주장이, 알므크비스트(1793—1866)의 시와 극, 소설에는 뚜렷한 사회비판적경향이 표현되였으며 뤼드베리(1828—1895)는 랑만주의와 사실주의를 결합하여 스웨리예에 남아있는 봉건적잔재를 비판하였다.

19세기 90년대에 문단에서는 유미주의와 퇴페주의경향이 강화되였다. 그 선두에 서서 사실주의를 반대해나선것이 헤이덴스탐(1859—1940, 대표작:시집《순례와 편력의 세월》, 1895)이였다. 이 시기 출현한 신랑만주의도 같은 경향의 문학이였다.

그러나 신랑만주의에 속한 작가들가운데서 녀류작가 라겔르뢰프(1858—1940, 대표작:력사소설 《예스따베를린그이야기》, 1891)는 인도주의적경향을 표현하였고 프뢰딩(1860—1911)은 때때로 인민들의 생활을 사실주의적으로 묘사한 작품(시집 《기타와 손풍금》, 1891,《신시집》, 1894 등)을 내놓았다. 시인 카를펠드(1864—1931;《황야와 사랑의 시집》, 1895)도 여기에 속한다.

19세기 스웨리예문학을 대표하는 작가는 스트린드베리이다.

아우구스트 스트린드베리(1849—1912)는 스톡홀름의 상인가정에서 상인인 아버지와 하녀인 어머니사이에 태여났다. 이러한 불우한 환경속에서 자라난 그는 어릴 때부터 반항심이 매우 강하였다. 그는 학비난으로 대학을 중퇴한 후 교원, 신문기자, 외진 섬의 전신수, 도서관 조수 등 각이한 직업에 종사하다가 1870년말부터 직업적작가생활에 들어섰다.

그가 초기에 창작한 《붉은 밤》(1879), 《새왕국》(1882)과 같은 장편소설들에는 가난한 예술인, 학자들을 주인공으로 하여 부르죠아사회의 현실과 특권계급의 타락한 생활이 비판되였다. 그가 쓴 소설작품으로는 그밖에도 《백치의 고백》(1893), 《하녀의 자식》(1909)을 비롯한 장편소설들과 단편소설집들이 있다.

그는 소설가인 동시에 재간있는 극작가였다. 그의 희곡들가운데서 《쥴리아가씨》(1888), 《죽음의 무도》(1901), 3부작 《디마스끄에로의 길》(1904) 등이 알려져있다.

그는 창작적고충을 많이 겪은 작가였다. 그는 창작에서 사실주의로 나가다가 한때 후퇴하여 자연주의적경향을 강하게 나타냈으며 니체주의의 영향과 신비주의적색채를 나타내기도 하였다.

그의 창작은 심각한 모순과 부정적측면을 가지고있으나 자본주의사회의 부패타락한 현실을 비판하고 부르죠아지의 허위성을 폭로한 사실주의적측면을 보여주었으며 소설창작과 극작술에서 높은 기량을 발휘한것으로 하여 19세기말—20세기초 스웨리예문학에서 확고한 자리를 차지하게 되였다. 스트린드베리는 입쎈, 비외른쏜, 안데르쎈과 함께 북유럽문학이 낳은 세계적인 작가의 한사람으로 알려지게 되였다.

12세기 중엽에 스웨리예의 침략을 당한 핀란드(원래이름은 스오미)는 19세기초까지 6세기동안이나 스웨리예에 예속되여있었으며 1809년부터는 짜리로씨야의 통치를 받게 되였다.

19세기에 들어와서야 핀란드에서는 독립운동이 활발히 벌어지는 가운데 핀란드말로 된 민족문학을 창조하려는 지향이 높아지게 되였으며 이러한 환경속에서 진보적랑만주의문학이 발생하였다.

여기서 중요한 역할을 한것이 뢴로트(1802—1884)였다. 헬싱키종합대학 교수였던 민속학자 뢴로트는 각지에서 전승되여오던 구전시가를 10여년동안이나 수집편찬하여 시 《까레발라(영웅의 나라)》(1835, 1849)를 발표함으로써 핀란드인민들의 애국심을 고취하고 핀란드민족문학의 기초를 쌓아놓았다.

이 시기 핀란드문학협회(1831)가 조직되여 뢴로트와 함께 토펠리우스(1818—1898), 루네베리(1804—1879), 핀란드말운동의 제창자 스넬만 등 이름난 작가들이 이 협회에 들어가 활동하였다. 토펠리우스는 서정시인, 소설가로서뿐

아니라 《동화》, 《어린이들을 위한 독본》을 내놓음으로써 이름난 동화작가로 되였으며 핀란드동화의 아버지로 불리웠다. 루네베리도 대표작인 시집 《기수 스톨이야기》(1860)를 비롯하여 조국 핀란드와 민족에 대한 아름다운 시를 많이 씀으로써 핀란드인민들의 조국애를 고취하였다.

핀란드사실주의문학의 개척자는 끼비(1834—1872)이다. 그는 《까레발라》에 나오는 전설적장수를 주인공으로 한 비극 《클레르보》(1864), 농민생활을 반영한 희극 《구두쟁이 눔비》(1864), 당대 현실을 보여준 장편소설 《일곱형제》(1870)를 다 핀란드말로 창작하여 첫 핀란드사실주의작가로 되였다. 끼비의 뒤를 이어 녀류작가 깐트(1844—1897)도 1880년대에 장편소설 《로동자의 안해》(1885)를 비롯한 작품들을 창작하여 핀란드문학에서 비판적사실주의를 확립하였다. 아호(1861—1921)역시 장편소설 《목사의 안해》(1893) 등에서 핀란드의 현실을 사실주의적으로 묘사하였다. 시문학에서는 에르끄, 크람쑤 등 시인들이 그 뒤를 따랐다.

2) 노르웨이문학과 입쎈

노르웨이는 14세기말(1397)부터 단마르크에 예속되여있었다. 당시 단마르크는 북유럽의 세 나라를 지배하고있었다. 하여 이 시기 노르웨이문학은 암흑시대를 겪었다.

이 시기에는 단마르크어가 공용어로 되여 노르웨이어에 기초한 문학은 제대로 발전할수 없었다. 이 기간에 문학사에 흔적을 남긴 작가들로는 애국주의정신을 표현한 베이에르, 북국의 나팔로 알려진 다쓰(1647—1707), 다방면적인 작가, 학자였던 홀베르(1684—1754) 등이 알려져있다.

18세기에 이르러 독립운동이 앙양되고 계몽주의사조가 들어오면서 단마르크의 쾨뻰하븐에 노르웨이협회가 조직됨으로써 노르웨이민족문학에 대한 지향이 강화되였다.

19세기에 들어와서 민족적감정은 더욱 고조되였다. 1814년 노르웨이가 단마르크로부터 떨어져나와 스웨리예와 련합하여 독립에로의 길을 개척하면서부터 노르웨이문학발전에서는 새로운 국면이 열리였다.

여기서 큰 역할을 한것이 첫 민족시인 웨르게란(1808—1845)이였다. 그는 단마르크와 다른 독자적인 노르웨이민족문학을 창조하기 위하여 정열적으로 활동하였다. 그러나 그의 활동은 웰하벤(1807—1873)을 비롯한 보수적작가들에 의하여 반박당했다. 이들은 사대주의적립장에서 단마르크를 따를것을 주장하였다.

그리하여 문단에서는 노르웨이파와 친단마르크파로 갈라져 론쟁이 계속되였으나 점차 단마르크와는 다른 독자적인 민족문학을 창조하는 길로 나갔다.

이 시기 아스비외른쎈(1812—1885)을 비롯한 랑만주의작가들이 민화를 발굴수집하여 《노르웨이민화집》을 내놓음으로써 민족문학형성에 이바지하였다. 언어학자 오쎈은 단마르크어와 비슷한 상류층의 공용어 리크스몰 대신 순노르웨이어인 라스몰을 쓰는 운동을 일으켜 새 노르웨이어의 기초를 쌓았다. 웨르게란의 누이동생 카밀라 콜레트(1813—1895)는 장편소설 《장관의 딸들》(1855)을 발표하여 녀성해방을 주장해나섰다.

노르웨이문학은 19세기 40—70년대에 입쎈과 비외른쏜 두 대가를 배출함으로써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지게 되였다. 입쎈은 《인형의 집》을 비롯한 이름난 사회극을 련이어 내놓음으로써 노르웨이문학의 국제적지위를 높였다.

비외른쏜

비외르스트예르네 비외른쏜(1832—1910)은 스웨리예로부터의 독립을 위한 노르웨이인민들의 투쟁이 앙양되던 환경속에서 자라나 대학시절부터 독립운동과 연극개혁운동에 적극 참가하였으며 대학을 중퇴하고 전문적인 극창작활동을 벌렸다.

그는 특히 19세기 70년대 중엽에 노르웨이에서 사회적운동이 앙양되던 시기 그 영향밑에 보다 절박한 사회적문제를 주제로 현대부르죠아사회의 모순을 비판한 극작품들을 내놓았다. 이 시기에 그가 창작한 《파산》(1875), 《편집원》(1875), 《장갑》(1883) 등의 희곡들에서는 부르죠아지들의 파렴치성과 비렬성, 봉건군주의 죄행 등 일련의 사회적문제들이 상정

되였다.

그중에서도 《장갑》은 한 처녀와 부자집아들의 약혼을 둘러싸고 벌어진 사건을 통하여 재산에 대한 탐욕, 극단한 개인리기주의에 기초한 부르죠아사회의 가정 및 결혼관계, 인간관계의 이모저모를 폭로하였다. 그의 희곡가운데서 2부작 《사람의 힘을 초월하여》(1883—1892)도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있다. 그는 희곡뿐아니라 《도시와 부두우에 휘날리는 기발》(1884)을 비롯한 여러편의 장편소설들도 창작하였다.

작가는 19세기말에 스웨리예로부터 노르웨이의 완전독립을 위한 투쟁에 적극 참가하였으며 1905년에 노르웨이의 독립을 이룩하는데 한몫하였다.

그는 비록 사회적모순으로부터의 출로를 계몽과 도덕적완성에서 찾았으나 스웨리예의 지배밑에 있었으며 단마르크문화의 영향을 강하게 받고있던 노르웨이에서 독자적인 민족문화를 창조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추동함으로써 노르웨이민족문학의 발전에 이바지하였다.

노르웨이에서는 입쎈, 비외른쏜의 두 문호에 뒤이어 장편소설 《길리예의 가족》(1883)을 쓴 요나스 리(1833—1908), 《일하는 사람들》(1881) 등을 내놓아 현실을 예리하게 비판한 히엘란(킬란드, 1849—1906)이 출현하여 소설에서도 성과를 거두었다. 이 네 작가들을 노르웨이문학의 4대가로 부르고있으며 이들에 의하여 노르웨이비판적사실주의문학이 확립되였다. 같은 시대에 란스몰말로 쓴 농민작가 가르보르(1851—1924)와 극작가 하이베르(1857—1929)도 활동하였다.

19세기 80년대 비판적사실주의문학이 발전하던 때에 노르웨이문단에도 자연주의가 대두하였다. 그 대표자가 소설가 함손(1859—1952)이였다. 자연주의에 뒤이어 90년대에 신랑만주의와 퇴폐주의문학이 나타나 시인 오브스트펠데르, 소설가 크라그 등이 함손과 함께 반사실주의의 길로 나갔다.

입쎈과 희곡 《인형의 집》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희곡은 생활을 극적방식으로 반영하는 문학가운데서 가장 대표적인 형태입니다.》

노르웨이가 낳은 세계적인 희곡작가 헨리크 입쎈(1828—1906)은 남부의 해안도시 쉬엔에서 부유한 상인의 아들로 태여났으나 어릴 때 집안의 파산으로 일찍부터 세파에 부대껴 생활한것으로 하여 고독하고 반항적이며 부접이 없는 성격을 가지게 되였다.

그는 15살때 집을 떠나 시골도시의 약국에서 견습생으로 일하였다. 그때 그는 1845년 2월혁명에 대한 충격적인 소식을 듣고 닉명으로 력사극 《카틸리나》(1849)를 썼는데 그것이 그의 처녀작으로 되였다.

그후 그는 수도에 올라가 대학예비과에서 공부하였으나 학비난으로 대학공부를 단념하고 극창작의 길에 들어섰다. 그는 12년동안 여러곳에서 극장의 무대감독, 연출가로 일하면서 여러편의 희곡, 주로 애국적주제의 력사극을 내놓았으나 성공하지 못하였다.

그후 그는 생활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1863년에 조국을 떠난 후 근 30년동안 타향살이를 하였다.

도이췰란드를 거쳐 이딸리아로 간 그는 남국의 맑은 하늘과 고대그리스, 로마문화에 접하면서 창작적열정이 불타올라 희곡 《브란》(1866)을 창작하여 내놓았다. 이어 파우스트적인 넋의 편력극인 《페르 균트》(1867)를 탈고한 다음 6년이나 걸린 력작 《황제와 갈리레아인》(1873)을 내놓았다.

이런 과정에 그의 극작품들은 사상적으로나 예술적으로 원숙해졌으며 그의 명성은 나날이 높아갔다. 그는 첨예한 현실문제에 주목을 돌려 《청년동맹》(1869), 《사회의 기둥》(1877), 《인형의 집》(1879), 《유령》(1881), 《민중의

원쏘》(1883), 《물오리》(1884), 《헨다 가브렐》(1890) 등 힘있는 사회극들을 거의 2년에 한편씩 내놓았다. 이 작품들에 이르러 그의 사실주의는 절정에 이르렀으며 그의 극작품은 발표될 때마다 온 유럽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그는 오래동안의 타향살이를 끝내고 고국에 돌아온 다음에도 《건축가 쏠네쓰》(1892), 《작은 욜프》(1894) 등을 내놓았으며 마지막작품인 《우리 죽은 사람들이 눈을 뜰 때》(1898)를 쓰고 생을 마쳤다. 그의 말기 작품들에서는 부르죠아사회에 대한 비판이 계속되였으며 기만과 허위로 충만된 부르죠아사회개선의 가능성에 대한 환멸이 표현되였다.

그의 극작품들은 비판적사실주의문학일반이 가지고있던 제한성에서 벗어나지 못했으나 부르죠아지의 부패성과 파렴치성, 위선과 탐욕성을 예리하게 폭로비판한 진보적인 내용과 극작술에서 이룩한 혁신적성과로 하여 노르웨이와 유럽사실주의극문학발전에 크게 이바지하였다.

그의 대표작인 희곡 《인형의 집》은 자본주의의 모순이 격화되고 로동운동과 스웨리예의 압제를 반대하는 민족해방운동이 새로운 단계에 들어서고있던 19세기 후반기 한 부르죠아가정의 몰락과정을 통하여 허위와 위선, 개인주의에 기초하고있는 부르죠아사회의 모순을 폭로하고 녀성들의 사회적평등에 관한 문제를 제기한 작품이다.

주인공 노라는 부유한 집에서 태여나 온 집안의 사랑을 받고 인형처녀로 자라났으며 지금은 변호사 헬메르의 안해가 되여 아름답고 쾌활한 인형처럼 남편의 사랑을 받고있다. 그는 이전에 남편이 결핵에 걸렸을 때 료양비를 마련하기 위해 친아버지의 수표를 위조하여 악질고리대로부터 빚을 진 일이 있었다. 그 빚을 무는것이 그에게서 큰 고민거리였으나 그는 자기가 남편의 생명을 구원한것을 자랑으로 여기고있다.

헬메르는 다년간 일을 잘해온것으로 하여 새해부터 은행지배인으로 일하게 되며 그들부부앞에는 밝은 전망이 펼쳐지게 된다. 그런데 청렴한 헬메르가 지배인이 되면 일자리를 잃을가봐 겁을 먹은 고리대(그 은행 직원이다.)가 노라의 위조수표문제를 들고나와 그들부부를 사회적으로 매장하겠다고 협박해나선다.

노라는 그를 해고하지 않도록 남편에게 간청하지만 남편은 듣지 않는다. 궁지에 빠진 노라는 일이 잘못되여 남편이 자기 지위를 잃게 되더라도 사랑하는 안해가 남편을 구원하기 위하여 범한 죄라는것을 알게 되면 용서해주지 않겠는가 하고 마지막기대를 건다. 그러나 기적은 일어나지 않는다. 안해의 위조수표사건을 알게 된 헬메르는 노라를 저주하면서 자기가 사회적으로 매장된다고 비탄에 잠기며 부부간의 관계를 끊으려고 한다.

하지만 노라의 헌신적인 노력과 그의 벗의 도움, 고리대의 마음의 변화로 하여 위기는 수습된다. 그리하여 자기의 명예와 체면을 유지할수 있게 된 헬메르는 몹시 기뻐하면서 또다시 안해의 기분을 살피면서 부부관계를 회복하려고 한다.

그러나 이미 남편의 사랑이 어떤것인가를 알게 되고 자기가 단지 귀여운 인형으로 취급되고있을뿐이라는것을 체험한 노라는 자기를 붙드는 남편을 뿌리치고 사람답게 살기 위해 어두운 밤에 집을 뛰쳐나간다.

희곡은 노라와 헬메르의 성격, 그들사이의 인간관계를 통하여 녀자를 남자의 롱락물로, 인형으로밖에 취급하지 않는 극단한 개인리기주의에 기초한 부르죠아법과 도덕의 허위와 위선을 폭로하고 부패한 부르죠아국가기구, 법률에 얽매여 노예적운명을 강요당하고있는 녀성들의 비참한 처지를 동정하였으며 사회적해방과 평등에 대한 그들의 념원을 반영하였다.

특히 헬메르의 요구를 단호히 물리치고 인형의 집을 뛰쳐나오는 노라의 성격에는 부르죠아사회의 구속에서 벗어나 자기의 인간적존엄을 지키고 참다운 사회적평등을 이룩하려는 녀성들의 지향이 생동하게 구현되여있다. 작품은 등장인물들의 호상관계를 통하여 돈에 의하여 움직이는 부르죠아사회생활의 악덕과 모순도 폭로하고있다.

희곡은 심리묘사에서 무대극의 양상에 맞는 극작술을 특색있게 살리고있는것이라든가, 자연스럽고 생활적인 대사속에 첨예한 극성을 체현시키고있는것 등 일련의 예술적특징도 보여주고있다.

희곡은 사회악을 없애고 그로부터 벗어날수 있는 옳은 방도를 제시하지 못했으며 매개 등장인물들을 그가 속하고있는 계급의 전형으로, 개성적으로 뚜렷하게 보여주지 못한 제한성을 가지고있으나 당시 절박하게 나서고있던 사회적문제를 제기하고 다양한 인간관계를 통하여 사회의 부정면을 날카롭게 단죄한 폭로의 깊이와 성격과 환경, 개성적인 대사창조에서 보여준 전형화의 기교로 하여 사실주의적사회극의 걸작으로 공인되고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지게 되였다.

《인형의 집》이 발표되자 당시에 세력이 확대되고있던 부인해방론자들이 박수갈채로 환영한 반면에 가정과 미풍량속을 파괴한다는 비난이 세차게 일어나 론쟁이 치렬하게 벌어졌으며 수습할수 없는 상태에 빠졌다고 한다. 희곡공연도 한동안 금지되였다. 이것은 그만큼 이 희곡의 문제성이 크고 견인력이 강했다는것을 보여준다.

3) 단마르크문학과 안데르쎈

19세기초에 단마르크에서도 랑만주의문학이 발생하였다.

단마르크에서 진보적랑만주의문학을 확립한것은 북유럽시의 왕으로 불리운 시인 윌랜슐래게르(1779－1850)였다. 그는 1805－1809년에 관비로 도이췰란드, 프랑스, 이딸리아 등 나라들을 류학하고와서 그 기간에 교제한 괴테, 스딸부인 등의 영향밑에 단마르크에서 랑만주의운동을 일으켰다. 낡은 경향의 대표적작가 바게쎈과의 치렬한 론쟁은 그 표현으로 되였다. 작가는 처음 시창작에 열중하다가 곧 극창작으로 넘어갔으며 26편의 비극을 비롯하여 서정시, 서사시, 비극, 가극, 동화극 등 여러 형태의 작품들을 많이 창작하였다. 그의 창작적특징은 영국과 프랑스문학의 영향밑에 있던 당시 단마르크문학에서의 도식적인 합리주의적경향을 반대하고 애국주의와 랑만주의정신이 관통된 작품을 들고나온것이며 그 소재를 북유럽의 전설과 옛말 등 구전문학과 력사에서 찾은것이다. 그의 대표작은 서사시 《황금뿔피리》(1802)와 《북유럽시집》이다. 윌랜슐래게르의 창작은 단마르크에서 민족문학의 확립에 이바지하고 후세 단마르크작가들에게 큰 영향을 주었다.

윌랜슐래게르의 뒤를 이어 스코트풍의 력사소설가 잉게만(1789－1862), 바이런풍의 열혈시인이며 단마르크소설의 시조로 불리우는 블릭케르(1782－1848), 극작가 하이베르(1791－1860), 동화작가 안데르쎈 등이 련이어 등장하여 단마르크문학의 황금시대를 이루어놓았다.

19세기 70년대초에 브란데스(1842－1927)가 귀국하여 쾨뻰하븐종합대학에서 《19세기 주요문학사조》를 강의하던 시기에 단마르크문학은 현실과 더욱 접근하고 더욱더 사실주의적방향으로 나갔다. 그는 북유럽문학이 안일과 침체속에 있다고 비판하면서 적극적인 평론활동을 벌려 북유럽문학이 사실주의의 길로 나가도록 힘있게 추동하였다.

그후 《마리 그루베부인》(1876), 《닐스뤼네》(1880)를 쓴 소설가 야끄브쎈(1847－1885), 인민들의 생활과 바다를 노래한 시인 드라크만(1846－1908), 농민들의 벗으로 된 소설가 폰토피단(1857－1943) 등이 활약하여 단마르크의 사실주의문학을 풍부하게 만들었다.

19세기 단마르크가 낳은 세계적인 문호는 안데르쎈이다.

안데르쎈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동화나 아동소설은 어린이들이 가장 사랑하는 문학형태입니다.》

안데르쎈은 단마르크와 북유럽의 범위를 벗어나 세계적으로 널리 사랑받고있는 이름난 동화작가이며 단마르크인민이 자랑으로 여기고있는 재간있는 문호이다.

한스 크리스티안 안데르쎈(원발음:아네르쎈, 1805—1875)은 외진 섬의 가난한 구두쟁이의 아들로 태여나 소학교도 제대로 다니지 못한채 돈 한푼없이 수도에 올라가 피타는 노력끝에 세계가 아는 대가로 되였다. 이에 대해서는 그의 자서전 《나의 생애에 대한 이야기》(1855)를 통하여 상세하게 알수 있다.

그러한 어려운 생활속에서 그가 지닌 뜨거운 인간애가 풍부한 체험, 천성적인 기지와 유모아, 밝은 래일에 대한 동경 등과 융합되고 랑만적인 기운과 사실주의적인 현실묘사가 결합되여 동화에서 안데르쎈의 특기가 발휘되였다.

그는 유명한 동화뿐아니라 장편소설 《즉흥시인》(1835), 단편소설집 《그림없는 그림책》(1840)과 같은 소설들을 써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한때 그의 벗들과 평론가들로부터 이처럼 훌륭한 소설을 쓸수 있는 작가가 무엇때문에 동화와 같은 거짓이야기를 쓰는가 하는 비난이 비발치듯 하여 작가가 동화창작을 단념할 생각까지 한 일이 있었다. 당시는 아직 동화의 문학적가치가 인정되지 못했던 때였다.

그러나 타고난 동화작가였던 그의 머리속에서 련이어 동화적착상이 솟아나 끝내 결단을 내려 동화창작에 전념함으로써 근대동화의 확립자, 최대의 동화작가로 되였다. 이것은 그 자신을 위해서뿐아니라 동화문학의 발전과 어린이들을 위해 다행스러운 일이였다고 할수 있다.

그가 한생 쓴 동화는 길고 짧은것을 합해서 150편정도 되는데 그 량과 질, 다양성에 있어서 세계에서 첫손꼽히는 동화작가로 된다.

대표적인 동화들은 《인어공주》, 《들판의 백조》, 《성냥 파는 아이》, 《임금의 새옷》, 《못 생긴 새끼오리》, 《엄지손가락공주》, 《마차를 타고온 12명의 손님》 등을 들수 있다.

《성냥 파는 아이》(1845)는 섣달 그믐날에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남의 집 한쪽구석에 몸을 웅크리고 앉아 추위에 떨면서 성냥을 팔다가 얼어 죽은 어린 소녀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있다.

동화는 추위와 배고픔에 떠는 소녀의 가엾은 모습, 그 누구도 성냥을 사주지 않는 랭랭한 분위기, 부자들이 살고있는 으리으리한 벽돌집, 그들이 먹는 진수성찬, 화려한 옷 등의 대조적묘사와 처녀애의 비극적죽음을 통하여 당시 단마르크사회의 계급적불평등과 황금만능의 착취사회의 가혹성을 폭로하였다. 동화는 또한 성냥 파는 어린이가 성냥을 켤 때마다 펼쳐지는 환상적장면을 통하여 자유와 행복에 대한 단마르크어린이들과 인민들의 지향을 잘 보여주었다.

작품은 그 진보적내용과 함께 현실적인것과 환상적인것의 결합, 세부묘사의 회화성과 풍부성 등 예술적특성으로 하여 안데르쎈의 대표적인 동화의 하나로 알려져있다.

《임금의 새옷》에서는 오직 자기의 몸치장에만 관심이 높은 어리석고 무능한 왕에 대한 이야기가 펼쳐진다.

있는 돈을 죄다 몸치장에 바치고 늘 맵시만 보던 왕은 두 거짓말쟁이에게 넘어가 그들이 짰다는 신기한 옷감으로 만든 새옷을 입고 알몸으로 거리로 나섰다가 웃음거리가 된다.

동화에서 늘 새옷을 갈아입으면서 몸치장에만 신경을 쓰는 왕의 형상은 나라의 정사와 인민들의 생활에 대해서는 아랑곳하지 않고 사치하고 부화방탕한 기생충적인 생활을 일삼는 통치배들의 타락한 모습을 일반화하고있다.

짤막하고 흥미있는 동화이야기속에 깊은 문제성을 담은 이 작품은 안데르쎈이 창작한 독창적인 동화의 하나로서 널리 알려져있다.

동화적내용의 풍부성과 형식의 혁신성으로 두드러진 안데르쎈의 동화창작은 단마르크뿐아니라 유럽과 세계동화문학의 발전에 크게 이바지하였다.

Ⅵ. 20세기 유럽문학

1. 비판적사실주의문학과 함께 사회주의적 사실주의문학이 발전한 유럽문학

시대적배경

20세기는 유럽의 력사발전에서 획기적인 전환이 일어난 격동적인 세기였다.

무엇보다도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서 커다란 성과가 이룩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사회주의위업은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정당한 위업이며 인류가 사회주의에로 나아가는것은 막을수 없는 력사발전의 법칙입니다.》

인민대중은 장구한 기간 착취와 압박이 없는 자주적인 새 사회를 념원하여왔으며 그 실현을 위하여 간고한 투쟁을 벌려왔다. 그 과정에 사회주의, 공산주의학설인 맑스주의가 발생하였으며 그것을 지침으로 하여 투쟁한 결과 1917년 로씨야에서 사회주의10월혁명이 승리할수 있었다.

특히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억압받고 천대받던 인민대중이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 등장하는 새로운 시대의 요구를 깊이 통찰하시고 위대한 주체사상을 창시하심으로써 자주성을 위한 인민대중의 투쟁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발전시키시였으며 인류력사발전의 새시대, 자주성의 시대를 열어놓으시였다.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이 창시됨으로써 인민대중은 비로소 혁명의 참된 진리를 가지게 되였으며 세계의 주인이 되여 자기 운명을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개척해나갈수 있게 되였다.

제2차 세계대전후 일부 아시아나라들과 함께 동유럽나라들이 사회주의길로 나가게 됨으로써 사회주의는 세계적범위로 확대되였으며 력사적으로 짧은 기간에 자본주의하에서는 몇백년이 걸려도 달성할수 없는 커다란 사회경제적발전을 이룩하였다. 이것은 자주성을 위한 세계력사의 흐름에서 중요한 사변으로 되였다.

20세기는 또한 유럽의 력사발전과정에서 자본주의세계의 모순이 더욱 격화되고 정치경제적으로 심각한 위기에 처하였으며 현대제국주의가 파멸의 위기에서 벗어나보려고 발악한 시기이기도 하였다.

제1차 세계대전과 제2차 세계대전은 자본주의렬강들의 격화된 모순과 대립의 폭발이였다. 세계제국주의는 제2차 세계대전과정에 심대한 타격을 받았다. 파쑈도이췰란드와 이딸리아 같은 전패국들은 물론 영국과 프랑스를 비롯한 련합국측의 자본주의렬강들도 전패국들에 못지 않게 큰 피해를 입었다. 또한 제2차 세계대전의 결과 민족해방운동이 전례없이 앙양되고 식민지체계가 붕괴됨으로써 제국주의는 치명적인 타격을 받았다.

이러한 위기에서 벗어나보려고 자본주의렬강들은 사회주의를 반대하고 자본주의적착취와 략탈을 강화하기 위하여 결탁하였으며 제국주의자들은 더욱더 반동화되여 발악하였다.

이러한 시대를 배경으로 하여 20세기 유럽문학은 지난 시기와는 다른 새로운 특징을 보여주었다.

사회주의적 사실주의문학

20세기 유럽문학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지난시기의 문학과는 달리 력사무대에 등장한 로동계급과 근로인민대중이 자기의 혁명적문학, 사회주의적사실주의문학을 창조하고

발전시킨데 있다.

여기서 중요한 역할을 한것은 레닌이였다. 레닌은 제국주의와 프로레타리아혁명의 시대에 맞게 맑스, 엥겔스의 미학리론을 더욱 발전풍부화시켰으며 새로운 사회주의적문화를 건설하던 첫 시기에는 론문 《당조직과 당출판물》(1905) 등을 발표하여 로동계급의 당의 정확한 문학예술정책과 로선을 제시함으로써 맑스주의문예리론을 새로운 단계에 올려세웠다.

사회주의적사실주의문학은 자본주의가 제국주의단계에 들어서고 사회주의혁명이 일정에 오른 력사적시기인 20세기초에 자본주의제도를 때려부시고 착취와 압박이 없는 새 사회를 건설하려는 로동계급의 요구를 반영하여 나왔다. 이 문학은 로동계급을 비롯한 인민대중의 생활과 투쟁을 혁명적발전속에서, 력사적구체성속에서 진실하게 그리는것을 기본요구로 하며 과학적이며 정당한 창작방법인 사회주의적사실주의창작방법에 의거한 새로운 문학이다.

인류문예사에서 처음으로 출현한 사회주의적사실주의가 제기하였던 력사적과제는 자본의 철쇄와 제국주의예속에서 근로인민대중을 해방하는데 복무하는것이였다. 선행한 사실주의문학을 비판적으로 총화한데 기초하여 나온 사회주의적사실주의문학은 맑스—레닌주의세계관에 기초하여 생활의 본질과 력사발전의 합법칙성을 진실하게 반영함으로써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수행에 커다란 기여를 하였다. 사회주의적사실주의문학의 출현은 로동계급의 혁명적문학, 인류의 진보적문학발전에서 획기적의의를 가지는 력사적사변이였다.

유럽에서 사회주의적사실주의문학을 개척한 사람은 장편소설 《어머니》(1906)를 내놓은 로씨야의 고리끼였다.

고리끼와 함께 쎄라피모비치, 알렉쎄이 똘스또이, 오스뜨롭스끼, 파제예브, 숄로호브를 비롯한 수많은 로씨야작가들이 사회주의적사실주의에 기초하여 혁명적문학작품들을 창작하였다. 장편소설 《철의 흐름》, 《강철은 어떻게 단련되였는가》, 《고난의 길》, 《고요한 돈》, 서사시 《울라지미르 일리이치 레닌》, 희곡 《락천적비극》 등은 쏘베트문학이 낳은 고전적작품들이다.

사회주의적사실주의문학은 유럽자본주의나라들의 혁명적작가들에 의해서도 창작되였다. 프랑스의 아라공, 도이췰란드의 제게르스, 영국의 숀 오케이씨, 단마르크의 넥쇠, 체스꼬의 올브라흐뜨를 비롯한 적지 않은 작가들이 자기 작품에 사회주의적사실주의를 구현하기 위하여 애썼다. 그들에 의하여 《프로레타리아트의 딸 안나》, 《일곱번째 십자가》, 총서 《현실세계》에 속한 장편소설들 등 여러 작품들이 창작되였다.

유럽의 사회주의적사실주의문학은 제2차 세계대전의 결과 동유럽에 많은 사회주의나라들이 출현하여 사회주의가 세계적인 범위로 확대되면서부터 진보적문학의 주류로 발전하게 되였다.

이전 쏘련에서는 페진, 레오노브, 씨모노브, 뽈레보이, 챠꼽스끼, 본다레브를 비롯한 많은 작가들이 사회주의적사실주의에 기초한 혁명적작품창작에서 성과를 거두었다. 3부작장편소설 《첫 기쁨》, 《류다른 여름》, 《우등불》, 장편소설 《참된 사람의 이야기》, 《로씨야의 숲》, 《뜨거운 백설》, 《봉쇄》 등을 그 례로 들수 있다.

도이췰란드에서는 제게르스와 함께 브레텔, 베헤르, 쯔와이그, 와이네르트와 같은 작가들이, 동유럽에서는 뽈스까의 이와슈끼에비츠, 브로니엡스끼, 크루츠꼽스끼, 이전 체스꼬슬로벤스꼬의 푸치끄, 네즈발, 뿌이마노바, 로므니아의 싸도뱌누, 아르게지, 벌가리아의 뽈랴노브, 까라슬라보브, 마쟈르의 잘까 마떼와 같은 작가들이 사회주의적사실주의문학의 발전에 이바지하였다.

비판적사실주의문학

20세기 유럽문학에서 특징의 다른 하나는 자본주의나라들에서 비판적사실주의문학이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계속 발전한것이다. 이 시기 비판적사실주의문학은 선행한 사실주의문학보다 높은 전형화의 수준에서 현실을 진실하게 반영하였지만 사회악을 예리하게 폭

로비판하는데 그치고 그 근원과 그것을 없애기 위한 옳바른 출로를 제시하지 못하였다. 비판적사실주의문학의 이러한 제한성은 19세기의 비판적사실주의문학이나 20세기의 비판적사실주의문학에 다 있었다. 그러나 20세기의 비판적사실주의문학은 시대의 변화를 반영하여 그전시기와는 다른 새로운 특징을 보여주었다.

그것은 20세기에 들어와 제국주의를 반대하며 자주성을 옹호하기 위한 인민들의 투쟁이 높아지고있던 현실에 맞게 이 문학에서도 자주성에 대한 지향이 점차 강화되였기때문이다.

무엇보다도 적지 않은 작가들이 종전과 같은 중립의 립장을 버리고 사회주의사상에 공감을 표시하며 그에 접근해가는 경향을 보이였다. 도이췰란드의 하인리히 만, 프랑스의 롤랑과 아나똘 프랑스, 영국의 올드릿지 등을 그 례로 들수 있다.

또한 반제, 반미, 반파쑈운동, 평화옹호, 민주주의운동에 참가하고 민족해방운동과 로동운동에 동조해나선 작가들이 늘어났다. 영국의 그린, 스노우, 프랑스의 라누 메를르, 이딸리아의 파지모도 등이 그러한 작가들이다.

다른 한편 유럽 비판적사실주의작가들가운데는 자기의 립장을 바꾸지 않고 종전부터 내려오던 비판적사실주의의 테두리안에서 맴돌아치던 작가들도 많았다. 이러한 작가들은 주로 현대자본주의사회의 모순을 이러저러하게 반영한 작품들을 창작하였는데 사회생활에서 보다 절실하고 의의있는 문제를 제기하지 못하고 협소한 가정세태생활이나 개인의 체험묘사에 치중하거나 현실로부터 유리된 추상적인 철학도덕적 문제에 매달림으로써 시대의 요구와 인민들의 지향을 반영하지 못하고 제자리걸음만 하였다. 도이췰란드의 토마스 만, 영국의 골즈워디, 프랑스의 바쟁, 이딸리아의 모라비아 등이 이 계렬에 속한다.

비판적사실주의문학은 이와 같이 여러가지 복잡한 문제를 안고있지만 재치있는 작품들을 수많이 내놓음으로써 20세기 유럽의 진보적문학발전에 크게 이바지하였다.

부르죠아문학사조

20세기 유럽문학의 다른 하나의 특징은 유럽자본주의나라들에서 각양각색의 부르죠아문학사조, 류파들이 대대적으로 류포되여 마약과 같이 사람들의 건전한 정신을 마비시키고 사람들을 몽매하게 만드는 해독적인 작용을 한것이다.

자본주의나라들에서 형형색색의 부르죠아문학사조, 류파들이 대대적으로 류포된것은 자본가들이 근로대중의 자주적인 사상의식을 마비시키고 사람들을 자본주의적착취제도에 순종시키기 위하여 반동적이며 반인민적인 사상과 문화, 썩어빠진 부르죠아생활양식을 발광적으로 퍼뜨린것과 관련된다. 그것은 또한 현대제국주의의 반인민성과 부패성을 보여주는 자본주의사회의 기본특징인 정치생활에서의 반동화, 정신문화생활에서의 빈궁화, 물질생활에서의 기형화의 문학적표현이기도 하였다.

20세기 유럽 부르죠아문학사조의 주되는 조류의 하나는 자연주의였다.

19세기 후반기 프랑스를 비롯한 서유럽나라들에서 발생하여 널리 류포된 자연주의는 20세기에 들어와서도 부르죠아문학에서 여전히 큰 자리를 차지하였다. 로씨야의 아르찌바쉐브, 영국의 로런스를 비롯한 자연주의작가들은 인간의 동물적본능을 자연주의적으로 묘사한 작품들을 들고 나와 생활을 외곡함으로써 자본주의사회의 모순을 가리우고 사람들의 계급의식을 마비시키는 해로운 작용을 하였다.

20세기 유럽부르죠아문학사조의 주되는 조류의 다른 하나는 초현실주의(슈르레알리즘)였다.

초현실주의는 20세기 20년대 서유럽에서 자본주의의 전반적위기에 겁을 먹은 부르죠아지의 기분을 반영하여 프랑스에서 발생하였으며 그후 유럽자본주의나라들에 널리 퍼졌다. 초현실주의라는 말은 1924년 프랑스의 부르죠아시인 브르똥이 잡지 《초현실주의혁명》을 발간한것을 계기로 나왔다.

초현실주의를 들고나온 작가들은 반동적인 주관관념론, 특히 프로이드주의에 의거하여 객관적 현실과 그 인식의 가능성을 부인하고 문학은 인

간의 리성과 론리로써는 깨달을수 없는 그 어떤 초현실의 세계를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창작의 원천을 악몽, 착각, 동물적본능 등 온갖 잠재의식속에서 찾았다. 이로부터 그들의 작품에는 리성을 잃은자들의 병적인 환각과 꿈, 기형적인 인간과 사물현상이 그려졌다.

초현실주의자들은 자기들의 그릇된 주장을 마치도 부르죠아사회에 이미 있는 질서와 사회적의식형태를 파괴하고 세계를 개건하는 그 어떤 혁명인듯이 떠들어댔다. 그러나 그것 역시 인민대중의 계급적각성과 민족자주의식을 마비시키기 위한 제국주의자들의 선전수단에 불과하였다.

초현실주의의 대표적작가로 브르똥, 아르또, 쑤뽀, 뻬레 등을 들수 있으며 그 대표작은 브르똥의 장편소설 《나쟈》(1928)이다.

20세기 유럽부르죠아문학분야에서 널리 류포된 사조의 다른 하나는 모더니즘이다.

형식주의의 최첨단인 모더니즘은 형형색색의 류파를 이루고있는데 그것은 다 사람이 리해할수 없는 주관의 세계를 추상적형식에 담아 제멋대로 그려냄으로써 문학의 사상적내용을 흐리게 하고 인식교양적기능을 마비시킨다.

앞에서 언급한 초현실주의도 결국은 모더니즘의 한 류파라고 볼수 있다.

20세기에 유럽 자본주의나라들에 류포된 모더니즘의 류파에는 상징주의, 다다이즘, 미래주의, 주지주의, 의식의 흐름, 반소설, 반연극을 비롯한 오가잡탕의것들이 있었다.

19세기 후반기에 발생한 상징주의는 20세기에 들어와 도이췰란드의 게오르게, 벨지끄의 매때를랭끄와 같은 작가들에 의하여 계속 류포되면서 제국주의단계에 와서 생겨난 잡다한 부르죠아퇴페주의문학사조들과 류파들의 뿌리로 되였다.

다다이즘은 제1차 세계대전시기인 1916년에 스위스에서 발생하고 1916—1922년에 걸쳐 프랑스, 도이췰란드 등의 서유럽나라들에 퍼졌다. 쯔아라, 귤젠베크를 비롯하여 다다이즘을 들고나온자들은 《우리들은 모든 원칙을 반대한다》, 《다다는 아무것도 표시하지 않는다》, 《예술은 중요하지 않다》 등의 구호밑에 문학예술창작의 사실주의적원칙들을 무시하고 모든 문화유산들을 모조리 파괴할것을 주장하였으며 절대예술을 내와야 한다고 떠벌이였다.

그들은 자기들의 주장이 예술의 부르죠아적성격을 반대하는 항의로 된다고 하였지만 그것은 예술일반을 반대하고 문학예술의 사상성과 예술성을 거부하는 무정부주의적폭동에 지나지 않았다.

다다이즘은 그후 이 류파에 속했던자들의 대부분이 초현실주의, 표현주의 기타 퇴페적인 부르죠아형식주의류파로 넘어감으로써 1923～1924년경에 사라지고말았다.

미래주의는 1909년에 빠리에서 이딸리아의 반동시인 마리넷띠가 신문 《피가로》지상에 《미래파선언》을 발표한 후 이딸리아, 프랑스, 로씨야 등 자본주의나라들에 퍼졌으나 오래가지 못하고 곧 쇠퇴하였다.

미래주의는 새로운 미의 창조, 미래의 예술을 운운하면서 이미 존재하는 모든 미학규범과 진리를 부정하고 지난날의 모든 문학예술유산의 파괴를 주장하였으며 기계류의 움직임, 속도, 소음등에서 아름다움을 찾는다는 력동주의를 부르짖었다.

이 파에 속한 작가들은 새로운 혁신의 간판밑에 상징적인것을 바탕으로 하여 누구도 알수 없는 개별적인 자모의 무질서한 결합, 무의미한 말마디의 희롱으로 작품을 썼다.

이러한 반동적, 반인민적립장으로 하여 미래주의는 다른 부르죠아반동문학사조, 류파들과 련결되거나 그것들을 산생시키는데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다.

주지주의는 지성을 세계의 본질로 보는 반동적인 부르죠아관념론철학에 기초하여 제1차 세계대전후 서유럽자본주의나라들에서 발생하였다. 주지주의자들은 지성을 존중한다고 떠벌이면서 반인민적인 순수 문학을 내세우고 세계주의를 고취하였다. 19세기말에 상징주의시인으로 나섰던 프랑스의 반동시인 뽈 발레리와 20세기 20년대에 등장한 영국의 반동시인 티. 에스. 엘리오트 등이 그 대표자들이다.

그들은 이른바 시각적영상을 묘사하는것이 지성의 요구이며 상징주의를 극복하는 길이라는 궤변을 늘어놓으면서 그것이 마치 부르죠아사회의 정치경제적위기와 정신도덕적부패를 수습하는 그 어떤 새로운 세계관에 기초한것인듯이 떠벌이였다.

그러나 그들이 떠벌이는 시각적영상, 지성이란 멸망해가는 반동적부르죠아지의 미래에 대한 공포와 인민들의 혁명투쟁에 대한 증오를 극도로 추상화된 개념과 복잡한 표현으로 가리우는 위장물에 지나지 않는다.

주지주의의 반동성은 문학을 인민대중이 알아볼수 없도록 까다롭게 만들고 그것을 소수의 선발된 인간들의 독점물로 전환시키려는데서도 나타났다. 초현실주의, 프로이드주의와 련결되여있는 의식의 흐름은 20세기 20년대를 전후하여 주로 서유럽부르죠아소설분야에 퍼진 형식주의류파였다. 전 15권으로 된 프랑스의 쁘루스뜨의 장편소설 《잃어진 시간을 찾아서》(1913—1927)와 영국의 죠이스의 장편소설 《율리씨즈》(1922)가 그 대표작이다.

이 작품들에서 특징적인것은 사회현실과 동떨어진 개별적주인공의 의식의 흐름속에 파고들어가 내면독백의 수법으로 주인공의 퇴페적인 병적심리를 늘어놓은것이다.

의식의 흐름 작가들은 이런 식으로 모든 사물현상과 사회발전의 객관적합법칙성을 부정하고 사실주의적창작방법을 반대하면서 소설의 형식을 파괴하며 그 인식교양적의의를 마비시키려고 하였다.

제2차 세계대전이후에 이 류파의 변종으로서 반소설(앙띠 로망) 또는 새 소설(누보 로망)이라고 하는 퇴페적인 형식주의문학류파가 출현하였다. 이 류파의 작가들은 소설혁명을 한다는 요란한 선언을 들고나왔으나 그 본질은 의식의 흐름과 차이가 없었다.

20세기 유럽 자본주의나라들에 널리 퍼진 부르죠아문학사조의 하나로서 실존주의문학이 있었다.

실존주의문학은 실존주의철학에 사상적바탕을 두고 1930년대말에 프랑스에서 발생한 후 제2차 세계대전이후시기에 와서 현대부르죠아문학의 기본조류의 하나로 되였다.

문학분야에서 실존주의를 들고나온것은 프랑스의 실존주의철학가이며 작가인 싸르뜨르와 까뮤였다. 그 시초를 열어놓은것은 싸르뜨르의 중편소설 《구토》(1938)와 까뮤의 중편소설 《이방인》(1942)이였으며 그에 뒤이어 싸르뜨르의 장편소설 《자유에로의 길》(1945—1951), 까뮤의 중편소설 《페스트》(1947)를 비롯한 많은 실존주의문학작품들이 나왔다.

실존주의문학은 인간의 존재와 현실생활의 모순을 전면에 내세우면서 인간의 존재와 현실생활 그자체가 무의미하기때문에 아무렇게나 살아갈수밖에 없다는 사람과 현실에 대한 극도의 비관주의적이며 염세주의적인 사상을 표현하였다.

또한 자유로운 선택에 의한 인간의 절대적자유를 설교하였다.

실존주의문학은 극단적인 허무주의와 개인리기주의, 염세주의와 비관주의사상을 고취함으로써 사람들의 건전한 정신세계를 좀먹는 반동적문학조류이며 생활의 진실한 반영을 거부하고 예술성자체를 파괴하는 반사실주의적문학조류이다.

이처럼 부르죠아문학사조와 류파들은 각양각색이지만 그것들은 례외없이 착취계급의 반동적세계관에 기초하고있으며 생활에서 본질적인것을 외면하거나 외곡하며 비본질적인것을 과장하고 미화분식하는데 열을 올리고있다.

유럽의 진보적문학은 이러한 반동문학조류와의 투쟁, 그 영향을 극복하기 위한 투쟁을 통하여 발전해나갔다.

2. 로 씨 야 문 학

1) 사회주의적사실주의문학에서 커다란 성과를 거둔 로씨야쏘베트문학

20세기 로씨야문학의 발전단계를 몇단계로 나누어 고찰할수 있다.

20세기초부터 1917년 사회주의10월혁명에 이르는 시기는 19세기말에 뒤이은 제국주의와 프로레타리아혁명의 시기로서 레닌과 볼쉐비크당이 령도하는 사회주의혁명운동이 힘있게 벌어지고 다른 한편 반혁명세력의 반동공세가 우심해지고있던 때였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로씨야문학은 크게 두 조류 즉 고리끼를 중심으로 한 프로레타리아문학과 그와 대립된 부르죠아문학으로 갈라졌다. 이 시기 비판적사실주의문학은 쇠퇴하였다.

19세기 90년대부터 프로레타리아작가로 등장한 고리끼는 1906년에 장편소설《어머니》를 창작하여 내놓음으로써 사회주의적사실주의의 길을 개척하였으며 고리끼가 주관한 즈나니예(지식)파의 작가들도 진보적인 문학활동을 벌렸다.

한편 각양각색의 부르죠아문학류파들이 머리를 들고일어나 문단을 어지럽혔다. 여기에는 메레쥬꼽스끼, 발몬뜨 등의 상징주의, 안드레예브, 아르찌바쉐브 등의 자연주의, 아흐마또바, 구밀료브 등의 아크메이즘, 흐레브니꼬브 등의 미래파 등이 있었다.

레닌과 볼쉐비크당의 령도밑에 1917년 10월 사회주의혁명이 승리한것은 자주성을 옹호하는 로씨야인민의 투쟁력사에서 획기적인 전환으로 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인민대중은 장구한 기간 착취와 압박이 없는 자주적인 새 사회를 념원하여왔으며 그 실현을 위하여 간고한 투쟁을 벌려왔습니다. 그 과정에 사회주의, 공산주의학설인 맑스주의가 발생하였으며 그것을 지침으로 하여 투쟁한 결과 사회주의10월혁명이 승리할수 있었습니다.》

10월혁명을 대하는 립장에 따라 인민의 편에 선 작가들과 반혁명의 편에 선 작가들이 확연히 갈라지게 되였다.

혁명전의 기성작가들가운데서 부닌, 안드레예브, 메레쥬꼽스끼, 발몬뜨, 아르찌바쉐브를 비롯한 수많은 귀족부르죠아작가들이 해외로 망명하였다. 그들은 후에 귀국한 알렉쎄이 똘스또이와 꾸쁘린을 제외하고는 대다수가 쏘베트정권에 적의를 품고 반쏘언론활동을 벌렸다.

국내에 남은 작가들가운데서도 반혁명적음모에 가담하거나 (총살된 시인 구밀료브 등) 혁명에 의혹을 품고 침묵을 지킨 작가들(국내망명파)이 있었다.

그러나 혁명전부터 프로레타리아작가로 활동하였던 고리끼, 쎄라피모비치, 베드느이와 같은 작가들은 물론 창작 초기 미래파로 등장했던 마야꼽스끼까지 혁명을 무조건적으로 환영해나서고 혁명을 칭송한 작품들을 내놓았다. 상징주의시인이였던 블로크도 서사시《열두사람》에서 혁명을 지지해나섰다.

사회주의10월혁명과 공민전쟁시기(1917—1921) 로씨야문학에서는 온 나라를 휩쓴 혁명적앙양에 발맞추어 산문보다 시가 우세를 차지하였는데 시 《좌익행진곡》, 서사시《1억 5천만》, 《로스따의 창문》등 마야꼽스끼의 시와 베드느이의 시사적인 우화시, 선동시가 집회들에서 랑송되였다.

공민전쟁이 끝나고 쏘베트정권이 확고하게 뿌리내린 1920년대에 쏘베트문학(10월혁명후 로씨야문학을 혁명전문학과 구분하여 부른 명칭, 후에는 그 폭을 넓혀 이전 쏘련의 다민족문학까지 포함한 총칭으로 쓰이게 되였다.)은 급속히 발전하였다.

문예잡지들이 련이어 창간되고 많은 작가들

이 전선에서 돌아와 적극적인 창작활동을 벌리였다. 창작에서는 시보다 산문이 기본이였다. 또한 각이한 문학단체들이 조직되여 대론쟁을 벌리고 문학분야에서 치렬한 사상투쟁이 진행되였다. 사회주의문학을 지향하면서도 오유를 범한 라쁘(로씨야프로레타리아작가련맹), 레프(좌익예술전선), 이색적인 부르죠아적문학단체 《쎄라피온형제》파, 《구성주의문학중심》, 《고개길》등이 그러한 단체들이였다. 볼쉐비크당은 1925년에 당중앙위원회결정으로 문학에서의 자유경쟁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나갔다.

이러한 복잡한 환경속에서도 1920년대 쏘베트문학은 커다란 성과를 이룩하였다.

프로레타리아작가로 공인된 작가들속에서 푸르마노브의 《챠빠예브》, 쎄라피모비치의 《철의 흐름》, 글라드꼬브의 《세멘트》, 파제예브의 《괴멸》등 혁명적인 장편소설들이 련이어 발표되였다. 이딸리아에 가있던 고리끼도 《나의 대학》, 《아르따모노브일가의 사업》과 같은 장편소설들을 창작하였다. 시문학에서는 마야꼽스끼가 서사시 《울라지미르 일리이치 레닌》과 《좋다!》를 내놓았고 찌호노브, 이싸꼽스끼, 베즤멘스끼 등 신진시인들도 활약하였다. 극문학에서는 뜨레뇨브의 《류보비 야로바야》가 주목을 끌었다. 또한 《동반자작가》로 불리운 작가들속에서도 이와노브의 《장갑렬차 14—69호》, 에렌부르그의《트라스트 데》, 레오노브의 《도적》, 페진의 《도시와 세월》등의 작품들이 나왔다.

1930년대는 쏘베트문학에서 사회주의적사실주의가 유일하게 옳은 창작방법으로 공인되고 사회주의적사실주의문학이 더욱 발전한 시기였다.

볼쉐비크당은 1932년에 그때까지 존재했던 각이한 문학단체들을 해산하고 단일한 작가동맹을 조직할데 대한 결정을 채택하였다. 이 결정에 따라 1934년에 열린 제1차 전련맹쏘베트작가대회에서는 고리끼를 위원장으로 하는 쏘련작가동맹을 결성하고 사회주의적사실주의를 쏘베트문학의 기본창작방법으로 정식화하였다.

그후 당의 령도밑에 사회주의문학운동이 힘있게 벌어지는 가운데 고리끼의 《클림 쌈긴의 생애》, 숄로호브의 《고요한 돈》과 《개간된 처녀지》(제1부), 알렉쎄이 똘스또이의 3부작 《고난의 길》, 엔. 오스뜨롭스끼의 《강철은 어떻게 단련되였는가》, 께뜰린스까야의 《용감성》, 빤표로브의 《브루스끼》, 마까렌꼬의 《교육뽀에마》를 비롯한 수많은 장편소설들, 뜨바르돕스끼의 서사시 《무라비야나라》를 비롯한 시작품들, 위슈넵스끼의 《락천적비극》을 비롯한 극작품들 등 이름난 문학작품들이 련이어 창작되여 쏘베트문학을 풍만하게 하였다.

제2차 세계대전시기의 쏘베트문학은 파쑈도이췰란드침략자들을 반대하는 전인민적투쟁에 복무하였다. 전쟁의 간고한 시련속에서도 와씰렙스까야의 《무지개》, 고르바또브의 《정복되지 않는 사람들》, 씨모노브의《낮과 밤》, 파제예브의 《청년근위대》와 같은 소설들이 창작되였고 시문학에서는 뜨바르돕스끼의 《와씰리 쬬르낀》, 알리게르의 《조야》, 안또꼴스끼의 《아들》과 같은 서사시들이 나왔으며 이싸꼽스끼, 쑤르꼬브, 씨모노브의 서정시와 가사가 널리 보급되였다.

제2차 세계대전후 쏘베트문학은 1945—1950년대 중엽과 그 이후시기로 구별된다.

전후 쏘베트인민들은 당의 령도밑에 파괴된 인민경제를 빨리 복구하고 전쟁으로 인하여 중단되였던 사회주의건설을 계속하기 위하여 줄기찬 투쟁을 벌렸다. 이러한 들끓는 현실을 반영하여 작가들은 쏘도전쟁주제, 혁명력사주제, 사회주의현실주제 등 여러 주제령역에서 적극적인 창작활동을 벌리였다.

그리하여 전쟁을 주제로 한 뽈레보이의 《참된 사람의 이야기》, 부벤노브의《봇나무》, 전쟁시기 후방인민들의 투쟁을 형상한 아쟈예브의 《모스크바와 멀리 떨어져서》, 혁명력사를 주제로 한 페진의 《첫 기쁨》과 《류다른 여름》, 전후 복구건설을 주제로 한 빠블렌꼬의 《행복》, 니꼴라예바의 《수확》, 로동계급을 기본으로 형상한 꼬체또브의 《쥬르빈일가》를 비롯한 수많은 소설들이 나왔다.

뽀고진은 전쟁전에 쓴 《총쥔 사람》, 《크레믈리의 종소리》에 이어 《제3비장곡》을 씀으로써 레닌에 대한 3부작희곡을 완결하였다.

그러나 1950년대 중엽이후 쏘베트문학은 곡절을 겪게 되였다. 그것은 1953년에 쓰딸린이 서거한 후 혁명의 배신자 흐루쑈브가 음모적방법으로 권력을 탈취하고 수정주의로선을 내려먹인것과 관련되여있었다. 하여 1954년의 제2차 전

련맹쏘베트작가대회, 1956년의 쏘련공산당 제20차대회후에는 문학계에서 수정주의세력이 대두하여 수정주의, 반사회주의문학을 류포시켰다.

그 발단으로 에렌부르그의 중편소설 《눈석이》가 나온 이후 장편소설 《쥐바고의사》를 쓴 빠스쩨르나크, 수용소생활을 반영한 중편소설 《이완 제니쏘비치의 하루》를 쓴 쏠제니찐, 불량청소년들의 타락한 생활을 그린 장편소설 《별표식이 있는 차표》의 작가 악쇼노브, 시 《쓰딸린의 후계자들》을 쓴 옙뚜쉔꼬를 비롯하여 시인 워즈네쎈스끼, 아흐마둘리나, 오꾸쟈바, 극작가 로조브 등이 수정주의문학의 앞장에 섰다.

하지만 1950년대 중엽부터 1980년대 중엽까지 사회주의적사실주의기치를 계속 들고나간 견실한 작가들의 투쟁으로 하여 수정주의문학이 문학계를 지배하지는 못하였다.

이 시기에도 사회주의적사실주의의 전통을 이은 작가들에 의하여 장편소설들인 레오노브의 《로씨야의 숲》, 숄로호브의 《개간된 처녀지》(제2부), 본다레브의 《뜨거운 백설》, 챠꼽스끼의 《봉쇄》, 희곡에서 쏘프로노브의 《계승》과 같은 작품들이 창작되였다.

한편 50—60년대에 이어 70년대에는 잘리긴, 뜨리포노브, 슈크쉰, 벨로브 등이, 80년대에는 라스뿌찐, 아이뜨마또브 등이 수정주의적경향을 강하게 드러냈다.

1985년 혁명의 배신자 고르바쵸브가 정권을 쥐고 개혁, 개편로선을 내려먹인 후 쏘련(당시)에서는 수정주의문학, 반사회주의문학이 지배하게 되였으며 1991년에 사회주의쏘련이 붕괴되면서 나라에 부르죠아문학이 복귀되였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일시적인 현상이며 로씨야에서 사회주의위업과 사회주의문학이 재생되는것은 력사발전의 합법칙성이다.

2) 소설문학과 고리끼, 아. 똘스또이, 엔. 오스뜨롭스끼, 파제예브, 숄로호브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소설은 문학의 대표적인 형태이다. 한 나라 문학의 높이와 발전수준은 주로 소설문학의 사상예술적높이에 따라 평가된다.》

20세기 로씨야문학에서 주도적으로 발전한 것은 소설문학이다. 1917년 사회주의10월혁명이 승리한 후 사회주의가 좌절되기까지의 70여년동안에 이전 쏘련의 사회주의적사실주의문학은 소설분야에서 커다란 성과를 이룩하였다.

쏘베트소설문학이 성과를 이룩할수 있은것은 객관적현실과 인간의 사회계급적성격을 바로 보고 그릴수 있게 하는 유물변증법적세계관에 기초한 사회주의적사실주의창작방법에 의거하였기때문이다. 사회주의적사실주의창작방법에 의거한것으로 하여 쏘베트소설문학은 혁명성을 구현할수 있었으며 인간과 그의 생활을 전형화하여 진실하게 보여줄수 있었다.

이전의 그 어느 로씨야소설도 이 문학에서처럼 인민대중을 력사의 창조자, 시대정신의 체현자로 전형화하지 못하였으며 사회적제관계로서의 인간의 특성과 그 사회계급적성격을 깊이있게 밝혀내지 못하였다.

쏘베트소설문학은 주제령역에서 선행한 비판적사실주의소설문학과는 달리 사회주의혁명과 사회주의건설에 대한 주제에 중점을 두면서 여러가지 주제의 작품들을 창작하였으며 장편소설을 위주로 중편소설, 단편소설, 력사소설, 과학환상소설, 아동소설 등 다양한 형태의 소설들을 내놓았다.

로씨야소설문학의 발전과정을 크게 두 시기로 갈라볼수 있다. 그 첫시기는 10월혁명 전후시기로부터 제2차 세계대전까지이며 둘째 시기는 제2차 세계대전이후시기이다.

첫시기에는 고리끼, 쎄라피모비치, 알렉쎄이 똘스또이, 파제예브, 숄로호브, 푸르마노브, 오스뜨롭스끼, 글라드꼬브, 빤표로브, 까따예브, 마까렌꼬, 가이다르, 녀류작가들인 샤기냔과 께뜰린스까야를 비롯한 수많은 작가들에 의하여 이름난 소설작품들이 창작되여 사회주의적사실주의문학의 발전에 이바지하였다.

그 주요작품으로 혁명투쟁주제를 다룬 《철의 흐름》, 《챠빠예브》, 《괴멸》, 《고난의 길》, 《고요한 돈》, 《강철은 어떻게 단련되였는가》, 사회주의건설을 위한 로동계급의 투쟁을 형상한 《세멘트》, 《시간이여 앞으로》, 농업집단화주제의 《개간된 처녀지》(제1부) 와 《브루스끼》, 청년건설자들을 형상한 《용감

성》, 낡은 사회를 폭로비판한 《아르따모노브일가의 사업》과 《클림 쌈긴의 생애》, 불량청소년들을 교양개조하는 문제를 다룬 《교육뽀에마》, 쏘도전쟁주제의 《낮과 밤》, 《월로꼴람스크대로》, 《무지개》, 《청년근위대》 등을 들수 있다.

둘째 시기인 제2차 세계대전이후에도 많은 작가들이 적극적인 소설창작활동을 벌렸다. 이 시기에 파제예브, 숄로호브, 페진, 레오노브 등 오랜 작가들과 함께 뽈레보이, 챠꼽스끼, 씨모노브, 빠블렌꼬, 꼬체또브, 부벤노브, 꼬쉐브니꼬브, 마르꼬브, 본다레브, 까르뽀브, 녀류작가들인 니꼴라예바와 빠노바를 비롯한 수많은 작가들의 이름이 알려지게 되였다.

이들에 의하여 혁명력사를 주제로 한 3부작장편소설 《첫 기쁨》, 《류다른 여름》, 《우등불》, 전쟁을 주제로 한 《참된 사람의 이야기》, 《봇나무》, 《검과 방패》, 《뜨거운 백설》, 《봉쇄》, 전후복구건설을 주제로 한 《행복》, 《수확》, 로동계급을 주인공으로 형상한 《쥬르빈일가》, 농업집단화를 취급한 《개간된 처녀지》(제2부), 과학자를 형상한 《로씨야의 숲》을 비롯한 수많은 성과작들이 나왔다.

사회주의적사실주의창작방법에 의거하여 쏘베트문학이 이룩한 빛나는 성과는 사회주의적사실주의문학을 풍만하게 하는데 크게 이바지하였다.

쏘베트소설문학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것은 고리끼, 알렉쎄이 똘스또이, 니꼴라이 오스뜨롭스끼, 파제예브, 숄로호브이다.

고리끼와 장편소설 《어머니》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고리끼는 소설 〈어머니〉를 비롯한 우수한 작품을 많이 창작하여 로씨야에서 로동계급의 혁명적 문학을 개척하며 쏘베트문학을 건설하는데서 선구자적역할을 한 작가입니다.》

막씸 고리끼(본명 : 알렉쎄이 막씨모비치 뻬슈꼬브, 1868—1936)는 니쥬니 노브고로드(현재 고리끼주 고리끼시)에서 목수의 아들로 태여나 어릴 때 부모를 잃고 외할아버지슬하에서 자라났다. 그는 11살때부터 상점의 심부름군, 그릇 가시는 일, 빵 굽는 일, 항구의 짐군 등 여러가지 잡일을 하면서 짜리로씨야사회의 하층생활을 직접 체험하였다.

그는 16살때 까잔에 가서 4년동안 체류하면서 혁명가들과 접촉하는 과정에 맑스주의를 알게 되였다. 그후 그는 혁명운동에 참가하고 여러번 체포되였으며 1891년에는 국내방랑려행도 하였다.

이러한 과정에 처녀작인 《마까르 츄드라》를 발표한 후 적극적인 창작활동을 시작한 그는 1895년경에는 중앙의 문단에서도 인정하는 작가로 되였다. 그의 이름이 일약 온 로씨야에 알려지게 된것은 1898년에 첫 작품집을 내놓은 때부터이다. (당시 10만부이상 출판되여 최고판매도서로 되였다.)

1890년대 초기창작시기부터 프로레타리아 작가로 진출한 그는 단편소설 《이제르길할머니》, 산문시 《매의 노래》와 같이 인민들을 위훈에로 부른 혁명적랑만주의계렬의 작품들과 단편소설 《첼까슈》, 《장난군》, 《종》과 같이 당대 사회현실을 날카롭게 폭로하고 하층인민들에 대한 동정을 표현한 사실주의계렬의 작품 등 낡은 사회를 미워하고 새 사회를 동경하는 경향이 강한것이 특징적이였다.

20세기초부터 진보적문학단체 《즈나니예(지식)》를 주관하고 볼쉐비크당의 영향을 받은 그의 창작에서는 사실주의적경향과 로동계급적지향이 더욱 뚜렷해졌다. 이 시기에 발표한 장편소설 《포마 고르제예브》(1899)와 《세사람》(1900), 희곡 《최하층》(1902)에서는 자본주의제도의 반동성과 자본가계급의 탐욕적인 본성을 신랄하게 폭로하였으며 그를 반대하는 도시빈민들과 로동자들의 투쟁을 적극 지지하였다.

그는 또한 희곡 《소시민》(1901)에서 주인공인 기관사 닐의 형상을 통하여 사회주의를 위하여 싸우는 로동계급의 진출을 반영하였으며 산문시 《해연의 노래》(1901)에서는 다가오는 혁명에 대한 예감을 랑만적열정속에 격조높이 토로하면서 1905—1907년혁명을 앞둔 1900년대 전반기의 시대적특징과 혁명전야의 로동계급과 혁명적인민들의 감정세계를 시적으로 일반화하였다.

1905년에 볼쉐비크당에 입당하고 레닌과 당의 지도를 받게 된 그는 혁명발전과 새로운 정세의 요구에 자신을 따라세우려고 부단히 노력하였다. 결과 그는 1906년 당의 신임으로 해외출장을 갔

다오는 기간에 장편소설 《어머니》와 희곡 《원쑤들》을 창작하였다. 이 두 작품은 그의 창작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였을뿐아니라 력사상 처음으로 사회주의적사실주의의 길을 개척한 획기적인 작품으로 되였다.

1906년부터 그는 이딸리아의 까쁘리섬에서 해외망명생활을 하였다. 그는 1913년에 일단 귀국했다가 1921년에 다시 해외로 나가 1931년까지 이딸리아에서 생활하였다.

당출판물편집을 비롯한 사회활동을 제대로 할수 없었던 이 시기에 고리끼는 정치사상적으로 동요하여 과오를 범하였다. 레닌은 고리끼의 과오를 제때에 비판교양하고 그가 옳은 길로 나가도록 이끌어주었다.

이 시기에 그는 10월혁명전부터 시작했던 자서전적인 3부작소설 《유년시대》제1부(1913—1914)와 제2부 《사람들속에서》(1915—1916)에 뒤이어 제3부 《나의 대학》(1923)을 완성하였으며 레닌, 레브 똘스또이 등에 대한 회상록과 실화작품들을 썼다.

그는 또한 장편소설 《아르따모노브일가의 사업》(1925)에서 한 부르죠아가정의 세 세대에 걸치는 생활과정을 통하여 19세기 60년대부터 1917년에 이르는 로씨야사회의 력사를 폭넓게 묘사하였으며 부르죠아지의 멸망의 필연성을 보여주었다.

1928년경부터 자주 조국에 다녀오던 그는 1931년에 완전히 조국으로 귀환하였다.

그의 마지막작품은 장편소설 《클림 쌈긴의 생애》(미완성. 1925—1936)이다. 소설은 한 부르죠아지식인의 운명을 통하여 혁명의 전진을 가로막아나선 소시민근성을 폭로하고 사회주의혁명승리의 합법칙성을 예술적으로 확증하였다.

그는 이밖에도 많은 단편 및 중편소설들과 희곡, 실화, 정론들을 썼다.

그는 작품창작활동과 함께 문학리론과 평론활동을 널리 벌렸다. 그는 혁명전에 레닌의 사상을 옹호하고 각종 부르죠아반동문학을 폭로비판하는 평론을 많이 썼으며 혁명후에도 쏘베트문학을 올바른 길로 발전시켜나가기 위한 평론활동을 적극 벌렸다.

그는 쏘베트문학운동에서 지도적인 역할을 하였으며 작가후비육성사업에도 큰 힘을 넣었다. 그는 당시 쏘련공산당의 지도밑에 1934년에 소집된 제1차 쏘베트작가대회의 조직자의 한사람이였으며 쏘련작가동맹의 첫 위원장이였다.

그는 레닌과 공산당의 령도밑에 처음으로 사회주의적사실주의창작방법에 립각하여 문학작품들을 창작함으로써 당시 쏘련과 세계 진보적문학예술의 발전에 크게 이바지하였다.

그의 대표작은 장편소설 《어머니》이다.

장편소설 《어머니》는 19세기말—20세기초 로씨야의 현실을 시대적배경으로 하여 로씨야 로동계급의 성장과정과 투쟁모습을 형상한 혁명적작품이다.

도시로부터 좀 떨어진 곳에 있는 공장마을에 로동자 블라쏘브일가가 살고있었다. 철공 미하일 블라쏘브는 한평생 공장에서 고역과 가난에 시달리다가 값없이 죽었다.

가난한 살림과 남편의 심한 구박에 기를 펴지 못하고 살아온 뻴라게야 닐로브나는 외아들 빠벨에게 의지하여 살아간다. 그런데 소년시절부터 철공으로 일해온 빠벨은 아버지와는 다른 길을 걷는다. 어머니는 날이 갈수록 달라져가는 자기 아들의 모습을 불안한 마음으로 지켜본다.

빠벨은 공장마을에서 남먼저 사회주의사상의 영향을 받고 비밀독서회를 조직하며 공장안에 선동삐라를 뿌리고 늪꼬뻬이까사건을 계기로 로동자들을 파업에로 선동한다. 이 일로 하여 빠벨은 체포된다. 어머니는 공장에 비밀책자와 삐라를 들여보내야 적들을 혼란시키고 빠벨에 대한 의심도 풀수 있다는 조직성원의 말을 듣고 음식장사로 가장하여 공장안으로 책자들과 삐라들을 나른다.

얼마후 석방된 빠벨은 5.1절시위준비를 다그치며 시위때에는 대렬선두에서 붉은기를 들고 나간다. 어머니도 그 대렬에 들어선다.

시위가 탄압을 받고 빠벨이 잡혀가자 어머니는 도시로 옮겨가 지하공작원 쏘피야와 함께 비밀책자, 삐라, 신문들을 농촌으로 나른다. 어머니는 이 과정에 점차 직업적인 혁명가로 자라난다.

빠벨을 재판하는 날 어머니는 공장마을사람들과 함께 재판소에 간다. 재판에서 빠벨은 피고로서가 아니라 전제제도의 사환군인 재판관들을 단죄하는 심판자로 당당히 행동하며 사적소유의 철폐, 사회주의승리의 필연성을 힘있게 론증함으로써 재판관들을 궁지에 몰아넣고 군중들에게 혁명적영향을 준다. 재판에서는 빠벨에게

씨비리류형이 언도된다.

어머니는 빠벨이 재판장에서 한 연설문을 각 조직에 전달할 임무를 받고 정거장에 나갔다가 헌병들에게 체포된다. 어머니는 잡혀가면서도 그 연설문을 찍은 삐라를 군중들에게 뿌리면서 그들에게 혁명적영향을 준다.

이를 통하여 소설은 평범한 로동청년이였던 빠벨 블라쏘브와 정치적의식수준이 매우 낮았던 그의 어머니가 어떻게 계급적으로 각성하여 자본의 철쇄를 짓부시기 위한 혁명의 길에 나서며 강의한 투사로, 열렬한 혁명가로 성장하게 되는가 하는것을 생동하게 보여주고있다.

빠벨의 어머니 뻴라게야 닐로브나는 착취받고 압박받는 근로인민대중속에서 계급적으로 각성해가는 혁명적녀성의 전형이다. 작가는 어머니의 형상을 통하여 20세기초 로씨야에서 자본주의의 멸망과 사회주의의 승리는 움직일수 없는 력사적사실로 되고있었다는것을 보여주었다.

소설에서 빠벨 블라쏘브의 형상은 어머니의 형상에 못지 않게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그는 세습적인 로동가정에서 태여난 로동자이며 사회주의혁명이 일정에 오른 력사적시대에 등장한 새 세대이다. 작가는 평범한 로동자인 빠벨이 혁명가로 자라나는 과정을 그려보이면서 그를 20세기초 로씨야사회현실과 그 시대적요구를 반영한 로동계급의 전형으로 형상하였다.

소설에서는 아들과 어머니의 인간관계를 투쟁과 생활속에서 잘 맺어주고 그것을 깊이있게 발전시켜나감으로써 혁명투쟁에서 로동계급의 성장과정을 실감있게 보여주고있다. 특히 작품에서 성공적인것은 아들과 어머니의 관계를 단순한 모자간의 인정관계가 아니라 혁명동지간의 관계로 옳게 그린것이다.

소설에는 어머니와 빠벨 외에도 안드레이 나호뜨까, 니꼴라이 웨쏩쉬꼬브를 비롯한 로동자들, 리빈을 비롯한 농민들, 예고르, 니꼴라이를 비롯한 혁명적인테리 등 많은 인물들이 등장하고있다.

이 모든 인물들을 통하여 작가는 로동계급을 비롯한 인민대중속에서 혁명의식, 혁명력량이 어떻게 자라나고있으며 사회주의를 위한 투쟁이 어떻게 발전하고있는가 하는것을 생동한 예술적 형상으로 묘사함으로써 사회생활의 본질을 사실주의적으로 보여주고 사회주의적리상을 명확하게 제시하였다.

소설은 혁명적원칙을 구현하고 새로운 긍정적주인공, 혁명가의 전형을 생동하게 창조하였으며 작품전반에 혁명적랑만과 혁명적락관주의정신이 차넘치게 하는 등 선행시기 문학과는 다른 새로운 혁신적특성을 보여주었다.

이처럼 고리끼의 장편소설 《어머니》는 평범한 한 가정의 어머니가 혁명가로 성장하는 모습을 그린 명작으로 세계에 널리 알려졌으며 로씨야사회주의적사실주의문학예술의 시원으로 되는 작품으로서 커다란 문학사적의의를 가지고 있다.

알렉쎄이 똘스또이와 장편소설 《고난의 길》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알렉쎄이 똘스또이의 장편소설 〈고난의 길〉은 교양적의의가 큰 작품입니다.

장편소설 〈고난의 길〉은 혁명투쟁의 폭풍우속에서 착취사회의 인테리들이 혁명가로 개조되는 과정을 감명깊게 형상하였습니다.》

알렉쎄이 니꼴라예비치 똘스또이(1883—1945)는 니꼴라옙스크시(현재 싸라또브주 뿌가쵸브시)의 귀족가정에서 태여나 1901년부터 뻬쩨르부르그에서 대학을 다니다가 중퇴하고 문학창작활동을 시작하였다.

그는 첫시기에 퇴폐적인 문학의 영향을 받았으나 로씨야에서 혁명운동의 장성과 더불어 점차 진보적경향을 가진 작품들을 내놓기 시작하였다. 시, 희곡, 소설을 비롯한 10월혁명전의 작품들에서 작가는 퇴페주의문학의 영향을 극복하고 귀족지주계층의 타락한 생활을 보여주기 시작하였다. 이 시기 그의 대표적인 작품은 작가가 자유주의적부르죠아지식인의 립장에 서서 귀족지주들의 경제적몰락과 도덕적타락을 반영한 장편소설 《괴짜들》(1911)과 《절름발이량반》(1912)과 같은 비판적사실주의작품들이다.

사회주의10월혁명이 일어났을 때 작가는 자기의 계급적제한성으로 하여 혁명의 본질을 리해하지 못하고 반동적인 길로 나가 서방자본주의나라로 망명하였다. 그러나 그는 빠리, 베를린 등지에서 목격한 백파망명자들의 추악한 생활에 환멸을 느끼고 쏘베트로씨야만이 자기의 진정한 조국

임을 깨닫게 되여 1923년에 로씨야로 돌아왔다.

작가는 이무렵에 쓴 중편소설 《침대밑에서 발견된 수기》(1923)에서 자신이 목격한 백파망명자들의 썩어빠진 생활을 폭로하였으며 중편소설 《아엘리따》(1923)와 장편소설《가린기사의 쌍곡선체》(1927) 등의 과학환상소설을 내놓아 쏘베트소설문학의 발전에 이바지하였다. 그러나 아직 이 시기의 작품들에서는 혁명과 쏘베트로씨야현실에 대한 작가의 그릇된 견해와 사상적 모순들이 적지 않게 발로되였다.

쏘베트로씨야에서 사회주의의 승리가 확고해진 1929년을 계기로 그의 세계관에서는 전환이 일어났다. 그는 맑스—레닌주의사상에 공감하면서 점차 사회주의적사실주의창작방법을 체득하게 되였다.

그는 이 시기에 쓴 여러편의 단편소설들에서 제국주의자들의 팽창주의적야망과 음모, 파피책동을 폭로하였으며 이전 쏘련에서의 공민전쟁과 복구시기 인민들의 투쟁을 묘사하였다. 그는 거의 20년동안이나 품을 넣어 3부작장편소설 《고난의 길》(1922—1941)을 완성하여 내놓았다. 그는 또한 장편력사소설 《뾰뜨르1세》(미완성, 1929—1945)에서 로씨야력사에서의 근대적 발전의 첫시기를 진실하게 재현함으로써 쏘베트사회주의적사실주의력사소설의 발전에 이바지하였다.

중편소설 《낟알》(1937)에서는 공민전쟁시기 식량문제가 혁명의 운명,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중대한 문제였다는것을 보여주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레닌과 공산당의 옳은 정책, 공산당원들의 자기희생적인 투쟁을 생동하게 묘사하였다.

작가는 쏘도전쟁시기에 쓴 《조국》을 비롯한 정론들과 《로씨야성격》을 비롯한 우수한 단편소설들이 수록된 단편소설집 《이완 쑤다레브의 이야기》(1942—1944) 등에서 파쑈침략자들을 단죄하였고 인민들의 용감성과 애국주의를 격찬하였다. 그는 작품창작으로뿐아니라 자신이 직접 사회주의조국을 수호하기 위한 투쟁에도 헌신적으로 참가하였다.

그는 복잡한 길을 거쳐 인민의 편으로 넘어온 자산계급출신의 작가로서 자신을 혁명적으로 개조하고 많은 혁명적작품들을 창작함으로써 쏘베트문학의 발전에 크게 이바지하였다.

그의 대표작은 장편소설 《고난의 길》이다.

장편소설 《고난의 길》은 혁명투쟁의 폭풍우속에서 착취사회의 지식인들이 혁명가로 개조되는 과정을 감명깊게 형상하였다.

작품은 제1차 세계대전전야로부터 1920년 봄까지 로씨야에서 있은 력사적사변들을 시대적배경으로 하여 복잡한 혁명의 불길속에서 낡은 사회의 지식인들이 어떻게 새 사회의 혁명적지식인, 혁명가로 성장하는가 하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소설은 제1차 세계대전과 사회주의10월혁명, 공민전쟁이라는 복잡한 력사적사변들을 생활적바탕으로 하고 짜리로씨야의 고등교육을 받은 다샤와 까쨔, 그들의 남편들인 쩰레긴과 로쒼이 사회주의 새 사회의 혁명적인 지식인으로 성장하는 과정을 기본줄거리로 하여 당대 사회계급과 계층을 대표하는 인간들의 운명을 엮어나갔다.

3부작으로 되여있는 소설의 제1부 《자매》는 싸마라의 의사 블라빈의 둘째딸 다샤가 언니 까쨔가 사는 뻬쩨르부르그에 와서 대학공부를 하면서 발뜨공장 기사 쩰레긴과 사귀게 되고 제1차 세계대전과 1917년 2월혁명의 복잡한 환경속에서 헤여졌다 다시 만나 결혼하는 이야기를 담고있다.

또한 온순한 언니 까쨔가 썩어빠진 부르죠아사회 정신생활의 대변자인 베쏘노브의 유혹에 빠져 부르죠아민족주의자이며 변호사인 남편 스모꼬브니꼬브와 갈라지고 남편과 같은 변호사출신인 장교 로쒼과 알게 되는 이야기, 림시정부에 의하여 서부전선 정치위원으로 파견된 스모꼬브니꼬브가 병사들에게 짓밟혀죽는 이야기를 내용으로 하고있다.

소설의 제2부 《1918년》은 쩰레긴이 다샤와 함께 뻬쩨르부르그에 와서 생활하는 도중에 사회주의10월혁명을 맞이하게 되는것으로부터 시작된다.

발뜨공장 동료의 도움으로 붉은군대에 입대한 쩰레긴은 남부전선에 파견되여 중대장으로서 백파군대와 용감히 싸우며 군사위원회 위원장에게 보내는 비밀보고서를 최고사령부에 전달하고 까잔전투때에 련대장으로 승직하여 싸마라로 진격한다.

한편 다샤는 련락임무수행도중 집에 들린 쩰레긴을 밀고한 림시정부 보건대신인 아버지와 결별

하고 집을 나서며 까쨔와 결혼한 로쒼은 10월혁명과 볼쉐비크들을 반대하여 백파군에 들어가 붉은군대와 싸운다. 그 과정에 로쒼은 백파는 진정 로씨야의 구원자가 아니라 반동적인 타락분자들, 민족의 폐물들이라는것을 깨닫게 되며 번민과 우울속에서 동요하다가 악질장교로부터 저격까지 당하게 된다. 그는 자기가 백파군에 들어선것이 잘못되였다는것을 깨닫고 탈주하여 까쨔를 찾아 떠난다.

소설의 제3부 《음산한 아침》은 로쒼의 개변과정을 기본으로 취급하였다. 격렬한 방어전투에서 눈에 부상을 당한 쩰레긴은 병원에 후송되여 다샤와 만나며 치료후에 려단장으로 임명된다. 까쨔를 찾아 방황하다가 마흐노도당에게 잡힌 로쒼은 협동작전때문에 담판하러 온 붉은군대 대표 츄가이의 영향을 받아 로동자부대를 지휘하게 된다. 그는 파란곡절속에서 참다운 진리를 찾고 쩰레긴려단의 참모장이 되여 공민전쟁의 승리를 맞는다.

소설에 나오는 주인공들은 다같이 지식인들이지만 그들의 성격형상에서는 모두가 서로 다른 구체적인 특성이 있다. 쩰레긴은 낡은 사회의 부르죠아교육을 받은 지식인이지만 공장기사로 일하는 과정에 로동계급과 가까와지고 그들의 영향으로 제일먼저 혁명가로 성장한다.

그러나 제국주의사상에 깊이 물젖은 로쒼은 대학을 졸업하고 로씨야제국의 관리, 장교로 복무하다가 곡절많은 고난의 길을 거쳐 점차 혁명의 진리를 깨닫고 새 사회의 혁명적지식인으로 새롭게 태여나는 부르죠아계급출신지식인의 전형이다.

다샤와 까쨔 역시 낡은 사회에서 부르죠아교육을 받은 녀성들로서 력사적사변속에서 참된 진리와 행복도 찾게 되는 녀성지식인의 전형이다.

소설은 작품에 등장하는 주인공들의 형상을 통하여 지식인들이 가야 할 길은 오직 혁명과 인민에게 복무하는 길이며 혁명을 떠나서는 조국도 행복도 참다운 생활도 찾을수 없다는 사상을 보여주고있다.

각이한 생활환경과 처지를 가진 지식인들인 쩰레긴이나 로쒼, 다샤와 까쨔가 걸어온 길은 서로 달라도 그들이 찾은 참다운 진리는 하나이다. 자기 조국을 사랑하는 애국심을 가진 지식인이라고 하여도 인민대중에게 복무하는 혁명적인 지식인이 될 때만이 조국과 인민과 사회앞에 자기의 본분을 다할수 있으며 참된 행복을 찾을수 있다는것이 그들이 찾은 교훈이며 이것은 특히 로쒼의 형상에서 뚜렷이 나타나고있다.

소설은 로쒼을 비롯한 주인공들의 형상을 통하여 애국심을 가지고있는 사람은 그가 비록 자산계급출신이고 지어 조국과 혁명앞에 죄를 지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옳바른 교양과 지도를 받으면 능히 혁명가로 개조될수 있다는것을 설득력있게 보여주었다.

소설이 거둔 중요한 성과의 하나는 시대와 인간들을 폭넓고 깊이있게 그린것이다. 소설에서는 제1차 세계대전과 사회주의10월혁명, 공민전쟁이라는 거대한 력사적사변과 그 사변이 펼쳐지는 로씨야와 우크라이나의 광활한 지역을 구체적으로 생동하고 진실하게 그리였다. 시대를 안고 얽히여나가는 여러 인간들도 구체적인 생활과의 호상관계속에서 심도있게 그리였다.

작품에는 4명의 주인공들과 함께 당원들, 혁명적인 로동자들, 공청원들, 붉은군대지휘관들과 병사들, 녀성전투원들을 비롯하여 수많은 긍정인물들이 나온다. 그들은 나날이 자라나며 승리해가는 혁명력량을 대표하고있다. 작품에는 무너져가는 낡은 세계와 반혁명세력을 대표하는 부정인물들인 백파우두머리들, 무정부주의자들, 부르죠아반동들 그리고 주인공들과 대조를 이루는 타락한 지식인들이 등장한다. 소설은 이 두 인물형상집단의 대립과 투쟁을 통하여 인민대중이 낡은 착취사회를 끝장내기 위하여 벌리는 계급투쟁, 혁명투쟁의 복잡성과 치렬성, 그 승리적전진과정을 옳게 보여주고있다.

작품에는 각이한 개성을 가진 수많은 등장인물들의 사상정신생활, 문화도덕생활, 세태생활 같은것이 풍부하게 묘사되여있다. 작가는 생활에 대한 폭넓은 묘사와 수많은 인물들의 형상을 통하여 부패하고 반인민적인 착취사회의 밑바닥을 파헤쳐 보여주면서 그러한 사회가 멸망하고 인민의 새세상인 사회주의사회가 탄생하고 승리해나가는것은 막을수 없는 력사의 흐름이라는것을 예술적으로 힘있게 확인하였다.

소설은 당의 령도가 사회주의혁명승리의 결정적요인이라는 사상도 잘 표현하였다. 소설에는 인민들을 교양하고 묶어세워 혁명투쟁에로 이끌어가는 당일군들과 당원들의 활동이 풍부하

게 묘사되고있다. 인테리주인공들을 교양하고 혁명의 길로 이끌어준것도 바로 당원들이였다. 작가는 소설에서 붉은군대의 군사활동을 비롯하여 인민대중이 벌리는 모든 혁명투쟁이 레닌과 볼쉐비크당의 령도를 받았기때문에 승리할수 있었다는것을 뚜렷이 보여주었다.

장편소설 《고난의 길》은 애정관계묘사에서 삼각련애를 많이 취급한것과 같은 결함을 가지고있으나 사회주의혁명에서 낡은 사회 지식인들의 운명문제를 기본문제로 설정하고 그것을 사상예술적으로 깊이있게 형상한 대형식의 작품인것으로 하여 쏘베트사회주의적사실주의문학의 대표작의 하나로 되고있다.

엔. 오스뜨롭스끼와 장편소설 《강철은 어떻게 단련되였는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오스뜨롭스끼는 10월혁명의 불길속에서 자라난 로씨야청년의 모범이였습니다. 그는 자기 조국을 열렬히 사랑하였으며 조국을 위하여 자기의 모든것을 다 바쳤습니다.》

니꼴라이 알렉쎄예비치 오스뜨롭스끼(1904—1936)는 우크라이나 서부의 월린스크현 윌리야마을에서 로동자의 아들로 태여났다.

그는 마을의 교회부속학교와 소학교에서 공부하고는 가난한탓으로 공부를 더 하지 못하였다. 그는 소년시기에 철도역이 있는 쉐뻬똡까로 이사하여 역전식당에서 그릇 가시는 일도 하고 발전소 화부로도 일하면서 지하혁명조직의 영향을 받았으며 공민전쟁시기에는 공청원으로 자라났다.

그는 공민전쟁시기인 1919년에 붉은군대에 자원입대하여 공민전쟁의 여러 전선에서 용감히 싸웠으나 다음해 중상을 입고 제대되였다. 그는 공민전쟁이 끝난 후 끼예브철도공장에서 공청사업을 하였으며 1922—1924년에는 구역공청비서로 사업하였다.

공산당원으로서 신병을 무릅쓰고 적극적인 당 및 공청활동을 벌리던 그는 1924년이후 전쟁시기에 입은 중상의 후과로 치료와 료양생활을 하다가 1927년에 관절마비증이 오고 다음해부터는 시력까지 잃게 되였다.

그는 침대에 누워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에서 조국과 인민을 위해 복무하는 길을 모색하던 끝에 청년들을 혁명적으로 교양하는데 이바지하는 문학작품을 쓸것을 결심하고 가족들의 방조밑에 1930년부터 문학창작에 착수하였다.

그는 대학공부도 하지 못하고 더우기 작가가 되려고 생각한적도 없었다. 그러나 그는 혁명투쟁속에서 터득한 진리, 생의 마지막순간까지 혁명을 계속하려는 강의한 의지와 불타는 정열로 문학수업을 하면서 혁명적작품을 쓰는 일을 완강하게 밀고나갔다.

이렇게 하여 창작된 그의 첫 작품인 장편소설 《강철은 어떻게 단련되였는가》는 《청년근위대》잡지에 련재(1932—1934)된 후 1935년에 단행본으로 출판되였다. 작품은 발표되자마자 국내에서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으며 그후 세계 여러 나라 말로 번역되여 널리 퍼지게 되였다. 소설은 쏘베트국가와 당의 높은 평가를 받았으며 1935년에는 작가에게 레닌훈장이 수여되였다.

작가는 1934년부터 두번째 장편소설 《폭풍의 아들딸》(1934—1936)창작에 들어갔다. 그러나 그는 제1권을 탈고하고 제2권창작에 착수한지 며칠후에 32살의 젊은 나이에 생을 마쳤다.

소설은 1918년부터 1919년초까지의 서부우크라이나의 력사적환경을 배경으로 쏘베트주권을 위한 우크라이나인민들의 투쟁을 통하여 공민전쟁의 혁명적폭풍우속에서 폭풍의 아들딸들인 새 세대들이 성장하는 과정을 묘사하였다. 작품에서는 적대계급의 형상묘사에 많은 힘을 돌림으로써 귀족지주, 자본가, 승려 등 인민의 원쑤들의 반동성을 예리하게 폭로하였다.

오스뜨롭스끼의 생은 비록 짧았으나 그가 지닌 불굴의 혁명정신은 로씨야청년들을 혁명적으로 교양하는데 크게 이바지하였다.

장편소설 《강철은 어떻게 단련되였는가》는 작가자신의 자서전에서 많은 자료를 취하고 그것을 예술적으로 재구성, 일반화하여 창작한 작품이다.

소설은 제1차 세계대전시기부터 1930년대까지를 시대적배경으로 하여 소년로동자였던 주인공 빠벨 꼬르챠긴이 준엄하고 간고한 혁명투쟁의 불길속에서 혁명가로 자라나는 과정을 기본내용으로 하고있다.

주인공 빠벨 꼬르챠긴은 혁명전 짜리제도하

에서 생활의 참된 보람을 모르고 자란다. 그는 일찌기 12살때에 학교에서 쫓겨나 처음에는 역전식당에서, 다음에는 발전소화부의 조수로 고된 로동에 시달린다. 부자집자식들은 빠벨을 멸시하고 구박하였다.

혁명은 이런 빠벨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준다. 그가 계급적으로 각성되는데서 공산당원인 해병 쥬흐라이의 영향이 컸다. 공민전쟁이 시작되자 그는 붉은군대에 입대하여 용감히 싸우며 포연탄우속에서 굳센 의지를 가진 청년투사로 자라난다.

공민전쟁의 포화가 멎고 경제건설이 시작된 시기에 공청일군이 된 빠벨은 철도공장 공청비서로, 끼예브에 월동용화목을 보장하기 위한 보야르까철도부설돌격대원으로, 국경수비대 대대정치위원, 관구공청비서 등으로 불면불휴의 투쟁을 벌린다. 그가 전투대오를 떠난것은 부상당하였을 때와 티브스에 걸렸을 때뿐이였다.

그는 언제나 투쟁의욕에 가득차있었으며 혁명투쟁에 참가하는것을 가장 큰 보람과 행복으로 여겼다. 그 어떤 난관과 시련도 그의 의지를 꺾지 못한다.

이러한 그에게 시련이 닥쳐온다. 전쟁때 받은 상처와 무리한 사업의 후과로 처음에는 왼팔이, 다음에는 두다리가 마비되고 나중에는 두눈까지 멀게 된다. 이때 그는 나이가 24살밖에 안되는 새파란 청년이였다. 빠벨은 한때 전투력을 잃은 자기가 무슨 삶의 보람이 있는가고 생각하면서 자살까지 기도한다.

그러나 그는 인차 자기의 생각이 잘못되였음을 깨닫고 문학창작을 하여 혁명에 복무하는 길을 찾아냄으로써 투쟁대오를 떠나지 않는다. 그는 분연히 일어나 비상한 노력으로 문학수업을 하며 끝내 혁명의 승리를 위해 몸바친 투사들에 대한 이야기를 소설로 써내는데 성공한다. 소설은 절찬을 받고 출판에 회부된다.

소설의 주인공 빠벨 꼬르챠긴은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 강한 의지와 불굴의 투쟁정신, 높은 조직성과 규률성, 고상한 도덕품성을 갖춘 혁명가의 전형으로 형상되였다.

작가는 빠벨 꼬르챠긴의 형상을 통하여 쇠가 뜨거운 열과 세찬 랭각을 거쳐야 강철이 되듯이 사람은 혁명투쟁과 강한 규률속에서 단련되여야 혁명가로 될수 있다는 사상을 강조하였다.

소설의 주인공 빠벨 꼬르챠긴은 청년들을 혁명적으로 교양하는데서 훌륭한 귀감으로 되였다. 파쑈도이췰란드의 침략을 물리치는 가렬한 전쟁시기 이전 쏘련청년들은 빠벨 꼬르챠긴을 공청원이나 전투원명단에 등록하고 그의 숭고한 모범을 따라 침략자들과 싸웠다.

소설 《강철은 어떻게 단련되였는가》는 인민들과 청년들을 혁명적으로 교양하는데서 커다란 감화력을 가지고있다.

소설이 독자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는것은 혁명가로 성장한 작가자신의 직접적인 체험에 기초하여 씌여졌고 혁명투쟁과 혁명가들의 성장과정이 생동하게 형상되여있기때문이다. 작가는 자신이 혁명투쟁에 직접 참가하였기때문에 자기의 체험에 기초하여 혁명투쟁에 대하여 실감있게 쓸수 있었다.

또한 소설은 작가자신이 체험한 혁명투쟁에 대한 자료들을 예술적으로 잘 가공처리하였다.

소설이 발표되자 어느 한 신문에 오스뜨롭스끼가 자기의 자서전을 훌륭하게 썼다고 평하는 기사가 났는데 그것을 읽어본 작가는 자기의 소설이 자서전이 아니라 당당한 예술작품이라고 반박하였다고 한다.

작가가 자기의 자서전을 그대로 기록해놓았더라면 소설이 그처럼 큰 감화력을 가지지 못하였을것이다. 이 소설이 커다란 감화력을 가지게 된것은 소설의 소재가 훌륭한데도 있지만 작가가 예술적허구를 옳게 활용한데도 있다.

장편소설 《강철은 어떻게 단련되였는가》는 자서전적자료를 예술적으로 일반화하는데서 일부 부족점을 나타내기는 하였지만 작가자신을 원형으로 한 소설창작에서 귀중한 성과와 경험을 남겼으며 청년들을 혁명적으로 교양하는데 크게 이바지하였다.

파제예브와 장편소설 《청년근위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원래 혁명투쟁에 대한 작품은 혁명투쟁에 직접 참가한 사람이 쓰면 실감있게 잘 쓸수 있습니다. 다른 나라의 혁명적인 작품들을 보아도 혁명투쟁에 참가한 사람들이 쓴것이 좋습니다.》

알렉싼드르 알렉싼드로비치 파제예브(1901—

1956)는 뜨베리현(현재 깔리닌주) 끼므릐시의 농민가정에서 태여났다. 그는 1908년에 부모를 따라 원동지방으로 이사갔으며 남우쑤리지방 츄구옙까마을에서 소학교를 졸업하고 울라지보스또크에서 상업학교를 다녔다.

그는 이 시기에 볼쉐비크당조직과 접촉하면서 혁명적영향을 받았으며 1918년에는 당시의 쏘련공산당에 입당하였다. 그는 울라지보스또크가 일시적으로 일본무력간섭자들에게 강점당하였던 1919−1920년기간에 원동빨찌산부대에 들어가 일제와 꼴챠크백파도당을 반대하는 투쟁에 적극 참가하였다.

그는 공민전쟁이 끝난 후 모스크바광산대학에서 공부하였으며 그후에는 몇해동안 모스크바와 여러 지방에서 주당지도원, 구역당비서 등으로 전문적인 당사업을 하다가 작가생활에 들어갔다.

그의 창작활동은 모스크바광산대학에 다니던 시기부터 시작되였다. 단편소설 《흐름을 거슬러》, 중편소설 《범람》등이 이 시기에 창작되였다. 《흐름을 거슬러》에서는 명령에 복종하지 않고 전투진지를 탈주하려고 하던 무정부적인 대원들의 집단이 공산당원들의 꾸준한 교양에 의하여 자각되고 조직화된 전투대오로 자라나는 과정을 진실하게 보여주었으며 《범람》에서는 혁명승리후 남우쑤리지방의 밀림지대에서 쏘베트주권을 일떠세우던 나날을 이야기하였다.

그가 작가로서의 지위를 확립한것은 1927년에 첫 장편소설 《괴멸》을 발표한 때부터이다. 소설은 공민전쟁시기 공산당원인 레빈쏜이 지휘하는 연해주 빨찌산부대의 생활과 투쟁을 통하여 혁명투쟁의 간고성을 보여주면서 혁명을 하기 위하여서는 많은 난관과 시련을 이겨내야 하며 복잡하고 어려운 혁명의 길에서 조금도 굴하지 않고 계속 용감하게 싸워나가는 사람만이 최후의 승리를 쟁취할수 있다는 혁명의 진리를 예술적으로 확인하였다. 이 소설은 초기쏘베트문학의 새로운 단계를 열어놓은 걸작으로 평가되였으며 쏘베트문학의 고전적인 작품의 하나로 되였다.

《괴멸》을 발표한 후 그는 다부작장편소설 《우데게족의 마지막사람》(1929−1940, 미완성)을 세상에 내놓았다. 소설에서 작가는 우데게족과 같이 아직 씨족제도하에서 생활하는 인민들도 반드시 사회주의의 길로 따라 나가게 된다는것을 보여주었다.

제2차 세계대전후에 그는 장편소설 《청년근위대》(1945, 초판, 1951, 개작)를 내놓았다. 작품은 《괴멸》과 함께 그의 대표작의 하나로 되였다.

그는 작가로서뿐아니라 평론가, 문예리론가, 쏘베트문학운동의 조직자로서 맹활약을 하였다. 그는 창작방법과 세계관에 관한 문제, 긍정적주인공에 관한 문제, 문학의 전통에 관한 문제, 창작에서 현대성과 력사주의원칙을 결합할데 대한 문제 등 일련의 원칙적인 미학실천적문제들에 대한 가치있는 견해를 내놓음으로써 사회주의적사실주의리론발전에 이바지하였다.

그는 또한 잡지 《붉은 처녀지》와 《문학신문》의 주필, 이전 쏘련작가동맹 중앙위원회 비서(1939−1944, 1954−1956), 총비서 겸 위원장(1946−1954)으로서 쏘베트문학의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활동을 벌렸으며 쏘련공산당 중앙위원회 위원(1939−1956), 쏘련최고쏘베트 대의원(제2기−제4기), 세계평화리사회 부위원장(1950−1956) 등으로 있으면서 사회정치활동에도 적극 참가하였다.

그는 1956년 55살의 한창나이에 자살하였다. 그의 자살과 관련하여 많은 설이 돌았으나 당시 쏘련에서 흐루쑈브수정주의도당이 권력을 잡고 이른바 쓰딸린《개인미신》비판 등의 구실로 수령을 헐뜯으면서 쓰딸린께 충실했던 일군들을 박해한데 항거하여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보고있다.

그는 공민전쟁과 이전 쏘련에서의 사회주의건설, 제2차 세계대전과 같은 중요한 력사적시기에 활동하면서 새로운 인간의 탄생과 혁명투쟁에서 당의 령도적역할을 훌륭하게 그려낸것으로 하여 쏘베트문학의 발전력사에 크게 이바지하였다.

그의 대표작의 하나인 장편소설 《청년근위대》는 제2차 세계대전시기 히틀러파쑈도당에게 강점당한 크리스노돈지역 청년근위대 대원들의 영웅적투쟁모습을 통하여 10월혁명후 사회주의제도하에서 교양육성된 새 세대들의 강의한 혁명적투지와 고상한 정신도덕적풍모를 보여준 작품이다.

소설의 사건은 도이췰란드침략군이 우크라이나의 크라스노돈지방을 강점했던 1941년 7월부터 1943년 2월까지의 기간에 벌어진다.

파쑈도이췰란드침략군이 오랜 탄광지구의 하나인 크라스노돈지방을 강점하자 이곳 청년들과 인민들은 붉은군대를 따라 후퇴의 길에 오른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적강점지역에 남게 된 올레그 꼬쉐보이, 와냐 젬누호브를 비롯한 공청원들은 원쑤들과 싸울것을 다짐하고 시내와 교외의 청년들을 묶어세우며 지하당조직의 지도밑에 청년근위대를 조직한다.

이완 뚜르께니츠를 대장으로 하고 꼬쉐보이를 정치위원으로 한 청년근위대는 조직당시에 30여명에 불과했으나 곧 100여명의 청년들을 망라한 큰 집단으로 발전하며 강점자들을 반대하여 영웅적투쟁을 벌린다. 그들은 인민들에게 승리의 신심을 북돋아주는 삐라들을 시내의 곳곳에 내다붙이고 모스크바방송을 청취하여 인민들에게 붉은군대의 승리의 소식을 알려주며 10월혁명기념일에는 시내의 여러곳에 붉은기가 휘날리게 하고 적의 로동소개소를 불사르며 반역자들을 처단하는 등 영웅적투쟁을 벌린다. 그들은 붉은군대의 재진격에 호응하여 무장폭동까지 준비한다.

그러나 해방을 앞둔 1943년 1월 변절자의 밀고로 조직이 드러나 청년근위대의 거의 전원이 체포되여 그들은 영웅적인 최후를 마친다.

소설은 주인공 올레그 꼬쉐보이를 비롯한 청년근위대 대원들의 형상을 통하여 적의 강점하에서 영웅적으로 싸운 이전 쏘련인민들의 투쟁모습을 일반화하였으며 사회주의제도하에서 자라난 새형의 인간들의 아름답고 고상한 정신도덕적풍모를 예술적으로 확인하였다.

소설에는 올레그 꼬쉐보이를 중심으로 와냐 젬누호브, 쎄료자 쭐레닌, 울랴 그로모바, 류바 쉡쪼바 등이 주요인물로 두드러지게 형상되여있다. 그들은 서로 다른 개성을 가지고있으나 공산당에 대한 충실성, 사회주의조국에 대한 사랑, 원쑤에 대한 비타협적인 투쟁정신 등 공통적인 성격적특징으로 하여 사상정신적으로 단합되여있으며 히틀러강점자들을 반대하는 투쟁에서 무비의 대중적영웅주의를 발휘한다.

작품에는 청년근위대 대원들의 투쟁을 배후에서 조직하고 이끌어주는 지하주당위원회 비서 쁘로쩬꼬, 지하구역당비서 류찌꼬브 등 공산당원들의 형상이 감명깊게 그려져있다.

소설에는 도이췰란드파쑈장관 폰 웬쩰, 비밀경찰 펜봉, 변절자 포민 등 추악한 원쑤들의 가증스러운 형상도 생동하게 그려져있다.

작품은 청년근위대 대원들이 장렬하게 희생되지만 그들이 지닌 조국애와 투쟁정신, 영웅적위훈은 영원히 살아있으리라는 확신과 혁명적락관주의사상을 안겨주고있다.

장편소설 청년근위대는 작품이 거둔 사상예술적성과로 하여 쏘베트소설문학을 발전시키고 인민들과 청년들을 사회주의적애국주의와 원쑤에 대한 비타협적인 투쟁정신으로 교양하는데 크게 이바지하였다.

숄로호브와 장편소설 《고요한 돈》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원래 숄로호브는 쏘베트인민들뿐아니라 우리 인민의 사랑을 받던 작가였습니다.》

미하일 알렉싼드로비치 숄로호브(1905—1984)는 남부로씨야 돈지방 로스또브 나 도누에 있는 웨쏀스까야마을의 이주민가정에서 태여났다. 그는 공민전쟁시기 중학교를 중퇴하고 붉은군대에 입대하였으며 돈지방에서 쏘베트주권을 수립하기 위한 투쟁에 참가하였다.

그는 1922년말 모스크바에 이주하여 로동을 하면서 소설창작을 시작하였으며 1926년에 작품집 《돈이야기》와 《푸른 초원》을 출판하였다. 작품집에 수록된 그의 초기단편소설들(《망아지》, 《목동》, 《공화국혁명군사위원회 위원장》 등)은 돈지방에서의 공민전쟁과 가렬한 계급투쟁을 진실하게 반영하고 까자크주인공들의 형상을 선명하게 창조한것으로 하여 오랜 작가들과 독자들의 주목을 끌었다.

그는 1924년에 돈지방의 고향마을로 돌아와 그곳에서 계속 소설창작에 전념하였다.

그는 23살때인 1928년에 장편소설 《고요한 돈》 제1권을 발표하였으며 1940년까지 10여년동안에 전 4권으로 구성하여 소설을 완성하였다.

작가는 이 작품과 장편소설 《개간된 처녀지》의 창작을 동시에 밀고나가 1932년에 제1부를, 1960년에 제2부를 발표하였다.

그는 당시 쏘련에서의 농업집단화운동을 취급한 이 소설에서 당을 대표하여 농촌에 파견된 뿌찔로브공장 로동자 다비도브를 비롯한 농촌

빈고농핵심들과 반혁명폭동분자 뾜롭쩨브일당과의 심각한 계급투쟁과정을 진실하게 그리였으며 그것을 통하여 당의 령도적역할과 계급적원칙을 생활적으로 깊이있게 보여주었다.

제2차 세계대전시기에 그는 종군기자로 전선에 나가 생동한 보도기사들과 장편소설 《그들은 조국을 위하여 싸웠다》(1943—1944, 미완성), 단편소설 《증오의 과학》(1942), 《인간의 운명》(1956)을 비롯한 문학작품들을 써내여 쏘베트인민들에게 승리의 신심을 북돋아주고 그들을 투쟁에로 고무추동하였다.

전후에 그는 문학창작활동을 계속하면서 당시 쏘련공산당 중앙위원회 위원, 쏘련최고쏘베트대의원, 쏘련작가동맹 비서로 사회정치활동에도 적극 참가하였다.

쏘베트국가와 인민은 자기의 문학창작활동으로 조국에 헌신한 숄로호브의 공로를 높이 평가하여 그에게 당시 쏘련2중로력영웅칭호와 레닌훈장을 비롯한 많은 훈장을 수여하였다. 장편소설 《개간된 처녀지》와 《고요한 돈》은 당시 레닌상과 쏘련국가상을 수여받았다.

숄로호브는 10월혁명과 공민전쟁, 농업집단화운동, 쏘도전쟁과 같은 거대한 력사적사건들을 사실에 기초하여 폭넓게 재현하면서 이전 쏘련사람들의 생활과 투쟁을 뛰여난 예술적기량을 가지고 독창적으로 깊이있게 형상한 작품들을 남김으로써 쏘베트문학사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있다.

장편소설 《고요한 돈》(전 4권, 8부)은 제1차 세계대전전야로부터 1917년 2월혁명과 10월혁명을 거쳐 공민전쟁이 끝나기까지 이전 쏘련의 복잡하고 긴장한 정세를 배경으로 돈지방 까자크들의 준엄한 계급투쟁을 그린 작품이다.

소설에서는 까자크마을 따따르스끼부락의 농민청년 그리고리 멜레호브의 운명선을 주선으로 끌고가면서 당시의 복잡한 정세와 동란시기 돈까자크들의 생활사를 폭넓게 펼쳐보이고있다.

그리고리는 이웃에 사는 아스따호브의 처 악씨니야와 사랑에 빠졌다가 아버지의 분부로 부농의 딸 나딸리야한테 마음에 없는 장가를 들게 된다. 하지만 그리고리는 온순하고 내성적인 나딸리야보다 불같은 정열을 가진 악씨니야한테 더 마음이 쏠려있은것으로 하여 나중에는 아버지와 충돌하고 악씨니야와 함께 마을에서 달아나 짜리군대 장령 라스뜨니쯔끼의 집에서 머슴살이를 한다.

제1차 세계대전시기 징병에 걸린 그리고리는 전선으로 나가고 그가 없는 사이에 악씨니야는 주인집의 방탕한 아들 예브게니의 유혹에 빠져버린다. 부상당하여 입원치료끝에 휴가를 받고 돌아온 그리고리는 이 사실을 알고 예브게니에게 매를 안긴다. 그는 잘못을 빌며 매달리는 악씨니야를 뿌리치고 아버지와 나딸리야한테 돌아온다.

그가 다시 전선으로 나가자 혁명이 일어난다. 그는 처음에 붉은군대에 들어가 부대장으로서 백파군대와 싸우다가 부상당하여 다시 고향마을로 돌아온다.

얼마후부터 마을에는 붉은군대와 백파군대가 수시로 드나들면서 매우 복잡한 사태가 빚어지게 되며 까자크들과 한마을사람들, 가족친척들이 두편으로 갈라져 피어린 싸움을 벌리게 된다. 그리고리의 매부가 될 빈농 꼬쉐보이가 붉은군대에 입대하는가 하면 그의 형 뻬뜨로와 장인인 부농 꼬르슈노브는 백파군에 가담한다.

이러한 시기에 중농출신인 그리고리는 동요끝에 반혁명의 편에 넘어가 백파군의 련대장으로, 반란군의 사단장으로 되여 붉은군대를 반대하여 싸움으로써 혁명과 인민앞에 큰 죄를 짓는다.

드디여 붉은군대의 총공격이 시작된다. 악씨니야와 다시 결합되여 함께 피난민들속에 끼여 남쪽으로 도망치던 그리고리는 고향 돈을 잊을수 없어 붉은군대에 항복하고만다. 그는 얼마동안 붉은군대에 복무하다가 제대되여 마을로 돌아온다.

그러나 지난날의 죄과로 하여 체포될 위험에 처하게 되자 다시 백파잔당들인 비적들의 무리에 가담하여 떠돌아다니며 거기서 탈주하여 악씨니야를 찾아 둘이서 멀리 도망치려고 하다가 악씨니야마저 잃고만다.

살아갈 희망을 잃은 그리고리는 탈주병들의 무리속에 섞여 방랑하다가 봄이 오자 다시 마을로 돌아온다.

작품은 주인공 그리고리 멜레호브의 형상을 통하여 인민의 자유와 해방을 위한 혁명투쟁의 길에 인민들과 함께 나서지 못하는 사람은 파멸을 면치 못한다는 심각한 교훈을 주고있다.

주인공 그리고리는 중농출신의 까자크이다. 그

는 소소유자인 동시에 근로자이다. 그는 혁명과 반혁명사이에서 계속 동요하며 그 어떤 제3의 길을 찾아보려고 헛되이 시도하기도 한다. 끝내 그는 어느 편에도 들지 못하고 타락하며 사상정신적 및 도덕적파멸에 빠지고만다.

그가 이런 운명의 길을 걷게 된것은 낡은 사상과 편견에 깊이 물젖어있었기때문이다. 작품은 주인공의 운명을 통하여 자기의 계급적처지로부터 인민들과 함께 혁명의 길로 나아갈수 있는 사람도 낡은 사상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인민과 혁명을 배반하는 수치스러운 길에 굴러떨어질수 있다는 심각한 교훈을 주고있다.

작품에서는 그리고리 멜레호브의 운명과 나란히 악씨니야, 나딸리야, 빤쩰레이 쁘로꼬피예비치, 꼬쉐보이를 비롯한 수많은 까자크들의 운명을 그려보임으로써 공민전쟁시기 반혁명의 근거지로 전변된 돈지방에서 혁명이 어려운 시련을 이겨내고 승리하는 복잡한 과정을 진실하게 보여주었다.

소설은 인민대중이 착취사회를 뒤집어엎기 위하여 벌리는 혁명투쟁은 지난 시기의 그 어떤 투쟁보다도 치렬하게 벌어진다는것과 이 투쟁에서 당의 령도를 받는 인민대중이 승리하는것은 필연적이라는것을 예술적화폭으로 감명깊게 펼쳐보이였다.

소설은 구성의 폭이 넓고 묘사가 세밀하며 력사적사실과 개별적인간의 운명을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묘사한것, 심리묘사가 깊은것과 같은 성과도 나타내였다.

그러나 소설은 적지 않은 부족점도 나타내였다.

소설의 기본결함은 주인공을 옳게 설정하지 못한것이다.

소설은 주인공이 계급적으로 각성되고 자라나 혁명의 길로 나아가는것이 아니라 혁명과 반혁명사이에서 끊임없이 동요하다가 끝내 혁명의 길에 들어서지 못하고 타락하고마는 까자크를 주인공으로 내세움으로써 사회주의를 위한 혁명투쟁과정을 깊이있게 반영하지 못하였다. 이 소설이 심한 동요와 우여곡절을 겪다가 끝내 혁명의 진리를 찾고 혁명의 길에 들어서는 까자크의 형상을 창조하였더라면 혁명투쟁이 벌어지는 현실을 반영하는데서나 작품의 교양적가치를 높이는데서 큰 성과를 거두었을것이다.

소설에는 무질서한 남녀관계를 보여준것을 비롯하여 자연주의적요소도 적지 않다.

쏘베트소설문학발전에 이바지한 이름난 작가들로는 또한 쎄라피모비치, 푸르마노브, 페진, 레오노브, 뽈레보이, 챠꼽스끼, 마르꼬브, 본다레브, 까르뽀브 등을 들수 있다.

쎄라피모비치 알렉싼드르 쎄라피모비치(1863—1949)는 돈지방 까자크가정에서 출생하였다. 그는 19세기 90년대부터 고리끼와 함께 프로레타리아문학운동에 참가한 쏘베트문학계의 원로격의 한사람이다.

그가 쏘베트문학계에서 대가로 인정받게 된것은 장편소설 《철의 흐름》(1924)을 창작한 때부터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길림감옥에 갇혀있을 때에 〈철의 흐름〉이라는 소설을 읽고 깊은 감명을 받았는데 그것이 그후 혁명투쟁과정에서 곤난을 이겨내는데 큰 도움으로 되였습니다.》

로씨야에서 공민전쟁때 한 부대가 간고한 시련을 이겨내면서 적의 포위를 뚫고나가는것을 내용으로 한 장편소설 《철의 흐름》은 혁명의식이 미약하고 비조직적이며 규률이 없던 군중이 혁명의 간고하고도 준엄한 투쟁속에서 점차 개조되고 단련되여 조직적인 력량으로 자라나는 과정을 보여주고있다.

1918년 여름 꾸반강 하류 따만반도에서 군사활동을 하고있던 붉은군대(따만군대)가 백파반란군의 포위속에 들게 된다. 까자크지주들과 부농들에게 갖은 착취와 압박을 받으며 살아온 빈고농들과 목수, 대장쟁이, 어부, 수공업자들로 무어진 따만군대는 착취자들과 백파도당들을 반대하여 청소한 쏘베트정권을 따라나선다. 그러나 따만군대는 명색이 군대이지 규률도 없고 락심과 의혹, 지휘관들에 대한 불신임이 지배하는 그야말로 오합지졸의 군중에 불과하였다.

이러한 따만군대의 총지휘관으로 선출된 꼬주흐는 부대내에 지휘관의 명령에 절대복종하는 강한 규률을 세웠을뿐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속에 계급적원쑤들에 대한 적개심을 불러일으킨다.

꼬주흐의 지도와 영향밑에 따만군대는 백파까자크들과 외래무력간섭자들을 비롯한 적들과의

가렬한 전투 그리고 기아와 무더위, 질병, 엄혹한 자연조건을 비롯한 온갖 난관과 간난신고를 이겨내고 주력부대와 만나게 된다.

이처럼 소설에서는 무질서하고 산만하던 군중이 혁명의 세찬 불길속에서 모진 곤난과 시련을 이겨내고 마침내 강철의 대오, 철의 흐름으로 자라나는 과정을 감명깊게 펼쳐보이고있다.

소설은 혁명승리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강의한 의지를 가지고 온갖 난관과 시련을 극복하면서 대오를 승리에로 이끌어나가는 주인공 꼬주흐의 형상을 통하여 혁명의 길에는 간고한 시련과 우여곡절이 있을수 있으나 그것을 끝까지 이겨내는 사람만이 최후승리를 달성할수 있다는것을 잘 보여주고있다.

소설은 또한 소박하고 평범한 근로인민이 각성하기만 하면 참으로 큰 힘을 발휘할수 있다는것과 자기의 주권, 자기의 조국이 있어야 참된 삶과 행복이 있으며 개인의 모든것은 버릴수 있어도 인민의 주권만은 절대로 버려서는 안된다는 사상을 생동한 예술적화폭을 통하여 힘있게 강조하고있다.

이것이 소설이 거둔 중요한 사상예술적성과이다.

푸르마노브

드미뜨리 안드레예비치 푸르마노브(1891－1926)는 병을 만나 35살까지밖에 살지 못했으며 그가 쓴 작품수도 몇편 되지 않지만 장편소설 《챠빠예브》와 더불어 쏘베트문학사에 길이 전해진 작가이다. 그가 《챠빠예브》와 같은 좋은 작품을 쓸수 있은것은 자신의 체험에 기초했기때문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쏘련예술영화 〈챠빠예브〉의 원작인 장편소설 〈챠빠예브〉는 공민전쟁때 챠빠예브와 같이 싸운 정치위원이 썼습니다.》

빈농가정에서 태여나 청년시절부터 혁명투쟁에 참가한 푸르마노브는 공민전쟁때 챠빠예브사단 정치위원으로서 챠빠예브와 함께 싸웠다. 공민전쟁이 끝난 후 대학을 졸업하고 작가가 된 그는 자신의 산 체험에 기초하여 장편소설 《챠빠예브》(1923)를 창작하였다.

장편소설 《챠빠예브》는 공민전쟁때 동부전선 꼴챠크백파도당이 남부의 제니낀백파도당과 합세하여 청소한 쏘베트로씨야를 포위섬멸하려고 총공세를 취하던 1919년의 준엄한 시기를 시대적배경으로 하여 꼴챠크도당을 쳐부시는 전투에서 빛나는 위훈을 세운 붉은군대 제25사단장 챠빠예브와 이 사단 장병들의 영웅적투쟁모습을 보여주고있다.

머슴군출신으로 사단장까지 된 챠빠예브는 민첩하고 능숙한 전투지휘로 사단을 이끌어 백파도당들에게 된타격을 안기며 적강점지역들을 련이어 해방하며 적들을 추격해간다. 챠빠예브의 지휘밑에 사단장병들은 무비의 대중적영웅주의를 발휘한다. 로동자부대를 이끌고 와 사단정치위원이 된 클릐치꼬브(작가자신)가 농민들로만 구성되였던 사단의 부정적요소를 바로잡기 위한 정치사업을 능숙하게 한다. 그러나 최후승리를 앞둔 시기에 백파군의 한 부대가 몰래 배후에서 뚫고들어와 사단지휘부를 불의습격하는 바람에 챠빠예브를 비롯한 지휘부성원들전원이 장렬하게 전사한다. 이 비보를 받은 사단의 구분대들은 일대 복수전을 벌려 원쑤놈들을 철저히 소멸해버린다.

소설은 공민전쟁시기 인민들의 투쟁정신을 잘 반영하였으며 전쟁승리를 위한 투쟁에서 당의 령도적역할, 농민이 기본으로 구성되였던 챠빠예브사단을 의식화하고 조직화함에 있어서 로동계급이 논 역할을 생동하게 보여주고있다.

주인공 챠빠예브는 혁명과 공민전쟁의 불길속에서 태여난 인민출신의 대담하고 능숙한 군사지휘관의 전형이다. 그의 형상에는 공민전쟁시기 발휘했던 원쑤격멸의 강의한 투쟁정신이 집중적으로 반영되여있다. 그리고 인내성있고 능숙한 방법으로 사단지휘관들과 전사들을 교양하는 정치위원 클릐치꼬브의 모든 활동에는 붉은군대에 대한 당의 령도가 구현되여있다.

장편소설 《챠빠예브》는 쏘베트문학발전의 초창기(1920년대초)에 새로운 사회주의적문학창조에서 본질적문제의 하나인 혁명투쟁에서 당의 령도문제, 령도계급으로서의 로동계급의 역할과 농민에 대한 지도문제들을 옳게 해결함으로써 귀중한 경험을 남겨놓았다.

페 진

꼰스딴찐 알렉싼드로비치 페진(1892－1977)은 쏘베트문학의 가장 오랜 세대 작가의 한사람이다. 반세기에 이르는 창작기간 그는 주로 지식인문제와 혁명문제를

기본으로 취급하면서 이를 통하여 중요한 사회미학적문제들을 해명하였다.

그의 대표작인 3부작장편소설 《첫 기쁨》(1945), 《류다른 여름》(1948), 《우등불》(1, 2권, 1961—1965)은 지식인과 혁명문제에 대한 작가의 오랜 기간의 예술적탐구를 총화한 작품이다. 소설은 주인공들의 운명을 통하여 10월혁명전 짜리로씨야때(1910년대)로부터 10월혁명과 공민전쟁을 거쳐 쏘도전쟁에 이르기까지 로씨야의 력사를 폭넓게 반영하고 혁명과 건설의 전진과 더불어 자라나는 혁명적인민들의 성장모습을 보여주면서 만약 사람들이 세계의 혁명적개조를 위한 투쟁에 참가하지 않는다면 생활은 무익할것이라는 사상을 예술적으로 해명하고있다. 이 사상은 직업적혁명가 이즈베끄브와 라고진으로부터 지식인작가 빠스뚜호브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등장인물들이 실천을 통하여 깨달은 진리라는것으로 강조되고있다.

레오노브 레오니드 막씨모비치 레오노브(1899—1994)도 쏘베트문학계에서 이름있는 로세대작가의 한사람이다.

그는 1922년부터 작가생활을 시작하여 《쏘찌》(1930), 《대양에로의 길》(1935), 《웰리끄숨스크점령》(1944)과 같은 소설들, 《습래》(1942), 《황금마차》(1946)와 같은 희곡들을 썼다.

그는 대표작인 장편소설 《로씨야의 숲》(1953)에서 10월혁명시기부터 조국전쟁시기에 이르는 근 반세기의 력사를 시대적배경으로 하여 로씨야의 숲을 잘 가꾸어 조국의 재부를 풍부히 하며 나라의 륭성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과학자들의 애국적인 투쟁과 그들의 고상한 정신도덕적풍모를 보여주면서 생활에서 절실하고 의의있는 문제들을 제기하였다.

소설의 주인공 이완 위흐로브교수는 나라의 귀중한 자연부원인 숲을 사랑하고 그것을 잘 가꾸어 후대들에게 넘겨주기 위하여 모든 힘을 다 바쳐 투쟁하는 애국적인 쏘베트과학자의 전형으로 형상되였다.

소설은 로씨야의 숲을 잘 가꾸기 위한 과학자들의 창조적인 투쟁을 기본으로 하여 구성의 대를 세우고 그 해결과정을 통하여 혁명과 인민, 인간과 자연, 력사와 문화 등 의의있는 사회적문제를 제기하고 예술적으로 해결한것으로 하여 1950년대 쏘베트문학에서 성과작의 하나로 알려져있다.

뽈레보이 보리스 니꼴라예비치 뽈레보이(1908—1981)는 쏘베트시기에 자라난 이름있는 소설가이다. 그는 중편소설 《들끓는 직장》(1933)을 비롯하여 사회주의현실주제를 기본으로 평범한 근로자들의 보람찬 로동생활을 형상하는데 힘을 기울였을뿐아니라 장편소설 《참된 사람의 이야기》(1946), 중편소설 《녀의사 웨라》(1966), 단편소설집 《우리는 쏘베트사람들》(1948) 과 같은 전쟁주제작품창작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었다.

그의 대표작인 장편소설 《참된 사람의 이야기》는 쏘도전쟁때 두다리를 잃고도 다시 비행기를 탄 비행사영웅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있다.

공중전에서 격추되여 적후의 수림속에 떨어진 비행사 메레씨예브는 두다리에 중상을 입은 몸으로 간난신고끝에 부대로 돌아온다. 병원에서 절단수술을 하여 두다리를 잃은 주인공은 비행기를 탈수 없게 된것으로 하여 절망에 빠진다. 그러나 그는 기어이 비행기를 타겠다고 결심하고 의족을 한 몸으로 걷기련습, 달리기운동, 춤추기, 비행훈련을 꾸준히 하여 마침내 추격기를 타게 된다. 그는 적에 대한 불타는 증오심을 안고 공중전에 참가하여 적기 4대를 쏴떨구는 전과를 올린다.

주인공 메레씨예브의 성격에서 핵을 이루는 것은 쏘베트조국에 대한 불타는 사랑의 감정이다. 소설은 매 장면마다에서 주인공의 전투적위훈과 불굴의 의지를 쏘베트애국주의와 결부하여 보여줌으로써 그가 발휘한 영웅적위훈의 정신적바탕을 힘있게 강조하였다. 원형에 기초한 전형창조에서의 높은 예술적기교, 서정토로와 묘사의 유기적결합, 갈피마다에 풍기는 강한 랑만적정서와 혁명적락관주의 등은 이 소설의 주요한 예술적특징으로 되고있다.

장편소설 《참된 사람의 이야기》는 쏘베트인민의 전형을 훌륭히 창조한것으로 하여 청년들과 인민들을 사회주의적애국주의사상으로 교양하는데 이바지하였다.

샤꼽스끼 알렉싼드르 보리쏘비치 샤꼽스끼(1913－1994)는 제2차 세계대전시기부터 창작활동을 시작하여 전후시기에 널리 알려진 소설가이다. 그는 이전 쏘련에서 수정주의가 대두한 1950년대 중엽이후에도 사회주의적사실주의를 견지하였으며 여러편의 좋은 소설들을 내놓았다.

그의 작품들가운데서도 전후시기 남부싸할린섬에서의 사회주의개조를 위한 투쟁을 형상한 《여기는 벌써 아침이다》(1949), 조국해방전쟁시기 조선인민의 투쟁을 생동하게 형상한 《황철은 초소에 서있다》, 전쟁주제의 작품인 《봉쇄》(전 5권, 1968－1975), 《승리》(전 3권, 1978－1981)와 같은 장편소설들이 잘 알려져있다.

그의 대표작은 장편소설 《봉쇄》이다.

소설은 제2차 세계대전시기 파쑈도이췰란드 침략군의 포위속에 든 레닌그라드인민들이 당의 령도밑에 굴함없이 싸움으로써 끝내 봉쇄를 이겨낸데 대해 력사적사실에 기초하여 폭넓게 그리고있다. 소설은 붉은군대 군관 즈뱌긴쩨브, 준의 웨라를 비롯한 여러 인물들의 운명선을 따라가면서 쏘도전쟁시기 레닌그라드방위자들이 900일동안이나 적의 포위속에 있으면서도 당의 령도밑에 높은 당성과 희생성을 발휘하여 영웅적으로 싸운 내용을 잘 형상하고있다. 소설은 전쟁으로 모든것이 질식상태에 빠진 어려운 환경에서도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당의 두리에 뭉쳐 당을 따라 간고분투하며 힘차게 싸웠기때문에 승리할수 있었다는 사상을 예술적으로 확증하고있다.

소설의 중요한 특징의 하나는 당의 령도선을 뚜렷이 부각시킨것이다. 소설은 쥬다노브를 비롯한 당일군들의 형상을 통하여 당의 령도가 전쟁승리의 기본요인으로 되였다는것을 형상적으로 밝혀내고있다.

동시에 소설은 즈뱌긴쩨브, 꼬롤료브, 웨라, 왈리쯔끼 등의 형상을 통하여 당의 두리에 굳게 뭉친 군대와 인민의 용감한 투쟁모습과 고상한 정신세계를 진실하게 그려내고있다.

소설에서 다른 하나의 특징은 실재한 력사적사실들과 허구, 실재한 인물들과 가상인물들을 능숙하게 결합시킴으로써 레닌그라드방어전투의 전모를 폭넓고 생동하게 형상하였으며 전쟁 전행정에서 레닌그라드방어전투가 차지하는 위치를 밝혀내고 파쑈침략자들에 비한 붉은군대와 인민의 정치도덕적우월성을 예술적으로 확인한것이다.

지난 쏘도전쟁시기 레닌그라드방위자들의 간고한 투쟁모습을 폭넓게, 생동하게 그려낸 장편소설 《봉쇄》는 전쟁물주제의 소설창작에서 쏘베트문학이 거둔 성과작의 하나로 된다.

마르꼬브 게오르기 모께예비치 마르꼬브(1911－1991)는 소설창작으로 이름난 쏘베트작가의 한사람이다.

그는 서부씨비리 똠스크현의 궁벽한 마을에서 농민의 아들로 태여나 1930－1932년에 똠스크종합대학에서 공부하고 공청사업과 공청신문편집사업을 하였다.

그는 1936년부터 문학창작활동을 시작하여 첫 장편소설로 《스뜨로고브일가》(1,2권, 1939－1946, 쓰딸린상)를 내놓았는데 작품은 씨비리에서 쏘베트주권을 세우기 위한 혁명가들과 인민들의 피어린 투쟁력사를 형상하였다.

1946년에 쏘련공산당(당시)에 입당한 작가는 《스뜨로고브일가》의 속편인 장편소설 《땅의 소금》(1,2권, 1954－1960)을 내놓은데 이어 장편소설 《아버지와 아들》(1963－1964)을 발표하였다. 작품은 사회주의건설의 초시기 씨비리사람들의 새생활창조를 위한 투쟁을 그리면서 평범한 씨비리농촌청년이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앞당겨오기 위한 투사로 성장해가는 모습을 생동하게 보여주었다. 작품에서는 혁명투쟁에서의 계승성문제가 강조되였다.

그는 장편소설 《씨비리》(1, 2권, 1969－1973)에서도 10월혁명전 씨비리생활을 펼쳐보이면서 혁명의 필연성을 확증하였다. 작품에서는 씨비리에 대한 뜨거운 사랑을 안고 훌륭한 미래를 위하여 한생을 바치는 로학자를 비롯하여 소박하고 근면한 씨비리사람들의 인상깊은 형상을 창조하였다. 그밖에 그는 장편소설 《미래의 세기를 향하여》(제1부, 1981－1982 ; 제2부 제1편, 1986)도 썼다.

그는 당시 쏘련공산당 중앙위원회 위원, 쏘련최고쏘베트 대의원, 쏘련 2중사회주의로력영웅, 레닌상수상자였으며 쏘련작가동맹 중앙위원회 제1비서(1956－1977)사업도 하였다.

본다레브 유리 와씰리예비치 본다레브(1924—)는 전후 1950년대에 문단에 진출하여 자신의 전쟁체험에 기초한 전쟁주제와 현실주제의 소설을 여러편 내놓아 널리 알려지게 된 작가이다.

그는 우랄지방인 츠깔로브주 오르스크시의 사무원가정에서 태여나 중학생때인 18살에 쏘베트조국을 수호하기 위한 성전에 참가하였다. 그는 군관학교를 졸업하고 전쟁말기까지 포병소대장으로 용감하게 싸웠다. 군대에서 화선입당을 한 그는 부상을 입고 제대된 후 몇달동안의 사회생활을 거쳐 고리끼문학대학을 졸업한 다음 직업적작가로 되였다.

그는 1949년부터 창작활동을 시작하여 전쟁주제의 중편소설 《대대는 화력지원을 요구한다》(1957), 《최후의 일제사격》(1959)을 발표하였다. 그가 작가로서 인정을 받은것은 장편소설 《뜨거운 백설》(1969, 레닌상) 창작으로였다. 소설은 쏘도전쟁시기 붉은군대장병들의 위훈을 실감있게 형상하였다.

그는 또한 장편소설 《고요》(1962), 중편소설 《친척들》(1969)을 창작한데 이어 70—80년대에 작가, 미술가, 영화연출가 등 지성인들을 주인공으로 설정하고 쏘도전쟁시기와 현시대를 련결시킨 장편소설 《기슭》(1975, 국가상), 《선택》(1980, 국가상), 《놀음》(1985)을 창작하여 내놓았다. 그는 영화문학 《해방》(합작, 1970, 레닌상)창작에도 참가하였다.

그는 당시 쏘련최고쏘베트 대의원, 쏘련작가동맹 중앙위원회 비서로 활동하였으며 사회주의로력영웅칭호(1984)를 받았다.

까르뽀브 울라지미르 와씰리예비치 까르뽀브(1922—)는 이전 쏘련시기에 쏘련작가동맹 중앙위원회의 마지막 제1비서로 있었으며 쏘련붕괴후에도 사회주의에 대한 신념을 버리지 않고 활약한 저명한 로씨야작가이다.

그는 오렌부르그에서 태여나 군관학교를 거쳐 쏘도전쟁시기 정찰병으로 복무하였으며 당시 쏘련영웅칭호를 받았다. 1943년에 화선입당을 한 그는 전후에 프룬제군사대학과 고리끼문학대학 야간학부를 졸업했으며 련대장, 부사단장, 군관학교 부교장 등 25년간 군사복무를 하면서 대좌로까지 되였다. 그는 제대된 후 직업적작가가 되였다.

그는 문예잡지 《노브이 미르》 주필(1981—1986)을 거쳐 1986년에 당시 쏘련작가동맹 중앙위원회 제1비서, 쏘련공산당 중앙위원회 후보위원, 위원으로 되였으며 쏘련최고쏘베트 대의원으로 선거되였다.

문학작품은 1945년부터 발표하기 시작하여 주로 군대생활과 쏘도전쟁을 주제로 한 소설을 창작하였다.

그의 주요작품으로는 소설집 《군관들의 머리는 일찌기 희여진다》(1963), 장편소설 《영원한 전투》(1967), 《원수의 지휘봉》(1970), 《생포하라!》(1975), 3부작《쥬꼬브원수》, 중편실화소설 《사령관》(1982—1984) 등이 있다.

그는 1991년 이전 쏘련이 해체된 후에도 사회주의에 대한 신념을 버리지 않았으며 사회주의와 사회주의문학을 지키기 위한 활동을 벌렸다.

그는 2000년대초에 쓰딸린의 군사적업적을 칭송한 장편실화 《대원수》를 창작하여 내놓았다.

작가는 작품창작을 위하여 해내외에서 쓰딸린과 관련한 자료들을 모조리 연구했을뿐아니라 력사적사실자료, 극비문건자료, 몰로또브, 쥬꼬브, 쓰딸린의 딸과 통역원을 비롯한 수많은 연고자들의 증언과 회상자료, 일화 등 새로운 자료들을 많이 발굴수집하였다.

그는 이러한 사실자료에 기초하여 작품에서 흐루쑈브도당과 《개편》시기 《민주주의자들》, 제국주의어용나팔수들이 쓰딸린의 권위를 헐뜯기 위하여 벌린 악랄한 악선전이 허위날조된 모략이라는것을 까밝히고 이전 쏘련군대의 최고사령관이였던 쓰딸린의 령도업적을 옹호고수하였으며 쓰딸린의 현명한 령도가 있었으므로 당시 쏘련이 사회주의강국으로 발전하고 제2차 세계대전에서 승리할수 있었다는것을 력사적으로 확증하였다.

3) 시문학과 마야꼽스끼

20세기 로씨야문학은 시문학에서도 사회주의적사실주의가 주류를 이루고 발전하였다.

10월혁명전의 프로레타리아시문학에 시원을 둔 로씨야의 사회주의적사실주의시문학은 사회주의혁명과 사회주의건설시기의 시대적요구, 쏘

베트로동계급과 인민대중의 사상감정과 체험을 시적으로 일반화한 혁명적이며 인민적인 시문학으로서 자기의 새로운 특성을 뚜렷이 과시하였으며 쏘베트인민을 혁명과 건설을 위한 투쟁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키는 수단으로 되였다.

쏘베트사회주의적사실주의시문학을 개척하고 발전시켜나가는데서 앞장선것은 마야꼽스끼였다. 그와 함께 베드느이(1883—1945), 찌호노브(1896—1979), 레베제브 꾸마츠(1898—1949), 쑤르꼬브(1899—1983), 쒸빠쵸브(1899—1979), 뜨바르돕스끼(1910—1971), 이싸꼽스끼(1900—1973), 그리바쵸브를 비롯한 수많은 시인들이 쏘베트시문학의 발전에 이바지하였다.

이들에 의하여 서사시와 서정시, 담시, 정론시, 풍자시, 우화시, 가사 등 다양한 주제를 다룬 각이한 형태의 시작품들이 수많이 창작되였다.

서사시에서는 레닌의 형상창조에 바쳐진 《울라지미르 일리이치 레닌》 (마야꼽스끼, 1924), 혁명투쟁을 노래한 《열두사람》(블로크, 1918), 사회주의건설을 취급한 《좋다!》(마야꼽스끼, 1927), 전쟁주제의 《끼로브는 우리와 함께》(찌호노브, 1941), 《조야》(알리게르, 1942), 《와씰리 쬬르낀》(뜨바르돕스끼, 1945)을 비롯한 많은 작품들이 창작되였다.

서정시에서도 수령에 대하여 노래한 《레닌묘앞에서》(이싸꼽스끼, 1935), 《쓰딸린의 노래》(쑤르꼬브, 1937), 혁명을 노래한 《좌익행진곡》(마야꼽스끼, 1918), 애국주의주제의 《쏘베트려권》(마야꼽스끼, 1929), 《조국에 대한 노래》(레베제브 꾸마츠, 1935), 《후조들은 날아가네》(이싸꼽스끼, 1941), 조국보위주제의 《용감한 사람들의 노래》(쑤르꼬브, 1941)를 비롯한 많은 시들이 인민들속에서 널리 랑송되였다.

쏘베트시문학에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칭송한 서사시 《**김일성**장군》(그리바쵸브, 1950)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를 칭송한 서사시 《**김정일**장군》(브레쥬네브, 1995)도 창작되였다.

《김일성장군》 서사시 《**김일성**장군》은 1949년에 우리 나라를 방문하여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접견을 받는 영광을 지닌 로씨야시인 니꼴라이 마뜨베예비치 그리바쵸브(1910—1992)가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다함없는 흠모의 정과 최대의 존경을 담아 주체39(1950)년에 지은 작품이다.

서사시는 총 5장으로 구성되여있다. 제1장에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접견을 받는 영광을 지닌 시인의 끝없는 감격을 노래하면서 진정한 인민의 수령의 위대한 풍모를 시화하고있으며 제2장에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탄생하시고 자라나신 만경대의 초가집, 조선인민과 전세계 혁명적인민들의 마음의 고향을 노래하면서 어리신 몸으로 조국광복을 위한 혁명의 길에 나서신 경애하는 수령님의 위대한 풍모에 대하여 칭송하고있다. 제3장에서는 높이 솟아있는 혁명의 성산 백두산의 위용과 기개를 노래하면서 영광스러운 항일혁명투쟁을 감동적으로 시화하고 위대한 수령님께서 이룩하신 빛나는 혁명전통의 거대한 력사적의의를 밝히고있다. 제4장에서는 인류력사상 처음으로 미제를 내리막길에 떨어뜨리신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시며 뛰여난 군사전략가이시며 혁명의 영재이신 경애하는 수령님의 위대한 풍모를 시화하고 제5장에서는 위대한 **김일성**장군님의 신출귀몰하시는 탁월한 전략전술에 의하여 미제의 마지막숨통이 끊어져나가리라는 굳은 확신을 표명하고있다.

불타는 모든 심장들을 걸쳐
전승의 높은 신념을 울리며
조선의 남북에 걸쳐
김일성장군 만세소리 높아진다

이와 같이 서사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업적을 칭송한 송가형식의 작품으로서 작품의 규모가 크고 구성과 언어형상에서 간결성과 선명성, 함축과 비약을 잘 보장하고있으며 서사적이면서도 서정적토로가 상대적으로 강한 특성을 보여주고있다.

그리바쵸브의 서사시 《**김일성**장군》은 인류가 낳은 혁명의 영재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성을 심오한 시적형상으로 노래한 작품이며 외국인들이 위대한 수령님께 드린 서사시적형식의 첫 송가작품으로서 위대한 수령님을 칭송한 송가작품들가운데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있다.

《김정일장군》 주체84(1995)년에 발표된 서사시 《**김정일**장군》은 로씨야작가 알렉싼드르 브레쥬네브가 사회주의조선을 방문하여 자신이 직접 체험하고 느낀 심정을 그대로 담아 완성한 작품이다.

서사시에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영광찬란한 혁명력사와 불멸의 혁명업적, 고매한 풍모와 절세의 위인으로서의 위대성이 진실하게 형상되여있으며 그것이 전인류적인 감정으로 격조높이 노래되고있다.

서사시는 머리시와 세개의 장으로 구성되여있다. 매개 장들은 뚜렷한 사상주제적내용을 가지고 위대한 장군님의 위대성을 폭넓고도 깊이있게 노래하고있다.

서사시의 제1장에서는 민족의 어버이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잃은 크나큰 상실의 아픔속에서도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계시여 조선인민은 슬픔을 힘과 용기로 바꾸어 일떠서서 주체혁명위업의 한길로 억세게 전진하고있으며 위대한 장군님께서 령도하시기에 조선혁명과 세계혁명의 미래는 창창하다는것을 확신에 넘쳐 노래하고있다.

서사시의 제2장에서는 작가가 **김일성**광장을 보무당당히 행진해가는 인민군장병들의 열병식장면을 목격하고 혁명의 천하지대본인 수령, 당, 군대와 인민의 혼연일체를 이룩하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영광찬란한 혁명력사와 불멸의 령도업적을 감동깊이 노래하고있다.

서사시의 제3장에서는 제국주의자들과 온갖 반동들의 악랄한 책동을 단호히 짓부시면서 주체사상의 기치를 높이 드시고 사회주의보루를 지켜나가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력사적인 공헌을 높이 칭송하면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계시여 사회주의위업은 반드시 승리한다는것을 확신성있게 구가하고있다.

김정일
당신은 철의 의지를 지니신 령장
행복한 공화국과
위대한 주체사상의 수령
당신은 리론가 실천가
위대한 수호자
당신은 세계적인 위인
백두산의 빛발
이 나라의 선량한 심장
빛나는 승리의 거세찬 흐름
가슴벅차게 하는 희망이시여라!
당신은 인덕의 화신
조선이 지닌 넋의 위대함!
당신은 조선만이 아닌
모든 나라 근로하는 사람들의 기쁨!
당신은 가장 현명하신분
가장 굳세이신분

작가는 서사시의 마지막부분에서 경애하는 **김정일**동지를 격조높이 칭송하면서 희세의 위인을 높이 모시여 사회주의위업은 반드시 승리한다는 력사의 진리를 소리높이 구가하고있다.

서사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위대한 풍모와 불멸의 령도업적을 전면적으로 포괄하는 폭넓은 구성형식을 취하면서도 력사적의의가 큰 전형적인 사건과 일화들을 집약적으로 골라잡고 깊은 철학적사색과 강렬한 정론적기백으로 충만된 서정토로를 안받침하여 형상적과제를 훌륭히 해결하고있다.

서사시 《**김정일**장군》은 절세의 위인에 대한 격조높은 찬가로서 우리 인민과 세계인민들의 심장을 세차게 격동시키고있다.

마야꼽스끼와 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쏘련시인들가운데서 마야꼽스끼가 쓴 시가 괜찮습니다.》

울라지미르 울라지미로비치 마야꼽스끼(1893—1930)는 그루지야의 도시 꾸따이씨에서 멀지 않은 바그다지마을 (현재 마야꼽스끼시)의 산림지기가정에서 태여나 애국적인 교양을 받으며 자랐다. 모스크바에서 중학교에 다닐 때부터 볼쉐비크당조직의 영향을 받은 그는 1917년 사회주의10월혁명을 열렬히 환영했으며 혁명승리후 사회주의문학예술건설사업에 적극 참가하였다.

그는 혁명승리후 3년간 《로스따통신사》(따스의 전신)에서 일하였다. 그후 그는 직업적시인이 되여 공산당의 문예방침을 관철하는데서 선구자적역할을 놀았다. 이 과정에 그는 쏘베트문

학예술에 침습하려는 이색적인 사상과의 투쟁을 힘있게 벌렸다. 그는 37살의 한창나이에 사망하였다.

마야꼽스끼는 일찌기 미술학교에 다니던 시기부터 시창작을 시작하였는데 초기에는 미래파에 속하여 형식주의적인 시를 썼으나 10월혁명후에 그 영향에서 벗어나 점차 사회주의적사실주의창작방법을 체득함으로써 새로운 쏘베트국가의 대표적인 시인의 한사람으로 내외의 인정을 받게 되였다.

그는 무엇보다 서사시인으로서 서사시창작에서 두각을 나타냈다. 그는 오랜 기간의 사상미학적탐구과정을 거쳐 1924년에 레닌을 칭송하는 서사시 《울라지미르 일리이치 레닌》을 내놓았으며 10월혁명 10돐을 맞으며 《좋다!》(1927)와 첫 5개년계획을 노래한 《목청껏 웨치노라》(1930, 미완성) 등 여러편의 서사시들을 내놓았다. 이 서사시들은 시인의 사상예술적높이를 보여주는 우수한 작품들이다.

그는 재간있는 서정시인이기도 하였다. 혁명직후에 쓴 《혁명송가》와 《좌익행진곡》, 자기 조국, 자기 인민에 대한 자랑을 격조높이 노래한 《쏘베트려권》 등은 잘된 작품들이다.

그는 여러차례에 걸치는 외국려행에서 얻은 인상에 기초하여 미국사회의 반인민적본질을 폭로한 작품집 《미국에서의 나의 발견》(1926)을 내놓았으며 소시민근성, 관료주의, 형식주의 등 낡은 사상잔재를 비판한 시 《회의꾸러기》, 《관료주의제조소》, 희곡 《빈대》, 《목욕탕》을 비롯한 풍자작품들도 썼다.

그는 열렬한 혁명정신과 조국애, 계급적 및 민족적원쑤들에 대한 비타협적인 투쟁정신, 혁명적내용에 맞는 새로운 시형식의 탐구 등으로 이전 쏘련의 사회주의적사실주의시문학발전에 크게 이바지하였으며 20세기에 대표적인 세계적시인의 한사람으로 알려지게 되였다.

《울라지미르 일리이치 레닌》

서사시 《울라지미르 일리이치 레닌》은 이전 쏘련에서 레닌의 서거와 관련하여 전체 공산당원들과 인민들속에서 거대한 정신적앙양이 일어나고있던 1920년대초의 력사적현실을 시대적배경으로 레닌의 불멸의 업적과 풍모를 형상한 작품이다.

서사시는 그 구성체계와 내용에 따라 머리시와 세 부분으로 나누어진다.

머리시부분에서는 레닌의 서거에 즈음하여 그의 불멸의 업적을 이야기할 때가 왔다는것을 엄숙히 선포하고있다. 서사시의 첫 부분에서는 레닌이 출현하기 전시기의 력사가 이야기되면서 레닌이 제국주의시기 프로레타리아혁명의 요구를 안고 씸비리스크벽촌에서 보통어린이로 탄생하였다는것을 강조하고있다.

서사시의 둘째 부분에서는 볼쉐비크당의 령도, 레닌과 당, 근로대중의 호상관계가 밝혀지고있다. 시인은 볼쉐비크당은 대중을 각성시켰고 레닌은 로동계급을 령도하여 사회주의10월혁명의 승리를 이룩하였다, 레닌의 업적과 그의 빛나는 발자취는 혁명과 건설의 모든 곳에 아로새겨져있다, 쏘베트인민과 세계진보적인류는 레닌에게 감사를 드린다고 노래하였다.

서사시의 셋째 부분에서는 레닌의 서거에 접한 전체 인민의 커다란 슬픔과 레닌의 위업을 끝까지 계승해나가며 공산주의의 종국적승리를 이룩하고야말 당과 인민의 의지가 피력되여있다. 깔리닌은 전체 인민들에게 레닌의 서거를 알리며 인민들의 슬픔을 거대한 힘으로 전환시킨다. 레닌의 서거에 접하여 40만의 청년들이 공산당에 입당한다. 쏘베트인민은 레닌의 가르침따라 그의 업적을 끝까지 받들어나갈 결의에 충만되여있다.

서사시는 레닌의 혁명활동에 대한 전면적인 묘사를 통하여 당과 수령의 호상관계를 생동한 시형식으로 보여주고있다. 서사시에서는 《계급의 뇌수》인 볼쉐비크당과 레닌을 《쌍둥이》로 노래함으로써 로동계급의 수령으로서의 레닌의 력사적지위를 밝히려고 시도하였다.

당과 레닌은
　쌍둥이형제
력사인 어머니는
　누굴 더 귀여워할가?
레닌이라 말할 때
　그것은
　당을 의미하며
당이라 말할 때
　그것은
　레닌을 의미한다

서사시에서는 또한 레닌을 《가장 리상적인 인간》, 《가장 아름다운 인간》, 《당신과도 나와도 꼭같은》사람으로 노래함으로써 대중속에 있는 평범한 인간, 위대한 인간으로서의 레닌의 자질과 품격을 생동한 시형상으로 보여주고있다.

서사시는 레닌을 잃은 슬픔속에서도 자기 수령의 혁명위업을 끝까지 이어가려는 전체 인민의 드팀없는 의지와 공산주의의 승리에 대한 신념을 생동하게 보여주고있다.

서사시는 개별적인 시어, 시줄, 시련들을 함축하고 사상적내용을 집약화하여 표현하고있으며 비유와 상징 등 시어들을 잘 골라 탄력성있게 구사함으로써 풍부한 여운을 남기고있다.

서사시에는 혁명투쟁에서 로동계급의 수령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을 제대로 밝히지 못하고 수령의 위대성을 깊이있게 형상하지 못한것을 비롯하여 일련의 시대적제한성도 드러나있다.

서사시 《울라지미르 일리이치 레닌》은 볼쉐비크당과 쏘베트국가의 창건자인 레닌의 형상을 사회주의적사실주의창작방법에 의거하여 창조한 첫 작품으로서 쏘베트인민을 레닌의 사상으로 교양하고 쏘베트시문학을 사회주의적사실주의의 확고한 토대우에 올려세우는데 크게 이바지하였다.

4) 극문학과 위슈넵스끼

고리끼의 희곡 《원쑤들》(1906)에 시원을 둔 로씨야의 사회주의적사실주의극문학은 사회주의10월혁명승리후 소설문학, 시문학과 함께 쏘베트문학에서 확고한 자리를 차지하게 되였으며 현실을 력사적구체성속에서, 혁명적발전속에서 진실하게 그림으로써 쏘베트인민들을 교양하는데 한몫 하였다.

지난시기 로씨야의 극문학과 다른 쏘베트극문학의 혁신적특성은 새로운 혁명적인 내용을 담았다는데 있다.

로씨야뿐아니라 전 유럽적으로 19세기말과 20세기초에 상업극장이 흥행하기 시작하여 저마다 돈벌이에 열을 올리면서부터 극문학은 더욱더 상품화되고 반동화되였다. 이 시기에 비판적사실주의극문학도 자체의 제한성으로 하여 더 전진하지 못하고있었다.

썩어빠진 부르죠아극문학을 반대하고 비판적사실주의극문학의 제한성을 극복하기 위하여 대두한것이 로동계급의 극문학인 프로레타리아극문학이였으며 그 개척자가 고리끼였다.

사회주의10월혁명후에 발전한 쏘베트극문학은 착취제도를 뒤집어엎고 사회주의, 공산주의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쏘베트인민들의 혁명투쟁과 창조적생활을 기본으로 하여 그렸다. 이것은 극문학을 시대의 요구와 인민의 지향에 맞게 발전시키는데서 하나의 커다란 변혁으로 되였다.

그러나 선행한 로동계급의 극문학인 쏘베트극문학도 자주적인 시대의 요구에 비추어볼 때 적지 않은 제한성을 가지고있었다. 쏘베트극문학은 인민대중을 력사의 주인으로 극의 중심에 내세우기는 하였으나 자주성을 위한 그들의 보람찬 투쟁과 생활을 그리지 못하였으며 자주적인 인간의 운명문제에 똑똑한 해답을 주지 못하였다. 더우기 이 극문학은 그 형식이 종래 극문학의 낡은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였다.

쏘베트극문학발전에 이바지한 이름있는 극작가들로는 고리끼, 뽀고진, 위슈넵스끼, 뜨레뇨브, 끄르네이츄크, 라브레뇨브, 씨모노브, 쏘프로노브를 들수 있다.

이들의 활발한 극작활동에 의하여 레닌의 형상창조에 바쳐진 뽀고진의 3부작 《총쥔 사람》, 《크레믈리의 종소리》, 《제3비장곡》, 혁명투쟁을 반영한 《류보비 야로바야》(뜨레뇨브, 1926)와 《락천적비극》(위슈넵스끼, 1933), 전쟁주제의 《승리자들》(로마쇼브)과 《바다사람을 위하여》(라브레뇨브, 1945), 《전선》(끄르네이츄크, 1942), 현실주제의 《계승》(쏘프로노브, 1969), 낡은 사회를 폭로한 고리끼의 《예고르 브릐쵸브와 그밖의 사람들》(1932), 《도스찌가예브와 그밖의 사람들》(1933)을 비롯하여 우수한 극작품들이 수많이 창작되였다.

뽀고진의 3부작

니꼴라이 표도로비치 뽀고진(1900—1962)은 1920년대말부터 1950년대까지 적극적인 극창작활동을 벌려 쏘베트극문학의 발전에 크게 이바지한 극작가이다. 뽀고진은 첫 희곡 《속도》(1930) 창작으로부터 시작하여 《도끼에 대한 서사시》(1930), 《나의 벗》(1932) 등의 작품들에 5개년인민경제계획을 수행하기 위한 근로자들의 생활을 반영함으로써 극문학을 사회주의현실에 접

근시키는데서 중요한 역할을 놀았다.

그는 쏘베트극문학에서 처음으로 수령인 레닌의 형상을 창조한 3부작 희곡을 내놓았다.

그 첫 작품인 《총쥔 사람》(1937)은 1917년 사회주의10월혁명시기 휴가를 받고 고향으로 가던 농민출신의 병사 샤드린이 스몰리느이에서 레닌을 만난 후 로동자적위병부대의 지휘관이 되여 반혁명군대의 병사들을 혁명의 편으로 돌려세우는 이야기를 담고있다. 비록 희곡에서 레닌이 등장하는 장면은 몇장면 되지 않으나(13장중 4개 장) 작품에는 사회주의혁명을 승리에로 령도한 혁명의 수령이며 인민의 수령으로서의 레닌의 풍모가 생동하게 형상되여있다.

그다음 작품 《크레믈리의 종소리》(초판 1941, 개작 1956)에서는 사회주의10월혁명직후의 간고한 시기 (1920—1921)에 레닌이 오랜 지식인이며 이름난 동력학자인 자벨린기사를 만나 그를 나라의 전기화를 맡아보는 전로씨야적인 기관의 책임자로 임명하고 자기의 호위병인 릐바꼬브를 보좌원으로 보내줌으로써 나라의 전기화구상을 실현하는데서 돌파구를 열어놓는 이야기가 펼쳐진다.

이를 통하여 희곡은 혁명직후의 사회적대동란과 동요속에서도 혁명의 앞날을 내다보고 각계층을 하나로 묶어세우며 불굴의 의지로 혁명을 령도해나가는 레닌의 형상을 창조하였다.

3부작의 마지막작품인 《제3비장곡》(1958)은 레닌의 생애 마지막시기와 레닌의 서거까지 (1923—1924)를 반영하면서 강철공장을 찾아 로동자들과 담화하고 이뽈리뜨기사와 체까일군 쟈뜰로브를 만나 그들을 이끌어주는 등 레닌의 활동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있다. 이를 통하여 희곡은 중병으로 위독한 상태에 있으면서도 언제나 인민들과 자리를 같이하고 생애의 마지막순간까지 혁명과 인민을 위한 성스러운 위업에 모든것을 다 바친 레닌을 감동적으로 형상하였다.

뽀고진의 3부작 희곡은 아직 수령형상창조에서 미해결문제를 많이 남겼으나 레닌의 형상창조에서 쏘베트극문학이 이룩한 가장 큰 성과로 되고있다.

《계승》 희곡 《계승》(1969)을 창작한 아나똘리 울라지미로비치 쏘프로노브(1911—?)는 1920—1930년대에 공장로동자로 일하면서 문학소조활동과 문학수업을 통해 작가가 되였으며 여러편의 시집과 50여편의 희곡을 쓴 오랜 로씨야시인, 극작가이며 이전 쏘련의 사회주의로력영웅이다.

그의 희곡들가운데서 일부 행정경제일군들의 낡은 사업작풍을 비판한 《모스크바성격》(1948), 유쾌한 식모의 형상을 통하여 애국적사상을 담은 《식모》(1959)를 비롯하여 《태풍》(1972), 《시효》(1981) 등 작품들이 잘 알려져있다. 그중에서도 주목을 끄는것이 《계승》이다.

《계승》은 사회주의위업수행에서 가장 절박한 문제로 제기되는 혁명위업의 계승문제를 취급한 작품이다. 희곡은 당시 쏘련의 현실을 배경으로 하여 모스크바의 어느 한 거리에 있는 예비역 장령(소장) 네도쎄낀의 집을 무대로 펼쳐진다.

네도쎄낀의 딸 와르와라는 그동안 자기를 속이고 다른 녀자와 부화한 생활을 계속해온 남편 슈모브와 리혼할것을 결심한다. 딸의 이러한 립장을 네도쎄낀이 지지한다. 그런데 16살난 외아들 싸샤가 어머니의 행동을 리해하지 못하고 그를 키워주고 극진히 보살펴주는 할아버지와 할머니, 어머니를 버리고 아버지를 따라간다. 하여 손자를 애지중지하던 네도쎄낀부부와 싸샤의 어머니 와르와라는 큰 타격을 받는다.

그러던 몇해후 이 집에 경사가 난다. 그동안 초모되여 국경경비대에서 군사복무를 하던 싸샤가 뜻밖에 찾아온것이다. 싸샤는 전투에서 공을 세워 붉은별훈장을 수여받고 곧바로 할아버지의 집을 찾아왔다.

작품은 비교적 간단한 사건을 취급하고있지만 세대교체가 일어나고 혁명의 대가 바뀌여지는 조건에서 선렬들의 투쟁전통을 옳바로 계승하는가 못하는가 하는 문제가 혁명의 운명을 좌우하는 심각한 문제라는 사상을 밝히고있다.

작품은 네도쎄낀장령을 대표자로 하는 할아버지들의 세대와 슈모브(싸샤의 아버지), 와르와라, 슈모브의 친구인 에두아르드를 비롯한 2세, 싸샤와 그의 친구들을 비롯한 3세의 내면세계를 깊이있게 파고들면서 그들사이의 갈등을 단순한 륜리도덕적, 개인적문제로가 아니라 사회정치적, 사상적문제로 날카롭게 제기하고 해명하였다.

이러한 사상예술적성과로 하여 작품은 이전 쏘련에서 사회주의가 붕괴되고 자본주의가 복귀

된 오늘 사람들에게 심각한 교훈을 주고있다.

위슈넵스끼와 희곡 《락천적비극》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극작가 위슈넵스끼는 발뜨함대에서 자기가 직접 체험한 사실에 근거하여 1930년대초에 희곡 〈락천적비극〉을 창작하였습니다.》

브쎄볼로드 위딸리예비치 위슈넵스끼(1900—1951)는 뻬쩨르부르그에서 측량기사의 아들로 태여나 17살에 1917년 10월혁명에 참가하였으며 공민전쟁시기에는 붉은군대 제1기병사단 기관총수로, 발뜨함대와 흑해함대 지휘관, 정치일군으로 용감하게 싸웠다.

그는 1937년 이전 쏘련공산당에 입당하고 신문기자로 활동하다가 1944년부터 모스크바에서 문예잡지 《즈나먀(기발)》 편집원으로 있었다.

그는 1924년부터 작품을 발표하기 시작하여 《제1기병사단》(1929), 《마지막타격》(1931), 《서방에서의 싸움》(1933), 《락천적비극》(1933), 《레닌그라드의 성벽곁에서》(1944), 《잊을수 없는 1919년》(1948) 등의 희곡들과 《우리는 크론슈따뜨에서 왔다》 등의 영화문학을 내놓음으로써 쏘베트극문학의 발전에 이바지하였다.

그의 대표작은 희곡 《락천적비극》이다.

희곡은 공민전쟁시기 한 녀성정치위원이 혼자서 무정부주의적인 해병집단속에 들어가 혼란에 빠지고 흩어졌던 대오를 하나로 묶어세움으로써 당이 준 혁명임무를 끝까지 수행하고 희생되는 이야기를 내용으로 하고있다.

녀주인공은 무정부주의자들의 영향밑에 있는 해병들속에 들어가 붉은군대 제1해병련대를 조직하여 전선으로 나갈데 대한 볼쉐비크당의 임무를 맡고 발뜨함대 해병부대의 정치위원으로 파견되여 온다. 그 부대에는 무정부주의자들이 활개치면서 모든것을 좌지우지하고있었으며 지휘관의 명령이 집행되지 않고 무질서가 지배하고있었다.

녀성정치위원은 이러한 해병들을 혁명적으로 교양하며 하나의 대오로 묶어세우기 위하여 있는 힘을 다한다. 그는 련대장으로 배치되여온 이전 짜리군대장교 베린그를 신임해줌으로써 그로 하여금 련대안에 강한 군사규률을 세우도록 하는 한편 와이노넨, 나이 많은 해병을 비롯한 당원들을 발동하여 무정부주의자들과의 투쟁을 벌린다. 그는 특히 해병들속에서 영향력이 큰 알렉쎄이를 쟁취하기 위해 무진 애를 쓴다. 드디여 정치위원은 이들을 묶어세우며 련대가 전선으로 출동하는 과정에 악질적만행을 감행한 무정부주의자들의 우두머리놈을 야전혁명재판소의 이름으로 처단하는데 성공한다.

그러나 그는 보다 큰 시련에 부닥치게 된다. 련대가 처음으로 한개 려단력량의 도이췰란드 정규군대와 싸우게 되였는데 작전계획에 따라 제2, 제3대대는 우회하여 배후로부터 적을 칠 임무를 맡고 떠나가고 정치위원은 정면에서 적의 공격을 견제할 임무를 맡고 제1대대와 함께 남는다. 그런데 밤중에 보초를 서던 무정부주의자 씨쁠릐놈이 같이 보초를 서던 해병을 찔러죽이고 적에게 투항하였기때문에 대대는 놈들의 기습을 받고 정치위원을 비롯하여 많은 해병들이 적들에게 포로된다.

이러한 역경속에서도 정치위원은 전투의 승리를 굳게 믿고 해병들을 고무추동하였으며 자기의 목숨을 바쳐 작전비밀을 지켜냄으로써 련대의 승리를 보장한다.

희곡에서는 혁명을 위하여 자기의 모든 정력을 바쳐 투쟁하는 녀성정치위원의 당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 해병들을 인내성있게 교양하고 묶어세워 투쟁에로 조직동원하는 그의 활동을 생동하게 그리고있으며 특히 혁명의 승리를 내다보며 확신하는 주인공의 락천적인 정신세계를 두드러지게 형상하고있다. 혁명적락관성이 이 작품의 기본사상이다. 희곡의 제목을 《락천적비극》이라고 한것은 이와 관련되여있다.

작품은 그 전반적인 내용과 사상이 혁명적일뿐아니라 극구성이 째이고 사건전개에서 시종 극적긴장성을 유지하면서 주인공의 성격을 부각시키고있다. 작가는 등장인물들의 대사형상에도 깊은 관심을 돌리였다. 또한 두명의 해병들을 설화자로 등장시켜 희곡의 주제사상적내용을 해설보충하는 수법을 도입함으로써 관중들의 주의를 집중시키고있다.

희곡은 그것이 거둔 사상예술적성과로 하여 쏘베트극문학에서 대표작의 하나로 되고있다.

3. 동 유 럽 문 학

1) 제2차 세계대전후 사회주의적 사실주의문학이 발전한 동유럽문학

20세기는 동유럽나라 인민들에게 있어서도 격동적인 세기로 되였다.

19세기 외래침략자들의 예속에서 벗어나기 위한 투쟁과정에 실패와 곡절을 겪으며 성과를 확대해나간 동유럽인민들은 19세기말～20세기초에 나라의 독립을 이룩하였다.

그러나 독립후에도 동유럽나라 인민들은 정권을 쥔 지주, 자본가계급과 그들의 리익을 대변한 부르죠아반동정부의 압박과 착취밑에서 자주적으로 살수 없었다.

1917년 로씨야에서의 사회주의10월혁명의 승리에서 큰 고무를 받은 동유럽나라인민들의 줄기찬 투쟁에 의하여 1920년대 이 나라들에 로동계급의 당이 창건되고 당의 령도밑에 프로레타리아혁명운동, 사회주의운동이 벌어지게 되였으며 혁명력량도 장성되였다.

이에 겁을 먹은 부르죠아반동정부는 1930년대에 대두한 파시즘과 결탁하고 나라를 송두리채 히틀러파쑈도당에게 내맡김으로써 뽈스까, 이전 체스꼬슬로벤스꼬를 비롯한 거의 모든 나라들이 파쑈도이췰란드에 강점당하게 되였다.

제2차 세계대전시기 이전 유고슬라비아를 비롯한 여러 나라 인민들은 붉은군대의 진격에 발맞추어 과감한 반파쑈항쟁과 빨찌산투쟁을 벌려 자기 나라를 파쑈기반에서 해방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다 아는바와 같이 제2차 세계대전에서의 쏘련의 세계사적승리로 말미암아 구라파 인민민주주의나라 인민들은 파시스트폭압통치에서 해방되여 자기 나라의 완전한 주인으로 되였으며 짧은 력사적기간에 정치, 경제, 문화 생활에서 눈부신 성과들을 이룩하고 자기 생활을 행복하게 꾸리고있습니다.》

파쑈기반에서 해방된후 나라의 완전한 주인이 된 동유럽인민들은 공산당, 로동당의 령도밑에 새 사회건설에 힘있게 떨쳐나 짧은 력사적기간에 제반민주개혁을 실시하고 정치, 경제, 문화생활에서 눈부신 성과들을 이룩하였다. 그리하여 인민민주주의나라로 있던 동유럽나라들이 1960년대에는 거의다 사회주의나라로 되였다.

제2차 세계대전의 결과 유럽에서 많은 사회주의나라들이 새로 출현한것은 사회주의를 세계적인 체계로 발전시키는데 크게 이바지하였다. 20세기 후반기에 동유럽나라들에서 이룩된 사회주의건설의 눈부신 성과는 사회주의의 진리성과 과학성, 자본주의에 비한 사회주의제도의 비할바없는 우월성을 온 세상에 과시하였다.

이러한 시대적배경밑에서 발전해간 20세기 동유럽문학의 력사적과정을 크게 두 시기, 즉 제2차 세계대전까지의 시기와 그이후 시기로 갈라볼수 있다.

제2차 세계대전 이전에는 동유럽나라들이 아직 자본주의나라로 있던 조건에서 부르죠아문학사조, 류파들이 판을 치는 속에서 비판적사실주의문학이 진보적문학의 주류로 발전했으며 동시에 력사무대에 진출한 로동계급의 계급적요구를 반영한 프로레타리아문학도 발생하였고 그 발전과정에 일부 작가들의 작품에 사회주의적사실주의의 원칙이 구현되기 시작한것이 특징이였다.

동유럽 비판적사실주의문학발전의 첫시기는 20세기초였다. 이 시기 비판적사실주의문학이 가장 발전한 나라는 뽈스까였다. 19세기말부터 문단에 진출한 이름난 작가들인 씨엔끼에비츠, 레이몬뜨, 자뿔스까, 제롬스끼 등이 20세기초에 왕성한 창작활동을 벌려 우수한 작품들을 내놓았다. 레이몬뜨의 《농민》을 비롯하여 제롬스끼의 《집 없는 사람들》(1900), 자뿔스까의 《입을 다물고있는 문제》(1909), 씨엔끼

에비츠의 《보병군단》(1915) 등의 장편소설들이 그러한 작품들이다.

동유럽의 비판적사실주의문학은 다음 시기인 1920—1930년대에 이전 체스꼬슬로벤스꼬, 로므니아, 벌가리아, 마쟈르, 이전 유고슬라비아 등 여러 나라들에서 발전하였다. 이전 체스꼬슬로벤스꼬의 챠뻬크와 이라쎄끄, 벌가리아의 엘린 뻴린, 마쟈르의 모리쯔, 뽈스까의 동브롭스까 등이 그 대표적작가들이다.

20세기 벌가리아 비판적사실주의문학의 대표자의 한사람인 엘린 뻴린(1877—1949)은 단편소설집 《여름날》과 《황새의 둥지》, 중편소설 《땅》(1922), 아동장편소설 《얀 비비얀》(1933)을 비롯하여 민주주의적경향과 농민생활의 진실한 반영, 독특한 해학으로 특징적인 작품들을 내놓아 벌가리아의 비판적사실주의문학을 새로운 단계에로 끌어올리는데 이바지하였다.

20세기 마쟈르비판적사실주의문학계의 대표자인 모리쯔 지그몬드(1879—1942)는 농민출신으로 여러가지 직업에 종사하였다. 그는 단편소설집 《일곱명의 크라이쩨르들》을 발표하여 문단의 인정을 받은 후 직업적작가로 되였다. 그는 처음 서유럽파에 속해있었으나 점차 독자적으로 민족적색채가 진한 작품들을 창작하였다.

그의 주요작품으로는 마쟈르농촌의 암담한 현실을 반영한 《재능있는 사람》(1911), 지방도시의 침체한 생활을 묘사한 《궁벽한 곳》(1911), 《죽는 순간까지 정직하게 살자》(1921), 3부작력사소설 《에르데이》(1922—1933)와 같은 장편소설들을 들수 있다.

모리쯔의 창작은 소부르죠아민주주의적립장에서 벗어나지 못한 제한성을 가지고있으나 착취받고 압박받는 근로인민에 대한 깊은 동정과 착취자들에 대한 강한 비판정신, 민주주의적기백 등 비판적사실주의의 특징을 뚜렷이 보여준것으로 하여 20세기 전반기 마쟈르문학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있다.

동유럽에서 프로레타리아문학이 발생한것은 1910～1920년대였다. 이 시기에 이르러 동유럽나라들에서는 로동계급의 혁명적진출이 강화되여 100만이상의 로동자들이 참가한 1920년 12월 쁘라하로동계급의 총파업과 로동자대의원쏘베트의 조직을 비롯한 대중적인 투쟁이 힘있게 벌어졌다. 여러 나라들에서 공산당이 창건되고 당이 령도하는 프로레타리아혁명투쟁이 전개되였다.

이러한 현실의 요구를 반영하여 벌가리아의 스미르넨스끼와 뽈랴노브, 이전 체스꼬슬로벤스꼬의 올브라흐뜨, 네우만, 반츄라, 푸치끄를 비롯한 많은 작가들이 프로레타리아문학운동을 벌렸다.

흐리스또 스미르넨스끼 (1898—1923)는 폐결핵에 걸려 25살에 사망하였으나 공산당원으로 정열적인 시창작을 벌림으로써 벌가리아의 프로레타리아문학발전을 추동하였다. 그는 생전에 시집 《그날은 오리라!》(1922), 시 《붉은기병중대》(1920), 《크론슈따뜨》(1921)를 비롯한 많은 작품들을 남겼다.

19세기말부터 사회주의운동에 참가한 시인 디미떠르 뽈랴노브는 1909년에 시집 《동쪽에서 서쪽으로》를 발표하여 벌가리아의 첫 프로레타리아시인의 한사람으로 공인되였다.

시집 《철의 노래》(1921)를 비롯한 뽈랴노브의 시작품들에는 벌가리아인민들을 지주, 자본가를 반대하는 혁명투쟁에로 부르는 호소가 울려나왔으며 력사무대에 등장한 청소한 벌가리아로동계급의 지향과 념원이 노래되였다.

동유럽의 진보적시인들가운데는 혁명적민주주의의 립장에 서서 진보적문학발전을 힘있게 추동한 마쟈르의 아디 엥드레(1877—1919) 와 같은 이름난 작가도 있다.

소지주출신으로 기자생활을 하던 아디는 1907년에 《신시집》과 그 다음해에 시집 《피와 황금》을 발표하여 일약 전도유망한 신진시인으로 마쟈르문단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그의 시들에는 민주주의를 위한 투쟁에로의 열렬한 호소, 생활과 청춘, 희망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와 긍정, 미래에로의 추동, 혁명적비장성 등 혁명적랑만주의경향이 뚜렷이 표현되였다.

그의 정열적인 시창작활동은 제1차 세계대전이전의 약 10년밖에 안되는 짧은 기간이였다. 그러나 뻬뙤피의 전통을 이어 혁명적민주주의립장을 견지하고 마쟈르인민들을 새 사회건설을 위한 투쟁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키는데서 독창적인 시창작수법을 보여준것으로 하여 그는 마쟈르의 진보적문학발전에 이바지하였다.

마쟈르에서는 아디외에도 공산당원 시인 요제프 아띨라(1905—1937)를 비롯한 여러 작가들이 프로레타리아작가로 진출하였다.

동유럽의 프로레타리아문학은 1920년대말～

1930년대에 이르러 사회주의적사실주의문학으로 발전하였다.

여기서 선구자적역할을 한것은 이전 체스꼬슬로벤스꼬의 올브라흐뜨였다. 그는 1928년에 내놓은 장편소설 《프로레타리아녀성 안나》에서 이 나라에서의 로동운동, 주권을 위한 로동계급의 투쟁을 사회주의에 대한 지향과 결부시켜 생동하게 보여주었다. 이 작품은 이전 체스꼬슬로벤스꼬와 동유럽에서 사회주의적사실주의문학의 첫 작품으로 되였다.

올브라흐뜨의 뒤를 이어 20세기 20—30년대에 이전 체스꼬슬로벤스꼬의 네우만과 푸치끄, 네즈발, 로므니아의 싸도뱌누, 뽈스까의 브로니엡스끼와 크루츠꼽스끼 등 많은 작가들이 사회주의적사실주의의 길로 나갔다.

동유럽에서 사회주의적사실주의문학은 제2차 세계대전후 동유럽의 대다수 나라들이 사회주의나라들로 된 유리한 환경속에서 주류를 이루었다.

제2차 세계대전후 동유럽에서 사회주의적사실주의문학을 발전시키는데 크게 이바지한 대표적인 작가들로서 이전 체스꼬슬로벤스꼬의 올브라흐뜨, 네즈발, 뿌이마노바, 뽈스까의 이와슈끼에비츠와 브로니엡스끼, 크루츠꼽스끼, 로므니아의 싸도뱌누, 벌가리아의 뽈랴노브, 마쟈르의 잘까 마떼 등을 들수 있다.

싸도뱌누 미하일 싸도뱌누(1880—1961)는 20세기 로므니아의 진보적문학을 대표하는 작가이다. 20세기초부터 로므니아에서 가장 이름난 작가의 한사람으로 된 그는 제2차 세계대전이전까지 민주주의작가로 활동하다가 전후 사회주의로므니아에서 사회주의적사실주의작가로 되였다.

새 사회건설을 위한 투쟁에 적극 참가하여 국회의원, 대민족회의 부의장으로 사업하면서 적극적인 창작활동을 벌린 그는 사회주의의 길로 확고히 들어선 로므니아인민들의 생활과 투쟁에 대하여 이야기한 론문집 《광명은 동쪽에서》(1945)와 《만화경》(1946), 농촌에서 일어난 전변을 반영한 장편소설 《작은 뻬우나》(1948), 중편소설 《미뜨랴 꼬꼬르》(1949), 력사소설 《니꼬아라 뽀뜨꼬아바》(1952) 등 여러 작품들을 내놓았다.

그는 특히 대표작인 《미뜨랴 꼬꼬르》에서 고통스럽게 살아온 고농 미뜨랴 꼬꼬르청년이 제2차 세계대전때 징병되여 대포밥으로 끌려갔다가 로씨야에서의 포로생활과정에 각성되여 귀국후 새 사회건설에 떨쳐나서는 이야기를 통하여 로므니아 농민들의 생활에서 일어난 력사적사변을 생동하게 그려내였다.

그는 로므니아작가동맹 위원장, 과학원 부원장, 평화옹호민족위원회 위원장으로 사업하였다.

새 사회, 새생활창조를 위한 로므니아인민들의 투쟁과 밀접히 련결된 싸도뱌누의 창작은 로므니아 사회주의적사실주의문학발전에 크게 이바지하였다.

뽈랴노브 디미떠르 뽈랴노브(1876—1953)는 벌가리아 사회주의적사실주의문학의 대표자의 한사람이다.

20세기초부터 시창작활동을 시작하여 벌가리아프로레타리아시문학의 길을 개척한 그는 제2차 세계대전후 사회주의벌가리아에서 시문학을 사회주의적사실주의의 길로 이끌고나가는데도 앞장섰다.

그는 《시선》(1945), 《흰비둘기, 평화에 대한 시》(1951) 등 시집들과 《쉬슈까로부터 모스크바까지》, 《로동의 기치》, 《1950년의 탈곡기》를 비롯한 시들에서 벌가리아공산당과 그 향도적역할에 대하여, 파시즘을 반대하는 투쟁에서 벌가리아인민들이 세운 위훈에 대하여, 벌가리아—쏘련(당시)친선에 대하여, 평화에 대하여 노래하였으며 사회주의건설을 위한 벌가리아인민들의 보람찬 투쟁과 그들의 새생활을 구가하였다.

창작활동의 첫시기부터 생애의 마지막까지 로동계급의 위업에 충실했던 뽈랴노브는 벌가리아의 사회주의적사실주의문학을 발전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잘까 마떼 잘까 마떼(1896—1937)는 국제공산주의운동에 충실한 혁명가였으며 마쟈르의 사회주의적사실주의문학형성에 이바지한 재능있는 작가였다.

제1차 세계대전시기 마쟈르군대에 끌려나갔다가 포로수용소생활을 하던중 로씨야에서 사회주의10월혁명의 승리를 맞은 그는 사회주의사상을 신념으로 삼게 되였으며 공민전쟁시기 공산당에 입당하여 붉은군대 대대장, 련대장으로 용

감히 싸워 인민들속에서 영웅으로까지 떠받들리웠다.

이러한 공로로 하여 그는 레닌으로부터 황금제무기를 상으로 받았다. 그는 1936년 에스빠냐에서 공민전쟁이 일어났을 때 에스빠냐인민들을 도와 국제지원군려단을 지휘하여 용감히 싸우다가 전사하였다.

그는 문학창작활동을 적극 벌려 장편소설 《도베르도전선》, 《병사 야노슈》, 단편소설 《불사조》, 《기병습격》을 비롯한 여러편의 작품들을 남겼다.

그의 대표작은 장편소설 《도베르도전선》(1937)이다. 소설은 제1차 세계대전시기 이딸리아의 도베르도전선에 파견된 주인공 마쟈르군대 륙군중위 미뜨라이가 제국주의침략전쟁의 반동적본질을 깨닫고 점차 사회주의를 지향해나가는 과정을 보여주었다.

이밖에도 장편소설 《려명》(1945)을 내놓은 벌가리아작가동맹 초대위원장이였던 스또야노브(1886—1973), 장편소설 《독말풀》(1938)을 쓴 벌가리아의 까라슬라보브 (1904—1980)를 비롯하여 로므니아의 아르게지(1880—1967)와 까밀 뻬뜨레스꾸(1894—1917), 스딴꾸(1902—1974), 마쟈르의 일레슈 벨라(1895—1974)와 히다쉬(1898—1980), 이전 유고슬라비아의 안드리츠(1892—1975)와 쵸씨츠 등 많은 작가들이 사회주의적사실주의문학발전에 이바지하였다.

20세기 동유럽나라들가운데서 보다 풍부한 문학유산을 남긴 나라는 이전 체스꼬슬로벤스꼬와 뽈스까이다.

2) 이전 체스꼬슬로벤스꼬문학과 챠뻬끄, 올브라흐뜨

20세기 체스꼬슬로벤스꼬(당시)문학의 발전과정을 크게 두 시기 즉 제2차 세계대전까지의 시기와 그 이후시기로 갈라 고찰할수 있다.

제2차 세계대전까지 이전 체스꼬슬로벤스꼬에서는 독립후 정권을 장악한 부르죠아지의 압박과 착취를 반대하는 인민들의 투쟁이 힘있게 벌어지고 그것이 히틀러강도배들을 반대하는 투쟁과 결부되여 더욱 고조되였다.

20세기에 들어와서도 이 나라는 오스트리아—마쟈르제국의 예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있었다. 사회주의10월혁명의 영향하에 인민들의 적극적인 혁명적진출이 강화되고 제1차 세계대전에서 오스트리아—마쟈르제국이 도이췰란드와 함께 패망하게 되자 이 나라도 독립국가로 되였다.

그러나 이 나라에 아직 로동계급의 투쟁을 령도할만 한 맑스주의적당이 없었으므로 부르죠아지가 미국, 프랑스, 영제국주의자들의 지지하에 정권을 장악하고 반동통치를 실시하였다. 이러한 상태에서 이전 체스꼬슬로벤스꼬는 1939년에 파쑈도이췰란드에 강점되여 6년이상이나 히틀러의 통치를 받았다.

파쑈강도배들은 나라의 경제를 모조리 파괴하고 수십만명의 애국자들과 근로자들을 학살하였으며 도이췰란드로 끌고가 강제로동을 시켰다.

당시 체스꼬슬로벤스꼬인민들은 공산당의 지도밑에 민족적독립을 위한 투쟁을 줄기차게 벌렸다.

1944년 8월 슬로벤스꼬인민들의 무장폭동은 파쑈통치를 반대하는 이 나라 인민들의 해방투쟁력사에서 영광스러운 한페지를 장식하였다.

1944년 10월 이전 쏘련군대에 의하여 슬로벤스꼬가, 1945년 9월에는 쁘라하가 해방됨으로써 이 나라는 히틀러파쑈강점자들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였다.

이러한 시대를 배경으로 하여 20세기 전반기 이전 체스꼬슬로벤스꼬에서는 진보적문학의 주되는 조류로서 비판적사실주의문학이 발전하였다.

20세기 체스꼬슬로벤스꼬 비판적사실주의문학의 대표자는 챠뻬끄였다.(이에 대해서는 따로 서술하였다.)

챠뻬끄와 함께 이라쎄끄가 알려져있다. 알로이즈 이라쎄끄(1851—1930)는 수공업자의 아들로 태여나 쁘라하종합대학에서 력사를 전공하고 중학교 교원, 잡지 편집원을 거쳐 19세기 70년대부터 소설가, 극작가로 활동하였다.

그는 특히 체스꼬에서 력사소설가로 알려졌다. 그는 지난날의 력사를 형상함에 있어서 인민대중의 역할을 강조하였으며 환경 및 세태풍속, 기물묘사에서 뛰여난 재간을 보여주었다.

실재한 력사적인물인 후스의 활동을 그린 장편소설 《흐름사이에서》(1891), 《형제》(1898—1908), 《후스왕》(1916—1920), 나라잃은 체스꼬슬로벤스꼬인민들의 고통스러운 생활을 반영한 장편소설 《쁘쏘훌라브사람들》(1884),

《암흑》(1916) 등이 그러한 작품들이다. 작가는 《얀 쥐쥬까》(1903), 《얀 후스》(1911)와 같은 력사극과 사회극, 동화극도 썼다.

녀류작가 뿌이마노바는 제2차 세계대전까지는 비판적사실주의작가로 활동하였으며 후에는 사회주의적사실주의작가로 되였다.

1910년대말부터 소설과 시창작을 시작한 마리에 뿌이마노바(1893—1958)의 초기작품들에는 암담한 현실에 대한 비판주의적이며 감상주의적인 태도가 반영되였다.

그러나 로동자들의 고된 로동생활과 탄광로동자들의 폭동을 직접 목격하고 체험하는 과정에 그의 사상생활과 창작에서는 새로운 앙양이 일어났다. 작가는 1930—1940년대에 한 녀성의 곡절많은 운명을 보여준 첫 장편소설 《헤글의사의 환자》(1931)를 창작한 후 시집들인 《가수》(1939), 《어머니시여》(1940), 서사시 《라파엘과 싸뗼리뜨》(1944) 등을 발표하여 진보적문학계의 주목을 끌었다.

이전 체스꼬슬로벤스꼬는 제2차 세계대전전 동유럽에서 프로레타리아문학이 가장 발전한 나라였다.

공산당의 령도밑에 로동운동이 줄기차게 벌어지고 로동계급의 혁명적진출이 강화된 현실을 반영하여 많은 진보적작가들이 로동계급의 리익을 옹호하는 프로레타리아문학운동에 참가하였다. 올브라흐뜨, 네즈발을 비롯하여 하쉐끄, 네우만, 반츄라, 푸치끄, 마이에로바 등 여러 작가들이 이 대렬에 합류하였다.

야로슬라브 하쉐끄(1883—1923)는 제1차 세계대전에 참전했다가 포로되여 로씨야에서 사회주의10월혁명을 맞이하였다. 혁명을 적극 지지성원한 그는 볼쉐비크당원이 되고 붉은군대에 입대하여 쏘베트주권을 옹호하는 투쟁에 참가하였으며 1920년에 귀국한 후 생애의 마지막날까지 사회주의를 옹호하는 문필활동을 벌렸다.

그의 작품들에는 무정부주의로부터 사회주의의 옹호자로 발전한 자신의 사상적변화과정이 반영되여있으며 풍자작가로서의 개성적특징이 잘 표현되여있다.

그의 대표작은 장편소설 《세계대전때 선량한 병사 슈베이끄의 기행》(미완성, 1921—1922)이다. 작품에서 인민출신의 순박한 병사 슈베이끄는 기행이야기형식으로 제국주의전쟁과 부르죠아사회제도를 신랄히 풍자조소하고 인민들의 반항심을 표현하였다. 소설에는 현실에 대한 폭넓은 반영, 풍자적전형화의 예리성, 표현수단의 다양성, 색갈이 있는 인민적언어 등 그의 창작적개성이 잘 나타나있다.

제2차 세계대전시기 반파쑈지하투쟁에 참가했다가 파쑈도당에 체포되여 총살당한 블라디슬라브 반츄라(1891—1942)는 자기의 작품들에서 자본주의사회의 사회악을 폭로하고 가난한 사람들의 운명을 그리는데 힘을 넣었으며 사회주의를 신봉하였다.

그의 대표작의 하나인 장편소설 《빵집 얀 마르호울》(1924)은 자본주의하에서 소상인들의 령락과정을 보여준 작품이다. 또한 장편소설 《세강》(1936)에서는 제1차 세계대전에 참가한 주인공이 사회주의10월혁명의 의의를 깨닫고 새로운 길로 나가는 성격발전과정을 묘사하였다. 그밖에 그는 장편소설 《호르바뜨일가》를 비롯한 적지 않은 작품들을 남겼다.

율리우스 푸치끄(1903—1943)는 로동자출신으로 공산당기관지의 편집원, 기자, 작가로 정열적인 문필활동을 벌렸다. 그는 자기의 작품들에서 파시즘과 부르죠아반동문학의 본질을 폭로하고 조국과 인민에 대한 사랑,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에 대한 신념을 간직할데 대한 사상을 표현하였다.

그는 1942년에 파쑈교형리들에게 체포되여 사형언도를 받고 그 다음해 베를린에서 최후를 마칠 때까지 자기의 신념을 끝까지 고수하였다.

그의 대표작은 감옥에서 쓴 《교형수의 수기》(1945, 출판)이다. 수기는 죽음의 철창속에서 필자가 직접 보고 느낀 력사적사실을 기초로 하여 당시 체스꼬슬로벤스꼬 공산주의자들과 반파쑈애국투사들, 광범한 근로대중의 영웅적인 투쟁과 불굴의 의지, 사회주의, 공산주의에 대한 신념과 혁명적락관주의를 정론적필치와 감동적이며 격동적인 주정토로로 보여주었다.

녀류작가 마이에로바(1882—1967)도 혁명의 길로 나가는 녀주인공의 형상을 창조한 장편소설 《가장 아름다운 세계》(1923), 3대에 걸치는 탄부가정의 생활을 통하여 체스꼬에서의 로동운동의 발전과정을 보여준 장편소설 《탄부의 노래》(1938)를 비롯한 여러 작품들을 내놓았다.

20세기 이전 체스꼬슬로벤스꼬문학발전의 다음 시기는 제2차 세계대전이후시기이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직후인 1945년 5월 이 나라에는 민족회의(국회)선거에서 공산당이 승리하여 고뜨왈드를 수반으로 하는 민족전선정부가 수립되였다. 새 정부는 산업국유화법령을 발포하는 등 제반민주개혁을 실시하고 새 사회건설을 적극적으로 벌려나갔다.

이 나라 근로자들은 공산당의 령도밑에 민주개혁과 전후복구건설을 끝내고 사회주의건설을 예견한 제1차 5개년계획(1949—1953)을 성과적으로 완수함으로써 자기 나라를 현대적기계공업을 가진 사회주의공업국가로 전변시켰다. 그후 1970년까지 네차례의 5개년계획을 수행하여 인민경제 모든 분야에서 새로운 발전을 이룩하였다. 이러한 성과에 기초하여 1960년 7월 민족회의는 새 헌법을 채택하고 나라이름을 체스꼬슬로벤스꼬사회주의공화국으로 선포하였다.

1968년 이 나라에서 반혁명세력의 준동이 로골화되고 복잡한 사태가 벌어졌을 때에도 이전 체스꼬슬로벤스꼬의 당과 인민은 형제나라들의 지원밑에 사회주의전취물을 수호하고 유럽사회주의나라들의 안전을 보장하였다.

이러한 시대적배경밑에서 제2차 세계대전후 이 나라에서는 사회주의적사실주의문학이 지배적인 조류로 발전하였다.

전후 사회주의적사실주의문학발전에 크게 이바지한 대표적인 작가들로는 올브라흐뜨, 네즈발, 뿌이마노바, 마이에로바 등을 들수 있다.

비떼즈슬라브 네즈발(1900—1958)은 1924년 공산당에 입당하였고 1920년대 중엽부터 직업적시인으로 활동하였다. 그는 1920—1930년대에 히틀러파쑈도당을 날카롭게 풍자한 서사시 《프로씨아인들》(1939), 반파쑈투쟁정신으로 충만된 서사시 《력사의 화폭》(1939)을 비롯한 작품들을 창작하였으며 파시즘을 반대하여 적극적으로 투쟁하였다.

자기 나라가 파쑈통치밑에서 해방된 후 그는 새로운 사회주의문화를 건설하기 위한 투쟁에 적극 나섰다.

이 시기 그는 파쑈통치밑에서 고통스러웠던 지난날을 회고하며 해방의 기쁨을 노래한 시집 《노래시계》(1949), 조선침략의 불을 지른 제국주의자들을 규탄하고 평화를 옹호하기 위한 투쟁에로 호소한 서사시 《평화의 노래》(1950), 조국과 인민에 대한 불타는 사랑을 노래한 서사시 《고향》(1950), 사회주의의 길에 들어선 자기 나라 인민들이 발휘한 애국적헌신성과 창조적적극성을 노래한 시집 《날개》(1952)를 비롯하여 많은 시작품들을 창작하였다.

생활에 대한 열렬한 사랑과 훌륭한 미래에 대한 락관주의, 파시즘과 제국주의에 대한 불타는 증오심으로 충만되고 시형식의 정연성과 조화로운 문체, 형태의 다양성으로 특징적인 네즈발의 창작은 당시 체스꼬슬로벤스꼬사회주의적사실주의문학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있다.

전후시기 뿌이마노바의 대표작은 3부작장편소설 《기로에 선 사람들》(1937), 《불장난》(1948), 《죽음과 삶을 위한 투쟁》(1952)이다. 작가는 3부작에서 로동자, 지식인, 자본가를 대표하는 전형적인물들의 운명을 통하여 제1차 세계대전시기부터 제2차 세계대전시기까지 자기 나라의 현실을 통하여 참다운 삶에 대한 새로운 륜리와 공산주의위업에 대한 필승의 신념을 서사시적화폭으로 보여주었다.

마이에로바도 전후에 소설집 《번개의 길》(1951), 《미개한 서방》(1954), 실화문학작품집 《은으로 빚어낸 처녀들》(1964) 등의 작품들을 창작하여 당시 체스꼬슬로벤스꼬의 사회주의적사실주의문학발전에 이바지하였다.

챠뻬끄

까렐 챠뻬끄(1890—1938)는 20세기 전반기 이전 체스꼬슬로벤스꼬의 이름난 작가의 한사람이며 비판적사실주의문학의 대표자이다.

그는 보헤미아 동북부의 작은 탄광거리 말레스바도비쩨의 의사가정에서 태여나 쁘라하종합대학에서 철학을 전공하고 1910—1911년에 베를린과 빠리종합대학에서 류학하였다. 그는 대학을 마친 다음 한동안 어느 한 귀족가정에서 가정교사로 있었으며 쁘라하의 시립극장 문학부장을 거쳐 부르죠아자유주의적경향의 신문 《리도베 노비니》의 기자, 론설원으로, 직업적작가로 활동하다가 파쑈도이췰란드군의 강점을 몇달 앞두고 병으로 세상을 떠났다.

일찌기 중학시절부터 글을 쓰기 시작한 그는 소설, 희곡, 려행기분야에서 많은 작품들을 남겼

으며 다방면적인 재능을 발휘하였으나 모순된 창작의 길을 걸었다. 그는 자기의 창작에서 1920—1930년대 당시 체스꼬슬로벤스꼬 지식인들의 사상과 기분을 반영하였으며 기본적으로 부르죠아민주주의자의 립장에 서있었다.

그는 창작활동의 초기에 형 요제프 챠뻬끄(1887—1945, 후에 이름난 미술가가 되였다.)와 합작하여 두편의 단편소설집 《빛나는 깊은 곳》(1916), 《끄라꼬노슈의 동산》(1918)과 희곡 《벌레의 생활》(1921)을 창작한 외에 독자적으로 단편소설집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의 상》(1917)과 《머리가 아픈 이야기》(1921)를 발표하였으나 이 작품들에는 당시에 류행했던 표현주의의 경향이 나타났다.

그는 그후 희곡 《로보트》(1920)와 《마끄로뿔로스의 약》(1922), 장편소설 《절대제조소》(1922)와 《끄라까띠뜨》(1924)를 썼는데 이 작품들에서는 과학환상적인 수법을 통하여 자본주의제도의 부정면이 비판되였다.

특히 그의 대표작인 희곡 《로보트》(《로쑴의 만능로보트》의 략칭)에서는 사람이 만들어낸 인조인간—로보트들이 나중에는 사람을 반대하는 폭동을 일으켜 인류를 멸망시키는 환상적이야기를 통하여 자본주의사회에서의 기계문명의 기형적인 발전에 위구를 표시하였다. (《로보트》라는 말은 이 작품에서 챠뻬끄가 처음으로 사용하였다. 이 작품이 나온 다음부터 《로보트》라는 말이 퍼지게 되였다.)

그는 당시 체스꼬슬로벤스꼬반동정부의 대통령이였던 마싸리끄의 가짜인도주의적인 언사에 현혹되여 부르죠아정객인 그를 내세우는 《마싸리끄와의 담화》(1928—1934)와 같은 책을 썼다. 이 시기 그는 첨예한 사회적문제를 회피하고 해학적인 탐정소설을 쓰는 등 창작에서 후퇴하였다. (단편소설집 《한 주머니에서 나온 이야기》와 《다른 주머니에서 나온 이야기》, 1929)

그는 도이췰란드에 파쑈독재정권이 서고 당시 체스꼬슬로벤스꼬에서 사회적모순이 심화된 1930년대초에 가서야 자기의 사상적오유를 깨닫고 민주주의작가들의 대렬에 섰으며 파시즘을 반대하고 평화와 민주주의를 옹호하는 확고한 립장을 취하였다.

이 시기에 그는 반파쑈주제의 장편풍자소설 《도롱룡전쟁》(1936), 희곡 《흰 질병》(1937)과 《어머니》(1938), 탄광에서의 탄부들의 구조작업을 묘사한 중편소설 《제1구조대》(1937)와 같은 작품들을 련이어 창작하였다.

그의 대표작인 《도롱룡전쟁》에서는 인도네시아의 작은 섬에서 살던 도롱룡들이 점차 발전하여 무기를 쓰는 법을 배우고 인류를 반대하는 전쟁을 벌리는 환상적이야기를 통하여 파시즘을 예리하게 풍자폭로하였으며 《어머니》에서는 전쟁에서 남편과 아들들을 잃은 어머니가 나라앞에 침략의 위험이 닥쳐오자 하나밖에 없는 막내아들을 전선에 내보내는 이야기를 통하여 인민들을 파시즘을 반대하는 적극적인 투쟁에로 호소하였다.

그는 소설과 희곡외에 《의사선생의 길다란 이야기》, 《우편배달부의 이야기》를 비롯한 유명한 동화작품들과 일련의 려행기, 실화문학작품들도 남겨놓았다.

그의 작품들은 제한성을 가지고있으나 자본주의사회의 부패한 현실을 폭로하고 파시즘을 반대하며 높은 예술성으로 하여 당시 체스꼬슬로벤스꼬 비판적사실주의문학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있다.

올브라흐뜨

이반 올브라흐뜨(1882—1953)는 뽀드끄르꼬노주의 이름있는 작가의 집안에서 태여나 1900년대초부터 창작활동을 시작하였다.

그는 초기에 《조국애에 대하여》(1910)와 《마쟈르의 명예월계관을 쓴 령감에 대하여》(1913)를 창작하였다. 그후 그는 1918년에 장편소설 《배우 예쎄니의 놀라운 우정》을 발표하여 널리 알려지게 되였다. 이 소설에서는 초기작품들에서 발로되였던 자연주의적요소가 현저히 극복되고 주인공들의 생활이 조국과 인민의 운명과 결부되여 그려졌다.

그는 로씨야에서의 사회주의10월혁명의 승리후 당시 체스꼬슬로벤스꼬공산당에 입당하였으며 당중앙위원회기관지 《루데 쁘라보》의 편집사업에 적극 참가하였다. 그는 1927년에 발표한 풍자적인 단편소설집 《오스트리아와 공화국에 관한 재미있는 아홉가지 이야기》에서 당시의 체스꼬슬로벤스꼬부르죠아공화국과 오스트리아군주제도의 모습, 부르죠아인도주의의 위

선을 낱낱이 폭로하였으며 단편소설 《이름없는 병사》에서는 제국주의전쟁의 도발자인 지배계급의 범죄적행동을 세상에 고발하였다.

그는 대표작인 장편소설 《프로레타리아녀성 안나》(1928)에서 자기 나라의 로동운동, 주권을 위한 로동계급의 투쟁을 진실하게 보여주었으며 장편소설 《강도 니꼴라이 슈가이》(1933)에서는 착취자들을 반대하는 농민들의 투쟁을 진실하게 그려냈다.

그는 나라가 해방된 후 새로운 사회주의문화를 건설하는 사업에 적극 참가하였다. 그는 생애의 마지막시기에 조선에서 침략전쟁을 도발한 미제의 죄행을 폭로하고 싸우는 조선인민에게 련대적감정을 표시한 《오산》, 《조선인민은 자유를 찾으리라》 등 전투적인 시들을 창작하였다.

그의 창작은 당시 체스꼬슬로벤스꼬에서의 프로레타리아문학과 사회주의적사실주의문학의 발전에 크게 이바지하였다.

《프로레타리아녀성 안나》

장편소설 《프로레타리아녀성 안나》는 시골출신의 하녀 안나의 운명을 통하여 이전 체스꼬슬로벤스꼬로동계급의 성장과정과 투쟁모습을 보여준 작품이다.

수도 쁘라하의 큰 건축가이며 부르죠아지인 루베스네집에 시골처녀 안나가 하녀로 들어온다. 이 집 안주인과 딸 다들라는 안나에게 고된 일을 시키면서 밖에도 나가지 못하게 한다. 안나는 매일 두개의 출입문과 7개의 방을 거두어야 했고 불을 피우고 변소청소를 하고 잠자리를 정돈하며 그릇을 닦아야 했다. 게다가 주인녀편네의 행악이 이만저만이 아니였다.

안나는 처음에 자기의 고된 로동의 값으로 주인녀편네가 던져주는 헌 옷가지들을 고맙게 받는다. 그러나 정치적으로 각성한 다른 하녀 마냐와 야금공장 주물공인 사회주의자 또니끄의 영향을 받으면서 점차 계급적으로 각성되여간다.

후에 안나는 또니끄와 가정을 이루며 자기를 구속하고 압박하던 부르죠아가정을 증오와 혐오의 감정으로 경멸하게 된다.

또니끄는 1919년 5월에 일어난 로동자들의 반정부시위투쟁에 참가한다. 시위투쟁은 실패하였으나 또니끄와 각성한 로동자들은 투쟁을 멈추지 않는다. 그들은 12월정치투쟁때에 반동경찰들과의 결사적인 전투에서 부상당하지만 시위대렬의 앞장에서 용감하게 나간다.

안나는 귀여운 어린 아들을 이웃집 아주머니에게 맡기고 시위군중이 물결치는 광장으로 달려간다. 또니끄와 안나는 어깨를 나란히 하고 경찰의 곤봉과 사격을 맞받아 용감하게 앞으로 전진한다.

소설은 주인공 안나가 또니끄를 비롯한 각성한 로동계급과 지식인들 그리고 여러 인물들로부터 혁명적영향을 받으면서 혁명투쟁에 목적의식적으로 참가하게 되는 과정, 즉 프로레타리아녀성으로 자라나는 과정을 통하여 당시 체스꼬슬로벤스꼬에서의 주권전취를 위한 로동계급의 투쟁일단을 보여주고있다.

안나의 성격형상에는 1919—1920년 광범한 인민대중이 혁명적실천을 통하여 계급적으로 각성되고 사회주의에 대한 신념을 굳게 가지는 과정이 반영되여있으며 또니끄의 성격형상에는 혁명투쟁을 이끌어갈 공산주의자, 로동계급의 계급적특질과 사상정신적풍모가 구현되여있다.

소설은 사회주의를 위한 당시 체스꼬슬로벤스꼬로동계급의 투쟁을 처음으로 서사시적화폭으로 보여준것으로 하여 사회주의적사실주의문학발전에 이바지하였다.

3) 뽈스까문학과 레이몬뜨, 이와슈끼에비츠

20세기 전반기 뽈스까의 진보적문학에서 주류를 이룬것은 비판적사실주의문학이였다. 이 시기 뽈스까가 동유럽나라들가운데서 비판적사실주의문학이 가장 발전된 나라의 하나로 된것은 뽈스까의 암담한 현실과 이러한 현실을 예리하게 비판해나선 진보적작가들이 출현한것과 관련되여있다.

뽈스까는 18세기말에 프로씨아, 오스트리아, 로씨야에 의하여 분할되여 100여년간 이 나라들에 예속되여있었다.

그러다가 사회주의10월혁명승리후 1918년 8월 신생쏘베트로씨야정부가 뽈스까에 대한 이전의 예속적인 조약들을 무효로 선포함으로써 다시 독립국가로 되였다.

그러나 지주, 자본가들로 구성된 뽈스까반동정부는 반인민적인 정책을 실시하면서 서방제국주의세력의 지지하에 1920년 4월 청소한 쏘베트

로씨야를 반대하는 무력침공을 감행하였다. 뽈스까정부는 그후에도 반동적인 대내외정책을 계속 실시하면서 경제의 주요명맥을 외래독점자본가들의 수중에 넘겨줌으로써 자기 나라를 제국주의자들에게 예속시켰다.

1939년 9월 히틀러도이췰란드가 뽈스까에 대한 무력침공을 개시하자 부패무능한 이 나라 정부는 외국으로 도주하고 뽈스까는 전쟁개시후 불과 1개월도 못되여 완전히 강점당하였다.

이때로부터 뽈스까는 거의 5년동안 파쑈도이췰란드의 강점하에 있었다.

1942년 1월 뽈스까공산주의자들을 핵심으로 하는 로동당이 지하에서 창건되였다. 로동당은 파쑈강점자들로부터 뽈스까를 해방하기 위한 투쟁에 모든 애국자들을 궐기시켰으며 뽈스까혁명을 지도하였다.

이러한 시대를 배경으로 하여 20세기 전반기 뽈스까의 진보적문학에서는 귀족부르죠아사회의 모순과 불합리성을 예리하게 비판한 비판적사실주의문학이 발전하였다. 뽈스까비판적사실주의문학발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것은 레이몬뜨, 자뽈스까, 제롬스끼, 동브롭스까, 나우꼽스까 등이였다.

그중에서 자뽈스까, 동브롭스까, 나우꼽스까는 다 녀류작가들이였다. 뽈스까는 동유럽나라들가운데서 이름난 녀류작가들을 여러명 배출한 점에서 두드러져있다.

마리아 동브롭스까(1889—1965)의 대표작은 4부작장편소설 《밤과 낮》(1932—1934)이다. 소설에서는 19세기말부터 제1차 세계대전까지를 배경으로 뽈스까에서 일어난 심각한 사회적변동과 각계각층 사람들속에서 고조된 애국적인 감정 그리고 사회주의사상에 대한 청년들의 관심이 높아지고있는데 대하여 보여주었다. 인도주의, 민주주의, 민족적평등에 대한 사상으로 관통되여있는 작품에는 조형적인 표현성, 심리분석의 섬세성과 같은 작가의 높은 기교가 발휘되여있다. 소설은 20세기 뽈스까비판적사실주의문학의 성과작으로 되였다.

가브리엘라 자뽈스까(1857—1921)는 《입을 다물고있는 문제》(1909)를 비롯한 장편소설들에서 부르죠아도덕의 허위성을 폭로하고 녀성들을 유린하는데 대하여 항의해나섰으며 조피아 나우꼽스까(1885—1954)는 장편소설 《떼레자 겐네르뜨의 랑만적인 이야기》(1923), 《경계선》(1935)과 같은 작품들에서 뽈스까자본주의의 모순된 현실을 비판하였다.

특히 스떼판 제롬스끼(1864—1925)의 장편소설 《집 없는 사람들》(1900)에서는 19세기말 뽈스까부르죠아사회의 모순이 날카롭게 비판되였으며 뽈스까산업프로레타리아트의 노예적인 로동과 비참한 생활이 반영되였다. 또한 레이몬뜨의 4부작장편소설 《농민》도 국내외에서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20세기에 뽈스까에서는 이웃나라인 로씨야에서의 사회주의10월혁명의 영향밑에 프로레타리아문학이 발생하고 그 발전과정에 사회주의적사실주의문학이 출현하였다.

로동운동의 지도자들이였던 제르쥔스끼, 로자 룩셈부르그 등의 정론으로 시작된 뽈스까프로레타리아문학은 많은 사회주의자들이 창작한 혁명적인 시와 가사들로 풍부화되였다. 뽈스까프로레타리아문학은 퇴폐주의문학과 파시즘을 반대하는 투쟁과정에 자기의 혁명적성격을 더욱 강화하였다.

뽈스까에서 사회주의적사실주의문학이 급속히 발전한것은 제2차 세계대전후 이 나라가 인민민주주의를 거쳐 사회주의나라로 되면서부터이다.

전후 뽈스까인민들은 통일로동당의 령도밑에 인민경제의 복구건설을 성과적으로 끝내고 6개년계획(1950—1955), 3개년계획(1956—1958), 7개년계획(1959—1965), 5개년계획(1966—1970) 등을 성과적으로 완수함으로써 경제를 더욱 굳건히 다져나갔다.

한때 이 나라에서는 반동들의 준동으로 1970년 12월사변과 같은 엄중한 사태가 조성되였으나 당과 인민의 적극적인 투쟁으로 제때에 수습되여 나라의 안정이 회복되였다.

이러한 환경속에서 사회주의적사실주의문학의 앞장에 선것은 이와슈끼에비츠, 브로니엡스끼, 크루츠꼽스끼이다.

브와디스와브 브로니엡스끼(1897—1962)는 일찌기 1920년대에 평론 《뽈스까문학의 어제와 오늘》(1928)에서 로동계급의 계급적리익을 옹호하는 문학을 창조할것을 주장해나섰으며 시집 《풍차방아간》(1925), 《도시우의 연기》(1927), 서사시 《빠리꼼뮨》(1929)과 같은 혁

명적작품들을 련이어 써냈다. 시인은 자기의 시를 직접 로동자들의 집회에서 랑송하였으며 그의 시는 로동자들속에서 널리 애송되였다. 그리하여 그는 뽈스까시문학에서 사회주의적사실주의를 개척한 시인으로 되였다.

그는 뽈스까가 히틀러도당에 강점당하자 해외에서 반파쑈투쟁을 힘있게 벌렸으며 제2차 세계대전후에는 귀국하여 새로운 사회주의적문학을 건설하기 위한 투쟁에 헌신하였다. 시집 《희망》(1951), 《안까》(1956), 서사시 《위슬라》(1953), 시 《뽈스까로동자들의 노래》와 같은 작품들에는 조국에 대한 시인의 뜨거운 사랑의 감정이 토로되여있다.

뽈스까인민과 사회주의위업에 끝까지 충실했으며 높은 시창작기교를 보여준 브로니옙스끼의 창작은 현대뽈스까시문학에서 특출한 자리를 차지하고있다.

레온 크루츠꼽스끼(1900—1962)는 20세기 뽈스까의 재능있는 시인, 소설가, 극작가였다. 그는 제2차 세계대전전에 《령주와 천민》(1932), 《공작새의 깃》(1935), 《그물》(1937) 등 장편소설들에서 지난날의 력사와 당대 현실을 맑스주의적관점에서 묘사하였으며 제2차 세계대전후에 반파쑈주제의 《도이췰란드인들》(1949)을 비롯한 많은 희곡들을 쓰고 극문학발전을 추동하였다.

그는 특히 희곡 《도이췰란드인들》에서 도이췰란드인 생물학교수 존넨부르흐일가사람들의 형상을 통하여 정치에 관여하지 않고 깨끗한 손으로 남아있겠다고 하면서도 결국은 손에 피를 묻히고 히틀러파쑈도당을 돕는 자유주의적인 도이췰란드인들을 폭로하고 실천적으로 반파쑈투쟁에 나서야 할 필요성을 설득력있게 보여주었다.

레이몬뜨

블라디스와브 레이몬뜨(1867—1925)는 농촌교회당 풍금수의 가정에서 태여났다. 그는 집이 너무도 가난하여 배우지도 못하고 방랑생활을 하다가 19세기 90년대부터 작가생활을 시작하였다.

그의 창작에서 주류를 이룬것은 농촌에서 농민들의 생활을 형상한 작품들이였다. 초기 단편소설들인 《죽음》(1891), 《암개》(1892), 《산판에서》(1895) 등은 다 뽈스까농민들의 비참한 생활을 동정하고 착취계급의 잔인성을 폭로한 농촌주제작품들이다. 그가운데서도 《산판에서》는 지주놈의 산림지기로 20년간이나 고역을 치르다가 늙어 쓸모없게 되여 일자리에서 쫓겨나 거지신세가 된 한 농민의 불행한 운명을 진실하게 반영하였다.

그는 농민들의 생활을 그린 단편소설창작에서 얻은 경험에 기초하여 4부작장편소설 《농민》(1904—1909)을 내놓았다. 이 소설은 그후 그의 대표작으로 되였다.

그는 생애말년에 18세기말 뽈스까사회를 해부학적으로 펼쳐보인 3부작 장편력사소설 《1794년》(1913—1918)을 내놓음으로써 력사주제의 작품창작에서 귀중한 경험을 남겨놓았다.

그는 비판적사실주의작가로서 자기의 작품들에서 농민들의 계급투쟁을 미래에 대한 전망속에 보여주지 못하고 지배계급에 대한 환상을 표시하였으며 자연주의적요소도 부분적으로 발로시켰다.

그러나 그는 뽈스까문학에서 처음으로 농민들의 생활과 운명을 폭넓고 진실하게 보여준것으로 하여 뽈스까비판적사실주의문학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있다.

《농민》

장편소설 《농민》은 19세기말—20세기초 짜리로씨야와 도이췰란드의 예속밑에 있던 뽈스까의 농촌현실을 배경으로 부농 보리나가문과 농민들의 형상을 통하여 농촌에서의 계급적대립과 모순을 반영한 작품이다. 소설은 《가을》, 《겨울》, 《봄》, 《여름》의 4부로 구성되여있다.

소설은 60호가량 되는 크지 않은 리쁘쨔마을의 대부농 보리나가문과 그를 둘러싼 각이한 농민들의 생활을 중심으로 하여 벌어진다.

보리나는 나이 58에 자작농 도미니크의 딸인 19살난 야그나를 세번째 후처로 데려온다. 결혼식날에 보리나의 머슴 꾸바가 외양간에서 비참하게 죽는다. 야그나를 후처로 데려온 후 보리나는 행복해진것이 아니라 가정적으로 더 불행한 처지에 빠진다. 그의 아들 안떼크가 야그나에게 마음을 둠으로써 부자간에 사랑싸움이 벌어진것이다. 또한 지주 레뻬쯔끼의 산림지기에게 보리나의 젖소가 맞아죽는 사건이 일어나 지주와 보리나사이에 개인적인 알륵관계가 빚어진다.

이때 마을에서는 레뻬쯔끼가 마을의 공유림으로 되여있는 산의 나무들을 제 마음대로 찍어 도이췰란드침략자들에게 팔아먹으려고 한 사실이 드러난다. 이 산림사건으로 하여 일대 소동이 일어나며 이것은 농민들의 격분과 항의를 불러일으킨다. 이 기회를 리용하여 지주에게 악감을 가지고있던 보리나와 안떼크는 농민들의 편에 서서 지주와 맞서싸운다. 이 싸움에서 보리나는 치명상을 입고 죽으며 안떼크가 가장으로 들어앉는다.

그는 아버지와는 달리 마을농민들과 애국적인 종교인 로흐와 함께 마을에 로씨야식학교를 세우려고 하는 반동당국의 부당한 처사를 반대하여 싸우며 악질헌병놈을 몽둥이로 까눕힌다. 한편 야그나는 안떼크와의 사랑을 실현하지 못한채 촌장본녀편네의 모함에 걸려들어 촌장의 아들과 붙어다니면서 그를 끼고 관청의 공금을 횡령했다는 터무니없는 루명을 쓰고 마을에서 쫓겨난다. 그리하여 보리나가문에는 파멸의 그늘이 짙어만 간다.

소설은 보리나와 레뻬쯔끼의 형상을 통하여 착취계급의 략탈성과 포악성을 폭로하고있다. 그것은 30여명의 소작인들과 2명의 머슴을 소나 말처럼 부려먹으며 끝내는 머슴 꾸바를 외양간에서 생죽음 당하게 만든 악질부농 보리나와 자기의 권력을 리용하여 죄를 남에게 전가시키고 농민들에게서 땅세를 받아먹을뿐아니라 자기의 령지에서 사냥을 하였다고 하여 무고한 농민들을 총으로 쏴죽이는 지주 레뻬쯔끼의 성격속에 생동하게 표현되여있다.

소설은 마을의 공유림으로 되여있는 산림을 제멋대로 도이췰란드침략자들에게 팔아치우려는 지주의 범죄행위에 맞서싸우며 지주의 집에 불을 지르는 농민들의 형상을 통하여 착취계급에 대한 농민들의 반항의식을 뚜렷하게 보여주고있다.

소설은 그밖에도 리쁘쨔마을의 산림을 빼앗아 제놈들의 소유로 만들려고 책동하는 도이췰란드침략자들과 마을농민들사이의 충돌을 통하여 민족적기개도 보여주고있다.

장편소설 《농민》은 계급적선이 명백하지 않고 사건의 결말이 뚜렷하지 못하며 종교적색채가 짙은것을 비롯하여 일련의 제한성을 가지고있으나 당시 뽈스까농촌에서의 계급적대립관계와 농민들의 반항의식을 진실하게 보여줌으로써 20세기 뽈스까비판적사실주의문학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있다.

이와슈끼에비츠

야로스와브 이와슈끼에비츠(1894—1980)는 우크라이나 끼예브현의 농촌마을에서 태여나 1912—1918년에 끼예브종합대학 법학부와 음악대학에서 공부하였다.

그는 대학공부를 마친 후 와르샤와에 가서 시인단체인 《스까만드로스》의 성원이 되였다.

그는 시집 《문어》(1919), 장편소설 《달이 떠오른다》(1925)를 비롯한 초기작품들에서 유미주의와 개인주의적인 경향, 생활에 대한 주관주의적인 태도를 나타내였다.

1930년대에 그가 쓴 작품들가운데서는 13세기 뽈스까의 력사를 취급한 장편력사소설 《붉은 방패》(1934)가 평가를 받았다.

그의 창작은 제2차 세계대전시기부터 사실주의적인 발전의 길에 확고히 들어섰으며 특히 전후 뽈스까에 수립된 사회주의제도하에서 새롭게 발전하였다.

그는 《여러 시기에 쓴 시들》을 비롯한 시집들에서 사회주의적인도주의를 긍정하고 로동과 창조의 기쁨을 노래하였다. 그는 또한 소설창작에도 힘을 넣었다. 그리하여 그는 파쑈강점자들을 반대하는 뽈스까인민들의 투쟁을 주제로 한 중편소설 《루띠니옹의 방아간》(1946), 작품집 《남아메리카에서 온 편지》(1954)를 비롯한 많은 중편, 단편소설들과 실화작품들을 창작하였다.

대표작인 장편소설 《명예와 영광》(전 3권, 1956—1962)은 전쟁전 뽈스까지식인들이 체험한 부르죠아현실에 대한 환멸을 보여주면서 예술과 생활에 대한 작가의 견해를 피력하였다. 그는 그밖에도 희곡, 정론, 회상기 등 많은 글들을 썼다.

그는 뽈스까작가동맹 위원장, 평화옹호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뽈스까에서의 사회주의문학운동과 평화옹호운동에도 이바지하였다.

이와슈끼에비츠의 창작은 뽈스까의 사회주의적사실주의문학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있다.

4. 도이췰란드문학

1) 파쑈화와 나라의 분렬로 하여 간고하게 발전한 도이췰란드문학

1871년 프로씨아가 통일적인 제국을 수립한후 도이췰란드는 19세기말～20세기초에 세계에서 미국 다음가는 공업국가로, 가장 침략적인 제국주의국가로 되였다.

도이췰란드는 제1차 세계대전에서 패하여 심히 약화되였으나 전후 미제국주의자들의 적극적인 지원밑에 경제와 군사를 재생함으로써 또다시 다른 제국주의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되였다.

이러한 환경속에서 19세기말부터 20세기 전반기에 도이췰란드문단에서는 각종 부르죠아문학사조, 류파들이 대두하였다.

먼저 자연주의가 출현하였다. 도이췰란드에서 리론적으로 자연주의를 제창한것은 홀츠와 슐라흐였으며 그것을 실천에 옮긴것은 하우프트만이였다. 그러나 하우프트만은 초기에 자연주의작가로 등장했다가 점차 그 영향에서 벗어나 비판적사실주의작가로 되였다.

자연주의와 함께 20세기초에 게오르게의 상징주의, 에른스트의 신랑만주의를 비롯하여 신고전주의, 인상주의, 표현주의 기타 각양각색의 부르죠아문학사조, 류파들이 류행되였다. 여기에 속한 부르죠아작가들가운데서는 시인 게오르게가 알려져있다. 19세기말—20세기초 도이췰란드의 예술을 위한 예술조류의 대표적인물인 스테판 게오르게(1868—1933)는 시집 《령혼의 해》(1897)와 《생의 주단 및 꿈과 죽음의 노래》(1899) 등에서 구체적인 생활현상을 피하고 고답적인 문제를 상징적으로 노래하였으며 극도의 형식미를 추구하였다.

제1차 세계대전을 전후한 혼란기에는 신비적, 종교적경향의 작가, 인간의 본능묘사에 치중한 작가, 신을 절대적인 권위로 내세우는 작가 등 퇴폐적인 작가들이 나타나 문단의 공기를 흐리게 하였다.

문단에서 퇴폐적인 문학이 판을 치던 19세기말부터 제1차 세계대전을 전후한 시기에 도이췰란드문학의 사실주의적전통을 이어받아 발전시킨것은 도이췰란드비판적사실주의문학의 대표자인 토마스 만과 하인리히 만 형제였다. 토마스 만의 장편소설 《부덴부로크일가》와 하인리히 만의 장편소설 《충복》은 세계적으로 알려져있다. 이 두 작가는 20세기 도이췰란드의 진보적문학계를 대표하는 작가로서 문학사에서 큰 자리를 차지하였다.

1933년 도이췰란드에 히틀러파쑈정권이 수립되여 진보적인사들에 대한 탄압이 전례없이 강화되였다.

그리하여 만형제를 비롯한 대다수 진보적작가들은 망명하였으며 국내에 남은 일부 진보적작가들(《국내망명파》)은 침묵을 지켰다. 망명작가들은 국외에서도 반파쑈활동을 벌리고 창작활동을 계속함으로써 도이췰란드 진보적문학의 명맥을 유지하였다. 제게르스의 장편소설 《일곱번째 십자가》를 비롯한 많은 작품들이 그들에 의하여 창작되였다.

제2차 세계대전후 도이췰란드는 동서로 분할되여 동부도이췰란드는 사회주의길로, 서부도이췰란드는 자본주의의 길로 나갔다. 따라서 도이췰란드문학도 동부와 서부로 갈라져 제각기 자기의 길로 나갔다.

동부도이췰란드에서는 사회주의제도가 수립된 유리한 환경에서 그리고 로동계급의 당의 령도와 국가의 관심속에서 사회주의적사실주의문학이 발전하였다.

여기서 지도적역할을 한것은 망명지에서 돌아온 제게르스, 브레델, 베헤르, 브레흐트, 쯔와이그, 와이네르트였다. 그들에 의해 장편소설 《결심》(제게르스), 《친척들과 친우들》(브레델)을 비롯한 많은 작품들이 창작되였다. 그

들의 뒤를 이어 슈트리트마테르, 칸트, 월프, 아렌트를 비롯한 신진작가들이 활동하였다.

부르죠아문학이 지배한 서부도이췰란드에서는 비판적사실주의작가들이 진보적문학을 끌고나갔다.

여기서 중요한 역할을 한것은 《47년그루빠》(1947에 결성)에 속한 작가들이였다. 그들가운데는 뵐 엔첸스베르게르, 그라스 등 이름난 작가들도 있었다. 그밖에도 서부도이췰란드작가로 리히테르, 안데르슈, 아이히, 아이힝게르, 옌스, 바하만, 욘쏜 기타 여러 작가들이 알려져있다.

제2차 세계대전후에 활동한 도이췰란드작가들가운데는 망명지에서 돌아오지 않고 작품을 쓴 사람들도 있다. 스위스에서 객사한 토마스 만은 장편소설 《파우스트박사》를, 미국에 영주했다가 스위스로 이주한 레마르크는 장편소설 《개선문》을 남겼다. 이딸리아에서 살면서 적극적인 창작활동과 사회활동을 벌린 녀류작가 루이저 린저가 우리 인민들속에서 널리 알려져있다.

도이췰란드는 1990년대에 동부도이췰란드가 서부도이췰란드에 통합되여 하나의 도이췰란드련방공화국으로 됨으로써 동부도이췰란드에서 수행되고있던 사회주의위업은 좌절되고 이 지역에 자본주의가 복귀되였다.

그러나 도이췰란드의 진보적작가들은 어려운 환경속에서도 자기의 활동을 계속하고있다.

2) 도이췰란드비판적사실주의문학과 하인리히 만, 토마스 만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독일에서는 19세기말 20세기초에 비판적사실주의가 발전하였습니다.》

서유럽의 다른 나라들과 달리 도이췰란드에서는 19세기 30년대에 발생했던 비판적사실주의문학이 19세기말 20세기초에야 발전하게 되였다. 그것은 이 나라의 특수한 력사 및 문학발전조건과 관련되여있었다. 19세기 60년대까지 통일을 이룩하지 못하고 소공국들로 분렬되여있던 도이췰란드에서는 여전히 봉건적인 전제통치가 지배하고 반동공세가 강화되였다. 도이췰란드의 비판적사실주의문학은 19세기말 20세기초에 와서 사상예술적으로 유럽의 다른 나라들의 문학과 견줄수 있게 되였으며 세계적인 작가들과 작품들을 배출하였다.

20세기 도이췰란드비판적사실주의문학의 대표자는 하인리히 만과 토마스 만이다.

하인리히 만과 장편소설 《충복》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하인리히 만의 장편소설 〈충복〉과 토마스 만의 장편소설 〈부덴브로크일가〉는 독일비판적사실주의문학의 대표적인 작품입니다.》

하인리히 만(1871—1950)은 루베크의 부유한 부르죠아가정에서 태여나 베를린종합대학을 졸업하고 19세기 90년대초부터 직업적인 작가로 되였다.

초기에 그가 창작한 작품들(3부작장편소설 《녀신》 기타)에서는 모더니즘을 비롯한 부르죠아문학조류들의 영향과 당대 현실의 부정면을 풍자하려는 비판적경향이 강하게 표현되였다. (장편소설 《향락의 나라》, 1900)

그의 창작에서는 사실주의적경향이 우세해지고 절박한 사회정치적문제들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그의 이러한 창작적특징은 장편소설 《교원 운라트》(1905), 《충복》(1914)에서 뚜렷이 표현되였다. 《교원 운라트》에서는 교원 운라트의 풍자적형상을 통하여 반동적인 프로씨아식 학교교육제도를 신랄히 폭로비판하였으며 대표작의 하나인 《충복》에서는 반동의 충복인 자본가 디드리히 하이슬린의 형상을 통하여 도이췰란드부르죠아지의 배신적행위를 예리하게 폭로풍자하였다.

그는 그후 장편소설 《가난한 사람들》(1917)에서 처음으로 로동자들을 주인공으로 설정하고 자본가 하이슬린의 공장에 고용된 로동자들과 자본가사이의 적대적인 계급적모순을 그려내면서 로동자들의 생활을 동정하였다. 그러나 작품에서는 로동계급에 대한 형상을 잘하지 못하였다.

작가는 이 두 장편소설과 그후에 쓴 장편소설 《수뇌부》(1925)를 합하여 3부작장편소설 《제국》을 묶었다. 작품은 1918년 도이췰란드혁명전야의 반동적현실을 폭로풍자한 반면에 염세주의적인 경향도 나타냈다.

그의 다음 장편소설들인 《마리에어머니》(1927), 《큰 사업》(1930), 《심중한 생활》(1932), 단편소설집 《코베스》(1925)에서도 자본주의의 략탈성과 비인간성에 대한 비판이 계속되였다.

이 시기에 와서 하인리히 만은 도이췰란드의 진보적문단에서 중심인물로 되였으며 그의 이름은 내외에 널리 알려지게 되였다.

날로 커가는 작가의 영향력을 두려워한 히틀러파쑈도당은 도이췰란드에서 파쑈정변을 일으킨 직후에 작가의 공민권을 박탈하고 그의 작품들을 불태워버리는 만행을 감행하였다. 부득불 망명의 길에 오르지 않으면 안되였던 작가는 프랑스에 가있다가 프랑스가 파쑈도이췰란드에 강점당한 후에는 에스빠냐와 뽀르뚜갈을 거쳐 미국으로 망명하였다.

망명시기에 작가는 해외에서 적극적인 반파쑈운동을 벌렸으며 그 과정에 점차 부르죠아민주주의에 대한 환상에서 벗어나 사회주의, 공산주의사상에 접근해갔다. 그는 론문집 《증오》(1933), 《그날은 꼭 오리라》(1936), 《용감성》(1939) 등에서 히틀러파쑈도당을 신랄히 폭로규탄하는 한편 도이췰란드공산주의자들의 투쟁에 련대성을 표시하였다.

작가는 또한 후기대표작인 2부작장편소설 《하인리히4세의 청년시기》(1935)와 《하인리히4세의 전성기》(1938)에서 력사적주제와 현실적주제를 결부시켜 반파쑈력량의 통일단결을 호소하였다. 그는 이밖에도 장편소설 《숨소리》(1949)를 비롯한 여러 작품들을 창작하였다.

그는 제2차 세계대전후 도이췰란드민주주의공화국의 창건을 환영해나섰으며 도이췰란드예술원 원장으로 선거되여 귀국을 준비하던중 병으로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사망하였다.

그의 대표작의 하나인 장편소설《충복》은 자본주의로부터 제국주의로 넘어가던 시기 도이췰란드의 현실을 시대적배경으로 봉건세력과 야합한 부르죠아지가 인민들에 대한 략탈과 착취, 사기협잡행위로 대자본가로 되는 과정을 보여줌으로써 부르죠아지의 극도의 리기주의와 포악성과 략탈성, 자본주의사회의 부패성과 반인민성을 폭로하고있다.

네치히지방의 자그마한 제지공장 공장주의 아들인 주인공 디드리히 하이슬린은 학교에서 지배와 복종의 정신으로 교양받았고 베를린종합대학에 다니는 기간에는 반동적인 학생단체에 들어가 군국주의정신을 키웠다. 그는 대학을 졸업한 후 군대에 복무하게 되였으나 아첨과 굴종으로 상관에게 잘 보여 인차 제대되며 그후에는 협잡의 방법으로 박사학위까지 받아가지고 고향으로 돌아온다.

아버지가 죽은 후 하이슬린은 제지공장을 신식으로 개건하고 로동자들을 가혹하게 착취하여 폭리를 얻어 대기업주로 된다. 그는 시장, 주지사를 비롯한 시내의 권력자들과 손을 잡고 더 많은 돈을 긁어모으며 자기의 경쟁자인 기업가 부크를 파산시켜 그의 기업소를 자기 손아귀에 넣는다. 그는 드디여 자기 지방의 경제권을 거머쥔 독점부르죠아지로 된다.

또한 인간증오사상과 민족배타주의정신으로 충만되여있는 하이슬린은 립헌군주국가와 그 두목인 윌헬름황제의 충복이 될것을 맹세하고 온갖 충성을 다한다. 그는 황제의 기념비를 세우는데 한몫 크게 한것으로 하여 윌헬름훈장까지 받는다.

작품은 주인공 하이슬린의 형상을 통하여 군국주의화되여가는 도이췰란드자본가계급의 략탈적본성과 극도의 리기주의, 인간증오사상을 폭로하고있다. 또한 그의 형상에는 인민들에 대한 탄압에 혈안이 되여 날뛰면서 침략전쟁에로 줄달음치던 호전분자들, 군국주의자들의 추악한 면모와 그 취약성이 선명하게 체현되여있다.

작품에는 하이슬린의 형상과 함께 그의 성격을 보충해주는 부르죠아지들과 목사, 관료배, 융케르들의 개성적인 성격도 풍자적으로 그려져있다.

장편소설 《충복》은 새 사회에 대한 전망과 출로를 보여주지 못한 제한성을 가지고있으나 제국주의도이췰란드현실을 예리하게 폭로비판하고 개성적인 성격을 창조한것으로 하여 20세기 도이췰란드비판적사실주의문학에서 주요한 자리를 차지하고있다.

토마스 만과 장편소설 《부덴브로크일가》

하인리히 만의 동생인 토마스 만(1875—1955)은 루베크의 부르죠아가정에서 태여났다. 큰 알곡상인이였던 아버지가 죽고 집안이 파산몰

락되자 그는 1893년에 가족과 함께 뮨헨으로 이사갔으며 그곳에서 보험회사 사무원으로 일하면서 첫 단편소설 《타락》을 발표하여 문단의 인정을 받았다. 그후 그는 종합대학에서 문학수업을 하였다.

그가 창작활동을 하던 19세기말은 도이췰란드에서 자본주의가 제국주의단계로 이행하면서 반동공세가 강화되던 시기였으며 문단에서는 퇴폐주의적조류들이 판을 치던 시기였다. 이러한 시기에 작가는 비록 쇼펜하우에르와 니체의 관념론철학과 퇴페주의의 영향을 받긴 하였지만 19세기 사실주의문학의 전통을 이어 현실생활을 진실하게 반영하는 사실주의적작품들을 창작하는데로 지향하였다.

작가의 이러한 창작적경향은 그의 대표작인 첫 장편소설 《부덴브로크일가》(1901)에서 뚜렷이 표현되였다. 그후 작가는 자본주의사회에서는 참된 예술의 발전이란 있을수 없다는 내용을 담은 단편소설 《토니오 크레게르》(1903)를 비롯한 작품들과 1920년대에 완성한 장편소설 《악마의 산》(1913—1924)에서 자본주의사회의 부패한 현실을 비판하였다.

장편소설 《부덴브로크일가》는 제1차 세계대전 전야에 스위스의 고산지대에 있는 어느 한 료양소에서 벌어진 생활을 통하여 부르죠아지식인들의 정신적위기를 반영하고 퇴페주의와 제국주의와의 결탁을 폭로하였다. 소설은 분석적인 묘사와 깊은 심리분석, 음향학적구성법과 세련된 언어구사 등 작가의 창작적개성을 잘 보여준 반면에 프로이드적인 정신분석학과 상징적수법에 치중하는 편향을 드러냈다.

그는 도이췰란드에서 파시즘이 대두하던 1930년대에 확고하게 반파쑈적립장을 견지하였으며 단편소설 《마리오와 마술사》(1930)에서 파쑈분자들을 폭로하였다.

1933년 히틀러가 집권하자 스위스에 망명한 그는 반파쑈잡지 《척도와 가치》(1937—1939)를 발행하여 파시즘을 반대하는 활동을 벌렸다. 그가 이 시기에 《구약성서》에 기초하여 쓴 4부작장편소설 《요제프와 그 형제》(1933—1943)는 종교전설이야기속에 반파쑈사상을 담은 작품이다. 작가를 미워하던 히틀러파쑈도당은 1936년에 그에게서 도이췰란드공민권과 명예철학박사칭호를 박탈하였다.

그는 1938년에 초빙교수로 미국에 가서도 반파쑈활동을 계속하였고 그 기간에 괴테를 그린 장편소설 《와이마르의 로테》(1939)를 썼으며 1944년에 미국공민권을 획득하였다.

제2차 세계대전후에 그가 쓴 작품은 장편소설 《파우스트박사》(1947)이다. 소설에서는 20세기초부터 제2차 세계대전시기까지 한 도이췰란드작곡가의 생애를 통하여 현대자본주의사회의 위기를 보여주면서 파시즘의 비인도주의적본질을 밝혀내였다.

그는 1952년말에 스위스에 이주하여 쮸리히에서 여생을 보내면서 마지막 장편소설 《사기군 펠릭스 크룰의 고백》(1954)을 창작하였다. 이 소설은 악당소설형식을 빌어 부르죠아적인간관계의 부패성을 비판한 작품이다.

그는 부르죠아민주주의로부터 사회주의, 공산주의에로 접근하고 도이췰란드민주주의공화국 창건을 환영해나선 형 하인리히 만과는 달리 마지막까지 그 어떤 정치조직에도 가담하지 않고 중립을 지키면서 부르죠아인도주의자로 남아있었으며 창작에서 관념론적이며 퇴페적인 경향을 극복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반파쑈사상과 민주주의에 대한 지향이 강하고 세련된 소설창작기교를 보여준 그의 창작은 20세기 유럽비판적사실주의문학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있다.

그의 대표작의 하나인 장편소설 《부덴브로크일가》는 19세기 후반기 도이췰란드의 자본주의적현실을 시대적배경으로 하여 3대에 걸치는 상업부르죠아가정의 운명을 보여주면서 자본주의사회의 모순과 부패성을 폭로비판한 작품이다.

소설은 부덴브로크일가의 첫 세대인 요한 부덴브로크일가의 번영으로부터 시작되고있다. 요한 부덴브로크는 곡물상을 경영하여 폭리를 얻고 그 수입으로 으리으리한 집을 사며 새집들이를 크게 한다. 그는 연회를 차려 손님들을 청해놓고 앞으로의 보다 큰 번영을 기대한다.

두번째 세대의 가장인 명예령사 요한(아버지와 이름이 같다.) 부덴브로크는 아버지의 상사를 물려받아 기업활동을 벌리는데 실무수완도 있고 타산도 밝아 모든 사업을 주도세밀하게 처리한다. 그는 네 남매의 아버지로서, 대상사의 주인으로서 가문의 명예를 고수하려고 애쓴다. 그는 아이들의 교육에도 관심이 높아 딸 토니를 기술학

교에서 공부하게 하고 맏아들 토마스는 장차 가문의 상사를 물려받을 인물로 키우기 위하여 영국에 보낸다.

그러나 이 가정의 처지는 력사의 흐름과 더불어 점차 쇠퇴몰락의 길을 걷게 된다. 토니의 타산적인 결혼의 파탄으로 기울어지기 시작한 부덴브로크일가의 상사는 아들들인 토마스와 크리스티안의 서툰 경영활동과 방탕한 생활 그리고 어머니의 막대한 재산탕진에 의하여 더는 수습할 수 없는 상태에 놓이게 된다.

소설은 번성의 일로를 걷던 부덴브로크일가의 점차적인 쇠퇴몰락과정과 새로 등장하는 포악하고 잔인하고 교활한 제국주의적부르죠아지들에 대한 풍자적묘사를 통하여 당시 도이췰란드의 부르죠아사회현실을 예리하게 폭로비판하고있다. 부덴브로크일가의 성격속에는 단순한 상인가정의 파산몰락만이 아니라 부르죠아지의 교체과정, 부르죠아계급의 생활양식과 부르죠아문화의 퇴페화과정이 일반화되고있다.

또한 소설은 3대에 결치는 부덴브로크일가의 부패타락한 생활에 대한 묘사를 통하여 자본주의로부터 제국주의단계로 넘어가던 시기 사회생활의 특징을 예술적화폭으로 펼쳐보이고있다.

소설은 성격묘사와 세부묘사에서의 치밀성과 생동성, 다양한 표현수법들의 능숙한 리용 등 일련의 예술적성과도 보여주고있다.

장편소설 《부덴브로크일가》는 부덴브로크일가가 파산몰락한 원인을 사회제도의 모순과 결부시켜 보여주지 못하였으며 근로인민대중의 생활을 반영하지 못한것을 비롯하여 비판적사실주의문학작품으로서의 심중한 제한성을 가지고있으나 부르죠아적이며 제국주의적인 도이췰란드현실에 대한 생동한 형상을 통하여 그 부정면을 예리하게 풍자단죄한것으로 하여 도이췰란드문학사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있다.

20세기 도이췰란드비판적사실주의문학에서 세계적으로 이름있는 작가들로는 하인리히 만, 토마스 만형제와 함께 하우프트만, 레마르크, 린저뵐, 폰 데르 그륀, 그라스였다.

하우프트만 게르하르트 하우프트만(1862—1946)은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도이췰란드의 이름난 극작가이다.

그는 오베르잘쯔브룬의 주막집 주인의 아들로 태여나 미술학교를 거쳐 예나종합대학을 졸업한 후 1880년대에 시인으로 문단에 나섰다가 인차 극작가로 돌았다.

그가 극작가로 인정받은것은 부르죠아가정의 부패성을 폭로한 희곡 《해뜨기전》(1889)을 무대에 올리면서부터이다. 그는 련이어 《평화제》(1890), 《쓸쓸한 사람들》(1891) 등 희곡들을 내놓았다. 이 작품들에 나타난 강한 자연주의적경향으로 하여 그는 도이췰란드자연주의문학의 대표자로 간주되게 되였다.

그러나 그의 희곡들에는 초기부터 현실에 대한 비판적태도와 헐벗은 사람들에 대한 동정이 강하게 표현되였으며 이것은 점차 작가로 하여금 비판적사실주의의 길로 나가게 하였다.

그의 대표작은 희곡 《방직공들》(1892)이다. 작품은 1844년 학대와 천대를 참을수 없어 폭동을 일으켜 공장주의 집과 공장을 파괴한 실레지아 방직공들의 투쟁을 긍정하고있다. 작품은 기아에 신음하는 방직공들의 비참한 생활과 그들이 투쟁에 나서게 되는 과정을 비교적 진실하게 보여주면서 19세기 후반기 도이췰란드의 반인민적통치제도를 신랄하게 폭로비판하였으며 착취사회에서 피압박근로대중이 반항의 길에 나서는것은 불가피하다는 사상을 밝혔다.

그는 그밖에 《마부 헨쉘》(1898), 《로제 베른드》(1903)와 같은 사회극과 《해리서털외투》(1893)와 같은 희극, 상징주의의 영향을 받은 《가라앉은 종》(1896), 말기 대표작인 《해지기전》(1932) 등 약 50편의 희곡을 내놓았다. 그는 희곡뿐아니라 《조아나의 이단자》(1918), 《청년시절의 모험》(1937) 등의 장편소설들도 썼다.

이러한 창작성과로 하여 하우프트만은 도이췰란드비판적사실주의문학의 발전에 이바지하였다.

레마르크 에리호 마리아 레마르크(1898—1970)는 오스나브뤼크시의 제책업자의 집안에서 태여나 중학교재학중이던 1916년에 제1차 세계대전에 징병으로 끌려갔다.

그는 전후에 교원, 기자로 있다가 소설창작을 시작하였는데 1929년에 장편소설 《서부전선이상없음》을 발표함으로써 일약 유명한 작가로 되였다. 반전립장에서 전쟁의 가혹성을 랭

철하게 그려낸 이 작품은 20여개 나라 말로 번역출판되여 널리 보급되였다. 소설은 그후 이른바 《잃어진 세대》문학의 대표작의 하나로 간주되게 되였다.

1933년에 파쑈정권이 수립되자 나치스도당은 작가의 공민권을 박탈하고 그의 책들을 모조리 회수, 소각하였다. 하여 그는 망명의 길에 올라 스위스, 미국 등지에서 창작활동을 계속하였다. 그는 1939년에 미국공민권을 받았으나 전후 스위스에 영주하여 그곳에서 사망하였다.

그의 대표작은 장편소설 《개선문》(1946)이다.

소설은 제2차 세계대전전야 프랑스의 력사적현실을 시대적배경으로 히틀러파쑈도당의 박해를 피하여 빠리로 망명한 도이췰란드의사의 생활을 보여주고있다.

주인공 라비크는 베를린의 큰 병원 산부인과의사였다. 그는 게스타포에 체포되여 나치스강제수용소에 갇혔다가 구사일생으로 탈주한 후 프랑스에 불법입국하여 려권도 신분증명서도 없는 처지에서 자기의 신분을 숨기고 의사노릇을 한다. 프랑스와 도이췰란드사이에 선전이 포고되자 그는 당국에 체포되여 프랑스에 새로 설치된 수용소에 호송되여간다.

소설은 의지가지없는 고독하고 불우한 주인공 라비크의 형상을 통하여 선량한 사람들에게 끝없는 불행을 끼친 파시즘을 저주하고 강한 반파쑈사상을 제기하고있다. 소설은 그 묘사가 진실하고 주인공의 내면세계를 깊이있게 그리고있으며 통속적인 문체를 쓰고있는 점에서도 특징적이다.

소설은 제2차 세계대전시기 나라를 잃고 쓰라린 망명생활을 체험한 적지 않은 소부르죠아지식인들의 기분을 민감하게 반영한것으로 하여 널리 알려졌다.

린저 루이저 린저(1911—?)는 바이에른주 란드스베르그군 피츨린마을에서 교원가정의 외딸로 태여나 1928년부터 교원양성소에 적을 두고 뮨헨종합대학에서 심리학을 공부하였다. 그는 1930년에 교원양성소를 졸업하고 바이에른주내의 여러 마을 소학교에서 교편을 잡았으나 파쑈독재수립후 파시즘에 대한 반항심과 증오심으로 하여 1939년에 결혼을 구실로 교단에서 물러나고말았다.

그는 이때부터 가정생활을 돌보면서 문학창작활동을 벌렸으나 불온분자로 지목되여 1942년에 나치스당국에 의해 집필을 금지당하였다.

이 시기 그는 전선에 끌려나간 남편이 사망하여 두 어린것을 데리고 간고한 생활을 하였다. 그는 1944년에 징집령을 받은 작가 클라우스 헤르만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와 가결혼했다가 밀고로 게스타포에 체포되여 사형선고를 받고 강제수용소에 감금되였다. 그는 1945년 5월 파쑈도이췰란드의 패망으로 구사일생으로 살아났다.

그는 전후에 뮨헨에서 발간되는 《노이에 짜이퉁》지의 문예론평원, 바이에른방송국의 문예론평원, 스위스의 주간지 《웰트 복헤》의 론설원 등으로 사업하였으며 1959년이후에는 이딸리아에서 살면서 직업적작가로, 사회활동가로 활동하였다.

당시 린저의 명성은 온갖 불행과 악을 반대하고 정의와 진리, 인도주의와 녀성해방을 위하여 싸우며 천대받고 멸시당하는 사람들의 옹호자로 알려졌다. 그는 처녀작인 단편소설 《나리꽃》과 큰 파문을 일으킨 장편소설 《파문》(1941), 《옥중일기》(1946), 《가장 강한 사람들》(1948) 등 작품들에서 자기의 사상적지향을 뚜렷이 하였다.

특히 강의한 의지로 자기 운명을 개척해나가는 녀주인공의 인상적인 성격을 창조한 장편소설 《삶의 한가운데》(1950)는 그의 대표작으로 알려져있다. 그밖에 전후 서부도이췰란드에서의 군국주의의 재생을 폭로단죄한 《검정하늘소》, 장편소설 《고원》등 작품들도 썼다.

그는 우리 나라를 여러차례 방문하여 그때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만나뵈웠고 주체조선의 찬란한 현실을 목격하는 과정에 우리 인민의 친근한 벗으로 되였으며 미제와 남조선괴뢰도당의 분렬주의적책동을 짓부시고 나라의 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을 적극 지지하였다. 그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명예문학박사학위를 수여받았다.

뵐 하인리히 뵐(1917—1985)은 제2차 세계대전후에 문단에 진출하여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이전 서부도이췰란드작가이다.

그는 쾰른에서 카톨릭교신자인 세공목수의 아

들로 태여나 매우 어려운 환경에서 자라났다. 1937년에 쾰른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점 점원으로 일하다가 1939년에 쾰른대학 도이췰란드어문학부에 입학하였으나 그해에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 파쑈군대에 징집되였다. 그는 전쟁 전기간 병사로 복무하면서 여러번 부상을 입었다. 이러한 전쟁체험은 후날 그의 창작적 바탕으로 되였다.

그는 1945년 페허가 된 고향도시에 돌아와 가구사의 조수를 비롯한 여러가지 직업에 종사하면서 소설창작을 시작하였다. 그는 반전주제의 첫 장편소설 《아담아, 너는 어데 있었느냐》(1951)의 창작으로 이름을 날려 47년그룹에 초대되였으며 그 모임에서 《검은 양》을 랑독하여 47년그룹상을 받았다.

그가 문단에서 확고한 자리를 차지하게 된것은 전후의 곤난으로 파탄된 가정을 형상한 《그리고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1953)를 발표하면서부터이다.

그는 그후에도 정열적인 소설창작활동을 벌려 전쟁으로 아버지나 남편을 잃은 자녀와 안해의 생활을 그린 《보호자가 없는 집》(1954), 1958년 어느 하루동안에 있은 이야기를 통하여 3대에 걸치는 건축가가정의 력사를 보여주면서 전후에도 뿌리깊이 남은 나치스잔재를 예리하게 비판한 《9시반에 친 당구》(1959), 인권문제를 다룬 《명예를 짓밟힌 카타리나 블룸》(1974), 《주도세밀한 포위태세》(1979), 《무관심속에서》(1980)를 비롯한 많은 중, 장편소설들을 발표하여 페허의 문학으로 불리우던 전후 서부도이췰란드문학을 재생시키는데 이바지하였다.

그는 1970년대초에 국제펜구락부 회장을 지냈으며 1972년에는 노벨문학상을 받았다.

그는 창작에서 비록 그리스도교적인도주의정신에 기초하였지만 전쟁과 파시즘을 반대하고 서부도이췰란드에서의 군국주의의 재생에 경종을 울렸으며 자본주의적현실의 불합리를 예리하게 비판하였다. 또한 생활을 과장없이 진실하게 묘사하고 개성적인 문체로 독자들을 작품의 내용속에 깊이 심취되게 하였다.

그의 대표작은 《명예를 짓밟힌 카타리나 블룸》이다. 《폭행은 어떻게 생겨나며 그 결과는 무엇을 가져오는가》라는 부제목이 달려있는 작품은 총명하고 정직한 젊은 부인이 살인죄를 범하게 되는 이야기를 통하여 자본주의사회의 불합리를 비판하고있다.

카타리나 블룸은 어렵게 살아가는 녀인이다. 그의 아버지는 제2차 세계대전에서 입은 상처와 그후 채석장에서 얻은 규페증으로 일찌기 죽었으며 교회당 청소부로 있던 어머니마저 생활고에 시달려 자살하였다.

정직하고 강의하며 령리하고 아름다운 카타리나는 어려운 가정형편을 자기의 이악한 노력으로 타개하면서 자신의 생활을 개척해나간다. 그는 간신히 가사학교를 마치고 여러 집에서 하녀 겸 집사로 일하는 과정에 파악이 없는 청년과 결혼했다가 그의 저속성이 드러나 곧 리혼하고만다.

어느날 카타리나는 련방군에서 탈주한 피텐이라는 청년과 무도회에서 우연히 만나 춤을 추게 되며 그것을 계기로 서로 사랑하는 사이가 된다. 경찰, 검찰과 결탁되여있고 당국의 비호를 받고있는 한 신문사에서는 군대에서 탈주한 피텐이 강도이며 살인자라는것과 카타리나가 범죄자인 피텐을 경찰의 추적을 피해 달아나도록 도와주었다는 허위기사를 낸다. 특히 퇴르게스를 비롯한 신문사의 기자들은 이 기회에 카타리나를 롱락하고 그를 사회적으로 매장시키기 위해 그의 진술을 외곡하여 신문에 낸다. 그들은 카타리나와 그의 동정자들에게 공산주의자라는 감투까지 씌운다.

카타리나는 마침내 퇴르게스를 징벌할 결심을 품고 그에게 단독으로 만날것을 요구한다. 퇴르게스는 이것을 그 녀자를 점령할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여기고 카타리나의 집으로 가며 카타리나는 이미 준비해두었던 권총으로 그자에게 총알을 안기고 그길로 자수한다.

작가는 소설에서 하층인간들을 막다른 골목에 몰아넣는 부르죠아보도의 허위성과 그것을 묵인보호하는 사법기관의 반인민성을 폭로하고 가난한 사람들의 인권을 유린하는 자본주의사회의 불합리를 비판하고있다. 소설은 구성이 빈틈없이 째여있고 묘사의 치밀성이 높으며 극성이 강한 특징을 가지고있다.

폰 데르 그륀

막스 폰 데르 그륀(1926—)은 제2차 세계대전후에 문단에 진출한 로동자출신작가이다.

그는 바이로이트에서 신발제조공의 아들로 태

여나 상업학교에 다녔으나 상업보다 문학에 남다른 흥미를 느끼였다. 그는 제2차 세계대전때 파쑈군대에 징병되여 병사로 복무하다가 미군에 포로되여 전후 미국에서 3년간 포로생활을 하였다. 그는 1948년에 귀국하여 서부도이췰란드의 루르에서 광부, 기계공으로 일하다가 1953년부터 소설창작을 시작하였다.

그는 1961년에 서부의 공업도시 도르트문드에서 공업로동의 세계를 반영할것을 목적으로 한 작가단체 61년그룹의 창립을 공동으로 발기하고 로동자작가들의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힘썼다.

61년그룹의 작가들은 주로 자본의 착취와 압박을 받는 로동자들의 어려운 생활과 그들의 반항을 반영하였다.

그가 1960년대에 발표한 《두 교대로 일하는 남정들》(1962), 《개똥벌레와 불》(1963)을 비롯한 여러 장편소설들은 모두 그러한 주제의 작품들이다. 《개똥벌레와 불》은 아무런 로동보호조건도 없는 곳에서 혹사당하는 로동자들의 생활을 반영한 작품이다. 그는 이것을 계기로 해고당하였다.

그는 1970년대에 쓴 장편소설 《어데나 살얼음판》(1973)에서도 로동자들의 생활과 투쟁을 묘사하였다.

소설의 주인공인 자동차수리공장 기계공 칼 마이왈드는 어느날 자기 일터에서 뜻밖에도 도청장치를 발견하게 된다. 그것은 로동자들의 동향을 알아내기 위해 공장당국이 설치한것이였다. 도청장치까지 리용하여 로동자들의 일거일동을 감시하는 당국의 인권유린행위는 이 공장 로동자들의 한결같은 격분을 불러일으킨다. 로동자들은 크리스마스명절날에 일제히 도청장치들을 산산이 파괴하며 명절장식을 한 크리스마스나무를 못쓰게 만드는것으로써 이에 항의해나선다. 그러자 공장당국은 마이왈드를 해고한다. 격분한 로동자들은 보다 적극적인 행동으로 넘어가 마이왈드의 복직을 요구하는 파업을 일으킨다.

그의 대표작의 하나는 1980년대에 발표한 장편소설 《눈사태》(1985)이다.

작품은 주인공 자유사진기자 에드문드 월프와 그의 안해 크리스타, 처남인 자본가 뵈머 등을 둘러싼 인간관계를 통하여 당시 서부도이췰란드의 현실을 비판하고있다.

작품은 뵈머의 원인모를 사망과 관련한 주인공의 회상과 사색을 통하여 이야기를 펼쳐나가고있다. 뵈머는 장인의 도움으로 공장을 건설하고 기업에서 성공하여 큰 부자가 된자이다. 그는 배다른 누이동생인 크리스타를 유모로 데려다 하녀처럼 일을 시키며 매부인 월프에 대해서도 무관심하게 대한다. 그는 특히 자기 공장 로동자들을 교활한 방법으로 가혹하게 착취하여 자기 돈주머니를 불군다. 그의 너무나 가혹한 착취에 로동자들은 파업으로 대답한다.

월프는 약한자는 언제나 강자에게 잡아먹히우기마련인 이러한 현실에 침을 뱉고 뵈머, 크리스타와의 관계를 끊어버리고 부패한 현실을 폭로하는 사진보도활동에 몸을 바친다.

이를 통하여 소설은 자본가들의 착취적본성을 폭로하고 자본을 반대하는 로동자들의 반항을 반영하였다.

그라스

균터 그라스(1927—?)는 하인리히 뵐과 쌍벽을 이루고 활동한 사람으로서 그가 사망한 후 오늘의 도이췰란드문단에서 제1인자의 위치를 차지한 작가였다.

그는 단찌히(현재 뽈스까령 그단스크)에서 소상인의 아들로 태여났다. 아버지는 도이췰란드사람이고 어머니는 뽈스까사람이였다. 그는 중학교에 다니던 때인 1944년 제2차 세계대전시기에 파쑈군대에 징집되여 병사로 복무하였다. 전쟁시기 포로되여 포로수용소에 있다가 전후에 놓여나온 그는 부모를 찾지 못한채 듀쎌도르프에서 광부, 석공, 조각견습공을 거쳐 미술학교에서 공부하였다.

그는 1950년대 후반기부터 문학작품을 발표하기 시작하였으나 인정받지 못하고있다가 발레무용수인 안해와 함께 프랑스의 빠리에 이주한 후 그곳에서 쓴 장편소설 《양철로 만든 북》(1959)이 47년그룹상을 받으면서 알려지게 되였다.

작품은 세살때 지하실에 떨어져 뇌타박을 받고 불구가 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통하여 1924년부터 1954년까지의 도이췰란드현실을 폭넓고 깊이있게 보여주고있다. 작품에는 무시무시한 공포정치가 없는 사회, 인류에게 헤아릴수 없는 재난과 불행을 들씌우는 전쟁이 없는 세계에서 자유롭고 평화롭게 살려는 사람들의 지

향이 담겨져있다.

그는 그후 정력적인 창작활동을 벌려 《고양이와 쥐》(1961), 《개같은 세월》(1963), 《대서양의 가재미》(1977), 《랜틴》(1986), 《기나긴 력사》(1995)를 비롯한 많은 소설들을 발표하여 세계문단에서 영향력이 있는 작가로 공인되였다.

그는 여러번 국내문학상을 받았으며 1999년에는 수많은 경쟁자들을 누르고 노벨문학상수상자로 되였다.

그는 오래동안 도이췰란드사회민주당에 속해있다가 탈당하여 록색당의 립장을 대변하였다.

최근에 그가 발표한 장편소설 《가재걸음으로》(2002)는 그해의 인기있는 작품으로 되였다. 작품은 제2차 세계대전시기에 이전 쏘련군 잠수함의 공격을 받고 침몰된 한 도이췰란드군용수송선과 그 배에 탔다가 수장된 사람들을 둘러싼 이야기를 통하여 현시대의 복잡한 문제들에 대한 작가나름의 견해를 피력하고있다.

3) 도이췰란드사회주의적 사실주의문학과 제게르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인류문예사에 처음으로 출현한 사회주의적사실주의가 제기하였던 력사적과제는 자본의 철쇄와 제국주의예속에서 근로인민대중을 해방하는데 복무하는것이였다.》

도이췰란드에서 사회주의적사실주의문학이 형성된것은 1920년대말～1930년대이다.

이 나라에서 사회주의적사실주의발생의 기초로 된것은 1920년대에 발전한 프로레타리아문학이였다. 19세기 60－70년대에 발생발전한 로동자문학에 연원을 두고 제1차 세계대전후에 하나의 조류로 형성된 도이췰란드프로레타리아문학은 1920년대에 시 《도이췰란드혁명》(뮬레르, 1918), 장편소설 《루이지트》(베헤르, 1926), 《불타는 루르》(1928), 희곡 《1921년의 르이나》(라스크, 1927)를 비롯한 작품들을 내놓았다.

이러한 성과에 기초하여 1928년 베를린에서 프로레타리아작가동맹이 결성된 후 프로레타리아문학에서 사회주의적사실주의의 요소가 구현되기 시작하여 1930년대 반파쑈투쟁시기에 사회주의적사실주의문학이 형성되였다. 이 시기에 나온 장편소설 《시련》(브레델, 1934), 《일곱번째 십자가》(제게르스, 1939), 희곡 《쿠라쥐아주머니와 그의 자식들》(브레흐트, 1939), 시 《붉은기》(베헤르, 1932), 《도이췰란드병사들에게》(와이네르트, 1941)를 비롯한 여러 작품들은 사회주의적사실주의작품으로서의 특징을 뚜렷이 나타내였다.

사회주의적사실주의문학은 제2차 세계대전후 사회주의제도가 수립된 도이췰란드민주주의공화국에서 더욱 발전하였으며 도이췰란드에서 사회주의위업이 좌절된 1990년까지의 40여년동안에 수많은 작품들을 남겨 도이췰란드문학을 풍부히 하였다. 사회주의적사실주의문학의 대표적인 작품들로서는 브레델의 3부작장편소설 《친척들과 친우들》(1941－1953), 슈트리트마테르의 장편소설 《팅코》(1954), 제게르스의 장편소설 《결심》(1959)과 《믿음》(1968) 등을 들수 있다.

20세기 도이췰란드사회주의적사실주의문학의 대표자는 녀류작가 제게르스이다.

제게르스와 장편소설 《일곱번째 십자가》

안나 제게르스(본명：네티 라드바니, 1900－1983)는 라인강반의 도시 마인쯔의 중산층가정에서 태여나 쾰른과 하이델베르그종합대학에서 예술학과 어문학을 공부하였다. 그는 대학시절부터 사회주의, 공산주의에 공감하였으며 1927년에는 도이췰란드공산당에 입당하였다.

그는 이 시기를 전후하여 신문들에 글을 내기 시작하였으며 1928년에 장편소설 《어부들의 폭동》을 발표하여 클라이스트상을 받고 작가로서의 지위를 확립하였다.

그는 그후 여러 나라를 무대로 하여 공산주의자들의 혁명활동을 묘사한 장편소설 《길동무들》(1932)과 여러편의 단, 중편소설들을 발표하였다. 그는 1933년 히틀러파쑈정권이 수립된 후 도이췰란드에서 추방되였으며 그의 모든 작품들은 발행금지당하였다.

그는 프랑스에 망명해있으면서 당시 도이췰

란드농촌의 암담한 현실을 반영한 중편소설 《목에 걸린 상금》(1933), 1934년 2월 윈로동자들의 봉기를 반영한 장편소설 《2월의 길》(1935), 탄부들의 생활을 반영한 《구원》(1937)과 같은 소설작품들을 창작하였다. 이 작품들에는 인민대중의 생활과 투쟁이 진실하게 반영되여있으며 혁명승리의 신념이 력력히 나타나있다.

그는 1941년에 메히꼬로 망명지를 옮겼으며 그곳에서 장편소설 《일곱번째 십자가》(영문출판 1942, 도이취어출판 1946)와 《통과》(1943) 를 발표하였다. 《일곱번째 십자가》는 발표되자 세계 각국에서 커다란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파쑈도이췰란드가 패망한 후 1947년에 도이췰란드민주주의공화국에 귀국한 그는 베를린에 있으면서 새로운 사회주의적문학을 건설하는 사업에 자신의 모든 재능과 정력을 다 바쳤다.

전후시기 그는 제1차 세계대전 말기부터 제2차 세계대전 말기에 이르는 도이췰란드현실을 배경으로 각계각층 사람들의 생활을 반영한 장편소설 《죽은 사람은 언제까지나 젊다》(1949), 이전 나치스당원이 도이췰란드민주주의공화국 공민으로 개조되는 과정을 보여준 중편소설 《인간과 그의 이름》(1952), 전후 도이췰란드의 복잡한 정세를 반영하면서 나라의 분렬과 관련한 첨예한 문제를 다룬 규모가 큰 장편소설 《결심》(1959)과 《믿음》(1968)을 비롯하여 많은 작품들을 련이어 창작하였다.

그는 또한 작가동맹사업에도 적극 참가하여 여러차례 도이췰란드민주주의공화국 작가동맹 중앙위원회 위원장으로 선거되였으며 예술원 원사, 세계평화리사회 리사, 국제레닌평화상수여위원회 위원을 지내고 국제레닌평화상과 도이췰란드국가상을 받았다.

인민에 대한 뜨거운 사랑과 사회주의에 대한 투철한 신념, 높은 형상성으로 특징적인 제게르스의 창작은 도이췰란드에서의 사회주의적사실주의문학발전에 크게 이바지하였다.

그의 대표작의 하나인 장편소설 《일곱번째 십자가》는 제2차 세계대전직전의 암담하고 복잡한 도이췰란드사회현실을 시대적배경으로 파쑈통치에 대한 인민들의 항거, 파시즘의 잔인성과 반인민성, 반파쑈투사들의 투쟁을 보여준 작품이다.

소설은 나치스도당의 집단수용소에 갇혀있던 반파쑈투사들을 포함한 7명 정치범들의 탈출과정을 기본줄거리로 하고있다.

나치스도당은 일곱개의 십자가형 교수대를 만들어놓고 7일간을 기한으로 7명의 탈옥자들을 다 체포하여 교수대에 매달겠다고 미쳐날뛴다. 주인공 게오르그 하이슬러를 비롯한 정치범들은 면밀한 계획밑에 죽음의 수용소를 탈출하는데 성공하나 파쑈악당들의 수사망에 걸려 거의 모든 사람들이 체포된다.

게오르그는 고향도시에 들어서자 이전에 함께 지하활동을 하면서 친했던 처녀 레니를 찾아간다. 그런데 그는 이미 변절하였다. 그와 단호히 갈라진 게오르그는 추격을 피하여 공원속에 숨어있다가 함께 탈출한 필그라베를 만난다. 그는 탈주의 고통을 참을수 없어 자수하자고 제기한다. 하여 게오르그는 그와도 갈라진다.

게오르그는 이전에 지하투쟁을 할 때 친교를 맺은 빠울 뢰다의 집에 찾아가서야 피신처를 알선받는다. 이전에는 모두 지하조직에 들어 투쟁하였으나 지금은 파쑈도당의 탄압으로 조직선이 끊어져 안타깝게 때를 기다리고있던 빠울, 피둘라와 그의 처, 늙은 크레스박사, 헤르만 등 견실하고 믿음직한 동지들의 도움으로 게오르그는 안전한 곳에 피신할수 있게 된다. 얼마후 게오르그는 그들의 도움을 받아 외국으로 가는 배를 타고 무사히 빠져나간다.

소설에서는 수용소장 파렌베르그를 비롯한 교형리들의 잔인성과 그들사이의 모순, 파멸과정을 보여주는 이야기가 곁가지를 이루고있다.

소설은 이러한 이야기줄거리와 인물형상을 통하여 극악한 파쑈통치의 압흑속에서도 공산주의자들과 인민들의 정의를 위한 투쟁은 그 어떤 힘으로도 막을수 없으며 간고한 시련을 통하여 승리하는것은 합법칙적과정이라는것과 파시즘은 반드시 멸망하고야만다는 사상을 힘있게 구현하였다.

소설은 반파쑈투사들의 탈옥과정을 도이췰란드공산당창건당시부터 당원의 영예를 간직하고 견결히 싸워온 로공산당원의 투쟁과 결부시켜 형상함으로써 반파쑈투쟁에서 공산당의 역할을 예술적으로 밝히였다.

한편 소설은 현실반영에서 전형화의 심도를 깊이 보장하지 못하고 혁명투사의 형상에서 그의

계급적, 정치사상적바탕을 깊이있게 그리지 못한 것을 비롯하여 일련의 제한성을 드러냈다.

장편소설 《일곱번째 십자가》는 히틀러파쑈통치가 살판치던 엄혹한 시기의 도이췰란드현실을 진실하게 반영하고 반파쑈투사들의 강한 의지와 인내성을 옳게 형상한 사회주의적사실주의작품으로서 히틀러파쑈분자들의 반동성과 반인민성을 폭로하고 혁명투쟁과 사회적진보에로 인민들을 고무하는데 이바지하였다.

20세기 도이췰란드사회주의적사실주의문학계에서 제게르스와 함께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져있는 작가는 브레델과 브레흐트, 베헤르였다.

브레델 빌리 브레델(1901—1964)은 함부르그의 로동자가정에서 태여나 공장로동자로 일하면서 청년시절부터 공산주의운동에 참가하였다. 그는 스파르타크동맹을 거쳐 1920년에 도이췰란드공산당에 입당하고 1923년 함부르그폭동에도 참가하였으며 직업적인 당일군으로 활동하였다.

그는 파쑈정권이 수립된 후 집단수용소에 감금되였다가 탈출하여 이전 쏘련에 망명하였으며 그곳에서 반파쑈활동을 벌렸다. 그는 에스빠냐인민들의 민족혁명전쟁시기(1936—1939)에 직접 에스빠냐로 들어가 텔만명칭 국제지원병대대 정치위원으로 활약한 국제주의전사이기도 하였다.

제2차 세계대전후 조국(동부)에 돌아온 그는 도이췰란드사회통일당 중앙위원회 위원, 인민회의 대의원, 예술원 원장 등을 력임하면서 도이췰란드인민의 사회주의위업에 한생을 바쳤다.

그의 창작활동은 일찌기 1920년대 후반기부터 시작되였다. 그가 창작한 수많은 소설작품들가운데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것은 장편소설 《시련》(1935), 대표작인 3부작장편소설 《친척들과 친우들》(1941—1953), 《새로운 장》(1959—1964)이다.

제1부 《아버지들》, 제2부 《아들들》, 제3부 《손자들》로 구성된 장편소설 《친척들과 친우들》은 19세기 70년대로부터 20세기 40년대까지 도이췰란드의 복잡하고 준엄한 사회현실을 시대적배경으로 세 세대에 걸치는 한 로동자가정의 운명을 통하여 사회민주당 우익분자들의 배신적인 책동과 파시즘의 온갖 박해를 짓부시면서 장성해온 도이췰란드로동계급의 투쟁력사를 폭넓게 보여준 작품이다.

아버지인 요한 하르데코프는 사회민주당원으로 활동하였으나 기회주의자들의 책동으로 옳은 길을 찾지 못하고 곡절많은 한생을 마친다. 그러나 그의 사위 칼 브레텐은 공산당원이 되며 브레텐의 아들 왈테르와 프리츠도 의지가 강한 혁명가로 자라난다.

소설은 이러한 여러 등장인물들의 각이한 성격형상과 생활경로를 통하여 제국주의와 파시즘, 기회주의자들을 반대하는 도이췰란드로동계급의 투쟁과 그들의 계급의식성장과정을 형상적으로 보여주었다.

그의 3부작장편소설 《친척들과 친우들》은 여러 세대에 걸치는 로동계급가정의 운명을 폭넓게 펼쳐보인 첫 년대기식소설로서 도이췰란드사회주의적사실주의문학의 발전에 이바지하였다.

브레흐트 베르톨드 브레흐트(1898—1956)는 아우그스부르그의 부유한 제지공장주의 아들로 태여나 뮨헨종합대학에서 의학을 공부하였다. 그는 제1차 세계대전때 군대에 징집되여 위생병으로 복무하였으며 1918—1919년에 도이췰란드에서 일어난 혁명적사변때에는 병사대표로 참가하였다. 그는 공산당과 접촉하는 과정에 그 사상에 공감하여 당선동사업에도 적극 참가하였으며 파쑈정권이 선후에는 스위스, 네데를란드, 스웨리예, 미국 등 여러 나라들에서 망명생활을 하였다.

그는 1947년에 동부도이췰란드에 귀국하여 1949년에 베를린에서 《베를리네르 안삼불》극단을 무어 여러 나라를 순회함으로써 국제적으로 널리 알려졌다.

그는 일찌기 1914년부터 문학창작을 시작하여 시를 쓰다가 1920년대에 극창작 및 연극활동으로 넘어갔다. 극창작에서 가식이 없는 진실에 충실할것을 원칙으로 삼은 그의 극작품들에는 인도주의적기백과 반전, 반파쑈사상, 자본주의사회의 사회악에 대한 규탄이 사실주의와 환상이 결

합된 류다른 수법으로 표현되였다.

그의 주요희곡으로는 《정직한》장사치나 형사범이나 결국은 같고 같다는것을 역설적수법으로 밝혀낸 《서푼짜리 가극》(1928), 고리끼의 소설을 각색한 《어머니》(1932), 반파쑈사상으로 일관된 《제3제국의 공포와 절망》(1938), 파쑈선전에 기만당한 평범한 사람들에게 경고한 《쿠라쥐아주머니와 그의 자식들》(1938), 인류앞에 학자의 의무와 책임문제를 제기한 《갈릴레이의 생애》(1943) 등이 있다.

그는 장편소설 《서푼짜리 소설》(1934), 단편소설집 《달력에서 나온 력사》(1948)와 같은 작품들도 썼다.

베헤르 요한네스 로베르트 베헤르(1891—1958)는 20세기 도이췰란드에서 가장 이름난 시인의 한사람이다.

그는 뮨헨지방재판소 소장의 아들로 태여나 뮨헨, 예나, 베를린종합대학들에서 어문학과 철학을 공부하였고 1911년부터 시를 발표하기 시작하였다. 그는 초기에 표현주의의 영향을 받고 표현주의적수법이 강한 비사실주의적작품들을 썼다. 이로 하여 그는 한때 표현주의시인들의 대표자의 한사람으로 공인되였다.

그러나 그는 도이췰란드에서 장성하는 로동운동과 로씨야사회주의10월혁명의 영향을 받아 점차 부르죠아사상에서 벗어나 혁명적시인으로서의 면모를 갖추어나갔다. 그는 1918년에 스파르타크동맹에 들고 그후 공산당원으로, 도이췰란드공산당 중앙위원회 위원으로 되였으며 1927년에는 도이췰란드혁명작가동맹을 창립하고 그 위원장으로 선거되였다.

1920년대에 그는 사회주의제도를 그려본 서사시 《레닌묘앞에서》(1924)와 서사시 《위대한 계획》(1930), 도이췰란드반동통치배들을 날카롭게 폭로한 시집 《왕좌에 앉은 시체》(1925)와 《기아의 거리》(1927)를 비롯한 많은 시작품들과 함께 제국주의전쟁의 침략적본질을 예리하게 폭로한 중편소설 《전쟁터에 나타난 은행가》(1925)와 장편소설 《루이지트 또는 유일하게 의로운 전쟁》(1926)과 같은 소설들도 창작하였다.

1933년 도이췰란드에 히틀러파쑈정권이 수립되자 국외로 추방된 그는 오스트리아, 스위스, 이전 체스꼬슬로벤스꼬, 프랑스 등지에서 망명생활을 하였으며 1935—1945년에는 이전 쏘련에 체류하였다. 그곳에서 그는 도이취어로 된 반파쑈잡지 《국제문학》주필로 사업하였으며 제2차 세계대전시기에는 《자유도이췰란드》민족위원회에 속하여 적극적인 반파쑈활동을 벌렸다.

이 시기 그의 창작은 더욱 원숙해졌으며 반파쑈투쟁정신과 조국애가 넘치는 많은 시 및 산문작품들이 창작되였다. 시집 《행복과 일곱명의 탐구자》(1938)와 《도이췰란드는 부른다》(1942), 서사시 《나무로 만든 집》, 시 《저주로운 놈들》, 이야기시 《침묵을 지킨 사람》, 자서전적장편소설 《작별》(1940) 등이 이 시기에 창작된 주요작품들이다.

파쑈도이췰란드가 패망한 후 조국으로 돌아온 그는 새 도이췰란드에 사회주의문화를 건설하기 위한 투쟁에 자기의 모든 힘을 바쳤다. 그는 정력적인 창작활동을 벌려 시집 《행복은 멀고도 가깝다》(1951)와 《아름다운 도이췰란드의 고향》(1956), 《도이췰란드민요집》(1950), 희곡 《겨울전투》(1954)와 《휴쎈에로의 길》(1957), 론설집 《시의 옹호》(1952)를 비롯한 수많은 작품들을 창작하였으며 도이췰란드민주주의공화국 국가를 창작하였다.

그는 도이췰란드사회통일당 중앙위원회 위원, 도이췰란드민주주의공화국 인민회의 대의원, 정부 문화상, 예술원 원장 등을 력임하였다.

도이췰란드인민의 자유와 해방을 위한 투쟁에 바쳐진 베헤르의 창작은 도이췰란드인민의 혁명투쟁을 고무추동하고 도이췰란드에서 사회주의적사실주의문학을 발전시키는데 크게 이바지하였다.

그밖에도 와이네르트(1890—1953), 쯔와이그 (1887—1968), 프리드리흐 월프(1888—1953), 슈트리트마테르, 칸트를 비롯한 여러 작가들이 알려져있다.

5. 프 랑 스 문 학

1) 진보적문학과 반동문학의 대립이 치렬하게 벌어진 프랑스문학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세계제국주의는 제2차 세계대전을 통하여 심대한 타격을 받았습니다. 파쑈독일과 일본, 이딸리아 같은 전패국들이 치명적인 타격을 받은것은 물론, 영국과 프랑스를 비롯한 련합국측의 자본주의렬강들도 전패국들에 못지 않게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여 제2차 세계대전의 결과 자본주의는 심히 약화되였습니다.》

서유럽 자본주의렬강의 하나인 프랑스는 제1차 세계대전과 제2차 세계대전을 통하여 심대한 타격을 받았다. 프랑스는 제1차 세계대전에서 큰 피해를 입고 그 지위가 떨어진데다가 제2차 세계대전때 도이췰란드에 강점되여 심히 약화되였다.

프랑스 제국주의자들은 날로 격화되는 파멸의 위기에서 벗어나보려고 반동적통치기구를 파쑈화하고 침략과 전쟁정책을 더욱 강화하는 길로 나가는 한편 다른 렬강들과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결탁하였다. 그들은 교활한 통치수법과 략탈방법을 고안해내여 자본주의적착취를 은폐하고 근로대중의 반항을 무마하는데 힘을 기울였으며 잃어버린 식민지를 되찾기 위하여 신식민주의적방법에 매달리였다.

그러나 제국주의자들이 반동화되여 발악할수록 인민대중은 혁명적으로 각성되였고 로동계급을 선두로 하는 근로인민대중의 투쟁은 더욱 강화되였다. 프랑스공산당의 령도밑에 프랑스인민들이 벌린 투쟁은 프랑스반동정권에 큰 타격을 주었다. 프랑스인민의 투쟁기세는 1930년대 반파쑈인민전선운동과 제2차 세계대전시기의 전인민적항쟁 그리고 제2차 세계대전직후 프랑스공산당과 좌익력량이 크게 장성한데서 뚜렷이 과시되였다.

이러한 시대를 배경으로 하여 20세기 프랑스문학은 진보적문학과 반동문학과의 대립속에서 발전해갔다.

자본주의나라인 프랑스의 문학계에서 판을 친것은 오가잡탕의 부르죠아문학사조, 류파들이였다. 그러나 부르죠아문학은 진보적문학을 말살하지 못하였다.

20세기 프랑스의 진보적문학에서 주류를 이룬것은 여전히 비판적사실주의문학이였다. 19세기에 이어 20세기에 들어와서도 활동을 계속한 아나똘 프랑스와 함께 장편소설 《쟝 끄리스또프》와 《매혹된 넋》을 쓴 로맹 롤랑이 이 문학계에서 큰 자리를 차지하였다. 이들과 함께 장편소설 《띠보일가의 사람들》을 쓴 마르땡 뒤 가르, 장편소설 《선량한 의지를 가진 사람들》을 쓴 쥴 로맹 등에 의하여 규모가 큰 장편소설들이 여러편 창작되였다. 이들이 쓴 소설들을 가리켜 《대하소설》이라고 하였다.

20세기 20년대이후에 프랑스의 진보적작가들속에서는 사회주의적사실주의에 대한 지향이 강화되였다. 바르뷔스의 장편소설《포화》와 《광명》에서 처음으로 사회주의적사실주의요소를 나타내고 그후 아라공 엘류아르, 블로끄 등 공산당원작가들에 의하여 창작방법이 더욱 사회주의적사실주의화되였다. 제2차 세계대전후에 나온 아라공의 장편소설 《공산주의자들》과 스띨의 장편소설《첫 타격》등은 그러한 작품들이다.

20세기 전반기 프랑스의 진보적문학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것은 저항(레지스땅스)문학이다.

저항문학이란 제2차 세계대전시기와 그 이후시기 프랑스의 반파쑈항전운동을 반영한 문학을 말한다. 이 문학은 제2차 세계대전시기에 벌어졌던 반파쑈저항운동의 한 고리로 발전하였다.

1941년 전인민적인 반파쑈저항운동을 벌릴데 대한 프랑스공산당의 호소에 따라 공산당원작

가 루이 아라공을 비롯한 광범한 애국적작가, 문화인들은 전국작가협회라는 조직을 뭇고 반파쑈운동을 전개하였으며 자기들의 작품을 통하여 인민들속에서 파시즘을 반대하는 사상을 고취하고 그들을 파쑈강점자들을 반대하는 투쟁에로 불러일으켰다. 그 대표적인 작품이 아라공의 유명한 시집 《프랑스의 기상나팔》이였다. 그들은 전문기판지로서 신문 《레뜨르 프랑쎄즈》(프랑스문학)를 발간하였으며 각 지방에 비밀소조를 뭇고 비합법적출판물들을 간행하였다. 전후에 와서도 이 시기 인민들의 애국적투쟁을 주제로 한 작품들이 발표되였다.

저항문학은 정론, 시, 산문 등 각이한 형태로 발전하였으며 모더니즘, 퇴폐주의와 말세기적개인주의, 패덕적인 미학관을 반대하여 투쟁하였다.

제2차 세계대전시기 반파쑈항쟁운동에 적극 참가한 아라공, 엘류아르, 무씨냐끄, 끄이요, 라피뜨, 전후에 스떨, 가스까르 등은 저항문학의 대표적인 작가들이다.

저항문학에는 좌익파 우익작가, 비판적사실주의작가와 사회주의적사실주의작가, 지어 일부 부르죠아문학사조와 류파에 속한 작가들까지 각이한 계층과 각이한 창작경향의 광범한 작가들이 망라되여있었던것만큼 사상예술적으로 결함이 있는 작품들도 창작되였으며 일부 건전치 못한 부르죠아출신의 작가들은 부르죠아반동작가로 굴러떨어지기도 하였다.

저항문학은 이처럼 그 운동자체의 객관적조건으로 하여 복잡한 양상을 띠고있었으나 전반적으로는 프랑스인민들을 반파쑈투쟁에로 고무하였으며 프랑스사실주의문학발전에 이바지하였다.

20세기 후반기 프랑스의 진보적문학은 이전시기에 비하여 약화되는 추세를 보이였다.

제1차 세계대전과 제2차 세계대전 사이에 이름을 날렸던 작가들이 거의다 세상을 떠났다. 엘류아르(1952 사망), 뒤아멜(1966 사망), 쥴 로맹(1972 사망), 아라공(1982 사망) 등…

아라공은 제2차 세계대전후 프랑스의 진보적문단에서 원로격의 존재였다. 그를 비롯한 작가들은 사회주의적사실주의의 길로 나갔으나 1950년대 후반기이후에 국제공산주의운동안에 현대수정주의가 대두하고 그 영향이 미치면서부터 영향력이 점차 약화되였다.

제2차 세계대전후 프랑스의 비판적사실주의문학은 신진작가들로 보충되여 창작방법이 계속 고수되였으나 각종 부르죠아문학조류의 영향도 강하게 받고있었다.

고전적이며 전통적인 형식의 소설을 모방할것을 표방한 작가들가운데서 세계적으로 알려진 사람들이 적지 않게 나왔다.

녀류작가 프랑스와즈 싸강(1935—)은 19살때인 1954년에 첫 장편소설 《슬픔이여 안녕》을 발표하여 문단을 놀래운 후 《사랑은 먼 래일》(1980)을 비롯한 많은 소설들을 내놓았다. 1960년대에 문단에 진출한 미쉘 뚜르니에(1924—)는 《마왕》(1970), 《별찌》(1974), 《쥘과 잔》(1983)을 비롯한 장편소설들을 련이어 발표하여 《새로운 고전작가》, 《현대의 최대작가》로 불리웠으며 역시 60년대에 등장한 빠뜨리끄 모디아노(1945—)가 《어두운 상점거리》(1978), 《8월의 일요일》(1986)을 비롯한 여러편의 장편소설들을 내놓아 널리 알려졌다.

1980년에 녀성작가로서 처음으로 아까데미 프랑쎄즈의 회원으로 선출된 마르그리뜨 유르스나르(1903—1987)는 《하드리아누스황제의 회고》(1941), 3부작 《흐르는 물과 같이》(1982) 등 여러편의 력사소설들을 썼다.

이들과 함께 희곡 《앙띠고느》(1943)를 쓴 쟝 아누이(1910—1987), 희곡 《지구는 둥글다》(1938)를 쓴 아르망 쌀라끄루(1899—1989)와 같은 이름난 극작가들이 전후 프랑스의 극문학발전을 추동하였다.

20세기 프랑스는 서유럽자본주의나라들가운데서 각종 부르죠아문학사조, 류파가 가장 성행한 나라였다.

19세기 후반기에 출현하여 19세기말까지 존재한 《세기말》문학, 퇴페문학 등 부르죠아문학은 20세기에 들어와서도 여러가지 명칭으로 바뀌여 문학계를 더욱더 어지럽혔다. 제1차 세계대전후 한때 요란하게 떠들다가 쇠퇴한 다다이즘과 초현실주의를 그 례로 들수 있다.

프랑스어 《다다》는 원래 목마를 이르는 말인데 전의된 뜻으로 무의미한 말이라는 의미로도 쓰인다. 제1차 세계대전시기에 스위스에서 발생한 다다이즘은 극도로 반동적인 부르죠아퇴페주의문학류파의 하나이다.

다다이즘을 처음으로 들고나온것은 전쟁을 피하여 스위스에 피신하고있던 로므니아출신의 프랑스시인 쯔아라를 비롯한 퇴페적인 작가들이였다.

그들은 쮜리히의 어느 한 캬바레에서 황당무계한 연설과 선언들을 들고나와 사람들을 놀래웠으며 잡지 《캬바레 볼때르》(1916—1917)를 발간하였다.

전후 이 그루빠가 헤쳐지자 쯔아라는 1919년에 프랑스로 건너가 이른바 절대적다다이스트들이라는 그루빠를 뭇고 작품집 《다다》와 잡지 《문학》등을 출판하였다.

다다이즘은 주로 시문학에서 나타났는데 아무런 뜻도 없고 앞뒤가 맞지 않는 말마디들을 제멋대로 늘어놓음으로써 사상과 론리를 거세하고 형상과 문학구조를 파괴하였다.

다다이즘은 그 허황성으로 하여 1920년대초에 사라지고말았다.

초현실주의(슈르레알리즘)라는 말은 1924년 프랑스시인 앙드레 브르똥(1896—1966)이 잡지 《초현실주의혁명》을 발간하고 《초현실주의 선언》을 들고 나온것을 계기로 생겨났다.

브르똥은 대표작인 장편소설 《나쟈》(1928)에서 자기가 나쟈라는 이상한 녀자와 알게 되고 그의 인도로 초현실의 세계를 인식한데 대하여 이야기하면서 리성적인 판단으로써는 도저히 리해할수 없는 그 어떤 초현실속에서 아름다운것을 찾아야 한다고 떠벌였다.

부르죠아문학계는 이 황당무계한 초현실주의를 그 어떤 혁명인듯이 떠들어대면서 널리 류포시켰으나 초현실주의 역시 그 허황성으로 하여 한동안 류포되다가 저절로 사라지고말았다.

제1차 세계대전과 제2차 세계대전사이에 프랑스의 부르죠아문단이 대가로 내세운 작가들가운데는 주지주의의 대표자의 한사람인 시인 발레리도 있었다. 또한 의식의 흐름의 대표자로서는 장편소설 《잃어진 시간을 찾아서》를 쓴 소설가 쁘루스뜨, 장편소설 《배덕자》(1902), 《좁은 문》 (1909), 《위조화페제작자들》 (1926) 등을 내놓은 지드가 있었다.

부르죠아문단이 《20세기 유럽에서 최고의 지성인의 한사람》으로 떠든 뽈 발레리(1871—1945)는 시각적영상을 묘사하는것이 지성의 요구라고 떠벌이면서 장시 《젊은 빠르끄》 (1917), 서사시 《바다가의 묘지》(1922), 시집 《매혹》(1922)과 같은 자기의 작품들에 퇴페적인 내용과 착잡한 형상, 추상적인 형식으로 순수 형식미를 추구하였다.

20세기 전반기 서유럽퇴페주의문학계에서 대표자의 한사람인 마르쎌 쁘루스뜨(1871—1922) 역시 장편소설 《잃어진 시간을 찾아서》 (1913—1927, 출판)에서 사회현실과 동떨어진 주인공의 병적인 내면심리세계를 파고들어가 그의 의식의 흐름을 추구하면서 사말적인 감각을 전달하는데 치중하였다. 고질적인 병인 천식으로 방안에 들어박혀 외부와 격리된 페쇄적인 생활을 하면서 죽을 때까지 11년이나 걸려 썼다는 이 소설은 썩어빠진 부르죠아사회의 산물로서 사람들의 건전한 정신세계를 좀먹는 해독적작용을 하였다.

국제적으로 반파쑈운동이 앙양되였던 1930년대에 좌익적언사로 사람들의 이목을 끌고 사회주의나라 이전 쏘련을 방문하기까지 했던 앙드레 지드(1869—1951)는 그후 태도를 일변하여 사회주의제도를 비방해나섰다. (《쏘련기행》, 1936) 니체주의의 강한 영향을 받은 그의 소설들은 개인주의와 비도덕성에 대한 설교로 일관되고있으며 구성이 착잡하고 서술이 혼탁되여 있다.

제2차 세계대전후 약 20년동안에 프랑스부르죠아문단에서 제일 큰 인물로 알려진것은 말로, 싸르뜨르, 까뮤 세 작가이다.

앙드레 말로(1901—1976)는 1920년대에 고고학탐사대에 속하여 동남아시아나라들에 다니면서 동방인민들의 민족해방투쟁에 동정을 표시하기도 하고 제2차 세계대전시기 반파쑈항전에 참가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 모든것은 확고한 신념에 기초한것이 아니라 일시적인 모험주의적충동으로부터 흘러나온 기분주의적행동에 불과하였다. 그는 전후 1948년에 《인테리들에게 보내는 호소문》을 발표하여 공개적으로 반동진영에 넘어갔으며 드골내각의 정보상, 프랑스정부의 문화상을 지내면서 자본가들과 제국주의자들의 로골적인 대변자로 나섰다.

그의 장편소설 《정복자》(1928), 《왕도(왕의 길)》(1930), 《인간의 조건》(1933) 등에는 행동주의에 대한 작가자신의 위선적인 속심이 드러나있다.

실존주의문학을 들고나온 까뮤(1913—1960)는 그리스신화에 나오는 시지포스의 모습이 인간의 조건이라고 주장하면서 《이방인》(1942), 《페스트》(1947) 등의 소설들을 통하여 실존주의문학을 들고나왔으며 싸르뜨르(1905—1980)

도 자기가 제창한 실존주의철학을 문학창작에 구현하여 장편소설 《자유에로의 길》(1945—1949)을 비롯한 작품들에서 실존주의문학을 류포시켰다.

20세기 프랑스의 부르죠아문단에서 프랑스와 모랴끄(1885—1970)도 적지 않은 역할을 하였다. 그는 《사랑의 사막》(1925)을 비롯한 장편소설, 《지상의 불》(1950)과 같은 희곡, 《소설가와 작중인물》(1933)과 같은 평론 등 다양한 창작활동을 벌렸다.

그는 카톨릭교에 대한 신앙에 깊이 물젖어 한생을 카톨릭작가로 지냈다.

1950년대에는 《반소설》(앙띠 로망), 또는 《신 소설》(누보 로망)로 불리우는 소설류파가 나와 쌀로뜨, 로브 그리에, 뷰또르 등 작가들이 사실주의소설의 전통을 거부해나섰으며 극문학에서는 《반연극》(앙띠 떼아뜨르)으로 불리우는 류파가 나와 이오네스꼬, 베께뜨, 아다모브 등에 의하여 그 사상이 류포되였다. 전후에 등장한 부르죠아작가들가운데서는 녀류작가 싸강도 있었다.

1970년대에는 《울리쁘》(잠재문학작업장의 줄임말)라는 실험문학운동이 일어나 소설 《사용법 인생》(1978)을 쓴 조르쥬 뻬레끄(1936—1982), 소설 《지하철안의 쟈자》(1959)를 내놓은 레몽 끄노(1903—1976) 등의 소설가와 쟈끄 루보(1934—) 등의 시인들이 여기에 합세했으며 1980년대에는 《포스트 누보 로망》으로 불리운 소설류파가 나와 누보 로망을 혁신한다고 하면서 문단을 어지럽게 만들었다.

전후 프랑스의 부르죠아극문학계에서는 반연극의 극작가들과 함께 《죽은 왕비》(1942), 《말라떼스따》(1950)를 비롯한 많은 희곡들을 쓰고 유명해졌으나 시력이 악화되자 소경이 될가봐 자살한 몽떼를랑(1896—1972)도 잘 알려져있다. 부르죠아평론은 그를 제2차 세계대전이후 최대의 비극작가로 격찬하였으나 그는 관능적인 쾌락과 그리스도교사상을 추구한 부르죠아작가에 불과하였다. 뛰여난 독창성을 지닌 극작가 쟝 쥬네(1910—1986)도 반사실주의작가였다.

제2차 세계대전후 프랑스시문학의 주류를 이룬것도 부르죠아시인들이였다. 그러한 시인들로는 르네 샤르(1907—1988), 삐에르 에마뉘엘(1916—1984), 프랑씨즈 퐁쥬(1899—1988), 이브 본푸아(1923—) 등을 들수 있다.

2) 프랑스비판적사실주의 문학과 롤랑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비판적사실주의문학은 오늘도 자본주의나라들에서 진보적문학의 주류를 이루고있습니다.》

20세기 프랑스에서도 진보적문학의 주류를 이룬것은 비판적사실주의문학이였다. 20세기의 프랑스비판적사실주의문학은 19세기 사실주의문학의 전통을 이어받으면서도 일련의 변화를 가져왔으며 새로운 특징을 나타냈다.

그 하나는 비판적사실주의작가들속에서 사회주의를 지향하고 사회주의적사실주의에 접근해간 작가들이 여러명 나온것이다. 물론 이러한 경향은 19세기말에도 졸라와 같은 작가에게서 나타났다. 그러나 그때에는 그것이 개별적인 현상으로 나타났다면 20세기에는 그러한 경향이 하나의 추세를 이루었다. 그 대표적인 작가들로 아나똘 프랑스, 바르뷔스, 롤랑을 들수 있다. 그들가운데서 바르뷰스는 프랑스사회주의적사실주의문학의 선구자로 되였다.

특징의 다른 하나는 시대와 인간을 폭넓고 깊이있게 그려내려는 지향이 강화된것이다. 그러한 지향속에서 대하(큰 강)와 같은감을 주는 장편소설이라고 하여 대하소설로 불리운 부피가 큰 장편소설이 여러편 창작되였다. 《쟝 끄리스또프》와 《매혹된 넋》, 《띠보일가의 사람들》, 《선량한 의지를 가진 사람들》이 그러한 작품들이다.

또한 작품의 지성도와 형상수준이 높아지고 인간의 내면심리세계를 파고들려는 경향이 강화되였다.

다른 한편 이 문학에 대한 각종 부르죠아문학사조, 류파의 영향이 강화된것과 관련하여 사실주의와 자연주의가 범벅이 된 작품, 사실주의와 형식주의, 퇴페주의가 뒤섞여진 작품 등이 많아졌다. 하여 그러한 작품을 쓴 작가를 비판적사실주의작가로 볼것인지, 부르죠아반동작가로 볼것인지 가늠하기 힘든 사태도 빚어졌다. 그 실례로 이름있는 카톨릭작가 모랴끄(1885—1970), 희곡 《앙띠고느》(1944)에서 반파쑈사상을 강하게 제기한 쟝 아누이(1910—1987) 등을 들수 있다.

이렇듯 20세기 전반기에는 세계적으로 알려진 이름난 비판적사실주의작가들을 적지 않게 배

출하였지만 20세기 후반기에는 세계적인 비판적 사실주의작가를 배출하지 못하였다.

20세기 프랑스비판적사실주의문학의 대표자는 로맹 롤랑이다.

로맹 롤랑과 장편소설 《매혹된 넋》

로맹 롤랑(1866—1944)은 프랑스 중부의 소도시 끄람씨의 공증인가정에서 태여나 1882년에 가족과 함께 빠리로 이사하였으며 거기서 고등사범전문학교를 졸업하였다. 그후 그는 2년간 이딸리아에서 류학하고 1895년에 귀국하였으며 1901년부터 11년동안 쏘르본종합대학에서 예술사를 강의하였으며 예술학박사학위를 받았다.

그의 창작은 19세기말에 희곡창작으로부터 시작되였다. 프랑스부르죠아혁명시기를 반영한 그의 초기극작품들에는 추상적인 부르죠아인도주의사상에 사로잡혀있던 작가의 사상적제한성을 반영하여 부르죠아개인주의적경향이 심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1890년대 중엽에 사회주의사상에 접하게 되면서 그의 창작에서는 새로운 특징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그는 예술가는 마땅히 《새 사회를 위한 새로운 예술을 창조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베토벤의 생애》(1903), 《미껠란젤로의 생애》(1905), 《똘스또이의 생애》(1911) 등의 전기작품들에 이러한 립장을 표명하였다. 그는 또한 희곡 《패배자들》(1898, 미완성)에서 로동자들의 투쟁에 공감을 표시하고 그에 참가하기를 주저하는 나약한 지식인의 소심성과 복잡한 심리적체험을 반영하였으며 희곡 《시대가 도래한다》(1903)에서는 제국주의의 략탈성과 야수성을 폭로하였다.

그는 특히 10권으로 된 다부작장편소설《쟝 끄리스또프》(1904—1912)에서 재능있는 도이췰란드음악가의 시련에 찬 한생을 통하여 부르죠아사회의 모순을 폭로하고 그것을 반대하는 선진사상의 형성과정을 생동하게 보여주었다.

그후에 창작한 중편소설 《꼴라 브류뇽》(1914)에서 작가는 평범한 벌목부 꼴라 브류뇽의 형상을 통하여 부르죠아사회현실에 대한 인민들의 반항의식과 그들의 자유애호적이며 락천적인 생활을 보여주었다.

그는 로씨야에서 일어난 1917년 사회주의10월혁명을 적극 지지하였으며 그에 고무되여 제국주의침략전쟁과 파시즘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였다.

그의 사상생활과 창작에서의 새로운 전환은 장편소설 《매혹된 넋》(1922—1933)에서 집중적으로 표현되였다. 소설은 그것이 이룩한 높은 사상예술적성과로 하여 《쟝 끄리스또프》와 함께 롤랑의 대표작으로 되였다. 그밖에도 작가는 《로베스삐에르》를 비롯한 여러편의 희곡들과 많은 실화작품들, 정론들을 썼다.

그는 제2차 세계대전시기에 히틀러파쑈군대의 프랑스침공과 반역자들의 투항을 격분에 차서 규탄하였으며 히틀러침략자들의 강점으로부터 나라를 해방한 프랑스인민을 열렬히 찬양하였다. 그는 고향땅에서 생을 마칠 때까지 창작을 한시도 중단하지 않았으며 로동계급의 투쟁에 적극 합류해나섰다.

그는 자기의 창작과 사회정치활동으로 프랑스비판적사실주의문학의 전통을 혁신적으로 계승하고 사회주의적문학의 수립을 위한 투쟁에 공헌한것으로 하여 20세기 프랑스비판적사실주의문학계에서 특출한 자리를 차지하고있다.

장편소설 《매혹된 넋》은 제1차 세계대전을 전후한 시기 프랑스의 사회력사적현실을 시대적배경으로 하여 자본주의사회의 모순을 폭로하고 량심적인 부르죠아지식인들속에서의 사상의식개조과정과 사회주의에로의 지향을 보여준 작품이다.

소설은 제1권 《안네뜨와 씰비》, 제2권 《여름》, 제3권 《어머니와 아들》, 제4권 《예언자》로 이루어져있다.

대부르죠아인 라울 리비에르의 맏딸로 태여난 주인공 안네뜨는 호화로운 생활과 향락속에서 어린시절을 보내고 나이가 차자 부르죠아적련애관에 빠져 이 사람, 저 사람과 무질서한 사랑관계를 맺었으며 지어 배다른 동생 씰비와의 삼각련애관계에 빠지기도 한다. 안네뜨는 인물 잘나고 말재간이 있는 브리쏘라는 청년과 애정관계를 맺었다가 그의 리기주의적사랑이 마음에 들지 않자 아이를 가진채 갈라진다.

이럴즈음에 안네뜨의 가정에는 기업의 파산이라는 무서운 불행이 들이닥친다. 안네뜨는 가산까지 전부 팔아버린 형편에서 남의 집 세방살이를 시작한다. 그는 간고한 생활의 시련속에서 어린 아들 마르끄를 양육하는 강한 의지와 자립적인 생활력을 키워나간다. 제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자 그는 피난민구제사업에도 참가하고 야전병원에 나가 부상병들을 치료해주기도 하는 과정에 점차 사

회의 불합리와 모순을 인식하게 된다.

한편 다 자란 마르끄는 로동계급속에서 생활하면서 선진적인 로동자들과 사회주의자들로부터 좋은 영향을 받으며 진보적인 사상을 체득한다. 특히 짜리로씨야시기에 프랑스로 망명해온 처녀사회주의자 아샤와 결혼한 후에는 그로부터 혁명적영향을 받고 사회주의를 지향해나선다. 마르끄와 아샤는 국제혁명가방조단체에 들어가 피착취계급의 권리를 옹호하여 적극적인 활동을 벌린다.

안네뜨는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빠리의 어느 한 신문사주필인 띠몽의 서기로 일하면서 모순으로 가득찬 부르죠아사회의 내막을 더욱 깊이 알게 되고 아샤와 마르끄의 영향을 받아 사회주의의 진리를 점차 깨닫기 시작한다.

어느날 마르끄는 정의와 자유를 지향한것으로 하여 반동경찰의 추격을 받은 한 로인과 어린이의 생명을 구원하고 값있게 최후를 마친다. 마르끄의 뒤를 이어 안네뜨와 아샤가 붉은기를 높이 들고 앞으로 나아간다.

작품은 한 량심적인 녀성과 그 일가가 파란곡절과 정신적체험을 거쳐 사회주의를 지향해나서게 되는 과정을 생동한 화폭으로 보여주고있다. 작품의 이러한 사상은 한편으로는 안네뜨를 비롯한 긍정인물들이 정신적자유와 감정의 자립을 추구하는 과정에 겪는 내적인 극적체험을 통하여, 다른 한편으로는 사회현실, 각이한 사회계층과 안네뜨와의 외적인 충돌과 극적갈등을 통하여 해명되고있다.

특히 초기에 도덕적자아완성만을 추구하다가 자신의 곡절많은 인생체험을 통하여 사회개조의 필요성을 점차 인식하게 되는 주인공 안네뜨는 작품의 사상을 집중적으로 구현하고있다.

또한 개인주의적편견과 초당파적진리에 대한 환상에 빠져있다가 안네뜨와 아샤, 공산주의자들의 영향을 받아 자신을 개조해나가는 마르끄도 작품의 기본주제사상을 해명하는데 적극 이바지하고있다.

그밖에도 작품에서는 출세주의자이며 개인리기주의자인 브리쏘, 잔인하고 파렴치하며 위선적인 띠몽의 형상을 통하여 자본주의사회의 취약성과 부패성을 폭로하고있다.

소설은 심리묘사를 위주로 한 성격창조, 대조적인 수법의 능란한 구사, 강한 극성 등의 예술적특징을 보여주고있다.

장편소설 《매혹된 넋》은 공산주의자들의 풍모를 옳게 그리지 못하고 삼각련애관계를 맺어준것을 비롯하여 일련의 제한성을 가지고있으나 현대자본주의사회에서 량심적인 한 부르죠아지식인녀성이 곡절많은 사상정신적탐구를 거쳐 막연하게나마 사회주의를 지향해나가게 되는 력사적과정을 진실하게 보여줌으로써 20세기 30년대 프랑스문학에서 싹트고있던 사회주의에 대한 지향을 반영한 특색있는 작품으로 되였다.

20세기 프랑스비판적사실주의문학계에서 롤랑다음자리를 차지한 작가들은 아나똘 프랑스, 마르땡 뒤 가르, 뒤아멜이다. 그밖에도 파쑈도이췰란드를 반대하는 전투에서 전사한 비행사작가 쌩떽쥬베리(1900—1944), 제2차 세계대전이후시기에 진출한 라누(1913—1983), 베르꼬르(1902—), 메를르(1908—), 뜨로야(1911—), 드뤼옹(1918—), 극작가 쌀라끄루(1899—1989) 등이 있다.

이들에 의하여 앞에서 지적한 규모가 큰 장편소설들외에도 반파쑈주제의 장편소설들인 《밤의 무기》(베르꼬르, 1946), 《와뜨랑소좌》(라누, 1956), 단편소설 《나의 직업은 살인이다》(메를르, 1952), 현대부르죠아사회를 비판한 3부작장편소설 《인간의 종말》(드뤼옹, 1948—1951), 중편소설 《32만 5천프랑》(바이양, 1955), 희곡 《르노와르군단》(쌀라끄루, 1947), 인민들의 해방투쟁을 반영한 장편소설 《지구가 존재하는 한》(뜨로야, 1950)을 비롯한 많은 작품들이 창작되였다.

아나똘 프랑스

아나똘 프랑스(1844—1924)는 19세기말—20세기초 프랑스비판적사실주의문학을 대표하는 작가의 한사람이다.

그는 빠리의 고서점주인의 외아들로 태여나 어려서부터 세계고전문학작품들을 많이 읽고 문학적소양을 쌓았으며 1860년대초부터 창작활동을 시작하였다. 그의 창작에서 제국주의현실에 대한 비판이 심화되고 민주주의와 사실주의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진것은 19세기말부터이다. 그것은 4부작장편소설 《현대이야기》(1897—1901)에서 뚜렷이 표현되였다. 제1부 《길가의 느티나무밑에서》(1897), 제2부 《버들로 만든 마네킨》(1897), 제3부 《자색수정반지》(1898), 제4부 《빠리에 온 베르제레씨》(1901)로 구성된 소설은 량심적인 시골학자 베르제레의 형상을 통하여 제국

주의단계로 넘어간 프랑스의 사회현실을 폭넓게 보여주었다.

20세기에 들어와 그는 단편소설 《끄랭끄뷰》(1901), 장편소설 《펭긴들의 섬》(1908), 《신들은 목마른다》(1912), 《천사들의 반항》(1914)에서 신랄한 풍자로 현대제국주의를 폭로비판하고 인민들의 항거정신을 보여주었으며 장편소설 《흰 돌우에서》(1905)에서는 사회주의사회를 인류의 리상사회로 그리였다.

그는 1917년 사회주의10월혁명을 지지하고 그후 사회주의를 더욱 지향해나섰으며 프랑스공산당 기관지 《유마니떼》가 발간되게 되자 그 편집원으로 되였다.

그는 추상적인 부르죠아인도주의자로부터 사회주의의 지지자, 동정자로 성장한 량심적인 작가로서 프랑스진보적문학의 발전에 이바지하였다.

마르땡 뒤 가르

로제 마르땡 뒤 가르(1881—1958)는 빠리의 고문서학교를 졸업하고 제1차 세계대전시기 자동차수송대원으로 참전하였으며 1908년부터 창작활동을 시작하였다.

그가 유명해진것은 전 8부, 11권으로 된 규모가 큰 장편소설 《띠보일가의 사람들》(1922—1940)을 발표한 때부터이다.

소설은 부르죠아가정인 띠보일가의 붕괴를 담고있다. 작품은 이 가정을 고립적인 존재로가 아니라 사회의 세포로 보면서 이 세포를 통하여 부르죠아사회의 모순과 죄악을 해부하고있다.

소설에서 자본주의사회의 부패한 현실은 프랑스부르죠아지의 전형이고 전제주의자이며 극단한 리기주의자이고 위선자인 띠보로인의 형상을 통하여 잘 나타나고있다. 소설은 특히 자기 계급에게 환멸을 느끼고 그로부터 떨어져 자본주의를 반대하는 길로 나가는 쟈끄와 앙뚜아느의 형상을 통하여 자본주의사회를 비판하고 있다.

작품은 띠보로인과 같이 주어진 환경의 노예로 살고있는 인간보다도 쟈끄와 앙뚜아느처럼 이러한 현실에 반항하여 여기서 벗어나려고 애쓰는 인간을 보여주는데 더 많은 관심을 돌리였으며 특히는 자본주의사회의 불합리성을 깨닫고 정의로운 사회에 대하여 공상하며 반전운동에 나서는 쟈끄의 성격을 두드러지게 그려내였다.

한 부르죠아가정의 붕괴과정을 통하여 20세기초엽 프랑스자본주의적현실을 폭넓게 비판한 다부작장편소설 《띠보일가의 사람들》은 현실반영의 폭과 구성의 정연성, 높은 예술적기교로 하여 20세기 20—30년대 프랑스비판적사실주의문학에서 대표적인 작품의 하나로 되였다.

뒤아멜

죠르쥬 뒤아멜(1884—1966)은 빠리의 로동자가정에서 태여나 대학에서 의학과 생물학을 공부하였고 의사로 일하면서 문학창작활동을 시작하였다.

그는 전후에 제1차 세계대전시기 군의로 종군하면서 전쟁의 참혹한 현실을 체험한데 기초하여 《수난자》(1917), 《문명》(1918) 등 반전주제의 소설을 창작하였는데 그것이 문단의 인정을 받았다.

그는 그후 《싸라방의 생애와 모험》(전 5권, 1920—1932), 다부작인 《빠스끼에일가의 기록》(전 10권, 1933—1945) 등의 장편소설들을 련이어 써내여 이름난 소설가로 되였다.

그의 대표작인 《빠스끼에일가의 기록》은 의학박사 빠스끼에가족의 생활과 20세기초 프랑스부르죠아사회의 진모를 주로 이 가족의 한사람인 롤랑의 시점에서 묘사한 작품이다.

롤랑의 형 죠쎄프의 관심은 돈벌이에 있고 누이동생 쎄실은 음악속에서 위안을 찾으며 슈잔느는 배우생활을 한다. 그런데 부자가 되여 사치한 생활을 하는 죠쎄프나 인기배우가 된 슈잔느나 할것없이 그들은 보다 참된 삶의 길을 찾지 못하고 자신을 불행한 인간이라고 느낀다. 그들가운데서 생물학연구소에서 일하는 롤랑만이 사회의 부정의를 반대하는 투쟁의 길에 나서며 신심에 넘쳐 자기의 앞길을 힘있게 개척해나간다.

소설은 각이한 길을 걷는 등장인물들의 생활을 통하여 당대 프랑스사회현실을 선명하게 그려내였으며 이 사회가 안고있는 모순을 해부하고 그로부터의 출로를 모색하였다.

소설은 작가의 개인주의적인생관에 기인한 일련의 제한성을 가지고있으나 사실주의와 리상주의를 결합하고 의사로서의 세밀한 관찰력으로 1920—1930년대 프랑스사회현실과 지식인들의 생활을 생동하게 그려낸것으로 하여 프랑스사실주의문학에서 확고한 자리를 차지하게 되였다. (제2차 세계대전시기 파쑈도이췰란드군의 강점하에서 뒤아멜의 작품들은 회수, 소각, 출판금지당하였다.)

3) 프랑스사회주의적사실주의 문학과 아라공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원래 사회주의적사실주의창작방법은 로동계급의 혁명투쟁의 요구를 반영하여 나온 혁명적이며 전투적인 창작방법이다.》

프랑스에서 사회주의적사실주의문학이 형성된것은 1920년대이다.

프랑스에서 로동계급의 혁명적당이 창건되고 공산당의 령도밑에 로동운동과 사회주의운동이 발전하였으며 유물변증법적세계관을 소유하고 사회주의적문학을 지향한 작가들이 출현한것은 사회주의적사실주의문학이 발생할수 있는 요인으로 되였다.

이러한 작가들에 의하여 1920년대에 형성된 프랑스의 사회주의적사실주의문학은 1950년대까지 발전하다가 그 이후시기에는 국제적으로 대두한 수정주의, 기회주의의 후과로 점차 약화되였다.

이 문학계에서 선구자적역할을 한것은 바르뷰스이며 그뒤를 이어 꾸뜌리에, 블로끄, 엘류아르, 아라공, 스띨을 비롯한 적지 않은 작가들이 프랑스사회주의적사실주의문학계에서 대표적인 작가로 활동하였다.

프랑스사회주의적사실주의문학에서 대표적인 작품으로는 프랑스공산당의 령도밑에 공산주의자들과 인민들이 벌린 투쟁을 형상한 장편소설 《공산주의자들》(아라공)과 《첫 타격》(스띨), 시집 《붉은 기차》(꾸뜌리에, 1923), 서정시 《당에 드리는 시인의 노래》(아라공), 반파쑈투쟁에 바쳐진 시집 《프랑스의 기상나팔》(아라공), 장편소설 《로즈 프랑스》(라피뜨, 1950), 피압박인민들의 민족해방투쟁에 대한 지지를 표명한 장편소설 《마지막탄알》(샤브롤, 1953) 등이 있다. 그중에는 조선인민의 정의로운 조국해방전쟁을 지지하고 미제를 폭로한 로제 바이양(1907—1965)의 희곡 《포스터스대좌의 뉘우침》(1952)과 같은 작품들도 있다.

아라공과 장편소설 《공산주의자들》

루이 아라공(1897—1982)은 빠리의 소부르죠아가정에서 태여나 대학에서 의학을 배웠으며 제1차 세계대전시기에 군의로 종군하였다.

전쟁시기 자본주의세계와 부르죠아문화에 대해 환멸을 느낀 아라공은 전후 다다이즘, 초현실주의 등 퇴폐적인 문학운동에 참가하여 무정부주의적인 반항을 고취함으로써 한때 초현실주의(슈르레알리즘)의 대표자로 공인되기까지 하였다. 시집《꽃불》(1920), 《영구운동》(1926), 장편소설 《아니쎄》(1921), 《빠리의 농부》(1926) 등이 이 시기에 나왔다.

그러나 1920년대말부터 그의 창작에서는 전환이 일어났다. 이 시기에 이르러 공산주의를 지향하게 된 그는 1927년에 프랑스공산당에 입당하였고 다음해 빠리에서 마야꼽스끼, 엘자 뜨리올레와 친교를 맺었다. 마야꼽스끼의 처제인 엘자 뜨리올레는 다음해에 그의 안해가 되였다. 그는 1930년 이전 쏘련의 하리꼬브에서 열린 제2차 국제혁명작가대회와 1934년 제1차 쏘베트작가대회에 참가하였으며 프랑스에서 새로운 사회주의적사실주의문학을 개척하는데 앞장섰다.

서사시 《붉은 전선》(1930), 시집 《우랄 만세》(1934), 평론집 《사회주의적사실주의를 위하여》(1935), 《사회주의적사실주의와 프랑스사실주의》(1938) 등에는 그의 이러한 립장이 뚜렷이 표명되였다.

이 시기 그의 창작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것은 그가 구상한 총서 《현실세계》에 속하는 장편소설들인 《발의 종》(1934),《호화주택거리》(1936), 《옥상좌석의 승객들》(1940), 《오렐리앙》(1944)이다. 이 소설들에서 그는 프랑스의 자본주의적현실과 그 세계에서 주인노릇하는 자본가들, 제국주의자들을 폭로하고 그자들을 반대하는 인민들의 투쟁을 폭넓게 묘사하려고 시도하였다.

그는 1936—1939년 에스빠냐민족혁명전쟁시기에 그 나라로 왕래하면서 에스빠냐인민의 투쟁을 지지하는 열화같은 시들을 창작하였다.

1939년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자 그는 징집령을 받고 군의로 종군하였으며 1940년 프랑스가 파쑈도이췰란드에 항복하자 지하에 들어가 저항문학의 중심인물로 활동하였다. 이 시기에 《가슴을 쥐여뜯는 노래》(1941), 《엘자의 눈동자》(1942), 《진품박물관》(1943), 《프랑스의 기상나팔》(1945)과 같은 그의 유명한 시집들이 발표되였다. 이 시들에서 시인은 가슴을 에이는 비통한 감정을 담아 강점당한 조국의 고통을 노래하는 한편 원쑤들에 대한 불타는 적개심을 토로하고 프랑스인민들을 강점자들을

반대하는 투쟁에로 열렬히 불러일으켰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1945년부터 1950년대 말까지 그는 프랑스공산당 중앙위원회 위원, 전국작가위원회 지도부 성원, 신문 《스스와르》와 《제뜨르 프랑쎄즈》 주필로서 적극적인 사회활동을 벌리면서도 창작을 중단하지 않았다. 그의 대표작인 장편소설 《공산주의자들》(1949—1951)이 이 시기에 창작되였다. 작가는 또한 《눈과 기억》(1954), 《미완성장편소설》(1956), 《엘자》(1959), 《시인들》(1960) 등의 서사시들과 장편력사소설 《수난의 한주일》(1958), 사회주의적사실주의에 대한 평론집 《나는 지도를 펼친다》(1959) 기타 많은 글들을 썼다. 그는 특히 《수난의 한주일》에서 1815년 엘바섬을 탈출한 나뽈레옹과 그 지지자들의 빠리진격, 당황망조한 프랑스국왕 루이 18세와 그 측근자들의 도주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한주일동안의 이야기를 통하여 력사발전에서 인민대중의 역할을 예술적으로 확인하고 예술은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여야 한다는것을 보여주었다.

그는 1960년대초부터 1982년 사망하기까지 시집 《자유는 엘자와 빠리에 속한다》(1964), 소설 《처결》(1965), 《백인종녀인 혹은 망각》 기타 몇편의 작품들을 썼으며 1970년에 안해 엘자가 사망한 후에는 거의 창작사업을 하지 않았다. 이 시기에 그는 사회주의에 대한 신념이 확고하지 못한데로부터 이전 쏘련과 동유럽사회주의나라들에서 대두한 수정주의의 영향을 받고 사상적으로 동요하였으며 창작에서 또다시 다다이즘과 초현실주의에 접근하는 오점을 남기였다.

그러나 그는 생애에 남겨놓은 방대한 창작유산으로 하여 프랑스공산당계 문화인들을 대표하는 원로격의 작가로, 20세기 프랑스사회주의적사실주의문학계에서 인정하는 대표자의 한사람으로 세계에 널리 알려져있다.

그의 대표작인 다부작장편소설 《공산주의자들》은 총서 《현실세계》에 속하는 소설의 하나로서 1949년부터 1951년까지 제1부 전 6권만이 창작되고 중단된 미완성작품이다.

소설은 제2차 세계대전 전야와 초기(1939. 2—1940. 6)프랑스의 복잡하고 준엄한 시기 반동지배층의 매국배족행위와 그를 반대하는 공산주의자들과 로동계급을 비롯한 애국적인민들의 반파쑈구국투쟁을 폭넓게 보여주면서 그 선두에서 투쟁을 승리에로 조직동원하는 프랑스공산당의 활동을 예술적으로 형상하고있다.

소설의 이야기줄거리가운데서 비교적 많은 자리를 차지하고있는것은 주요인물에 속하는 쎄씰 위스네르와 쟝 드 몽쎄이의 애정선이다. 자동차왕의 조카를 남편으로 둔 젊은 부르죠아녀성 쎄씰은 타락한 남편과 상류사회의 위선적인 생활에 환멸을 느끼고 평민출신의 순진한 의학대학학생 쟝을 사랑하게 된다. 소설에서는 이 두 젊은이의 애정관계가 여러가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깊어가는 과정과 사상의식의 변화과정, 특히는 그들이 점차 공산주의의 동정자로 되는 과정을 보여주고있다.

소설에서는 쎄씰과 쟝의 애정선과 함께 이 시기 수많은 공산당원들, 애국적인민들의 투쟁선이 중요한 이야기줄거리를 이루고있다. 소설은 빠리의 가두세포비서인 은행사무원 레베끄, 변호사의 서기인 꼬르비자르, 지하당중앙위원회 련락원인 듀쎌리에, 남편을 군대에 징집당한 뽈레뜨, 미슐리느, 미레이유 등 녀성당원들의 투쟁을 통하여 프랑스공산당의 활동을 생동하게 그려보이고있다.

또한 전시동원령에 의하여 징병된 공산당원들인 《유마니떼》 편집원 바르방따느, 공산당출신 국회의원 쎄브롱, 자동차공장 로동자 블랑샤르와 수도회사 용접공 발리에 등의 활동도 보여주고있다.

소설에서는 이런 긍정인물들의 형상에 반동지배층과 독점자본가들을 대표하는 부정인물들의 형상이 대치되고있다.

이처럼 소설은 당시 프랑스의 정치정세와 력사적환경을 년대기적으로 폭넓게 재현하면서 공산주의자들과 로동계급을 비롯한 프랑스인민들을 한편으로 하고 반동지배층과 부르죠아지를 다른 한편으로 하는 진보와 반동, 애국과 매국사이의 치렬한 투쟁과정을 생동하게 그려보이고있으며 그를 통하여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진정한 애국자가 누구이며 나라와 민족을 배반하는 매국노가 누구인가 하는것을 형상적으로 밝혀내고있다.

소설은 우선 공산당원들과 그 지지자, 동정자들의 집단적형상을 통하여 공산주의사상의 진리성을 예술적으로 확증하고 공산주의자들이야말로 진정한 애국자들이며 공산당의 령도따라 싸우는 길만이 조국을 구원하고 인민의 자유와 행복을 이룩하는 참다운 길이라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다른 한편 작품은 이들과 대립되여있는 반동정치가들, 부르죠아들의 형상을 통하여 당시 프랑스 반동지배층의 매국배족행위와 부르죠아계급의 반

동성과 부패성을 신랄히 폭로비판하고있다.

소설은 사건과 생활규모가 방대하고 수많은 인물들이 나오며 복잡하고 다양한 생활을 포괄하면서도 그것들을 기본문제를 해명하는데 비교적 잘 복종시키고있다.

또한 생활을 진실하고 생동하게 묘사한 장면들과 생활세부를 진지하게 탐구한 대목들도 적지 않다.

그러나 소설은 사건을 너무 벌려놓고 형상을 집중화하지 못한데로부터 내용의 철학적심도가 미약하고 주제사상을 직접 구현해나가는 기본인물이 뚜렷하지 않으며 일부 흥미본위주의적인 경향이 있는것과 같은 제한성도 나타내고있다.

장편소설 《공산주의자들》은 제2차 세계대전시기 프랑스에 조성되였던 복잡한 정치군사정세와 공산주의자들과 로동계급을 비롯한 프랑스인민들의 반파쑈구국투쟁을 폭넓은 서사시적화폭으로 생동하게 보여준 사상예술적성과로 하여 20세기 프랑스사회주의적사실주의문학에서 대표작의 하나로 되고있다.

프랑스사회주의적사실주의문학계에서 이름있는 작가들로는 아라공과 함께 바르뷔스, 엘류아르, 스띨이 있다.

바르뷔스

앙리 바르뷔스(1873—1935)는 빠리의 문학가집안에서 태여나 쏘르본종합대학 문학부를 졸업하고 신문기자로 일하면서 문단에 나섰다. 프랑스부르죠아문학에서 퇴페주의와 형식주의가 판을 치던 19세기 90년대중엽에 창작활동을 시작한 그는 처음 자기의 작품들에서 퇴페주의적이며 염세주의적인 경향을 강하게 나타냈다. 그러나 신문기자로 활동하는 과정에 현실속에 깊이 들어가게 되면서 작가는 점차 퇴페주의의 영향에서 벗어나 생활을 진실하게 반영하는 사실주의문학을 지향하게 되였다.

그의 세계관과 창작에서 전환을 가져오게 한것은 제1차 세계대전의 사변들이였다. 전쟁이 일어나자 41살의 앓는 몸으로 자원하여 전선에 나간 작가는 자신의 병사생활체험을 통하여 그 전쟁의 제국주의적성격을 똑똑히 깨닫게 되였다.

그는 자기가 깨달은 이 진리를 세상에 알리기 위하여 전호속에서 장편소설 《포화》(1916)를 쓰고 빠리의 신문지상에 발표하였다. 소설은 최전선에 나간 프랑스군 어느 한 분대병사들의 전선생활체험을 통하여 제국주의전쟁의 략탈적성격을 까밝히고 전쟁의 참화를 없애기 위해서는 바로 전쟁의 근원인 제국주의자들, 독점자본가들을 반대하여 총부리를 돌려야 한다는것을 설득력있게 보여주었다. 소설은 특히 인민출신병사들의 계급의식성장과정을 생동하게 그려내고있다.

그는 전후에 발표한 장편소설 《광명》(1919)에서도 주인공 씨몽 뽈랭의 운명을 통하여 무지한 인간에 지나지 않았던 한 평범한 프랑스사람이 전선생활을 체험하면서 계급적으로 각성되여 광명을 찾아 투쟁에 나서는 성장과정을 생동하게 형상하였다.

제1차 세계대전과 로씨야사회주의10월혁명에서 충격을 받고 점차 사회주의를 지향하게 된 그는 진보적작가들의 앞장에 서서 적극적인 반제투쟁을 벌렸으며 작가들의 국제적인 반제단체인 《끌라르떼》(1919)를 조직하고 아나똘 프랑스, 웰즈, 쯔바이그 등 저명한 작가들과 함께 당시 첫 사회주의국가인 청소한 쏘련을 지원해나섰다.

그는 1923년 프랑스공산당에 입당한 후 창작활동과 사회정치활동을 더욱 밀접히 결부시켜나갔다. 작가는 여러 국제회의들의 공동발기인이 되여 제국주의와 파시즘을 반대하는 국제적인 운동을 벌리면서 사회주의적사실주의문학을 지향해나섰다.

이 기간에 그는 지난날 착취받고 압박받던 인민대중이 자유와 행복을 위한 투쟁에 일떠서는 과정을 그려보인 장편소설 《련쇄》(1925), 발칸반도에서의 백색테로를 규탄한 작품집 《교형리들》(1926), 작가와 인민대중과의 련계를 강조한 평론집 《졸라》(1931)를 비롯한 많은 작품들을 창작하였다.

사회주의, 공산주의에 대한 지향과 반제, 반파쑈투쟁정신으로 충만된 바르뷔스는 프랑스사회주의적사실주의문학발전에서 선구자적역할을 하였다.

엘류아르

뽈 엘류아르(본명 : 외젠 그랭델 1895—1952)는 빠리부근 쌩드니의 가난한 재봉공가정에서 태여나 제1차 세계대전후 다다이즘을 거쳐 초현실주의류파창시자의 한사람으로 문단에 나섰다. 그는 이 시기에 《의무와 불안》, 《세계를 위한 시》 등의 시집을 발표하였다. 이러한 시들에는 사람들에게 절망과 비애를 가져다주는 퇴페적인 경향이 반영되였다.

그러나 그는 1930년대에 프랑스인민전선운동에 접근하면서 에스빠냐인민들의 반파쑈투쟁을 지지해나섰으며 서사시 《1936년 11월》, 《게르니까의 승리》 등을 통해 그에 대한 공감을 표

현하였다.

제2차 세계대전시기 지하저항운동에 참가하면서부터 그의 세계관과 창작에서는 결정적인 전환이 일어났다. 이 시기에 창작된 그의 시집 《펼쳐진 책》(1942), 《시와 진실》(1942)들에는 파쑈강점자들을 반대하는 투쟁에로의 열렬한 호소가 담겨져있다.

시 《용기를 내여라》에서 그는 강점당한 빠리의 비극적인 현실을 펼쳐보이면서 그속에서도 굴하지 않는 인민들의 강한 모습을 찬양하였고 그들이 파시즘을 격멸하기 위한 투쟁에 떨쳐나설것을 호소하였다.

형제들이여 용기를 내여라
우리 비록 철갑모는 쓰지 못했어도
장화와 장갑이 없고 훈련은 받지
 못했어도
우리의 피줄은 뛰고있나니
광명은 반드시 비끼리라

소박하고 감동적이며 인민들이 리해하기 쉬운 그의 시들은 저항시인으로서 그의 이름을 널리 알려지게 하였다. 이 투쟁과정에 시인은 1942년 프랑스공산당에 입당하였다.

전후시기에 그는 사회주의적사실주의시인으로서 반제평화옹호를 주제로 한 《정치시》, 《도덕의 교훈》, 《헌시》, 《모든 사람들을 위한 시》 등의 시집들과 서사시 《평화의 형상》을 내놓았다.

그의 시는 지금도 널리 애송되고있다. 초현실주의시인으로부터 저항문학을 거쳐 사회주의적사실주의시인으로 자라난 그는 20세기 프랑스의 대표적인 진보적시인의 한사람으로 알려져있다.

스띨

앙드레 스띨(1921—)은 광부의 집안에서 태여나 릴종합대학을 졸업하고 제2차 세계대전시기에는 지하저항운동에 참가하였다. 그는 1942년에 프랑스공산당에 입당하였고 1945—1949년에는 당일군, 기자로, 1950—1959년에는 당기관지 《유마니떼》 주필로 사업하였으며 1950—1969년에는 프랑스공산당중앙위원회 후보위원, 위원으로 있었다.

그는 제2차 세계대전후에 창작활동을 시작하였다. 그는 주로 로동계급의 생활과 투쟁을 그린 단편소설집 《탄부라는 말》(1949), 장편소설들인 《〈쎄나〉호는 바다로 나갔다》(1950), 《첫 타격》(3부작), 《붕락》(1960), 《잘못 고른 꽃》(1973)을 비롯한 많은 작품들을 내놓아 프랑스사회주의적사실주의문학의 발전에 이바지하였다.

그의 대표작인 장편소설 《첫 타격》은 제1부 《저수탕크밑에서》(1951), 제2부 《대포의 짐부리기》(1952), 제3부 《빠리는 우리와 함께》(1953)로 구성되여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지 5년밖에 안되던 1950년대초 프랑스의 력사적현실을 배경으로 한 이 작품은 대서양연안의 어느 한 항구도시 로동자들의 생활과 투쟁을 통하여 그들의 반제반미투쟁을 힘있게 보여주었다.

앙리 루로아를 비롯한 공산당원들은 미군군사기지에서 일하는 로동자들속에 들어가 그들이 미국놈들을 위하여 일하지 말도록 선동사업을 하는 한편 기지확장음모를 파탄시키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나간다. 그들은 이 투쟁에 기지확장으로 피해를 입게 된 각계각층의 군중들을 묶어세운다.

미군수송선의 무기와 군수품부리기를 저지시키기 위한 투쟁은 더욱 치렬하게 벌어진다. 당조직의 지도밑에 항만로동자들뿐아니라 온 도시의 로동자들과 시민들이 항의투쟁에 떨쳐나선다. 큰 규모의 시위가 벌어지며 시위자들은 항으로 뚫고 들어가 경찰대와 충돌한다. 이 드높은 군중의 기세에 눌린 미군수송선은 끝내 짐을 절반밖에 부리지 못한채 항구를 떠나고만다.

이처럼 항구도시의 로동계급들은 이 투쟁에서 미제에게 강력한 첫 타격을 안긴다.

소설에는 앙리 루로아를 비롯한 수많은 항만로동자들과 앙리의 안해 뽈레뜨를 비롯한 많은 가족들이 등장하고있지만 로동자들의 일상생활과 그들의 사상감정이 가식없이 진실하고 생동하게 묘사되여있다. 이를 통하여 소설은 제2차 세계대전후 프랑스로동계급의 새로운 면모를 실감있게 그려보이고있다. 특히 소설은 공산당비서 앙리 루로아의 형상을 통하여 로동계급의 투쟁을 승리에로 이끄는 공산당의 령도적역할을 잘 보여주고있다.

소설은 또한 아직 유럽자본주의나라 사람들속에서 미국에 대한 환상이 많았던 1950년대초 미제의 침략과 전쟁정책에 경각성을 높이며 이르는 곳마다에서 반미투쟁을 벌릴데 대한 사상을 생동한 화폭으로 강조하고있다.

장편소설 《첫 타격》은 로동계급의 생활과 투쟁, 특히 반미투쟁을 그리는데서 거둔 성과로 하여 전후 서유럽자본주의나라들의 사회주의적사실주의문학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있다.

6. 영 국 문 학

1) 부르죠아문학의 영향으로 더욱더 반동화, 퇴페화된 영국문학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오늘 자본주의세계의 모순은 더욱 격화되고있으며 제국주의는 정치경제적으로 심각한 위기에 처하여있습니다.》

20세기에 영국은 정치경제적으로 심각한 위기에 처하였으며 더욱 반동화되였다.

한때 세계최강의 자본주의렬강으로 뽐내던 영국은 두차례의 세계대전에서 심히 약화되여 제2차 세계대전후에는 정치경제적으로 미제의 예속밑에 들어가게 되였다.

지난날 세계에서 첫자리를 차지했던 영국경제는 제2차 세계대전후 심한 불안정상태에서 침체와 답보, 후퇴를 계속하였으며 영국의 식민지였던 수많은 나라들이 민족적독립을 이룩하고 자주적발전의 길에 들어섬으로써 대영제국은 력사의 퇴물로 되고말았다.

영국의 자본가계급은 날로 위태롭게 되여가는 저들의 특권적지위를 유지하기 위하여 대중을 회유기만하고 매수하기 위해 교활하게 책동하였을뿐아니라 반동적통치기구를 파쑈화하고 침략과 전쟁정책을 더욱 강화하였다.

그리하여 영국에서는 자본주의사회의 기본특징인 정치생활에서의 반동화, 정신문화생활에서의 빈궁화, 물질생활에서의 기형화가 집중적으로 드러났다.

다른 한편 영국에서도 자주적으로 살려는 인민대중의 지향과 요구가 높아지는가운데 로동운동과 공산주의운동이 장성하고 영국에 예속된 북아일랜드를 비롯하여 식민지예속국가인민들의 민족해방투쟁이 앙양되였다.

영국의 로동운동은 로동귀족들의 해독행위와 개량주의의 영향으로 하여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점차적으로 장성하였으며 대규모적파업을 통하여 영제국주의자들에게 심대한 타격을 주었다.

1920년 영국공산당창건후 공산주의운동도 전진하였다. 반제, 반미, 반전, 평화옹호운동도 날이 갈수록 강화되였다.

이러한 시대를 배경으로 하여 20세기 영국의 진보적문학은 19세기의 전통을 이어받아 자기 발전의 길을 개척해나갔다.

20세기 영국문학에서 특징의 하나는 19세기말에 발생했던 프로레타리아문학이 더욱 발전하여 사회주의적사실주의문학이 발생한것이다.

19세기말—20세기초에 일시 약화되였던 영국의 프로레타리아문학은 로동운동이 장성하고 공산주의운동이 일어난 객관적현실에 토대하여 제1차 세계대전 이후에 다시 활기를 띠기 시작하였으며 숀 오케이씨, 기본, 디아미드를 비롯한 프로레타리아작가들이 적극 활동하였다. 오케이씨의 희곡 《별은 붉게 물든다》, 기본의 3부작장편소설 《스코틀랜드에 대한 책》은 이 시기의 대표적인 작품들이다.

프로레타리아문학의 발전과정에 1930년대에 이르러 일부 작가들의 작품들에서 사회주의적사실주의의 요소가 나타나기 시작하였으며 제2차 세계대전후에는 창작실천으로 구현되게 되였다. 《아일랜드여, 잘 있으라》(1949)를 비롯한 오케이씨의 장편소설들, 《배반당한 봄》(1953)을 비롯한 린제이의 장편소설들을 그 례로 들수 있다.

그러나 영국의 사회주의적사실주의문학은 통치배들의 반동적공세가 강화되고 다른 나라에 비해 로동운동과 공산주의운동이 미약했으며 부르죠아반동문학이 성행했던 현실정에서 적극화되지 못하였다.

제2차 세계대전후 영국의 진보적문학은 사회주의적사실주의를 구현하는데까지는 이르지 못하였으나 일부 작가들에 의해 프로레타리아문학의 전통이 계승되고 로동계급과 근로인민의 리익을 옹호한 작품들이 창작되였다. 씰리토우(1928—?), 도어티(1930—), 스토리(1933—?), 브래그

(1939—?) 등이 그러한 작가들이다. 그들에 의해 로동자들의 비참한 생활처지와 세태풍속을 반영한 장편소설 《토요일 저녁과 일요일 아침》(씰리토우, 1958), 장편소설 《광부의 아들들》(도어티, 1955), 장편소설 《고용자》(브래그, 1969) 등이 창작되였다.

20세기 영국의 진보적문학에서 주류를 이룬것은 비판적사실주의문학이다.

20세기 전반기에 영국의 비판적사실주의문학은 19세기말부터 진출한 보이니치, 쇼, 골즈워디, 웰즈 등 오랜 작가들의 활동에 의하여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두었다. 장편소설 《등에》(보이니치)와 《재산가》(골즈워디), 쇼와 골즈워디의 극작품들, 웰즈의 과학환상소설들은 유럽에 널리 알려졌다.

신진작가들인 올딩톤, 올드릿지, 맨스필드 크로닌, 몸 등도 이 시기에 알려지게 되였다.

제2차 세계대전후 영국의 비판적사실주의작가들속에서는 일정한 변화가 일어났다.

그가운데서 장편소설들인 《외교관》(1949)을 쓴 올드릿지, 《말없는 미국인》(1955)을 쓴 그린, 《화산》(1957)을 쓴 루이스는 인민대중의 반제, 반미, 반식민주의투쟁을 반영하고 그것을 지지, 동정하는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였다.

한편 프리스틀리, 스노우, 버네트와 같은 작가들은 종전의 비판적사실주의문학의 제한성에서 벗어나지 못하였으며 크로닌과 같은 작가는 더 후퇴하는 결과를 빚어냈다.

1960년대 이후에는 장편소설 《파리대왕》(1954)을 쓴 윌리엄 골딩(1911—1993), 5부작 장편소설 《아르고스섬의 카노푸스》(1979—1983)를 쓴 녀류작가 도리스 레씽(1919—?), 트리니대드 토바고출신의 브이 에스 나이폴(1932—?) 등의 소설가들과 함께 1970년대에 등장하여 20세기 후반기의 가장 영향력있는 시인으로 된 아일랜드의 시인 씨머스 히니(1939—?) 등이 널리 알려졌다.

20세기 영국문학에서 특징의 다른 하나는 제국주의의 사상과 위기를 반영하여 부르죠아문학사조, 류파들이 더욱 성행하고 문학이 반동화, 퇴페화된것이다. 특히 형형색색의 모더니즘류파들이 판을 쳤다.

문학분야에서 형식주의의 최첨단이라고 할수 있는 모더니즘은 오가잡탕의 류파를 이루고 사람이 리해할수 없는 주관의 세계를 추상적형식에 담아 제멋대로 그려냄으로써 문학의 사상적내용을 흐리게 하고 인식교양적기능을 마비시켰다.

부르죠아문학이 주지주의의 대표자 티. 에스. 엘리오트(1888—1965)를 대가로 떠받들면서 《황무지》(1922)를 비롯하여 무의미하고 까다로운 말마디의 유희에 지나지 않는 그의 시 아닌 시를 시의 극치로 내세웠지만 사실 그것은 형식을 위한 형식, 기교를 위한 기교에 지나지 않았다. 엘리오트의 창작에서 반동성은 제국주의자들의 앞잡이인 선교사가 되여 아프리카에 가서 죽은 한 녀자의 운명을 극도의 종교적신비주의와 형식주의적인 무대효과로 그려보인것이다. 그것은 인간생활의 허무와 죽음앞에서의 공포, 염세주의를 설교한 시극 《코크테일야회》(1949)에서 뚜렷이 표현되였다. 엘리오트의 모더니즘시는 자본주의나라들의 부르죠아시문학에서 한때 판을 쳤으며 그 영향은 남조선의 퇴페주의시문학에 커다란 해독적영향을 미쳤다.

20세기 영국부르죠아문단이 떠든 작가들속에는 아일랜드출신의 소설가 죠이스(1882—1941)도 있다. 제임스 죠이스가 부르죠아문단에서 이름을 날리게 된것은 장편소설 《율리씨즈》(1922)를 발표한 때부터였다. 《율리씨즈》라는 제목은 고대그리스서사시 《오듀쎄이아》(율리씨즈는 《오듀쎄이아》의 주인공 오듀쎄우스를 영어로 부른것이다.)를 본딴것인데 작가는 자기 작품을 현대판 《오듀쎄이아》로 간주하였던것이다. 전 3부로 구성된 소설은 더불린에 사는 두 소시민의 단 하루동안의 생활을 그리면서 그들의 의식의 흐름을 장황하게 늘어놓았다.

소설에는 우연적인 기억이나 순간적인 인상을 그대로 기록하고 퇴페적인 병적심리를 잠꼬대와 같은 말마디로 늘어놓으면서 그것을 그 어떤 현실의 재현인것처럼 떠벌이는 의식의 흐름소설의 특징이 가장 뚜렷이 표현되였다. 소설은 발표되자마자 유럽자본주의나라들의 부르죠아작가, 독자들속에 널리 퍼졌으며 이를 계기로 의식의 흐름소설이 류행되게 되였다.

버지니아 울프(1882—1941)도 영국부르죠아문단에서 잘 알려져있는 녀류작가이다. 그는 《등대에로》(1927)를 비롯한 장편소설들에서 등장인물들의 심리를 분석하여 구체적으로 그린다는 구실밑에 현실적인간의 고상하고 진실한 심리가 아니라 병적이며 기형적인 심리를 인위적으로 과장확대하여 그림으로써 부르죠아심리소설을 류포시키는데 작용하였다.

20세기 영국부르죠아문학에서 제일 이름을 날

린것은 로런스 (1885－1930) 이다. 그는 1912년에 자기를 배워준 대학교원의 안해이며 6살이나 년장자인 유부녀와 도주하여 유럽대륙에서 방랑생활을 하면서 소설을 썼다. 그의 소설들은 프로이드주의의 강한 영향밑에 자주적존재인 인간을 동물과 같이 보면서 인간의 동물적인 본능을 묘사하는데 치중하고 색정주의를 고취하였다. 그는 대표작인 장편소설 《챠털레이부인의 련인》(1928)에서 제1차 세계대전때 전선에서 부상을 입어 반신불수가 된 남편을 둔 부르죠아녀성이 산림지기와 치정관계를 맺고 관능적인 사랑의 세계에 빠져 생의 희열을 느끼는 과정을 자연주의적으로 묘사하였다. 이 소설은 너무나 로골적인 성관계묘사로 하여 진보적사회층의 항의를 불러일으켰으며 재판에까지 제기되였다.

그밖에도 이 시기에 농장의 집짐승들이 인간의 압제를 반대하여 혁명을 일으켰으나 그후 그것들속에서도 독재자가 나왔다는 우화적인 이야기로 사회주의혁명과 사회주의제도를 헐뜯은 장편소설 《동물농장》(1945)을 쓴 죠지 오웰(1903－1950), 보수적이며 반동적인 립장에서 파시즘과 인종주의, 계급적편견과 카톨릭교리를 비호하면서 모더니즘으로 나간 이블린 워(1903－1966) 등이 활동하였다.

제2차 세계대전후 1950년대에 성난 젊은이파로 불리운 신인작가들이 등장하여 현실에 대한 반항을 표시하였지만 그것 역시 퇴폐주의문학류파에 불과하였다.

1960년대이후 영국의 부르죠아시인들로서는 엘리오트의 뒤를 이어 전후 최고의 시인으로 떠올랐다는 오든(1907－1973), 그레이브스(1895－1985), 20세기 중반기의 가장 주목할만한 영국시인중 한사람으로 내세워진 필리프 라킨(1922－1985) 을 비롯하여 다음세대인 테드 휴즈(1930－?) 등이 알려져있으나 그들은 모두 모더니즘계렬에 속한 문인들이였다.

극문학계에서는 희곡 《성난 얼굴로 돌아보라》(1957)를 쓴 죤 오스번(1929－?)과 그를 따른 극작가들이 성난 젊은이파로 불리우면서 현실에 대한 반항을 표시하였지만 그것 역시 퇴폐주의문학류파에 불과하였다.

영국의 부르죠아극문학계에서는 이와 함께 사실주의극문학의 전통을 완전히 거세하고 극단적인 형식주의로 나간 반연극이 한때 류행되였다.

아일랜드극작가 쎄뮤얼 베케트(1906－1989)가 희곡 《고도를 기다리며》(1954)에서 몇마디 안되는 대사, 장식없는 무대, 나무 한그루, 조명만으로 이루어진 극 아닌 극을 들고나왔으며 헤럴드 핀터(1930－?)는 《생일파티》(1958), 《관리인》(1960), 《귀향》(1965) 등에서 베케트의 수법을 그대로 이어받았다.

작품들에 대해 부르죠아평론계는 그 무슨 전이극이요, 연극혁명이요 하고 요란하게 떠들었다. 그러나 반연극은 그 내용과 형식이 극도로 퇴폐화된 매우 반동적이며 반사실주의적인 형식주의극문학류파에 불과하였다.

이와 같이 20세기 영국의 부르죠아문학은 더욱더 반동화, 퇴폐화되였으며 자본주의의 변호자, 제국주의자들의 반동사상을 류포시키는 선전수단으로서 진보적문학발전에 해독적인 작용을 하였다.

2) 영국비판적사실주의문학과 보이니치, 쇼

20세기 영국의 비판적사실주의문학에서는 시대의 요구를 반영하여 일정한 변화가 일어났다.

그것은 제1차 세계대전과 제2차 세계대전을 계기로 국제무대에서 사회주의가 승리적으로 전진하고 제국주의가 심각한 위기에 처한 시대의 변화에 따라 비판적사실주의문학이 두가지 류형으로 갈라지기 시작한것이다. 그 하나는 피압박인민들의 민족해방투쟁을 지지하고 사회주의를 지향하거나 그에 접근해가는 현상이였으며 다른 하나는 자기 시대를 다 산 자본주의에 대한 환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 테두리안에서 맴돌아치는 현상이였다. 첫째 경우에는 자본주의사회현실에 대한 비판이 더욱 심화되고 민족해방투쟁에 대한 지지와 사회주의에 대한 지향이 강화되여갔다면 둘째 경우에는 비판적사실주의의 본래의 자세로부터 좀 물러나 그 비판성이 약화되고 그에 대한 부르죠아문학사조, 류파들의 영향이 강화된것이다.

20세기 영국비판적사실주의문학에서 첫째 경우를 대표하는것은 보이니치, 쇼, 올드릿지를 비롯한 작가들이며 둘째 경우를 대표하는것은 골즈워디, 웰즈, 몸(1874－1965), 크로닌(1896－1981), 그린(1904－1991)을 비롯한 작가들이다.

20세기 영국비판적사실주의계렬의 작가들가운데서 문학사적으로 가장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

것은 녀류작가 보이니치와 극작가 쇼이다.

보이니치와 장편소설 《등에》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보이니치의 장편소설 〈등에〉도 잘 알려진 작품입니다.》

장편소설 《등에》를 쓴 영국의 녀류작가 에텔 릴리언 보이니치(1864—1960)는 아일랜드 남부의 도시 코크에서 수학자의 딸로 태여나 베를린고등음악학교를 졸업하였다. 그는 1887년부터 1889년까지 로씨야에 체류하고나서 런던에서 로씨야망명가들의 잡지편집사업을 협조하였으며 맑스와 쁠레하노브를 알게 되였다. 그는 1892년에 뽈스까망명가 보이니치 껠리쳅스끼와 결혼하였다. 껠리쳅스끼는 뽈스까에서 민족해방운동에 참가한탓으로 짜리로씨야당국에 체포되여 씨비리로 류배갔다가 탈출하여 영국으로 망명한 사람이였다. 보이니치는 1920년에 미국 뉴욕에 이주하였으며 그곳에서 사망하였다.

그의 창작활동은 1890년대초에 로씨야문학작품을 번역하는 사업으로부터 시작되였다.

이 경험에 기초하여 그는 첫 작품으로 장편소설 《등에》를 창작하였다. 그러나 소설에 내포된 강한 사상성으로 하여 내주겠다는 출판사가 없어 발표하지 못하고있다가 2년이 지난 1897년에 가서야 런던에서 출판되였다.

작품은 나오자마자 여러 나라들에서 번역출판되여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지게 되였다.

그는 그후 《재크 레이몬드》(1901), 《올리비아 라탐》(1904), 《끊어진 우정》(1910)을 비롯한 여러편의 장편소설들을 창작하였다. 이 소설들은 《등에》에 비하여 그 사상예술성이 떨어지지만 민족적억압을 반대하여 싸우는 애국자들의 투쟁을 형상한 점에서 특징적이다.

그의 소설들은 주인공들의 사상과 지향을 뚜렷한 계급적바탕우에서 밝히지 못하고 일부 홍미본위적인 요소를 드러낸것과 같은 제한성을 가지고있으나 그것이 담고있는 긍정적내용으로 하여 영국의 진보적문학에서 이채를 띠였다.

부르죠아문학계는 자기들의 문학사나 문학사전들에 보이니치의 이름을 올리지 않았으며 그와 소설 《등에》를 말살해보려고 발악하였다. 그러나 장편소설 《등에》와 더불어 보이니치의 이름은 진보적인류의 기억속에 깊이 남아있다.

장편소설 《등에》는 19세기 30—40년대를 배경으로 오스트리아강점자들의 민족적억압을 반대하고 나라의 자유와 독립을 위하여 싸운 이딸리아애국자들의 투쟁이야기를 담고있다.

정의감이 강한 18살난 대학생 아서 버튼은 비밀결사조직인 청년이딸리아에 가담하여 오스트리아의 민족적억압을 반대하는 투쟁의 길에 나선다. 그러나 자기가 존경하고있던 몬따넬리신부의 영향으로 종교적환상에 사로잡혀있던 그는 교회의 참회시간에 조직의 비밀을 루설하여 본의아니게 동지를 팔아넘기게 된다. 이로 하여 그는 변절자의 락인을 받고 사랑하는 젬마한테서 뺨을 얻어맞는다.

후에 그는 밀고자가 교회신부라는것과 자기가 존경하던 몬따넬리가 실은 자기 어머니와 불의의 애정관계를 맺았던 친아버지라는것을 알게 된다.

그 과정에 종교교리의 허위성과 신부들의 반동적행위에 대하여 깨닫게 된 아서는 예수의 십자가를 까부신 다음 자살한듯이 가장하고 정처없이 외국으로 떠나가고만다.

그로부터 13년후 이딸리아에 다시 나타난 주인공은 《등에》라는 필명으로 맹렬한 문필활동을 벌려 법왕참의원이 된 몬따넬리주교를 비롯한 교회당국자들과 압제자들을 신랄히 폭로하며 직접 무장을 잡고 싸운다. 그는 베니스(베네찌아)에서 준비되고있던 오스트리아강점자들을 반대하는 무장폭동을 성사시키기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무기수송사업을 맡아나서며 청년이딸리아 비밀공작원인 젬마의 도움밑에 법왕령으로 무기와 군수품들을 들여보내는 사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한다.

이 과정에 등에는 체포되지만 헌병들의 야만적인 고문과 온갖 위협공갈에도 굴하지 않고 자기의 지조를 지켜낼뿐아니라 종교의 권위자인 몬따넬리와 대결하여 싸운다. 몬따넬리는 그가 친아들이라는것을 알고 하느님과 아들을 위한 두 길에서 고민하던 끝에 끝내 자기 아들의 사형을 허락하고만다. 주인공은 죽는 마지막순간까지 적들을 공포에 떨게 하고 사형장을 적들에 대한 심판장으로 만들어놓는다.

그가 사형된 후 몬따넬리는 그만 미치여 죽고만다. 며칠후 젬마는 어느 한 병사가 가지고온 등에의 편지를 받아본다. 사형 전날밤에 쓴 이 편지에서 등에는 이딸리아의 아름다운 미래에 대한 자기의 신념을 힘있게 토로하고 동지들에게

전투적인사를 보내였다.

소설은 주인공의 애국적인 리상과 지향을 정의롭고 진보적이며 아름다운것으로 긍정하면서 민족적억압과 불평등, 종교적위선을 반대하여 싸우는 주인공의 모습을 진실하고 감동적으로 교훈이 되게 잘 형상하였다.

특히 열렬하고 견결한 민족해방운동자인 주인공의 성격을 형상하면서 한번 먹은 마음 변치 않는 그의 강한 신념을 두드러지게 강조하였다.

소설에서는 아들이 사형당한 뒤에 고민하다가 죽은 카톨릭교신부 몬따넬리의 위선적행동도 폭로하고있다.

소설의 제한성은 주인공의 성격을 뚜렷한 계급적바탕에서 그리지 못하고 인민대중을 위하여 싸우는 혁명가의 높이에서 형상하지 못한것이다. 이것은 로동계급의 사상으로 무장하지 못했던 작가의 세계관적제한성의 결과였다.

그러나 장편소설 《등에》는 지금도 근로인민대중을 민족적억압을 반대하는 투쟁에로 불러 일으키는데서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있으며 영국과 유럽의 비판적사실주의문학에서 특출한 자리를 차지하고있다.

쇼와 극문학

죠지 버너드 쇼(1856—1950)는 아일랜드의 수도 더블린의 하급관리가정에서 태여나 생활이 넉넉치 못한탓으로 14살이 잡힌 소년시절부터 학교를 그만두고 일을 시작하였다.

그는 서기, 출납원을 비롯한 여러가지 직업에 종사하면서 자본주의사회에서의 빈부의 차이와 사회적불평등을 직접 체험하였으며 그 과정에 모순에 찬 당대 현실에 대한 불만을 품게 되였다.

이러한 사상적변화속에서 20살때인 1876년 런던에 이주한 그는 당시 영국에서 보급되고 있던 맑스주의에 공감하여 사회주의운동에 참가하였다.

그러나 그는 사회주의를 지향하면서도 옳은 길을 찾지 못하고 개량주의단체인 페이비안협회에 들어가 그 영향을 받았다. 이것은 그의 세계관과 창작에 부정적영향을 미쳤다.

그의 극창작활동이 시작된것은 이 시기부터였다. 그는 약 10년동안의 습작과정을 거쳐 80년대말부터 극작활동을 시작하였으며 90년대말에 가서는 영국의 극문학계에서 확고한 자리를 차지하였다.

작가는 약 60년간의 창작활동을 통하여 《빈민굴》(1885), 《홀애비의 집》(1892), 《워렌부인의 직업》(1893), 《전쟁과 인간》(1898), 《인간과 초인간》(1903), 《심장이 터지는 집》(1919), 《성 잔》(1923), 《사과달구지》(1929)를 비롯한 수많은 극작품들을 창작하였다.

그의 희곡들에서 특징적인것은 자본주의사회의 모순과 부르죠아지의 위선에 대한 폭로적기백이 매우 강한것이며 이것을 역설법 등 신랄한 풍자의 수법으로 형상한것이다. 그가 극창작활동을 벌리던 시기 영국의 극문학계는 침체상태에 있었으며 극장들에서는 부르죠아관중들의 저속한 취미에나 맞는 퇴폐적인 통속극과 희극들이 류행되고있었다. 이러한 시기에 쇼의 희곡들은 모순에 찬 현실을 직접적으로 폭로하고 첨예한 사회적문제를 대담하게 들고나옴으로써 파문을 일으켰다.

더러운 수단으로 돈벌이를 하고있는것을 숨겨온 어머니와 그 비밀을 알게 된 딸사이의 갈등을 통하여 영국부르죠아가정의 위선과 추악성을 폭로한 《워렌부인의 직업》, 현실적인것과 환상적인것을 결합시킨 독특한 극적형상을 통하여 자본주의의 위기와 부르죠아인테리들의 무능력을 폭로한 《심장이 터지는 집》, 《정치광상극》형식으로 영국국가체제의 기만성을 폭로풍자한 《사과달구지》등은 그 대표적인 희곡들이다.

반면에 그의 극작품들은 그것들이 폭로비판한 자본주의적현실에 대치할 뚜렷한 긍정적형상을 창조하지 못하고 자본의 억압과 착취를 반대하여 투쟁할데 대한 혁명적인 사상을 보여주지 못하였으며 흥미본위주의로 나간것과 같은 제한성을 가지고있다. 여기에는 사회주의자로 자처하면서도 기회주의적인 페이비안협회의 영향을 강하게 받았던 작가의 세계관에서의 제한성이 반영되였다.

그러나 쇼의 극작품들은 절박한 사회적문제성을 제기하고 극작술에서 일련의 혁신을 가져옴으로써 영국의 비판적사실주의극문학발전에 이바지하였다.

20세기 영국의 비판적사실주의문학계에서 널리 알려져있는 작가로는 보이니치, 쇼와 함께 소설가이며 극작가인 골즈워디, 과학환상소설가로 이름이 난 웰즈, 민족해방투쟁을 지지해나선 소설가 올드릿지도 있다.

골즈워디 죤 골즈워디(1867—1933)는 부유한 변호사의 집안에서 태여나 옥스퍼드종합대학을 졸업하고 변호사의 자격을 얻었으나 방향전환을 하여 직업적인 작가가 되였다.

그는 20세기초에 자본주의사회에서의 빈부의 차이와 계급적불평등을 비판한 《은담배곽》(1906), 《공정한 재판》(1910)과 같은 희곡들을 내놓아 영국극문학계에서 비판적사실주의극작가로 알려지게 되였다.

그의 대표작은 포싸이트일가에 대한 이야기를 묶은 다부작장편소설이다. 그는 1906년에 장편소설 《재산가》를 발표하여 유명해지자 그 속편들인 《궁지에 빠져》(1920), 《세놓을 집》(1921)을 써내고 그것들을 《포싸이트일가에 대한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묶었다. 작가는 계속하여 《흰 원숭이》(1924), 《은숟가락》(1926), 《백조의 노래》(1928)로 구성된 3부작장편소설 《현대의 희극》을 썼으며 두 3부작을 하나로 련결시켜 《포싸이트년대기》라고 이름지었다.

《포싸이트년대기》는 발전된 자본주의나라로 등장한 19세기 후반기로부터 점차 몰락하는 길에 들어서는 20세기 20년대까지의 영국현실을 시대적배경으로 하여 큰 자본가인 포싸이트일가사람들의 생활사를 보여주고있다. 이를 통하여 소설은 객관적으로 자본가계급의 쇠퇴와 몰락과정을 반영하고있다.

첫 3부작에서는 포싸이트형제중 둘째인 젬스의 아들 쏨스를 중심으로 포싸이트일가친척들의 생활에 대하여 이야기하고있다. 여기서는 큰 재산가로서 자기 위치의 견고성을 확신하며 돈만 있으면 못해낼 일이 없다고 생각했던 쏨스가 돈으로도 진정한 사랑만은 살수 없다는것을 느끼는 장면과 견고해보이던 일가의 생활토대가 점차 흔들리게 되는 과정을 그리고있다. 다음 3부작에서는 1920년대의 현실을 반영하면서 쏨스의 딸 플러를 중심으로 젊은 세대인 부르죠아지의 타락한 생활을 보여주고있다.

작품의 긍정면은 제국주의단계로 넘어간 시기 영국자본가계급을 비판한것이다.

작품은 무엇보다도 돈밖에 모르고 개인의 안일과 향락만을 추구하며 개인리기주의가 극도에 이른 포싸이트일가친척들의 생활내막을 까밝히고있다. 그들은 황금만능의 자본주의사상에 물젖어 돈문제에서는 일가친척사이에도 양보가 없으며 자기 손에 틀어쥔 자본—재산을 놓치지 않고 더 늘구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이와 함께 작품은 고상한 례의도덕의 외피속에 감추어진 영국부르죠아지들의 위선과 잔인성에 대해서도 밝혀내고있다.

그러면서 작품은 이 일가의 생활에 대한 묘사를 통하여 견고한듯이 보이는 자본가계급의 발판이 실제로는 뒤흔들리고있으며 그들이 쇠퇴몰락하고있다는것을 보여주었다. 작품은 선행비판적사실주의문학의 경험을 이어 소설창작수법에서 일정한 재치를 보여주었다.

골즈워디는 영국비판적사실주의작가들가운데서 보수적립장이 강한 작가로 알려져있으며 그의 작품들은 매우 모순적이며 심각한 제한성을 가지고있으나 그것이 이룩한 성과로 하여 20세기 영국문학에서 확고한 자리를 차지하고있다.

웰즈 하버트 죠지 웰즈(1866—1946)는 켄트주에서 체육선수의 아들로 태여나 초등교육을 받은 후 상점, 약국 등에서 도제로 일하였다. 그는 독학으로 교원자격을 얻어 초등학교 교원으로 있다가 런던에서 리과대학을 졸업하고 런던종합대학 연구사로 되였다.

그는 1920년과 1934년에 이전 쏘련을 두번 방문하였는데 첫 방문때에 레닌의 접견을 받았다.

1903—1908년에 그는 페이비안협회에 가입하여 개량주의자들에게 추종한 일도 있었지만 1920년대 후반기부터 파시즘을 반대하고 새 전쟁의 위험을 막기 위한 반파쑈평화옹호운동에 참가하였으며 런던에서 사망하였다.

그의 창작활동은 1893년부터 시작되였다. 그는 초기에 과학환상소설창작으로 유명해졌다. 그는 19세기말—20세기초에 여러편의 과학환상소설을 련이어 써냈다. 그가운데는 《시간의 기계》(1895), 《보이지 않는 인간》(1897), 《우주전쟁》(1898), 《자는 사람이 깨여날 때》(1899), 《달나라에 간 첫 사람》(1901), 《토노 방게이》(1909)와 같이 널리 알려진 작품들도 있다.

《시간의 기계》는 한 려행가가 특별히 설계된 기구의 도움으로 80만년후의 세계에로 려행한것을 그린 환상소설이며 《자는 사람이 깨여날 때》는 200년동안 잠을 자던 사람이 깨여난 후에 일어난 사건을 그린 환상소설이다.

이 과학환상소설들은 자본주의사회에서의 로자간대립투쟁의 첨예성과 제국주의시기 부르죠아

문명의 위기를 반영함으로써 일정하게 사회비판적지향을 보여주었다. 또한 현실관찰에 기초한 기발한 착상과 형식, 현실과 유리되지 않은 대담한 환상, 해박한 자연과학지식 등으로 하여 과학환상소설의 발전에 영향을 주었다. 반면에 이 작품들은 자본주의사회의 모순을 해결하기 위한 방도를 과학기술만능주의에서 찾고 인류의 미래를 비관시하는 제한성을 드러냈다.

그는 그밖에 장편소설 《기대속에서》(1927), 《파헴씨의 전제통치》(1930), 《크로케트선수》(1936)를 비롯한 사회소설들도 창작하였으며 《세계문화사대계》와 같은 문화사책도 썼다.

웰즈의 창작은 사회비판적지향을 담고 독특한 예술적특징을 가진것으로 하여 영국비판적사실주의문학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있다.

올드릿지 제임즈 올드릿지(1918—?)는 제2차 세계대전후에 널리 알려진 영국의 진보적작가이다.

그는 오스트랄리아에서 태여나 멜번상업대학을 졸업한 다음 1938년부터 영국에서 살았으며 제2차 세계대전때 종군기자로 활동하였다.

이 시기부터 창작활동을 시작한 작가는 초기에 쓴 장편소설 《영예로운 직업》(1942), 《바다독수리》(1944) 등에서 반파쑈항쟁운동을 반영하였으며 전후시기에는 평화운동에 참가하여 절박한 현실적문제들에 민감하게 호응해나섰다. 그는 특히 장편소설 《외교관》(1949)에서 영제국주의의 침략성을 예리하게 폭로비판하였다.

그후 그는 피압박인민들의 민족해방투쟁을 지지하는 진보적립장을 명백히 하였다. 장편소설들인 《사막의 주인들》(1954), 《그가 죽는것을 바라지 않소》(1958), 《마지막추방자》(1961), 《산과 무기》(1974) 등에는 그의 이러한 립장이 뚜렷이 반영되였다. 그는 2부작장편소설 《낯선 고장의 아들》(1962), 《위험한 놀음》(1966)에서 사회주의와 자본주의사이의 첨예한 사상투쟁문제도 반영하였다.

그의 작품들은 낡은 사회에 환멸을 느끼고 새것을 지향해나선 사람들의 복잡한 과정을 사실주의적으로 그리려는 립장을 보여준것으로 하여 현대영국의 진보적문학에서 뚜렷한 자리를 차지하고있다.

그의 대표작은 장편소설 《외교관》이다.

《외교관》은 1945—1946년 이란령 아제르바이잔사태(이 지역에 이란정부와는 별도로 민주주의적인 지방민족정부가 수립된것과 관련하여 반동세력들이 그것을 교살하기 위해 벌린 사건)때 이전 쏘련과 이란에 파견하였던 영국외교관들의 활동을 통하여 영국의 침략적본성을 폭로한 작품이다.

사건이 발생하자 영국반동정부는 로련한 외교관인 에쎅스를 단장으로 하는 고위급대표단을 급히 이전 쏘련에 파견한다. 외무성일군인 고생물학자 마크 그레고가 수원으로 따라간다. 이 대표단의 사명은 표면상 사태를 조사하기 위한 국제위원회를 조직하는데서 당시 쏘련정부의 동의를 얻는데 있었다. 그러나 그 진짜사명은 이 국제위원회를 리용하여 아제르바이잔에서의 민주주의운동을 교살함으로써 이 지역에 있는 영국독점체의 석유리권을 보호하며 이 리권을 보장하는 이란반동정권을 도우려는데 있었다.

소설은 이란사태와 관련한 영국대표단의 구체적인 활동과정과 외교관 에쎅스의 형상을 통하여 이란인민들을 예속시키기 위해 온갖 음모책동을 다하는 제국주의자들의 반동성을 잘 보여주었다.

장편소설 《외교관》은 그것이 담고있는 반제반식민주의적지향으로 하여 제2차 세계대전후 영국의 진보적문학에서 뚜렷한 자리를 차지하고있다.

3) 영국사회주의적사실주의문학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사회주의적사실주의는 자본주의가 제국주의단계에 들어서고 사회주의혁명이 일정에 오른 력사적시기에 자본주의제도를 때려부시고 착취와 압박이 없는 새 사회를 건설하려는 로동계급의 요구를 반영하여 나왔다.》

영국의 진보적작가들과 평론가들속에서 사회주의적사실주의가 론의되고 일부 작품들에 그 요소가 구현되기 시작한것은 1930년대부터였다.

이 시기 랄프 폭스(1900—1937)는 평론집 《소설과 인민》(1937)에서 처음으로 사회주의적사실주의를 제기하고 현대의 진보적문학이 나아갈 길은 사회주의적사실주의의 길이라고 주장하였으며 1913년 더블린로동자들의 총파업과 그 승리를 형상한 숀 오케이씨의 희곡 《별은 붉게 물든다》(1939)에서는 사회주의적사실주의

의 요소가 나타났다.

그후 로동계급의 요구를 반영한 일부 작가들의 작품들에 사회주의적사실주의가 뚜렷이 표현됨으로써 영국의 진보적문학에서도 사회주의적사실주의가 일정한 자리를 차지하게 되였다.

그러나 영국에서의 사회주의적사실주의문학창작은 프랑스나 도이췰란드에서와 같이 활발하지 못하고 제한된 범위에서 협소하게 진행되였다.

영국 사회주의적사실주의문학계의 대표적인 작가로서 오케이씨와 린제이를 들수 있다.

오케이씨

숀 오케이씨(1880—1964)는 아일랜드 더불린의 로동자가정에서 태여났다. 어릴 때부터 힘든 육체로동속에서 사회의 모순을 깨달은 그는 로동운동과 민족해방운동에 적극 참가하였다.

그는 독학으로 작가수업을 하여 1920년대에 《사수의 그림자》(1923), 《쥬노와 공작새》(1924), 《보습과 별들》(1926)과 같은 희곡들을 련이어 발표함으로써 프로레타리아극작가로 이름을 날리였다.

그의 작품들에는 무산계급의 불행하고 고통스러운 생활이 그대로 반영되여있으며 그들을 각성시켜 새 생활 창조를 위한 투쟁에로 불러일으키려는 지향이 뚜렷이 나타났다. 그러나 그의 초기희곡들에는 아직 계급적선이 옳바로 서지 못하고 현실을 생동하게 재현하지 못하는 결함이 드러났으며 일부 자연주의와 인상주의적요소도 표현되였다.

작가는 1926년에 영국으로 건너가 영주하였으며 1930년에는 영국공산당에 입당하였다. 이 시기에 와서 그의 작품들은 아일랜드의 력사적현실을 보다 생동하게 반영하고 프로레타리아혁명의 승리에 대한 신념을 표현하기 시작하였으며 사회주의적사실주의의 요소를 내포하였다. 1913년에 있었던 더불린로동자들의 총파업과 그 승리, 로동계급의 투쟁위업의 종국적승리에 대한 신념을 보여준 희곡 《별은 붉게 물든다》(1939)가 그 대표적인 작품이다.

1940년대에 이르러 희곡과 함께 소설창작을 시작한 작가는 10여년동안에 걸쳐 전 6부로 된 다부작장편소설을 내놓았다. 제1부 《나는 문을 두드린다》(1939), 제2부 《문턱에서》(1942), 제3부 《창밑 북소리》(1945), 제4부 《아일랜드여 잘있으라》(1949), 제5부 《장미와 화관》(1952), 제6부 《락조와 저녁별》(1954)로 구성된 이 소설은 주인공 죤니 케씨지의 소년로동자시기부터 그가 작가로 활동하기까지의 생활사를 묘사하면서 19세기 말엽부터 20세기 50년대초에 이르는 시기 아일랜드와 영국인민들의 생활과 투쟁을 폭넓게 반영한 자서전적작품이다.

숀 오케이씨의 작품들은 로동계급의 요구와 그들의 생활과 투쟁을 진실하게 반영한것으로 하여 영국과 아일랜드의 사회주의적사실주의문학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있다.

린제이

재크 린제이(1900—?)는 오스트랄리아에서 태여나 그곳 대학을 나온 후 1926년부터 영국에서 살면서 직업적작가로 활동하였으며 1941년에 영국공산당에 입당하였다.

그의 창작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것은 력사소설이다. 그는 영국과 세계력사자료에 기초하여 봉건적 및 자본주의적예속에서 벗어나기 위한 인민대중의 투쟁을 서사적으로 보여주는 장편소설 《1649년》(1938), 《48년의 사람들》(1948), 《스미스필드의 불길》(1950), 《큰 참나무》(1957) 등을 창작하였다.

그는 또한 현대영국의 사회생활을 폭넓게 반영하는 총서 《브리텐의 길》에 대한 창작을 구상하고 그 첫 작품 《배반당한 봄》(1953)으로부터 시작하여 《밀물》(1954), 《선택의 시각》(1955), 《그대의 집》(1957), 《아들들의 봉기》(1960), 《가면과 얼굴》(1963) 등 여러편의 장편소설들을 내놓았다.

작가는 총서에서 1945년이후 각계각층 영국사람들의 생활을 다양하게 펼쳐보였으며 특히는 《배반당한 봄》에서 1946—1947년 영국의 현실을 배경으로 로동자, 공장주, 로조일군들의 생활과 근로자들의 의식화과정을 깊이있게 묘사하였다.

그는 문학예술과 력사에 관한 책들도 여러권 썼으며 제기된 문제를 맑스주의적립장에서 해명하려고 시도하였다.

린제이의 창작은 영국사회주의적사실주의문학에서 뚜렷한 자리를 차지하고있다.

7. 그밖의 서유럽나라들의 문학

1) 민족문학발전에서 성과를 거둔 그밖의 서유럽나라들의 문학

제1차 세계대전과 제2차 세계대전의 격동적인 사변을 거쳐 20세기에 프랑스, 영국, 도이췰란드와 같은 제국주의렬강들뿐아니라 그밖의 서유럽자본주의나라들에서도 내외부의 모순이 더욱 격화되였으며 정치경제적위기가 심화되였다.

이딸리아와 에스빠냐에서는 날로 위태롭게 되여가는 저들의 특권적지위를 유지하기 위하여 기구를 파쑈화하고 침략과 전쟁정책을 더욱 강화하였다.

그리하여 20세기 전기간 그밖의 서유럽나라들에서는 제국주의자들의 파쑈독재와 침략과 전쟁책동을 반대하고 사회주의와 민주주의를 위한 인민대중의 투쟁이 힘있게 벌어졌다. 이 투쟁에 의하여 이딸리아의 무쏠리니와 에스빠냐의 프랑꼬파쑈독재통치가 꺼꾸러졌다.

제2차 세계대전후 그밖의 서유럽나라들의 움직임에서 특징적인것은 이 나라들이 점차 자주의 길로 나아간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경제적으로 발전된 나라들이 집중되여있는 구라파가 자주화의 길로 나가고있는것은 매우 흥미있는 일이며 전망적으로 보아도 아주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구라파에서 자주성을 지향하는 나라들의 대렬이 날을 따라 늘어나고있습니다.》

이 시기에 와서 오스트리아, 스위스, 이딸리아를 비롯한 서유럽의 많은 자본주의나라들이 점차 자주화의 길로 나갔으며 이것은 력사발전의 움직일수 없는 추세로 되였다.

이러한 시대를 배경으로 하여 이딸리아, 에스빠냐, 오스트리아, 스위스 등 서유럽의 자본주의나라들도 민족문학발전에서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두었으며 20세기 유럽문학의 발전에 이바지하였다.

오스트리아문학에서는 19세기말부터 제국주의시기를 반영하여 각종 부르죠아문학사조와 류파들이 성행하였다.

평론가이며 극작가인 바르(1863－1934)는 자연주의에서 출발하여 표현주의, 신랑만주의를 들고나옴으로써 젊은 윈파로 불리운 모더니즘작가집단의 우두머리가 되였으며 호프만스탈(1874－1929)은 순수예술을 지향해나섰다. 이 파에 속한 소설가이며 극작가인 쉬니츨레르(1862－1931)도 표현주의의 길로 나갔다. 평론가, 시인, 극작가인 크라우스(1874－1936)는 이 파에 속하면서도 반전, 반군국주의작품을 내놓았다.

시인 릴케(1875－1926)는 사회적불행에서 벗어날 출로가 그리스도교적사랑에 있다고 설교하였고 《심판》(1925), 《성》(1926) 등을 쓴 소설가 카프카(1883－1924)는 극도의 염세주의에 빠져있었다. 윈종합대학 교수로 있던 프로이드는 이른바 《프로이드주의》(정신분석학)를 류포시켜 퇴페주의문학에 강한 영향을 주었다.

이러한 퇴페적인 부르죠아문학사조, 류파들을 반대하여 특색있는 전기소설들을 련이어 발표한 쯔와이그(1881－1942), 비판적사실주의작가들인 무질(1880－1942), 로트(1894－1939), 브로호(1886－1951)들이 활동하였다. 1938년 오스트리아가 파쑈도이췰란드에 합병당하자 이들은 모두 망명의 길에 올랐으며 일부 작가들은 망명지에서 객사하였다.

제2차 세계대전후에는 녀류작가 아이힝게르(1921－?), 소설가 베른하르드(1931－1989), 소설가이며 극작가인 한드케(1942－?)가 비교적 잘 알려져있으나 이들은 다 모더니즘작가들이다. 전후 오스트리아문단에는 50년대초부터 60년대 중엽까지 계속된 젊은 윈파를 대신하여

1950년대말에 나온 포람시민공원파, 1973년에 조직된 그라쯔작가집단 등이 등장하였으나 이것이나 저것이나 다 실험문학을 표방하면서 사실주의문학의 전통을 거부해나선 부르죠아문학류파이다.

스위스문학에서는 20세기 초엽에 시인 슈피틀레르(1845—1924)가 쓴 서사시 《올림피아의 봄》(1910)과 《인내력이 강한 프로메테우스》(1924)가 알려져있다.

그의 시작품들은 인도주의사상과 고대세계에 대한 깊은 관심으로 두드러져있다.

스위스의 현대작가로는 프리슈, 뒤렌마트, 무쉬그가 알려져있다.

극문학과 소설에서 제2차 세계대전후 스위스문학계를 대표하는 작가로 지목되고있는 프리슈(1911—1991)는 절박한 현실문제를 반영한 희곡 《비데르만과 방화자들》(1958), 《안도라》(1961), 장편소설 《나는 슈틸레르가 아니다》(1954), 《호모 파베르》(1957), 《나의 이름은 간텐바인》(1964) 등을 내놓았다.

뒤렌마트(1921—1990)는 비희극 《귀부인이 고향으로 돌아오다》(1956)를 비롯한 희곡과 소설에서 부르죠아도덕을 풍자적으로 묘사하였다.

도이취어를 쓰는 스위스작가들가운데서 부르죠아문단에 널리 알려진 작가로는 헤르만 헤쎄(1877—1962)가 있다. 그의 대표작인 장편소설 《유리알유희》(1943)는 전형적인 부르죠아심리소설이다.

그밖에 스위스에는 프랑스어와 이딸리아어, 레토로만어로 창작하는 작가들도 적지 않았다.

20세기에 활동한 벨지끄작가들가운데서 동화극 《파랑새》(1908)를 쓴 상징주의극작가 매때를랭끄(1862—1949), 소설가 예꾸뜨와 엘렌스, 추리소설가 씨므농(1903—1989), 초현실주의시인 미쇼(1899—1984) 등이 알려져있다.

2) 이딸리아문학과 쁘라또리니

20세기에 이딸리아는 제국주의단계에 들어서면서 더욱 반동화되고 내부모순이 격화되였으며 정치경제적으로 심각한 위기에 처해있었다.

1922년에 무쏠리니의 파쑈독재정권이 수립되였다가 1943년에야 붕괴되였고 제2차 세계대전이후에는 력대반동정부의 반인민적통치와 독점자본의 끊임없는 억압과 착취로 사회경제적 위기가 수습할수 없는 단계에 이르렀으며 근로자들은 실업과 빈궁속에서 헤매였다.

한편 이딸리아로동계급과 근로자들은 대규모적인 통일행동으로 당국의 통치기반을 걷잡을수없이 뒤흔들어놓았다. 이딸리아인민들은 정부에 나토로부터의 탈퇴를 요구하였으며 신파쑈분자들의 준동을 반대하는 투쟁을 힘있게 벌려 반동세력을 고립시켰다.

20세기 전반기 이딸리아의 문학계에서 판을 친것은 각양각색의 부르죠아문학사조와 류파들이였다. 부르죠아문단이 거장으로 내세우고있는 시인 빠스꼴리(1855—1912)와 단눈찌오(1863—1938)와 같은 반동시인들의 뒤를 이어 《황혼파》, 《미래파》, 《에르메띠스모(련금술주의)》에 속한 시인들이 활개쳤다. 특히 1922년 이딸리아에 무쏠리니파쑈정권이 수립된 후에는 파시즘을 지지하는 반동작가들이 문단에서 판을 침으로써 진보적문학의 발전에 큰 저애를 주었다.

이러한 속에서도 이딸리아의 많은 작가들은 작가로서의 량심을 지켜나갔다.

20세기 초엽의 사실주의문학에서는 《베리즈모》(진실주의)계렬의 녀류작가 그라찌아 델렛다(1871—1936)가 활약하였다. 그는 《재》(1904),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1913), 《어머니》(1920) 등의 장편소설들을 써내여 베리즈모의 창시자 베르가의 뒤를 이었다. 그는 1926년에 노벨문학상을 받았다.

이 시기의 작가들가운데서 삐란델로(1867—1936)가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졌다. 그는 대표작인 《죽은 마띠아 빠스깔》(1904)을 비롯한 15편의 장편소설과 200여편의 단편소설, 6편의 시집과 약 30편의 희곡을 썼다. 심리주의적립장에서 표면에 나타난 인간성격과 잠재한 성격사이의 대립을 분석하는데 치중한 그의 작품들에는 염세주의적인 사상과 퇴폐주의문학의 경향이 나타났다. 그는 1934년에 노벨문학상을 받았다.

이딸리아가 파쑈화되고 도이췰란드와 함께 파쑈국가로서 제2차 세계대전에 참가하자 이딸리아의 많은 작가들은 정견과 신앙, 창작방법의 차이

를 초월하여 반파쑈투쟁에 합류해나섰다. 순수시운동인 에르메띠즈모의 창시자 운가레띠(1888—1970)가 반파쑈항쟁운동참가자들을 지지해나섰고 서정시집 《오징어뼈》(1925)를 쓴 상징주의시인 몬딸레(1896—1981)가 반파쑈투쟁에 합류했으며 이름있는 시인 꽈지모도(1901—1968)가 파시즘을 반대하는 작가, 예술인들의 조직적인 운동에 참가하였다.

1930—1940년대의 가장 곤난한 시기에 반파쑈문학의 앞장에 섰으며 전후시기에도 진보적립장을 견지한 이름난 작가로서는 빗또리니(1908—1966)와 빠베제(1908—1950) 를 들수 있다. 빗또리니의 《붉은 카네이션》(1933—1935), 《씨칠리아에서 나눈 대화》(1941), 《메씨나의 녀인들》(1949), 빠베제의 《고향》(1941), 《아름다운 여름》(1949), 《닭이 울기 전에》(1949)와 같은 장편소설들은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졌다.

네오레알리즈모

제2차 세계대전후 이딸리아의 진보적문학에서 주류를 이룬것은 《네오레알리즈모》(신사실주의)였다.

《네오레알리즈모》라는 명칭에는 파쑈통치의 암담한 시기에 잃어졌던 문학의 사실주의적전통을 되찾고 문학이 다시 생활을 진실하게 반영하게 되였다는 뜻이 담겨져있다. 여기에는 단일한 미학적강령이나 선언, 주의주장이 없으며 일부 작가들의 창작방법, 작품에서 나타난 공통적인 특징을 두고 이렇게 부르고있을따름이다.

그들은 대체로 전쟁체험자, 저항운동참가자들로서 작품에 파시즘을 반대하고 인도주의와 민주주의를 지향하였으며 산 현실을 정확하게 사실적으로 반영하려고 애썼다. 또한 기록성과 자서전적성격이 강하며 소박하고 평범한 사람들을 주인공으로 설정하고 그들의 생활을 동정하였다.

《네오레알리즈모》계렬의 이름난 작가들로는 모라비아, 빗또리니, 빠베제, 쁘라또리니, 레비(1902—1975) 등을 들수 있다.

또한 까쏠라(1917—1987), 바싸니(1916—?)를 비롯한 중견작가들도 비슷한 주제를 다루었다.

빠베제, 빗또리니가 사망한 후 1970—1980년대 이딸리아의 진보적문단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것은 씰로네(1900—1978)와 깔비노(1923—1985)였다. 그들은 사회의 량심과 정의를 구현하는것이 예술의 생명이라고 주장하였다.

1980년대이후 이딸리아문단에서는 장편소설 《장미의 이름》(1981), 《뿌꼬의 추》(1988)의 창작으로 명성을 떨친 움베르또 에꼬를 비롯하여 오레스떼 델 부오노, 알베르또 베빌락라 등 신진작가들이 알려져있다.

여기에서는 20세기 이딸리아의 수많은 작가들가운데서 네오레알리즈모의 대표적인 작가 모라비아와 프로레타리아문학의 대표적인 작가 쁘라또리니에 대해서만 고찰하기로 하자.

모라비아

알베르또 모라비아(본명 : 알베르또 삔께를레 1907—1990)는 로마의 중산층가정에서 태여났다. 그는 9살때 골수염에 걸려 17살까지 병치료와 료양소생활을 하였기때문에 정규교육을 받지 못하였으나 독학으로 프랑스어와 도이취어를 습득했으며 건축가인 아버지의 서재에 있던 방대한 장서와 순회도서관의 많은 책(주로 문학작품)을 탐독하여 박식가로, 문학애호가로 되였다. 그후 작가는 또리노에서 한동안 기자로 있다가 영국의 런던에서 해외특파원으로도 있었다.

17살때부터 쓰기 시작하여 22살때인 1929년에 완성한 첫 장편소설 《무관심한 사람들》을 자비출판한것이 주목을 끌어 그는 일약 문단의 총아로 되였다. 작품은 로마 중산층가정의 어머니와 두 딸의 생활을 통하여 부르죠아사회의 타락한 도덕생활일단을 사실주의적으로 보여주고있다. 작품에 담겨진 반파쑈사상으로 하여 작가는 당국의 요시찰인물로 되였다.

작가는 그후 많은 단편소설들과 두번째 장편소설 《이루어지지 못한 야심》(1935), 세번째 장편소설 《가장무도회》(1941) 등을 창작하였는데 가상적인 독재국가를 무대로 파시즘을 예리하게 비판한것으로 하여 전부 몰수, 발행금지당한것은 물론 창작활동까지 금지당했다.

제2차 세계대전시기에 지명수배되여있던 그는 련합군이 진주한 나뽈리로 탈출하려다가 실패하자 9개월동안 벽촌에 피신해있었다.

그는 제2차 세계대전후에 정력적인 창작활동을 벌려 《네오레알리즈모》문학계의 대표자의 한사람으로, 이딸리아문단에서 큰 자리를 차지하게 되였다. 특히 장편소설 《로마의 녀자》

(1947)와 《두 녀자》(1957)의 창작으로 하여 널리 알려졌다. 두 소설은 다 녀성을 주인공으로 하여 당대 이딸리아현실을 사실주의적으로 그린 작품들이다.

그밖에도 그는 《아고스띠노》(1944), 《반항》(1948), 《순응주의자》(1951), 《권태》(1960), 《관심》(1965), 《나와 그 사람》(1971), 《심층생활》(1978), 《1934년》(1982), 《살펴보는 사나이》(1985) 등 많은 장편소설들을 썼다.

그에게는 단편소설집도 많다. 대표적인것으로는 《불행한 련인》(1943), 《로마이야기》(1954), 《새 로마이야기》(1959), 《로보트》(1962), 《락원》(1970), 《검은 만또를 입은 녀자》(1983) 등을 들수 있다. 그는 희곡과 평론도 썼다.

60여년에 걸친 왕성한 창작활동과 풍만한 창작성과로 하여 그는 세계적인 대가의 지위를 차지하게 되였으며 한때 국제펜구락부 회장까지 지냈다.

그 내용에서의 뚜렷한 반파쑈, 반전평화옹호, 인도주의사상과 함께 사실주의적방법, 인물성격창조의 진실성과 째인 구성, 사실적인 대화구사와 꾸밈없는 문체, 깊이있는 심리묘사를 특징으로 하고있는 그의 창작은 20세기 이딸리아문학에서 이채를 띠였다.

대표작의 하나인 장편소설 《두 녀자》는 제2차 세계대전 말기 로마에서 살던 소시민 모녀가 9개월동안 농촌에 소개했던 때의 체험을 녀주인공(어머니)의 1인칭설화형식으로 펼쳐보인 작품이다.

소설은 가게방장사로 번 많은 돈을 가지고 소개를 했으나 소개지에서 9달이나 붙박혀있는 바람에 가져갔던 돈도 다 써버리고 마지막에는 누데기옷을 걸치고 굶주림에 시달리며 거지처럼 되고마는 모녀의 비참한 생활처지와 로마로 돌아가다가 병사들에게 겁탈당하는 불행 등을 생동하게 그려냄으로써 반파쑈, 반전평화옹호사상을 제기하였다.

쁘라또리니

쁘라또리니는 이딸리아에서 대표적인 프로레타리아작가의 한 사람이다.

바스꼬 쁘라또리니(1913—1991)는 피렌쩨의 빈민가정에서 태여나 15살때부터 로동을 하였으며 독학으로 작가수업을 하였다. 그 과정에 그는 반파쑈운동자들과 접촉하면서 진보적인 사상을 가지게 되였다.

그는 제2차 세계대전직후부터 적극적인 소설창작활동을 벌려 《네오레알리즈모》(신사실주의)창시자의 한사람으로 되였으며 그것이 존재를 끝마친 다음에도 본래의 자세를 견지하였다. 그는 대표작인 《가난한 애인들에 대한 이야기》(1947)외에도 《마가지니거리》(1941), 《현대의 영웅》(1949), 《싼 프레디아노에서 온 처녀들》(1951), 《리성의 힘》(1963) 등 여러편의 장편소설들을 썼다.

그는 이딸리아로동계급의 투쟁력사를 형상한 3부작장편소설 《이딸리아이야기》를 창작하였다. 제1부 《메뗄로》(1955)에서는 이딸리아공산당창건 이전시기를, 제2부 《당비》(1960)에서는 파쑈정권이 수립된 시기의 사변들을, 제3부 《풍유와 조롱》(1966)에서는 그 이후시기를 묘사하였다.

장편소설 《가난한 애인들에 대한 이야기》는 파쑈통치가 지배하던 1920년대를 시대적배경으로 하여 이딸리아중부의 도시 피렌쩨의 어느한 거리에 사는 가난한 사람들의 생활과 투쟁을 그린 작품이다.

비좁은 꼬르노거리에는 야장공 마치스떼 꼬라도와 인쇄공 마리오를 비롯하여 대다수가 가난한 사람들, 자기의 노력으로 빵을 벌어들이는 로동자들이 산다. 이 거리에는 또한 몇명 안되지만 돈많은자들과 반동분자들도 살고있다. 돈 많은 석탄상인 네지와 늙은 과부, 파시스트의 앞잡이인 까를리노와 오스발도 등이 다 그러한자들이다.

작품은 이딸리아사회의 축도인 꼬르노거리의 가난한 사람들과 돈많은자들의 생활을 대비적으로 그리면서 가난한 사람들의 생활감정과 지향을 표현하였다. 그들은 비록 천대받고 압박받는 가난한 사람들이지만 이 거리에서 주인행세를 하면서 거드름을 피우는 돈많은자들, 파쑈분자들보다 비할바없이 높고 깨끗한 정신세계를 가지고있다.

소설은 꼬르노거리에 사는 가난한 사람들의 일상생활에 대한 구체적인 묘사를 통하여 선량하고 근면하며 락천적이고 평화와 정의를 사랑하며 압

박자, 착취자들에 대한 증오심이 강한 소박한 인민들의 성격적특질을 형상적으로 뚜렷이 보여주었다.

그 대표적인물이 야장공인 공산당원 마치스떼 끄라도이다. 그는 어느날 극우익파쑈단체인 흑샤쯔단패거리가 도시의 공산당원들과 진보적활동가들, 민주인사들의 집을 습격하고 살인, 략탈, 방화 등 파쑈테로를 감행할 준비를 하고있다는것을 알게 되자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모터찌클을 타고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사전대책을 세우다가 반동놈들의 손에 희생된다. 마치스떼의 희생적인 노력으로 지하당조직은 위기를 모면하며 새로운 동지들이 그 사업을 대신한다.

작품은 미래에 대한 신념을 가지고 인민의 자유와 행복을 위한 투쟁에 몸바쳐나서는 가난한 사람들, 천대받고 압박받는 사람들을 내세우면서 그들을 아름답고 훌륭한 사람들로 그리고있다.

소설은 적지 않게 생활세태묘사에 치우치고 정치적으로 모호한 제한성을 가지고있으나 가난한 근로자들의 생활과 투쟁을 긍정적으로 형상함으로써 전후 이딸리아의 진보적문학이 거둔 성과작의 하나로 되고있다.

3) 에스빠냐문학과 가르씨아 로르까

20세기 에스빠냐문학의 발전과정을 크게 세시기로 구분해볼수 있다.

그 첫 시기는 1898년－1930년대이다.

19세기말－20세기초에 에스빠냐는 제국주의단계에 들어섰다. 나라의 정치, 경제, 문화적위기는 더욱 심각해졌으며 사회생활은 더욱더 반동화되였다. 특히 1898년 에스빠냐－미국전쟁에서 에스빠냐가 패한 후 반동적부르죠아지와 지주, 승려들은 조국의 재생이라는 구호밑에 군국화에로 미친듯이 줄달음쳤다. 한편 이 시기에 로동계급과 근로인민대중은 자주성을 옹호하기 위한 투쟁을 더욱 힘있게 벌렸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문학에서도 진보와 반동간의 투쟁이 치렬하게 벌어졌다.

이 시기 문학에서 주류를 이룬것은 1898년세대로 불리운 작가들의 창작이였다. 1898년 에스빠냐가 미국과의 전쟁에서 패한 후 나라의 군국화를 반대하고 조국의 재생의 새로운 길을 탐색한다는 기치밑에 일어난 1898년세대는 그후 1910년대부터 시작하여 이전 쏘련에서의 사회주의10월혁명과 제1차 세계대전후 계급투쟁의 첨예화, 1923－1930년 군사독재의 강화 등 급변하는 정세속에서 각개 분렬되였다.

삐오 바로하를 비롯한 보수적인 작가들은 예술을 위한 예술, 퇴폐주의, 모더니즘의 길로 나갔으며 에스빠냐에서 세번째로 노벨문학상(1956)을 받은 시인 히메네스(1881－1958, 대표작：산문시집《플라테로와 나》, 1914)도 여기에 합세하였다. 이들에게 사상적영향을 준것은 철학가이며 작가인 오르떼가 이 가쎄뜨(1883－1955)였다.

그러나 1898년세대의 성원들가운데서는 반항과 항거의 정신을 표현하고 파쑈화를 반대해나선 진보적인 작가들도 적지 않게 배출되였다. 장편소설 《전쟁속의 평화》(1897), 중편소설《안개》(1914)를 쓴 우나무노(1864－1936), 단편소설의 명수였던 아소린(본명：호쎄 마르띠네스 루이스, 1873－1967), 폭군을 풍자한 장편소설 《폭군 반데라스》(1926)를 쓴 발례－인끌란(1866－1936) 등을 그 례로 들수 있다.

1898년세대에 속하지는 않았으나 이 시기 소설문학에서는 블라스꼬 이바녜스가 특출한 자리를 차지하였다.

이 시기 에스빠냐극문학의 대표자로서는 그 1인자인 가르씨아 로르까와 함께 에스빠냐의 첫 노벨문학상수상자(1904) 에체가라이(1832－1916, 대표작 《씻겨진 치욕》 1896), 두번째 노벨문학상수상자(1922) 베나벤떼(1866－1954, 대표작 《꾸며낸 리해관계》 1907)가 알려져있다.

에스빠냐의 진보적인 작가들은 부르죠아공화국시기(1931－1936)와 1936－1939년 공민전쟁시기에 공산당의 지도밑에 인민전선의 두리에 뭉쳐 파쑈화를 반대하는 투쟁을 힘있게 벌렸다. 이 시기의 대표자는 시인이며 극작가인 가르씨아 로르까였다.

20세기 에스빠냐문학발전에서 둘째 시기인 1940－1970년대는 근 40년간이나 계속된 프랑꼬파쑈통치로 하여 나라가 극도로 반동화되고 에스빠냐인민들이 파쑈통치를 반대하여 끊임없는 투쟁을 벌린 시기이다.

프랑꼬의 파쑈독재통치가 계속된 암흑의 시기에 에스빠냐문학은 한동안(1940－1950년대

중엽) 침체기에 빠져있었다.

당국의 가혹한 출판검열제도에 의하여 진보적인 작품들은 모두 출판판매금지되거나 회수당하였고 서적시장에는 어용문학작품들, 반동문학작품들만이 차고넘쳤다.

에스빠냐의 진보적문학은 반동문학과의 대립투쟁과 파쑈통치의 탄압속에서 힘들게 발전하였다.

여기서 중요한 역할을 한것이 망명지에서 창작활동을 계속한 시인 알베르띠(1902—1999), 공민전쟁시기 인민전선정부를 옹호하여 활동하였으며 전후에 망명한 소설가 쎈데르(1901—?), 역시 전후에 망명길에 오른 소설가 아얄라(1906—?), 국내에 남은 쎌라(1916—?) 등 작가들이였다.

이와 함께 1950—1960년대에 등장한 신진작가들인 고이띠쏠로(1931—?), 델리베스(1920—?), 라포레뜨(1921—?) 등이 활동하였다.

이들의 작품가운데서 장편소설 《빠스꾸알 두아르떼의 가족》(쎌라, 1942), 《아무것도 없다》(라포레뜨, 1944), 《엘 빠라이쏘의 비극》(고이띠쏠로, 1955), 중편소설 《길》(델리베스, 1950) 등이 문단의 주목을 끌었다.

20세기 에스빠냐문학발전의 셋째 시기는 프랑꼬독재가 거꾸러진 1975년이후이다.

이 시기 에스빠냐가 서유럽의 다른 나라와 같은 부르죠아민주주의국가로 된 조건에서 작가들의 활동은 더욱 적극화되였다.

이 시기 부르죠아문단에서 큰 역할을 한것은 선풍적인 찬사를 일으켰다는 시집 《부활일지》(1979)의 작가 루이스 곤쌀레스(1910—?)와 현대에스빠냐의 최고시인으로 떠받들린 펠릭스 그란데(1937— , 대표작 시집 《오라씨오 마르띤의 송가》, 1980)이다.

진보적작가로서는 고이띠쏠로, 쎌라, 델리베스, 녀류작가 마두떼(1926—1990)를 비롯한 여러 작가들이 활약하였다.

20세기 에스빠냐문학에서 특히 주목을 끈것은 블라스꼬 이바녜스와 가르씨아 로르까이다.

블라스꼬 이바녜스 비쎈떼 블라스꼬 이바녜스(1867—1928)는 19세기말—20세기 초엽에 활동한 비판적사실주의소설가로서 작품의 민주주의적내용과 높은 창작기량으로 하여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져있다.

그는 발렌씨아의 상공인가정에서 태여나 그 도시의 대학 법과를 졸업한 후 1891년에 신문 《엘 뿌에블로》(《인민》)를 창간하였고 공화주의를 지지하는 정치운동에 참가하였으며 박해를 받고 여러번 망명하였다. 그는 공화당출신 국회의원으로 여러번 선거되였으며 사회주의자들과 접촉하였으나 후에는 온건한 자유주의적립장으로 넘어갔다. 군사독재정권이 수립되자 그는 1923년 프랑스에 망명하여 그곳에서 객사하였다.

그의 창작적특징은 자기 나라의 구체적현실에서 드러나는 사회관계의 모순과 불합리성을 선행작가들보다 더 예리하게 해부하고 비판하였으며 근로인민에게 뜨거운 동정을 기울이고 높은 전형화의 수준에서 현실을 진실하게 반영한데 있다.

그의 주요작품으로는 농민들의 비참한 생활을 그린 중편소설 《초가집》(1898), 장편소설《5월의 꽃》(1895), 《갈과 감탕》(1902), 단편소설집 《발렌씨아이야기》(1896), 인기투우사와 한 귀부인과의 련애이야기를 통하여 당대 사회현실을 반영한 장편소설 《피와 모래》(1908) 등이 있다. 그는 그밖에도 제1차 세계대전을 내용으로 한 장편소설 《묵시록의 네 기사》(1916), 《우리의 바다》(1918)를 비롯한 많은 소설들을 썼다.

그의 대표작의 하나는 중편소설 《초가집》이다.

작품은 발렌씨아교외의 어느 한 농촌마을에서 일어난 사건을 통하여 초가집을 쓰고사는 가난한 소작농들의 불행한 생활처지와 지주의 악랄성을 비판하고있다.

소설은 외견상 이 마을농민들과 이주민사이의 갈등에 기초하고있는듯 한 인상을 주고있다. 하루는 이 마을에 타고장사람이 가족을 데리고 와 다 허물어져가는 초가집에 짐을 푼다. 이 사

실이 마을사람들에게 알려져 소동이 일어난다. 그것은 이주민이 자리잡은 집과 그가 맡은 소작지에 억울하게 죽은 한 농군의 원한이 서려있기때문이다. 그래서 마을사람들은 누구도 거기에 발을 붙이지 못하게 하였다.

이주민 바띠스떼는 가족과 함께 완강하게 일하여 황페화되였던 땅에서 한해만에 굉장한 소출을 낸다. 그러나 마을사람들의 집단적항거에 부딪쳐 끝내 떠나가고만다.

소설은 이 마을 소작농들의 생활을 반영하면서 그들의 고통과 불행에 뜨거운 동정을 표시하고 지주의 착취적본성을 폭로하였으며 착취사회를 예리하게 비판하였다.

가르씨아 로르까

페데리꼬 가르씨아 로르까(1898—1936)는 20세기 전반기 에스빠냐의 이름난 진보적시인이며 극작가이다.

그는 그라나다부근 푸엔떼 바께로스마을에서 태여나 그라나다와 마드리드종합대학에서 법학을 전공하였으나 일찍부터 시와 연극, 음악과 미술에 재능을 가지고 문학예술활동에 몸을 잠그었다.

그는 1920년대초부터 시와 희곡을 쓰기 시작하여 초기에 초현실주의의 영향을 받았으나 점차 그 영향에서 벗어나 민족적이며 인도주의적인 문학예술창작을 지향해나섰다.

작가의 이러한 지향은 반전제투쟁에 참가했다가 1831년에 처형된 그라나다의 애국녀성에 대한 비극 《마리아나 삐네다》(1927), 안달루씨아지방인민들의 고통과 슬픔을 반영한 시집 《집시시가집》(1928) 등에서 뚜렷이 표현되였다.

그는 1929—1930년에 미국과 꾸바를 방문하고 자본주의미국을 지배하는 황금만능과 인종차별을 규탄한 시집 《뉴욕에 간 시인》(1930)을 썼다.

그는 1930년대에 반파쑈잡지 《10월》의 두리에 뭉친 작가그루빠에 합류하였고 인민의 편에 서서 반동세력과 파시즘을 반대하는 활동을 벌렸다. 이 시기에 그는 구전문학전통에 기초한 희곡 《황홀한 녀자구두쟁이》(1930), 작가자신의 사회행동극강령에 기초하여 불합리한 부르죠아사회의 모순을 비판한 희곡 《피의 결혼식》(1933), 《예르마》(1934), 《베르나르다 알바의 집》(1936) 등을 창작하였다.

그의 창작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있는 것은 희곡 《마리아나 삐네다》와 《베르나르다 알바의 집》이다.

《마리아나 삐네다》는 1831년 남부도시 그라나다에서 봉건전제통치를 반대하는 투쟁을 벌리다가 사형당한 실재한 녀성의 모습을 재현한 극작품이다.

녀주인공 마리아나 삐네다는 반전제투쟁에서 희생된 남편의 뒤를 이어 애국투쟁에 적극 나선다. 그는 감옥에 갇힌 애국자를 탈옥시켜 해외로 빼돌리며 그들의 폭동준비를 협조한다. 그러다가 폭동군이 들고나갈 기발에 수를 놓은것이 탄로나 체포된다. 그는 조직의 비밀을 끝까지 지켜 사형장에 끌려나간다.

작품은 녀주인공의 투쟁모습을 통하여 세기적인 봉건적압제를 반대하는 투쟁에 나선 에스빠냐의 애국적녀성들의 전형적형상을 창조하였다.

희곡 《베르나르다 알바의 집》은 어머니 베르나르다의 전횡밑에서 8년간이나 숨막히는 생활을 하고있던 딸들이 폭동을 일으키는 이야기와 부정인물인 베르나르다의 형상을 통하여 사회악과 불의를 예리하게 폭로한 작품이다.

그의 혁신적인 극작품들에는 압제에 대한 증오와 소박한 사람들에 대한 사랑, 사실주의적세부와 랑만주의적열정의 결합, 상징과 비유, 미술 및 음향효과의 도입 등이 특징적으로 나타났다.

그는 프랑꼬도당에 의해 체포되여 파쑈분자들의 손에 총살됨으로써 자기의 존재를 끝마쳤으나 그의 이름은 에스빠냐인민적문화를 위한 투쟁의 기치로 되였다.

8. 북 유 럽 문 학

20세기는 북유럽의 노르웨이, 스웨리예, 핀란드, 단마르크, 이슬란드 5개 나라들의 력사발전에서도 획기적인 전환의 시대로 되였다.

스웨리예에 예속되여있던 노르웨이가 1905년에, 짜리로씨야의 지배밑에 있던 핀란드가 1917년에 독립을 선포하였으며 단마르크의 속령으로 있던 이슬란드가 1918년에 단마르크의 주권밑에서 독립왕국으로 되였다가 1940년에 완전독립을 이룩하여 공화국을 선포하였다.

제2차 세계대전시기 노르웨이와 단마르크가 히틀러도이췰란드에 강점되고 핀란드가 파쑈도이췰란드편에 섰다가 패배하는 등 곡절이 있었으나 이 나라들은 비교적 안정된 상태에서 자본주의발전의 길을 걸었다.

제2차 세계대전후 이 나라들에서도 사회적모순과 정치경제적위기가 심화되였다.

그러나 두차례의 세계대전기간 스웨리예가 중립을 지킴으로써 자본주의적발전에 유리한 조건이 지어졌다. 그리하여 북유럽나라들에서의 자본주의적발전은 유럽의 다른 나라들에 비하여 비교적 순탄하였다. 특히 이 나라들은 《북유럽리사회》(1952)를 구성하고 성원국들사이의 정치, 경제 및 문화적련계를 두터이하면서 국제관계에서 비교적 독자적인 길로 나갔다.

이러한 환경속에서 북유럽문학은 19세기에 이어 20세기에도 적지 않은 성과를 이룩하였다.

20세기 북유럽문학에서는 반동적인 부르죠아문학사조, 류파가 우세하였다.

단마르크에서는 인상주의작가 방그(1857—1912), 상징주의시인 요안쎈(1866—1956)을 비롯하여 자연주의, 카톨릭주의, 기타 여러 류파의 작가들이 활동하였으며 제2차 세계대전후에는 모더니즘의 각종 류파들과 실존주의문학이 류포되였다. 스웨리예에서도 숙명론을 설교한 베리만을 비롯한 부르죠아퇴페주의작가들이 계속 출현하였으며 노르웨이에서는 프로이드주의를 따른 팔바겐(1941—?)과 같은 작가들이, 핀란드에서는 똘스또이주의를 설교해나선 예르네펠트(1861—1932)와 같은 작가들이 득세하였다.

이와는 달리 북유럽의 진보적문학에서는 선행 사실주의문학의 전통을 이은 비판적사실주의문학이 발전하였으며 이름있는 프로레타리아작가들이 출현하고 사회주의적사실주의에 대한 지향이 강화되였다.

20세기 노르웨이비판적사실주의문학에서는 소설문학에서 대표적작가의 한사람으로 알려진 녀류작가 운쎄트(1882—1949)가 3부작장편소설 《라브란스의 딸 크리스틴》(1920—1922)을 내놓았고 보이에르(1872—1959)가 《믿는 힘》(1903), 《혹심한 굶주림》(1916), 《최후의 비킹그》(1921) 등의 장편소설들을 내놓았다. 이 시기 광부들의 비참한 생활을 반영한 팔크베르게트(1879—1967)가 주목을 끌었다.

시문학계에서 일인자는 강한 반파쑈적립장을 반영한 시집 《나는 너를 저주한다》(1934), 《우리모두의 시련》(1945)을 내놓은 외베르란(1889—1968)이며 극문학계에서는 크로그이다.

노르웨이프로레타리아문학에서는 첫 프로레타리아시인 닐쎈이 시집 《돌이 많은 토양에서》에서 도시로동자들의 어려운 생활을 반영했으며 공산당원작가 그리그(1902—1943)가 장편소설 《배는 앞으로 나아간다》(1924)를 비롯한 작품들에서 사람들을 인민의 자유를 위한 적극적인 투쟁에로 호소하였다.

닐쎈과 그리그의 전통을 이어 제2차 세계대전후에 녀류시인 하게루프, 소설가 아르만, 하우간을 비롯한 여러 작가들이 노르웨이문단에서 진보적인 역할을 하였다.

스웨리예비판적사실주의작가들가운데서 대표자는 라게르크 비스트(1891—1974)이다. 그는 시인, 극작가, 소설가로서 인간에 대한 믿음과 반동세력과의 투쟁정신, 반전, 반파쑈사상이 강한 희곡 《교형리》(1933)와 《암흑속에서의 승리》(1939), 장편소설 《바라바스》(1950)를 비롯한 많은 작품들을 내놓았다.

또한 시집 《화로》(1927), 반파쑈주제의 장편소설 《칼로카인》(1941) 등을 쓴 녀류시인 보위에(1900—1941), 파쑈도이췰란드의 침략

을 반대하는 투쟁정신을 담은 시집 《모든 힘을 다하여》(1931)를 내놓은 보 베르이만(1869-1967), 장편소설 《바벨의 집》(1976) 등 예리한 풍자소설들을 창작한 예씰드(1935-), 가장 인기있는 동화작가 린드그렌(1907-?)을 비롯한 여러 작가들이 알려져있다.

스웨리예프로레타리아문학계에서 대표자의 한 사람인 로동자출신 녀류작가 모아 마르틴쏜(1890-1964)은 자서전적성격이 강한 4부작 장편소설 《어머니가 시집간다》(1936), 《결혼》(1938), 《국왕의 장미꽃》(1939), 《나는 시인을 만났다》(1950)에서 도시와 농촌근로자들의 생활을 생동하게 반영하였다. 석공출신의 로동자작가 욘쏜(1900-1976)도 로동청년을 주인공으로 한 련작장편소설 《1914년에 있은 일》(1934), 《여기에 나의 삶이 있다》(1935), 《돌아보지 말라》(1936), 《청춘의 마지막놀음》(1937)을 내놓았다.

핀란드에서는 20세기초에 일부 청년작가들이 애국적인 립장에서 선배들의 업적을 내세우고 미래에 대한 지향과 자기들의 리상을 랑만주의적으로 형상해나섰다. 이들을 신랑만주의작가들로 불렀다. 그 대표자는 시에서 낄삐(1874-1939)와 레이노(1878-1926), 소설에서 린난꼬스끼(1869-1913)이다. 린난꼬스끼의 운문소설《진홍꽃에 대한 노래》(1905)는 당시 가장 인기있는 작품의 하나로 되였다.

제1차 세계대전후 핀란드가 독립(1917)을 이룩하면서 문학에서는 다시 사실주의적경향이 우세해졌다. 핀란드비판적사실주의문학계에서는 농민가정의 비극을 그린 장편소설 《젊어서 죽은 사람》(1931)을 쓴 씰란빠(1888-1964), 력사소설 《에짚트사람 씨누헤》(1945)를 쓴 왈따리(1908-1979) 등이, 프로레타리아문학계에서는 장편소설 《공장의 그늘아래서》(1932)에서 로동자들의 생활과 요구를 반영한 삐까넨(1902-1957), 여러편의 단편소설들과 장편소설들에 로동운동을 반영한 한빠 등 작가들이 활약하였다.

제2차 세계대전후 핀란드문단에서는 자기의 작품들에 력사와 현실을 진실하게 형상하고 민족적독립을 고수해나가려는 인민들의 의사를 반영한 작가들로서 린나(1920-?), 똘리, 린따라 등이 활동하였다. 특히 제2차 세계대전을 취급한 린나의 장편소설 《무명전사》(1954), 3부작장편소설 《여기 북극성밑에서》(1959-1962)가 인기작품으로 되였다. 장편소설 《마닐라제아마로 만든 바줄》(1957)을 쓴 메리(1928-?), 장편소설 《범죄가 있는 곳에는 증인이 있다》(1972)의 작가 쌀라마(1936-?)도 전후에 널리 알려진 작가들이다.

단마르크에서는 20세기 전반기에 다른 북유럽나라들보다 프로레타리아문학이 발전하였다. 그 대표자는 장편소설 《승리자 뻴레》, 《사람의 아들 디테》, 《붉은 모르텐》의 창작으로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넥쇠이다. 또한 반파쑈지하투쟁참가자인 키르크 (1898-1962) 가 농민생활을 반영한 《어민》(1928), 전후시기 파시즘과 새 전쟁 도발자들을 반대하는 단마르크공산당의 투쟁을 반영한 《악마의 돈》(1952)을 비롯하여 여러편의 장편소설들을 내놓았다.

단마르크비판적사실주의문학계에서는 빙하시대이전의 원시적생활로부터 아메리카대륙발견에 이르기까지 북방민족이 걸어온 장구한 문화사적과정을 반영한 규모가 큰 장편소설 《장구한 로정》(전 6권, 1908-1922)을 내놓은 소설가 옌쎈(1873-1950), 파시즘을 예리하게 비판해나섰다가 나치스도당에 의하여 학살된 극작가 문크(1898-1944), 하층인민들의 사랑과 꿈을 반영한 녀류시인이며 소설가인 디트레브쎈(1918-1976), 중편소설 《기수》(1949)의 창작으로 이름을 날린 소설가 브란네르(1903-1966), 《꽃과 검》(1949) 등의 시집에서 현실을 비판해나선 시인 크누쎈(1922-?) 등이 알려져있다.

20세기 이슬란드에서도 로동운동과 민주주의운동, 사회주의운동이 일어나면서 그것을 반영한 작가들이 출현하였다. 그 대표자가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라크스네스이다. 또한 농민출신 작가로서 사회주의의 신봉자가 된 토르다르쏜(1888-1974)이 알려져있다.

20세기 북유럽의 진보적작가들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있는 사람은 프로레타리아작가들인 단마르크의 넥쇠와 이슬란드의 라크스네스이다. 이들의 작품은 근로하는 사람들의 투쟁과 생활을 그린것으로 하여 보다 의의있는것으로 되였다.

넥쇠(1869-1954)는 필명이고 본명은 마르틴 안데르쎈(아네르쎈)이다. 두 이름을 합하여 마르틴 안데르쎈-넥쇠라고도 부르고있다.

넥쇠는 코뻰하븐의 빈민거리에서 가난한 석공의 아들로 태여났다. 그는 머슴살이도 하고 구두 만드는 직공노릇도 하면서 매우 어렵게 살았으며 벗들의 도움으로 겨우 야간고등학교를 나올수 있었다.

그는 한때 소학교 교원으로 있다가 1898년에 첫 단편소설집 《그늘》을 발표한 후 1901년부터 직업적인 작가로 되였다. 장성하는 로동운

동의 영향밑에 일찍부터 로동자들의 사회주의 소조에 참가하여 계급적으로 각성한 그는 자기의 작품들에 근로인민들의 생활을 진실하게 반영하였으며 그들의 지향과 요구를 표현하였다.

그의 초기대표작인 장편소설 《승리자 뻴레》(전 4권, 1906—1910)는 당시 단마르크사회생활에 대한 폭넓은 반영을 통하여 로동운동의 발생과 그 발전과정을 보여주었다.

작가는 두번째 장편소설 《사람의 아들 디테》(전 5권, 1917—1921)에서 모진 역경속에서도 인간의 존엄을 지켜 씩씩하게 살아나가는 가난한 근로녀성의 형상을 통하여 인민대중을 힘있는 존재로 묘사하였다.

그는 10월혁명의 영향밑에 단마르크공산당 창당사업에 참가하였으며 사회주의사상을 선전하는 많은 글을 썼다. 1920—1930년대에 작가는 평화와 민주주의, 사회주의를 옹호하는 적극적인 활동을 벌렸으며 에스빠냐인민들의 반파쑈투쟁을 적극 지원하였다. 이 시기에 그는 농민생활을 반영한 장편소설 《철의 세기》(1929), 근로자들의 생활을 반영한 단편소설집 《검은 새들》(1930), 《밝은 날을 향하여》(1938) 등의 작품들을 발표하였다.

제2차 세계대전시기에 단마르크가 파쑈도이췰란드군에 강점되자 작가는 스웨리예와 이전 쏘련에 망명하여 그곳에서 반파쑈활동을 벌렸으며 1945년에 귀국하였다.

그는 전후시기에 장편소설 《붉은 모르텐》(1944—1948)을 내놓았다. 소설은 제1차 세계대전전야와 대전후의 사변들을 폭넓게 반영하고있으며 사회주의10월혁명의 영향밑에 단마르크의 로동계급과 선진적지식인들속에서 혁명의식이 장성하는 과정을 묘사하고있다. 작가는 소설에서 모순된 자본주의사회의 현실에 불만을 품고 그와 단독으로 맞서던 자연발생적인 반항으로부터 로동계급과 한대오에서 싸우는 투사로 자라난 진보적인 신문기자 모르텐의 형상을 통하여 근로인민대중이 나아갈 길은 자본주의의 길이 아니라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길이라는것을 설득력있게 보여주었다.

작가는 반동당국의 박해를 받아오다가 생애말년을 도이췰란드민주주의공화국에서 보냈다.

단마르크와 국제로동계급의 리익을 적극 옹호해나선 넥쇠의 창작은 단마르크에서 사회주의적사실주의문학의 길을 개척하고 유럽에서 프로레타리아문학을 발전시키는데 이바지하였다.

할도르 낄리안 락스네스(1902—1998)는 레이캬비크부근의 농민가정에서 태여나 독학으로 작가가 된 사람이다. 그는 청년시절에 여러 나라를 려행하였으며 그 과정에 카톨릭교에 대한 신앙심을 가지기도 하고 모더니즘의 영향을 받기도 하였다. 그는 그후 3년동안 미국에서 지내면서 사회주의사상에 공감하였으며 1930년에 귀국하여 이슬란드프로레타리아문학운동의 주요인물로 활동하였다.

작가의 이러한 변화과정을 반영한것이 자서전적장편소설 《까슈미르에서 온 거룩한 직공》(1927) 과 실화작품집 《인민의 책》(1929)이다. 이어 그는 이슬란드로동운동의 발전을 묘사한 장편소설 《쌀까 발까》(1934), 땅과 삶을 위한 고용농민의 투쟁을 형상한 《자립적인 사람들》(1935)을 내놓음으로써 내외에 널리 알려지게 되였다.

그밖에도 작가는 가난한 인민시인의 운명을 이야기한 《이 세상의 빛》(1940), 인민들의 생활을 반영한 3부작장편소설 《이슬란드의 종》(1943), 이슬란드독립의 배신자들을 풍자한 《원자탄기지》(1948), 력사소설 《영웅들에 대한 싸가》(1952) 등 여러편의 장편소설들을 창작하였다.

그의 대표작인 장편소설 《자립적인 사람들》은 온갖 시련과 역경을 뚫고 살길을 억척스럽게 개척해나가는 농민을 형상한 작품이다. 작품의 제목은 이슬란드의 가난한 소자작농들을 념두에 둔것이다.

그들은 그야말로 자그마한 땅에 매여달려 추위와 싸우며 한줌밖에 안되는 수확을 위해 악전고투한다. 그러나 이러한 역경속에서도 그들은 자기들이 그 어떤 지배도 받지 않는 자립적인 자유민이라는 긍지를 가지고있다.

주인공 뱌르뚜르는 자기의 땅을 가지기 위해 18년동안이나 지주에게 고용되여 일하였다.

드디여 그는 자기 소원을 이루어 스말호스라는 자그마한 농장을 손에 넣게 된다. 그러나 병과 그밖의 불행이 겹쌓여 농장은 결국 빚값으로 다른 사람의 손에 넘어가고만다.

그렇지만 주인공은 실망하지 않고 새로운 땅을 찾아 산을 넘어가고 또 간다.

작가는 농민의 형상을 통하여 행복은 저절로 차례지는것이 아니라 모든 고난과 역경을 뚫고 이악하게 투쟁하며 창조해나갈 때 인간적인 생활, 참다운 행복을 누릴수 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소설은 자본주의사회에서는 실현불가능한 리상을 제기하고 그 출로를 밝히지 못한 제한성을 가지고있으나 하층 근로농민을 긍정적으로 형상한것으로 하여 의의있는 작품으로 되였다.

아 메 리 카 편

1. 라틴아메리카문학

라틴아메리카란 서반구의 메히꼬와 중앙아메리카, 남아메리카를 포함한 지역을 말한다.

북쪽끝은 미국과 메히꼬사이의 국경선이며 남쪽끝은 대서양과 태평양사이의 프로와르드갑이다. 라틴아메리카의 면적은 2 100만㎢이며 인구는 4억 2 400만명이상(1988년 당시)이다.

라틴아메리카라는 말은 아이띠, 쟈메이커, 가이아나 등 일부 나라들을 제외한 이 지역의 거의 모든 나라들이 라틴어계통의 에스빠냐어와 뽀르뚜갈어를 쓰는데로부터 유래되였다. 이 말은 19세기에 프랑스에서 먼저 쓰기 시작한것인데 그후 그것이 널리 퍼져 고착되였다.

아메리카주문학에서 라틴아메리카지역을 북아메리카의 카나다, 미국과 갈라 서술하는것은 이 지역 나라들이 오랜 기간의 식민지시기를 거쳤으며 력사와 문화전통, 언어와 주민구성, 풍속, 습관 등에서 많은 공통성을 가지고있는 사정과 관련된다.

력사적으로 라틴아메리카는 15세기말～16세기초에 유럽식민주의자들이 침입하기 시작하면서 수난의 길을 걷지 않으면 안되였다.

1492년 10월 꼴룸부스가 에스빠냐녀왕의 후원밑에 3척의 배에 88명의 선원들을 이끌고 에스빠냐를 떠나 71일만에 바하마제도에 이르러 처음으로 발견한 섬을 쌘쌜버도섬이라고 이름지었다. 그는 그후 3차례(1493－1504)에 걸친 탐험을 통하여 꾸바, 아이띠, 쟈메이커, 안띨제도의 여러 섬들, 베네수엘라의 오리노꼬강 하구, 온두라스, 빠나마 등 지역들에 도달하였다. 꼴룸부스가 발견한 이 지역들은 후에 에스빠냐식민지로 되였다.

한편 뽀르뚜갈인인 까브랄은 1500년 4월 브라질에 이르렀는데 그후 브라질은 뽀르뚜갈령으로 되였다.

에스빠냐와 뽀르뚜갈식민주의자들은 16세기초에 브라질을, 1521년에 메히꼬를, 1531년에 뻬루를 정복하였으며 련이어 아르헨띠나, 우루과이, 빠라과이 등을 강점하였다. 그리하여 16세기 중엽까지 거의 모든 지역이 에스빠냐와 뽀르뚜갈의 식민지로 되였다.

강점자들은 원주민인 인디안들을 대량학살하는 한편 광산개발, 농장, 도시건설에 내몰았으며 그들이 축적한 재부를 닥치는대로 파괴, 략탈하였다. 인디안박멸정책으로 로동력이 모자라게 되자 그들은 멀리 아프리카에서 흑인노예들을 대대적으로 끌어들였다. 에스빠냐와 뽀르뚜갈, 기타 유럽나라들에서 건너온 가난한 백인이주민들도 식민주의자들의 착취와 압박의 대상으로 되였다.

그리하여 원주민인 인디안들, 아프리카에서 끌려온 흑인들과 함께 백인이주민들과 그들의 후손들속에서 식민주의자들의 압제에서 벗어나 독립을 이룩하려는 기운이 날로 높아졌다. 18세기말～19세기초에 이르러 식민지예속에서 벗어나기 위한 인민들의 독립운동은 더욱 고조되여 전 대륙을 휩쓸었다. 특히 1824년 12월 9일 뻬루의 독립군을 인솔한 볼리바르의 지휘밑에 에스빠냐침략군을 전멸시킨 아야꾸쵸전투승리를 계기로 300여년간에 걸치는 식민지통치가 전면적으로 허물어졌다. 그 결과 1810년부터 1826년사이에 18개 나라가 독립하였다.

그러나 라틴아메리카지역은 제1차 세계대전이후에 미제국주의자들의 탐욕과 략탈의 대상으로 되였으며 제2차 세계대전후에는 이 지역 나라들에 대한 미제의 정치, 경제, 군사적침투가 더욱 강화되였다. 미제는 이 지역에 대한 독점자본

의 투자를 급격히 늘여 주요경제명맥을 틀어쥐고 불평등한 무역을 통하여 막대한 리윤을 짜냈다.

라틴아메리카지역인민들은 반제자주의 기치밑에 나라의 자주적발전을 이룩하며 민족적리익과 존엄을 지키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렸다.

이 오랜 력사적기간에 라틴아메리카의 주민구성은 매우 복잡해졌다. 원주민인 인디안들, 아프리카흑인들, 백인이주민들, 그들의 후손들과 함께 혼혈인이 많아져 이 지역에는 혼혈인이 주민의 기본을 이루는 나라들이 적지 않다. 인디안과 백인사이의 혼혈인을 《메티스》, 흑인과 백인사이의 혼혈인을 《물라트》, 인디안과 흑인사이의 혼혈인을 《쌈보》 또는 《카푸쏘》, 토착백인을 《크레올》이라고 부른다. 뻬루, 꼴롬비아, 메히꼬, 과떼말라 등의 나라들은 인디안과 메티스가 주민의 대다수를 이루고있다. 쟈메이커와 아이띠에서는 흑인이 압도적비중을 차지한다.

이러한 복잡한 주민구성으로부터 그들이 창조한 문화는 인디안문화, 아프리카흑인문화, 크레올문화의 3대문화가 혼합되여 점차 라틴아메리카적인 특색을 가진 독자적인 민족문화로 형성, 발전하였다.

라틴아메리카문학창조의 수단으로 되고있는 언어도 복잡한 양상을 띠고있다. 언어는 브라질(뽀르뚜갈어), 아이띠(프랑스어), 가이아나(영어) 등 일부 나라를 제외하고는 모두 에스빠냐어를 공용어로 하고있다. 그러나 볼리비아, 과떼말라 등 인디안이 많은 나라들에서는 에스빠냐어를 모르는 사람들이 적지 않으며 자기들의 고유한 인디안어를 쓰는 사람들이 많다. 에꽈도르로부터 뻬루의 남부에 이르는 지방과 볼리비아 남부지방의 주민들은 께추아어를 사용하고있으며 띠띠까까호주변에 퍼져사는 주민들은 아이마라어를 쓰고있다.

라틴아메리카의 첫 민족문학유산은 원주민인 인디안들이 창조한 신화, 전설, 구전문학작품들과 일부 남아있는 서사문학작품들이다.

인디안들이 만든 신화나 전설, 구전문학작품들에 들어있는 환상적인 이야기들은 당시 사람들의 사회적의식수준과 그들의 지향과 념원을 반영하고있다. 옛날 인디안들은 자기들이 바라고 요구하는것을 현실에서는 실현할수 없었기때문에 그것을 환상적인 이야기로 표현하였다. 인디안들의 신화와 전설들가운데는 사물현상의 발생과 그 변화발전의 리치를 인식하고 해설해보려는 옛 사람들의 지향과 요구를 반영한것이 많다. 인디안들의 신화와 전설은 그것이 나온 시기의 사회현실과 여러가지 력사적사건, 사실을 옳게 해명하는데서 귀중한 자료로 되고있다.

그 례의 하나로 인까족의 신화 《아이야르의 네 형제에 대한 이야기》를 들수 있다.

아뿌리마끄골짜기에 신기한 동굴이 있었다.

동굴에서 인까족의 시조인 아이야르의 네 형제(까치, 만꼬, 우추, 아우까)가 태여났다.

끌끌한 사나이로 성장한 후 그들은 신의 계시에 따라 인까국가의 수도를 건설할 자리를 물색하러 길을 떠난다.

네 형제중에서 가장 힘세고 날랜것은 맏이 까치였다. 맏형의 힘과 날랜 솜씨를 질투한 세 동생은 수를 써서 그를 본래의 동굴안으로 유인한 다음 그 입구를 막아버린다.

려행길을 계속하던 세 동생들은 인간의 얼굴을 가진 큰 새와 맞다든다. 그 새는 맏형 까치가 변신한것이였다. 그는 자기를 속여 동굴에 가둔 동생들을 위협하면서 비록 동생들이 자기를 모욕했지만 용서해주고 앞으로 그들의 비호자가 되겠다고 말한다.

려행과정에 우추는 돌로 변해버리고 만꼬와 아우까가 꾸스꼬골짜기에 이르러 도시를 건설한다. 2년후에 아우까가 사망한 다음 아이야르 만꼬가 도시의 유일한 통치자가 되며 그후 인까왕국을 세운다.

이 신화는 고대께추아족들이 분렬되여 서로 세력다툼하다가 드디여 인까를 왕으로 한 께추아종족동맹을 형성한 력사적사실에 기초하여 창조된것으로서 만꼬를 시조로 하는 인까족의 형성과 관련한 귀중한 자료로 되고있다.

인디안들은 일부 서사문학유산도 남겼다.

마야족은 B.C. 4～3세기경부터 상형글자를 만들어썼는데 그들이 만든 수사본 네 책이 전승되고있다.

그가운데서도 《뽀뽈 부흐》가 널리 알려져있다. 상형글자로 쓰인 이 책은 1550년에 라틴글자로 번역출판됨으로써 유럽나라들에까지 알려졌다. 과떼말라의 마야—끼체족의 신화와 전설, 년대기들을 묶은 작품에는 천지조화와 신화적주인공들의 위훈에 대한 이야기, 본래 살던 고장을 떠나 방랑하다가 과떼말라 서북부에 당도하여 그곳에 자기들의 국가를 창건한 이야기 등 풍부한 자료들이 담겨져있다.

또한 16세기에 라틴글자로 옮겨진 《칠람—발람》(예언자 발람의 책), 10～11세기경에 창작된것으로 보고있는(18세기의 사본이 전해져있다.) 시 《이쯔에 대한 노래》(이쯔는 도시명), 19세기에 수사본으로 발견된 극작품 《라비날—아치》(주인공이름) 등이 전해지고있다.

문헌기록에 의하면 아즈떼끄족도 신화, 전설, 년대기들을 만들고 보존해왔는데 에스빠냐의 침략을 받은 15세기에 통치자 이쯔꼬아뜰의 명령으로 정복자들의 손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모조리 소각하였다고 한다.

이 몇가지 자료만 가지고도 라틴아메리카의 첫 문학유산의 창조자는 이 대륙의 당당한 주인이며 원주민인 인디안들이며 그들이 창조한 문학작품들이야말로 라틴아메리카지역의 첫 문학유산으로 된다는것을 확증할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라틴아메리카와 유럽 및 아시아의 일부 나라들에서 나온 라틴아메리카문학과 관련한 책들에서는 라틴아메리카의 첫 문학유산을 유럽침략자들이 라틴아메리카에 대하여 쓴 최초의 글들로 서술하고있다.

그 책들은 우선 라틴아메리카의 첫 산문문학유산을 라틴아메리카대륙의 발견과 정복에 참가한 탐험가, 정복자, 성직자들의 일기, 기록, 보고, 서한, 력사책 등에서 찾고있다.

그 주되는것을 들면 에스빠냐사람들인 라스 까싸스의 수사본에 의한 《꼴룸부스항해지》, 꼬르떼스의 《다섯가지 보고서》(1519—1529), 삐싸로의 서기 프란씨스꼬 데 헤레즈가 쓴 《새 까스띨리야로 불리운 뻬루와 꾸스꼬지방 정복이야기》(1535), 라스 까싸스의 《인디아스파괴에 대한 간결한 보고》(1552), 베르나르 디아스 델 까스띨료의 《새 에스빠냐정복정사》(1552) 등이다.

그 책들은 또한 라틴아메리카의 첫 시문학유산으로 에스빠냐시인 알론쏘 데 에르씰리야 이 쑤니가의 서사시 《라 아라우까나》(1569—1589)를 들면서 그것을 라틴아메리카문학사상 최초의 서사시로 기록하고있다.

라틴아메리카의 첫 문학유산을 이렇게 보는것은 민족자주적립장에 서지 못한 사대주의적이고 허무주의적인 견해이며 유럽중심적인 립장에서 문제를 고찰한 부당한 견해이다.

민족문화유산이란 민족의 선행세대들이 력사적으로 내려오면서 창조하여 후세에 물려주는 정신적 및 물질적재부이다. 따라서 꼬르떼스를 비롯한 침략자, 략탈자, 식민주의자들이 민족의 선행세대로 될수 없으며 침략자, 식민주의자의 립장에서 라틴아메리카에 대하여 소개하고 제놈들의 침략전쟁공로를 본국에 보고한 그들의 문학아닌 글들이 결코 라틴아메리카의 민족문학유산으로 될수 없는것이다.

인디안들은 자체의 민족문학유산의 창조자들이였지만 그들이 창조한 유산은 식민주의자들에 의하여 모조리 파괴, 소각, 말살당하였다. 하여 그들은 자기의 민족문학유산을 계승발전시켜나갈수 없었다.

라틴아메리카문학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이러한 상식들을 알아야 한다.

이 책에서는 라틴아메리카문학의 시기구분을 크게 두 시기 즉 16—19세기 문학과 20세기 문학으로 가르고 시기별, 나라별, 지역별 개관과 작가론을 배합하는 체계로 서술하였다.

자료가 부족한 사정으로 하여 개별적나라문학은 꾸바문학, 메히꼬문학, 브라질문학만 취급하고 기타 나라들은 중앙아메리카 및 까리브지역문학, 그밖의 남아메리카문학으로 묶어 서술하였으며 20세기 문학의 포괄시기는 1960년대까지를 위주로 하였다.

1. 16-19세기 라틴아메리카문학

1) 식민지통치를 반대하는 투쟁과 밀착된 라틴아메리카문학

16세기부터 19세기까지의 라틴아메리카문학의 발전과정을 16－18세기와 19세기의 두 시기로 나누어 고찰한다.

16－18세기 라틴아메리카문학

시대적배경 라틴아메리카는 원주민들인 인디안들의 오랜 력사를 가지고있는 대륙이다.

원래 이 대륙에는 인디안종족들이 살고있었는데 그들은 오래전부터 독자적인 문화를 창조하여왔다.

남아메리카에서는 안데스지역(뻬루, 에꽈도르, 볼리비아 등)에 수많은 인디안종족들이 자기들의 고유한 문화를 창조하며 살고있었다. 이 지역에서는 오래전부터 띠띠까까호주변에서 발생한 챠와나꼬문화, 뻬루의 서부산악지대의 챠빈문화로부터 15세기의 인까문화에 이르는 여러 인디안문화가 발전하였다.

그중에서도 인까문화는 당시 남아메리카에서 가장 발전되여있었다. 인까사람들은 15세기 중엽에 여러 종족들을 정복하고 꼴롬비아로부터 아르헨띠나와 칠레에 이르는 넓은 령토를 차지하는 통일적인 인까국가(수도 꾸스꼬)를 세웠다. 이 시기 인까국가는 약 1 000만명의 인구와 20만의 군대를 가지고있었으며 자기 발전에서 전성기를 이루고있었다. 그들은 선행문화를 계승하면서도 새로운 인까문화를 발전시켰는데 금, 은, 동, 주석을 쓸줄 알고 천도 짜고 도자기도 만들었으며 인공적인 관개체계를 가지고 농사를 지었다.

중앙아메리카에서는 마야—아즈떼끄문화가 개화하였다.

마야족은 3세기경부터 6세기에 걸쳐 메히꼬와 그 린접지역의 밀림속에 많은 도시들을 건설하고 상당히 높은 수준의 문화를 창조하였다.

그들은 일종의 상형문자체계를 만들어냈고 1년을 365일로 나누는 태양력서를 가지고있었으며 그리스사람들보다 훨씬 앞서 수학에서 이미 령(0)을 사용하고있었다. 그들은 또한 강냉이, 코코아농사를 짓고 목화를 심어 천도 짰다.

그후 북으로부터 남쪽으로 내려온 아즈떼끄족이 14세기 후반기에 호수우의 섬이였던 현재의 메히꼬시자리에 수도를 정하고 그곳을 중심으로 강대한 아즈떼끄국가를 세웠다. 그들은 마야문화를 비롯한 선행문화유산들을 계승하여 더욱 발전시켰는데 건축술에 능하고 금, 은세공술이 높았으며 야생식물에서 여러종의 농작물을 키워내기도 하였다.

《안데스문화》라고 불리우는 남아메리카의 인까문화와 중앙아메리카의 마야—아즈떼끄문화는 5세기이전 아메리카주에서 가장 발전한 2대문화였다.

오늘까지 남아있는 인디안시대의 유물들은 라틴아메리카의 원주민들이 벌써 오래전에 상당히 높은 수준의 문화를 창조하였다는것을 실증해준다. 대표적유적의 하나인 메히꼬시의 동북쪽 45㎞지점에 있는 떼오띠우아깐유적(도시유적)은 넓이가 18㎢에 달하며 그 중앙에 솟은 정방형의 《태양의 피라미드》(높이 60m, 밑면의 길이 224m)는 에짚트의 피라미드와 비길만 한것이다. 아메리카대륙에서 강냉이, 감자, 담배, 코코아 등을 처음 재배하기 시작한것도 인디안들이였다.

그러나 인디안들이 창조한 문화는 16세기초부터 이 대륙에 침입하기 시작한 유럽식민주의자들에 의하여 무참히 파괴되고말았다. 이때로부터 라틴아메리카원주민들의 불행과 고통의 력사가 시작되였으며 라틴아메리카의 사회발전은 심히 억제당하게 되였다.

15세기말에 꼴룸부스에 의하여 당시까지 유럽인들에게 알려지지 않고있던 아메리카대륙이 새

로 발견된 이후부터 유럽식민주의자들이 이 지역에 물밀듯이 밀려들기 시작하였다.

에스빠냐침략자들은 1519—1521년에 꼬르떼스를 우두머리로 하는 군대를 중앙아메리카에 파견하여 메히꼬를 정복한데 뒤이어 1533년에는 삐싸로를 우두머리로 하는 군대를 남아메리카에 들이밀어 뻬루를 정복하였으며 그후 아르헨띠나, 빠라과이 등 지역을 강점하였다. 이 시기 브라질만은 뽀르뚜갈식민주의자들에게 강점당하였다. 그리하여 16세기 중엽에 이르러서는 라틴아메리카의 모든 지역이 유럽침략자들의 식민지로 전락되였다.

라틴아메리카식민지에 대한 에스빠냐와 유럽식민주의자들의 침략과 략탈정책은 참으로 악랄하였다. 침략자들은 가혹한 식민지통치를 실시하면서 원주민들을 착취하고 이 지역의 풍부한 지하자원과 농산물을 략탈하기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

식민주의자들은 인디안들을 잔인하게 학살하고 그들이 수백년을 내려오면서 축적해온 금, 은을 비롯한 재부들을 닥치는대로 빼앗아갔으며 인디안들을 잡아다가 광산개발과 농장 및 도시건설 등 혹독한 고역에 내몰았다. 가혹한 노예로동과 대량학살로 하여 원주민들의 수는 급격히 줄어들었다. 15세기초에 3 000만～4 000만에 달했던 인디안들의 수가 1800년에 와서는 530만으로 줄어들었다는 사실 하나만 가지고도 유럽침략자들의 식민지략탈이 얼마나 야만적이였는가 하는것을 잘알수 있다. 이렇게 되여 광산과 농장들에서 일손이 모자라게 되자 식민주의자들은 아프리카로부터 흑인노예들을 대량적으로 끌어들여 그들에게 노예로동을 강요하였다.

실로 식민지시기 라틴아메리카의 력사는 유럽식민주의자들의 범죄적인 학살만행과 야만적인 략탈의 력사였다.

침략과 략탈, 착취와 압박이 있는 곳에는 그를 반대하는 투쟁과 반항이 있는 법이다. 라틴아메리카에 대한 유럽식민주의자들의 야만적인 침략과 략탈은 그 첫 시기부터 강력한 반항에 부딪치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용감한 라틴아메리카인민들은 에스빠냐침략자들이 라틴아메리카에 침략의 발길을 들여놓은 첫날부터 손에 무장을 들고 침략자들을 반대하여 줄기찬 투쟁을 벌렸으며 마침내 에스빠냐침략자들을 라틴아메리카에서 몰아내고 독립을 이룩하였습니다.》

라틴아메리카인민들은 식민주의자들이 침략의 마수를 뻗친 첫날부터 손에 무장을 들고 여러 지역에서 줄기찬 투쟁을 벌렸다.

1519년에 메히꼬땅에 침략의 발길을 들여놓은 에스빠냐의 꼬르떼스부대가 아즈떼끄국가의 수도를 포위하였을 때 인디안들은 추장 꽈우떼모끄의 지휘밑에 풀뿌리를 먹으면서 무려 75일간이나 수도를 지켜싸웠다.

식민지노예의 처지에서 벗어나기 위한 라틴아메리카인민들의 해방투쟁은 300여년의 식민지전기간에 끊임없이 계속되였다.

그 대표적인 실례로 18세기 80년대 뻬루에서 일어난 인디안폭동과 19세기초 메히꼬에서 일어난 대중적농민폭동을 들수 있다.

1780—1781년에 인디안공동체의 장로뚜빠끄아마르의 지도밑에 폭동을 일으킨 6만명의 뻬루인디안들은 폭동지역을 몇달동안이나 통제하면서 옛 인까국가의 수도 꾸스꼬까지 진격해감으로써 에스빠냐식민주의자들의 간담을 서늘케 하였다.

이 폭동들은 비록 실패하였으나 라틴아메리카인민들은 죽지 않고 살아있으며 침략자들에게 굴하지 않고있다는것을 보여주었다.

이 시기 식민지적, 봉건적예속을 반대하며 자주성을 옹호하기 위한 라틴아메리카인민들의 투쟁은 사회발전의 기본동력으로 되였다.

문학유산

라틴아메리카는 민족들이 형성되기 전에 에스빠냐와 뽀르뚜갈 등의 식민지로 되였다. 이러한 사정으로 인하여 식민지시기 라틴아메리카에서는 독자적인 민족문학이 형성되지 못하였다.

식민지시기 라틴아메리카에는 아직 민족과 국가가 형성되지 못하여 부왕령(에스빠냐국왕을 대리하는 부왕이 통치하는 지역)과 총독령 등 몇개 지역으로 구분된 에스빠냐의 식민지들과 뽀르뚜갈식민지 브라질이 있었을뿐이였다. (브라질을 제외한 라틴아메리카의 대부분의 지역을 강점한 에스빠냐침략자들은 자기들이 차지한 전체 지역을 새 에스빠냐, 새 그라나다, 뻬루, 라쁠라따 등 4개의 부왕령과 몇개의 총독령으로 나누어 식

민지통치를 실시하였다.)

식민지들에서의 문학창작사업은 매우 느리고 산만하게 진행되였다. 에스빠냐와 뽀르뚜갈식민지들에는 오래동안 학교나 출판사, 인쇄소가 없었으므로 신문, 잡지, 도서들이 발간되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간혹 문학작품이 창작된 경우에도 그것을 발표할 수단이 없었으므로 수사본으로 만들거나 에스빠냐나 뽀르뚜갈에 가져다 인쇄하여야 하였다. 식민지들에서 출판사업이 시작되고 작가그루빠가 출현하기 시작한것은 18세기 후반기부터였다.

그리하여 식민지시기에 라틴아메리카에서 부분적으로 창작된 서사문학은 일부 특권층의 독점물이 되고 인민대중은 서사생활에서 완전히 제외되였다. 그러나 그들은 구전창작을 통하여 창작적재능을 발전시켰으며 자기들의 생활과 처지, 희망과 념원을 표현하였다. 지금까지 일부 전승되여온 식민지시기 인디안과 흑인, 크레올, 혼혈인들의 구전민요와 구전설화, 구전서사시들이 그것을 실증해주고있다.

한편 이 시기 진보적문학은 일부 선각적인 지식인들에 의하여서도 창작되였다. 식민지에서 자라난 지식인들중에서 일부 부르죠아계몽사상을 가지고 반봉건적립장을 취하였거나 식민주의자들의 악정에 불만을 품고 독립을 지향한 진보적지식인들은 자기들이 창작한 작품들에서 식민지사회현실의 불합리성을 일정하게 비판해나섰다.

16—17세기에 활동한 뻬루의 메티스인 인까 가르씰라쏘 델 라 베가와 메히꼬의 크레올녀류시인 이네스 델 라 끄루스, 18세기의 꾸바시인 씰베스뜨르 발보아와 브라질시인 또마스 안또니오 곤자가 등이 그 대표적작가들이다.

라틴아메리카나라들에서 민족문학이 형성되고 발전하기 시작한것은 라틴아메리카문학발전의 다음단계인 19세기, 특히 독립이후시기부터이다.

19세기 라틴아메리카문학

시대적배경

유럽침략자들의 식민지통치 전기간에 걸쳐 줄기차게 벌어졌던 라틴아메리카인민들의 해방투쟁은 18세기말～19세기초에 이르러 더욱 앙양되였으며 독립운동은 라틴아메리카 전지역을 휩쓸게 되였다.

1790—1803년에 프랑스식민지였던 아이띠에서 흑인노예폭동이 폭발한데 이어 19세기초에는 메히꼬, 아르헨띠나, 브라질을 비롯한 에스빠냐와 뽀르뚜갈의 모든 식민지들에서 독립운동이 세차게 일어났다. 독립운동의 기운이 더욱 높아지는 가운데 1810—1826년독립전쟁이 벌어졌다.

라틴아메리카인민들은 1810년 에스빠냐가 나뽈레옹군의 침략을 받아 패망의 위기에 빠져 식민지에 대한 통제가 약화된 유리한 조건을 리용하여 독립전쟁을 일으켰다. 독립전쟁 초기에 라틴아메리카인민들은 까라까스, 부에노스아이레스, 보고따, 끼또, 싼띠아고 등 주요지역들에서 에스빠냐의 통치를 뒤집어엎고 일시 정권을 잡는데 성공하였다. 그러나 아직 그 힘이 미약했던것으로 하여 에스빠냐식민주의자들의 새로운 공세를 막아내지 못하여 1815년에 거의 모든 지역들에서 식민지통치가 복귀되였다.

이에 대처하여 1816년 베네수엘라에서 볼리바르의 지도밑에 에스빠냐식민주의자들을 반대하는 새로운 폭동이 시작되였으며 이것을 계기로 하여 독립전쟁의 새로운 단계가 시작되였다.

새 그라나다와 뻬루부왕령에서 처음으로 독립을 쟁취한것은 베네수엘라였다. 볼리바르의 지휘밑에 이 지역 인민들은 1821년에 안데스산줄기를 넘어 새 그라나다를 해방하였으며 련이어 그 이듬해 끼또를 해방하여 지금의 베네수엘라, 꼴롬비아, 에꽈도르를 포함하는 대꼴롬비아련방공화국을 수립하였다.(그후 이 세 나라가 각각 분리되여 독립국가를 이루었다.)

한편 당시 라쁠라따부왕령을 해방하고 1816년에 독립을 선포한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출발한 싼 마르띤이 지휘하는 독립군은 그 이듬해 안데스산줄기를 넘어 칠레로 진격하여 그곳을 해방하였으며 1821년에 다시 바다를 통해 에스빠냐식민지의 본거지였던 뻬루로 진격하여 남부 뻬루를 해방하였다. 바로 그해에 메히꼬에서도 에스빠냐의 식민지통치가 무너졌다.

남아메리카에서 에스빠냐의 식민지통치를 끝장내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것은 아야꾸쵸전투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볼리바르의 지도밑에 라틴아메리카인민들이 1824년 12월 9일에 진행한 아야꾸쵸전투는 남아메리카에 대한 에스빠냐식민주의자들의

300년동안의 지배를 종식시키는 력사적인 전투였습니다. 아야꾸쵸전투의 승리는 라틴아메리카인민은 죽지 않고 살아있으며 인민들이 단결하여 투쟁에 일떠서면 어떠한 침략자라도 능히 때려부실수 있다는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에스빠냐식민지의 대다수지역에서 독립을 쟁취한 라틴아메리카인민들은 에스빠냐식민주의자들을 철저히 몰아내기 위한 투쟁을 계속 힘있게 밀고나갔다. 당시 라틴아메리카독립전쟁의 지도자의 한사람이였던 볼리바르는 싼 마르띤과 회담하여 련합군을 형성하는데 합의하였다.

그리하여 1824년 12월 련합군은 아야꾸쵸(북부뻬루)평원에서 남아메리카에서의 에스빠냐침략군대의 마지막세력을 짓부시기 위한 전투를 벌려 승리함으로써 마침내 남아메리카에 대한 에스빠냐식민주의자들의 300년동안의 지배를 끝장냈다. 이처럼 아야꾸쵸전투는 라틴아메리카인민은 죽지 않고 살아있으며 단결하여 투쟁하면 어떠한 침략자라도 능히 때려부실수 있다는것을 보여준 력사적인 전투였다.

독립전쟁이 승리한 결과 라틴아메리카의 많은 나라들이 독립을 이룩하였다. 에스빠냐식민지들이 독립하여 18개의 나라로 되였으며 뽀르뚜갈식민지였던 브라질도 1822년에 독립하였다. 라틴아메리카나라들의 독립은 유럽침략자들을 반대하여 라틴아메리카인민들이 벌린 장기간에 걸친 해방투쟁의 결실이였으며 그들이 이룩한 자랑찬 승리였다.

그러나 라틴아메리카인민들의 피어린 투쟁에 의하여 달성된 독립은 소수의 크레올특권층에게 넘어갔으며 광범한 인민대중, 특히 인디안과 흑인, 혼혈인들은 국내 착취계급의 새로운 착취와 압박을 받게 되였다.

식민주의자들을 대신하여 새로운 지배자로 등장한 크레올독재자들과 대토지소유자들은 근로대중에 대한 착취와 압박을 강화하는데 급급하면서 아무런 사회경제적개혁도 실시하지 않았다. 그리하여 비록 독립은 이룩하였으나 라틴아메리카의 많은 나라들에서는 반동적인 독재제도가 수립되고 식민지시기의 봉건적인 대토지소유제가 그대로 남아있게 되였으며 인민대중은 여전히 불행과 고통속에서 헤매이게 되였다.

한편 독립후 라틴아메리카나라들에서는 지배층들속에서 정권쟁탈전이 빈번하게 벌어졌다. 통치배들내부의 정권싸움으로 정변이 그칠새 없었으며 정치, 경제, 사회생활에서 혼란과 무질서가 계속되였다.

이런 형편에서 독립후에도 라틴아메리카나라들은 자주적으로 발전하지 못하였으며 제국주의자들의 정치경제적침투를 막아내지 못하고 점차 제국주의렬강들에게 예속되게 되였다.

이러한 복잡한 사회력사적환경속에서 19세기 라틴아메리카나라들에서는 민족문학이 형성되고 발전하기 시작하였다.

문학유산 독립후 라틴아메리카에서 발생한 첫 문학사조는 랑만주의였다.

라틴아메리카나라들에서 랑만주의는 19세기 30년대에 발생하여 70년대까지 지배적인 사조로 되였으며 일부 나라들에서는 80년대까지 계속되였다.

라틴아메리카의 랑만주의문학은 1810—1826년 독립전쟁의 결과와 독립후에 조성된 현실에 대한 각이한 사회계급과 계층들의 태도와 불만을 반영하여 발생하였다. 라틴아메리카는 독립후 정치, 경제분야에서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못하여 인민들의 처지도 달라진것이 없었다.

이러한 현실에 불만을 가진 작가들은 리상과 현실간의 모순에 기초하여 자기들의 리상에 맞는 인간이나 생활을 랑만주의적으로 그려냄으로써 그것을 당대 현실에 대치시키려고 하였다. 랑만주의는 당시 라틴아메리카나라들의 안정되지 못한 복잡한 사회현실을 예술적으로 반영하는데 알맞는 창작방법이기도 하였다.

그리하여 라틴아메리카에서 랑만주의는 발생후 급속히 발전하게 되였으며 유럽에서 랑만주의가 쇠퇴한 19세기 30년대이후에도 오래동안 계속되였다.

라틴아메리카에서 발생한 랑만주의는 작가들의 계급적립장과 사회미학적리상에 따라 진보적랑만주의와 보수적, 반동적랑만주의로 갈라졌으며 이것들은 서로 대립침투하면서 복잡한 양상을 띠였다.

라틴아메리카의 진보적랑만주의문학은 시문학과 소설문학에서 나타났다.

라틴아메리카랑만주의시문학의 대표적시인들로 꾸바의 호쎄 마리아 에레디아, 아르헨띠나의 에스떼반 에체베리아, 에꽈도르의 후안 몬

딸보, 우루과이의 싼 마르띤, 브라질의 까스뜨로 알베스 등을 들수 있다.

그들이 창작한 작품들가운데서 서사시 《녀자포로》(에체베리아, 1837)와 《따바레》(싼 마르띤, 1886), 시집 《노예들》(까스뜨로 알베스, 1873)을 비롯한 많은 작품들이 잘 알려져있다.

랑만주의소설가로 널리 알려진것은 꾸바의 씨릴로 빌랴베르데, 메히꼬의 마누엘 알따미라노, 도미니까의 마누엘 데 헤쑤스 갈반, 꼴롬비아의 호쎄 이싸악스, 아르헨띠나의 호쎄 마르몰, 에꽈도르의 후안 레온 메라 등이다.

이 작가들에 의하여 라틴아메리카의 이름난 랑만주의장편소설들인 《쎄씰리아 발데스》(빌랴베르데, 1839—1882), 《아말리아》(마르몰, 1855), 《마리아》(이싸악스, 1867), 《끌레멘씨아》(알따미라노, 1869), 《꾸만다》(레온 메라, 1879)와 같은 작품들이 창작되였다.

메히꼬의 《끌레멘씨아》를 제외한 이 모든 작품들은 모두 첫 장편소설들로서 해당 나라 민족소설발전에서 중요한 역할을 놀았다.

라틴아메리카 진보적랑만주의문학작품들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것은 침략자들과 압제자들을 반대하는 인민들의 투쟁을 반영한 작품들이다. 그것은 독립후 라틴아메리카인민들의 자주성을 옹호하기 위한 투쟁에서 기본문제가 바로 유럽식민주의자들을 대신하여 새로운 지배자로 등장한 국내반동통치배들의 압제와 이 지역에 또다시 침략의 마수를 뻗친 외래침략자들을 반대하는 투쟁이였기때문이였다. 라틴아메리카인민들은 자기들의 자주성을 유린하려는 이 새로운 압제자들과 침략자들을 반대하여 싸웠다.

이로부터 많은 작가들은 이 투쟁을 반영하는데 힘을 넣었으며 비록 추상적이긴 하나 자유와 해방을 위한 투쟁에로 인민들을 호소하고 그 승리에 대한 신념을 보여주었다.

시문학에서 이러한 특성을 보다 잘 보여준것은 브라질시인 까스뜨로 알베스였다. 그는 서사시 《아프리카의 신음소리》(1865)와 《노예선》(1869), 시집 《노예들》을 비롯한 많은 작품들에서 봉건군주제도를 예리하게 폭로비판하고 공화주의사상과 흑인노예해방사상을 힘있게 제기하였다.

소설작품들가운데서는 아르헨띠나의 《아말리아》, 메히꼬의 《끌레멘씨아》와 같은 장편소설들이 이러한 특성을 잘 반영하였다.

라틴아메리카랑만주의문학이 창조한 작품들가운데는 또한 원주민들인 인디안들의 생활과 력사를 반영한 작품들(인디헤니스모문학), 이 지역의 민족생활, 특히 세태풍속묘사에 힘을 넣은 작품들(꼬스뚬브리스모문학), 대초원에서 목축업에 종사하는 가우쵸(목동)들의 생활에 초점을 돌린 작품들(가우쵸문학)이 있다.

《인디헤니스모》(또는 《인디안이즘》)는 원주민들인 인디안들에게 관심을 돌리고 그들의 력사와 생활을 그리려고 애쓴 작가들의 창작경향 또는 그 류파를 두고 부른 말이다.

이 시기에 지난날 인디안들의 력사와 전통에 관심을 돌리고 용감하고 슬기로운 인디안들의 형상을 창조한 작품들이 나오게 됨으로써 인디안의 운명에 대한 사회적관심과 라틴아메리카의 민족생활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데서 의의를 가지게 되였다.

메히꼬에서 나온 작가미상의 장편소설 《히꼬뗀까뜰》(1827)과 꾸바시인 쁠라씨도의 시 《히꼬뗀까뜰》, 브라질작가 알렌까르의 장편소설 《과라니족》(1857), 에꽈도르작가 레온 메라의 장편소설 《꾸만다》, 도미니까작가 갈반의 장편소설 《엔리끼리오》(1879), 우루과이시인 싼 마르띤의 서사시 《따바레》(1886) 등 작품들이 그 대표적인것이다.

꼬스뚬브리스모는 19세기 30~40년대에 발생하여 오래동안 지속된 라틴아메리카랑만주의문학류파의 하나이다. 이 명칭은 《꼬스뚬브레스》(풍속)라는 에스빠냐어에서 나왔으며 흔히 세태풍속파로 불리우고있다.

19세기 20년대에 라틴아메리카인민들의 독립전쟁이 승리하고 이 지역에 대한 에스빠냐와 뽀르뚜갈의 식민지통치가 끝장난 후 작가들속에서 세태풍속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일반적으로 라틴아메리카의 생활문화는 원주민인 인디안과 아프리카흑인, 유럽계백인들의 생활과 문화적요소가 점차 융합되면서 하나로 형성된것이다. 꼬스뚬브리스모문학은 이 지역에서 독특하게 형성된 이러한 세태풍속을 구체적으로 반영함으로써 라틴아메리카 특유의 민족적색갈을 진하게 나타냈다.

이 문학은 특히 부패한 부르죠아문명에 물젖지 않았던 원주민들의 세태풍속과 지난 식민지시기 민족의식의 발생발전, 시대적모순을 표현하려

고 지향하였으며 식민지사회의 부패한 현실을 예리하게 폭로비판하였다.(이런 점에서 이 문학은 인디헤니스모문학과도 련결되여있다.)

꼬스뚬브리스모는 시와 소설, 극 등 거의 모든 형태에 일반화되였으며 특히 꾸바에서 발전하였다. 장편소설 《쎄씰리아 발데스》를 쓴 빌랴베르데, 장편소설《프란씨스꼬》를 쓴 쑤아레스 이 로메로, 시인 에레디아와 꾸깔람베, 극작가 베딴꾸르뜨 등이 그 대표적인 작가들이다.

꼬스뚬브리스모문학은 라틴아메리카인민들의 민족적자각을 높이고 이 지역 문학을 풍부히 하는데 이바지하였다.

가우쵸문학은 아르헨띠나의 드넓은 대초원(빰빠)에서 살며 일하는 목동들의 생활과 사상감정을 대자연을 배경으로 그려낸 문학류파이다.

남아메리카대륙 라쁠라따강류역의 넓은 초원에는 16～17세기경부터 소와 말떼를 방목하면서 유목종족처럼 살아가는 가우쵸들이 생겨나 독특한 생활양식을 이루게 되였다.

가우쵸문학은 처음 가우쵸방랑시인들이 기타를 타면서 가우쵸의 사랑과 모험을 노래한 소박한 서정시로부터 시작되였다. 그후 점차 그 주제령역이 사회, 정치, 력사적인 문제로까지 확대되고 예술적으로도 세련된 운문 및 산문작품들이 나오게 되였다.

바르똘로메 호쎄 이달고, 호쎄 라파엘 에르난데스, 에스따니슬라오 델 깜뽀, 리까르도 구이랄데스 등이 그 대표적인 작가들이다.

그들이 창작한 작품들가운데서도 대화시 《파우스트》(깜뽀, 1870), 서사시《마르띤 피에로》(에르난데스, 1872—1879), 장편소설 《돈 쎄군도 쏨브라》(구이랄데스, 1926) 등이 비교적 잘 알려져있다.

이 작품들에는 가우쵸들의 자유애호적인 사상과 자연에 대한 사랑, 압박에 대한 항거정신과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동정 등 진보적인 내용이 담겨져있는 반면에 그들의 생활을 랑만적으로, 목가적으로 그림으로써 사회계급적모순에 찬 낡은 사회의 현실을 예리하게 대하지 못한것과 같은 제한성도 나타나있다.

우에서 서술한 인디헤니스모문학, 꼬스뚬브리스모문학, 가우쵸문학 등은 초기에 랑만주의문학안에서 발생하고 한동안 랑만주의적으로 나갔으나 점차 사실주의를 지향하여 후에는 사실주의문학으로 넘어갔다.

19세기 30—70년대 라틴아메리카문학에서 지배적인 사조로 되였던 진보적랑만주의문학은 라틴아메리카문학의 발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라틴아메리카문학은 진보적랑만주의문학의 발전과정을 통하여 민족문학의 면모를 점차 갖추기 시작하였으며 19세기 70년대에 랑만주의시기가 끝나면서 라틴아메리카나라들에서의 민족문학의 형성과정도 끝나게 되였다.

진보적랑만주의문학은 새로운 주제와 형상, 예술형식을 창조함으로써 라틴아메리카문학을 더욱 풍부히 하였으며 라틴아메리카민족문학발전의 토대를 쌓았다.

그러나 라틴아메리카의 진보적랑만주의문학은 문학발전에서 반드시 극복하여야 할 계급적 및 시대적제한성을 가지고있었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이 문학이 아직 인민들의 현실생활과 밀착되지 못하고 그들의 생활과 투쟁을 옳게 반영하지 못한것이다. 또한 이 문학은 주관성과 추상성이 지배적이였던 창작방법의 제한성으로 하여 생활을 진실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유럽문학에 대한 모방이 심하였다.

독립후 라틴아메리카작가들은 민족문학을 건설하는데서 옳은 방향을 찾지 못하고 실천적경험을 가지고있지 못한데로부터 처음 한동안 주제선택에서나 형상창조와 예술적형식에서 유럽의 발전된 나라들에서 이미 이룩된 성과를 본보기로 하여 그것을 모방하는 길로 나갔다. 이러한 현상은 랑만주의문학에서 심하게 나타났으며 뒤늦게 발생한 초기 사실주의문학에서도 나타났다.

그러므로 라틴아메리카에서 독자적인 민족문학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유럽문학에 대한 모방을 극복하는것이 중요한 과업으로 나섰다.

이렇듯 라틴아메리카랑만주의문학은 시대의 요구와 인민대중의 지향을 민감하게 반영하지 못한것으로 하여 점차 그 지위를 잃게 되였으며 19세기 70년대에 이르러 사라지게 되였다.

라틴아메리카에서 사실주의문학이 발생한것은 19세기 70～80년대이다.

시문학에서 사실주의문학의 선구자는 꾸바의 호쎄 마르띠이다. 꾸바민족해방투쟁의 지도자였던 호쎄 마르띠는 문학창작을 민족해방투쟁과 밀착시켜 《자유시》, 《이스마에릴요》,

《소박한 시》를 비롯한 시집들에 수록된 수많은 시들을 통하여 식민주의자들의 압제밑에서 고통받는 조국과 인민의 운명을 노래하고 인민들을 자유와 독립을 위한 투쟁에로 불러일으켰으며 사실주의적특성을 뚜렷이 나타냈다.

소설문학에서는 브라질작가 곤쌀베스 아제베도가 장편소설 《혼혈인》(1881), 《빈민굴》(1890) 등에서 최하층사람들과 특권층사람들의 생활을 대조적으로 묘사함으로써 브라질의 사회현실을 깊이있게 해부하였으며 비판적사실주의소설로서의 특성을 보여주었다. 그밖에 브라질작가 라울 뽄뻬이아의 장편소설 《기숙학교 아떼나우》(1888)를 비롯한 여러 비판적사실주의작품들이 나왔다.

라틴아메리카나라들에서 비판적사실주의문학이 본격적으로 발전한것은 20세기에 들어와서이다.

2) 꾸바문학

꾸바원주민문화, 아프리카흑인문화, 에스빠냐문화의 혼잡속에서 독특한 민족문학을 형성한 꾸바문학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라틴아메리카혁명의 앞장에서 나아가는 꾸바공화국은 싸우는 라틴아메리카인민들의 희망의 등대로, 혁명의 미래로 되고있으며 민족적 독립과 자유를 위한 그들의 성스러운 투쟁을 힘있게 고무추동하고있습니다.》

꾸바의 력사는 식민주의를 반대하며 자유와 민족적독립을 위한 혁명투쟁의 영광스러운 전통으로 빛나고있다.

꾸바는 1492년 꼴롬부스에 의하여 처음으로 발견된 후 16세기초에 에스빠냐의 식민지로 되였다.

에스빠냐침략자들은 꾸바에서 총독통치를 실시하면서 20만명에 달하는 이 나라 원주민들을 대량학살하였다. 그리하여 19세기 중엽에 와서는 원주민의 거의 전체가 전멸당하다싶이 되였다. 사탕수수와 담배재배에서 로동력의 부족을 느낀 식민주의자들은 아프리카로부터 흑인노예들을 대대적으로 끌어들여 마소와 같이 부려먹었다.

꾸바인민은 식민주의자들이 침략의 마수를 뻗치기 시작한 첫시기부터 침략자들을 반대하는 투쟁을 힘차게 벌렸다. 일찌기 16세기에 일어난 대규모의 노예봉기에 이어 1812년에 흑인투사 호쎄 안또니오 아뽄떼의 지도밑에 일어난 노예봉기는 에스빠냐의 식민지통치를 뒤흔들어놓았다. 흑인노예들과 함께 새로운 사회세력으로 등장한 크레올들속에서도 에스빠냐로부터 독립하려는 지향이 높아졌다.

그리하여 1810년대부터 1820년대에 라틴아메리카 전역에서는 독립전쟁의 불길이 세차게 타번졌으며 꾸바인민들의 식민지민족해방투쟁은 더욱 앙양되였다.

1820—1840년대에 대규모의 노예봉기들이 폭발하였으며 1868년부터 1878년까지 10년동안 안또니오 마쎄오를 비롯한 애국자들의 지도밑에 에스빠냐식민주의자들을 반대하는 제1차 독립전쟁이 일어났다. 꾸바인민의 영웅적항거에 의하여 침략자들은 1885년 부득불 형식상으로나마 노예제를 페지하지 않을수 없었다.

민족적독립을 쟁취하기 위하여 일떠선 꾸바인민은 1895년 민족적영웅 호쎄 마르띠와 안또니오 마쎄오, 막씨모 고메스의 지도밑에 제2차 독립전쟁을 벌려 에스빠냐의 식민지통치를 마지막위기에 몰아넣었으며 그해 9월 독립을 선포하고 헌법을 채택하였다.

그러나 꾸바인민의 민족해방투쟁은 미제국주의자들의 책동에 의하여 엄중한 난관에 부딪치게 되였다. 오래전부터 꾸바를 강점할 기회를 노리던 미제는 일찌기 1848년과 1852년에 이 섬을 저들에게 넘겨줄것을 에스빠냐에 강요하였다. 그러나 에스빠냐는 이를 거절하였다.

이렇게 되자 미제는 1898년 2월 아바나항에서 미국순양함 《메인》호를 제놈들이 폭파해놓고는 그 책임을 에스빠냐에 넘겨씌웠으며 그해 4월 선전포고를 하였다.

1898년 빠리강화조약에 의하여 꾸바는 형식상 독립국가로 되였다. 그러나 간악한 미제는 조약의 내용을 파렴치하게 위반하고 1899년 침략군을 파견하여 꾸바를 강점함으로써 이 나라를 사실상 자기들의 식민지로 만들었다.

이 시기 꾸바문학은 식민주의를 반대하며 자유와 민족적독립을 위한 꾸바인민의 혁명투쟁력사와 꾸바민족의 형성과정과 밀접히 련관되여있다.

꾸바에서 민족은 복잡한 과정을 거쳐 형성되였

다. 에스빠냐식민주의자들의 말살정책으로 인하여 원주민들은 얼마 남지 않았고 아프리카로부터 수많은 흑인들이 노예로 끌려왔다. 에스빠냐인후손들인 크레올백인들의 비중이 많아지고 서로 다른 인종들사이에 메티스, 뮬라트와 같은 혼혈인들이 생겨났다. 그리하여 주민구성이 매우 복잡해졌다. 이들은 오래동안 한 령토에서 사는 과정에 민족적공통성을 이루게 되였고 하나의 언어를 쓰게 되였다.

이리하여 꾸바인들사이의 정치, 경제, 문화적련계가 밀접해지고 민족성이 형성되기 시작하였으며 18세기말—19세기초에 꾸바민족이 형성되게 되였다.

꾸바에서는 력사발전과 민족형성의 특수성으로 하여 3대문화(꾸바원주민문화, 아프리카흑인문화, 에스빠냐문화)가 혼합되여 점차 자기의 민족문학을 형성하였다.

꾸바에는 에스빠냐식민주의자들이 침략하기이전에 원주민들의 구전문학이 있었으나 식민주의자들의 원주민말살정책으로 구전문학 역시 말살되였으며 기록에 남지 못한것으로 하여 구전문학유산을 찾아보기가 힘들게 되였다.

꾸바에서 최초의 서사문학작품으로 알려져있는것은 17세기의 시인 씰베스뜨레 데 발보아(1563—1649)의 서사시 《참을성의 거울》(1608)이다.

꾸바해안을 돌아치며 강도질을 하는 프랑스해적들과 맞서 용감히 싸운 원주민 바야모인들의 무장투쟁을 그린 이 작품은 꾸바민족시문학의 첫 작품으로 되였다.

그후 18세기까지 꾸바문학의 주류를 이룬것은 시문학이였으며 그것들은 에스빠냐의 시형식들인 데씨마, 쏘네트, 로만스형식에 의존한 모방적 성격이 강하였다.

19세기 꾸바문학의 발전은 첫 문학사조인 랑만주의문학의 발생발전과 련관되여있다. 꾸바랑만주의문학은 19세기 20년대에 발생하고 30—40년대에 발전하였으며 그후 60년대까지 계속되였다.

꾸바에서 랑만주의는 이 나라의 특수한 사회력사적환경에 기초하여 발전하였다. 라틴아메리카의 대다수 나라들은 1810—1826년 독립전쟁으로 에스빠냐의 식민지기반에서 벗어나 독립을 이룩하였으나 꾸바는 에스빠냐의 유일한 식민지로 남아있었다. 그것은 꾸바의 상층부를 이룬 농장주들이 흑인노예들의 폭동에 겁을 먹고 에스빠냐식민주의자들과 타협한것과 관련되여 있었다.

그리하여 에스빠냐의 식민지통치와 농장주들의 가혹한 2중착취를 받게 된 꾸바인민의 불만은 날로 증대되였으며 그러한 불만을 반영하여 랑만주의문학이 발생하였다.

꾸바에서 랑만주의는 먼저 시문학에서 발생하고 소설문학에 파급되였다.

꾸바랑만주의시문학의 대표자는 도밍고 델 몬떼 이 아뽄떼, 호쎄 마리아 에레디아, 가브리엘 쁘쎕씨온 발데스(쁠라씨도)이다.

델 몬떼

꾸바랑만주의문학발전의 초시기에 중요한 역할을 한것은 델 몬떼의 문학소조였다. 그는 자기 집에서 문학소조를 운영하였다.

이 소조에 망라된 진보적작가들은 《조국해방을 위한 투쟁》, 《문학의 꾸바화》라는 구호를 들고 내용에서 식민주의를 반대하고 흑인해방을 요구하며 형식에서 꾸바화된 민족적형식을 창조하려고 하였으며 창작방법에서는 랑만주의를 지향하였다. 19세기 꾸바의 이름난 작가들인 에레디아, 쁠라씨도, 빌랴베르데, 아벨랴네다 등이 다 이 소조출신들이였다.

에스빠냐식민주의자들을 반대하는 민족해방운동에 협력한 시인 도밍고 델 몬떼 이 아뽄떼(1804—1853)는 자기가 몸값을 물고 노예의 처지에서 해방시켜준 꾸바의 첫 흑인시인 후안 만싸노를 비롯한 진보적랑만주의시인들을 묶어세워 델 몬떼문학소조를 뭇고 꾸바민족문학을 창조하기 위한 적극적인 활동을 벌렸다.

그가 편찬한 《아메리카시집》(1833)에 수록된 련시 《꾸바로만스》를 비롯하여 《조국》, 《파히로》 등의 시들에는 흑인노예제를 반대하는 시인의 지향과 식민주의자들에 대한 증오심이 잘 표현되였다.

시인은 특히 대표작인 《꾸바로만스》에서

내 정녕코 들을수 없구나
가슴이 분노로 끓지 않고서는
노예의 몸에서 울리는
째는듯 한 채찍소리를

라고 꾸바농촌의 고유한 세태풍속과 압제자

들에 대한 증오, 자유에 대한 흑인들의 갈망과 노예의 몸에서 울리는 채찍소리에 분노로 가슴 불태우는 자신의 몸부림을 노래하였다.

에레디아 호쎄 마리아 에레디아(1803—1839)는 변호사로 있으면서 독립운동에 적극 참가한것으로 하여 박해를 받고 메히꼬로 추방되였으며 그곳에서 객사하였다.

그는 19세기 20—30년대에 문학창작활동을 벌리면서 초기에는 계몽적고전주의의 영향밑에 공화주의적리상을 담은 시와 희곡을 썼으며 후기에는 델 몬떼의 영향을 받고 랑만주의로 넘어가 독립에 대한 지향과 민족해방의 기백으로 차넘친 시들을 썼다.

대표작의 하나인 서정시 《추방당한자의 노래》(1825)에서 시인은 식민지당국의 박해로 메히꼬로 추방되여가는 서정적주인공이 배머리에서서 멀리 고국의 산줄기들을 바라보며 조국과 혈육을 그리워하는 심정을 통하여 에스빠냐의 식민지통치밑에서 신음하는 꾸바의 비참한 현실을 반영하고 기어이 나라의 독립을 이룩하리라는 결의를 노래하였다.

꾸바여 그대는 기어이 자유롭고 깨끗한
  몸이 되리라
그대 숨쉬는 그 맑고 밝은 대기와 같이
그대 눈앞 백사장에 입 맞추는 파도와도
  같이
추악한 매국의 무리를 앞세워
압제자는 폭압을 일삼는다만 그 무슨 소용
  있으리
가없이 넓고넓은 대양 꾸바와 에스빠냐
  사이에 가로놓여
영원토록 굽이치며 흐르고흐르리니

그는 이 시외에도 서사시 《촐룰의 떼오깔리에서》(1820), 《나이아가라폭포》(1824), 서정시 《꾸바의 별》(1822), 《볼리바르에게 드리노라》, 《폭풍우속에서》를 비롯한 많은 시들을 남겼다.

그는 꾸바인민에게 자유와 독립에 대한 희망을 안겨주고 유럽시에 대한 모방에서 벗어나 꾸바의 민족적특색이 뚜렷한 시를 내놓음으로써 꾸바 민족문학의 형성에 이바지하였다.

쁠라씨도 흔히 쁠라씨도라는 필명으로 불리우고있는 가브리엘 델 라 꼰쎕씨온 발데스(1809—1844)는 하층민인 혼혈인가정에서 태여나 일찌기 고아로 인쇄공, 거부기등껍질을 벗기는 로동자 등으로 일하면서 독학으로 문학수업을 하였다. 아바나와 마딴싸스에서 델 몬떼문학소조에 망라되여 두각을 나타낸 그는 즉흥시인으로서 널리 알려지게 되였으나 1840년에 흑인과 혼혈자유민의 대중적폭동의 주모자로 몰려 에스빠냐식민주의자들에게 체포되여 총살당하였다.

그가 지은 작품들가운데서 당시 《커피꽃》, 《사탕수수꽃》, 《파이내플꽃》, 쏘네트《그리스에》, 《뽈스까에》, 로만스 《히꼬뗀까뜰》을 비롯한 여러 시들이 알려져있다. 이 시들은 작품집 《시집》(1838)과 《시선》(1842)에 수록되였다.

《히꼬뗀까뜰》은 16세기초 에스빠냐식민주의자들을 반대하여 투쟁한 메히꼬인디안들의 투쟁력사를 반영한 작품이다.

메히꼬를 침략한 에스빠냐식민주의자들은 인디안종족들사이의 불화를 리용하여 그들을 각개격파시키려고 한다. 그들은 주인공인 인디안청년 히꼬뗀까뜰이 속해있던 뜨라스깔라족을 기만하여 동맹자로 만들어 다른 인디안종족들을 소멸하기 위한 원정을 조직한다. 원정은 성공하고 수많은 인디안들이 포로된다. 동족의 피로 향토를 적시는 살인자로 될수 없다고 생각한 히꼬뗀까뜰은 포로들을 놓아주며 인디안들끼리 싸울것이 아니라 모두가 단합하여 식민주의자들을 반대하여 싸우자고 호소한다.

작품은 그를 막아나서는 종족의 우두머리 목떼쑤마에게 항거하는 주인공의 형상을 통하여 침략자들에게 인디안종족의 운명을 맡길것이 아니라 힘을 합쳐 적들과 맞서싸워야 한다는 시인의 사상감정을 표현하였다.

그는 민족적색채가 진하고 향토적인 주제와 형상이 풍부하며 자유애호사상과 민주주의사상이 강한 시작품들을 창작함으로써 19세기 꾸바의 대표적인 시인의 한사람으로 되였다.

소설문학에서 랑만주의를 대표하는 작가는 아벨랴네다와 빌랴베르데이다.

아벨랴네다 녀류작가 게르뜨루디스 고메스 데 아벨랴네다(1814—1873)는 꾸바문학에서 랑만주의가 대두하던 시기에 작가가 되여 랑만주의적인 시와 희곡, 소설들을 창작하였다.

그가운데서 《시집》(1841), 비극 《알론쏘 무니오》(1844)와 《발따싸르》(1858), 장편소설 《싸브》(1841), 력사소설《과띠모씬》(1846) 등이 알려져있다.

특히 《싸브》에서는 꾸바를 무대로 고상하고 용감한 흑인청년과 백인처녀의 비극적사랑과 주인공의 파멸에 대한 이야기를 통하여 꾸바의 치욕스러운 노예제도를 규탄하였다.

《발따싸르》는 고대바빌로니아의 마지막황제 발따싸르의 압제와 그에 항거하는 포로된 헤브라이처녀에 대한 이야기를 통하여 식민주의자들에 대한 꾸바인민의 반항정신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작품들로 하여 그는 19세기 꾸바의 진보적랑만주의문학을 대표하는 작가의 한사람으로 되였다.

19세기 꾸바의 소설문학을 대표하는 작가의 한사람인 빌랴베르데의 창작활동은 《꼬스뚬브리스모》(세태풍속파)조류와 련관되여있다.

《꼬스뚬브리스모》는 꾸바를 비롯한 라틴아메리카지역의 세태풍속을 구체적으로 반영함으로써 민족적색채를 진하게 나타내려고 지향한 문학조류이다. 이 문학은 특히 부르죠아문명에 물젖지 않았던 원주민들의 세태풍속과 식민지시기 민족의식의 발생발전, 시대상을 표현하였으며 식민지사회의 부패성을 예리하게 폭로비판하였다. 꼬스뚬브리스모에 속한 작가들가운데는 랑만주의를 지향한 사람들도 있고 사실주의를 지향한 사람들도 있었다. 꼬스뚬브리스모문학에서 대표적인 랑만주의소설가는 장편소설 《쎄씰리아 발데스》를 쓴 빌랴베르데이다. (빌랴베르데와 장편소설 《쎄씰리아 발데스》에 대해서는 마감에 따로 서술하였다.)

꾸바문학에서 랑만주의가 사실주의로 이행한 것은 19세기 70년대이다.

이 시기 꾸바작가들속에서는 현실에서 사회적으로 의의있는 문제들을 형상적으로 밝혀내려는 새로운 시도들이 나타났다. 작가들은 식민지사회의 모순과 부패성이 더욱더 드러나고 그것을 반대하는 인민들의 투쟁이 앙양됨에 따라 사회현실을 옳게 인식하고 반영하며 자기들의 사상미학적리상에 비추어 있는 그대로의 현실 그자체를 폭로비판하려고 하였다. 이러한 창작태도를 가지게 된 작가들은 선행시기 꼬스뚬브리스모문학의 성과에 기초하여 변천되는 식민지현실을 예리하게 해부하고 그 모순과 불합리성을 폭로비판하는데 선차적인 관심을 돌리였다.

여러 진보적작가들의 이러한 지향에 의하여 사실주의문학이 발생하게 되였다.

꾸바사실주의문학의 선구자는 시인 호쎄 마르띠이다. 호쎄 마르띠의 창작은 랑만주의로부터 사실주의에로의 꾸바문학의 발전과정을 뚜렷이 반영하고있다. (호쎄 마르띠에 대해서는 마감에 따로 서술하였다.)

라몬 메싸 19세기 꾸바소설문학에서 사실주의를 대표하는 작가는 라몬 메싸(1861—1911)이다.

풍자소설창작에서 두각을 나타낸 그는 먼저 장편소설 《나의 삼촌은 사무원》(1887)에서 시골태생의 무식쟁이 주인공이 사기협잡행위로 벼락부자가 되는 이야기를 통하여 에스빠냐식민주의자들과 그 앞잡이들의 강도적인 략탈행위와 썩어빠진 식민지관료기구의 진면모를 발가놓았다. 그는 다음 장편소설 《장사치 돈 아니쎄또》(1889)에서 사회적풍자를 더욱 예리하게 하였다.

《장사치 돈 아니쎄또》는 주인공인 장사치 돈 아니쎄또의 운명을 통하여 식민주의자들의 말로를 보여준 작품이다.

돈 아니쎄또는 영국인이 대주는 차판으로 피복회사를 경영하는 장사치이다. 한때 일이 잘되여 돈벌이가 괜찮던 회사는 상업경쟁의 세파속에서 파산의 위기에 처한다. 권모술수로 일시 위기를 면하긴 했으나 끝내 부도가 생겨 파산을 면할수 없게 되자 동업자인 쌀루스띠아노가 회사건물에 불을 질러 화재를 일으키며 절망한 아니쎄또는 자살하고만다. 아니쎄또의 압제를 받던 처 아델라이다와 딸 마리아도 집에서 뛰쳐나가고만다.

소설은 돈 아니쎄또와 쌀루스띠아노의 형상을 통하여 력사의 내리막길을 걷고있는 식민주의자들은 파멸의 운명을 면치 못한다는것을 풍자폭로하였다.

라몬 메싸외에도 여러 작가들이 현실비판이 강

한 일련의 사실주의적소설들을 내놓아 꾸바사실주의문학의 발전에 이바지하였다.

19세기 꾸바문학에서 가장 이름난 작가는 빌랴베르데와 마르띠이다.

빌랴베르데와 장편소설 《쎄씰리아 발데스》

19세기 꾸바의 진보적문학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있는 빌랴베르데는 꼬스뚬브리스모문학과 진보적랑만주의문학을 대표하는 작가의 한사람이면서도 사실주의적지향이 강한 작가이다.

씨릴로 빌랴베르데(1812—1894)는 꾸바 동남부의 도시 싼띠아고에서 사탕수수농장에 복무하는 의사의 아들로 태여났다. 유년시절에 농장에서 목격한 가슴아픈 정경들은 그에게 강한 충격을 주었으며 후날 그의 창작에 큰 영향을 주었다. 백인대농장주가 경영하는 광대한 사탕수수밭, 거기서 일하는 300여명의 흑인노예들의 비참한 처지, 농민들의 게딱지같은 초가집들—이 모든것은 노예제도와 인종차별이 낳은 가혹하고 잔인한 현실이였다.

그는 아바나종합대학에서 고등교육을 받으면서 전공인 법학외에도 문학, 철학, 외국어 등 다양한 학문을 습득하였다. 아바나종합대학 재학기간은 그의 세계관형성에서 중요한 계기로 되였다.

일시적으로 영국에 강점당한 꾸바에서는 당시 영국의 통치를 끝장내기 위한 사회적움직임이 활발해지고 광범한 군중속에서 의식화운동이 일어났다. 아바나종합대학은 그 운동의 중심지의 하나였다.

1832년 아바나종합대학 법학부를 졸업한 그는 신문기자, 중학교 교원으로 일하면서 꾸바독립운동에 적극 참가하였다. 그후 그는 꾸바에서 일어난 인민봉기에 참가했다가 체포되여 학살된 한 장군과 련계가 있었다는 혐의를 받고 1848년 10월 체포되여 사형선고를 받았다.

그는 다음해 탈옥에 성공하여 미국으로 망명하였으며 망명지에서 잡지발간활동을 벌려 꾸바독립사상을 선전하였다.

그는 1858년에 대사령을 받고 귀국하였으나 제1차 독립전쟁의 시작으로 1868년 다시 미국으로 망명하였으며 1894년 82살을 일기로 뉴욕에서 사망하였다.

그의 창작활동은 1830년대부터 시작되였다. 그는 1837년부터 소설을 발표하기 시작하여 모두 20여편의 소설들을 내놓았다.

1837년 한해동안에 발표한 《따가나나동굴》, 《흰 바위》, 《배반》과 같은 그의 초기작품들은 다 감상적인 작품들이였다. 그러나 1839년에 발표한 장편소설 《쎄씰리아 발데스》(제1부)는 커다란 사회적문제성을 담은것으로 하여 문학사적의의가 큰 작품으로 평가되였으며 작가로서의 지위를 당당히 차지하게 하였다.

그는 1870년대말부터 이 작품의 전면개작에 달라붙어 1882년에 2부작으로 된 《쎄씰리아 발데스》완성본을 내놓았다.

그는 이 작품외에도 장편력사소설 《뉘우치는 사람》(1841), 장편소설 《두 사람》(1858), 단편 및 중편소설들인 《검은 십자가》, 《롤라와 그의 앵무새》(1839), 《소경과 개》(1842), 《두 편인》(1858), 《속죄하는 사람》(1844), 《까르니전도사》(1846) 기타 여러 작품들을 썼다.

대표작인 장편소설 《쎄씰리아 발데스》는 1812년부터 1831년까지의 시기를 시대적배경으로 배다른 오누이들인 혼혈인처녀와 백인귀족청년의 비극적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통하여 19세기 초엽 꾸바식민지사회의 현실을 반영하고 노예제도와 인종차별을 반대하는 자유애호사상을 담은 작품이다.

아바나에 사는 대농장주인 백인귀족 돈 깐디도는 젊었을 때 난봉을 피워 아름다운 혼혈인처녀를 정부로 삼았던 일이 있었다. 그는 둘사이에 태여난 딸애를 변성명시켜 양육원에서 비밀리에 키웠다. 그가 소설의 녀주인공 쎄씰리아 발데스이다.

처녀는 16살이 잡히면서 아바나의 1등혼혈미인으로 뭇사람들의 시선을 끌게 된다. 처녀를 가운데 두고 깐디도와 아들 레오나르도사이에 알륵이 생긴다. 처녀의 출생의 비밀을 모르고 정신없이 반해버린 레오나르도와 쎄씰리아사이의 관계는 날이 갈수록 깊어만 간다.

깐디도는 그들을 갈라놓기 위해 시장과 짜고 쎄씰리아를 수도원에 가두게 하는 한편 아들이 백인농장주의 딸 이싸벨라와 결혼하도록 강요한다. 처음에는 완강히 거부해나섰던 레오나르도도 쎄씰리아가 해산한 소식을 듣자 뒤걸음쳐 마음에 없는 이싸벨라와의 결혼을 서두른다.

격분한 쎄씰리아는 자기를 사모하는 혼혈인 악사 삐미엔따를 시켜 결혼식장을 습격케 한다. 악사는 쎄씰리아가 시킨대로 이싸벨라를 찌른것이 아니라 레오나르도의 가슴에 복수의 칼을 박는다.

악에 받친 로싸부인(레오나르도의 어머니)은 쎄씰리아를 곧 정신병원에 가두게 한다. 그는 병원에서 어머니를 만나 처음으로 어머니의 품에 안기게 되며 딸을 잃고 정신이 나갔던 어머니는 정신이 되돌아선다.

소설은 주인공들의 운명을 통하여 극소수의 식민주의자들과 백인특권층이 주인행세를 하고 절대다수의 하층민들은 식민지노예살이로 신음하는 당대 꾸바현실과 식민주의, 노예제, 인종차별을 반대하는 투쟁기운이 높아가던 현실을 생동하게 반영하였다.

작품은 무엇보다도 녀주인공 쎄씰리아 발데스와 혼혈인악사 삐미엔따, 흑인노예들의 형상을 통하여 식민지예속에서 벗어나려는 당시 꾸바인민들의 지향을 반영하고 식민지제도와 노예제도, 인종차별을 강하게 비판하였다.

작품에는 상층부에 속하는 백인과 중간층에 속하는 혼혈인, 최하층에 속하는 흑인노예 등 여러 계층을 대표하는 수많은 인물들이 등장하고있다. 그가운데서 작가가 관심하고있는 기본대상은 혼혈인과 흑인노예들이다.

작품은 녀주인공 쎄씰리아 발데스와 그를 사모하는 혼혈인악사 삐미엔따, 작품에 등장하는 흑인노예들을 굳센 의지를 가지고 온갖 노예적구속과 비인간적학대를 반대하여 항거해나서는 식민지사회의 반항자들로 그리고있다.

쎄씰리아 발데스는 일부 방탕하고 타락한 측면을 가지고있으나 강한 자유애호사상의 체현자로 형상되여있다.

백인귀족 돈 깐디도와 혼혈녀인사이에 태여난 사생아인 쎄씰리아는 태여나서부터 부모도 모르고 고아원에서 자라났으며 그후에는 방랑생활을 하였다. (깐디도가 그에게 지어준 성 《발데스》는 《부모없는자》라는 뜻이다.)

그는 천대와 구박속에서도 인간의 자존심을 잃지 않았으며 사회적구속에서 벗어나려는 자유애호사상을 가지게 되였다. 하기에 무도장에서 술한 백인청년들이 치근거릴 때에도 도고하게 자신을 다잡았으며 그의 행동을 통제하려는 돈 깐디도에게도 순종하지 않는다.

그가 백인귀족청년 레오나르도의 사랑을 받아들인것은 그가 자기를 평등하게 대해주고 식민주의와 인종주의를 반대하는 립장을 표시했기때문이며 또한 그와 결혼하면 자식들이라도 인종차별과 학대에서 벗어나 사람답게 살수 있지 않을가 하는 기대를 가졌기때문이다.

처녀는 레오나르도에게서 순결한 사랑을 기대했으며 돈과 권세, 신분의 장벽을 깨뜨리고 진실한 결혼을 원했다. 그러나 그가 가닿은 곳은 깨끗한 사랑의 품이 아니라 감옥같은 수도원이였다. 뜻밖에도 레오나르도가 자기를 버리고 부자집 백인녀자와 결혼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의 가슴속에는 복수심이 불타올랐다.

하여 그는 삐미엔따의 손을 빌어 레오나르도를 복수한다. 이처럼 《청동색 마돈나》로 불리운 아바나의 1등혼혈미인 쎄씰리아 발데스는 인종차별이 지배하는 식민지사회에서 수많은 혼혈녀인들이 당하는 비극적운명을 그대로 체현하고있다.

소설에서 혼혈인청년 삐미엔따의 형상도 뚜렷한 자리를 차지하고있다.

그는 겸손하고 부지런하면서도 상냥하고 대바른 청년이다. 부모없이 누이동생과 함께 살고있는 그는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낮에는 양복점 재봉공으로 일하고 밤이면 몇푼의 돈을 위해 무도장을 찾아다니며 악사로 일한다. 그러나 그가 받은것은 인종차별로부터 오는 모욕과 천대였다. 그리하여 그의 마음속에는 나날이 반항심이 커간다.

깨끗한 마음으로 쎄씰리아를 사랑하면서도 처녀의 행복을 위해 그와 레오나르도의 결혼이 성사되기를 바랐던 삐미엔따는 레오나르도가 쎄씰리아와 자기 아이를 버리고 딴 녀자와 결혼한다는것을 알고 더는 참을수 없어 복수의 칼을 든다.

소설에서는 쎄씰리아의 유모 레줄라와 뻬드로를 비롯한 흑인노예들의 형상을 통하여 흑인노예들의 비참한 처지와 그들의 반항심을 뚜렷이 보여주었다.

소설은 다음으로 깐디도와 레오나르도 등 백인귀족들의 형상을 통하여 흑인노예들과 혼혈인들의 착취자, 압박자들의 죄행과 부패성을 신랄하게 폭로비판하고있다.

돈 깐디도는 착취계급을 대표하는 전형적인물이다. 그는 겉보기엔 마치도 젊은 시절의 자신의 부화한 생활을 후회하는 개심한 사람처럼 처

신하지만 그것은 한갖 허울에 불과하였다.

착취자로서의 그의 성격적특질은 흑인노예들과 유색인종을 깔보고 멸시하며 가혹하게 착취, 압박하는데서 나타나고있다.

노예주이며 노예장사군인 깐디도는 흑인들을 짖어대는 원숭이, 검둥이로밖에 보지 않으며 천성적으로 노예로나 살 팔자를 타고났다고 간주한다. 또한 흑인노예를 다루는데서 힘과 폭력, 채찍이 제일이라고 하면서 가차없이 그것을 행사한다. 그는 자기 농장에서 도주했다가 개한테 물리워 죽은 흑인 뻬드로의 시체앞에서도 눈섭 하나 까딱하지 않는다.

착취자로서의 그의 성격적특질은 겉으로는 잘못을 뉘우치는체 하면서도 뒤에서는 추악한 생활을 계속하는 패덕한의 기질에서도 나타나고있다.

쎄씰리아로 말하면 그와 정부사이에 태여난 불쌍한 처녀이다. 깐디도는 이러한 쎄씰리아에게 아버지로서의 사랑을 부어줄 대신에 그의 미모에 넋을 잃고 변태적인 사랑에 미쳐 날뛴다. 그는 타락한 생활로부터 아들을 건져낸다는 구실로 쎄씰리아한테서 아들을 떼여냄으로써 아들과의 사랑싸움을 결속하려 한다.

깐디도의 아들 레오나르도는 2세대 청년으로서 민족적 및 사회적모순을 일정하게 인식하고 인종차별과 노예제도에 대한 불만을 가지게 되지만 무기력하게 주어진 환경에 순종함으로써 제 애비와 같은 족속으로 되고만다.

그는 꾸바태생의 토착백인—크레올이며 공부를 한 지식청년으로서 자기도 꾸바사람이라는 민족적감정으로부터 꾸바에서 주인행세를 하는 식민주의자들에 대한 반감을 가지게 되고 리성적으로는 노예제도와 인종차별이 나쁘다는것을 느끼게 된다. 그러나 레오나르도의 무딘 정치적감각, 무기력하고 나약한 성격, 타락한 생활인습은 싹터오던 그의 인간다운 리성, 민족적감정마저 묻어버린다.

그러기에 쎄씰리아를 미친듯이 따라다니고 그에게 사랑을 맹세하던 그가 부모들의 강요에 순종하여 자기 아이까지 낳은 애인을 헌신짝처럼 내버리며 아무런 매력도 느껴지지 않는 이싸벨라와의 결혼에 동의하고마는것이다.

장편소설《쎄씰리아 발데스》는 끄스뚬브리스모문학의 대표적인 작품의 하나이다. 소설에는 19세기초 꾸바사회의 세태풍속이 생동하게, 구체적으로 묘사되여있다. 작품에는 아바나의 거리와 공원, 명승지, 식당과 무도장, 도박장, 사람들의 관습과 습관, 옷차림과 민족음식, 살림살이에 이르는 세태풍속이 구체적으로 묘사되여있다.

또한 세태풍속과 함께 사회적문제성을 안고있는 인간관계를 설정하고 이야기를 잘 끌고나감으로써 작품의 사상적의의를 높이였다.

소설은 창작방법의 견지에서 보면 진보적랑만주의계렬의 작품이다. 비밀에 붙여진 어머니와 딸의 운명의 숙명적인 일치, 배다른 오누이의 비극적인 사랑, 쎄씰리아를 둘러싼 아버지와 아들의 변태적인 사랑싸움과 같은 문제설정과 갈등, 이야기줄거리 등에는 랑만주의적특성이 강하게 나타나고있다. 그러나 작품에는 현실을 진실하고 생동하게 반영한 사실주의적경향도 표현되고있다. 특히 깐디도가 소유하고있는 아바나교외의 사탕수수재배농장에서의 노예들에 대한 노예주와 감독들의 야만적인 박해, 흑인노예들의 비참한 처지를 묘사한 장면들은 매우 사실주의적이다. 이러한 장면설정자체가 당시 꾸바에 존재했던 흑인노예제도에 대한 예리한 비판으로 된다.

작가자신이 인정한바와 같이 이 소설이 미국녀류작가 비쳐 스토우의 장편소설 《톰아저씨의 집》의 영향밑에 씌여지긴 했으나 작품은 그 폭과 깊이에 있어서 스토우의 소설을 훨씬 릉가하고있다.

작품에는 적지 않은 제한성도 나타나고있다.

소설의 제한성은 우선 인종주의를 비판하면서도 작가자신이 인종적편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문제를 계급적선에서 고찰하지 못하고있는것이다. 작가는 혼혈녀인 쎄씰리아와 백인청년 레오나르도사이에 인간관계를 설정하면서 그들의 비극이 마치도 적극성과 열정, 정열과 재능이 있는 유색인의 성격상 우점과 사회의 상층에 있으면서 소극적이고 의지가 약한 백인의 성격상 약점이 맞지 않는데서 초래된듯 한 인상을 자아내게 하고있다. 이것은 문제를 계급적으로 보지 못하고 피부색의 차이, 인종의 차이에서 찾은 작가의 잘못된 립장에 기인한것이다.

작품에는 로싸부인이 농장에서 도망친 흑인노예들을 너그럽게 용서해주는 장면에서 볼수 있는것처럼 노예주들의 관용과 자비심에 기대를 걸고 노예주와 노예제도를 반대하여 끝까지 싸워야 한다는 투철한 립장이 부족한 제한성도 나타나고있다.

그밖에도 작품에는 세태풍속묘사에 지나치게

치우친것이라든가, 일부 생활을 진실하게 그리지 못하고 과장한것, 흥미본위적인 이야기를 설정한 것 등 여러가지 제한성이 있다.

장편소설 《쎄씰리아 발데스》는 이러한 제한성을 가지고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꾸바식민지사회의 현실을 생동하게 반영하고 식민주의와 노예제도, 인종차별을 반대하는 꾸바인민의 각성과정을 보여주었으며 민족적특성을 잘 반영한것으로 하여 19세기 꾸바의 진보적문학이 거둔 중요한 성과작의 하나로 되였다.

호쎄 마르띠와 시

호쎄 마르띠는 에스빠냐식민주의자들을 반대하고 꾸바의 민족적해방을 위한 투쟁에 한생을 바친 애국자인 동시에 꾸바와 라틴아메리카문학사에서 빛나는 자리를 차지하고있는 이름난 시인이다.

호쎄 훌리안 마르띠(1853—1895)는 아바나의 가난한 포병하사관의 집안에서 태여나 남자중학교에서 공부하였다.

그가 자라나던 시기는 300년이상 에스빠냐의 식민지통치밑에서 헐벗고 굶주리며 압박받고 천대받던 꾸바인민들이 압제자들을 반대하여 손에 무장을 들고 용감히 일떠서 싸우고있던 격동적인 시기였다. 특히 그가 15살때인 1868년에 시작된 제1차 독립전쟁은 나어린 그에게 커다란 충격을 주었다.

식민주의자들에 대한 불타는 증오심을 품고 압제자들을 반대하여 싸울 결의를 가다듬은 그는 제1차 독립전쟁이 일어난 다음해 1869년(당시 16살)에 외세를 반대하여 싸우는 애국자의 형상을 창조한 극시 《아브달라》를 신문지상에 발표한것을 비롯하여 적극적인 창작활동을 벌렸다.

그의 활동에 위구를 느낀 에스빠냐식민주의자들은 1870년에 그를 체포하여 투옥했다가 곧 에스빠냐로 추방하였다.

그는 1875년부터 메히꼬와 과떼말라에서 기자활동을 통해 꾸바의 민족적독립을 위한 투쟁을 벌렸으며 《꾸바의 정치범감옥》을 비롯한 많은 글을 써서 에스빠냐식민주의자들의 꾸바에 대한 정치적보호의 기만성을 폭로하였다.

그는 1879년에 귀국한 후에도 아바나에서 에스빠냐식민주의자들을 반대하는 지하조직을 뭇는 사업에 적극 참가하였다. 조직이 발각되여 두번째로 체포되여 다시 해외로 추방된 그는 1880년부터 1895년까지 15년동안 미국에서 망명생활을 하였다. 당시 미국에는 꾸바망명객들이 많았다. 그는 뉴욕, 플로리다 등 꾸바망명객들이 있는 곳이라면 그 어디나 찾아다니면서 그들을 독립운동에 불러일으켰다. 한편 그는 뉴욕에서 신문 《빠뜨리아》(조국)를 발간하여 꾸바사람들속에서 애국심을 고취하였으며 1892년에는 꾸바혁명당창당사업에 참가하여 그 지도자로 선거되였다.

그는 3년후 1895년 꾸바독립군을 창건함으로써 꾸바인민의 민족해방투쟁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 올려세웠다. 그해 2월 그는 꾸바애국자들과 함께 꾸바의 독립을 위한 해방전쟁의 마감을 장식하는 제2차 독립전쟁을 선포하였다.

그해 5월 독립군을 이끌고 꾸바의 오리엔떼주에 상륙한 그는 독립군 지도자들인 안또니오 마쎄오, 막씨모 고메스와 회합을 열고 투쟁전략을 토의한데 기초하여 에스빠냐식민주의자들을 종국적으로 몰아내기 위한 전쟁에 진입하였다. 그는 14일만에 있은 도스 리오스전투에서 영웅적으로 전사함으로써 42살을 일기로 빛나는 생을 마쳤다.

그때로부터 넉달후인 9월 16일 꾸바독립군은 드디여 승리를 이룩하고 꾸바의 독립을 선포하였다.

1959년혁명승리후 꾸바에서는 호쎄 마르띠동상을 세우고 꾸바공화국의 최고훈장으로 호쎄 마르띠훈장을 제정하였다.

호쎄 마르띠는 재능있는 작가, 시인으로서 독립활동의 분망한 나날에도 문학창작에 많은 힘을 넣어 적지 않은 문학유산을 남겼다.

그가 남긴 시창작유산은 그 대다수가 3권의 시집(《이스마에릴요》, 《소박한 시》, 《자유시》)에 들어있다.

다방면적인 작가였던 그는 시작품외에도 소설, 희곡, 정론, 아동문학작품과 정치론문을 썼다. 그것들은 소설 《파멸적인 친선》, 극시《아브달라》, 희곡《화냥년》과 《사랑을 사랑으로 갚다》, 론문《꾸바의 정치범감옥》, 《에스빠냐공화국과 꾸바혁명》, 《북아메리카무대》 등 여러편에 달하고있다.

혁명적민주주의사상의 소유자였던 그는 문학

의 사회적역할을 강조하고 문학은 집단과 인민의 사상감정을 표현하는 수단으로 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문학에는 해당 민족의 정신적풍모와 함께 그에 영향을 미치는 자연의 특수한 제 조건들과 입고다니는 의복에 이르는 온갖 문물이 담겨지므로 매개 인민의 력사를 진실하게 알수 있게 한다고 하였으며 시는 땅에 뿌리를 박아야 하며 현실적인 사실에 기초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하기에 그는 인민창작과 깊은 련계를 가지고 초기의 랑만주의적경향으로부터 점차 사실주의의 길로 나아갈수 있었다.

그의 초기창작을 대표하는 작품은 랑만주의적극시 《아브달라》이다.

작품은 주인공인 열혈청년 아브달라가 외래침략자들로부터 조국 누비아를 수호하기 위하여 사랑하는 어머니의 품을 떠나 정의의 총검을 높이 들고 전장으로 달려나가 용감히 싸우다 희생되는 이야기를 내용으로 하고있다.

작품의 중심에 놓여있는것은 가상적인 나라 누비아의 애국청년 아브달라의 형상이다.

작품에서 아브달라는 무엇보다도 불타는 애국심을 지니고 사랑하는 조국을 위해 한목숨 바쳐싸우려는 열혈청년으로 그려져있다.

그는 피로 물든 조국의 엄혹한 현실을 통탄하면서 사랑하는 조국을 위해 압제자들을 반대하여 자기 목숨을 바쳐 싸울것이라는 결의를 다진다.

바로 누비아를 위하여
우리의 힘과 용기 주어졌나니
명령만 내리면 그대들과 함께
전장으로 달음쳐가리라고
인민들에게 전하여다오

압제자의 발굽에 짓밟힌 인민, 고통받는 조국을 구원하려는 애국의 넋이 차고넘친 그의 몸에서는 피가 끓는다. 하여 그는 병사들에게 그 어떤 월계관이나 왕관을 위해서가 아니라 압제자들이 인민을 노예로 만들려 하고 신성한 조국을 피로 적시려 하니 조국과 인민을 위해 싸움에 떨쳐나서자고 격조높이 호소한다.

작품에서 아브달라는 또한 눈물로 자기를 붙잡는 어머니를 일깨우며 자기가 어머니의 아들이기 전에 누비아사람이기에 목숨보다 귀중한 조국을 위하여 싸움의 길에 나서는 인물로 형상되고 있다.

주인공이 싸움터로 떠나려 하자 어머니는 모성애의 감정에 사로잡혀 자식을 낳아키워준 어머니와 조국, 둘중에서 어느것이 더 귀중한가고 물으며 눈물을 흘린다. 그러자 아브달라는 조국에 대한 사랑을 어찌 어머니에 대한 사랑에 비길수 있겠는가고 하면서 조국에 대한 사랑은 부모에 대한 육친적사랑보다 더 숭고한 사랑이라고 어머니를 일깨워준다.

과연 조국보다 더 숭고한것이 있다고
어머니는 믿으시나요? …
나는 그대의 아들이기 전에 누비아
  사람임을
의심치 않으니 안녕히 계시라
내 조국을 수호하기 위해 나는 떠나
  가렵니다

작품에서 아브달라는 또한 높은 희생성을 지닌 애국자로 형상되고있다.

그는 침략자들과의 싸움에서 중상을 입고 림종을 앞둔 시각에도 슬픔에 잠기는것이 아니라 긍지를 느끼며 정의의 위업의 승리를 확신한다.

내 죽다니? 누비아가 싸우고있을 때
나의 형제들이 신성한 피 흘릴 때
이 시각에도 조국은 우리 힘 믿고
자유를 기다리나니!
싸우라! 투쟁하라! 누비아인들이여!
조국을 지켜 싸우다 죽는것이
얼마나 장한 일이냐!

극시 《아브달라》는 아직 생활을 구체적으로 진실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형상이 추상적이며 지나친 감정토로에 치우친 제한성을 나타내였으나 높은 반침략애국정신과 자유를 위한 투쟁을 열렬히 갈망하는 강렬한 랑만주의적열정, 힘있는 호소성으로 하여 에스빠냐식민주의자들을 전률케 하였으며 꾸바인민들을 압제자들을 반대하는 투쟁에로 불러일으키는데 커다란 작용을 하였다.

그의 초기작품인 극시 《아브달라》에서 나

타난 추상적이며 감성적인 랑만주의는 그후 창작과정에, 특히 후기의 사실주의적서정시들에서 극복되였다.

그의 서정시는 시집 《자유시》(1878—1882)에 수록된 47편과 시집 《소박한 시》(1891)에 수록된 46편 그리고 시집 《이스마에릴요》(1882)에 수록된 시까지 합하면 적지 않다.

그의 서정시들은 무엇보다도 식민주의자들의 압제밑에서 꾸바인민이 당하고있는 고통과 불행을 반영하는데 그치지 않고 각성한 인민의 투쟁에 의하여 압제자들이 무너질 날이 멀지 않았다는 확신을 표명하고있다.

서정시《스위스의 한 아버지》에서는 혹심한 가난속에서 안해마저 잃고 돌이 지난 갓난애와 5살난 어린 자식을 키워가는 아버지의 형상을 통하여 꾸바인민의 고통과 불행을 반영하였다.

아버지와 두 자식이 가난속에서 죽지 못해 살아가지만 그 누구도 동정해주지 않으며 구원의 손길도 뻗치지 않는다. 하여 살아갈래야 살아갈수가 없게 된 그는 운명을 한탄하며 우물에 몸을 던진다.

시에서는 이러한 비극을 빚어낸 장본인은 과연 누구인가 라는 물음을 제기하고 형상의 론리를 통하여 그것은 바로 식민지사회에서 주인노릇을 하고있는 압제자들, 착취자들이라는것을 느낄수 있게 하고있다.

서정시 《나는 숨소리 듣노라》에서는

나는 듣고있노라
땅과 바다에서 들려오는 숨소리를
허나 그것은 한숨소리가 아니거니
나의 아들이 깨여나려는
바로 그 소리노라

라고 노래하면서 압제자들이 지금은 비록 허장성세하고있지만 그것은 멸망에 직면한자들의 발버둥질에 불과하다는것을 확신성있게 예언하고있다.

나는 방금 보았노라
부상당한 독수리가
푸른 밤이슬 맞으며
날아나는것을
독있는 살모사가
제 둥지에서 죽어가는것을

그의 시는 특히 압제자들을 반대하는 투쟁에 힘있게 일떠선 꾸바인민의 영용한 모습을 격조높이 노래하고있다.

시 《10월 10일》은 나라의 자유와 해방을 위한 제1차 독립전쟁에 일떠선 꾸바인민의 영웅적기상을 노래한 작품이다.

시는 노예의 운명에 처했던 꾸바인민이 손에 무장을 들고 포악한 압제자들과 맞서싸우는 장한 모습을 그리면서 《자기 힘, 자기의 용감성》으로 조국을 지켜나가려는 꾸바인민의 사상정신세계를 힘있게 펼쳐보이고있다.

드디여 꾸바는
자기를 압박하여 거드름 부리던
올가미를 끊어버리고
힘차게 고개를 들었구나!

시인은 그밖에도 《그대의 모습에서 내 기쁨의 순간을 보노라》, 《나의 꿈은 실현되였다》를 비롯한 여러 시들에서 수세기동안 노예살이를 해오던 꾸바인민이 결연히 일떠서 자유와 독립을 위한 민족해방투쟁의 힘찬 발걸음을 내디딘것이 꿈이 아니라 현실임을 기쁨에 넘쳐 노래하고있다.

그의 시들가운데는 서정시 《보잘것 없는 진주》, 《흰장미》와 같이 인간에 대한 맹목적인 사랑과 우정, 인간의 불우한 운명과 고통자체를 노래한 사상예술성이 낮은 작품들도 일부 있다.

그러나 그의 시들에 일관되여있는 기본사상감정은 열렬한 애국심이다. 마르띠이전시기에도 많은 시인들이 조국에 대한 사랑을 노래한 시들을 내놓았다. 하지만 그러한 시들은 많은 경우 이역땅에서 느끼는 향수, 고향땅과 자연에 대한 사랑 그자체를 노래한것이였다. 이와는 달리 마르띠는 조국애의 발현을 새로운 각도에서 해명하고 조국애와 조국해방을 결합시킴으로써 그것을 더 높은 수준에로 승화시켰다.

《나의 시는… 상처에서 솟구치는 피의 분수와도 같다.》고 한 시인자신의 말처럼 뜨거운 조국애와 해방투쟁에로 부르는 격조높은 호소로 충만된 호쎄 마르띠의 시작품들은 꾸바의 진보적문학의 발전과 민족해방투쟁에 크게 이바지하였다.

3) 메히꼬문학

18세기부터 민족적색채가 뚜렷해지기 시작한 메히꼬문학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메히꼬정부가 쁠럭불가담나라들에 대하여 실시하고있는 정책을 지지하고있습니다.

나는 앞으로 조선과 메히꼬 두 나라사이의 친선협조관계가 더욱 좋게 발전하리라고 믿습니다.》

북아메리카대륙의 남쪽에 위치하고있는 메히꼬는 동쪽으로는 메히꼬만에, 북쪽으로는 미국에 그리고 서쪽으로는 태평양에 면하고있는 나라이다. 이러한 지리적위치와 관련하여 메히꼬를 북아메리카에 소속시키기도 하고 중앙아메리카에 소속시키기도 한다.

그렇지만 메히꼬는 에스빠냐어를 쓰는 나라이고 지난날 에스빠냐의 식민지로 있던 나라로서 라틴아메리카에 포함시켜보는것이 더 합리적이다.

옛날부터 메히꼬땅에서는 고대마야문화를 창조한 원주민들이 인디안국가를 형성하고 살아왔다. 그러나 1492년 꼴롬부스에 의하여 아메리카대륙이 유럽에 알려진 이래 메히꼬는 에스빠냐침략자들의 첫 정복대상으로 되였다.

1519년 메히꼬에 대한 침략원정을 개시한 에스빠냐식민주의자들은 원주민인 인디안들에 대한 잔인한 학살과 략탈을 감행하였으며 1521년에는 이 나라를 완전히 강점하였다. 이때로부터 메히꼬는 300년동안 에스빠냐침략자들의 식민지통치밑에 있었다.

메히꼬인민들은 이 기간 에스빠냐의 식민지통치를 반대하는 투쟁을 힘있게 벌렸다. 이 투쟁은 특히 19세기에 들어와 더욱더 고조되였다.

1810년에 라틴아메리카나라들에서 독립전쟁이 개시되자 그해 9월 메히꼬에서도 미겔 이달고의 지도밑에 대규모적인 인민폭동이 일어나 전국각지로 확대되였다. 이달고는 주로 인디안과 메티스농민들로 구성된 수천명의 군대를 조직하여 식민주의자들을 반대하는 항전을 벌렸다. 그러나 이 투쟁은 분산성을 극복하지 못하여 각개격파당하였다. 이달고는 적들에게 붙잡혀 학살당하였다.

투쟁은 비록 진압당하였으나 식민주의자들에게 커다란 타격을 주었을뿐아니라 반식민주의투쟁의 새로운 앙양을 예고하는 전주곡으로 되였다. 목수의 아들인 마리아 모렐로스가 지도한 그후의 간고한 투쟁과 장기간 계속된 농민대중의 피어린 반식민주의투쟁으로 하여 1821년 메히꼬인민은 드디여 나라의 독립을 이룩하였다.

그러나 독립후 정권은 또다시 극소수 부유한자들의 수중에 들어갔으며 부패무능한 반동지배층내부의 정권쟁탈전으로 하여 인민들은 도탄에 빠지고 나라는 극도로 쇠약해졌다.

바로 이러한 때에 평토팽창에 미쳐날뛰던 미제국주의자들은 1846년에 침략전쟁을 일으켜 1848년에는 메히꼬땅의 절반이상을 강탈하였다. 미제는 악명높은 몬로주의를 휘둘러대면서 광대한 토지를 략탈하고 경제생활전반을 틀어쥐였다. 그리하여 이 나라는 점차 미제의 반식민지로 전락되였다.

메히꼬문학은 이러한 시대를 배경으로 하여 발전하였다.

16—18세기 식민지시기에 메히꼬의 문학발전은 서서히, 매우 완만하게 진행되였다.

이 시기에는 식민지당국에 의하여 소설창작이 금지되고 시와 희곡창작만이 허용된 조건에서 일부 시와 희곡유산이 남아있을뿐이다.

16세기에는 주목할만 한 유산이 없고 17세기에 이 시기의 대표적인 세 시인 베르나르도 데 발부에나, 후아나 이네스 델 라 끄루스, 까를로스 데 씨구엔싸의 시유산들이 알려져있다.

베르나르도 데 발부에나(1561—1627)는 비록 에스빠냐태생이지만 2살때 아버지의 령지가 있는 메히꼬에 이주하여 메히꼬종합대학을 졸업하였으며 교직자가 되여 한생을 메히꼬와 그 주변나라에서 보냈다. 그는 이 과정에 자신을 메히꼬사람으로 간주하고 메히꼬를 사랑하게 되였으며 그러한 사상감정을 담은 시작품들을 창작하였다.

그의 대표작은 서사시 《위대한 메히꼬》(1604)이다. 시인은 8장으로 된 이 작품에서 메히꼬의 도시와 농촌생활을 구체적으로 노래하면서 메히꼬를 찬양하였다.

이네스 델 라 끄루스

후아나 이네스 델 라 끄루스(1648—1695)는 메히꼬뿐아니라 라틴아메리카에 이름난 재간있는 녀류시인이다.

수도부근의 농촌에서 크레올의 딸로 태여난 그는 학식과 미모로 하여 부왕의 궁정에 뽑혀가 궁정생활을 하였으나 사람들의 질시와 설교사의 강박으로 하여 궁정을 떠나 수도원에 들어가있었다.

그는 수도원에서 죽을 때까지 근 30년을 생활하면서 수많은 시들을 창작하였다. 하여 온 라틴아메리카에 학식이 높은 수녀에 대한 소문이 나게 되였다.

그의 창작유산으로 서사시 《첫번째 꿈》, 시 《녀류시인이 메히꼬주교에게 공손히 청원하는 로만쎄(로만스)》, 《필자가 우리 세기의 이름난 시인의 한사람인 돈 호쎄 데 몬또르의 의견에 반박하는 로만쎄》, 《비상한 학식이 비난받고있는것과 관련한 로만쎄》를 비롯한 시작품들과 《어느 한 집에서 일어난 소동》(1683), 《나르끼소스》(1689), 《사랑의 미궁》(1689) 등의 극작품들과 서한집 《동생 필로떼아에게 주는 대답》(1691)이 있다.

그의 창작에서 특징적인것은 수녀의 몸으로 주교의 미움을 사고 교회당국의 압박을 받으면서도 끝까지 인문주의적리상을 버리지 않고 인간의 개성을 조화롭게 발전시키며 지성적인것을 자유롭게 표현하는 권리를 대담하게 주장한것이다.

이런것으로 하여 녀류시인은 속세와 떨어진 수도원에 갇혀있으면서도 당시 라틴아메리카에서 가장 이름난 시인의 한사람으로 되였다.

까를로스 데 씨구엔싸 이 곤고라(1645—1700)는 박식한 학자로서 수도의 대학에서 20년동안 강좌장으로 있으면서 시를 썼다. 특히 그는 인디안 아즈떼끄족과 아즈떼끄국가의 력사와 문화를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그들의 시유산을 수집하여 자기 작품에 반영하였다.

그의 시창작유산으로 《인디아스의 봄, 과달루뻬의 성모 마리아에 대한 신성하고 력사적인 서사시》(1662), 《동방의 복음주의행성, 신성한 찬가》 (1668), 《께레따로의 영광에 대한 노래》(1680) 등이 있다.

그는 크레올과 인디안을 결합시켜 《크레올민족》이라는 개념을 처음으로 씀으로써 종교적인 색채가 강한 애국주의사상을 표현하였다. 특히 그는 원주민들을 박해하던 시기에 에스빠냐침략자들을 반대하는 봉기를 호소했다가 꼬르떼스에 의하여 처형당한 아즈떼끄족의 마지막 청년추장 꽈우떼모끄의 형상을 창조한것을 비롯하여 인디안들을 문학작품에 적극 등장시킴으로써 인디안들에 대한 사회적관심을 높이였다.

18세기는 메히꼬에서 반식민지투쟁이 고조되던 시기로서 이에 맞게 문학에서도 민족적색채가 뚜렷해지기 시작하였다.

이 시기에 메히꼬문학의 민족성을 높이는데 이바지한 작가들로 라파엘 란디바르, 호쎄 마누엘 마르띠네스 데 나바레따, 호쎄 안또니오 알싸떼, 프란씨스꼬 하비에르 끌라비헤로 등을 들수 있다.

라파엘 란디바르(1731—1793)는 과떼말라태생으로 메히꼬에서 교육을 받았으며 후에는 이딸리아에서 지냈다. 그가 유명해진것은 이딸리아에서 라틴어로 출판한 서사시 《메히꼬의 농촌》(1782)과 관련되여있다. 이 서사시에서 시인은 메히꼬의 자연과 농촌주민들의 생활을 반영하면서 인디안과 흑인, 농민과 광부 등 평범한 사람들의 생활과 그들의 고역을 노래하고 깊은 동정을 표시하였다. 그는 특히 원주민인 인디안들을 존경심을 가지고 대하였다.

아메리카의 베르길리우스로 불리운 란디바르의 서사시 《메히꼬의 농촌》은 고대로마시인 베르길리우스의 서사시 《게오르기까(농경시)》와는 달리 라틴아메리카의 주민들과 자연에 대한 사랑을 노래한것으로 하여 중요한 문학사적의의를 가지게 되였다.

농촌을 주제로 한 시들을 쓴 호쎄 마누엘 마르띠네스 데 나바레따(1768—1809), 메히꼬계몽주의문학의 대표자인 호쎄 안또니오 알싸떼(1729—1799)도 란디바르와 함께 메히꼬문학의 민족성을 높이는데 이바지하였다.

안또니오 알싸떼는 《메히꼬문학신문》(1788—1795)을 비롯한 출판물들을 통해 문학창작을 추동하고 인민들속에 애국심을 높이는데 이바지하였다.

프란씨스꼬 하비에르 끌라비헤로(1731—1787)가 쓴 《메히꼬고대사》(1780—1781, 이딸리아어로 출판)는 비록 력사책이지만 메히꼬민족문학발전에 큰 영향을 주었다. 그것은 필자가 이 책에 메히꼬가 에스빠냐침략자들에게 강점당하기 전 원주민들의 생활과 력사를 종합체계화함으로써 라틴아메리카식민지나라 인민들의 렬등성과 락후성에 대해 떠든 유럽어용사가들의 주장을 뒤집어엎고 메히꼬원주민들의 우수성과 민

족적독자성을 론증하였기때문이다. 이것은 메히꼬작가들과 지식인들의 민족적자존심을 높이고 그들이 독자적인 민족문화를 창조하기 위한 길로 나가도록 추동하였다.

메히꼬문학은 19세기에 들어서면서 본격적으로 발전하게 되였다.

우선 신문, 잡지발간사업이 활발해지고 문학단체들이 조직되는 등 문학창작활동이 활기를 띠게 되였다.

여기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것은 호쎄 호아낀 페르난데스 리싸르디였다. 그는 1812년에 잡지 《뻰싸도르 메히까노》(메히꼬사상가)를 발간하고 계몽주의적립장에서 독립운동을 벌렸으며 대표작인 장편소설 《뻬리낄리오 싸르니엔또》에서 강한 반식민주의적, 반봉건적사상을 표현하였다. (리싸르디와 장편소설 《뻬리낄리오 싸르니엔또》에 대해서는 마감에 따로 서술하였다.)

이 시기 메히꼬에서 조직된 여러 문학단체들가운데서 두드러진것은 아까데미야 레뜨란이였다. 1836년에 조직되여 1850년대까지 존재한 이 단체는 낡은 수도원건물에 모인 젊은 시인들에 의해 조직된것이였다. 그들은 잡지 《아떼네오 메히까노》를 발간하고 문학을 메히꼬화하려고 노력하였다.

반독재정신이 강한 풍자시 《대통령각하댁의 무도회》와 서사시 《꽈우떼모끄의 예언》(1836)을 내놓은 랑만주의시인 이그나씨오 로드리게스 갈반(1816—1842)도 이 단체의 성원이였다.

1810년부터 독립전쟁이 벌어져 1821년에 독립을 쟁취한 메히꼬에서도 랑만주의문학이 발생하여 지배적인 사조로 되였다.

시문학에서 랑만주의를 대표한것은 이그나씨오 로드리게스 갈반과 길레르모 쁘리에또였으며 소설문학에서는 루이스 곤사가 인끌란과 이그나씨오 마누엘 알따미라노였다.

문학단체 아까데미야 레뜨란의 열성적인 성원이였던 길레르모 쁘리에또(1818—1897)는 반독재투쟁과 사회개혁운동에 적극 참가하면서 절박한 정치적문제들을 반영하고 애국주의정신을 담은 랑만주의적시작품들을 창작하였다. 그는 《이달고의 죽음》, 《소년포병》, 《마따모로스의 포로와 처형》, 《돈 뻬드로 모레노》 등 독립을 위한 메히꼬인민의 투쟁에 바쳐진 시편들을 수록한 시집 《민족로만스》(1895), 세태풍속시집 《거리의 뮤즈》(1881) 등 적지 않은 시들을 내놓았다.

루이스 곤사가 인끌란(1816—1875)은 소작농을 거쳐 인쇄업자가 된 후 자기가 발간한 신문에 민간시들과 구전문학을 연구한 글들을 발표하다가 점차 소설창작으로 넘어간 독학작가이다.

그의 대표작인 장편소설 《아스뚜씨아》(원제목; 《담배밀수업자형제의 두목 아스뚜씨아》 1865)는 의로운 도적의 생활을 통하여 당대 메히꼬의 사회생활을 폭넓게 반영한 작품이다.

소설에서는 《아스뚜씨아》(꾀많은 사람)라는 별명을 가진 주인공이 여러 사람과 의형제를 맺고 잎담배부대를 만든 다음 담배독점회사의 략탈행위를 저지시키고 정의와 공정한 질서를 세우기 위하여 싸우는 이야기가 펼쳐진다. 그들은 용감하게 싸웠으나 희생자가 늘어나고 마지막에는 주인공 한사람만이 기적적으로 살아남는다. 이러한 이야기전개과정에 19세기 중엽 메히꼬의 세태풍속이 생동하게 묘사된다.

농민들이 일상적으로 쓰는 입말을 처음으로 도입하고 농민생활을 반영한 이 소설은 문학의 메히꼬화를 실현하기 위한 사업에 이바지하였다.

알따미라노

이그나씨오 마누엘 알따미라노(1836—1893)는 인디안농민가정에서 태여나 자유당의 중요인물이 되고 국회의원으로까지 된 사람이다. 그의 시와 소설은 내용에서 애국적이며 창작방법에서 랑만주의적요소가 강한것이 특징이다.

그의 대표작인 장편소설 《끌레멘씨아》(1869)는 주인공들의 사랑문제를 반침략애국사상의 견지에서 해결한 작품이다.

소설의 사건은 메히꼬가 프랑스의 침략을 당했던 1863년말—1864년초에 메히꼬의 지방도시 과달라하라에서 벌어진다. 젊은 장교 엔리께 플로레스는 비렬하고 랭정한 난봉군이나 잘 생기고 사교술이 능한것으로 하여 도시의 뭇처녀들속에서 인기있는 인물로 된다. 그는 처음 유순한 처녀 이싸벨을 애인으로 삼았다가 곧 그를 버리고 아름답고 정열적인 처녀 끌레멘씨아를 뒤쫓아다닌다.

끌레멘씨아로 말하면 이미 청년장교 페르난도 발리에의 사랑을 받고있었다. 그런데 그는 용감하고 성실한 사람이면서도 겉보기에 침울하

고 인상이 나쁜것으로 하여 처녀의 마음을 끌지 못한다. 처녀는 끝내 그를 배척하고 엔리께의 사랑을 받아들인다. 처녀의 배반으로 하여 페르난도는 끝없는 고민에 잠기게 된다.

이러한 때 과달라하라로 프랑스침략군이 공격해온다. 조국앞에 위험이 박두한 엄혹한 시각에 두 장교의 본성이 드러나게 된다. 페르난도는 용감하게 침략자들과의 싸움에 나서지만 엔리께는 비겁하게 행동하면서 변절자로 굴러떨어진다. 그러나 조국을 배반한 죄로 엔리께가 체포되였을 때에도 사랑에 눈이 먼 끌레멘씨아는 이 사실을 믿지 않고 엔리께가 체포된것은 질투심에 사로잡힌 페르난도의 소행이라고 생각하며 그를 원망한다.

그러지 않아도 끌레멘씨아의 사랑을 잃고 번민하던 페르난도의 고민은 이 일로 하여 더욱 커진다. 처녀앞에서 엔리께의 체포와 관련된 책임이 자기에게 있지 않다는것을 증명할 길이 없었던 페르난도는 엔리께를 대신하여 자기가 감옥에 갇히고 단두대에 오르며 응당 처단되여야 할 엔리께는 도주하여 자기의 더러운 목숨을 건진다.

뒤늦게야 진실을 알고 페르난도의 참된 사랑을 뼈저리게 느낀 끌레멘씨아는 조국의 변절자인 엔리께를 증오하고 페르난도를 위하여 수도원에 들어간다.

이 작품에서 특징적인것은 주인공들의 비극적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전개하면서 그것을 침략자들을 반대하는 투쟁과 밀접히 결부시키고있는것이다.

작품에서 작가는 현실을 떠난 자연속에서의 남녀청년들의 순수하고 숙명적인 사랑의 비극을 그리군 하던 반동적랑만주의작가들과는 달리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떠난 사랑은 있을수 없다는 립장에 서있다. 그리하여 소설에서는 사랑문제도 애국심을 자로 하여 재보아야 하며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떠난 사랑은 아무 쓸모가 없다는 사상을 제기하고있다.

그러나 이 작품에서 작가는 삼각련애를 주선으로 하여 이야기줄거리를 끌고나갔을뿐아니라 애국적인물인 페르난도로 하여금 사랑문제로 고민하던 나머지 변절자를 대신하여 죽게끔 만드는 제한성을 드러냈다. 작가는 또한 랑만주의적수법으로 갈등관계를 인위적으로 조성시키면서 페르난도의 성격을 부자연스럽게 형상함으로써 생활을 진실하게 반영하지 못한 제한성도 나타냈다.

《히꼬뗀까뜰》 메히꼬랑만주의소설들가운데서 중요한 작품의 하나는 장편소설 《히꼬뗀까뜰》(1827, 작가 모름)이다. 작품은 16세기초 에스빠냐식민주의자들의 침략을 반대하여 투쟁한 메히꼬인디안들의 투쟁력사를 반영한 력사소설이다.

꼬르떼스가 지휘하는 에스빠냐침략군이 메히꼬에 침략의 발을 들여놓았을 때 메히꼬의 인디안종족들은 서로 힘을 합쳐 침략자들과 싸울 대신 서로 반목질시한다. 그중에서도 강대한 인디안국가를 세운 아즈떼끄족과 그 압박을 받는 인디안 뜨라스깔라족사이의 불화가 컸다.

교활한 침략자 꼬르떼스는 이 불화를 리용하여 뜨라스깔라족을 자기 동맹자로 인입한다. 뜨라스깔라족의 통치자들은 아즈떼끄족을 미워하던 나머지 외래침략자들과 동맹하여 아즈떼끄족을 공격하는 원정에 참가한다.

이때 뜨라스깔라족의 통치자들이 택한 길이 파멸적이라는것을 누구보다도 먼저 깨달은것은 이 종족의 청년 히꼬뗀까뜰이였다. 그는 사태를 옳게 판단하고 에스빠냐침략자들과 동맹을 맺은 자기 종족의 통치자들을 반대해나서며 공동의 원쑤를 반대하여 전체 인디안종족들이 힘을 합쳐 싸울것을 호소한다. 그러나 그의 이 호소는 협소한 종족적리해관계에 눈이 먼 자기 종족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그자신도 희생된다.

작품은 이처럼 메히꼬인디안들의 력사에 기초한 일화를 통하여 옛 인디안족의 생활을 재현하고 반침략애국사상을 표현하였다.

그러나 《히꼬뗀까뜰》을 비롯하여 인디안들의 력사를 주제로 한 랑만주의작품들은 인디안들의 현실생활을 통하여 절박한 사회적문제를 제기한것이 아니라 옛 인디안들의 생활만을 리상화하여 그리는 제한성을 나타냈다. 그 당시에 인디안들은 가장 천대받고 압박받는 사람들로서 최하층의 처지에 놓여있었으나 인디안을 주제로 한 랑만주의작품들은 이러한 현실을 외면하고 먼 과거의 인디안종족들의 생활만을 리상화하여 그리였다.

이와 같이 랑만주의문학의 발전과정에 메히꼬문학은 민족문학으로서의 자기 면모를 뚜렷이 갖추게 되였다.

리싸르디와 장편소설 《뻴리낄리오 싸르니엔또》

《메히꼬소설의 아버지》로 불리우는 페르난데스 데 리싸르디는 메히꼬와 라틴아메리카문학에서 첫 장편소설을 창작한 작가로서, 에스빠냐의 식민지통치가 무너져가던 시기를 생동하게 반영한 소설가로서 메히꼬와 라틴아메리카문학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있다.

호쎄 호아낀 페르난데스 데 리싸르디(1776—1827)의 생애와 창작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는 알려져있지 않다.

바야흐로 300년동안의 에스빠냐식민지통치가 무너져가던 력사의 전환기에 산 그는 겨레들을 계몽시키기 위한 사업에 헌신하였다.

그는 이것을 위해 잡지발간사업에 힘을 넣었다. 그는 1812년에 잡지 《뻰싸도르 메히까노》(메히꼬사상가)를 창간하고 잡지를 통하여 《새 에스빠냐》부왕령(당시 메히꼬의 명칭)에서의 에스빠냐식민지통치의 반동성과 부패성을 예리하게 비판해나섰다. 잡지는 그 강한 반식민주의적성격으로 하여 발간된지 몇달만에 부왕의 명령으로 폐간당하였다.

그는 이에 반발하여 자기의 계몽주의적리상을 담은 장편소설을 내놓았다. 그는 4년이나 애를 써서 1816년에 첫 장편소설 《뻴리낄리오 싸르니엔또》를 내놓았다. 그러나 소설은 식민지당국의 검열에 걸려 출판금지되였다가 작가가 사망한 후 1831년에 가서야 출판될수 있었다.

이 작품이후에 그는 장편소설 《건달군 돈 까뜨린》과 《끼호따따와 그의 조카딸》을 내놓았다.

에스빠냐의 악당소설형식을 리용한 그의 소설들은 계몽주의사상을 담고 식민지사회를 예리하게 풍자하였으며 식민주의자들의 예속에서 벗어난 리상사회를 그려내였다.

그의 이러한 창작적개성은 대표작인 장편소설 《뻴리낄리오 싸르니엔또》에서 뚜렷이 표현되고있다.

소설의 정식제목은 《자식들이 교훈으로 삼기 위하여 그자신이 쓴 뻴리낄리오 싸르니엔또의 생애와 활약》이다. 제목을 이렇게 닮으로써 작가는 이 소설이 허구가 아니라 사실이야기라는듯한 인상을 자아내려고 하였다.

작품은 주인공이 자기의 복잡다난한 한평생을 추억하는 자서전형식으로 씌여진 1인칭소설이다.

주인공 뻬드로는 메히꼬에 이주한 몰락한 에스빠냐귀족의 집안에서 태여났다. 그의 부모는 가난하였지만 귀족의 후예라는 체면만 생각하면서 아무 일도 하지 않았으며 자기 아들도 그렇게 살도록 교양하였다.

그러나 부모가 죽은 후 빈털터리로 나앉게 된 뻬드로는 뻴리낄리오로 변성명하고 사회로 진출하였다. 그는 도박장의 사환군, 재판소 서기, 교회당 관리원 등 여러가지 일들을 하며 마지막에는 판사로 출세하여 관리생활까지 한다.

이 과정에 그는 식민지사회는 그야말로 허위와 기만, 사기와 협잡이 판을 치는 썩어빠진 사회이며 돈많고 권세있는 식민지관리들과 부자들, 승려들만이 잘 먹고 잘 살며 돈없고 권세없는 사람들, 식민지노예의 처지에 놓여있는 인디안을 비롯한 식민지인민들은 불행과 고통속에서 헤여나지 못하는 사람 못살 사회라는것을 뼈저리게 느낀다. 주인공은 해외려행의 길에 올랐다가 그 어떤 미지의 섬에 들리게 되여 정의와 리성이 지배하는 리상적인 사회를 목격하게 된다.

그는 이러한 편력끝에 가정의 선량한 아버지로, 사회의 유익한 성원으로 된다.

작품은 무엇보다도 작가의 리성중시의 계몽주의사상을 표현하고있다.

리싸르디의 계몽주의사상에서 기본으로 되고 있는것은 만민평등사상이다. 프랑스계몽주의의 신분평등사상을 받아들인 작가는 식민지사회에서의 온갖 신분적 및 사회적불평등을 비판하면서 만민은 평등하여야 한다는 계몽주의사상을 제기하였다.

소설에는 특별히 이 문제에 바쳐진 장이 있는데 삽화적인 이 장에서는 영국인과 흑인의 론쟁과 결투에 대한 이야기가 벌어진다. 여기에서 계몽주의사상을 가지고있는 리성적인 흑인이 문명하다는 영국인과 당당하게 맞서며 인종적편견의 부당성과 그에 대한 유럽인들의 견해의 편견성을 론증한다. 그는 유럽의 문명을 모르는 흑인을 야만인으로 간주하는 영국인에게 만약 《문명하다는 유럽의 백인들을 세네갈이나 꽁고에 갖다놓는다면 그곳 사람들은 흑인들에 비해 몰상식한 백인들을 야만인으로 간주할것이다.》라고 조소한다.

작품은 다음으로 이러한 계몽주의사상에 기초하여 식민지사회의 사회악을 예리하게 풍자비판하고있다.

작가는 우선 소설의 앞부분에서 묘사한 주인공의 부모들과 주인공자신의 생활을 통하여 아무일도 안하고 놀고 먹으며 사회를 위해 아무런 유익한 일도 안하고 건달로 지내는 식민주의자들과 그 후예들의 기생성과 몽매성을 풍자조소하였다.

주인공의 아버지가 몰락한 집안형편이 어려워 아들에게 그 무슨 일자리를 잡아주어야겠다고 말하자 어머니는 명문귀족가문의 후손인 우리가 어떻게 비천한 직업에 손을 대겠는가고 하면서 단호히 반대한다.

이렇게 교양받은 주인공은 아버지의 장례를 지낸 후 어머니가 림종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에 남아있던 돈을 깡그리 걷어쥐고 집에서 뛰쳐나간다. 어머니의 장례식에 쓸 돈이 아까왔던것이다. 관리원이 밀린 집세를 받으려고 남은 재산을 정리해보니 바퀴가 욱실거리는 쏘파 몇개와 낡아빠진 가구 몇개밖에 없었다.

이 장면은 무직건달로 기생충생활을 하면서 가문의 빛나는 명예만 생각하는 무지몽매한 크레올귀족나부랭이들에 대한 신랄한 풍자조소로 된다.

작가는 또한 주인공 뻬리낄리오의 방랑생활을 따라가면서 식민지사회의 부패성과 사회악을 폭로하고있다.

뻬리낄리오는 방랑과정에 못 가본 곳이 없고 못 들어가본 곳이 없다. 도박장, 감옥, 교회, 병원, 거지조합을 비롯하여 어디서나 사기협잡과 더러운것, 잔인성이 판을 치고있었다. 그는 숱한 직업과 일자리에 종사해보았다. 도박군, 리발사, 의사, 교회비품관리원, 서기, 대좌의 종졸, 강도, 지어 판사노릇까지 해본다. 그의 체험에 의하면 국가관리기관은 문란해질대로 문란해져 무법천지와 무질서가 지배하고있었다.

그가 감옥살이를 하게 되였을 때 있은 일이다. 그가 글씨를 잘 쓴다는것을 알게 된 판사의 서기는 비법적으로 그를 감옥에서 빼내여 자기 조수로 채용하며 자기가 써야 할 문건을 모조리 그가 쓰도록 한다. 이 기회에 뻬리낄리오는 식민지 메히꼬에서의 재판의 기만성과 위선을 알게 되며 법이란 말뿐이고 준법성에 대해서는 생각조차 하지 못하는 무법천지로 화한 당대 현실의 부패성을 절감하게 된다.

뻬리낄리오는 또한 한때 교회비품관리원으로 있으면서 교직자들속에서도 부정부패가 만연하고 그들이 썩을대로 썩었다는것을 깨닫게 된다.

소설에서는 원주민인 인디안들이 법밖에 놓이고 아무런 권리도 없이 비참하게 살고있는데 대해서도 반영하면서 그들에 대한 동정을 공개적으로 표시하고있다.

작품에서 작가는 자기가 풍자비판한 썩어빠진 식민지사회에 대치할 리상사회를 그려보이고있다.

항행의 길에 올랐다가 필리핀까지 갔던 주인공은 우연히 미지의 섬에 들리게 된다. 그곳에는 리성과 정의가 지배하는 리상적인 나라가 있었다. 이 나라 사람들의 유일한 평가기준은 합목적성이다. 이 나라에서는 로동과 군사복무가 모든 사람의 의무로 되고 일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먹을것을 주지 않는다. 하여 놀고먹는 건달군이나 거지가 한명도 없으며 모두가 이러저러한 일에 종사하여 유족하게 살고있다. 특히 재판제도가 공정한데 재판은 거리에서 모든 사람의 감시밑에 공개적으로 진행됨으로써 준법성이 엄격히 지켜지고있다.

뻬리낄리오는 고국의 제도와 생활에 대하여 자랑스럽게 이야기했다가 대화상대자인 이 나라 통치자의 동생 리 마오 뜬의 조소를 불러일으킨다. 대화가 진행될수록 두 나라의 엄청난 차이가 점점 더 드러난다.

작가는 이 리상적인 나라에 대한 형상을 통하여 계몽주의자들이 바라던 리성의 왕국에 대한 공상을 펼쳐놓았다.

이 작품은 적지 않은 제한성도 가지고있다.

그것은 우선 작품에서 제기된 반봉건, 반식민주의사상이 매우 불철저하다는것이다. 작가는 에스빠냐의 식민지통치를 반대하고 독립운동을 지지하면서도 독립을 위한 투쟁방도에서 부르죠아적계몽활동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하였으며 무장투쟁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대했다.

또한 작가가 공상한 리상사회란 본질에 있어서 극소수의 부르죠아지에게는 천당이지만 절대다수의 근로대중에게는 지옥으로 될 자본주의사회였던것이다.

작품은 아직 시대의 특징과 사회의 본질을 담고있는 전형적인 생활을 그리지 못하였으며 비사

실주의적인 측면을 적지 않게 드러냈다.

이러한 제한성을 가지고있으나 작품은 에스빠냐의 식민지통치가 무너져가던 시대현실을 뚜렷이 반영하고 그 부패성을 비판함으로써 메히꼬와 라틴아메리카의 진보적문학의 발전에 영향을 주었다.

작품은 또한 라틴아메리카사회생활의 특성과 독특한 세태풍속을 폭넓고 생동하게 묘사한 첫 소설작품으로서 식민주의국가 에스빠냐의 문학과는 확연히 구별되는 라틴아메리카적인 메히꼬 민족소설창작의 길을 열어놓았다.

4) 브라질문학

종주국문학에 대한 모방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민족문학창조에로 나아간 브라질문학

남아메리카대륙 동북부에 자리잡고있는 브라질은 대륙의 거의 절반(약 48%)에 가까운 넓은 지역을 차지하고있는것으로 하여 세계적으로 큰 나라들속에 속한다. 북쪽과 서쪽으로는 베네수엘라, 꼴롬비아, 뻬루, 남쪽으로는 볼리비아, 빠라과이 등 여러 나라와 국경을 접하고있고 동쪽으로는 7400㎞의 해안선이 대서양에 면하고있다.

브라질이란 이름은 이 나라의 해안지대에 많이 자라는 나무이름에서 유래된것이다. 줄기와 속색갈이 붉고 윤기도는 이 나무는 고급가구용재와 염료재로 널리 리용되고있다.

브라질의 국토는 넓고 크기때문에 열대, 아열대, 온대권안에 들어있다. 브라질의 국토는 크게 아마조나스저지와 브라질고원, 남동해안지대로 나누어볼수 있다. 아마조나스저지는 대부분 지역이 열대원시림으로 뒤덮여있고 브라질고원은 나무와 풀이 무성한 초원이여서 좋은 목축지로 되고있으며 남부해안지대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여살고있는 비교적 발전된 곳이다. 이 지역에 브라질의 이전 수도인 리오드쟈네이로와 싼 빠울로 등 큰 도시들이 집중되여있다.

이 나라에는 《세계식물표본의 진렬장》이라고 할수 있을 정도로 무려 4만종에 달하는 식물들과 특이한 동물들이 살고있으며 수많은 지하자원이 매장되여있다.

그러나 이처럼 풍요한 브라질땅이 지난날 식민주의자들과 제국주의자들의 략탈대상으로 되고 브라질인민은 장구한 기간 수난의 력사를 걸어오지 않으면 안되였다.

브라질은 1500년 4월 뽀르뚜갈사람 까브랄에 의하여 처음 발견되였다. 그때까지 브라질에는 약 150만명의 원주민들인 인디안들이 북부해안지대를 중심으로 널리 분포되여 살면서 자기들의 독자적인 문화를 창조하고있었다. 그러나 16세기초에 브라질을 저들의 식민지로 만든 뽀르뚜갈침략자들은 뽀르뚜갈어를 유일한 공용어로, 카톨릭교를 국교로 강요하면서 (현재 주민의 93%가 카톨릭교를 믿고있다.) 식민주의국가의 문화를 류포시켰으며 원주민들을 대량학살하고 아프리카로부터 수많은 흑인들을 (1532년부터 1850년까지 1200만명) 노예로 끌어왔다.

원주민인 인디안들과 흑인노예들은 뽀르뚜갈식민주의자들의 대농장들에서 가혹한 고역을 강요당하였으며 브라질의 풍요한 자원은 무자비하게 략탈당하였다.

식민주의자들의 채찍밑에서 더는 살아갈수 없었던 노예들은 17세기부터 19세기 초엽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봉기를 일으켰다. 특히 1763년과 1813년에 브라질노예들이 일으킨 대규모적인 봉기들은 식민주의자들을 전률케 하였다. 그가운데서도 1630년부터 1697년까지 도주한 노예들이 지방에 빨마레스공화국을 세우고 식민주의자들을 반대하여 영웅적으로 싸운 빨마레스흑인폭동은 력사에 잘 알려져있다.

브라질인민들은 1817년부터 도민고 죠제 마르띤스의 지도밑에 독립운동을 힘있게 벌려 마침내 1822년 9월 독립을 이룩하였다. 그러나 독립의 성과를 가로챈 뽀르뚜갈귀족이주민들이 돈 뻬드로왕국을 세움으로써 이 나라는 의연히 외래식민주의자들의 지배를 받았다. 그후 1889년에 가서야 군주제가 철폐되고 련방공화국이 수립되였으며 1891년에는 나라이름을 《브라질합중국》으로 고쳤다.

브라질은 라틴아메리카에서 뽀르뚜갈어를 공유어로 사용하는 유일한 나라이다. 그러나 이 나라에서 사용하고있는 뽀르뚜갈어는 아프리카흑인과 원주민인 인디안들의 말씨가 섞여 본래의 뽀르뚜갈어와 좀 다른 하나의 브라질말이라고도 할수 있는 새로운 언어로 되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문학예술작품은 자기 시대 사람들의 투쟁과 생활을 그린것일수록 보다 의의있는것으로 됩니다.》

브라질민족문학의 형성은 식민지적, 봉건적 예속에서 벗어나 자주성을 옹호하기 위한 브라질인민의 투쟁과 밀접히 결부되여 진행되였다.

16세기부터 18세기 전반기까지의 브라질문학은 아직 본격적인 발전의 길에 들어서지 못하고 그 준비단계에 놓여있었다.

원주민들의 구전문학은 식민주의자들의 원주민말살정책에 의하여 보존, 전승되지 못하였으며 초기의 산문작품들은 아직 자기의 형태를 갖추지 못하였다. 브라질문학에서는 19세기 전반기까지 시문학이 지배적인 형태로 되여있었으며 극문학이 좀 창작되고 소설문학은 썩 후기에 이르러서야 발생하였다.

16세기부터 18세기 전반기에 이르는 시기에 브라질문학사에 이름을 남긴 문인들은 거의다 신부들이였다. 16세기의 마누엘 다 노브레가(1517－1570)와 죠제 드 안쉬에따(1534－1597), 17세기의 그레고리오 드 마또스 구에라(1623－1696)와 안또니오 비에이라(1608－1697), 18세기 전반기의 마누엘 보뗄료 드 올리베이라(1636－1711) 등이 다 그러하였다.

《서한집》(1719, 출판)과 대화집《이교도들을 대하는 방법과 관련한 대화》(수사본, 1557)를 남긴 노브레가는 브라질을 락토로 묘사하고 인디안들의 선량성을 강조하였으며 인디안들에 대한 압제를 비판하였다.

안쉬에따는 《성자 라브렌씨아명절》(1583)을 비롯한 여러편의 종교극을 만들어 인디안들속에서 공연하였다. 이 작품들은 인디안을 교화하기 위한 교훈적인 내용을 담은것이긴 하지만 오래동안 신성시되여온 유럽의 중세종교극의 전통을 뜯어고치고 인디안들의 취미와 요구에 맞게 민속극형식을 도입한것으로 하여 브라질민족극발생에 이바지하였다.

마또스는 17세기 브라질의 대표적인 시인으로 알려져있다. 그는 브라질의 바이아주태생으로서 한때 신부로 되였다가 교직을 포기하고 최하층생활을 체험하였으며 식민지당국과 적대적인 관계를 가진것으로 하여 아프리카로 추방당하였다. 그의 곡절많은 생애와 관련하여 적지 않은 전설과 일화가 전해지고있다.

그는 시창작에서 뽀르뚜갈의 바로끄문학의 영향을 받고 한때 과장과 허식이 많은 종교시들을 썼으나 점차 그 영향에서 벗어나 현실을 반영하고 식민지사회의 모순과 암흑을 풍자비판한 작품들을 내놓았다. 식민지제도의 부패성을 신랄히 풍자한 시 《1691년에 바이아를 휩쓴 기아》를 그 례로 들수 있다. 마또스는 당시 브라질의 인기있는 시인이였으며 그의 시는 브라질사람들의 사랑을 받았다.

18세기 후반기에 이르러서도 브라질문학에서 예술산문은 아직 발생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시문학은 미나스줴라이스주를 중심으로 하여 일어난 노예해방운동, 독립운동에 참가한 진보적시인들의 활동에 의하여 새로운 발전을 이룩하게 되였다. 여기서 중심적인 역할을 한것은 곤자가의 문학소조에 참가한 진보적시인들이였다. 곤자가, 다 끄스따, 알바렌가 뻬이쇼또는 독립운동에 참가한것으로 하여 당국에 체포되여 재판을 받았으며 종신류형을 선고받았다.

곤자가 또마스 안또니오 곤자가(1744－1810)는 브라질의 첫 진보적시인의 한사람이며 18세기 브라질의 대표적인 시인으로서 브라질민족시문학의 형성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그는 뽀르뚜갈에서 태여나 8살때 아버지를 따라 브라질에 이주하였으며 그후 뽀르뚜갈에서 고등교육을 받고 돌아와 빌랴리까의 검사, 바이아주고등법원 원장까지 하였다. 그러나 그는 계몽주의사상을 소유하고 뽀르뚜갈식민주의자들의 가혹한 식민지통치에 비판적으로 대하였다.

공정한 법관으로 소문난 그의 주위에 여러 지성인들이 모여들었다. 곤자가는 다 끄스따, 뻬이쇼또와 같은 시인과 친교를 맺고 그들을 포함하여 문학소조를 무었으며 다 끄스따의 방조밑에 시창작을 시작하였다.

그가 시를 쓰게 된것은 사랑때문이였다. 곤자가는 부유한 가정의 한 처녀와 몇년동안 교제하면서 많은 련애시들을 썼다. 처녀의 가정에서는 초기에 그가 부자가 아니라는 리유로 결혼을 반대하였으나 마감에는 동의하여 약혼이 성립되였으며 국왕의 동의도 내려왔다.

그러나 그는 1789년에 총독을 반대하는 음모의 주모자로 체포되였으며 3년동안이나 끈 재판에서 사형언도를 받았다가 겨우 처형을 면하고 아프리카의 모잠비크로 추방되였다. 그는 18년동안 류배살이를 하다가 그곳에서 사망하였다.

그의 창작활동기간은 겨우 10년미만이지만 이 기간에 시집 《디르쎄이우스 마릴리아》, 서사시 《칠레에서 온 편지》, 쏘네트집 등이 창작되였다.

《디르쎄이우스 마릴리아》는 처녀 마릴리아에게 그의 애인이 보내는 헌시들을 묶은 시집이다. 전 2편으로 구성된 시집의 제1편은 1789년에 창작되고 몇해후에 출판되였으나 감옥에서 씌여진 제2편은 그가 죽은 후 1810년에 발표되였다.

시집은 처음 곤자가가 애인에 대한 사랑을 노래한 련애시로 시작되였으나 점차 현실적인 사회적문제를 전면에 내세웠다. 특히 감옥에서 쓴 2편에서 그는 자기의 죄가 무근거하다는것을 주장하면서 음모란 공정한 법관인 자기를 복수하기 위해 부자놈들이 꾸민 모략이며 자기는 그자들의 더러운 중상과 비방의 희생물에 지나지 않는다고 토로하였다.

시인은 감옥과 교수대가 숲을 이루고 폭압이 살판치는 식민지현실을 폭로하면서 정의와 공정한 법질서를 짓밟고 폭력만을 휘두르는 식민주의자들을 단죄하고있다.

뒤돌아보니
사방에서 보이는건
도시의 큰 광장 복판에
솟아있는 단두대와 교수대
교형리의 번쩍이는 도끼날뿐이로구나

그러면서 시인은 꿈을 통하여 이러한 암담한 현실과 대치된 자유와 행복의 광명한 화폭을 펼쳐보이였다.

이 시기에 곤자가의 시들과 함께 우루과이인디안들에 대한 학살만행을 폭로한 죠제 바씰리오 다 가마(1741—1795)의 서사시 《우루과이》(1769), 지방적색채가 강한 죠제 드 싼따리까 두랑우(1722—1784)의 서사시 《까라무루》와 같은 작품들이 나왔다.

브라질문학이 본격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하고 민족문학으로 형성된것은 19세기에 들어와서이다.

19세기에 들어서면서 독립운동이 힘있게 벌어져 마침내 1822년 9월 브라질이 독립을 이룩함으로써 인민들속에서 민족적감정이 앙양되고 문학에서 식민주의문학에 대한 모방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민족문학을 창조하려는 기운이 높아졌다.

브라질에서 민족문학을 창조하기 위한 작가들의 활동은 랑만주의문학운동과 결부되여 진행되였다.

브라질의 진보적랑만주의문학은 시문학과 소설문학에서 다 나타났는데 시문학에서 그 대표자로 된것은 까스뜨로 알베스, 곤쌀베스 드 마갈랑이스, 곤쌀베스 디아스였다.

도밍고스 죠제 곤쌀베스 드 마갈랑이스(1811—1882)는 리오드쟈네이로태생으로 프랑스류학기간에 진보적랑만주의시인으로 활동하였다.

그의 시창작에서 특징적인것은 원주민인 인디안들의 생활과 투쟁, 그들의 사상감정을 노래하는데 힘을 넣은것이다. 그는 《시적탄식과 애수의 노래》(1836)를 비롯한 여러 시집에서 인디안들의 내면세계를 진실하게 펼쳐보이였으며 장편서사시 《따모이종족련맹》에서는 16세기 뽀르뚜갈침략자들을 반대하는 인디안들의 영웅적 투쟁을 생동하게 그려내였다.

안또니오 곤쌀베스 디아스(1823—1864)는 마라냥오주에서 태여나 뽀르뚜갈류학후 인종학, 력사학, 언어학, 문학 등에 대한 다양한 연구사업을 하면서 문학창작활동을 벌렸다.

그의 창작의 특징은 인디안, 흑인, 백인 등 브라질주민들의 세태풍속과 구전문학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원주민을 주제로 한 문학(인디헤니스모 또는 인디안이즘)을 들고 나온것이다.

그의 주요작품으로 서사시 《이—후까—삐라미》(인디안방언으로 《죽어도 마땅한자》라는 뜻, 1851)와 《띰비라스》(1857), 시집 《아메리카시가》(1—3집, 1846—1851) 등이 있다.

브라질의 진보적랑만주의시인들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것은 《노예해방시인》으로 불리운 까스뜨로 알베스이다. 그는 독립후에도 브라질의 봉건군주제도를 예리하게 폭로비판하고 공화주의사상과 흑인노예해방사상을 힘있게 노래한 많은 시들을 창작하였다. (까스뜨로 알베스에 대해서는 마감에 따로 서술하였다.)

소설문학에서 진보적랑만주의문학을 대표하는 작가는 알렌까르이다.

알렌까르 죠제 마르띠니아노 드 알렌까르(1829—1877)는 브라질문학의 민족적독자성을 살리는데 이바지하였으며 인디안을 주인공으로 한 인디헤니스모문학을 들고 나왔다.

그의 대표작은 장편소설 《파라니족》(1857)이다.

소설은 16세기초를 배경으로 브라질을 강점한 뽀르뚜갈식민주의자들을 반대하여 용감히 싸운 인디안 파라니족의 생활과 투쟁을 그리고있다. 파라니족은 원래 빠라파이지방에서 살다가 식민주의자들이 들어온 이후 브라질로 이동하여 거기서 자기들의 민족적풍습을 지켜 굴함없이 싸웠다.

소설은 이러한 파라니족의 생활과 투쟁을 흥미있는 이야기줄거리와 랑만적인 묘사, 독특한 문체로 생동하게 그려내고있다.

소설의 주인공은 파라니족에 속하는 용감하고 문화적인 인디안청년 뻬리이다. 그는 이곳에 이주한 뽀르뚜갈소귀족이며 지주인 마리스일가와 친교를 맺고 그 집 아들 알바로를 벗으로 삼으며 알바로의 누이동생 쎄씰리아를 사랑하게 된다. 그 가정에서도 인종적편견을 넘어서서 뻬리를 벗으로 대하며 쎄씰리아도 뻬리를 사랑한다. 그러나 그들의 관계는 뽀르뚜갈인인 로레다노의 악행으로 하여 커다란 위험에 처한다. 그자는 식민지당국에 반항하는 인디안 아아모레족을 사촉하여 마리스일가를 비롯한 선량한 뽀르뚜갈인들까지 습격하게 한다. 일가는 뻬리의 도움으로 여러번 위험에서 구원된다.

인디안과 백인, 두 인종의 결합을 바라면서 뻬리는 그리스도교신앙을 받아들이고 쎄씰리아는 인디안생활을 받아들여 인디안들이 사는 숲속에 남는다. 그러나 여러가지 편견으로 하여 자기들의 합법적결혼이 실현될수 없다는것을 깨달은 두 애인은 작은 배에 몸을 싣고 우뢰가 치는 날 밤 강하류로 떠내려간다.

소설은 인디안청년 뻬리를 아름다운 인간으로 묘사하고 그를 백인청년 알바로보다 더 용감하고 훌륭한 사람으로 내세웠으며 인디안들의 세태, 풍속, 습관을 구체적으로 생동하게 그려내였다. 그러면서 새 민족을 이루게 될 인디안과 크레올의 융합에 대한 사상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작품은 용감한 인디안주인공 뻬리와 마리스일가사람들을 다같이 리상화하였으며 력사적진실을 외곡하는 제한성을 드러냈다.

그후 작품은 브라질의 이름난 작곡가 까를로스 고메스에 의하여 가극으로 옮겨져 1870년에 이딸리아의 스깔라극장에서 처음으로 공연되였으며 유럽에 널리 알려지게 되였다.

알렌까르는 이 작품외에도 《은광》(1862), 《이라쎄마》(1865), 《우비라쟈라》(1874)를 비롯한 여러편의 장편소설들을 창작하였다.

마샤도 드 아씨스 죠아낌 마리아 마샤도 드 아씨스(1839—1908)는 랑만주의로부터 비판적사실주의로 넘어간 19세기 브라질에서 가장 이름난 소설가이다.

그는 초기에 《밤나비》(1870)를 비롯한 시집과 희곡을 발표하다가 소설창작으로 넘어갔다. 19세기 70년대에 그가 쓴 《부활》(1872), 《손과 장갑》(1874), 《이아이아 가르씨아》 등 장편소설들에서는 랑만주의적요소가 우세하였다.

그러나 그의 창작의 성숙기인 80년대의 작품들, 노예로동에 의하여 빚어지는 사회의 부정면을 날카롭게 비판한 장편소설 《브라즈 꾸바스의 유언》(1880)을 비롯한 작품들에는 비판적사실주의의 특성이 뚜렷이 표현되였다.

작가는 그밖에도 《낀까스 보르바》(1891), 《돈 까스무로》(1899), 《아싸아끄와 이아꼬브》(1904), 《아이레스의 수기》(1908) 등 여러편의 장편소설들을 썼다.

그는 또한 단편소설의 명수로 알려져있었다. 그는 《날자 없는 이야기》(1884), 《흩어진 페지들》(1899), 《낡은 집의 명예》(1906) 등의 단편소설집들을 남겼다.

마샤도 드 아씨스는 브라질문학원 창립발기인이였으며 그 초대원장이였다.

브라질문학에서 사실주의를 개척하는데 기여한 작가들로서 또한 알메이다와 아제베도를 들수 있다.

마누엘 안또니오 드 알메이다(1831—1861)는 19세기 50년대에 브라질의 세태풍속을 생동하게 반영한 장편소설 《한 하사관에 대한 추억》(1—2부, 1854—1855)을 창작하였다. 이 작품은 브라질문학에서 첫 사실주의소설로 되였다.

19세기 80년대부터 작가로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한 곤쌀베스 아제베도(1857—1913)는 창작활동의 초기에 주로 랑만주의계렬의 작품들을 창작하였으나 후기에 사실주의창작에로 넘어가 그

개척자의 한사람으로 되였다.

그의 장편소설 《녀성들의 눈물》(1880), 《필로메나 보르제스》(1884), 《해골》(1890) 등은 현실에 대한 불만과 적대적인 감정을 드러내보이고 새 생활에 대한 지향을 표현하였다.

한편 그의 장편소설 《혼혈인》(1881), 《휴양려관》(1884), 《사나이》(1887), 《빈민굴》(1890) 등은 사회의 최하층사람들과 부르죠아특권계층의 대비적인 생활묘사를 통하여 브라질사회의 사회악을 예리하게 비판하였다.

아제베도는 1897년 브라질문학원 창립자의 한 사람으로서 브라질민족문학의 발전에 기여하였다.

19세기 브라질의 진보적문학에서 가장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있는 작가의 한사람은 까스뜨로 알베스이다.

까스뜨로 알베스와 시

까스뜨로 알베스는 19세기 브라질진보적랑만주의문학의 대표자의 한사람이다.

안또니우 까스뜨로 알베스(1847—1871)의 생애에 대해서는 잘 알려져있지 않다.

그가 시인으로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한것은 1860년대 중엽 레씨프종합대학에서 공부하던 시기부터이다.

당시 브라질에서는 봉건적군주제도를 반대하고 흑인노예제도의 페지를 요구하는 운동이 힘있게 벌어지고있었다. 이러한 시기에 열렬한 공화주의자로 이 투쟁에 적극 호응해나선 그는 집회와 광장들에서 직접 시를 읊고 군중을 반봉건, 반노예제투쟁에로 힘있게 불러일으켰다.

광장으로! 인민에게 있어서 광장은
꼰도르를 위한 하늘과 같다!
…
공화국은 꼰도르의 날개
하늘로의 대담한 도약!

※《꼰도르》는 남아메리카의 큰 독수리를 가리키는 말이다.

그의 활동은 1867년에 바이야로 옮겨간 후부터 더욱 활발해졌다. 그곳에서 그는 진보적인 청년시인들로서 꼰도르파를 조직하고 그 지도자로 되였으며 군중속에 들어가 연설도 하고 시도 읊으면서 맹활약을 하였다. 그는 배우와 같은 매혹적인 화술로 군중의 심장을 틀어잡았다.

그는 페병에 걸려 24살의 한창나이에 너무나 일찌기 세상을 떠났으나 그의 이름과 시는 브라질인민의 추억속에 길이 남게 되였다.

그의 생존시에 출판된 시집은 《물결》(1870)뿐이다. 그러나 그가 사망한 후 《노예들》(1873), 《빠울로 아퐁쏘폭포》(1876), 《적도찬가》(1921) 등 시집들이 더 출판되였다. 시집들에 수록된 시들은 이미 생존시에 시인자신의 랑송과 수사본으로 널리 보급되였다.

그의 시가 담고있는 중요한 주제사상적내용의 하나는 천대받고 압박받는 흑인노예들에 대한 뜨거운 동정과 흑인노예해방사상이다.

이러한 사상은 장시 《노예선》(1868), 서정시《새벽》, 《유령》, 《아프리카의 신음소리》(세편 다 1865) 등 작품들에서 강하게 울려나오고있다.

《바다의 비극》이라는 부제목이 있는 《노예선》은 아름다운 바다의 풍경과 그 바다에서 항행하는 노예선에서 벌어지고있는 무서운 광경을 대비하면서 먼 아프리카대륙으로부터 브라질로 끌려가는 흑인노예들의 불행과 고통, 비참한 처지를 반영하고 이러한 비극이 끝장나야 한다는것을 강조하였다.

시에서는 그 광경이 가슴아프게 노래되고있다.

아 이 얼마나 무서운 광경이냐!
불길한 꿈이냐 무서운 환영이냐!
어이하여 하늘은 몸서리치지 않느냐!

단떼의 지옥이냐? 어디서 들려오는 고함
　소리냐?
등잔불이 비치는 갑판우엔 피가 질벅하고
족쇄들이 쩔렁거리고 채찍소리가 울리나니

시에서는 계속하여 이러한 현상이 더는 빚어지지 않도록 철추를 내릴데 대하여 호소하고있다.

이 무서운 광경이 꿈이냐 생시냐?
바다여! 어이하여 너는 이 더러운것을
그대로 내버려두느냐
안개여! 질게 질게 뒤덮으라!

사나운 바람아! 노호하는 폭풍아!
태풍아!
아름다운 바다에서 그것들을 쓸어버리라

그의 시가 담고있는 중요한 주제사상적내용의 다른 하나는 봉건군주제와 흑인노예제도를 반대하는 투쟁에로의 열렬한 호소이다.

이러한 사상은 련시 《빠울로 아퐁쏘폭포》(1870), 시《인민이 군주이다》, 《흑인—복수자》 등 작품들에서 힘있게 울려나오고있다.

《빠울로 아퐁쏘폭포》는 폭포에 깃들어있는 두 흑인노예 루까스와 마리아의 비극적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통하여 압제자들, 노예주들에 대한 불타는 적개심과 복수심을 토로하고 반항과 투쟁에로 부른 작품이다.

련시에서는 《산불》, 《루까스》, 《메아리와의 대화》 《폭포》, 《각성》 등 여러 시들을 련결시켜 이야기를 엮어나가고있다.

백인노예주의 아들놈한테 릉욕당한 마리아는 죽으려고 쪽배를 타고 쌍오프랑씨스끄강으로 떠내려간다. 그를 겨우 따라잡은 루까스는 사연을 알고 복수를 다짐한다. 그러나 마리아는 루까스의 어머니가 림종시에 고백한 사실을 상기시킨다. 그 백인노예주가 루까스의 애비이고 그 아들놈과 루까스는 배 다른 형제간이라는것을… 어머니는 아들에게 그들을 절대로 다치지 말라고 당부하였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된 루까스와 마리아는 함께 빠울로 아퐁쏘폭포에 떨어진다.

시에서는 루까스의 복수의 웨침소리가 힘있게 울려나오고있다.

그는 웨쳤노라
《복수다! 전쟁이다!
그대가 흘린 눈물의 대가로
그대가 안고있던 십자가의 대가로
정적이 깃든 집의 대가로
맹세하노라 마지막힘이 진할 때까지
님을 망친자에게 복수할것을
악마도 그놈을 구원하지 못하리라
피는 피로써 갚으려니
악당놈아 너는 모르리라
내 무쇠주먹맛이 어떤가를
내 도끼가 얼마나 날이 섰는가를
이놈아 기다리라 나의 도끼맛을!》

루까스의 이 웨침소리, 이 복수의 맹세는 그들을 파멸시킨 백인노예주개인이 아니라 모든 노예주들, 모든 압제자들에 대한 복수의 맹세로 승화되고있다.

시 《인민이 군주이다》에서는

인민은 신음한다
부자들이 휘두르는 채찍에 맞아
인민은 일떠선다 그 아픔을 안고
피투성이가 되여 웨친다
《더는 참지 못하겠다!》고

라고 인민의 참을성에도 한계가 있으니 이제 더는 참지 말고 투쟁에 일떠설것을 열렬히 호소하고있다.

그대들은 새 세계의 창조자이거니
높이 울려라
자유를 요구하는 항거의 목소리를
인민의 목소리를 듣게 하라
모든 민족과 모든 왕궁이

그의 시는 또한 훌륭한 미래에 대한 인민의 랑만주의적리상을 구가하고있다.

《새벽에》, 《예언》을 비롯한 여러 시들에서 시인은 자유와 해방의 날이 언제면 도래할가 하고 고대하는 자기의 애타는 마음을 토로하면서 훌륭한 미래를 향하여 질풍같이 날아갈 각오를 노래하고있다.

언제면 맞게 되려나 사랑스런 자유의 날을
래일인가? 아니면 어느날인가?
그날은 오리라 어느 새벽에
날아가라 내 말아 검은구름을 맞받아
나를 날라다주려마 앞으로 앞으로!

그의 시들은 부르죠아공화주의사상의 테두리에서 더 벗어나지 못한 사상적제한성을 가지고 있으나 당대 현실이 요구하는 중요한 사회적문제를 제기하고 그것을 랑만적으로 노래함으로써 브라질인민들을 봉건군주제도와 노예제도를 반대하는 투쟁에로 불러일으켰으며 브라질진보적랑만주의문학의 발전에 이바지하였다.

브라질의 공식출판물들은 오래동안 까스뜨로 알베스에 대해 침묵을 지키고 문학사에서 공백으로 남겨두려고 애써왔다. 그러나 그의 시는 날이 갈수록 인민들의 사랑을 받았으며 그의 이름은 브라질에서 자유와 정의를 위한 투쟁의 상징으로 되였다.

5) 그밖의 남아메리카나라들의 문 학

그밖의 남아메리카나라들의 문학유산

남아메리카대륙에 위치하고있는 라틴아메리카나라들은 뽀르뚜갈어를 쓰는 브라질을 내놓고는 거의다 에스빠냐어를 쓰고있다. 북부의 베네수엘라와 꼴롬비아, 안데스지역의 에꽈도르, 뻬루, 볼리비아, 남부의 칠레, 아르헨띠나, 빠라과이, 우루과이 등 나라들이 다 그러하다. (가이아나 한 나라만이 영어를 쓰고있다.)

이 나라들은 또한 16세기초부터 300년동안 에스빠냐의 식민지로 있었으며 19세기초에 전쟁을 벌려 독립하였다.

그 주민구성에서도 원주민인 인디안과 아프리카에서 끌려온 흑인, 에스빠냐계 백인(크레올), 혼혈인(메티스, 물라트, 쌈보)과 그 후손들로 이루어져있다.

이와 같이 지리적위치와 지나온 력사, 언어와 주민구성 등 일련의 공통성으로 하여 브라질을 제외한 남아메리카나라들은 문학발전에서도 일련의 공통성과 류사성을 가지고있다.

이러한 특성과 함께 자료상 관계로, 개별적인 나라별로 취급하기 어려운 사정으로 하여 이 책에서는 브라질을 제외한 나머지 남아메리카나라들의 문학을 지역문학으로 묶어 개괄하였다.

다른 라틴아메리카나라들과 마찬가지로 이 지역나라들 역시 원주민인 인디안들의 오랜 력사와 문화를 가지고있는 나라들로서 풍부한 구전문학유산을 소유하고있었다. 그러나 식민주의자들의 원주민말살정책으로 그 유산들이 거의 전해지지 못하였다. 구전되여온 일부 신화, 전설들이 후세에 수집되고 서사화되여 알려져있을뿐이다.

이 나라들에서 서사문학의 발생은 16세기부터이나 초기에는 식민주의자들과 선교사들, 특권층들의 글이 식민주의나라에서 출판되였을뿐이였다.

16—18세기 식민지시대에 에스빠냐어를 쓰는 남아메리카나라들가운데서 문학유산이 비교적 많이 남아있는 나라는 뻬루이다. 이 시기 뻬루부왕령은 남아메리카에서 식민지경제문화발전의 중심지로 되여있었다.

가르씰라쏘 델 라 베가 인까

뻬루의 이름난 첫 작가는 가르씰라쏘 델 라 베가 인까(1539—1616)이다.

그는 에스빠냐사람인 아버지와 인디안인 어머니(인까왕조의 따우안띤쑤요왕국의 공주의 시녀)사이에 혼혈인으로 태여났다. 그는 20년동안은 뻬루에서, 나머지 50여년동안은 에스빠냐에서 살았다. 그는 삼촌의 유산을 상속받아 괜찮게 지낼수 있었으나 혼혈인으로서 천대를 받은데다가 어머니가 인디안이라는 자각을 가지고있던것으로 하여 인디안 인까족의 력사와 문화를 공정하게 쓰기 위해 애썼다. 그의 이름은 아버지의것을 그대로 쓰고 마지막에 인까를 덧붙인것이다.

그가 쓴 책은 력사산문인데 인문주의적립장과 폭넓은 문화적시야, 자료의 폭과 생동성, 거기에 담긴 수많은 인디안신화와 전설로 하여 문학적가치를 가지고있다.

그의 작품으로 《플로리더》(1605)와 《뻬루년대기》(제1부 《인까왕들에 대한 주석》 1609, 제2부 《뻬루정사》 사망후 1617 출판)가 있다.

《플로리더》는 아메리카대륙발견력사에서 그때까지 잘 알려지지 않고있던 북아메리카의 플로리더반도탐험이야기를 담은 작품이다. 여기서는 뻬루를 거쳐 플로리더반도에 들어간 에스빠냐정복자들의 한 부대가 그곳 원주민들의 필사적인 반항으로 거의다 죽고 겨우 살아남은 일부 사람들만이 메히꼬를 거쳐 본국에 귀국하는 이야기를 담고있다.

이 책의 긍정면은 원주민들의 존엄과 재능, 용감성에 대하여 아낌없는 찬사를 표시하고 인디안과 유럽백인의 평등과 인디안의 인간성을 주장한것이다. 그 부정면은 정복자들과 그 지휘관의 위훈을 찬양한것이다.

그의 대표작은 《뻬루년대기》이다. 년대기에서는 인까왕조의 력사를 시조왕인 만꼬 까빠끄의 통치로부터 시작되는 13—15세기초의 전설시기와 15세기 30년대부터 에스빠냐의 침략을 받은 력사시기로 나누어 구체적으로 서술하였다.

특히 자기가 직접 외켠친척들한테서 들은 인까의 신화와 전설, 그자신이 목격하고 기억해둔 인까의 세태풍속과 민속, 자연풍경 등에 대한 구체적이고 풍부한 자료를 담았다.(제1부 262장중 100장이상이 여기에 바쳐졌다.) 년대기의 제2부는 인까왕조의 마지막왕국 따우안띤쑤요가 에스빠냐침략자들에게 정복당한 력사를 담은것인데 여기서는 뻬루에 그리스도교를 전파시킨 선교사들을 찬양하였다.

뻬루력사에 바쳐진 가르씰라쏘 델 라 베가 인까의 년대기는 귀중한 력사자료로만이 아니라 인까의 신화와 전설을 후세에 전한 구전문학자료집으로서 큰 문학적의의를 가지게 되였다.

16세기에 이어 17세기 뻬루의 이름있는 작가들로 뻬드로 데 오냐, 후안 데 에스삐노싸 메드라노, 후안 델 발레 이 까비에데스 등이 알려져있다.

뻬드로 데 오냐(1570년경—1643년경)는 칠레에서 태여나 리마종합대학을 졸업하고 시인으로 되였는데 대표작인 서사시 《표절당한 아라우까사람》(1596)을 발표하여 널리 알려졌다.

서사시는 인디안 아라우까족에 대한 첫 서사시를 쓴 에스빠냐시인 에르씰리야와는 달리 라틴아메리카에서 나서자란 크레올의 립장에 서서 아라우까족에 대하여 노래한 점에서 의의가 있다.

작품에서 시인은 인디안도 백인과 마찬가지로 같은 인간이라고 보면서 동정하였으며 에스빠냐인들의 략탈성과 탐욕성을 비판하였다. 시인은 주로 에스빠냐침략자들과 아라우까족의 전쟁을 노래한 에르씰리야와는 달리 자기가 나서자란 고장에 대한 사랑을 노래하고 아름다운 자연묘사와 주정토로에 힘을 넣었다.

리마에서 출판된 서사시는 교회의 검열을 받지 않았다고 압수당하였는데 1605년 에스빠냐에서 출판된 다음부터 알려지게 되였다. 서사시는 그후 희곡으로 옮겨졌으며 에스빠냐의 이름난 극작가 로뻬 데 베가도 이 서사시에 기초하여 희곡을 썼다.

뻬드로 데 오냐는 이 서사시외에도 《바싸우로》(1635), 《이그나씨오 데 깐따브리아》(1636), 《크레올의 노래》 등의 서사시들을 남겼다.

루나레호라는 별명을 가지고있는 후안 데 에스삐노싸 메드라노(1619 또는 1632년경—1688)는 가난한 인디안가정에서 태여나 그의 재능을 귀중히 여긴 한 신부의 도움으로 꾸스꼬의 수도원학교와 예수수회학교에서 공부하였으며 해박한 지식을 소유하고 인디안으로서는 희귀하게 크레올사회에서 인정받은 신부로, 문인으로 되였다.

그는 자기 종족어인 께추아어뿐아니라 에스빠냐어, 라틴어, 고대그리스어, 고대유태어까지 소유하고 적극적인 문필활동을 벌렸다.

재능있는 극작가인 그는 《뻬루의 데모스테네스》(데모스테네스는 고대그리스 아테네의 유명한 웅변가)로 불리웠으며 그의 설교를 들으려 부왕까지 왔다는 전설까지 있다.

그의 문학유산으로는 께추아어로 된 희곡 《방탕한 아들》, 에스빠냐어로 된 희곡 《쁘로제로비나유괴》(1677년 마드리드에서 성과적으로 공연), 연설 및 론설집이 남아있다. 그를 유명하게 만든것은 론설 《뽀르뚜갈기사 마누엘 데 파리아 이 쏘우자를 반박하고 에스빠냐서정시인들의 왕인 루이스 데 곤도라를 옹호하는 변호》(1662)이다.

후안 델 발레 이 까비에데스(1652년경—1692년경)는 에스빠냐에서 태여나 어릴때 상인인 아버지를 따라 뻬루에 이주하였다. 그는 아버지의 장사가 잘되지 않아 유족하게 살지 못하였으며 체계적인 교육도 받지 못하였다. 그는 결혼후 리마의 중심광장에 가게방을 차려놓았는데 얼마후 안해까지 죽어 5명의 자식들을 키우며 가난하게 살았다.

이러한 생활체험으로부터 그는 풍자작가가 되였으며 자기의 작품들에서 식민지사회의 부패성과 특권층의 타락한 생활을 풍자하고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동정을 표시하였다. 그로 하여 그의 작품들은 매번 검열에서 통과되지 못하여 출판되지 못하였다. 그렇지만 그의 작품들은 수사본과 구전으로 널리 전파되여 17세기 80—90년대에는 그의 이름이 전대륙에 알려졌다. 메히꼬의 이름난 수녀시인 후아나 이네스 델 라 끄루스도 수사본으로 그의 작품을 읽고 편지를 보내왔으며 까비에데스도 그 대답으로 로만스 한편을 지어보냈다.

그의 풍자작품으로는 강권과 략탈로 사치스러운 생활을 하는 특권층을 폭로한 《뻬루의 재부가 어떤것인가》, 부자들을 야유하고 빈민들을 동정한 《빈민의 특권》을 비롯한 많은 작품들이 있다.

18세기에는 궁정문학과 종교문학이 성행한 시기였다.

《아뿌—올랸따이》

이 시기에 주목되는것은 께추아어로 된 인까족의 희곡 《아뿌—올랸따이》가 발견되여 공연된것이다. 16～17세기에 씌여진것으로 보아지는 이 희곡은 1770년에 한 신부에 의하여 알려지게 되였다.

희곡은 인까족의 력사와 사랑선을 기본내용으로 하고있다. 작품의 주인공 올랸따이는 인까제국의 왕 빠챠꾸떼끄수하의 용감한 장수이다. 싸움마다에서 용맹을 떨친것으로 하여 지방장관으로 임명된 그는 공주 끄씨 끄일류르에게 반하여 그와의 결혼을 허락해달라고 청원한다. 이 청원은 왕을 분노하게 만든다. 그것은 왕족은 왕족끼리 근친결혼을 하게 되여있는 인까족의 법도에 어긋났기때문이였다. 왕은 공주를 감옥에 가두고 올랸따이를 진압하려고 한다.

올랸따이는 견고한 성새에 의거하여 왕이 보낸 군대와 맞서 싸운다. 그는 왕의 령을 받고온 장수 루미 니야비와 싸워 크게 이긴다. 하여 왕은 끝내 그를 징벌하지 못한채 사망한다. 새 왕의 신임을 얻기 위해 루미 니야비는 올랸따이를 붙잡기 위한 모략을 꾸민다. 그는 자기가 새 왕 뚜빠끄 유빤끼의 희생물로 된듯이 꾸며 올랸따이의 신임을 얻고 그의 진중에 들어간 다음 그를 배반한다. 올랸따이는 포로되여 꾸스끄로 끌려온다.

자비심을 베풀라는 최고신판의 권고로 국왕은 올랸따이를 용서하고 자기곁에 부른 다음 색시감을 고르라고 한다. 이때 공주가 올랸따이의 나어린 딸을 데리고 나타난다. 그들은 이미 비밀리에 결혼한 사이였던것이다. 하는수없이 왕은 그들의 결혼을 승인한다.

께추아어로 씌여진 작품은 원주민들의 생활을 통하여 그들의 지향과 요구를 반영한것으로서 커다란 문학사적의의를 가질뿐아니라 원주민들속에서 대단한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이 극작품이 1770년에 인디안마을에서 공연되였을 때 옛 인까제국의 위력을 시위한 연극을 본 인디안들속에서 폭동적기운이 고조되였다. (후에 이 마을출신인 뚜빠끄 아마루2세의 지휘밑에 큰 인디안폭동이 일어났다.) 이에 겁을 먹은 식민지당국은 공연을 금지시키고 희곡수사본을 압수, 소각하였다. 다행히 수사본 하나가 비밀리에 보존되였다가 발견되여 뻬루잡지에 발표(1837)된 후 여러 유럽나라들에서 번역출판됨으로써 널리 알려지게 되였다.

에스빠냐어를 쓰는 남아메리카나라들에서 민족문학이 형성되고 본격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한것은 19세기부터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문학예술작품에 시대정신을 옳게 구현하는것이 중요합니다. 문학예술작품의 교양적가치는 시대정신을 어떻게 구현하는가 하는데 의하여 좌우됩니다.》

이 지역에서의 19세기문학의 발전과정은 시대정신을 어떻게 구현하였는가 하는데 따라 크게 두 시기로 갈라 개괄할수 있다.

그 첫시기는 19세기 10—20년대 독립전쟁과 그를 전후한 시기이다.

19세기에 들어서면서 독립운동의 기운이 더욱 높아지는 가운데 1810—1826년독립전쟁이 벌어졌다. 그 지도자는 베네수엘라의 씨몬 볼리바르였다. 그의 지도밑에 이 지역 인민들은 1816년부터 1821년까지 에스빠냐식민주의자들과 용감히 싸워 지금의 베네수엘라, 꼴롬비아, 에꽈도르를 포함하는 대꼴롬비아련방공화국을 수립하였다. (그후 이 세 나라가 각각 분리되여 독립적인 국가를 이루었다.) 한편 당시 라쁠라따부왕령(아르헨띠나)을 해방하고 1816년에 독립을 선포한 싼 마르띤이 지휘하는 독립군은 그 이듬해에 안데스산줄기를 넘어 칠레로 진격하여 그곳을 해방하였으며 1821년에 다시 바다를 건너 에스빠냐식민지였던 뻬루를 공격하여 하부뻬루를 해방하였다. 이어 1824년 12월 련합군이 아야꾸쵸평원에서 에스빠냐군대의 마지막세력을 짓부심으로써 마침내 남아메리카에 대한 에스빠냐식민주의자들의 300년동안의 지배가 끝장났다.

독립전쟁이 승리한 결과 남아메리카의 많은 나라들이 독립을 이룩하였다. 남아메리카나라들의 독립은 유럽침략자들을 반대하여 벌린 라틴아메리카인민들의 장기간에 걸친 해방투쟁의 결실이였으며 그들이 이룩한 자랑찬 승리였다.

이러한 환경속에서 사상문화분야에서 《아메리카니즘》으로 불리운 새로운 사상이 발생하였다. 지난날 식민주의자들이 퍼뜨린 라틴아메리카사람들의 생물학적, 정신적락후성에 대한 견해와 유럽밖의 인종들에 대한 편견과 멸시를 반발

하여 나온 이 사상은 라틴아메리카사람들이 라틴아메리카의 주인이며 유럽과 다른 독자적인 민족이라는 민족자주정신을 반영한것이였다. 이와 함께 카톨릭교사상과 결합된 계몽주의사상(반카톨릭교사상과 결합된 유럽의 계몽주의와는 달리 카톨릭교에 대한 신앙이 든든히 자리잡은 라틴아메리카에서는 카톨릭교가 민족의식의 중요한 요소로 되였다.)과 원주민들을 내세우는 인디헤니스모사상 등이 대두하였다.

이러한 시대적배경속에서 독립전쟁과 독립사상을 반영한 수많은 작가들이 진출하였다. 그가운데서 가장 이름난 작가는 베네수엘라의 벨료와 에꽈도르의 올메도이다.

벨료 안드레스 벨료(1781—1865)는 베네수엘라의 까라까스에서 식민지당국에 복무하는 크레올소관리의 아들로 태여나 청년시절부터 라틴아메리카독립운동에 적극 참가하였다. 그는 1810년 베네수엘라혁명회의에 참가하기 위하여 런던에 파견되였으며 그후 19년동안 영국에 체류하는 과정에 조국을 위해 헌신적으로 일하면서 문학, 언어학, 철학, 법학을 연구하였다.

그는 1829년 칠레정부의 초청을 받고 싼띠아고로 건너가 칠레외무성에서 일하였으며 1842년에 칠레국립종합대학을 창립하고 그 초대총장으로 되였다. 그는 칠레민법편찬에도 참가하였다.

그는 처음 고대로마시인들의 시를 번역하는 일을 하다가 그후 랑만주의시인으로 되였다.

그의 대표작은 《꼴롬비아찬가, 승리자인 볼리바르대통령에게 드리는 노래》(1825), 《열대지방의 농사에 대한 송시》(1826), 《시가론》(1823)이다.

그는 《시가론》에서 시의 신 뮤즈에게 자유를 사랑하는 라틴아메리카에 옮겨 살것을 호소하고 시인들이 구대륙(유럽)에 대한 미련과 낡은 틀에서 벗어나 빛나는 미래가 약속되여있는 아메리카대륙의 자연과 문화를 노래할것을 호소하였다.

그는 자기 시들에서 독립전쟁과 그 지도자 볼리바르를 칭송하고 라틴아메리카사람들이 민족적자존심을 가지고 유럽에 맞서 독자적인 생활을 창조해나가야 한다고 노래하였다.

오 나의 남아메리카여
자유로운 민족들의 청소한 가족들이여
당당하게 이마를 쳐들라
당황망조한 유럽앞에서

안드레스 벨료는 라틴아메리카의 문화발전에서 큰 업적을 남긴것으로 하여 널리 알려져있다.

올메도 호쎄 호아낀 올메도(1780—1847)는 에꽈도르의 과야낄에서 태여나 끼또와 리마에서 공부하고 법학박사학위를 받았다.

그는 독립에 대한 열렬한 지향을 품고 1810—1826년독립전쟁에 참가하였으며 독립전쟁의 지도자 볼리바르, 플로레스와 깊은 련계를 맺고 영국주재 뻬루대사로 활동하였다. 그는 국회의원, 부대통령, 에꽈도르림시정부 수반직을 력임하였다.

그는 국가활동가로 다망한 나날을 보내면서 그 여가에 시창작활동을 벌려 독립전쟁시기 대표적인 시인의 한사람으로 되였다.

그의 대표작은 송시 《후닌전투의 승리, 볼리바르에 대한 송가》(1825)와 《미나리까의 승리자 플로레스장군에게 드리노라》(1835)이다.

볼리바르에 대한 송가는 906행이나 되는 장시로서 후닌전투에서 승리한 볼리바르와 후닌전투의 승리를 공고화하고 아야꾸쵸전투에서 빛나는 승리를 이룩한 쑤끄레를 칭송한 작품이다.

후닌전투에서의 볼리바르의 승리를 찬양한 첫부분과 인까제국의 통치자 와인 까빠끄의 환상적형상을 창조한 둘째 부분, 아야꾸쵸전투의 승리와 쑤끄레를 칭송한 셋째 부분 등 세 부분으로 구성된 이 장시에서 중심적인 자리를 차지하고있는것은 인까제국의 통치자를 형상한 둘째 부분이다.

시에서는 일찌기 볼리바르군대의 뻬루수도입성을 예언한바있는 와인 까빠끄가 두손에 황홀과 인까의 무기를 들고 나타나 미소를 띠우고 볼리바르를 바라보면서 독립군군인들을 태양의 아들들로 찬양하는것으로 형상하였다. 이를 통하여 독립군을 인까족의 후손으로 묘사하고 인까족의 후손인 남아메리카인민들이 인까국가 멸망후 300년동안의 수난의 시기를 거쳐 드디여 원쑤들을 격멸하고 승리를 이룩하였다고 노래하였다.

시는 후닌과 아야꾸쵸전투의 승리를 300년동안에 걸친 라틴아메리카인민들의 해방투쟁력사와 결부시키고 그 계승으로, 총화로 형상하였다.

그것으로 하여 이 장시는 민족적독자성이 뚜렷한 작품으로 되였다.

장시는 그 창작수법에서 일부 진실하지 못한 형상, 화려한 문체, 과장 등 고전주의적요소를 나타내고있다. 그러나 올메도는 독립전쟁에 대한 칭송과 뜨거운 애국적열정으로 충만된 작품들을 창작한것으로 하여 라틴아메리카문학의 독자성을 높이고 이 지역 문학이 고전주의로부터 랑만주의로 넘어가는데서 다리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19세기 이 지역 나라들의 문학발전의 둘째 시기는 1830—1870년대 랑만주의시기이다.

독립전쟁이 승리하고 독립을 이룩하긴 하였으나 남아메리카인민들의 피어린 투쟁에 의하여 달성된 독립의 성과는 소수의 크레올특권계급에게 넘어가고 광범한 인민대중, 특히 인디안과 흑인, 혼혈인들은 국내착취계급의 새로운 착취와 압박밑에 놓이게 되였다.

에스빠냐식민주의자들을 대신하여 새로운 지배자로 등장한 크레올독재자들과 대토지소유자들은 근로대중에 대한 착취와 압박을 강화하면서 아무런 사회경제적개혁도 실시하지 않았다. 그리하여 비록 독립은 이룩하였으나 남아메리카의 많은 나라들에서는 반동적인 독재제도가 수립되고 식민지시기의 봉건적인 대토지소유제가 그대로 남아있어 인민대중은 여전히 불행과 고통에서 벗어날수 없었다.

한편 독립후 남아메리카나라들에서는 지배층들속에서 정권쟁탈전이 빈번하게 벌어졌다. 통치배들내부의 정권싸움으로 정변이 그칠새 없었으며 정치, 경제, 사회생활에서 혼란과 무질서가 계속되였다.

이런 형편에서 독립후에도 남아메리카나라들은 자주적으로 발전하지 못하였으며 제국주의자들의 정치경제적침투를 막아내지 못하고 점차 제국주의렬강들에 예속되게 되였다.

이러한 복잡한 사회력사적환경속에서 현실에 대한 불만을 품고 자기들의 리상에 맞는 인간이나 생활을 그리려고 지향해나선 작가들에 의하여 19세기 30년대에 남아메리카나라들에서 랑만주의문학이 발생하였다.

이 지역 나라들에서 진보적랑만주의문학의 대표자들로는 시문학에서 앞에서 언급한 베네수엘라의 안드레스 벨료와 함께 아르헨띠나의 에스떼반 에체베리아, 에꽈도르의 후안 몬딸보, 꼴롬비아의 라파엘 뽐보, 우루과이의 후안 쏘릴랴 데 싼 마르띤 등을 들수 있다. 소설문학에서는 아르헨띠나의 호쎄 마르몰, 에꽈도르의 후안 레온 메라, 꼴롬비아의 호르헤 이싸악스, 뻬루의 리까르도 빨마 등이 그 대표자이다.

에체베리아

에스떼반 에체베리아(1805—1851)는 아르헨띠나진보적랑만주의문학의 대표자의 한사람이다.

그는 부에노스아이레스의 소상인가정에서 태여나 일찌기 부모를 여의고 고아가 되였다. 그는 중학교를 중퇴하고 로동을 하다가 1825년 프랑스의 빠리로 건너가 고학으로 대학공부를 하였다. 그는 4년동안의 빠리체류기간에 그 당시 서유럽나라들에서 류행되였던 랑만주의문학의 영향을 받았다.

1830년에 귀국하여 시창작을 시작한 그는 서사시 《엘비라》(1832), 시집 《위안》(1834)을 내놓았으며 그후 라틴아메리카의 대표적랑만주의작품으로 알려진 서사시 《녀자포로》(1837)를 발표하였다.

서사시에서는 백인마을을 습격한 인디안들에게 포로당한 백인녀자 마리아의 운명이 그려져있다. 마리아의 남편 브리안은 무장인원을 이끌고 복수전을 벌렸으나 부상을 당하고 그마저 포로의 몸이 된다. 남편을 만나게 된 마리아는 그와 함께 탈주하여 초원으로 피신한다. 작품은 이러한 이야기선을 따라가면서 아르헨띠나의 광활한 대초원(빰빠)에 대한 자연묘사에 힘을 넣고있다.

작품에서 시인은 원주민과 백인사이의 싸움이 원주민박해와 관련되여있다는것을 인정하고 원주민들을 동정하는 립장을 취하였다. 시인은 특히 자기 나라의 광대하고 풍요한 자연을 자랑하고 그 풍부한 자원을 민족의 재부로 삼을데 대하여 호소하였다.

그 내용과 형식에서 랑만주의적특성을 뚜렷이 나타낸 서사시 《녀자포로》는 아르헨띠나의 랑만주의의 선언서로 되였다.

에체베리아는 1830년대 중엽부터 독립후 아르헨띠나의 첫 군사독재자 로싸스의 독재통치를 반대하는 투쟁에 적극 참가하였으며 1838년에 《청년아르헨띠나》라는 반독재비밀단체를 조직하였다. 이로 하여 그는 당국의 탄압을 받고 1841년 우루과이로 망명한 후 기자로 활동하

면서 반독재투쟁을 계속하다가 그곳에서 생애를 마쳤다.

그는 망명시기에 애국적감정에 충만된 서사시 《아벨랴네다》(1849)와 《남부에서의 봉기》(1849)를 썼다.

그가 사망한 후 1871년에 출판된 단편소설 《도살장》은 집짐승도살장의 광경을 통해 당대 현실을 비유적으로 반영하면서 로싸스독재통치의 포악성과 야만성을 예리하게 폭로하였다. 이 작품에는 사실주의적특성이 표현되였다.

아르헨띠나랑만주의문학의 개척자로 알려진 에스떼반 에체베리아와 함께 호쎄 마르몰이 아르헨띠나랑만주의문학의 발전에 이바지하였다.

호쎄 마르몰(1817—1871) 역시 반독재투쟁참가자로서 감옥살이를 하다가 탈출에 성공한 후 1839년 우루과이에 망명하여 에체베리아와 손을 잡고 반독재활동을 계속하였다.

그는 1841년에 문학경연에서 3등을 하였다. 그후 그는 시대정신을 반영하고 반독재사상에 충만된 《추방된자의 노래》, 《단검》, 《로싸스에게, 1843년 5월 25일》을 비롯한 시들과 서사시 《방랑자의 노래》(1847), 장편소설 《아말리아》(1851) 등의 작품들을 창작하였다.

그는 특히 장편소설 《아말리아》에서 로싸스의 반동적독재통치를 반대하여 싸우다가 부상당한 애국청년 에두아르도와 추격당하는 그를 자기 집에 숨겨준 아름다운 처녀 아말리아사이에 맺어진 순결한 사랑이 교형리들에 의하여 무참히 짓밟히는 이야기를 통하여 로싸스독재시기의 아르헨띠나의 반동적현실과 그를 반대하는 인민들의 투쟁을 랑만주의적으로 반영하였다.

아르헨띠나와 함께 꼴롬비아에서도 랑만주의문학이 발전하였다. 꼴롬비아랑만주의문학의 대표자는 라파엘 뽐보와 호르헤 이싸악스이다.

라파엘 뽐보(1833—1912)는 보고따에서 태여나 군사교육을 받았으나 일찍부터 시인이 될것을 지망하여 19살때부터 시를 쓰기 시작하였다. 그의 초기시작품들에서는 유럽랑만주의시문학의 영향이 많이 나타났다.

뽐보는 1850년대 전반기에 독재자를 반대하는 투쟁을 벌리던 시기와 1855—1861년사이에 외교관으로 미국에 가있던 시기에 애국주의주제와 반독재사상을 담은 많은 시들을 썼다.

반종교주제의 시 《혼란된 시각》(1855)과 라틴아메리카에 대한 미국의 침략정책을 규탄한 반미애국주의주제의 시 《해적들》(1856)은 뽐보의 시들가운데서 가장 우수한 작품들이다.

특히 《해적들》은 미국에서 남북전쟁시기 인종차별을 반대하고 자유를 위하여 떨쳐나섰던 흑인노예들에 대한 뜨거운 동정으로 일관되여있다.

조국에 귀국한 후 1870년대에 이르러 뽐보는 꼴롬비아의 가장 우수한 서정시인의 한사람으로 사회적인정을 받게 되였다. 이 시기를 전후하여 그가 쓴 시 《엘비라 뜨라씨》(1863), 《12월의 밤》(1874)과 같은 작품들에는 고요하고 온건한 음조가 울려나오고있다.

뽐보의 작품들은 서정성이 짙고 형상성이 높으며 《밤부꼬》(꼴롬비아민요)계렬의 작품들에서 볼수 있는바와 같이 평민들속에서 전해지는 가요의 운률과 형식을 리용한 특성을 보이고있다. 그는 시작품외에 우화도 창작발표하였다.

이러한 창작성과로 하여 라파엘 뽐보는 꼴롬비아진보적랑만주의문학의 대표자의 한사람으로 확고한 자리를 차지하게 되였다.

이싸악스

호르헤 이싸악스(1837—1895)는 까우까주의 깔리시에서 상인의 아들로 태여났다. 그는 군대복무를 마친 후 1861년에 문학소조 《엘 모싸이꼬》모임에서 자작한 서정시를 랑독한것이 계기가 되여 창작생활을 시작하였다. 그해에 도로건설감독관으로 임명된 그는 여가시간을 리용하여 장편소설 《마리아》창작을 계속하였으며 그것을 1867년에 발표하였다. 그는 《시집》(1864), 서사시 《싸울로》(1881)와 같은 시작품들도 내놓았으나 그가 작가로서 명성을 얻게 된것은 대표작인 장편소설 《마리아》와 관련되여있다.

1인칭소설형식으로 되여있는 《마리아》는 꼴롬비아의 아름다운 자연과 농촌풍경을 배경으로 두 청춘남녀의 뜨겁고 순진한 사랑을 강렬한 랑만주의적기백과 라틴아메리카적인 정서로 감상적으로 그려낸 작품이다.

가부장적인 생활을 하고있는 농민가정의 청년 에프라인과 마리아는 자연의 아름다움속에서 서로 변함없는 사랑의 언약을 맹세한다. 그러나 사이가 나쁜 그들의 부모는 한사코 그들의 결혼을 반대해나선다. 에프라인은 부모의 강요로 끝내 마리아와의 결혼을 단념하지만 마리아는 부

모가 정한 대상자와의 결혼을 거절하고 저승에서라도 사랑하는 에프라인과 결합되겠다고 결심하고 죽음의 길을 택한다.

소설에는 주인공들의 비극적사랑이야기의 전개와 함께 농민들의 결혼식풍속, 흑인춤, 표범사냥 등 꼴롬비아농촌의 세태풍속이 구체적으로, 생동하게 묘사되여있다.

소설은 출판된 후 수십번이나 재출판되여 라틴아메리카에 널리 보급되였으며 꼴롬비아랑만주의문학과 꼬스뚬브리스모문학의 대표작의 하나로 알려지게 되였다.

이 지역의 이름난 랑만주의작가들로 또한 에꽈도르의 후안 레온 메라와 후안 몬딸보, 뻬루의 리까르도 빨마가 알려져있다.

레온 메라

후안 레온 메라(1832—1894)는 유년시절과 소년시절을 인디안들이 많이 사는 농촌에서 보내면서 인디안들과 친숙해지고 그들에 대한 깊은 리해심을 가지게 되였다. 정규적인 학교교육을 거치지 않고 가정교육을 통하여 지식을 체득한 그는 20대에 문학창작활동을 시작하였다. 그는 초기부터 인디안들의 전설에 기초하여 그들의 생활을 반영한 작품창작에 열중하였다.

그가 26살에 발표한 서사시 《태양의 녀신》은 작가의 이러한 노력의 결실이였다. 인디안 께추아족의 전설에 기초하여 창작된 작품에서는 16세기 초 인디안들이 에스빠냐침략자들을 반대하여 싸우던 시기에 있었던 사건이 이야기되고있다. 에스빠냐침략자들에 의하여 인디안의 성지가 파괴될 위험에 처하게 되자 주인공인 인디안신관은 종교의 계률을 어기고 자의로 신전에 안치되여있던 태양의 녀신상을 꺼내 깊은 산속에 숨긴다.

작품은 침략자들을 반대하여 용감히 싸우며 조상전래의 종교를 지켜낸 원주민들을 찬양하고 그들의 민족적자존심을 고취하였다.

메라의 대표작은 장편소설 《꾸만다》(1879)이다.

녀주인공의 이름을 제목으로 한 이 소설에서 작가는 18세기말을 시대적배경으로 하여 식민주의자들의 후손인 백인과 원주민인 인디안사이의 비타협적인 갈등을 반영하고 그것을 종교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지향하였다.

안데스산줄기의 동쪽저지 오리엔떼주의 열대밀림속에서 용감하고 전투적인 인디안 히바로족과 싸뽀로족이 살고있었다. 이 궁벽한 산골에도 카톨릭교 선교사들이 들어와 인디안종족을 카톨릭교화하고 종교적신앙의 힘으로 지난날 적대적인 관계에 있던 두 종족을 화해시켜 그들이 사이좋게 땅을 경작하고 집짐승을 사양하면서 평화로운 생활을 하게 하였다.

그런데 이곳 안도아스마을에 자리잡은 백인지주 오로스꼬와 인디안농민들사이의 대립과 알륵은 좀처럼 풀리지 않는다. 그것은 오로스꼬가 자기 농장에서 일하는 인디안농민들을 횡포하게 억압하였기때문이다. 지주의 심한 박해에 격분한 인디안들은 뚜본의 지휘밑에 폭동을 일으킨다. 폭동은 오로스꼬가 도시에서 공부하는 아들 까를로스를 만나러 간 사이에 일어난다. 도시에서 폭동소식을 듣고 급기야 마을로 돌아왔으나 집은 모조리 불타버리고 안해와 여섯명의 딸까지도 모두 살해되였다. 그속에는 그가 제일 귀여워하던 막내딸 훌리아도 있었다.

절망에 빠진 오로스꼬는 머리를 깎고 수도원에 들어가며 수도원에서 속죄하는 과정에 자기 가정의 비극이 자신의 횡포한 만행으로부터 빚어진것임을 깨닫게 된다. 그후 신부가 되여 안도아스로 돌아간 오로스꼬는 속죄하는 마음에서 그 고장을 잘 꾸리며 인디안들과도 좋은 관계를 가지려고 애쓴다.

특히 그의 아들 까를로스는 교육을 받고 계몽된 청년으로서 자연을 사랑하고 인디안들과도 친숙해진다. 그는 싸뽀로족의 아름다운 처녀 꾸만다를 알게 되여 사랑하게 된다. 서로 열렬히 사랑하게 된 그들은 결혼에 대한 희망을 가지게 된다.

그러나 그 희망은 실현되지 못한다. 꾸만다의 아버지 딴가나(그가 바로 뚜본이였다.)는 모든 백인들을 증오하던 나머지 자기 딸이 백인청년과 결혼하는것을 결사반대하며 여러번 사람을 보내여 까를로스를 살해하려고 시도한다. 그가 그때마다 살아날수 있은것은 꾸만다의 필사적인 노력의 결과였다.

그러자 딴가나는 딸을 히바로족의 추장에게 강제로 시집보낸다. 수많은 처첩을 데리고있는 늙은 추장은 결혼직후에 갑자기 죽고만다. 추장의 죽음은 꾸만다에게 새로운 위협을 가져다준다. 종교적관습에 따라 추장의 마지막처가 추장과 함께 순장되게 된것이다.

꾸만다는 필사적으로 도망쳐 안도아스에 피난한

다. 히바로족은 까를로스를 인질로 잡아들이고 꾸만다를 내놓든가, 까를로스를 죽이고 안도아스마을을 불태우겠는가 둘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최후통첩을 보내온다. 까를로스와 마을을 구원하기 위해 자신을 희생할것을 결심한 꾸만다는 히바로족의 마을로 돌아가며 까를로스와 작별하면서 기념으로 그에게 자기 호신부를 넘겨준다.

한발 늦어 도착한 오로스꼬는 그 호신부안에서 자기 안해의 초상을 보게 된다. 꾸만다는 죽은줄 알았던 막내딸 훌리아였던것이다. (뚜본의 안해가 훌리아를 구원하여 양딸로 삼았던것이다)

이 사실을 알게 된 까를로스는 꾸만다의 뒤를 쫓아 자결하며 오로스꼬는 속죄하려고 또다시 수도원에 들어간다.

작품은 18세기말에 있은 이야기를 통하여 현실적으로 절박한 사회적문제를 제기하고있다. 주인공들의 비극은 개인적, 가정적비극이 아니라 지난날 식민주의자들에 의하여 산생된 력사적비극이였다. 인디안에 대한 인종적차별과 억압은 독립후에도 여전히 남아 커다란 사회악으로 되였다.

작가는 소설에서 인디안들을 리해심과 존경심을 가지고 묘사하면서 인디안에 대한 인종차별과 박해를 반대하고 그들을 평등하게 대하며 그들의 인격을 존중할것을 주장하였다. 소설은 총체적으로 랑만주의계렬의 작품이지만 사실주의적 요소도 강하게 내포하고있다.

레온 메라의 장편소설 《꾸만다》는 남아메리카와 에스빠냐에서 출판되여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으며 라틴아메리카랑만주의소설의 대표작의 하나로 알려지게 되였다.

후안 몬딸보(1832—1889)는 넉넉치 못한 크레올가정에서 태여나 끼또종합대학을 중퇴하고 독학으로 박식가가 되였다. 그는 외교관으로 빠리주재 대사관에서 일하는 기간 프랑스랑만주의시인들과 교제하면서 그들의 영향을 받았다. 그후 에꽈도르에서 국가정변이 일어나 가르씨아 모레노의 독재통치가 수립되자 그는 이를 반대하는 반독재투쟁을 벌렸다.

1860년에 귀국하여 정기간행물 《엘 꼬스모뽈리따》(1866—1869)를 발간하고 문필활동을 벌리던 그는 1869년에 추방당하여 꼴롬비아에서 망명생활을 하였으며 독재자 모레노가 사망한 후에 일단 귀국하였으나 1876년 새 독재자가 집권하면서 다시 추방당하였다. 그는 생애 말기를 프랑스에서 보내다가 그곳에서 객사하였다.

그는 대학시절부터 창작활동을 시작하여 주로 보도, 수필, 풍자산문을 썼는데 특히 풍자작품창작에서 두각을 나타냈다.

그의 작품으로 풍자산문집 《까떨리나리아스》(1880—1882), 수필집 《7개의 론문》(1871—1878), 산문 《영원한 독재》(1874) 그리고 풍자소설과 여러편의 희곡들이 있다.

그의 작품들마다에는 독재정치, 특히 독재자 가르씨아 모레노와 이그나씨오 베인띠밀랴에 대한 비판이 예리하다. 독재자에 대한 예리한 풍자, 폭군정치에 대한 해부학적묘사로 명성을 떨친 몬딸보는 에꽈도르진보적랑만주의문학의 대표자의 한사람으로 되였다.

리까르도 빨마(1833—1919)는 리마태생의 뻬루작가, 학자로서 약 50년동안에 걸쳐 수집, 윤색, 편찬한 《뻬루전설집》(전 12권, 1872—1893)을 내놓음으로써 널리 알려지게 되였다. 뻬루의 전설과 구전설화, 력사일화들을 수록한 이 작품집에서 빨마는 꼬스뚬브리스모의 전통에 따라 에스빠냐식민지통치시기 뻬루의 세태풍속을 선명하게 재현하였다.

그는 또한 랑만주의적극작품 《교형리의 누이》(1851), 《죽음이냐, 자유냐》(1851), 랑만주의적요소가 강한 시집《조화》(1865), 《시계꽃》(1870)을 썼으며 말기에 어문학과 력사에 관한 연구론문도 썼다.

리까르도 빨마는 라틴아메리카문학에서 처음으로 전설집을 내놓음으로써 그후 전설집에 대한 관심을 높여 전설수집과 편찬을 적극화하는데 이바지하였다.

이 시기 남아메리카문학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작가는 아르헨띠나의 싸르미엔또이다.

싸르미엔또

도밍고 파우스띠노 싸르미엔또(1811—1888)는 아르헨띠나의 싼 후안에서 독립전쟁참가자인 령락한 크레올가정에서 태여났다.

그는 로동생활도 하고 자치체학교에서 공부도 하였지만 주로는 꾸준한 독학으로 자체실력을 쌓아나갔다. 그는 또한 유럽의 부르죠아자유주의사상을 체득하고 16살때부터 정치활동에 참가하였다.

그는 아르헨띠나의 로싸스독재통치를 반대하는 적극적인 활동을 벌린것으로 하여 체포되여

감옥살이를 하였으며 1831—1836년, 1840—1852년에 칠레에서 망명생활을 하였다. 그는 칠레에서 교육, 계몽, 잡지발간활동을 활발히 벌려 칠레의 사회문화계에서 이름난 인물로 되였다. 그리하여 칠레와 아르헨띠나에서 대사, 상, 국회의원으로, 1868—1874년에는 아르헨띠나대통령으로 되였다.

그는 청년시절에 《1837년세대》로 불리운 랑만주의작가단체에 속하여 창작활동을 벌렸으며 대표작인 수필 및 정론체의 예술산문 《문명과 야만》(일명 《파꾼도》, 1845)을 발표하여 유명해졌다.

이 작품의 원제목은 《문명과 야만, 후안 파꾼도 끼로가의 생애, 아르헨띠나공화국의 모습, 세태풍속》이였으나 흔히 《문명과 야만》으로 불리우고있다.

작품에서는 문명과 야만사이의 투쟁이 벌어지고있던 라틴아메리카를 반영하면서 아르헨띠나의 자연지리와 생활관습, 가우쵸를 비롯한 주민들의 생활양식을 폭넓게 개괄하였다. 또한 파꾼도(독재자 로싸스)의 전기와 활동을 이야기하는데 모를 두고 독재자를 대악당으로 규탄하였으며 독재자의 멸망을 예언하였다.

그는 이 작품에서 자신의 부르죠아자유주의사상에 기초하여 독재통치를 비판하고 새 아르헨띠나건설에 대한 주장을 전개하였다.

작품은 근대적인 자본주의 문명국가를 리상화하고 가우쵸들을 야만으로 배척한것을 비롯하여 많은 제한성을 가지고있으나 강한 반독재사상과 근대적인 문명국가건설에 대한 열렬한 지향, 재간있는 예술산문체로 하여 라틴아메리카문학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게 되였다.

이 지역 나라들의 문학에서 랑만주의가 쇠퇴하고 비판적사실주의가 발생한것은 19세기 70～80년대이다.

이 시기 아르헨띠나의 호쎄 에르난데스의 서사시 《마르띤 피에로》(1872), 뻬루시인 마누엘 곤쌀레스 쁘라다의 련시 《뻬루발라다》(1870년대 창작, 1935 출판), 베네수엘라작가 마누엘 끼쎈떼 로메로 가르씨아의 장편소설 《뻬온》을 비롯한 여러 작품들이 창작되였다.

그러나 이 지역 나라들에서 비판적사실주의문학이 본격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한것은 20세기에 들어와서이다.

에르난데스와 서사시 《마르띤 피에로》

호쎄 에르난데스는 19세기 아르헨띠나와 라틴아메리카문학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있는 시인이다.

호쎄 에르난데스(1834—1886)는 부에노스아이레스교외의 목장주의 집안에서 태여났다. 그는 에스빠냐의 식민지통치를 반대하는 독립전쟁 지도자의 한사람이였으며 1816—1819년에 아르헨띠나공화국의 최고통치자였던 후안 마르띤 데 뿌에이레돈의 조카의 아들이였다. 그의 아버지는 당시 아르헨띠나의 독재자였던 로싸스의 신임을 얻어 그의 령지관리인으로 있었으며 삼촌은 로싸스의 보병대 지휘관이였다. 이러한 사정으로 하여 그의 친척들은 서로 적대시하였다.

일찍부터 나라가 처한 불행과 가정적모순을 체험한 그는 부에노스아이레스지방의 목장과 대초원에서 성장하면서 초등학교에 얼마간 다녔을뿐 체계적인 교육을 거의 받지 못하였다. 그의 해박한 지식은 오래동안의 정치투쟁과 군사활동을 통하여 얻은것이였다.

그는 1853년에 목장을 떠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갓 조직된 개혁파인 련방당에 속하여 활동하였으며 지방의 자치권을 얻기 위해 중앙집권을 반대하여 싸운 지방군 장교가 된것으로 하여 당국의 탄압을 받고 북부의 빠라나(빠라나강 하류의 도시)로 피신하였다. 이곳에서 그는 신문 《엘 나씨오날 아르헨띠노》를 편집하고 그 지상을 통해 문필활동을 벌렸다.

이 신문에 발표한 론문 《인민과 작가》에서 그는 작가의 의무는 아르헨띠나사람들속에 분렬의 씨를 뿌리는데 있는것이 아니라 그들을 단합에로 호소하는데 있다, 그것이 곧 인민의 념원과 기분에 맞는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자본주의화과정이 급속히 진행되고있던 당시 아르헨띠나에서는 부에노스아이레스의 상업부르죠아지들이 대농장주들, 외래자본가들과 결탁하여 대외무역을 독점하고있었다. 대토지소유자들의 수중에 토지가 집중되고 축산업에서 독점화가 추진되였으며 외국상품이 물밀듯이 쓸어들어와 지방의 소토지소유자들, 소목장주들과 축산업자들은 심대한 타격을 받고 날로 령락

해갔으며 특히 목축업의 기본담당자인 수많은 가우쵸들의 처지가 점점 더 악화되였다.

이들의 리익을 옹호해나선것이 에르난데스였다. 60년대말에 련방당의 민주주의파의 주되는 사상가, 선전자로 된 에르난데스는 대부르죠아지의 리익의 대변자인 대통령 싸르미엔또와 정면대결하였으며 신문에 낸 글들에서 대통령의 정책을 날카롭게 비판하였다. 그는 농촌주민들, 가우쵸들과 소토지소유자들을 옹호하고 민족적화해와 평화, 법앞에서의 평등과 공정성, 련방제를 요구하였다.

1870년에 신문업을 그만둔 그는 다시 무장을 잡고 지방련방주의자들이 일으킨 무장봉기에 참가하였다. 그러나 봉기군의 가우쵸기마무장부대는 잘 훈련되고 현대적무기로 무장된 정규군에 의하여 진압당하고말았다. 당국은 막대한 현상금을 걸어 그를 체포하려고 발악하였다. 부득불 그는 브라질의 어느 한 소도시에서 망명생활을 하지 않으면 안되였다.

그후 정세가 완화되면서 부에노스아이레스로 돌아온 에르난데스는 한때 국회의원으로까지 선거되였으며 책방과 인쇄소를 차리고 땅을 구입하여 유족하게 생활하였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가우쵸의 옹호자로 남아있었다.

이 나날에 그가 내놓은 작품이 바로 서사시 《마르띤 피에로》이다.

제1부 《가우쵸 마르띤 피에로》(1872), 제2부 《마르띤 피에로의 귀환》(1879)으로 구성된 서사시는 구전문학적수법으로 자유를 애호하는 가우쵸들의 생활과 운명을 노래한 작품이다.

제1부에서는 평범한 가우쵸 마르띤 피에로의 운명이 이야기되고있다.

소와 말을 방목하면서 자유롭고 평화롭게 살아가던 주인공은 어느날 군대에 끌려가 고통스러운 병사생활을 강요당한다. 그가 없는 사이에 그의 집안은 령락되여 가족들은 류랑의 길에 오른다.

모해와 억압에 분노한 그는 병영을 탈출한다. 추격을 받고 숨어다니는 신세가 된 그는 자신을 옹호하기 위하여 살인행위까지 저지른다. 그 혼자뿐이 아니라 그의 아들과 의형제 끄루스부자까지 추격받는 몸이 된다.

정신없이 쫓겨다니던 피에로는 추격자들을 기습하여 된매를 안기기도 하면서 피신처를 찾아헤맨다.

방랑과정에 즉흥시인, 즉흥가수가 된 피에로는 기타를 타면서 사람들에게 자신이 겪은 일에 대하여, 세상일에 대하여, 빰빠에 대하여, 가우쵸에 대하여 노래한다. 그의 노래를 통하여 작품의 내용이 더욱 전개된다.

주인공은 끝내 정다운 고향을 영원히 떠날 결심을 한다. 그는 기타를 박살내고 의형제와 함께 빰빠속으로 사라지고만다.

제2부는 원래 예견하지 않았던것인데 서사시 《가우쵸 마르띤 피에로》를 읽은 수많은 독자들과 벗들이 그 속편을 쓸것을 요청하는 바람에 창작되였다.

제2부에는 시인자신이 겪은 사상적위기가 반영되여있다. 서사시의 제1부에서 마르띤 피에로가 공개적인 반항아로 형상되였다면 제2부에서는 그가 온화하고 걸늙은 교사로, 지어 말공부쟁이로 등장한다. 그러나 명백한것은 여기서도 시인과 주인공이 현실과 타협하지 않고 자기의 리상을 버리지 않았다는것이다.

2부의 이야기는 단순하다. 빰빠 깊이 도망쳤던 마르띤 피에로와 끄루스는 인디안들에게 포로되여 그들속에서 생활하게 된다. 그들은 인디안들이 선량하고 정직하며 사리사욕이 없고 용감하다는것을 인정한다. 그러나 가우쵸이며 농민들인 그들에게 있어서 자유를 잃은 포로의 생활, 미개한 인디안들의 생활은 도저히 받아들일수 없는것이였다.

그들과 융합될수 없고 그들과의 공동생활을 참을수 없었던 피에로는 의형제인 끄루스가 사망하자 더 견딜수 없어 기회를 보아 거기서 탈출하고만다.

그가 비록 옛 고장으로 돌아오긴 했으나 달라진것이란 아무것도 없었다. 생활은 예전그대로였다. 기쁨이라면 헤여졌던 아들들과 상봉한것뿐이였다.

하여 마르띤 피에로는 다시 빰빠 깊이 들어가기로 결심하며 변성명하고 아들들, 벗들과 헤여진다. 그가 떠난 후 그의 아들들과 의형제의 아들들도 제각기 흩어져버린다.

서사시는 아르헨띠나가 어느 길로 나아가야 하는가 하는것을 기본문제로 제기하였다. 이 문제에서 시인은 싸르미엔또와 대립되고 그와 반대되는 립장을 취하였다.

싸르미엔또는 아르헨띠나에 남아있는 야만적인것을 없애고 문명국가를 세우자면 가우쵸를 비롯한 낡은것을 쓸어버리고 유럽이나 미국과 같은 자본주의의 길로 나가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며 자기가 아르헨띠나대통령으로 있던 시기에 그러한 정책을 실시하였다.

이와는 달리 에르난데스는 문명국가를 건설하되 목축의 나라인 아르헨띠나의 특성을 보존하며 빰빠와 목축업, 가우쵸들과 불가분리의 관계가 있는 고유한 생활양식과 문화를 살리고 그것을 보존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의 이러한 주장이 구현된 작품이 바로 서사시 《마르띤 피에로》였다.

작품에서 시인은 가우쵸의 전형인 마르띤 피에로를 주인공으로 내세우고 그의 형상을 통하여 가우쵸가 어떤 사람이고 그들의 처지가 어떠하며 그들이 무엇을 바라는가 하는것을 생활적으로 그려보이였다.

작품에 그려진 가우쵸들은 빰빠가 많은 아르헨띠나의 경제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 목축업의 담당자들이며 근로농민들이다. 엄혹한 자연을 이겨내며 목축에 종사하는 그들의 성격에서 특징적인것은 근면성과 용감성, 자기희생성, 부정의와 악에 대한 증오심과 강한 자유애호정신이다.

그런데 자기들이 야만에 가까운 족속으로, 청산해야 할 대상으로 간주되고 압박을 당하니 그 압제에 순종할수 없었던것이다. 그들이 반항의 길로 나간것은 응당한 귀결이였다.

바로 가우쵸의 이러한 성격적특질과 그들의 운명이 서사시의 주인공 마르띤 피에로의 형상에 체현되여있다.

시인은 마르띤 피에로의 운명을 통하여 불우한 가우쵸들을 비롯한 아르헨띠나인민의 비참한 처지에 깊은 동정을 표시하고 그들의 반항과 폭동을 지지하였다.

우리들자신이 행동해야 한다는것을
똑똑히 알아야 한다네
불길이 타오르게 하자면
밑으로부터 불을 지펴야 한다네

작품은 주인공을 통해 인민들자신이 자기 운명을 개척해나가야 한다는것을 깨우쳐주고있다.

이것이 이 서사시의 기본사상이며 바로 여기에 이 작품의 진보성과 의의가 있다.

서사시에서는 또한 가우쵸를 비롯한 근로인민들을 박해하고 불행과 고통속에 몰아넣는 당대 착취사회현실을 비판하고 싸르미엔또를 비롯한 위정자들, 통치배들의 반인민성을 폭로규탄하고있다.

작품의 이러한 사상은 주인공과 그의 가족들, 피에로의 의형제 끄루스와 그의 아들의 불행한 운명에 대한 묘사를 통하여 스스로 우러나오고있다.

서사시 《마르띤 피에로》는 구전문학에 기초한 작품으로서의 특성을 뚜렷이 나타내고있다.

아르헨띠나에서는 이전시기부터 가우쵸방랑시인들이 기타를 타면서 가우쵸의 생활, 사랑과 모험을 노래한 소박한 구전시가들이 창작되고 전승되여왔다. 시인은 자기 작품에 이러한 가우쵸구전시가의 내용과 형식을 도입하였다.

제1부에서 주인공자신이 기타를 타면서 자기 신세를 노래하고 제2부에서 피에로의 두 아들, 끄루스의 아들, 흑인 등 네사람이 차례로 노래하는 형식을 취한것은 이와 관련되여있다.

서사시에는 랑만주의와 사실주의가 결합되여있다.

서사시는 당대 착취사회현실을 비판하고 부정의를 반대하는 반항과 투쟁을 긍정하면서도 그 옳은 출로를 제시하지 못하고있다. 이것은 시인자신의 세계관적제한성으로부터 출발한것이다.

에르난데스의 서사시 《마르띤 피에로》는 아르헨띠나에서 자본주의가 발전하던 시기 가우쵸를 비롯한 인민들의 지향과 념원을 노래하고 구전문학에 기초한 서사시문학을 발전시킨것으로 하여 아르헨띠나와 라틴아메리카의 진보적문학의 발전에 이바지하였다.

2. 20세기 라틴아메리카문학

1) 인민들의 각성과 투쟁을 반영한 라틴아메리카문학

시대적배경 20세기 라틴아메리카문학은 제2차 세계대전을 계선으로 전반기와 후반기로 갈라볼수 있다.

19세기말부터 제2차 세계대전에 이르는 20세기 전반기 라틴아메리카정세의 기본특징은 라틴아메리카의 절대다수의 나라들이 미제국주의의 완전한 지배와 예속밑에 들어간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라틴아메리카의 절대다수의 나라들이 미제국주의의 완전한 지배와 예속 밑에 들어갔다. 라틴아메리카의 많은 나라들에 친미독재정권이 수립되였으며 이 나라들의 경제는 미국독점체들의 완전한 예속경제로 되였다.》

19세기말～20세기초에 독점자본주의－제국주의단계에 들어선 유럽의 제국주의나라들은 이 시기에 식민지재분할을 위한 략탈전쟁을 감행하여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를 비롯하여 세계의 모든 지역의 피압박민족들을 예속시켜 이 지역 나라들을 저들의 식민지, 반식민지로 만들었다. 그리하여 독점자본주의시기에 와서 세계는 극소수의 제국주의렬강들과 지구상 주민의 대다수를 이루는 피압박민족들이 살고있는 식민지예속국가들의 두 부분으로 갈라지게 되였다.

피압박민족들에 대한 제국주의렬강들의 침략과 략탈의 악랄성은 라틴아메리카에 대한 침투과정에서도 뚜렷이 나타났다. 제국주의렬강들가운데서 맨먼저 라틴아메리카에 침략의 마수를 뻗친것은 영제국주의였다. 영제국주의자들은 교활한 방법으로 이 지역 나라들에 대한 침투를 강화하여 19세기말까지 라틴아메리카의 대다수 나라들을 예속시켰다. 그러나 영제국주의는 곧 미제국주의에 밀려나고 이 지역 나라들은 점차 미제에 예속되게 되였다.

18세기 후반기에 영국식민지로부터 떨어져나와 미(아메리카)합중국을 세운 미제는 독립후 첫날부터 령토팽창과 침략에 미쳐날뛰면서 전체 아메리카대륙에 저들의 독점적지배권을 확립하려고 하였다. 이 목적을 실현하는데서 라틴아메리카에 대한 유럽렬강들의 팽창정책에 불안을 느낀 미제는 벌써 1823년에 몬로주의를 선포하고 《아메리카사람을 위한 아메리카》라는 기만적인 구호밑에 유럽세력의 침투를 막으면서 이 지역 나라들에 대한 침략을 강화하였다.

미제는 먼저 메히꼬를 침략하기 위한 흉계를 꾸미고 1846년에 메히꼬에 대한 침략전쟁을 일으켜 1848년에는 미국령토의 3분의 1에 가까운 메히꼬의 방대한 땅을 강탈하였다. 미제국주의자들의 파렴치한 날강도적본성과 침략성을 그대로 보여준 미국－메히꼬전쟁은 미제가 저지른 수많은 야수적략탈전쟁에서 대표적인 실례의 하나이다.

미제는 그후 1893년에 꾸바를 강점하였으며 뒤이어 1903년에는 무력으로 꼴롬비아정부를 위협하여 이 나라로부터 빠나마를 떼내여 형식상 독립을 선포하게 하고는 빠나마에 불평등적인 운하조약을 강요하여 운하지대의 영구조차권을 빼앗아냈다. 미제는 이러한 강도적방법으로 라틴아메리카나라들을 하나하나 침략해 들어갔다.

다른 한편 미제는 일련의 아메리카주국가들로써 침략적인 기구를 조작하여 모든 라틴아메리카나라들을 예속시키기 위하여 발광적으로 책동하였으며 저들에게 잘 복종하지 않는 나라 정부들은 서슴없이 군사정변의 방법으로 전복하고 그 나라들에 친미군사독재정권을 세웠다.

이리하여 20세기 전반기에 라틴아메리카의 절대다수의 나라들이 미제의 완전한 지배와 예속밑에 들어갔다.

라틴아메리카에 대한 미제의 침략과 략탈정

책은 이 지역의 사회발전을 저애하는 기본질곡으로 되였으며 이 지역 인민들을 참을수 없는 불행과 고통속에 몰아넣었다.

무엇보다도 라틴아메리카나라들의 자주적발전의 길이 가로막혔다.

이 지역의 대다수 나라들은 미제에 정치적으로 예속되여 형식적으로는 독립국가로 되여있었으나 내용적으로는 정치적자주권을 완전히 상실한 미제의 반식민지예속국가로 전락되였다. 그 예속정도가 특히 심했던 곳은 과떼말라, 온두라스, 쌀바도르, 니까라과 등 중앙아메리카나라들이였으며 라틴아메리카에서 비교적 발전된 나라들이였던 메히꼬, 아르헨띠나, 칠레, 브라질과 같은 나라들도 미제의 정치적압력을 강하게 받고 점차 미제에게 예속되여갔다.

라틴아메리카나라들의 경제적발전의 길도 가로막혔다.

민족경제의 식민지적편파성과 기형성이 조장되여 이 지역 나라들의 경제는 미제독점체들의 완전한 예속경제로 되였다. 그리하여 이 나라들은 식민지적경제구조를 가진 락후한 농업국가로서 미제를 비롯한 제국주의국가들에 커피, 바나나, 코코아, 알곡, 고기 등 농산물과 원유, 쇠돌, 주석, 아연, 동 등 귀중한 지하자원들과 공업원료들을 공급하는 원료공급지로, 상품시장으로 전락되였다.

민족경제의 파탄과 식민지적편파성이 심화됨에 따라 이 지역에서는 사회문화적락후성과 극도의 빈궁화가 지속되였다. 미제의 《우매화》정책으로 말미암아 교육문화수준은 몹시 뒤떨어지고 수많은 주민들이 문맹자로 남아있었다. 또한 도시와 농촌간의 문화수준의 차이, 빈부의 차이가 극심해지고 숨막히는 빈민굴과 굶주리는 극빈촌이 도처에 수많이 생겨나게 되여 인민들은 헐벗고 굶주리면서 극심한 생활고에 허덕이게 되였다.

이처럼 미제국주의자들이 라틴아메리카에 대한 침략의 전과정은 자유와 해방을 위한 이 지역 인민들의 투쟁을 가혹하게 탄압하고 인민들의 피와 땀으로 살찐 미제의 극악무도한 범죄행위로 일관되여있었다.

라틴아메리카에 대한 미제의 악랄한 침략과 략탈은 이 지역 인민들과 미제국주의자들, 국내 착취계급사이의 민족적 및 계급적모순을 첨예화시켰다. 하여 라틴아메리카인민들은 민족적 및 계급적해방을 위한 투쟁에 힘있게 떨쳐나섰다.

라틴아메리카인민들의 투쟁은 특히 이전 쏘련에서의 사회주의10월혁명승리이후부터 더욱 강화되였다. 이 시기에 와서 라틴아메리카인민들의 반제민족해방투쟁은 공산주의운동 및 로동운동과 결부되여 날로 앙양되여갔다.

특히 제2차 세계대전후 20세기 후반기에 라틴아메리카에서는 혁명적전환이 일어났으며 라틴아메리카의 면모는 근본적으로 달라졌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제2차 세계대전의 결과 민족해방운동이 전례없이 앙양되고 식민지체계가 붕괴됨으로써 제국주의는 치명적인 타격을 받았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후 제국주의, 식민주의를 반대하는 혁명의 거세찬 폭풍이 라틴아메리카지역을 휩쓸었으며 세기적으로 억압당하고 멸시를 받아온 이 지역 인민들이 자주적발전의 길에 들어섰다.

여기서 커다란 사변으로 된것이 1959년 꾸바혁명의 승리였다. 꾸바혁명의 승리는 라틴아메리카에서의 위대한 10월혁명의 계속이였다. 꾸바혁명의 승리는 라틴아메리카에서 미제의 식민지통치체계를 밑뿌리채 뒤흔들어놓았으며 온 라틴아메리카를 혁명적폭풍으로 진감시키고 이 지역 인민들을 독립과 자유를 위한 성스러운 투쟁에로 힘있게 고무하였다.

꾸바혁명이 승리함으로써 라틴아메리카의 많은 나라들이 미제의 간섭과 침투를 배격하고 나라의 자주권과 민족의 존엄을 수호하며 자기 운명의 참다운 주인으로 되기 위하여 힘찬 투쟁을 벌렸으며 제국주의와 식민주의를 매장하는 당당한 혁명력량으로 자라났다.

그리하여 라틴아메리카에서는 반제자주의 기치밑에 나라의 자주적발전을 이룩하며 민족적리익과 존엄을 지키기 위한 투쟁이 여러가지 형태로 세차게 벌어졌다. 베네수엘라를 비롯한 라틴아메리카의 여러 나라 인민들은 제국주의의 정치경제적예속과 략탈정책을 반대하고 정치적자주권과 자연부원, 령해권을 지키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 제국주의자들에게 심대한 타격을 주었다. 지난날 미제의 세습령지로, 고요한 뒤동산으

로 불리우던 라틴아메리카지역이 오늘은 반제자주의 기치밑에 전진하는 혁명의 대륙으로 전변되였다.

라틴아메리카인민들의 과감한 투쟁에 의하여 제국주의침략자들은 라틴아메리카에서 더는 주인행세를 할수 없게 되였다.

오늘 라틴아메리카인민들이 반제자주의 기치밑에 벌리고있는 투쟁은 민족적독립과 자주권을 수호하고 나라의 부강발전을 이룩하기 위한 정당한 투쟁이며 제국주의자들에게 치명적타격을 주는 용감한 투쟁이다. 이 투쟁은 라틴아메리카인민들의 위대한 혁명투쟁의 한 고리로서 제국주의의 멸망을 촉진시키는데 크게 이바지하고있다.

문학유산 이러한 시대를 배경으로 20세기 라틴아메리카문학발전에서는 혁신적인 성과들이 이룩되였다.

20세기 라틴아메리카의 진보적문학은 인민들의 불행과 고통을 반영하는데 주되는 힘을 넣던 문학으로부터 점차 인민들의 투쟁을 반영하는 문학으로, 반제자주의 기치밑에 이 지역 인민들이 벌리고있는 용감한 투쟁을 반영하고 그들을 자주성을 옹호하는 투쟁에로 힘있게 고무하는 문학으로 발전해간것이다.

20세기 전반기 라틴아메리카문학에서 주되는 자리를 차지한것은 미제를 비롯한 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략탈로 말미암아 반식민지예속국가로 전락된 라틴아메리카나라들의 현실을 반영하면서 제국주의자들과 그와 결탁한 국내 착취계급의 가혹한 착취와 압박밑에서 참을수 없는 불행과 고통을 당하고있는 근로인민대중의 비참한 생활처지와 그들의 비극적운명을 묘사한 비판적사실주의문학이였다. 이로부터 이 문학에는 억압받고 천대받는 근로대중의 형상이 많은 자리를 차지하게 되였다.

그리하여 라틴아메리카의 비판적사실주의문학에서는 광산로동자들의 비참한 처지를 반영한 칠레작가 릴리오의 단편소설집 《땅밑에서》(1905), 열대림속에서 고역에 시달리는 근로자들의 불행과 고통을 그린 꼴롬비아작가 리베라의 장편소설 《소용돌이》(1924), 세기적으로 멸시받고 천대받는 인디안들의 운명을 반영한 에꽈도르작가 이까싸의 장편소설 《우아씨뿐고》(1934)를 비롯하여 농장과 재배원, 열대림과 초원, 광산과 농촌들에서 고역에 시달리는 근로대중의 불행과 고통을 반영한 수많은 작품들이 창작되였다.

이 시기 라틴아메리카의 비판적사실주의문학에서는 착취자, 압박자들을 주되는 비판대상으로 한 작품들도 창작되였다. 라틴아메리카의 비판적사실주의작가들은 이 시기에 대토지소유자들과 부르죠아지들을 비롯한 착취자, 압박자들의 죄행을 폭로한 일련의 작품들을 창작하였다. 베네수엘라작가들인 갈레고스의 장편소설 《도냐 바르바라》(1929)와 《까나이마》(1935), 블란꼬 퐁보나의 장편소설 《철의 인간》(1907)과 《황금의 인간》(1917) 등 작품들을 그 례로 들수 있다.

그러나 라틴아메리카의 비판적사실주의문학에서는 이러한 작품들이 주되는 자리를 차지하지 못하였으며 비판적사실주의작가들의 관심이 근로대중의 불행과 고통을 반영한 작품들을 창작하는데 더 많이 쏠리였다.

작가들의 이러한 지향속에서 《푸른 지옥》문학, 《인디헤니스모》문학 등 라틴아메리카의 독특한 문학조류가 형성되였다. 《푸른 지옥》문학은 생지옥으로 변한 남아메리카대륙의 끝없이 넓고 울창한 열대림속에서 불행과 고통을 당하는 근로자들의 비극적운명을 묘사하는데 힘을 넣은 작가들과 그 작품들을 말하며 《인디헤니스모》문학은 라틴아메리카의 원주민들인 인디안들의 생활과 운명을 묘사하는데 힘을 넣은 작가들과 그 작품들을 말한다.

《푸른 지옥》문학은 꼴롬비아, 아르헨띠나, 브라질과 같은 나라들에서, 《인디헤니스모》문학은 인디안들이 많이 사는 뻬루, 에꽈도르, 볼리비아 등 안데스지역 나라들과 중앙아메리카의 메히꼬 등 나라들에서 발전하였다.

라틴아메리카의 비판적사실주의문학은 단지 착취받고 압박받는 근로자들의 생활을 객관적으로 반영하고 그에 동정을 보이거나 근로자들을 불행속에 몰아넣는 착취자, 압박자들을 폭로하는데 그친것이 아니라 로동자, 농민들의 각성과정을 반영한 작품들, 착취자, 압박자들을 반대하여 반항하는 인민들과 손에 무장을 들고 투쟁에 일떠선 인민들을 형상한 작품들도 창작하였다.

브라질작가 다 꾸냐의 《쎄르딴지대》(1902)와 메히꼬작가 아쑤엘라의 장편소설 《하층사람들》(1916), 꼴롬비아장편소설 《기름흔적》(1935)

등이 그러한 작품들이다. 특히 아르헨띠나작가 바렐라가 1943년에 발표한 장편소설 《어두운 강물》은 온갖 예속과 압박에서 벗어나며 자주적으로 살기 위한 라틴아메리카인민들의 계급적각성과정을 형상한 의의있는 작품의 하나이다.

라틴아메리카인민들의 각성과 투쟁을 반영한 작품들은 제2차 세계대전후에 더욱 많아졌다. 라틴아메리카인민들의 해방투쟁에 대한 찬가인 칠레시인 빠블로 네루다의 《위훈의 노래》(1950), 브라질작가 아마두의 장편소설 《자유를 위한 지하투쟁》(1954), 우루과이작가 그라비나의 장편소설 《바람에 끊어진 경계선》(1956), 베네수엘라작가 오떼로 씰바의 장편소설 《침묵을 지킨 다섯사람》(1963), 꾸바작가 까르뻰띠에르의 장편소설 《봄축전》(1978) 등이 그러한 작품들이다.

인민들의 각성과 투쟁을 반영한 라틴아메리카의 진보적문학은 필연적으로 반제반미주제와 결합되여 발전하였다.

당시에 조성된 현실은 라틴아메리카의 진보적작가들로 하여금 점차 미제의 침략과 략탈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게 하였으며 미제를 폭로하고 그를 반대하는 투쟁에로 호소한 반제반미주제의 문학을 낳게 하였다.

반제반미주제의 문학에서 특징적인것은 작가들이 당파와 정견, 신앙의 차이를 초월하여 반제반미투쟁에서 공동보조를 취한것이다. 그리하여 로동자공산당원인 꼬스따리까 작가 팔랴스와 부르죠아민주주의자인 베네수엘라작가 폼보나로부터 보수주의적인 뻬루작가 가르씨아 깔데론과 니까라과시인 루벤 다리오에 이르는 여러 작가들이 미제를 반대하여 진출하였다. 또한 아르헨띠나의 우가르떼, 칠레녀류시인 미스뜨랄, 과떼말라의 아스뚜리아스를 비롯한 이름난 작가들이 이에 합세해나섰다.

반제반미주제의 작품들가운데서 팔랴스의 장편소설 《마미따 유나이》(1940)와 아스뚜리아스의 3부작장편소설 《세찬 바람》(1950), 《푸른 법왕》(1954), 《죽은 사람들의 눈》(1960), 온두라스작가 아마이아 아마도르의 장편소설 《고리라작전》(1966), 꾸바작가 뿌이그의 중편소설 《베르멜리온 166》(1959)과 뜨라비에쏘의 중편소설 《승냥이들을 소탕하기 위하여》(1971), 다리오의 시 《루즈벨트에게》(1903), 뿌에르또 리꼬 시인 또레스의 서사시 《우리의 바다》(1929), 꾸바시인 길렌의 시 《양키, 물러가라!》를 비롯한 많은 소설들과 시들이 널리 알려져있다.

20세기 라틴아메리카문학에서는 이 지역의 고유한 민족적특성을 더욱 뚜렷이 나타내였다.

라틴아메리카문학의 민족적특성은 무엇보다도 이 문학작품의 주인공들, 등장인물들의 구성에서 확연히 나타났다. 이 시기 문학에서는 19세기 문학작품의 주인공설정에서 지배적이였던 크레올뿐아니라 원주민인 인디안, 아프리카에서 온 흑인, 이 지역의 주민구성에서 제일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혼혈인들, 즉 메티스, 물라트, 쌈보들이 등장하고 당당한 자리를 차지하게 되였다. 그리하여 라틴아메리카의 고유한 이러한 인물들의 성격에서 민족적정서와 색채가 강하게 풍겨나오게 되였다.

라틴아메리카문학의 민족적특성은 이 지역 주민들의 세태생활풍습을 생동하게 구체적으로 반영한데서도 표현되였다. 일반적으로 라틴아메리카의 생활문화는 원주민인 인디안, 아프리카흑인, 유럽백인들의 서로 다른 생활 및 문화적요소가 융합되면서 하나로 형성된것이다. 이 시기 라틴아메리카문학은 이 지역에서 독특하게 형성된 이러한 생활풍습들을 구체적으로 반영함으로써 민족적색갈을 진하게 나타냈다.

라틴아메리카문학의 민족적특성은 이 대륙에 특징적인 자연에 대한 묘사와 그에 대한 태도에서도 강하게 표현되였다.

라틴아메리카문학이 창조한 많은 작품들에서는 이 대륙의 풍요하고 엄혹한 자연에 대한 형상이 매우 큰 자리를 차지하고있었다. 이러한 작품들에서는 주인공들의 행동이 전개되는 열대의 수림(쎌바)과 가없이 넓은 평원과 대초원(빰빠), 광활한 농장과 재배원, 목장, 아아하게 높은 산줄기와 사품치는 강 등 자연환경이 상세히 묘사되며 인간생활에서 자연이 노는 역할, 자연이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하여 생동하게 보여주었다.

그것은 근로자들의 불행과 고통에 대한 묘사가 열대림의 대자연에 대한 묘사와 밀접하게 결합되여있는 꼴롬비아장편소설 《소용돌이》, 대초원—빰빠의 형상이 큰 자리를 차지하고있는 베네수엘라소설 《도냐 바르바라》, 사품치는 빠라나강에 대한 묘사를 상세히 한 아르헨띠나소설

《어두운 강물》 등 작품들을 통해서도 잘 알수 있다.

라틴아메리카문학의 민족적특성은 그 언어에서도 뚜렷이 나타났다.

사실상 라틴아메리카문학에서 이 지역 주민들의 독특한 언어가 뚜렷하게 표현되기 시작한것은 20세기에 들어와서라고 말할수 있다. 19세기에 라틴아메리카나라들에서 창작된 작품들은 그 민족적소속을 작품의 언어를 가지고 갈라내기가 어려웠다. 그것은 이러한 작품들에서는 메히꼬작가의 언어나 아르헨띠나작가의 언어나 별로 차이가 없었기때문이다. 그러나 이 시기에는 메히꼬와 안데스지역 나라들의 인디안, 아르헨띠나와 우루과이의 가우쵸(목동), 브라질의 흑인, 여러 나라의 혼혈인들이 자기의 독특한 언어를 가지고 문학작품에 등장하기 시작하였으며 그것은 작품의 민족적색채를 뚜렷하게 하였다. 브라질의 바이아주에 사는 흑인들의 정서를 짙게 풍기고있는 아마두의 소설들, 메히꼬 인디안의 독특한 언어의 특색을 살리고있는 아스뚜리아스의 작품들, 인디안종족들의 언어를 생동하게 반영하고있는 뻬루, 에꽈도르, 볼리비아 작가들의 작품들을 그 례로 들수 있다.

이처럼 20세기 라틴아메리카문학은 일련의 특징을 가지고 소설문학, 시문학, 극문학 등 문학의 여러 형태가 급속히 발전하였다.

그가운데서 주도적인것은 사회소설형식의 장편소설이였다. 그것은 이 시기에 이르러 라틴아메리카의 진보적작가들속에서 사회적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현실속으로 깊이 들어가려는 지향이 강화된것과 관련된다.

20세기 라틴아메리카문학에서 널리 알려진 이름난 소설가들로 꾸바의 까르뻰띠에르, 메히꼬의 아쑤엘라와 푸엔떼스, 과떼말라의 아스뚜리아스, 꼬스따리까의 팔라스, 꼴롬비아의 가르씨아 마르께스, 베네수엘라의 갈레고스와 오떼로 씰바, 아르헨띠나의 바렐라, 뻬루의 알레그리아, 볼리비아의 멘도싸, 에꽈도르의 이까싸, 브라질의 죠르쥬 아마두와 기마랑이스 로싸 등을 들수 있다.

이 시기 시문학에서는 꾸바의 길렌, 칠레의 빠블로 네루다와 미스뜨랄, 뻬루의 발레호, 니까라과의 루벤 다리오 등 시인들이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지게 되였다.

20세기 라틴아메리카문학의 특징의 하나는 새로운 문학인 프로레타리아문학이 발생하고 그 발전과정에 사회주의적사실주의문학이 출현한것이다.

라틴아메리카의 비판적사실주의문학은 근로대중의 불행과 고통을 묘사하거나 인민들의 반항과 투쟁을 묘사하면서도 그 출로를 찾지 못하고 투쟁승리를 믿지 못한데로부터 숙명적이며 염세주의적인 결론에 빠진것과는 달리 라틴아메리카의 비극적현실의 원인이 새롭게 밝혀져있다. 하여 라틴아메리카의 비판적사실주의문학은 반제민족해방에 대한 열렬한 호소, 라틴아메리카인민들의 해방투쟁의 승리에 대한 신념과 락관주의로 특징적이다.

라틴아메리카의 프로레타리아문학은 1920년대에 발생하여 1930년대에 발전하였다.

이 시기 꾸바의 니꼴라스 길렌과 레히노 뻬드로쏘, 메히꼬의 호쎄, 만씨씨도르, 브라질의 죠르쥬 아마두를 비롯한 이름난 작가, 시인들이 프로레타리아문학의 앞장에 서서 활동하였다. 그들에 의하여 시 《기계공장 로동자들에게 보내는 형제적인사》(뻬드로쏘, 1927), 시집 《쏜고로 꼬쏜고》(길렌, 1934), 장편소설 《붉은 도시》(만씨씨도르, 1932)와 《카카오》(아마두, 1933)를 비롯한 많은 프로레타리아작품들이 창작되였다.

이러한 작품들은 무산계급의 계급적자각과 요구를 반영하고 무산자들의 생활과 사상감정, 그들의 지향을 생동하게 표현해나섰다.

프로레타리아문학의 발전과정에 길렌, 아마두를 비롯한 여러 작가들이 사회주의적사실주의작가로 자라났으며 까르뻰띠에르, 빠블로 네루다를 비롯한 여러 작가들이 이 대렬에 합류하였다.

라틴아메리카에서 사회주의적사실주의문학은 특히 1959년 꾸바혁명승리이후 꾸바에서 발전하였다.

2) 꾸바문학

꾸바혁명승리를 계선으로 뚜렷이 갈라진 꾸바의 문학유산

혁명승리이전시기 문학

20세기초부터 꾸바혁명이 승리한 1959년까지의 시기는 꾸바문학의 력사에서 중요한 단계로 된다.

이 시기 꾸바의 사회력사적환경에서 기본특징은 1902년에 형식상 독립한 꾸바가 미제에게 철저히 예속되였으며 미제와 그 주구들을 반대하는 꾸바인민들의 투쟁이 날로 고조된것이다.

1892년 미국—에스빠냐전쟁의 결과 16세기초부터 에스빠냐의 식민지였던 꾸바는 1902년에 형식적독립을 선포하였으나 정치경제적으로 미제에게 철저히 얽매인 예속국가로 되였다. 미제는 제놈들의 주구 빨마를 괴수로 하는 《꾸바공화국》을 조작한 후 1903년에는 관따나모를 조계지라는 명목으로 빼앗았으며 그해 말에는 미국—꾸바호혜조약을 강압체결하여 꾸바경제를 손아귀에 거머쥐였다.

미제의 로골적인 간섭정책에 직면한 꾸바인민은 나라의 진정한 독립과 자유, 생존의 권리를 위하여 완강한 투쟁을 벌렸다. 20세기 전반기에 미제가 괴뢰대통령을 련속 갈아대지 않으면 안되였던 사실만으로도 꾸바인민의 투쟁이 얼마나 세차게 벌어졌는가 하는것을 알수 있다.

1910년대 말부터 꾸바에서도 로동운동이 장성하기 시작하였다. 이 과정에 선진적인 로동자들과 진보적지식인들속에서 맑스—레닌주의가 보급되고 공산주의소조들과 로동자조직들이 무어졌다. 1925년에 꾸바로동자전국련맹이 조직되고 그해 8월에는 꾸바공산당이 창건되였다.

미제와 그 주구들을 반대하는 꾸바인민의 투쟁은 1930년대에 더욱 앙양되였다. 1930년 3월 20여만 로동자들의 총파업, 1931년 군인폭동, 1933년 병사, 대학생들의 반정부폭동 등이 련이어 일어났다. 날로 높아가는 인민들의 투쟁기세에 겁을 먹은 미제는 저들의 충실한 주구인 바띠스따를 부추겨 1934년과 1952년에 두번씩이나 군사정변을 조작함으로써 군사독재를 수립하게 하였다. 파쑈독재자인 바띠스따는 공산당원들과 애국자들에 대한 일대 폭압소동을 벌렸다. 하여 수많은 조직들이 해산당하고 지하에 들어가지 않으면 안되였다.

조성된 정세는 꾸바인민들앞에 반바띠스따투쟁을 보다 적극화하고 무장투쟁으로 발전시켜야 할 새로운 투쟁과업을 제기하였다. 그리하여 피델 까스뜨로를 선두로 한 꾸바혁명가들은 꾸바혁명의 력사적경험과 조성된 정세를 과학적으로 분석한데 기초하여 무장투쟁에 용감히 일떠섰다. 그들은 무장을 잡고 1953년 7월 26일 바띠스따독재의 본거지인 몬까다병영을 습격하였다. 그러나 그 습격은 실패하고 수십명의 애국자들이 전투에서 희생되였으며 나머지 사람들은 체포되여 재판을 받았다. 인민들의 강력한 항의에 부닥친 바띠스따도당은 1955년 5월 그들전원을 석방하여 외국으로 추방하였다.

꾸바혁명가들은 새로운 싸움을 준비하였다. 망명지인 메히꼬에서 정치군사훈련을 받은 혁명가들은 1956년 11월 25일 《그란마》호를 타고 꾸바를 향하여 출발하였다. 꾸바에 상륙한 82명의 혁명군은 적과의 싸움에서 대부분이 희생되고 목적지인 씨에라 마에스뜨라산에 도착한것은 불과 12명뿐이였으며 무장은 보총 7자루밖에 없었다. 이때로부터 씨에라 마에스뜨라는 꾸바혁명의 중심지로 되였다.

혁명운동이 무장투쟁으로 발전한데 당황한 미제와 바띠스따도당은 1만 2 000여명의 륙해공군무력을 동원하여 씨에라 마에스뜨라혁명근거지에 대한 《토벌》공세를 대대적으로 벌렸다. 그러나 3개월간에 걸치는 《토벌》공세는 1 000여명의 사상자를 내고 실패하고말았다.

혁명군은 드디여 1958년 8월 아바나를 향하여 진격을 개시하였다. 전체 꾸바인민은 혁명군의 진격을 열렬히 지지환영하였으며 아바나시민들은 1959년 1월 1일 폭동을 일으켰다. 바빠맞은 바띠스따놈은 외국으로 도망치고 1월 2일 혁명군은 아바나에 입성하였다.

이와 같이 꾸바혁명은 혁명군의 무장투쟁과 인민대중의 적극적인 투쟁에 의하여 승리하였다. 꾸바혁명의 승리는 미국의 코앞에서 일어난 사회주의혁명의 첫 승리이며 라틴아메리카에서의 위대한 10월혁명의 계속으로서 커다란 력사적의의를 가지였다.

혁명승리이전 20세기 꾸바문학은 이러한 시대를 배경으로 하여 발전하였다.

이 시기 꾸바의 진보적문학은 19세기말에 대두한 자연주의, 형식주의 등 부르죠아문학사조들과의 투쟁속에서 발전하였다.

꾸바에서 맨먼저 형식주의문학을 들고나온것은 시인 훌리안 델 까쌀(1863—1893)이였다. 그는 19세기말에 《바람에 흩날리는 나무잎들》(1890), 《눈》(1892), 《반신상과 서정시》(1893)와 같은 시집들에서 프랑스의 고답파 등

형식주의시문학의 영향밑에 허식적인 아름다움만 추구하면서 순수 기교에만 매달렸다.

까쌀의 뒤를 이어 20세기 전반기에 페데리어 우르바츠(1873－1931), 레네 로뻬스(1882－1909)를 비롯한 시인들이 모더니즘에 추종하였다. 《부활》, 《지나간 배들》을 비롯한 그들의 시에서는 현실을 외면하고 자연현상이나 가정세태묘사에만 치우치면서 우울한 공상의 나래를 펼치는 현상이 진하게 나타났다.

소설문학에서는 에밀리오 바까르디(1844－1922)를 비롯한 작가들의 창작에서 반사실주의적요소가 나타났다. 바까르디는 《갈림길》(1910), 《도냐 기오마르》(1916), 《숭배》등의 소설들에서 주로 제1차 독립전쟁시기를 배경으로 순수 도덕륜리적인 문제, 무의미한 사랑문제를 취급하는데 몰두하였다.

비판적사실주의 문학

이러한 반사실주의문학, 부르죠아문학과의 대립투쟁속에서 혁명승리이전 꾸바의 진보적문학에서는 비판적사실주의문학이 주류로 발전하였다.

여기서 중요한 역할을 논것은 1920년대 소수파(미노리스끄)집단의 활동이였다. 소수파란 당시 정부의 반인민적정책에 항의하여 1923년에 《30명의 항의》라는 선언을 발표한 작가들을 말한다. 이 집단은 로씨야 사회주의10월혁명의 영향을 받고 중국의 손중산과 메히꼬혁명의 투사들을 긍정하였으며 민족문화옹호, 라틴아메리카인민들의 련대성을 주장하고 미제의 침투를 반대하는 립장을 표명하였다. 그들은 작가들을 비롯한 문화인들도 민족해방운동에 나서야 한다고 호소하고 정치활동을 적극 벌렸다.

이 집단에는 알레호 까르뻰띠에르, 루벤 마르띠네스 빌레나, 호쎄 싸까리아 딸레뜨를 비롯한 이름난 작가, 시인들이 많이 들어갔다. 그들은 《전진》잡지발간을 통하여 자기들의 주장을 선전보급하였다.

소수파집단은 반동당국에 의하여 1929년에 강제해산당하였으나 그들의 활동은 꾸바의 사실주의문학발전을 추동하였다.

소수파집단과 함께 혁명승리이전 꾸바의 진보적문학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것은 1930－1950년대의 네그리스모문학운동이다.

네그리스모란 흑인문제를 기본으로 내세우면서 흑인예술의 특성을 살리려고 애쓴 작가들의 창작경향, 운동을 가리키는 말이다.

꾸바문학에서 흑인문제는 민족형성과 민족해방투쟁에서 차지하는 흑인들의 위치와 역할, 흑인예술이 꾸바민족문화형성에 미친 영향과 관련하여 이미 호쎄 마르띠가 활동하던 시기부터 제기되여왔다. 그 과정에 단일한 민족문화건설문제가 중요한 사회적문제로 제기되면서 네그리스모문학운동이 발생하게 되였던것이다.

네그리스모문학의 특징의 하나는 문학작품에서 흑인을 주인공으로 내세운것이다. 꾸바문학에서 흑인을 주인공으로 내세운 문학이 나오게 된것은 우선 그들이 식민지적착취와 압박을 그 누구보다도 많이 받았기때문이다.

그것은 또한 식민지정책의 후과로 꾸바의 주민구성에서 많은 변화가 일어나 흑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졌기때문이다.

네그리스모문학의 특징의 다른 하나는 꾸바흑인들속에서 전승되고있던 아프리카시원의 설화와 전설, 《쏜》을 비롯한 흑인군중가요와 춤의 독특한 률동을 문학창작에 리용한것이다. 이 특징은 특히 시문학에서 강하게 표현되였다.

소설문학에서 네그리스모문학운동의 대표자는 알레호 까르뻰띠에르, 리노 노바스 깔보, 라몬 기라오, 루디아 까브레라이다.

까르뻰띠에르의 장편소설 《에꾸에 얌바오》(1933)는 사탕공장구내에서 태여난 혼혈인주인공이 멸시와 학대속에서 신음하다가 아바나의 빈민굴에서 한많은 생애를 마치는것을 내용으로 한 작품이다. 작품은 흑인들이 쓰는 말과 흑인민간전설을 예술적으로 가공함으로써 네그리스모작품으로서의 특징을 보여주었다. 그는 라틴아메리카지역의 특성을 잘 반영한 장편소설 《사라진 흔적》(1952)을 비롯한 여러 작품들을 내놓음으로써 꾸바소설문학발전에 크게 이바지하였다.(까르뻰띠에르에 대해서도 따로 서술하였다.)

노바스 깔보는 장편소설 《흑인노예장사》(1933)에서 아프리카대륙의 발견과 함께 시작된 아프리카흑인들의 노예화과정을 묘사하였다.

작품은 1814년부터 1840년까지를 시대적배경으로 주인공인 흑인노예의 운명선을 통하여 재부의 축적을 위해 노예매매도 서슴지 않는 식민주

의자들의 략탈적본성과 식민주의자들을 반대하는 노예들의 항거정신을 보여주었다.

네그리스모문학운동은 시문학분야에서 보다 활기있게 진행되였다.

네그리스모시문학은 아프리카와 에스빠냐에 시원을 둔 꾸바음악과 옛 에스빠냐의 전통적인 군중무용인 《구아라챠》 및 19세기 꾸바대중가요 등에 그 바탕을 두고 두가지로 표현되였다.

그 하나는 흑인군중예술의 독특한 률동을 시적으로 표현한것이다. 《라틴아메리카흑인시선》(1935)을 비롯하여 네그리스모운동의 발생초기에 창작된 작품들이 그러하였다. 이러한 작품들은 흑인들의 사상감정과 그들의 정신세계에 대한 묘사보다도 흑인들이 쓰는 독특한 음악적인 언어를 시어와 운률로 표현하는데 치중하였다.

다른 하나는 흑인예술의 독특한 형상적요소들을 살려쓰고 흑인들의 구전문학과 군중가요, 신앙에 의거하면서 그들의 기쁨과 슬픔, 지향과 념원을 표현한것이다. 이 계렬의 시들은 유럽작시법의 전통적인 틀을 마스고 흑인들의 군중가요와 춤의 률동을 나타내는 《쏜》에 준하여 운과 운률을 조성하였다.

네그리스모시문학의 대표적인 시인으로 니꼴라스 길렌, 마누엘 나바로 루나, 오스발도 나바로 등을 들수 있다. 길렌과 나바로 루나는 네그리스모문학운동에 참가하면서 프로레타리아시인으로 되였다.

혁명승리이전 꾸바문학에서는 소수파집단이 활동하고 네그리스모문학운동이 벌어지던 환경속에서 비판적사실주의소설문학이 발전하였다.

소설문학에서는 루이스 펠리뻬 로드리게스, 까를로스 로베이라, 미겔 데 까리온, 엔리께 쎄르빠, 알레호 까르뻰띠에르를 비롯하여 여러 작가들이 활동하였으며 특히 알레호 까르뻰띠에르의 창작이 큰 자리를 차지하였다.

루이스 펠리뻬 로드리게스는 단편소설창작에서 두각을 나타낸 작가이다. 그는 단편소설집 《마르꼬스 안띨랴와 사탕수수밭의 비극》(1932)에서 외래침략자들에 의하여 강요된 꾸바농민들의 어려운 생활처지와 그를 개선하기 위한 투쟁을 반영하였다. 사탕수수밭에 명줄을 걸고 살아가던 한 농민일가의 비극적운명을 그린 《알마랄레스》, 온갖 사기협잡이 살판치는 식민지사회의 모순을 진실하게 보여준 《강탈》을 비롯하여 작품집에 수록된 로드리게스의 단편소설들은 당대 사회의 사회계급적모순과 사회악을 폭로비판한 비판적사실주의작품으로서의 특성을 뚜렷이 나타냈다.

까를로스 로베이라(1882—1928)는 장편소설 《장군들과 박사들》(1920), 《후안 끄리올요》(1927)를 내놓았다.

《장군들과 박사들》은 미제독점자본과 매판자본가들의 사환군인 장군들과 박사들의 추악한 생활면모를 통하여 당대 꾸바사회의 부패성을 비판한 작품이다.

독립전쟁에 참가하여 용감히 싸우다 돌아온 주인공은 지난날 하찮은 창고지기로 있던 숙부가 일약 사탕공장을 경영하는 백만장자가 되고 어린시절 자기를 못살게 굴던 불량배가 장군으로 출세한 놀라운 현실을 목격하고 경악하게 된다. 소설은 주인공의 생활로정을 따라가면서 독립전쟁을 통하여 에스빠냐의 식민지에서 벗어나기는 하였으나 진정한 독립을 이룩하지 못하고 미제의 예속국으로 전락된 꾸바의 현실을 폭넓게 재현하였다. 소설은 특히 나라와 인민의 운명에는 아랑곳하지 않으며 치부와 정권욕에 피눈이 되여 날뛰는 매국배족의 무리들의 죄행과 사회의 부패성을 폭로비판하였다.

미겔 데 까리온(1875—1929)은 장편소설 《음탕한 녀인들》(1918)에서 아바나의 유곽생활의 실태를 통하여 당대 사회의 부패성과 최하층녀성들의 참혹한 생활을 보여주었다.

엔리께 쎄르빠(1899—1968)는 로동자출신 기자로 오래동안 활동하면서 진보적립장에 서서 독재제도를 반대하는 투쟁에 참가하였다. 초기에 시를 쓰다가 1925년부터 소설창작으로 넘어간 쎄르빠는 단편소설집 《명절밤》, 장편소설 《밀수업》, 《상어지느러미》, 《함정》을 비롯한 많은 작품들을 내놓았다. 그는 주로 자기의 작품들에서 사회적불안과 고통, 그로부터의 출로를 제기하였다.

그의 대표작은 장편소설 《밀수업》(1933)이다. 소설은 물고기잡이를 하던 어부들이 물고기잡이로써는 도저히 가족을 먹여살릴수 없어 알콜밀수업으로 넘어가 위험한 항해를 하는 이야기를 담고있다. 작품은 직업적인 밀수업자도 장사군도 아니였던 어부들이 왜 직업을 바꾸고

위험한 밀수업에 종사하게 되였는가 하는 사회적 문제를 제기하고 부익부, 빈익빈의 착취사회현실을 예리하게 폭로비판하였다.

소설은 외적으로 보기에는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해 알콜밀수의 길에 들어선 어부들의 생활을 반영하고있지만 보다는 생지옥으로 된 사회현실과 하층사람들의 비참한 생활묘사에 주되는 힘을 넣고있다. 그것은 굶주리고 헐벗은 4명의 자식과 어머니, 앓고있는 안해와 지어는 4촌녀동생까지 먹여살려야 했던 선원 알끄르따를 비롯한 여러 인물들에 대한 이야기와 아바나의 호화주택에서 사치하게 사는 부자들과 빈민거리에서 사는 가난한 사람들과의 대조를 통하여 부각되고있다.

소설은 또한 반항아인 선장 끄르누아와 선원 까딸란의 형상을 통하여 현실에 대한 환멸이나 팔자타령, 현실도피에서 벗어나 자기 운명을 개척하기 위한 투쟁의 길에 나서야 한다는 사상을 밝히고있다.

이처럼 혁명승리이전 꾸바에서는 비판적사실주의소설작품들이 활발히 창작되여 진보적문학발전에 이바지하였다.

프로레타리아 문학

혁명승리이전 꾸바의 진보적 문학에서는 1920—1930년대에 프로레타리아문학이 발생발전하였다.

꾸바에서 프로레타리아문학은 선진적인 로동자, 지식인들속에서 맑스—레닌주의가 보급되고 로동운동이 전례없이 강화된 현실의 요구를 반영하여 발생하였다. 세계적으로 로동계급이 혁명의 령도계급으로 등장하고 로동운동과 프로레타리아혁명운동이 힘있게 벌어진 객관적현실은 무산계급의 리해관계를 대변하는 프로레타리아문학이 발생할수 있었던 현실적바탕으로 되였다.

꾸바문학앞에는 현실의 이러한 특성 즉 로동계급을 비롯한 인민대중의 생활과 투쟁, 새로운 인간전형을 그려야 할 시대적과업이 제기되였다.

이 요구를 맨먼저 창작에 구현해나선것이 시인 레히노 뻬드로쏘이다.

그는 《기계공장 로동자들에게 보내는 형제적인사》(1927), 《우리들》(1933), 《여기는 우리 땅이다》(1933)를 비롯한 시들에서 꾸바문학에서 처음으로 로동계급의 생활과 투쟁을 노래하고 인민대중의 무궁무진한 힘과 앙양된 투쟁기세를 반영하였다.

시 《우리들》에서 시인은 《세계는 무쇠로 만들어지고 우리들 또한 무쇠의 아들이기에》 자기의 계급적립장을 확고히 고수해나가려는 근로대중의 힘과 굳센 의지를 노래하였다.

무쇠를 벼리는 우리들은 미래의 세계를
  창조하는 사람들
기쁨에 넘쳐
미래는 우리들을 바라보리
씩씩하게 대렬을 지어 나아가는 우리들을

우리들은 농촌에서 도시에서 공장에서
  모여든다
톱과 마치와 낫
손에손에 든 쟁기는 투쟁의 무기
하여 소리 합쳐 생활을 노래하며
행진하는 군대마냥 지구를 점령하리

시 《여기는 우리 땅이다》는 자신의 힘으로 인간의 재부를 창조하고 지켜나가려는 근로인민의 숭고한 정신세계를 노래한 작품이다.

우리에겐 태양처럼 큰 단야공장도
함마의 노래소리도
은어로 짜논 푸른 융단—넓은 바다도
  있고
공장엔 천만사람의 억센 어깨
봉기의 기발 희망
무쇠같은 팔뚝도 있어라

우리에겐 고난에 찬 슬픔도 있다만
그것은 희망에 찬 사람들의 슬픔이거니
위대한 날은 반드시 오고야말리
우리를 향해 반드시 오고야말리
로동하는 우리의 두손엔
기쁨만 가득차있다네

시는 또한 꾸바인민이 피로 쟁취한 독립의 기쁨을 짓밟은 미제에 대한 분노를 터뜨리면서 하느님과 딸라를 가지고 더는 재간부리지 말고 당장 제 소굴로 돌아가라고 요구하고있다.

여기는 우리 땅이다!
이 끝에서 저 끝까지
희망은 익어가고
서광은 점차 꽃을 피워주리
우리의 두손은
폭풍속에서도 거인의 낫을 쥐고
미래의 전야에서 수확을 하리

레히노 뻬드로쏘와 함께 마누엘 나바로 루나, 니꼴라스 길렌을 비롯한 여러 시인들이 꾸바의 프로레타리아시문학을 발전시키는데 기여하였다.

소설문학에서 프로레타리아작가로 진출한것은 아구스띤 알라르꼰, 호쎄 까발쥐로 레이, 헤라르도 델 발줴(1898—1973), 미겔 데 마르끄스(1894—1954) 등이였다.

알라르꼰은 장편소설 《모스크바의 황금》(1932)에서 한 로동자공산당원의 형상을 통하여 로동계급의 사상으로 무장하고 반제, 반독재투쟁에 나선 투사의 사상과 자세, 견해와 립장을 보여주었으며 마르끄스는 장편소설 《포뚜또》(1947)에서 꾸바의 운명개척의 출로가 외세의존에 있는것이 아니라 대규모의 정치적변혁을 전제로 하는 혁명에 있으며 이러한 혁명만이 인간에 의한 인간의 착취가 허용되는 착취사회를 뒤집어엎을수 있다는 사상을 강조하면서 혁명투쟁의 필요성을 확인하였다.

발줴의 단편소설 《들판에서》(1950)는 공장측의 가혹한 착취행위와 부당한 해고소동을 반대하여 일어난 농업로동자들의 파업투쟁을 묘사하고 로동자들이 단결하여 용감히 싸우면 승리할수 있다는것을 보여준 작품이다. 소설에서는 어느 한 사탕수수공장 로동자들의 파업과 폭동이 생동하게 묘사되고있다. 지난날과 같은 소극적투쟁으로써는 승리할수 없다는것을 깨달은 로동자들은 단결하여 조직된 력량으로 공장주와 당국을 반대하여 용감히 싸운다. 200명이상의 로동자들이 30여명의 병사들의 지원밑에 미국인자본가를 자택연금하고 공장주와 그 주구들을 단호히 처단한다. 로동자들의 드높은 투쟁기세에 정부와 공장측이 끝내 굴복하고만다.

이와 같이 꾸바의 프로레타리아문학은 미제와 그 주구들의 죄행을 폭로비판하고 착취받고 압박받는 로동자, 농민의 비참한 처지와 그들의 각성과 투쟁, 사상감정과 념원을 반영함으로써 비판적사실주의문학과는 다른 자기의 특성을 명백히 나타냈다.

꾸바프로레타리아문학의 전통은 혁명승리이후 문학에 계승되여 사회주의적사실주의문학으로 발전하였다.

혁명승리이후시기 문학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꾸바인민은 오랜 기간에 걸친 간고한 무장투쟁을 벌려 1959년에 친미독재정권을 뒤집어엎고 혁명의 승리를 이룩하였으며 꾸바력사상 처음으로 진정한 인민의 정권인 혁명정부를 수립하였습니다. 꾸바혁명의 승리는 라틴아메리카에서 사회주의혁명의 시초를 열어놓은 중대한 사변이였습니다.》

1959년 1월 1일 꾸바혁명의 승리는 민족적 및 계급적예속을 반대하고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옹호하는 투쟁에서 혁명적전환이 이룩된 력사적 사변이였다.

그해 2월 꾸바력사상 처음으로 진정한 인민의 정권인 꾸바혁명정부가 수립되였다. 꾸바혁명정부앞에는 미제와 그 앞잡이들인 지주, 예속자본가, 친미파, 민족반역자들의 반혁명적책동을 짓부시고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을 수행하여야 할 력사적과업이 나섰다.

혁명정부는 피로써 쟁취한 인민정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우선 미제의 식민지통치의 잔재인 낡은 국가통치기구와 군대를 청산하고 새형의 혁명정권과 혁명무력을 조직하였으며 괴뢰군대를 통제하고 있던 미국군사사절단을 꾸바에서 내쫓았다.

그해 5월 혁명정부는 토지개혁에 관한 법령을 발포하고 지주, 자본가들의 토지를 무상몰수하여 200만의 농민들에게 분배하였으며 다음해 6월에는 산업국유화법령을 발포하고 미국독점체들과 그 주구들의 공장, 기업소를 몰수하였다.

한편 혁명정부는 1961년을 교육의 해로 선포하고 문맹퇴치사업을 전인민적운동으로 벌렸으며 주민들의 생활향상을 위한 일련의 조치를 취하고 교육문화사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진행하였다.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단계에서 달성한 이러한 성과들은 꾸바인민이 미제국주의자들의 침

략책동과 반혁명분자들의 파괴암해책동을 분쇄하는 첨예한 투쟁속에서 쟁취한것이다.

미제는 1961년 4월 1 500여명의 고용병들을 쁠라야 히론에 들이밀었다가 72시간만에 꾸바혁명군과 민병대에 의하여 수치스러운 참패를 당했으며 1962년 10월에는 해상봉쇄작전으로 까리브해위기를 조성하였으나 꾸바인민의 높은 항전태세와 세계인민들의 치솟는 규탄에 부딪쳐 실패하고말았다.

꾸바혁명정부는 미제와 그 주구들의 침략책동을 분쇄하면서 진행한 민주개혁의 성과에 기초하여 사회주의건설의 길에 들어섰다.

1962년초 혁명발전의 요구에 따라 7월 26일운동지휘부와 인민사회당, 3월 13일혁명운동지도부를 통합하여 로동계급의 혁명적당을 창건하기 위한 꾸바사회주의혁명통일조직 전국지도부가 조직되였다.(이 조직은 1965년 10월 꾸바공산당으로 개칭되였다.) 그리하여 혁명력량의 분렬이 극복되고 혁명에서 로동계급의 령도적 역할이 더욱 높아졌다.

꾸바인민은 꾸바공산당과 혁명정부의 지도밑에 국내 반혁명분자들의 책동과 미제의 악랄한 침략책동을 물리치면서 사회주의건설을 성과적으로 진행하였다.

꾸바혁명정부는 사회주의기초건설에서 경제의 사회주의적개조에 힘을 넣어 짧은 기간에 공업과 건설부문에서 사회주의적소유의 지배를 확립하였으며 대외무역을 국가기관이 완전히 장악하였다.

특히 꾸바공산당은 혁명발전의 매 단계마다 정확한 투쟁구호를 제시하고 그 수행에로 인민대중을 힘있게 불러일으켰다. 꾸바공산당과 정부는 1964년을 경제의 해, 1965년을 농업의 해, 1973년을 《몬까다》20주년의 해, 1975년을 당 제1차대회의 해, 1977년을 국가기구공고화의 해, 1981년을 쁠라야 히론승리 20주년의 해 등으로 혁명발전의 단계를 설정하고 사회주의건설을 성과적으로 추진시켰다.

꾸바공산당은 변천되는 정세와 사회경제발전의 요구에 맞게 제때에 당대회를 소집하고 제1차 5개년계획(1976—1980), 제2차 5개년계획(1981—1985), 제3차 5개년계획(1986—1990)의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전체 인민을 그 수행을 위한 투쟁에로 힘있게 불러일으켰다.

꾸바인민은 당과 혁명정부의 옳바른 로선과 정책을 높이 받들고 그 관철을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림으로써 사회주의제도를 더욱 공고히 하고 사회주의경제를 빨리 건설하였다.

꾸바혁명이 승리함으로써 꾸바에서는 혁명적이며 인민적인 문학을 창조발전시킬수 있는 유리한 환경이 마련되였다.

꾸바공산당과 혁명정부는 조성된 유리한 환경속에서 새로운 민족문학예술을 건설하기 위하여 무엇보다도 문학예술사업을 통일적으로 장악지도하며 민족문학전통과 유산을 보존하고 계승발전시키기 위한 사업을 맡아보는 지도기관을 내오는 조치를 취하였다.

그 조치의 하나로서 문화성, 꾸바작가예술인총동맹, 아메리카주회관과 같은 국가기관과 문학예술단체들을 내옴으로써 분산된 창작력량을 집중시켜 민족문학예술을 하루속히 발전시킬수 있게 하였다. 이러한 문학예술지도기관들은 문학예술분야에서 당정책을 철저히 구현하고 작가들에게 창작활동조건을 보장하며 예술교육체계를 바로 세우는것을 주요한 과업으로 내세웠다. 또한 《오이 도밍고》(오늘은 일요일), 《우니온》(동맹)을 비롯한 각종 출판물들과 아메리카주회관문학경연, 꾸바작가예술인총동맹문학경연, 7월 26일문학경연 등 경연들을 통하여 문학작품창작과 보급사업을 추동하였다.

꾸바당과 정부는 또한 문학예술분야에서 낡은 잔재를 극복하고 부르죠아문예사조들의 침습을 막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렸다.

이와 같이 당과 정부의 옳바른 지도밑에 혁명승리후 꾸바문학은 지난 시기 문학의 제한성을 극복하고 급속히 발전하기 시작하였다.

혁명승리후 꾸바문학의 특징은 무엇보다도 새롭고 다양한 주제들이 개척되고 주제의 폭이 넓어졌으며 사상적대가 뚜렷해진것이다.

우선 꾸바혁명의 승리를 위한 투쟁, 반미반독재투쟁 등 혁명투쟁을 주제로 한 작품들이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게 되였다. 지난날 혁명투쟁에 직접 참가했던 작가들뿐아니라 새로 자라난 작가들속에서도 혁명투쟁을 주제로 한 작품창작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이 주제분야에서 많은 성과작들이 나왔다.

그 첫 작품이 호쎄 쏠레그 뿌이그의 중편소설 《베르멜리온 166》(1959)이였다. 그뒤를 이

어 까르뻰띠에르의 장편소설 《계몽의 세기》(1962)와 《봄축전》(1978), 뿌이그의 장편소설 《1월의 해》(1963), 훌리오 뜨라비에쏘의 중편소설 《승냥이들을 소탕하기 위하여》(1971)와 쎄싸르 레안뗴의 장편소설 《흑인유격대원들》(1975), 라울 곤쌀레스 데 까스뜨로의 단편소설 《씨앗》(1965), 호쎄 누네스 레므쏘의 단편소설 《마지막보초》(1964), 인디오 나보리의 시 《꾸바혁명송가》, 마야스 하미스의 시 《소좌여, 명령만 내리시라》를 비롯한 많은 작품들이 창작되였다.

혁명승리후 꾸바문학에서는 또한 새 사회건설을 위한 투쟁에 힘있게 떨쳐나선 꾸바인민의 모습을 생동하게 반영한 현실주제작품들이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있다.

도라 알롱쏘의 장편소설 《불모의 땅》(1961), 마누엘 꼬피뇨의 장편소설 《현대녀인과 도래할 전투》(1971), 다우라 올레마의 중편소설 《지원녀교원》(1961), 라울 아빠라씨오의 중편소설 《까뻬떨요골짜기의 모습》, 라울 곤쌀레스 데 까스뜨로의 단편소설집 《쁠라야 히론사람들》(1963), 에베르또 빠블로의 시 《쁠라야 히론》과 같은 작품들을 그 례로 들수 있다.

그밖에도 국제혁명력량과의 련대성을 강화하고 세계 혁명적인민들의 반제반미투쟁에 지지와 성원을 보낸 까를로스 뿌에볼라의 시 《축하》, 니꼴라스 길렌의 시 《조선에 드리노라》, 《벗들이여! 우리 함께 가자》, 나바로 루나의 시 《피흘리며 싸우는 라틴아메리카여》와 인디오 나보리의 시 《불길 타번지는 라틴아메리카》를 비롯하여 수많은 시작품들이 창작되였다.

혁명승리후 꾸바문학의 중요한 특징은 다음으로 지난날 비판적사실주의문학의 주인공들과는 달리 혁명투쟁에서 단련된 새형의 혁명가들을 주인공으로 내세우고 그들의 성격적특질을 깊이있게 밝혀낸것이다.

혁명승리후 작가들은 우선 어제날의 투사를 로력혁신자로 그리는데 힘을 기울였다.

장편소설 《현대녀인과 도래할 전투》의 주인공 부르노는 지난날 혁명군에 참가하여 직접 손에 무장을 잡고 혁명승리를 위해 싸운 투사이다. 그는 결코 지난날의 공적을 뽐내지 않고 당이 맡겨준 새 임무를 철저히 수행하였다. 하여 그가 사장으로 임명된 묘목회사에서는 온갖 무질서와 적대행위들이 청산되고 당의 정책이 성과적으로 실현되게 된다.

중편소설 《까뻬떨요골짜기의 모습》의 주인공 또뇨의 형상이나 단편소설 《마지막보초》의 주인공 다미얀의 형상들에서도 혁명가로서의 높은 자각, 일신의 안일보다도 혁명을 먼저 생각하는 그들의 정신세계의 높이와 아름다움이 뚜렷이 나타나고있다.

혁명승리후 작가들은 또한 로혁명가들의 모범을 따라 새 사회건설투쟁의 가장 어렵고 힘든 곳으로 자원하여 달려가 혁명가로 성장하는 새 세대의 전형을 창조하는데 큰힘을 넣었다.

혁명승리후 꾸바당과 정부는 새 사회건설을 적극 추진시켜나가기 위해 수많은 청년지식인들로 지원대를 조직하여 전국 각지에 파견하였다.

이러한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작가들은 새 세대의 전형적인 성격을 창조하는 문제에 응당한 주목을 돌렸다.

중편소설 《지원녀교원》의 주인공 비르마, 장편소설 《산간벽지로》의 주인공, 단편소설 《작은 판의 널판자》의 주인공 등이 그러한 형상들이다.

혁명승리후 꾸바문학의 중요한 특징은 또한 새로운 창작방법인 사회주의적사실주의가 구현되게 된것이다.

꾸바문학에서는 부르죠아반동문학의 여독을 청산하고 로동계급의 혁명적세계관에 기초하여 현실생활에서 본질적이며 합법칙적인것을 반영하기 위한 작가들의 적극적인 노력에 의하여 1960～1970년대에 사회주의적사실주의창작방법이 구현되기 시작하였다.

혁명투쟁주제의 중편소설 《베르멀리온 166》과 《승냥이들을 소탕하기 위하여》, 지원로동을 주제로 한 중편소설 《지원녀교원》, 사회주의건설투쟁에서 발휘한 로동계급의 영웅적투쟁정신을 반영한 에두아르도 헤라스 레온의 단편소설집 《강습》(1977)과 《순수한 불길로》(1980)를 비롯한 작품들이 그러한것이다.

혁명승리후 꾸바문학은 사회주의적사실주의를 뚜렷이 하면서 급속히 발전하였다.

혁명승리후 꾸바문학을 대표하는 가장 이름난 작가는 시인 니꼴라스 길렌과 소설가 알레호 까르뻰띠에르이다. 그밖에도 수많은 작가들이 적극적인 활동을 벌려 적지 않은 성과작들을 내놓

음으로써 혁명승리후 꾸바문학을 풍부히 하는데 이바지하였다.

그가운데서 몇몇 작품들에 대한 설명을 통하여 이 시기 꾸바문학에 대한 리해를 바로가지는데 도움을 주려고 한다.

《베르띨리온 166》

《베르띨리온 166》은 꾸바혁명을 묘사한 첫 소설로 알려져있다.

꾸바혁명이 승리한 해인 1959년 말 아바나에서 라틴아메리카의 우수한 문학작품들에 대한 경연이 있었다. 경연심사자는 세계적으로 이름난 라틴아메리카작가들인 꾸바시인 니꼴라스 길렌과 꾸바소설가 알레호 까르뻰띠에르, 과떼말라소설가 안헬 아스뚜리아스, 베네수엘라작가 오떼로 씰바였다.

경연작품에 대한 심사에서 아무런 의견이 없이 만장일치로 1등상을 받은 작품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베르띨리온 166》이라는 수수께끼같은 제목을 가진 중편소설이였다.

이 소설을 쓴 작가는 42살난 로동자 호쎄 쏘렐 뿌이그로서 문단에 전혀 알려져있지 않던 사람이였다.

그는 1917년 로씨야 사회주의10월혁명이 일어난 해에 꾸바의 오리엔떼주소재지 싼띠아고 데 꾸바에서 태여났다. 당시 꾸바는 미제의 예속국이고 친미군사독재가 군림하던 나라였으므로 그의 청소년시절은 고된 로동생활속에서 흘러갔다. 그는 담배공장 로동자, 뼁끼도장공, 사탕농장 로동자 등 여러가지 일에 종사하면서 가난과 굶주림을 체험하였다.

어릴 때부터 문학을 좋아했던 뿌이그는 17살때 베네수엘라작가 갈레고스의 장편소설 《가난한 흑인》을 읽고 큰 감동을 받은것이 계기가 되여 소설을 쓰기 시작하였다. 그는 초기단편소설에서 갈레고스의 작품을 모방하였으나 꾸준한 문학수업을 통하여 개성적인 문체를 소유하였다.

뿌이그의 작품이 출판된것은 혁명승리후 1959년이였는데 그 첫 중편소설이 《베르띨리온 166》이였다.

소설의 제목은 작전지역 명칭으로서 반동당국이 체포학살한 사람의 이름을 신문에 낼 때 쓴 암호이다.

《꾸바혁명의 하루》라는 부제목이 달려있는 소설은 1958년 8월 어느날 싼띠아고 데 꾸바시에서 단 하루동안에 벌어진 이야기를 담고있다.

싼띠아고 데 꾸바는 씨에라 마에스뜨라산줄기와 가까운 곳에 있는 꾸바의 오랜 도시이다. 이 도시에서 1953년 7월 26일 피델 까스뜨로의 지도밑에 용감한 청년혁명가들이 바띠스따독재의 요새였던 몬까다병영을 습격하였다.

소설은 피델 까스뜨로가 지도하는 혁명가들이 씨에라 마에스뜨라산을 근거지로 하여 혁명투쟁을 힘차게 벌리고 동시에 바띠스따도당이 최후발악을 하면서 혁명가들과 그 지지자, 동정자들을 마구 체포학살하던 시기를 배경으로 하였다.

이러한 때 아바나로부터 한 흑인혁명가가 파견되여온다. 그는 7월 26일운동에 떨쳐나선 이곳 청년들의 지하혁명조직책임자인 롤란드와 그의 애인 라게르를 비롯한 혁명적인 청년학생들과 만나며 관따나모에서 온 로동자대표와도 만나 영향을 준다. 그와 혁명적인 청년들의 영향밑에 라게르의 아버지인 보수적인 양주공장로동자 후안, 겁쟁이이고 우유부단한 양복점주인 끼끄, 상인 마르띠네스 등 여러 사람들이 혁명투쟁에 동조해 나선다.

롤란드는 야밤에 소방대 보초를 까눕히고 총을 빼앗아 애인과 함께 씨에라 마에스뜨라근거지로 들어갈 준비를 한다. 무기를 가진 사람이라야 혁명군에 입대할수 있었기때문이다. 까를로스는 보초소에 던지려고 폭탄을 품에 넣고 가다가 순찰대에 걸려 체포되여 고문끝에 총살된다. 흑인혁명가는 무기를 탈취해가지고 오는 롤란드에게 자기의 웃옷을 내주며 그것으로 총을 싸도록 하고 그가 추격에서 벗어날수 있게 적을 유인하다가 반동경찰에 붙잡혀 총살된다. 롤란드와 라게르는 무기를 가지고 무사히 씨에라 마에스뜨라산에 들어간다.

이를 통하여 소설은 그무렵 싼띠아고 데 꾸바시의 생활이 어떠하였으며 사람들이 매일 매 시각을 어떻게 보냈는가 하는데 대하여 생동하게 이야기하고있다.

소설의 시작과 끝에 귀머거리거지가 등장하여 그날 신문에 발표된 전날 사망자들의 이름을 읽는 장면이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있다.

소설에서는 영화에서처럼 빠른 속도로 독재

정치의 전횡과 폭력으로 하여 빚어진 비극,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애국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펼쳐진다. 투쟁에서 물러섰던 까를로스의 아버지는 아들의 권총사건으로 련행되여 아들이 살해된것을 알게 되자 무죄석방해주겠다는 장교놈의 회유를 물리치고 그놈의 뺨을 치며 그 자리에서 총살당한다.

자기의 피로써 꾸바의 자유를 쟁취하려는 애국자들의 영웅적인 투쟁과 승리에 대한 신심이 절망하거나 소심해진 사람들의 용기를 불러일으키고 그들에게 힘을 준것이다.

소설에서 특별한 자리를 차지하는것은 아바나로부터 파견되여온 흑인혁명가의 형상이다.

이 흑인에 대해서는 경력이나 이름에 대해서도 씌여져있지 않다. 그러나 흑인의 형상은 작품의 사상을 밝히는데서 기본으로 되고있다.

투쟁은 조직화될 때만이 승리할수 있다는 흑인의 말과 행동에는 공산주의사상의 기치밑에 싸우는 꾸바혁명가들의 굳은 신념과 무한한 힘이 느껴진다. 흑인은 거리에서 살해당하지만 그가 선전한 사상과 실천적행동은 7월 26일운동에 참가한 청년들을 고무하고 투쟁승리의 필연성을 암시하고있다.

소설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서로 각이하며 투쟁방법도 여러가지이지만 그들은 《자유냐, 죽음이냐》라는 구호밑에 힘차게 싸운다.

소설은 전문작가가 쓴것이 아닌것으로 하여 예술적으로 여러가지 부족점을 가지고있으나 혁명후 꾸바문학의 새로운 면모를 보여줌으로써 문학사적의의가 크다.

《승냥이들을 소탕하기 위하여》

훌리오 뜨라비에쏘의 중편소설 《승냥이들을 소탕하기 위하여》는 미제와 친미독재통치를 반대하는 투쟁에서 꾸바의 애국적인 청년학생들이 발휘한 자기희생정신, 혁명위업에 대한 충실성을 보여준 작품이다.

소설은 작가자신의 체험에 기초하여 바띠스따독재정권을 반대하는 대학생들의 무장투쟁을 일기체형식으로 이야기하고있다.

아바나의 대학생들인 브라보, 마르꼬스, 가르씨아, 미란다, 구스따보, 나 등은 대학생비밀조직을 뭇고 바띠스따독재정권을 반대하는 무장투쟁을 벌린다. 조직책임자 브라보는 피델 까스뜨로가 지도하는 혁명군과 련계를 맺고 ○시계획을 세우며 그 작전을 준비한다. ○시계획이란 바띠스따독재정권의 4개의 성, 위원회와 경찰주재소를 습격함으로써 혁명군의 총공세를 승리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전투계획이였다.

브라보를 책임자로 하는 대학생혁명조직은 두개의 무장소조로 나뉘여져있었는데 하나는 브라보가, 다른 하나는 나가 책임지고있었다. 나가 책임진 소조의 성원인 미란다는 어느날 경찰두목인 대좌를 처단할것을 조직에 제기한다. 그러나 그의 제기는 ○시계획에 지장을 줄수 있기때문에 부결된다.

이때 상급조직으로부터 흑인청년 메노깔이 파견되여온다. 그는 투쟁에서 비조직적인 현상을 바로잡으며 임무수행을 위한 준비사업에 빈틈이 없도록 할데 대하여 충고한다. 그무렵 뚜또란자가 밀정이라는것이 밝혀져 조직성원들의 손에 처단된다.

이 사건으로 하여 일부 조직성원들이 로출되고 파견원 메노깔이 경찰에 체포되여 살해된다. 복수를 위하여 나와 소조원인 마르꼬스가 경찰대좌를 처단하기 위하여 정찰을 진행한다. 이러한 비조직적인 행동이 련이어 일어나는 과정에 여러 소조원들이 체포되여 학살되고 나가 속한 조직은 파괴된다.

한시바삐 조직선을 찾으려고 노력하던 끝에 나는 브라보의 련락원 구스따보를 만나 조직과의 련계를 회복한다. 대학생혁명조직은 무모한 개인복수적인 행동을 금지시키고 ○시전투계획수행에 전체 조직원들을 불러일으킨다. 약속된 시간이 되자 총책임자 브라보로부터 ○시전투계획을 시작하라는 전화지시가 온다. 소조원들이 무기를 잡고 전투장으로 떠나는것으로 작품은 끝난다.

소설은 꾸바혁명의 승리를 위한 간고한 투쟁이 벌어지던 시기 혁명적인 청년학생들의 영웅적 투쟁모습을 진실하게 그리고있다.

파견원 메노깔과 주인공 나를 비롯한 대학생소조원들은 바띠스따독재정권을 반대하여 용감히 싸운 꾸바의 혁명적세대의 전형들이다. 그들은 개인의 생명보다도 혁명임무를 더 귀중히 여기며 자기에게 맡겨진 전투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생명도 서슴없이 바친다. 파견원 메노깔은 체포될 위험에 빠진 조직원들을 구원

하기 위하여 적을 유인하다가 체포되여 장렬하게 희생되며 조직원 이레네의 남동생과 한 소조원은 조직의 비밀만 대면 경찰도 시켜주고 많은 돈도 줄수 있다고 회유기만하는 적들에게 자결로써 대답한다.

그들은 투쟁속에서 혁명승리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지니였기에 죽음도 맞받아 싸울수 있었다. 《혁명은 우리들중 한사람이 쓰러졌다고 중단되는것이 아닙니다. 중요한것은 투쟁을 계속하는것이며 바띠스따를 매장해버리는것입니다.》 미란다가 하는 이 말에는 대학생들의 신념이 집중적으로 반영되여있다. 이러한 신념을 지닌것으로 하여 그들의 투쟁은 개인테로, 복수심에 머문것이 아니라 독재정권자체의 숨통을 조이는 투쟁으로 이어졌던것이다.

소설은 또한 혁명투쟁에서 우유부단성은 금물이며 반혁명적폭력에는 혁명적폭력으로 대답할때만이 승리할수 있다는 진리를 형상적으로 밝히고있다.

독재자들의 야수적인 학살만행이 증대되고 혁명조직에 대한 탄압이 강화될수록 대학생소조원들은 무장투쟁의 필요성을 더욱 절감하게 된다. 하여 그들은 식칼을 들고 적순찰대를 습격하여 자체로 무장을 갖춘다.

소부르죠아지식인인 에두아르도(소조성원 이레나의 애인)는 처음 승냥이가 양으로 되기를 기대하는 평화주의적관념에 빠져있었으나 총검이 숲을 이룬 현실속에서 점차 사상적으로 각성하여 총을 잡고 싸워야 한다는 진리를 체득하게 되며 나중에는 투쟁에 결연히 나서게 된다.

소설은 외래제국주의자들과 독재정권을 반대하는 투쟁은 조직적으로 진행될 때만이 승리할수 있다는 사상도 밝히고있다.

초기 대학생무장소조의 투쟁에서 편향적으로 나타난것은 산발적인 무장테로와 복수적인 행동이였다. 대좌를 암살하려고 무분별하게 행동한 아다와 니꼴라스의 모험주의적이며 비조직적인 행동으로 하여 귀중한 동지들이 희생되고 소조가 받은 임무수행에 엄중한 난관이 조성된다. 그후 이러한 개인복수적이며 독단적인 무장행동을 조직화함으로써 소조는 강력한 지하혁명조직으로 될수 있었으며 무장투쟁을 확대발전시켜나갈수 있었다.

중편소설 《승냥이들을 소탕하기 위하여》는 지난날 바띠스따독재를 반대하고 꾸바혁명의 승리를 위해 싸운 투사들을 형상한 작품으로서 꾸바혁명에 관한 소설들가운데서 확고한 자리를 차지하고있다.

《현대녀인과 도래할 전투》

1971년도 아메리카주회관문학경연상을 받은 마누엘 꼬피뇨의 장편소설 《현대녀인과 도래할 전투》는 새 사회건설을 위한 꾸바인민의 투쟁을 형상한 대표적인 작품의 하나이다.

마누엘 꼬피뇨(1936—)는 혁명승리후 교육성 행정간부학교 교원, 법무성 선전부장, 보도 및 문화쎈터 국장, 문화성 문학부 고문 등을 력임하면서 문학창작활동을 벌렸다. 그가 창작한 작품들로는 《현대녀인과 도래할 전투》외에도 《변혁의 시기》(1969), 《피가 불같을 때》(1973) 등의 장편소설들과 여러편의 단, 중편소설들이 있다.

《현대녀인과 도래할 전투》는 지난날 혁명의 승리를 위하여 손에 무장을 잡고 싸운 투사들이 혁명승리후 새 사회건설에서도 핵심적역할을 하는 모습을 그린 작품이다.

소설의 이야기는 묘목회사 사장으로 임명되여온 이전 혁명군 지휘관 부르노의 활동선을 따라 전개된다. 그가 료해한데 의하면 회사내부에서는 엄중한 사태가 벌어지고있었다. 불순분자인 해임된 전 사장 다비드와 그의 졸개들이 상부의 지시를 외곡집행하고 국가물자를 탐오랑비하였으며 반혁명분자들을 부추겨 반동요언을 퍼뜨리고있었던것이다.

부르노는 료해과정에 제기된 문제들을 종합하여 아바나로 올라가 혁명무력사령관에게 보고한다. 사령관은 대책을 토의하고 방조자를 붙여준다.

회사로 돌아온 부르노는 일군들의 협의회를 열어 각 분장에 통신설비를 갖추고 전기를 끌어들이며 피복을 비롯하여 걸린 문제를 풀기 위한 대책을 토의한다. 협의회에서는 군중집회를 열어 전군중적토의사업을 진행하기로 결정한다.

그런데 갑자기 장마가 지면서 홍수가 여러 분장을 휩쓴다. 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행방불명되고 피해가 적은 농장은 피난민들로 가득찬다.

곧 군중집회가 열린다. 연단에 오른 부르노는

수해복구대책과 함께 회사안에서 벌어지고있는 온갖 부정적현상들을 폭로하고 앞으로 해야 할 사업에 대하여 이야기한다. 살림집과 사무실, 상점, 병원, 학교 등을 빨리 건설하여 종업원들이 생활의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하며 숯도 굽고 나무모도 심으며 필요한 기술인재를 자체로 키우는 문제들이 토론된다. 부르노는 핵심적인 일군들을 분장장으로 임명하여 간부대렬을 꾸린다. 이러한 때 100여명의 대학생지원자들이 수해복구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도착한다.

한달만에 수해복구사업이 끝나고 살림집과 사무실, 학교, 상점 등이 건설되며 전기가 들어와 사람들은 기쁨에 넘친다.

한편 적대분자들의 준동이 심해진다. 놈들은 새 사장 부르노를 랍치하며 나무모밭에 불을 지르고 달아날 음모를 꾸민다. 어느날 저녁 사장과 분장장들이 사업토의를 끝내고 차를 타고 가다가 다리목에서 사격을 당한다. 두명의 분장장이 희생되고 부르노는 부상을 입는다.

이 사건을 계기로 적대분자들은 일망타진되고 혼자 달아나던 씨아끄도 벼랑에서 떨어져 죽는다.

이처럼 작품은 혁명승리후 꾸바에서 힘있게 벌어진 사회주의건설을 위한 거대한 사회적변혁과정과 새 인간의 탄생과정을 생동하게 반영하였다.

작품이 거둔 중요한 성과는 새 사회건설시기 꾸바의 지도일군의 전형인 부르노의 성격형상을 창조한것이다.

부르노의 성격적특질의 하나는 당과 혁명위업에 대한 무한한 충실성이다.

지난날 꾸바혁명의 승리를 위하여 용감히 싸운 그는 새 사회건설시기에도 당정책집행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일한다. 그는 결코 어제날의 공적으로 안일하게 지내려 하지 않으며 끝까지 혁명위업에 충실하려는 마음을 안고 당이 맡겨준 새 초소로 떠나간다.

그가 사장으로 임명된 묘목회사의 실태는 매우 엄중하였으나 그는 결코 락심하지 않으며 높은 혁명적자각을 가지고 일을 책임적으로 수행해나간다. 부르노의 이러한 성격적특질은 적들의 준동이 심한 속에서도 동요하지 않고 정치사업을 힘있게 벌려나가며 수해복구사업을 짜고들어 해제낌으로써 종업원들을 정신적으로나 생활적으로 안정시키는데서와 공산당의 령도적역할을 높이기 위하여 회사안에 당조직을 내오려고 애쓰는 등 이모저모에서 표현되고있다.

부르노의 성격적특질의 다른 하나는 그가 혁명적군중관점이 바로 서고 옳바른 사업작풍을 지닌 인민적인 일군이라는데 있다.

그는 언제나 군중의 힘을 믿고 그들과 침식을 같이하며 대중을 혁신에로 불러일으킨다. 또한 일군들이 난관에 부딪쳐 사업성과를 내지 못할 때에는 대중을 믿고 그들에게 의거하며 자신이 혁명가라는 자각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일깨워준다.

부르노는 대중과 함께 나무모도 심고 살림집도 지으며 이신작칙의 모범으로 대중을 교양하고 걸린 문제가 생기면 대중의 집체적토의를 통하여 해결책을 찾는다.

소설은 부르노의 지도밑에 낡은 사상잔재에 물젖어있던 많은 사람들이 사회주의근로자로 교양개조되여가는 과정에 대해서도 보여주고있다.

장편소설 《현대녀인과 도래할 전투》는 주인공의 형상을 통하여 새 사회건설을 위한 꾸바인민의 투쟁을 생동하게 반영하고 공산당의 령도적역할을 보여준 작품으로서 현실주제의 꾸바문학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있다.

《지원녀교원》

1961년 아메리카주회관문학경연상 수상작품인 녀류작가 다우라 올레마의 중편소설 《지원녀교원》은 1960년말부터 1961년까지 꾸바에서 진행된 문맹퇴치운동과 전국혁명교육운동을 반영한 작품이다.

혁명승리후 꾸바에서 문맹퇴치운동은 제국주의자들의 민족문화말살정책과 우매화정책의 후과를 가시고 근로인민대중에게 문명한 생활을 마련해주는데서 커다란 의의를 가지였다.

당과 정부는 수많은 청년지식인들로 지원대를 조직하고 전국각지에 파견하는 한편 선진적인 인민교육체계를 세우고 문맹퇴치운동을 전군중적운동으로 전환시켰다. 이러한 대중운동에 보조를 맞추어 문학분야에서도 중편소설 《지원녀교원》과 아기릴랴의 장편소설 《산간벽지로》(1975)를 비롯한 여러편의 작품들이 창작되였다. 《지원녀교원》은 이 주제의 작품들가운데서 성과작의 하나이다.

이야기는 1961년 문맹퇴치운동을 성과적으

로 진행하기 위하여 씨에라 마에스뜨라산중에 설치된 지원교원강습소를 무대로 하여 벌어진다.

1인칭형식으로 되여있는 소설은 자원적으로 모여온 남녀청년들의 집단생활을 반영하면서도 녀주인공 비르마의 사상의식개조과정을 보여주는데 힘을 넣고있다.

소시민출신이며 회사사무원이였던 비르마는 어머니의 영향과 피델 까스뜨로를 비롯한 혁명가들에 대한 존경심, 사회주의혁명에 대한 호기심 등으로 하여 지원교원강습소에 자진하여 오게 된다.

강습소생활은 순탄하지 않았다. 숙식조건을 비롯하여 모든것이 불편하였으며 거듭되는 수색작전 등으로 강습소생활은 생각했던것보다 어렵고 긴장하였다. 이러한 난관앞에서 비르마는 동요도 하고 지원교원훈련반에 온것을 후회하기도 한다. 그러나 한번 먹은 마음을 굽히지 않으려는 일념으로 가슴태우며 조직생활을 통하여 사상의지적으로 단련해간다.

마침내 그는 B중대 4소대장으로 임명된다.

강습소에서는 소대별로 가끔 경험교환도 하고 제기된 문제를 가지고 토론회도 하였다. 가난이란 무엇인가, 농민들이 문맹퇴치운동을 어떻게 대하고있는가, 혁명과 사회주의란 무엇인가 등 각이한 문제들을 토론하는 과정에 소대원들의 사상의식수준은 한계단 더 높아진다.

어느날 토론회뒤끝에 비르마는 《그렇습니다. 바로 오늘과 같은 혁명이 우리를 해방시켜주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사회주의입니다.》라고 하면서 아직은 똑똑치 않으나 그 어떤것이 자기에게 힘을 주고있다는것을 느끼며 난생처음으로 자기자신도 조국에 쓸모있는 인간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게 된다.

산 지옥으로 불리우는 장마철이 닥쳐온다. 억수로 퍼붓는 비는 침구류를 적시고 숙소를 무너뜨렸으며 차디찬 안개는 해마저 가리웠다. 통신련락도 단절되고 식량도 떨어진다. 그러나 훈련생들은 굴하지 않는다. 《대대 모엿!》구령이 내린다. 라지오에서 울려나오는 피델의 연설은 온 대대훈련생들의 가슴을 설레이게 한다. 피델의 연설이 끝나자 그들은 《지원교원행진곡》을 부르며 숙소로 돌아간다.

이때부터 라지오는 그들의 생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며 전체 훈련생들은 훈련에서 더욱 열성을 낸다. 단결하면 그 어떤 원쑤도 물리칠수 있다, 꾸바를 반대하는 어떤 흉계도 분쇄하고 자기 초소를 굳게 지켜나가야 한다, 바로 이것이 훈련생모두의 생각이였고 승리에 대한 확신이였다.

이러한 이야기를 통하여 작품은 지난날 가난이란 무엇이며 혁명이 무엇인지조차 모르던 새 세대들의 성격발전과 세계관형성과정을 생동하게 보여주고 당시 꾸바에서 진행된 문맹퇴치운동이 소시민출신지식인들의 사상개조사업과 밀접한 련관속에서 진행되였다는것을 예술적으로 밝히고 있다.

소설이 거둔 중요한 성과의 하나는 녀주인공 비르마의 성장과정을 생동하게 그려낸것이다.

그는 지난날 혁명이란 무엇인지, 사회주의건설의 의의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던 의식수준이 낮은 처녀였다. 그러나 그는 강습소생활을 통하여 자기가 아리숭하게만 느껴오던 사회주의혁명이 인간에게 자주적권리를 주고 참다운 생활을 안겨주는 새 사회를 건설하는것이라는것을 똑똑히 인식하게 된다.

그리하여 난관앞에 동요하여 강습소에 온것을 후회하던 그는 자기도 조국에 쓸모있는, 혁명의 대하속에서 그 무엇인가 이바지할수 있다는것을 깨달은 혁명적지식인으로 성장한다.

소설은 또한 꾸바에서 문맹퇴치운동이 인민대중을 정치사상적으로, 계급적으로 각성시켜 그들을 혁명과 건설에 적극 동원하는 군중적운동으로 되였다는것을 형상적으로 보여주었다.

20세기 꾸바문학에서 가장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 작가는 길렌과 까르뻰띠에르이다.

길렌과 시

니꼴라스 길렌은 20세기 꾸바의 가장 이름난 시인이며 라틴아메리카적으로도 공인된 시인이다.

니꼴라스 길렌(1902—1989)은 까마구웨이주의 흑인신문기자의 집안에서 태여나 어려서부터 조국과 민족이 겪는 고통을 목격하면서 자라났다. 특히 진보적기자로 활동하던 아버지가 독재자들의 손에 무참히 학살되는것을 목격한 어린 그의 가슴속에는 압제자들에 대한 분노심이 싹터자랐다.

그는 아바나종합대학 재학시기에 예리한 눈

으로 사회를 해부해보게 되였으며 근로대중과 호흡을 같이하기 위하여 대학을 중퇴하고 로동생활(식자공)을 하였다.

그 과정에 문학수업을 꾸준히 하여 17살때인 1919년에 처음으로 시를 발표한 그는 신문기자를 거쳐 1930년대부터 직업적시인이 되였다.

그의 첫 시집 《쏜의 모찌브》(1930)는 흑인가무 《쏜》과 《구아라챠》의 독특한 리듬과 수법들에 기초하여 꾸바의 평범한 사람들, 특히 흑인들의 고된 노예살이와 그들의 기쁨과 슬픔을 노래한것으로 하여 문단의 주목을 끌고 흑인들을 비롯한 근로자들의 환영을 받았으며 그로 하여금 일약 《흑인시》(네그리스모시)의 대표적 시인으로 되게 하였다.

1934년에 발표한 시집 《쏜고로 꼬쏜고》와 《서인디아제도주식회사》에서 시인은 꾸바의 사회정치적문제를 더욱 깊이 파헤쳤다. 시집에 수록된 《두 조상에 대한 발라다》를 비롯한 시들에서 시인은 식민지통치밑에서 고통받는 인민, 투쟁에 궐기한 인민을 노래하면서 흑인해방문제는 민족해방혁명으로써만 해결될수 있다는 사상을 강조하였다.

그밖에도 시인은 시집 《병사들을 위한 노래와 관광객들에게 주는 쏜》을 비롯한 여러 시들에서 민족해방투쟁에 떨쳐나설것을 호소함으로써 이 시기 프로레타리아문학의 기능을 높이고 그 전투적성격을 뚜렷이 하였다.

1937년 꾸바공산당에 입당한 그는 그해에 에스빠냐에서 열린 파시즘을 반대하고 진보적문화를 옹호하는 제2차 국제작가대회에 참가하고 《에스빠냐, 네가지 슬픔과 한가지 희망에 대한 서사시》를 창작하였으며 제2차 세계대전시기에는 반파쑈활동을 활발히 벌렸다.

제2차 세계대전후 그는 시인으로뿐아니라 평화옹호운동과 반독재투쟁의 저명한 활동가로 국내외에서 적극적인 활동을 벌린것으로 하여 바띠스따독재정권에 여러번 체포되였으며 1954년부터 꾸바혁명이 승리할 때까지 이전 쏘련과 사회주의나라들에서 망명생활을 하였다.

망명시기 그는 시집 《날아가는 인민의 비둘기》(1958)를 비롯하여 《아이띠상공에서 자끄 루맹을 추모한 애가》, 《헤쑤스 메넨데스에 대한 추억》 등 많은 시들을 썼다. 이러한 작품들에서는 꾸바인민의 생활, 비애와 분노, 희망 등 그들의 감정, 사탕수수농장의 비극 등이 노래되였으며 정의의 위업의 승리에 대한 확신과 인민대중의 힘에 대한 신뢰가 토로되였다. 이 나날에 그는 프로레타리아시인으로부터 사회주의적사실주의시인으로 자라났다.

1959년 1월 꾸바혁명이 승리한 후 조국에 돌아온 그는 창작활동을 더욱 활발히 벌리는 한편 1961년부터 꾸바작가, 예술인동맹 위원장으로 사업하면서 새 꾸바문학의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였으며 사회정치활동에도 적극 참가하였다.

이 시기 시인은 사회주의꾸바의 새생활을 노래한 시집 《모든것은 나의것》(1964), 《대동물원》(1967)과 《1월의 광장에서》, 《단결》, 《영원한 붉은 피》를 비롯한 수많은 시들을 창작하였다.

이 작품들에서 시인은 혁명투쟁에서 이룩된 승리를 찬양하고 새 사회건설에 떨쳐나선 꾸바인민의 생활과 투쟁을 격조높이 노래하였으며 그들을 힘있게 고무추동하였다.

그의 시작품들은 그 주제에 따라 크게 네가지로 갈라볼수 있다.

그 하나는 혁명승리이전 꾸바의 비참한 현실과 흑인해방문제를 주제로 한 작품들이다.

그 대표적인 작품의 하나가 《호쎄 라몬이 빠에서 노래부르다》이다. 시인은 이 시에서 미제의 식민지통치밑에서 비참한 운명을 강요당한 지난날 꾸바의 현실과 밝은 새세상을 고대하는 인민의 념원을 노래하였다.

붉은 머리 양키놈들
네놈들은 여기서 주인행세
호주머니마다엔 람술병
네놈들은 여기서 우대받는구나
모든것이 네놈들의 심심풀이감

네놈들은 여기서 잘살고있건만
나는 죽어가고있네
네놈들은 오찬이 기다리고있건만
내게는 빵조차 없네 빵조차 없네
…

이 세상이 밝다 하여
모든것이 제대로 되여있는건 아니로다

한 수리공 있어
그는 모든것을 고치리라
그는 모든것을 제대로 만들리라

시에서는 집도 없이 생계를 유지하려고 빠에서 노래를 파는 서정적주인공 호쎄 라몬의 형상을 통하여 기아와 빈궁, 천대속에서 살아가는 인민의 모습과 모든 권력을 틀어쥐고 주인행세를 하는 미제에 대한 증오의 감정을 노래하고있다. 그러면서 시인은 밝은 새세상을 마련하기 위해 일떠선 흑인수리공을 내세우고있다. 시는 미제가 제놈들을 찬양하는 노래를 기다리고있으련만 그것을 기다릴것이 아니라 《싹 뒈여들지라!》고 준렬히 단죄하고있다.

그밖에도 사탕수수밭에서 갖은 고역을 겪는 농민들의 모습을 형상한 《수수께끼》, 참을수 없는 인종차별정책에서도 서로 도우며 함께 살아가는 어린이들을 노래한 《두 소년》, 인간이하의 천대와 고역속에서 시달리는 흑인노예들의 처지를 보여준 《로동과 채찍》을 비롯하여 《두 조상에 대한 발라다》, 《씨몬 까라발리오에 대한 발라다》, 《끼니를 벌기 위해서는》, 《그들은 내가 일하지 않으면 나를 죽인다》를 비롯한 많은 시들이 이 주제에 바쳐지고있다.

그의 시가운데는 또한 꾸바인민의 계급적각성과 자주적인간으로서의 자각을 노래한 작품들이 적지 않은 자리를 차지하고있다.

《흑인어린애를 위한 자장가》에서는 자기 운명의 주인이 된 자각을 가지고 투쟁에 일떠나설것을 바라는 시인의 목소리가 울려나오고있다.

흑인아가 흑인아가
버찌같은 눈동자야
잠을 깨고 나가거라
해는 하늘에 둥실 떴다
잠을 깨면 말하여라
심장의 쓰라림을

주인놈들 짓조기라
멍이 들게 짓조기라
여태 자는이 아무도 없다
짚무더기 물바가지
거미줄 창구멍
일어나라 흑인아가
해를 맞아 일어나라!

이 시에서 시인은 흑인들에게 무지와 몽매, 인종적멸시와 인간이하의 생활을 강요해온 중세기적인 암흑을 《흑인어린애의 잠》에 비유하면서 흑인들도 주인이 될 새 세계가 밝아오고있음을 암시하고있다. 시인은 또한 《짚무더기, 물바가지, 거미줄, 창구멍》이라는 간결한 몇마디 표현으로 흑인들의 어려운 생활모습을 펼쳐보이면서 《여태 자는이 아무도 없다… 일어나라 흑인아가 해를 맞아 일어나라!》라고 성스러운 투쟁에로 부르고있다.

계급적자각에 대한 호소는 《아니다 병사야》에서도 힘있게 울려나오고있다.

괴뢰군도 인민의 편에 서서 인민과 함께 반미투쟁에 떨쳐나서야 한다고 호소한 서정적주인공은 같은 평민출신으로서 지배계급에 굴종하여 인민을 향해 총부리를 들이댄 괴뢰군병사에게 계급적처지를 자각하고 인민과 힘을 합쳐 싸워나가자고 절절히 호소하였다.

너도 가난뱅이 나도 가난뱅이
너도나도 평민출신
어쩌면 너는 생각할수 있느냐
내가 너의 적이라고

머지않아 너도나도
우리 한길로 가리라
어깨겯고 너도나도
원쑤가 아니다 너도나도
굳게 믿고 너도나도
꼭같이 행동하자 너도나도

그밖에도 《푸른 도마뱀》, 《나의 조국은 사탕의 나라이노라》, 《오지로 만든 꼭두각시련대장들》, 《내가 이 땅에 왔을 때》를 비롯한 여러 시들이 창작되였다.

그의 시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것은 미제를 몰아내고 단결된 힘으로 새 사회를 건설하려는 꾸바인민의 신심에 넘친 모습을 노래한 작품들이다.

《흑인 뉴욕에서 노래부르다》는 미제의 딸라장벽을 물리치고 승리한 꾸바혁명을 축하하면서 새 조국을 위해 모든것을 다 바쳐 일하리라

는 꾸바망명가들의 결의를 노래하고있다.

그 노래의 토막들을 묶어
내 손으로 두편의 노래 지으려네
짐 크로우의 죽음을 축하해서 하나
세계에 깃들 평화의 봄을
노래하여 또 하나

야장은 나에게 강철을 선사했네
내 그것을 가지고 내 손으로
낫을 벼리려네
때려라 마치야 내 마치야 때려라
벼리라 낫을 내 마치야 어서 빨리

《단결》은 단결된 꾸바인민의 모습과 다시는 제국주의의 노예로 되지 않으려는 굳센 의지를 담은 작품이다. 시에서는 인종은 서로 달라도 하나의 조국을 위하여 손에 손을 억세게 틀어잡고 혁명의 전취물을 수호해가리라는 서정적주인공의 주정토로가 힘있게 울려나오고있다.

학살과 략탈을 일삼던자 벌벌 떤다네
그 살인자 우리 보복소리 들었기에
그 살인자 우리 분노의 웨침 들었기에
그 살인자 친선의 상징인
우리의 굳게 잡은 손 보았기에

바로 여기에 우리가 있네
그 누가 감히 우리것을 빼앗아가리
그 누가 감히 우리를 노예로 만들리
그 누가 감히 우리를 정복하리
안된다 다시는 안된다

시인은 《양키 물러가라》에서 꾸바의 한쪽땅인 관따나모를 강점하고 침략의 기회만 호시탐탐 노리면서 그곳을 인간생지옥으로 만들고있는 미제의 책동을 준렬히 규탄하고있다.

시에서는 꾸바의 신성한 기발이 더럽혀지고 꾸바사람들이 미제의 총칼아래 죄인으로 되고있는 관따나모의 현실을 더는 묵과하지 말고 반미투쟁에 일떠설것을 호소하면서 이렇게 끝맺고있다.

나의 인민이여 나서야 할 때가 되지
않았는가?
그리고 한마디 영어를 배워야 할 때가?
《양키 물러가라!》

그의 시가운데는 《벗들이여 우리 함께 가자!》, 《베네수엘라에 드리는 노래》와 같이 세계혁명에 대한 련대성을 노래한 작품들도 있다.

《벗들이여 우리 함께 가자!》는 자신의 힘으로 혁명의 승리를 이룩한 꾸바인민의 모범을 따라 라틴아메리카의 모든 나라들에서 미제의 숨통을 조이며 반미공동투쟁에 합류해나설것을 호소한 시이다.

서정적주인공은 양키놈의 이마빡에 증오의 침을 뱉고 땅우에 우뚝 몸을 일으킨 꾸바인민의 모습, 흡혈귀 미제를 몰아낸 꾸바인민의 투쟁정신을 노래하면서 라틴아메리카인민들을 반미투쟁에로 힘있게 부르고있다.

그 부름소리 울려퍼지누나 온 대륙에
우뢰소리가 되여 번개를 일구면서
일어라 봉기의 바람아 세차게 일어라!
이 나라 저 나라 모두 휩쓸며
마르띠는 또다시 볼리바르를 부르노라
말을 타고 결전의 길로 내달으라고!

이와 같이 호소성이 높으면서도 전투적성격이 강한 그의 시들은 자기 인민의 가슴속에 뜨겁게 흐르는 민족적감정과 반제반미투쟁정신, 뜨거운 조국애가 소박하고도 열정적으로 노래되고있음으로 하여 꾸바인민은 물론 라틴아메리카인민들의 사랑을 받고있다.

아 꾸바의 기발은 얼마나 순결하냐
우리 꾸바의 기발을 보고
그 어느 누구도
간섭의 꿈을 꾸지 말라
그 어떤 흉악한 강도도
우리의 기발을 다치지 못하리

이것이 그의 혁명적립장, 조국과 인민에 대한 뜨거운 사랑의 시적표현이다.

그의 시들은 옛 에스빠냐시의 전통과 흑인들의 솔직성, 열정, 생동성을 결합시키고 에스빠냐의 옛 4운각시의 형식과 흑인들의 주문의 열광적인 리듬을 결합함으로써 매우 독특한 양상을 이

루고있다.

꾸바인민과 라틴아메리카인민들의 생활과 투쟁을 독특한 시형식에 담아 힘있게 노래한 니꼴라스 길렌의 시작품들은 꾸바와 라틴아메리카의 프로레타리아시문학과 사회주의적사실주의 시문학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있다.

까르뻰띠에르와 장편소설 《계몽의 세기》

까르뻰띠에르는 현대꾸바문학에서 가장 이름난 소설가이며 라틴아메리카뿐아니라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져있는 작가이다.

알레호 까르뻰띠에르(1904－1980)는 아바나에서 프랑스인인 아버지와 로씨야인인 어머니사이에 태여났다. 그는 아바나종합대학에서 건축학과 음악을 배웠다. 가정사정으로 대학을 중퇴한 그는 신문기자로 활동하면서 문학창작을 시작하였다.

그후 그는 잡지주필로 있으면서 독재정치를 반대하는 운동에 참가한것으로 하여 당국에 체포되였으며 1928－1939년, 1945－1959년 두차례에 걸쳐 프랑스에서 망명생활을 하였다.

그는 빠리에서 브르똥을 비롯한 초현실주의 작가들과 교제하면서 그들이 찾는 경이적인것이 라틴아메리카대륙에 많다고 생각하게 되였으며 그것을 《경이적인 현실》로 이름짓고 그 리론에 기초하여 첫 장편소설 《에꾸에 얌바오》(1933)를 창작하였다. 그는 이 소설에서 흑인들의 생활을 보여줌으로써 소설분야에서 네그리스모문학의 개척자의 한사람으로 되였다.

그는 초현실주의의 영향밑에 소설창작을 시작하였으나 언제나 꾸바와 라틴아메리카의 현실에 발을 붙이고 그 현실을 반영하기 위해 애썼으며 그 과정에 사실주의적인 창작의 길로 나갔다.

망명시기의 주요작품으로 장편소설 《지상의 왕국》(1949)과 《사라진 흔적》(1953), 중편소설 《추적》(1956), 단편소설 《시간과의 싸움》(1958) 등이 있다.

《지상의 왕국》은 19세기 아이띠인민들의 독립투쟁을 묘사한 작품이며 《사라진 흔적》은 라틴아메리카의 력사와 예술을 취급한 작품이다. 《사라진 흔적》은 뉴욕에서 영화음악을 작곡하며 살아가던 한 음악가의 체험을 담고있다. 그는 미개종족의 원시악기를 보고싶다는 제기를 받고 남아메리카로 탐험려행을 떠나게 된다. 소설에서는 이 이야기가 주인공의 일기형식으로 펼쳐지고있다.

그는 산간오지에서 문명세계와 격폐된 자연그대로인 천진한 처녀를 만나 창작적령감을 얻기도 하고 지금도 원시적인 생활을 그대로 하고있는 미개종족의 생활을 목격하면서 라틴아메리카의 판이한 두 현실에 큰 충격을 받는다. 일단 도시로 되돌아왔던 주인공은 다시 그곳으로 찾아가려고 길을 떠났으나 길을 잃어버려 두번째 탐험려행은 실패하고만다.

이러한 이야기를 통하여 작가는 라틴아메리카의 력사와 예술을 펼쳐보이고있다.

그의 창작은 꾸바혁명승리후에 더욱 세련되였다. 꾸바혁명이 승리하자 곧 조국으로 돌아온 작가는 혁명적이며 민족적인 새 문화를 건설하기 위한 투쟁에 앞장섰다.

그는 꾸바전국문화위원회 지도부성원, 전국작가예술인총동맹 부위원장, 민족출판사 사장, 프랑스주재 꾸바대사관 문화참사 등을 력임하면서 창작활동을 벌려 장편소설 《계몽의 세기》(1962), 《방법의 근원》(1974), 《봄축전》(1978), 《하프와 그림자》(1979), 중편소설 《망명의 권리》(1972), 《바로끄협주곡》(1974) 등 많은 작품들을 발표하였다.

작가는 《봄축전》에서 제1차 세계대전, 에스빠냐공민전쟁, 메히꼬혁명, 꾸바혁명 등의 력사적사변들을 통하여 쓰라린 지난날로부터 피델 까스뜨로의 지도밑에 꾸바혁명가들의 뽈라야 히론전투승리에 이르기까지의 꾸바인민들의 투쟁력사를 폭넓고 생동하게 보여주었다.

신화환상적수법을 대담하게 도입한 그의 다양한 주제의 소설작품들을 두고 마술적사실주의작품이라고 평하였다.

그의 대표작의 하나인 장편소설 《계몽의 세기》는 18세기말 프랑스부르죠아혁명을 전후하여 라틴아메리카인민들의 각성과정과 자주의식의 발생과정을 그린 작품이다.

소설의 이야기는 아바나상인의 자녀인 쏘피아와 까를로스오누이, 그들의 4촌형인 에스떼반, 그들과 련관된 프랑스인 빅또르의 운명선을 따라 전개되고있다.

프랑스상인 빅또르는 장사거래를 하던 아바나의 상인이 병으로 사망하자 그 자녀인 쏘피아

와 까를로스, 조카인 에스떼반과 친숙해져 그들의 신임을 얻는다. 비밀조직과 관계가 있던것으로 하여 체포될 위험에 처한 빅또르는 쏘피아의 호의로 교외에 있는 그들의 농장에 피신해 있으면서 쏘피아오누이와 에스떼반에게 유럽에서 일어난 사변을 알려주고 그들을 계몽시킨다. 그는 하느님에 대해서 부정하면서 사회력사발전의 힘은 최고리성에 있다고 주장한다. 빅또르의 이야기를 통하여 쏘피아오누이와 에스떼반은 유럽의 부르죠아혁명에 대하여, 계몽주의사상에 대하여, 무신론과 최고리성에 대하여 알게 되고 새로운 눈으로 현실을 보게 된다.

그곳까지 위험이 미치자 그들은 빅또르의 동료의 배를 타고 도미니까의 싼또도민고항에 피신한다. 그들은 여기서 놀라운 소식에 접하게 된다. 도미니까와 린접한 아이띠의 수도에서 흑인폭동이 일어나 정세가 몹시 긴장해졌다는것이다. 그곳에 펴놓은 기업이 걱정되여 빅또르가 급히 현지에 가보니 자기 집과 재산이 몽땅 불타버린 뒤였다. 하여 빅또르는 그들과 작별하고 떠나간다.

그후 어느날 식민주의국가 프랑스로부터 두명의 전권위원이 함대를 이끌고 아이띠에 도착한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중 한명이 빅또르였다. 그의 호의로 에스떼반은 빅또르의 함대 서기로 되며 빅또르를 보좌하는 과정에 그의 속심을 똑똑히 알게 된다.

빅또르는 함대를 지휘하여 까리브해에서 영국세력을 제압하고 잃었던 과달루쁘섬을 점령한다. 현지에서 노예제페지를 선포하고 흑인들의 환심을 산 빅또르는 이 섬의 최고통치자가 되려고 미쳐날뛴다.

프랑스에서 군주제가 복귀되고 식민지들에서 노예제가 부활되자 빅또르도 과달루쁘에 노예제를 복구하며 반항하는 흑인들을 야수적으로 탄압한다. 그러나 그는 단결된 흑인들의 투쟁을 진압하지 못한다.

한편 꾸바에서도 식민지통치와 노예제도를 반대하는 흑인폭동이 일어난다. 흑인폭동에 가담한것으로 하여 체포될 위험에 처한 쏘피아오누이와 에스떼반은 배를 타고 해외로 탈출하며 빅또르와 만난다. 그동안 빅또르가 흑인들을 야수적으로 탄압한 사실을 알게 된 그들은 빅또르와 단호히 결별한다.

그후 에스빠냐의 수도 마드리드의 거리에 새 간판을 단 음식점이 하나 생겨난다. 쏘피아오누이와 에스떼반이 운영하는 음식점이다. 그무렵 프랑스침략군을 반대하는 마드리드시민들의 폭동이 일어나 쏘피아오누이와 에스떼반도 손에 무기를 잡고 싸움터로 달려나간다.

그후 그들의 소식은 알길 없고 다만 까를로스가 음식점의 문을 잠근 후 이사짐을 싣고 어디론가 떠나가는것으로 이야기는 끝난다.

작품이 제기한 기본문제는 사회력사발전을 추동하는 힘은 무엇인가 하는것이다.

작품은 주요인물들인 에스떼반과 쏘피아, 빅또르의 성격발전과정을 통하여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주고있다.

소설에서 에스떼반과 쏘피아는 18세기 말 프랑스부르죠아혁명이 일어난 력사적전환기에 라틴아메리카인민들속에서 싹트기 시작한 자주적인 의식의 발전과정을 체현한 인물들이다.

에스떼반과 쏘피아는 둘 다 부유한 상인가정에서 부르죠아적영향을 받으며 자라났다. 미국이나 프랑스로 가는 황홀한 관광려행이나 꿈꾸어오던 그들에게 있어서 빅또르를 만난것은 사상정신생활에서 중요한 전환의 계기로 되였다.

에스떼반은 한때 빅또르의 무신론과 최고리성론, 혁명에 관한 사상에 공감하고 그에 매혹되기까지 하였다.

빅또르는 그에게 이렇게 말하군 했다.

《혁명은 나에게 생활의 목표를 제시했소. 시대의 위대한 사업에서 내가 놀아야 할 역할을 규정해주었단 말이요. 이를 수행하는 과정에 나의 큰 담력을 증명하겠소.》

그러나 그들은 오래동안 빅또르와 함께 다니면서 그의 말과 행동의 불일치, 안팎이 다른 행동을 보고 점차 그에 대한 환상에서 벗어난다. 더우기 그들은 빅또르가 자유민이 된 흑인들을 가혹하게 처형하고 부정축재하는것을 목격하면서 그의 혁명리념의 기만성을 꿰뚫어보게 된다. 빅또르식혁명바람이 넓은 지역을 휩쓸었으나 변한것이란 아무것도 없었다. 에스떼반이 매력을 느꼈던 빅또르란자는 강도에 지나지 않았다.

에스떼반은 그립던 아바나의 옛집에서 다시 만난 쏘피아에게 자기의 기나긴 려행을 강도무리속에서의 생활에 비기면서 큰 교훈을 찾게 되였다고 힘주어 말한다.

에스떼반이 찾은 교훈은 쏘피아에게 강한 사상정신적자극을 준다. 쏘피아는 에스떼반의 이야기

를 들으면서 빅또르식혁명은 실패를 면치 못하며 인류의 위대한 전취물은 희생이 없이 이루어질수 없다고 확신하게 된다.

이때로부터 쏘피아는 주위생활을 새로운 각도에서 관찰하기 시작한다. 자기 시부모들의 황홀한 생활과 하층인간들의 생활의 그늘을 발견하고 지나온 과거를 무덤으로 생각하게 된 쏘피아는 새생활의 길에 용약 뛰여들며 사회적부정의를 반대하는 반정부적활동에까지 가담하게 된다.

마드리드에서 프랑스침략군을 반대하는 에스빠냐인민들의 폭동이 일어났을 때 무기를 잡고 거리에 달려나가는 쏘피아와 에스떼반의 모습은 그들의 사상의식발전에서 절정을 이룬다.

소설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있는 프랑스상인 빅또르 우게스는 부르죠아혁명에 편승하여 라틴아메리카식민지에서 계몽주의자의 탈을 쓰고 일확천금하려다가 망하고마는 신흥부르죠아지의 형상 그대로이다.

식민지에서 노예제도를 폐지한다고 선포한 후에도 흑인들에게 계속 노예생활을 강요하며 일신의 리해관계와 부귀영화를 위하여 식민지의 독립을 부르짖으며 총독의 자리를 탐내는 빅또르의 교활한 행동에는 신흥부르죠아들의 교활성과 악랄성이 그대로 체현되여있다.

작가는 에스떼반, 쏘피아, 빅또르 등의 운명을 통하여 사회력사발전을 추동하는 힘은 하느님이나 관념론적인 최고리성에 있는것이 아니라 인민대중에게 있으며 누구도 전진하는 력사의 흐름을 막지 못할것이라는 사상을 보여주었다.

작품은 또한 라틴아메리카에서 식민주의자들을 반대하는 투쟁이 더욱 고조되게 된것은 력사발전의 합법칙적결과라는것을 밝혀내고있다.

소설은 프랑스—에스빠냐전쟁, 프랑스—미국전쟁 등 당시 라틴아메리카에서 식민주의자들이 벌린 식민지략탈전쟁과 유럽으로부터 아메리카에로의 상업로탐색, 두 대륙사이의 대대적인 상업거래 등을 묘사함으로써 라틴아메리카나라들의 식민지예속화과정을 반영하고 자본주의렬강들의 신식민주의정책의 반동성을 폭로하고있다.

소설은 또한 프랑스부르죠아혁명후 라틴아메리카인민들의 사상의식의 변화과정, 그들의 투쟁모습을 반영함으로써 식민주의와 압제를 반대하는 투쟁이 어떻게 새로운 단계에 들어서게 되였는가를 보여주고있다. 작가는 특히 아이띠, 아바나, 마드리드 등 각이한 지역에서의 대중적인 흑인폭동을 힘을 넣어 그리고있다.

그리하여 한 지역이 아니라 세계적인 판도에서 일어난 이 투쟁은 력사발전에서 우연이 아니라 필연적인 현상이며 이러한 력사의 흐름은 누구도 막지 못한다는 진리를 확증하고있다.

소설의 예술적측면에서 주목되는것은 신화환상적수법을 도입하여 라틴아메리카대륙의 력사를 집약적으로 반영하고 라틴아메리카사람들의 정신세계를 문학적으로 표현하고있는것이다.

《소금기 있는 물과 소금기 없는 물사이의 싸움》에 대한 전설을 그 례로 들수 있다.

작품은 일련의 부족점도 가지고있다.

그 하나는 주인공들의 세계관형성과정, 사상의식의 발전과정을 생활의 론리, 성격발전의 론리에 맞게 설득력있게 형상하지 못한것이다.

특히 부르죠아가정에서 태여나 부유한 생활을 해온 녀주인공 쏘피아가 어떻게 되여 피압박인민의 편에 서서 압제자들을 반대하는 투쟁의 길에 나서게 되였는가 하는것이 성격발전의 론리에 맞게 그려지지 못하였다.

다른 하나는 인물들의 성격발전과정을 지나치게 비약하여 보여준것으로 하여 작품의 진실성이 부족한것이다. 이러한 제한성은 에스떼반과 쏘피아, 빅또르의 형상들에서 나타나고있다.

하지만 작품은 지난날 라틴아메리카력사에서 전환의 계기로 된 중요한 시기를 배경으로 인민들의 자주의식발전과정을 생동하게 보여줌으로써 라틴아메리카인민들에게 자기 위업의 정당성에 대한 확신을 주고 꾸바와 라틴아메리카소설문학의 발전에 이바지하였다.

3) 메히꼬와 중앙아메리카 및 까리브지역나라들의 문학

원주민들의 생활과 투쟁을 반영한 이 나라들의 문학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오늘 세계에 수많은 민족문학이 존재하는것도 매개 나라 민족문학이 자기 인민의 민족적요구와 지향을 반영하고있기때문이다. 매개 나

라의 민족문학은 자기 인민의 민족적지향과 요구를 반영한 예술적정화이다.》

메히꼬와 중앙아메리카 및 까리브지역나라들의 문학은 라틴아메리카문학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있다.

이 지역나라들은 메히꼬를 내놓고 다 면적도 작고 인구도 적은 나라들이다. 그러나 이 나라들에도 각기 자기 인민의 민족적지향과 요구를 반영한 민족문학이 있으며 20세기의 이름난 작가들이 있다. 메히꼬의 아수엘라, 푸엔떼스, 만씨씨도르, 과떼말라의 아스뚜리아스, 니까라과의 루벤다리오, 온두라스의 아마이아 아마도르, 꼬스따리까의 팔랴스 등을 그 대표자로 들수 있다.

20세기 이 지역의 진보적문학에서 무엇보다도 주목되는것은 원주민인 인디안들의 생활과 투쟁을 반영한 인디헤니스모문학이 발전한것이다.

20세기 20년대부터 시작하여 인디안들의 력사와 문화, 생활에 대한 사회적관심이 매우 높아진 메히꼬에서는 인디안문예부흥운동이 일어났다. 이 운동의 한 고리로서 문학분야에서는 인디안들을 형상한 작품들이 수많이 창작되였다.

우선 고대인디안들의 생활을 예술적으로 재현한 력사소설들이 많이 나왔다. 그 첫 작품이 1922년에 나온 안또니오 메디스 불리오의 《꿩과 사슴의 땅》이다. 작품은 메히꼬의 고대인디안 마야족사람들의 생활과 풍습, 신앙에 대한 생동한 형상을 통하여 고대인디안들의 정신세계를 잘 보여주었다.

이 작품이 나온 이후 련이어 새로운 작품들이 세상에 나왔다. 인디안작가 안드레스 메네스뜨로스는 고대인디안 싸뽀떼끄족의 생활을 그린《어머니의 초상그림》을 내놓았으며 에르밀로 아브레우 고메스는 3부작력사소설 《마야의 영웅들》에서 용감한 인디안두령의 형상을 창조하였다.

그러나 이 작품들은 인디안들의 과거생활에만 관심을 돌리고 그것을 오늘의 견지에서 그리지 못하는 등 현실과 유리되는 결함을 나타냈으며 인디안해방투쟁에 실제적인 기여를 하지 못하였다.

메히꼬에서 인디안들의 현실생활을 취급한 사회소설이 나오기 시작한것은 1930년대 중엽부터였다. 1934년에 나온 로뻬스 이 푸엔떼스의 장편소설 《인디안》이 그 첫 작품이다. 그후 마그달레노의 《폭발》(1937)과 로드리게스의 《흩어진 구름》(1952)을 비롯한 여러 장편소설들이 나와 문학계와 사회계의 주목을 끌었다. 이 작품들을 고찰해보면 메히꼬 인디헤니스모문학의 특성을 잘 알수 있다.

《인디안》

그레고리오 로뻬스 이 푸엔떼스(1897—1966)의 장편소설 《인디안》은 산속에서 생활하는 인디안마을사람들의 투쟁을 깊은 애수에 담아 그린 작품이다.

메히꼬의 어느 한 지방의 산속에 이름조차 알려지지 않은 인디안마을이 있었다. 이 마을에서는 인디안사람들이 옛 풍습대로 인디안공동체생활을 하면서 조용히 살아가고있었다. 그런데 어느날 난데없이 백인 세명이 마을에 나타났다. 그들은 이 부근의 산에서 금맥을 찾아다니다가 마을을 발견하였던것이다. 그들은 오만무례하게 행동하면서 인디안처녀를 겁탈하고 길안내를 선 인디안청년을 불구자로 만든다. 분노한 마을사람들은 백인들을 징벌한다.

그러자 이번에는 숱한 백인들이 마을을 들장내려고 나타난다. 그리하여 마을사람들은 할수없이 정다운 마을을 떠나 타고장으로 간다. 그후 굶주림과 전염병으로 마을사람들속에서는 숱한 사상자가 난다.

이때 백인 한명이 마을에 나타나 마을사람들에게 행복한 생활을 창조하는 길을 가르쳐주겠다고 하면서 그들을 무장투쟁에 끌어들인다. 그후 그자는 이 투쟁의 승리를 자기가 대의원으로 당선되기 위한 유리한 조건으로 리용한다. 인디안들은 그자의 선거자금을 세외부담으로 걸머지며 선거날에는 강제로 끌려나가 그자에게 찬성표를 던진다. 기만당한 인디안들은 미래에 대한 희망과 백인 지도자에 대한 믿음을 영원히 잃어버리고만다.

작품의 중심에는 어느 한 개인의 운명이 아니라 인디안마을사람들의 운명이 놓여있다. 작품은 인디안마을사람들의 불행한 운명을 구체적인 생활세부를 통해 보여주면서 인디안들에 대한 백인 압제자들의 학대를 비난하고 불행한 인디안마을사람들에게 동정을 기울였다.

작품은 인디안마을사람들의 세태생활과 풍속습관을 재현하는데 보다 많은 관심을 돌리고있다.

작품은 인디안들의 비극적운명을 통하여 숙

명론적인 사상을 표현하고있다. 이것으로 하여 작품은 전반적으로 어둡고 침침하다.

《폭발》 이 점에서 마이리씨오 마그달레노(1906—?)의 장편소설 《폭발》은 한걸음 전진한 작품이라고 할수 있다.

장편소설 《폭발》 역시 인디안마을사람들의 생활과 운명을 그리고있다. 작품은 1930년대초에 인디안 오또미족이 예로부터 살아오던 메히꼬의 이달고주에서 있은 이야기를 담고있다.

주소재지에서 멀지 않은 산간지대에 싼 안드레라는 인디안마을이 있었다. 이 마을에는 부모를 잃고 고아가 된 싸뚜르니노라는 소년이 살고있었다. 소년은 이 마을의 애기어머니들의 젖을 빨며 자라 마을사람들과 한가족처럼 지내면서 마을어른들로부터 인디안의 모든 지식을 넘겨받았다.

마을사람들은 그를 《꼬이오찌오》라고 사랑을 담아 부르면서 보살펴주었다. 그가 공부할 나이가 되자 마을사람들은 그에게 큰 기대를 걸고 그를 도시의 학교로 보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여러해가 지나갔는데도 그는 돌아오지 않았다. 하지만 마을사람들은 어느때건 그가 마을로 돌아와 자기들을 불행에서 건져줄것이라고 생각하면서 희망을 잃지 않는다. 그러던 어느날 기다리고기다리던 싸뚜르니노의 소식이 날아들고 뒤이어 싸뚜르니노가 지주, 주지사선거립후보로 되여 나타난다. 마을에 도착한 싸뚜르니노는 마을사람들과 인사를 나누며 그들모두에게 가져온 술을 대접한다.

그는 자기가 주지사가 되기만 하면 굶주리는 마을사람들에게 땅도 해결해주고 물도 해결해주고 그밖의 그 무엇도 풀어주겠다는 등 거짓약속을 늘어놓는다.

순진하고 남을 잘 믿는 인디안들은 이 거짓말을 그대로 믿고 환희에 넘치며 주지사선거날에는 그에게 찬성투표하기 위하여 모두가 주소재지로 향한다. 그는 대번에 마을사람들에게 떠받들리는 우상으로 화한다. 마을사람들은 그에게 자기들이 가지고있는 모든것을 아낌없이 내준다. 싸뚜르니노를 신이 자기들에게 보내준 사람이라고 확신한 마을의 장로 보나파씨오는 증손녀인 아름다운 로렌싸를 그의 첩으로 섬겨바치기까지 한다.

그러나 주지사가 되고 또 이 일대의 땅을 소유한 대지주가 된 싸뚜르니노는 싼 안드레마을사람들을 점차 자기의 노예로 만든다. 그는 교활하게도 관리인인 펠리페 렌돈을 내세워 마을사람들을 가혹하게 수탈하고 압박한다. 그래도 마을사람들은 이 횡포한 관리인의 처사에 대하여 싸뚜르니노가 알기만 하면 그가 자기들을 도와줄것이라고 믿고 그가 나타나기만을 기다린다. 하지만 어느날 마을에 나타난 싸뚜르니노가 가면을 벗어던지고 마을사람들의 의견을 일축해버리자 마을사람들은 참고참았던 분노를 폭발시켜 자기들을 가혹하게 략탈하고 못살게 군 관리인을 요정낸다. 그러나 이것은 마을사람들에게 더 큰 불행을 가져다준다. 토벌대와 처단당한 관리인의 동생이 나타나 마을을 짓뭉개며 그 란리통에 장로를 비롯한 여러 사람들이 잘못된다. 마을에는 암담한 기분이 떠돌며 마을사람들은 앞날에 대한 희망을 잃고 죽지 못해 살아간다.

얼마후 이 마을에 젊은 교원이 찾아온다.

그는 인디안아이들에게 글을 배워주고 인디안들의 인권을 옹호하기 위하여 이 마을에 찾아온 진보적인 지식인이였다. 그런데 마을사람들은 그의 사심없는 말과 행동을 믿지 않고 그에게 지난날 싸뚜르니노에게 기만당한 분풀이까지 한다. 마을사람들은 그가 마을에 학교를 내오는것을 완강하게 반대한다. 그들은 자기들의 사랑하는 꼬이오찌오를 인디안의 원쑤로 만든것이 바로 학교라고 잘못생각했던것이다. 그들은 한 소년을 도시의 학교로 보내라는 지사의 지시도 단호히 거절한다. 소설은 소년을 학교에 보내지 못하도록 막아나서는 인디안마을사람들의 말없는 항거장면으로 끝나고있다.

장편소설 《폭발》은 인디안마을사람들의 생활을 고립적으로, 페쇄된 세계에서만 그리려고 한 장편소설 《인디안》과는 달리 그들의 운명을 메히꼬의 현실적인 생활과의 밀접한 련관속에서 그렸으며 인디안들과 지주, 관료배들과의 첨예한 갈등관계를 직접적으로 제시하였다.

작품은 싼 안드레마을사람들의 불행과 고통을 그 어떤 개별적인, 우연한 현상으로가 아니라 당시 메히꼬의 전체 인디안들이 처했던 일반적이며 공통적인 현상으로 보여주고있다. 또한 싼 안드레마을사람들의 운명을 통하여 당시 메히꼬 인디안들의 불행을 사회적인것으로 제기하고 그

러한 사회적불행을 없애야 한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작품에서는 또한 싸뚜르니노의 형상을 통하여 인디안농민들을 비롯한 메히꼬의 피압박대중을 불행과 고통속에 몰아넣는 착취자, 압박자들을 신랄히 폭로하고있다.

작품에 등장하는 주지사이며 대지주인 싸뚜르니노는 가짜선거공약으로 인민들을 기만하여 벼슬자리를 따낸 다음에는 선거공약을 줴버리고 인민의 압박자로 나선 기만적인 정치사기군이며 자기를 길러준 은혜도 잊어버리고 마을사람들을 가혹하게 착취하고 억압하는 횡포한 지주이다. 작품은 이러한자들이 바로 인디안농민들의 불행과 고통의 화근이라는것을 형상적으로 보여주면서 압박자, 착취자들을 규탄하고있다.

작품은 장편소설로서의 구성도 비교적 정연하다.

그러나 장편소설 《폭발》 역시 비판적사실주의작품으로서의 제한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있다.

소설은 인디안농민들의 불행을 동정하고 그들에 대한 압박을 비난하면서도 투쟁에 의해서만 그러한 불행을 없앨수 있다는 혁명적인 사상을 제기하지 못하고있으며 이러한 사회적불행은 어쩔수 없다는 숙명론에 귀착되고있다. 소설은 또한 라틴아메리카의 인디안농민들을 몽매한 사람들로, 동정과 련민의 대상으로만 그리는 결함을 나타냈다.

인디헤니스모문학에서 나타난 이러한 제한성은 이 문학의 발전과정에 점차 극복되였다.

《흩어진 구름》

그 대표적인 실례로 20세기 후반기에 나온 메히꼬작가 안또니오 로드리게스의 장편소설 《흩어진 구름》을 들수 있다.

소설은 지난 시기 인디안농민들의 생활을 반영한 작품들에서 나타난 본질적제한성을 일정하게 극복하고있다. 소설은 인디안들자신의 힘으로 자기 운명을 개척하기 위한 투쟁에 일떠설데 대한 사상을 제기하고 인디안들의 밝은 미래를 락관하고있다.

소설의 이야기는 메히꼬의 메스끼딸골짜기에 널려있는 수많은 가난한 인디안마을의 하나인 따끄씨에마을에서 벌어진다. 이 마을에서는 인디안오또미족사람들이 대대로 살아오고있었다. 이 일대는 불모의 땅으로서 다른 식물은 자라지 않고 오직 선인장만이 잘 자란다. 인디안사람들은 이 선인장을 중요한 생존수단으로 삼고 그것으로 갈증을 모면하였으며 그것을 재료로 하여 집 아닌 집을 짓고 그것으로 실을 뽑아 투박한 천을 짰다.

메스끼딸계곡에서 사는 인디안주민들은 특히 가물과 물기근으로 하여 항시적인 위협을 받았다. 마을부근에는 우물이 하나도 없어 녀인들은 물을 길러 먼곳까지 다녀와야 하였다. 물이 귀하여 선인장을 짜서 만든 음료를 마시였는데 그것을 마시면 머리가 아프고 몹시 취하였다. 그래도 갈증을 덜자니 그것이라도 마실수밖에 다른 도리가 없었다. 이러한 인디안마을사람들을 또 장사치들이 달라붙어 착취하였다. 이와 같이 세기적인 불행과 고통속에 살아오는 과정에 의혹과 절망, 순종과 무관심, 몽매와 미신 등 온갖 미개하고 락후한 사상과 인습이 마을을 지배하게 되였다.

하루는 이 마을에 인디안청년 뻬드로가 나타난다. 그는 본래 이 마을출신인데 몇해동안 도시로 공부하러 갔다가 교원자격을 받고 돌아온것이다. 그는 아직 명확한 투쟁방도를 모르고있었으나 인디안농민들의 생활을 개선하기 위하여 투쟁하려는 뜨거운 지향을 가지고있었다.

그러나 그는 첫걸음부터 난관에 부닥친다. 힘들게 학교로 쓸 집을 마련하고 개학은 하였으나 개학식날에 학교에 나타난것은 마을에 있는 180명의 학령아동들중 10여명에 불과하였다. 물이 없어 고통받는 마을사람들을 돕기 위하여 공동의 힘으로 우물을 팔것을 발기해나섰으나 그것마저 장사치들의 방해책동으로 파탄된다. 뻬드로가 마을사람들을 위하여 시작한 사업은 이렇게 모조리 파탄되였을뿐아니라 방해군들의 악선전으로 하여 오히려 마을사람들의 비난을 받게 된다. 하여 그는 마을을 뜬다.

마을에서 추방된 뻬드로는 메스끼딸골짜기의 여러 인디안마을을 돌아다니는 과정에 불행과 고통속에서 죽지 못해 살아가는 인디안농민들의 비참한 생활을 체험하며 자신의 나약한 마음을 채찍질하고 다시 고향마을로 돌아오게 된다.

따끄씨에마을로 돌아온 뻬드로는 무서운 광경에 맞다들게 된다. 급성전염병인 티브스가 퍼져 마을사람들이 무리로 쓰러지고있었다. 아직도

움직일 힘이 남아있는 사람들은 매일과 같이 가까운 사람들의 시체를 묘지로 날랐다. 뻬드로는 필사적인 노력을 다하여 도시에 가서 의사와 약을 구해오며 마을사람들을 구원하는데 성공한다. 이번 일로 하여 뻬드로는 드디여 마을사람들의 신임을 얻는다.

이 모든 일을 겪은 다음 뻬드로는 마을사람들을 투쟁에로 불러일으킨다. 이제 와서 뻬드로는 학교를 열고 아이들을 교육하거나 우물을 파거나 하는 소극적인 개선대책이 아니라 고통받는 인디안사람들에 대한 온 나라의 여론을 불러일으키며 인디안들의 삶의 권리를 옹호하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투쟁을 벌릴것을 결심한다.

그리하여 뻬드로의 지도밑에 헐벗고 굶주리는 인디안농민들이 멀리 수도를 향해 시위행진에 나선다. 이 행진을 파탄시키기 위해 원쑤들이 뻬드로에 대한 테로행위를 감행한다. 그러나 뻬드로는 부상당한 몸으로 그냥 시위행렬의 앞장에 선다. 그들이 수도를 향해 나아가고있을 때 마을에 남은 사람들이 뻬드로암살사건을 꾸민 마을의 착취자들, 원쑤놈들에게 징벌을 가한다.

작품은 인디안마을사람들이 시작한 이 투쟁의 길은 반드시 승리하고야말것이라는 락관주의에 충만되여있다.

장편소설 《흩어진 구름》에서 창조된 주인공 뻬드로의 형상은 인디안농민들의 운명을 다룬 라틴아메리카의 진보적문학에서 새로운 형상으로 된다.

인디안농민들을 동정하고 도와주는 인물에 대한 형상은 지난 시기에 창작된 인디안에 대한 작품들에서도 보편적이였다. 그러나 그들은 모두 인디안출신인물이 아니였으며 그저 제3자의 립장에서 소수민족사람들인 인디안들을 동정하고 그들을 도와주려고 했을뿐 그들과 끝까지 운명을 같이하지는 못하였다. 또한 그들은 작품에 일화적으로 등장하는데 그치고 작품의 주인공으로 등장하지는 못하였으며 인디안마을사람들의 운명을 개척하는데서 특별한 역할을 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이 소설의 주인공 뻬드로는 인디안출신으로서 자기 겨레의 불행과 고통을 덜기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 투쟁하는 적극분자로 형상되고있다. 이것은 오해를 사고 마을에서 추방당하다싶이 되였으나 한마을사람들을 위하여 다시 마을에 돌아와 무서운 전염병속에서 마을사람들을 구원하며 인디안들을 자주성을 옹호하기 위한 시위행진에로 불러일으키고 원쑤들의 책동으로 부상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대오를 떠나지 않는 뻬드로의 모습에서 잘 나타나고있다.

뻬드로의 형상에서 특이한것은 그의 성격발전과정을 인디안들의 자주성을 옹호하기 위한 투쟁을 통하여 보여준것이다.

뻬드로가 처음부터 인디안마을사람들을 이끌고나갈 힘을 가지고있은것은 결코 아니였다. 마을에서 처음 자기의 의도를 실현하려고 하였을 때 그에게는 의혹도 있었으며 동요도 없지 않았다. 그러기에 그는 자기가 선량한 마음으로 시작한 일들이 모두 파탄되고 마을사람들이 그의 선의에 악의로 대답하였을 때 몹시 섭섭해했을뿐아니라 야속하게 생각하였으며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투쟁에로 불러일으킬수 있겠는가 하고 생각하기까지 하였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생활체험을 통하여 자기의 생각이 잘못되였음을 깨닫고 마을사람들을 깨우쳐주고 그들을 투쟁에로 불러일으키기 위하여 모든 힘을 다하며 끝내 마을사람들의 신임을 얻고 그들과 함께 투쟁의 길에 나서게 된다. 그리하여 작품마감에 가서 뻬드로와 마을사람들은 한사람같이 뭉쳐 투쟁에 나서게 된다.

물론 이 작품에서는 아직 인디안들의 인종적 및 계급적해방을 위한 투쟁방도와 결과가 명백히 밝혀져있지 않다. 작품마감에 묘사된 인디안마을사람들의 수도에로의 행진은 그들의 투쟁의 시작에 불과하며 주인공 뻬드로자신도 이 투쟁을 어떻게 이끌고나갈것인가 하는데 대한 명확한 표상을 가지고있지 못한다.

그러나 세기적으로 억압당하고 멸시를 받아오던 인디안농민들이 각성되여 자주성을 옹호하기 위한 투쟁의 길에 나선 사실자체에 중요한 의의가 있으며 그것은 앞으로의 승리의 중요한 담보를 마련하는것으로 되였다.

메히꼬작가 로드리게스의 장편소설 《흩어진 구름》은 인디안농민들의 생활을 취급한 진보적문학작품들의 전통을 발전시키면서 새롭고 중요한 문제를 제기하고 그것을 일정하게 해결한것으로 하여 메히꼬와 라틴아메리카 진보적문학의 발전에서 의의있는 작품의 하나로 되였다.

20세기 이 지역의 진보적문학에서 주목되는것은 다음으로 인민들의 각성과 투쟁을 반영한 문

학 특히 반제반미주제의 문학이 발전한것이다.

미제를 비롯한 제국주의자들과 그와 결탁한 국내반동들의 가혹한 착취와 압박밑에서 참을수 없는 불행과 고통을 강요당한 라틴아메리카인민들은 20세기에 들어서면서 더욱 각성되여갔다.

그리하여 메히꼬와 중앙아메리카 및 까리브지역 나라들에서도 민족적 및 계급적예속에서 벗어나 자주성을 옹호하기 위한 인민대중의 투쟁이 힘있게 벌어졌으며 적지 않은 경우에 이 투쟁이 무장투쟁으로까지 발전하였다.

이 지역의 진보적작가들은 이러한 혁명적현실을 반영하여 인민들의 각성과 투쟁 특히 반미반독재투쟁을 반영한 작품들을 적지 않게 창작하였다.

그가운데서 1916년에 창작된 메히꼬작가 마리아노 아수엘라의 장편소설 《하층사람들》은 삶의 권리를 위한 메히꼬농민들의 무장투쟁을 사실주의적으로 반영한 작품으로서 이 주제분야에서 거둔 중요한 성과의 하나로 된다.(아수엘라와 장편소설 《하층사람들》에 대해서는 이 절 마감에서 따로 서술하였다.)

20세기 전반기에 널리 알려진 대표적인 반미주제작품의 하나는 꼬스따리까작가 루이스 까를로스 팔랴스의 장편소설 《마미따 유나이》(1940)이다. 작가는 이 소설에서 미제독점체 유나이테드 프루트회사의 소유로 되여있는 꼬스따리까의 바나나농장 고농들의 운명을 통하여 미제의 침략과 략탈정책을 직접적으로 폭로규탄하였으며 그를 반대하는 투쟁에로 인민들을 불러일으켰다.

그밖에도 뿌에르또 리꼬작가 엔리께 라게레의 장편소설 《불길》(1935), 과떼말라작가들인 아스뚜리아스의 장편소설 《대통령각하》(1933 창작, 1946 출판)와 쏘또 홀의 장편소설 《백악관의 그림자》, 니까라과작가 에르난 라블레떼의 장편소설 《오솔길우에 흐른 피》(1930)를 비롯한 많은 작품들이 창작되였다.

이 지역에서 반제반미주제의 작품들이 더욱 왕성하게 창작된것은 20세기 후반기에 와서였다.

제2차 세계대전후 20세기 후반기 반제반미주제로서는 시문학에서 빠나마시인 깔로스 쟝마린의 시 《양키 물러가라》와 《내 굴복하지 않으리라》, 아이띠시인 레나 더뻬스뜨라이의 시 《높뛰라 나의 심장아》, 도미니까시인 아베라르도 비씨오쏘의 시 《우리도 싸워가리라》를 비롯한 많은 작품들이 창작되였다.

빠나마의 깔로스 쟝마린의 시 《양키 물러가라》는 라틴아메리카인민들의 첫째가는 원쑤인 미제를 폭로단죄한 시이다.

미제는 일찌기 20세기초에 빠나마로부터 빠나마운하와 운하지대를 빼앗아낸 후 이 지대에 대한 식민지적지배와 략탈을 계속해왔으며 빠나마의 자주권을 엄중히 유린하였다. 그리하여 빠나마인민은 빠나마운하와 운하지대를 되찾기 위한 투쟁을 오래동안 줄기차게 벌려왔다.

이 시에서 시인은 빠나마운하와 운하지대를 빼앗고 빠나마인민에게 온갖 재난을 들씌운 미제를 신랄히 폭로규탄하였다.

피에 주린 미국양키들은
대포와 딸라를 끌어왔다
조국은 고난속에 운하를 잃었거니
원통하구나 해적의 검은 기발
빠나마성에서 가릉까지 꽂혔구나
…
놈들은 우리를 얽매려고
저들의 승냥이떼를 풀어놓았다
침략의 기발을 휘두르며
살인귀 미국양키들이
우리의 초원과 산들을 점령했거니
…

시인은 미제를 《피에 주린》, 《살인귀》, 《해적》으로 락인하면서 빠나마운하와 운하지대를 빠나마인민에게 돌려줄것을 강하게 요구하였다.

우리는 잠시도
네놈들의 식민주의멍에를
그냥 두지 않으리라
각성한 인민들은 웨치노라
마지막판가리싸움이다
미국양키들아 물러가라!
그리고 돌려보내라
우리의 운하를!

아이띠시인 레나 더뻬스뜨라이는 시 《높뛰라 나의 심장아》를 창작하였다.

내 보았노라 최후발악하는 불길을

내 보았노라 무너지는 놈들의 아성을
나의 심장아!
전제의 폭군 향해
벼락을 안기라!

내 들었노라 돌격의 북소리를
내 노래와 더불어
성난 물결 일으키며
추악한 모든것을 맞받아 나아가리!
추악한 모든것을 바다깊이 매장하리
내 들었노라 원쑤소탕의 북소리를!
개선가의 박자에 맞추어
내 번쩍이는 날창을 높이 들리라

시는 서정적주인공—흑인투사의 시적형상을 통하여 자유와 해방을 위한 투쟁에 떨쳐나선 아이띠인민들의 대중적투쟁모습을 형상적으로 보여주었다.

반제반미주제의 작품들은 소설문학에서도 많이 창작되였다.

그가운데서도 과떼말라작가 아스뚜리아스의 3부작장편소설 《세찬 바람》, 《푸른 법왕》, 《죽은 사람들의 눈》, 단편소설집 《과떼말라에서의 주말휴식일》, 온두라스작가 아마이아 아마도르의 장편소설 《고리라작전》(1966)이 널리 알려져있다.(아스뚜리아스와 3부작장편소설에 대해서는 이 절 마지막에 따로 서술하였다.)

또한 꼬스따리까작가들인 루이스 까를로스 팔랴스의 장편소설 《마르꼬스 라미레스》(1951)와 호아낀 구띠에레스의 장편소설 《뿌에르또 리몬》(1950), 빠나마작가 벨레니오의 장편소설 《푸른 달》(1951), 메히꼬작가 호쎄 만씨씨도르의 장편소설 《바다가국경선》(1953)과 《심연우에 비낀 노을》(1955), 니까라과작가 알파즈의 단편소설 《싼떼르모원숭이》 등 작품들이 이 주제형상에 바쳐졌다.

그 가운데서 주목되는것은 니까라과작가 리잔드르 차비즈 알파즈의 《싼떼르모원숭이》이다. 작품은 원숭이사냥을 다니는 미국인의 야만적인 행위를 폭로하고있다.

50마리나 되는 원숭이를 실은 한대의 화물자동차가 숲속을 달리고있었다. 미국장사치 로크 쿠버의 차이다. 운전대를 잡고있는것은 그의 종복이며 운전사이며 통역인 드러터이다. 몹시 더운 날씨였지만 로크는 다음날 오후 3시에 로체스터(미국 뉴욕주의 도시)에 도착하여 50마리의 원숭이를 쎄스미르제약회사에 넘겨야 한다는 생각에 쉬지도 않고 술만 들이키면서 차를 몰아댄다.

그런데 도중에 상자 하나가 떨어져 박살나면서 원숭이 두마리가 도망친다. 드러터는 화가 나 고래고래 소리지르는 로크를 안심시키면서 싼떼르모마을에서 원숭이를 보았다고 한다. 그러나 마을에서도 원숭이를 구하지 못한다.

그러자 흉악한 로크 쿠버는 마을밖에서 나무우에 올라가 놀고있던 벌거벗은 두 어린이를 원숭이라고 우기면서 드러터를 시켜 공기총으로 쏴떨구게 한다. 잃어진 두마리의 원숭이를 보충했다는 생각에 저으기 만족한 로크는 흥얼흥얼 노래까지 부른다.

화물자동차가 비행장에 도착한 다음날 두 아이가 원숭이와 함께 갇혀있다는 소문이 순식간에 퍼진다. 비행장당국은 여론의 압력에 못 이겨 가보긴 했으나 쿠버선생에게 특별허가증이 있으니 물어볼 권한이 없다고 하면서 그저 돌아간다. 그러나 풀 베러 나온 인부들은 낫을 들고 드러터와 쿠버에게 대든다.

바빠맞은 쿠버는 공중전화실로 달려가 자기 나라 대사에게 전화를 건다. 대사는 이 나라 경찰국장에게 전화를 걸고 경찰국장은 비행장부근의 병영에 전화를 한다. 몇분사이에 헌병들을 실은 자동차 한대가 비행장에 들이닥친다. 그들은 풀 베러 나온 인부들에게서 두 아이를 빼앗아 쿠버에게 넘겨준다.

이윽고 비행기는 로체스터를 향해 날아오른다. 비행기는 정시보다 7분간 늦어진다. 두 어린이를 구원했던 인부들은 6개월간의 금고형을 받는다. 로크 쿠버는 또 이 나라 정부에 비행기출발시간이 7분 늦어진데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한다.

이처럼 작품은 로크 쿠버의 형상을 통하여 미제침략자들, 신식민주의자들의 야만성과 악랄성을 생동하게 폭로하고 신랄히 규탄하고있다.

소설은 무엇보다도 미제국주의자들의 야만성과 미국놈들이 라틴아메리카에서 감행하고있는 죄행을 낱낱이 폭로하고있다.

소설에 등장하는 로크 쿠버는 제국주의자들에게 고유한 인종차별과 인간증오사상을 그대로 체현한 야만이다. 이자는 백인종만이 우수한 인종이라고 여기면서 유색인종들은 응당 백인

종의 지배와 멸시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하여 천진란만한 두 어린이를 원숭이로 사냥하여 제약회사에 팔아넘기는것과 같은 천인공노할 만행을 서슴없이 감행한다.

작품은 지난 시기 아메리카대륙의 원주민들을 야수적으로 학살한 로크 쿠버의 할애비 지호쎄프에 대한 회상을 통하여 로크 쿠버의 죄행을 미국이 라틴아메리카에서 감행한 학살만행의 력사와 결부시켜 폭로하면서 미제야말로 라틴아메리카인민들의 가장 흉악한 원쑤라는것을 생동하게 보여주고있다.

소설은 또한 로크 쿠버에게 고용된 운전사 드러터와 미제에게 예속된 이 나라 관리들이 자기나라의 어린이들을 원숭이로 팔아먹으려 하는 미국놈의 만행을 보고도 못 본척 하며 오히려 그놈을 보호해나서는것을 통하여 미제에게 예속된 괴뢰들의 추악한 몰골을 조소하고있다.

이처럼 20세기 메히꼬와 중앙아메리카 및 까리브지역나라들의 진보적문학에서는 인민들의 각성과 투쟁 특히 반제반미투쟁을 반영한 작품들이 매우 큰 자리를 차지하고있으며 그것은 이 지역 인민들을 반제반미투쟁에로 고무추동하는데서 중요한 역할을 놀고있다.

아수엘라와 장편소설 《하층사람들》

아수엘라는 20세기 메히꼬비판적사실주의문학의 대표자의 한사람이다.

마리아노 아수엘라(1873—1952)는 싼후안델로스리고스의 소상인가정에서 태여나 전문교육을 받고 의사로 되였으나 일찌기 문학창작을 지향하여 의사로 일하면서 소설을 쓰기 시작하였다.

그의 처녀작은 사회에서 버림받은 한 녀인의 불행한 죽음에 대하여 이야기한 단편소설 《대학생의 인상》(1896)이다. 그후 장편소설창작에로 넘어간 그는 류사한 주제의 《마리아 루이자》(1907), 메히꼬혁명전야의 한 지방도시의 암담한 생활을 묘사한 《실패를 거듭하는 사람들》(1908), 들에 퍼진 잡초처럼 농민들의 생활을 끈덕지게 압박하는 지주들의 전횡과 략탈을 폭로하고 지주와 농민사이의 계급적모순을 뚜렷이 보여준 《잡초》(1909), 자유주의적인 부르죠아지식인의 위선과 리기주의를 발가낸 《마데라파의 안드레스 뻬레스》(1911) 등의 장편소설들을 련이어 내놓았다.

그는 1910—1917년 메히꼬부르죠아민주주의혁명시기 빌리야농민군 군의로 있었으며 그 체험에 기초하여 메히꼬문학에서 혁명에 관한 첫 장편소설로 된 《하층사람들》(1916)을 발표하였다. 소설은 그의 대표작으로 되였다.

작가는 1920년대이후에도 왕성한 창작의욕을 가지고 현실을 사실주의적으로 반영한 장편소설들을 내놓았다. 《빤또하동지》(1937), 《레기나 란다》(1939), 《새로운 부르죠아들》(1941), 《지주》(1955 출판) 등이 그러한 작품들이다.

그는 자기의 창작생활기간에 22편의 장편소설들과 여러편의 단편소설들, 희곡들을 창작하였다.

그의 작품들에는 착취사회의 계급적모순과 착취계급의 부패성에 대한 예리한 폭로, 삶의 권리를 위한 메히꼬인민들의 투쟁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 현실의 진실한 사실주의적반영 등 긍정적인 측면들이 많다.

반면에 력사발전의 합법칙성을 옳게 인식하지 못했던 작가자신의 세계관적제한성으로 하여 염세주의사상이 나타나고있으며 일부 자연주의적요소도 드러내고있다.

그는 자기의 창작성과로 하여 메히꼬의 가장 이름난 사실주의작가의 한사람으로, 20세기 메히꼬문학에서 혁명에 관한 소설발전의 길을 개척한 작가로 알려지게 되였으며 메히꼬와 라틴아메리카의 진보적문학에서 확고한 자리를 차지하게 되였다.

아수엘라의 대표작인 장편소설 《하층사람들》은 1910—1917년 메히꼬부르죠아민주주의혁명을 시대적배경으로 하여 국내반동들과 지주들을 반대하고 땅과 자유를 위하여 용감히 싸운 농민무장부대의 투쟁과 그 운명을 그리고있다.

소설의 이야기줄거리는 주인공인 근로농민 데메뜨리오 마씨아스와 그가 지휘하는 농민무장부대의 활동을 따라 전개된다.

어느날 하루일을 끝낸 마씨아스가 집에서 가족들과 저녁식사를 하고있는데 갑자기 술에 취한 병사들이 뛰여들어 행패질을 하고 젖소까지 끌어간다. 격분한 마씨아스는 병사들과 싸우고 뒤산으로 몸을 피한다.

산에서 그는 여러명의 농민들을 만나게 되였는데 그들도 역시 지주와 반동들의 등쌀에 못 견디

여 도망쳐온 사람들이였다. 마씨아스와 농민들은 다른 지방에서처럼 자기들도 무장대오를 조직하고 지주와 반동들을 반대하여 싸울 결심을 다지며 농민무장부대를 조직한다.

마씨아스의 농민기마부대는 무장이 빈약하고 잘 훈련되지 못하였지만 정부군과의 첫 전투에서 승리하며 이것은 대원들의 사기를 북돋아준다. 이 전투에서 지휘관인 마씨아스가 부상을 당하여 산속깊은 마을에서 휴식한다. 이 마을에서 마씨아스를 따뜻이 간호해준 소박한 농촌처녀 까밀라는 그에게 깊은 인상을 남긴다.

그후 마씨아스는 새 사람들로 대오를 보충하고 빌리야의 농민군과 합류하여 전투에서 성과를 거둔다. 그리하여 마씨아스부대에 대한 소문이 널리 퍼지게 된다.

그러나 날이 갈수록 전투는 간고해진다. 수적으로나 무장장비에서 월등한 정부군의 공세가 강화되고 희생자들의 수가 늘어나자 동요분자, 도피분자들이 나온다. 이러한 때 빌리야의 농민군이 격파당한 소식까지 전해져 대원들의 사기를 떨군다. 하지만 마씨아스는 부대를 해산하지 않고 끝까지 싸움을 계속하려고 한다.

그의 부대는 조직되여 2년만에 고향마을이 있는 고장으로 돌아와 파괴되고 불타버린 집터들과 수많은 무덤을 보게 된다. 바로 이곳에서 부대는 정부군의 포위속에 들게 되며 마지막 한사람까지 용감히 싸우다가 모두 희생된다.

이처럼 소설은 손에 무장을 들고 싸움의 길에 나선 《하층사람들》 즉 메히꼬인민들의 용감한 투쟁모습을 통하여 착취와 압박을 반대하고 자주성을 옹호하는 투쟁에 나선 인민대중의 힘이 얼마나 큰가 하는것을 보여주었다.

바로 여기에 장편소설 《하층사람들》의 혁신성이 있다.

물론 라틴아메리카문학에서 싸우는 인민의 형상을 창조한 작품은 이 소설이 처음이 아니다. 이 소설보다 10년 앞서 1906년에 브라질작가 다 꾸냐도 자기의 작품 《쎄르딴지대》에서 압박과 착취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봉기를 일으킨 농민들이 자기들의 봉기구역을 사수하여 마지막 한사람이 남을 때까지 용감히 싸운 사실을 반영하였다. 그러나 《쎄르딴지대》에서는 그것을 토벌대를 따라간 한 량심적지식인의 눈을 통해 객관적으로 반영했을뿐 싸우는 농민들을 직접 주인공으로 설정하지 못하였으며 더우기 인민의 편에 서서 사태를 옳바로 그려내지 못하였다. 그와는 달리 《하층사람들》에서는 싸우는 농민들자신을 주인공으로 설정하고 그들의 지향과 사상감정, 앙양된 투쟁기세를 비교적 진실하게 보여주었다.

소설에서 싸우는 메히꼬농민들의 대표자로 등장하고있는것은 농민부대 지휘관인 데메뜨리오 마씨아스이다. 마씨아스는 착취와 압박을 반대하고 땅과 자유를 위하여 무장을 들고 일떠선 당시 메히꼬근로농민들의 전형적인 성격을 체현하고있다.

마씨아스의 형상에는 무엇보다도 메히꼬혁명시기 메히꼬농민들이 발휘한 원쑤격멸의 투쟁정신이 반영되고있다.

전투과정에서 그가 발휘한 용감무쌍한 행동을 묘사한 장면들에는 자기 위업의 정당성을 확신하고 투쟁에 일떠선 인민의 영웅성이 나래치고있다. 말 탄 마씨아스는 대오의 선두에 서서 깎아지른듯 한 바위우를 새처럼 질주하며 그의 모범을 따라 부대는 물샐틈없는 적의 진지를 기마돌격으로 점령한다.

마씨아스는 또한 자기들의 공동의 위업의 정당성을 확신하고 인민의 투쟁위업에 끝까지 충직한 농민지휘관으로 형상되고있다.

전투생활을 시작한 초기에 마씨아스는 고향마을과 가족을 그리워하면서 하루빨리 집으로 돌아가 자기의 땅에서 마음껏 농사짓기를 소원하였다. 그러나 날이 감에 따라 그는 이 싸움이 결코 간단히 끝날 싸움이 아니라는것, 이 투쟁은 그자신이나 그의 몇몇 동료들만의 투쟁이 아니라 전체 인민의 위업이라는것을 리해하기 시작한다.

그는 땅과 자유에 대한 모든 농민들의 숙망이 실현되기 전에는 집으로 돌아갈수 없으며 끝까지 싸움을 계속해야 한다는것을 깨닫는다. 하기에 마씨아스는 대세가 기울어진 조건에서 부대의 참모장격으로 있던 학생물림의 대원 쎄르반떼스가 금붙이들을 가지고 같이 외국으로 도망치자는 제기를 했을 때에도 그것을 단호히 거절하며 마지막까지 싸움을 계속하는것이다.

소설의 마지막장면은 매우 인상적이다.

《신부의 머리에 쓰는 희디흰 면사포마냥 짙은 안개가 높은 봉우리들을 휘감은 산들의 모습은 명절차림을 한것 같았다. 고대사원에 들어가는 입구처럼 틈이 난 골짜기에 데메뜨리오 마씨아스가 눈을 뜬채 숨이 끊어졌는데 그의 눈은 아직도

총을 겨누고있었다.》

총을 겨눈채 숨이 진 마씨아스의 자세는 마치도 메히꼬농민들이 시작한 투쟁은 끝나지 않았다는것을 보여주는 상징인듯 하다.

작가는 주인공 마씨아스를 강한 투쟁정신과 완강성을 가진 농민무장부대 지휘관으로 묘사하면서 어떻게 되여 그가 투쟁의 길에 들어서게 되였는가 하는데 대해서도 밝히고있다.

마씨아스는 메히꼬의 일반 농민들과 아무런 차이도 없는 평범한 농민으로서 글 한자 모르고 세상물정에 캄캄한 일밖에 모르는 소박한 농민이였다. 이러한 그로 하여금 반항의 길에 나서지 않을수 없게 만든것은 바로 지주들과 관료배들의 천대와 압박이였다. 가난속에서나마 평화롭고 단란하게 지내던 그의 가정은 하루아침에 파괴되고 경찰의 추격을 피해 뒤산으로 몸을 피한 그는 불길에 휩싸인 자기 집을 내려다보며 두주먹을 부르쥔다. 그에게는 갓난애기를 안은 안해가 불타는 집안에서 뛰쳐나오는 모습이 보이는것만 같았다. 그리하여 그는 이대로 주저앉을수 없다는것, 자신의 행복을 지켜 싸워야 한다는것을 깨닫고 투쟁의 길에 나섰으며 이 길에서 끝까지 충실하였다.

소설에서는 마씨아스부대 대원들의 형상도 참신하게 창조되여있다.

사리에 밝고 침착한 아나스따씨오 몬따네스는 필요한 경우에 지휘관을 맞대놓고 그에 대한 의견을 말하는것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감성적인 꼬르니스는 밤마다 불길한 꿈을 꾸며 항상 우울해있다. 자존심이 강하고 모욕을 참지 못하는 베난씨오는 이전에 약국에서 일했었다. 직선적인 성격의 소유자인 빤끄라씨오는 누구보다도 적에 대해 무자비하다. 혼혈인 메꼬는 롱담을 즐기고 매우 락천적이다.

이처럼 작가는 마씨아스부대의 대원들을 모두 비반복적인 성격적특징을 가진 개성적인물들로 형상하였다.

작품은 지난날의 불행하고 고통스러운 처지의 공통성이 바로 각이한 성격을 가진 이 사람들을 하나의 대오에 묶어세우고 투쟁에로 불러일으켰다는것을 보여주면서 이를 통하여 마씨아스의 농민부대가 고립된 대오가 아니라 메히꼬혁명시기 전국적으로 일어난 농민군의 한 고리이며 전인민적투쟁의 한부분이라는것을 밝히고있다.

사실주의작가였던 아수엘라는 농민무장부대에 참가한 사람들의 투쟁과 생활을 그리면서 결코 그들을 리상화하지 않았으며 당시 투쟁의 제한성을 사실대로 보여주었다.

마씨아스부대의 가장 큰 결함은 그 자연발생성과 무자각성이였다. 원래 자연발생적으로 조직되여 옳은 령도를 받지 못한 메히꼬의 농민군은 뚜렷한 투쟁강령과 명확한 투쟁방도도 없이 싸움의 길에 나섰다. 마씨아스부대 역시 여기서 례외로 될수 없었다. 이로부터 이 부대에서는 목적지향성있는 싸움이 아니라 자연발생적인 싸움이 더 많았으며 대원들은 락후한 생활인습에서 벗어나지 못하여 무규률적이고 자유주의적으로 행동하였다.

소설은 마씨아스부대의 결함들을 통하여 당시 메히꼬농민운동의 제한성을 그대로 보여주고있다.

소설에서는 땅과 자유를 위하여 생애의 마지막 순간까지 용감히 싸우는 마씨아스와 농민대원들의 형상에 자기 한몸만을 먼저 생각하며 투쟁을 회피하는 소부르죠아출신의 대원 쎄르반떼스의 형상을 대치시키고있다.

소설은 쎄르반떼스의 형상을 통하여 농민군의 대렬에 우연히 기여들었다가 시련을 이겨내지 못하고 대오에서 떨어져나가는 혁명의 일시적 동반자들, 자기 한몸만을 생각하면서 혁명의 리익을 저버리는 시정배들과 소부르죠아개인리기주의자들을 신랄히 폭로규탄하였다.

장편소설 《하층사람들》은 일련의 제한성도 가지고있다.

작품의 중요한 제한성은 인민대중의 투쟁을 그리면서 무장투쟁의 결과에 대한 실망과 염세주의에 빠지고있는것이다. 력사발전의 합법칙성을 옳게 인식하지 못한 작가는 빌리야의 농민군에 참가했다가 패배의 쓴맛을 본 자신의 체험으로부터 농민군의 투쟁의 비극적결말이 불가피하며 그들의 미래는 암담하다고 생각하였다. 그것은 마씨아스와 그의 부대가 2년전에 무장투쟁을 시작한 바로 그 자리에 돌아와 그곳에서 멸망하는것으로 처리한데서 찾아볼수 있다.

또한 작가는 작품의 전반을 어둡고 불안하게 그리고있다.

작품에는 비사실주의적인 예술적제한성도 드러나고있다. 작가는 자기가 직접 체험한 그 모든

것을 사실대로 보여준다고 하면서 투쟁에 일떠선 메히꼬농민들의 생활과 투쟁에서 나타난 본질적인것과 비본질적인것, 훌륭한것과 저속한것 등을 가려내지 못하고 그대로 옮겨놓음으로써 인민대중의 전형적인 생활과 투쟁을 바로 그려내지 못하였다.

또한 작품에서 작가는 독특한 구성형식을 쓴다고 하면서 중심이 없이 련속 교체되는 사건, 행동, 일화들로 작품을 끌고나가고있다. 이것은 소설에 박력을 주고 극적긴장성을 조성시킨 반면에 무의미하고 불필요한 사건, 일화, 세부들까지 끌어넣음으로써 구성의 째임새를 보장하지 못하게 하였으며 그 모든 형상요소들을 뚜렷한 형상적목을 가지고 주제를 밝히는데 빈틈없이 맞물리게 하지 못하는 결함을 발로시켰다.

작품의 이러한 제한성은 비판적사실주의계렬의 작가 아수엘라의 세계관적제한성과 그 당시 메히꼬에서의 혁명운동발전의 미숙성과 관련되여있다.

장편소설 《하층사람들》은 이러한 제한성을 가지고있으나 자주성을 옹호하여 손에 무장을 들고 일떠선 당시 메히꼬인민들의 투쟁모습과 그들의 높은 투쟁정신을 잘 보여줌으로써 메히꼬와 라틴아메리카 진보적문학의 발전에 이바지하였다.

아스뚜리아스와 《바나나3부작》

아스뚜리아스는 현대과떼말라의 진보적소설문학을 대표하는 작가이다.

미겔 안헬 아스뚜리아스(1899—1974)는 판사의 집안에서 태여나 청년시기부터 과떼말라민족해방운동에 참가하였다. 그는 종합대학을 졸업한 후 반동정부의 박해를 받고 1925년 유럽에 망명하였다.

그는 빠리에서 과떼말라원주민인 인디안들의 구전문학자료에 기초하여 《과떼말라의 전설》(1930)을 창작하여 이름을 날리였다.

그는 1933년에 귀국한 후 본격적인 창작활동을 벌려 친미독재정권의 반동성을 폭로한 장편소설 《대통령각하》(1946), 인디안들의 생활과 세태풍속을 반영한 장편소설 《마이스사람들》(1949)과 같은 작품들을 련이어 내놓았다.

그는 1954년 과떼말라에서 반혁명적국가정변이 일어나자 다시 망명하였다. 그가 쓴 작품들은 국내에서 반동당국에 의하여 모조리 회수소각되였다.

망명지에서 작가는 1950년부터 시작했던 3부작장편소설 《세찬 바람》(1950), 《푸른 법왕》(1954), 《죽은 사람들의 눈》(1960)의 창작을 끝냈다. 흔히 《바나나3부작》으로 불리우는 이 3부작을 내놓은 후 그의 명성은 더욱 높아졌다. 작가는 또한 미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과떼말라인민들의 영웅적항쟁을 반영한 단편소설집 《과떼말라에서의 주말휴식일》(1956)을 비롯한 여러편의 작품들을 창작하여 반제반독재투쟁에 이바지하였다.

과떼말라원주민인 인디안 마야족과 그들의 구전문학과 밀접히 련결된 그의 독특한 작품들은 일부 신비주의적이며 비현실적인 요소들을 나타낸 제한성을 가지고있으나 20세기 과떼말라와 라틴아메리카의 진보적문학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있다.

흔히 《바나나3부작》으로 불리우고있는 3부작장편소설 《세찬 바람》, 《푸른 법왕》, 《죽은 사람들의 눈》은 과떼말라에 대한 악명높은 미국바나나독점체 유나이테드 프루트회사의 침투와 략탈의 력사를 펼쳐보임으로써 라틴아메리카에 대한 미제의 침략과 략탈정책을 신랄히 폭로규탄하고 헐벗고 굶주리며 압박받고 천대받는 라틴아메리카인민들을 미제와 친미독재정권을 반대하는 투쟁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키였다.

중앙아메리카의 서북쪽 메히꼬와 잇달려있는 작은 나라 과떼말라에 대한 미제의 침략과 략탈은 일찌기 19세기말부터 시작되였다. 미제는 1898년에 침투한 유나이테드 프루트회사를 통하여 과떼말라를 사실상 제놈들의 식민지로 만들었는데 이때부터 과떼말라경제의 주요명맥은 《푸른 법왕》이라고 불리운 미국 유나이테드 프루트회사의 통제밑에 들어갔다.

이 독점체는 과떼말라의 전통적인 수출용 열대농산물인 바나나와 커피, 목화, 사탕수수재배지를 독점했을뿐아니라 철도, 항구, 발전소, 통신시설, 상하수도, 병원, 교회 등을 틀어쥔 하나의 종합기업체로 되였다. 이 회사는 또한 광산들까지 장악하고 지하자원을 깡그리 빼앗아갔으며 이 나라 수출의 4분의 3을 제놈들의 통제밑에 두고 매해 평균 1억딸라이상의 리윤을 짜내였다.

미제의 경제적략탈과 친미독재정권의 반인민적인 매국배족책동은 과떼말라인민들에게 헤아릴

수 없는 고통과 불행을 들씌웠다. 이 과정에 압제자들을 반대하여 손에 무장을 들고 용감히 일어나 싸우지 않고서는 자유와 해방을 쟁취할수 없다는것을 깨달은 과떼말라인민들은 1944년 10월과 1960년 11월에 대규모적인 무장폭동을 일으켜 미제와 친미독재정권에 심대한 타격을 주었으며 그후 유격투쟁을 힘차게 벌렸다.

아스뚜리아스의 3부작장편소설은 과떼말라의 이러한 현실에 기초하여 창작되였다.

3부작의 1—2부 《세찬 바람》과 《푸른 법왕》은 19세기말부터 1920년대에 이르는 시기를 반영하면서 미국독점회사 뜨로삐깔 쁘라따넬(유나이테드 프루트를 념두에 둔것이다.)이 어떻게 과떼말라에 침략의 마수를 뻗치고 이 나라의 경제명맥을 틀어쥐였으며 과떼말라인민들에게 참을수 없는 불행과 고통을 들씌우고 막대한 리윤을 짜내였는가를 폭로하고있다.

작품은 죠오 마이클 톰슨의 형상을 통하여 과떼말라에서 미국독점회사의 지배가 확립되여가는 과정을 보여주고있다.

다 낡아빠진 기선 한척을 가지고 려객수송과 해적질을 하던 톰슨은 자기 배를 팔아넘기고 뜨로삐깔 쁘라따넬회사에 고용되여 중앙아메리카의 작은 나라에 기여든다. 그가 맡은 임무는 이 나라에 회사소속의 바나나농장을 만들어놓는것이였다.

톰슨은 우선 이 나라의 지주들을 동업자로 만들고 지방정권당국을 매수하여 자기를 도와나서게 한다. 그런 다음 거짓약속과 위협공갈로 농민들에게서 헐값으로 땅을 사들인다. 그러나 이 일이 잘 진척되지 않자 그는 지방정권당국의 무력을 동원하여 날강도적인 방법으로 농민들의 땅을 략탈하며 그들의 반항을 폭력으로 진압한다.

여러해가 지나간다. 미국독점회사는 《국가안의 국가》로 되고 중앙아메리카의 여러 나라들을 예속시켜 해마다 막대한 리윤을 얻는다. 톰슨도 이 회사의 주요인물로 되며 《푸른 법왕》이라고 불리우는 이름난 바나나왕이 되여 널리 알려지게 된다.

그러나 톰슨의 야심에는 끝이 없다. 현지의 바나나농장에 파묻혀 살던 톰슨은 점차 자기의 활동무대를 미국안에까지 확대하며 회사의 본부가 있는 시카고로 다니면서 이 회사의 실권을 틀어쥘 막후공작을 벌린다. 여기서 목적을 달성한 톰슨은 드디여 이 독점회사의 총사장이 되여 시카고의 회사사무실에 틀고앉아 다른 나라들에 대한 침략과 략탈에 더욱 열을 올린다.

작품에서 창조된 마이클 톰슨의 형상은 제국주의략탈자의 전형적형상이다.

작가는 마이클 톰슨의 형상을 통하여 라틴아메리카나라들에서 미국독점회사의 지배가 확립되여간 과정을 보여주면서 미제국주의자들의 피비린내나는 침략과 략탈의 력사를 까밝히고 미제침략자들의 살인귀적만행을 가차없이 폭로규탄하였다.

작가는 제3부 《죽은 사람들의 눈》에서 인민들이 겪고있는 불행과 고통을 없애기 위해서는 미제국주의자들을 몰아내고 그 앞잡이노릇을 하는 국내반동세력을 타도해야 한다는 사상을 강조하였으며 종국적인 승리를 달성할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인민들의 조직된 투쟁의 길뿐이라는것을 명백히 제시하였다.

쓰라린 노예의 생활을 더이상 원치 않는 인민들의 항거의 정신을 작품에 일관하게 반영하면서 작가는 이 소설의 마지막부분에서 전인민적파업의 승리를 보여줌으로써 조직된 대중의 위력한 힘을 과시하고 인민들의 민족해방투쟁위업의 승리에 대한 확신을 표명하였다.

《바나나3부작》에는 아름답고 풍요한 과떼말라의 자연처럼 풍부한 서정이 일관하게 넘쳐흐르고있다. 작품은 특히 과떼말라의 원주민들인 인디안농민들의 언어적특성과 그들의 독특한 내면세계를 특색있게 형상하였다.

그러나 작품에는 제국주의략탈자의 형상에 설득력을 부여한 반면에 미제를 반대하는 투쟁에 용감하게 나선 인민대중의 대표자들의 형상을 창조하지 못하고 일부 신비주의적요소와 비현실적인 환상장면을 남기고있는것과 같은 제한성이 있다.

4) 브라질문학

부르죠아문학사조와의 투쟁속에서 사회주의적 사실주의작가를 배출시킨 브라질문학

20세기는 자주성을 옹호하기 위한 브라질인민의 투쟁이 새로운 단계에 들어선 력사적시기였다.

20세기에 들어서면서 브라질에 대한 미제의 정치경제적침투가 더욱 악랄해지고 군사독재정부의

친미반동정책이 우심해졌다.

1934년 군사정변에 의하여 수립된 반동적인 바르가스독재정권이 20여년간 폭압정치를 실시한데 이어 제2차 세계대전후에도 미제의 조작으로 1961년 8월, 1964년 3월에 련이어 군사정변이 일어나 군사독재정권이 수립되였다. 그리하여 브라질에서는 오래동안 군부가 정권을 장악하고 친미반동정책을 실시하면서 모든 민주주의운동을 탄압하여 정당들이 해산당하였거나 비법화되는 등 우심한 정치경제적위기가 조성되였다.

친미군사독재정권의 파쑈폭압통치밑에서 더는 살아나갈수 없게 된 브라질인민들은 미제와 그 주구들을 반대하는 투쟁을 힘있게 벌렸다. 날이 갈수록 인민대중의 투쟁이 고조되는 가운데 1954년 8월 독재정권이 붕괴되고 민주주의적인 새 정부가 섰다. 진보적인 정책을 실시하던 새 정부가 군사정변으로 전복되자 브라질인민들은 또다시 투쟁에 일떠서 장기간의 투쟁을 벌려 1985년 11월 군사정권으로 하여금 민정으로 넘어가지 않을수 없게 만들었다.

오늘 라틴아메리카지역이 반제자주의 기치밑에 전진하며 많은 나라들이 자주적으로 나가고있는 시대적추세에 맞게 브라질도 자주적으로 나가는 길에 들어서고있다.

브라질문학에서는 먼저 반동적통치배들의 리해관계를 반영하여 19세기말～20세기초부터 부르죠아반동문학사조, 류파들이 대두하였다.

19세기말에 오라보 비라끄(1865－1918) 등의 고답파, 끄루스 이 쏘우자(1861－1898) 등의 상징주의로부터 시작된 브라질의 부르죠아문학사조는 20세기에 들어와 초현실주의, 미래파를 비롯한 각양각색의 모더니즘류파를 형성하여 문단을 어지럽혔다. 그 대표적인 시인들로 마리오 드 안드라데(1893－1945), 오즈발도 드 안드라데(1890－1954), 마누엘 반디라(1886－1968) 등을 들수 있다.

그리하여 20세기 브라질의 진보적문학은 부르죠아문학사조, 류파들과의 대립투쟁속에 발전하였다.

20세기 브라질의 진보적문학에서 주류를 이룬것은 비판적사실주의문학이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비판적사실주의문학은 생활속에서 본질적이며 의의있는 현상들을 찾아내고 그것을 력사적현실과 결부시켜 구체적으로 진실하게 반영하는데서 큰 전진을 이룩하였습니다.》

브라질의 진보적문학은 19세기에 이어 20세기에도 비판적사실주의문학의 발전과정에 큰 전진을 이룩하였다.

20세기 브라질의 비판적사실주의문학의 선구자는 《쎄르딴지대》(1902)를 창작한 다 꾸냐이다. 다 꾸냐의 《쎄르딴지대》는 농촌과 농민문제를 커다란 사회적문제로 제기하고 거기에 사회적관심을 모음으로써 브라질문학에서 의의가 큰 작품으로 되였다.

다 꾸냐 다음에는 혼혈인작가 리마 바레또가 흑인문제를 들고나와 착취사회현실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였다.

브라질의 비판적사실주의문학은 다 꾸냐, 리마 바레또의 뒤를 이어 1930－1940년대 동북파작가들의 창작으로 더욱 발전하였다.

브라질의 바이아주를 비롯한 동북부지방에는 광활한 평원이 펼쳐져있어 농업에 유리하였다. 그러나 동북부지방의 비옥한 토지들은 한줌도 못되는 대농장주들이 차지하고 땅을 가지고있지 못한 절대다수의 농민들은 대농장주들의 가혹하고 야만적인 착취와 학대로 하여 기아에서 헤매였다. 하여 이 시기 동북부지방 농민문제는 브라질에서 큰 사회적문제로까지 제기되였다.

라쉘 드 께이로슈의 장편소설 《1915년》(1930)은 동북파작품들의 특징을 뚜렷이 보여준 첫 장편소설이다. 녀류작가는 이 소설에서 브라질 동북부지대 농민들의 비참한 처지와 그들이 당하고있는 기막힌 불행을 사실주의적으로 그려내였다.

소설의 주인공인 쉬꼬 벤또의 가정에는 계속 불행한 일만이 생긴다. 1915년 무서운 가물로 하여 곡식들은 말라죽고 집짐승들이 쓰러졌으며 가족들속에서 굶어죽는 사람들이 늘어난다. 이처럼 큰 불행과 슬픔을 당한 주인공은 몸부림친다. 그러나 정부도 사회도 그 누구도 그에게 구원의 손길을 내밀지 않는다.

작가는 소설에서 주인공이 당한 불행을 개인적불행으로가 아니라 사회적불행으로 확대하고 문제를 강하게 제기하였다. 그리하여 이 소설은 동북파소설의 선구적인 작품으로 되였다.

이 작품이 창작된 후 이와 류사한 내용을 담은

아만도 폰떼스의 《탈주민들》(1933), 대농장주가 운영하는 사탕농장 농민들의 생활을 그린 린스 두 레고의 5부작, 라무스의 《바싹 마른 생활》(1937), 아마두의 《끝없는 땅》(1942) 등의 장편소설들이 련이어 창작되였다.

작품들은 지방적특색이나 자연과의 투쟁을 주로 그린 지난 시기 작품들과 달리 브라질농민들의 처지문제, 그들에 대한 대농장주들과 반동정부의 가혹한 착취와 압박을 사회적문제로 제기함으로써 이 시기 문학을 한걸음 더 전진시켰다.

브라질비판적사실주의문학은 제2차 세계대전이후에도 문단에서 계속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였다.

이전시기부터 활동하던 작가들과 함께 신진작가들이 많이 진출하여 브라질 비판적사실주의문학발전의 튼튼한 토대를 쌓았다. 그중에서 두드러진것이 기마랑이스 로싸이다.

죠앙우 기마랑이스 로싸(1908—1967)는 외교관으로 있으면서 문학창작을 하여 이름을 날린 비직업작가이다. 그는 대표작인 장편소설 《대초원에 난 오솔길》(1956)에서 브라질의 대초원(쎄르딴)에 사는 주민들, 농민들의 생활을 폭넓게 반영하고 민간에서 쓰는 입말체를 도입하였다. 그는 그밖에 단편소설집 《싸가라나》(1946), 《끄르 두 발레》(1956), 《첫 이야기》(1962) 등의 작품들을 썼다.

20세기 브라질의 진보적문학은 그 발전과정에 프로레타리아작가와 사회주의적사실주의작가를 배출하였다.

그 대표적인 작가들로 동북파출신의 라무스와 아마두를 들수 있다. 특히 아마두의 창작이 문단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일찌기 청년시절부터 펜으로 혁명적프로레타리아트에게 복무하는것을 자기 임무로 여긴 죠르쥬 아마두는 《카카오》(1933), 《땀》(1934) 등의 장편소설들에서 카카오농장에서 일하는 로동자들을 비롯한 무산자들의 생활을 진실하고 생동하게 묘사하면서 그들속에서 자라나는 계급의식을 강조하였다. 죠르쥬 아마두는 그후 사회주의적사실주의작가로 자라났다.

20세기 브라질의 진보적작가들가운데서 이름난 작가로 다 꾸냐, 리마 바레또, 린스 두 레고, 라무스, 아마두 등을 들수 있다.

다 꾸냐 에우끌리데스 다 꾸냐(1866—1909)는 비직업작가로서 그가 남긴 작품도 《쎄르딴지대》(1902) 한편뿐이다. 그러나 이 작품이 커다란 사회적반향을 불러일으키고 문학발전에 큰 영향을 준것으로 하여 그의 이름은 브라질문학사에 오르게 되였다.

다 꾸냐는 뽀르뚜갈이민의 손자로 태여나 기술학교와 군사학교에서 공부한 다음 장교, 기사, 기자로 활동하면서 당시 브라질에 수립되였던 봉건군주제를 반대하고 공화주의적립장을 취하였다.

1889년 11월에 일어난 정변에 의하여 군주제가 철페되고 련방공화국이 수립된 이후에도 반동정부의 압박밑에 브라질인민들이 도탄속에서 헤매이고있던 현실은 그로 하여금 정부에 대하여 비판적으로 대하지 않을수 없게 하였다.

그는 특히 1897년 여름 바이아주로 원정하는 정부군 특파기자로 종군하면서 쎄르딴(초원)지대인 까누도스(지명)에 농민공화국을 세운 농민봉기군들과 정부군과의 싸움을 목격하고 커다란 충격을 받았다. 그후 그는 불행한 쎄르딴사람들의 옹호자로 되리라는 결심밑에 그들에 대한 책을 쓰는데 몰두하였다. 결과 《쎄르딴지대》가 창작되였다.

예술산문작품인 《쎄르딴지대》가 문학사적으로 큰 의의를 가지게 된것은 브라질문학에서 처음으로 농민생활을 진실하게 보여준데 있다.

이전시기 랑만주의문학에서 묘사된 농촌과 농민생활은 실지 현실과는 거리가 먼 리상화된 목가적인것이였다. 그러나 다 꾸냐의 작품에서는 초원지대에서 사는 농민들의 고역살이, 가물과 굶주림, 자연재해와의 힘겨운 싸움, 야생화된 생활과 절망적인 처지 등이 그 세부에 이르기까지 있는 그대로 반영되였다. 그러면서 쎄르딴지대농민들이 폭동을 일으키지 않을수 없었던 불가피성을 밝혀내고 그들에게 깊은 동정을 기울였다.

하여 작품은 농촌과 농민문제를 커다란 사회적문제로 제기하고 여기에 사회적관심을 돌리도록 하였다.

작품은 다음으로 폭동농민들에 대한 정부군《토벌》대의 야만적인 탄압과 만행을 폭로함으로써 착취사회의 부정면을 비판하는 문학으로서의 비판적사실주의문학의 특성을 보여주었다.

작가는 대포와 기관총, 보총으로 무장된 정규군이 얼마 안되는 폭동군을 진압하기 위해 반년

동안이나 싸워 마지막 한사람까지 학살한 만행을 숨김없이 묘사하고 특히 그 우두머리인 모레이라 쎄자르대좌의 몰골을 풍자적으로 그려냄으로써 반동정부와 군대의 반인민성을 여지없이 발가놓았다.

작품은 그것이 담고있는 절박한 사회적문제성과 함께 묘사의 진실성, 세부의 정확성, 강한 정론성 등의 예술적특징으로 하여 브라질비판적사실주의문학의 발전에 큰 영향을 주었다.

알폰쏘 엔리께스 두 리마 바레또(1881—1922)는 다 꾸냐보다 나이가 15살이나 아래였던것으로 하여 다 꾸냐가 겪었던것과 같은 격동적인 사변들을 체험할수 없었다.

그러나 그는 물라트(혼혈인)인것으로 하여 늘 인종적인 차별과 멸시를 당하였으며 생활에서 곡절을 겪지 않으면 안되였다. 어머니가 결핵으로 죽자 앓는 아버지까지 8식구나 되는 가족을 먹여살려야 할 짐을 지게 된 그는 대학을 중퇴하고 리오드쟈네이로교외의 빈민거리에서 살면서 도시빈민들의 가난한 생활을 직접 체험하였다.

이 과정에 부르죠아사회의 불합리를 깨달은 그는 자기의 작품들을 통하여 온갖 사회적질곡과 첨예한 계급적모순, 관료기구에 대한 비판정신을 고취하였다.

그의 작품으로는 장편소설 《옛 문헌집》(1909), 《뽈리까르쁘 끄바레즈마의 비참한 종말》(1915), 《곤자가 데 싸의 생애와 죽음》(1919), 《끌라라 도스 안쥬스》(1924), 단편소설집 《력사와 공상》(1920) 등이 있다.

이 작품들에서 작가는 20세기초 수도교외의 평민들의 생활 특히는 노예제도페지후 브라질흑인들의 비참한 생활에 대한 생동한 묘사를 통하여 착취사회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였다.

린스 두 레고

죠제 린스 두 레고(1901—1957)는 대학에서 법학을 전공하고 검사로 있다가 40살을 전후한 시기부터 소설창작을 시작하여 두각을 나타낸 작가이다.

그는 브라질동북지역 농민들의 생활과 자본주의적관계의 발전문제에 관심을 두고 사회적문제를 예리하게 밝혀내는데 힘을 집중하였다.

작가는 5부작장편소설 《농장에서 온 소년》(1932), 《바보》(1933), 《반게》(1934), 《흑인 리까르도》(1935), 《사탕공장》(1936)에서 브라질동북지역 로동자들과 농민들의 생활을 진실하게 반영하였다.

5부작장편소설의 주인공 까를로스 두 멜도는 빠라이바강골짜기에 자리잡은 부유한 농장주의 손자이다. 이 농장에서는 귀족농장주가 대대로 흑인노예들을 부리면서 가부장적인 생활을 계속해왔다. 그러나 주인공의 대에 와서 이곳에 침투한 자본주의적기업과의 경쟁에서 패배함으로써 귀족농장경리는 령락하고 가부장적농장생활은 파괴되고만다.

이 과정에 극도의 고역에 시달리는 농민들속에서 불만이 커지고 반항심이 자라난다. 작품의 마감에는 폭동을 일으킨 군중이 먹을것을 달라고 사탕공장식료상점으로 육박하며 무장경비를 서던 흑인 리까르도가 창고문을 마스고 식량을 내주려고 하다가 총살당한다. 폭동진압후 강이 범람하여 농장과 공장, 창고, 살림집들이 다 물에 잠기자 농장주도 공장주도 농민들도 모두가 큰물을 피하여 산으로 피난간다.

이를 통하여 소설은 인민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자들의 멸망은 불가피하다는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있다.

작품은 지난날의 가부장적생활에 긍정을 표시하고 일부 《인도주의적인》 가부장적귀족들에 대한 환상을 나타낸 제한성을 가지고있으나 사탕수수, 사탕가루생산과 관련한 실태, 농민들과 로동자들의 생활과 투쟁을 구체적으로 생동하게 반영한것으로 하여 동북파소설의 대표작의 하나로 알려지게 되였다.

작가는 이밖에도 《불이 꺼진 사탕공장》(1943), 《깡가쎄이루》(1953)를 비롯한 여러편의 장편소설들을 창작하였다.

린스 두 레고는 많은 장편소설들을 창작하고 브라질농민들의 생활과 당대 브라질현실을 진실하게 반영하였으며 심리분석과 인민들의 내면세계묘사에서 특기를 보여준것으로 하여 브라질비판적사실주의문학의 대표자의 한사람으로 되였다.

라무스

그라씰리아노 라무스(1892—1953)는 알레고아주태생으로 중학교 시학관으로 일하면서 소설창작활동을 벌려 작가가 된 사람이다. 그는 공산당의 지지자, 동정자로 진보적인 사회활동을 벌린것으로 하여 브라

질에서 반공테로가 감행되였던 1936년에 당국에 체포되여 감옥살이를 하였으며 사망하기 얼마 전에 브라질공산당에 입당하였다.

그의 대표적인 작품으로는 장편소설 《싼 베르나르도》(1934), 《고난》(1936), 《바싹 마른 생활》(1938) 등이 있다.

장편소설 《싼 베르나르도》는 머슴출신으로 싼 베르나르도농장의 소유자로 된 주인공 빠울로 오노리오의 형상을 통하여 당대 브라질현실을 비판적으로 보여준 작품이다.

완강한 기질과 건장한 육체를 가진 빠울로는 농장주가 되기 위해 모든 힘을 다하여 농장경영에서 무능력한 이전 농장주를 무자비하게 령락시키고 자기가 그 자리를 타고앉는다. 농장주가 된 다음에도 그는 놀고먹지 않고 머슴들과 똑같이 농장일에 투신하며 검박하게 생활한다.

그러나 농장주, 착취자로 된 빠울로는 착취계급의 리익의 옹호자로 되며 자기 농장에 고용된 머슴들을 착취하는데서 사정을 보지 않는다.

빠울로는 후대를 남기기 위해 결혼해야 하겠다고 생각하며 대상자를 고르다가 가난한 마을소학교 녀교원 마달레나를 안해로 맞이한다. 그는 부부간에 불화나 모순이 생기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한다. 그러나 가혹한 착취자로 행동하는 남편과 가난뱅이출신으로서 머슴들과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동정심이 많고 그들을 인간적으로 대하는 안해사이에는 날이 갈수록 간격이 벌어지게 된다.

심지어 빠울로는 안해가 공산주의자가 아닌가 하는 의혹까지 품고 그를 질투하며 못살게 군다. 남편의 구박과 등쌀에 견디지 못한 마달레나는 끝내 자살하고만다.

안해가 죽은 다음 빠울로는 정신적으로 공허하고 고독한 사람으로 변모되며 그의 농장은 령락되게 된다.

작가는 빠울로 오노리오의 운명을 통하여 착취계급과 피착취계급의 계급적대립과 모순의 불가피성을 밝혀내고 이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착취사회를 반대하여 싸워야 한다는 사상을 암시하였다.

《바싹 마른 생활》은 쎄르딴지대에서 지주의 집짐승을 맡아보는 한 고농일가의 비참한 생활을 보여준 작품이다.

주인공 파비아노의 식솔이란 안해 비또리아와 두 아이 그리고 개 한마리뿐이다. 그는 도시에서 사는 지주의 집짐승들을 방목하면서 살아가는 목동이다. 그가 집을 떠나는것은 한해에 두번 도시로 나가 석유와 천을 사올 때뿐이다. 그가 도시에 나타나기만 하면 세금을 내라고 관리들이 달려들고 경찰들이 매질한다. 지주는 임금계산을 할 때마다 이러저러한 구실을 붙여 계속 깎아내린다. 하여 언제나 그의 손에는 보잘것없는 액수의 돈이 남는다.

게다가 오래동안 비가 내리지 않아 혹심한 가물이 계속될 때면 파비아노의 고생은 말이 아니다. 초원의 풀이 다 타버리고 물도 말라버리면 집짐승들을 살려내기 위해 집을 떠나 산에서 방목한다.

왜 이다지도 살아가기가 힘든지, 왜 고생살이를 해야 하는지 파비아노는 생각하고 또 생각해보았으나 도저히 그 원인을 알수가 없다.

자기 운명에 묵묵히 순종하기만 하던 그는 어느날 마음속에서 울분이 치솟아 초원에서 맞다든 경찰놈을 요정내려는 충동에 사로잡히기도 한다.

작가는 고농 파비아노의 불행한 운명을 개인적인 불행으로가 아니라 수많은 근로대중이 겪고있는 사회적불행으로 보면서 선량하고 근면한 근로자들에게 불행만을 강요하는 착취자들과 그들이 주인노릇하는 착취사회에 대한 강한 항의를 제기하였다.

20세기 브라질문학에서 가장 이름난 작가는 죠르쥬 아마두이다.

아마두와 장편소설 《자유를 위한 지하투쟁》

죠르쥬 아마두(1912—?)는 브라질동북부 바이아주 일레우스시의 소농장주가정에서 태여나 리오드쟈네이로종합대학을 중퇴하였다.

그는 19살에 처녀작 장편소설 《사육제의 나라》(1931)를 창작하고 전문작가가 된 후 머슴군과 룸펜프로레타리아의 생활을 그린 장편소설 《카카오》(1933)와 《땀》(1934)을 창작하여 문단의 인정을 받았다.

그는 이때부터 반세기가 넘는 오랜 창작생활기간에 평이하고 시적인 문체와 생동한 묘사수단을 구사한 약 30편에 달하는 장, 중편소설들을 련이어 내놓아 세계적으로 공인된 소설가로 되였다.

그는 혁명적인 작가로서 주로 자기 고향인 브라질동북지방을 무대로 농장과 항만의 로동자, 농민들, 방랑자들과 하층민 등 가난하고 압박받는 브라질인민들의 생활과 투쟁을 힘있게 묘사하였다.

브라질흑인들의 구전문학에 기초하여 가난한 사람들의 생활을 반영한 《쥬비아바》(1935), 《죽은 바다》(1936), 19세기말 땅을 놓고 벌린 농장주들의 개싸움을 조소한 《끝없는 땅》(1943), 브라질농민들의 의식화과정을 보여준 《붉은 노을》(1946), 1937—1941년 브라질공산당과 인민들의 반독재투쟁을 그린 《자유를 위한 지하투쟁》(1954) 등 장편소설들이 그러한 작품들이다.

1950년대말이후 그의 창작에서는 구전문학과 환상적수법을 통하여 브라질인민의 자유애호적인 민족적특성을 표현하려는 지향이 강화되였다.

이 시기 주요작품으로 장편소설 《가브리엘라, 패랭이꽃과 계피》(1958), 《도냐 플로르와 그의 두 남편》(1966), 《방탕한 딸의 귀환》(1977), 《굉장한 매복—어두운 얼굴》(1984) 등이 있다.

그는 민족해방운동과 공산주의운동, 평화옹호운동에 적극 참가한것으로 하여 열한번 체포되고 두번 망명생활을 하였다. 그는 1945년에 공산당출신 국회의원후보로 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된 일이 있으며 브라질과학원 원사, 세계평화리사회 리사로 활동하였다.

자유를 위한 인민대중의 영웅적인 투쟁과 사회의 민주화를 위한 투쟁을 옹호한 그의 창작적특징은 대표작의 하나인 장편소설 《자유를 위한 지하투쟁》에서 잘 나타나고있다.

작가가 망명지에서 창작한 이 작품은 사회주의적사실주의창작방법에 기초하여 라틴아메리카인민들의 혁명투쟁을 생동하게 그려낸 성과작의 하나이다.

작품은 1930년대말 브라질의 현실을 시대적배경으로 하여 제국주의자들과 국내착취계급을 반대하는 브라질인민과 브라질공산당의 혁명투쟁을 폭넓게 그리면서 당시 브라질의 정세와 여러 계급, 계층의 동향도 다양하게 반영하고있다.

1930년대말 브라질의 현실은 매우 암담하였다. 1937년말에 군사정변을 일으켜 정권을 잡은 반동적인 바르가스독재정부는 파쑈적폭압소동을 일으켜 국내의 모든 민주주의운동을 가혹하게 탄압하고 공산당을 비롯한 모든 진보적정당들을 해산 또는 비법화하였다. 그후 브라질에서는 극심한 정치경제적위기가 인민들을 무겁게 짓눌렀다.

이러한 준엄한 시기에도 브라질공산당은 지하투쟁을 계속하여 미제와 파쑈독재를 반대하는 대중운동을 힘있게 조직령도하였으며 어느 하루도 자기 활동을 멈추지 않았다.

작가는 이러한 시기의 브라질현실에 깊이 침투하여 브라질공산당의 활동과 공산당의 령도밑에 브라질인민이 벌린 용감한 투쟁을 구체적으로, 생동하게 그려냈다.

작품은 제1편 《준엄한 시기》, 제2편 《굴속의 빛》으로 구성되여있다. 작가는 원래 이 작품을 3부작장편소설 《돌벽》의 제1부로 구상하였으나 사정에 의하여 2, 3부는 창작하지 못하였다.

작품에서는 이야기줄거리가 여러 갈래로 뻗어나가고있는데 그 중심에 놓여있는것은 브라질공산당의 간고한 지하투쟁선이다.

사건은 브라질의 산업중심지 싼 빠울로를 중심으로 하여 벌어진다.

군사정변에 의하여 반동적인 바르가스독재정부가 수립됨으로써 브라질공산당은 비법화되여 간고하게 지하투쟁을 벌린다. 이러한 악조건에서도 공산당은 군사정변에 항의하는 근로자들의 강력한 시위를 조직하며 광범한 민주력량을 묶어세우기 위한 적극적인 활동을 벌린다. 싼 빠울로지구에서 이 투쟁을 이끌어나간것은 주당지도부 성원들인 루이보, 죠안, 뻬드로, 까를로스 등 혁명가들이였으며 이 투쟁속에서 평범한 녀성로동자 마리아나가 그 무엇에도 굴할줄 모르는 혁명가로 자라난다.

투쟁과정에 변절자의 밀고에 의하여 싼 빠울로주당지도부성원들이 련이어 체포되고 당조직이 파괴된다. 원쑤들은 공산당의 《완전소멸》에 대해 떠들면서 일대 반공깜빠니야를 벌린다. 그러나 당은 자기의 사명을 상실하지 않는다. 남은 당원들은 당중앙이 파견한 비또르의 지도밑에 파괴된 조직을 복구하고 사태를 수습하며 새로운 투쟁을 준비한다.

소설에서는 브라질공산당의 투쟁이 일시 실

패하고 혁명력량이 큰 손실을 입는것으로 끝나고 있다. 그러나 소설은 결코 비관적이지 않다. 소설에서는 브라질혁명가들과 인민들의 투쟁의 길은 비록 간고하고 희생이 크지만 혁명은 계속되고 투쟁은 더욱 줄기차게 발전하며 반드시 승리할것이라는 신념이 맥박치고있다.

작품에서는 브라질공산당의 투쟁선과 교차되면서 건축가 마르꼬스 데 쏘우자와 무용가 마누엘라 등 지식인들의 운명선과 대자본가 꼬스따 발레를 비롯한 적대계급의 생활을 보여주는 선이 설정되고있다.

소설은 이러한 이야기줄거리를 따라가면서 혁명력량과 반혁명력량을 대표하는 각계각층의 수많은 인물들을 등장시켜 다양하고 복잡한 인간관계와 적대계급사이의 첨예한 갈등을 조성하고 있다.

소설은 혁명의 승리를 위하여 간고한 시련속에서 굴함없이 싸워나가는 인민대중의 투쟁모습을 생동하게 그려내였다.

작품에서는 무엇보다도 브라질인민의 투쟁을 앞장에서 조직령도하는 혁명가들을 두드러지게 형상하고있다.

작품은 브라질공산당 싼 빠울로주위원회 지도성원들인 루이보, 죠안 뻬드로, 까를로스들과 당중앙위원회 일군 비또르 등 브라질혁명가들이 정세가 불리하고 적들의 탄압이 우심하지만 적극적이고도 간고한 투쟁을 벌려 혁명을 전진시키는 모습을 생동하게 그려보였으며 혁명가의 성격을 창조하는데서 성과를 거두었다.

루이보, 죠안을 비롯한 혁명가들은 혁명에 대한 굳은 신념을 지니고 혁명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 투쟁하며 이 투쟁에서 가장 큰 기쁨과 긍지를 느낀다. 특히 루이보는 심한 폐결핵에 걸려 운신조차 못하는 몸이 되였지만 초소를 떠나려하지 않는다. 조직의 결정으로 료양소에 들어간 다음에도 그의 머리속에는 투쟁에 대한 생각이 떠나지 않았다. 그는 변절자의 밀고로 동지들이 체포되고 조직이 파괴되였다는 소식을 듣게 되자 위험을 무릅쓰고 시내로 들어가 조직을 복구하고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투쟁한다.

작품에는 변절자의 밀고로 적들에게 체포되여 야만적인 고문을 받았으나 끝까지 혁명가의 지조를 지키는 혁명가들의 모습도 생동하게 형상되여있다.

작품에서 창조된 평당원들의 형상가운데서 두드러진것은 방직공장 녀공 마리아나 아제베도의 형상이다.

로동자의 딸로 태여나 일찍부터 로동생활을 시작한 마리아나는 공산당원의 깨끗한 량심을 지켜 생애의 마지막순간까지 당에 충실했던 아버지의 뒤를 이어 투쟁하며 그 과정에 입당한다. 공장세포의 열성당원으로 활동하던 마리아나는 지하주당지도부 련락원의 중책을 맡게 되자 그 임무를 높은 책임감과 혁명적경각성을 가지고 훌륭히 수행한다. 그는 결혼하고 자식을 가진 어머니로 된 다음에도 혁명활동을 중단하지 않는다.

소설에는 그밖에도 당과 혁명에 충직한 수많은 당원들과 선진적인 로동자, 농민들이 형상되여있다.

작품에서 또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있는 것은 당의 지도밑에 우여곡절을 겪고 인민의 편으로 넘어오는 진보적지식인들의 형상이다. 그 대표적인물이 건축가 마르꼬스 데 쏘우자와 무용가 마누엘라이다. 작품은 애국적이며 진보적인 지식인들인 마르꼬스와 마누엘라가 우여곡절을 겪고 인민의 편으로 넘어오는 과정을 통하여 혁명사상의 진리성과 견인력을 보여주었다.

작품은 루이보, 죠안, 마리아나와 같은 혁명가들과 당원들, 각계각층 브라질인민의 투쟁을 통하여 공산당의 령도를 받는 브라질인민의 혁명투쟁은 반드시 승리하며 자본주의에 대한 공산주의의 승리는 필연적이라는 사상을 예술적으로 확증하고있다.

이것이 소설의 기본사상으로 되고있다.

작품에는 또한 부정인물들인 브라질인민의 원쑤들, 적대계급의 대표자들이 예리하게 폭로비판되여있다.

소설에는 인민의 원쑤들도 매우 다양하게 그려져있다. 작품은 특히 대자본가 꼬스따 발레의 형상에 많은 주의를 돌리면서 은행과 공장뿐아니라 광대한 토지와 철도, 신문사까지 가지고있는 브라질의 손꼽히는 재벌이며 보수세력의 우두머리인 이자의 반동적이며 반인민적인 본성과 악랄성을 구체적으로 발가내고있다. 작품은 또한 꼬스따 발레와 공동으로 망간광산을 개발하기 위하여 이 나라에 기여든 미국자본가 죤 카튼과 미국대사관 참사인 테오 그란트의 형상을 통하여 라틴아메리카인민들을 가혹하게 략탈하고있는 미제

침략자들을 폭로하고 미제와 국내착취계급의 결탁관계를 낱낱이 발가놓았다.

이와 반면에 작품은 혁명투쟁을 주제로 한 사회주의적사실주의작품창작에서 반드시 극복해야 할 일련의 제한성을 나타내였다.

작품은 무엇보다도 로동계급을 주인공으로 내세우고 계급해방을 위한 로동계급의 혁명투쟁을 그리면서 로동계급의 전형을 창조하는데서 기본문제인 혁명적세계관형성과정을 깊이있게 그리지 못하였다.

소설의 제한성은 또한 내용이 깊지 못한것이다. 작품은 부피가 두텁고 길이가 길며 사건과 생활규모가 방대하고 수많은 등장인물이 나온다. 하지만 어느 한 인물도 사건도 집중적으로 파고들어 심도있게 보여주지 못하였다. 때문에 소설의 내용은 산만하고 깊은 감동을 주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장편소설 《자유를 위한 지하투쟁》은 브라질인민들의 혁명투쟁을 반영한것으로 하여 브라질과 라틴아메리카 사회주의적사실주의문학의 발전에 이바지하였다.

5) 그밖의 남아메리카 나라들의 문학

20세기 이 나라들의 문학유산

남아메리카대륙의 북부에 있는 베네수엘라와 꼴롬비아, 안데스산줄기를 낀 서부의 에꽈도르, 뻬루, 볼리비아 등 안데스지역나라들, 남부의 칠레, 아르헨띠나, 우루과이, 빠라과이와 같이 에스빠냐어를 쓰는 남아메리카나라들도 20세기초에 미제국주의의 완전한 지배와 예속밑에 들어갔다.

그리하여 이 지역 인민들은 참을수 없는 불행과 고통속에서 신음하지 않으면 안되였다.

그러나 미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가혹한 략탈정책으로 말미암아 억압과 빈궁만이 지배하던 이 지역 나라들에서도 제2차 세계대전후 커다란 력사적변혁이 일어났다.

특히 1959년 꾸바혁명의 승리는 라틴아메리카에서 미제의 식민지통치체계를 밑뿌리채 뒤흔들어놓았으며 온 라틴아메리카를 혁명적폭풍우속에 휘몰아넣고 이 지역 인민들을 독립과 자유를 위한 성스러운 투쟁에로 힘있게 추동하였다.

꾸바혁명의 승리적전진에서 커다란 고무를 받은 이 지역 인민들은 미제의 침략과 예속화정책을 반대하며 나라의 자주적발전을 이룩하기 위한 투쟁을 더욱 힘차게 벌리였다.

뻬루와 아르헨띠나도 자주적으로 나갔으며 베네수엘라와 에꽈도르 등 많은 나라들이 민족적리익과 자주권을 수호하기 위한 투쟁을 강화하였다.

날을 따라 앙양되는 반미자주적지향은 20세기 남아메리카에서 막을수 없는 시대적추세로 되였다.

이러한 시대를 배경으로 하여 이 지역 나라들의 문학도 자기 발전의 길로 확고히 나아갔다.

20세기 이 나라들의 진보적문학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것은 인민들의 참을수 없는 불행과 고통을 반영한 비판적사실주의문학이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라틴아메리카에 대한 미제의 침략과 략탈정책은 이 지역의 사회발전을 저애하는 기본질곡으로 되고있으며 이 지역 인민들을 참을수 없는 불행과 고통 속에 몰아넣고있다.》

미제의 날강도적인 침략과 략탈로 말미암아 미제의 완전한 지배와 예속밑에 들어간 라틴아메리카 절대다수의 나라들에서 가장 혹독한 착취와 압박 그리고 참을수 없는 불행과 고통속에서 허덕인것은 바로 근로인민대중이였다.

하기에 남아메리카의 수많은 비판적사실주의 작가들은 자기들의 작품에 인민들의 불행과 고통을 진실하게 반영함으로써 절박한 사회적문제를 제기하려고 지향하였다.

이러한 지향은 일찌기 1905년에 발표된 칠레작가 발도메르 릴리오의 단편소설집 《땅밑에서》에서 확연히 나타났다. 이 단편소설집에서 작가는 외국독점체가 운영하는 칠레의 탄광과 광산들에서 일하는 로동자들이 얼마나 비인간적인 착취를 당하고있는가 하는것을 가식없이 있는 그대로 보여주었다. 작품집은 나오자마자 칠레의 진보적사회층에 큰 파문을 일으키고 근로대중에 대한 가혹한 착취와 압박에 항의하는 목소리가 울려나오게 하였으며 외국독점체들에 예속된 나라의 경제형편을 돌이켜보게 하였다.

이 단편소설집이 나온 이후 남아메리카의 여러 나라들에서는 미제를 비롯한 제국주의자들의 지

배와 예속밑에서 이 대륙의 인민들이 당하고있는 참을수 없는 불행과 고통을 반영한 작품들이 련이어 나오게 되였다.

인민들의 불행과 고통을 반영한 남아메리카 비판적사실주의문학에서 특색있는것은 푸른 지옥문학이다.

푸른 지옥이란 수많은 사람들을 불행과 고통속에 몰아넣는 생지옥으로 화한 남아메리카대륙의 끝없이 넓고 울창한 열대림(쎌바)을 의미하는 말이다.

남아메리카대륙에는 아마조나스강과 라쁠라따강류역을 비롯하여 곳곳에 무성한 열대림이 분포되여있다. 특히 세계에서 닐강 다음가는 긴 강인 아마조나스강류역의 열대림은 세계 어느 지역의 열대림에도 비길수 없으리만큼 울창하며 식물종류도 다양하다.

그러나 이 열대림의 풍부한 산림자원과 열대식물은 오래전부터 제국주의자들과 지주, 자본가들의 주요한 략탈대상으로 되여왔다. 제국주의자들은 열대림의 풍부한 자원을 략탈하기 위하여 원시림속에 수많은 사람들을 몰아넣고 노예적로동을 강요하였으며 그들을 가혹하게 착취하고 압박하였다. 열대림속에서는 초보적인 인권도 보장되지 않았으며 중세기적인 질서가 지배하고있었다. 사람들이 한번 그곳에 끌려온 다음에는 다시는 살아서 돌아가기가 힘들었다. 이처럼 사람들에게 생을 주고 생활조건을 보장해주던 열대림—쎌바는 남아메리카인민들을 참을수 없는 불행과 고통속에 몰아넣는 생지옥으로 변했다. 푸른 지옥이란 말에는 이러한 의미가 담겨져있다.

리베라와 장편소설 《소용돌이》

남아메리카문학에서 푸른 지옥문학의 시원을 열어놓은것은 꼴롬비아 작가 리베라의 장편소설 《소용돌이》였다.

호쎄 에우스따씨오 리베라(1889—1928)는 20세기 전반기 꼴롬비아의 대표적인 비판적사실주의작가의 한사람이다. 그는 처음 시인으로서 창작활동을 시작하여 자기 나라 자연의 아름다움을 서정적으로 노래한 시집 《약속된 땅》(1921)을 발표하여 문단의 인정을 받았다. 그는 특히 1924년에 장편소설 《소용돌이》를 내놓음으로써 꼴롬비아와 라틴아메리카의 진보적문학에서 확고한 자리를 차지하게 되였다.

이 작품의 기초에는 작가자신의 체험이 놓여있다. 리베라는 1922년에 꼴롬비아와 베네수엘라사이의 국경선을 확정하기 위하여 파견된 조사단에 망라되여 도시에서 멀리 떨어진 열대림지대로 려행한 일이 있었다. 그는 이 려행과정에 겉으로 보기에는 아름답고 매혹적인 열대의 자연속에서 벌어지고있는 몸서리치는 현실을 목격하고 큰 충격을 받았다. 그는 이 사실을 세상에 공개하려는 충동밑에 작품을 써내게 되였는데 그것이 바로 장편소설 《소용돌이》였다.

작품은 주인공 아르뚜로 꼬바의 일기형식으로 되여있다. 수도에 있을 형편이 못된 젊은 시인 아르뚜로 꼬바는 애인 알리씨아와 함께 수도에서 멀리 떨어진 지방으로 몸을 피한다. 그들은 인정이 후한 프랑꼬대위의 집에 류숙한다. 그런데 알리씨아와 프랑꼬대위의 안해 그리쎌다가 사기군 바렐라의 꾀임에 넘어가 아마조나스강류역의 열대림으로 끌려간다.

그리하여 꼬바와 프랑꼬는 각기 애인과 안해를 찾기 위하여 열대림속을 헤매게 되며 그곳에서 푸른 지옥의 진상을 목격하게 된다. 려행도중에 그들은 탈주한 로동자 엘리 메싸와 끌레멘떼 씰바로인을 만나며 씰바로인의 이야기를 통하여 푸른 지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의 비참한 처지를 더 잘 알게 된다. 꼬바와 프랑꼬는 끝내 애인과 안해를 찾아낸다. 그런데 그들 역시 푸른 지옥의 지배자들에게 걸려 빠져나오기가 어렵게 된다.

꼬바일행은 갖은 고생끝에 이자들의 마수에서 벗어나나 푸른 지옥의 소용돌이에서 빠져나오지는 못한다.

장편소설 《소용돌이》가 당시에 광범한 사회적반향을 불러일으킨것은 무엇보다도 열대림의 소용돌이속에 빠져 참을수 없는 불행과 고통을 당하는 근로대중의 생활을 진실하게 보여주었기때문이다. 또한 푸른 지옥에서 참을수 없는 불행과 고통을 겪고있는 근로자들의 생활을 반영한데 그치지 않고 푸른 지옥의 지배자들, 근로대중의 착취자, 압박자들을 폭로하였기때문이다.

소설의 주인공 아르뚜로 꼬바는 이전시기 꼴롬비아문학에서 볼수 없었던 새로운 성격형상이다. 그는 푸른 지옥의 진상의 객관적인 목격자, 전달

자만이 아니라 푸른 지옥의 희생자들을 옹호하는 투쟁의 길에 나서는 인물로 형상되고있다.

작품에서 끄바의 성격은 발전적으로 묘사되여있다. 소설의 첫 부분에 등장한 끄바는 반식민지반봉건사회의 타락한 도덕에 항거하고 개성의 자유를 옹호해나서는 고독한 반항자에 불과하다. 그러나 푸른 지옥의 세계에서 착취와 압박밑에 허덕이는 사람들의 비극적운명을 목격하고 그들속에서 참된 인간성을 발견한 끄바는 그들의 옹호자로 나서게 된다.

이것은 씰바로인에게 《당신들이 겪은 불행은 우리의 동정을 불러일으켰소. 이제는 당신들을 해방하는것이 우리 생활의 목적으로 될것이요. 나는 벌써 내 가슴속에서 자기희생성의 정신이 불타오르는것을 느끼고있소.》라고 한 주인공의 말에서 표현되고있다.

그러나 작품에서 불행한 사람들을 위해 몸바쳐 나서겠다는 주인공의 말은 선언에 그치고 행동에로 이어지지 못하며 그자신도 결국 소용돌이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죽는것으로 끝나고있다. 작품에는 신비주의적이며 숙명적인 제한성도 발로되고있다.

리베라의 장편소설 《소용돌이》가 나온 다음 푸른 지옥을 주제로 한 수많은 작품들이 련이어 창작되게 되였으며 그것은 하나의 작품권을 이루게 되였다.

인민대중의 불행과 고통을 반영한 남아메리카문학에서 또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있는 것은 원주민인 인디안들의 생활과 운명을 주제로 한 작품들이다.

인디안은 아메리카대륙의 원주민이며 고대인디안문화의 창조자로서 라틴아메리카지역의 주민구성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있다. 특히 남아메리카의 안데스지역 나라들(뻬루, 에꽈도르, 볼리비아)에서는 인디안이 주민의 과반수를 이루고있다.

그러나 에스빠냐의 식민지기반으로부터 독립한 이후에도 그리고 20세기에 들어와서도 인디안들의 처지는 개선되지 못하였다. 지난날 에스빠냐식민주의자들의 농장과 광산에서 노예로동을 강요당했던 인디안들은 미제를 비롯한 외국독점체에 속한 광산과 농장에서 노예로동을 강요당하였다. 한편 인디안들은 수백년동안의 천대와 압박, 노예살이속에서도 자기들의 옛 생활풍습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살아왔으며 농촌지대와 산간지대에서는 옛모습 그대로 공동체생활을 하는 인디안마을이 많았다.

이러한 인디안들의 처지는 남아메리카의 진보적사회층의 관심사로 되였다. 특히 문학분야에서는 《인디헤니스모》라고 불리우는 하나의 조류까지 발생하여 인디안의 생활과 운명, 그들의 력사와 풍속을 그린 많은 작품들이 나왔다.

인디안들의 생활과 운명을 주제로 한 문학작품을 처음으로 창작한것은 19세기 랑만주의작가들이였다. 랑만주의문학이 발전하던 시기에 장편소설 《꾸만다》(에꽈도르), 서사시 《따바레》(우루과이)를 비롯하여 인디안생활을 주제로 한 많은 작품들이 창작되였다. 그러나 이 작품들은 주로 인디안들의 과거를 리상화하여 그리거나 그들의 세태풍속을 묘사하는데 치중하고 인디안들의 현실생활을 진실하게 반영하지 못하였다.

남아메리카문학에서 인디안들의 생활과 운명을 주제로 한 새로운 사회소설이 발생한것은 19세기말부터였다. 여기에서 하나의 리정표로 된것이 뻬루녀류작가 끌로린다 마또 데 따르네르의 장편소설 《둥지없는 새들》(1889)이였다.

이 작품에서 작가는 지주와 승려들의 략탈의 희생물로 된 뻬루의 한 인디안마을사람들의 비극적운명을 사실주의적으로 그려냈다. 《둥지없는 새들》은 인디안들의 리상화된 과거가 아니라 그들의 비참하고 암담한 현실생활을 진실하게 형상함으로써 인디안에 관한 문학의 발전에서 새로운 단계를 열어놓은 작품으로 되였다.

이 작품이 나온 이후 인디안들의 생활과 운명을 주제로 한 많은 사회소설이 나오게 되였으며 그것은 20세기 라틴아메리카비판적사실주의문학에서 중요한 몫을 차지하게 되였다.

남아메리카에서 인디안을 형상한 문학이 발전한것은 안데스지역 나라들이였다. 안데스지역 나라들인 뻬루, 에꽈도르, 볼리비아는 고대인까문화가 개화했던 지역이고 그 주민의 과반수가 인디안들이다. 이것은 어느 나라보다도 이 지역 나라들에서 인디안의 생활을 주제로 한 문학이 발전할수 있는 좋은 조건으로 되였다.

인디안을 형상한 작품들이 먼저 나온것은 볼리비아였다. 볼리비아작가 알씨데스 아르게다스(1879—1946)는 1919년에 내놓은 장편소설

《청동색인종》에서 세계에서 제일 높은 곳에 자리잡은 띠띠까까호(해발 3 800m)주변에 있는 인디안 아이마라족마을에서 벌어진 일들에 대하여 이야기하였다.

여기서 작가는 인디안마을사람들에 대한 백인지주들의 압박과 략탈을 폭로하고 수세기동안 계속되여온 인디안에 대한 억압과 인종차별에 항의해나섰으며 불행과 고통속에서 허덕이는 인디안들에게 동정을 표시하였다. 작품에서 새로운것은 인디안들을 단지 천대와 압박에 말없이 순종하는 존재로만 묘사한것이 아니라 그들속에서 자라나는 반항의식과 압박자들을 반대하는 투쟁을 보여준데 있다. 마을의 장로 쵸께우안까는 이렇게 말한다. 《우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에게 기대할것이란 아무것도 없소. 놈들의 죄행에 대한 대답으로 우리가 놈들을 처단하기 위해 일어서는것은 옳은 일이요.》 이 말은 전체 인디안마을사람들의 의사를 대변하고있다.

이 소설이 나온 후 볼리비아에서는 인디안 아이마라족사람들이 당한 기만과 압박, 압제자들에 대한 분노와 항의의 목소리를 높인 알프레도 길리엔 삔또의 장편소설 《인디안의 눈물》(1920), 주석광산에서 일하는 인디안들의 비극적운명을 보여준 하이메 멘도싸의 장편소설 《뽀또씨의 땅》(1911)과 로베르또 레이똔의 장편소설 《영원한 방랑자》를 비롯한 여러 작품들이 나왔다.

에꽈도르에서도 페르난도 챠베스의 장편소설 《은과 청동》(1927), 호르헤 이까싸의 장편소설 《우아씨뿐고》(1934), 움베르또 마따의 장편소설 《쑤만그 알리빠(인디안어로 아름다운 땅이라는 뜻)》(1940)를 비롯하여 인디안들의 생활과 운명을 묘사한 여러 작품들이 창작되였다. 이 작품들은 다 강한 항거정신에 충만되여있는것이 특징적이였다.

이까싸와 장편소설 《우아씨뿐고》

그중에서도 호르헤 이까싸의 장편소설 《우아씨뿐고》는 에꽈도르의 테두리를 벗어나 라틴아메리카대륙적으로 널리 알려진 인디안에 관한 대표적인 작품의 하나이다.

호르헤 이까싸(1906—1978)는 끼또에서 태여나 끼또종합대학을 졸업하고 1930년대초부터 작가생활을 시작하였다. 그가 문단의 주목을 끌게 된것은 인디안들의 생활을 그린 장편소설들을 련이어 창작하였기때문이다. 그는 대표작인 《우아씨뿐고》(1934)외에도 《거리에서》(1935), 《혼혈인들》(1937), 《암흑속의 반세기》(1942), 《류랑자 로메로와 플로렌스》(1958) 등 소설들에서 인디안들에 대한 가혹한 착취와 압박을 폭로하였다.

《우아씨뿐고》란 인디안 께추아족의 언어로 땅뙈기를 의미한다. 께추아사람들은 이 말을 매우 귀중히 여긴다. 그것은 우아씨뿐고 즉 땅이 없이는 그들이 자기 존재를 생각할수 없기때문이다. 그들은 조상때부터 대대로 그 땅에서 살아왔으며 그 땅뙈기에 의거하여 굶주림을 면해왔다. 그런데 압박자, 착취자들의 마수가 그들이 숨어사는 산간벽촌에까지 뻗쳐온것이다.

이 작품에서도 한 인디안마을사람들의 수난의 력사가 이야기된다. 수도에 사는 훌리오 뻬레이라는 부유한 기업가는 미국인 챠삐와 돈벌이구멍수를 모색하던 끝에 경치좋은 산간지대에 있는 한 인디안마을을 없애버리고 그 자리에 미국인들을 위한 별장을 지으며 인디안들을 동원하여 그곳까지 도로를 닦자고 합의한다. 뻬레이라는 이 계획을 실현하기 위해 자기에게 빚을 지고있는 조카 알폰쏘 뻬레이라를 대리인으로 현지에 파견한다. 현장에 내려간 뻬레이라는 도로를 건설하기 위한 부역에 인디안들을 동원시키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그는 고대인까시대부터 내려오는 인디안들의 공동로동관습을 교활하게 리용하여 거짓약속으로 그들을 공사장에 끌어내며 말을 잘 듣지 않는 경우에는 위협하고 강권을 내휘둔다. 기본도로로부터 멀리 떨어져있는 인디안마을까지 통과하기 힘든 구간들, 산들과 습지대들에 길을 닦는 일은 매우 어려운 일이였다. 인디안들은 도로공사과정에 병에 걸려 쓰러지고 매를 맞아 쓰러지며 굶주려 쓰러졌다. 그들의 불행과 고통은 이루 헤아릴수가 없었다.

인디안들의 피타는 고역과 희생의 대가로 도로가 건설된다. 그러자 이제는 도로를 건설한 사람들, 인디안들이 불필요한 존재로, 《민족의 진보》를 위해 해로운 존재로 간주되며 《문명을 위한 투쟁》의 구호밑에 인디안마을을 소탕하기 위한 만행이 감행된다.

이때까지 참고참았던 인디안들의 분노가 폭발한다. 인디안들은 조상대대로 물려온 자기들의

신성한 땅을 지키기 위한 투쟁에 일떠선다. 《뉴깐치끄 우아씨뿐고!》(《땅뙈기는 우리의것이다!》)라는 인디안들의 웨침으로 소설은 끝나고있다.

장편소설 《우아씨뿐고》는 무엇보다도 기업가 훌리오 뻬레이라와 그의 조카 알폰쏘 뻬레이라의 형상을 통하여 인디안들의 압박자, 착취자들을 신랄히 규탄하였다. 이자들은 제놈들의 돈벌이를 위해서는 수많은 인디안들을 희생시키고 인디안들의 땅을 략탈하며 인디안들을 고향마을로부터 내쫓는 만행을 서슴지 않고 감행하는 야만들이다. 작품은 특히 미국인 챠삐의 형상을 통하여 미제와 국내 착취계급의 결탁관계를 발가놓고 반미사상을 강하게 제기하였다.

작품은 또한 미제와 국내착취계급의 억압과 략탈로 하여 인디안들이 겪은 참을수 없는 불행과 고통에 깊은 동정을 표시하고 압박에 항거하여나선 인디안들을 지지하였다.

그러나 작품은 인디안들이 계급적 및 인종적압박에서 해방될 참된 길을 밝히지 못하고 그들의 반항을 묘사하는데 그치였다.

안데스지역 세 나라가운데서 인디안들의 생활과 운명을 주제로 한 작품들이 많이 창작된 나라는 뻬루이다.

뻬루에서 인디안생활을 주제로 한 작품들을 처음으로 내놓은것은 엔리께 로뻬스 알부하르와 루이스 발까르쎌이다. 로뻬스 알부하르는 1920년에 발표한 작품집 《안데스단편소설집》에서 뻬루의 산간지대에서 사는 인디안들의 현실생활을 그리면서 헐벗고 굶주리는 인디안들의 심리를 사실적으로 반영하였으며 루이스 발까르쎌은 1921년에 발표한 장편소설 《안데스의 폭풍》에서 띠띠까까호수가에 사는 버림받은 인디안마을사람들의 비극적운명을 이야기하면서 인디안들의 전통과 문화를 긍정하고 인디안들에 대한 압박을 반대하였다.

뻬루인디헤니스모문학의 대표자들로는 쎄싸르 발레호, 호쎄 마리아 아르게다스, 씨로 알레그리아를 들수 있다.

공산당원인 쎄싸르 발레호(1892—1938)는 《검은 례배당》(1918)을 비롯한 시집들에서 단순히 인디안들의 생활을 재현하는데 그치지 않고 그들의 심리와 감정세계를 생동하게 반영하였으며 시의 운률에서 인디안들의 언어생활의 특성을 살리였다.

그는 또한 중편소설 《월프람광》(1931)에서 미제국주의자들의 지하자원략탈의 희생자로 된 뻬루인디안들의 수난의 생활을 반영하면서 그들을 반제민족해방투쟁에로 불러일으켰다.

그는 두번에 걸쳐 첫 사회주의나라 쏘련을 방문하고 에스빠냐공민전쟁시기에는 에스빠냐인민전선정부를 지원하여 적극적인 활동을 벌렸으며 시집 《에스빠냐여, 나에게서 이 술잔을 뺏어다오》(1937)에서 에스빠냐인민들의 정의로운 투쟁에 련대성을 표시하였다.

인디안들의 생활과 사상감정을 인민적인 형식에 담아 형상한 그의 시와 소설작품들은 뻬루와 라틴아메리카의 진보적문학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있다.

호쎄 마리아 아르게다스(1911—1969)는 빈농가정출신으로 리마종합대학을 졸업하고 1935년에 단편소설집 《물》을 발표한 때로부터 문단에 알려졌다. 뻬루의 농촌현실을 반영한 소설집에서는 물을 둘러싸고 벌어진 백인지주들과 인디안농민들의 첨예한 대립관계를 사실주의적으로 묘사하였다.

작가는 이어 《야마르명절》(1941), 《깊은 강물》(1958), 《온갖 인종의 피》(1964) 등 인디안들의 생활을 묘사하고 백인문화와 인디안문화의 충돌과 호상침투과정을 반영한 장편소설들을 창작하였다.

인디안주민들속에 깊이 들어가 그들의 생활을 깊은 동정을 담아 그려냈으며 인디안전설을 반영한것으로 하여 아르게다스는 남아메리카문학에서 인디헤니스모문학조류의 대표자의 한사람으로 공인되게 되였으나 가난과 병에 시달려 자살하였다.

씨로 알레그리아(1909—1967)는 1930년대초부터 민족해방운동에 참가하는 한편 문학창작활동을 시작하여 주로 인디안의 생활과 운명을 반영한 소설들을 창작하였다.

첫 장편소설 《금빛구렝이》(1935)에서 열대수림속에서 사는 인디안들의 공동체생활을 묘사한데 이어 장편소설 《굶주린 개들》(1939)과 《크고 낯설은 세계에서》(1941)에서 백인략탈자들에게 땅을 빼앗긴 인디안들의 비극적운명을 펼쳐보이면서 미제와 국내착취계급의 억압과 략탈로 하여 인디안들이 겪는 불행과 고통에 깊은 동정을 표시하였다. 그가운데서도 《굶

주린 개들》에서는 인디안들의 폭동장면을 형상함으로써 압박에 항거하는 그들의 권리를 시인하였다.

그러나 이 작품들에서 작가는 인디안들의 불행한 처지를 동정하는데 그치고 그 불행의 근원과 투쟁방도를 밝히지 못하였다.

알레그리아의 창작은 이러한 제한성을 가지고있으나 인디안의 생활과 운명을 주제로 한 뻬루와 라틴아메리카문학을 발전시키는데 이바지하였다.

20세기 남아메리카의 진보적문학에서는 인민들의 불행과 고통을 반영한 비판적사실주의문학의 발전과정에 점차 인민들의 각성과정과 해방투쟁을 반영한 작품들의 수가 늘어났으며 비판적사실주의문학의 제한성을 극복하고 사회주의적사실주의의 요소를 보여준 작품들, 나아가서 사회주의적사실주의작품들이 발생하였다.

자기 발전의 새로운 단계에 들어선 남아메리카문학은 시대의 요구와 자주의 길로 나아가는 인민들의 투쟁을 생동하게 반영함으로써 이 지역의 각계각층의 광범한 인민들을 자주성을 옹호하는 투쟁에로 힘있게 고무추동하였다.

우선 20세기 후반기에 와서 미제를 폭로단죄한 반제반미주제의 작품들이 선차적인 자리를 차지하고 량적으로도 많이 창작되였을뿐아니라 그 전투성과 형상성이 더욱 높아졌다.

남아메리카문학은 지난 시기 미제를 폭로단죄한 주제의 작품들을 창작하는데서 이미 일정한 성과를 거두었으며 경험도 일정하게 쌓았다. 그러나 지난 시기에는 이 주제의 작품들이 남아메리카문학의 주제령역에서 선차적인 자리를 차지하지 못하였으며 량적으로 적게 창작되였을뿐아니라 그 전투성이 약하였으며 형상성도 높지 못하였다. 20세기 후반기 남아메리카문학은 지난 시기 이 주제의 작품창작에서 나타났던 이러한 제한성을 극복하였다.

우루과이시인 로베르또 블란꼬는 시 《월가의 딸라》에서 딸라를 미끼로 라틴아메리카나라들에 침략의 마수를 뻗치고 파렴치한 략탈을 일삼는 미제를 단죄하면서 이렇게 노래하였다.

월가의 딸라여!
너는 이 세상에서 가장 치욕스러운 원쑤!
가장 무서운 범죄자!
딸라여! 월가의 딸라여!
너의 본거지는 월가
너의 림종을 고하는 북소리 울린다
네 소굴로 당장 돌아가라!

시에서는 딸라를 휘두르면서 라틴아메리카나라들에 기여들어 끊임없이 침략과 파괴책동을 감행하고있는 미제를 규탄하는 목소리가 힘있게 울려나오고있다.

그밖에도 베네수엘라시인 깔로스 아우구스뜨레옹의 시 《비애를 바다속에 처넣으라》, 칠레시인 빠블로 네루다의 시 《조국이여, 놈들은 그대를 나누어가지려고 한다》를 비롯한 많은 시들이 미제를 폭로하는데 바쳐졌다.

시문학과 함께 소설분야에서도 볼리비아작가 페르난도 벨라르데의 장편소설 《비애의 광산》을 비롯한 여러 소설작품들이 반제반미주제에 바쳐졌다.

20세기 후반기 남아메리카문학에서는 또한 미제를 폭로단죄한 주제와의 밀접한 련관속에서 라틴아메리카인민들의 해방투쟁을 반영한 주제의 작품들이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있다.

라틴아메리카인민들의 해방투쟁을 반영한 주제의 작품창작에서 나타난 새로운 특징은 이 지역 인민들의 민족해방운동과 혁명투쟁을 령도하고 그 투쟁의 앞장에 서있는 혁명가들과 로동계급의 투쟁을 형상하려는 지향이 더욱 높아진것이다. 이와 함께 남아메리카문학은 각계각층의 인민들이 해방투쟁에 떨쳐나서는 모습을 여러모로 생동하게 형상한 작품들을 적지 않게 내놓았다.

시대와 현실발전의 요구에 따라 이 주제의 작품창작에 대한 시인들의 열의가 높아진 가운데 라틴아메리카인민들의 해방투쟁을 반영하고 이 지역 인민들을 미제와 그 주구들을 반대하며 자유와 해방을 위한 투쟁에로 부르는 전투적인 시작품들이 많이 창작되였다.

산을 넘고 들을 지나
해방군 유격대원 나아간다
우리는 도시와 농촌의
자유의 선진투사들
우리는 도시와 농촌의
자유의 선진투사들

고통도 불행도
우리의 앞길 막지 못하리
죽음이냐 승리냐
우리는 끝까지 전진하리라
죽음이냐 승리냐
우리는 끝까지 전진하리라

…

붉은 벌판, 싼 루이스산줄기
우리는 싸운다…
제국주의철쇄를 끊어버리려
외세착취의 마수를 꺾어치우려
제국주의철쇄를 끊어버리려
외세착취의 마수를 꺾어치우려

베네수엘라혁명가요 《유격대의 노래》의 이 구절구절들에는 인민의 자유와 해방을 위하여 미제와 그 주구들을 반대하는 무장투쟁에 용감히 떨쳐나선 베네수엘라유격대원들의 원쑤격멸의 투쟁정신과 씩씩한 기개가 생동하게 시화되고있다.

칠레시인 알렘 로드리게스의 시 《총칼을 박차고》는 미제와 친미괴뢰도당을 반대하여 싸우다가 옥중생활을 하게 된 혁명가—서정적주인공의 불굴의 투지와 열렬한 투쟁결의를 노래한 작품이다.

서정적주인공은 깎아지른 절벽우 높은 곳에 있는 미겔레떼감옥의 어둑침침한 감방에 갇혀있다. 비록 팔다리에는 쇠고랑이 채워지고 자유잃은 몸이 되였으나 감옥도 총칼도 고문도 그의 투지를 꺾지 못한다. 인민들의 해방투쟁위업이 반드시 승리하고야말리라는것을 굳게 확신하고있는 서정적주인공은 앞으로도 인민의 자유와 해방을 위한 투쟁에 한몸바쳐나설 결의를 굳게 다진다.

오직 한길 혁명에서 살길을 찾자
《하느님도 임금도 영웅도 우리를 구제
　못하리
우리는 다만 제손으로 해방을 가져
　오리라》
가슴의 피는 끓어
철쇄를 짓부시고
자유의 날개는
나래를 펼친다
원쑤의 총칼 빼앗아 우리 무장하고
착취와 압박이 없는 자유세계로
서광을 향해 어깨겯고 나아가
우리의 원쑤 다 물리치고
잃었던 자유와 권리를
우리의 손으로 찾고야말리

이처럼 시 《총칼을 박차고》에서 시인은 감방에 갇힌 혁명가—서정적주인공의 내면세계를 펼쳐보이면서 라틴아메리카혁명가들의 굴할줄 모르는 투쟁정신을 격조높이 노래하였다.

그밖에도 칠레시인 빠블로 네루다의 서사시 《위훈의 노래》, 베네수엘라녀류시인 벨라스께스의 시집 《시가는 반항한다》(1955), 꼴롬비아시인 마누엘 쎄뻬다 바르가스의 시집 《너는 승리하리라 마르께딸리아여》(1964), 빠라과이시인 알베오 로메로의 시 《서광의 병사》를 비롯하여 라틴아메리카인민들의 해방투쟁을 노래한 많은 시작품들이 창작되였다.

그가운데서 빠블로 네루다의 《위훈의 노래》가 특출한 자리를 차지하고있다.(빠블로 네루다와 《위훈의 노래》에 대해서는 마감에 따로 서술하였다.)

라틴아메리카인민들의 해방투쟁을 반영한 주제의 작품창작은 시문학에서만 아니라 소설문학에서도 활발하게 진행되였다.

여기서 우선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것은 혁명가들과 로동계급의 투쟁을 형상한 작품들이다.

수용소에 감금된 정치범—공산당원의 불굴의 의지와 완강한 투쟁을 묘사한 칠레작가 떼이뗄보임의 장편소설 《모래우에 뿌린 씨앗》(1957), 칠레로동계급의 생활과 투쟁을 반영한 장편소설들인 《북부지대》(안드레스 싸벨리에, 1944), 《초석》(루이스 곤쌀레스 쎈떼노, 1954), 《빰빠의 주인공》(쎈떼노, 1956), 《석탄》(디에고 무니오스, 1954), 《동지인 나의 아버지》(발따싸르 까스뜨로, 1957), 우루과이작가 엔리께 아모림의 장편소설 《끄랄 아비에르또》(1956)를 비롯한 많은 작품들이 여기에 속한다.

이와 함께 농민들의 생활과 투쟁을 형상한 작품들도 창작되였다.

평범한 고농이 계급적으로 각성하여 투쟁의 길로 나서게 되는 과정을 생동하게 보여준 우루과

이작가 알프레도 그라비나의 장편소설 《바람에 끊어진 경계선》(1956), 농민들의 의식발전과 투쟁을 반영한 장편소설들인 에꽈도르작가 헤쑤스 라라의 《우리의 피》(1959), 아르헨띠나작가 에르네스또 까스뜨로의 장편소설 《개간된 전야》(1953), 꼴롬비아작가 까발리에로 깔데론의 《땅없는 씨에르보》(1954) 등 작품들을 그 례로 들수 있다.

로동계급과 농민들의 투쟁을 형상한 작품들과 함께 각계각층의 광범한 인민들의 반독재민주화투쟁을 형상한 작품들도 창작되였다.

1950년대에 꼴롬비아에서 《폭압에 관한 소설》이라는 명칭밑에 나온 장편소설들인 호쎄 안또니오 오쏘리오 리싸라쏘의 《증오의 날》(1952), 다니엘 까이쎄도의 《메마른 바람》, 프랑끄 이싸스의 《골짜기의 빨찌산들》, 움베르또 가비리아의 《달과 보총》(1960), 에꽈도르작가 알프레도 디에스 깐쎄끄의 장편소설 《예고》(1956), 베네수엘라작가 미겔 오떼로 씰바의 장편소설 《죽음의 집들》(1955)과 《침묵을 지킨 다섯사람》(1963), 꼴롬비아작가 가르씨아 마르께스의 장편소설 《백년간의 고독》(1967) 등이 여기에 속한다.

오떼로 씰바와 《침묵을 지킨 다섯사람》

미겔 오떼로 씰바(1908—1985)는 베네수엘라 북부의 항구도시 바르쎌로나에서 태여나 1928년에 진보적인 학생운동에 참가한것으로 하여 체포되여 추방당한 일이 있었다. 그는 1943년에 진보적인 신문 《나쇼날》을 창간하고 그 주필로 되였다.

그는 1930년대에 시창작을 시작하여 《물과 수로》(1937), 《25편의 시》(1942) 등 시집을 발표하였으나 시인으로보다 소설가로서 더 잘 알려졌다.

그는 대표작인 《침묵을 지킨 다섯사람》외에 현대베네수엘라에서 제기된 사회정치적문제들을 반영한 《열병》(1939), 《죽음의 집》(1955), 《열대의 대초원에 있는 도시》(1961), 《울고싶어도 울지 않는다》(1970), 《자유의 왕 로뻬 데 아기레》(1979)와 같은 장편소설들을 썼다.

장편소설 《침묵을 지킨 다섯사람》은 지난날 친미독재정권을 반대하여 용감히 싸운 베네수엘라 인민들의 투쟁모습을 형상하면서 자주적으로 살것을 바라는 시대의 요구를 뚜렷이 반영하였다.

작품은 1957년부터 1958년초까지를 시대적배경으로 하고있다. 이 시기는 베네수엘라에서 뻬레스 히메네스의 반인민적독재통치가 무너져가던 시기였다.

제2차 세계대전후에 집권한 히메네스친미군사독재정부(1948—1958)는 미제와 각종 군사협정을 맺고 미국독점자본을 대대적으로 끌어들였으며 군대와 경찰을 대폭 늘이고 인민들을 탄압하였다. 하여 히메네스도당의 가혹한 파쑈테로정책을 반대하는 보다 광범한 대중들이 반독재투쟁에 합류하였다. 드디여 1958년 1월 까라까스와 기타 도시들에서 로동자들의 정치파업이 일제히 시작되였으며 그것은 곧 무장폭동에로 넘어갔다. 폭동에 궐기한 인민들과 애국적군인들에 의하여 히메네스친미파쑈독재정권은 거꾸러졌다.

장편소설 《침묵을 지킨 다섯사람》은 이러한 시기의 베네수엘라현실을 시대적배경으로 하여 히메네스의 독재통치를 반대하는 투쟁에 참가했다가 체포된 다섯명의 정치범들이 원쑤들의 온갖 악착한 고문을 이겨내는 모습을 생동하게 형상하였다.

소설은 총 2편으로 구성되여있다. 소설의 제1편에서는 베네수엘라의 수도 까라까스로부터 비행기로 호송되여 한 감방에 갇히게 된 다섯명의 《죄수》들이 각기 자기들의 투쟁경로와 체포된 경위, 원쑤들의 악착한 고문에 대하여 이야기하는것으로 되여있다. 제2편에서는 다섯명의 정치범들의 감방생활을 펼쳐보이면서 그들이 서로 고무하고 도우면서 시련을 이겨내고 앞날의 투쟁을 준비하는 과정을 그리였다.

소설의 주인공들인 다섯명의 정치범들은 각이한 직업과 나이, 지식수준을 가진 여러 계층의 사람들이다. 그들가운데는 평범한 회계원과 리발사가 있는가 하면 지식인인 신문기자와 직업적군인인 대위가 있으며 베네수엘라공산당 중앙위원회 후보위원인 의사도 있다.

그들은 서로 다른 사상과 리념, 정견과 신앙을 가졌지만 다같이 자주적으로 살것을 지향하여 반미반독재투쟁에 적극적으로 나섰다가 체포된 사람들이였다.

소설은 원쑤들의 야만적인 고문을 이겨내고 조직의 비밀을 지켜 한결같이 침묵을 지킨 그들의

강의한 의지와 굳센 투쟁모습을 생동하게 보여주었다.

이처럼 작품은 자주성을 옹호하는 투쟁에 용감히 떨쳐나선 라틴아메리카인민들의 투쟁정신과 혁명적기개를 반영하고 투쟁이 간고하고 희생이 크다고 하여도 압제자들을 반대하고 자유와 해방, 행복한 새생활을 이룩하기 위한 인민들의 투쟁은 반드시 승리하고야말리라는 신념과 락관주의정신을 보여주었다.

20세기 이 지역 나라들에서 가장 이름난 작가는 베네수엘라의 갈레고스, 아르헨띠나의 바렐라, 칠레의 빠블로 네루다, 꼴롬비아의 가르씨아 마르께스이다.

갈레고스와 장편소설 《도냐 바르바라》

로물로 갈레고스(1884—1969)는 20세기 베네수엘라와 라틴아메리카 비판적사실주의소설문학을 대표하는 작가의 한사람이다.

대학을 졸업한 후 교단에 서기도 하고 잡지발간사업도 하고 사회활동에도 참가한 그는 1910년대초부터 문학창작을 지향하여 단편소설을 쓰다가 1920년에 첫 장편소설 《레이날도 쏠라르》를 발표한 다음부터 문단에 알려지기 시작하였다. 한 청년지식인의 비극적운명을 통하여 자기 나라의 암담한 현실을 보여준 이 작품에는 조국의 운명에 대해 우려하는 작가의 애국주의감정이 잘 표현되여있다. 이러한 지향은 그후 작가의 창작을 일관하는 특징으로 되였다.

그때까지 아직 신진작가에 불과했던 그는 1929년에 두번째 장편소설 《도냐 바르바라》를 발표하면서 일약 유명한 작가로 되였다. 그 강한 비판성으로 하여 국내에서 출판되지 못하고 에스빠냐에서 출판된 이 소설은 내외의 높은 평가를 받았다.

문학창작과 함께 독재통치를 반대하는 사회정치활동에 적극 참가한것으로 하여 그는 정부의 박해를 피하여 1931년부터 1936년까지 망명생활을 하였다. 이 망명기간에 그는 장편소설 《깐따끌라로》(1934)와 《까나이마》(1935)를 창작하였다.

이 두 작품은 다 《도냐 바르바라》와 마찬가지로 문명과 야만사이의 투쟁문제를 제기하였다. 작품들에서는 문명의 허울을 쓴 야만적인 현실에 반항하여 초원으로, 인디안들속으로 들어가는 청년지식인의 운명을 따라 무법천지, 지주들의 압박, 인민들의 고통, 엄혹한 자연 등 야만의 세계를 펼쳐보이면서 이 야만과의 투쟁에서 문명이 승리하리라는데 대한 믿음을 표시하였다.

1936년에 귀국한 그는 독재통치를 반대하고 부르죠아민주주의개혁을 주장한 한 정당의 위원장이 되여 사회의 민주화를 위한 정치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서게 되였다. 사회정치활동가, 작가로 유명해진 그는 1947년에 진행된 대통령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되였으나 그가 실시한 진보적시책들을 달가와하지 않는 미제의 조종밑에 국가정변이 조작되여 또다시 망명의 길에 오르지 않으면 안되였다.

11년만인 1958년 독재통치가 거꾸러진 후 귀국한 그는 창작활동과 사회정치활동을 계속하다가 85살에 사망하였다.

이 기간에 창작된 작품들가운데는 《불쌍한 흑인》(1937), 《타향사람》(1942), 《바로 그 땅에서》(1943), 《바람과 맞서는 지푸라기》(1952) 등의 장편소설들이 있다.

《불쌍한 흑인》은 19세기 독립전쟁과 흑인노예제폐지투쟁을 그린 력사소설이고 《타향사람》은 지방당국과 지주들의 전횡을 반대하는 소도시주민들의 투쟁을 반영한 작품이다. 《바로 그 땅에서》는 베네수엘라의 원유채취의 중심지인 마라까이보를 무대로 원유장사로 벼락부자가 된 기업가들의 사치하고 부화방탕한 생활과 그자들의 착취와 략탈로 빈궁과 고통속에 빠진 인민들의 생활을 대치시키면서 미국원유독점체들의 침략과 략탈을 폭로하였다.

《바람과 맞서는 지푸라기》에서는 1930년대 독재통치를 반대하는 꾸바청년학생들의 투쟁을 형상하였다.

갈레고스는 력사발전과 사회혁명의 합법칙성을 옳게 인식하지 못한데로부터 인간의 운명개척과 사회발전에 미치는 자연의 영향력을 지나치게 과장하고 혁명투쟁이 아니라 부분적인 사회개혁과 인간의 도덕적개조로써 사회계급적문제를 해결하려고 지향하는것과 같은 제한성을 드러냈다. 그러나 그는 진보적인 내용을 담고 예술적가치가 있는 여러편의 장편소설들을 창작한것으로 하여 베네수엘라와 라틴아메리카의 사실

주의문학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있다.

그의 대표작인 장편소설 《도냐 바르바라》는 당대 베네수엘라의 열대수림초원(싸반나)을 무대로 하여 목동들의 생활과 투쟁을 그린 작품이다.

수도 까라까스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변호사의 자격을 얻은 주인공 싼또스 루싸르도는 고향인 알따미라목장으로 돌아온다. 그는 이웃의 녀지주 도냐 바르바라가 야만적인 방법으로 그 일대의 땅과 소와 말들을 강탈하고 대목장주가 되였으며 지방당국까지 롱락하여 그 일대를 무법천지로 만들어놓은것을 알게 된다.

그의 목장지도 절반이상이 그 녀자의 소유지로 넘어가고 숱한 소와 말들을 잃어버렸다. 그의 부재중에 목장을 관리한 마름 발비노는 바르바라의 정부이며 앞잡이였다. 그 녀자와 결혼했던 4촌형 로렌쏘 바르께로는 자기 목장을 다 빼앗기고 알콜중독자로, 페인으로 되여 그 집에서 쫓겨나 딸 마르셀라와 함께 숲속 오막살이에서 겨우 연명하고있었다.

게다가 미국인 데인져가 바르바라와 한짝이 되여 싼또스의 땅과 가축들을 야금야금 뺏아내고 로렌쏘에게 위스키를 공급하여 그를 더 못쓰게 만들뿐아니라 마르셀라에게 눈독을 들이고있었다.

싼또스는 고향땅을 문명하게 만들것을 결심하고 도냐 바르바라와의 대결을 선포한다.

그는 로렌쏘와 마르셀라를 자기 집에 데려다가 보살펴주며 마르셀라를 자기가 직접 맡아 교육교양하는 한편 구역소재지로 올라가 구역당국자앞에서 도냐 바르바라, 데인져와 대결한다. 그는 목장경계를 확정하고 불미스러운 일을 방지하기 위해 철조망울타리를 치며 자기 목장의 소와 말들을 돌려줄것을 요구한다. 구역당국자 뻬르날레떼는 바르바라한테 매수된자이지만 법을 환히 꿰뚫고있는 싼또스의 론리정연한 주장에 눌려 그의 요구를 부분적으로 긍정한다.

그러나 바르바라는 만만치 않은 적수였다. 그는 회유와 기만, 유혹 등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싼또스를 굴복시키려고 발악한다. 그래도 일이 뜻대로 되지 않자 싸반나에 화재를 일으켜 싼또스에게 큰 피해를 입히며 송아지떼를 팔려고 도시로 가던 싼또스의 목동들을 죽이고 송아지들을 가로챈다.

이 사건을 신소하러 구역에 올라갔다가 거절당함으로써 리성을 잃은 싼또스는 법도 정의도 통하지 않으니 이젠 폭력으로 맞설수밖에 없다고 하면서 극단적인 행동으로 넘어간다. 그는 자기 목장지역에 자리잡은 바르바라의 앞잡이네 집을 습격하여 불사르며 범죄자들을 법기관에 압송한다. 또한 살인범을 대주겠으니 저녁에 혼자 나오라는 련락을 받고 지정된 장소에 갔다가 자기를 어째보려는 졸개놈을 처단하며 그자의 시체를 바르바라에게 넘겨준다.

바르바라는 복수가 아니라 모든 문제를 싼또스에게 유리하게 해결해줌으로써 그를 자기 사람으로 만들려고 결심한다. 하여 싼또스의 고농들을 죽이고 송아지떼를 훔친 자기 마름을 처단하고 진상을 당국에 알리며 송아지떼를 돌려준다. 지어 직접 구역에 올라가 법문서를 고쳐 싼또스의 원래 땅을 다 돌려준다.

하지만 이렇게 선심을 쓰고 구역에서 돌아온 바르바라를 기다리고있은것은 로렌쏘가 죽고 싼또스가 마르셀라와 곧 결혼하게 된다는 소식이였다. 억이 막혀 말을 타고 싼또스의 집으로 달려간 바르바라는 정원에서 싼또스와 저녁을 나누고있는 딸을 쏘려고 총을 겨누었다가 끝내 쏘지 못하고 되돌아선다.

다음날 바르바라의 편지련락이 온다. 유일한 상속자인 마르셀라에게 자기 목장을 상속한다는것이다. 이 편지를 보내고 바르바라는 어디론가 떠나가버린다.

끝내 문명이 야만을 타승하고 싸반나에 평화가 깃들게 된것이다.

작품에서 작가가 제기한 기본문제는 문명과 야만의 대립과 투쟁에 관한 문제이며 이 투쟁에서 문명이 승리한다는것, 사회는 문명개화의 길로 나가야 한다는것이다.

작가의 이러한 의도로부터 문명과 야만, 광명과 암흑, 선과 악—이 둘사이의 끊임없는 대립과 투쟁이 소설전반을 관통하고있다.

소설의 기본갈등을 이루고있는것은 문명의 대표자인 개명한 목장주 싼또스 루싸르도와 야만의 대표자인 간악한 녀목장주 도냐 바르바라와의 충돌이다. 작가는 이 충돌에서 결국 싼또스가 승리하고 바르바라가 패하게 만듦으로써 자기 주장의 정당성을 예술적으로 확증하려고 하였다.

장편소설 《도냐 바르바라》는 비판적사실주의작품으로서 많은 긍정면을 가지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사회현실에 대한 비판은 과거의 진보적문학에서 공통적으로 찾아볼수 있지만 비판적사실주의문학에서는 그것이 주되는것으로 됩니다.》

작품의 주되는 긍정면은 지난날 베네수엘라의 착취사회현실을 예리하게 비판하고 강한 반제반미사상을 담고있는것이다.

당대 착취사회현실에 대한 비판은 소설의 녀목장주 도냐 바르바라와 그의 졸개들, 구역행정당국자의 형상에 구현되여있다.

도냐 바르바라는 《야만》이라는 말 한마디에 함축되여있는 사회악의 체현자이다.(에스빠냐어로 도냐는 《귀부인》, 바르바라는 《야만적인》, 《가혹한》, 《거치른》 등의 뜻을 가지고있다.)

언제인가부터 이 고장에 나타난 바르바라는 뛰여난 미모와 위선, 간계와 모략, 매수와 테로로 마을사람들과 관리들을 좌지우지하며 대지주, 대목장주, 대갑부로 된다.

그 첫 희생자로 된것이 싼또스의 4촌형인 목장주 로렌쏘 바르께로였다. 그는 바르바라의 미인계에 걸려 그와 결혼했다가 자기 목장과 가축들을 모조리 빼앗기고 빨리울대로 빨리운 다음 페인으로, 무용지물로 되여 쫓겨나 비참하게 죽고만다. 그다음에는 대좌, 발비노, 메르끼에데스를 비롯한 숱한 사람들이 그 녀자의 손탁에 놀아나 온갖 음모와 살인, 강탈에 내몰리다가 쓸모없는 존재가 되여 가차없이 살해당하였다.

그런데 바르바라의 이런 만행, 이런 야만적인 행위가 《법》에 의해 보호되며 그 비호밑에 바르바라는 싸반나의 지배자로, 독재자로 되였던것이다.

작품에서는 이처럼 포악무도한 야만의 대표자인 바르바라를 《사내들을 집어삼키는 녀자》, 《싸반나의 스핑크스》, 《마녀》 등 여러가지로 부르면서 강하게 비판하고있다.

구역행정당국자 뻬르날레떼와 판사 무히끼따역시 반동통치를 폭로하는 보충적형상으로 되고있다. 소설에서는 숱한 뢰물을 받아먹고 바르바라의 온갖 야만적인 죄행을 눈감아주고 법적으로 감싸주고있는 이자들의 형상을 통하여 썩어빠진 독재통치의 진상을 폭로하고있다.

작품이 담고있는 반제반미사상은 교활하고 간악하며 파렴치한 미국인 데인져의 형상에 체현되고있다.(《데인져》란 영어로 《위험》이라는 뜻이다.)

어깨에는 보총을, 주머니에는 딸라를 차고 이 고장에 기여든 데인져는 바르바라를 구슬려 그의 목장안에 자리를 잡고는 악어를 사냥하여 그 가죽을 팔아 밑천을 마련하고 방목지의 소들을 훔쳐내여 돈벌이를 하며 야금야금 땅들을 차지하여 어느새 한다하는 농장주가 된다.

바르바라는 자기의 살인만행을 눈감아준 대가로 그자의 강도질을 비호해주며 알콜중독자인 로렌쏘는 남아있던 마지막땅마저 술값으로 그자에게 빼앗기고 알거지가 된다.

작가는 데인져의 형상을 통하여 베네수엘라를 비롯한 라틴아메리카나라들에 기여들어 총과 딸라로 이 나라들을 예속시켜 살찐 미제의 침략과 략탈정책을 신랄히 규탄하고있다.

소설이 가지고있는 긍정면의 다른 하나는 베네수엘라의 근로자들인 소박한 목동들과 고농들을 동정과 사랑을 담아 묘사하고있는것이다.

초원에서 소와 말을 방목하는것은 매우 힘들고 품이 많이 드는 일이다. 그러나 안또니오, 까르멜리또, 빠하로떼를 비롯한 목동들은 그 어려운 방목일을 사랑하고 용감성과 대담성, 인내력과 성실성을 발휘하며 목장일을 문명화하려는 싼또스의 구상을 성심성의로 도와나선다.

장편소설 《도냐 바르바라》는 사실주의작가로서의 갈레고스의 기량이 잘 나타나있는 작품이기도 하다.

작가는 전 3편 41장(1, 2편은 각각 13개 장, 3편은 15개 장)으로 구성된 소설의 매 장을 제목화함으로써(《우리는 누구와 같이 가고있는가?》, 《사내들을 집어삼키는 녀자》, 《비상사건》, 《마녀와 그 그림자》 등) 독자들이 장제목만 보아도 작품의 세계에 끌려들어가게 만들고있으며 이야기줄거리를 흥미있게 짜고있다.

소설은 그 묘사가 생동하고 진실하며 사실적이다. 특히 바르바라, 데인져 등의 성격형상이 인상적이며 작품의 배경으로 되고있는 열대수림초원—싸반나의 자연묘사가 방불하게 그려져있다. 작가는 오리노꼬강지류인 아라우까강류역의 자연과 그 자연의 상징적존재로 되여있는 바르바라의 강렬한 성격을 밀착시켜 생동하게 그려내였다.

다른 한편 소설에는 적지 않은 제한성도 드러

나고있다.

작품의 중요한 제한성은 착취사회의 계급적 모순을 도덕적인 문제로 바꾸어놓고 도덕적인 교양의 방법으로 착취사회의 사회악을 극복할수 있으리라는 환상에 사로잡혀있는것이다.

그것은 작가가 작품의 긍부정인물을 다 착취계급속에서 찾고 문명을 대변하는 용감하고 선량한 목장주앞에 야만을 대변하는 간악한 녀목장주 바르바라가 무릎을 꿇음으로써 갈등이 풀리는것으로 그려놓은데서 나타나고있다. 소설에서 성격발전의 론리를 일부 무시하면서 바르바라의 성격을 돌변시키고있으며 목장주인 싼또스와 그의 고용자들인 고농, 목동들과의 계급적모순에 대해 눈을 감고 주인에 대한 고농들의 충실성을 보여준것은 이와 관련되여있다.

작품의 제한성의 다른 하나는 싼또스 루싸르도를 리상화함으로써 그의 성격창조에서 생활의 론리를 무시하고있는것이다. 소설에는 대학을 갓 졸업한 지식청년이며 오래전에 목장을 떠난 도시사람인 싼또스가 목장에 돌아오자마자 야생말을 길들이는 어려운 일에서 몸소 시범을 보여 목동들의 감탄을 자아내는 장면이 있다. 이것은 생활의 론리에 맞지 않으며 진실치 못한 장면의 하나이다.

장편소설 《도냐 바르바라》는 이러한 제한성을 가지고있으나 그것이 담고있는 강한 비판정신과 성격 및 자연묘사의 생동성, 힘있는 필치로 하여 베네수엘라뿐아니라 라틴아메리카적으로 유명한 작품의 하나로 되였으며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지게 되였다.

국내에서 출판할수 없어 에스빠냐에서 출판된 이 소설이 외국작가의 작품임에도 불구하고 류례없이 마드리드문학상을 수여받은 사실은 작품의 견인력에 대하여 알수 있게 한다.

바렐라와 장편소설 《어두운 강물》

바렐라는 20세기 아르헨띠나의 대표적인 진보적작가의 한사람이다.

알프레도 바렐라(1914－1984)는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태여나 일찍부터 공산주의를 지향하였으며 20살때인 1934년에 아르헨띠나공산당에 입당하였다.

그는 1940년대부터 소설창작을 시작하여 1943년에 장편소설 《어두운 강물》을 발표함으로써 널리 알려지게 되였다. 소설은 영화로 옮겨져 더 유명해졌다.

작가는 또한 중편소설 《구에메스와 가우쵸전쟁》(1944), 《영웅적청년 호르헤 깔보》(1952)를 비롯한 일련의 작품들을 썼다.

그는 공산주의운동과 평화옹호운동에 적극 참가하였으며 아르헨띠나공산당 중앙위원회 위원, 세계평화리사회 리사, 아르헨띠나평화옹호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였다.

장편소설 《어두운 강물》은 1920년대 아르헨띠나의 현실을 시대적배경으로 하여 《줴르바나무왕국》으로 불리우는 열대의 수림속에서 고역에 시달리는 로동자들의 생활과 투쟁을 그린 작품이다.

《줴르바》라는것은 라쁠라따지역의 열대수림에 분포되여있는 나무인데 남아메리카사람들이 이 나무의 마른 잎으로 만든 차를 《마데차》 또는 《빠라과이차》라고 하면서 즐겨 마셨기때문에 그에 대한 수요가 매우 높았다. 이로부터 지주, 자본가들은 이 줴르바나무숲이 분포되여있는 열대의 원시림속으로 수많은 근로자들을 끌어다 노예적로동을 강요하고 그들을 가혹하게 착취함으로써 막대한 리윤을 짜냈다. 지주, 자본가들과 그 앞잡이들의 혹독한 착취와 압박으로 하여 이 줴르바나무왕국은 근로대중을 참을수 없는 불행과 고통속에 몰아넣는 푸른 지옥으로 되였다.

소설의 이야기줄거리는 바로 이 줴르바나무왕국으로 오게 된 계절로동자 라몬 모이에라의 운명선을 따라 전개되고있다.

일자리를 찾아 도시를 헤매이던 굶주리고 헐벗은 계절로동자 라몬 모이에라는 형 아돌프와 함께 벌이가 좋다는 인부모집군의 말을 듣고 멀리 빠라나강상류에 있는 자본가 알리이까의 산판으로 가게 된다. 그런데 현장에 가보니 그곳은 듣던것과는 달리 가혹한 착취와 압박, 무서운 전횡이 살판치는 생지옥과 같은 곳이였다. 그러나 도시에서 외상으로 쓴 빚에 얽매인 그들은 무장한 감독들의 감시밑에서 고역살이를 하지 않으면 안된다.

라몬은 모진 압박과 착취, 참을수 없는 모욕을 당하면서 산판에서 여러달을 일하는 과정에 앉아서 죽기보다 일어나 싸워야 한다는것을 깨닫게 된다. 그리하여 어느날 라몬과 아돌프는 자기

들을 모해하려든 감독놈들을 쏘아눕히고 그곳을 탈출하여 빠라나강을 건너간다.

라몬은 그후 여러 작업장들에서 일하면서 그리고 선진적인 선원 뻬랄리따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기 혼자 싸울것이 아니라 힘을 합쳐야 한다는 것을 깨닫고 보다 조직적인 투쟁의 길을 찾아나서게 된다.

작품이 거둔 중요한 성과는 근로인민대중과 지주, 자본가들의 계급적모순이 극도로 첨예화되였던 1920년대말 아르헨띠나의 암담한 현실을 반영하면서 근로대중에 대한 지주, 자본가들과 그 앞잡이들의 비인간적행동과 강도적략탈을 통하여 놈들의 략탈적본성과 야수적만행을 폭로하고 압박자, 착취자들과는 끝까지 싸워야 한다는 사상을 힘있게 강조한데 있다.

소설에는 착취자, 압박자의 형상으로서 산판주인들인 알리이까와 마쎄다, 목재소주인인 외국인 하아그, 현장책임자 싼따 끄루스, 인부를 모집하는 사기군 파리니야, 현장감독들인 팔레이로, 돈 아마로, 라미레스 등이 등장하고있다.

작품에 등장하는 지주, 자본가들과 그 주구들은 악착하고 잔인하며 교활한자들이다. 이자들의 가혹한 착취속에서 솜씨있는 차건조공인 씬포리아노가 한창 일할 나이인 40살에 머리가 다 세고 기력이 진했으며 아멜리아의 남편 갈라로싸가 앓아죽고 힘장수인 로렌쏘가 총에 맞아 죽었으며 여러명의 인부들이 희생되였다. 이에 대해서는 라몬자신이 뼈저리게 체험하였다.

작품은 착취자, 압박자들의 비인간적인 만행을 통하여 지주, 자본가들이야말로 가장 야만적이고 악독한 승냥이들이라는것, 이 짐승같은 무리들과는 결코 한하늘을 이고 살수 없다는것을 깊이 깨닫게 하고있다.

작품이 거둔 중요한 성과는 다음으로 열대림속에서의 지긋지긋한 생활체험을 통하여 앉아서 죽을것이 아니라 일어나 싸워야 한다는 진리를 깨닫고 마침내 원쑤놈들을 처단하고 참된 삶의 길, 투쟁의 길을 찾아나서는 근로자들의 모습을 생동하게 보여준데 있다.

작품의 이러한 주제사상적내용은 주인공 라몬 모이에라의 형상에 집중적으로 구현되여있다.

작품의 첫머리에 등장하는 계절로동자 라몬 모이에라는 아직은 아무런 계급적자각도 없는 평범한 근로청년에 지나지 않는다. 그의 운명은 이 나라 수천수만의 로동자, 농민들의 운명과 다를바 없었다. 라몬은 헐벗고 굶주리며 압박받고 천대받는것이 과연 누구때문인지도 모르고 그저 억척스럽게 일을 하면 살길이 나지리라고 단순하게 생각하는 각성되지 못한 사람이였다.

하기에 라몬은 인부를 모집하는 뛰르끼예인 파리니야의 거짓선전에 대뜸 넘어가 산판에 가서 일만 잘하면 많은 돈을 벌수 있을것이라고 생각하며 형 아돌프가 반대해나서자 자기 혼자라도 가겠다고 우기기까지 한다. 그러나 그는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망상이였는가를 곧 뼈아프게 깨닫게 된다. 모이에라형제를 만난 자리에서 현장책임자 싼따 끄루스는 그들이 외상으로 쓴 돈을 계산한 계산서를 받아보더니 그것을 믿을수 없다면서 억지다짐으로 새로 계산한 계산서를 내려먹였는데 거기에는 3 200뻬쏘라는 엄청난 금액이 적혀있었다. 그들이 선금으로 쓴 500뻬쏘가량의 돈이 6배로 뛰여오른것이다. 이 순간 너무도 억이 막힌 라몬은 두주먹을 부르쥐고 한참동안이나 분을 새긴다.

그후 라몬은 자기의 고통스러운 생활체험을 통하여 계급적으로 각성되여간다. 그는 온갖 모욕과 모진 학대속에서 마소와 같이 고역에 시달리는 과정에 그리고 자기와 같은 처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불행과 고통을 목격하는 과정에 생각이 깊어진다.

그리하여 점차 라몬은 모진 학대를 말없이 참을것이 아니라 반항해야 하며 반항을 하되 기회를 노려 되게 답새겨야 한다는 결론을 내리게 된다.

싼따 끄루스가 모이에라형제를 현장사무실로 부른것은 그에게 있어서 절호의 기회였다. 자기들을 해치려는 그놈의 속심을 간파한 라몬은 이 기회에 복수를 단행하고 이곳을 탈출하려는 결심밑에 권총을 감추고 형과 함께 현장사무실로 향한다. 현장사무실앞에 이른 라몬형제는 기회를 엿보다가 권총을 빼들고 불의사격을 들이댄다. 감독들이 거꾸러지고 악질주구들이 나가너부러진다. 라몬은 악질감독 팔레이로에게 달려들어 자신뿐아니라 죽은 안해와 아들 그리고 그자의 희생물로 된 여러 녀성들의 몫으로 연거퍼 칼질을 한다.

그러나 라몬이 감독들을 처단하고 알리이까의 산판에서 탈출했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된것은

아니였다. 그 어데를 가나 착취와 압박이 없는 곳이란 없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라몬은 이 문제를 두고 모대긴다.

이러한 라몬의 성격발전에서 중요한 계기로 된것은 진보적인 선원 뻬랄리따가 들려준 이야기였다. 라몬은 알리이까의 산판에서 탈출한 후 도시에 다녀오려고 기선을 탔다가 그의 이야기를 듣게 되였다.

《우리는 로조성원들이요. 우리는 힘이요. 알겠소? 모두가 한사람같이 일어나 파업을 일으키면 이 큰 기선도 움직이지 못한단 말이요. 우리 로동자형제들이 서로 힘을 합치면 주인놈도 찍소리 못하오. 우리모두가 일을 내던지면 그놈들도 어쩔수 없단 말이요.》

이렇게 허두를 뗀 뻬랄리따는 이스뚜에또의 로동자들이 넉달동안이나 파업을 계속하여 끝내 승리하고야말았다는것, 여러곳에 쉐르바나무를 인공적으로 재배하는 차농장들이 생겼는데 그 농장들에서는 로동조합이 조직되여 삶의 권리를 지켜 싸우기때문에 열대림속에서 일하는 사람들보다 한결 나은 처지에 있다는것 등에 대하여 이야기해주었다.

이러한 이야기는 라몬에게 새로운 투쟁목표와 방도를 제시해주었다. 두고보자, 감독 한두놈을 없애거나 혼자서 고독하게 싸우는것으로는 큰일을 하지 못한다, 문제는 이 세상의 모든 산판주인들과 그 앞잡이들을 없애치우는데 있다, 그 로조가 있다는 곳으로 찾아가자, 이렇게 속다짐한 라몬은 투쟁의 길을 찾기 시작한다.

뻬랄리따와 함께 브라질사람 프루또스도 라몬에게 큰 영향을 준다.

프루또스는 라몬이 새로 일자리를 잡은 목재소에 손에는 보따리를 들고 등에는 기타를 메고 허리에는 권총을 찬 차림새로 나타나 라몬과 목재소로동자들에게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준다. 브라질에서 큰 폭동이 일어나 싸움이 크게 벌어졌으며 그자신도 그 싸움에 참가하였댔다는것이다.

뻬랄리따와 프루또스가 들려준 이야기와 자신의 생활체험을 통하여 라몬은 착취받고 압박받는 근로대중의 살길은 착취자, 압박자들을 반대하여 힘을 합쳐 싸우는 길밖에 없다는것을 확신하게 되며 자기도 그 길로 나아가리라는 결심을 더욱 굳게 다지게 된다.

작품에서 특징적인것은 근로인민대중에 대한 사랑과 그들의 밝은 미래에 대한 신념이 넘쳐나고있는것이다.

이 신념은 알리이까의 작업장과 하아그의 목재소 등 여러곳에서 죽음의 고비를 수없이 넘은 라몬의 생활경위에 대한 묘사와 특히는 작품마감에서 사품치는 빠라나강을 무사히 넘어가는 라몬의 형상을 통하여 맥맥히 울려나오고있다.

선행한 라틴아메리카의 비판적사실주의문학에서는 인간생활에 적대되는 엄혹한 자연의 형상에 중요한 관심을 돌리면서 사람이 자연의 힘을 타승하지 못하며 열대의 푸른 지옥에서 전횡을 부리는 압제자들의 손에서 벗어난다 해도 이 가혹한 자연의 소용돌이속에서 헤여나기 어렵다는 자연에 대한 패배주의적견해가 지배적이였다.

그러나 이 소설에서는 라틴아메리카의 엄혹한 자연, 열대의 수림과 사품치는 거창한 강을 형상하면서 종전의 패배주의적립장에서 벗어나 압박받고 착취받는 근로대중이 압박자, 착취자들과의 투쟁에서뿐아니라 자연과의 투쟁에서도 꼭 승리할수 있다는 확신을 뚜렷이 보여주고 있다.

작품의 마감에서 기승을 부리는 빠라나강을 헤염쳐건느는 라몬의 형상은 엄혹한 자연과의 치렬한 싸움에서 인간의 불굴의 힘에 대한 찬가로 되고있다.

여기에 이 소설이 거둔 또 하나의 성과가 있다.

소설이 거둔 이러한 성과들에는 1930년대이후 라틴아메리카문학에서 발생한 사회주의적사실주의의 특징이 표현되였다.

작품에는 일부 제한성도 나타났다.

소설에서는 주인공의 생활과 사건, 행동을 그리는데 주되는 관심이 돌려지고 주인공의 내면세계, 그의 체험과정을 구체적으로 파고들지 못하였으며 따라서 그의 사상의식발전과정을 깊이있고 섬세하게 그려내지 못하였다.

작품에는 자연주의적요소도 나타나고있다. 작가는 계절로동자들의 생활을 그리면서 생활의 본질과 현상을 가려보지 못하고 일부 비전형적인 생활과 무의미한 세부들을 흥미본위적으로 형상함으로써 자연주의적요소를 드러냈다. 알리이까의 작업장으로 떠나기 전에 도시에서 라몬 등이 유흥하는 장면, 라몬과 거리의 녀왕 릴리야와의 관계묘사, 그밖의 여러 장면들을 그 례로 들수 있다.

이러한 제한성이 있으나 장편소설 《어두운 강물》은 그것이 거둔 사상예술적성과로 하여 나오자마자 커다란 사회적반향을 일으켜 아르헨띠나에서만도 6판까지 거듭 재판되였으며 그후 17개 나라에서 번역출판되여 세계적으로 알려지게 되였다.

빠블로 네루다와 서사시 《위훈의 노래》

빠블로 네루다는 칠레인민이 낳은 세계적인 시인이며 라틴아메리카의 진보적시문학을 대표하는 이름난 문호의 한사람이다. 칠레인민들은 그를 《우리 빠블로》, 《인민의 량심》으로 부르면서 사랑했으며 세계의 진보적독자들이 그의 시를 애독하였다.

빠블로 네루다(1904—1973)는 그의 필명이며 본명은 네프딸리 리까르도 레이에스 바쑤알또이다.(레이에스는 아버지의 성이고 바쑤알또는 어머니의 성이다.) 그가 《네루다》라는 필명을 쓰게 된것은 소년시절에 체스꼬작가 얀 네루다의 소설을 읽고 깊은 감명을 받은것과 관련된다고 한다. 후에 그는 얀 네루다가 이름난 시인이라는것을 알게 되면서 자기가 《네루다》라는 필명을 잘못 쓰지 않았다는것을 확신하고 그 필명으로 고착시켰다.

빠블로 네루다의 출생지는 칠레의 지방소도시 빠랄이다. 아버지는 철도에서 차장으로 일하였고 어머니는 교원이였다. 그런데 그가 태여난지 한달만에 어머니가 사망한것으로 하여 일가는 떼무꼬로 이사가게 되여 네루다는 그곳에서 유년시절과 소년시절을 보냈다. 이런 사정으로 하여 네루다는 떼무꼬를 고향도시로 여기게 되였다.

그는 1921년에 떼무꼬에서 중학교를 졸업하고 수도 싼띠아고의 종합대학에서 프랑스어문학을 전공하였다.

조숙한 시인으로서 소년시절부터 시를 쓰기 시작한 그는 대학시절에 서사시 《명절의 노래》를 내놓아 대학생문학작품경연에서 1등을 하였다. 그후 그는 《황혼》(1923), 《20편의 사랑의 노래와 한편의 절망의 노래》(1924)와 같은 재간있는 시집들을 련이어 출판하여 일약 칠레시단의 총아로 되였다.

그러나 그의 초기창작에서는 퇴폐적인 모더니즘시가의 영향을 받아 사랑과 질투, 바다와 별과 바람 등에 대하여 노래한 초현실주의적인 형상이 농후하였다.

이렇게 초현실주의시인으로 출발한 그는 그후 오래동안의 외교관생활과 사회활동과정에 점차 현실을 바로 인식하고 진보적인 사상을 소유하게 되면서 1930년대 중엽부터 사실주의적인 시를 창작하게 되였다.

1927년부터 외국주재 령사로 사업하게 된 시인은 이때부터 16년동안 스리랑카, 먄마, 인디아, 인도네시아 등 아시아나라들과 에스빠냐, 메히꼬, 아르헨띠나 등 유럽과 아메리카나라들에서 외교관으로 활동하면서도 잠시도 시창작을 중단하지 않았다.

그의 세계관과 창작에서 일어난 새로운 변화를 뚜렷이 반영한것은 시집 《마음속의 에스빠냐》(1937)였다. 에스빠냐공민전쟁시기에 마드리드주재 칠레령사로 있었던 시인은 프랑꼬파쑈도당의 야만적인 폭격과 야수적인 살륙만행, 나라의 독립과 인민의 행복을 고수하기 위해 용감히 싸우는 에스빠냐인민의 희생적인 투쟁을 직접 목격하면서 더는 생활의 관조자로 남아있을수 없다는것, 정의와 진보를 위해 목청껏 웨치는 인민의 가수로 되여야 한다는것을 절감하게 되였다.

당신들은 물어보리라 어이하여 내가
　노래하지 않는가고
공상에 대해
나무잎에 대해
…
보시라 거리에 질벅한 피를
보시라
피를
거리에 질벅한

자기 조국의 자유를 위하여 싸운 에스빠냐공화군 군인들의 전투정신, 용감성과 자기희생성을 찬양한 시집 《마음속의 에스빠냐》는 싸우는 인민에 대한 뜨거운 사랑과 원쑤들에 대한 불타는 적개심으로 충만된 열정적인 작품집이다.

《부유한자들탓으로 가난해진 에스빠냐》, 《희생된 민병들의 어머니들에게》, 《1936년의 마드리드》, 《1937년의 마드리드》, 《인민의 군대에 대한 송가》를 비롯하여 시집에 수록된 주옥같은 시편들은 싸우는 에스빠냐인민들

을 고무하고 그들의 사랑을 받았다. 에스빠냐 공화군 병사들은 행군중에 수동인쇄기로 이 시집을 찍어내여 보급하였다고 한다.

시인은 또한 제2차 세계대전시기에 파쑈도이췰란드침략군을 반대하여 용감히 싸운 쏘련군대와 인민의 투쟁에 련대성을 표시하여 《쓰딸린그라드에 대한 사랑의 노래》를 비롯한 여러편의 시들을 발표하였다.

시인은 이 과정에 점차 공산주의의 지지자, 동정자로 되였으며 귀국한 직후인 1945년에 칠레공산당에 입당하였다. 그해에 국회상원의원으로 선거된 시인은 국회에서 대통령의 반동적인 대미추종정책과 공산당에 대한 탄압을 규탄하는 탄핵연설을 한것으로 하여 국가반역죄로 몰려 지하에 들어가지 않으면 안되였다.

경찰당국이 전국에 수사망을 펴고 시인을 체포하려고 혈안이 되여 날뛰였으나 그는 인민들의 보호밑에 지하에서 창작활동을 계속하였으며 그 간고한 시기에 대서사시 《위훈의 노래》를 썼다. 성스러운 해방투쟁에 용감히 일떠선 라틴아메리카인민들의 위훈을 격조높이 노래한 이 서사시는 지하에서 인쇄출판되여 칠레국내에서뿐아니라 온 라틴아메리카에 보급되였으며 세계 여러나라말로 번역출판되여 국제적으로 널리 알려지게 되였다.

1949년부터 1952년까지 외국에 망명했던 그는 시창작활동을 계속하는 한편 반제반미투쟁과 평화옹호운동에 적극 참가하였다. 그는 1950년부터 세계평화리사회 리사, 1959년부터 칠레작가동맹 위원장으로 사업하였다. 이 시기에 시집 《포도원과 바람》(1954)을 창작하였다.

그는 1970년에 알옌데정부가 수립되자 프랑스주재 칠레대사로 부임되였으나 1973년 삐노체뜨도당의 군사정변으로 알옌데정부가 전복된 직후 병으로 사망하였다.

내용에서 반제반미투쟁정신, 인민의 자유와 해방, 평화와 사회주의를 위한 투쟁정신으로 충만되여있으며 형식에서 민주주의적이고 독창적인 빠블로 네루다의 시창작은 반제자주를 위한 라틴아메리카인민들의 투쟁을 힘있게 고무하고 라틴아메리카사실주의시문학을 발전시키며 사회주의적사실주의문학을 개척하는데 크게 이바지하였다.

그의 대표작인 《위훈의 노래》(1950)는 전 15개 장(인쇄페지수로 300페지가 넘는다.)으로 구성된 대서사시이며 전체 라틴아메리카인민들의 해방투쟁위훈에 대한 찬가이다.

작품의 내용은 크게 다섯가지 부분으로 갈라지고있다.

첫 부분(첫장 《지상의 등불》)은 라틴아메리카인민들의 삶의 터전인 아메리카대륙의 아름답고 풍요한 자연에 대한 찬가이다.

《식물》, 《새들이 날아왔다》, 《강들이 흘러간다》, 《광석》을 비롯한 이 장의 여러 소제목들에서는 아메리카대륙의 산과 강, 열대의 밀림과 초원, 동식물과 지하자원에 대하여 노래하면서 이 땅이 얼마나 아름답고 광활하며 보물로 가득찬 고장인가고 긍지높이 웨치고있다.

다음부분(《정복자들》, 《해방자들》 등)에서는 이 아름답고 풍요한 땅이 일찌기 16세기초부터 에스빠냐식민주의자들의 침략과 략탈로 피바다에 잠기고 거기서 사는 사람들이 참을수 없는 불행과 고통을 당하였다는것과 그 초시기부터 19세기초에 이르는 장구한 기간 한시도 투쟁을 멈추지 않고 용감히 싸워온 라틴아메리카인민들의 성스러운 해방투쟁력사를 노래하고있다.

셋째 부분(《배반당한 땅》 등)에서는 식민주의자들을 몰아내고 독립을 이룩한 후 이 땅에 기여든 미제를 비롯한 제국주의자들과 그 앞잡이들인 독재자들의 탄압과 략탈로 하여 또다시 불행속에 빠진 라틴아메리카인민들이 미제와 친미괴뢰정권을 반대하여 벌린 투쟁의 력사를 반영하고있다.

그 다음부분(《이 땅을 후안이라 부른다》, 《벌목공아 깨여나라》 등)은 슬기롭고 용감한 라틴아메리카인민들과 그들을 령도하는 공산당에 대한 찬가이다.

마지막부분(《피신하는 사람》, 《암담한 조국에 드리는 새해의 인사》, 《자신에 대하여》 등)에서는 비록 탄압을 피하여 피신하는 몸이 되였지만 인민의 사랑을 받는 시인으로 사는 긍지와 자부심, 앞으로도 인민과 당에 끝까지 충실한 시인으로 남으리라는 확고한 의지를 노래하고있다.

이러한 내용을 통하여 작품은 무엇보다도 지난날의 에스빠냐식민주의자들로부터 20세기의 미제국주의자들과 그 앞잡이들에 이르는 인민의 모

든 원쑤들을 침략자, 략탈자, 압제자로 락인하고 폭로규탄하였으며 침략자, 압제자들과는 끝까지 싸워이겨야 한다는 반식민주의, 반제반미투쟁정신을 고취하고있다.

시인은 《정복자들》이라는 제목에서 지난날의 력사를 외곡하고 《미개인들》에게 《문명의 혜택》을 가져다준 《정복자들》의 《은덕》에 대하여 떠벌인 식민주의자들과 제국주의자들, 어용매문가들의 허위날조를 배격하면서 《정복자들》이 가져다준것이란 침략과 략탈, 죽음과 파괴밖에 없다고 신랄히 규탄하고있다.

남은것은 오직
신의 이름으로
십자가에 매달린 사람들
뼈다귀들뿐이였다네

시인은 또한 《배반당한 땅》에서 《유나이테드 프루트》회사 등 여러 소제목들을 통하여 미국독점회사들이 과떼말라와 니까라과를 비롯한 라틴아메리카나라들에 어떻게 침략의 마수를 뻗치고 이 나라들의 경제적명맥을 틀어쥐였으며 인민들에게 참을수 없는 불행과 고통을 들씌우고 막대한 리윤을 짜냈는가를 그리고 과떼말라의 우비꼬, 꾸바의 마챠도, 베네수엘라의 고메스를 비롯한 친미괴뢰독재자들이 미제와 결탁하여 인민들을 어떻게 착취하고 압박하였는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폭로하고있다.

작품에서는 다음으로 라틴아메리카인민들이 이러한 침략자, 압제자들을 반대하는 반제, 반식민주의, 반독재투쟁의 오랜 전통을 가진 인민들이라는데 대하여 상기시키고있다.

16세기초에 에스빠냐해적두목인 꼬르떼스와의 싸움에서 용감성을 발휘한 인디안 아즈떼끄족의 청년추장 과떼모끄, 에스빠냐침략군의 발디비야부대를 전멸시킨 인디안 아라우까족의 추장 라우따로로부터 19세기 독립전쟁의 지도자들인 볼리바르와 싼 마르띤, 쑤끄레, 20세기의 공산당지도자들인 칠레의 레까바렌, 브라질의 쁘레스떼스에 이르는 수많은 투사들의 이름과 투쟁업적을 회고하면서 시인은 라틴아메리카인민들의 성스러운 해방투쟁위훈을 칭송하고있다.

시인은 라틴아메리카인민들의 성스러운 해방투쟁력사를 총화하면서 력사창조에서의 인민의 결정적역할에 대한 사상을 강조하고 이러한 인민을 굴복시킬 힘은 이 세상에 없으며 자유와 해방을 위한 인민대중의 투쟁은 반드시 승리하고야말리라는 신념을 표시하고있다.

조국이여 그대를 건설한것은 벌목공들
세례를 받지 못한 아들들, 목수들이였거니
오늘 그대는 새롭게 태여나리라
배신자들과 압제자들이 그대가 영원히
멸망했다고 간주한 그곳에서
오늘 그대는 인민들속에서 이전처럼 태여
　나리라

시인은 인민의 투쟁을 령도하는 공산당을 칭송하면서

그대는 가난한자들의 무기
준엄한 시련속에서
내 조국의 깊은 곳에서 태여났어라
그대를 당이라 공산당이라 부르노라

라고 격조높이 노래하고있다.

나아가 시인은

맹세하노라 그대가 가리키는 길을 따라
인민이 승리하는 그날까지 끝까지 따라
　가리라

라고 자기의 결의를 피력하고있다.

《위훈의 노래》는 구성상 독특한 형식을 취하고있다. 서사시들과 련시들의 묶음으로 이루어져있는 작품의 장과 장, 장을 구성하는 시들은 유기적으로 련결되여 통일적인 주제사상을 밝히는데 이바지하고있다. 작품에 들어있는 개별적인 시편들은 그자체로서 독자성을 가지나 다른 시편들과의 관계속에 고찰하여야 그 시적형상이 보다

원만하게 파악되게 되여있다. 시인은 이러한 구성을 취하는데서 인민창작의 경험 특히 까스뗄리야인민시가의 경험을 창작하였다.

작품의 시편들은 이야기시와 정치시, 정론시와 풍자시, 풍경시 등 다양한 형식을 취하고있으며 개개 시의 내용에 따라 다양한 표현수법을 구사하고있다.

작품은 시형식에서 에스빠냐정형시의 규범과 격식을 따르지 않고 무운시를 기본으로 하면서 시줄이나 운률을 자유롭게 조직하는 자유시형식을 취하고있다. 작품에서는 시구, 시줄, 시련 등을 고정화되고 격식화된 틀에 맞추지 않고 시인의 정서적체험과 사상감정을 보다 풍부하고 분방하게 펼쳐보이고있으며 인간생활을 구체적으로 진실하게 반영하고있다.

빠블로 네루다의 대서사시 《위훈의 노래》는 평화와 민주주의, 사회주의를 위한 투쟁에서 인민들이 나아갈 길을 밝힌 심오한 사상적내용과 높은 예술성으로 하여 칠레와 라틴아메리카의 테두리를 벗어나 세계의 진보적이며 혁명적인 시문학에서 당당한 자리를 차지하고있다.

가르씨아 마르께스와 장편소설 《백년간의 고독》

가르씨아 마르께스는 현대꼴롬비아문학을 대표하는 가장 이름난 작가의 한사람이다.

가브리엘 가르씨아 마르께스(1928—)는 마그달레나주 아라까따까의 의사가정에서 태여나 보고따종합대학을 졸업하였다.

그는 신문기자로 되여 유럽에 오래동안 체류하였으며 꾸바혁명승리후 한때 꾸바의 쁘렌싸 라띠나통신사의 뉴욕특파기자(1959—1960)로 있다가 에스빠냐의 바르쎌로나에 이주하여 직업적작가로 활동하였다.

그는 1950년부터 소설을 발표하기 시작하여 사회의 모순을 비판한 장편소설 《락엽》(1955), 《대좌에게는 편지가 오지 않는다》(1961), 《나쁜 계절》(1962) 등을 썼으며 단편소설집 《마마 그란데의 장례식》(1962)에서 처음으로 환상수법을 도입하였다.

특히 그는 후날에 노벨문학상이 수여(1982)된 장편소설 《백년간의 고독》(1967)을 발표하여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졌다.

작가는 이 작품에 이어 《족장의 몰락》(1975), 《선포된 죽음의 년대기》(1981), 《콜레라시대의 사랑》(1985)과 같은 장편소설들과 많은 단편소설들을 썼다.

그의 작품들은 현실과 환상을 교묘하게 결합시키고 신화와 전설 등 구전문학유산을 활용하여 사회생활을 반영함으로써 독특한 풍격을 갖추고있다.

장편소설 《백년간의 고독》은 19세기 중엽부터 20세기 중엽까지의 꼴롬비아현실을 시대적배경으로 가상적인 소도시 마꼰도사람들의 100년간의 생활을 통하여 꼴롬비아인민들의 사상정신적성장과정을 보여준 작품이다.

작품의 사건이 벌어지는 곳인 마꼰도는 원래 20채가량의 오막살이밖에 없던 보잘것없는 마을이였다. 부엔디아라고 하는 꼴롬비아사람이 이 마을을 세웠다. 그리고 이 마을에 처음으로 문명을 끌어들인것은 방랑하는 집시들이였다. 그후 부엔디아와 그 후손들에 의하여 변모된 마꼰도는 수공업자들과 상인들이 붐비는 소도시로 되였다.

조상인 호쎄 아르까디오 부엔디아의 맏아들 아르까디오와 둘째아들 아울레리아노는 자유주의파에 속하여 정부의 보수파를 반대하는 전쟁에서 공로를 세웠다. 특히 아울레리아노는 14차례의 반정부폭동에 참가하였으며 그 과정에 두령으로 자라나 정부군의 무서운 적수로 되였다. 아르까디오는 폭동군에 들어가 용감하게 싸우다가 전사하였다. 100년이라는 긴 세월이 흐르는 사이에 부엔디아의 가문에서는 5대자손들이 태여난다. 그 과정에 부엔디아의 자손들은 각이한 생활경로를 거치게 된다.

이들속에는 미국바나나회사의 략탈행위를 반대하여 일어난 로동자들의 동맹파업에 참가했던 사람도 있고 폭동군의 높은 직위에 오른 사람도 있었다.

작품은 무엇보다도 부엔디아가문의 백년간의

생활을 통하여 자주성을 옹호하기 위한 투쟁에 일떠서는 꼴롬비아인민의 사상정신적성장과정을 보여주고있다.

그 대표적인물이 둘째아들 아울레리아노 부엔디아이다.

19세기 중엽부터 꼴롬비아에서는 격렬한 정치투쟁이 벌어진다. 탐구심이 강한 그는 처음 아버지가 집안에 설치한 련금술실험실에 꾹 박혀 련금술연구에 몰두하였다. 그러나 나라에서 일어난 정치정세의 변화는 그로 하여금 투쟁에 뛰여들지 않을수 없게 하였다.

그는 비록 정치적으로 어리나 정의를 사랑하고 그것을 위하여 서슴없이 싸움의 길에 나선다. 이때부터 그는 진보적인 사회세력이였던 자유당에 속하여 20년간이나 투쟁을 계속한다.

이 과정에 그는 32차례나 무장봉기를 일으켜 대좌로, 반란군의 사령관으로, 정부가 가장 두려워하는 사람으로 된다. 그의 이러한 공적을 찬양하여 마꼰도에는 그의 이름을 가진 거리가 생겨난다.

이처럼 그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용감히 싸우는 불굴의 투지를 가진 인간으로 자라난다.

아울레리아노는 또한 공명심과 출세욕이 없는 깨끗한 마음의 소유자이기도 하다. 그가 투쟁에 나선것은 공명과 출세를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정의를 위해서였다. 그러기에 그는 대통령이 주는 훈장도 거절하고 전쟁후에 내주는 년금도 거절했으며 늙어서는 마꼰도의 자기 집 실험실에서 만든 금물고기의 수입으로 살아간다.

그의 형 아르까디오도 자유주의파에 속하여 싸우다가 공동묘지에서 총살당하였다. 총살직전에 신부가 그에게 참회를 시키려고 했으나 그는 《나는 참회할것이 없다.》고 떳떳이 대답하였으며 죽는 순간에 《자유당 만세!》라고 소리높이 웨쳤다.

아르까디오의 아들인 제2아르까디오의 대에 이르러 그들의 투쟁은 미국독점체를 반대하는 직접적인 투쟁으로 발전한다.

악명높은 미국바나나독점체 《유나이테드 프루트》회사는 19세기말 꼴롬비아에 침투하여 바나나농장을 독점하고 인민들에게 참을수 없는 불행과 고통을 들씌웠다. 그러자 더는 참을수 없게 된 인민들은 1929년에 총파업을 일으킨다. 농장들에서 일은 중단되고 파일들은 썩어났으며 12개의 차량을 단 렬차는 철도 한구석에서 움직이지 못하였다.

이 회사 감독으로 고용되였던 제2아르까디오는 회사가 실시한 구매표제도의 기만성을 폭로한것으로 하여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총파업때에는 구사일생으로 살아나기도 한다. 그때 철도역앞광장에는 파업에 궐기한 로동자들과 그 가족들, 구경군들이 수많이 모여있었다. 제2아르까디오도 그속에 끼여있었다. 그런데 회사가 군대를 풀어 군중들에게 무차별적인 기관총사격을 가하자 삽시에 1 500명이상의 군중들이 쓰러졌다. 군경들은 죽은 사람들을 바다에 처넣기 위해 12개의 차량에다 실었는데 정신을 잃고 그속에 들어갔던 제2아르까디오는 정신이 들어 시체속을 헤치고 기차에서 뛰여내려 겨우 목숨을 건진다.

부엔디아가문에 속한 여러 사람들의 이러한 생활과 투쟁을 통하여 작품은 19세기 후반기 꼴롬비아의 정치적혼란과 그에 뒤이은 20세기 전반기 꼴롬비아인민의 각성과정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소설에 묘사된 마꼰도의 백년간의 력사는 전체적으로 보아 아직 사회정치적각성이 미약한 자연발생적인것에 머무른 력사였다. 다시말하면 백년간의 고독의 력사였다.

작품마감에 울려나오는 《백년간의 고독의 운명을 지닌 인류는 이 땅우에 두번다시 태여나지 않을것》이라는 작가의 상징적인 말속에는 부엔디아가문의 낡은 력사는 영원히 끝나고 그와는 다른 새생활,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 등장한 꼴롬비아인민의 새로운 투쟁의 력사가 시작될것이라는것이 암시되여있다.

작품은 다음으로 독점회사를 통한 미제의 침략과 략탈책동을 강하게 폭로비판하고있다.

미국인 브라운이 운영하는 《유나이테드 프루트》회사는 바나나농장에 고용한 마꼰도주민들을 악랄하게 착취함으로써 그들을 말할수 없는

기아와 빈궁속에 몰아넣는다. 회사는 로동자들에게 초보적인 생활조건조차 보장해주지 않고 구매표제도를 통하여 이중으로 착취한다. 로동자들이 파업을 일으키자 회사는 군대의 힘을 빌어 파업군중을 야수적으로 학살한다.

소설에서는 이미 백년전부터 감행된 꼴롬비아에 대한 미제의 침략과 략탈을 여러 장들을 통하여 예리하게 비판하고있다.

작품은 또한 부엔디아가문의 조상인 호쎄 아르까디오 부엔디아와 그의 처 우르슬라의 형상을 통하여 꼴롬비아인민의 근면하고 강의한 풍모를 생동하게 반영하고있다.

호쎄 아르까디오는 보다 살기 좋은 곳을 찾아다니다가 마꼰도마을을 세우고 이 부락을 훌륭하게 꾸려나간다. 탐구심이 강한 그는 집안에 실험실을 차리고 련금술까지 연구한다.

그의 처 우르슬라는 근면하고 강의한 성격을 소유한 녀성이다. 그는 식구가 많은 대가정의 어머니로서 궂은일, 마른일 가리지 않고 잘 처리해나가며 맏아들이 집시처녀를 따라 집을 뛰쳐나갔을 때에는 반년나마 아들을 찾아 낯선 고장을 헤맨다. 나중에 발전된 도시에 가닿아 그 도시의 상인대렬을 안내하여 마을에 데리고옴으로써 마꼰도의 문명개화에 기여한다. 그는 120살까지 살면서 생애의 마지막까지 언제나 부지런하게 일하며 가문의 내부일을 처리해나간다.

작품은 19세기 중엽부터 20세기 중엽까지의 백년간의 장구한 기간을 포괄하면서도 기록주의에 떨어지지 않고 주인공들의 비반복적인 구체적생활을 통하여 꼴롬비아와 라틴아메리카가 걸어온 사회정치생활의 큰 두 단계, 즉 보수파와 자유파의 끊임없는 투쟁과 알륵으로 특징지어지는 정치적혼란의 시기와 미제의 침략, 그 비호를 받는 독재정권의 압제, 인민대중의 투쟁이 강화되는 시기로 구분하여 생동하게 보여주고있다.

예술적인 면에서 주목되는것은 작가가 환상적수법을 자유롭게 활용함으로써 소설에 독특한 풍격을 부여하고있는것이다.

소설에서 쓰인 환상적인 이야기나 형상은 작가가 자의적으로 꾸며낸것이 아니라 대체로 신화와 전설, 인민구전문학에 기초를 둔것이며 형상이나 사건을 더 깊이 리해하는데 도움을 주거나 교훈을 주는것, 풍자, 야유하는것, 철학성을 부여하는것 등 여러가지 작용을 하고있다.

그 례의 하나로 생전에 우르슬라가 근친상간하면 태여난 아이에게 꼬리가 달린다고 입버릇처럼 외운 이야기와 그 후대들인 조카와 고모사이가 되는 아울레리아노와 아마란따 우르슬라가 근친상간으로 태여난 아이한테 꼬리가 달리는 환상적이야기가 련결되여있다. 이것은 근친상간에 대한 경고이고 교훈으로 된다.

다른 례로서 소설의 마감에 나오는 양피지에 기록된 암호를 해득하는 환상적이야기를 들수 있다.

이 환상장면은 고독의 백년이 앞으로 되풀이될수 없으며 꼴롬비아인민은 이전과 같은 고독의 상태에서 벗어나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 각성되리라는 예언을 담고있다.

다른 한편 작품에는 주인공들의 세계관의 형성과정을 깊이있게 보여주지 못하고 비본질적인 생활세태묘사를 지루하게 늘어놓은것과 같은 제한성이 드러나고있다.

소설에서는 아울레리아노 부엔디아와 제2아르까디오를 비롯한 주인공들의 투쟁을 그들의 사상의식의 발전과정과 결부하여 묘사하지 못함으로써 설득력을 약화시키고있다.

또한 소설에서 적지 않은 자리를 차지하고있는 비본질적인 세태적이야기, 신변잡사와 관련된 이야기들은 작품의 품위를 떨구고 사실주의의 힘을 약화시키고있다.

장편소설 《백년간의 고독》은 일련의 제한성을 가지고있으나 장구한 기간 꼴롬비아와 라틴아메리카나라들에 조성된 정치적혼란속에서 꼴롬비아인민들이 점차 자주적인 의식을 가지게 되고 자주성을 옹호하는 투쟁에 일떠서는 과정을 력사적으로 폭넓게 보여준것으로 하여 현대꼴롬비아와 라틴아메리카의 진보적문학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있다.

Ⅱ. 북아메리카문학

북아메리카라는 지리적개념은 두가지 의미로 쓰이고있다. 넓은 의미에서 북아메리카는 전체 아메리카대륙을 크게 이등분하여 남아메리카대륙과 가르는 개념으로 쓰인다. 이 경우에는 북부의 카나다로부터 중앙아메리카의 남단 빠나마까지의 지역을 다 포괄한다. 좁은 의미에서 북아메리카는 중앙아메리카를 제외한 카나다와 미국 두 나라 령역을 포함하는 의미에서 쓰인다.

이 책에서는 이미 Ⅰ편에서 중앙아메리카와 남아메리카를 포괄한 라틴아메리카문학을 따로 취급하였으므로 좁은 의미에서의 북아메리카라는 지리적개념에 기초하여 북아메리카문학을 서술하였다.

북아메리카에 있는 카나다와 미국은 다 력사가 짧은 나라로서 문학의 력사도 청소하다. 북아메리카에서 자기의 체모를 갖춘 문학이 나오기 시작한것은 19세기부터이다.

따라서 북아메리카문학의 시기구분을 크게 두 시기, 19세기와 20세기로 갈랐으며 그 이전시기와 관련한 필요한 내용은 19세기편에 포함시켜 서술하였다.

1. 19세기 북아메리카문학

아메리카대륙이 유럽에 알려지게 된것은 16세기초였다. 1492—1506년에 꼴룸부스가 네 차례에 걸쳐 항행하고 1499—1504년에 아메리고 베스뿌치가 남아메리카대륙에 대한 탐사사업을 벌려 아메리카대륙이 신대륙이라는것을 확증하였다.

새로운 대륙이 발견되자 에스빠냐, 뽀르뚜갈, 프랑스, 영국, 스웨리예 등 유럽나라들의 식민주의자들은 아메리카대륙침략에 달라붙었다. 에스빠냐와 뽀르뚜갈은 주로 중앙아메리카와 남아메리카에 침략의 예봉을 돌렸으며 영국과 프랑스는 북아메리카에 손을 뻗쳤다.

1535년 프랑스의 쟈끄 까르띠에가 카나다에 상륙하여 카나다를 프랑스왕령으로 선포한것이 북아메리카에 대한 서유럽식민주의자들의 첫 침략이였다.

영국이 북아메리카의 동해안으로 기여들기 시작한것은 1607년부터이다.

1) 카나다문학

북아메리카대륙의 북부에 있는 나라 카나다는 인구가 3 075만명(2000년 당시)이며 국토는 997만 6 139㎢로서 광대한 면적을 차지하고 있다.

카나다의 남부(미국본토와 린접)와 북서부(얼래스커와 린접)는 미국령토와 잇닿아있고 동부는 대서양, 서부는 태평양, 북부는 북빙양에 면하여 있다.

카나다의 주민구성에서는 영국계인이 40%, 프랑스계인이 27%, 원주민이 1.5%를 차지하며 그밖에 도이췰란드인, 우크라이나인, 이딸리아인 등 여러 민족이 살고있다.

공용어는 영어와 프랑스어이나 각 민족들이 자기 언어를 제2언어로 쓰고있으며 주민의 절대다수가 그리스도교도들이다.

오랜 옛날부터 원주민인 인디안과 에스키모사람들이 살고있던 카나다가 프랑스와 영국식민주의자들의 침략을 받기 시작한것은 16세기를 전후한 시기였다. 카나다에 기여든 식민주의자들은 토착민들을 대량학살하고 가혹하게 착취하였다.

먼저 1605년에 프랑스식민주의자들이 이 땅을 저들의 식민지로 만들었다. 그후 영국식민주의자들이 이 나라의 광대한 땅을 저들의 손아귀

에 넣기 위해 프랑스식민주의자들과 싸움을 벌렸다. 1756년부터 1763년까지 진행된 영국과 프랑스사이의 식민지략탈전쟁에서 프랑스식민주의자들이 패하게 되자 카나다는 종국적으로 영국의 식민지로 전락되였다.

18세기부터 19세기 중엽에 이르는 기간 카나다에서 민족적독립을 위한 인민들의 투쟁이 앙양됨에 따라 식민지통치를 계속해나가기 어렵게 된 영국침략자들은 1867년 7월 카나다에 제한된 자치제나마 부여하지 않을수 없었다. 카나다는 그후 1931년에 이르러서야 영련방안에서 독립하였다.

영국식민주의자들은 카나다에 자치제를 부여한 다음에도 이 나라를 저들의 식량 및 원료기지로 만들기 위하여 자본수출을 일층 강화하였다. 영국자본이 대대적으로 밀려들어옴에 따라 이 나라 경제는 식민지적기형성을 띠면서 자본주의적으로 급속히 발전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민족의 고유한 생활을 떠난 민족문학이 있을수 없듯이 민족문학을 떠난 세계문학도 있을수 없다.》

오래동안 식민지로 있었던 사정으로 하여 카나다에서는 민족문학이 일찍부터 발전하지 못하여 그 력사가 매우 짧다.

카나다문학의 시원은 원주민인 인디안과 에스키모사람들이 창조한 구전문학이다. 전설과 옛말, 가요 등 카나다원주민들의 구전문학은 천지개벽이야기, 종족의 시원에 대한 이야기, 전쟁과 평화에 대한 이야기, 동물이야기, 사랑이야기 등 다양한 내용을 담고있다.

그들의 구전문학유산은 오래동안 구전으로 전승되여오다가 20세기 중엽에 와서야 영어계카나다작가들에 의하여 수집정리되고 책으로 출판될수 있었다. 그 대표적인것이 《밀의 녀신 기타 카나다인디안들의 옛말》(1956), 《카나다의 원주민들》(1956)이다. 이 작품집들에는 전설과 옛말에 나오는 용감하고 성실한 인디안주인공들에 대한 이야기가 벌어지며 카나다원주민들의 생활과 사상감정, 지향이 반영되였다.

카나다의 서사문학은 건국이전시기인 18세기 80년대부터 영어와 프랑스어로 창조되기 시작하였으며 전반적으로는 영어계문학이 우세하였다.

카나다문학은 그 언어에 따라 영어계문학과 프랑스어계문학으로 구분하여 서술하는것이 관례로 되여있다.

영어계문학

18세기말－19세기 영어계카나다문학의 첫 작가들가운데서 알려진것은 신문주필이였던 하우, 풍자 및 유모아작가 할리버튼, 시인 골드스미스였다.

특히 토마스 할리버튼(1796－1865)의 이야기집 《시계상인 쌤 슬리크이야기》(1836)는 유럽에까지 알려졌다.

작품에는 미국인의 전형인 장사치 쌤이 형상되여있다. 려행도중에 우연히 설화자와 동행하게 된 쌤은 미국인들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민족이라고 우쭐렁거린다. 그는 자고자대하면서 교활한 수법으로 시계를 팔아넘겨 제 리속을 채운다. 하지만 이자는 쌍스러운 말밖에 할줄 모르고 예술에 대해서는 캄캄이며 돈계산밖에 할줄 모른다.

작가는 쌤의 형상을 통하여 얼마전에 독립을 선포하고 《민주주의》를 표방하면서 령토확장을 위해 피눈이 되여 날뛰던 미국인들을 날카롭게 풍자하였다.

작가는 이 작품의 속편 《외교관이 되여 영국에 나타난 쌤 슬리크》에서도 미국인들에 대한 풍자를 계속하였다.

시인 올리버 골드스미스(1787－1861)는 같은 이름을 가진 영국시인의 조카이다. 그는 서사시 《신흥마을》(1825)에서 삼촌의 감상주의서사시 《황페한 마을》의 형식을 모방하면서도 카나다농촌생활의 특성을 생동하게 반영함으로써 초기 카나다문학에 뚜렷한 흔적을 남겼다.

죠제프 하우(1804－1873)도 카나다민족문학을 발전시키는데 이바지하였다. 계몽주의사상의 소유자였던 하우는 신문 《노바 스코쉬》(새 스코틀랜드사람)의 주필로 있으면서 할리버튼과 골드스미스의 작품을 신문에 게재하여 보급하였을뿐아니라 자신이 서정시와 서사시, 려행기와 정론을 직접 써서 신문에 발표하였다. 그는 또한 문학구락부를 운영하여 문학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였다.

이 시기에 녀류작가 캐서린 트레일(1802－1899)과 슈잔나 무디(1803－1885)도 알려졌다. 트레일은 《카나다의 숲속에서》에서 카나다

자연의 아름다움을 재치있게 그려냈으며 무디는 자서전적인 작품인 《밀림에서의 투쟁기》(1852)에서 엄혹한 자연과 싸우는 카나다개척민들의 투쟁모습을 유모아에 담아 묘사하였다.

카나다문학에서 개척민주제를 취급한 이 작품이 창작된 후 녀류작가 프랭씨스 브룩크가 서한체장편소설 《에밀 몬타규이야기》에서 개척민들의 생활을 반영하였다.

19세기 전반기 영어계카나다문학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것은 인디안주제의 작품들이다. 이 주제에서 대표적인 작가는 백인과 인디안녀자사이에 태여난 죤 리쳐드슨(1796—1852)이였다. 1812년 카나다에 침입한 미국군대를 반대하여 용감히 싸운 인디안들의 투쟁업적이 깃들어있는 고장에서 자라난 작가는 인디안주제에 깊은 관심을 돌리고 서사시 《테쿰쎄 또는 서부의 용사》(1828)에서 용감한 인디안추장 테쿰쎄의 인상적인 형상을 창조하였다. 그는 또한 장편력사소설 《바쿠스타》(1832)와 그 속편 《카나다의 형제들》(1840)에서 폰티아크가 지휘한 인디안군의 더트로이트포위전투를 생동하게 그려냈다.

1867년 영련방안에서나마 자치권을 쟁취한 카나다에서는 그 어느때보다 민족자주의식이 높아져 독자적인 카나다민족문화를 창조하기 위한 지식인들의 카나다우선시운동이 벌어졌다. 문학잡지 《일주일》을 비롯하여 여러 출판물들이 발간되고 대학들이 창립되였으며 예술과 과학발전을 위한 카나다협회가 나왔다.

이러한 사회적기운을 반영하여 19세기 후반기 애국적인 랑만주의시인들이 문단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였다. 메이어, 로버츠, 람프맨, 스코트 등이 그 대표자들이다.

메이어(1838—1927)는 서정시집 《공상의 나라》(1868)와 민족시극 《테쿰쎄》(1886)를 내놓았다. 그는 《공상의 나라》에서 카나다의 아름다운 자연을 칭송함으로써 애국주의를 고취하였다. 찰즈 로버츠(1860—1943)는 시집 《오리온 및 기타 시들》에서 카나다인민들은 자체의 독자적인 문학예술을 창조할수 있다는것을 보여주었다. 그는 애국적인 송시도 쓰고 농민들의 로동과 생활을 노래한 시도 썼으며 재간있는 풍경시도 씀으로써 널리 알려지게 되였다.

아치볼드 람프맨(1861—1899)은 쏘네트형식의 시를 비롯한 다양한 형식의 시발전에 이바지하였으며 단칸 스코트(1862—1947)는 원주민강제거주지에서 사는 인디안들의 생활을 반영하면서 인디안들에게 깊은 동정을 표시하였다.

이러한 시인들의 활동에 의하여 카나다문학이 독자적인 면모를 갖추게 되였다.

19세기 후반기 영어계카나다문학에서 눈에 띄는것은 력사물주제의 작품들이 많이 창작된것이다.

그 대표적인 작가가 커비(1817—1906)와 파커(1862—1932)이다. 독자적인 카나다문학을 창조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활동한 커비는 장편력사소설 《금빛개》(1877)에서 지난날 퀴베크의 생활을 재현하였으며 파커도 지난 시기 카나다사람들의 생활을 반영하면서 카나다도 자기의 력사와 전통을 가진 나라라는것을 보여주었다.

프랑스어계문학

19세기초 프랑스어계카나다문학을 발전시키는데서 중요한 역할을 한것은 《레 카나디엥》을 비롯한 신문과 잡지들이였다.

삐애르 베다르(1762—1829)는 1806년에 창간한 신문 《레 카나디엥》에 프랑스어계카나다시인들의 시들을 게재하고 지식인들속에서 나타나고있던 민족자주의식을 선전하였다. 후에 이 신문을 인계받은 에띠엥느 빠라나(1802—1874)도 《우리의 대학, 우리의 언어, 우리의 법》이라는 구호를 들고 카나다의 독자적인 문화를 창조할것을 주장해나섰다.

영어계카나다문학과 마찬가지로 프랑스어계카나다문학에서도 시문학이 먼저 나오고 소설문학은 후에 나왔다.

프랑스어계카나다시문학의 첫시기 대표적시들은 죠제프 께넬(1749—1809)의 헌시, 대화시, 교훈시들과 죠제프 메르메(1775—1820)의 송시 《샤또게아부근전투에서의 승리》, 《나이아가라폭포찬가》였다.

이 시들은 프랑스시의 모방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고전주의적기운이 강하였다.

그러나 카나다문학에서 고전주의는 짧은 기간 존재하였다. 퀴베크에서 출판된 첫 시집인 미쉘 비보(1782—1857)의 《헌시, 풍자시, 기타 작품집》(1830)이 카나다고전주의의 마지막작품으로 되였다.

19세기 30년대초부터 프랑스어계카나다문학에서는 랑만주의가 발생하였다. 이 문학은 식

민지예속에서 벗어나기 위한 1837년 인민봉기를 계기로 앙양된 인민들의 독립에 대한 지향과 요구를 반영하였다. 랑만주의작품들에서는 식민지인민들의 불행과 폭압에 대한 항거, 자유와 독립에 대한 지향, 투쟁에로의 호소가 울려나왔다.

카나다진보적랑만주의문학의 대표자는 《프랑스어계카나다문학의 아버지》로 불리운 오끄따브 끄레마지(1827—1879)이다. 그의 시유산으로 1849년부터 1862년사이에 창작된 27편의 서정시와 서사시가 있다.

끄레마지의 시들은 애국애족정신이 강한것이 특징이다. 그는 자기의 시들에서 카나다를 찬양하고 카나다의 산림과 호수를 자랑하였으며 지난날 카나다의 력사에 대해서도 긍지감을 가지고 돌이켜보았다.

끄레마지의 대표작은 서사시 《까리온의 기발》이다. 작품의 주인공은 지난날 프랑스군의 군기수로서 카나다에 원정왔다가 그곳에 정착한 전쟁로병이다. 그는 군기를 가장 신성한 유산으로 간주하고 귀중히 보관해왔다. 오랜 세월이 지난 후 그는 총탄자리가 력력한 이 색날은 군기를 가지고가 프랑스왕에게 청원하면 식민지 카나다사람들의 처지를 개선할수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품게 된다. 하여 그는 큰 기대를 가지고 대서양을 건너 프랑스로 간다. 그러나 그곳에서는 그를 랭대하고 미친 사람으로 취급하였다. 그의 기대는 산산이 부서지고만다. 그는 자기가 얼마나 어리석었는가 하는것을 깨닫고 카나다로 돌아오며 카나다땅에 자기의 뼈를 묻으리라 마음다진다.

이를 통하여 서사시는 카나다사람의 조국은 카나다이고 카나다사람들은 그 누구에게 기대를 걸것이 아니라 자기 땅에서 자신이 행복을 창조해야 하며 카나다를 사랑해야 한다는 사상을 강조하였다.

그리하여 이 서사시는 카나다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유명한 작품으로 되였으며 이 작품으로 하여 그는 카나다의 《민족적시인》으로 불리우게 되였다.

끄레마지는 그밖에도 《카나다로병의 노래》를 비롯한 여러 시들에서 카나다인민들의 애국심을 고취하였다.

끄레마지와 함께 시인 루이 프레쉐뜨(1839—1908)도 잘 알려져있다. 《작은 빅또르 유고》로 불리운 프레쉐뜨는 《나의 여가시간》(1863), 《류형수의 목소리》(1868)를 비롯한 시집들과 《민족의 전설》(1887)을 비롯한 서사시에서 끄레마지의 애국적인 창작의 뒤를 이어 애국애족사상을 표현하였다.

프랑스어계카나다문학에서 소설이 창작되기 시작한것은 1830년대부터이다.

소설문학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것은 오베르 드 가스뻬부자의 작품들이다.

필리프 오베르 드 가스뻬(아들, 1814—1841)의 《보물을 찾는 사람》(1837)은 프랑스어계 카나다문학의 첫 장편소설이다. 소설의 서문에서 작가는 애인들의 상봉이나 숲속에서의 산보 등을 노래한 목가적이고 감상적인 시를 배격하고 공업의 시대인 당대의 요구에 맞게 사람들의 심장속으로 깊이 파고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보물을 찾는 사람》은 련금술사 샤를 아만과 그의 딸의 애인인 의학대학생 쌤 쎄랑의 운명을 그린 랑만주의소설이다. 샤를 아만은 마술의 힘으로 보물을 찾아 사람들에게 행복을 가져다주려고 한다. 그는 가난한 오막살이에서 미치광이 취급을 당하면서 아득바득 애를 쓰나 성공하지 못한다. 그와는 달리 처세술이 능한 쌤 쎄랑은 자신이 출세할수 있는 지반을 착실히 닦아나간다. 소설은 여기에다 전설과 구전문학을 삽입하여 이야기를 흥미있게 끌고나가고있으며 여러가지 계기를 통하여 당시 카나다의 사회상과 사람들의 지향을 반영하였다.

동명의 그의 아버지(1786—1871)도 장편소설 《옛 카나다사람들》(1863)에서 지난날 카나다사람들의 생활을 생동하게 재현하였다.

가스뻬(아들)의 첫 장편소설에 뒤이어 죠제프 두뜨르(1825—1886)의 《1812년의 애인들》(1844)이 창작되였다.

소설은 두 애인의 운명선을 따라 결투, 랍치, 추격, 변장, 뜻밖의 상봉 등 여러가지 사건과 모험들을 그린 렵기적인 작품이다. 작가는 작품을 통하여 여러가지 사회적, 철학적, 도덕적문제들을 제기하려고 했으나 그것은 추상적론의에 그치고 형상으로 구현되지 못하였다.

19세기 프랑스어계카나다소설문학에서는 지난날의 력사에 주목을 돌린 작품들이 많이 창작되였다. 그 대표적인 작품이 죠제프 라폼브(1807—1863)의 중편소설 《조상의 땅》(1846)과 로라 꼬난(필명: 펠리씨데 앙제르,

1845—1924)의 장편소설 《앙젤리나 드 몽브렝》(1881)이다.

《조상의 땅》은 가난하고 불행한 농민 쇼벤일가의 생활을 그린 작품이다. 작품에서는 온 일가사람들이 이악하게 투쟁하여 빼앗겼던 조상의 땅을 기어이 찾는 과정을 생동하게 보여주고있다. 작가는 프랑스계카나다사람들의 생활을 반영하면서 근면하고 온순한 그들의 성격적특징을 밝히고 행복을 찾아 헤매는 아버지와 아들, 그들을 참을성있게 기다리는 어머니 등 다양한 인물형상을 창조하였다.

《앙젤리나 드 몽브렝》은 서사적인 묘사와 녀주인공의 일기를 결합하는 형식으로 한 평범한 처녀의 운명을 그리고있다.

녀주인공 앙젤리나는 아직 세상물정을 잘 모르는 18살의 순진한 처녀였다. 그는 애인이 생겨 곧 약혼을 하였다.

사랑하는 사람과 일생을 같이하게 된 기쁨으로 하여 마음 설레이던 그에게는 큰 고민거리가 생긴다. 그것은 일찌기 홀아비로 자기 하나를 애지중지 키워온 아버지가 마음에 걸렸기때문이다. 그에게는 애인도 귀중했지만 그에 못지 않게 아버지도 귀중하였다.

하여 두사람사이에 끼여 동요하면서 결혼을 미루던 그에게 뜻밖의 불행이 생긴다. 아버지가 사고로 죽은데다가 앙젤리나자신이 얼굴에 화상을 입어 보기 흉하게 되였던것이다. 그의 약혼자는 의무감으로 하여 파혼하지 않고 불구가 된 처녀에게 장가들려고 한다. 그러나 약혼자가 이미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다는것을 깨달은 앙젤리나는 결혼을 거절하고 아버지와 함께 있던 집에서 고독하게 살아간다. 그후 처녀는 자기 민족의 력사를 알려고 노력하며 그 과정에 자기 아버지뿐아니라 조상들에 대한 사랑과 존경의 마음이 커진다. 하여 그는 남은 생애를 조상들을 빛내이기 위한 사업에 바칠것을 결심한다.

이를 통하여 작가는 카나다사람들이 지난날의 력사를 잊지 말고 자기 선대들, 조상들을 존경해야 하며 자기 개인의 운명과 함께 민족의 운명에 깊은 관심을 돌려야 한다는것을 강조하였다.

작가는 이 작품의 속편인 《로동과 시련》(1891), 《잊어진 처녀》(1902)에서 앙젤리나의 그후 생활을 묘사하면서 프랑스계 카나다의 토대를 쌓은 조상들을 내세웠다.

19세기 프랑스어계 카나다문학발전에서 력사가인 프랑쑤아 가르노(1809—1866)는 적지 않은 기여를 하였다. 그가 쓴 《카나다의 력사》(전 3권, 1845—1848)는 력사적의의와 함께 문학적의의가 있는 저서로 높이 평가되였다.

가르노는 영국의 한 귀족이 프랑스계 카나다사람들은 자기의 력사도 없고 자기의 문학도 없기때문에 미래가 없다고 비방한데 대한 대답으로 이 책을 썼다.

이 책에서 가르노는 구체적인 자료에 기초하여 식민지시기 개척민들의 자연개조, 식민주의국가인 영국과의 전쟁 등을 설득력있게 서술함으로써 카나다사람들의 민족적존엄과 긍지감을 고취하였다. 이 책은 력사적사실의 충실한 서술과 표현력있는 문학문체를 배합함으로써 카나다문학사에서 의의있는 작품의 하나로 인정되게 되였다.

19세기에 이룩한 이러한 성과에 기초하여 카나다문학은 다음세기인 20세기에 더욱 발전하였다.

2) 미국문학

피바다속에서 솟아난 미국의 저주로운 력사와 문학유산

북아메리카대륙의 남부에 위치하고 카나다가 잇닿아있는 미국은 많은 인구와 광대한 령토를 가지고있는 제국주의나라이다.

미국의 주민구성을 보면 85%가 유럽에서 건너온 식민주의자들과 이민들의 후손들이며 그밖에 흑인과 인디안, 아시아와 다른 아메리카나라들에서 온 이민들과 그 후손들 그리고 숱한 혼혈인들로서 세계에서 인종이 제일 잡다하다.

공용어는 영어이며 대다수가 그리스도교도이다.

미국이 국가로 형성된지는 220여년밖에 안된다. 그러나 미국력사의 전과정은 첫날부터 강도적략탈과 류혈적침략으로 일관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지구상에는 미제국주의의 침략의 마수가 미치지 않는곳이 없으며 미제의 발길이 닿는곳에 인민들의 피가 흐르지 않는데가 없다.》

미국은 세상에 생겨나면서부터 포악한 침략

성을 띠고있었다.

그것은 우선 나라이름을 《미(아메리카)합중국》이라고 붙인데서도 뚜렷이 드러나고있다.

원래 《아메리카》라는 말은 서반구의 남, 북두 대륙을 포괄하는 총칭이다. 독립선포당시 미국의 령토는 북아메리카대륙의 일부에 지나지 않았다. 그런데 이와는 맞지 않게 나라이름을 《아메리카》라는 대륙이름을 달고 《합중국》이라고 한것은 처음부터 아메리카대륙전체를 집어삼키려는 미제반동지배층의 파렴치한 팽창주의적야망과 침략적계획을 공공연히 세상에 선포한것이다.

오늘의 미국땅에는 오랜 옛날부터 원주민인 인디안들이 살고있었다. 당시 북아메리카에 있던 그들의 수는 수백만명에 달하였다.

16세기초부터 북아메리카대륙의 북대서양해안의 평야지대에 쳐들어온 영국식민주의자들은 첫 발자국부터 략탈과 살인을 일삼아왔다. 인디안들은 침략자들과 맞서 용감히 싸웠지만 계속 쫓기워 서부쪽으로 밀려가게 되였다. 이 과정에 70여개 종족의 인디안 수백만명이 거의 멸족되였다.

이리하여 북아메리카의 동부 대서양해안지역에 13개 주의 영국식민지가 형성되였으며 본국에서 《독립》할것을 요구한 식민지주민들에 의하여 1776년에 《독립》이 선포되였다. 미국의 독립이 정식으로 인정된것은 《독립전쟁》에서 영국군이 패하고 1783년 빠리조약이 맺어진 때부터였다.

바로 이때로부터 피바다속에서 솟아난 미국의 저주로운 력사가 시작되였다.

미국은 독립후 첫날부터 령토팽창의 길에 나섰다. 미국은 《독립전쟁》 8년간에 미씨씨피강 동쪽의 광대한 지역을 강점하고 영국과의 강화조약에서 이 지역의 강점을 합법화함으로써 령토를 배이상으로 넓히였다. 미국인들은 계속하여 1803년에 인디안들이 태고적부터 많이 살고있던 넓고넓은 루이지애너지역을 헐값을 주고 프랑스로부터 빼앗아냈으며 록키산줄기에까지 이르는 미씨씨피강 서부지역도 저들의 손아귀에 넣었다. 이어 1819년에는 에스빠냐식민지였던 플로리더를 강탈하여 메히꼬만 연안지역까지 령토를 확장하였으며 1845년에는 메히꼬령토였던 텍써스를, 1846년에는 영국식민지였던 오리건지방을 손에 넣었다. 그리고 1848년에는 메히꼬에 대한 침략전쟁을 벌려 캘리포니어, 네바더, 유타, 애리조너 등 여러 지방을 련이어 강점하였다.

이리하여 독립선포후 77년만인 1853년에는 벌써 얼래스커와 하와이를 제외한 현재의 미국본토를 전부 차지하여 미국의 주는 13개로부터 48개(당시)로 늘어나게 되였다.

한편 미국에서는 1859년 브라운의 폭동이후 노예페지운동이 강력하게 벌어졌다. 이와 함께 농장주와 노예주들의 리익을 대변하는 남부와 자본주의적북부사이의 모순과 리해관계의 대립이 심해진 결과 1861—1865년의 남북전쟁이 일어났다. 이 전쟁에서 북부의 산업부르죠아지가 승리하여 미국에서 자본주의는 급속히 발전하기 시작하였다.

19세기말에 와서 미국독점자본은 국가의 모든 실권을 장악하고 정치, 경제생활에서 결정적역할을 하게 되였다. 19세기말 제국주의단계로 넘어선 때로부터 미제의 대외침략의 마수는 세계에 더욱 널리 뻗쳐갔다.

미국문학의 력사는 매우 짧다.

미국문학은 17세기초에 영국의 식민지문학으로 출발하였다. 따라서 미국문학에는 자체의 신화, 전설, 구전문학유산이 없다. 원주민인 인디안들의 신화와 전설, 구전문학이 있었으리라고 짐작되지만 식민주의자들에 의하여 인디안들이 거의 멸족되면서 그들의 구전문학유산도 전승되지 못하였다.

북아메리카주의 여러 지역이 영국의 식민지로 됨으로써 영국문학이 이식되여 류포되는 가운데 점차 독자적인 문학으로 태여나게 된것이 미국문학이다. 그나마 17세기초부터 19세기초까지의 약 200년동안에는 아직 문학다운 문학이 없었다.

1776년 미국이 《독립》한 이후에도 오래동안 문학다운 문학이 나오지 못하고있다가 19세기초에 들어와서야 서사문학이 나오게 되였다.

19세기 미국문학의 특징은 무엇보다도 부르죠아문학의 보급속도가 빠르고 그 반동적성격이 강했으며 그것이 사회와 문학에 미친 해독적영향이 매우 우심했다는데 있다.

부르죠아문학 조류

미국부르죠아문학의 시원으로 된것은 식민지시기에 보급된 청교도(퓨리탄교)문학이였다.

청교는 영국에서 류포된 그리스도교의 신교(프로테스탄트교)교파이며 자본가들과 식민주의자들의 리익을 철저히 옹호한 부르죠아종교였다.

영국에서 미국식민지로 이주해온 청교도들은 그곳에 《리상적인 신의 나라》를 건설할것을 표방하고 《신권정치》를 실시하였으며 모든 이주민들, 모든 인종들이 무조건 그에 복종하도록 강요하였다.

그들은 이 우주는 인간을 중심으로 만들어진것이 아니라 신을 중심으로 만들어진것이다, 따라서 인간의 모든 힘은 신을 위해 복무하는데 바쳐져야 한다, 인간은 신의 창조물이며 선천적으로 죄많은자이므로 신의 자비에 의해서만 악에서 구원될수 있다고 설교하면서 신에 대한 절대적인 신봉과 인간에 대한 불신을 조장시켰다.

이러한 주장에 기초하여 문학과 예술도 종교에 예속되였다.

매써츄쎄쯔식민지의 교회지도자였던 메더의 저서 《미국에서의 그리스도의 위업》(1702), 이름난 신학자였던 에드워즈의 설교록 《분노하는 신의 손안에 든 죄인》(1741)을 비롯한 종교문헌들이 다 그러한 반동적역할을 놀았다.

식민지시기부터 뿌리깊이 심어지고 널리 류포된 종교사상과 종교문학은 시종일관 사람들의 건전한 사상의식을 좀먹고 인간학으로서의 문학의 발전을 저해하는 반동적역할을 놀았다.

그러므로 진보적인 사회층과 작가들은 처음부터 그를 반대하는 투쟁속에서 자기들이 나아갈 길을 개척해나갔다.

미국의 부르죠아문학에서 또한 큰 자리를 차지한것은 침략적이고 범죄적이며 인종주의적인 성격을 띤 미국을 미화하고 그에 대한 환상을 조장시키며 그들의 강도적론리를 정당화한 어용문학이다.

그 사상적대변자가 에머슨(1803—1882)이였다. 7대를 내려오면서 목사를 한 보스턴의 교직자가정에서 태여나 자신도 목사가 된 그는 결별설교를 하고 목사직을 그만둔 후 매써츄쎄쯔주의 작은 마을 콘코드에 들어박혀 강연과 저술활동을 벌린것으로 하여 《콘코드의 철학가》로 불리웠다.

그는 개인주의와 범신론적신비주의를 내용으로 한 《초월주의》를 내놓아 미국의 강도적론리를 정당화하였다. 그가 쓴 《시집》(1847), 《메이 데이》(1867) 등의 시집과 10권으로 된 《일기》, 《미국의 학자》(1837)를 비롯한 강연록에는 바로 이러한 사상이 담겨져있다.

에머슨의 작품들은 전통적인 종교교리와 자본주의현실의 불합리를 비판하고 유럽학문에 대한 예속에서 벗어날것을 호소한것 등 상대적인 긍정면을 가지고있으나 총체적으로는 철저한 개인주의와 유신론을 고취함으로써 미국에서 부르죠아반동문학이 류포되는것을 추동하는 작용을 하였다.

에머슨이 류포시킨 《초월주의》사상의 영향은 녀류시인 에밀리 디킨슨(1830—1886)의 시에서 여실히 나타났다.

한생을 처녀로 살면서 거의 집문밖에 나가지 않고 은둔생활을 한 그는 후에 묶어진 《시집》(사후 1890년과 1955년에 출판)에 1 700편이상의 시를 남겼다.

그는 이 시들에서 주로 자연, 사랑, 죽음, 영생 등 관념의 세계를 상징적인 이메지에 담음으로써 이메지즘(사상파)의 선구자로 되였다.

미국의 서적시장에서 판을 친것은 《조화로운 미국》, 《자수성가한 인물》의 형상창조에 바쳐진 이른바 《락천주의》문학이다.

수많은 작품들은 미개척지로 남아있는 《광활한 대지》에 발붙이고 꾸준히 노력한다면 생활을 향상시킬 《무제한한 가능성》이 있다는 환상을 퍼뜨렸다. 이것은 청교도의 교리대로 극력 절약하고 검소하게 살면서 부지런히 애쓰면 얼마든지 성공하고 잘살수 있다는 《미국의 꿈》을 낳았다.

와이트, 로리머와 같은 부르죠아작가들은 자기들의 작품에서 《100%미국인》의 리상을 그리고 온갖 강압과 폭행, 략탈을 《애국주의》, 《민족적리익》, 《미국적특색》으로 찬양하였다.

《미국의 꿈》은 사실주의작가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쳤다. 사실주의리론의 기초를 축성한 하우얼즈와 같은 작가가 현실을 미화하는 방향으로 나가 《싸일러스 라팜의 출세》(1885)를 비롯한 소설들에서 《행복한 결말》로 끝나는 《성공》하는 인물을 그리면서 미국의 강도적, 략탈적본성을 합리화해나선것은 그 뚜렷한 실례로 된다.

19세기말에는 유럽의 잡다한 자연주의, 형식주의문학조류들이 대서양을 건너와 미국의 부르죠아문단을 장식하였다.

미국에서도 자연주의는 인간과 생활을 《과학적》으로 그린다는 미명하에 현실의 본질을 외

면하고 현상만을 그 어떤 정치적, 도덕륜리적 기준이 없이 기계적으로 라렬복사함으로써 사회계급적모순을 가리우는 해독적작용을 하였다.

형식주의문학조류들은 《순수문학》, 《예술을 위한 예술》의 간판밑에 반동적인 인종차별사상, 극단적인 개인리기주의, 종교적신비주의를 고취하였다.

례를 들어 암브로스 비어스(1842—1914)는 단편소설집 《기괴한 이야기》(1893)에서 생활을 무섭고 무의미한 우연의 련쇄로, 병신들의 란무장으로 그렸으며 괴이한 환상적이야기에 집착시켰다.

19세기말에 퍼지기 시작한 형식주의문학조류와 류파들은 20세기에 들어서면서 더욱 우심해졌다.

랑만주의문학

19세기 미국문학발전과정의 특징의 다른 하나는 문학의 력사가 랑만주의로부터 시작되였으며 유럽문학에 비해 랑만주의문학의 지속기간이 오래고 사실주의문학의 발생이 매우 늦어진것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사실주의가 생활을 있는 그대로 진실하게 그리는 창작방법이라면 랑만주의는 인간과 생활을 작가의 주관적의도와 리상에 맞게 그려낸다는데 그 특징이 있습니다.》

미국문학의 력사는 랑만주의로부터 시작되였다.

미국에서 문학이 자기의 체모를 갖춘것은 1783년 미국《독립》후 근 반세기가 지난 1820년경부터이다. 그것도 뉴 잉글랜드로 불리운 대서양쪽 북부해안지방의 좁은 지역에서였다. 그 중심지가 뉴욕이였다. 당시 뉴욕은 신흥항구도시로서 아직 식민지의 잔재가 많이 남아있고 문화수준이 낮았으며 상인들이 집중되여있었다.

뉴욕출신의 어빙, 쿠퍼와 남부 버지니어출신의 포우가 최초의 미국문학을 대표하였는데 그들은 다 랑만주의작가들이였다.

미국문학에서 랑만주의는 19세기 20년대에 발생하여 50년대까지 지배적인 사조로 되였다.

미국문학이 발생초기에 랑만주의로 나간것은 독립이후에 반동화되여간 미국현실에 대한 진보적사회층의 불만때문이였다.

미국이 《독립》전쟁에서 《승리》하고 식민주의국가인 영국의 지배에서 벗어나 《독립》을 이룩하였으나 대부르죠아지들과 대농장주들의 리해관계를 대변한 미국통치배들에 의하여 더욱 반동화되여갔다. 하여 자유와 평등을 바라던 진보적사회층과 인민들의 기대는 허물어지고 자유와 평등이 보장될 신세계에 대한 환상은 환멸로 바뀌여졌다.

또한 종교적인 면에서 볼 때도 카톨릭교의 박해를 피하여 신앙의 자유를 바라고 신대륙에 넘어온 청교도들이 종교적리상을 다 집어치우고 재물에 눈이 어두워 미쳐날뛰면서 청교이외의 다른 종교를 이단으로 간주하고 박해해나섬으로써 사람들의 불만을 야기시켰다.

이처럼 현실에 불만을 품으면서도 그 출로를 알지 못한데로부터 작가들은 생활을 있는 그대로 진실하게 그리는 사실주의로 나간것이 아니라 인간과 생활을 작가의 주관적의도와 리상에 맞게 그리는 랑만주의로 나갔다.

미국랑만주의문학의 발생발전단계를 19세기 20—30년대의 초기랑만주의와 30년대말—50년대 중엽의 중기랑만주의, 50년대 중엽부터 남북전쟁시기까지의 말기랑만주의로 갈라볼수 있다.

초기랑만주의의 대표자는 어빙, 쿠퍼이고 중기랑만주의의 대표자는 포우, 호손, 멜빌, 롱펠로우, 비쳐 스토우이며 말기랑만주의의 대표자는 휘트먼이다.

초기랑만주의문학의 특징은 현실에 불만을 가진 작가들이 현실에서 도피하여 지난날의 력사에서 소재를 잡거나(어빙), 미개척지인 서부의 광활한 자연을 대상으로 삼는데로(쿠퍼) 나간것이다.

이로부터 초기랑만주의문학은 보수적성격이 강하였으며 여기에서는 현실과 유리된 력사소설과 자연을 무대로 한 작품들이 우세를 차지하였다.

워싱턴 어빙(1783—1859)의 창작적특징은 조상의 땅인 유럽에 대한 향수와 지난날에 대한 회상이 강한것이다.

1820년에 발표한 어빙의 대표작 《스케치 부크》(소묘집)는 미국, 유럽의 옛말과 지방의 정서가 진한 이야기, 수필 34편을 묶은 작품집이다. 작품집에는 미국현실에 대한 혐오, 유럽과 자연에 대한 그리움이 진하게 표현되였다.

작가는 《현재의 평범한 현실에서 벗어나 과거의 영광속에 자신을 잃어버리고싶다》고 하면

서 조상의 땅인 영국에 대한 그리움, 머나먼 과거, 문명세계와 떨어진 자연에 대한 애착의 감정을 토로하였다.

《스케치 부크》가운데서 널리 알려져있는것은 《리프 밴 윈클》이라는 단편소설이다.

어빙의 《스케치 부크》는 반동화되여가는 미국의 현실을 비판한 긍정면과 함께 현실에서 도피하여 지나간 과거와 자연속에서 위안을 찾으려는 제한성을 다같이 가지고있다.

제임즈 페니모어 쿠퍼(1789—1851)는 민주주의사상을 소유하고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내용을 담은 30여편의 소설을 씀으로써 당시 미국의 가장 이름난 작가의 한사람으로 되였다.

쿠퍼는 미국문학에서 첫 력사소설로 불리우는 《간첩》(1821), 첫 해양소설 《라이오넬 링컨》(1825) 등도 썼으나 대표작은 《가죽각반이야기》로 총칭되는 5편의 《변강소설》이다.

작품은 나티 반푸라는 용감한 변강개척의 방랑자를 주인공으로 한 련작장편소설로서 《개척자》(1823), 《모히칸족의 최후》(1826), 《대초원》(1827), 《탐험자》(1840), 《사슴사냥군》(1841)으로 구성되여있다.

그가운데서 가장 유명한것이 《모히칸족의 최후》이다.

작품은 북아메리카에서 식민지쟁탈을 위한 영국과 프랑스의 싸움이 치렬하게 벌어지던 1700년대 중엽을 배경으로 모히칸족의 운명을 보여주고있다.

작품에는 비록 자기 종족의 대를 이어가야 할 유일한 존재이지만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일에는 목숨도 서슴없이 바치는 굳세고 용감한 웅카스가 인상적으로 형상되여있다. 소설은 자기 종족의 존엄과 권리를 지키기 위한 인디안들의 용감하고 슬기로운 투쟁모습과 함께 그들의 피멸을 깊은 동정을 담아 그리고있다.

작품은 백인식민주의자들의 교활성과 야수성을 바로 취급하지 못하고 력사적진실을 바로 그리지 못한것, 예술적으로 세련되지 못한것 등 제한성을 가지고있으나 째인 구성과 강한 극성으로 하여 널리 알려지게 되였다.

미국랑만주의문학은 1830년대말부터 50년대에 더욱 발전하였다. 이 시기에 포우와 같은 일부 작가들을 제외하고 대다수의 진보적작가들은 현실과 동떨어진 초기랑만주의작가들과는 달리 사회적문제에 주되는 관심을 돌리고 현실비판을 강화해나갔다.

북부뉴욕출신의 어빙, 쿠퍼와 달리 남부 버지니어출신의 유일한 작가인 에드거 앨런 포우(1809—1849)는 매우 모순된 사람으로서 사생활에서나 창작생활에서 여러가지로 물의를 일으켰다.

포우의 창작유산으로 몇권의 시집과 약 70편의 단편소설, 일련의 평론이 있다. 그가운데서 시집 《큰 까마귀》(1845), 단편소설 《아셔일가의 몰락》(1839), 《검은 고양이》(1843), 추리소설 《모르그거리의 살인》(1841), 《황금벌레》(1843), 평론 《시창작철학》(1846)이 잘 알려져있다.

포우의 작품들에는 괴이한 환상, 범죄에 대한 정열, 인간의 병적심리 등이 적지 않게 묘사되여있으며 사람들에게 공포와 절망을 주는 장면들이 많다. 이런 점에서 포우의 창작은 미국문학에서 반동적랑만주의와 19세기 후반기의 퇴페주의를 련결시키는 다리의 역할을 놀았다.

다른 한편 포우는 짧은 소설과 추리소설창작에서 특기를 발휘하여 미국의 소설문학에서 단편소설형태를 확립하고 추리소설을 발전시키는데 이바지하였다.

포우와는 달리 호손, 멜빌, 스토우, 롱펠로우, 휘트먼 등 많은 작가들이 민주주의적이며 사회비판적인 요소를 강화하였다.

미국의 진보적랑만주의작가들가운데서 호손이 종교의 허위성을 비판하고 멜빌이 당대의 사회악을 상징적으로 비판하였다면 비쳐 스토우와 롱펠로우는 흑인노예들의 비참한 처지를 반영하고 노예제페지를 호소하였으며 휘트먼은 민주주의사상을 강하게 제기하였다.

네이서니얼 호손(1804—1864)의 창작유산으로 《진홍색글자》(1850), 《7개의 뾰족지붕이 있는 집》(1851), 《블라이드골짜기이야기》(1852), 《대리석으로 만든 목축신》(1860) 등 4편의 장편소설들과 단편소설 《다시 이야기된 이야기》(1837—1851)가 있다.

호손의 대표작인 장편소설 《진홍색글자》는 청교의 도덕적인습이 심한 식민지에서 의사의 안해가 젊은 목사와 사랑에 빠지는 이야기와 그에 대한 사회적비난이 얽힌 작품이다.

작품에서 작가는 미국식《민주주의》의 기초

로 되고있는 청교도덕의 위선을 랑만적으로 비판하였다. 다른 한편 작가는 자기가 비판한 그러한 현실로부터의 출로를 알지 못한데로부터 비관주의적이며 신비주의적인 색채를 진하게 나타냈다.

허먼 멜빌(1819—1891)은 상선과 고래잡이배의 선원으로 오래동안 바다에서 생활한 체험에 기초하여 랑만주의소설가로 된 작가이다.

그는 초기에 쓴 장편소설 《타이피》(원주민의 말로 식인종이라는 뜻, 1846), 《오므》(1847)에서 부르죠아문명을 랑만주의적으로 비판하고 자연의 품속에서 이어지는 원시적인 생활을 긍정하였다.

그의 대표작인 장편소설 《흰 고래 또는 모비딕》(1851)은 바다사람들에게 숱한 재난을 들씌운 괴물고래를 잡기 위한 고래잡이배 선장의 필사적인 싸움과 그의 파멸에 대하여 이야기한 작품이다.

소설에서 작가는 거대한 흰 고래 모비딕을 자본주의세계를 지배하는 사회악의 상징으로, 에이하브를 그에 도전해나선 랑만주의적반항아로 그리면서 인간의 존엄을 지켜 초인간적투지로 싸우는 에이하브의 강렬한 성격을 찬양하였다.

그리고 그속에 인간의 자유를 구속하고 그의 존엄을 무시하는 당대 미국의 반동적현실에 대한 비판을 담았다.

그러나 이 모든것은 상징적으로 암시되고있을 따름이며 구체적인 형상으로 제시되지 못하였다.

작품에서는 결국 주인공이 파멸하고마는것으로 그림으로써 비관주의가 흐르고있다. 여기에는 사회적모순을 인식하면서도 그것을 극복할 긍정적리상을 가지지 못했던 작가의 세계관적제한성이 반영되여있다.

작품은 발표당시 혹평을 받았으며 작가는 문단에서 버림받고 불우하게 생을 마쳤다. 그러나 작가가 죽은 때로부터 30년이 지난 후 이 작품이 재평가되여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지게 되였다.

미국의 진보적랑만주의작가들가운데는 흑인노예제를 반대하는 항의의 목소리를 높인 스토우와 롱펠로우가 있다.

해리어트 비쳐 스토우(1811—1896)는 당시 미국진보적사회계의 중심문제로 나섰던 흑인노예제페지운동에 많은 관심을 돌리고 노예해방을 주제로 한 소설들을 세상에 내놓았다.

장편소설 《톰아저씨의 집》(1852), 《톰아저씨의 집의 열쇠》(1853), 《드레드》(1856) 등이 그 주요작품들이다.

그의 대표작인 《톰아저씨의 집》은 미국에 세워진 야만적인 흑인노예제도를 반대하는 흑인들과 인민들의 투쟁이 대중적운동으로 벌어지고있던 19세기 중엽 미국사회의 현실을 배경으로 주인공 톰을 비롯한 흑인노예들에 대한 백인노예주들의 가혹한 착취와 야수적인 학대를 통하여 미국흑인들의 비참한 처지와 미국식《민주주의》의 허위성을 폭로한 작품이다.

소설은 주인공 톰의 형상을 통하여 흑인노예제도의 비인간적이며 흉악무도한 본질을 폭로하고 자유와 평등에 대한 미국인민들의 지향을 보여주고있다. 백인식인종들의 채찍밑에서 피를 토하며 쓰러지는 흑인노예 톰과 팔려가게 된 자기 아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도망치는 일라이저의 형상은 작품의 이러한 사상을 밝히는데 이바지하고있다.

작품은 톰을 비롯한 흑인노예들의 고상한 내면세계를 펼쳐보임으로써 그들이 피부색이 검은것이 죄가 되여 노예의 처지에 놓여있기는 하나 백인노예주들에 비하여 정신도덕적으로 얼마나 더 고상하고 인도주의적인 사람들인가 하는것을 예술적으로 보여주고있다.

소설은 또한 미국 인종주의자들의 야수적본성과 교활성, 악랄성을 폭로규탄하였다. 톰을 가혹하게 압박하며 노예경매시장에서 마소처럼 팔아먹는 매리, 수많은 노예들을 혹사하며 녀성들을 유린하는 잔인무도한 레글리 등은 당시 미국노예주들의 전형적형상들이다.

작품은 지배계급에 대한 환상을 표시하고 그리스도교적순종과 박애주의를 설교하였으며 감상주의적요소를 드러낸것 등 여러가지 제한성을 가지고있으나 당시 미국흑인노예제도의 반인민성을 폭로단죄함으로써 사람들을 흑인노예제도를 반대하는 투쟁에로 불러일으키고 미국의 진보적문학을 발전시키는데 이바지하였다.

이 소설이 발표된 후 얼마 안되는 기간에 500만부나 팔리는 기록을 낸것은 작품의 견인력을 잘 말해주고있다.

녀류작가는 이 소설을 쓴것으로 하여 큰 전쟁(남북전쟁)이 일어나게 만든 조그마한 녀성으로 불리웠다.

비쳐 스토우의 장편소설 《톰아저씨의 집》

보다 10년가량 앞서 노예제를 반대하는 힘있는 목소리를 높인 시인이 있었다. 그가 바로 시집 《노예제에 대한 노래》(1842)를 창작한 헨리 워즈워스 롱펠로우(1807－1882)였다.

시집에 수록된 여러 시들에서 시인은 학대받는 흑인노예들의 비참한 처지를 통하여 그들에게 깊은 동정을 표시하고 노예제를 반대하였다.

롱펠로우는 또한 인민구전문학에 기초한 서사시 《이반젤린》(1847)과 《하이어와사의 노래》(1855)를 쓴 시인으로서 유명하였다.

《이반젤린》은 18세기 후반기 미국과 프랑스가 식민지쟁탈전을 벌리던 시기를 배경으로 마을처녀 이반젤린과 단야공의 아들 게이브리엘의 비극적사랑이야기를 담고있다.

이 시의 의의는 수많은 어용작가들이 미국의 력사를 《민주주의》의 자랑찬 력사로 미화하고 찬양하고있던 시기에 지나간 력사이야기를 통하여 미국의 력사는 수많은 사람들의 피눈물로 얼룩진 살인과 략탈, 압제의 력사라는것을 폭로한데 있다.

서사시 《하이어와사의 노래》는 인디안의 신화적영웅 하이어와사에 대하여 노래한 작품이다. 서사시에서 시인은 백인침략자들에 의하여 인디안들의 평화로운 생활이 송두리채 파괴된데 대하여 이야기하면서 원주민들의 생활을 동정하고 미국의 력사를 비판하였다.

비판적사실주의 문학

19세기 20년대에 발생하여 오래동안 미국문단을 지배해오던 랑만주의문학사조는 19세기 50～60년대에 이르러 쇠퇴하기 시작하였으며 70년대에 비판적사실주의와 교체되게 되였다. 마크 트웨인의 장편소설 《도금시대》(1873)는 이러한 시대를 반영하여 나온 작품이다. 작가는 이 소설에서 정치도 사회도 인심도 모든것이 황금으로 도색된 당시 미국사회를 신랄히 풍자비판함으로써 비판적사실주의의 특성을 확연히 나타냈다.

이 시기 비판적사실주의문학의 발생은 남북전쟁(1861－1865)이후에 조성된 새로운 현실의 반영이였다.

남북전쟁이 북의 승리로 끝난 후 19세기 후반기에 미국은 종래의 농업국으로부터 근대적인 자본주의공업국으로 되였으며 19세기말에는 미국의 자본주의가 독점단계로 이행하여 미국은 제국주의국가로 되였다.

서부의 미개척지가 놀라운 속도로 개발되고 철도, 원유, 광업, 토지투기 등 기업이 발전하면서 사람들속에서 재부에 대한 갈망과 야심이 커지고 《양키주의》로 불리우는 파렴치한 실용주의가 판을 치게 되였다. 정치계와 실업계에서 부정부패와 뢰물행위가 만연되고 추문사건이 꼬리를 물었다.

또한 자본주의공업발전에 따르는 필연적현상인 실업문제, 농촌문제, 그밖의 사회적문제들이 제기되였다. 1873년의 경제공황으로 파업이 일어나고 1883년에는 전국로동조합련합이 조직되였다.

이러한 속에서 랑만주의정신이 사라지고 미국의 《번영》과 미국식《민주주의》에 대한 기대가 허물어져 환멸과 비판의 감정, 현실비판정신이 높아졌다.

바로 이러한 현실이 비판적사실주의발생의 전제로 되였다.

미국비판적사실주의문학의 중요한 특징은 착취사회현실을 강하게 비판한것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착취사회현실을 비판하는것은 비판적사실주의문학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비판적사실주의라는 이름도 이러한 특성과 관련하여 붙여진것입니다.》

사회현실에 대한 비판은 과거의 진보적문학에서도 있었지만 비판적사실주의에서는 그것이 주되는것으로 되였다.

사회에 대한 비판은 19세기 후반기 마크 트웨인의 작품들에서 강하게 표현되였으며 20세기에 들어서면서 더욱 강화되였다.

미국의 비판적사실주의문학은 유럽의 비판적사실주의문학보다 40년 뒤늦게 형성되였다. 그것은 미국문학의 력사가 짧고 랑만주의문학이 오래 지속된 사정과 관련된다. 유럽의 비판적사실주의문학이 19세기 30～40년대와 그 이후시기에 발전하였다면 미국의 비판적사실주의문학은 20세기 전반기에 집중적으로 발전하였다.

미국에서 비판적사실주의의 개척자일뿐아니라 19세기 후반기에 이 문학의 대표자로 된것은 마크 트웨인이다. 장편소설 《도금시대》와 《하

클베리 핀의 모험》을 비롯한 그의 작품들은 당대 미국의 자본주의적현실을 강하게 비판함으로써 미국의 진보적문학이 비판적사실주의의 길에 들어섰다는것을 뚜렷이 보여주었다.

비판적사실주의문학을 발전시키는데서 중요한 역할을 한것은 또한 노리스이다.

프랭크 노리스(1870—1902)는 신문기자로 활동하면서 소설을 창작하였으며 1899—1902년 남아프리카전쟁에 종군기자로 참가했다가 아프리카풍토병에 걸려 32살의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다.

그가 사망한 후에 출판된 평론집 《소설가의 책임》(1903)에 반영된 노리스의 미학적견해에서 기본을 이루는것은 문학이 생활의 진실을 반영하여 사람들을 교양하는데 이바지하여야 한다는것이다. 그는 광범한 근로대중이 부르죠아문학이 떠드는 허위와 위선, 기만에 속히우고있다고 하면서 소설가는 반드시 《유럽에서 온 사람이나 보스턴주민을 위해서나 토인들을 위해서나 다 한가지 진리로 될수 있는 그런것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미학적견해에 기초하여 심각한 문제성을 제기함으로써 그의 작품들은 커다란 사회적반향을 불러일으켰으며 마크 트웨인이 개척한 비판적사실주의문학을 더욱 발전시키는데 이바지하였다.

그의 대표작은 3부작장편소설 《밀의 서사시》의 제1부 《문어, 캘리포니어이야기》(1901)이다.

작품에서 작가는 캘리포니어의 밀생산자들인 농민들과 문어처럼 그들에게 달라붙어 가혹하게 착취하는 독점자본가들과의 갈등을 묘사하면서 자본주의적착취의 야수성과 땅에서 쫓겨나는 농민들의 비극, 인민들의 항거의식을 사실주의적으로 반영하였다.

작품에서는 독점자본가들을 반대하는 농민들의 무장폭동이 묘사되고있다. 폭동에서 농민 후벤이 살해되고 그의 가족들은 집에서 쫓겨난다. 후벤의 처는 굶어죽고 딸은 먹고 살기 위해 매춘부로 전락된다.

그러나 은행가 베르만을 비롯한 자본가들과 그 가족들은 농민들이 굶어죽건, 병들어죽건 무관심하며 오직 자기의 재부를 늘이는데만 급급한다.

그러니 농민들이 독점자본가들을 반대하여 투쟁하는것은 불가피하다, 이것이 작품에서 표현된 작가의 주장이다.

작가는 다음작품 《곡물취인소, 시카고이야기》(1903 출판)에서 돈벌이를 위한 자본가들의 투기행위로 하여 기아가 만연되고 경쟁자들이 파멸해가는 과정을 묘사하면서 자본가들을 신랄히 폭로비판하였으며 세계의 식량은 인민들에게 속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작가는 제3부 《승냥이, 유럽이야기》에서 유럽에서의 빈민구제이야기를 쓰려고 하였으나 뜻밖의 사망으로 완성하지 못하였다.

미국에서 자본주의적발전의 진실을 사실주의적으로 반영하고 로자간의 첨예한 모순을 밝혀낸 노리스의 작품들은 드라이저를 비롯한 진보적작가들의 창작에 영향을 주었다.

19세기 후반기 미국의 비판적사실주의문학에서는 갈런드, 크레인, 제임즈, 하우얼즈와 같은 작가들도 일정한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이 작가들은 마크 트웨인이나 노리스에 비하여 현실비판이 훨씬 미약하고 이러저러한 편향을 범하였다.

미국의 비판적사실주의문학은 다음세기인 20세기 전반기에 새로운 발전단계에 들어서게 되였다.

19세기 미국의 진보적문학을 대표하는 가장 이름난 작가는 휘트먼과 마크 트웨인이다.

휘트먼과 시집 《풀잎》

휘트먼은 로동자출신의 독학시인으로서 미국문학에서 처음으로 평범한 로동자, 농민들을 주인공으로 내세우고 그들의 지향을 노래한 민주주의시인이며 진보적랑만주의로부터 사실주의로 발전한 이름난 시인이다.

월트 휘트먼(1819—1892)은 뉴욕주 롱아일랜드섬의 웨스트 힐즈마을에서 농사일도 하면서 목수일도 한 평민의 아들로 태여났다. 후날 일기에 쓰기를 어릴적부터 그는 날만 새면 바깥으로 나가 풀밭이나 해변을 싸다니며 보냈는데 때로 자기가 고향의 땅이나 마을사람들과 완전히 융합된것으로 느껴졌다고 하였다.

그가 4살때 일가는 얼마 멀지 않는 소도시 브루클린(오늘의 뉴욕시 브루클린구역)에 이사하였다. 그는 그곳에서 소학교에 다녔으나 11살때에 퇴학당하였다. 그것이 그가 받은 교육의 전부

였다. 그때부터 그는 신문잡지사의 식자견습공을 거쳐 인쇄식자공으로 일하면서 짬짬이 문학작품을 탐독하였다.

그는 17살때 다시 롱아일랜드섬으로 돌아가 2년동안은 소학교교원 겸 식자공으로, 그후에는 여러 신문잡지사의 인쇄공으로 하루 12～14시간이나 고된 로동을 하였다. 그런 속에서 꾸준히 문학수업을 한 휘트먼은 22살때부터 뉴욕에 나가 신문사의 식자공, 자유기고가로 활동하면서 《교실안에서의 죽음》을 비롯한 여러편의 단편소설들을 발표하여 호평을 받았다. 신문계에서 두각을 나타낸 그는 27살때부터 여러 신문사의 주필로 활동하였으나 노예제도페지론자들의 기관지 《프리맨》(자유로운 사람)의 주필로 있을 때 정치적으로 예리한 글을 써서 화를 입고 주필활동을 더 계속하지 못하게 되였다.(그는 《나는 급진주의자중의 급진주의자이다. 나는 어떤 파에도 속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그후 그는 아버지의 목수일을 도우면서 시창작에 열중하였다. 그 과정에 그는 당시 미국의 시가 내용으로부터 형식에 이르기까지 모조리 서방의 모방이라는것을 깨닫고 내용과 형식이 새로운 자유시를 창작하려고 노력하였다.

그리하여 그는 1855년에 자기 손으로 식자, 인쇄, 장정하여 자비출판한 시집 《풀잎》초판을 내놓았다. 당시 그의 나이는 36살이였다. 비록 서문과 제목이 없는 시 12편이 수록된 95페지짜리 소박한 시집이였지만 당시에는 볼수 없었던 새로운 내용을 담고 전통적인 정형시의 구속에서 벗어난 자유시형식을 취한것이였다.

그는 고심하여 만든 이 시집을 벗들과 신문잡지사들에 보냈으나 평판은 좋지 않았다. 당시 미국에서는 일상적으로 쓰는 말로 씌여진 이 독창적인 시를 리해하지 못하였다. 그가 받은것은 비난과 욕설뿐이였다. 부르죠아문단은 일제히 그에게 공격의 화살을 집중하였다. 그러나 오직 한사람, 이름난 철학가이며 시인인 에머슨만이 시집의 혁신적의의를 리해하고 고무적인 편지를 보내여왔다.

이에 힘을 얻은 휘트먼은 세상의 비난과 공격에 굴하지 않고 자신이 선택한 길로 계속 나아갈 결심을 굳게 가졌다.

그는 완강한 노력으로 다음해에 20편의 시를 더 보충한 제2판을, 4년후 1860년에는 124편의 시를 보충한 제3판을 내놓았다. 제3판은 보스턴의 일류급출판사에서 간행된 456페지의 큰 시집이였다. 그러는 사이에 《풀잎》에 대한 사람들의 호기심이 점차 커졌으며 시집은 쏘로우를 비롯한 이름난 시인들의 관심을 끌게 되였다.

이러한 때 남북전쟁이 터졌다. 그는 전선위문도 하고 부상병간호도 하였으며 1865년에는 워싱톤의 미국무성 서기로 임명되기까지 하였으나 당시의 국무장관이 《풀잎》의 내용에 불만을 품고 그를 파면시킨 일이 있었다.

남북전쟁후에도 그는 시창작에 몰두하여 새로운 시들을 련속 내놓았다. 그때까지 휘트먼의 시가 민주주의에 대한 열렬한 지향, 미래를 락관하는 락천성, 넘쳐나는 랑만주의정신으로 특징적이였다면 이후시기 휘트먼의 시들에는 미국식《민주주의》에 대한 환멸, 모순된 현실에 대한 침통한 사색, 불합리한 현실에 대한 비판정신이 강화되였으며 사실주의적요소가 눈에 띄게 증대되여갔다.

휘트먼의 꾸준한 노력으로 1867년에 《풀잎》 제4판이 나오고 1871년에 제5판과 제6판이, 1881년에 제7판이 나왔으며 1891—1892년 그의 림종전에 최종판인 제9판이 출판되였다. 제9판은 제1판이후의 거의 모든 시들, 400편에 가까운 시들이 수록된 큰 시집이였다.

1867년에 《풀잎》 제4판이 출판된 때에는 그의 명성이 외국에까지 알려져 《휘트먼시초》(1868)가 영국에서 출판되고 휘트먼숭배자들이 많이 생겨나게 되였다.

휘트먼은 이 시집외에 《민주주의의 전망》(1871), 《일기》(1882)와 같은 산문도 썼는데 《민주주의의 전망》에서는 당대 미국의 현실을 예리하게 폭로비판하였다.

그는 1892년 3월 뉴져지주 캄덴에 있는 그의 집에서 73살을 일기로 세상을 떠났다.

그의 창작적특성은 시집 《풀잎》에서 그대로 표현되고있다.

시집 《풀잎》은 19세기 후반기 노예제를 반대하는 투쟁과 자본주의적압박을 반대하는 로동계급을 비롯한 인민대중의 투쟁의 영향밑에 창작되였으며 민주주의적내용을 담고 진보적랑만주의와 사실주의적요소를 결합하고있다.

시집에는 각이한 시기, 각이한 정황에서 창작

된 다양한 주제, 다양한 형식의 시들이 묶어져있는데 그것들은 그 사상주제적내용에 따라 몇가지로 나누어볼수 있다.

시집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있는것은 미국인민들의 비참한 생활처지를 반영하고 특권계급의 비인간성을 비판한 시들이다.

미국의 로동자들과 빈민들의 비참한 처지를 동정하고 착취자들과 노예소유자들, 전쟁도발자들에 대한 분노를 노래한 《나는 앉아서 바라본다》, 해방을 목마르게 기다리는 한 늙은 흑인노예의 심정을 통하여 미국흑인들의 비참한 처지를 반영한 《흑인들에게 인사하는 에티오피아》, 노예제도밑에서 신음하는 흑인들의 불행에 대한 항의를 담은 《나의 노래》, 통치배들의 비인간성을 폭로한 《생각》, 미국재판제도의 허위성을 폭로한 《법정에서 재판받는 중죄인들이여》 등은 그 대표적인 작품들이다.

시 《나는 앉아서 바라본다》에서는

나는 앉아서
세상의 모든 애수, 모든 압박, 모든 치욕을
　바라본다
젊은이들이 고민하고
남몰래 가슴뜯으며 우는것을 듣고
아들에게 버림받아
여위고 절망하여 죽어가는
가난한 집 어머니를 본다
…
로동자들과 빈민들, 흑인들과 그밖의
　사람들에게 던지는
거만한자들의 경멸과 멸시를 본다

라고 노래하면서 가난한 근로자들에 대한 동정과 그들을 압박하는 통치배들에 대한 비난을 뚜렷이 표현하였다.

시 《흑인들에게 인사하는 에티오피아》에서는 남북전쟁시기 길가에 서서 행군하는 북군흑인병사들을 바래우는 늙은 흑인로파와 서정적주인공의 대화를 통하여 《호호 늙은, 사람으로 알아보기 어려운, 빛 검은 녀인》의 비참한 정상을 그려보이면서 머나먼 아프리카에서 흑인들을 노예로 끌고온 백인노예소유자들의 만행을 규탄하고있다.

나으리, 량친에게서 떨어진것이 한 백년전
　일이요
아직 어릴적에 마치 야만의 짐승을 잡듯이
　나를 잡았다오
그리하여 이리로 잔혹한 노예선이 바다건너
　나를 끌어왔지요

《나의 노래, 제33》에서는 미국식《민주주의》에 기초한 흑인노예제도에서 신음하는 미국흑인노예들의 비참한 운명을 폭로하고있다.

휘트먼이 활동한 시기는 미국에서 남북전쟁이 일어나고 흑인노예들이 자유를 찾기 위하여 궐기한 때였다. 휘트먼의 시들은 당시에 노예제페지를 주장하던 진보적인 인사들과 자유와 평등이 보장될 새 사회를 위한 투쟁에 궐기한 흑인지도자들과 흑인노예들, 하층인민들속에서 널리 애송되였다.

시집에서 다음으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것은 미국의 주인은 미국의 보통인민이며 미국의 력사를 창조한것도 미국인민이라는것을 긍지높이 노래하면서 인민들이 자유와 참된 민주주의를 누리게 될 훌륭한 미래에 대한 공상과 리상을 표현하고 그러한 미래가 반드시 오고야말리라는것을 예언한 시들이다.

시 《도끼의 노래》에서 시인은 서부개척자에 대한 형상을 통하여 땀흘리며 일하는 인민들에 대한 존경의 마음과 창조적로동의 보람을 노래하였다.

장시 《위대한 도시》에서 시인은 위대한 도시란 어떤 도시인가라는 수사학적질문을 제기하고

노예가 없어지고 노예소유자들이 없는 곳
…
시민이 언제나 주인이요 리상이요
대통령과 시장과 지사 기타는 보수받는
　종복

으로 되는 곳이라고 하면서 《비록 몇몇 찌그러진 움집뿐이라 할지라도》 그런 곳이 위대한 도시라고 대답하고있다.

장시 《신비스런 나팔수》에서는 《전쟁과 비애와 고통, 계급을 지구가 쓸어버리고 다만 환희만이 남는》 그런 리상사회가 꼭 오리라는것을 예언하면서 《신비스런 나팔수》의 상징적형상을 통하여 그에 대한 신념을 노래하고있다.

들으라 저 어떤 대담한 나팔수가 저 어떤 신기스런 음악가가
눈에 안 보이며 허공을 떠돌며 오늘 밤 천변만화의 곡조를 내뿜네
나는 듣는다 나팔수여 귀기울여 나는 네 노래 낱낱이 읽는다
때로는 나를 휩쓰는 폭풍처럼 도도히 쏟아지고 회오리치며
때로는 나직이 잔잔해져 멀리 사라져가는 노래를

시인은 나아가서 여러 시들에서 이러한 리상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로 인민들을 불러일으키고있다.

자유와 민주주의, 남녀평등에 대한 시인의 열망을 노래한 《개성을 나는 노래한다》, 자유를 위한 견결한 투쟁에로 호소한 《월트 휘트먼의 경고》, 민주주의를 위한 투쟁에로 인민들을 부른 《솟아오르거라 오 시대여 끝없는 심연에서》, 자유와 평등을 위한 투쟁대오에 떨쳐나설것을 호소한 《살륙우에 예언의 목소리 울린다》, 자유와 민주주의에 대한 불타는 지향을 담은 《개척자들이여 오 개척자들이여》, 《너를 위하여 오 민주주의여》 등이 그러한 작품들이다.

그밖에도 시집에는 《세계에 보내는 인사》, 《애닯고 그리운 이 순간》, 《브루클린나루터를 지나며》와 같이 인민들의 친선과 단결을 노래한 시, 《나는 루이지애너에서 한 거목이 자라는것을 보았다》와 같이 벗에 대한 우정을 노래한 시, 《아버지 벌에서 돌아오세요》, 《목동》과 같이 인정세태생활을 반영한 시, 《울려라 울려라 북이여!》와 같이 남북전쟁에 대한 자기의 견해를 보여준 시 등 여러가지 주제의 작품들이 수록되여있다.

《풀잎》의 예술적혁신성은 무엇보다도 미국시문학에서 처음으로 자유시를 개척한데 있다.

그때까지 미국의 시문학은 유럽시 특히 영국시를 모방하면서 일부 선발된 사람들을 위한 까다로운 정형시형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있었으며 따라서 시인의 자유로운 감정정서표현에서 많은 제한을 받고있었다.

휘트먼은 무운시이며 비정형시인 자유시를 개척함으로써 정형시의 운률에서의 제한성을 극복하고 고정된 어떤 격식이 없이 시행의 길이와 수, 시련조직을 자유롭게 함으로써 시의 사상정서적내용을 더욱 힘있게 표현할수 있게 하였다. 그의 시는 시의 외형적인 률조를 무시하고 내면적인 감정의 자연스러운 리듬을 따른 점에서 당시 미국시단에서는 파격적인것이였다.

《풀잎》의 예술적혁신성은 다음으로 일반 인민들이 쓰는 평이하고 통속적인 말, 오랜 기간 쓰이면서 고착된 미국식영어로 시어를 구사함으로써 로동자, 농민, 어부 등 평범한 근로자들이 리해할수 있고 그들의 사상감정에 맞는 새로운 시라는데 있다.

휘트먼은 선행한 미국시인들이 입말과 유리된 시어를 사용한것과는 달리 농민, 목수, 마차군들속에서 일상적으로 쓰는 입말을 시어에 도입하여 시어를 민주화하였다.

《풀잎》 초판이 나왔을 때 시집의 혁신성을 보지 못하고 무식한 시, 조잡한 시, 전통을 무시한 시로 부르죠아시단의 일치한 비난을 받고 묵살당한것은 이러한 사정과 관련된것이였다. 그러나 《풀잎》은 판을 거듭할수록 점차 그 혁신성이 인정되여 광범한 인민들의 사랑을 받는 인민적인 시집으로 널리 애송되게 되였다.

시집 《풀잎》은 시인의 세계관적제한성을 반영하여 미국의 부르죠아민주주의를 리상화하고 당시 미국대통령이였던 링컨에 대한 환상을 표시하였으며 계급적으로 모호한 견해를 드러낸것 등 일련의 제한성을 나타내였으나 자유와 민주주의, 훌륭한 미래에 대한 인민들의 지향과 념원을 반영하고 흑인노예제도를 반대하는 항의의 목소리를 높였으며 인민들이 일상적으로 쓰는 말로 시를 쓰고 자유시형식을 구사한것으로 하여 미국에서 진보적랑만주의시문학을 발전시키고 사실주의시문학을 개척하는데 이바지하였다.

마크 트웨인과 장편소설 《하클베리 핀의 모험》

마크 트웨인은 미국비판적사실주의문학의 개척자이며 미국의 반동성을 폭로한 반제적립장이 강한 진보적작가였다.

그는 끊임없는 침략과 전쟁, 간섭책동으로 살쪄온 미국의 피묻은 력사를 수치스럽게 여기면서 《미국국기의 흰 부분에는 검은 칠을 하여야 하고 별은 해골에 두가닥의 뼈가 교차되여있는것으로

대치되여야 한다.》라고 규탄하였으며 《미국을 발견한것은 좋은 일이다. 그러나 미국을 발견하지 않았더라면 더 좋았을것이다.》라고 개탄하였다.

이 말속에는 모든 불행과 고통의 화근인 미제국주의에 대한 작가의 예리한 조소와 규탄이 담겨져있다.

마크 트웨인(1835—1910)의 본명은 쌔뮤얼 랭그혼 클레멘즈이다.

그는 미주어리주 플로리더마을에서 판사이며 상인의 집안에서 태여났으며 4살때 가족과 함께 미씨씨피강안의 한니발시에 이사가서 그곳에서 소년시절을 보냈다. 12살때 아버지가 병으로 죽고 생활이 곤난해지자 그는 학교를 그만두고 소년로동자로 방랑생활을 하였으며 10년동안은 시골신문사와 인쇄소의 식자공으로, 2년반동안은 미씨씨피강의 수로안내원으로 일하였다.

《마크 트웨인》이라는 필명은 수로안내원의 용어로서 배가 안전하게 다닐수 있는 수심을 의미하는 《두길》이라는 말이다.

1861년에 남북전쟁이 터지자 그는 남부군에 병사로 끌려갔으나 곧 탈주하여 전국을 방랑하다가 여러 신문사의 통신원과 기자를 거쳐 19세기 60년대 중엽부터 작가생활을 시작하였다.

그의 창작은 남북전쟁후 미국자본주의사회의 모순이 심해지는 환경속에서 더욱 활발해졌다.

초기에 그는 인간의 선천적인 선량성과 리성, 건전한 사고가 승리하리라는 계몽주의적리상을 피력한 락천적인 유모아작가였다. 그러나 현실인식이 깊어지면서 점차 현실을 예리하게 비판하는 풍자작가로 변화되여갔으며 말년에는 염세주의적 형상을 진하게 나타내게 되였다.

작가로서의 명성을 떨치게 한 작품은 뉴욕의 한 신문에 실린 유모아이야기 《캬라베라군의 뛰는 개구리》(1865)였다. 잘 훈련시킨 개구리를 가지고 높이뛰기내기를 하는 시골사내들에 대한 우습강스러운 이야기를 통하여 자기 나라의 세태풍속을 유모아적으로 보여준 뛰는 개구리에 대한 이야기는 독자들의 인기를 끌었다. 수많은 신문들이 이 이야기를 앞을 다투어 전재하였으며 유모아작품을 써달라는 주문이 작가에게 련속 들어왔다. 트웨인은 이런 유모아작품들을 묶어 1867년에 유모아작품집을 출판하였는데 이때부터 미국에서 첫째가는 유모아작가로 알려지게 되였다.

게다가 높은 강연술을 지닌 그는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강연려행을 하였는데 강연회장은 매번 초만원을 이루고 예상외의 성공을 거둠으로써 마크 트웨인의 명성은 사람들속에 확고하게 인식되였다.(그후 마크 트웨인은 미국내는 물론 해외로 다니면서 많은 시간을 강연활동에 바쳤다.)

그는 1867년에 대형려객선을 타고 반년동안 유럽을 려행하였다. 그는 려행과정에 려행기를 써서 여러번에 걸쳐 통신으로 《뉴욕 트리뷴》을 비롯한 신문들에 보냈는데 그것이 또한 큰 인기를 끌었다. 그후 그는 이것을 묶어 《시골내기들의 해외려행》(1869)을 출판하였다.

이 작품에서 작가는 유럽문화에 대하여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저 감탄하기만 하는 시골내기 미국인들, 《독실한 신자》인체 하는 거만한 미국기업가들의 무식과 위선을 만화적필치로 신랄하게 야유하였다. 동시에 유럽에 남아있는 봉건적잔재들에 대해서도 풍자의 화살을 돌렸다.

이 작품은 날카로우면서도 정열적인 필치와 판단의 솔직성, 주위환경의 생동한 재현, 그에 림하는 작가의 민감한 반응 등 트웨인의 재능을 다시한번 과시하였다.

1870년대에 들어서면서 그의 창작에서는 유모아적이며 해학적인 현상보다 풍자적현상이 강화되여갔다.

이 시기의 주요작품은 장편소설 《도금시대》(1873)와 《톰 소야의 모험》(1876)이다.

《도금시대》는 마크 트웨인이 작가 워너와 합작한것이다. 앞의 11개 장을 마크 트웨인이 쓰고 나머지는 워너와 엇바꾸어 쓴것으로 하여 소설에는 구성이 산만하고 통일성이 미약한 결함이 나타나고있으나 《도금시대》, 《황금광시대》로 불리운 당대 미국의 현실을 생동하게 반영한것으로 하여 의의가 큰 작품으로 되였다.

소설은 동부사람인 주인공 필리프 스털링의 운명을 그리고있다. 그는 루스라는 처녀를 사랑하고 그와 결혼할것을 희망한다. 그 희망을 실현하려면 돈이 필요하였다. 하여 그는 결심품고 서부변강으로 떠나간다. 당시 서부변강은 아직 미개척지로서 일확천금을 꿈꾸는 개척자들이 물밀듯이 쓸어드는 곳이였다. 그는 광맥을 찾아 헤매이나 성공하지 못하고 시간만 랑비한다. 그는 몇번이나 단념하고 동부로 되돌아가려고 하지만 그때마다 무조건 돈을 벌어야 한다는 생각으

로 눌러앉는다. 그는 고생, 고생끝에 드디여 행운을 만나 큰 탄광주가 된다. 그러자 그는 일약 큰 인물로 되여 존경을 받는다. 사람들은 그의 행동뿐아니라 그가 일상적으로 쓰는 평범한 말까지도 본받으려고 노력한다. 개선장군이 되여 동부로 돌아온 그는 루스와 결혼하고 행복하게 산다. 이것이 이 소설의 간단한 줄거리이다.

작가는 소설의 주인공 필리프 스털링을 당시 미국신흥부르죠아들, 벼락부자들을 대표하는 전형적인물로 형상하였다.

그의 성격에서 특징적인것은 남이야 어떻게 되든 제 혼자 잘살면 된다는 극단적인 개인리기주의와 황금에 대한 탐욕, 돈을 벌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파렴치성과 략탈성, 투기성과 조폭성이다.

작가는 주인공의 형상을 통하여 미국인들의 정신적빈곤을 생동하게 그려내고 당대 미국현실을 도금시대로, 황금광들이 미쳐날뛰는 시대로 풍자조소하였다.

이 소설이 당시의 시대의 본질을 얼마나 진실하고 생동하게 반영하였는가 하는것은 작품이 발표된 후 《도금시대》라는 제목이 70년대 미국의 시대를 특징짓는 보통명사로 널리 쓰인 사실을 통하여 잘 알수 있다.

《톰 소야의 모험》에서는 미씨씨피강변의 가부장적도시에서 자유분방한 생활을 즐기는 소년들의 목가적인 세계를 그려보이면서 우정에 솔직하며 정직하고 용감한 그들의 인간관계(《자연》)와 허위와 기만, 사기와 협잡으로 충만된 부르죠아적인간관계(《문명》)를 대비적으로 보여주었다.

마크 트웨인의 창작은 19세기 80—90년대에 와서 더욱 원숙해졌으며 사회비판정신이 더욱 강화되였다. 바로 이 시기에 그의 대표작인 《하클베리 핀의 모험》(1884)을 비롯하여 장편소설 《왕자와 거지》(1881), 《아서왕궁전에 나타난 컨넥티커트태생의 양키》(1889), 장편력사소설 《좐 다르끄》(1895)와 같은 이름난 작품들이 창작되였다.

장편소설 《왕자와 거지》는 16세기 봉건영국의 현실을 배경으로 한날한시에 왕자와 거지로 태여난 두 소년의 판이한 운명을 통하여 낡은 사회에서의 사회적불평등과 모순을 비판한 작품이다.

《아서왕궁전에 나타난 컨넥티커트태생의 양키》는 작가가 1884년에 강연려행을 하던중 영국 런던의 서점에서 우연히 중세영국작가 말로리의 기사소설 《아서왕이야기》(1470)를 읽은것이 계기가 되여 창작된 작품이다.

작가는 만약 이 책에 씌여진 6세기의 전설시대와 당대 19세기를 대비해보면 어떻게 될가 하는데 흥미를 느끼고 이 소설을 착상했던것이다.

소설에서는 작가자신이 컨넥티커트태생의 양키가 되여 6세기로 거슬러올라가 아서왕시대의 영국에 나타난다. 여기서 그는 중세기의 정화로 불리운 기사도라는것이 스펜써나 스코트가 쓴것과는 비슷하지도 않은 사기협잡의 산물이며 기사들의 횡포한짓과 승려들의 부패타락으로 인민들이 도탄속에 빠져 신음하는것을 체험하게 된다. 작가는 이러한 물건짝이 영국인들이 자랑하는 훌륭한 옛 기사도라면 오늘의 생활이 훨씬 낫다고 하면서 중세기사도의 기만성을 조소하고 귀족적인 부르죠아영국을 신랄히 폭로풍자하였다.

《좐 다르끄》는 실재한 력사적인물인 15세기 프랑스의 애국자이며 농민출신의 녀장수인 좐 다르끄를 형상한 력사소설이다.

작품은 좐 다르끄의 충실한 부하였던 루이스 드 꽁떼가 로인이 된 다음 쓴 회상기를 어떤 사람이 영어로 번역하는 형식으로 이야기를 전개해나가고 있다. 그 이전에도 좐 다르끄 즉 오를레앙의 처녀를 소재로 한 수많은 작품이 씌여졌다. 그러나 그것들은 다 인습적인 견해로부터 주인공을 신과 같은 우상으로 만들어놓았으며 작품의 줄거리를 매우 어둡고 음산한 이야기로 꾸며놓았다.

마크 트웨인은 이와는 달리 좐 다르끄를 인간화하는데 힘을 넣었으며 신성한 녀성인 동시에 인민출신의 인간으로서의 그의 면모를 생동하게 형상하였다.(좐 다르끄는 마크 트웨인이 지난날의 력사적인물가운데서 가장 존경한 녀성의 한 사람이였다. 작가는 자기가 쓴 작품들가운데서 이 소설을 가장 사랑하였다고 한다.)

19세기말—20세기초 마크 트웨인의 창작에서 특징적인것은 반인민적이며 침략적인 미제국주의자들의 대내외정책을 신랄히 폭로규탄한것이다.

작가는 이 시기에 창작한 단편소설 《헤이들 버크를 타락시킨 사람》(1899), 정론 《어둠속을 헤매는 사람에게》(1901)와 《린치가 성행하는 나라 합중국》(1901)을 비롯한 많은 작품들에서 독점자본이 지배하는 미국정치의 부패성을 폭

로하고 미제의 해외침략정책을 규탄하였다.

한편 이 시기 그의 창작에서는 자기가 폭로비판한 모순된 현실로부터의 출로를 찾지 못한데서 나온 염세주의적기운이 표현되였다.

마크 트웨인의 창작은 민주주의일반이라는 추상적인 사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염세주의적 기운이 있는것을 비롯하여 일련의 제한성을 가지고있으나 제국주의를 반대하고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진보적경향성이 강하며 인민구전문학과의 긴밀한 련계밑에 당대 현실을 생동하게 반영한것으로 하여 미국에서의 진보적이며 사실주의적인 문학의 발전에 크게 이바지하였다.

마크 트웨인의 창작적특성은 장편소설 《하클베리 핀의 모험》에 뚜렷이 표현되여있다.

장편소설 《하클베리 핀의 모험》은 흑인노예제도가 지속되고있던 19세기 40년대 미국 남부주들의 력사적현실을 시대적배경으로 소년방랑자 하크(하클베리의 애칭)와 도망친 흑인노예 짐의 모험적인 떼목려행이야기를 통하여 미국자본주의사회의 부패성을 비판하고 자유와 해방에 대한 인민대중의 지향을 반영한 작품이다.

작품은 작가가 이전에 발표한 《톰 소야의 모험》의 속편처럼 되여있으나 모험소설이 아니라 사실주의적인 사회소설로 되여있다.

집없이 떠돌아다니다가 과부 더글러스부인네 집에서 양육되게 된 소년 하크는 집주인들이 매사에 간참하고 그의 행동을 구속하기에 그 집에 더 있고싶은 생각이 없어진다. 이럴 때 죽은줄 알았던 술주정뱅이 아버지가 나타나 돈을 빽아내려고 그를 헛간에 감금한다.

하크는 기회를 엿보다가 헛간에서 탈출하여 미씨씨피강 한가운데 있는 무인도에 몸을 숨긴다. 그는 섬에서 팔리우지 않기 위해 농장에서 도망쳐온 흑인노예 짐을 만나게 된다. 그들은 멀리 미씨씨피강 하류에 흑인노예제가 없는 그 어떤 자유주가 있다는 소문을 듣고 떼목에 몸을 싣고 강을 따라 내려간다.

그들은 떼목려행과정에 많은것을 목격하게 된다.

백인소년 하크와 흑인성인 짐은 려행과정에 임금과 공작이라고 자칭하는 사기군들, 종교에 미친자들, 남을 등쳐먹고 살아가는자들, 돈밖에 모르며 돈을 위해서는 살인도 서슴지 않는자들, 건달군들과 부랑자들, 각양각색의 사람들과 맞다들게 되며 미국사회가 얼마나 썩어빠졌는가 하는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된다.

그들이 강을 따라 아무리 내려가도 바라고바라던 자유주는 나타나지 않는다. 결국 짐은 붙잡혀 톰 소야의 고모의 집으로 팔려간다. 그동안 짐과 깊은 우정을 맺은 하크는 친한 동무인 톰 소야의 도움을 받아 짐을 구원하는데 성공한다. 소설은 여기서 끝난다.

소설의 긍정적주인공인 백인소년 하크의 성격에서 특징적인것은 온갖 예속을 미워하고 자유를 갈망하는 정신이 강한것이다.

소설에서는 바로 이 자유애호정신이 강한 순결한 부랑소년 하크를 문명한 사람들로 자처하는 위선적이며 퇴페적인 백인부르죠아들, 황금의 노예들과 종교의 노예들에 대치시키고 그의 시점을 통해 미국부르죠아사회의 추악성을 예리하게 발가내고있다.

소설에서는 또한 흑인노예 짐의 형상과 그와 하크소년과의 관계를 통하여 《문명국》이라는 미국에서의 흑인노예제도와 흑인에 대한 인종차별을 비난하고 흑인들에게 동정을 보내고있다.

작품에서 흑인 짐은 불쌍하고 억눌린 노예로서가 아니라 선량하고 용감하며 근면하고 인간성이 풍부한 사람으로, 추악한 백인부르죠아들에 비해 정신도덕적으로 훨씬 우월한 인간으로 형상되고있다.

작가는 처음 흑인에 대한 편견에 사로잡혀 어른인 짐을 깔보기도 하고 그의 도주를 도와주는것이 하느님에게 죄를 짓는것으로 되지 않을가 하고 생각하는 하크소년이 그와 함께 지내는 과정에 그에 대한 인식을 바로잡고 그를 노예의 처지에서 해방시키기 위해 발벗고 나서는것으로 형상함으로써 이 사상을 더욱 강조하고있다.

소설에서는 주인공 하크소년을 1인칭설화자로 등장시켜 입말체로 이야기를 전개해나가고있으며 단순하고 솔직하며 해학적인 언어문체를 쓰고있다.

다른 한편 작품에서는 작가의 계급적제한성으로 하여 부르죠아사회의 사회악의 근원과 그것을 없애기 위한 방도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기도 하지 못하고있으며 자연의 품속에서 자유분방한 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랑만적으로 형상하는것으로 그치고 있다. 그러나 소설은 당대 미국현실을 생동하게 반영하고 미국부르죠아사회의 부패성을 신랄히 풍자비판한것으로 하여 19세기 미국사실주의문학의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2. 20세기 북아메리카문학

1) 카나다문학

20세기에 들어서면서 카나다를 정치경제적으로 예속시키기 위한 미제의 침략야망이 로골화되였다. 이에 따라 미제독점자본이 이 나라에 급속히 침투되여 점차 영국자본을 밀어내기 시작하였다.

제1차 세계대전이 일어날무렵 카나다에 대한 미독점자본의 투자액은 벌써 7억딸라에 달하였다.

제1차 세계대전시기 카나다독점자본가들은 군수공업을 확장하여 교전쌍방에 막대한 군수물자를 팔아먹음으로써 막대한 리윤을 얻고 호경기를 맞이하였다. 그러나 카나다에서 자본주의경제의 상대적안정은 오래가지 못하였다.

1929—1933년에 자본주의세계를 뒤흔든 경제공황은 카나다경제를 수습할수 없는 파국적상태에 몰아넣었으며 100만명이상의 실업자를 내게 하였다. 이렇게 되자 당국은 공황의 중하를 근로대중에게 들씌우는 반인민적정책에 매여달리였다.

당국의 이러한 정책은 수백만 근로대중의 반정부감정을 증대시켰으며 인민들을 투쟁에 일떠서지 않을수 없게 하였다. 그리하여 전국도처에서 대중적인 시위와 기아진군파업이 련이어 일어났다.

제2차 세계대전을 전후하여 심히 약화된 영제국주의세력을 누르고 카나다에서 지배적지위를 차지한 미제는 경제적으로뿐아니라 정치, 군사적으로도 이 나라를 저들의 손아귀에 넣으려고 책동하였다.

이에 동조하여 카나다정부는 전후 미제의 침략과 전쟁정책에 적극 추종하면서 1949년에 나토에 가담하고 1950년에는 미제가 도발한 조선침략전쟁에 고용병을 파견하였으며 자기 나라 령토에 미제침략군 공군무력의 주둔을 허용하였다.

미제에 대한 이러한 추종정책은 카나다로 하여금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완전히 미제에게 예속되게 하였다. 그 결과 카나다경제의 70%가 미제와 외래독점체들의 지배하에 들어가고 나라의 경제위기가 더욱 심화되였다.

이와 관련하여 사회계는 물론 중소기업가, 민족자본가들속에서도 카나다정부의 대미추종정책과 미제독점자본의 경제적침투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날로 높아갔다.

정부는 인민들의 압력에 못이겨 미제에 대한 의존정책에서 점차 벗어나 다른 나라들과의 관계를 다양화하는데로 나갔으며 대내적으로는 위기에 처한 경제를 추켜세우며 미제의 경제적침투를 막기 위한 조치들을 취하였다.

카나다가 자주적으로 나가려는 움직임을 보인것은 자주의 길로 나가려는 세계적인 흐름을 따른것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민족자주정신이 없는 민족문학은 마치 넋을 잃은 육체와도 같은것이다.》

20세기에 들어서면서 카나다문학에서 나타난 뚜렷한 특징은 영국, 미국, 프랑스문학에 대한 모방과 의존성이 높았던 이 문학이 점차 그로부터 벗어나 독자적인 민족문학의 면모를 갖추고 민족자주정신을 반영하는데로 지향한것이다. 이에 따라 문학에 대한 사회적관심이 높아지고 문학창작이 적극화되기 시작하였다.

그 뚜렷한 표현은 원주민문학의 전통을 이어 원주민들의 생활과 투쟁을 그리려는 작가들의 활동이 활발해진것이다.

여기서 큰 역할을 한것이 녀류작가 폴린 죤슨(1862—1913)이였다.

그는 인디안추장과 영국계 백인녀성사이에 태여나 테카히온베이크라는 인디안이름을 가지고있었다.

그는 《뱅쿠버전설집》(1911), 《오그나보와 페로》(1912)를 비롯한 여러 작품들에서 인디안구전문학유산을 많이 수록하는 한편 카나

다원주민들을 찬양하고 영국식민주의자들의 식민지통치의 가혹성을 폭로하였다.

쎄라야 쏘바(인디안명: 베샤쿠온네진; 1888—1938)도 《싸죠와 해리서》(1935)를 비롯한 여러 작품들에 인디안구전문학에 기초한 동물이야기를 담았다.

원주민구전문학의 전통은 19세기초에 영국식민주의자들과의 싸움에서 용감성을 발휘한 인디안추장의 형상을 창조한 로브의 《테쿰쎄》(1958), 카나다에스키모들의 비극적운명을 반영한 모우에트의 《사슴이 많은 변강에 사는 사람들》과 《절망에 빠진 사람들》에서도 표현되였다.

카나다문학은 19세기에 이어 20세기에도 언어와 관습에 따라 크게 영어계문학과 프랑스어계문학으로 갈라져 발전하였다.

영어계문학

카나다인민들속에서 민족자주의식이 높아지고있던 새로운 환경속에서 20세기초에 문학잡지들이 출현하고 1921년에 카나다작가련맹이 창립되였으며 카나다문학작품집들이 처음으로 출판되였다.

이러한 가운데 먼저 시인들속에서 영국과 미국문학의 영향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카나다시문학을 발전시키려는 움직임이 활발해졌다.

그 앞장에 선것이 윌리엄 맥도날드와 프랫트였다. 윌리엄 맥도날드(1880—?)는 《단합에 대한 노래》(1913)를 비롯한 시작품들에서, 에드윈 프랫트(1883—1964)는 시 《이삭》(1935), 시집 《타이태니크호》(1935), 서사시 《마지막 못을 향하여》(1952) 등에서 그러한 지향을 뚜렷이 표현하였다.

1930년대에 스미트, 스코트, 케네디, 클라인 등의 시인들이 프랫트와 함께 내놓은 시집 《새 고장》도 그러한 작품집이다.

초기에 사랑과 고독을 취급한 녀류시인 도로티 라이브씨가 카나다현실에 관심을 돌리고 서사시 《기마수》(1935)와 시집 《낮과 밤》(1944)에서 사회적문제를 제기한것도 시인들속에서 일어난 변화를 반영한것이였다.

카나다의 민족생활을 반영한 독자적인 민족시문학을 발전시키려는 진보적인 시인들의 지향은 20세기 중엽에 들어서면서 더욱 강화되였다.

여기서 크게 기여한것은 잡지 《프레뷰》(주필 안더슨)와 《퍼스트 스테이트멘트》(주필 싸절랜드)였다. 이 잡지들주위에 구스타프슨, 스코트, 헴볼트, 페이지를 비롯한 여러 시인들이 모여들어 서사시 《속기자》(페이지, 1946)를 비롯하여 카나다의 평범한 사람들의 생활을 노래한 작품들을 내놓았다.

이 시기 엘. 듀데크(1918—?)가 《도시의 동쪽구역에서》(1946), 《우리와 함께 젊어지기를》 등의 시작품들에서 로동자들과 도시빈민들의 생활을 반영하고 그들에 대한 뜨거운 동정을 표시하였다.

20세기 영어계카나다시인들가운데서 특히 문단의 주목을 끈것은 죠우 월러스(1890—?)이다.

토론토의 아일랜드이주민가정에서 태여나 로동생활을 하였으며 1921년 카나다공산당에 입당한 월러스는 신문 《워커》(로동자)와 토론토의 공산당계신문들에서 편집활동을 하면서 시창작활동을 벌렸다.

그는 《축전의 노래》, 《영웅들의 어머니》, 《어린 도리스》, 《훌륭한 충고》를 비롯한 여러 시들에서 카나다인민들 특히 공산당원을 비롯한 선진적인 로동자, 농민, 지식인들의 생활과 사상감정, 지향과 요구를 노래함으로써 진보적사회계의 환영을 받았다.

카나다의 민족생활을 반영한 독자적인 카나다민족문학을 발전시키려는 지향은 시인들뿐아니라 소설가들속에서도 높아졌다.

소설문학에서 이러한 지향을 뚜렷이 보여준것은 맥레난, 클라인, 그로브, 칼라한, 카터 등의 진보적작가들이였다.

휴 맥레난(1907—?)은 장편소설 《두가지 고독》(1945)에서 카나다사람들의 단합을 호소하고 장편소설 《절벽》(1948)과 《각자의 아들》(1951)에서 퓨리타니즘(청교주의)의 압박을 반대해나섰다.

또한 유태인작가 에이브라함 클라인(1909—1972)은 시집 《히틀러를 저주하는 노래》(1944)에서 파시즘에 대한 분노를 노래하고 소설 《두번째 책》(1951)에서 유태민족의 고난의 길을 묘사하였다.

이 작품은 말콤 라우리(1909—1957)의 소설 《활화산밑에서》(1947)와 함께 사회계의 주목을 끌었다.

이와 함께 모올리 칼라한(1903—?)이 인종문제를 담은 장편소설 《사랑과 상실》(1951),

도이췰란드이주민인 그로브(1871—1948)가 사실주의적장편소설 《제분소주인》(1944)과 《자기자신을 찾아서》(1946)를 발표하여 알려졌다.

1960년대이후 영어계 카나다소설문학에서는 3부작장편소설 《제5의 사업》(1970), 《멘티코어》(1972), 《놀라운 기계》(1975)를 쓴 로버트슨 데이비스, 단편소설집 《분명한 사실》(1981)을 내놓은 매비스 캘런트, 장편소설 《아름다운 패배자》(1966)의 레너드 코언, 장편소설 《학살에서 살아남다》(1977)의 마이클 온다체 등이 알려졌다.

1960년대이후 영어계 카나다문학에서는 또한 녀류작가들이 적극 진출하여 문학의 사회적지위를 높이는데 이바지하였다.

《돌천사》(1964), 《신의 희롱》(1966), 《예언자들》(1974)을 비롯한 여러편의 장편소설들에서 낡은 사회적인습에 반기를 든 녀주인공을 형상한 마가레트 로런스(1926—1987), 온타리오지방을 배경으로 한 장편소설 《소녀와 녀인들의 생활》(1971)을 쓴 앨리스 만로(1931—?), 인권옹호운동에 적극 참가하고 《원형경기》(1966)를 비롯한 시집과 함께 《녀자사제》(1976), 《하녀이야기》(1985) 등의 장편소설들을 내놓은 마가레트 아트우드(1939—), 단편소설집 《친어머니》(1981), 장편소설 《썰물과 밀물사이의 삶》(1984)에서 녀성들의 어려운 생활을 묘사한 오도리 토머스 등이 대표적인 녀류작가들이다.

영어계 카나다녀류작가들가운데서 루씨 모우드 몽고메리(1874—1942)는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져있다.

그는 카나다의 프린스에드워드섬의 아름다운 풍경을 배경으로 카나다사람들의 인정세태생활을 그린 《푸른 집의 앤》(1908)으로부터 《잉글싸이드의 앤》(1939)에 이르는 《앤》총서와 자서전적인 3부작 《귀여운 에밀리》(1923)와 같은 아동문학작품들을 내놓아 국내외에서 호평을 받았다. 그는 소설과 함께 시집과 방대한 량의 일기를 남겼다.

몽고메리의 대표작인 《푸른 집의 앤》은 녀주인공인 고아 앤 샤아리의 개성적인 성격형상을 통하여 사람은 어떤 불우한 처지에 놓이더라도 인간적인 존엄, 깨끗한 정신만은 빛내야 한다는 사상을 담은 중편소설이다.

작품은 고아원에 있는 열한살난 앤이 늙은 농민 마슈 크스바트의 집에 찾아오는것으로부터 시작된다.

마슈와 그의 녀동생 마릴라가 고아원의 남자아이를 맡아 기르겠다고 했는데 그만 잘못되여 녀자아이를 보내온것이다. 그 애는 빨간 머리에 얼굴은 여위고 온통 주근깨투성이였다. 크스바트남매는 그 애를 되돌려보내려 했다가 그에게 동정이 가서 맡아 키우기로 한다.

앤은 자기의 불우한 처지와 아름답지 못한 외양과는 달리 명랑하고 솔직하며 령리한 소녀였다. 그는 남들이 어리둥절해지리만큼 말이 많으며 놀랄만 한 공상과 상상력으로 늘 아름다운 꿈의 세계를 그려본다. 그리하여 크스바트남매는 날이 갈수록 앤을 더욱더 사랑하게 된다.

그는 마을학교에 다니면서 공부를 뛰여나게 잘했으며 가까이에 사는 다이아나라는 처녀애와 친교를 맺고 마을사람들한테서도 사랑을 받게 된다.

앤을 힘자라는데까지 공부시켜보려고 마음먹은 크스바트남매는 그가 마을학교를 졸업하게 되자(15살때) 교원을 양성하는 퀸학교 입학시험에 응시하게 한다. 앤은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노력함으로써 시험에 1등으로 합격된다.

집을 떠나 도시에 있는 퀸학교에 입학한 앤은 2년분과정안을 한해동안에 돌파할 결심을 한다. 한마을의 길버트소년도 앤의 결심을 지지하여 나선다. 그들은 서로 경쟁적으로 공부하여 단연 두각을 나타내며 드디여 길버트는 메달수상자로, 앤은 에이브리장학금(대학에 다니는 동안 받을수 있다.)수상자로 된다. 그리하여 고아인 앤앞에 대학에서 공부할수 있는 길이 열린다.

그러나 앤은 마슈할아버지가 죽고 마릴라마저 눈이 멀게 되자 자기의 희망의 길을 버리고 마을에서 교편을 잡는다.

소설에서는 녀주인공 앤 샤아리를 산인간처럼 생동하게 형상하였다.

앤의 성격에서 특징적인것은 남다른 명랑성, 풍부한 상상력과 대바른 솔직성, 굽힘없는 자존심이다. 작품은 특히 여러 장면들에서 의지가지없는 고아의 불쌍한 처지에서도 자기의 존엄을 지키려는 앤의 대바른 성품을 엿볼수 있게 하고있다.

작품에는 주인공뿐아니라 마슈, 마릴라, 다이아나, 래이첼부인 등 다른 인물들도 개성적으로 그려져있다.

작품은 특히 녀주인공이 자라나는 고장인 에드워드섬의 전경을 아름답게 그리고있으며 자연묘사를 주인공의 정서세계를 뚜렷이 드러내는데 복종시키고있다.

작품은 자본주의사회에서의 고아들의 비참한 운명에 맞지 않게 생활이 미화분식되고 주인공의 감정세계가 지나치게 감상적이며 그리스도교적인 정서가 짙고 부르죠아박애주의사상이 강한 제한성을 가지고있으나 녀주인공 앤의 개성적이며 인상적인 성격을 생동하게 창조한것으로 하여 널리 알려지게 되였다.

프랑스어계문학

20세기 전반기 프랑스어계 카나다시문학에서는 모렌, 에르뗄을 비롯한 상징주의, 초현실주의시인들이 시단에서 큰 세력을 차지하고 카나다민족시문학의 발전에 적지 않은 지장을 주었다. 1930년대에는 형이상학적인 무운시 《허공에서의 경기》(1937)를 쓴 에또르 드 쌩드니 가르노가 알려졌다.

1940－1950년대에는 가르노, 알랑 그랑보와, 안 에베르, 리나 라스니에 등 4명의 시인이 차례로 시단을 지배하였다. 그들은 서로 다른 창작경향과 수법으로 시단에 영향을 미쳤다. 그중에서도 《진홍색별》(1957) 등의 시집을 쓴 알랑 그랑보와(1900－1975)와 《루와 사망후 현대퀴베크문학을 대표하는 작가의 한사람》으로 알려져있는 녀류시인 안 에베르(1915－?)가 젊은 세대의 작가들에게 큰 영향을 주었다.

20세기 전반기 프랑스어계 카나다소설문학에서 알려져있는 작가로서 에몽과 렉브륜이 있다.

엘. 에몽(1880－1913)은 20세기초에 내놓은 장편소설 《마리아 샤쁠랭》에서 지난 식민지시기 개척민들의 생활을 사실주의적으로 묘사하였다. 당시에 널리 읽히우고 호평을 받은 이 작품은 베르나르, 그리뇽과 같이 식민지시기 개척민들에 대한 작품을 쓴 프랑스어계 카나다작가들에게 영향을 미쳤다.

렉브륜(1889－?)은 1837년폭동을 반영한 《빨간 옷》(1923), 1870년, 1885년 릴폭동을 그린 《한 대양으로부터 다른 대양에로》(1924) 등의 력사소설들을 내놓았다.

또한 부르죠아사상을 비판한 《삼베기발》(1934), 퀴베크의 현실을 서정적으로 반영한 《강의 우두머리 메노》(1937)를 쓴 펠릭스 앙뚜완 싸바르, 퀴베크농촌경리의 쇠퇴과정을 반영한 《30에이커》(1938)의 작가 링구에 등이 알려져있다.

20세기 후반기 프랑스어계 카나다문학발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것은 퀴베크문학이다.

카나다 동남부에 있는 퀴베크는 식민지시기에 그리 크지 않은 지방도시에 불과하였다. 그러던것이 20세기에 들어와 제1차 세계대전과 제2차 세계대전사이에 프랑스계 카나다사람들이 수많이 모여들어 공업이 발전한 대도시로 되였다. 퀴베크는 20세기 후반기에 더욱 발전하였다.

특히 1960년대에 퀴베크에서는 《조용한 혁명》으로 불리운 변혁이 일어나 큰 변화가 일어났다. 그리하여 일개 지방문학으로 취급되였던 퀴베크문학이 프랑스어계 카나다문학을 대표하는 의의있는 문학으로 알려지게 되였다.

현대카나다문학을 대표하는 작가의 한사람은 녀류작가 가브리엘 루와(1909－1983)이다. 그는 몬트리올의 로동자거주지역을 묘사한 장편소설 《납피리》(1945)를 비롯한 여러 작품들을 내놓았다. 그와 함께 장편소설 《나무방》(1958), 《바람의 그림자속에서》(1982)를 비롯한 여러 작품들에서 섬세한 감수성을 가지고 퀴베크의 현실을 그린 녀류소설가이며 시인인 안 에베르, TV련속극으로 옮겨져 인기를 끈 장편소설 《플루쁘집안》(1948)의 작가 로제르 르멜랭(1919－?) 등이 사실주의의 길로 나갔다.

그밖에도 퀴베크의 에스키모와 아메리카인디안의 생활을 그려 새로운 주제를 개척한 장편소설 《아가구끄》(1958), 《아씨니》(1960)의 작가 이브 떼리오(1915－1983), 퀴베크의 농촌생활을 예리하게 파헤쳐보인 장편소설 《에마뉘엘의 일생에서의 한때》(1965) 창작으로 이름을 날린 녀류작가 마리 끌레르 블래(1939－)를 비롯한 여러 작가들이 활약하였다.

현대카나다문학에서는 영어계와 프랑스어계 문학사이의 련계가 점차 긴밀해졌다.

2) 미국문학

현대제국주의의 우두머리 미제에 대한 비판정신을 뚜렷이 한 미국문학

20세기에 미국은 세계제국주의의 우두머리로 등장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미제국주의는 현대의 가장 야만적이고 가장 흉악한 제국주의이며 세계제국주의의 우두머리이다.》

세계제국주의는 제1차 세계대전과 제2차 세계대전을 통하여 심대한 타격을 받았으며 결과 자본주의는 심히 약화되였다. 그러나 미제국주의만은 제1차, 제2차 세계대전에서 막대한 리윤을 얻고 급격히 비대해졌다. 미국은 전쟁과정에 국내산업이 파괴되지 않았을뿐아니라 오히려 공업생산이 2배이상으로 장성하였다. 군수산업을 대대적으로 확장한 미국은 전쟁기간 련합국들에 대한 무기와 군수물자조달로 막대한 폭리를 얻었다. 미국은 전쟁을 계기로 하여 세계최대의 채권국가로 되였다.

그리하여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 자본주의세계에서 압도적지위를 차지하게 된 미제국주의는 자본주의세계를 군사적으로 장악하고 경제적으로 자기의 통제밑에 넣게 되였으며 장성하는 사회주의력량을 견제하고 세계제패의 야망을 실현하기 위한 침략정책에 적극 매달리게 되였다.

특히 20세기말에 동유럽나라들에서 사회주의가 붕괴되고 자본주의가 복귀되자 미국은 세계의 《유일초대국》으로 자처하면서 미국을 중심으로 한 《1극세계》를 만들겠다고 떠들고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미제국주의자들의 허장성세에 불과하다.

오늘 자본주의세계의 모순이 더욱 격화되고 제국주의가 정치경제적으로 심각한 위기에 처하게 되면서 세계제국주의의 우두머리인 미국의 처지도 날로 더욱 어렵게 되여가고있다.

미제의 내리막길이 시작된것은 1950—1953년 조선전쟁때부터이다.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영웅적조선인민군대와 조선인민이 놈들에게 세계력사상 처음으로 가장 큰 참패를 안겨줌으로써 미제의 《강대성》의 신화는 산산이 깨여지고말았다.

조선전쟁이후 미제는 세계의 이르는 곳마다에서 련이어 쓰디쓴 참패를 당하였다. 꾸바와 웰남을 비롯하여 여러곳에서 미제는 된 타격을 받고 쫓겨났다. 하여 미제는 세계도처에서 고립배격당하고있다.

세계적으로 고조되고있는 자주성을 옹호하는 투쟁, 반제반미투쟁은 미국국내에서도 힘차게 벌어져 미제를 곤경에 빠뜨리고있다.

제2차 세계대전후 미국에서 로동운동이 보다 장성강화되였으며 60년대 후반기—70년대 전반기에는 사회의 민주화를 위한 대학생들의 투쟁이 힘차게 벌어졌다. 특히 인종차별을 반대하는 흑인들의 투쟁이 그칠새없이 벌어졌다.

미국은 경제적으로도 자본주의세계에서 차지하여온 지배적지위를 점차 잃어버리게 됨으로써 곤경에 빠지고있다. 유럽나라들의 경제가 발전되여 미국의 경제적지배권이 약화됨에 따라 미제국주의자들은 자본주의세계에 대한 지배권을 유지하며 팽창된 대군수독점체들의 리윤을 보장하기 위하여 경제를 더욱 군사화하는 방향으로 나가고있다. 이로 말미암아 국가예산의 적자가 엄청나게 커지고 대외채무가 늘어나게 되였으며 마침내 미국은 세계최대의 채권국가로부터 최대의 채무국가로 굴러떨어지게 되였다.

미제는 이와 같은 위기에서 벗어나는 길을 국가기구의 반동화, 파쑈화, 인민대중의 혁명적진출에 대한 야수적탄압, 다른 나라들에 대한 침략책동의 강화에서 찾고있다.

특히 사상문화분야에서 미제의 발악적책동은 극도에 이르고있다. 미제는 근로대중의 자주적인 사상의식을 마비시키고 사람들을 자본주의적착취제도에 순종시키기 위하여 반동적이며 반인민적인 사상과 문화, 썩어빠진 부르죠아생활양식을 발광적으로 퍼뜨리고있다.

미국에서는 각종 반동사상과 미신이 류포되여 마약과 같이 사람들의 건전한 정신을 마비시키고 사람들을 몽매하게 만들고있으며 약육강식의 생활방식이 조장되여 패륜패덕과 살인, 강도와 같은 사회악이 판을 치고 사람들을 공포와 불안에 떨게 하고있다. 이처럼 미국에서는 물질적부가 늘어날수록 사람들의 정신생활이 더

욱더 빈궁화되여가고있다.

미국사회의 이러한 특징은 미국문학에 그대로 반영되고있다.

부르죠아문학 조류

미국문학에서는 20세기에 반동적이며 퇴폐적인 사회풍조를 반영한 이색적인 부르죠아문학사조와 류파들이 범람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부르죠아문예사조는 착취계급의 반동적인 사상조류이다. 부르죠아문예사조는 착취계급의 반동사상을 퍼뜨리는데 주되는 목적을 두고 인간과 생활에 대한 진실한 반영을 거부한다. 지금 세계적으로 류포되고있는 부르죠아문예사조는 각양각색이지만 그것은 례외없이 착취계급의 반동적 세계관에 기초하고있으며 생활에서 본질적인것을 외면하거나 외곡하며 비본질적인것을 과장하고 미화분식하는데 열을 올리고있다.》

20세기 미국문학에서 이색적인 부르죠아문학사조, 류파가 제일 먼저 류포된것은 시문학분야였다.

미국의 부르죠아시문학계에서는 1910년경부터 종래의 전통적인 시와는 다른 새로운 시를 창조하려고 한 일부 시인들에 의하여 신시운동을 일으켰다.

그것이 사상파(이메지즘)였다. 이 류파를 먼저 들고나온것은 런던에 모여있던 미국과 영국시인들이였으나 그 지도적존재로 된것은 미국의 에이미 로우엘(녀자, 1874—1925)과 에즈라 파운드(1885—1972)였다. 로우엘은 3권으로 된 《이메지스트시집》(1915—1917)을 통하여, 파운드는 잡지 《포에트리》(1912 창간)를 통하여 자기들의 주장을 반영한 형식주의시들을 퍼뜨렸다.

이메지란 원래 모습, 그림자, 영상이라는 뜻인데 문학에서는 흔히 머리에 떠오르는 영상이라는 의미로 쓰이고있다.

사상파(이메지즘)라는 명칭은 이 파에 속했던 부르죠아시인들이 자기들의 작품에 머리에 떠오르는 영상(이메지)을 표현한데로부터 나왔다.

이 파의 시인들은 상징주의의 반동적리론에 기초하여 시의 사상적내용을 무시하고 극도의 형식주의를 고취하였다. 그들은 시문학이 세계의 혼돈을 표현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주로 사회생활과는 동떨어진 자연의 우연적인 현상이나 주관적인 한순간의 인상을 시의 묘사대상으로 삼았다. 이로부터 그들은 아무러한 론리적련계도 없는 무의미한 말마디들을 제멋대로 엮어놓고는 그것을 영상의 목록 즉 시라고 떠벌이였다. 자본주의사회의 위기에 겁을 먹은 반동적부르죠아지의 사상감정을 반영하여 나온 사상파는 그것이 추구하는 목적과 내용의 반동성으로 하여 1920년대 중엽에 류파로서의 자기의 존재를 끝마치였다.

그러나 사상파의 반동적인 독소는 그후 모더니즘시문학에 큰 영향을 미쳤다.

사상파이후 미국의 부르죠아시단을 지배한 사조는 모더니즘이다. 문학분야에서 형식주의의 최첨단이라고 할수 있는 모더니즘은 형형색색의 류파를 이루고있지만 그것은 다 사람이 리해할수 없는 주관의 세계를 추상적형식에 담아 제멋대로 그려냄으로써 문학의 사상적내용을 흐리게 하고 인식교양적기능을 마비시키고있다.

미국 모더니즘시문학의 대표자는 미국의 부르죠아문학계가 20세기 미국의 대표적인 시인으로 내세우고있는 월레스 스티븐즈(1879—1955)와 윌리엄 윌리암즈(1883—1963)이다. 그들의 주장은 《명상시》라고 하는 스티븐즈의 《최고의 허구를 위한 각서》(1942), 시집 《정신의 끝인 야자수》, 《20세기 미국의 대표적인 장편서사시》로 떠들고있는 윌리암즈의 《파터슨》(전 5권, 1946—1958) 등에서 뚜렷이 표현되고있다.

부르죠아평론은 무의미하고 까다로운 말마디의 유희에 지나지 않는 그들의 시들을 《시의 극치》로 내세우고있지만 사실상 그것은 형식을 위한 형식, 기교를 위한 기교의 추구에 지나지 않는다.

20세기 미국문학에서 이색적인 부르죠아문학조류는 시문학과 함께 극문학에서도 강하게 나타났다.

미국의 부르죠아극문학계에서는 자연주의적이며 퇴폐적인 조류가 우세하였다. 자연주의는 우연적이고 비본질적인것을 기계적으로 묘사함으로써 생활의 본질과 진실을 외곡한다. 자연주의가 추구하는 목적은 생활을 외곡함으로써 사람들

의 계급의식을 마비시켜 자본주의를 영원히 지탱하려는데 있다.

미국의 문학사가들은 19세기에 볼만 한 극작가가 나오지 못하고 침체기를 겪었던 미국의 극문학계에서 근대극이 태동하기 시작한것은 20세기초부터이며 1920년에 오닐의 희곡 《지평선 저쪽》이 공연된 때로부터 미국의 근대극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고있다.

그러나 미국의 근대극은 그 시작부터가 자연주의적이며 퇴폐적인 부르죠아극이였으며 그 이후에도 그것이 지배적이였다.

그에 대해서는 《20세기 미국 최대의 극작가》라고 하는 오닐과 윌리암즈의 극작품들을 살펴보아도 잘 알수 있다.

유진 오닐(1888—1953)은 단막해양극인 《지평선 저쪽》을 무대에 올려 성공한 후 퇴페적인 자연주의희곡을 련이어 써냄으로써 미국부르죠아극문학계의 일인자로 되였다.

그가 쓴 극작품으로는 《황제 죤즈》(1920), 《털원숭이》(1923), 《느릅나무밑에서의 욕망》(1924), 《상복이 어울리는 엘렉트라》(1931), 《얼음판매원이 보고있다》(1946) 등이 있다.

늙은 농장주의 젊은 후처와 전처의 아들의 치정관계와 오해로 인한 결별, 어린이살해사건과 두사람의 감옥행을 내용으로 하고있는 《느릅나무밑에서의 욕망》을 비롯한 오닐의 희곡들은 인간의 동물적인 본능을 자연주의적으로 그린 퇴폐적인 내용, 상징적이며 신비적인 수법, 정신분석학적인 묘사로 하여 특징적이다.

테네씨 윌리암즈(1911—1983)는 마약중독과 알콜중독에 걸려 타락한 생활을 하였지만 미국 부르죠아문단에서 인기작가로 인정받았다. 그의 작품들은 주로 자기가 태여난 남부주를 무대로 하여 귀족사회의 붕괴와 지난날의 꿈속에서 헤매이는 녀성의 고민을 보여주고있다. 실존주의적이며 프로이드적인 그의 작품들은 자연주의, 종교적신비주의수법을 많이 쓰고있다. 그의 대표작은 희곡 《유리동물원》(1944)과 《욕망이라는 이름의 전차》(1947)이다.

20세기 미국문학에서 이색적인 부르죠아문학사조와 류파들이 가장 성행한것은 소설문학분야였다.

그 첫 류파가 제1차 세계대전직후에 출현한 《잃어진 세대》파였다. 《잃어진 세대》(로스트 제넬레이슌)란 전쟁의 충격으로 사고와 행동의 기준을 잃어버리고 당황망조한 젊은 세대라는 뜻이다. 《잃어진 세대》파라는 말은 빠리에 있으면서 자기 객실에 출입하던 젊은 작가들에게 영향을 준 녀류작가 스타인(1874—1946)이 담화에서 쓴 말에서 유래되였다고 한다.

이 파의 작가들의 창작에서 공통적인 특징은 제국주의전쟁을 증오하면서도 그 출로를 알지 못하고 자기들의 리상에 대한 상실감과 현대부르죠아문명에 대한 환멸을 자기나름으로 표현한것이다.

제1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을 때 20살안팎의 젊은 청년들이였던 그들은 보통병사로 전쟁에 참가하여 큰 충격을 받고 반전적인 기분을 가지게 되였으나 반제, 반전, 평화옹호투쟁의 길로 나서지 못하고 현실도피적이고 비관적인 정서, 환멸과 실망의 감정에 빠져있었다. 그들은 정치에 침을 뱉고 사회에 등을 돌려댔으며 창작을 통하여 《자아》를 표현하는것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았다.

《잃어진 세대》파의 작가들가운데는 헤밍웨이와 같이 거기서 탈피하여 진보적인 길로 나간 사람도 있으나 많은 작가들이 퇴폐주의로 떨어졌다. 그 실례로 포크너와 도스 패써스를 들수 있다. 이 두 작가는 30—40년대에 미국 부르죠아문학이 대가로 내세운 자연주의, 퇴페주의문학의 대표자로 되였다.

윌리엄 포크너(1897—1962)의 많은 장편소설가운데서 대표작으로 간주되고있는것은 《음향과 분노》(1929), 《8월의 빛》(1932)이다.

《음향과 분노》는 남부농장주일가의 몰락을 의식의 흐름에 특징적인 내면독백의 수법으로 그려낸 작품이며 《8월의 빛》역시 같은 수법으로 무지와 퇴페, 폭력 등 온갖 악덕이 살판치는 미국남부사회의 부패성을 파헤쳐보인 작품이다.

포크너의 작품들은 무지, 몽매, 퇴페, 폭력 등의 묘사에 치중하고 신비주의적이고 종교적인 색채가 진하며 구성이 복잡하고 자연주의와 프로이드주의, 모더니즘의 요소가 강한것이 특징이다.

포크너의 작품들은 사람들을 부패타락시키고 그들의 계급의식을 마비시키는 해독적역할을 놀았다.

도스 패써스(1896—1970)의 대표작인 3부작장편소설 《유 에스 에이》(《미합중국》의 략

자)(1930—1936) 역시 일관한 줄거리가 없는 형식주의적인 기계적구성, 영화적수법을 도입한 심리주의적수법 등 실험소설수법이 강하게 표현된 반사실주의적작품이다.

미국의 부르죠아문학조류들은 제2차 세계대전후에 더욱 우심하게 나타났다.

그 하나가 1950년대에 출현한 《매맞은 세대》파(비트 제넬레이슌)이다. 시 《노호하다》를 쓴 긴즈버그, 소설 《로상에서》를 쓴 케루악을 기본으로 하는 이 류파의 작가들은 사회에 대한 반항을 표방하였으나 사실은 극도로 타락한 불량청년들의 절망감을 대변한 퇴폐주의문학에 불과하였다.

1960년대부터 1970년대에 걸쳐 《새 작가들》(뉴 라이터즈)로 불리우는 일련의 신진작가들(그 대다수가 소설가들이였다.)이 련이어 나타났다. 그들은 새로운 가치관을 모색한다고 하면서 전통적인 사실주의를 배격하고 언어에 기초한 이른바 《허구의 공간》을 만들어냄으로써 질서잃은 사회를 보여주려고 하였다. 그러한 작품들을 가리켜 《흑색유모아》(블래크 유모아)라고 하였다. 이 말은 작가자신을 포함하여 모든것을 어두운 웃음으로 날려보내려고 한데로부터 나왔다. 그 명칭을 어떻게 달든 그것은 타락하고 기형화된 퇴폐주의문학류파의 변종에 불과하였다.

그 전형적인 작품은 비인간적인 기구로서의 정신병원의 방식에 반항하는 주인공—환자의 모습을 기괴한 과장, 현실과 환상이 혼합된 수법으로 그려낸 키지의 장편소설 《딱따구리의 둥지》(1962)이다. 또한 바스의 《주정뱅이 풀의 중개인》(1960), 헬러의 《캣치 22》(1961), 핀치온의 《V》(1963), 기타 작품들이 여기에 속한다.

같은 시기에 소설의 죽음에서 출로를 찾는다면서 허구를 배척하고 사실 그자체에 기초한 소설창작을 표방한 《무허구소설》(논 픽숀 노벨)이라는것을 들고나온 작가들도 나왔다. 카포티의 《랭혈》(1966), 스타이론의 《낫트 타너의 고백》(1967), 독토로우의 《라그타임》(1975) 등을 그 례로 들수 있다.

이러한 작품들은 허구없이 있는 사실을 그대로 그린다고 하면서 부차적이며 비본질적인 생활을 파거나 범죄자들의 피비린내나는 만행을 공포감이 나게 그림으로써 결국은 자연주의로 떨어지고말았다.

미국의 진보적문학은 이와 같은 형형색색의 부르죠아문학조류들과의 대립투쟁을 통하여 힘들게 발전하였다.

프로레타리아 문학

20세기 미국의 진보적문학에서 새로운것은 프로레타리아문학이 대두한것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문학예술작품은 그 시대 사람들의 절절한 요구와 지향, 사상감정을 예술적으로 깊이있게 형상하여야 합니다.》

20세기 미국의 진보적문학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있는것은 로동계급의 투쟁과 생활을 그린 프로레타리아문학이다.

미국의 프로레타리아문학은 20세기초에 발생하였다.

미국에서 프로레타리아문학이 발생한것은 사회주의사상이 보급되고 로동계급이 적극적으로 진출하여 로동운동이 발전한 현실의 요구였다.

19세기말에 미국의 자본주의가 제국주의단계로 이행하면서 사회계급적모순이 첨예화되는 가운데 사회주의사상이 보급되고 로동운동이 앙양되였으며 로동운동단체들과 로동계급의 리익을 옹호하는 진보적정당이 조직되였다. 1869년에는 《로동기사단》이, 1876년에는 《사회로동당》이, 1905년에는 《세계대공업로동자동맹》이 창건되였다. 1919년에는 미국공산주의로동당이 창건되여 국제공산당에 대표를 파견하였으며 1929년에 이르러서는 미국공산당이 창건되였다.

이러한 객관적현실은 무산계급의 계급적리해관계를 대변하는 프로레타리아문학이 발생할수 있는 현실적바탕으로 되였다.

이 시기에 프로레타리아잡지들이 창간, 보급된것도 프로레타리아문학의 발전을 추동하였다. 그 대표적인 잡지가 《매씨즈》였다. 《매씨즈》는 프로레타리아문예잡지로서의 성격을 강하게 띠고 프로레타리아문학운동을 발전시키는데 큰 역할을 하였다.

1917년에 《매씨즈》가 당국의 탄압으로 폐간당하자 이 잡지를 대신하여 《해방자》라는 새로운 잡지가 나왔으며 1926년에 《뉴 매씨즈》가 창간되였다. 모든 프로레타리아작가들이 이 잡지

들을 통하여 프로레타리아문학을 보급선전함으로써 프로레타리아문학의 발전에 이바지하였다.

미국의 프로레타리아문학은 주로 시문학과 소설문학, 보도에서 나타났다.

미국프로레타리아시문학의 대표자는 죠우 힐(1880—1915)이다. 스웨리예계 이민으로서 미국에서 가장 혹심한 착취를 받는 방랑로동자였던 죠우 힐은 로동운동에 참가하고 《세계대공업로동자동맹》에 가입하였다. 그는 사회주의사상을 받아들이고 동맹의 조직, 선전사업을 맡아보면서 착취계급을 반대하는 적극적인 활동을 벌렸다. 그를 눈에 든 가시처럼 미워하던 미국의 반동통치배들은 살인사건을 조작하여 그를 살인죄로 몰아 총살하였다.

죠우 힐은 수십편의 시들을 남겼는데 그의 시들은 혁명적이고 전투적인 내용과 민요조의 알기쉬운 시어로 하여 전미국에 널리 퍼졌다.

그의 시에서 기본을 이루는것은 강렬한 자유애호정신과 로동계급의 원쑤들을 반대하는 비타협적인 투쟁정신, 자본주의제도를 뒤집어엎기 위한 혁명투쟁에로의 열렬한 호소이다.

그는 시 《처녀반항자》에서 테로행위가 살판치는 무시무시한 환경속에서도 두려움없이 자유를 위한 싸움의 길에 나선 로동자처녀를 노래하면서 투쟁의 열정, 투쟁의 긍지를 힘있게 노래하였다.

탄압의 폭풍이 울부짖는다 해도 가슴을
　펴고 맞받아나가며
백색테로가 휘몰아친다 해도 자유위한
　싸움에 피가 끓는다
북받치는 증오심을 안고 도전하는 싸움은
　강권으로도 막지 못하리니
그대는 지금 솔직하고 상냥한 처녀를
　초월하여
자유위한 피끓는 싸움에 나선 녀전사로
　살아가누나

그의 시에서는 또한 로동계급의 련대성, 근로대중의 단결에 대한 사상이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있다.

《우리는 무엇을 바라는가》, 《동맹의 힘》, 《전세계 로동자여 잠에서 깨여나라!》와 같은 시들을 그 례로 들수 있다. 이 시들에서 시인은

빈곤의 노예여 헐벗은 노예여!
싸우자 자유를 위해
뭉치자 한덩어리로
크게 대렬을 다지자!

라고 무산자들이 단결하여 자유위한 투쟁에 나설것을 열렬히 호소하였다.

그는 옥중에서도 굴하지 않고 용감히 싸웠으며 사형 전날 밤인 1915년 11월 18일 감방에서 쓴 시 《죠우 힐의 유언》에서 동지들이 자기의 죽음을 슬퍼하지 말고 우리의 기쁨인 투쟁을 계속할것을 당부하였다.

미국프로레타리아시문학의 이러한 특징은 백인과 인디안의 혼혈인인 로동자시인 필립스 라쎌의 시 《프랭크 에이취 리틀에게》와 로동자시인 클라우드 맥케이의 시 《아무튼 죽는다면》에서도 찾아볼수 있다.

프랭크는 로동운동투사로서 용감히 싸우다가 반동들의 습격을 받고 체포되여 희생된 사람이다. 시 《프랭크 에이취 리틀에게》는 희생된 동지를 영원히 기억하며 그가 추켜들었던 기발을 들고 끝까지 싸워 이기리라는 시인의 결의를 절절하게 노래하고있다.

우리는 프랭크 리틀을 기억하리라
우리는 우리의 손으로 우리의 사회를
　건설한 다음에도
그대의 이름을 거듭 부르리라
우리의 해방전쟁의 길에서 쓰러진
　프랭크동지를
그대가 남긴 무산자의 기발을
우리가 기어이 들고나가리라
그대가 사랑한 정의를
우리의 백만의 혀가 칭송하여 노래하리라
희생된 프랭크여 안녕히
사랑하는 프랭크여 안녕히

흑인시인 맥케이의 시 《아무튼 죽는다면》은 압제자들에 대한 피압박인민들의 분노와 투쟁의 열정을 격조높이 노래하고있다.

아무튼 죽는다면 아 우리는 당당히 죽고
　싶구나
우리 동족의 붉은 피가 헛되이 흐르지

않도록
형제들아 우리는 우리의 원쑤들과 맞서야
하리
적들이 천만이라 하더라도 겁내지 말라
천가지 타격에 한가지 강타로 보복하리라

소설문학에서 프로레타리아문학의 대표자로 활동한것은 고울드, 말츠, 보스와 같은 작가들이다.

마이클 고울드(1893—1967)는 뉴욕의 빈민거리에서 유태인의 아들로 태여나 로동하였으며 1910년대말부터 로동운동에 참가하고 잡지 《매씨즈》의 주필로 사업하였다.

1916년부터 창작활동을 시작한 고울드는 평론집 《프로레타리아문학을 지향하여》(1920)에서 근로대중의 생활과 밀착된 프로레타리아문학을 창조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였으며 단편소설 및 시작품집 《1억 2천만》(1920)에서 근로대중의 계급의식의 각성과정을 보여주고 장편소설 《돈없는 유태인》(1930)에서 뉴욕의 빈민거리에서 사는 빈민들의 비참한 생활처지를 반영하였다.

앨버트 말츠(1908—1967)는 중편소설 《지하의 흐름》에서 로동계급의 투쟁을 생동하게 그려냈으며 메아리 보스는 1929년 북캐럴라이너주의 직물공장에서 일어난 로동쟁의를 소재로 한 장편소설 《파업》(1930)을 발표하였다.

소설은 모진 가난과 감독들의 비인간적인 처사에 참을수 없어 파업을 일으킨 로동자들이 굳게 뭉쳐 파업승리를 위해 완강히 투쟁하는 모습을 생동하게 보여주었다.

보도에서 미국 프로레타리아문학의 대표작은 리드의 《세계를 진감시킨 열흘간》(1919)이다.

죤 리드(1887—1920)는 1910년부터 기자생활을 시작하고 진보적인 기자들과 함께 잡지 《매씨즈》를 발간하였으며 1914년에는 메히꼬부르죠아혁명에서의 농민군의 투쟁을 현지에서 취재하고 첫 실화문학작품집 《혁명적메히꼬》를 발표하는 등 적극적인 활동을 벌렸다.

제1차 세계대전시기에 그는 특파기자로 유럽의 여러 전선을 돌아보고 그곳 실태를 《동유럽의 전쟁》이라는 제목으로 보도하였으며 1917년 로씨야에 갔다가 모스크바에서 사회주의10월혁명을 직접 목격하고 혁명을 열렬히 환영해나섰다. 리드는 《세계를 진감시킨 열흘간》이라는 보도에서 자신의 격동된 심정을 토로하였다. 이것으로 하여 리드는 일약 전세계에 알려졌다. 그는 단편소설집 《혁명의 딸》(1927 출판)도 썼다.

리드는 1918년 미국에 귀국하여 사회주의운동에 참가하였으며 1919년에 미국공산주의로동당(미국공산당의 전신)을 결성함으로써 미국공산당 창건자의 한사람으로 되였다. 그해에 그는 제3국제당 집행위원회 위원으로 선거되여 모스크바에서 활동중 병에 걸려 33살을 일기로 세상을 떠났다. 그의 유해는 모스크바의 크레믈리성벽에 안장되였다.

《세계를 진감시킨 열흘간》은 로씨야사회주의10월혁명시기의 사변들을 생동하게 반영하고있다.

1917년 2월혁명으로 황제정권은 페지되고 께렌스끼를 우두머리로 한 부르죠아적인 림시혁명정부가 수립되였다. 한편 뻬쩨르부르그, 모스크바를 비롯한 여러곳에 로동자병사쏘베트가 조직되여 2중정권시대가 시작되였다. 림시혁명정부는 2월혁명의 원인이였던 전쟁에 의한 경제적파탄, 평화에 대한 열망, 땅에 대한 빈농들의 요구 등 문제들을 풀수 없었으며 국내의 계급적대립은 날이 갈수록 첨예화되였다.

멘쉐비크와 사회혁명당이 림시정부를 지지하였으나 로동자, 농민, 병사들속에서는 모든 정권을 쏘베트에로 넘기며 땅과 빵, 무의미한 전쟁의 종결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레닌이 령도하는 볼쉐비크들의 영향이 증대되여갔다. 볼쉐비크들이 주도권을 장악한 뻬쩨르부르그쏘베트는 드디여 10월 25일(신력 11월 7일) 폭동을 일으켜 림시정부를 타도하고 쏘베트정권을 수립하였다.

쏘베트정부는 혁명후의 대혼란을 잘 견디여냈다. 뻬쩨르부르그시의회를 중심으로 한 음모와 께렌스끼의 반혁명음모도 로동자들과 병사들의 일치한 행동으로 분쇄되였다. 농민쏘베트는 레닌의 《토지문제에 대한 결의안》을 지지해나섰다. 11월 28일 격렬한 론쟁끝에 로동자병사대표쏘베트와 농민쏘베트의 련합이 끝내 실현되여 로농동맹에 의거한 사회주의국가의 기초가 축성되였다.

이처럼 리드는 서방의 출판보도매체에 의하여 사회주의10월혁명이 외곡보도되고있던 당시에 이 혁명의 력사적사변들을 사실그대로 진실하게 보도함으로써 사회주의혁명의 정당성과 진리성, 그 견인력을 보여주었다.

레닌이 《프로레타리아혁명에 대한 진실하고 가장 생동한 설명을 주고있다.》고 격찬한 이 작품은 작가의 깊은 리해력과 통찰력, 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 혁명의 고동을 전하는 발랄한 문장으로 하여 널리 읽히였다.

미국 프로레타리아문학에서 죤 리드가 논 역할은 한때 미국의 좌익작가단체들이 《죤 리드구락부》를 조직하고 그를 미국 프로레타리아문학의 시조로 기념한 사실을 통해서도 잘 알수 있다.

비판적사실주의 문학

20세기 미국의 진보적문학에서 주류를 이룬것은 비판적사실주의문학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비판적사실주의문학은 세계 여러 나라에서 근대에 발생한 진보적인 문학사조의 하나입니다. 비판적사실주의문학은 오늘도 자본주의나라들에서 진보적문학의 주류를 이루고있습니다.》

19세기 70년대에 발생하여 마크 트웨인, 노리스를 비롯한 진보적작가들에 의하여 자기 발전의 길에 들어선 미국의 비판적사실주의문학은 20세기에 들어서면서 더욱 발전하였다.

이 시기에 비판적사실주의문학이 더욱 발전하게 된것은 19세기말부터 제국주의단계에 들어선 미국의 사회계급적모순이 더욱 격화된 현실의 반영이였다.

독점의 형성은 첨예한 사회계급적모순을 발생시켰다. 국내의 재부와 권력이 극소수의 백만장자들의 수중에 집중되고 절대다수의 로동자, 농민들은 가난과 무권리속에서 헤매이게 되였다. 실업자들이 늘어나고 인종차별로 인한 사람들의 불만이 극도에 달하였다. 정치와 사회풍조가 더욱더 문란해졌으며 로동운동이 고조되고 계급투쟁이 치렬해졌다. 그리하여 미국의 꿈, 미국의 번영, 미국식민주주의에 대한 환상은 산산이 부서지고 현실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이 울려나왔다.

이러한 현실은 착취사회현실에 대한 비판을 중요특징으로 하는 비판적사실주의문학이 진보적문학의 주류를 이루게 하였다.

20세기 미국 비판적사실주의문학의 발전단계를 크게 세 시기로 갈라볼수 있다.

그 첫 단계는 20세기초부터 제1차 세계대전까지의 시기이다.

이 시기를 대표하는 작가는 재크 런던이다. 런던의 수많은 작품들가운데서도 미제국주의자들을 풍자하고 로동계급의 피어린 계급투쟁을 정면에서 묘사한 장편소설 《무쇠발굽》(1906)은 20세기초 미국 비판적사실주의문학의 봉우리로 되였다.

이 시기에 런던과 함께 《오물청소파》로 불리운 씽클래어, 재능있는 단편소설가 오. 헨리가 활약하였다.

《마크레이커즈》(《오물을 갈퀴로 긁어모으는 사람들》이라는 뜻) 즉 《오물청소파》란 부르죠아정치계, 산업계, 출판업계에 쌓인 오물을 폭로하는데 목적을 두고 20세기 초엽에 맹활약을 한 작가, 기자들의 집단이다.

잡지 《마클류어 마가진》을 중심으로 활동한 《오물청소파》의 작가들에 의하여 국회의원들에게 매수되여 비렬한 매문행위를 하는 보도계를 폭로한 《성공의 위대한 신》(필립스), 시카고의 도살장과 고기통졸임공장의 몸서리치는 로동조건을 폭로한 《쟝글》(씽클래어)과 같은 유명한 작품들이 나왔다.

그중에서도 씽클래어가 잘 알려져있다.

압턴 씽클래어(1878—1968)는 뉴욕대학 재학시기부터 좌익운동에 참가하였으며 사회당 당원으로 탄광파업에도 관여하고 한때 국회의원, 주지사선거에도 립후보하는 등 적극적인 사회정치활동을 벌리는 한편 왕성한 창작의욕을 가지고 사회비판적경향이 강한 여러편의 장편소설들을 써냈다.

《쟝글》(1906), 《석탄왕》(1917), 《지미 히긴즈》(1919), 《100%》(1920), 《보스턴》(1928) 등 장편소설들에서 작가는 로자간의 심각한 갈등을 반영하고 미국식생활양식의 파렴치성을 강하게 비판하였다.

그의 대표작인 《쟝글》은 시카고의 고기통졸임공장을 오래동안 면밀히 조사한 자료에 기초하여 착취와 부정의가 판을 치는 자본주의대기업의 추악성을 폭로한 작품이다. 이 작품은 커다란 사회적반향을 불러일으켜 국회로 하여금 끝내 식료품통제법을 제정하게 하였다.

20세기초에 활동한 작가들가운데서 단편소설가 오. 헨리(1862—1910)도 잘 알려져있다.

오. 헨리는 필명이고 본명은 윌리엄 씨드니 포터이다. 캐럴라이너주의 의사의 집안에서 태여난 오. 헨리는 약국집 점원, 목동, 은행원, 신문기자

등 각이한 직업에 종사하면서 생활체험을 쌓았으며 은행원으로 있을 때 공급횡령죄로 체포되여 1887년부터 3년간 감옥살이를 한 일도 있다. 그가 소설을 쓰기 시작한것은 이때부터라고 한다.

오. 헨리는 40살이후에야 뉴욕에 나와 단편소설을 발표하기 시작하였는데 단편소설창작에서 특기를 발휘하여 유명한 작가로 되였다.

그는 10여년간의 길지 않은 창작생활기간에 《가두배추와 임금님》(1904), 《400만》(1906)을 비롯하여 13권의 단편소설집에 모두 300여편의 단편소설들을 남겼다. 특히 《마지막잎사귀》, 《20년후》, 《현자의 선물》을 비롯한 일련의 단편소설들이 알려져있다.

자기의 작품들에서 작가는 가벼운 익살과 해학으로 미국의 자본주의적현실을 비판하고 중산층의 생활을 반영하였다. 한편 그의 소설들에는 애수와 고독감, 염세주의가 깔려있으며 흥미본위적요소가 강하게 나타나있다.

오. 헨리는 강한 행동선과 함축된 줄거리, 뜻밖의 결말로 특징적인 짤막한 단편소설의 능수로 알려져있다.

미국 비판적사실주의문학은 제1차 세계대전이후부터 제2차 세계대전까지의 시기에 더욱 발전하였다.

세계를 휩쓴 제1차 세계대전과 1929년의 경제공황을 직접 체험한 비판적사실주의작가들은 전시기 작가들보다 현실비판의 도수를 더욱 높이고 자본주의미국의 사회구조를 해부할뿐아니라 그 기초에 놓여있는 개인주의적세계관, 미국사회에 만연된 미국식생활양식을 비판하는데로 확대하였다.

다른 한편 그 출로를 알지 못한데로부터 허무와 염세주의를 더욱 진하게 나타냈다.

이 시기 비판적사실주의에 재간있는 작가들이 많이 배출되였다. 드라이저, 헤밍웨이와 같은 세계적인 대가들뿐아니라 루이스, 스타인베크와 같은 작가들 미쳘, 바크와 같은 녀류작가들이 두각을 나타냈다.

신문기자출신의 씽클래어 루이스(1885—1951)는 1910년대부터 창작활동을 시작하여 1920년에 장편소설 《중심거리》를 내놓아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작품은 중서부의 도시에서 사는 지식인인 녀주인공의 시점을 통해 《민주주의》의 《표본》으로, 《번영》하는 나라로 떠드는 미국이 사실은 위선적이고 천박한 나라라는것을 보여주고 미국에 대한 환멸을 표시하였다.

작가는 또한 천박한 기업가를 주인공으로 한 장편소설 《배비트》(1922)에서 낡은 생활인습을 예리하게 풍자하였으며 장편소설 《아로우스미스》(1925)에서는 20년대 미국의학계의 실태를 반영하면서 자본에 의한 과학의 예속성을 비판하였다. 작가는 그밖에도 교회인들의 위선과 상업적리윤추구를 풍자한 《엘마겐트리》(1927), 미국정치생활에서의 파쑈화를 비판한 《킹즈브라드일가의 혈통》(1947)을 비롯하여 20여편의 장편소설들을 내놓았다.

루이스의 창작은 주제의 범위가 협소하고 주로 중산층의 생활묘사에 머물렀으며 미국사회의 개별적인 부정면에 대한 비판에서 더 벗어나지 못한 제한성을 가지고있으나 묘사의 치밀성, 과장, 만화수법을 도입한 풍자의 예리성 등의 개성적특징을 보여준것으로 하여 미국 비판적사실주의문학의 발전에 이바지하였다.

이 시기에 두각을 나타낸 작가는 쟌 스타인베크(1902—1968)이다. 그는 캘리포니어주의 하급관리(세금수집원)의 아들로 태여나 대학을 중퇴하고 벽돌공, 신문기자, 별장지기 등 여러가지 직업에 종사하다가 1920년대말부터 소설창작을 시작하였다.

그의 창작적특징은 도시보다 농촌을, 부유한 상층사람들보다 가난한 하층사람들을 대상으로 하여 그들의 간고한 생활을 생동하게 반영하고 착취와 압박에 대한 분노와 항거를 표시한것이다.

그의 창작적특징은 장편소설 《분노의 포도》(1939)에서 선명하게 나타났다.

소설은 1930년대 미국의 현실을 배경으로 소작농 죠드일가의 운명을 통하여 독점자본과 대농장주들의 압박밑에 날로 령락되여가는 미국농업근로자들의 비참한 처지와 반항의식의 성장과정을 보여주고있다.

톰의 할아버지 죠드는 자기 손으로 땅을 일구었으며 그때부터 그들은 3대를 내려오면서 그 땅에서 농사지었다. 그런데 대농장주와 은행가, 독점자본가들이 그들의 땅을 략탈하고 빚값으로 집마저 깔아뭉개였다. 하여 땅을 잃고 집마저 잃은 죠드일가는 여기저기를 정처없이 헤매이게 되였다.

소설에 묘사된 죠드일가의 운명에는 미국의 수많은 근로대중의 처지가 일반화되여있다.

소설은 미국농업근로자들의 비참한 처지를 반영하는데 그치지 않고 바로 그러한 처지는 그들을 각성시키고 뭉치게 하며 투쟁의 길로 나서지 않을수 없게 한다는것을 설득력있게 보여주고있다.

실생활의 체험을 통하여 투쟁의 필요성을 깨닫고 반항의 길에 나서는 톰, 지난날에는 그리스도교의 교리를 선전한 설교사였음에도 불구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묶어세우고 파업투쟁을 벌리다가 살해되는 케이씨, 투쟁의 길로 떠나가는 톰을 고무하는 어머니 등의 각이한 인물형상을 통하여 미국근로자들의 각성과정을 보여주고있다.

작품에는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동정과 착취자들에 대한 분노가 강하게 표현되여있으며 당시 미국농업근로자들의 생활이 생동하게 묘사되여있다.

소설에서는 기본줄거리와 별도로 설정한 짤막한 삽입장들을 통하여 당대 현실을 예리하게 분석하고있으며 묘사의 간결성, 깊은 서정성, 강한 정론성과 같은 특징을 보여주고있다.

작품은 주인공들의 반항을 자연발생적인것으로 묘사한것과 같은 제한성을 가지고있으나 미국근로자들의 생활과 투쟁의식의 성장과정을 생동하게 묘사한것으로 하여 현대미국의 진보적문학이 달성한 성과작의 하나로 평가되고있다.

스타인베크는 이 작품외에도 캘리포니어의 소박한 농민들의 생활을 반영한 단편소설집 《천국의 목장》(1932), 과수원에서 일하는 계절로동자들의 파업을 묘사한 장편소설 《승산없는 싸움》(1936)을 비롯하여 여러 작품들을 썼다.

그러나 작가는 제2차 세계대전후에 절박한 사회적문제로부터 물러나 추상적인 부르죠아도덕을 설교하거나 흥미본위적인 부르죠아소설을 쓰는데로 기울어졌다.

《분노의 포도》를 쓴 스타인베크와 함께 30년대에 활약한 비판적사실주의작가로서 남부의 가난한 백인들의 최하층생활을 그린 《담배의 길》(1932)을 쓴 콜드웰(1903—1987), 3부작장편소설 《스타즈 로니간》(1932—1935)에서 대도시 실업자들의 비참한 생활을 반영하고 붉은기를 든 로동자들의 시위행진에 대한 묘사로써 새로운 희망을 제시한 패럴(1904—1979) 등이 알려져있다.

제1차 세계대전후부터 제2차 세계대전까지의 시기에 미국비판적사실주의문학에서는 또한 여러명의 녀류작가들이 배출되였다. 미첼, 바크, 글라스고우, 캐더를 비롯한 녀성들이 여기에 속한다.

마거리트 미첼(1900—1949)은 어틀랜터출신의 남부작가이다. 그는 남북전쟁에 대한 력사자료를 폭넓게 연구한데 기초하여 여러해에 걸쳐 규모가 큰 장편력사소설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1936)를 창작하여 널리 알려지게 되였다.

작품은 녀주인공의 운명선을 따라 남북전쟁이 시작된 1861년부터 전쟁이 끝나고 이른바 재건시대가 결속되여가던 1878년까지의 미국 남부주의 력사적현실을 주로 남부사람들의 립장에서 그려내고있다.

소설은 녀주인공의 운명선을 따라가면서 남북전쟁의 발발과 북부군의 남부진격, 남부군의 패배, 전쟁에 의한 파괴와 전후의 재건과 같은 력사적사변들을 생동하게 펼쳐보이고있다.

소설은 특히 녀주인공 스칼레트 오하라의 형상을 통하여 미국신흥부르죠아지들의 탐욕성을 생동하게 보여주고있다.

스칼레트는 한때 먹고 살아가기 위해 지금까지 해본적이 없는 로동을 다하였다. 가문의 명예따위가 한푼의 가치도 없어진 때에 자기자신과 가정을 살리자면 그길밖에 다른 길이 없었던것이다. 그러나 략탈을 기본수단으로 하는 양키들의 생활풍조가 남부를 지배하던 시기 정직한 로동만으로 생활을 개선한다는것은 어리석은짓이라는것을 깨달은 스칼레트는 양키의 강도적사고방식을 받아들여 략탈의 길에 들어선다.

그 과정에 그는 사람다운 면모를 완전히 잃고 돈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철저한 현실주의자로 된다.

이처럼 스칼레트는 혼란된 시기의 생활체험을 통해 양키날강도의 생활원칙을 실천하는 부정적인 현실주의자로 된다. 하여 그는 자기스스로 불행을 조장하며 비참한 운명을 지니게 된다.

소설에 등장하는 레트 바틀러도 남북전쟁으로 어려운 시기에 자기의 리속을 차린 장사군이다. 그는 무원칙을 최고의 원칙으로 간주하는 부르죠아실용주의자의 전형이다. 시국이 어지러울수록 돈벌이가 더 잘된다는것이 그의 생활신조였다. 하여 그는 가렬한 전쟁마당에서 사기와 협잡, 밀매로 일확천금을 한다.

부정적인 생활신조에 명석한 두뇌와 잔인성,

랭정성이 결합된 그는 돈을 벌기 위해 더욱 극단적으로 나가게 된다. 그에게는 조국이나 가정에 대한 그 어떤 공민적, 도덕적의무감도 없다. 그는 자기의 감정까지도 장사치들의 원리에 맞게 개조한다. 하여 그의 실용주의적사고방식은 극단에 이른다.

그러나 레트 역시 인간적불행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작품은 이 모든것을 어디까지나 신흥부르죠아지의 립장에서 객관적으로 묘사하였다. 이처럼 작품은 미국의 근로인민대중, 특히 흑인노예들의 비참한 처지와 그들의 지향을 반영하지 못하고 등장인물들을 삼각관계로 얽어놓는 등 부르죠아련애소설의 영향을 강하게 나타내고있다.

장편소설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는 많은 제한성을 가지고있으나 남북전쟁당시의 력사를 생동하게 재현하고 력사소설창작에서 재치있는 기교를 보여준것으로 하여 20세기 전반기 미국 력사소설의 대표작의 하나로 널리 알려져있다.

미첼과 함께 중국을 무대로 한 3부작장편소설 《대지의 집》(제1부 《대지》, 1931; 제2부 《아들들》, 1932; 제3부 《분렬된 집》, 1935) 을 쓴 펄 바크(1892—1973), 버지니어의 한 벽촌에서 자기의 생활을 강의한 의지로 개척해나가는 가난한 녀성을 형상한 장편소설 《불모의 땅》(1925)을 내놓은 엘렌 글라스고우(1874—1945) 등이 이 시기 녀류작가들가운데서 널리 알려져있다.

20세기 미국비판적사실주의문학발전의 제3단계는 제2차 세계대전이후시기이다.

이 시기 사상문화분야에서의 미제의 발악적책동이 극도에 이르고 부르죠아반동문학이 득세하는 가운데 미국의 비판적사실주의문학이 약화되였다.

이 시기 20세기 전반기에 적극적으로 활동하던 적지 않은 비판적사실주의작가들이 우경화되여 진보적문학진영에서 떨어져나갔다. 스타인베크, 씽클래어, 콜드웰 등을 그 례로 들수 있다.

스타인베크는 전후에도 《길을 헤매는 뻐스》(1947), 《진주》(1947), 《에덴의 동쪽》(1952) 등의 장편소설들을 내놓았는데 이 작품들은 모두 사회적문제에서 물러나 추상적인 부르죠아도덕을 설교하거나 흥미본위적인 내용을 추구한것이였다. 전쟁전에 좌익계 작가, 사회활동가로 유명했던 씽클래어는 전후 개량주의에 빠져 부르죠아자유주의작가로 되였으며 콜드웰도 전후 1950년대에 이르러 이전의 사실주의적립장에서 물러나 사회적문제와는 거리가 먼 심리적인 련애묘사에 치우쳤다.

이 시기 또한 신진작가들이 등장하였으나 이렇다할 성과작을 내놓지 못하였다.

이 시기 1968년까지 활동한 헤밍웨이와 이름난 비판적사실주의극작가 밀러를 내놓고는 손에 꼽을만 한 작가가 없었다.

아서 밀러(1915—?)는 뉴욕의 유태계상인가정에서 태여났다. 그는 아버지의 파산으로 중학교졸업후 식당 잡부, 급사, 운전사 등으로 일하였다.

그는 1940년대 후반기에 직업적극작가로 되여 반전주제의 심리극 《모두가 우리 아들》(1947), 미국에서 류행된 평범한 사람들의 성공의 내막을 발가낸 사회극 《한 외교원의 죽음》(1949)을 련이어 발표하여 내외에 널리 알려지게 되였다.

17세기의 마녀사냥에서 소재를 잡아 당대 미국에서의 빨갱이사냥을 풍자한 희곡 《도가니》(1953)도 호평을 받았다.

2차대전후 미국비판적사실주의문학에서 주목되는것은 반전평화주제의 작품들이 많이 창작된것이다.

이 주제의 작품들은 대전직후부터 1960년대 전반기까지 왕성하게 창작되였다. 이 주제의 작품들은 제국주의전쟁의 반동적이며 반인민적성격, 특히 미제국주의의 침략전쟁책동을 인도주의적립장에서 비판하였다.

이 주제의 작품창작에 적극 나선것은 제2차 세계대전에 참전하여 전쟁을 직접 체험한 신진작가들이였다. 그 대표적인 작가가 허씨와 메일러이다.

죤 허씨(1914—?)는 2차대전의 체험에 기초하여 제국주의전쟁의 야수성을 폭로한 《아다노를 위해 울리는 종》(1944), 원자탄피해자들과의 담화형식으로 미제의 야수적만행을 고발한 《히로시마》(1946), 뽈스까에서 감행한 파쑈도당의 죄행을 고발한 《벽》(1950) 등의 작품들을 발표하였다.

노먼 메일러(1923—) 역시 전쟁참가자로서 군국주의와 미군내 파쑈화의 요소들을 폭로하고 제국주의전쟁의 비참성을 보여준 《벌거벗

은자들과 죽은자들》(1948), 미제의 윁남침략전쟁을 비판한 《우리는 왜 윁남에 왔는가》(1967) 등의 장편소설들을 내놓았다.

이밖에도 죤 번즈(1916—1953)의 《회랑》(1947), 어윈 쇼(1913—1984)의 《젊은 사자들》(1948), 허먼 워크(1915—?)의 《케인호의 반란》(1951), 제임즈 죤즈(1921—1977)의 《여기로부터 영원에로》 등 장편소설들이 알려져있다.

미국비판적사실주의문학에서는 또한 《희생자》(1947), 《오기 마치의 모험》(1953), 《허쪼그》(1964), 《쌤러씨의 행성》(1970) 등 현실주제의 장편소설들을 내놓아 현대 미국사회의 악몽같은 현실을 비판한 1976년 노벨문학상 수상자 쏠 벨로(1915—?), 《달려라 토끼》(1960), 《돌아온 토끼》(1971) 등에서 미국중산층의 혼란을 풍자한 압다이크(1932—) 등이 알려져있다.

제2차 세계대전후 미국비판적사실주의문학에서는 흑인문학이 적극적으로 창작되였다.

전쟁전부터 백인과 똑같은 인간으로서의 자기, 백인과 똑같은 공민으로서의 자기를 찾는다는 흑인의 평등사상을 들고나온 흑인작가들은 전후시기에 자기들의 활동을 더욱 적극화하였다.

대전전시기 흑인문학의 대표자는 리쳐드 라이트(1908—1960)이다. 그는 소작농가정에서 태여나 15살때 집을 뛰쳐나와 로동생활을 하였으며 1934년에 시카고에서 죤 리드구락부에 들어가 사회주의운동에 참가하고 1937년부터 뉴욕에서 좌익문예잡지 《매씨즈》에 정기적으로 투고하였다.

그는 1930년대에 소설창작을 시작하여 첫 단편소설집 《톰아저씨의 아이들》(1938) 창작으로 문단의 인정을 받았으며 장편소설 《미국의 아들》(1940)창작에 이르러 국제적으로 이름난 흑인작가로 되였다.

작품에서는 시카고의 빈민굴에서 자라난 흑인청년이 살인죄를 범하고 파멸하는것을 통하여 불공정한 미국사회에 대한 강한 항의를 제기하였다.

작가는 그밖에도 자서전적작품인 《흑인소년》(1945), 자본주의사회에서의 인간의 고독한 처지를 보여준 《제3자》(1953), 미국 남부도시에서 사는 흑인의 운명을 그린 《오랜 꿈》(1958) 등의 장중편소설들을 내놓았다.

전후 흑인문학의 대표자의 한사람은 제임즈 볼드윈(1924—1987)이다. 그는 뉴욕의 흑인거주지역에서 태여나 1944년부터 흑인작가 라이트의 지도밑에 문학창작을 시작하였으며 첫 장편소설 《령마루에 올라서 웨쳐라!》(1953)를 발표하고 인정을 받았다.

볼드윈의 창작적특징은 백인사회의 비인간성, 비도덕성을 비판하고 항의하는데 그친 라이트의 제한성을 극복하고 백인에 대한 흑인의 정신도덕적우월성을 강조하고 흑인들의 인권을 적극 옹호해나선것이다.

그의 주요작품으로 《낯선 나라》(1962), 《기차는 벌써 떠났는가》(1968), 《만약 빌 스트리트가 말할수 있었다면》(1974) 등의 장편소설들과 《흑인의 원한》(1964) 등의 희곡이 있다.

전후 미국흑인문학에서 대표작의 하나는 알렉스 헤일리(1921—)의 장편력사소설 《뿌리》(1976)이다.

작가는 이 소설을 1962년부터 쓰기 시작하여 12년동안이나 걸려 완성하였다.

소설은 주인공인 쿤타와 그 후손들의 운명선을 따라가면서 아프리카 감비아에서의 흑인들의 생활과 백인들에게 랍치되여 미국으로 끌려가는 흑인들의 비참한 처지, 농장에서의 흑인들의 노예살이, 남북전쟁이후의 흑인들의 생활을 섬세한 사실주의적필치로 그리고있다.

여기서 작가는 1세인 쿤타의 운명을 그리는데 힘을 넣었다. 아프리카땅에서의 행복했던 시절과 짐승처럼 취급당한 미국에서의 노예생활이 뚜렷한 대비속에서 묘사되고있다. 또한 주인공들이 자기들의 력사를 점차 망각하는 과정을 사실주의적으로 선명하게 그리고있다. 이것은 쿤타의 후손들에게서 더욱 심하게 나타나고있다.

장편소설 《뿌리》는 미국흑인문학의 성과작으로 널리 알려져있다.

미국흑인문학에서는 1970—1980년대 문단에 진출하여 《파란 눈》(1970), 《쑬라》(1973), 《쏠로몬의 노래》(1977) 등의 장편소설들을 쓴 토니 모리슨(1931—)과 《컬러 퍼플》(1982)을 쓴 앨리스 워커(1944—) 두 흑인녀류작가의 활동이 주목을 끌었다.

20세기 미국비판적사실주의문학을 대표하는 작가는 런던, 드라이저, 헤밍웨이이다.

재크 런던과 장편소설 《무쇠발굽》

런던은 20세기 초엽에 활동한 로동자출신의 재능있는 작가이며 미국의 이름난 비판적사실주의작가의 한사람이다.

재크 런던(본명: 죤 그리피스; 1876—1916)은 쌘프런씨스코의 가난한 가정에서 태여났다. 집안살림이 곤난하여 그는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어릴 때부터 신문배달부, 통졸임공장 로동자, 부두의 짐군, 선원, 발전소석탄운반공, 금광로동자 등 별의별 일을 다하였다. 그는 한때 워싱톤에 올라가 고학하면서 대학에 입학하였으나 학비를 댈수 없어 중퇴하였다.

그는 인생의 고난을 맛볼대로 맛보고 자신의 튼튼한 육체를 밑천으로 갖가지 직업을 바꾸면서 이악하게 살아나가는 과정에 경제공황의 엄혹한 실태도 목격하고 자본주의현실의 모순도 깊이 깨닫게 되였다. 그는 부익부, 빈익빈의 미국현실을 체험하면서 미국이 결코 리상적인 나라가 아니라는것을 깨닫고 사회주의사상에 공감해나섰다.

그러나 그는 속류유물론과 사회다윈주의의 견지에서 맑스주의를 리해하였으며 니체의 《초인간》사상의 영향밑에 개별적인 인물의 역할을 과대평가하고 자본주의사회개조의 근본방도를 개인테로에서 찾게 되였다.

그의 이러한 세계관적진보성과 제한성은 창작에 그대로 반영되였다.

그의 창작기간은 길지 않다. 그는 1900년부터 작품을 발표하기 시작하여 1916년 사망할 때까지 불과 16년동안 창작하였다. 그러나 이 길지 않은 창작기간에 그는 창작적개성이 뚜렷한 9편의 장편소설들과 152편의 단편소설들, 3편의 희곡들과 많은 실화 및 정론들을 남김으로써 미국에서 손꼽히는 작가로 되였다.

재크 런던의 창작활동을 세 시기로 나누어 고찰할수 있다.

그 첫시기는 1900년부터 1904년에 이르는 시기이다. 이 시기에 작가는 《북방소설》로 불리우는 일련의 소설들을 련속 내놓아 일약 류행작가로 알려졌다.

첫 단편소설집 《승냥이의 아들》(1900)로부터 시작하여 《야생의 웨침》(1903), 《바다의 승냥이》(1904), 《흰 이발》(1906) 등의 소설들이 여기에 속한다.

북방소설의 특징은 자본주의《문명》에 자연을 대립시킨것이다. 북방소설의 주인공들은 부르죠아사회의 숨막히는 현실속에서 뛰쳐나와 북방의 험준한 자연과의 생명을 내건 위험한 투쟁속에서 생의 환희를 느끼는 사람들이나 의인화된 동물들이다. 작가는 치부의 욕망에 불타는 략탈자들에 사심없는 고결한 인격자들을 대치시키고 탐욕과 리기주의에 사랑과 우의를 마주세웠다.

《야생의 웨침》에서는 부크라는 개가 야생의 부름에 끌려 문명사회를 버리고 승냥이들속에 들어가 그 두령이 되여 숱한 승냥이들을 이끄는 이야기를 담고있다. 여기서 작가는 인간도 부르죠아사회에서는 인간성을 상실하고 동물적인 본성으로 돌아간다는것을 비유적으로 보여줌으로써 자본주의사회의 약육강식의 생존방식을 폭로하였다.

단편소설 《생에 대한 사랑》은 북방 금광로동자의 생을 위한 투쟁을 그린 작품이다.

그러나 작가는 북방소설들에서 아직 자본주의제도를 부정하는데까지 이르지 못하였다. 작가는 인간사회에서의 생존경쟁을 그리면서 강한 개성과 현명한 백인을 내세우고 그들속에서 선량성을 계발시키려고 하였다. 이 작품들에서는 아직 랑만주의적경향이 우세하였다.

북방소설에서 나타난 결함들은 그후 점차 극복되여갔다. 그의 창작에서는 점차 무산계급의 생활을 반영하려는 지향과 사실주의적경향이 강화되였다.

1902년 영국으로 려행한 런던은 수도의 빈민거리에 체류하면서 최하층사람들의 생활을 자세히 관찰하고 가난과 굶주림속에서 허덕이는 사람들에 대한 동정과 그러한 불행을 산생시킨 사회제도에 대한 분노를 담은 수기집 《최하층사람들》(1903)을 발표하였다.

이 작품에 이르러 작가의 주목은 먼 북방으로부터 자본주의사회현실로 옮겨지고 묘사대상은 자연과 인간일반이 아니라 로동자, 농민 등 평범한 근로자들의 생활에 집중되였으며 창작경향은 랑만주의로부터 사실주의로 발전하였다. 또한 현존제도에 대한 항거정신이 보다 뚜렷해졌다.

런던의 창작발전의 둘째 단계는 1905—

1909년이다.

이 시기 그는 미국에서의 앙양된 로동운동에 적극 참가하고 맑스주의에 공명하였으나 니체의 《초인간》사상에도 끌리였다. 그는 로일전쟁시기 신문특파원으로 만주에도 가고 보도기자로 메히꼬도 돌아보면서 창작에서 새로운 성과를 거두었다. 이 시기 주요작품은 평론집 《계급투쟁》(1905), 장편소설 《무쇠발굽》(1908)과 《마틴 이든》(1909)이다.

《계급투쟁》에서 작가는 미국의 문명과 번영을 떠드는 부르죠아선전의 기만성을 예리하게 폭로하고 미국인민이 당하고있는 기아와 빈궁의 근원은 미국독점자본에 있다는것을 까밝혔다. 그러면서 부르죠아지들이 스스로 정권을 양보하지 않기때문에 전세계의 로동계급은 단결하여 투쟁을 벌려야 한다고 호소하였다. 그는 평론집의 마감글에서 《혁명이 도래하였다. 그것을 어디 저지시켜보라!》고 웨쳤다. 그러나 작가는 사회주의에 대한 정확한 견해를 가지지 못하고 여기서도 니체의 《초인간》사상을 표현하였다.

장편소설 《마틴 이든》은 선원출신의 재능있는 청년이 작가가 될것을 열망하고 고생끝에 작가로서 성공하지만 앞날을 비관하고 자살하는 이야기를 담고있다. 이 소설의 주인공의 모순은 곧 작가자신의 모순을 반영한것이다.

런던창작의 제3기는 1910—1916년의 조락기이다. 이 시기 작가는 사상적으로 후퇴하고 심각한 회의와 동요에 빠졌으며 사회적문제와 리탈된 흥미본위적인 작품을 쓰는데 치중하였다.

장편소설 《달밝은 계곡》(1913), 《큰집의 작은 녀주인》(1916), 《세사람의 심정》 등을 그 례로 들수 있다.

말년에 런던의 고민은 더욱 커졌다. 그는 명성과 재부를 얻고 캘리포니어주의 큰 저택에서 호화로운 생활을 하였으나 자기가 가지고있는 명예욕, 치부욕과 자기의 주의주장사이의 모순으로 하여 고민하였으며 앞날에 대한 출로를 찾지 못하고 모대겼다. 하여 그는 타락한 생활을 하다가 《마틴 이든》의 주인공처럼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잭크 런던의 생애는 아무리 재간있는 진보적작가라 하더라도 개인주의적세계관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자기의 진보적립장을 끝까지 고수하지 못하며 자신도 망치고만다는 교훈을 주고있다.

런던의 대표작인 장편소설 《무쇠발굽》은 20세기초의 미국현실을 배경으로 독점자본의 략탈성과 야수성을 폭로하고 독점자본을 반대하는 로동계급의 투쟁을 보여준 특색있는 작품이다.

소설은 에이비스 에버하드가 자기 남편 어니스트 에버하드의 활동과 투쟁에 대하여 쓴 회상기가 몇백년이 지나 사회주의가 승리한 후 학자들에 의하여 발견되여 출판되는 형식으로 되여있다.

회상자인 에이비스는 버클리시에 있는 량심적인 물리학자의 딸이였다.

어느날 물리학자의 집으로 사회당의 중요한 간부이며 로동운동지도자의 한사람인 어니스트 에버하드가 초대되여온다. 이 집에서는 저명한 사회계인사들이 모여 사회와 인생에 대한 론쟁을 벌리군 하였던것이다. 이 론쟁에서 어니스트는 열정적이고 정당한 토론으로 대번에 에이비스의 마음을 사로잡는다.

어니스트는 독점부르죠아지의 대변인들인 반길버트대좌, 함머필드박사를 비롯한 부르죠아정계인사들과의 론쟁에서 그들이야말로 미국로동계급의 존엄과 자주권을 유린하는 인민의 원쑤들이라는것을 까밝히고 로동계급의 혁명투쟁의 정당성과 그 승리의 필연성을 론증하였다.

물리학자의 집에 자주 드나들면서 그 집식구들과 친숙해진 어니스트는 그들에게 계급투쟁에 대하여, 독점자본가들의 착취행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준다.

이 과정에 에이비스는 어니스트의 사상에 공감을 표시하게 되고 그들은 사상적공통성에 기초하여 사랑을 맺고 가정을 이룬다.

자본가계급은 로동계급의 진출을 막기 위하여 로동운동지도자들을 매수하려고 책동하면서 어니스트에게도 정부의 높은 자리를 주겠다고 회유한다. 그러나 어니스트는 그자들의 회유기만술책에 넘어가지 않는다. 독점자본가들은 저들의 기만술책이 파탄되자 부르죠아민주주의의 가면마저 집어던지고 공개적인 파쑈체제에로 이행한다. 그들은 무쇠발굽으로 로동운동을 말살하며 저들의 앞잡이들로 구성된 파쑈정권을 조작하여 전국에 야만적인 독재통치를 실시한다.

어니스트의 장인인 물리학자는 위험분자라는 감투를 쓰고 대학에서 철직되며 가족과 함께 추방된다. 에버하드부부도 체포되여 감옥살이를 하게 된다. 에이비스는 단서가 잡히지 않아 6개월만에 석방되고 어니스트는 감옥에서 탈출한다.

그는 안해와 함께 캘리포니어주의 쏘노마산속으로 들어가 비밀근거지를 꾸리고 테로활동을 벌린다. 어니스트를 비롯한 사회주의자들은 자기들의 행동계획에 따라 폭동을 준비한다.

폭동의 기미를 알아차린 독점자본가들은 폭동이 채 성숙되기 전에 앞잡이들을 시켜 먼저 시카고에서 폭동을 일으키도록 선동하고는 수많은 군대를 동원하여 폭동군중에게 총포탄을 쏘아대면서 야수적인 일대 살륙전을 벌린다. 그리하여 1918년 제1차 폭동으로 미국력사에 기록된 시카고폭동은 피의 교훈을 남기고 진압당하고 만다.

시카고폭동이 진압당한 후에도 많은 고장에서 폭동이 계속되고 류혈적인 참극이 빚어진다. 날이 갈수록 희생자들이 늘어난다. 이러한 속에서 테로행위로 나가는 사람, 주저앉는 사람, 투쟁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나타난다. 그러나 어니스트와 그의 동지들은 실망하지 않고 새로운 투쟁을 준비하기 위하여 헌신분투한다.

에이비스 에버하드의 회상기는 여기서 중단되고있다.

소설은 마지막에 작가의 주석을 통하여 어니스트가 새로운 투쟁을 준비하는 과정에 무쇠발굽의 하수인들에 의하여 희생되였으며 그는 비록 희생되였으나 그의 지도밑에 준비되여온 제2차 폭동은 성숙되였다는것을 암시하고있다.

장편소설 《무쇠발굽》은 재크 런던의 창작에서뿐아니라 미국문학사에서 혁신적인 작품으로 되였다.

소설의 혁신적의의는 무엇보다도 로동계급의 투사를 긍정적주인공으로 내세운데 있다.

소설의 주인공 어니스트 에버하드는 근로대중의 리익을 위하여 투쟁하는 로동계급의 선각자이며 열혈투사이다. 대대로 로동하는 가정에서 태여나 자신도 공장로동자가 된 어니스트는 꾸준한 학습으로 사회주의사상을 체득한 다음 자기가 체득한 사상을 선전하며 사회주의리상을 실현하기 위해 헌신한다.

로동계급은 그를 자기들의 대표로 국회에 파견한다. 그는 국회에서 로동계급의 권리를 옹호하여 투쟁한다. 그는 로동계급과 무쇠발굽사이의 치렬한 싸움이 벌어졌을 때에도 로동계급의 지도자의 한사람으로 싸움의 앞장에 선다. 그의 투쟁은 감옥안에서도 중단되지 않는다.

이 소설의 주인공은 런던의 초기 북방소설의 개인주의적이고 랑만주의적인 주인공들과는 구별되는 새로운 형상이다. 그는 로동계급의 리익을 위하여 모든 힘을 다하는 투사이다. 어니스트의 형상은 그때까지 미국문학이 창조한 긍정적주인공들의 형상계렬에서 특출한 자리를 차지한다. 선행한 미국문학에서도 로동운동이 적지 않게 묘사되였지만 그 운동의 지도자, 특히 사회주의리상을 위하여 싸우는 투사의 형상은 창조되지 못하였다.

소설의 혁신적의의는 다음으로 미국독점자본의 략탈성과 야수성을 폭로하고 독점자본을 반대하는 로동계급의 투쟁의 정당성과 사회주의혁명승리의 필연성, 미국사회의 운명문제를 제기한것이다.

소설에서 미국독점자본의 략탈성과 야수성은 무쇠발굽의 야만적인 만행과 그 앞잡이 반 길버트의 형상, 잭슨사건 등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폭로되고있다.

작가는 어니스트의 열변과 실천투쟁, 물리학자와 그의 딸의 사상개변과정, 에이비스의 회상기가 미국에서 사회주의가 승리한 후에 발견되였다는 문제설정 등을 통하여 제국주의가 멸망하고 사회주의가 승리하는것은 필연적이며 로동계급은 오직 결정적인 폭력투쟁에 의해서만 최후의 승리를 이룩할수 있다는 혁명투쟁의 진리를 보여주었다.

소설은 1인칭수기형식의 구성을 취하면서 설화자인 나의 시점을 통하여 주로 주인공의 생활과 투쟁을 보여주는데 모를 박고 그의 성격에 작품의 기본문제점을 집중시키고있다. 작품은 또한 구체적인 력사, 경제자료들을 안받침하여 미국사회의 모순과 부패성을 분석적으로 폭로한 특성을 보이고있다.

작품에는 심각한 제한성이 나타나있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혁명투쟁에서 로동계급의 당의 령도적역할을 밝히지 못하고 주인공을 잘 형상하지 못한것이다.

과학적사회주의사상을 옳바로 체득하지 못하고 혁명투쟁의 수단을 테로로 여기면서 개별적인 천재들에 지나친 기대를 건 작가는 혁명투쟁에서 로동계급의 당의 령도적역할을 밝힐수 없었다. 작가는 주인공을 인민대중과 고립된 무정부주의자, 테로분자처럼 그리고있으며 혁명이 어니스트와 같은 그 어떤 특정한 개인에 의하여 승리할

수 있는듯 한 환상을 조성하고있다.

작가는 개인의 역할, 개인테로의 중요성을 강요하던 나머지 인민대중을 압박자의 피를 즐기는 지옥에서 나온 그 어떤 괴물처럼 외곡묘사하고있다.

작품은 론리적설명이 많고 사건을 라렬함으로써 예술적감흥이 적은 제한성도 나타내고있다.

이러한 제한성은 당시 미국로동운동이 혁명적당의 지도를 받지 못하고 기회주의와 개량주의의 영향밑에 있었던 실태와 작가자신의 세계관적 제한성과 관련된것이였다.

런던의 장편소설 《무쇠발굽》은 이러한 제한성을 가지고있으나 미국문학에서 처음으로 자본주의의 멸망과 사회주의승리의 필연성에 관한 문제를 제기하고 혁명투쟁에 한목숨 바치는 로동계급의 선진투사의 형상을 창조함으로써 미국프로레타리아소설의 선구자적인 작품으로 되였다. 작품은 그 이후 미국문학에서 긍정적주인공의 형상을 창조하고 혁명적주제를 개척하는데서 귀중한 창작경험으로 되였으며 미국인민들에게 미제국주의의 반동성을 인식시키고 그들을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에로 불러일으키는데 이바지하였다.

드라이저와 장편소설 《미국의 비극》

드라이저는 20세기 전반기 미국비판적사실주의문학의 대표자이며 부르죠아인도주의자로부터 사회주의지지자로 자라난 진보적작가이다.

시어더 드라이저(1871－1945)는 인디애너주의 소도시 텔라 호트에서 가난한 도이췰란드이주민의 아들로 태여났다. 아들 다섯, 딸 다섯 모두 10명이나 되는 자식들이 있는 그의 집안살림은 말이 아니였다. 하여 그의 일가는 살길을 찾아 뿔뿔이 흩어져 인디애너주의 여러곳을 떠돌아다녔다. 그런 속에서도 드라이저는 부모의 노력에 의하여 카톨릭교계 학교에 들어가 공부하게 되였으나 보통교육을 다 마치지 못하고 중퇴하고 말았다.

그는 16살때에 일자리를 얻기 위하여 혼자서 신흥공업도시로 소문난 시카고로 떠나갔다. 그는 처음 5년동안 료리점의 설겆이군, 창고지기, 빨래집의 배달부 등 닥치는대로 일하였다. 그후 그는 간신히 주립대학에 들어갔으나 학비를 댈수 없어 1년만에 대학공부를 그만두고말았다.

그러나 이것이 연고가 되여 그는 21살때 신문기자로 되여 시카고의 3류급신문사에서 일하게 되였다. 그때부터 그는 여러 신문사로 일자리를 옮기면서 기자생활을 하였다.

그는 자신의 생활체험과 기자활동과정을 통하여 자본주의미국의 대도시생활의 내막을 더욱 똑똑히 알게 되였다. 이것은 그후 그의 창작에서 큰 밑천으로 되였다.

드라이저가 작가로서 널리 알려지게 된것은 1900년에 발표한 첫 장편소설 《캐리누이》와 1911년에 내놓은 두번째 장편소설 《젠니 개어하트》와 관련되여있었다.

이 두 소설은 부익부, 빈익빈의 미국사회에서 평범한 하층녀성이 겪은 쓰라린 체험을 통하여 자본주의미국에서의 돈없고 권세없는 하층인간들의 비참한 처지와 미국사회의 사회적모순을 예리하게 비판한 작품이다.

이 작품들은 미국사회의 모순에 눈을 감고 그 《아름다운 면》을 과장하여 그려낸 작품들이 범람하던 당시의 미국문단에 매우 참신한 바람을 불어넣었다.

드라이저는 그후 더욱 왕성한 창작의욕을 보여주었다. 첫 두 소설에서 가난한 하층녀성의 운명을 그린 작가는 이번에는 자본가를 주인공으로 한 큰 작품을 쓰는데 달라붙었다. 이렇게 해서 태여난것이 3부작장편소설 《욕망3부작》, 《금융자본가》(1912), 《거인》(1914), 《금욕주의자》(미완성)이다.

3부작에서 작가는 온갖 사기와 협잡으로 대자본가가 되는 주인공 프랭크 카우파우드의 형상을 통하여 미국자본가들의 더러운 생활리면을 발가내였다.

그후 작가는 장편소설 《천재》(1915)에서 미술가의 운명을 통하여 예술이 상품화되여 자본가계급에게 복무하는 부패한 미국사회를 비판하고 이런 사회에서는 참다운 예술창조란 있을수 없다는것을 보여주었다.

그는 또한 희곡집, 단편소설집, 수필집, 려행기, 자서전 등 8권의 작품집을 내놓았으며 10년만인 1925년에 대표작인 《미국의 비극》을 내놓았다. 소설은 영화로 옮겨져 커다란 파문을 일으켰으며 이 소설로 하여 드라이저는 국제적으로 널리 알려지게 되였다.

1920년대말－1930년대초에 들어서면서 그

의 세계관에서는 획기적인 전환이 일어났다.

이 시기 자본주의세계를 휩쓴 대경제공황은 그로 하여금 자본주의에 환멸을 느끼게 하고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지향하는데로 나아가게 하였다. 그는 《세계의 여러가지 곤난 특히 미국의 난관에 대한 나의 해결책은 공산주의이다.》라고 언명하고 로동운동과 공산주의운동에 동조하기 시작하였다.

1927년에 초청을 받고 쏘련을 방문한 드라이저는 귀국후 《드라이저 로씨야를 보다》(1928), 《비극적아메리카》(1930) 등의 사회평론들에서 미제국주의를 폭로비판하고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지지해나섰다.

그는 단편 및 중편소설집 《녀인화랑》(1929)에 수록된 중편소설 《어니타》에서 녀성혁명가를 형상하려고 시도하였다.

그는 1930년대에 미국공산당을 지지하는 사회정치활동을 벌렸으며 파시즘을 반대하고 평화를 옹호하기 위한 국제적인 운동에 적극 참가하였다. 그는 미국의 진보적작가들을 대표하여 세계평화옹호대회에도 참가하였으며 에스빠냐공민전쟁시기에는 인민전선정부를 지원하기 위한 구제위원회를 조직하고 정력적으로 활동하였다.

그는 제2차 세계대전시기에 사회평론 《미국은 구원될수 있다》(1941)를 발표하여 사회주의에 대한 지지와 공감을 표명하였으며 장편소설 《보루》(사후 1948 출판)를 출판에 넘기고 1910년대에 시작했던 《욕망3부작》의 제3부 《금욕주의자》(미완성, 사후 1947 출판)에 대한 창작을 계속하였다.

그는 1945년 8월에 일찌기 1930년대초부터 제기했던 미국공산당입당청원이 수락되여 공산당원이 되였다. 그는 입당에 즈음하여 미국공산당 전국위원회 위원장에게 보낸 편지에서 《로동자들이 자기자신의 운명을 결정하는 사람들이며 자기의 미래를 창조하는 사람들이라는것을 믿어왔다.》고 썼다.

그는 그해말 심장마비로 74살을 일기로 사망하였다. 그가 남긴 방대한 창작유산은 미국에서의 진보적인 사실주의문학의 발전에 크게 이바지하였다.

드라이저의 대표작인 장편소설 《미국의 비극》은 작가가 신문에 실린 한 살인사건기사에서 소재를 잡고 창작한 작품이다.

작품에서는 20세기 초엽 미국의 현실을 배경으로 평범한 미국청년의 짧은 생애에 대한 묘사를 통하여 미국식생활양식의 기만성을 폭로하고 제국주의미국의 부패성을 신랄하게 비판하고있다.

가난한 전도사의 집안에서 자라난 주인공 클라이드 그리피스는 16살때에 중학교를 중퇴하고 자립생활의 길에 들어선다. 그는 처음 지방도시 캔저스씨티에서 호텔심부름군으로 일하였는데 이때 어린 나이에 벌써 술과 담배, 녀자를 알게 된다. 그는 눈내리는 겨울 어느날 동료들과 같이 승용차를 타고 교외로 놀러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그만 어린 처녀애를 깔아죽이는 사고를 저지른다. 그는 뒤일이 걱정되여 도시에서 도망쳐버린다.

그후 그는 3년동안 여기저기를 떠돌아다닌다. 그는 시카고에서 호텔심부름군으로 있으면서 우연히 칼라(깃받이)공장주인 큰아버지를 만나 리카가스에 있는 그의 공장에 고용되게 된다. 큰아버지덕분에 공장간부로 등용된 그는 얼마후 녀공 로버타와 사랑하는 사이가 된다.

이무렵 그에게 상류사교계의 문이 열려 부자집 딸인 쏜드라와 친하게 된다. 이것은 그로 하여금 재부와 미인과 특권계급의 지위에 대한 야심을 가지게 한다. 그런데 클라이드의 아이를 가진 로버타가 정식 결혼을 하든지 아니면 임신중절수술이라도 해달라고 요구해나선다.(당시 미국에서는 법적으로 임신중절이 금지되여있었다.)

클라이드는 자기의 꿈을 실현하는데 장애물이 된 로버타를 익사시킬 나쁜 생각을 품고 그와 함께 인적기 드문 호수로 려행한다. 그는 호수에서 처녀와 함께 뽀트를 탔으나 동요하고 선뜻 죄행을 감행하지 못한다. 그러다 우연히 뽀트가 뒤집혀져 둘 다 물에 빠진다. 헤염을 잘 치는 그는 처녀를 구원할수도 있었으나 그냥 내버려두고 혼자 헤염쳐 기슭에 오른다.

익사한 로버타의 시체가 발견되고 범인에 대한 수사가 포치되며 곧 클라이드가 체포된다. 클라이드에 대한 예심과 재판은 그 군의 군수선거를 둘러싼 민주당과 공화당사이의 권력다툼에 리용되며 클라이드를 희생시켜 저들에게 오점이 생기지 않게 하려는 그의 큰아버지와 쏜드라 아버지의 흥정판으로 된다.

결국 클라이드는 공정한 재판을 받지 못하고

22살의 젊은 나이에 전기의자에 앉아 사형당하고만다.

소설의 주제사상적내용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있는것은 무엇보다도 미국식생활양식의 부패성과 반동성에 대한 폭로비판이다.

미국식생활양식은 극도로 부패하고 퇴페적인 미제국주의자들의 생활양식과 생활관습으로서 썩어빠진 부르죠아생활양식의 절정이며 표본이다. 미국식생활양식의 본질적내용을 이루는것은 극단한 개인리기주의와 황금만능주의이며 모험적인 야수성과 인간증오, 살인, 강탈과 협잡, 부화방탕한 개인향락과 색정주의이다. 미제국주의자들은 미국내에서는 물론 침략의 마수를 뻗치고있는 모든 곳에서 미국식생활양식을 퍼뜨림으로써 사람들을 부화방탕하게 만들며 인민들의 자주의식을 마비시켜 제놈들의 온순한 노예로 만들기 위하여 갖은 수단과 방법을 다하고있다.

소설은 주인공 클라이드 그리피스의 형상을 통하여 바로 미국식생활양식이 얼마나 퇴페적이며 말세기적인것인가 하는것을 깊이있게 밝혀내고있다.

소설의 주인공 클라이드 그리피스는 미국에서 흔히 볼수 있는 평범한 청년이다. 그는 가난한 전도사의 가정에서 태여나 변변히 입지도 먹지도 못하면서 가난하게 자랐으며 초기에는 소박성과 순진성도 가지고있던 청년이였다.

그러나 놀고먹는 착취계급은 점점 더 호화롭게 살고 부유해지지만 피땀을 흘리며 일하는 근로대중은 날이 갈수록 가난에 쪼들리게 되는 사회, 허위와 기만, 사기와 협잡이 판을 치며 돈이 모든것을 지배하는 사회인 미국의 썩고 병든 사회적환경의 영향밑에 그는 날이 갈수록 미국식생활양식에 깊이 물들어 자기 개인의 안일과 향락만을 추구하는 타락한 개인리기주의자로 전락되여갔다.

그는 캔저스씨티에서 호텔심부름군으로 있을때 호텔에 드나드는 부자들의 호화로운 생활을 목격하고 부러움을 금치 못하였다. 리카가스에 온 뒤 그가 자기의 가난한 처지와는 대조적인 큰아버지일가의 호화로운 생활을 보게 되고 특히는 쏜드라를 비롯한 돈많은 부르죠아청년들의 사치하고 방탕한 생활을 알게 된것은 그에게 더 강한 자극을 주었다.

이 과정에 《아직 한푼도 벌지 못했던 때로부터 더 훌륭한 칼라, 더 멋진 구두, 더 화려한 양복을 가지고싶다.》고 생각한 클라이드는 날이 갈수록 더 강한 허영심과 리기적이고 야심적이며 탐욕적인 성질을 가지게 되고 부자들의 생활을 자기의 목표로 삼게 되였으며 그 실현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파렴치한으로 되였다.

그리하여 클라이드는 한때의 향락을 위하여 자기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아름답고 순진한 녀공 로버타를 롱락했고 그가 자기의 꿈을 실현하는데 장애물로 되자 그의 생명을 해치는것도 서슴지 않게 되였던것이다.

이처럼 소설의 주인공 클라이드 그리피스는 극도로 부패하고 퇴페적인 미국사회가 낳은 전형적인 인물이며 미국사회를 지배하는 말세기적인 미국식생활양식의 필연적산물이다. 그의 형상에는 가장 탐욕스럽고 포악한 미제국주의자들의 생활양식인 미국식생활양식에 의하여 타락과 범죄의 길로 굴러떨어지는 수많은 미국청년들의 운명, 미국의 비극이 일반화되여있다.

소설의 주제사상적내용에서 또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있는것은 미국식 《민주주의》의 기만성에 대한 폭로비판이다.

작품에서 미국식 《민주주의》의 기만성에 대한 폭로비판은 주인공에 대한 재판과정을 통하여 전개되고있다. 소설의 제3부는 전적으로 클라이드에 대한 재판과정의 묘사에 바쳐지고있으며 이 부분은 소설 전체 분량의 3분의 2를 차지하고있다.

작가는 소설 제3부에서 재판전 클라이드에 대한 검사의 예심과정과 이 사건을 둘러싼 검사측과 변호사측의 움직임, 사건과 관련된 특권계급의 동태, 재판과정에서의 검사의 론고와 증인들의 증언, 변호사의 변론과 피고의 진술, 배심원들의 표결과 재판장의 판결선고 등에 대하여 매우 구체적으로 생동하게 그려내고있다.

소설은 이를 통하여 재판소를 비롯한 미국의 권력기구란 극소수 특권계급의 리용물이며 그들의 지시를 집행하는 도구에 지나지 않는다는것을 밝혀내고있다.

작품에서는 또한 부주제로서 미국통치배들이 인민대중을 몽매화하여 손쉽게 억압착취하기 위한 도구로 리용하고있는 종교적미신에 대한 비판도 제기되고있다.

이 문제는 헐벗고 굶주리면서도 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맹목적인 신앙에 사로잡혀 거리를 전도하러 다니는 클라이드의 부모, 특히 어머니의 형상과 사형수감방에 이송된 클라이드에게 신앙의 힘으로 마음의 안정을 주려고 애쓰는 젊은 목사 맥밀란의 형상 그리고 클라이드자신의 심리와 체험을 통하여 전개되고있다.

장편소설 《미국의 비극》은 드라이저의 작품들가운데서 그 사상성과 함께 형상성도 비교적 높은 작품이다.

작가는 무엇보다도 당시 미국의 현실생활을 눈앞에 보듯이 생동하고 다양하게 그려내고있다.

소설에서는 주인공의 움직임을 따라 캔저스씨티, 시카고, 리카가스, 카타라키군 등 미국의 대도시와 소도시, 농촌생활이 펼쳐지며 호텔심부름군들의 생활, 보통청년들의 생활, 공장로동자들의 생활, 특권계층의 생활, 사법검찰기관사업, 재판과 형무소생활 등 당시 미국의 현실이 다양하게 반영되고있다. 여기서 작가는 이러저러한 생활을 늘어놓은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파고들어 사회의 본질이 드러나도록 하였다.

작가는 특히 생활과정에서 드러나는 인물들의 사상감정과 심리세계를 섬세하게 그려내는데 큰 힘을 넣었다.

소설에는 여러 인물들이 등장하지만 그중에서도 클라이드와 로버타의 내면심리세계가 깊이있게 그려져있다.

소설에는 인물들도 개성적이고 생동하게 형상되여있다.

리기적이고 야심적이며 탐욕적이면서도 의지가 약하고 겁이 많으며 물과 같이 안정성이 없는 클라이드, 농민의 딸로서 야생적인데가 있으면서도 령리하고 사랑스러우며 상당히 의지가 강한 로버타, 타산적이고 허영심이 강하며 모험을 즐기는 특권계층처녀 쏜드라, 맹목적이고 오유투성이이며 성공과는 인연이 없으면서도 적어도 이 세상을 살아나가기 위해 소용될 힘과 열의를 가지고있는 클라이드의 어머니 등 소설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모두가 그들이 속한 계급과 계층의 특징을 잘 반영한 개성적인 성격들이다.

작가는 또한 작품의 주제사상을 강조하며 인물들의 성격적특징을 부각시키기 위해 분석적인 세부묘사와 대조의 수법, 첫 장면과 마감장면을 되풀이하는 구성형식 등 다양한 형식과 수법을 쓰고있다.

작품의 양상은 언제나 근심, 걱정과 불안에 싸여사는 미국자본주의사회의 본색에 맞게 어둡고 불안한 정서적색갈로 일관되고있다.

다른 한편 이 소설 역시 비판적사실주의문학일반이 가지고있는 본질적제한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있다.

그것은 이 작품에서 작가가 미국자본주의사회가 썩고 병들었다는것을 보여주고 그것을 부정하는 립장에 서면서도 그러한 사회적불행의 근원이 사회제도자체의 모순에 있다는것과 투쟁에 의해서만 그것을 없앨수 있다는 혁명적인 사상을 보여주지 못한것이다. 이로부터 작품에는 비관주의적이며 염세주의적인 기분이 적지 않게 나타나있다.

작품에는 또한 일부 장들에서 주인공의 심리를 지나치게 추구하고 심리분석에 치우침으로써 부분적으로 심리주의적인 요소도 나타내고있으며 제3부에서 클라이드에 대한 재판과정의 세부를 지루하게 묘사한것과 같은 구성상 결함도 가지고 있다.

드라이저의 장편소설 《미국의 비극》은 이러한 제한성을 가지고있으나 미국식생활양식의 해독적인 후과와 미국식민주주의의 허위성을 예리하게 폭로비판하고 사실주의소설창작의 높은 기교를 보여준것으로 하여 사람들을 미국에 대한 환상에서 깨여나게 하는데서와 미국에서 진보적인 사실주의문학을 발전시키는데 이바지하였다.

헤밍웨이와 소설 《누구를 위해 종이 울리는가》, 《로인과 바다》

헤밍웨이는 20세기 미국비판적사실주의문학의 대표자의 한사람이다.

어니스트 밀러 헤밍웨이(1899—1961)는 시카고부근 오크 파크의 의사가정에서 태여났다. 그는 사냥을 즐기는 아버지와 함께 미쉬건주 북부의 호수가 별장에서 여름철을 지내면서 낚시질과 사냥에 취미를 가지게 되였으며 고등학교시절에 수영, 축구, 권투선수로 활약하면서 체육을 통하여 강한 의지력을 키웠다. 졸업직전에 제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자 그는 자원하여 군대에 입대하려고 했으나 전투훈련때 왼쪽눈에 부상을 입은 후과로 하여 신체검사에 합격되지 못

하였다.

졸업후 그는 한동안 신문기자로 있다가 1918년에 적십자요원으로 이딸리아전선에 파견되였는데 중상을 입고 제대되였다. 일단 귀국하여 신문기자생활을 계속하던 그는 1921년에 특파기자가 되여 유럽으로 건너갔으며 1923년부터 5년동안 빠리에 체류하였다.

그의 문학창작활동이 시작된것은 이때부터이다. 그동안 문학수업을 꾸준히 해온 그는 1923년에 처녀작 《세편의 단편소설과 시 10편》을 출판한 후 단편소설집 《우리 시대》(1924), 《남자들만의 세계》(1927), 장편소설 《봄의 흐름》(1926), 《해는 다시 솟는다》(1926) 등을 련이어 발표하였다.

이 작품들 특히 《해는 다시 솟는다》에서는 부르죠아사회에 환멸을 느끼나 자기들이 나아갈 옳은 길을 찾지 못하고 모든것을 회의적으로 대하면서 개인주의적이며 허무주의적인 생활속에서 맴돌아치는 제1차 세계대전후 소부르죠아지식인청년들의 기분이 작가특유의 가식없는 문체로 표현되였다. 이때로부터 그는 이른바 잃어진 세대파의 대표적작가의 한사람으로 알려지게 되였다.

그는 초기작품들에서 인간의 행복과 인생의 참다운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문제를 제기하였으나 그에 대한 해답을 찾지 못하고 비관적인 인생관을 고취하였다. 그러면서도 심각한 사회적문제, 인생관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진보적으로 노력하였다. 이것은 그로 하여금 부르죠아퇴폐주의작가로 굴러떨어지지 않고 진보적작가로 나아가게 한 요인으로 되였다.

그는 미국에 귀국한 후 반전주제의 장편소설 《무기여 잘 있거라》(1929)를 내놓았다. 제1차 세계대전에 지원병으로 참전했다가 전쟁에 환멸을 느끼고 탈주병이 된 젊은 미국장교와 영국인간호원의 비극적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담은 이 소설은 출판후 4개월만에 약 8만부의 매상고를 올린 인기작품으로 되여 작가로서의 그의 지위를 확고하게 만들었다.

이 소설은 반전평화주제의 작품으로서 당대의 소부르죠아청년들을 휩쓴 고독과 허무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밝히려고 하였다.

작가는 소설의 주인공 헨리의 형상을 통하여 인간에게는 삶의 목적이 있어야 하며 그 목적은 협소한 개인의 세계를 벗어나야 한다는것을 보여주었다. 목적없는 인간의 생활은 두말할것도 없고 설사 목적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자기의 행복만을 추구하는 목적, 개인주의적인 목적일 때 인생은 불피코 비관과 염세에 빠질수밖에 없다는 것이 이 작품이 준 교훈이다.

이 작품이후 헤밍웨이는 개인주의에 대치되는 새로운 사회적리상을 탐구하기 시작하였다.

작가가 1930년대 전반기에 창작한 일련의 작품들, 에스빠냐투우사들의 이야기를 담은 《오후에 닥쳐온 죽음》(1932)과 밀수업자의 생활을 그린 《가진자와 못 가진자》(1937)와 같은 장편소설들, 단편소설집 《승리자에게는 아무것도 주지 말라》(1933), 《아프리카의 푸른 언덕》(1935)들에서는 아직 회의주의적이며 허무주의적인 경향이 강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에스빠냐에서 활동하던 시기(1937—1940) 그의 창작에서는 뚜렷한 전진이 이룩되였다.

에스빠냐공민전쟁이 일어나자 종군기자가 되여 에스빠냐로 건너간 헤밍웨이는 에스빠냐인민의 편에 서서 적극적인 보도활동을 벌렸으며 인민전선정부 반띾일군들의 활동을 그린 희곡 《제5렬》(1938)과 에스빠냐인민들의 무장투쟁을 반영한 장편소설 《누구를 위해 종이 울리는가》(1940)를 썼다.

《누구를 위해 종이 울리는가》는 출판후 몇달만에 200만부나 팔렸으며 세계 여러 나라에서 번역출판되였다.

작가는 이 작품에서 이전시기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문제를 제시하고 새로운 성격을 창조하였다. 이것은 작가가 그때까지 회의적으로 대하던 개인주의적인생관에 대한 부정으로 되였다.

헤밍웨이는 1941년이후 꾸바의 아바나교외에서 꾸바사람들과 친숙하게 지냈다.(꾸바혁명승리후 헤밍웨이는 피델 까스뜨로수상과도 낚시질친구가 되였다고 한다.)

그는 제2차 세계대전시기에도 종군기자로 노르망디상륙작전을 취재하였으며 이 체험에 기초하여 전후에 중편소설 《강을 건너 숲속으로》(1950)를 창작하였다.

1952년에 발표되고 1954년에 노벨문학상을 받은 중편소설 《로인과 바다》는 그의 총화작으로 되였다.

그는 1953년 아프리카에 가서 사냥비행을 하다가 비행기사고로 중상을 입고 꾸바와 미국에서 오래동안 치료를 받았으며 1961년 7월 사냥총 오발사고로 사망하였다. 자살로 보는 설이 많다.

그는 창작에서 부르죠아개인주의사상과 모더니즘문학의 영향으로 퇴페적인 경향도 나타내고있으나 제국주의와 파시즘을 반대하고 사회적진보와 정의를 옹호하였으며 간결하고 정확한 묘사, 남성적인 힘있는 언어문체, 내면독백과 직접화의 능숙한 리용 등 독특한 창작수법을 구사한것으로 하여 20세기 미국비판적사실주의문학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있다.

그의 대표작은 장편소설 《누구를 위해 종이 울리는가》와 중편소설 《로인과 바다》이다.

《누구를 위해 종이 울리는가》는 에스빠냐공민전쟁때 국제지원병부대에 참가한 미국청년에 대한 이야기를 통하여 프랑꼬파쑈도당을 반대하는 에스빠냐인민들의 투쟁을 보여준 작품이다.

이야기는 1937년 5월말의 토요일 오후에 시작되여 다음주 화요일 낮에 끝난다. 소설은 이 나흘동안의 사건을 통하여 당시 에스빠냐의 정세를 집약적으로 반영하고있다.

소설의 주인공은 미국의 어느 한 대학에서 에스빠냐강사로 있던 로버트 죠단청년이다. 에스빠냐인민들의 투쟁을 돕기 위한 국제지원병이 된 그는 공화군의 총공격개시직후에 적후에 있는 다리를 폭파할 임무를 맡고 적진을 돌파하여 유격대가 있는 산속의 동굴에 도착한다.

유격대의 소부대는 대장 빠블로와 그의 련인 삐라르를 비롯하여 모두 7명이였는데 그속에는 머리칼이 짧은 아름다운 처녀 마리아가 있었다.

촌장이였던 마리아의 아버지는 공화주의자라는 리유로 안해와 함께 파쑈악당들에게 총살당하고 마리아자신은 머리칼을 잘리우고 폭행까지 당하였다. 로버트는 이러한 마리아를 뜨겁게 사랑하게 된다. 대장 빠블로는 싸움에 지쳐 소심해지고 녀성이지만 용감한 삐라르가 소부대의 실제적인 지휘관으로 되고있었다.

산속에는 엘 쏘르도가 지휘하는 또 하나의 소부대가 있었다. 로버트는 말을 구해줄것을 엘 쏘르도에게 부탁했으나 그들은 때이르게 내린 눈속에 난 발자취로 하여 적들의 공격을 받아 전멸당한다.

적들의 움직임으로 보아 총공격계획이 사전에 발각되였다는것을 알아차린 로버트는 작전계획을 변경시킬 의견서를 총사령부에 보내고 아침일찍 동굴을 출발하여 다리를 폭파한다. 이 과정에 로버트는 다리에 부상을 입고 걸어갈수 없게 되자 마리아와 나머지 성원들을 먼저 빠져나가게 한 다음 자기는 그 자리에서 기관총을 잡고 다가오는 적들을 겨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난다.

소설은 주인공들의 형상을 통하여 1936—1939년에 도이췰란드, 이딸리아무장간섭자들과 국내파쑈도당을 반대하고 민족적독립과 자유와 민주주의적전취물을 고수하기 위한 정의의 전쟁에 떨쳐나선 에스빠냐인민들과 그들을 도와나선 국제지원병들의 투쟁을 진실하게 보여주고있다.

소설의 주인공 로버트 죠단은 에스빠냐인민들의 정의의 투쟁을 지원하기 위하여 자진하여 멀리 미국으로부터 에스빠냐전선에 달려온 진보적인 청년지식인이다. 그는 자기가 에스빠냐에 가면 미국에서 그를 빨갱이로 지목하고 요시찰인명부에 넣어 탄압하리라는것을 잘 알고있었다. 그러나 파시즘을 미워하고 정의와 민주주의를 사랑하는 그는 위험을 무릅쓰고 에스빠냐로 달려와 국제려단에서 전사로서 반파쑈항쟁에 자기의 청춘을 서슴없이 바친다.

로버트 죠단의 형상에는 에스빠냐공민전쟁시기 에스빠냐인민들을 적극 지원해나선 국제주의전사들의 투쟁모습이 구현되여있다.

죠단은 자기의 불운을 세계의 불행으로, 자기의 허무를 인류의 고독으로 생각하는 헤밍웨이의 이전시기 주인공들과는 완전히 구별되는 인물이다. 살아있으면서도 고독을 느끼고 불행해하던 이전시기 인물들과는 달리 그는 죽음을 눈앞에 두고도 삶과 행복을 느끼는 인물로 그려져있다.

죽음을 눈앞에 둔 순간에 죠단은 이렇게 생각한다.

《나는 신념을 가지고 그 신념을 위하여 1년동안 이곳에서 싸웠다. … 이 세상은 참으로 아름다운 곳이다. 그때문에 우리는 싸움도 마다하지 않는것이며 이 세상을 떠나는것을 그처럼 아쉬워도 하는것이다. 뿐만아니라 이렇게 훌륭한 한생을 보낼수 있었으니 나는 참으로 행복한 인간이다.》

작가는 주인공의 형상을 통하여 개인의 울타리를 벗어나 인류앞에 지닌 책임감을 자각하고 그것을 위해 자기를 바치는데 인간의 참된 삶과 행복이 있지 않겠는가 하는 문제를 제기하였다.

소설에서는 녀성의 몸으로 총을 잡고 반파쑈투쟁의 길에 나선 유격대원 삐라르, 말과 행동의 불일치를 모르는 용감한 투사이며 생명의 마지막순간까지 에스빠냐인민의 정의의 위업에 충실했던 유격대 소부대책임자 쏘르도, 비록 람루한 농민옷을 입고 나이도 많지만 투쟁에서 물러서려고 하지 않는 앙쎌모로인 등 에스빠냐인민유격대전사들의 형상을 창조하고 그들의 형상을 통하여 반파쑈항전에 떨쳐나선 에스빠냐인민들의 애국정신과 용감한 투쟁모습을 생동하게 보여주었다.

반면에 소설에서는 주인공의 파멸이 숙명적이며 유격대원들의 희생이 허무한듯 한 인상을 자아내고있으며 화려한 대신에 깊이가 부족하고 련애묘사에 치우친것과 같은 부족점이 나타났다.

《로인과 바다》는 거대한 자연을 대상으로 생계를 유지해나가는 늙은 어부의 고독한 생활을 그린 작품이다.

꾸바사람 싼띠아고로인은 메히꼬만에 배를 띄워 놓고 혼자서 물고기잡이를 하는데 84일째 한마리도 잡지 못한다. 처음 40일동안은 물고기잡이를 배우는 마노린소년이 함께 있었으나 가망이 없다고 소년의 부모가 그를 다른 배에 옮겨버린다. 그래도 로인을 좋아하는 소년은 매일 그를 찾아와 돌봐준다.

85일째 되는 날 더 멀리 나간 로인에게 굉장히 큰 물고기가 걸린다. 하여 물고기와 3일동안이나 싸운 로인은 그놈을 배옆에 잡아매고 유유히 돌아온다.

그런데 항구로 돌아오는 도중 상어의 습격을 받아 칼도 몽둥이도 잃고 노대도 부러뜨리며 물고기까지 떼운다.

집에 돌아온 로인은 침대우에 쓰러진다. 아침에 소년이 찾아와 로인을 위로한다. 마노린은 로인이 애처로와 눈물을 흘린다. 다시 잠이 든 로인은 아프리카와 사자에 대한 꿈을 꾼다.

작품은 거대한 자연을 대상으로 필사적인 싸움을 벌리는 싼띠아고로인의 형상을 통하여 상징적수법으로 자본주의사회의 사회악을 반대하여 과감히 싸우는 고독한 반항자의 모습을 보여주고있다.

로인은 싸움에서 계속 패배하여 힘도 용기도 다 진해버린다. 그에게 자랑스러웠던 시절은 과거밖에 없다. 그래도 그는 주저앉지 않는다. 그는 때로 어리석은 환상에도 잠기지만 현실적인 승리자가 되기 위해 과감하게 행동하며 실패에 두려움을 모르고 다시 일어나 싸운다.

마노린의 눈에 비낀 싼띠아고는 신비스러운 할아버지였다.

그러나 작가는 개인주의적인생관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옳바른 사회적리상을 가지고있지 못한데로부터 허무주의에 빠져 주인공을 고독하고 허무적인 사람으로 그렸으며 마노린소년의 시점에서 로인의 한생을 측은하게 그리고있다.

작품에서는 온갖 감상적인 요소를 배격하고 현실을 랭철하게 투시하는 작가특유의 문체가 구사되고있으며 소설창작의 높은 기교가 발휘되고 있다.

부르죠아문예학자들은 이 작품을 《허무의 절정》을 보여준 작품, 《행동주의의 대표작》 등 제나름대로의 평가를 내리고있다. 그러나 이 작품을 정당하게 평가하려면 작가의 창작활동 전과정과 결부시켜보아야 한다.

《로인과 바다》는 개인주의적인생관의 제한성을 인식하면서도 그에 대치시킬 참다운 인생관, 새로운 사회적리상을 찾지 못하고 일생을 방황해온 작가자신을 총화한 작품으로 된다.

일화, 상식편

고대그리스

고대그리스는 발칸반도 남부 에게해의 섬들과 트라키아연안, 소아시아의 서부해안 등 지역을 포괄하고있었다. 그리스라는 말은 고대그리스의 전설에 나오는 헬렌에 의하여 세워졌다고 하는 그리스인들의 한 공동체의 소재지 헬라스에서 나왔다.

그리스의 고대주민들은 흑해와 까쓰삐해북방의 유목민이 발칸반도에 이주하여 정착한 종족으로서 자기들을 《헬레네스》라고 하였다. 헬레네스는 점차 4개의 종족집단 즉 에올리아, 이오니아, 도리아, 아카이아로 갈라졌고 그 일부는 에게해의 섬들과 소아시아의 서부해안으로 점차 이주하여 자기의 독자적인 문화를 창조하였다.

B. C. 28세기—B. C. 12세기에 크리티와 미케네에 세워진 초기노예소유자국가였던 고대그리스에서는 그리스본토에서 씨족공동체가 무너지고 도시국가들이 형성된 후에야 노예소유자사회가 본격적으로 발전하였다.

그리스력사에서 호메로스시기로 불리우는 B. C. 11세기—B. C. 9세기에 철기가 도입되여 생산력이 발전함에 따라 씨족공동체안에 빈부의 차이가 커지고 계급분화가 촉진되여 씨족귀족과 평민, 노예들이 생겨났다.

B. C. 8세기—B. C. 6세기에 이르러 씨족공동체관계가 무너지면서 씨족귀족들의 계급적지배를 실현하기 위한 수많은 도시국가(폴리스)들이 출현하였다. 매개 도시국가들의 중심은 성벽으로 둘러싸인 도시였고 이에 부근 농촌공동체들이 련합하였다. 도시국가의 주민은 자유민과 노예 및 예속민으로 구성되였으며 자유민은 노예주인 씨족귀족들과 평민(농민, 수공업자, 상인)으로 구성되였다.

도시국가들에서는 사회정치적모순이 강화되면서 씨족귀족들을 반대하는 투쟁이 끊임없이 일어났다. 이 투쟁에서 보다 큰 승리를 이룩한데서는 노예소유자적민주정치가 실현되였고 그렇지 못한데서는 귀족과두정치가 실시되였다.

대표적인 도시국가는 노예소유자적민주정치가 실시된 아테네와 귀족과두정치가 실시된 스파르타였다.

도시국가들의 위력이 강화되는데 따라 전체 그리스에 대한 지배권을 둘러싸고 싸움이 끊임없이 벌어졌다. 싸움은 언제나 귀족과두정치의 아성인 스파르타를 맹주로 하는 펠로폰니스동맹과 노예소유자적민주정치의 기둥인 아테네를 수위로 하는 델로스동맹사이에 벌어졌다.

두파사이의 적대적관계는 B. C. 500년—B. C. 449년 페르샤와의 전쟁에서 아테네의 주도적 역할에 의하여 그리스가 승리한 후 아테네가 강화됨으로써 더욱 첨예화되였다. 펠로폰니스동맹국가들은 B. C. 431년에 아테네에 대한 공격을 개시하였다. 이 전쟁에서 스파르타가 승리함으로써 전그리스에 대한 지배권은 스파르타의 수중에 들어갔다.

장기간의 전쟁은 그리스의 경제를 혹심하게 파괴하고 계급적모순을 첨예화시켰다. B. C. 4세기에 그리스도시국가들에서 노예와 빈민들의 폭동이 자주 일어났다. 한편 스파르타의 지배와 략탈을 반대하여 도시국가들이 들고일어났다. 피압박인민들의 투쟁과 도시국가들사이의 싸움은 그리스의 쇠퇴와 몰락을 촉진시켰다.

바로 이러한 때인 B. C. 337년에 그리스의 도시국가들은 북부그리스에서 뒤늦게 발전하였으나 급속히 강화된 마께도니아에 예속되였다. 그후 B. C. 27년에는 로마의 속주로 되였다.

고대그리스의 문화

고대그리스사람들은 다른 민족에 비하여 특이한 종교관념을 가지고있었다. 그들은 제우스를 비롯한 12신을 숭배하면서 신들의 세계를 사람의 세계와 같이 리해하였다. 하여 신들도 남녀

의 구별이 있어 서로 사랑하고 결혼하여 이 과정에 부자, 형제로도 되며 신들은 명령과 복종의 관계속에서 살아간다고 생각하였다. 이러한 신들을 숭배하는 종교적행사들에는 언제나 음악과 체육축전들이 동반되였다.

고대그리스인들은 자기의 창조적지혜로 귀중한 문화적재부들을 수많이 남겼다.

그리스사람들은 페니키아인들의 문자에 토대하여 그리스알파베트를 만들어 썼다. 그리스문자는 그후 유럽 여러 나라 문자의 바탕으로 되였다.

그리스사람들은 수학, 물리학, 천문학을 비롯한 자연과학분야에서도 커다란 업적을 남겼다.

그들은 특히 철학분야에서 특출한 유산을 남겼는데 그들속에서는 중세유럽의 철학발전에 큰 영향을 준 원자론적유물론의 창시자 데모크리토스와 자연발생적변증법을 창시한 유물론자 헤라클레이토스를 비롯한 이름있는 철학가들이 많이 배출되였다.

고대그리스인들이 남긴 건축술과 조형예술요소들은 유럽의 건축술과 조형예술발전에 그대로 계승되였다. 크로노스궁전, 아클로폴리스성새, 파르테논신전, 조각 《원반 던지는 사람》등은 그들이 남긴 귀중한 유산들이다. 특히 도리아식기둥, 이오니아식기둥, 코린트식기둥 등은 중세유럽건축의 중요한 형식의 하나로 되였다.

고대그리스에서 개화발전된 과학문화는 유럽 여러 나라 과학문화발전의 바탕으로 되였다.

그리스신화와 유럽문학예술

그리스신화는 자연과 사회에 대한 고대그리스사람들의 신앙과 원시적인 표상을 반영하고 있다. 그리스사람들은 자연계의 모든 현상은 특수한 신에 의하여 창조된것이며 그 신들은 인간이 가지고있는 모든 성질을 다 갖춘 영원히 죽지 않는 존재라고 생각하였다. 신들은 남녀의 구별이 있고 부부, 형제, 자매, 친척, 친우의 관계를 가지고있었으며 도시부근의 높은 산, 강과 호수, 숲, 바다에서 살고있었다. 그리스사람들은 그 신들과 자유로이 이야기도 하고 서로 사귀며 때로 싸우거나 사랑까지 하였다. 그리스사람들은 또한 신들이 옛날의 추장이거나 도시의 창건자들이라고 생각하였다. 이처럼 그리스신화는 다른 나라들의 신화에서 나오는 신들과는 달리 사람의 감정을 그대로 가진것으로 꾸며졌기때문에 유럽문학예술에 적지 않은 영향을 주었으며 그들의 일상생활에 깊이 스며들었다.

문예부흥기의 이름있는 미술가들인 레오나르도 다 빈치의 녀신 플로라의 반신상, 보띠첼리의 《비너스의 탄생》, 《봄》, 17세기 미술가들인 루벤스와 렘브란프, 뿌쌩의 작품들, 모짜르트의 가극 《이도메네이》를 비롯한 작곡가들의 작품들, 18—19세기 전반기 유럽시인, 소설가들과 극작가들, 미술가들과 음악가들의 작품 등을 비롯하여 그리스신화에 기초하여 창작된것들이 적지 않다.

사실 유럽의 문학예술, 유럽사람들의 생활풍습을 알기 위해서는 그리스신화에 대한 풍부한 지식을 가져야 한다.

그리스신화의 주요신들

그리스신화에는 하늘과 땅, 바다에서 사는 무수한 신들이 등장한다. 그리스사람들은 그들가운데서도 제우스, 헤라, 헤파이스토스, 아레스, 헤르메스, 아폴론, 아테네, 아르테미스, 아프로디테(이), 포쎄이돈, 헤스티아, 데메테르의 12신들을 숭배하였다. 그들은 신들이 그리스의 북쪽에 있는 올림포스산정의 높은 곳 구름우에 지은 화려한 황금궁전에서 가족들과 함께 살고있다고 믿었다.

신들의 제왕 《제우스일가》의 계보

할아버지—우라노스(하늘의 신)
할머니—가이아(땅의 녀신)
아버지—크로노스(모든것을 삼켜버리는 시간의 상징)
어머니—레아
제우스(막내아들)의 6형제
　헤스티아(부엌의 녀신)
　데메테르(땅의 녀신)
　헤라(결혼의 수호신, 후에 안해로 됨)
　하데스(죽음의 왕국을 다스리는 신)
　포쎄이돈(바다의 신)
안해—헤라
아들—헤파이스토스(야장신)

아레스(싸움의 신)
헤르메스(전령신)
아폴론(광명의 신)
탄탈로스(리디아왕국의 왕 제우스와 물의 요정사이에 태여난 아들)
페르쎄우스(반인반신의 장수)
디오니쏘스(술의 신)
딸—아테네(리성의 녀신)
헬레네(청춘과 미의 녀신)
페르쎄포네(저승의 왕 하데스의 왕비)
아르테미스(사냥과 해산의 수호신)
며느리—아프로디테(미의 신, 야장신 헤파이스토스의 안해)
손자—에로스(사랑의 신)
판(목동신)
손녀—하르모니야(아레스의 딸)
니오베(탄탈로스의 딸)
손녀사위—카드모스(하르모니야의 남편)
암피온(니오베의 남편)
조카—트리톤(포쎄이돈의 아들)
증손자—오이디푸스(반인반신의 장수)

그리스신화에 나오는 기타 뭇신들

평화의 녀신—에이레나
법을 맡아보는 녀신—테미스
승리의 녀신—니케
사랑의 신—에로스(아무르)
기억의 녀신—므네모씨네
결혼의 신—히메네이
운명의 녀신들—모이라
강물의 신—페네우스
술의 신—디오니쏘스
아름다움, 온화함, 즐거움의 3녀신—크사리테스
사람들에게 불을 가져다준 프로메테우스
사람들에게 불행을 가져다준 판도라
숲의 정기를 타고난 에코
불화의 녀신—에리다
살륙의 녀신—에누오
해의 신—헬리오스
달의 신—쎌레나
밤의 녀신—녹스
바다의 녀신—테티스
잠의 신—키프노스
시의 녀신—무사이(뮤즈)

제 우 스

그리스신화에서 올림포스 12신의 우두머리이며 최고신. 로마신화의 유피테르와 맞먹으며 흔히 쥬피터(영어)로 통한다.

크로노스와 레아의 막내아들로서 아버지 크로노스를 뒤집어엎고 스스로가 《신들과 인간의 아버지》로 되였다. 형제간에 세계를 3등분하여 자신이 천상계를 지배하고 형들인 포쎄이돈이 바다를, 하데스가 지하계를 지배하도록 하였다. 안해 헤라외에 수많은 처첩을 두어 많은 자식들을 보았다. 올림포스의 12신가운데도 그의 자식들이 있으며 그리스신화의 반인반신의 이름난 장수들가운데도 그의 아들들이 적지 않다. 야장신 헤파이스토스, 전쟁신 아레스, 지혜의 녀신 아테네, 태양신 아폴론, 달의 녀신 아르테미스, 미의 녀신 아프로디테, 술의 신 디오니쏘스, 장수들인 페르쎄우스, 헤라클레스 등은 모두 제우스의 자식들이다.

그리스에서 제우스는 천상의 신으로서만이 아니라 기상기후의 신으로도 숭배되여왔다. 그것은 제우스가 올림포스산의 높은 봉우리우에 있으면서 《구름을 모아》 《우뢰를 즐기고》 《번개를 던져》 폭풍우를 불러일으켰다는 신화를 통해서도 잘 알수 있다.

제우스에 대해서는 호메로스와 헤시오도스의 서사시를 비롯하여 여러 문학작품들에서 형상되고있으며 황금과 상아로 만든 《제우스 올림피오스》의 조각상이 올림피아신전에 있다.

헤 라

그리스신화에서 제우스의 누이동생이며 안해. 크로노스와 레아의 딸이며 아레스, 헤파이스토스, 헤바 등의 어머니이다.

헤라는 원래 그리스의 토착민들이 숭배하던 신으로서 그리스의 여러곳에 그의 신전들이 있었다. 헤라라는 이름은 그리스어 《헤로스》(군주, 귀족)의 녀성형이며 모든 사람들이 받드는 녀주인, 녀자군주를 의미하였다. 그리스족이 북방에서 내려와 그리스땅에 정착하게 되면서 예로

부터 내려오던 헤라신을 숭배하는 세력을 어쩔수 없어 자기들이 숭배하던 최고신인 제우스의 안해의 지위에 올려놓았던것이다. 헤라는 또한 결혼의 수호신으로 숭배되였다.

신화에 나오는 헤라는 질투심이 많은 안해의 대표자이며 늘 제우스와 다투고 제우스가 련이어 인연을 맺은 녀자들과 그들이 낳은 자식들을 따라다니면서 괴롭힌다. 학자들은 이러한 신화의 내용을 북방에서 내려온 남자신의 종교와 남방의 녀자중심의 숭배가 화해하지 못했던 옛시기의 흔적의 반영으로 해석하고있다.

미술작품에서 헤라는 당당한 위엄과 차겁고 엄엄한 미를 갖춘것으로 형상되여있다.

로마신화에서는 헤라를 유노라고 불렀다.

아프로디테

그리스신화의 녀신. 올림포스 12신의 하나로서 사랑과 미의 녀신으로 알려져있다. 제우스와 디오네의 딸이며 사랑의 신 에로스의 어머니이다. 그의 출생과 관련하여 여러가지 설이 전해지는데 아버지 제우스의 이마에서 태여났다고도 하며 바다의 거품속에서 태여났다고도 한다. 아프로디테는 녀성의 미와 매력을 갖춘 모습으로 형상되였다. 케스토스라고 불리우는 띠를 가지고있어 그 띠를 두르기만 하면 남자들의 련정을 돋구는 매력을 나타낸다는 전설이 있다. 이것은 아프로디테가 그 기원에서 그리스문명 이전에 에게해를 건너온 동방기원의 녀신이라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본래는 섬을 수호하는 땅의 녀신이였는데 올림포스 12신속에 속하면서 헤파이스토스의 안해로 되였다. 아프로디테는 아레스, 디오니쏘스, 헤르메스 등에게도 사랑을 주었으며 이다산의 목동 안키쎄스를 사랑하여 장수 에네아스를 낳았다. 아프로디테가 늘 안키쎄스, 에네아스, 파리스 등 트로야의 장수들의 편을 드는것도 우연한 일이 아니다. 아프로디테는 로마신화의 베누스(또는 비너스)와 같다. 이 녀신은 사랑과 미의 상징으로서 예로부터 문학예술작품의 소재로 되였다.

아 테 네

그리스신화의 올림포스 12신의 하나. 지혜와 공예, 전쟁의 녀신이다. 팔라스(처녀)라는 별명이 있다. 그의 출생과 관련해서는 여러가지 설이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제우스의 이마를 뚫고 무장한 모습으로 태여났다고 한다. 아테네는 지혜의 녀신으로서만 아니라 용감한 장수들의 수호신으로서 정의를 위하여 싸우는 용사들에게 지혜를 주고 힘을 주군 하였다. 오듀쎄우스가 트로야전쟁후 숱한 모험끝에 고국으로 돌아갈수 있었던것은 아테네신의 도움이 있었기때문이다. 그는 또한 그리스의 도시국가 아테네의 수호신으로 간주되여 이 도시의 명칭으로 불리웠다고 하여 이 도시는 아테네녀신숭배의 중심지로 되였다. 아테네는 처녀신으로서 언제나 고르곤의 머리를 장식한 방패와 뱀이 감긴 창을 든 무장한 모습으로 형상되였다. 아테네신을 상징하는 성스러운 새는 부엉이였다. 로마에서는 미네르바가 아테네와 동일시되였다.

헤파이스토스

그리스신화에서 불의 신이며 야장신.

제우스와 헤라의 아들이며 올림포스 12신의 한 사람이다.

나서부터 절름발이였으나 대단한 공예재간을 타고나 그가 만든것은 신통력을 발휘하였다. 제우스의 번개와 방패, 홀, 신들의 궁전, 태양신 아폴론이 타고다니는 2륜차, 날개돋힌 신발, 아킬레우스의 갑옷 등은 모두 그가 만든것이다. 그는 제우스를 위해 좋은 무기를 만들어준 표창으로 사랑과 미의 신 아프로디테와의 결혼을 허락받았다.

헤파이스토스는 그리스 각지에서 숭배되였으며 특히 공업이 발전한 앗티카지방에서 더 숭배되였다. 로마에서는 울카누스(불칸)가 헤파이스토스와 동일시되였다.

데메테르

그리스신화에 나오는 올림포스 12신의 하나이며 오곡의 녀신. 로마신화에서는 케레스라고 한다. 크로노스와 레아의 딸이다. 데메테르의 《데》는 땅 또는 곡물, 《메테르》는 어머니를 의미한다. 오곡의 생장, 농경의 기술을 맡아보는 녀신이며 대지의 녀신이기도 하다. 그 숭배의 중심지는 앗티카의 엘레우시스였으며 그곳에서 이 신을 신앙하는 의식이 성행하였다. 신화

에 의하면 데메테르의 딸 페르쎄포네가 들에 꽃을 꺾으러 나갔다가 지하계의 왕 하데스에게 랍치당한다. 어머니 데메테르는 딸을 찾아 헤매다가 엘레우시스에 이르러 신전에 들어간다. 그가 너무나 비탄에 잠긴탓으로 오곡은 자라지 않고 초목은 말라버렸으며 집짐승들은 새끼를 낳지 않았다. 사태를 토의하기 위해 모여앉은 신들은 데메테르의 딸을 지상에 돌려보내기로 결정하고 제우스의 명령을 지하계의 왕에게 전달한다. 하지만 이미 지하계의 음식을 먹은 페르쎄포네는 완전히 지상에 돌아갈수 없는 몸이 되여 1년의 절반은 지하계에서 살고 나머지 절반만 지상에서 어머니와 함께 지내게 된다. 그러자 지상에서는 또다시 오곡이 무르익고 초목이 자라나게 되였다고 한다.

사람들에게 불을 가져다준 프로메테우스

우뢰의 신 제우스가 온 누리를 지배하기 시작하였을 때에는 아직 세상에 아무런 생물체도 없었다. 제우스는 프로메테우스와 에피메테우스 형제에게 땅우에 생물체들을 만들어놓으라고 명령하였다. 두 신은 곧 여러가지 짐승, 새, 물고기를 만들었다. 짐승에게는 털가죽을, 새에게는 날개를, 물고기에게는 지느러미를 주었다. 소에게는 센 뿔을, 말에게는 잘 달릴수 있는 억센 다리를, 여우에게는 꼬리를, 사자와 곰에게는 날카로운 어금이를, 뱀에게는 독을 주었다.

그들은 여러가지 동물들을 다 만든 다음 올림포스의 신의 모습을 따서 새로운 동물을 하나 더 만들었다. 그 동물이 두다리로 땅을 짚고 닝큼 일어섰을 때 그 아름답고 름름한 모습을 본 프로메테우스는 기쁨에 넘쳐 소리쳤다. 모든 동물들은 다 땅에서 기여다니는데 오직 이 동물만이 하늘을 쳐다보며 걸어다녔다. 프로메테우스는 이 동물을 사람이라고 부르기로 하였다. 그런데 사람은 아무것도 지닌것이 없는 알몸이여서 추위에 떨고있었다.

《이 사람에게 무엇을 주는것이 좋을가.》 프로메테우스는 동생 에피메테우스와 의논하던 끝에 사람에게 불을 주기로 하였다. 급히 올림포스의 산을 향하여 하늘로 날아올라 제우스에게로 간 프로메테우스는 사람에게 불을 주게 해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제우스는 사람에게 불을 주면 거만해지므로 아무것도 주어서는 안된다고 하면서 동굴속에서 그대로 추위에 떨게 하라고 하였다.

크게 실망한 프로메테우스는 동생에게 자기가 제우스로부터 벌을 받아도 그 고통을 이겨낼수 있다고 하면서 자기가 만든 사람에게 불을 주고야말겠다는 확고한 결심을 말하였다. 이튿날 아침 속심이 들어있는 갈대를 모아가지고 올림포스의 산으로 다시 날아간 프로메테우스는 아폴론(태양)의 수레가 동쪽으로부터 달려올 때 그 가까이에까지 다가가서 갈대에 불을 붙여가지고 대지로 돌아왔다. 프로메테우스는 《너희들은 이 불의 주인이다. 이 불을 잘 쓰기만 하면 너희들은 이 세상의 주인으로 될수 있다.》고 말하면서 그 불을 사람에게 주었다.

이리하여 사람들이 불을 얻어가지고 좋아하고있을 때 제우스는 올림포스의 산마루에서 땅우를 내려다보다가 여기저기에서 불을 피우고있는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크게 성난 제우스는 프로메테우스를 잡아다가 옷을 벗기고 코카사스산의 큰 바위에 굵은 쇠고리로 비끄러매놓았다. 그날부터 매일 한번씩 한마리의 큰 번대수리가 날아와 날카로운 부리로 프로메테우스의 간을 쪼아먹었다. 밤새 그의 몸에서 새로 간이 자라나면 낮에는 번대수리한테 쪼아먹히우는 고통을 당하여야 하였다.

뭇신들이 찾아와 동정하며 무서운 우뢰의 신 제우스의 뜻을 거역하지 말고 그에게 머리를 숙이라고 타일렀으나 프로메테우스는 결코 제우스에게 용서를 빌려 하지 않았다. 그는 오히려 제우스에게 저주를 보내면서 이렇게 웨쳤다. 《우뢰의 신 제우스여, 네가 아무리 나를 괴롭히더라도 네가 몰락할 그날은 오고야말리라. 너는 왕국을 잃어버리고 떨어지리라. 그때에 가서는 네 아비 크로노스의 저주가 이루어질것이다. 오, 너는 죽어서 한줌의 재가 된 뒤에야 권력과 예속과의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는가를 알게 될것이다.》

프로메테우스는 300년이 지나면 한 장수가 나타나서 자기를 구원해주리라고 믿었다. 300년후에 과연 헤라클레스라는 장수가 나타나 단 한대

의 화살로 번대수리를 쏘아죽이고 프로메테우스를 오래동안의 고통으로부터 구원하였다.

헤라클레스

그리스신화의 반인반신의 장수의 한사람. 가장 이름난 장수이다. 제우스를 아버지로, 인간계의 왕녀 알크메네를 어머니로 하여 태여났다.

헤라클레스라는 이름은 《헤라의 자랑》이라는 뜻을 가진다. 그 이름대로 헤라클레스에 대한 신화는 녀신 헤라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있다. 질투심 많은 헤라는 남편 제우스가 인연을 맺은 알크메네와 그가 낳은 자식을 증오한다. 하여 갓 낳은 헤라클레스를 죽이려고 두마리의 뱀을 보내여 그의 요람속에 기여들게 한다. 애기는 뱀을 장난감처럼 가지고 놀다가 잡아죽이고만다. 이때부터 헤라클레스의 담력과 장수힘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된다. 헤라의 박해에도 불구하고 헤라클레스는 세상에 비길데 없는 큰 힘을 가진 용감무쌍한 장수로 자라난다.

헤라클레스에 대한 신화에서 제일 유명한것은 그가 헤라의 지시를 받은 아르고스의 폭군 에우류테스의 명령에 따라 《12가지 대업》을 수행한 이야기이다.

① 네메아의 사자잡이: 이 괴물사자에는 칼도 화살도 맥을 쓰지 못한다. 헤라클레스는 사자를 자기 팔로 졸라죽이고 가죽을 벗겨 자기 옷을 만든다.

② 레르나늪의 독사 휴드라잡기: 휴드라는 수많은 대가리를 가진 괴물뱀으로서 대가리 하나를 떼버리면 또 다른 대가리가 생긴다. 그는 대가리를 자른 면을 불로 태워 잡아치운다.

③ 에르만토스산의 메돼지사냥: 생포해야 했으므로 메돼지를 눈속에 몰아넣고 붙잡는다.

④ 알카디아의 암사슴잡기: 황금뿔을 가지고있는 이 사슴을 세계의 끝까지 추격하여 붙잡는다.

⑤ 스튬파로스의 괴물새잡기: 무리를 이룬 해로운 새들인데 일부는 쏴떨구고 나머지는 쫓아버린다.

⑥ 아우게아스왕의 소외양간청소: 수많은 소무리의 오물이 여러해 쌓인것을 하루동안에 청소해야 했다. 그는 알페우스강의 강물을 끌어들여 단번에 씻어버린다.

⑦ 크리티의 사나운 수소 생포: 헤라클레스가 사나운 소를 생포하여 끌고왔는데 놓아준 다음에 그 소가 사방으로 다니며 소란을 피우다가 마라톤에서 테쎄우스에 의하여 처리된다.

⑧ 디오메데스의 사나운 말 로획: 사람고기로 사육되고있는 말떼인데 그 주인인 디오메데스(전쟁신 아레스의 아들)를 죽여 그 고기를 말에게 먹인 다음 끌고온다.

⑨ 아마존족의 녀왕의 띠 략취: 아마존족의 군사들과 싸워 그들의 녀왕 힛폴리테의 띠를 빼앗아온다.

⑩ 거인 겔류온의 붉은소 로획: 겔류온의 나라는 세계의 서쪽끝에 있다. 그는 태양신을 향하여 화살을 쏘아 억지로 태양신의 배를 빌려타고 오케아노스를 건느며 겔류온의 지옥의 개와 집지기 그리고 겔류온까지 죽이고 소를 빼앗아온다.

⑪ 헤스페리데스의 황금사과 획득: 세계의 서쪽끝 오케아노스기슭의 락토 《헤스페리데스의 동산》에는 님프들이 지키는 황금의 사과나무가 있는데 그 황금사과알을 가지고오는 난문제도 해결한다.

⑫ 저승의 문지기개 케르베로스 유인: 대가리가 두개 있는 괴물개이다. 헤라클레스는 지옥에 내려가 그 개를 묶어 지상으로 끌고나오나 후에 지옥으로 돌려보낸다.

헤라클레스가 이러한 열두가지 난문제를 해결한 다음에도 헤라의 노여움은 풀리지 않는다. 녀신은 헤라클레스를 미치게 한다. 후에 제정신으로 돌아왔으나 독약이 묻은 옷을 입었기때문에 온몸이 썩는다. 이것은 헤라의 작간이였다. 헤라클레스는 오이테산에서 스스로 분신자살하려고 한다. 그런데 갑자기 구름이 내려와 그를 천상계 올림포스로 날라간다. 거기서 그는 헤라와 화해하며 헤라의 딸 헤베를 안해로 삼아 영생한다.

이와 같이 헤라클레스에 대한 신화는 인간으로 태여나 지상에서 온갖 괴물들과 해로운것들을 추방하는 어렵고 큰 일을 수행함으로써 신선으로 된 장수의 이야기로 되여있다.

문학작품에서 헤라클레스에 대한 이야기는 고대그리스비극시인들인 쏘포클레스의 비극 《트라키스의 녀자》, 에우리피데스의 비극 《헤라클레스》와 《아르케스티스》 등에서 취급되였다.

헤시오도스

B.C.8세기 고대그리스시인. 호메로스 못지 않게 이름난 시인이며 전설적시인인 호메로스와는 달리 력사적으로 확증된 첫 그리스시인이다.

보이오티아지방의 농촌마을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가정에서 태여난 헤시오도스는 농사를 하면서 그 여가에 시창작에 힘을 넣어 농민시인으로 널리 알려지게 되였다.

그의 대표작으로는 두편의 서사시 《로동과 나날》, 《신들의 계보(테오고니아)》가 전해져있다.

《로동과 나날》에서는 귀족들의 압박을 받는 근로농민들의 사상감정을 반영하여 사회의 불평등을 비난하고 생활의 기초로서의 로동을 찬양하였다.

《신들의 계보》에서는 그리스신화에 기초하여 하늘과 땅, 천지가 어떻게 생겨나고 신들이 어떻게 탄생하였는가에 대하여 소박하게 노래하였다.

이 작품들은 문학사적의의가 클뿐아니라 당대의 사회, 경제, 력사연구의 귀중한 자료로 되고있다.

이소프의 기지

이소프는 너무나도 얼굴이 험하였다. 어찌나 못생겼던지 사람들이 대상하기를 꺼려할 정도였다고 한다. 그러나 재치가 있고 웅변술이 능하여 뭇사람들의 사랑을 받았다고 한다.

이러한 이소프에게는 재미나는 일화가 많았다. 그중에서 있은 일화를 아래에 소개한다.

이소프가 노예살이를 하던 때 일이다.

한번은 그의 주인인 노예주 산투스가 그의 재간을 시험해본 일이 있었다.

노예주가 그를 보고 《세상에서 가장 진귀한것을 가져오라.》고 하였더니 그는 짐승의 혀를 많이 가져왔다.

주인이 노발대발하면서 그 리유를 물으니 이소프는 《천하의 선과 악은 혀바닥에 달려있지 않습니까. 국가의 안녕여부도 바로 이 혀에 달려있으니 이보다 더 진귀한것이 어디 있겠습니까.》라고 대답하였다.

그의 기지에 탄복한 주인이 이번에는 《세상에서 가장 나쁜것을 가져오라.》고 하였다. 그랬더니 이소프는 서슴없이 먼저 가져왔던 짐승의 혀를 다시 가져왔다.

주인이 《이놈! 금방 혀가 세상에서 가장 진귀하다고 해놓고 이제는 그것이 세상에서 가장 나쁜것이라고 하니 리치가 맞느냐?》고 욕을 하였다.

그러자 이소프는 시치미를 떼고 《혀바닥은 온갖 재난의 화근이니 이보다 더 나쁜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라고 대답하여 주인을 또다시 놀라게 했다.

이소프우화

시골쥐와 도시쥐

어느 돌담밑에서 시골쥐가 살고있었습니다. 창고에 콩이며 감자, 홍당무우 등 먹을것을 가득 쌓아놓은 시골쥐는 자기의 생활에 아주 만족해하고있었습니다. 자기의 호화로운 생활을 자랑하고싶어진 시골쥐는 어느날 도시쥐를 자기 집으로 초대하였습니다. 시골쥐는 창고에서 온갖 맛있는 음식들을 다 내다가 손님을 대접하였습니다. 하지만 도시쥐는 시골쥐일가가 꿀꺽꿀꺽 맛있게 먹는 모양을 바라만 볼뿐 좀처럼 먹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왜 그러나? 어디 아픈가?》

《아닐세. 난 이런 음식들이 입에 맞지 않아 먹지 못하겠어.》

도시쥐는 자기의 생활에 대해 자랑을 늘어놓았습니다. 도시쥐의 자랑에 마음이 들썽해난 시골쥐는 어느날 도시로 그를 찾아갔습니다. 성문까지 마중을 나온 도시쥐는 아무의 눈에도 띄우지 않게 조심하라고 일렀습니다.

시골쥐는 도시쥐부부가 사는 큰집으로 갔습니다.

도시쥐가 큰 연회실식탁우에 뛰여올라가자 시골쥐도 따라올라갔습니다. 아, 그 훌륭한 접시들과 번쩍번쩍 빛나는 은식기들! 그 접시들에는 온갖 진미들— 파일을 넣은 파자와 고기만두, 군닭고기와 파일들이 그득 쌓여있었습니다. 시골쥐는 눈이 똥그래서 음식들을 번갈아보았습니다. 입에서는 군침이 돌고 어느것을 먼저 먹어야 할지 몰랐습니다. …

그런데 막 음식을 입에 대려고 하는데 문이 활

짝 열리더니 한패의 사람들이 떠들썩 웃고 지껄이면서 방안으로 몰려들어왔습니다. 끽 소리와 함께 도시쥐는 얼른 화덕뒤구멍으로 숨어버리고 시골쥐도 헐레벌떡 그뒤를 따랐습니다.…

퍽 지루한 시간이 지나간 후 시끄러운 패거리들은 먹기를 그치고 돌아갔습니다. 그래 두 쥐는 기여나와 식탁보우로 올라가서 찌꺼기를 핥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찜과 만두부스레기에 입을 대려고 하자 다시 문이 활짝 열리고 식모가 삽살개 두마리를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식모가 상을 치운 다음 개들을 데리고 가버리자 시골쥐는 새파래가지고 말하였습니다.

《여보 사촌, 맛있는 음식이란 좋긴 하지만 주인이 먹으라고 내주지 않는 이상은 굶어죽겠어! 제길할, 밤낮 쫓겨다니면서 고기만두를 먹느니보다 차라리 보리죽을 먹고 안전하게 살지! 잘있수. 나는 가겠수다!》

시골쥐는 머리를 설레설레 내저으면서 안해와 애들에게 제 푼수에 만족하라는 교훈을 주려고 급급히 돌아갔습니다.

심장없는 코끼리

숲속의 왕인 사자가 병이 났습니다.

온갖 약을 다 써도 병이 낫지 않게 되자 사자는 거짓말 잘하고 약은 여우에게 부탁했습니다.

코끼리고기와 코끼리의 염통을 먹으면 병이 나을것 같다고 말입니다.

코끼리를 찾아간 여우는 달콤한 말로 그를 꾀였습니다.

《코끼리아저씨도 들어 아시겠지만 우리 짐승들의 왕인 사자님께서 몹쓸병에 걸려 아무래도 더 살지 못할것 같습니다. 그래 임금님께서는 돌아가시기 전에 왕위를 물려주실 생각이던데 다음 왕이 될 짐승을 구하지 못해서 걱정이랍니다.》

코끼리는 여우의 꾀임에 넘어가 여우와 함께 사자를 찾아갔습니다.

《병환이 어떠하시옵니까?》

코끼리가 사자앞으로 바투 다가가자 사자는 후닥닥 일어나 코끼리를 물려고 했습니다. 그통에 코끼리의 한쪽귀가 찢어졌습니다.

먹고싶던 코끼리고기와 염통을 먹지 못하게 된 사자는 더욱 화가 나서 여우를 또다시 코끼리에게 보냈습니다. 여우는 당장 밟아죽일듯이 달려드는 코끼리를 살살 얼려넘기였습니다.

《코끼리아저씨는 겁만 많으신줄 알았더니 성미도 급하시군요. 사자님께서는 남들 몰래 조용히 왕위를 넘겨주실 의논을 하시려고 아저씨의 귀에 입을 대시려는데 아저씨가 후닥닥 놀라 달아나신거예요. 사자님께서는 점잖지 못한 아저씨의 행동을 보고 몹시 불쾌해하시며 다른 짐승에게 왕위를 넘겨주겠다고 하시더군요. 그러니 어서 가서 다시 잘 말씀드리고 다른 짐승에게 넘겨주기 전에 어서 빨리 왕위를 넘겨받으세요.》

여우의 말에 너무 성급했던 자기를 후회하며 코끼리는 아주 얌전하게 사자를 찾아갔습니다.

사자는 힘들이지 않고 코끼리를 잡아 배를 채웠습니다. 배가 부른 사자는 그제야 코끼리의 심장을 찾았습니다. 먼저 그것을 슬쩍 집어먹은 여우는 부시시 일어나 굴밖으로 나가며 말했습니다.

《임금님, 그 코끼리는 심장이 없는 코끼리입니다. 죽을줄 알면서도 두번이나 사자님의 굴로 따라오는 바보에게 심장이 있을리 없지요.》

토끼와 거부기

해별이 쨍쨍 비치는 산우에 커다란 갈색토끼 한마리가 살고있었고 거기서 그리 멀리 떨어지지 않은 강가의 돌틈에는 거부기가 살고있었습니다.… 어느날 우습강스러운 쪼끄만 대가리를 내밀던 거북은 퍽 재미있어하면서 자기를 뚫어지게 쳐다보는 토끼의 빨간 눈과 마주쳤습니다. 그 토끼는 빙그레 웃느라고 긴 수염을 쫑긋거렸습니다.

거북은 점잖은 태도로 위엄을 갖추면서 《여보 토끼님, 왜 웃는거요?》 하였습니다.

《당신의 모양이 하도 우습강스러워 그러오. 당신에게는 다리가 없구려!》 토끼가 대답하였습니다.

…

그러자 거북은 《자, 나하구 경주를 합시다.》 하고 퉁명스레 말하였습니다. 《그럼 내게 다리가 있는지 없는지 곧 알게 되겠지요!》

《당신과 경주를!》 토끼는 껄껄대며 웃었습니다. 《그래 참, 재미스런 거북님! 그럼 어데까지

뛰기내기를 할가요?》

《아무데나 당신이 하고싶은대로!》 거북은 화가 나서 말하였습니다.

(심판원으로 지정된) 여우는 그 일대의 풍치를 빙 둘러보고는 마침내 몇마일밖에 있는 도시를 가리켰습니다.

《당신들은 저 도시까지 경주를 할것. 그런데 왼편에 있는 강을 돌고 맞은켠에 있는 산을 넘고 골짜기에 있는 참나무숲을 지나야 하오! 나는 당신들이 정정당당하게 경주를 하는가를 감시하겠소.》…

토끼는 약 한마일쯤 껑충껑충 뛰여가다가 좀 피곤해져서 쉴수 있는 곳을 찾았습니다. 그래 따뜻하고 조용해보이는 풀밭을 보고 그리로 올라가 드러누웠습니다.

《나는 여기서 남은 해를 쉬여도 되겠지.》 그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서늘한 저녁때 도시를 향해 출발해도 돼. 거북쯤이야 불과 몇분이면 따라잡을수 있을테니까!》

그래 코를 앞발에다 얹고 엎디여 깊이 잠들어 버렸습니다.

그러나 껍질을 뒤집어쓴 거북은 그의 일생중 다른 어느때보다도 가장 긴장하였습니다. 느리나 또박또박, 느리나 또박또박, 그는 왼쪽의 강으로 내려가 아주 쉽게 강을 헤염쳐 건넜습니다. 그리고는 껍질밑에서 발을 끊임없이 놀려서 바른편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나무그늘밑을 서서히 기여서 참나무숲을 지났습니다. 그리하여 저녁때가 되였을 때에는 바로 턱밑에 도시의 뾰족지붕들을 보게 되였습니다.

그러는 동안 토끼는 풀밭에서 온종일을 자버렸습니다. 깜짝 놀라 깨보니 해는 이미 지고 쟁반같이 둥그런 달이 머리우 하늘에 걸려있었습니다.

놀란 토끼는 껑충 뛰여 바람같이 내달았습니다. …

단숨에 성문에 다달은 토끼는 마음놓고 단잠에 든 거부기를 보았습니다.

《흥!》 토끼가 달빛아래 앉으면서 화가 나서 귀를 쫑긋거리는것을 보고 여우가 큰 목소리로 말하였습니다. 《여보게 토끼, 임자가 아주 빠르다는것은 나도 잘 아네! 그렇지만 느린자와 경주해서 이기려면 빠른자가 도중에 드러누워 자서는 안된다는것을 알아야 하네!》

고대그리스의 도시국가 아테네

아테네국가는 중부그리스의 아티카에서 이오니아인들에 의하여 세워졌다. 아테네에서는 씨족귀족을 에브파트리드, 평민을 데모스라고 불렀다.

처음에는 왕이 통치하였으나 B.C.8세기에 에브파트리드들의 세력이 강화되면서 왕권은 페지되고 9명의 에브파트리드출신의 알콘(집정관)이 정권을 장악한 귀족정치제도가 수립되였으며 데모스들은 아무런 권력도 가지지 못하였다. 에브파트리드들은 농민들의 토지를 빼앗고 그들을 예속시켰으며 수공업자, 상인들을 억압착취하였다. 데모스들속에서는 채무노예로 되는자가 늘어났다. 이리하여 데모스들은 빼앗긴 땅을 되찾고 채무노예로 되는것을 반대하여 투쟁하였으며 우선 성문법의 제정을 요구하였다. 결과 B.C.621년에 알콘인 드라콘에 의하여 첫 성문법(드라콘법)이 제정되였다. 이것은 귀족정치와 사적소유를 옹호한것으로서 여기에는 양이나 파일을 훔쳐도 사형에 처한다고 규정되여있다. 때문에 데모스들은 이를 《피로 씌여진 법률》이라고 하면서 반대해나섰다.

아테네의 알콘으로 선출된 쏠론은 B.C.594년에 인민대중의 압력에 의하여 일련의 개혁을 실시하였다. 그는 빚값으로 데모스를 노예로 만드는것을 금지하였으며 수공업과 상업을 장려하고 시민들을 재산정도에 따라 4등급으로 나누고 그에 따르는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였다. 이리하여 데모스들도 정치에 참가하게 되였다. 쏠론의 개혁은 신흥노예주들과 부유한 데모스들을 정치에 참가하게 함으로써 아테네노예소유자적민주정치의 시초를 열어놓았다.

B.C.6세기말 아테네에서는 개인독재정치의 출현을 막기 위하여 오스트라키즘(조개껍질투표법)을 실시하였다. 조개껍질에 독재자의 이름을 쓴것이 6 000표이상이 되면 그자를 10년간 아티카로부터 추방하였다.

아테네의 노예소유자적민주정치는 B.C.5세기에 절정에 이르렀다. 이 시기에 쏠론이 제정한 4등급제도는 페지되고 시민권을 가진 18살이상의 남자들이 민회에 참가하여 최고결의권을 행사하였으며 국가관리는 1년을 임기로 시민들가운데서 선출되였다.

아테네의 민주정치는 어디까지나 노예소유자들의 계급적지배를 보장하기 위한것이였으며 주민의 절대다수인 노예들과 녀성들은 정치에서 제외되였다.

고대그리스의 도시국가 스파르타

펠로폰니스반도 남부 라코니아에 형성된 스파르타는 아테네와는 달리 귀족과두정치를 실시하였다. 스파르타국가는 도리아인들이 B.C. 12세기경 라코니아의 토착민인 아카이아인들을 정복하고 그후 이웃지방에 대한 정복전쟁을 하는 과정에 형성되였다.

스파르타국가에는 2명의 왕이 있었으나 그들은 일정한 주권을 행사하지 못하였다. 하여 왕들과 60살이상 되는 28명의 귀족들로 구성된 《원로회의》(게두시아)와 5명으로 구성된 《감독관회의》(에포르)를 통하여 귀족과두정치를 실시하였다. 《감독관회의》는 왕까지도 사형에 처할수 있는 무제한한 권한을 행사하였다. 스파르타에는 성인남자가 참가하는 《인민회의》(아펠라)가 있었으나 아무런 권한도 없었다. 스파르타의 정치는 표면상 왕정이였고 내용적으로는 에포르의 독재정치였다.

스파르타의 주민은 스파르티아트, 페리오이코이, 헬로트의 세 계층으로 구분되여있었다. 스파르티아트는 토착민을 정복한 도리아인의 후손으로서 지배적지위를 차지하고있었으며 생산로동에는 참가하지 않고 군사복무만 하였다. 페리오이코이는 도리아인에게 순종한 토착민으로서 수공업과 상업에 종사하면서 아무런 권한도 없었으며 헬로트는 반항하다가 정복된 토착민으로서 노예적처지에 있었다. 스파르티아트의 모든 성인남자들은 군인으로서 어려서부터 군사훈련을 받았다.

스파르타는 강력한 군사력에 의거하여 모든 도시국가들을 예속시킴으로써 발칸반도에서 압도적우세를 차지하였다.

바벨의 탑

유태교와 그리스도교의 《구약성서》에 있는 《노아의 홍수》에 대한 종교전설에 나오는 탑의 이름이다.

신은 지상의 인간들이 서로 불화의 씨를 뿌리면서 싸우기때문에 지상에는 악만이 가득차있다고 하면서 인간을 만든것을 몹시 후회하였다.

그리하여 이 세상의 모든 인간을 멸망시키기 위하여 대홍수를 일으키기로 하였다.

지상에는 신의 큰 혜택을 받고있는 노아라는 사람이 있었다. 신은 노아에게 3층짜리 큰배(《노아의 방주》)를 만들게 하고 거기에 노아부부와 그의 아들 그리고 여러가지 짐승의 암컷과 수컷 두마리씩 살게 하였다.

노아는 신의 계시를 집행하면서 사람들에게 개심할것을 권고하였으나 사람들은 듣지 않았다.

그러자 7일째 되는 날부터 40주야동안 큰비가 내려 대홍수가 났으며 방주에 탄 사람과 짐승외에는 모두 수장되고말았다. 배는 떠다니다가 물이 찌자 아르메니아에 있는 아라라트에 멎었다. (아라라트가 뛰르끼예의 산이라는 설도 있다.)

노아의 자손들은 아라라트에서 살면서 자기들의 륭성번영을 과시하기 위하여 하늘에 닿는 높은 탑(일명 《바벨의 탑》)을 건설할것을 계획하였다.

신은 이 우둔하기 짝이 없는 환상적인 계획과 그들의 오만성을 꺾어버리기 위하여 그들이 쓰는 말을 혼란시켜놓았다. 그렇게 되자 서로 의사가 통하지 못하게 되여 궁지에 빠진 사람들은 이 건설계획을 단념하고 여기저기에 흩어져버렸다. 이러한 전설로부터 《노아의 홍수》, 《노아의 방주》, 《아라라트》, 《바벨의 탑》이라는 단어가 유럽문학작품들에 자주 쓰이게 되였다.

《바벨의 탑》은 서로 말을 모르는 사람들이 모인 혼란된 곳이라는 뜻에서 상징적으로 사용되고있다. 《바벨의 탑》은 여러 화가들이 상상하여 그린 그림에 의하여 전해지고있다.

전설은 이러하지만 바벨의 탑은 바빌로니아의 수도 바빌론에 실제로 존재했었다. 19세기말—20세기초에 발굴된 유적에 의하면 탑의 기초는 그 폭과 높이가 90m였다.

아르테미스신전

고대그리스의 도시였던 에페소스(오늘의 뛰르끼예령역에 있었다.)에 있던 신전. 당대 그

리스의 유명한 건축가 헤르모에케네스에 의하여 B.C.550년경에 세워졌다. 이 신전은 고대 7대기적의 하나로 불리우는 웅장한 건물로서 높이가 20m에 달하는 127개의 기둥에 떠받들리워있었다. 그중 30개의 기둥의 밑부분에는 금조각군상이 부각되여있었다. B.C.356년에 파괴되였다가 재건되였으나 3세기에 에페소스에 침입한 고트인들에 의하여 파괴되였다.

크노쏘스궁전

B.C.16세기경에 건설된 고대그리스의 크리티왕국의 왕들이 거처하던 궁전. 크리티의 미노스왕시기에 건설되였다고 하여 미노스궁전이라고도 한다. 에게해의 크리티섬 크노쏘스에 있다. 중기 미노아시기(B.C.2700—1600)에 에게문화의 중심지인 크노쏘스에 궁전이 건설되였으며 후기 미노아시기(B.C.1600—1200)에 이르러 크노쏘스는 왕궁을 중심으로 인구 8만여명을 헤아리는 큰 도시로 발전하였다. 이 궁전은 도시 중심부에 약 170～180m의 4각형의 지역을 차지한 종합적인 대건축물로서 규모가 가장 큰 전형적인 크리티식궁전이다. 궁전은 그를 둘러싼 성벽이나 물홈이 없이 민가와 직접 접해있다. 정확치는 않으나 3～4층으로 된 웅장한 건축물이였을것이라고 추측하고있다. 1층에는 작업장, 식량창고, 무기고, 왕의 보물저장실 등을 비롯하여 약 100개의 방이 있었다. 폐실은 2층에 있었다. 지금까지 남아있는것중에서 가장 아름답고 큰 방은 쌍날 도끼방으로 불리우고있는 대궁전이다. 그옆에 왕의 침실과 욕실이 달려있었다. 대궁전과 좀 떨어진 곳에는 왕의 소궁전과 별장이 있었다. 에게해지방을 쥐락펴락하던 크리티왕국의 위용을 보여주기 위하여 웅장화려하게 건설된 왕궁은 사람들과 외국의 사신들을 위압하였다. 방대한 규모와 복잡한 내부구조로 하여 궁전은 고대그리스사람들속에서 미궁(출구를 찾을수 없는 궁전)으로 불리워왔다. 전설에 아테네의 장수 테쎄우스가 미노스왕의 딸 아리아드나의 도움을 받아 소대가리에 사람몸뚱이를 한 괴물을 죽인 왕궁이 바로 이 궁전이라고 한다. 크리티문화의 정수를 이루고있던 이 왕궁은 B.C. 1500년경 크리티에 침입한 그리스인들에 의하여 파괴되였으나 인차 재건되였다. 그러나 100년후에 다시 침입한 그리스인들에 의하여 전면적으로 파괴된 후 재건되지 못하고 페허로 되였다.

아크로폴리스

고대 아테네시의 성새이며 종교행사의 중심지. 남북 약 150m의 언덕우에 건설된 성새로서 여기에 있는 녀신 아테네의 신전을 비롯한 수많은 유적들은 고대그리스의 발전된 문화를 그대로 엿볼수 있게 한다. 아크로폴리스는 오랜 옛날부터 아테네시의 성새로, 중심지로 되여왔다. 아크로폴리스는 B.C.5세기 후반기에 진행된 대규모적인 건설로 번듯하게 꾸려짐으로써 그리스사람들이 긍지에 넘쳐 자랑하는 곳으로 되였다. 성벽으로 둘러싸인 아크로폴리스는 경사진 언덕에 세워진 줄기둥복도를 통하여 련결되며 모든 종교적행사를 위한 행렬은 여기를 통하여 도시의 그 어데서나 바라볼수 있게 높이 세워진 아테네녀신상이 있는 광장에 이르게 된다. 줄기둥복도의 중심은 5개의 입구가 있는 넓은 벽으로 둘러싸여있으며 이 벽앞에는 두개의 문이 작은 계단으로 련결되여있다. 줄기둥복도앞에 승리의 신 니케의 자그마한 신전이 있다. 아크로폴리스의 정수를 이루고있는것은 지붕에 이르기까지 대리석으로 된 유명한 파르테논신전이다. 아크로폴리스의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하고있는 파르테논신전은 언덕의 바위들과 그밑으로 펼쳐진 벌판과 잘 조화되게 건설되여 보는 사람들의 경탄과 찬사를 자아내고있다. 파르테논과 줄기둥복도사이의 넓은 광장에는 8m너비의 대리석대우에 약 12m의 높이를 가진 금과 상아로 만든 아테네녀신상이 세워져있었다. 파르테논신전의 북쪽에는 아테네의 전설적인 왕인 에레흐테아와 아테네신을 제사지내는 신전인 에레흐테이온이 있다. 세월의 흐름과 더불어 아크로폴리스성곽도 그안의 신전들과 함께 본래의 아름다움과 웅장함을 잃었으나 오늘도 여전히 고대 유럽건축의 최고봉으로 그 위용을 손색없이 보여주고있다.

마께도니아국가

B.C.5—2세기에 발칸반도의 동북지방(마께도니아지방)에 있었던 노예소유자국가.

이 국가가 형성된것은 필리포스2세때(B.C.359—

336)였다. 그는 여러 개혁을 실시하여 중앙집권력을 강화하였다. 중무장보병제(마께도니아 팔랑가)도 그에 의하여 창설되였다. 그는 B.C. 338년에 그리스도시국가들의 련합군을 격파하고 그후 펠로폰네스반도의 대부분을 정복함으로써 전체 그리스를 지배하였다.

필리포스2세가 페르샤정복을 준비하다가 부하에게 암살된 후 20살에 그의 뒤를 이은 알렉싼드로스는 소아시아, 페니키아, 팔레스티나, 에짚트 등 지역을 정복하고 B.C.330년에 페르샤제국을 멸망시켰으며 중앙아시아와 인다스강류역까지 정복하여 불과 10년동안(B.C.334—324)에 동쪽은 인다스강, 서쪽은 지중해연안에 이르는 알렉싼드로스제국을 세웠다.

알렉싼드로스는 각지에 알렉싼드리아라고 불리우는 도시들을 건설하고 그리스인들을 이주시켰다. 이러한 도시가운데서 가장 유명한것은 에짚트의 알렉싼드리아(엘 이스칸다리아)이다.

동방나라들에 대한 정복기간에 우수한 동방문화와 그리스문화가 결합된 헬레니즘문화가 형성되였다.

알렉싼드로스는 원정에서 돌아와 이듬해 새로운 침략전쟁을 준비하다가 열병에 걸려 죽었다.(B.C.323) 그후 군사령관들사이에 제국에 대한 지배권쟁탈을 위한 전쟁이 20여년간 계속되다가 결국 제국은 그리스—마께도니아왕국, 에짚트왕국, 쎌레우코스왕국과 그밖의 몇개의 소왕국으로 분렬되였다.

마께도니아는 B.C.215년부터 B.C.168년사이에 진행된 로마와의 세차례의 전쟁에서 패배당하고 4개의 지역으로 분할되였다. B.C.148년 마께도니아는 로마의 속주로 되였다.

로 마

아뻬닌반도(이딸리아)를 중심으로 한때 서부 및 동남유럽, 소아시아, 북부아프리카연안, 수리아, 팔레스티나를 지배한 고대노예소유자국가.

고대로마의 력사는 라틴인들과 시비니인 그리고 에르투르인들에 의하여 티벨강언덕에 로마도시국가가 세워진 때로부터 시작된다. 전설에 의하면 로마를 창건한 로물루스의 이름을 따서 로마라고 부르게 되였다고 전하고있다. 로마제국은 로마도시국가가 점차적으로 이딸리아와 지중해연안의 대부분지역을 정복하는 형식으로 형성되였다. B.C.754～753년에 왕으로 된 로물루스로부터 시작되는 로마력사는 왕정시기, 공화정시기, 제정시기로 구분된다.

로마통치배들은 삼니트전쟁, 3차에 걸친 카르타고와의 포에니전쟁, 마께도니아와의 전쟁, 수리아와의 전쟁, 갈리아들과의 전쟁 등 수많은 침략전쟁을 벌려 지중해강국으로 되였다. 유명한 스파르타쿠스노예폭동을 비롯한 노예와 피압박인민들의 투쟁이 강화되는데 따라 노예주통치배들은 군사독재 또는 전제적인 왕권을 강화하는 방법으로 계급적지배를 유지하려고 하였다. 그리하여 고대로마에서는 술라의 독재, 1차, 2차의 3두정치, 케자르의 독재를 거쳐 절대적인 황제정권이 세워져 억압통치가 강화되였다.

그러나 로마의 통치체계는 견고하지 못하였다. 1세기 중엽 폭군 네로가 타도된것을 계기로 로마의 위기는 심화되기 시작하였다. 3세기 로마의 사회경제적모순은 극도로 첨예화되여 노예, 빈민, 피정복인민들의 투쟁이 계속되였으며 여기에 페르샤인, 게르만인, 사라마트인의 침입으로 더 큰 타격을 받았다. 로마노예소유자들의 통치위기는 지배계급호상간의 정권쟁탈전에서도 나타났다. 3세기초부터 73년간에 27명의 황제가 바뀌였는데 그중에서 살해되였거나 죽은 황제가 23명이나 되였다.

로마의 통치자들은 자기들의 권한을 절대적인것으로 강화하기 위하여 4세기초까지 탄압하던 그리스도교를 국교로 선포하였으며 제국을 4개 지역으로, 후에는 동, 서로 갈라서 통치하였으나 붕괴의 위기를 막아내지 못하였다. 395년 테시오도시우스1세가 죽고 그의 아들들이 로마제국 동부(콘스탄티노플을 중심으로)와 서부(로마를 중심으로)의 통치자로 됨으로써 종국적으로는 동, 서로마제국으로 분렬되였다. 날로 강화되는 피압박인민들의 폭동과 대토지소유자들의 반항, 게르만족을 비롯한 《야만인》들의 종족이동은 로마의 통치위기를 가일층 심화시켰다. 그리하여 476년 게르만족출신의 군사령관 오도아케르에 의하여 로마제국의 마지막황제가 폐위됨으로써 서로마제국은 멸망하고말았다. 동로마(비잔티아)제국은 1453년까지 존재하였다.

로마의 통치자들은 왕권의 영원성과 자신들의 위훈을 자랑하려는 목적밑에 침략전쟁에서 강

탈한 재물들로 여러가지 탑들과 개선문, 신전들, 화려한 극장들, 목욕탕들, 궁전들을 꾸리고 부화방탕한 생활을 하였다. 그중 유명한것이 판테온신전, 원형극장(콜로세움), 아우렐리우스의 청동기마상, 콘스탄틴대제의 개선문, 아우구스투스황제의 대리석상 등이다. 고대로마의 건축술을 대표한다고도 할수 있는 콜로세움같은것은 천수백년이 지난 오늘에도 거의 원상대로 남아있다. 이러한 원형극장들에서는 여러가지 공연이 진행되였는데 특히 야만적인 검투사들의 경기가 가장 많이 벌어졌다. 이 경기는 칼, 창 또는 방패를 가진 노예－검투사들이 서로 찔러죽이는 싸움이였다. 피에 주린 통치배들은 피를 흘리며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노예－검투사들을 보면서 쾌락을 느꼈다.

고대로마에서는 문학예술이 크게 발전하였는데 특히 장편서사시가 기본을 이루었다.

초기에 로마인들속에서 지배적이였던 토착종교는 후에 고대그리스종교의 강한 영향으로 그리스종교의 변종으로 되였다. 가장 오랜 신은 태양을 상징하는 야누스이다. 야누스는 앞뒤에 두 얼굴을 가진것으로 그려졌는데 언제나 새해의 첫문을 열었다고 한다. 여기로부터 유럽에서는 1월을 야누스신의 달로 부르게 되였다. 그밖의 신들은 고대그리스신들을 로마에 토착시킨것이다. 넵툰(포쎄이돈), 불칸(헤파이스토스), 베누스(아프로디테) 등이 그러한 신들이다. 이러한 신들을 숭배하여 로마의 판테온신전이 세워졌다.

스파르타쿠스노예폭동

B.C.74(73)－71년에 로마에서 스파르타쿠스의 지휘밑에 일어난 노예폭동.

스파르타쿠스는 트라키아에서 태여나 로마에 노예로 팔리웠는데 그후 까뿌아의 검투사학교에 들어갔다. 그는 약 70명의 검투사노예들과 함께 베즈비오산에 도망가 거기에서 폭동을 일으켰다. 폭동대렬은 1만명으로 늘어났다. 폭동군은 로마군대를 격파하였다. 폭동은 남부이딸리아의 거의 전지역을 휩쓸었다. 약 7만명으로 확대된 폭동군은 아폴리아와 루카니아로 진격하였다. 폭동군의 일부는 가라간산부근에서 로마군에 의하여 격파되였으나 스파르타쿠스의 부대는 로마군을 각개격파하고 북부이딸리아로 진격하여 모데니부근에서 또다시 로마군을 격파하였다. 그가 북부이딸리아로 진격한것은 알프스산줄기를 넘어 이딸리아에서 벗어남으로써 폭동자들을 노예의 처지에서 벗어나게 하려는데 있었다. 그러나 그는 되돌아서서 남쪽으로 진격하였는데 그것은 산줄기를 넘는것보다 남부이딸리아를 거쳐 바다를 건느는것이 유리하다고 타산하였기때문이다. 그는 메씨나해협에 이르렀으나 사전에 해적들과 약속한 배들이 마련되지 않아 씨칠리아섬에 건너가지 못하였다. 크라쑤스의 로마군은 길이 55m, 너비와 깊이가 각각 4.5m나 되는 함정을 파고 폭동군을 봉쇄하였다. 스파르타쿠스군은 3분의 2의 희생을 내면서 그것을 돌파하였다. 다시 7만명으로 늘어난 폭동군은 그리스로 건너가기 위해 아드리아해안의 브린디씨움으로 향하였다. 지휘부안의 의견상이로 1만 2천명의 폭동자들이 기본부대에서 떨어져나갔는데 로마군에 의하여 격파되였다. B.C.71년 스파르타쿠스군(약 6만명)은 아폴리아와 루까니아경계에서 크라쑤스부대와 마지막싸움을 벌렸다. 스파르타쿠스는 전사하고 많은 폭동자들이 희생되였다. 로마노예주들은 약 6 000명의 폭동자들을 로마에서 카푸아에 이르는 길가의 십자가에 못박아죽이는 야수적만행을 감행하였다. 스파르타쿠스폭동은 비록 실패하였으나 로마력사에서 가장 큰 폭동으로서 노예소유자계급에게 심대한 타격을 주고 로마노예제도를 밑뿌리채 뒤흔들어놓았다.

케자르(카에사르)

B.C.102 또는 100－B.C.44 고대로마공화정치말기의 독재자. 침략적인 군사령관. 영어로 씨저, 프랑스어로 쎄자르, 로어로 쩨자르라고 불리웠다.

케자르는 율리우스의 오랜 귀족가문에서 태여났다. 17살에 마리우스 민주파의 한사람인 킨나의 딸과 결혼한것으로 하여 그도 민주파로 간주되여 귀족파의 우두머리인 독재자 술라의 탄압을 받게 되자 B.C.84년에 소아시아지역으로 탈출하였다. 술라가 죽은 후 로마에 돌아왔으나 다시 로도스섬에 건너가 웅변술을 배웠다. B.C.70년에 로마에 돌아와 민주파의 우두머리인 폼페이우스를 도와 정치투쟁에 적극 참

가하였다.

그후 에스빠냐의 재무관, 로마의 검찰관을 력임하였으며 B.C.62년부터 에스빠냐의 태수로 있다가 B.C.60년에 귀국하여 폼페이우스, 크라쑤스와 제1차 3두정치를 맺고 B.C.59년에 총령으로 되였다. 그는 B.C.58년부터 갈리아 일리쿰의 태수로 있으면서 전 갈리아지방을 정복하고 도우버해협을 건너 오늘의 영국땅까지 정복하였는데 이 원정기간에 10개 군단의 군대와 막대한 재산을 획득하였다.

B.C.53년 크라쑤스의 사망후 정권장악의 기회를 노리던 케자르는 원로원과 결탁한 폼페이우스가 자기를 갈리아태수직에서 해임하려고 하자 B.C.49년에 1개의 군단을 거느리고 자기의 임지와 본국사이의 경계인 루비콘강을 건너 로마로 진격하였다.

이리하여 로마의 독재자로 등장한 케자르는 자기의 적수들을 모조리 제거하고 에짚트에서 클레오파트라와 동거생활을 하면서 그의 왕위쟁탈을 도왔다. B.C.44년에 종신독재관으로 선포된 케자르는 그밖에 종신호민관, 조사관 등의 요직을 차지함으로써 모든 권력을 독차지하였다. 지어 자신의 립상을 절반 신이라는 글발과 함께 신전에 설치케 하였다. 그는 황제로 선포되지 않았을뿐이지 사실상 황제였다.

케자르는 그의 독재정치에 불만을 품은 카씨우스와 브루투스를 주모자로 하는 공화파의 음모에 의하여 그해에 살해되였다.

케자르는 에짚트에서 력서를 가져다 로마의 력서를 태양력으로 고쳤으며 《갈리아전》, 《공민전쟁기》 등을 남기였다.

그가 황제통치의 기초를 마련하여놓은것과 관련하여 유럽에서 황제라는 말은 도이취어로는 카이제르, 슬라브어로는 짜리로 통하게 되였다.

클레오파트라7세

B.C.69—B.C.30년. 고대에짚트 프톨레마이오스왕조의 마지막녀왕. 프톨레마이오스 12세의 둘째딸. 매혹적인 아름다운 용모에 음탕하고 권세욕이 강한 녀자였다.

17살때 가문의 관습에 따라 9살되는 남동생 프톨레마이오스13세와 결혼하여 공동통치자(하나는 왕, 하나는 녀왕)로 되였으나 후에 동생편의 신하들에게 배척당하여 쫓겨났다. B.C.48년 폼페이우스를 추격하여온 로마의 케자르에 의하여 프톨레마이오스14세와 공동통치를 하게 되였다. 에짚트의 녀왕으로 정권을 독차지한 클레오파트라는 케자르의 애첩이 되여 아들 케자리온을 낳았다. 케자르가 암살된 후 그는 막내동생 프톨레마이오스14세를 죽이고 케자리온을 명목상 공동통치자로 내세웠다. 그는 B.C.41년에 소아시아에 진출한 로마의 장군 안토니우스를 홀리여 옥타비아누스의 누이이며 본처인 옥타비아와 리혼시키고 그와 정식 결혼하였다. 안토니우스와 옥타비아누스사이의 갈등이 격화되여 악티움해전이 벌어졌다. 여기에서 패한 안토니우스는 엘 이스칸다리아에서 자살하였다. 그후 클레오파트라는 옥타비아누스를 홀리려던것이 실패하여 그의 로획물로 로마에 끌려가게 되자 독사에 가슴을 물리워 자살하였다. 그 녀자의 자식들도 모두 살해되여 프톨레마이오스왕조는 멸망하고말았다. 아름다운 용모와 정치적야심으로 이름이 높았던 그를 두고 후세에 빠스깔은 그의 코날이 약간 비뚤어졌어도 력사는 달리 흘렀을것이라고 평하였다.

네로, 클라우디우스 케자르

네로, 클라우디우스 케자르. 54—68년까지 로마황제로 있은 폭군. 그의 에미가 제 남편인 선제왕을 독살한 덕으로 황제가 되였다.

네로(37—68)는 매우 잔인하고 부화방탕한자였다. 그는 59년에 제 에미를 죽이고 62년에는 처를 처형한 후 다른 녀자를 데리고 살았다. 그는 무고한 인민들뿐아니라 원로원의 반대파귀족들까지 야수적으로 탄압학살하고 그들의 재산을 몰수하였다. 그는 연극관람을 매우 좋아하였을뿐아니라 그자신이 배우로 종종 출연하였는데 관중들은 그에게 박수갈채를 보내야만 했고 그렇지 않으면 처벌당하였다. 64년에 로마시의 3분의 2가 불에 탈 때(인민들속에서는 네로가 불을 질렀다는 이야기가 돌았다.) 네로는 타오르는 불길을 보며 시를 읊었다고 한다. 그는 폭압통치에 대한 인민들의 불만을 다른데

로 돌리기 위하여 로마가 불에 탄 책임을 그리스도교인들에게 넘겨씌워 그들을 대량학살하였다. 네로의 통치기간 과중한 조세부담과 폭압정치를 반대하는 인민폭동이 자주 일어났다. 68년 갈리아에서 폭동이 일어난데 이어 로마에서 근위대들까지 폭동을 일으키자 궁지에 빠진 네로는 로마근방의 농촌으로 도망쳐가 그곳에서 자살하였다.

그리스도교

신의 아들이라는 예수를 구세주(그리스도 또는 메씨아)로 내세우고 그에 의한 인류의 구제를 설교하는 종교. 예수교라고도 한다. 신을 야웨, 에호바라고 부른다. 그리스도교는 이슬람교, 불교와 함께 세계 3대종교의 하나에 속한다.

그리스도교에는 신교와 구교가 있다. 구교에 속하는 교파는 카톨릭교와 희랍정교이다. 신교(프로테스탄트교)에는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를 비롯하여 수백개의 교파가 있다.

그리스도교는 1세기에 로마제국의 동부주들인 서남아시아와 근동지역 피압박인민들속에서 발생하였다. 로마노예소유자계급과 반동통치배들의 압박과 착취밑에 신음하던 인민들은 자기들의 처지를 개선할 방도를 알지 못한데로부터 그리스도(구세주)에 대한 신앙과 죽어서 가게 될 신의 나라에 대한 환상을 가지게 되였다.

초시기 그리스도교에는 로마제국에 대한 극단한 증오(《최후의 심판》)와 신국사상이 지배적이였다. 그리스도교는 발생초기에 로마제국의 가혹한 탄압을 받았다. 249—251년에는 로마황제 데치우스의 박해를, 253—260년에는 왈레티우스의 박해를, 284—305년에는 디오클레티아누스의 박해를 받았다. 그러나 2세기 부유한 계층과 귀족들이 교회에 들어가 주인행세를 하기 시작한 다음부터 사교를 정점으로 하는 성직자(교직자)들의 위계제가 확립되였다.

이런 조건에서 로마황제 콘스탄티누스1세(274년경—337)는 313년에 밀라노칙령을 발표하여 그리스도교를 공인하였다. 325년에는 제1차 그리스도교세계회의가 니케야에서 소집되였으며 이 회의에서 니케야신조가 채택됨으로써 그리스도교교리의 기초가 마련되게 되였다. 신약성서와 구약성서가 오늘날과 같은 체계로 편찬된것도 이 시기(4세기)이다.

그리스도교는 로마제국이 395년부터 서로마제국과 동로마제국으로 분렬된 후 그 영향을 받아 로마를 중심으로 하여 유럽에 널리 퍼진 서로마교회와 콘스탄티노플(현재 이스딴불)을 중심으로 하여 그리스와 로씨야에 퍼진 동로마교회로 갈라졌다.

수세기에 걸치는 교권다툼과 교리론쟁끝에 1054년에 구교는 크게 두 갈래로 완전히 갈라졌다. 서로마교회는 저들의 교회를 우주적, 보편적 교회라는 뜻에서 카톨릭교회라고 불렀고 동로마교회는 자기들의 교회를 그리스도교의 정통이라는 의미에서 그리스동방정교회라고 불렀다.

15—16세기 유럽에서는 부르죠아적리익에 맞게 종교를 개혁하기 위한 종교개혁운동이 벌어졌으며 이 과정에 그리스도교의 신교파, 프로테스탄트교가 출현하였다.

17—18세기 유럽나라들에서 종교개혁이 완료되는데 따라 그리스도교는 아메리카대륙으로 전파되였으며 18세기부터는 아시아에 본격적으로 전파되였다. 우리 나라에 그리스도교가 들어온것은 18세기말이다.

현재 세계에는 세계인구의 근 4분의 1이 그리스도교인들이다.

예 수

B.C. 4년경—A.D. 28년. 그리스도교의 시조.

신약성서에 의하여 예수는 팔레스티나의 유태인촌 베들레헴의 마구간에서 출생하여 40일만에 예루살렘(꾸드스)신전에 가서 유태교도가 되였다. 헤로드왕의 어린이학살을 피하기 위해 성모 마리아와 요세프를 따라 에짚트에 갔으며 그후 귀국하여 갈릴레의 나사레트촌에서 살았다. 30살까지 유태교도가 되여 부모와 함께 지내다가 그리스도교의 선구자라고 하는 예언자 요한(요하네)으로부터 세례를 받고 40일간 단식하였으며 그후에는 싸탄(악마)의 유혹을 물리치고 신으로부터 특별한 사명을 받았다고 한다. 그후 《신국》의 복음(유태교와 다른 교리)을 전하기 시작하였는데 12명의 제자〔뻬뜨로, 요하네,

마따이, 안데로, 필립뽀, 바르뜨로마이, 토마스, 야꼬브(세베다이의 아들), 야꼬브(아르바요의 아들), 다다이, 시몬, 유다〕들을 선발하였다. 예루살렘의 많은 사람들은 그를 구세주로 환영하였으나 유태교의 학자들은 신을 모독하고 정치적혼란을 일으켰다는 죄로 그를 박해하였다. 수난을 각오한 예수는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한 후 게쎄마네동산에 가서 신에게 기도하고 나오다가 유다의 변절로 체포되였으며 로마총독재판소의 사형판결에 따라 골고다언덕에서 십자가에 못박혀 죽었다. 예수는 죽은지 3일만에 부활하였으며 40일후에는 예루살렘에 있는 올리브산에서 하늘로 올라갔다고 한다.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그리스도교의 기초축성

예수 그리스도가 종교활동을 시작한 시기는 유태인들이 로마제국의 가혹한 통치밑에서 시달리고있던 때였다. 유태인들은 수세기에 걸친 외래지배자들의 통치에서 벗어나 유태국가의 부흥을 실현하여줄 구세주의 출현을 애타게 념원하였다. 한편 유태교에서는 상층부의 까다롭고 무서운 률법적인 강요가 지배하고있어 사람들을 지치게 하였다. 유태교의 신자대중속에서는 이와 같은 현실세계의 학대와 랭대에 의하여 얼어붙은 내면세계를 죽은 다음이나마 포근히 감싸주는 신의 나라에 깃들려는 종말론적인 기대가 커지면서 엄격한 법관과 같은 률법적종교인 유태교를 개혁하여 사람들에게 친근감을 주는 참신한 종교가 출현하기를 갈망하게 되였다.

목공의 가정에서 태여났고 자신도 목공이였던 예수(B. C. 4년경—A. D. 28)는 소박한 유태교신자대중의 이와 같은 념원과 갈망을 누구보다도 깊이 감수하였을뿐아니라 그것을 자신의것으로 받아들였다. 그는 40일동안 거치른 들판에서 단식하면서 고심어린 탐구끝에 유태교를 계률적인 강요대신 사람들의 풍만한 신앙심이 넘치는 새로운 종교로 갱신할 구상을 무르익혔다. 이 구상에 따라 예수는 처음에 가리라야지방의 공회당이나 산야에서 신의 구제를 알리는 설교활동을 시작하였다. 가리라야지방에서 벌린 2년간의 설교활동으로 예수는 사람들속에서 구세주로 떠받들리웠으며 이 과정에 그리스도교의 기초가 형성되게 되였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러한 성과에 기초하여 신의 구제를 알리는 복음을 더 넓은 지역에 전도할 목적밑에 자신이 직접 선출한 12명의 사도와 함께 유태교의 근거지인 예루살렘(꾸드스)에 들어갔다가 유태교상층부의 음모와 사도의 한사람인 유다의 배신행위에 의하여 십자가에 못박혀 죽었다.

원시그리스도교단의 창설

예수가 십자가에 못박혀 죽은 후 그를 구세주(메씨아 또는 그리스도)로 떠받든 12명의 사도(배신자 유다는 제명되고 그대신 맛데야를 선출)들은 그를 신봉하는 그리스도교를 새로 창설하는데 달라붙었다.

우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윤색하는 신화를 창조하는 일부터 시작하였다. 그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신의 외아들로서 신과 사람과의 련계를 회복하기 위하여 인간세계에 내려왔다는것이다. 그는 인류가 지은 원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박혀 죽었으며 죽은지 3일만에는 인류를 구제하기 위하여 되살아났다는것이다. 그리스도교에서는 이것을 부활이라고 한다.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발견한것은 그를 따르던 녀성신자들이였는데 그들에게서 그 사실을 전해들은 12명의 사도들이 달려가서 그것을 확인하였다고 한다. 그후 40일동안 그는 살아있으면서 때때로 사도들앞에 나타나서 그들이 신의 나라의 복음전도사로 될것이라는데 대하여 예언하고 그들이 지켜보는데서 하늘로 올라갔다는것이다. 부활은 이와 같이 그리스도교에서 신의 세계와 인간세계의 련계를 실현하는데서 핵을 이루며 그리스도교의 신앙거점으로 되고있다.

12명의 사도들은 다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지 50일(하늘로 올라간 때로부터는 10일)만에 그를 구세주로 신봉하는 신앙고백을 하고 순교(선교활동을 하다가 피살되는것)도 마다하지 않으며 적극적인 선교활동을 벌리였다. 그리하여 30년대 예루살렘(꾸드스)에는 력사에서 처음으로 원시그리스도교단이 창설되였다. 그리스도교의 종교력사에서는 이때부터 130～140년대까지를 원시그리스도교단계로 규정하고있다.

이 단계에는 그리스도교가 아직 유태인들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하였다.

그리스도교의 성직자

법왕 카톨릭교회의 최고책임자. 사도 뻬떼로의 후계자, 예수의 대리인으로 간주된다. 원어의 뜻은 아들이 아버지를 부를 때 쓰는 존칭과 같으며 교황이라고도 한다. 초기에는 성직자일반에 대한 존칭으로 되였으나 점차 로마의 교회내에서만 이 말을 쓰게 되였다. 1073년에 있은 교회회의에서 정식 법적으로 고착되였다. 카톨릭교리에 의하면 예수가 자기를 믿는 사람들로 단체를 뭇고 그에 대한 지도를 12사도들에게 맡기였는데 그 사도들의 책임자가 뻬떼로였다. 법왕은 초기에 성직자들이나 일반 신도들속에서 선출되였다. 그러나 11세기경부터는 추기경들속에서 선출되였다.

추기경 로마카톨릭교의 고위급교직자이다. 추기경은 로마법왕이 대주교중에서 지명하는 방법으로 선출한다. 추기경은 로마법왕의 원로원의원이며 추기경회의의 성원이다. 추기경은 로마법왕의 고문이라고 볼수 있다. 추기경은 로마카톨릭교의 종교내각으로 평가되고있는 로마법왕청(바띠까노)의 부서들을 책임진 종교행정장관이기도 하다. 1586년부터 1961년까지는 총 70명의 추기경이 있었는데 이들은 모두 로마법왕청의 행정부서들을 책임지고있었다. 추기경은 1962년에 100명으로, 1970년에는 130명으로 늘었는데 증가된 60명은 해외교구들을 관리하고있다. 추기경에게는 로마법왕에 대한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있다. 법왕이 죽으면 전체 추기경들이 로마의 씨스띠나성당에 모여 법왕을 선출하는데 추기경가운데서 법왕을 선출하는것이 관례로 되고있다. 추기경밑에는 대감독과 감독이 있다. 이 3자를 고위급교직자라고 한다.

대주교와 주교 로마카톨릭교에서 교구를 책임진 교직자이다. 대주교는 큰 교구를 책임진 교직자이다. 일반적으로 수백만의 인구가 있는 큰 도시의 교구를 책임진 교직자들이 대주교로 되고있다. 주교는 그보다 작은 교구를 책임진 교직자이다.

사제 주교를 돕는 교직자로서 주로 종교의식을 주관한다. 사제는 멀리 유태교시기부터 존재하였다. 구약성서에는 《신의 앞에 선 사람》 또는 《신의 노복》이라고 하였다. 미국에서는 교회의 감독과 장로도 사제라고 한다.

신부 주교아래의 사제를 비롯한 모든 로마카톨릭교의 일반교직자들을 통털어 이르는 말이다. 신부는 신의 노복이라는 뜻이다. 그러므로 로마카톨릭교의 교직자는 법왕, 추기경, 주교(대주교), 신부 등으로 크게 가른다. 주교와 신부들로는 따로 사제단을 구성한다.

장로 프로테스탄트교(신교)의 한갈래인 장로교의 교회관리자이다. 장로라는 말은 고대에 유태인들속에서 민중의 대표자 또는 통치자라는 뜻으로 쓰이였다. 장로교에서는 그것이 교회관리자로 전의되였다. 장로는 교회에서 선출한다. 장로에는 선교장로와 치회장로가 있다. 선교장로는 교직자로서 교인들의 종교생활을 지도한다. 치회장로는 교인으로서 교회의 질서를 유지하고 경영활동을 맡아본다.

집사 교파에 따라 직능이 다르다. 로마카톨릭교에서는 사제를 돕는 교직으로 되고있고 프로테스탄트교에서는 목사나 장로를 돕는것으로 되여있다. 세례나 결혼행사를 주관하며 만찬식에서는 장로를 돕고 순회설교도 진행한다.

목사 프로테스탄트교에서 한 교회 또는 몇개 교회를 책임진 목양자를 말한다. 목양자라는것은 목사를 양몰이군으로 비유한것으로서 여기서 양떼는 신자대중을 의미한다. 목사의 직능은 교회에서 례배와 설교, 교육과 행정사업을 주관하는것이다.

전도사 목사나 장로에게 종속되여있으면서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설복하여 교인으로 끌어들이는 일을 맡아보는 교직밖의 직책이다. 교인가운데서 선출한다. 그러나 4년간 련이어 전도사로 일하는 경우에는 장로나 목사로 승급될수 있다. 결혼한 녀인이 전도사를 하는 경우에는 전도부인이라고 한다.

선교사 외국에 파견되여 그리스도교를 선전보급하는 사도를 말한다.

그리스도교의 축제일

그리스도교의 명절과 제사날을 말한다. 프로테스탄트교에서는 크리스마스(성탄절)와 부활절만을 명절로 하고 일요일을 주일(예수의 날이라는 뜻)로 하여 이날에만 례식과 례배, 기도를 한다. 로마카톨릭교의 명절과 제사날은 매우 번잡하다. 로마카톨릭교의 축제일에는 고정축제일과 이동축제일이 있다. 고정축제일은 해마다 일정한 날에 지내는 명절과 제사날을 말한다. 그러한것으로는 크리스마스와 성모 마리아가 하늘로 올라갔다는 날인 8월 15일을 비롯하여 33개나 된다. 이동축제일은 고정되여있지 않는 명절과 제사날을 말한다. 그것은 부활제를 중심으로 하여 이동축제일이 정해져있기때문이다. 기준으로 되고있는 부활제가 고정된 날자로 되여있지 않고 춘분후 첫 만월 다음일요일로 되여있으므로 그로부터 50일째 거행하게 되여있는 성령강림제를 비롯하여 수많은 이동축제일이 해마다 다른 날에 진행되게 된다.

크리스마스 예수 그리스도가 출생한 날을 기념하는 강탄제이다. 성탄절이라고도 한다. 12월 24일은 크리스마스전야, 12월 25일은 크리스마스날이라고 하며 크리스마스로부터 1월 1일 또는 1월 6일까지를 크리스마스절, 크리스마스휴가라고 한다. 교회에서는 예수가 태여난 날을 대경축날로 맞이하는데 사제는 한밤중, 이른새벽, 오전 등 세번에 걸쳐 미싸(신에게 하는 제사)를 한다.

크리스마스나무 율까라고도 한다. 크리스마스전날에 소나무를 세우고 나무가지에 어린 예수에게 주는 선물을 매달아 희생물을 대신하게 하는 행사이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테르는 정원의 나무에 수많은 초를 매달고 불을 켜서 하늘의 별처럼 장식하였다고 한다. 18세기부터 크리스마스나무에 놀이감을 매다는 풍습이 생기게 되였다.

산타클로스 아이들과 학생, 성인들을 보호하는 그리스도교의 성인인 성 니꼴라스의 애칭이다. 북유럽에서는 산타클로스가 붉은 옷을 입고 빨간 양말에 장화를 신고 북극으로부터 8마리의 북극사슴이 끄는 썰매에 놀이감을 싣고와서 크리스마스전날밤에 굴뚝으로 들어와 벽난로에 매단 아이들의 양말속에 선물을 넣고간다는 전설이 생겨났다. 이것이 전유럽에 퍼져 크리스마스전날에 선물을 주고받는것이 풍습으로 되였다. 산타클로스를 크리스마스할아버지라고도 한다.

부활제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는 행사이다. 이스터라고도 한다. 부활제의 전날밤에 닭알을 먹는다. 닭알은 부활과 다산을 상징한다. 부활제당일에는 큰 초에 불을 켜들고 노래미싸를 한다. 부활제날 이른아침에는 해돋이를 맞이한다. 모닥불두리에서 노래하고 춤추는 모닥불행사도 한다. 이때 겨울을 상징하는 인형을 돌팔매로 때려죽이거나 물에 빠뜨려 죽이기도 하고 불태우기도 한다. 이날 목사가 설교에서 우스개소리를 하여 청중을 웃기는 풍습도 있다.

4순절 40일동안 거치른 들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당한 고난을 체험하기 위하여 단식과 속죄를 할것을 규정한 계절이다. 그 계절은 부활제이전의 46일째 수요일부터 부활제전날까지의 일요일을 제외한 40일간으로 되여있다. 이 기간에는 고기를 먹지 않고 신앙생활만 하면서 참회를 하게 되여있다.

사육제 4순절전에 고기를 실컷 먹고 노는 풍습을 말한다. 이 기간은 4순절직전 3일부터 1주일간이다. 여러가지 행렬행사와 명절놀이가 진행된다.

그리스도교의 교파

2세기에 창시된 고대그리스도교는 1054년에 로마카톨릭교와 동방정교로 갈라졌다. 두 교파를 통털어 구교라고도 하였다. 우리 나라에서는 로마카톨릭교를 천주교라고 하였다. 프로테스탄트교는 16세기 종교개혁운동에 의하여 새로 나타난 신교이다. 우리 나라에서는 프로테스탄트교를 그리스도교라고 하였다. 이렇게 되여 로마

카톨릭교, 동방정교, 프로테스탄트교 등의 세 교파가 있게 되였다.

로마카톨릭교 라틴문화에 기초한 구교의 한 교파이다. 로마카톨릭교는 이딸리아, 프랑스, 에스빠냐, 뽀르뚜갈 등 라틴문화지역을 중심으로 세계의 여러 지역에 퍼져있다. 신자총수는 6억이상이다. 로마카톨릭교의 특징은 성서보다 종교의 전통과 의식을 더 중요시하고 로마법왕을 중심으로 한 중앙집권적조직을 가지고있는것이다. 법왕지상주의에 기초한 로마카톨릭교에서는 성서에 대한 해석을 법왕만이 하게 되여있으며 교인들의 신파의 접촉도 성당에서 신부를 비롯한 교직자를 통해서만 할수 있게 되여있다. 따라서 교인들은 성당을 절대화하고 성당에서 벌어지는 종교의식과 규률을 엄격히 지키는것을 철칙으로 하고있다. 그러한 종교의식으로는 세례, 성찬, 참회, 견신례, 결혼식, 종유, 성직임명의 7가지이다. 로마카톨릭교에서는 다른 교파에서 찾아볼수 없는 성모 마리아에 대한 숭배가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있다. 이것은 중세기 서유럽에서 성행하였던 녀성을 존대하는 기사도와 관련된것으로 보아진다.

동방정교 그리스문화에 기초한 구교의 한 교파이다. 그리스카톨릭교, 그리스교, 그리스정교라고도 한다. 동방정교라는것은 동로마제국(비잔티아제국)의 정통을 이루는 종교라는 뜻이다. 동방정교는 발칸반도와 동유럽을 중심으로 하여 서남아시아와 동북아프리카 등에 퍼져있다. 신자총수는 1억 4 000여만명이다. 이스딴불의 총주교를 명예상의 교주로 하고 나라마다 국가교회가 있다. 교리, 의식에서 동방정교와 로마카톨릭교사이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 동방정교에서는 신이 사람들에게 성령을 주는것으로 되여있으나 로마카톨릭교에서는 신과 예수가 다같이 준다고 주장하고있다. 교직자의 결혼문제에서도 동방정교에서는 교직자가 되기 전에 결혼하는것을 허용하고있으나 로마카톨릭교에서는 그것을 일체 불허하고있다. 교회의식에 쓰는 빵도 동방정교에서는 포도주에 적신것을 쓰나 로마카톨릭교에서는 보통것을 사용하고있다. 이밖에 동방정교의 행사, 구조, 우상, 화상, 음악 등이 보다 고대적인 신비성을 띠고있다. 기본교리는 같다.

프로테스탄트교 그리스도교를 자본주의적으로 개조한 16세기의 종교개혁에 의하여 로마카톨릭교에서 갈라져나온 새로운 교파이다. 신교라고도 한다. 프로테스탄트교는 주로 서유럽나라들을 중심으로 하여 세계 여러 지역에 퍼져있다. 신자총수는 3억 5 000만명이다. 프로테스탄트란 항의자라는 뜻이다. 1529년 도이췰란드의 슈바이에르제국회의에서 첫 신교파인 루테르파가 자기들에 대한 박해를 반대하여 항의한것을 계기로 하여 생겨났다. 종교개혁은 1517년 도이췰란드의 신부 마르틴 루테르가 법왕 레오10세의 면죄부판매를 반대하여 95개 조의 반박문을 발표한것이 발단으로 되여 일어났다. 그는 여기서 승직매매와 면죄부판매를 자행하고있는 중세기적승직제도와 복잡한 종교의식을 반대하고 오직 성서를 기준으로 하여 참다운 신앙을 할 때에만 신의 나라로 갈수 있다고 력설하였다. 이것은 본질에 있어서 그리스도교에서 봉건주의를 반대하고 자본주의적인 요구를 내세운 종교개혁운동이였다. 그러므로 프로테스탄트교는 자본주의가 상대적으로 빨리 발전한 서유럽의 도이췰란드, 프랑스, 영국, 스웨리예, 스위스, 네데를란드 등을 기본으로 하여 발생하였다. 프로테스탄트교에서는 법왕청의 결정에 따라 교구와 교회를 내오는 로마카톨릭교와 달리 교인들이 자유롭게 모여서 마음대로 교회를 조직할수 있게 되여있다. 로마카톨릭교에서는 법왕청에서 교직자를 임명하나 프로테스탄트교에서는 신자들이 자기 교회의 교직자를 민주주의적으로 선출하게 되여있다. 교인들이 성당에서 교직자의 매개밑에서만 신파 접촉할수 있는 로마카톨릭교와 달리 프로테스탄트교에서는 매 교인이 성경책을 본보기로 하여 깊은 신앙심만 가지면 신파 직접 접촉할수 있게 되여있다. 이러한 신앙적특성에 기초하여 프로테스탄트교는 여러 갈래로 갈라졌다. 대표적인것은 도이췰란드의 루테르파, 스위스의 개혁파, 영국의 감리교, 프랑스와 스코틀랜드의 장로교, 네데를란드의 바프티스트교, 미국과 카나다의 메소니스트교 등이며 그안에도 수많은 분파들이 있다.

프랑크국가

서게르만족에 속하는 프랑크족이 5세기말에 갈리아를 정복하고 서로마제국령역안에 새로 세운 봉건국가.

민족의 대이동에 의하여 서로마제국령역안에 출현한 다른 종족국가들은 6—7세기에 없어졌으나 프랑크국가는 계속 세력을 확대하였다. 프랑크통치배들은 끊임없는 침략전쟁으로 많은 지역을 정복하고 령토를 넓혔다.

프랑크국가가 가장 강하던 시기는 칼대제(768—814)의 통치시기이다. 이 시기 끊임없는 정복전쟁의 결과 그의 령역에는 서유럽의 대부분지역이 속하였다. 8—9세기에 프랑크국가에서는 봉건화과정이 촉진되였다. 왕족들과 친병들은 봉건적대토지소유자로 자라났으며 자유농민들은 그들에게 예속된 농노로 굴러떨어졌다. 7세기에 나라의 실제적권력은 왕으로부터 궁재(궁정의 최고관직)에게로 넘어갔다. 궁재 피핑은 751년에 왕위를 빼앗고 메로빙왕조를 대신한 카롤링왕조를 세웠다.

피핑의 아들 칼대제와 그의 후계자는 은대지(군사복무를 조건으로 신하에게 주는 토지)를 봉건령주들에게 주어 전문적인 기사층을 만들어냈다. 이것은 왕권을 일시 강화하고 봉건지배층을 형성하는데 일정한 역할을 하였다. 또한 봉건령주들에게 《임무니테드》(자기 령지에서 일부 국가적기능을 수행할수 있는 봉건령주들의 권리)가 주어져 농민들의 농노화가 촉진되고 그들에 대한 봉건령주들의 권한이 강화되였다. 칼대제는 정복전쟁을 적극 벌려 넓은 지역을 강점하고 800년에 황제로 되였다.

프랑크국가에서는 사회계급적모순이 첨예화되여 농민봉기가 자주 일어났다.

841—842년 작센(싹소니아) 농민봉기가 그 실례의 하나이다. 원래 각이한 사회발전단계에 놓여있었고 통일적인 경제토대를 가지지 못한 프랑크국가는 피정복, 피착취인민대중의 투쟁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지방대봉건령주들의 세력이 날로 강화됨에 따라 와해되기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칼대제의 후계자인 루드위히(814—840)가 죽은 후 프랑크국가는 843년 배르뒹조약에 의하여 프랑스, 도이칠란드, 이딸리아로 갈라졌다.

신성로마제국

도이칠란드와 그밖의 왕국들, 공국들 및 지역(이딸리아의 일부, 체스꼬, 부르군드, 네데를란드, 스위스, 오스트리아 및 기타)을 포괄한 중세유럽의 봉건제국. 도이칠란드민족의 신성로마제국이라고도 한다. 962년 도이칠란드 랑 옷토1세가 이딸리아의 북부와 중부를 점령하고 로마법왕으로부터 황제의 칭호를 받았다.

제국의 황제들은 자신을 서로마제국의 황제와 칼대제의 후계자로 자처하였으며 제국이 마치 신에 의하여 세워진듯이 그 이름앞에 신성이란 말을 붙이였다. 제국에서 지배적지위는 도이칠란드가 차지하였고 그밖의 나라들과 지역은 각각 다른 시기에 그리고 서로 다른 정도로(실제상 또는 명의상으로) 황제에게 예속되여있었다. 신성로마제국은 봉건관계의 발전정도가 서로 다르고 경제적련계가 없는 지역들의 불견고한 정치적통합체였다.

신성로마제국은 발생 첫날부터 략탈적이고 침략적이였다. 제국의 황제들은 주로 남부(이딸리아)와 동부(슬라브인거주지)에 대한 침략을 감행하였다. 10—13세기에 제국은 엘바강과 발뜨해연안의 넓은 지역을 강점하였다. 10세기에 로타링겐, 11세기에는 체스꼬와 기타 지역이 제국에 예속되였다.

11—13세기에 제국의 황제와 로마법왕사이에 정치경제적지배권을 위한 싸움이 끊임없이 벌어졌다. 특히 하인리히4세와 법왕 그레고리우스 7세사이의 싸움은 날카로왔다. 이 싸움은 교회, 수도원의 승직임명권을 둘러싸고 표면화되였다. 하인리히4세가 1075년 법왕을 무시하고 몇몇 주교를 직접 임명하자 법왕은 그에게 파문을 선포하였다. 황제가 파문(신앙의 권리의 박탈)되면 신하들은 황제에게 복종할 의무가 없어진다. 황제의 파문을 계기로 불만을 품고있던 봉건귀족들이 그를 반대하여나서자 바빠맞은 하인리히4세는 몇몇 시종을 거느리고 알프스산을 넘어 이딸리아의 까놋싸에 있는 법왕을 찾아가 죄인이 참회할때 입는 삼베옷을 걸치고 3일동안 눈속에서 용서를 빌어 겨우 파문이 해제되였다는 유명한 까놋싸의 행차도 이때에 있은 일이다.

13세기부터 황제권은 급속히 약화되였다. 봉

건관계가 발전함에 따라 개별적봉건공후들의 세력이 강화되였다. 제국의 침략정책과 황제와 법왕간의 싸움은 봉건적분산성을 촉진하였으며 황제권은 더욱더 유명무실하게 되였다. 제국에 포함되였던 여러 지역들이 떨어져나갔으며 13세기 후반기에 이르러서는 이딸리아에 대한 지배권을 상실하였고 15세기말에는 스위스와 기타 지역이 독립하였다. 그러나 황제들은 자기의 령지를 늘이고 유럽에 대한 지배권을 장악할것을 획책하면서 반동적인 신성로마제국의 부흥을 떠들어댔다.

30년전쟁(1618—1648)을 종결지은 웨스트팔리아강화조약은 제국의 분산성을 촉진시켰으며 제국령토에 대한 황제의 지배권을 완전히 유명무실하게 만들었다.

명목상 존재한 신성로마제국은 프랑스의 나뽈레옹1세와의 전쟁에서 도이췰란드가 패배하고 1806년에 제국의 마지막황제 프란쯔2세가 퇴위함으로써 그 존재를 마쳤다.

십자군원정

11세기말부터 13세기에 걸쳐 서유럽봉건령주들이 토지와 재부를 략탈하기 위하여 동방나라들에 대하여 감행한 침략적군사원정. 원정참가자들이 군기나 군복에 십자가표식을 한데로부터 십자군원정이라고 불렀다.

원정의 침략적목적은 동방이슬람교들의 수중에서 성지예루살렘의 해방, 카톨릭교회의 보호 및 보급이라는 기만적인 구호로써 가리워졌다. 카톨릭교회는 이슬람교를 구축하고 카톨릭교회의 세력을 확대하며 더 많은 재부와 토지를 략탈하기 위하여 십자군원정에서 주도적역할을 하였다. 이른바 성지회복이라는 간판밑에 원정을 발기하고 조직한것은 로마법왕이였다. 국왕과 봉건령주들, 기사들, 지중해무역을 틀어쥐려는 이딸리아상인들이 이 원정에 적극 참가하였다. 초기의 원정부대에는 봉건적압박으로부터 벗어나며 빼앗긴 토지와 자유를 동방에서 찾으려는 농민들도 망라되였다.

동방나라들에 대한 략탈적인 십자군원정은 로마법왕 우르바누스2세에 의하여 1096년에 제1차 원정이 선포된 후 1270년까지 8차(제1차 1096—1099, 제2차 1147—1149, 제3차 1189—1192, 제4차 1202—1204, 제5차 1217—1221, 제6차 1228—1229, 제7차 1248—1254, 제8차 1270)에 걸쳐 감행되였다. 1212년에는 허황한 종교적선동으로 아동십자군까지 조직하여 동방침략에 내몰았다.

원정에 참가한 유럽의 왕들과 봉건령주들이 지휘하는 십자군들은 동방나라들에 침입하여 《그리스도교들이 아닌 사람들은 모조리 죽이라.》고 웨치면서 이슬람교도들과 인민들을 닥치는대로 죽이고 략탈하였으며 모조리 파괴하고 불살라버렸다. 제1차 원정때에는 소아시아, 예루살렘을 강점하고 파괴, 략탈, 학살만행을 감행한 후 그곳에 십자군국가들을 세우고 여기에 속한 모든 토지는 유럽봉건령주들에게 분할하였으며 토착농민들을 농노로 만들었다.

십자군원정이 종교의 외피를 쓴 침략적인 원정이였다는것은 제4차 원정에서 여실히 드러났다. 로마법왕 인노겐트3세의 호소에 따라 유럽봉건령주들에 의하여 조직된 제4차 원정에서는 성지회복이라는 간판마저 집어던지고 그리스도교국가인 비잔티아제국을 공격하여 이 나라를 위기에 몰아넣었다.

그러나 8차에 걸친 유럽봉건령주들의 십자군원정은 동방인민들의 반침략투쟁의 강화, 유럽봉건령주들내부에서의 알륵과 불화 등으로 하여 패배로 끝났다.

십자군원정을 통하여 동방의 발전된 경제와 문화가 서유럽에 보급됨으로써 서유럽에서는 생산력과 과학, 문화가 크게 발전하였다. 한편 원정은 동방의 과학과 문화를 심히 파괴하고 그 발전에 큰 저애를 주었다. 십자군원정이라는 말은 그후 이와 류사한 력사적사건들과 오늘 반제자주를 위한 인민들의 투쟁을 반대하는 제국주의련합세력의 침략행위를 두고서도 쓰이고있다.

처녀영웅 쟌 다르끄

쟌 다르끄(1412—1431)는 프랑스의 한 농민가정에서 태여났다.

그가 성장하던 시기는 프랑스와 영국사이에 100년전쟁이 벌어지고있던 시기였다.

프랑스의 일부 령주들의 배신행위로 영국군대에 많은 지역을 빼앗긴 프랑스는 위기에 처하게 되였다.

오를레안성도 위기에 처해있었다.

당시 16살의 어린 농촌처녀였던 쟌 다르끄는 자기가 신으로부터 프랑스를 구원하라는 계시를 받았다고 하면서 황태자 샤를(후에 샤를7세)의 승인을 받아 200명의 군인을 거느리고 오를레안성을 탈환하기 위한 싸움에 나섰다.

백마를 타고 앞장선 그의 뒤를 따른 200명의 군인들은 영국군대를 격파하고 오를레안성을 탈환하였다.

쟌 다르끄의 용감한 애국적장거에 고무된 프랑스군대는 많은 령토를 되찾을수 있었다.

그러나 그는 어느 한 전투에서 프랑스의 한 봉건령주의 배신행위로 체포되여 영국군대에 압송되였다.

영국군대에서는 그를 종교재판에 회부하고 화형에 처하였다. 그때 그의 나이는 19살이였다.

100년전쟁이 프랑스의 승리로 끝나고 샤를7세의 왕권이 회복되자 쟌 다르끄는 프랑스의 민족적 영웅으로 칭송되고 후세에 길이 전해지게 되였다.

쟌 다르끄의 소행에 감동된 프랑스화가 쟝 오귀스뜨 도미니끄(1780—1867)는 쟌 다르끄를 형상한 유명한 초상화 《쟌 다르끄》를 내놓았다.

쟌 다르끄를 형상한 문학작품도 많이 창작되였다. 그중 대표적인것이 도이췰란드극작가 쉴레르의 희곡 《오를레안의 처녀》(1802)와 미국작가 마크 트웨인의 력사소설 《쟌 다르끄》(1895)이다.

《너야말로 신동이로구나》

단떼는 중세기 학교범위안에서 얼마간의 교육밖에 받지 못하였으나 청소년시절에 벌써 문학을 비롯한 여러 분야의 지식을 쌓고 견문을 넓혀 피렌쩨의 문사들을 무색케 할 정도로 박식하였다.

어느해 여름 일요일이였다. 교회당에서 례배식을 마치고 마을사람들과 함께 집으로 돌아가던 어떤 문사가 록음이 우거진 공원에서 들려오는 어린아이의 랑랑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였다. 어린아이가 읊는 시는 고대로마의 철학가이며 시인인 루크레티우스의 철학적서사시 《사물의 본성에 대하여》였다. 한자리에 못박힌듯 서서 시랑송에 귀를 강구고있던 문사는 《저 어린것이 시의 뜻을 알기나 하고 저렇게 주절댈가?》라고 생각하며 시랑송자에게로 다가갔다. 아이는 여전히 무대에서 배우가 시랑송을 하듯 청을 돋구어 시를 읊고있었다.

《얘야, 너의 감정을 깨뜨려서 안됐구나. 금방 읊은 〈요컨대 아무것도 멸하지 않나니〉 이 대목을 다시 외워보렴.》

등뒤에서 하는 이 소리에 시읊기를 멈추고 몸을 돌린 어린아이는 그를 쳐다보며 묻는것이였다.

《제가 시를 틀리게 읊었나요?》

《아니다. 기나긴 시를 한자도 틀림없이 줄줄이 외워대는것이 너무 신기하고 기특해서 그런다.》

순간 어린아이의 얼굴에 비꼈던 당황한 빛은 사라지고 뾰로통한 기색이 어렸다.

《전 또 틀리게 읊었나 했지요.》

《그런게 아니래두. 내가 외워보라던 그 대목을 되풀이해보렴. 그 대목을 다시 듣고싶구나.》

《그래요? 다시 외우라면 못 외울줄 아나요? 잘 들으시라요, 틀리나…》

아이는 오돌차게 대답하고나서 쟁쟁한 목소리로 감정을 살려 읊는것이였다.

요컨대 아무것도 멸하지 않나니
그것은 마치 모든것이 멸하는것과 같으니라
자연은 항시 무엇인가로부터 어떤것을
　산생시키여
어떤것의 죽음이 없이는 아무것도 출생
　하지 않느니라

《얘야, 넌 이 시의 뜻이 뭔지 알기나 하고 읊느냐?》

그 사람은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어보는것이였다.

《아저씨, 뜻도 모르고 읊을가요?》

자기를 얕잡는것 같은 그의 물음에 어린아이는 그루를 박듯 또렷한 목소리로 대답하는것이였다.

《세상만물은 미세한 물질의 결합에 의해 발생해요. 이 물질은 영원히 불멸해요. 만물은 끊임없이 변하고 영원히 운동하지요. 그렇지요? 저의 말이 맞지요?》

문사는 그 대답에 그만 아연해지고말았다.

《얘야, 너야말로 신동이로구나. 나같은 어른들도 해득하기 힘든 시의 뜻을 척척 대답하니…》

대견스럽게 어린아이를 바라보던 사나이는 《뉘집 애인지… 피렌쩨에 없는 천재를 낳았군.》하고 중얼거리며 혀를 찼다.

《얘야, 넌 장차 무엇이 되려니?》

《저도 시인이 될래요.》

《옳다. 넌 크면 피렌쩨의 대시인이 될수 있다.》

문사를 놀래운 13살안팎의 아이는 어린시절의 단떼였다.

이처럼 단떼는 어릴적부터 고대그리스와 로마시인들의 시를 줄줄 외웠다.

단떼와 베아뜨리체

단떼는 자기가 쓴 작품에 대하여 각별한 애착심을 가지고있었다. 그렇기때문에 그 누구든지 자기 작품을 모욕하는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한번은 단떼가 거리를 지나가고있었는데 한 대장쟁이가 망치를 두드리며 흥얼흥얼 노래를 부르고있었다. 알고본즉 단떼자신이 지은 시를 흥얼흥얼 제멋대로 부르고있었다.

단떼는 아무 말도 없이 대장간으로 성큼 들어가 쌓여있는 철물들을 닥치는대로 거리에 내던졌다. 그랬더니 대장쟁이가 노발대발하여 달려들었다.

《이놈이 미쳤나. 너 어쩌자는거냐?》

단떼도 그에게 지지 않았다.

《너야말로 어쩌자는거니.》

《나야 내 장사를 하고있는데 너는 왜 남의 물건을 손상시키는거야.》

《자기 물건이 귀중하면 내것도 귀중히 해주게.》

《이놈, 내가 언제 네것을 못 쓰게 했단 말이냐?》

그러자 단떼가 《너는 내가 만든 노래를 부르고있는데 내가 만든대로 부르지 않고있다. 나의 장사는 시란 말이다.》라고 하니 대장쟁이는 한마디도 항변을 못했다고 한다.

한번은 이런 일도 있었다.

단떼는 고서점에서 필요한 책을 입수하였다. 너무 기쁜 나머지 하숙집 대문앞에 기대여 시간가는줄 모르고 탐독하였다.

그날은 마침 명절날이여서 악대와 행렬이 하루종일 지나갔는데 단떼는 거기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책의 세계에만 심취되여있었다.

단떼는 저녁종소리가 울렸을 때에야 비로소 머리를 쳐들었다.

지나가던 한사람이 《행렬이 참 재미있었지요?》라고 묻자 단떼는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라고 어안이 벙벙해서 대답했다는것이다.

단떼의 시적재능은 서정시를 산문으로 련결시킨 시집 《신생》에서 나타났다. 시집에서 단떼는 베아뜨리체에 대한 사랑의 감정을 노래하였다.

원래 베아뜨리체와 나이가 같은 단떼는 9살때 처음 그 녀자를 본 후 18살때 다시 만나 사랑에 불탔다고 한다. 그러나 베아뜨리체는 딴 곳으로 시집가 1290년 25살의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단떼의 적지 않은 작품들에는 베아뜨리체가 순결한것의 상징으로 등장한다.

단떼는 대표작인 서사시 《신곡》을 창작함으로써 유럽에서 중세문학을 총화하고 문예부흥에로의 길을 열어놓은 첫 시인으로 되였다.

갈릴레이

갈릴레오 갈릴레이(1564－1642)는 이딸리아의 이름난 물리학자이며 천문학자이다.

그는 18살때 삐자의 사원에서 천정에 매단 등불의 흔들림을 보고 《흔들이의 동시성》을 발견하였다. 당시 의학을 공부하던 그는 이 현상을 응용하여 맥박계를 만들었다. 그는 21살에 삐자대학을 졸업하고 1589년에 그 대학 교수로 되였다. 이무렵 삐자의 사탑우에서 락하실험을 하여 그때까지 절대진리로 인정받아오던 아리스토텔레스학설의 오유를 증명하고 물체의 자유락하법칙을 발견함으로써 현대력학확립의 기초를 쌓았다.

1609년에 망원경을 발명하고 그것을 천체관측에 리용하여 목성의 위성, 달의 반점, 태양의 흑점을 발견하였다. 꼬뻬르니끄의 지동설을 지지한탓으로 종교재판을 두번이나 받고 갇힌 몸이 되고 두눈까지 멀었으나 력학과 물리학분야에서 거둔 자기의 연구성과들을 종합하여 저서를 썼다. 78살에 교회의 박해로 외롭게 사망하였다.

그는 일생 혼자 살면서 과학연구사업에 몰두하였다.

《그래도 지구는 돈다》

아르키메데스와 더불어 뉴톤이전의 최대의 과학자로 불리우는 갈릴레이는 일생동안 갖은 구박과 고생속에서도 오직 과학의 진리를 위해 살았다.

당시 교회에서는 꼬뻬르니끄의 지동설을 배

척하고있었으며 그것을 지지하는 사람을 이단자로 몰아 종교재판에서 처형하였다.

그러나 갈릴레이는 1609년에 네데를란드에서 발명된 망원경의 배률을 높여 이것을 가지고 처음으로 천체를 관측하고 목성의 위성과 달의 산과 골짜기, 태양의 흑점 등을 발견하였으며 꼬뻬르니끄의 지동설을 지지했다. 이듬해 피렌쩨공국의 꼬씨모2세의 초청을 받아 궁정제1수학자 겸 삐자대학 교수로까지 되여 과학자로서의 그의 가치가 인정되였으나 그의 지동설은 여전히 많은 반대에 부딪쳤다. 교황청에서는 1616년부터 공식적으로 그 학설을 가르치거나 선전하지 못하게 금지령을 내렸다. 후에 그에게 호의를 보이였던 우루바누스8세가 교황으로 즉위하자 그는 수년간의 침묵을 깨고 당국의 검열을 받아 1632년에 유명한 《천문학대화》(또는 《세계설대화》)를 발표하였다.

그러나 이 책이 말썽이 되여 이듬해 종교재판을 받게 되였다. 이때 그는 70살의 고령이였다.

그는 법정에 다시는 지동설을 주장하지 않겠다고 서약하고 풀려나왔다.

그러나 진리에 대한 그의 신념만은 굽힐수가 없었다.

법정을 나가면서 갈릴레이는 《그래도 지구는 돈다.》고 중얼거렸다.

그후 그는 피렌쩨교외의 별장에서 감시를 받으며 여생을 보냈다. 그는 1638년 《력학대화》(또는 《신과학대화》)를 네데를란드의 한 서점을 통하여 몰래 발표하였다.

1637년 그가 장님이 되자 감시는 좀 누그러졌으나 죽은 뒤에는 공식적으로 장례를 지내지 못하게 하였다.

이렇게 갈릴레이는 갖은 구박과 천대를 받으면서도 과학연구사업에 한생을 바쳤으며 마침내 분석적방법과 종합적방법의 통일이야말로 근대과학의 방법임을 밝힘으로써 근대자연과학의 창시자의 한사람으로 되였다.

꼴룸부스

크리스또퍼 꼴룸부스(1446년경—1506)는 세계적으로 이름난 항해가이다.

이딸리아의 제노바에서 출생하였다. 15세기말 유럽사람들은 아프리카남단을 돌아 인디아로 가는 항로를 찾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꼴룸부스는 당시 천문학자들이 내놓은 지구구체설(지구가 둥글다는 학설)을 믿고 유럽으로부터 서쪽으로 항행하는것이 인디아로 가는 가장 가까운 길이라고 생각하였다. 이것을 실증하기 위하여 모색하던 끝에 1492년 8월 3일 에스빠냐녀왕 이사벨라의 동의를 얻어 3척의 배와 88명의 선원들을 인솔하고 제1차 탐험의 길에 올랐다. 10월 12일 아침 드디여 바하마제도의 와트링섬(싼쌀바도르섬)에 이르렀다. 꼴룸부스는 그것이 인디아의 일부라고 생각하고 서인디아라고 이름지었다.

계속하여 그는 꾸바섬, 아이띠섬에까지 이르렀다. 그후 3차에 걸친 탐험에서 쟈메이커섬, 뿌에리또리꼬섬, 소안띨제도의 대부분의 섬들과 트리니대드토바고섬 등 까리브해의 여러 섬들 그리고 중앙아메리카와 남아메리카의 해안지대를 발견하였다. 그러나 그때까지도 그것이 신대륙이라는것을 몰랐다. 그후 16세기초에 그 륜곽이 처음으로 밝혀지게 되였다.

꼴룸부스의 아메리카대륙탐험을 계기로 이 대륙에 대한 유럽식민주의자들의 저주로운 침략과 략탈의 력사가 시작되였다.

꼴룸부스는 아메리카원주민들이 재배하고있던 강냉이와 감자 그리고 담배를 유럽에 가져다 퍼뜨렸다.

꼴룸부스의 닭알

꼴룸부스가 아메리카대륙을 발견하고 무사히 돌아왔다. 사람들은 그를 개선장군처럼 환영하였다. 그러나 꼴룸부스의 인기를 질투하면서 좋아하지 않는자들도 있었다.

어떤 연회석상에서 비방군들은 대륙의 발견이 뭐 그리 대단한가, 배를 서쪽으로 몰고가다가 우연히 아메리카대륙에 부딪쳤을뿐이지 하면서 시비하였다.

꼴룸부스는 《그것은 그렇소. 나도 별로 자랑할 생각은 없소. 다만 제일 먼저 착상한 점만 자랑스럽게 생각할뿐이요.》라고 대답하였다.

그리고는 책상우에 놓여있는 닭알 하나를 들고 《이것을 누구든지 세워보시오.》라고 주위의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그곳에 있던 사람들은 저마다 닭알을 책상우에

세워보려고 별의별 시도를 다해보았다.

그런데 누구도 닭알을 세우지 못하였다.

그러자 꼴롬부스는 《이건 별로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자 보십시오, 내가 세워놓을테니.》라고 말한 다음 닭알 한끝을 가볍게 책상모서리에 부딪쳐 깬 다음 책상우에 세워놓았다.

이것을 보고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하면 누구든지 못하겠는가.》고 불평하였다.

그러자 꼴롬부스는 《물론 누구든지 할수 있지요. 그러나 여러분은 이러한 방법을 몰랐으며 나만이 착상한것이요. 신세계발견도 이와 마찬가지의 리치요.》라고 말하였다.

마갈량이슈(마젤란)

페르난드 마갈량이슈(마젤란, 1480년경—1521)는 첫 세계일주려행가이다. 그는 뽀르뚜갈의 귀족출신이였으나 왕에 대한 불만으로 에스빠냐에 국적을 옮기였다.

당시 뽀르뚜갈과 에스빠냐사이에는 령토획득을 위한 경쟁이 심하였다. 뽀르뚜갈이 극동지방에 있는 섬들은 다 자기 나라 섬들이라고 주장하자 에스빠냐는 당시 향료제도로 이름난 동남아시아의 몰루까제도를 먼저 차지하고 자기 령토라는것을 주장하려고 하였다.

마갈량이슈는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1519년 8월 10일 5척의 작은 배와 280명의 선원을 인솔하고 쎄밀항을 출발하여 남아메리카의 동해안을 따라 남쪽으로 항행하였다. 남반구 겨울의 불리한 날씨와 싸우면서 1520년 10월 21일 남아메리카남단에 도달하였다. 이 과정에 한척의 배는 마사지고 또 한척의 배는 조난당하였다.

그후 계속하여 대륙과 푸에고섬사이의 해협〔후에 마갈량이슈(마젤란)해협이라고 함.〕을 지나 11월 28일 대양으로 나왔는데 그 바다가 고요하다 하여 태평양이라고 이름지었다. 폭풍은 만나지 않았으나 음료수와 식량부족으로 심한 고통을 겪으면서 93일만에 괌섬에 이르렀고 그로부터 1주일후에 필리핀군도에 도달하였다. 마갈량이슈는 쎄부섬 추장과는 친하였으나 부근의 마르단섬 추장과의 싸움에서 죽었다.

선원들은 남은 한척의 배(빅토리아호)를 타고 아프리카의 남단 희망봉을 돌아 1522년 9월 9일에 에스빠냐에 돌아왔다. 이리하여 남은 선원들(18명)로서 세계일주려행이 수행되였다. 마갈량이슈자신도 뽀르뚜갈에 있을 때 쟈와섬, 몰루까제도(향로제도) 등에 항행하였으므로 그도 사실 세계일주를 한것으로 된다.

가 마

바슈꾸 다 가마(바스꼬 다 가마, 1469년경—1524)는 뽀르루뚜갈의 이름난 려행가로서 처음으로 인디아에로의 항로를 개척한 사람이다.

15세기 중엽 오스만제국이 지중해동부지역을 점령하고 아시아와 유럽사이에 교역되는 무역품에 많은 세금을 가하게 되자 뽀르뚜갈상인들은 아프리카의 남단을 돌아 인디아에 도달할 항로를 발견하기 위해 고심했다.

그리하여 1488년에 바쏘로뮤 디아스는 오늘의 아프리카남단 희망봉에 이르렀다. 그후 1497년 7월 8일 바슈꾸 다 가마는 4척의 작은 배를 가지고 리스봉을 떠나 4개월후에 자기가 《폭풍우갑》이라고 이름지은 지점(후에 희망봉으로 고침.)에 도달하였다. 그런 다음 그는 두번(1502—1503년과 1524년)에 걸쳐 인디아를 항행하였다.

마르꼬 뽈로

마르꼬 뽈로(1254—1324)는 이딸리아려행가, 베네찌아의 상인가정에서 태여났다.

그는 이미 중국에 한번 다녀온바 있는 아버지 니꼴로, 삼촌 맛페오와 두명의 카톨릭교전도사와 함께 1271년 베네찌아를 떠나 바그다드, 카슈미르, 빠미르고원을 거쳐 고비사막을 횡단한 후 1275년 원나라의 수도인 상도(오늘의 베이징)에 도착하였다. 그는 일행과 함께 원나라의 세조 후비라이를 만난 후 그의 환대를 받으면서 원나라에 체류하였다. 이 기간 그는 중국의 넓은 지역과 먄마, 인디아, 인도네시아까지 려행하였다.

1290년 원나라에서 왕녀를 몽골제국의 한 왕조인 이르칸국의 왕에게 출가시킬 때 마르꼬 뽈로는 그 일행을 안내하여 페르샤에 갔다가 그길로 25년만인 1296년에 고향 베네찌아로 돌아왔

다. 마르꼬 뽈로는 그후 지중해의 무역에 종사하였으며 1298년에는 베네찌아와 제네바와의 전쟁이 일어나자 전쟁에도 참가하였다. 이때 그는 제네바에 포로되여 1년간 투옥되였다가 석방되여 베네찌아로 돌아왔다.

그는 감옥에 있는 동안 함께 구류되여있던 삐자의 띠게로라는 사람에게 자기가 동방을 려행할 때 보고 들은 이야기를 받아쓰게 하여 《동방견문록》을 만들었다. 《동방견문록》은 문예부흥기의 서유럽에서 동방에 관한 지식을 주는 유일한 원천으로 되였다. 그는 베네찌아에서 죽었다.

박식과 등잔기름

어느날 술집에서 진탕치듯 마신 한패의 불량배들이 서로 주먹질을 하며 싸움판을 벌렸다.

때마침 술집곁을 지나가던 녀인들이 이 광경을 보고 말을 주고받았다.

《미개한 야만들 같으니라구.》

《저게 다 머리통이 빈 때문이지. 박식한 깜빠넬라를 보지, 얼마나 존경을 받나.》

마침 싸움판에 끼여들었던 한사람이 녀인들의 말을 듣고 정신을 차렸다.

(미개한 야만! 존경받는 깜빠넬라!)

그는 급히 옆에 쓰러져있는 사람을 흔들어 깨웠다.

《여보게, 존경받는 깜빠넬라가 누군가?》

《그런 사람이 있다더군.》

《그 사람이 박식한데 우리같지 않다는거야. 찾아가서 물어보지 않겠나?》

《뭘 물어봐?》

《어떻게 하면 박식해져서 존경을 받는가를!》

이렇게 되여 그들은 깜빠넬라를 찾아가게 되였다.

술주정뱅이들이 들어서자 책을 읽던 깜빠넬라는 눈이 둥그래졌다.

《미안하지만 한가지 물어볼게 있어서 왔습니다.》

《무언가? 물어보게.》

《아낙네들까지 우리를 미개한 야만이라고 비웃으면서 존경을 받으려면 당신같은 사람이 돼야 한다고 하는데 그래 당신은 어떻게 되여 그렇게 박식합니까?》

그들의 말을 들은 깜빠넬라는 오래동안 호탕하게 웃더니 이렇게 대답하였다.

《내가 자네들이 지금까지 진탕치듯 마신 술량이상으로 등잔기름을 사용했기 때문이라네.》

술주정뱅이들은 깜빠넬라의 말뜻을 리해했던지 슬그머니 꽁무니를 빼고말았다.

일리저버스(엘리자베스)1세

1533—1603년. 영국의 녀왕(통치기간: 1558—1603). 헨리8세의 딸로 그리니지에서 출생하였다. 1558년 메어리녀왕(배다른 언니)이 죽자 25살에 왕위에 올랐다. 그는 고전에 능하고 외국어도 잘하였으며 력사와 문학에도 밝고 음악을 좋아하였다고 한다. 종교정책에서 카톨릭교를 반대하여 1559년에 《수장령》과 《례배통일령》을 제정하고 1563년에 《39개 신앙조항》을 발표하여 국교제도를 확립하였다. 1568년 스코틀랜드녀왕이였던 메어리가 투항해왔을 때 받아들였으나 후에 자기를 반대하는 음모에 가담했다는것이 폭로되자 1587년에 메어리를 사형에 처하였다. 이 음모에는 에스빠냐왕 필리프2세도 가담하였는데 일리저버스가 네데를란드의 독립을 지원하는것을 못마땅하게 여겨오던 그는 메어리의 처형을 계기로 1588년 대함대를 편성하여 영국을 공격하였다. 그러나 영국해군은 에스빠냐의 무적함대를 격파하고 해상권을 장악하게 되였다. 이것은 후날 영국이 해양국, 식민지제국으로 될수 있은 기초로 되였다. 그는 국내적으로는 의회를 무시하고 점차 전제정치를 실시하였다. 일리저버스는 에스빠냐의 필리프2세를 비롯하여 유럽제국 군주들의 거듭되는 구혼을 거절하고 평생 독신으로 45년간 통치권을 유지하였다.

간신의 화신 이아고

쉐익스피어가 창조한 부정인물가운데서 이아고만큼 독자들의 저주를 받은 인물도 드물것이다.

하기에 17세기초 영국에서 비극 《오셀로》가 공연되자 첫날부터 이아고를 저주하며 규탄하

는 목소리가 극장안에 차고넘쳤다고 한다.

비극 《오셀로》가 17세기초 영국에서 첫막을 올린 때로부터 300여년의 세월이 흐른 20세기초 어느 한 연극극장에서 있은 일이다.

무대에서는 간신 이아고의 흉계가 드디여 성공하여 오셀로가 자기를 배반한 데스디모나의 목을 누르는 장면이 펼쳐졌다.

관중들은 순결한 녀성의 참혹한 죽음앞에서 전률하였다.

이 순간 《땅!》하는 요란한 총성이 장내를 뒤흔들었다. 웬 총소리인가?

다음순간 《으악.》하는 단말마적인 비명소리와 함께 무대우의 이아고가 가슴을 움켜쥐며 쓰러졌다. 손가락짬으로 시뻘건 피가 랑자하게 흘렀다. 극악무도한 이아고의 죽음에 관중들은 자리를 차고일어나 가슴후련히 환성을 터쳤다.

그러나 침대우에서 쓰러져 죽은것으로 여겼던 데스디모나가 째지는 비명을 지르며 화닥닥 뛰쳐일어나고 뒤따라 연출가며 배우들이 알아듣지도 못할 고함소리를 지르며 무대로 달려나올 때에야 비로소 관중들은 현실로 돌아왔다.

극장은 아비규환의 란무장으로 화해버렸다. 얼혼을 빼앗겼던 사람들은 그제서야 어렴풋이나마 사태의 진상을 가늠하였던것이다. 그러던찰나에 울리는 또 한방의 총소리!

《악!》 사람들은 다시한번 경악하였다. 이번에는 관람석에 앉아있던 한 장교가 피투성이가 되여 쓰러졌다. 자기가 연극을 보고있으며 권총을 뽑아들어 쏴눕힌것이 이아고역을 맡은 배우였다는것을 깨달은 그 장교는 뒤늦게야 돌이킬수 없는 실책을 뉘우치고 스스로 자결의 길을 택했던것이다.

이 사건은 온 도시를 진감시켰다. 이아고역을 맡아 수행한 사람은 미국의 이름난 배우 윌리엄 번즈였다. 시민들은 그들 두사람을 합장하고 묘비에 《제일 리상적인 배우와 제일 리상적인 관객》이라고 써넣었다.

진정 쉐익스피어는 이 비극 하나만 가지고서도 세계적인 문호로서의 예술적기량을 남김없이 시위하였다.

동시에 력사는 이아고와 같은 극악한 간신들이 곁에 있으면 돌이킬수 없는 파국적후과를 초래한다는 교훈을 남기고있다.

라 퐁땐의 우화

매미와 개미

온 여름 노래만 부르던 매미
찬바람 불어오자
가엾은 신세되였네
파리도 벌레도 아무것도
구할래야 구할길 없어
굶주림을 참다못해
이웃 개미네 집을 찾아가
돌아오는 여름까지 연명이나 하게
낟알을 꾸어달라고 하소연했네
《추수절 오기 전에 어김없이
변까지 붙여 갚아드리리다》
꾸어주는것도 허물이라
개미는 그것이 싫어서
꾸러 온 매미더러 하는 말이
《여름철엔 뭘 하셨나요?》
《노여워마세요, 밤낮없이
아무에게나 노래만 불러드렸답니다》
《노래만 불렀다니? 참 잘살았군요
그러면 이제는 춤만 추며 사시구려》

까마귀와 여우

까마귀샌님 입에 치즈덩이 하나 물고
나무끝에 앉아있는데
여우샌님 냄새맡고 달려와
먼저 수작을 걸었네
《안녕하십니까? 까마귀님
어쩌면 그렇게도 아름답습니까!
소리마저 털빛처럼 고우시다면
틀림없이 숲속의 봉황새련만…》
이 말에 까마귀는 기쁨에 겨워
정말 고운 소리 들려주려고
까욱하자 치즈덩이 떨어졌네
기다리던 여우 냉큼 받아물고 하는 말
《인심좋은 까마귀님, 잊지 마십시오
아첨쟁이란 아첨받는 사람덕에 살아간다오
교훈도 이만하면 치즈값은 잘되리다》
부끄럽고 창피한 까마귀
늦기는 했지만 속다짐하였다네
다시는 이런 잔꾀에 넘어가지 않겠다고

승냥이와 어미염소와 새끼염소

어미염소 한마리
늘어진 젖통에 젖을 채우려고
새싹 돋는 풀밭 찾아 집을 떠날 때
문에 빗장 질러 든든히 채워주면서
새끼염소들에게 신신당부하는 말
《누가 와도 함부로 문 열어주지 말라
  암호로 승냥이 망하라고 말하기 전엔
  누가 오든지 절대로 열어주지 말라》
어미염소가 이렇게 당부할 때
공교롭게 승냥이 그리로 지나다가
그 말을 죄다 엿듣고
가슴깊이 새겨두었다네
어미염소 떠나가자 승냥이녀석
어미염소의 흉내내여
《승냥이 망해라
  문 좀 열어다우》
하고 자못 점잖은 목소리로 말하고나서
문이 열리면 뛰여들 생각하고있었으나
의심많은 새끼염소들 문틈으로 내다보며
《흰 손을 보여줘요
  그렇잖으면 못 열겠어요》
이렇게 소리치니 마른 하늘에 벼락!
아다싶이 흰 손은
승냥이세상에는 있을수 없는 손
그래서 승냥이 너무도 놀란 나머지
오던 길로 되돌아 제 소굴로 뺑소니쳤네
우연히 듣고 승냥이가 외운 암호를
그대로 믿고 문을 열어주었다면
어린 염소들의 운명이 어떻게 되였을것인가?

두차례의 경각성이
한차례의 경각성보다 나은것은 물론이고
보다 경각성이 지나쳐서
손해본 일 없다는것을 산 경험은 말해주네

쥐들의 회의

로딜라르듀스라는 고양이 한마리
쥐들을 모조리 잡아족친 바람에
수많은 쥐들은 몰살되고
남은 쥐 몇마리 감히 나다닐수 없어
간신히 구한 량식 간에 기별조차 못하니
가련한 쥐들에겐 원쑤같은 로딜라르듀스
고양이가 아니라 악마로 보였네
어느날 고양이 주제넘게 녀자를 찾아
이리저리 쏘다니던 끝에
마침내 귀부인을 만나 하루밤 지내는 동안
남은 쥐들 으슥한 한구석에 모여앉아서
눈앞에 다달은 급한 일을 의논해봤네
먼저 좌중의 원로격인 신중한 쥐 한마리
점잖게 수염 쓸며 내놓는 말
기회를 잃지 말고 지금 당장
방울을 구해다가 고양이목에 달면
싸우러 달려와도 요란한 방울소리
그놈이 오가는 곳을 제때에 알려주니
그 소리 듣고 숨어버리면 되지 않나
이보다 기묘한 계교 더는 없겠다고
모두들 그 의견에 찬성했네
그러나 막상 방울을 달자하니 의논이 분분…
《나는 못 가겠네 바보가 아닌 이상》
《나도 못 가겠어》
모두들 슬슬 꽁무니를 빼다나니
할일없이 회의는 깨여졌네

비록 쥐회의는 아니지만 승려회의 사교회의
  무슨 회의
오만가지 회의들을 다 보았으나
모두가 실속없는 쥐회의와 방불하네

연설들을 할 땐
고문관이 궁전에 차고넘쳐도
실천이 요구될 땐
사람그림자도 보이지 않네

프랑스국가 《마르쌔이애즈》

프랑스국가를 《마르쌔이애즈》라고도 한다.

프랑스부르죠아혁명시기인 1792년 스뜨라스부르시장은 공병상위 르제 드릴에게 출정하는 군인들을 위하여 새로운 노래를 만들도록 하였다.

르제 드릴은 흥분에 싸여 하루밤사이에 노래를 작사, 작곡하였다.

이튿날 아침에 극장의 한 가수가 이 노래를 출정하는 군인들앞에서 불렀는데 큰 감동을 불러일

으켰다. 그리하여 그 자리에서 의용병지원대가 900명으로 늘어났다.

스뜨라스부르가 라인강좌안에 위치하고있었기때문에 이 노래를 처음에는 《라인군가》라고 하였다.

그후 이 군가는 모든 부대에로 급속히 전파되였다.

루이16세가 퇴위하던 날 의용병들은 이 노래를 소리높이 부르며 빠리 샹젤리제거리를 행진하였다. 거리에 모여든 사람들은 환호성을 올리면서 이 노래를 따라불렀다.

빠리시민들은 마르쎄이지원군들이 이 노래를 부르면서 빠리로 진군하였기때문에 그들이 가지고온 노래라는데로부터 이 노래를 《마르쎄이애즈》라고 하였다.

1795년 《마르쎄이애즈》를 프랑스국가로 한다는것이 선포되였다.

같은 해에 이딸리아가극작곡가 쌀라엘리는 《빠리미라》라는 책에서 처음으로 《마르쎄이애즈》에 대하여 소개하였으며 1833년 도이췰란드 작곡가 슈만은 작품 26번 《원사육제》에서 이것을 주요선률로 리용하였다.

와그네르, 리스트, 챠이꼽스끼 등 유럽의 유명한 작곡가들도 《마르쎄이애즈》를 높이 평가하였다.

1870년에 이 노래는 정식으로 프랑스국가로 제정되였다.

《피가로 만세!》

《피가로의 결혼》이 완성된 때로부터 3년후에 국왕 루이14세가 대본을 읽고 노발대발하였다.

《절대로 이 극을 무대에 올려서는 안된다. 이 극을 무대에 올리는것은 바스띠유감옥을 파괴하는것이나 다름없다. 이자는 나라에서 마땅히 신성한것으로 되여야 할 모든것을 조소하고있다.》

하지만 보마르쉐는 이에 수그러든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나 자기의 극작품을 기어이 무대에 올리기 위하여 백방으로 노력하였다.

하여 오래동안 공연금지령을 받았던 《피가로의 결혼》은 창작된지 5년만인 1784년 4월 27일 마침내 첫 공연의 막을 올리였다.

백작의 흉계를 통쾌하게 꺾어버리고 피가로와 슈잔느의 결혼으로 막이 내리자 장내를 들었다놓는 폭풍같은 박수와 환호성이 터져올랐다. 당시 극장의 관례에 따라 박수는 세번이상 보낼수 없게 되여있었으나 관중들은 저도 모르게 열광적인 박수갈채를 보내고 또 보내였다. 경찰들이 중지령을 내렸으나 터져오르는 박수와 환호를 막을수 없었다. 제아무리 훌륭한 공을 세운 개선장군이라 할지라도 이에 비길수는 없었다. 이렇듯 공연은 첫시작부터 관중들의 마음을 완전히 틀어잡았다.

관중들은 하인 피가로를 백작 알마비바와의 일대 일의 사랑싸움의 승리자로, 오만한 상전인 귀족의 코대를 꺾어놓은 일개 하인으로가 아니라 봉건제도를 뒤집어엎을 평민력량을 암시하는 인물로 보았던것이다.

공연이 끝나자 관중들은 감격과 흥분을 억제하지 못해 서로 어깨를 겯고 《피가로 만세!》를 목이 쉬도록 웨치면서 밤이 지새도록 왕궁주위를 돌았는가 하면 일부는 무리를 지어 빠리시내를 행진하였다고 한다.

관중들이 귀족통치배들에게 통쾌한 타격을 가한 피가로에게 열렬한 박수갈채를 보내고있을 때 귀족통치배들은 보마르쉐에 대하여 악의를 품고있었다.

《피가로의 결혼》에 대한 터무니없는 중상의 글을 발표한 왕의 동생과의 론쟁으로 보마르쉐는 쌩-라자르감옥에 투옥되였다. 이곳은 소년범죄자들을 가두는 감옥이였다.

보마르쉐에 대한 이러한 모욕적인 징벌은 빠리시민들의 분노를 불러일으켰다.

이에 질겁한 국왕은 5일만에 보마르쉐를 석방하지 않을수 없었다.

백작과 피가로의 대결이 결국은 국왕과 보마르쉐와의 대결로 번져진셈이였다.

보마르쉐가 감옥정문을 나서자 수많은 시민들이 《피가로 만세!》, 《보마르쉐 만세!》를 웨치면서 그를 열렬히 환영하였다.

보마르쉐는 빙긋이 미소를 지으며 그들의 환호에 답례하였다.

프랑스부르죠아혁명에 이바지한 비극 《브루따스》

프랑스부르죠아혁명시기 볼때르의 력사비극 《브루따스》가 봉건군주의 요새를 점령한 군

중들앞에서 공연되였다. 공연을 본 관중들은 집회를 열고 브루따스처럼 싸우자고 웨치면서 궐기하였다.

《브루따스》(1731)는 고대로마의 전설적이야기에 기초하여 전제왕권을 반대하고 자유애호사상을 옹호한 작품이다.

비극의 주인공 브루따스는 폭군 타르키누스왕을 내쫓고 로마의 자유를 되찾은 고대로마의 영웅이다.

그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특히 티티누스는 조국을 수호하기 위한 투쟁에서 용맹을 떨친 젊은 용사였다.

브루따스는 언제나 아들에게 《너는 너자신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요구하지 말고 자기의 피를 로마에 깡그리 바치라.》고 교양하였다. 이러한 아들이 사랑에 빠져 조국에 대한 의무를 망각한다.

티티누스는 추방당한 전제폭군의 딸 튤리를 사랑하였는데 공화국의 원쑤들이 그것을 리용한다. 그들은 튤리를 미끼로 하여 그가 공화국을 버리고 자기들의 편에 설것을 요구한다.

처음 그 치욕적인 요구를 일축했던 티티누스는 교활한 음모가들의 끈질긴 유혹과 애인 튤리의 꾀임수에 넘어가 공화국을 배반하는데로 나간다.

그러나 원쑤들의 음모는 폭로되고 그들은 일망타진된다. 브루따스는 자기가 그토록 교양한 아들이 치욕스러운 반역의 길을 택했다는것을 알게 되자 서슴없이 아들에게 사형선고를 내린다.

브루따스는 이렇게 말한다. 《일어서라! 아버지를 포옹하라. 나는 너를 나보다 먼저 저승으로 보내지 않으면 안되는구나.… 가라! 떳떳하게 형벌을 받으라.》

원로원과 동료들은 단 한번만이라도 아들의 죄를 관대히 용서해줄것을 청원했으나 브루따스는 그를 단호하게 징벌한다.

《로마는 자유를 얻었다. 무엇이 더 필요하겠는가?》

이러한 힘찬 웨침으로 막이 내린다.

이 작품의 애국주의적기백과 자유애호사상은 프랑스부르죠아혁명시기 프랑스인민들에게 고무적힘을 주었다.

이 작품이 나온 이후 이와 비슷한 형상들이 적지 않게 창조되였다.

고골리의 중편소설 《따라스 불바》에서 반역자가 된 아들을 제손으로 처단하는 불바의 형상, 고리끼의 《이딸리아이야기》에서 반역자가 된 아들을 제손으로 징벌하는 어머니의 형상 등은 다 그러한 실례로 된다.

《씬데렐라》

프랑스작가 샤를 뻬로(1628－1703)가 1697년에 내놓은 동화. 뻬로의 《옛말집》에 수록되여있다.

작품은 심술사납고 욕심많은 계모와 그 딸들의 학대밑에서 고생하던 녀주인공이 선녀할머니의 도움으로 왕자와 결혼하게 되는 이야기를 통하여 봉건사회가 빚어내는 악덕을 비판하고 행복한 생활에 대한 당시 인민들의 지향을 반영하고있다.

옛날 프랑스에 귀엽고 사랑스러운 처녀애가 있었다. 그는 어머니를 잃고 아버지와 단 둘이서 살고있었다. 얼마후 아버지는 새 어머니를 맞아들였다.

그런데 계모와 그의 두 딸은 그 애가 너무 고운데 시샘이 나서 그를 박대하였다. 그후 아버지가 병으로 세상을 떠나자 계모는 그 애에게 누데기옷을 입히고 머슴처럼 부려먹었다. 그리고 그가 늘 재를 뒤집어쓰고있다고 하여 씬데렐라 즉 재투성이아이라고 불렀다.

어느날 계모는 두 딸을 곱게 치장시켜 왕궁에서 열리는 무도회에 데리고 갔다. 홀로 남은 씬데렐라는 슬피 울었다. 이때 선녀할머니가 나타나 마술을 써서 그를 공주처럼 차리게 하고 호박으로 마차를, 쥐로 말들을 만들어내더니 귀여운 유리신발까지 신겨 무도회장으로 떠나보냈다.

그는 왕궁에서 대환영을 받고 인기를 독차지하였다. 왕자는 잠시도 그의 곁을 떠나지 않았다. 다음날에도 역시 멋지게 차리고 왕자와 함께 춤을 추던 씬데렐라는 선녀할머니와 약속한 밤 12시가 되자 급하게 달려오다가 유리신발 한짝을 잃어버렸다.

그후 왕자는 신하들에게 분부하여 그 유리신발에 발이 맞는 처녀를 찾게 하여 끝내 씬데렐라를 찾아냈다.

이리하여 씬데렐라는 왕자와 결혼하여 행복하게 살게 되였다.

동화는 마음씨 곱고 부지런한 씬데렐라를 한편

으로 하고 간악한 계모와 그 두 딸을 다른 편으로 하는 갈등을 통하여 당대 현실을 반영하였다.

씬데렐라의 성격에는 당시 근로자들의 선량하고 근면한 품성이 그대로 반영되여있다. 작품은 여러가지 동화적사건들을 만들어내고 녀주인공을 불행에서 건져냄으로써 그에 대한 인민들의 동정과 행복한 생활에 대한 지향을 표시하였다.

작품은 선하고 의로우며 부지런한것에 대한 찬양과 학대받는 사람들에 대한 동정을 담고 당대의 세태생활을 생동하게 보여준것으로 하여 유명한 동화로 알려지게 되였다.

크롬웰, 올리버

1599—1658. 17세기 영국부르죠아혁명시기에 활동한 군사지휘관. 독립파의 우두머리. 하틴던에서 출생하여 학교에 다녔다. 그후 케임브리지대학에서 공부하면서 청교도의 영향을 받았으며 고향에 돌아와 자기 령지에서 살았다. 1628년에 하원의원으로 되였다. 1642년 영국에서 국내전쟁이 일어나자 그는 의회측에 서서 농민, 수공업자들로 구성된 강력한 기병련대를 편성하여 그들을 지휘함으로써 많은 전투들에서 커다란 군사적승리를 이룩하였다. 이로부터 그의 기병대는 무쇠기병으로 불리우게 되였다. 1644—1645년 크롬웰의 군대는 국왕 챨즈 1세의 군대를 격파하고 부르죠아혁명의 승리를 앞당겼다. 크롬웰은 1648년에 군대를 동원하여 의회로부터 장로파를 축출하였으며 인민대중의 압력에 의하여 1649년 1월에 국왕 챨즈 1세를 사형에 처하고 그해 5월에 영국을 공화국으로 선포하였다. 크롬웰은 우로부터의 반혁명을 기도하는 왕당파를 진압하는 동시에 밑으로부터의 평등파와 개간파의 민주주의운동도 탄압하였다. 1650년에 시작된 스코틀랜드폭동을 진압한 후 1653년에 개인독재정권인 보호경정치를 수립하였다. 그는 1657년에 의회에서 왕으로 선거되였으나 공화파장병들이 반대해나서자 사퇴하였다. 그는 상원이 복구된 후 상하량원이 충돌하자 이를 해산해버리고 군대의 지지에 의거한 독재정치를 실시하였다. 그는 1658년에 사망하여 웨스트민스터성당에 묻히였으나 3년후 반대파들이 그의 유해를 파헤쳐 목을 잘랐다고 한다.

땜쟁이로부터 작가가 된 바니언

바니언은 땜쟁이의 집에서 태여나 불우한 생활을 하였다.

그는 16살때 어머니와 누이를 다 여의고 군대에 징집되였다가 제대되여 아버지처럼 땜쟁이노릇을 하였다.

그가 얼마나 가난했던지 가난한 처녀와 결혼했을 때 그의 집안에는 밥그릇과 숟가락밖에 없었다고 한다.

그는 장인의 영향을 받아 신교에 심취되였다.

그의 첫딸 메리는 소경이였다.

안해가 죽자 그는 영국국교를 반대하는 자유교파에 들어가 맹렬한 전도사업을 벌렸다. 영국교회는 그를 무자격자라고 천시했지만 자유교인들은 그를 존경하였다.

그는 1660년 쌈쎌촌에서 집회를 조직하고 설교를 하다가 순경에게 체포되였다.

순경은 《땜쟁이가 땜질이나 하지 무슨 전도냐. 다시 전도하지 않기로 약속하면 집으로 돌려보내주마.》고 했으나 《사람들을 예수앞으로 인도하는 일은 중지할수 없다.》고 우기여 벨포드감옥에 투옥되였다.

그는 공정한 재판을 기대했으나 재판관의 방해로 결국 6년간 감옥살이를 하였다. 그는 가족을 부양하기 위하여 감옥안에서 녀자옷에 붙이는 레스를 만든 다음 앞 못 보는 딸 메리를 시켜 감옥문밖에서 팔게 했다.

감옥안에는 자유교파에 속한 신자들이 많이 있었다. 그는 여기서 《넘쳐나는 은총》을 비롯하여 종교적색채가 진한 책을 썼는데 옥스퍼드의 한 학자는 이 책을 그의 가장 훌륭한 자서전이라고 평가하였다. 1666년에 석방되여 집에 돌아온 그는 피골이 상접한 눈먼 딸을 껴안고 통곡했다고 한다.

그는 그후 또다시 체포되여 6년동안 감옥살이를 하다가 1672년에 석방되였다.

그는 석방후 자격을 얻어 베드포드교회의 목사로 설교활동을 계속하였으나 1675년에 다시 투옥되여 6개월간 옥중생활을 하였다. 이 기간 그는 대표작인 우의소설 《천로력정》(《천당으로 가는 길에 지나가는 로정》이라는 뜻)을 창작

하였다.

1678년 2월 이 책이 발행되자 그해에 2 000부가 팔리고 다음해에 삽화증보판이 나왔는데 사람들의 주목을 끌어 해석판까지 나왔다. 첫 10년간에 10만권이 팔리고 세계 여러 나라 말로 번역되였다.

1684년에는 《천로력정》 후편이 나왔다.

영국의 벨포드거리에는 3m나 되는 바니언의 동상이 세워져있는데 거기에는 다음과 같은 글발이 적혀져있다.

《용감히 살려고 힘쓰는자여!》

번즈의 시

보리알 죤(담시)

동방에 사는 세사람의 왕
권세가 도도하고 잔인하였네
보리알 죤은 사정없이 죽여야 한다고
그자들은 서로이 맹세했다네

그자들은 보습으로 갈아엎어 그를 묻고선
머리우에 두둑이 흙을 덮었네
보리알 죤이 이제는 영낙없이 죽었노라고
그자들은 서로서로 굳게 믿었네

그러나 따뜻한 봄철이 돌아와
봄비가 보슬보슬 내리자
보리알 죤은 다시금 솟아올라
왕들을 모두다 놀라게 했네

여름철의 찌는듯 한 해볕 쪼이자
그의 몸은 굵어지고 굳세여졌네
머리는 날창들로 무장이 되여
어느 왕도 감히 손대진 못했네

온화한 가을철에 들어서면서
그는 열매맺기에 파리해갔네
수그러진 그의 머리, 꾸부린 마디마디는
기운이 진해감을 말해주었네

익어가며 빛갈은 누렇게 날아
그의 몸은 점점 더 늙어만 갔네
그러자 원쑤들은 때가 왔다 날뛰며
온갖 악형 다하려고 달려들었네

날카롭고 길다란 무기들을 들고와
그의 무릎 뭉텅 잘라버렸네
그리고는 수레에 단단히 비끄러맸네
돈을 위조한 악한이나 붙잡은듯이

엎치락뒤치락 그의 몸 뒤채기며
원쑤들은 사정없이 후려갈겼네
바람부는 바깥에 매달아놓고
몇번이고 몇번이고 뒤집군 했네

그래도 모자라서 원쑤들은
캄캄한 구뎅이에 물 가득 채워
그속에 보리알 죤을 처박아넣고는
가라앉든 떠오르든 내버려뒀네

그리고는 마루창우에 건져내여서
다시금 그의 몸을 괴롭히였네
그래도 숨결이 붙어있는걸 보군
이리저리 흔들며 못살게 굴었다네

이글이글 타는 불에 올려놓고서
뼈끝까지 모조리 태워버렸네
그중에도 방아군이 제일 악독해
두개의 돌짝으로 그의 몸 갈아버렸네

그리고는 그의 심장의 피를 뽑아서
사람들은 돌려가며 마시였다네
그렇게 더욱더 마시면 마실수록
그들의 즐거움 더욱더 넘쳐났네

보리알 죤은 대담한 용사
고매한 모험심이 넘치는 용사
그러므로 그의 피 마시기만 하면
용기는 백배천배 용솟음치네

그것은 사람들의 슬픔을 잊게 해주며
그것은 사람을 기쁨에 젖게 하며
그것은 과부의 마음 노래부르게 하네
설사 그 녀자 눈에 눈물이 고인다 해도

그러니 우리 농군들 서로서로 잔을 드세나
보리알 죤을 위해 축배 드세나
우리 조상땅 스코틀랜드에서
위대한 그 후손들 번창하라고

청 빈

정직한탓에 가난하게 산다고
머리 수그려 지낼 까닭 어데 있느냐?
비루한 종살이는 바라지 않는다
차라리 가난해도 떳떳하게 살리라!
이러쿵저러쿵 지껄이라지
우리네 고생은 귀족 못된 그탓뿐
신분이란 돈잎에 새겨진 허울
뭐뭐하여도 진짜알맹인 사람이란다

맛없는 음식으로 끼니 이으며
누데기 걸쳤다고 꺼리낄것 있느냐
바보에게 좋은 비단 악당에게 술이 있다손
 쳐도
그자들의 사람됨을 바꿀수야 있으랴
이러쿵저러쿵 지껄이라지
겉치레만 번지르르 그저 그것뿐
가난하다 하여도 정직한 사람이 바로
이 세상의 으뜸가는 사람이란다

저기 거들거리는 귀족이란 작자를 보라
걸음걸이 뽐내며 흘겨보지만 그저 그것뿐
그의 말을 받드는자 있다손 쳐도
알고보면 바보여서 쓸말은 없다
이러쿵저러쿵 지껄이라지
그의 훈장이며 리봉을 보고도
독립된 몸으로 사는 사람은
그따위 모든것 비웃으며 경멸한단다

왕은 자기의 충복들인 귀족을
후작이며 공작으로 만들수는 있지만
정직한 사람들을 지배하진 못한다
결단코 그렇게는 하지 못한다!
이러쿵저러쿵 지껄이라지
그자들의 위업이란 그저 그것뿐
지혜의 힘과 참된것의 영예는
신분이나 위엄보다 한결 높단다

그러면 그날이 오게 우리 서로 일하자
지혜와 참된것이 이 세상에 군림할
그날은 기어코 온다
어떤 일이 있어도 오고야만다
이러쿵저러쿵 지껄이라지
누가 뭐라든 그날은 오고있으니
그날이 오면 누가 뭐라든
온 세상 사람들은 서로서로 형제가 된다

작가의 힘

스위프트는 정치문제에 늘 깊은 관심을 가지고 정치투쟁에도 적극 참가하였다.

17세기말 영국에서는 윌리엄 오렌지공이 죽고 그의 처제 안나가 왕위를 계승하였다. 녀왕을 등에 업은 집권당인 위그당의 반동통치는 근로대중을 말할수 없는 빈궁속에 몰아넣었다.

이 시기 에스빠냐에서는 왕위계승문제를 둘러싸고 복잡한 사태가 빚어졌다. 그것은 영국과 프랑스가 제가끔 자기들에게 충실한자를 왕으로 내세우려고 치렬한 암투를 벌렸기때문이다. 1701년 두 나라사이의 암투는 전쟁으로 번져졌다.

장기간에 걸쳐 진행된 이 전쟁은 영국인민에게 헤아릴수 없는 불행과 고통을 들씌웠다. 스위프트는 바로 그때 전쟁을 규탄하는 소책자 《현 전쟁에서의 동맹자들과 과거의 내각의 행동》을 발표하였다. 그는 책에서 전쟁에서 살쪄가는것은 부유한자들이며 피흘리며 재난을 당하는것은 가난한 사람들이라고 까밝히면서 영국군 총사령관 말보로가 뢰물을 받아먹은 사실을 낱낱이 폭로하였다.

소책자가 나가자 온 영국땅은 지배계급에 대한 인민들의 원성으로 끓어번졌다. 사회적압력과 인민대중의 규탄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전쟁두목 말보로는 총사령관직에서 쫓겨나고 영프간의 전쟁을 중지할데 대한 《스위프트강화조약》이 체결되였다. 결국 한 작가가 쓴 책이 10여년간 끌어오던 전쟁을 종식시키는데서 결정적역할을 하였다.

그후 스위프트는 토리당(위그당과 대립되는 지주계급과 국교를 옹호한 당)기관지 《엑자미나》

를 편집하면서 풍자작가로뿐아니라 정치활동가로 널리 알려지게 되였으며 궁정내에도 일정한 세력을 가지게 되였다. 녀왕 안나는 그의 영향력이 커지는데 겁을 먹고 스위프트를 아일랜드의 성 페트리크대사원의 부정승으로 보냈다.

이 시기에 스위프트는 아일랜드를 식민지화하려는 영국지배계급을 반대하여 부명으로 된 책 《직조업자의 편지》를 발표하였다. 그는 이 책에서 아일랜드인민들을 식민지의 올가미속에 몰아넣고 마음대로 억압하고 착취하려는 영국지배계급의 음흉한 속심을 폭로하였다. 당황망조한 영국정부가 그 책의 저자가 누구인가를 알려주는 사람에게는 300만파운드의 상금을 주겠다는 광고까지 내돌렸으나 누구도 신고하는 사람이 없었다. 영국정부는 얼마후 그 책의 저자가 스위프트임을 짐작했지만 감히 그를 체포하지 못했다.

국회에서 안나는 스위프트를 즉시 체포할것을 강력히 제기했으나 많은 대신들이 이를 반대하였다.

영국당국이 스위프트를 체포할 엄두를 내지 못한것은 그를 서뿔리 건드렸다가는 아일랜드인민들이 폭동을 일으킬가봐 몹시 두려워했기때문이였다.

아일랜드총독은 자기는 스위프트의 힘을 빌어 아일랜드를 통치한다고까지 실토하였다.

《스위프트강화조약》과 《직조업자의 편지》는 작가의 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가를 그대로 보여주고있다.

디드로와 루쏘의 우정

디드로는 1749년에 철학론문 《눈뜬 사람에게 교훈을 주는 눈먼 사람의 편지》를 쓰고 귀족들을 공격했다는 리유로 3년간 옥중생활을 한적이 있었다.

루쏘는 디드로가 벵쎈성에 있는 감옥에 갇혀있다는 소식을 듣고 몹시 걱정하였다. 디드로가 감옥에 갇히게 됨으로써 루쏘가 집필하고있던 《백과전서》(루쏘는 음악항목을 담당하고있었다.)의 집필이 일시 중단되게 되였던것이다. 루쏘는 여러가지 방법으로 석방운동을 벌렸으나 좀처럼 해결되지 않았으며 지어 디드로와의 면회마저 거절당하였다.

그러던 어느날 루쏘는 디드로와의 면회가 허락되였다는 소식을 들었다. 루쏘는 디드로를 보자 그를 껴안고 볼을 마구 비벼댔다. 그 자리에는 달랑베르도 와있었다. 그후 루쏘는 이틀에 한번씩 디드로를 면회하러 갔다. 루쏘는 디드로를 면회하기 위해 20리나 되는 거리를 줄곧 걸어다녔다. 마차삯을 치를 형편이 못되였기때문이다.

1749년 여름 어느날이였다. 루쏘는 면회하러 가는 도중 한 잡지에 실린 광고를 보고 걸음을 멈추었다. 거기에는 디죵아까데미야에서 현상론문을 모집한다는 내용이 씌여있었다. 론문제목은 《학문과 예술의 진보는 도덕을 퇴폐시켰는가, 순화시켰는가》라는것이였다.

이 제목을 읽는 순간 루쏘는 자기가 살아오는 과정에 느낀것을 발표할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였다.

루쏘의 생각은 감옥에서 디드로의 지지를 받았다. 집에 돌아온 루쏘는 현상론문을 쓰는데 몰두하였다.

론문이 완성되자 루쏘는 그것을 가지고 디드로에게 달려가 그의 의견을 물었다.

론문을 다 읽은 디드로는 《내용은 기백이 있고 박력이 있지만 론리정연성이 좀 부족하군. 보게, 몇군데 지적해볼테니 참고해서 자네가 고쳐보게.》라고 말하고 자기의 의견을 말해주었다.

《디드로, 고맙네.》

루쏘는 그길로 집에 돌아와 원고를 정리하여 다시 옮겨썼다. 루쏘는 론문에서 《모든 사람은 자연으로 돌아가라》고 주장했다.

루쏘는 론문을 디죵아까데미야에 제출하였다.

그 이듬해인 1750년 여름 디죵아까데미야로부터 론문이 당선되였다는 통지가 왔다. 이로써 루쏘의 이름은 온 빠리에 알려지게 되였다.

괴테의 시 《프로메테우스》

시에서 시인은 폭군 제우스를 향하여 그가 아무리 발악한다 해도 나의 대지, 나의 집, 나의 불아궁은 다칠수 없다고 경고하고 이전에는 어리석었던탓으로 제우스를 우러러보면서 구원을 청하였지만 그것이 헛된짓이였음을 깨달았다고 하면서 폭군을 규탄하였다.

너는 인간의 고뇌와 괴로움을

단 한번이나 덜어준적 있었더냐
너는 고민하는자의 눈물을
단 한번이나마 훔쳐준적 있더냐

시의 마감부분에서 시인은 폭압자의 압제에서 벗어난 자유로운 인간을 찬양하였다.

뾰뜨르1세

1672—1725. 로씨야 로마노브왕조의 제4대 짜리(1682—1725)이다. 뾰뜨르대제라고도 한다. 짜리 알렉쎄이 미하일로비치의 후처의 아들로 태여나 10살에 짜리로 되였다. 그가 즉위한 직후 이복누이인 쏘피아가 실권을 쥐고 이완5세(뾰뜨르1세의 이복형)를 짜리에 즉위시킴으로써 그와 함께 공동통치자로 되여 쏘피아의 섭정을 받았다. 1689년 뾰뜨르1세는 자기의 주되는 적인 쏘피아의 궁정음모를 짓부셔버리고 유일한 짜리로 되였다. 1721년에 그는 로씨야를 로씨야제국으로 선포하고 황제로 되였다.

뾰뜨르1세는 통치기간 지주와 상인들의 리익을 옹호하기 위하여 여러가지 개혁을 실시하여 농노들을 지주들에게 철저히 예속시켰으며 인민대중에 대한 착취와 압박을 강화하였다. 그는 로씨야를 근대화하기 위하여 유럽 여러 나라들을 시찰(1696—1699)하고 로씨야에 유럽문화를 받아들이기에 노력하였다. 그는 우랄과 로씨야중심부에 여러가지 공장, 기업소들과 운하와 도로, 도시를 건설하였으며 군사요새들을 구축하였다. 뾰뜨르1세는 자기의 지배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가관리체계와 군대를 개편하였으며 짜리전제제도를 공고히 하는데 복무할 교육문화발전에도 관심을 돌렸다. 1700년에 력법을 개혁하고 1703년에 로씨야의 첫 신문 《공보》를 발간하게 하였으며 이해에 과학원을 창설하였다. 1703년에 뻬쩨르부르그를 건설하고 그곳을 수도로 만들었다. 뾰뜨르1세는 대외적으로는 해상진출을 강화하는데 주력하였다. 뛰르끼예와의 전쟁(1695—1696), 스웨리예와 그 동맹국들을 반대하는 북방전쟁(1700—1721)을 통하여 로씨야는 아조브해지역과 발뜨해연안을 차지하였다. 그는 핀만에 침몰된 배를 구출할 때 얻은 병으로 1725년에 죽었다.

예까쩨리나2세

로씨야 로마노브왕조의 녀황제. 몰락한 도이췰란드귀족의 딸로서 도이췰란드이름은 쏘피에 아우구스테 앙할드—제르브스트이다. 1745년에 앞날의 뾰뜨르3세와 결혼한 후 예까쩨리나라는 로씨야이름으로 고쳤다. 뾰뜨르3세가 귀족들속에서 신망을 잃게 되자 간신들과 공모하여 자기 남편을 퇴위시키고 1762년에 녀황제로 되였다. 정권욕과 공명심이 강하였던 그는 《문명한 전제제도》라는 간판밑에 농민들에 대한 억압과 착취를 더욱 강화하였다. 예까쩨리나2세는 간신들을 총애하는것을 커다란 락으로 여기면서 국고를 탕진하였는데 간신들에게 상으로 준 토지만 하여도 80여만㏊에 달하였다. 예까쩨리나2세는 1773—1775년사이에 벌어진 뿌가쵸브농민전쟁을 가혹하게 진압하였으며 라지쒜브 등 당시 진보적인 사상가들을 가차없이 탄압박해하였다. 한편 그는 반동적인 대외팽창정책을 실시하여 서부우크라이나, 벨라루씨, 리뜨바를 병합하였으며 1772년에는 프로씨아, 오스트리아와 함께 뽈스까를 분할하였다. 프랑스부르죠아혁명시기에는 그의 영향력이 두려워 이를 악랄하게 반대해나섰다. 예까쩨리나2세는 자기의 적수들의 의기를 꺾고 자신에 대한 환상을 조장할 목적으로 일련의 력사, 문학책들도 썼다고 한다.

작가의 기쁨

1788년 초여름 와이마르공국을 떠나 로마에 와있던 괴테가 이딸리아로 떠나기 전에 있은 일이다.

괴테는 로마에 있으면서 와이마르에서 일시 중단했던 창작을 계속하였다. 시도 쓰고 묻어두었던 《파우스트》의 원고도 꺼내여 다시 쓰기 시작하였다.

이렇게 창작에 열중하던 그는 로마를 떠나기에 앞서 섭섭하고 허전한 마음을 삭이기 위해 어느한 공원을 거닐고있었다.

때는 마침 6월이라 록음짙은 나무그늘밑에서 책읽기 좋은 계절이였다.

괴테가 천천히 거니는데 공원의 한켠의자에서 한 처녀가 조용히 앉아서 책을 열심히 보고있는것이 보였다. 괴테가 그쪽으로 다가가 의자

의 한쪽에 앉자 그 처녀는 보던 책을 덮고 일어나려고 하였다.

《가만, 그 책이 내 책이 아닙니까?》

괴테는 저도 모르게 손을 뻗치며 그 처녀에게 불쑥 물었다.

《미안하지만 이 책은 저의것인데요.》

그 처녀는 당황하여 손에 든 책을 얼른 내보이였다.

《아, 그렇지요. 내가 말을 잘못했습니다.》

괴테는 미안한듯 뒤머리에 손을 가져가며 변명하듯 말했다.

《혹시 책을 잃어버리셨나요?》

《아, 아닙니다. 그건… 그 책은 내가 쓴 책입니다. 하도 반가와서 그만… 실례했습니다.》

순간 그 처녀는 깜짝 놀라 하마트면 책을 땅에 떨어뜨릴번 했다. 자기가 즐겨 읽는 책을 직접 쓴 작가를 만난것이 꿈을 꾸는것 같았던것이다.

괴테도 흥분하였다. 너무도 기쁜 나머지 괴테는 그 녀자와 무슨 말을 주고받았는지 통 기억할수 없었다. …

그후 괴테가 공원에서 만나 사귀게 된 그 처녀, 크리스찌아네는 그의 일생의 동반자로 되였다.

괴테의 재치있는 기지

괴테는 겸손하면서도 사람같지 않은자와는 상대도 하지 않는 불굴의 성미를 가진 사람이였다.

재치있는 3단론법의 어구생략방법으로 한 어리석고 교만한 평론가를 통쾌하게 골려준 괴테의 기질을 보여주는 이런 일화가 전해지고있다.

여든살에 가까운 괴테가 하루는 공원에 산보를 나간적이 있었다. 한사람이 겨우 다닐수 있는 외통길에서 공교롭게도 당시 사회적으로 그 교만성과 안하무인격인 성품으로 하여 비난을 받고있는 무례한 평론가와 맞다들게 되였다.

명성높은 시인 괴테에게 질투와 앙심을 품고있던 평론가는 짐짓 그를 모르는체 하면서 《나는 어려서부터 바보와는 길을 비켜서 양보하지 않는 성미요.》라고 거만하게 말하였다.

공원에서 휴식하고있던 많은 사람들이 (이제 큰 싸움이 벌어지겠구나!)고 숨을 죽이며 이 만만치 않은 두 거두를 주시하였다.

그런데 그들의 생각과는 달리 일이 벌어졌다.

괴테는 상냥하게 웃으며 《나는 정반대입니다. 나는 머리에 털이 돋은 이래 비켜서기는커녕 아예 되돌아서는 성미이지요.》라고 대꾸하더니 오던 길을 되돌아서는것이였다.

그들을 지켜보던 주위의 사람들은 저도 모르게 일어서서 《훌륭합니다, 괴테선생!》, 《이겼습니다, 괴테선생!》, 《멋있게 골려주었습니다, 괴테선생!》하고 환성을 올리였다.

프로씨아국가

유럽에서 반동과 군국주의의 아성이였던 침략적인 도이칠란드국가.

프로씨아(도이취어로 프로이쎈)국가는 도이칠란드봉건세력이 카톨릭교회와 동맹하여 슬라브인들과 리뜨바의 땅을 강점하여 세운 도이칠란드의 두 봉건국가 즉 브란덴부르그와 츄톤기사단국가에 기초하여 1618년에 형성되였다. 당시는 브란덴부르그—프로씨아국가라고 하다가 1701년에 프로씨아왕국으로 되였다.

국가의 모든 정책은 융케르(대지주귀족)들의 리익을 옹호하였다. 프로씨아는 경제적으로 락후하였으며 농노제의 지배로 하여 자본주의적관계의 발전이 억제되였다. 프로씨아통치배들은 군국주의적인 경찰관료제도를 확립하였고 유럽에서 가장 많은 군대를 소유하였다. 그들은 18세기 40년이래 7년전쟁을 벌리고 뽈스까분할에 가담하여 령토를 30만㎢로 넓혔다.

프로씨아는 유럽의 봉건절대주의적반동들의 아성이였다. 프로씨아군대는 1787년 네데를란드에서 민주주의운동을 진압하고 반동적통치체계를 세웠다. 프랑스혁명과 나뽈레옹을 반대하여 전쟁을 벌렸으나 1806년에 나뽈레옹에게 격파당하고 항복하여 령토의 1/3을 빼앗겼다. 프로씨아왕 윌헬름3세는 1813년에 프랑스에 전쟁을 선포하고 반프련합국들과 함께 그를 격파하였다. 1815년에 반동적인 신성동맹에 가담하였다. 융케르들은 막대한 재부를 긁어모으고 자본주의적착취방법을 도입하였다.

1848—1849년에 부르죠아혁명이 일어났으나 실패하였다. 1864년 단마르크와의 전쟁, 1866년 오스트리아와의 전쟁, 1870—1871년

프랑스와의 전쟁을 통하여 프로씨아는 전도이췰란드를 통일하고 도이췰란드제국을 창설하였다.

련방제형식의 제국에서 프로씨아는 지배적자리를 차지하였다. 도이췰란드가 와이마르공화국으로 된후 프로씨아는 나라의 정치생활에서 지도적지위를 보존하면서 그안의 한개 공화국으로 되였다.

1933년 히틀러독재가 수립된 후에 련방제는 페지되였으나 프로씨아는 명목상 그대로 남아있었다.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파쑈도이췰란드가 패망한 결과 프로씨아는 완전히 청산되였다.

맑스의 영향밑에 혁명적시인으로 자라난 하이네

하이네가 맑스와 처음으로 상봉한것은 빠리에서 망명생활을 시작하여 12년세월이 흐른 1843년말이였다.

이날 맑스가 한 말은 시인의 가슴에 절절히 울려왔다.

《지금은 바야흐로 혁명이 태동하는 격동적인 시기입니다. 우리 시대는 오늘의 이 시대를 반영한 혁명적이며 전투적인 시를 요구하고있습니다. 원쑤들을 쳐갈기는 총칼이 되고 대포가 되고 프로레타리아트를 투쟁에로 부르는 나팔이 되고 북소리가 되는 그런 시를 말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것은 선생이 〈경향〉에서 선언한바와 같은 혁명적인 호소성과 전투성으로 충만된 그런 정치시입니다.》

하이네도 맑스의 말에 동감인듯 저으기 흥분된 목소리로 말을 받았다.

《영탄과 애수에 찬 목가적이고 로맨틱한 시가 아니라 불고 울리고 진동케하고 무찌르는 그런 시가 말이지요.》

그후 하이네는 맑스와의 접촉을 통하여 현시대의 중요한 문제들, 아직까지 리해하지 못했거나 리해할수 없었던 문제들에 대하여 명확한 인식을 가지게 되였다. 그리하여 그의 세계관에서는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였을뿐아니라 창작은 더욱 원숙한 높이에 이르게 되였다. 그는 혁명적민주주의립장에 확고히 서게 되였으며 창작방법도 사실주의의 높은 단계로 올라서게 되였다.

1844년 6월 도이췰란드로동계급의 첫 대중적진출인 실레지아방직공들의 폭동이 일어났을 때 시인은 이를 열렬히 지지하여 시 《실레지아방직공》을 써서 싸움에 나선 폭동군중을 크게 고무하였다.

이 시는 처음으로 로동계급을 자본주의사회의 매장자로, 의식적인 투사로 취급한 시로서 시문학사에서 거대한 의의를 가졌다.

당시 루게를 비롯한 부르죠아급진주의자들은 이 폭동에 커다란 정치적의의를 부여할 대신 로동자들의 정기적인 기아의 반란으로, 흔히 있을수 있는 소요로 보는 심히 그릇된 립장을 취하였다.

이에 대한 대답으로 맑스는 이 폭동과 같이 의식적이며 정치적인 성격을 띤 폭동은 아직까지 없었다고 하면서 하이네의 시를 례로 들었다.

《〈실레지아방직공〉을 읽어보라. 이 시는 프로레타리아트가 사적소유에 기초한 사회에 대한 자신의 대립관계에 대하여 만사람들에게 다 들리도록 예리하고 선명하게 그리고 힘있게 선포한 전투적웨침이다.》

같은 해에 시인은 전제정치와 압박이 없는 새 사회에로의 지향과 반동들에 대한 비타협적인 증오심을 표현한 서사시 《도이췰란드, 겨울이야기》를 내놓았다.

그밖에도 이 시기 하이네가 《도이췰란드—프랑스년지》에 발표한 창검과도 같이 예리한 풍자시와 정치시들은 다 맑스의 영향과 직접적인 지도를 받으며 쓴것으로서 심오한 정치사상적 내용을 담고있다. 실로 이 시기야말로 하이네의 창작의 전성기였으며 최절정을 이룬 시기였다고 말할수 있다.

그리하여 지난날 련정시의 대가로 불리웠던 하이네가 이때부터는 예리한 풍자시인으로, 사회정치시인으로 이름을 떨치게 되였다.

반 격

하인리히 하이네는 의지가 굳세고 대바른 사람이였다. 그런데 그는 유태인이였던것으로 하여 자주 무례한 공격을 받군 하였다. 그럴 때마다

그는 끄떡없이 반격을 가하군 하였다.

한번은 이런 일도 있었다.

어느날 밤 길모퉁이에서 비렬하고 보잘것 없는 려행가가 하이네에게 말하기를 《내가 려행하다가 자그마한 섬을 하나 발견하였는데 그 섬에는 아직까지 유태인과 하늘소가 없소그려!》라고 하면서 넌지시 야유하는것이였다.

하이네는 그를 아니꼽게 한번 훑어본 후 대답하였다. 《그것 참 안됐구려. 보건대 나하고 당신이 그 섬에 가 살았으면 그 결함이 메꾸어지겠소그려. 어떻습니까!》

하이네의 시

경 향

도이칠란드의 시인이여!
도이칠란드의 자유를 노래하라
그대의 노래 우리의 넋이 되여
저 마르쌔이애즈의 가락으로
인민들을 투쟁에로 불러일으키게 하라

롯테를 사랑하던 웨르테르처럼
영탄하는것을 그만두라—
무엇때문에 종을 치는지
그것을 노래하라 그 노래
비수의 날을 벼리고 장검을 벼리도록

가냘픈 피리로 되여서는 안된다
목가적인 애소는 그만두라—
조국의 나팔소리로 되라
대포가 되라 파성추가 되라
불고 울리고 진감케 하고 무찔러죽이라

날마다 불고 울리고 진감케 하라
최후의 압제자가 도망칠 때까지—
오직 이를 위해 노래하라
허나 그대의 시는
될수 있는대로 누구나 다 알게 하라

송 가

나는 장검이여라 나는 불길이여라
나는 어둠속에서 너희들을 밝혀주었도다
벌어지는 싸움판에선
내 언제나 앞장에서 싸워왔도다
전초선에서…

내 둘레엔 벗들의 시체 깔려있어도
우리는 승리하였도다
우리는 승리하였도다
허나 나의 둘레엔
벗들의 시체 깔려있도다
환호하는 개선가속에서
장송곡이 울려오도다
우리에겐 즐거워할겨를도
슬퍼할겨를도 없도다
또다시 북소리 울리고
새로운 싸움 우리를 부르거니
나는 장검이여라 나는 불길이여라

《백설공주》

도이칠란드작가 그림형제가 수집정리한 《그림형제동화집》(원제목:《어린이와 가정을 위한 동화》;1812—1815)에 수록되여있는 동화.

동화는 마음씨 곱고 선량한 백설공주와 심술사납고 간악한 그의 계모(왕비)에 대한 이야기를 통하여 악하고 그른것, 추한것을 미워하고 선하고 옳은것, 아름다운것을 찬양하는 내용을 담고있다.

어느 한 겨울날 왕비가 딸애를 낳았는데 그 애의 살결은 눈처럼 하얗고 입술은 피처럼 빨개 백설공주라고 이름을 지었다. 그런데 그 딸애를 낳자마자 왕비는 그만 죽고말았다.

한해가 지난 다음 왕은 새 왕비를 맞았다. 새 왕비도 아름다왔는데 그는 자기의 아름다움을 뽐내고 우쭐대기 좋아하였으며 그 누가 저보다 더 아름다와지는것을 두려워했다.

그러는 사이에 백설공주는 자라면서 점점 더 아름다와지더니 마침내 일곱살나는 해에는 왕비보다도 더 아름다와졌다.

가슴이 뒤집힐지경으로 질투가 난 왕비는 사냥군을 불러 공주를 숲속에 데리고가서 죽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냥군의 동정을 받아 깊은 숲속에 남은 공주는 난쟁이 일곱형제의 집에서 살게 된다.

신기한 거울의 도움으로 이 비밀을 알아낸 왕

비는 한번은 잡화장사군으로, 다음에는 로파의 모습으로, 마감에는 농부의 안해로 변장하여 그 집을 찾아가 끝내 공주에게 독이 든 사과를 먹여 죽인다.

그러나 공주는 유리관속에 오래오래 누워있으면서 썩지 않았으며 숲속을 지나가던 왕자에 의하여 되살아난다. 백설공주는 왕궁에 들어가 왕자와 결혼한다. 결혼식에 초대받은 간악한 왕비는 벌을 받아 불에 타죽고만다.

동화는 마음씨도 곱고 외모도 아름다운 선량한 백설공주를 한편으로 하고 마음씨가 고약하고 교활하며 악독한 왕비를 다른 편으로 하는 인물관계를 통하여 긍부정을 명백히 하고 선한것에 대한 지지와 긍정, 악한것에 대한 증오와 부정을 뚜렷이 표현하고있다.

작품은 그림동화의 대표작의 하나이다.

가리발디, 쥬제뻬

1807—1882년. 이딸리아의 해방과 통일을 위하여 싸운 민족적영웅.

니스에서 배사공의 아들로 태여나 어려서부터 배를 탔다. 1833년 청년이딸리아당에 들어가 활동하다가 1834년에 프랑스에 망명하였으며 1836년에 남아메리카에 건너가 라틴아메리카인민들의 독립운동에 참가하였다. 1848년에 귀국한 후 오스트리아의 억압을 반대하는 이딸리아해방투쟁의 지도자의 한사람으로서 지원병부대를 조직하여 반오스트리아투쟁에 참가하였다. 이듬해 7월 4 000명의 지원병부대와 함께 베네찌아로 진격하였으나 전투에서 실패하고 다시 남아메리카로 망명하였다. 1854년 귀국하여 싸르데냐왕국에 복무하였다. 1859년 오스트리아침략자들을 반대하는 이딸리아인민의 투쟁시기 지원병부대의 진두에서 싸웠으나 성공하지 못하였다. 남부이딸리아에서 프랑스침략자들과 그 앞잡이들을 반대하는 폭동이 일어나자 1860년에 천명부대(지원병부대)를 이끌고 씨칠리아섬에 상륙하여 그곳을 해방하였으며 이어 나뽈리왕국을 정복함으로써 남부이딸리아를 기본적으로 해방하였다. 그러나 정치적각성이 부족한데로부터 지주—부르죠아국가였던 싸르데냐왕국에 의하여 나라가 통일될수 있다고 그릇되게 생각함으로써 남부이딸리아를 이 왕국통치배들에게 넘겨주는 돌이킬수 없는 오유를 범하였다. 그후 그는 1866년에 북부이딸리아를 해방하는 싸움에서 큰 역할을 하였다. 1870년에는 로마에 있던 프랑스군을 격멸하고 남부이딸리아를 종국적으로 해방하였으며 나라의 통일을 이룩하였다. 그러나 이 승리의 열매는 싸르데냐통치배들이 가로챘다. 그는 말년에 빠리꼼뮨과 제1국제당도 지지하였다.

가리발디는 명백한 정치적강령을 가지지 못하였으며 싸르데냐의 지주, 부르죠아지들과 투쟁하지 못하였으나 재능있는 군사활동가로서 이딸리아의 해방과 통일에 기여한 업적으로 하여 이딸리아의 민족적영웅으로 떠받들리였다. 에스빠냐공민전쟁시기 이딸리아반파쑈투사들은 가리발디명칭 지원병부대를 파견하였으며 1943—1945년 이딸리아인민의 반파쑈민족해방전쟁시기 이딸리아유격부대들도 가리발디의 명칭을 가지고 싸웠다.

《삐노끼오》

이딸리아작가 까를로 꼴로디(1826—1890)가 1881—1883년에 창작한 동화. 원제목은 《삐노끼오의 모험》이다.

작품은 나무로 만든 인형 삐노끼오의 모험이야기를 통하여 품행이 나쁜 아이들을 교양하는 내용을 담고있다.

어느날 가난한 목수 제뻬뜨할아버지가 나무를 가지고 인형을 만들었더니 신기하게도 그 인형이 말을 하고 움직이였다. 자식이 없는 할아버지는 그 인형에게 삐노끼오라는 이름을 지어주고 아들처럼 사랑해준다.

할아버지는 비록 가난했지만 삐노끼오를 공부시키기 위해 저고리를 팔아서 마련한 돈으로 책을 사준다. 삐노끼오는 기쁜 마음으로 그 책을 가지고 학교로 향한다.

그런데 도중에 인형극단을 만난 삐노끼오는 학교는 래일 가도 되지만 인형극은 오늘 보지 않으면 기회를 놓친다고 하면서 책을 팔아 하루종일 공연구경만 한다. 실컷 구경한 다음에야 할아버지생각이 나서 집으로 돌아가려고 극장에서 나왔으나 이번에는 생각지 않았던 모험을 하게 된다.

삐노끼오는 교활한 여우와 고양이의 속임수에 걸려들기도 하고 놀이감들의 나라에 가기도 하며 경찰개의 추격을 받고 바다속에 뛰여들었다가 상어한테 먹히우기도 하는 등 갖가지 모험을 한다.

이러한 때 삐노끼오의 량심의 상징인 파랑머리선녀가 나타나 그의 행동을 바로 잡아주어 끝내는 품행이 단정한 좋은 아이로 된다.

그리하여 진짜사람으로 되고싶어하던 삐노끼오의 소원이 실현되여 제뻬뜨할아버지와 즐겁게 살아가게 된다.

작품에서는 의인화된 인형 삐노끼오의 모험에 대한 환상적인 이야기를 재미나게 펼쳐나가면서 아이들이 스스로 옳고 그른것과 선하고 악한것을 갈라보고 삐노끼오의 행동에 비추어 자신들의 생활을 돌이켜보게 하고있다.

작품은 그 내용이 민주주의적인것이 특징이다. 작가는 동화의 주인공을 제뻬뜨할아버지와 같이 가난한 근로자들의 세계에서 살게 함으로써 당시 이딸리아인민들이 당하고있는 불행에 깊은 동정을 표시하고있으며 착취자, 억압자들속에서는 찾아볼수 없는 선량성과 인간성을 근로인민들속에서 찾아보고있다.

작품에서는 동화적인 환상의 세계와 현실세계가 유기적으로 결합되고있으며 해학이 넘쳐나고 다양한 동화적형상들과 사건들을 련이어 전개하여 그칠줄 모르는 흥미를 자아내고있다.

작품은 민주주의적인 내용과 독창적이고 흥미진진한 동화적형상의 풍부성으로 하여 세계동화문학의 걸작의 하나로 알려져있다.

《꾸오레》

이딸리아작가 에드몬드 데 아미치스(1846—1908)가 1886년에 창작한 장편아동소설.

이딸리아의 소학교 4학년 학생 엔리꼬가 쓴 일기형식으로 된 1인칭소설이다.

소설에서는 19세기 80년대 이딸리아의 지방도시 뚜린에서 새 학년도가 시작되는 10월부터 그 학년도가 끝나고 방학이 시작되는 다음해 7월까지의 시기에 주인공의 생활에서 있은 일들이 이야기되고있다.

작품에서는 《10월》, 《11월》, 《12월》 등 달이름을 중간제목으로 달고 그안에서 다시 《개학날》, 《담임선생님》, 《친우 가론》, 《롬바르지아의 소년척후병(선생님의 이야기)》, 《조국에 대한 사랑(아버지의 글)》 등 여러가지 소제목을 달아 이야기를 펼쳐나가고있다.

그가운데는 엔리꼬자신이 쓴 일기와 함께 아버지, 어머니, 누나가 엔리꼬의 일기책에 써넣은 글 그리고 매달 한번씩 담임선생이 해준 이야기가 포함되여있다.

이 작품은 작가가 자기 나라 소년들을 위하여 쓴 일종의 교양소설이다. 그 제목인 《꾸오레》라는 말도 이딸리아어로 마음 즉 사랑의 마음을 의미하고있다.

소설이 담고있는 긍정적인 내용의 하나는 애국적감정을 강하게 표현하고있는것이다. 소설은 《조국에 대한 사랑》, 《거리에서》를 비롯한 엔리꼬의 일기의 여러 대목들과 교원의 이야기 《빠주어의 소년애국자》, 《롬바르지아의 소년척후병》 등을 통하여 그 당시 이딸리아인민들속에서 발양된 고상한 애국주의정신과 도덕품성을 적지 않게 반영하고있다.

소설은 또한 엔리꼬와 한학급에서 공부하는 보띠니와 데로씨 등 부자집 아이들과 철도기관사의 아들 가론, 꼬마석공, 대장쟁이의 아들 쁘레꼬씨 등 가난한 집 아이들의 처지를 대조적으로 보여주면서 자본주의사회에서의 사회적불평등과 가난한 사람들의 불행한 처지를 반영하고 그들에게 뜨거운 동정을 표시하고있다.

소설은 그밖에도 인민들속에서 발양되고있는 여러가지 건전한 도덕품성들, 부모와 스승, 웃사람들을 존경하는것, 우정을 귀중히 여기며 동무들을 사랑하는것, 학교를 사랑하고 공부를 잘하는것, 례절바르고 생활을 건전하게 하는것, 용감성과 인내성을 키우는것, 로동을 천시하지 말아야 한다는것 등을 강조하고있다.

소설은 이러한 내용을 그에 알맞는 형식에 담아 소박하게 정서적으로 형상하고있으며 인물형상도 매우 개성적으로 그려내고있다.

소설은 그것이 담고있는 긍정적내용과 어린이들의 생활과 감정세계를 섬세하게 그려내는데서 거둔 성과로 하여 널리 알려져있다.

아담 미쯔끼에비츠의 시

청춘송가

여기 감정 없는자 정신 공허한자
이는 형상 가련한 해골들이여라
청춘이여 나에게 날개를 달라!
이 죽은 세상 메마른 세상을 떠나
꿈과 광명의 나라에로 날아갈수 있도록
거기서는 열성이 경탄을 낳으며
꽃들로 아로새겨지는 새로운 꿈마다는
희망에 차 아름다운 황금빛모습으로
  치장되고있기에

나이로 하여 마음 어두워진 사람들이
시름에 주름잡힌 어리석은 이마를 수그리고
시야좁은 사람들의 소견없는 눈으로
이 세상 주변을 보는대로 내버려두라

청춘이여 그대는 이 평지우로
태양이 떠다니는 높이까지 날아오르라
만물을 통찰하는 광활한 시야로
전인류를 한눈에 보라!

밑을 내려다보라—
영원한 안개가 어둡게 깃들인 곳
게으름이 범람하며 넘치는 혼돈의 황무지들
이것이 지구이니라!

내려보라 저기 침체한 바다우에서
껍질쓴 조개들이 떠돌고있다
그것은 자기대로 배도 되고 사공도 되여
약한 조개를 쫓아다니며
떠오르며 가라앉는다
파도는 그를 위협하지 않으며
그는 파도를 위협하지 않으나
돌쪼각에 부딪쳐서는 거품처럼 부서지고
  말았다
거품처럼 사라진 그의 운명은
아무도 몰랐으며 누구 하나 개의치도 않는다
조개며 파도 이모두는 리기주의자!

오, 청춘이여! 너는 붉은 생명수
남들과 나눌 때 그것은 달콤한것
황금실오리로 신성한 가슴들 한데 묶을 때
신성한 가슴들은 기쁨으로 넘쳐흘러라

다 함께 젊은 벗들이여!…
모두의 지향은 모두의 행복속에 있는것
우리들의 통일로써 강하게 열광하면서도
  사려깊게
다 함께 젊은 벗들이여!…
쓰러진자도 행복을 느끼게 되리라
비록 어푸러진 몸일지언정
명성의 보루에로 올라가는 벗들을 도와줄 때는
다 함께 젊은 벗들이여!…
설사 그 길이 험악하고 미끄럽다 하여도
설사 그 문을 폭력과 약한 고리가 가로막는다
  해도
폭력은 폭력으로써 진압하자
그리고 약한 고리를 차버릴수 있도록
젊었을 때 우리 함께 배우자!

소년때 뱀[1] 의 이마를 깐 사람은
청년때 칸타르[2] 의 목을 졸라매고
지옥으로부터 희생자를 뺏어오며[3]
죽은 다음엔 천국의 월계관을 얻는다!
그대의 날음은 수리개같고
그대 팔에 번개의 힘이 있기에
청춘이여! 그대의 시야너머 머나먼 곳 이르러
평범한 상식의 껍질을 부시여 까라!

일어나라! 뭉치여라! 조화의 련쇄로써
우리의 넓은 세상을 하나로 두르자!
우리들의 생각을 우리들의 정신을
하나의 거대한 중심에로 집중시키자!
너 세속에 얽매인자야 물러서라!
인습에 판박힌 생활행로에서 벗어나
아득한 그 옛날을 너의 심령이 회상할
  그때까지
우리는 너를 새로운 궤도에로 밀어보내리라

자연력의 싸움으로 하여 신고받던
혼돈과 암흑의 우주에서
하느님의 탁월한 힘인 《있으라》[4] 말

한마디로
온 세상 삼라만상 형성되듯이
바다는 격동하며 폭풍우는 노호하지만
별들은 영원히 한결 더 빛나리라—

사람들의 세상에서 암흑은 아직 하늘을 누르고
욕심이란 속정은 아직도 다투고있나니—
보라 사랑은 불로써 그들에게 숨결 뿜으리라!
혼돈속에서 정신의 세계는 일어나리라!
청춘은 자기의 배속에 새 정신을 잉태할것이며
우정은 영원히 결속되리라!

마비되고 싸늘한 심장
광명을 가리우는 눈먼 신념은 설레이게 되리라
만세 그대 인류의 새 자유의 새벽이여!
세계를 구제하는 아침해살은 어둔 밤을
쫓아버리리라!

※ 1. 뱀은 고대리뜨바의 신앙에서 숭상하던 동물이였다. 여기서는 보수주의적경향의 다른 파를 말하고있다.

2. 그리스신화에 나오는 반은 사람, 반은 짐승인 괴물. 캔타우로스라고도 한다. 여기서는 외래침략자들의 타도를 의미하고있다.

3. 여기서는 외래침략자들에게 예속되여있는 뾜스까를 독립시킬것을 말하고있다.

4. 그리스도교 《구약성서》 창세기편에 나오는 말. 《있으라》고 말함으로써 혼돈속에서 우주가 창조되였다고 씌여있다.

《피리부는 사람(로만스)》중에서

노 래

네만강 네만강의 줄기를 따라
마을에서 마을로 나는야 간다
피리 불며 노래하며 솔숲에서 솔숲으로
맑은 시내 흐르는 목장을 지나 나는야 간다

지나가는 마을에서 사람들은 달려왔으나
나의 노래 알아듣는 그런 사람 없구나
터지려는 한숨을 가까스로 참으며
끝없는 길을 쫓아 나는야 가고 또 간다

가고가고 가노라면 알아줄이 있으리라
내 노래에 눈물 흘리리 나도 눈물로 대답하리
서로 손목 붙잡고 나는야 두번 다시
길 가지 않으리라 한숨짓지 않으리라

누구를 위해 꽃망건을 엮고있느냐?

처녀야 어느 총각 주려고 혼인날의 꽃망건을
  엮고있느냐
장미와 백합과 사향풀의 아름다운 꽃망건을
너의 옆에 서있는 젊은 총각은 오죽이나
  기쁘랴
네가 엮는 그런 꽃망건 그런 선물 받게
  됐으니!
나는 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꽃망건은
  정말로 소중한것
그런데 어찌하여 한방울의 눈물이 너의 볼에
  번쩍이느냐?
너의 옆에 서있는 총각 그 사람을 주려고
  엮고있느냐
장미와 백합과 사향풀의 향기로운 꽃망건을

가까이 지켜선 그 총각에게 너는 화려한 꽃망
  건을 주리라
장미와 백합과 사향풀로 아름다이 엮어진
네가 진정으로 사랑하는 총각은 따로 있어도
그 총각은 아무 표적 받지 못하는구나
불행한 애인으로 속태우며 얼굴 붉혀 눈물
  흘리더라도
그 총각은 집안에서 용서 않는 너의 마음속
  애인
사랑하지도 않는 다른 총각이 너의 꽃망건을
  쓰게 됐구나
장미와 백합과 사향풀로 한가로이 엮어진

※ 《피리부는 사람》은 봉건통치제도의 모순과 봉건적인 압제에 짓눌려 고통받는 하층인민들의 불행한 처지를 노래한 서정시묶음이다.

《노래》에서는 피리와 노래는 사람들의 마음을 즐겁게 하여주는 아름다운것이지만 노래소리, 피리소리를 들어주는이 없고 알아주는이 없는 이 모진 세상을 저주하고있으며 《누구를 위해 꽃망건을 엮고있느

냐?》에서는 제 마음에 드는 사람과 마음대로 결혼도 할수 없는 봉건륜리도덕을 단죄하고있다.

배 길

바다는 괴물들로 시커매지고 노호소리 더욱 커진다
재빠르게 선원이 돛대로 바라오른다
선원들아 위치에 서라! 거미처럼 매달려 호령친다
마치도 죽음의 덫이 겁에 질려 물러가라는듯이

질풍이 몰아친다! 날려갈듯 요동침을 막아보려고
닻은 내려졌건만 바람은 거세여 배는 갈피를 잃고
몸부림친다 곤두박힌다 바람은 날개밑으로 휘몰아치고
배머리는 흰 거품의 구름장 짜개면서 하늘로 치솟는다

나의 정신은 날아가는 돛대와 함께 혼돈으로 울부짖으며
나의 공상은 펄럭이는 돛폭처럼 불룩해진다
나는 소리친다 즐거운 일행에 휩쓸리여서

나는 넘어지며 힘껏 갑판을 끌어쥔다
배를 충동함은 바람이 아니라 나의 마음인듯 하여라
정녕 가뜬하여라! 나는 알수 있어라 새들이 날아갈 때의 심정을

시인이 낸 수수께끼

뻬뙤피 샨도르는 짧은 자기 생애에 자유에 대한 열렬한 지향과 념원, 자유를 쟁취하려는 투쟁결의를 담은 전투적시가들을 수많이 창작한 투사였다.
짜리로씨야의 까자크군의 공격을 물리치고 병사들이 휴식의 한때를 보내던 어느날이였다.
뻬뙤피가 병사들에게 물었다.
《제군들, 내가 수수께끼를 낼테니 맞춰보겠나?》
병사들이 그를 둘러싸며 응해나서자 그는 이런 문제를 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이윽토록 골똘히 생각에 잠겨있던 한 병사가 문득 답을 찾았는지 자신있게 말했다.
《그건 생명일세. 세상에서 생명보다 귀중한건 없네. 샨도르, 내 말이 틀리나?》
그러자 여러명의 병사들이 그의 말에 호응해나섰다.
《나도 생명보다 더 귀중한건 없다고 생각하네. 생명이 없어보지. 이 세상이 존재하나.》
《옳아, 생명이 귀중하길래 우리도 생명을 지켜 이렇게 싸우고있는게 아닌가.》
《군들의 말대로 생명이 귀중한것만은 사실이네. 그래서 우리의 생명을 앗으려는 원쑤들과 싸우고있지. 그러나 보다 귀중한것이 있네. 어디 대답들 하게.》
뻬뙤피의 말에 병사들은 눈이 둥그래졌다. 병사들은 그게 무얼가 하고 다시 생각에 잠겼다.
그때 한마디의 말도 없이 잠자코있던 병사가 침묵을 깨뜨렸다.
《생명보다 귀중한게 있네. 그건 사랑일세.》
《사랑이라구? 그래 사랑이 생명보다 더 귀중하단 말인가?》
생명이 세상에서 가장 귀중하다고 주장했던 병사가 그의 말에 반문하면서 이렇게 반박하였다.
《사랑도 생명이 있어야 하는 법일세. 생명이 없는 사람에게 어떻게 사랑이 있겠나? 자네야말로 사랑병에 걸렸군그래.》
이 말에 병사들이 한바탕 웃어댔다.
《물론 사랑은 생명보다 귀중하네. 사랑의 힘은 생명보다 더 강하니까.》 뻬뙤피가 말하였다.
《그러니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것이 사랑이란 말이지. 옳네, 그래서 우리는 사랑을 빼앗으려는 원쑤들과 생명을 내대고 싸우고있지.》
고등학교를 다니다가 전선에 나온 애어린 병사가 격정에 넘쳐 말했다.
《생명도 사랑도 더없이 귀중한건 사실이네. 그러나 그보다 더 귀중한것이 있네.》
병사들은 다시금 놀란 눈으로 뻬뙤피를 쳐다보았다.
(생명보다 귀중하고 사랑보다 귀중한것이 무엇일가?)
병사들은 이런 생각을 하며 한동안 답을 찾느

라고 머리를 기웃거렸다. 하지만 끝내 답을 찾지 못한 병사들은 뻬퇴피에게 청했다.

《여보게 샨도르, 자네가 수수께끼의 답을 주게.》

《그럼 내가 답을 주지.》

그러자 병사들은 귀를 기울이며 그의 다음말을 기다렸다.

《생명보다, 사랑보다 더 귀중한건 참된 자유일세. 이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것은 자유네.》

《그건 왜 그런가?》

병사들이 일제히 물었다.

《그건 참된 자유가 없는 생명은 죽은 생명이나 같기때문이네. 사랑도 마찬가지네. 참된 자유가 없는탓으로 얼마나 많은 생명이 죽어가고있으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짓밟히고있는가. 참된 자유를 가졌을 때 생명도 가치가 있고 사랑도 아름답게 빛을 뿌리는거네. 하기에 진정한 투사들은 참다운 사랑을 위해서 귀중한 생명을 바치는것이고 참된 자유를 위해서는 그처럼 소중한 사랑까지도 서슴없이 바치는걸세. 제군들, 그러니 생명보다 귀중한 참된 자유를 위해서 사랑도 희생하며 원쑤들과 이렇게 피흘리며 싸우는게 아닌가.》

《역시 샨도르, 시인이 다른걸.》

병사들은 깊이 감동하여 머리들을 끄덕거렸다.

《제군들, 그럼 이 시를 들어보게.》

뻬퇴피는 한동안 명상에 잠겨있더니 천천히 시를 읊기 시작했다.

생명은 한없이 고귀하다만
사랑은 그보다 더 귀중한것이여라
허나 자유를 위함이라면
이들을 서슴없이 바치리
…
사랑과 자유
이는 내가 념원하는 모든것
하기에 사랑을 위해서는
내 목숨을 바쳐 뉘우침 없으리라
허나 자유를 위해서라면
사랑이여 내 너마저 바치리라!

이것이 뻬퇴피가 혈전장에서 시상을 모으고 지은 세상에 널리 알려진 시 《자유와 사랑》이다.

뻬퇴피의 시

혁명

겁쟁이들은 나의 노래에 혼비백산하라—
나는 혁명의 선풍을 앞질러 느끼노라!

조국이여, 아버지들은 그대를 허술히 굴었더라
하여 오늘 구슬픈 나날이 닥쳐왔노라!

그대가 몸소 철쇄를 끊어던진것은
더 언짢은 새 사슬에 묶이우기 위함이였던가?

그대가 무덤의 초토를 털고 일어서자 그 순간에
운명은 그대를 더 사나운 진펄속에 차넣었더라!

그러나 아니다 운명이 아니다 운명이 아니다!
그대의 아들들이 그대를 욕보인것이다

그 아들들의 죄 무섭고도 수치스러운것
백배천배로 준렬하여라 그들에게 천벌은

영광의 월계관이 아니라 후줄근한 잡초로써
또아리 엮고있다 그대의 머리에 씌우자고

차라리 손수 숨 끊고 죽음이 떳떳하리라
폭군의 사슬에 목매우길 기다리기보다는

폭군은 헛되이 죽은 그대를 결박하려니
그대의 장례식날이나 축복하라 하라

그대의 무덤우에서 룡상을 타고앉아
영악스럽게 호통치라 하라 무덤벌레들이나

그러나 조국이여 그대는 결코 죽지 않으리라
그대는 슬픔속에서 분노의 불길로 솟구치나니

손에 칼을 들라 전투준비는 되였노라!
그대가 아니고서 누가 자유를 누릴소냐!

자 받아달라 아들의 뜨거운 입술을
그리고 너 아이야 술을 부으라 철철 넘치도록

입 맞춘다 그리고 술 마신다 기발이 올라가
  누나
우리는 알았노라—이것이 봉기의 신호임을!

겁쟁이들아 나의 노래에 혼비백산하라—
나는 혁명의 선풍을 앞질러 느끼노라!

다만 투쟁만이…

나의 생애에 오직 하나인
아름다운 꿈은 투쟁이랍니다
자유를 위하여 나의 심장에서
붉은 피 용솟음칠 투쟁이랍니다

세상에 한 슬기로운 님이 계셔—
다만 그앞에서만은 사랑과 함께
칼로 무덤을 팔수도 있고
더운 피 흘려 쓰러질수도 있습니다

그 슬기로운 님의 이름은—자유!
그들모두가 어리석은이랍니다
분별도 없이 여느 일들에
소중한 목숨을 바친이들은

평화 평화 평화를 그러나
폭군의 사나운 욕심에서가 아니라—
오직 자유의 슬기로운 힘으로써
싸워서 얻은 참된 평화를

하여 만사람들이 사이좋게
함께 누릴 평화가 깃든다면
그때엔 우리네 총검을
바다속 깊숙이 던져버려요

하나 그때까지는—총검을!
그리고 용맹스럽게 싸우렵니다
비록 세계 최후의 날까지
이 투쟁이 계속될지라도!

나는 말하노라, 마쟈르는 승리한다고

나는 말하노라 마쟈르는 승리한다고—
불벼락을 내리자 하늘땅에 본때를 보이도록!

다만 우리가 승리를 휘여잡지 못했음은
정신과 지혜가 서로 짝짝이였기때문이다

이제는 모든것이 하나로 무어졌으니 마쟈르
  여 믿으라!
만일 오늘이 아니라면 또 어느날 승리하랴

만사람이 한사람되여 삶을 불길속에 던져
  일어섰나니
바로 그로 하여 인민이여 너는 삶을 찾으리라

그리고 우리모두의 삶이 더욱 밝고 아름다워지
  리라
이 땅우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만큼

나도 용감히 일어섰노라 전투의 불길속에
나는 아노라 총탄이 나를 꿰뚫지 못할것을!

운명은 죽음에서 나를 지켜주려니
내 죽어서는 아니될것을 알고있기에

그것은 원쑤들이 멸망하는 날
내 다시 격조높은 노래를 엮어

자유를 끝까지 찬양해야 하겠기에
그리고 쓰러진 렬사들께 추억의 노래 드려야
  하겠기에

조국이여 그대는 그들의 피로써 물들었거니
그 피는 소생의 노래로 쟁쟁히 울리리라!

그날까지는 내 살아야 하겠노라—
자유가 우리를 축복해주도록

기쁨에 겨워 울면서 웃으면서
어둡고 저주롭던 시대의 얼룩 씻어버리도록

철쇄를 영영 끊어던지는 소리
내 조국에 축복의 노래로 울려퍼지도록

아니다 그날까지는 기어코 살아야 하겠노라
나의 칼과 칠현금은 그것을 위하여 싸웠나니!

이완 바조브의 시

빠나규리스트의 폭동자들

전투는 닥쳐오고 우리네 심장은 뛴다
어느덧 원쑤들의 아우성소리 울리누나
일어나라 의병대여 흉악한 원쑤앞에
우리 다시는 유순한 무리로 안되리라!

강력한 타격으로 원쑤를 짓부시자
형제들아 자랑높이 원쑤들께 보여주자
암흑의 세상은 뒤집히고
우리는 노예 아닌 자유의 병사임을

붉은 기폭은 머리우에 펴덕이고
우리는 전투에서 용맹스런 사자되리
우리는 벼락과 연구름으로
불타는 분노를 원쑤에게 퍼부으리

간교한 뛰르끼예인들 발악적타격으로
위협할수 없게 하라 우리는 폭압자에
  항거하여
결연히 일어나 싸움에서 굳세여진 투사
진리도 미더운 군도도 우리의것이여라

피도 목숨도 아끼지 않으리
형제들아! 죽어도 조국을 구원하자
용감하고 강의하여 힘을 길러
악독한 원쑤를 우리 땅에 매장하자

벌가리아는 화산의 용암되여 날아올랐다
우리는 영광안고 전사할지 모르니
인민영웅 수효도 그지없으리
결전으로 자유를 쟁취하리라

자유롭고 새로운 벌가리아 위해
우리는 준엄한 결투에서 목숨바치리
동무들아 용감히 벽력같은 육탄으로!
압제자에게 죽음을 폭압자에겐 멸망을!

소나무

발칸의 설봉들
프라끼야초원우에 솟아오르고
련봉은 거창한 투사인듯
넓직한 어깨 버티고 섰는 곳

반석에 뿌리박은 푸른 잔디
동산의 허리 감고 뻗어나간 곳
미풍도 폭포도 들새도 나무잎도
하늘을 기뻐하라 찬미하는 곳

락원의 희열속에서
음울한 누른 담장뒤에 서서
책망의 시선으로 새날을 바라보는
고색력연한 외따른 수도원

주위의 만물은 설레여도 담장뒤엔 적막과 침묵
만물은 영원한 꿈속에 잠겼네
폭포소리 여기엔 어렴풋이 들려도
그 소리 밖에선 우뢰같이 울리네

지난날 그리스도교도들 몸두던 수도원
성상모신 낮은 교회당우로
소나무 한그루 거인같이 일어서
흰구름속에 머리 감추네

리완스크사막의 사철 푸른 삼나무인양
슬기롭고 신비로운 공상에 잠겨
아지 뻗고 서있는 소나무그림자
고대의 성불인 고분우에 누워있네

백발의 신부와 파파로인의 기억에도
소나무의 옛모습 지금과 다름없더라
옛 선조들께 들은 사람 없다네
그 누가 소나무 애솔때 보았다는 말

세대를 이어온 이 소나무 아마도
지난날의 영광을 눈앞에 보았으리라
지난 세대 위업을 회상하면서
아지 뻗고 이렇게 서있으리라

무수한 해를 두고 소나무머리우에 우뢰 울리고
싸움에서 단련된 나무기둥 우짖네
거만한 소나무 머리우에 흔적도 없이
더위와 추위는 엇바뀌며 지나네

그의 위력은 사람들을 황홀케 하고

그의 머리는 창공에 뻗었네
하지만 그도 역시 땅우에 태여나
다름없는 운명을 면치 못했네

그 어느 별없는 암야에
산골짝에서 날려온 노래곡조는
이전에 볼수 없던 광기와 분노를
눈앞에 나타낸 류다른 우뢰소리

백년묵은 수목이 숲속에서 떨고
전야가 신음하는 폭풍우 이는 밤에
발칸이 벽력소리에 몸부림치고
만상이 힘을 다해 설레였네

소나무 불굴의 이마 들고 일어섰어도
선풍은 더 사납게 주위를 맴돌았네…
아름드리나무 뿌리채 뽑히여
가혹한 원쑤 손에 땅우에 쓰러졌네

쓰러졌다네! 아름찬 나무기둥 쓰러져 눕고
아지는 땅우에 활개 뻗었네—
힘과 영광에 찬 소나무아지들
어제까지도 푸른 하늘에 뻗치고있더니

사나운 노기띠고 몰아치는 우뢰
오만한 거물을 우지직 쓰러눕힌 뒤
위대한 희생에 대한 존경심 가득 품고
인민의 눈물 남기고 사라졌다네

※ 《소나무》는 풍상고초를 이겨내면서 오랜 세월 굳건히 뿌리박고 서있다가 원쑤의 가혹한 손에 뿌리채 뽑히여 땅우에 쓰러진 소나무의 비참한 형상을 통하여 뛰르끼예침략자들에 의하여 강점된 벌가리아의 비극적현실을 가슴아프게 노래하였다.

뿌슈낀탄생 100돐

우리는 로씨야와 함께 있다 우리는 로씨야와 나란히 서있다
벗들이여 오늘 우리는 위대한 가수를 축하하노라—
우리의 심혼은 환희로 끓고
벌가리아의 심장들 또한 긍지로 충만되도다

슬라브땅 슬라브나라의 사상가에게, 천재에게
우리 화환 엮어바쳐 깊숙이 머리숙이자
황금거문고에 튕겨오는 정겨운 그의 노래
벌가리아의 아들들을 황홀케 하누나 흥분케 하누나

사랑과 기쁨 손수 심혼들에 부어준 가수
천진란만한 때다른 오르페우스
그는 후대들에 매혹적인 세계들을 남겨주고
슬라브의 언어엔 성스러운 향취를 뿌려주었도다

세기는 흘러도 그의 자유로운 령혼은
그렇듯 고귀한 정 그렇듯 고귀한 미와 더불어
인민의 사랑속에 더욱 찬란한 영광으로 빛나리라
황홀한 노래로 하여 숭고한 념원으로 하여

대강국 로씨야여 슬기로운 가수의 조국이여
그대에게 축하를 드리노라 축하를 드리노라—
그 어느때 이처럼 그대 이름 치장해주었더냐
그 어느때 그대의 아들들 이처럼 심장들을 고동치게 하였더냐!

달리한 결심

안데르쎈에게 있어서 1835년은 참으로 뜻깊은 해였다. 한것은 이해초에 그의 출세작이며 걸작인 장편소설 《즉흥시인》이 출판되고 이해 3월에 동화집 1권이 세상에 나왔기때문이다. 당시 30살이던 안데르쎈은 동화작가로서의 천품을 지니고있었다.

하지만 그 당시 문단에서는 동화를 시나 소설, 희곡보다 낮추어보면서 문학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그래서 동화에 붓을 대보려고 생각하는 작가는 거의 없었다.

동화집 1권이 나왔을 때 적지 않은 작가들로부터 《얼마전 〈즉흥시인〉과 같은 훌륭한 소설을 쓴 재능있는 젊은 작가가 아이들의 속임수와도 같은 동화를 쓴다는것은 실로 유감천만한 일이다.》라는 혹평까지 받은 안데르쎈자신도 더이상 동화를 쓰지 않으려고 마음먹었다.

1836년 여름 안데르쎈은 훼이덴이라는 섬을 려행하게 되였다. 그는 이곳에서 놀라운 사실

을 보게 되였다. 이 섬의 마을마다에서 자기가 내놓은 두권의 동화집이 큰 인기를 끌며 애독되고있는것이였다. 하루일을 마친 이 섬의 가난한 농민들이 저녁마다 모여앉아 자기가 쓴 동화를 읽으며 이야기꽃을 피우고있는것을 보게 된 안데르쎈의 기쁨은 참으로 컸다.

그가 이 섬에 온지 며칠 지난 어느날 저녁이였다. 그는 뮤즈마을의 어느 한 농가마당에 숱한 사람들이 모여앉아 동화이야기를 듣고있는것을 보았다.

이야기군은 마을에서 훈장을 하던 늙은이였다. 동화제목은 안데르쎈이 쓴 《나그네의 길동무》였다.

남녀로소 할것없이 모두들 이야기에 심취되여있을 때 지나가던 젊은이가 군중속에 끼여들었다. 그는 이야기가 끝나자 로인에게 물었다.

《로인님, 방금 한 이야기제목이 〈나그네의 길동무〉가 아닙니까?》

《그렇수다. 젊은이는 뉘신지요?》

《저는 도시에서 이웃마을에 온 손님입니다. 지나가면서 보니 재미난 이야기판이 벌어졌길래 저도 로인님의 얘기를 듣고싶어서 이렇게…》

《그랬댔군요. 우리는 안데르쎈할아버지가 쓴 옛말로 매일 저녁을 즐기군 한다오.》

《그래요. 그렇지만 그의 옛말이 무슨 재미가 있다구 이처럼 저녁마다…》

젊은이가 시치미를 떼고 말했다. 그러자 좌중은 언짢은 눈초리로 낯모를 젊은이를 흘겨보았다.

《여보시오, 재미있든 없든 무슨 상관이슈. 별 싱거운 젊은이를 다 보겠군.》

이야기를 하던 로인이 쏘아붙이자 한 아낙네가 《누가 와서 들으라고 청이라도 했소? 우리네 농부들은 안데르쎈할아버지의 옛말을 듣는것을 락으로 삼는다우. …》라고 젊은이에게 면박을 주었다.

《그렇습니까? 실례했습니다. 사실은 저도 옛말을 매우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가던 걸음을 멈추고 이리로 온겁니다.》

젊은이가 사과의 뜻을 표시하자 그제야 그에게 눈총을 보내고있던 사람들의 불쾌감도 어느 정도 사라졌다.

《그럼 안데르쎈의 옛말보다 훌륭하고 재미있는 얘기를 해드릴가요?》

젊은이가 사람들을 둘러보며 물었다.

《뭐라구? 안데르쎈할아버지의 옛말보다 더 훌륭하다구요? 여보시우, 이 세상에 그 할아버지의 옛말만 한것은 없을거우다.》

이야기군로인이 도리머리를 하며 큰소리로 말했다. 마을사람들도 그의 말이 옳다고 이구동성으로 웨쳐댔다.

《그러지 말고 들어들 보십시오. 제 말이 틀리나…》

젊은이의 말에 모두가 어처구니 없어하면서도 한편 호기심이 동한듯 그를 올려다보았다.

이윽고 젊은이는 《잉어아가씨》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시작하였다. 이야기가 고조되자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들었다. 그가 이야기를 마치자 모두들 감동되여 눈물까지 흘렸다.

《아니, 우리 단마르크에 안데르쎈할아버지보다 더 훌륭한 옛말을 가지고있는 사람이 있군그래.》

사람들은 저마다 환성을 지르면서 낯선 젊은이를 존경어린 눈길로 바라보았다.

《젊은이, 그 얘기를 책으로 쓰지 않으려우? 그러면 우리 농군들이 정말 기뻐할거우다.》

나이지숙한 사람이 진정에 넘쳐 청했다.

《그럴가요? 그렇다면 제가 책으로 찍어 보내드리겠습니다.》

《젊은이, 우리 마을 사람들의 한결같은 부탁이니 부디 잊지 마시우다.》

《아무렴요. 잊을리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이날 마을사람들은 할아버지로만 알고있는 안데르쎈이 바로 31살난 젊은이임을 알수 없었다.

지금까지 문단의 비평으로 동화창작을 단념하다싶이 했던 안데르쎈은 기쁨과 희망에 부푼 가슴을 안고 코펜하븐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동화를 버리고 소설창작에 전념하려던 자기의 결심을 달리하였다.

《동화란 부자나 학식있는 사람들, 문인들을 위한것이 아니다. 가난한 사람들, 아이, 어른들이 얼마나 동화를 즐겨 읽는가. 그리고 얼마나 새로운 동화들을 목마르게 찾고 기다리고있는가.

그렇다. 동화는 결코 어린애속임수인 보잘것없

는 문학이 아니다. 동화는 시나 소설, 희곡에 못지 않는 고상한 문학이다. 동화야말로 어른, 아이 할것없이 다 좋아하는 대중문학이다. 동화가 오늘까지 저급한 문학으로 취급되였다면 내가 이것을 고상한 문학으로 끌어올리리라. 이제부터 동화를 쓰는데 일생을 깡그리 바치자.

나는 동화문학으로 작은 우리 단마르크를 세상에 빛내이겠다.》

이렇게 생각한 안데르쎈은 굳은 결의를 가다듬고 중단했던 동화창작의 붓을 다시 들었다. 이리하여 그는 첫 동화집을 낸 때로부터 2년후인 1837년 3월에 동화집 제3권을 세상에 내놓았다. 작품집에는 그의 최고걸작의 하나로 일컫는 《잉어아가씨》도 들어있었다.

안데르쎈은 동화집이 나오자마자 약속을 지켜 훼이덴섬의 뮤즈마을 농민들에게 보내주었다. 책의 속표지에는 《한스 크리스티안 안데르쎈 드림》이라는 자필이 적혀있었다.

동화집을 받고서야 뮤즈마을사람들은 그날 저녁의 그 젊은이가 안데르쎈이라는것을 알고 혀를 찼다. 오늘까지도 이 마을사람들은 그때의 일을 자기 고장의 자랑으로 전설처럼 전하고있다고 한다.

일생을 독신으로 지낸 안데르쎈

가난한 구두쟁이가정에서 태여난 안데르쎈은 15살때 고아가 되여 거리를 방황하면서 천대속에서 살아가다보니 자기 나라 말도 제대로 배우지 못하였다.

그는 대학에 입학하려고 여러번 시도하였으나 그때마다 실패하였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도움으로 그리스어와 라틴어를 꾸준히 학습하여 23살때에야 코펜하븐대학에 입학할수 있었다.

그는 나이가 들어도 가난하여 장가를 갈수 없었다.

안데르쎈이 25살때였다.

그는 대학 친구네 집에 갔다가 친구의 누이동생 리이블을 알게 되였다. 그 처녀는 명랑하고 얌전하며 순진하고 아릿다왔다. 안데르쎈은 처녀에게 완전히 끌려 사랑을 고백하였다. 그러나 리이블은 다른 부자집자식한테 시집가버렸다.

안데르쎈은 괴롭고 슬픈 나머지 리이블이 결혼한지 4일만에 도이췰란드로 떠나고말았다. 그는 실련을 달래기 위해 그 나라에 반년동안 가있으면서 현실을 체험하고 글을 썼다.

그후 도이췰란드에서 돌아와 친구인 클린의 막내딸 루이제와 사귀게 되여 처녀에게 사랑을 고백하였다. 그러나 처녀는 1년동안 대답을 안하고 있다가 변호사 린드와 결혼하였다.

안데르쎈은 너무도 슬픈 마음을 달랠수 없어 또다시 조국을 떠나 이딸리아에 2년간 가있다가 돌아왔다.

이렇게 안데르쎈은 실련을 당할 때마다 외국려행을 하면서 아름다운 동화를 써서 가슴을 달래군 하였다.

그런데 일부 사람들은 안데르쎈을 보고 《동화따위는 시시하다. 시인이 어린이를 위해 동화를 쓰다니, 어리석다.》라고 비방하였다.

그때부터 안데르쎈은 (어른이 읽어도 좋고 어린이가 읽어도 좋은 그런 동화를 쓰리라.)고 결심하고 창작에 달라붙었다. 그리하여 그는 《인어공주》, 《임금의 새옷》 등을 썼다.

안데르쎈의 이 동화를 읽은 사람들은 더는 그를 업신여기지 않았으며 동화를 쓰는 일이 훌륭하다는것을 알게 되였다.

안데르쎈이 세상에 남긴 동화는 150편가량이나 된다. 그래서 사람들은 안데르쎈을 《근대동화의 아버지》라고 불렀다.

그가 세상을 떠나자 단마르크의 수도 코펜하븐의 모든 상점들은 문을 닫고 그의 죽음을 슬퍼하였으며 국왕과 고위관리들까지 장례식에 참가하였다.

안데르쎈은 일생을 독신으로 살았기때문에 아이도 없었다. 그러나 단마르크사람들은 오늘도 이렇게 말하고있다.

《온 나라 어린이들이 모두 그의 아들이고 딸이지요.》

《못생긴 새끼오리》

안데르쎈의 동화 《못생긴 새끼오리》를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을것이다.

같은 둥우리에서 깨여난 다른 새끼오리들과는 달리 유독 혼자 못생긴 오리, 그 새끼오리는 그것때문에 온갖 구박을 당한다.

형제들로부터도 버림받고 닭과 칠면조도 날카로운 부리로 쪼아대며 놀려준다.

못생긴 새끼오리는 형제와 이웃으로부터 쫓겨나 물가를 헤매다가 문득 기가 막히게 아름다운 흰새를 발견한다. 훨훨 날아가는 우아한 새, 그것은 백조때였다. 못생긴 새끼오리는 백조때의 우아함에 반하여 못생긴 자신을 저주한다.

다음해 봄 다시 백조때를 발견한 못생긴 새끼오리는 오리와 닭과 칠면조들에게 쫓겨다니며 구박받느니보다 차라리 저런 멋있고 우아한 새에게 밟혀죽는게 낫다고 생각하며 그 새들을 향하여 날아오른다.

그런데 이게 어찌된 일인가. 못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못생긴 새끼오리가 아니라 우아한 백조가 아닌가.

이 동화의 주인공 못생긴 새끼오리는 바로 안데르쎈자신의 모습이였다.

1805년 4월 2일 단마르크의 오덴쎄의 구두쟁이가정에서 태여난 안데르쎈은 15살때 고아가 되여 거리를 방황하게 되였다.

외롭고 피로운 생활, 구박과 서러움, 버림받고 천대받은 동화의 주인공 못생긴 새끼오리처럼… 그러나 그는 천대를 박차고 한마리의 우아한 백조처럼 되였던것이다, 동화의 아버지로…

안데르쎈을 연구한 한 전기작가는 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썼다.

《안데르쎈의 생애는 하나의 기적이 아닐수 없다. 19세기의 문학가중에서 안데르쎈처럼 색다른 전기와 개성을 가진 사람은 없었다. 가난한 집안에서 태여나 15살에 홀몸이 되여 집을 떠나 방랑생활을 하며 19살까지 자기 나라 말을 제대로 배우지 못한 안데르쎈! 악조건속에서도 조금도 아름다운 동심을 흐리지 않고 희망과 기쁨으로 건전한 동화에 생명을 바친 그는 아무리 생각해도 기적적인 인물이다.》

비밀문서와 입쎈의 기지

19세기 중엽 노르웨이는 스웨리예의 예속밑에 있은데다가 이 나라에서 자본주의가 발전하면서 로자간의 모순도 격화되였다.

이 시기 입쎈이 살던 도시 그림스타드는 노르웨이로동운동의 요람지로 되였다.

입쎈은 청년시절에 그림스타드로동운동에 뛰여들었다.

1851년 입쎈이 23살때 로동운동지도자와 그의 동료들이 체포되였다. 그런데 비밀문건을 보관하고있던 입쎈에게는 이 소식이 알려지지 않았다.

입쎈은 태연히 서재에 앉아 작품구상에만 전념하고있었다. 이때 그가 구상한 작품은 민족적 독립과 민족의 통일을 주제로 한 《왕위를 위한 싸움》이였다.

경찰들의 포위망은 점점 죄여들고있었으나 입쎈은 책상에 앉아 쓰고 또 쓰기만 했다.

바로 이때 《쿵!》하는 소리가 났다. 지하운동에 약간의 경험을 가진 입쎈인지라 위험을 예감하고 인차 일어나 비밀문건을 보관한 장소로 갔다. 이때 방문이 활짝 열렸다. 총을 쥔 몇놈의 경찰이 방안으로 뛰여들었다.

비밀문서를 손에 쥔 입쎈은 당황한 기색을 보이면서 비밀문서를 아무 쓸모없는 휴지처럼 되는대로 마루바닥에 내동이치고 전혀 상관없는 다른 서류들을 책상구석에다 감추는척 하였다.

경찰들은 책상구석에서 《비밀문서》와 기타 서류들을 꺼내들고 압수한다는 명목으로 경찰서로 가지고갔다.

두말할것없이 비밀문서는 입쎈에게 남았으며 입쎈은 경찰에 체포되지 않았다.

나뽈레옹

나뽈레옹 보나빠르뜨(1769—1821)는 프랑스의 반동적군사령관, 침략자, 대부르죠아지의 대변자, 프랑스공화국의 제1집정(1799—1804), 황제(1804—1814, 1815)였다.

꼬르스섬의 몰락한 귀족가문에서 태여난 나뽈레옹은 군사교육을 마친 후 포병련대에 복무하였으며 1793년에는 이딸리아국경군 사령관으로 임명되였다. 1794년 반혁명적 떼르미도르정변후 로배스삐애르파로 투옥된 일도 있으나 남다른 군사적기질과 포악성으로 하여 대부르죠아지들의 눈에 든 그는 1795년 빠리의 왕당파반란을 진압하는데서 공을 세우고 1795년에는 이딸리아원정군 사령관으로 되여 이딸리아를 침략하였다.

누구보다도 출세욕이 강했던 나뽈레옹은 당시 빠리의 사교계에서 인기가 있던 6살우인 귀족의 미망인과 결혼하였다. 나뽈레옹과 그 침략군대는 1798년에 에짚트와 수리아를 침략하여 인민들을 마구 학살하고 문화유물과 재물을 파괴

략탈하는 등 온갖 만행을 감행하다가 쫓겨났다. 그는 프랑스 대부르죠아지의 리익을 옹호하여 1799년(11월 9—10일)정변을 일으켜 총재부를 철폐하고 자기를 제1집정으로 하는 집정부를 세워 군사독재를 실시하였다. 그는 국내에서 인민운동과 반대파들을 가혹하게 탄압하는 동시에 침략전쟁을 적극 벌렸으며 1804년에 프랑스 제1제국을 수립하고 자신이 황제로 되였다. 1804년에 대부르죠아지의 리익을 옹호한 《나뽈레옹법전》을 공포하였다. 그는 끊임없는 침략전쟁을 벌려 프로씨아, 오스트리아, 에스빠냐, 스위스, 와르샤와대공국 등을 예속시켜 유럽의 넓은 지역에 나뽈레옹제국을 형성하였다. 그는 정복지역을 마구 략탈하여 그곳 인민들에게 커다란 불행과 고통을 들씌웠다. 침략전쟁을 통하여 프랑스부르죠아지와 군부상층은 막대한 리득을 보았다. 전유럽을 정복하며 나아가서 세계를 제패하려는 침략적야망에 불탄 나뽈레옹은 1812년 예속된 나라 군대들까지 동원하여 60만의 대병력으로 로씨야를 침공하였으나 치명적타격을 입고 참패하였다. 서산락일의 운명에 처한 그는 다시 30만의 군대를 강제징모하여 침략의 길에 나섰으나 1813년 10월 라이프찌히격전에서 참패를 당하였으며 1814년 3월에는 련합군에게 빠리를 점령당하여 이해 4월에 지중해의 엘바섬에 류배당하였다. 정권욕과 침략야망에 미쳐날뛴 나뽈레옹은 프랑스에 복구된 부르봉봉건왕조에 대한 인민대중의 불만에 편승하여 엘바섬에서 탈출한 후 1815년 3월 20일 1 000명의 군대를 데리고 빠리에 입성하여 다시 정권을 잡았다. 그러나 와떼를로격전에서 련합군에게 결정적패배를 당하여 1815년 6월 22일 최종적으로 퇴위당함으로써 그의 백일천하는 종말을 고하였다. 그는 대서양의 쎄인트 헬리너섬에 류배되여 그곳에서 죽었다.

희곡 《에르나니》가 일으킨 소동

빅또르 유고의 희곡 《에르나니》(1830)는 얼핏 보면 황당무계한 내용을 담고있는것 같으나 그 내용의 반봉건적성격으로 하여 관중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희곡 《에르나니》가 1830년 4월 《꼬메디 프랑쎄즈》극장(일명 《몰리애르의 집》)에서 공연된다는 소문이 퍼지자 진보적랑만주의의 지지파와 그 반대파사이에 큰 싸움이 벌어졌다. 이런 싸움은 연극이 공연되면서 더욱 치렬해졌다.

연극이 시작되여 1막이 채 끝나기도 전에 객석은 수라장이 되였고 극장밖에서의 격투는 투석전으로까지 번져 부상자까지 생겼다. 지방도시들에서는 연극을 관람하지 못하면서도 소문을 듣고 좋다느니, 나쁘다느니 하고 치렬한 론쟁을 벌렸다고 한다. 지어 이 싸움에서는 인명피해까지 있었다.

력사가들이 《랑만주의전투》라고 부른 이 싸움은 49일간 계속되다가 드디여 7월혁명의 폭풍에 합류되였다. 당시 프랑스에서는 1830년 7월혁명전야에 자유에 대한 열망이 사람들의 가슴을 파고들었는데 바로 이 희곡공연이 그 도화선으로 되였던것이다.

희곡 《에르나니》는 귀족의 양딸 도냐 쏘레를 둘러싸고 그의 애인이며 주인공인 산적 에르나니와 처녀사냥을 다니는 에스빠냐왕 까를로스, 자기 양딸과 결혼하려는 늙은 귀족 돈 루이사이의 갈등을 기본으로 하고있다.

이들간의 대립투쟁은 결국 에르나니의 승리로 끝나 그가 도냐 쏘레와 결혼식을 하게 되였으나 돈 루이가 위험에서 구원해준 대가로 목숨을 요구하자 에르나니는 독약을 받아마시려고 한다. 이 찰나 난데없이 한 녀자가 나타나 그 약을 빼앗아먹고 죽는다. 그는 다름아닌 도냐 쏘레였다. 도냐 쏘레가 죽자 에르나니는 돈 루이가 준 독약을 먹고 자살하며 그들의 죽음을 목격한 돈 루이도 단도로 자결한다.

이 희곡의 새로운 점은 지난 시기 왕을 고상한 존재로 무대에 형상한 고전주의극과는 달리 처녀사냥이나 다니는 방탕아로 풍자하고 봉건군주제를 강하게 비판한것이다. 또한 왕을 산적과 대결시켜 패배하는것으로 만들어놓은것이다.

그리하여 희곡은 대중을 폭동에로 궐기시키는데 이바지하였으며 문학사와 연극사에서 고전주의에 대한 진보적랑만주의의 승리를 과시하였다.

빅또르 유고의 《?》

《?》(물음표)와 《!》(감탄표)는 한개의 표기부호에 지나지 않지만 때로는 그 한개 부호가 몇

천, 몇만자의 글자보다 더 생동한 힘을 나타낼때가 있다.

유고는 장편소설 《레 미제라블》을 1820년대에 구상하여 1862년에 완성하였다.

40여년이란 긴 세월과 심혈이 깃든 작품의 원고를 출판사에 넘긴 유고는 마음이 놓이지 않아 편지로 원고의 운명에 대하여 물었다. 그는 궁금하고 초조한 심정을 담은 자기 편지에다 《?》 하나만 적어보내였다.

유고의 편지를 받아본 편집원들의 충격은 컸다. 비록 하나의 문장부호에 지나지 않지만 저자인 유고의 심정을 충분히 리해하고도 남았던것이다.

어떻게 회답편지를 쓰면 작가의 마음을 흡족하게 만들것인가?

편집원들은 토론끝에 회답도 역시 유고식으로 쓰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큰 편지종이 한복판에 하나의 문장부호 《!》가 적혀지게 되였다.

뒤마의 장편소설 《세 총사》

《세 총사》(1844)는 《몽떼 끄리스또백작》과 함께 뒤마(아버지)의 대표작의 하나로 널리 알려져있다.

작품은 17세기 초엽 프랑스봉건사회의 력사적 현실을 배경으로 하여 용감하고 의리심이 강한 귀족청년주인공과 그와 우정을 맺은 세 총사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있다.

근위총사(국왕을 호위하는 근위병)가 되려는 포부를 안고 빠리로 돌아온 가스꼰뉴지방의 귀족청년 달따니앙은 거리에서 우연히 아또스, 뽀르또스, 알라미스 등 3명의 근위총사와 알게 되여 그들의 친한 벗으로 된다.

한편 당시 국왕 루이13세밑에서 실권을 잡고있던 재상 리슐류는 자기의 세력을 확대하는 한편 친영파의 왕비 안을 제거하기 위해 애를 쓴다. 리슐류는 왕비가 영국재상 바킹감공작과 련계가 있다는것과 국왕에게서 받은 금강석목걸이를 그에게 주었다는 비밀을 탐지해내여 이것을 좋은 기회로 리용하려고 한다.

왕비의 시녀이며 하숙집 녀주인인 보나슈부인을 통하여 음모의 내막을 알게 된 달따니앙은 세 총사와 함께 리슐류패의 방해를 물리치고 런던에서 목걸이를 무사히 가져옴으로써 왕비를 위기에서 구원한다.

여기서 이야기의 전반부가 끝나고 후반부에 들어오면서 인물관계는 복잡하게 얽히게 된다.

달따니앙은 리슐류의 밀정인 밀라디의 어깨에 찍힌 전과자표식을 보고 그가 처녀시절에 도적질을 한것으로 하여 감옥생활을 하였으나 그것을 속이고 아또스(라 뻬르백작)의 안해로 되였다는것을 알아낸다. 목걸이사건으로 앙심을 먹고있는데다가 자기의 비밀까지 탄로당한 밀라디는 달따니앙을 죽이려고 갖은 음모를 꾸민다.

이러한 때 프랑스와 영국사이에 전쟁이 일어난다. 리슐류는 반프동맹의 중심인물인 바킹감공작을 암살하기 위해 밀라디를 영국에 보낸다. 달따니앙과 세 총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밀라디는 공작암살에 성공하며 프랑스로 돌아와 보나슈부인까지 독살한다.

달따니앙과 세 총사는 갖은 흉악한짓을 다한 밀라디를 찾아내여 사형에 처한다. 그후 달따니앙은 총사대 부대장으로 임명되며 세 총사도 제각기 자기 뜻대로 떠나간다.

작품의 긍정면은 달따니앙과 세 총사가 겪은 가지가지의 모험을 통하여 인간의 우정과 의리, 정의감과 용감성을 찬양하면서 리슐류, 밀라디와 같은 반동적인 봉건통치배들을 비판하고있는것이다.

작품은 또한 구성조직과 흥미있는 사건전개, 서정성이 강한 묘사 등으로 하여 랑만주의소설의 특색을 비교적 잘 살리고있다.

뒤마의 장편소설 《세 총사》는 초계급적인 인간성과 의리심을 추구하고 모험적이며 흥미본위적인 경향이 강하나 지난날의 시대성을 생동하게 보여주고 재미있게 이야기를 끌고나간것으로 하여 《몽떼 끄리스또백작》과 함께 세상에 널리 알려진 세계고전문학작품의 하나로 되였다.

《무엇이 부족한지 알만 합니다》

뒤마(아버지)의 장편소설 《세 총사》(1844)가 희곡으로 각색되여 극장에서 공연을 하던 때에 있은 일이다.

첫 시연회에 참가한 뒤마는 막뒤에서 연극이 관중들에게 어떤 반응을 일으키고있는가를 주시하였다.

제7경을 공연할 때 연극을 구경하던 당직 소방대원이 없어진것을 발견하였다.

뒤마는 그 소방대원을 찾아가 물었다.

《왜 7경을 보지 않고 나갔소?》
《다른 장면보다 재미가 없더군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즉시 총장실에 들어간 뒤마는 코트를 벗고 넥타이를 풀어던진 다음 7경의 대본을 달라고 하였다.
뒤마는 원고를 받자마자 불속에 집어던졌다.
《아니, 어쩌자고 그러는거요!》 놀란 총장이 물었다.
《소방대원 한사람도 흥미있게 못해주다니. 없애버려야지요. 무엇이 부족한지 알만 합니다.》
그리고는 한시간만에 7경을 다시 써냈다.
하기에 뒤마의 소설들은 모험적인 내용을 흥미진진한 사건들로 엮어나가면서 누구에게나 리해되는 예술형식으로 표현함으로써 많은 독자들의 인기를 끌었다.

알랙쌍드르 뒤마(아들)

장편소설 《몽떼 끄리스또백작》으로 널리 알려진 프랑스작가 알랙쌍드르 뒤마에게는 동성동명의 아들(1824—1895)이 있었다. 그 역시 이름난 작가가 되였다. 아버지와 아들을 구별하기 위하여 뒤마(아버지), 뒤마(아들) 또는 큰뒤마, 작은뒤마로 부르고있다.
그는 사생아로서 차별을 받으며 불우하게 자랐다. 1840년대부터 창작생활을 시작하여 처음에는 소설과 시를 쓰다가 후에 희곡을 써서 유명해졌다.
랑만주의작가로 알려진 뒤마(아버지)와 달리 뒤마(아들)는 사실주의의 길로 나갔다.
그가 창작한 소설작품으로는 대표작인 장편소설 《동백꽃아가씨》(1848)를 비롯하여 《의사 쎄르방》(1849), 《힘이 센 세 남자》(1850) 등이 있다.
희곡가운데서는 당시에 소문이 난 《동백꽃아가씨》(같은 제목의 소설을 각색한것, 1852년 공연)를 비롯하여 《금전문제》(1857), 《사생아》(1858), 《방탕한 아버지》(1859), 《녀자들의 벗》(1864) 등이 알려져있다.
그는 1874년에 프랑스과학원 회원이 되였다.
뒤마(아들)의 작품들은 남자의 리기주의를 비판하고 결혼을 문란케 하는 돈의 힘을 배격하며 사생아와 그 어머니를 옹호하는 등 사회도덕적인 문제를 기본으로 하고있으며 부르죠아특권계급의 도덕적타락을 비교적 진실하게 반영하였다.
반면에 소시민적인 박애주의를 설교하고 부르죠아가정과 제도의 견고성을 긍정하는데로 기울어졌다.
뒤마(아들)는 프랑스사실주의극문학의 선구자의 한사람이다.

《동백꽃아가씨》

1848년에 프랑스작가 알랙쌍드르 뒤마(아들)가 창작한 장편소설.
당시 프랑스의 사회현실을 시대적배경으로 하여 《동백꽃아가씨》라는 별명을 가진 매춘부와 귀족청년사이의 비극적사랑이야기를 담고있다.
가난한 농민의 딸로 태여난 마르그리뜨는 살아가기 위해 자기의 아름다운 용모와 웃음을 파는 륜락의 길에 들어선다. 그는 남달리 동백꽃을 사랑한것으로 하여 사람들속에서 《동백꽃아가씨》로 불리운다. 그는 늘 동백꽃을 들고 귀부인과 같은 화려한 차림새로 빠리의 어두운 골목을 헤매인다.
그러던 어느날 그는 부르스거리에서 우연히 순진한 귀족청년 아르망 듀브와르를 알게 되며 그후 서로 사랑하는 사이가 된다. 마르그리뜨의 타락한 생활속에 흘러든 아르망의 사랑은 그 녀자의 가슴속에 청신한 감정과 미래에 대한 희망을 안겨준다.
그리하여 마르그리뜨는 페결핵으로 피를 토하면서도 그 깨끗한 사랑을 간직하려고 애를 쓴다. 그는 매춘의 구렁텅이에서 벗어나 아르망이 빠리교외에 마련한 사랑의 보금자리에서 행복한 생활을 시작한다.
그러나 그들의 사랑은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아르망의 아버지에 의하여 파탄되고만다. 아르망의 아버지는 아들 몰래 마르그리뜨를 찾아가 자기 아들의 장래와 가정의 행복을 위하여 스스로 물러나도록 간청한다.
마르그리뜨는 또다시 빠리의 밤거리를 헤매이며 바르비르백작의 위안부로 된다. 질투와 절망, 복수심에 사로잡힌 아르망은 마르그리뜨를 정신적으로 괴롭히는 한편 바르비르백작에게 결투를 요구하고 려행의 길에 오른다.
충격적인 타격을 받은 마르그리뜨는 병이 도져

림종에 이르게 된다. 려행에서 돌아온 아르망에게는 마르그리뜨의 일기책만이 남는다. 거기에는 아르망을 버리지 않으면 안되였던 마르그리뜨의 기막힌 사연과 아르망에 대한 그의 변함없는 사랑의 감정이 적혀있었다.

모든 사연을 알게 된 아르망은 마르그리뜨의 죽음을 끝없이 슬퍼하면서 그의 묘비를 찾아 생전에 그가 그렇게도 좋아하던 동백꽃을 뿌려준다.

소설은 아름다운 용모와 좋은 품성을 지니고도 륜락의 구렁텅이에 빠져 행복의 꿈을 이루지 못한채 숨지는 주인공의 형상을 통하여 사람의 인격을 모욕하고 자주성을 무참히 유린하는 황금만능의 자본주의사회의 부패성을 폭로하고있다.

소설은 1852년에 연극으로 옮겨지고 1853년에 이딸리아에서 가극 《뜨라비아따》로 각색되여 공연되면서 유명해졌다.

뒤마(아들)의 야유솜씨

사생아로 태여난 뒤마(아들)의 비극적인 출생을 걸고 그의 명성을 깎아내리려고 벼르던 명문귀족출신의 떨거지 극작가를 점잖게 야유한 일화가 있다.

한번은 그가 자기가 쓰고 각색했다는 희곡을 자랑하려고 뒤마를 초청하였다.

그들은 제일 앞줄에 나란히 앉아 연극구경을 하게 되였다. 그런데 공연이 시작되자 뒤마는 계속 옆과 뒤를 돌아보며 입속말로 《하나, 둘, 셋…》하고 셈을 세고있지 않는가! 《당신 뭘 하고있소?》라고 그 극작가가 의아해하며 묻자 뒤마는 계속 셈을 세면서 《당신을 대신해서 자는 사람들을 세고있소.》라고 대답하는것이였다.

그렇듯 그 희곡은 따분하고 지루하기 그지없었다.

퍽 후에 초청하지도 않았는데 그자는 뒤마의 소설 《동백꽃아가씨》를 각색한 가극공연을 보러 왔다. 그는 옆사람을 밀어내고 뒤마의 옆에 앉았다.

그는 뒤마가 한것처럼 옆자리, 뒤자리를 돌아보며 자는 사람이 없는가고 찾다가 하품을 하며 졸음을 쫓으려고 모대기면서 보고있는 사람을 하나 찾아내고야말았다.

그는 《존경하여마지않는 선생! 당신의 〈동백꽃아가씨〉를 보고있는 관중속에도 역시 자는 사람이 있구만요.》라고 좋아하면서 소곤거렸다.

그가 가리키는 곳을 피뜩 돌아본 뒤마는 《당신은 저 사람을 모릅니까! 그가 바로 당신의 연극을 보러 와서 시작부터 깊이 잠들어 코를 골던 사람이구만요. 그래도 이번에는 이 가극을 보려고 졸음을 쫓기에 무진 애를 쓰고있으니 기특하고 동정이 가는데요!》라고 점잖게 야유하는것이였다.

얼굴이 벌개서 유일하게 졸고있는 그 관객을 야속한 눈길로 바라보던 극작가는 그 관객이 드디여 졸음을 털어버리고 정신을 차리자 팥죽처럼 되여가는 얼굴을 숙이고야말았다.

《곱쎄끄》

1830년에 발자끄가 창작한 중편소설. 소설총서 《인간희극》의 풍속연구편에 들어있는 작품이다.

당대 프랑스사회현실을 배경으로 한 소설은 주인공 곱쎄끄의 형상을 통하여 돈에 대한 변태적인 취미와 그것이 인간개성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주고있다.

그랑그예자작부인의 객실에 소송대리인 데르빌이 찾아온다. 그는 녀주인에게 레스또백작의 가정력사에 대한 소설같은 이야기를 펼쳐놓는다. 그 이야기는 바로 유명한 고리대금업자 곱쎄끄와 관련된것이였다.

돈벌이에 환장한 곱쎄끄는 어려서부터 상선을 타고 식민지로 돌아다니며 노예장사를 하여 밑천을 장만하며 프랑스로 돌아와서는 그것을 밑천으로 고리대금업을 하여 굉장한 부자가 된다. 그러나 돈에 미친 곱쎄끄는 온갖 인간적감정을 상실한 린색한으로, 기형아로 변모되고만다. 그는 자기 재산의 손실을 막기 위하여 가정을 이루지 않고 독신으로 일생을 보내며 돈이 아까와 먹을것도 잘 먹지 않고 람루하다고 할만큼 옷차림을 하고다닌다. 오직 돈문제에 한해서만 흥분하며 희열을 느끼는 곱쎄끄는 빠리의 귀부인들이 자기를 찾아와 귀족의 체면도 지키지 못하고 머리를 풀어헤치고 눈물을 흘리면서 빚을 내여달라고 애원하는 모습을 보고 돈의 권위를 느끼며 더

없이 만족해한다.

한번은 레스또백작의 부인이 젊은 미남자와 치정관계를 맺어 막대한 금액을 소모하고 그 빚을 갚기 위해서 남편의 보석상자를 가지고 곱쎄끄를 찾아와 눈물을 흘리며 돈을 구걸한다. 백작은 자기 처가 방탕하고 허영에 찬 생활을 위해 자기 재산을 다 탕진해버리고 남편의 재산까지 써버리려 하며 가정과 자식들에게 불행을 끼치려는것을 참을수 없어 데르빌과 곱쎄끄를 만나 자기 재산의 처리를 위임한다. 그것은 자기가 죽은 후에 그 재산을 곱쎄끄의 소유로 했다가 일정한 시기가 지나 맏아들이 성년이 되였을 때 그에게 상속해 달라는것이였다.

그후 백작은 가정불화의 정신적고통과 병으로 죽는다. 곱쎄끄와 데르빌이 달려와 백작의 침실을 열었을 때 방안에서는 굉장한 광경이 벌어지고있었다. 기도를 한다던 백작부인이 자기 남편의 재산문서를 찾아내기 위하여 시체를 옆에 두고 온갖 서류를 뒤져 방안을 수라장으로 만들어놓았던것이다. 그러나 부인도 재산상속문제가 곱쎄끄와 데르빌에 의하여 이미 법적으로 처리되였다는것을 알자 어쩌지 못한다.

곱쎄끄는 그후 그 재산을 활용하여 더 많은 재산을 만들어냈으나 바로 그 돈으로 해서 사람이 괴상해지고 극도로 린색해지고만다. 금전에 대한 애착은 곱쎄끄의 인간적감정을 다 없애버리고 반대로 비인간적인 악만이 자라게 한다. 사람들에 대한 랭담성과 몰인정, 극도의 린색성 등은 주인공의 말로를 비참하게 한다.

소설은 곱쎄끄와 백작부인 등의 형상을 통하여 돈이 모든것을 지배하는 자본주의사회에서 황금이 사람들에게 얼마나 해로운 영향을 주는가 하는것을 형상적으로 밝혀내였다.

이 소설이 나온 다음부터 곱쎄끄의 이름은 돈에 환장한 온갖 린색한들에 대한 대명사로 되였다.

정열적인 독서가

발자끄가 방돔신학교에 다니던 때의 일이다.

때는 1809년 6월 5일. 고대력사시간이 지루하게 흘러가고있었다. 교단에서 신부가 갈리아전쟁사를 맥없이 가르치고있었다.

앞에서부터 세번째 줄에 얼굴이 불깃한 학생이 앉아있었다. 그는 열어놓은 창문으로 바람에 흔들거리는 나무를 물끄러미 쳐다보며 거기에만 정신을 팔고있었다.

《발자끄학생, 무슨 생각을 해. 정신이 어디 가있어?》

선생의 메마른 목소리에 30명이나 되는 학생들의 눈길이 방금 이름 부른 학생에게로 일제히 쏠리였다.

《발자끄학생, 못 들었는가?》

《얘 오노레, 어서 대답해.》 옆에 앉은 학생이 귀띔해서야 그는 제정신으로 돌아와 눈을 휘둥거리면서 교실안을 휘둘러보았다. 자다가 벌떡 일어난 사람모양으로 어린 학생은 침을 꿀꺽 삼키고 중얼거렸다.

《장군각하, 아니 저 신부님…》

온 교실안에 폭소가 터졌다.

엄한 신부가 그에게 다가가 말하였다.

《언제 봐도 그 꼴이구만. 게다가 선생을 놀려대기까지 하구. 넌 영창이다.》

영창이라는 소리에 이 어린 학생의 얼굴은 오히려 더 환해졌다.

이리하여 어린 발자끄는 방돔신학교에서 제일 스산한 곳에 위치한 영창에 갇히게 되였다. 한 주일치고 3~4일은 거기서 지내는 발자끄였다.

조금 있다가 도서주임인 로페브르신부가 들어왔다. 그는 스무권이 넘는 책을 안고 와서 나어린 영창구류자를 바라보며 빙그레 웃었다.

《그래, 또 벌을 받았구나!》

어린 발자끄가 꿈만해하는것을 보고 그는 말을 이었다.

《너 내가 책을 자꾸 가져다주니까 몰래 책읽는 재미에 우정 그러는게 아니냐!》

《아니예요, 신부님.》 발자끄가 아닌보살을 하였다.

《하긴… 네가 잘하는지도 모르겠다. … 제 좋아하는거라야 머리에 쏙쏙 들어가는거니까. 옛다.》

도서주임이 주는 책을 받은 발자끄의 눈은 기쁨으로 반짝이였다.

발자끄와 커피중독

발자끄는 커피를 매우 즐겼다. 커피가 없으면 일을 못할 정도였다.

발자끄는 새벽 1시부터 4시간동안 계속 사색하며 글을 쓰는 버릇이 있었는데 제아무리 기운이 좋은 발자끄라도 피로를 느끼게 되였다.

그러므로 새벽 4시부터 잠간동안 쉬군 하였다.

이때 발자끄는 펜을 놓고 일어나서 손수 커피를 끓여마시는것을 어길수 없는 철칙으로 삼았다.

어느날 한 친구가 그에게 묻기를 《자넨 커피를 무척 좋아하는데 커피가 그렇게도 맛이 있나?》라고 하니 발자끄는 웃으며 대답하였다.

《맛이 있다기보다는 내가 일을 하는데 필요하니까 마시네.》

《커피를 마시면 일이 잘되나?》

《그렇지! 커피가 없으면 일을 못할 정도이네. 피로한 머리를 커피가 활발히 움직이게 해주기때문이야. 다시말하네만 진하게 탄 커피를 마시면 머리속의 모든것이 활발히 움직이기 시작하지. 싸움터에 나간 나뽈레옹대군단의 각 대대가 움직이듯이 여러가지 생각이 행동을 개시한단 말이야. 그러면 그때부터 나의 싸움도 시작되네.》

그러나 발자끄는 너무 진한 커피를 날마다 어김없이 여러잔 마셨기때문에 끝내 커피에 중독되여버렸다. 51살에 죽은 발자끄는 죽기 5년전 그 친구에게 보낸 편지에서 다음과 같이 고백한적이 있었다.

《…종전에는 커피를 마시면 꽤 오랜 시간 내처 여러가지 생각들이 잘 떠올랐네만 요사이는 커피를 마신 효과가 종전처럼 오래 가지 않네그려. 지금은 겨우 몇시간밖에 내 머리를 흥분시켜주지 않거던. 그것도 몹시 위험한 흥분이야. 왜냐하면 내 위에 참을수 없는 아픔을 일으켜주니까…》

어떤 통계가의 계산에 의하면 부르죠아사회의 모순과 부르죠아지의 범죄적이며 략탈적인 치부과정을 폭로비판한 그 유명한 총서 《인간희극》을 쓰기 위해서 발자끄는 아주 진한 커피를 5만잔이나 마신셈이 된다고 한다. 그런데 발자끄는 이상하게도 일생 담배는 피우지 않았다.

그의 친구들이 사색의 피로를 푸는데 담배가 좀 낫더라고 할 때면 그는 《그건 모르는 소리야! 담배는 몸을 해치고 지성을 허물며 국민을 둔하게 만든다네!》라고 일축해버렸다고 한다.

단편소설 한편이 동기가 되여

발자끄가 쓴 작품들가운데는 한 수녀의 비참한 운명을 그린 단편소설이 있다. 소설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빠리교외에 있는 한 수도원에 쟌느라고 불리우는 순박한 수녀가 있었다. 그는 한창 피여나는 꽃나이였지만 밖의 세계와는 담을 쌓은 수도원에 갇히여 고독하게 살아간다.

그러던 어느날 수도원장은 그를 빠리로 심부름 보낸다. 사치와 류행으로 소문난 빠리의 번화한 거리에 들어선 쟌느는 눈이 핑 돌 지경이 된다. 즐비하게 늘어선 상점들의 진렬장마다에는 갖가지 희한한 상품들이 길손들의 눈길을 유혹하고 짙은 향수냄새를 풍기며 살갗이 내비치는 화려한 옷차림을 한 녀인들과 그들을 향해 추파를 던지는 청년들이 거리에 물결쳐흐르고있었다.

쟌느는 비록 수녀의 검은 옷을 입었지만 젊고 생신한 아름다움으로 하여 청년들의 눈길을 끈다.

쟌느는 난생처음 보는 도시풍경과 색다른 감촉에서 지금껏 느껴보지 못한 이상야릇한 충동을 받는다. 어둑컴컴한 수도원에서 한생을 속절없이 보내는것을 숙명으로만 생각했던 처녀의 가슴에도 어느덧 삶을 즐겨보고싶은 욕망이 머리를 쳐든다.

그는 끝내 이 욕망을 이기지 못하여 심부름을 보내면서 하던 수도원장의 당부도 잊고 자기를 따르는 한 청년과 공원의 짙은 나무그늘밑에서 사랑을 속삭인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쟌느를 꾀인 청년은 거리의 불량배였다. 그는 순진한 처녀를 마음껏 희롱한 후 헌신짝처럼 차버린다. 쟌느는 어디에도 의탁할데가 없는 불행한 몸이 되여 한달동안 거리를 헤매다가 유곽의 창부로 굴러떨어지고만다.

발자끄는 이 작품에서 주인공의 비참한 운명을 통하여 인간다운 삶을 갈망하는 순진한 처녀를 파멸시킨 부르죠아사회현실을 날카롭게 비판하였다.

작가는 이 작품을 쓰면서 빠리교외에 실지 있는 수도원의 이름을 달았다.

이 단편소설이 발표되였을 때였다.

작품을 읽은 수도원의 원장은 노발대발하였다.

수도원의 이름도 같았지만 공교롭게도 여기에는 소설에 나오는 주인공의 이름과 꼭같은 수녀가 있었던것이다.

원장은 노기를 참지 못하여 수녀 쟌느를 불렀다.

《발자끄라는 작가가 신성한 우리 수도원을 모욕했어요. 우리들의 얼굴에 먹칠을 했단 말이예요. 그는 하느님과 교회를 모욕한 비방군이예요. 자, 읽어보세요.》

원장이 내민 책을 받아서 읽고난 쟌느는 울음을 터뜨렸다. 그러자 원장은 당장 발자끄를 찾아가서 순결한 처녀를 모욕한데 대하여 온 프랑스에 사과할것을 요구하라고 고아대였다. 이리하여 쟌느는 빠리로 가서 발자끄의 집을 찾게 되였다.

발자끄의 서재에 안내된 그는 얼굴도 들지 못한채 찾아온 사유를 떠듬떠듬 이야기하였다. 이야기를 끝냈지만 발자끄에게서 아무런 반응도 없자 쟌느는 살며시 고개를 들었다. 그런데 발자끄는 그의 이야기를 들었는지말았는지 원고집필에만 정신을 쏟고있는것이 아닌가.

쟌느는 안타까운 나머지 울다싶이하며 처음부터 다시 이야기를 시작하였다. 그제야 처녀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던 발자끄는 그가 작품때문에 얼굴을 들고다닐수 없을 정도로 수치스럽다고 말하자 도무지 리해가 안된다는듯 머리를 가로저으며 《수치스럽다는것이 도대체 무엇이요? 내가 쓴것은 죄다 사실이며 진리란 말이요.》라고 버럭 소리를 질렀다. 깜짝 놀란 쟌느는 더럽혀진 자기의 명예를 찾아줄것을 거듭 요구하였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발자끄선생님, 선생님이 도와주려고 하지 않으니 저는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그의 말을 듣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난 발자끄는 격분하여 부르짖었다.

《그래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단 말이요? 내 소설에는 당신의 경우에 취해야 할 립장이 아주 명백히 씌여있단 말이요. 거기에 무슨 의문이 있소?》

《그럼 선생님은 저도 빠리에 남으란 말씀인가요?》

《그렇소. 바로 그렇단 말이요!》

《그래서 선생님은 저더러 유곽에 가라는 말씀인가요?》

그러자 발자끄는 두팔을 벌려 흔들며 열정적으로 말하였다.

《아니요. 아니란 말이요. 나는 다만 당신이 그 검은 수녀의 옷을 벗어던질것을 바랄뿐이요. 당신같은 젊은 몸이, 산 진주처럼 아름다운 그 몸이 기쁨과 사랑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기를 원할뿐이요.

가시오! 어서 가시오. 그러나 유곽으로는 가지 마오. 이제는 가시오. 당신은 참 귀엽소. 당신때문에 나는 서른페지의 원고를 밑졌소. 이것이 얼마나 큰 손실인지 당신은 알지 못할거요.》

이 일이 있은 때로부터 한해가 지난 어느날 빠리의 거리에서 대학생들속에 끼여 유쾌하게 웃으며 정열적으로 이야기하는 쟌느의 아릿다운 모습을 볼수 있었다. 한떨기의 꽃처럼 피여난 그는 삶의 희열에 넘쳐있었다.

도이취어를 모르는탓에

발자끄가 도이췰란드로 려행한 일이 있었다. 그런데 그는 도이취어를 한마디도 몰랐다.

한번은 그가 어느 한 소도시에서 버섯료리를 먹고싶은 생각이 나 식당에 들렸다. 도이취어를 모르는 발자끄는 손시늉을 해가면서 자기가 요구하는 료리를 설명하였다. 그래도 식당주인은 그의 요구를 리해하지 못하였다.

발자끄가 할수없이 펜을 들고 종이장에 큰 버섯 하나를 그려놓았다. 식당주인은 그제야 웃으면서 머리를 끄덕였다. 발자끄는 자기가 그림으로 의사를 멋있게 표현할수 있었다는데 대해 매우 흡족하게 생각하였다.

그가 만족해서 맛좋은 버섯료리를 기다리고 있는데 식당주인은 큰 양산을 펼쳐들고 그에게로 다가왔다.

필적을 보고 성격을 알아맞추는 재주

발자끄에게는 필적을 보고 성격을 알아맞추는 재주가 있었다. 재주라기보다 그것을 좋아하였다.

어느날 한 녀성친구가 그 누군가의 련습장을 한장 찢어 그에게 가져왔다.

《이 필적의 주인인 총각애의 성격을 알고싶어요. 사실대로 말해도 돼요. 그건 내 아들이 아니니까.》

몇분간 그 필적을 유심히 관찰하고나서 발자끄가 말했다.

《됐어, 말해주지. 이 사내애는 아주 게으르고 떼질쟁이구만!》

《거참 신통한데요!》 녀성친구는 웃으면서 말하였다.

《이건 당신이 어릴 때 쓰던 련습장에서 한장 찢어온것이예요.》

출세작 《비게덩어리》

모빠쌍이 작가로서 성공한데는 플로베르의 세심한 지도가 깃들어있었다.

모빠쌍은 외삼촌과 막역한 친구간인 플로베르의 지도를 받게 되면서 졸라를 비롯한 많은 작가들을 알게 되였다.

요구성이 강했던 플로베르는 모빠쌍이 가져온 단편소설들을 읽어보고 웬만한것은 통과시키지 않았다. 모빠쌍은 플로베르가 마음에 들어할 때까지 인내성있게 소설을 다시 쓰기에 진땀을 빼군 하였다.

플로베르에게는 문학에 뜻을 둔 많은 제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일요일마다 그의 객실에 모여 문학을 론하였다. 그들은 어느날 졸라의 제기에 따라 각자가 전쟁주제(프랑스—프로씨아전쟁)의 단편소설을 한편씩 써서 단행본으로 묶어 출판하기로 합의하고 흩어져갔다.

그리하여 모빠쌍의 단편소설 《비게덩어리》와 졸라의 단편소설 《물방아간공격》을 비롯한 전쟁주제작품들이 창작되여 플로베르의 손에 들어갔다.

신인작가들이 쓴 작품인 경우에 그에 대한 평가문제가 자못 심각하게 제기되였다. 작품이 어떻게 평가되는가에 따라 그 작가의 운명문제까지도 결정된다는것을 생각할 때 심중하지 않을수 없는것이다.

플로베르가 신진작가들이 쓴 작품을 과연 어떻게 평가할것인가.

집으로 돌아온 모빠쌍은 마음이 조여 안절부절하였다. …

플로베르는 그들이 쓴 작품을 엄격히 평가해나갔다. 그런데 그가 모빠쌍이 쓴 단편소설 《비게덩어리》를 읽고 무릎을 친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였다.

플로베르는 단편소설 《비게덩어리》를 읽자마자 책상우에 편지지를 꺼내놓고 그 자리에서 모빠쌍에게 편지를 썼다.

《어서빨리 자네에게 전해주지 못하는것이 안타깝네. 나는 〈비게덩어리〉를 걸작으로 본다. 그렇다. 젊은이, 갈데 없는 걸작이다. 대가의 풍격이 력력하다. 구상이 참신하고 독창적이다. 문장도 훌륭하다. 배경도 인물도 선하다. 심리묘사도 멋지다. 찍어말해서 나는 대만족이다. 소설을 보면서 두어번 큰소리를 내여 웃었다. … 이 자그마한 작품은 길이 남게 될것이다. 내가 담보한다. …》

그로부터 두달후에 이 전쟁주제작품들이 졸라가 주관하는 잡지 《메당의 저녁》에 실리면서 《비게덩어리》는 일대 파문을 일으켰다.

단편소설 《비게덩어리》는 모빠쌍을 문단에 내세워준 출세작이였다.

모빠쌍의 재능을 인정하면서도 그의 단편소설들에 반영된 지나친 자연주의적경향에 대하여 늘 비난해오던 레브 똘스또이도 이 소설을 읽고는 《생각이 일변하였다.》고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고 한다.

《한줄도 쓰지 않고 지난 날은 하루도 없다》

졸라는 어려서부터 남에게 지지 않으려는 경쟁심과 욕망이 남달리 강했다.

7살때 아버지를 잃은 졸라는 17살때 시골에서 빠리로 나왔다.

졸라는 자라면서 말할수 없는 고난과 굶주림속에 허덕였다. 바지까지 저당잡혀 모포로 하반신을 가리우고 아라비아인의 흉내를 내던 일, 빵이 떨어져서 하숙집지붕에서 참새를 잡아 구워먹던 일 등 그의 빈궁과 관련한 일화들이 많다.

발자끄를 창작의 스승으로 삼고있던 졸라는 발자끄의 《인간희극》을 본받아 프랑스부르죠아사회를 발가놓을 야심에 불타 1868년부터 총서 《루공—마까르일가》(전 20권)를 구상하고 창

작하기 시작하였다.

이때부터 그가 좌우명으로 한 《한줄도 쓰지 않고 지난 날은 하루도 없다.》라는 표어를 문자 그대로 실천하였다.

그의 집필생활은 기계와 같이 규칙적이였다. 매일 아침 8시에 기상, 오전에는 매일 번지지 않고 원고를 쓰고 오후에는 자료연구, 편집, 신문원고집필에 몰두한다. 저녁에는 독서… 술은 거의 마시지 않았으며 30대 후반기부터는 건강상리유로 담배도 끊었다.

집필이외의 생활에서는 매우 단정하였다. 소포가 도착하면 그 끈을 동그랗게 감아서 책상서랍에 보관하였다고 한다.

졸라의 소설총서 《루공—마까르일가》는 작가의 이러한 피타는 노력에 의하여 태여났다.

《예술이여! 무엇때문에 우리의 심장을 괴롭히는가!》

플로배르의 령지가 있는 꾸르아쎄는 당대의 이름난 작가들의 상봉장소로 되여있었다. 플로배르의 서재로는 졸라, 모빠쌍, 뚜르게네브를 비롯한 많은 작가들이 찾아왔다.

플로배르는 자기가 쓴 글에 대하여 얼마나 요구성이 강했던지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글은 모조리 없애버렸다.

작품창작에 앞서 자료를 철저히 연구하고 분석해야 한다는 원칙을 내세운 그는 장편소설 《보바리부인》을 쓰기에 앞서 100권이상의 력사문헌자료를 보았다.

하기에 플로배르는 《보바리부인》을 쓰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짜증과 싫증 그리고 피로때문에 내 머리는 벙벙하다. 4시간동안 앉아있었는데 한구절도 생각해내지 못했다. 오늘은 진종일 한줄도 쓰지 못했다. 정확히 말해서 아무 소용도 없는 구절들을 백여개나 지워버렸다. 예술이여! 이게 얼마나 고약한 망상이람. 그런데 이것이 무엇때문에 우리의 심장을 괴롭히는것인가!》

플로배르의 훌륭한 문장들은 그의 피타는 노력의 결정체였다고 동시대인들은 말하였다.

플로배르가 문장작업에 남다른 노력을 기울이다나니 그의 집 창문가에는 장밤 불빛이 꺼지지 않았다.

그리하여 그의 창문은 자연히 강에서 밤물고기잡이를 하는 어부들의 등대로 되여버리고말았다.

상상을 중요시한 모빠쌍

어느날 에밀 졸라는 몇몇 작가들이 모인 자리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였다.

《작가에게 있어서 상상이란 전혀 필요없는 것이요. 작가의 직업은 오직 정확한 관찰에만 기초하여야 하오.》

졸라의 말을 주의깊게 듣고있던 모빠쌍이 그에게 이렇게 되물었다.

《그렇다면 당신이 어느 한 신문기사에 기초해서, 더우기 몇달씩 두문분출하면서 큰 장편소설을 쓴다는 사실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가요?》

졸라는 아무 말도 할수 없었다.

모빠쌍은 모자를 찾아쥐고는 작가들에게 가볍게 머리를 숙인 후 자리를 떠났다. 그는 그 누구이건 상상을 부인하는데 대해서는 참을수가 없었던것이다.

모빠쌍은 상상을 창작의 필수적인 요인의 하나로, 시와 산문의 비옥한 흙으로 여기면서 매우 중요시하였다.

프랑스의 이름난 과학환상소설가 쥘 베른

쥘 베른(1828—1905)은 낭뜨의 변호사의 집안에서 태여나 법학교육을 받았다. 극장의 총장서기, 재정기관 직원 등으로 일하면서 극작품들을 창작하다가 첫 장편소설 《기구를 타고 5주일, 발견려행》(1863)이 호평을 받자 직업적작가로 되였다.

그후 19세기에 이룩된 큰 과학적발견들을 연구한데 기초하여 과학환상소설, 지리학적인 모험소설, 사회풍자소설들을 련이어 써냈는데 그 수는 무려 66편에 달한다.

그가운데는 《지구중심으로의 려행》(1864), 《지구로부터 달에로》(1865), 《달일주》(1866), 《하떼라스선장의 려행과 모험》

(1866), 《그란뜨선장의 아이들》(1868), 《바다밑 20만리》(1869), 《80일간 세계일주》(1872), 《비밀이 있는 섬》(1875), 《15살난 선장》(1878), 《정복자 로부르》(1886) 등이 있다.

베른의 창작은 지구와 우주의 비밀을 알아내려는 과학적환상과 랑만성으로 충만되여있으며 그가 내세운 주인공들은 사심없는 학자들과 인도주의자들, 때로는 압제와 민족적억압을 반대하는 투사들로 형상되여있다.

베른은 민주주의적이며 공화주의적인 견해를 가지고있었으며 공상적사회주의자들, 1871년 빠리꼼뮨의 활동가들과 련계를 가지고있었다. 후날 그는 과학이 달성한 성과를 부자들이 돈벌이수단으로 리용하는것을 반대해나섰다.

과학환상문학의 선구자로 된 쥴 베른의 창작은 후세의 과학환상소설가들과 과학자, 탐험가들에게 큰 영향을 주었다.

《바다밑 20만리》

1869년에 프랑스작가 쥴 베른이 창작한 과학환상소설.

공상적인 잠수함과 그 선장에 대한 이야기를 통하여 온갖 억압과 압제를 반대하는 작가의 인도주의적사상을 보여준 작품이다.

프랑스해양학자인 나는 충실한 조수 꽁쎄유와 함께 세상사람들을 놀래우는 바다괴물을 추격하는 군함에 오르게 된다. 그런데 바다괴물과의 싸움때 물에 떨어진 나와 꽁쎄유, 고래잡이명수 네드는 지금껏 괴물로만 알려졌던 잠수함의 선장 네모와 그의 부하들에 의하여 구원된다.

작품에서는 나의 일행이 신기한 동력을 가진 잠수함 《노띨러스》호를 타고 10여개월에 거쳐 지구상의 모든 바다밑을 항행하는 과정을 보여주고있다. 이 과정에 일행은 이 배를 직접 설계하고 제작한 네모선장과 함께 가지가지의 기이한 일들을 겪으면서 아직 그 누구도 보지 못한 바다밑의 신기한 광경을 보게 된다.

작품은 거대한 소용돌이속에 휘말려든 《노띨러스》호에서 세사람이 빠져나오는것으로 끝나고있다.

작품은 주인공 네모선장의 형상을 통하여 자유와 행복을 사랑하고 온갖 압제를 반대하는 인도주의사상을 보여주고있다. 네모선장은 사랑하는 모든것을 억압자들에게 빼앗기고 바다속생활에서 자유를 찾는 인물이다. 비상한 재능과 강의한 의지, 뜨거운 인정미를 가지고있으나 압제자들에게는 무자비한 네모선장의 형상속에는 작가의 인도주의적립장이 그대로 반영되여있다.

작품은 또한 풍부한 환상과 랑만성, 자연에 대한 해박하고도 폭넓은 지식이 안받침되여있는것으로 하여 과학환상소설로서의 특색을 살리고있다.

《바다밑 20만리》는 과학환상소설의 선구적작품으로 세상에 널리 알려져있다.

《집 없는 아이》

프랑스작가 액또르 앙리 말로(1830—1907)가 1878년에 발표한 장편아동소설.

소설은 19세기 후반기 프랑스의 소년방랑음악가의 비참한 운명을 통하여 부르죠아사회에서 가난한 아이들이 겪는 사회적불행을 반영한 작품이다.

부모의 얼굴도 모르고 남의 손에서 자란 주인공 레미소년은 8살 잡히던 해에 늙은 방랑악사 비딸리스에게 팔려간다. 레미의 주인이 된 비딸리스로인은 원숭이와 개를 데리고 다니면서 동물재주를 부려 살아가는 방랑광대였다.

레미는 로인을 따라 지방을 순회하면서 가난하게 살아간다. 그런데 어느날 경찰이 생트집을 걸어 로인은 재판을 받고 두달동안 감옥에 갇히게 된다.

주인을 잃은 레미는 원숭이와 개를 데리고 홀로 방랑하다가 굶어죽을 지경이 된다. 그는 우연히 만난 돈많은 영국사람 밀리강부인의 구원을 받는다. 레미는 부인이 병든 아들을 치료하고있는 유람선 《백조》호에서 두달동안 지낸다.

얼마후 비딸리스로인이 석방되여 그들은 다시 방랑의 길을 떠난다. 정처없이 방랑하는 과정에 산속에서 눈보라를 만나 개 두마리는 승냥이에게 빼앗기고 원숭이는 병을 만나 죽게 되며 빠리에서 비딸리스로인마저 앓다가 죽고만다.

레미도 생명이 위급했으나 마음씨 고운 화초집주인 아깽의 구원을 받아 그의 집에서 같이 살게 된다. 2년만에 다시 레미에게 불행이 닥쳐온다. 그가 신세를 지고있던 화초집이 망하고 집

주인이 빚을 물지 못한탓으로 감옥에 갇힌것이다.

개를 데리고 다시 방랑의 길을 떠난 레미는 바이올린을 연주하면서 거리를 류랑하는 마찌아소년을 만나 서로 마음을 의지하면서 함께 방랑생활을 하게 된다.

소설마감에 레미는 자기의 친어머니를 만나 고생살이에서 벗어나게 된다. 그의 친어머니는 다름아닌 돈많은 영국녀성 밀리강부인이였다.

작품은 순진하고 마음씨 착한 주인공 레미소년이 근심걱정을 모르고 마음껏 배우며 뛰놀아야 할 나이에 길가에 던져진 조약돌처럼 버림을 받고 정처없이 류랑하는 모습을 통하여 자본주의사회에서 가난한 사람들의 비참한 운명을 보여주고있다.

소설은 부모잃고 류랑하는 가난한 아이들이 늘어나 사회적인 문제로 되던 시기에 창작된것으로 하여 적지 않은 의의를 가지였다. 또한 소설은 아동문학에서 불행한 아이들의 운명문제를 취급한 선구적인 작품으로서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졌다.

《홍당무》

프랑스작가 쥴 르나르(1864-1910)가 1894년에 발표한 중편아동소설.

19세기말 프랑스의 자본주의적현실을 배경으로 하고있는 소설에서는 《홍당무》라는 별명으로 불리우는 한 농촌소년의 생활을 그리고있다. 소설은 일관한 이야기줄거리가 없이 주인공의 일상생활에서 있은 일을 반영한 49편의 일화로 구성되여있다.

루삐끄일가의 막내아들인 주인공은 어머니의 미움을 받으면서 불우하게 자란다. 어머니는 자기 자식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빨간 머리이고 주근깨투성이라고 하여 홍당무라고 부르면서 그를 이붓자식 다루듯 한다.

늘 어머니의 사랑을 받는 형이나 누나를 보는 홍당무의 심정은 복잡하다. 캄캄한 밤에 무섬증에 몸을 떨면서 밖에 나가 닭장의 문을 닫아야 하는것도 제일 나어린 홍당무이며 아버지가 사냥나갔다가 잡아온 새를 처리할 때 모두가 싫어하는 새의 모가지를 비틀어죽이는 일도 홍당무가 해야 했다. 마당에서 곡괭이로 땅을 파다가 형의 곡괭이질에 홍당무가 상했을 때 간호를 받은것은 이마에서 피가 흘러내리는 홍당무가 아니라 동생의 이마에서 흘러내리는 피를 보고 기절한 형이였다.

맛있는 음식이 생기면 어머니는 홍당무가 좋아하는 음식이 아니라면서 형과 누나하고만 같이 먹는다. 홍당무는 그들이 먹고난 메론(향참외)껍질을 토끼우리에 가져다가 자기가 먼저 핥아먹은 다음 토끼들에게 던져준다.

학교에 가게 되여 형과 함께 기숙사에서 생활하다가 방학때 돌아가도 홍당무는 언제 한번 어머니의 따뜻한 포옹과 입맞춤을 받지 못한다. 가족사진첩에는 홍당무의 사진은 한장도 없고 형과 누나의 사진들만 가득하다. 하여 자기 가족들속에 있으면서도 홍당무는 매우 외롭게 지낸다. 그가 마음이 통하는것은 아버지뿐인데 아버지도 어머니앞에서는 그를 두둔하지 못한다.

홍당무는 차차 이런 집안이 싫어져 한번은 아버지보고 방학때에도 기숙사에 남아있게 해달라고, 아니면 집에서 나가 로동을 하겠다고 조르기까지 한다.

소설은 이러한 홍당무의 생활을 통하여 그의 내면세계를 깊이있게 펼쳐보이고있다.

소설은 작가가 자신의 소년시절을 회상하여 쓴 자서전적작품이다. 소설에서 보는바와 같이 어머니가 아들을 미워하고 천대하는것은 보기드문 일이며 매우 불행한 일이다. 작가는 이런 경우 아이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것을 주인공 홍당무의 형상을 통하여 보여주고있다. 홍당무는 그러한 불행한 환경속에서도 조금도 이지러지지 않으며 너그럽고 착하고 씩씩한 소년으로 자라난다. 소설에는 어머니의 부당한 처사로 하여 괴로움을 당하면서도 천진스러운 성격으로 하여 그것을 용케 이겨내며 될수록 어머니와 마찰을 일으키지 않고 살아가려는 그의 마음의 움직임이 섬세하게 그려져있다. 작품은 가벼운 해학과 풍부한 시적정서가 넘쳐나고있는것이 특징이다.

작품은 착취사회에 대한 비판정신이 약하며 선량하고 너그러운 마음만 가지면 불행도 이겨낼수 있다는 사상을 표명하는데 그친 제한성을 가지고 있으나 독특하고 개성적인 인물성격을 창조한것으로 하여 유명해졌다. 소설은 희곡과 영화로 옮겨졌다.

제인 오우스틴

영국녀류소설가(1775—1817). 함프샤의 시골목사의 딸로 태여나 농촌에서 조용히 생활하면서 소설창작에 힘썼으며 한생을 독신으로 지냈다.

20살때부터 소설을 쓰기 시작한 그는 총 6편의 장편소설들을 남겼다.

그가 활동한 시기는 대외적으로는 프랑스부르죠아혁명이 나뽈레옹전쟁으로 번진 매우 소란스러운 때였으며 영국에서는 산업혁명이 한창이고 문단에서는 랑만주의가 성행한 때였다.

이 시기 시골의 협소한 사교계에 드나들던 작가는 작품의 소재를 모두 자기가 체험한 지방중산층의 생활에서 취재하여 그것을 사실주의적으로 묘사하였다.

그의 소설은 18세기말—19세기초 영국의 지방세태풍속에 대한 사실적인 묘사, 밝은 유모아와 예리한 풍자, 재치있는 심리묘사로 하여 영국소설사에서 일정한 자리를 차지하게 되였다.

대표작은 두 처녀의 결혼문제를 둘러싼 인간관계를 통하여 지방생활을 펼쳐보인 장편소설 《거만과 편견》(1813)이다.

그밖에 《분별심과 다감한 마음》(1811), 《엠마》(1815), 《납득》(1818, 출판) 등의 장편소설들이 있다.

펜을 총으로 바꾸어

바이런은 배안의 병신인 절름발이였으나 정의감이 매우 강하고 한번 결심하면 어떤 난관도 뚫고나가는 강의한 성격의 소유자였다.

장편서사시 《돈 쥬안》을 썼을 때 그는 36살이였다. 이무렵 바이런은 시인으로서의 나의 일은 이제 끝났다, 이제부터는 뭔가 세상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해야 하겠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던 바이런은 마침내 유럽문명의 터전인 그리스로 갈것을 결심하였다.

그 당시 뛰르끼예의 지배를 받고있던 그리스사람들은 압제자들을 반대하여 독립운동을 벌리고있었다. 그전부터 그리스의 독립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있던 바이런은 그리스의 자유와 독립을 위해 힘껏 싸우고싶었던것이다.

바이런을 맞이한 그리스사람들은 기쁨을 참지 못하였다. 영국의 이름난 시인이 자기들을 도우러 왔으므로 그리스독립군은 대포를 쏘아올리고 환성을 지르며 바이런을 맞이하였다.

바이런은 그리스의 미쏠롱에서 지휘관으로 되였으며 병사들과 함께 용감하게 싸웠다. 그는 1824년 7월 뜻을 같이하는 친구와 함께 제노아를 떠나 종군하던중 그만 열병에 걸리게 되였다.

바이런은 병석에서 높은 열때문에 괴로와하면서도 《앞으로! 앞으로! 나를 따르라!》라고 헛소리만 치다가 자기의 꿈을 실현하지 못한채 36살의 짧은 생애를 마쳤다.

결 투

바이런이 이딸리아에서 망명생활을 할 때였다.

말을 타고 산보하기를 즐기는 그에게 하루는 검정말 한필이 생겼다. 그 말은 라벤나에 있는 로마법왕호위대 장교에게서 돈을 주고 산것이였다.

투레질하며 고개를 주억거리는 말을 손으로 쓸며 이것저것 살펴보던 바이런의 얼굴에 불현듯 분노가 서리였다. 비칠거리며 걷는 절름발이말이였던것이다. 절름발이인 자기자신에 대한 지독한 모욕임을 그는 대번에 알아차렸다.

그는 당장 하인을 보내여 그 장교를 데려오게 하였다. 그리고는 돈을 돌려줄것을 요구하였다. 그런데 장교가 대뜸 거절하는것이였다.

바이런은 노기가 꼭두까지 치밀어올랐다. 그러나 장교는 막무가내였다. 자기는 로마의 귀족가문에 속하며 신성한 법왕호위대의 장교라고 떵떵 을러멨다.

《그럼 내 당신을 만족시켜드리지요.》

바이런은 가슴을 펴면서 무기를 골라잡으라고 말했다. 그리고는 가늘고 기다란 에스빠냐 쌍날검을 성큼 집어들었다. 그의 가문에서 대대로 전해내려오는 검이였다. 장교도 자기의 검을 뽑아들었다.

두사람은 서로 마주하고 섰다. 바이런은 매서운 눈길로 장교를 노려보며 다가갔다. 장교는 한순간 주춤거리더니 뒤걸음질치기 시작했다. 좀전의 위세는 온데간데 없어졌다. 바이런이 검을 휘두를만 한 거리에까지 바싹 접근했을 때 그는 외마디소리를 질렀다.

《난 캄캄한데서 싸우고싶지 않소. 우리는 결투가 금지되여있소.》

바이런이 팔을 쳐들어 한칼에 요정내려고 하는 찰나 장교는 검을 버리고 급기야 뺑소니치고 말았다.

《나는 명예를 위해서 헤염쳤다》

바이런은 한번 마음먹으면 기어이 해내고야마는 강의한 의지의 소유자였다.

아버지를 닮은 예쁜 소년이였으나 아쉽게도 그는 태여날 때부터 절름발이였다. 그렇지만 바이런은 행동이 재빠르고 남에게 지기 싫어하였으며 불편한 다리를 끌고 산과 들을 오고갔다.

그는 운동을 좋아하고 특히 수영을 아주 잘하였다.

1810년 4월의 어느날 22살의 바이런을 태운 배가 신화와 전설의 바다 그리스의 동쪽에 펼쳐진 에게해를 따라 북쪽으로 달려 테네도스해협에 이르렀을 때였다. 유럽과 아시아대륙사이에 좁고 긴 다다넬스해협이 보이는 이곳은 그리스신화에서 레안도로스라는 청년이 건너편 바다가에 살고있는 애인을 만나기 위해 헤염쳐갔다는 곳이다. 해협을 물끄러미 바라보는 바이런의 가슴에는 말할수 없는 정열이 타올랐다.

《좋아! 나도 레안도로스처럼 저 해협을 헤염쳐 건너갈테다.》

그는 아연실색한 친구들과 하인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갑판에서 물에 뛰여들었다. 그러나 그는 도중에서 기운이 빠져 위급한 지경에 이르렀으며 구조선이 급히 달려가서야 간신히 그를 배에 끌어올릴수 있었다.

그런데 정신을 차린 바이런은 옆사람들이 미처 붙들새도 없이 다시 바다로 뛰여들었을뿐만아니라 지칠대로 지쳐 헐떡거리면서도 기어이 5Km폭의 해협을 헤염쳐건너가고야말았다.

《레안도로스는 사랑을 위해서 헤염쳤다. 하지만 나는 명예를 위해서 헤염쳤다.》

바이런은 자기의 즉흥시에서 이렇게 노래하였다. 그는 유럽에서 아시아까지 헤염쳐건너간 이 사실을 일생의 영예와 자랑으로 여겼던 것이다.

바이런의 시

기계파괴자들에게

(1)

바다 건너 청년들
피흘리며 자유와 바꾸듯이
우리도 동무들아
자유 얻고 살자 아니면 싸우다 죽자
모든 제왕들을 쳐부시자!

(2)

우리 짜는 비단이 다 짜지고
북을 검으로 바꿔쥐는 날엔
발밑에 쓰러진 억압자들우에
물결치는 비단을 덮어씌워
시꺼먼 피로 물들이자

(3)

개흙처럼 썩은 그의 심장에서
비단은 먹물에 물들어도
기계파괴자들이 심은 자유의 나무는
이 피를 거름으로
힘있게 자라리라

그리스의 아들이여

그리스의 아들이여, 일떠서라!
영광에 찼던 시절은 지나갔어도
조상의 피를 이은 후손다웁게
조국의 영예 드높이 떨쳐나서라

그리스의 아들이여 어서 나가자!
손에손에 무기를 들고 원쑤를 치러
증오에 타는 붉은 피 흐르고흘러
우리의 발밑에서 강을 이룰 때까지

뛰르끼예폭군의 멍에를 끊고
장부답게 싸움터로 달려나가자
조국에 보여주라, 그대들의 높은 기개

온갖 사슬 산산이 짓부시는 그 위용을
용감하던 장군과 현인의 넋이
다가올 싸움을 지켜보리라!
지나간 세기의 그리스여
그대는 다시금 소생하리라
나의 우렁찬 나팔소리에
잠을 깨라 오, 나의 뒤를 따르라!
일곱둔덕의 도시를 탈취하여라
　그리스의 아들이여!

스파르타 스파르타여 어째서 그대는
혼곤히 잠든채로 누워있느냐?
눈을 뜨라, 그대의 옛 동맹자
아테네와 더불어 대렬에 서라!
조상들의 노래에서 떨쳤던 두령
레오니다스가 부르고있다
지난날 조국을 멸망에서 구원하였던
그는 무자비했더라! 그는 강의했더라!
그는 옛 테르필래에서
과감한 전술의 명장이였고
조국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페르샤의 침략자와 맞서 싸웠다
300차례의 전투를 벌려
끝까지 그는 굴할줄을 몰랐다
성난 사자마냥 싸우던 끝에
피바다에 잠기며 숨을 거두었다
　그리스의 아들이여!

단 시

국내에서 싸울 자유 없다면 사나이여
　이웃나라에서 싸움터를 찾아라
그리스와 로마의 승리를 본받아
　자유를 짓밟는자들의 흉계를 짓부시라
인류를 위해 몸바침은 장한 일이로다
　언제나 고상한 이름이 따르리니
자유위한 싸움터는 어디에나 있거니
　총탄과 교수대에 쓰러진다 하여도
사나이여, 영예는 너의것이 되리라

《돈 쥬안》

바이런이 1819－1824년에 창작한 장편서사시(미완성).

희세의 방탕아로 알려져있는 전설적인 귀족청년 돈 쥬안의 모험에 대한 이야기를 펴나가면서 19세기 영국을 비롯한 유럽나라들의 사회현실을 풍자비판한 시작품이다.

에스빠냐귀족 돈 쥬안은 한 유부녀와의 치정관계가 드러나 외국으로 쫓겨가게 된다. 도중에 배가 파손되여 간난신고끝에 그리스의 어느 한 해적섬에 오르게 되는데 그곳에서 돈 쥬안은 해적두목의 딸 헤이디와 열렬한 사랑을 주고받는다. 그러나 처녀의 아버지에게 들키여 죽을번 했다가 겨우 목숨을 부지하고 뛰르끼예의 콘스탄티노플(이스딴불) 노예시장에 끌려가게 된다. 노예시장에서 뛰르끼예 술탄(군주)의 후궁에 끌려가 신임을 받던 돈 쥬안은 뜻하지 않는 일로 후궁의 노여움을 사게 되자 탈출하여 이스마일을 포위하고있는 로씨야군에 입대한다. 이스마일공격전에서 공을 세워 사령관의 급사로 뻬쩨르부르그로 간 돈 쥬안은 로씨야궁전에 드나들면서 녀황제의 환심을 사게 되여 영국에 밀사로 파견된다. 여기서부터 작품은 영국의 사회정치제도, 법률, 풍속등에 대한 풍자적묘사를 기본으로 전개된다.

서사시는 에스빠냐귀족사회와 해적섬, 노예시장과 뛰르끼예 술탄의 궁전, 로씨야 예까쩨리나2세의 궁전과 런던의 사교계 등 돈 쥬안이 체험하게 되는 생활의 폭을 넓히면서 유럽반동군주들의 련합세력과 황금이 지배하는 부르죠아사회현실을 폭로하고 억압당하는 인민들에게 투쟁에 나설것을 호소하고있다.

작품은 특히 영국부르죠아사회를 위선적인 자유와 덕행의 나라로, 황금만능주의에 기초한 썩어빠진 사회로 신랄하게 폭로풍자하고있다.

서사시는 바이런의 선행한 시작품들에 비하여 사실주의적요소를 훨씬 강화하고 다양한 형상창조와 개성적인 성격묘사, 생동한 입말체의 구사 등의 예술적특징을 보여주고있다. 이러한 특성으로 하여 서사시는 바이런의 대표작의 하나로 널리 알려지게 되였다.

쉘리의 시

서풍송가

1

오, 거세찬 서풍이여 가을의 숨결이여
보이지 않는 너로 하여 가랑잎들 날아옌다

주문을 피해 도깨비떼 달아나듯이
누렇고 검고 하얗고 또 붉은 락엽들
이는 모두 병들고 시들었거니
오, 너는 또 나래돋친 씨앗을 나른다
푸르른 네 누이 봄바람이 찾아와
꿈꾸는 대지우에 피리피리 울리며
하늘의 목장에서 양떼같은 꽃망울 싹트게 하고
싱싱한 빛과 향기 산과 들에 넘치게 할 그날을 기다려
캄캄한 자리에서 한겨울을 쉬라고
땅에 묻힌 주검마냥 차디차게 쉬라고
너 거세찬 정령이여 온 세상을 휘몰아치는
너 파괴자여 너 보호자여 들으라
오, 귀를 기울여다오!

2

너의 물살 사납게 하늘을 뒤흔들면
구름은 날려간다 이 땅의 시든 나무잎마냥
하늘과 바다가 엉킨 그 아지들에서
우수수 떨어진다 비와 번개의 천사가—
어슴푸레한 지평선 변두리에서
하늘의 높은 천정에 이르기까지
너로 하여 물결치는 저 검푸른 구름우에
다가올 폭풍우의 머리칼 널려졌거니
마치도 성난 무녀의 곤두선 금발같구나
이제 밤의 장막 내리면 거창한 무덤이 되고
네가 몰아온 구름들이 그우에 둥그런 지붕을 덮으면
싸늘한 김이 뭉치고 굳어진 그 지붕에서
찬비와 우뢰 그리고 우박이 쏟아지리라
내 숨지는 이 해를 조상하는 만가여, 들으라, 오, 귀를 기울여다오!

3

바야만에 떠있는 섬기슭에서
잔물결이 살랑살랑 여름내 부르던 자장가에
푸르디푸른 지중해는 잠들었더라 꿈꾸었더라
해빛 찬연하게 비치는 맑은 물우에 하늘거리는
옛성과 궁전들의 그림자를 꿈에 보았더라
저기 이끼는 찬연하고 향기 담뿍 꽃들은 만발해
절묘한 그 모습에 취하던 바다를
너는 잠깨워놓았더라 한여름 백일몽에서
네가 휘몰아쳐 지나가면 잔잔하던 대서양도
노한 물결 일으키며 미친듯 뒤설레고
바다밑 숲을 이룬 해초들마저
내 소리 들으매 그시로 죽은빛 띠여
전전긍긍 서로서로 밀치며 닥치닥거린다
너 거세찬 서풍이여, 들으라, 오, 귀를 기울여다오!

4

내 너에게 날려가는 락엽이라면
내 너와 함께 날쌔게 날아가는 구름이라면
억세인 너로 하여 허위적이나
오, 억제 못할자여, 네 힘의 충동을 함께 지니고
너처럼 자유로운 파도가 나라면
나의 환상 너보다도 빠르리라 굳게 믿었던
어린시절 그대로 내 만일 남아있다면
그때처럼 너의 길동무되여 하늘을 떠다닐수 있다면
너에게 이처럼 애타게 부르지는 않으리라
아, 나를 떠올려다오 락엽처럼 구름처럼 파도처럼!
나의 생활은 가시덤불에 찢기우고있노라! 피흘리고있노라!
무겁고 무거운 시간에 얽매여있노라, 짓눌리여있노라
나도 역시 너처럼 도도하고 재빠르고 거침이 없건만도

5

내 너의 칠현금 되여 숲처럼 노래하게 해다오
가랑잎마냥 떨어진다 하여도 무엇이 원통하랴!
서글프나 달콤한 가을의 웅심깊은 가락은
격동치는 너로 하여 웅장한 조화를 이루었거니
격렬한 정신이여 너의 넋을 나에게 옮겨다오!
나도 너처럼 되게 해다오 빠르고 세찬 바람이여!
새싹이 어서 트라고 하늘너머 지구너머로
세차게 날려다오, 나의 침통한 생각을 이 땅의 가랑잎마냥!
그리고 너, 이 시가 외우는 주문으로

꺼지지 않은 화로에서 더운 재와 불씨를 날려 보내듯
나의 말들을 뿌려다오, 온 세계 인민들에게!
내 입이 나팔이 되여 이 세상 깨여나라고
예언의 신호소리 울리게 하여다오,
오, 서풍이여!
겨울이 닥쳐오면 봄도 따라올것 아니냐?

※바야만—이딸리아의 나뽈리의 서쪽에 있는 고대해수욕장—필자주

※《서풍송가》는 자연현상에 비유하여 당시의 암담한 현실을 반영하면서 이 도탄에 빠진 현실은 새로운 삶이 다가올 징조라는것을 노래하고 아름다운 미래에 대한 희망과 신념을 토로한 서정시이다.

이 시는 예술적인 면에서도 강한 열정과 랑만적인 호소성, 힘있는 주정토로, 비유와 상징, 경쾌한 운률로 엮어진 시구 등으로 랑만주의서정시의 특성을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자 유

1

태풍의 나팔소리 울려올 때면
불같은 산들이 서로서로 화답하고
지동치는 그 소리 대륙에서 대륙으로 메아리치며
폭풍우 노호하며 잠든 태양을 일깨우니
겨울의 왕좌를 에워싼 빙산들이 부들부들 떠누나

2

한점의 구름에서 번개불 일면
수만의 섬들 그 빛으로 밝아지고
노한 지진에 하나의 도시가 재더미 되면
그 소리 땅밑으로 울려퍼져
수천의 도시들을 전률케 한다

3

그대의 눈길은 날카롭구나 번쩍이는 번개보다도
그대의 걸음걸이 빠르기도 하구나 지진의 발구름보다도
그대 노호하면 성난 바다도 숨을 죽이고
그대 쏘아보면 화산도 눈을 감고
그대앞에선 밝은 해빛도 무색해진다

4

파도너머 산너머 안개너머로
광명은 내달린다 대기와 바람을 뚫고
정신에서 정신으로 민족에서 민족으로
도시에서 벽촌으로 그대의 아침노을은 퍼져간다—
그 찬란한 려명의 빛속에
폭군과 졸개들은 밤의 그림자마냥 스러지고 말리라

영국의 인민들에게

1

영국의 인민들아, 어찌하여 밭을 가느냐?
그대들을 짓밟는 령주, 그자들을 대신하여—
폭군들을 둘러주려 온몸에 땀 흘리며
화려한 천을 짜야 함은 어이된 까닭이냐?

2

그대의 땀을—아니, 그대의 피를 빠는
저 무위도식의 악당들을 어이하여 그대는
태여난 그날부터 죽는 날까지
먹여주고 입혀주고 살려줘야 하느냐?

3

영국의 꿀벌들아, 쓸모없는 저 게으름뱅이가
그대의 피땀 배인 재보를 강탈하라고
무수한 채찍과 사슬과 무기를
어이하여 그대가 벼려야만 하느냐?

4

그대에게 있느냐? 안락한 보금자리와 끼니가

편안한 휴식과 향기로운 사랑을 누려본 일 있느냐?
고통과 불안에 싸여 일한 값으로
그대에게 차례진것이 과연 무엇이더냐?

5

씨앗은 그대가 뿌리건만 딴놈이 거두어가고
은금은 그대가 캐내건만 딴놈이 건사해두고
옷감은 그대가 짜내건만 딴놈이 몸에 두르고
장검은 그대가 벼리건만 딴놈이 차고다닌다

6

씨앗을 뿌리라—허나 폭군이 거두지 못하게 하라
은금을 캐내여라—허나 협잡군이 가로채지 못하게 하라
옷감을 짜라—허나 건달군이 걸치지 못하게 하라
장검을 벼리라, 이는 그대가 차라, 자신을 지키도록

7

그대들의 새 살림을 꾸리라 대청방 넓은 집에
컴컴한 지하실 오막살이 움막집을 털고나서라
어이하여 제손으로 만든 사슬에 매인채로 있느냐?
보라, 그대가 벼린 저 쇠붙이가 그대를 노리고있음을

8

그대의 보습과 괭이, 삽과 베틀로
그대여 놈들의 무덤을 파라
그대여 놈들의 수의를 짜라
새로운 영국이 그대의 세상으로 되는 그날까지

작가의 직업

찰즈 디킨즈는 약자에 대한 동정, 독특한 유모아, 뛰여난 성격묘사로 당대 부르죠아제도를 비판해나선 영국 비판적사실주의문학의 대표적작가이며 기자이다. 그는 평민을 못살게 구는 관리들의 전횡에 예리한 필치로써뿐아니라 순간적인 기지로써 곧잘 타격을 주었다고 한다.

어느날 디킨즈는 낚시질을 하면서 머리속에서 작품의 줄거리를 엮어나가고있었다.

그때 거만하게 생긴 신사차림의 낯모를 한 사나이가 지나가다가 그에게 말을 걸었다.

《선생, 당신은 고기를 낚고있는가요?》

디킨즈는 머리를 끄덕거렸다. 사색에 방해가 되였던것이다.

낯모를 사람이 다시 《몇마리나 잡았는가요?》 라고 되묻자 그제야 뒤를 돌아보며

《예, 신수가 그리 나쁘지 않지요. 어제는 하루종일 앉아있었더니 비록 자그마하지만 붕어 3마리는 낚았으니까요. 헌데 오늘은 생각에 팔리다나니 한낮이 넘었는데 한마리도 낚지 못했습니다.》라고 낚시군다운 웃음을 얼굴에 담뿍 담으면서 대꾸하였다. 낯모를 사람은 머리를 끄덕거리더니 갑자기 쌀쌀하게 되묻는것이였다.

《말이 난김에 묻겠는데 당신은 내가 누군지 아십니까?》

디킨즈는 그를 다시 쳐다보며 《아니, 저는 모르겠는데요, 선생!》 하고 얼결에 대답하였다.

낯모를 사람은 허허 하면서 너털웃음을 짓더니 《내가 이 현의 검찰관이요. 이 현에서는 내 승인이 없이는 붕어 한마리도 잡지 못하게 되여있소. 어제 잡은 붕어 3마리값으로 2파운드의 벌금을 내시오.》라고 으름장을 놓는것이였다.

디킨즈는 정색하여 그를 힐끗 보더니 그에게 물었다.

《나도 내친김에 물읍시다. 당신은 내가 누구인지 알고있습니까?》

검찰관은 허리를 쭉 펴고 《모르지.》 라고 대답하였다.

디킨즈는 《나는 작가요. 당신은 나에게서 돈을 빼앗을수 없을거요.》라고 태연하게 말하였다. 검찰관은 발끈 성이 나서 《왜?》하며 디킨즈에게 다가섰다.

《그것은 무릇 허구까지 동원하여 이야기를 엮는것이 나의 직업이기때문이요.》

입을 하 벌린채 말 못하고 서있는 그에게 디킨즈는 《멋진 허구까지 동원하여 당신의 이름을 걸고 당신을 이렇게도 묘사하고 저렇게도 그릴수

있는것이 나의 직업이란 말이요. 여보시오 검찰관나으리, 한번 맞서볼가요? 당신은 오늘 2파운드를 벌금으로 빼앗을수 있겠지만 당신을 놓고 글을 쓰면 몇백배 더 큰 파문이 일어날것이고 그것으로 얼마든지 보상할수 있을거요. 그러니 나으리는 땅에 발을 붙이고 머리에 하늘을 이고 다니기 좀 어려울거웨다.》

어리뻥뻥해서 서있는 그의 앞을 지나 백발의 디킨즈는 허줄한 낚시대와 도구를 걸어메고 유유히 사라졌다.

출학을 두려워했다면

케임브리지대학시절에 새커리는 자기가 쓴 단편소설을 가지고 문예잡지사로 갔다.

나이가 지숙한 편집자가 소설을 마지막까지 다 읽고나서 이렇게 말하였다.

《소설을 재치있게 썼소. 헌데 헛수고를 하였소. 이런 소설을 발표하지 못하게 되여있소. 여기에 쓴 한명의 정부관리때문에 우리는 졸경을 치르게 되오. 젊은이도 무사치 못할거요. 이것때문에 대학에서 출학당할수 있소.》

그의 말에 새커리는 이렇게 대답하였다.

《대학에서 쫓겨날것이 두려우면 그걸 썼겠습니까?》

주인공을 찾아 2천리를 걸은 하 디

농민의 아들로 태여나 한때 석공으로도 일한적이 있는 하디는 늘 석공을 주인공으로 한 소설을 써야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있었다.

1892년경의 일이다. 한번은 그가 발신인의 주소성명조차 밝히지 않은 한통의 편지를 받게 되였다.

《나는 당신이 우리 로동자들의 계몽가가 되여주기 바라오. 그런데 당신의 작품에는 우리 석공들의 생활이 담겨져있지 않으니 매우 섭섭하오. 내가 어떤 사람인가고요?… 당신과 같이 석공출신이며 지금도 석공이지요. 나도 공부를 하고 글을 쓸 생각이 있었으나 돈이 없어 대학에 갈수 없었지요. 대학에 찾아가니 날보고 〈석공의 길은 자기의 처지에 알맞는것이요.〉 라고 하더군. 당신의 방조가 요구되오. …》

편지를 받은 하디는 심한 가책을 느끼였다. (과연 내가 말공부쟁이가 아니였던가? 그렇다. 사람들은 나의 작품을 손꼽아 기다리고있다.)

하디는 로동자들속에 자주 들어가면서도 지금까지 고민하던 자신을 질책하였다. 편지의 주인공을 찾아 그를 소재로 하여 소설을 쓸 결심을 다지였다.

그후 주인공을 찾기 위한 하디의 려행이 시작되였다. 허나 주소성명을 알수 없는 주인공을 어디에서 찾는단 말인가.

여러달이 지나갔다.

하디는 처음의 결심을 조금도 굽히지 않았다. 주인공을 찾아 떠난지 6개월만에 하디는 고향 웨쎅스지방에서 그전에 함께 일했던 석공을 만났다. 그가 다름아닌 편지의 주인공인줄 어찌 알았으랴.

《여보게, 당신을 찾아 2천리를 걸었다오.》

드디여 하디는 그를 원형으로 하는 작품을 쓰기 시작하였다.

그로부터 3년이 지난 1895년, 드디여 자본주의사회에서는 로동자들이 아무리 로동에 충실한다 해도 참된 생활을 누릴수 없으며 또 부르죠아문명의 손아귀에 들어있는 과학교육은 인민에게 적대적이라는것을 보여준 장편소설 《미천한 쥬드》가 세상에 나왔다.

《플랑더즈의 개》

영국녀류작가 위다(1839—1908)가 1872년에 창작한 장편아동소설.

19세기 후반기 벨지끄의 자본주의사회현실을 시대적배경으로 하고있는 《플랑더즈의 개》는 플랑더즈(플랑도르)의 소년 네르로와 그에게 충실한 늙은 개 빠뜨라쉐에 대한 이야기를 통하여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동정을 표시한 작품이다.

벨지끄북부의 큰 도시 앙뜨웨르뻰교외의 작은 마을에서는 14살난 고아 네르로와 역시 14살잡힌 늙은 개 빠뜨라쉐가 깊은 우정을 맺고 서로 의지하며 가난하게 살아간다. 10년전에 병들어 길섶에서 숨져가던 자기를 구원해준 네르로소년과 그의 외할아버지의 은혜를 잊지 않고 빠뜨

라쉐는 그동안 헌신적으로 일을 하였다.

개는 매일 아침 마을사람들이 젖소에서 짠 우유를 담은 통을 수레에 싣고 10리나 되는 도시까지 끌고 가군 하였다. 그리고 2년만에 할아버지가 죽은 다음에는 6살 잡힌 네르로와 함께 있으면서 오늘까지 참으로 주인에게 충실했다.

그림그리는 재간이 있는 네르로는 짬만 있으면 그림그리기에 여념이 없었다. 그는 가슴속에 루벤스와 같은 유명한 화가가 되려는 꿈을 안고있었다.

그런데 풍차방아간을 가지고있는 지주 꼬제쯔는 네르로를 거지라고 천시하면서 자기 딸 아로아와 놀지 못하게 한다. 지어 자기 집에서 화재가 나자 네르로가 불을 질렀다고 거짓소문을 퍼뜨려 마을사람들이 소년을 랭대하도록 한다.

이때부터 네르로는 우유통 나르는 일감도 잃게 되고 오막살이집에서도 쫓겨난다. 집을 잃고 굶주리며 빠뜨라쉐와 함께 방황하게 된 네르로는 자기가 얼마전에 그림을 낸 어린이그림전람회결과를 손꼽아 기다린다. 그러나 그의 그림은 입선하지 못했다.

크리스마스(12월 25일) 전날 일자리를 찾아 농촌길을 걸어가던 네르로는 빠뜨라쉐가 눈속에서 발견한 막대한 돈이 든 가죽지갑을 그 임자인 지주 꼬제쯔에게 돌려준다. 다음날 자신을 뉘우친 지주가 네르로를 찾아냈을 때 굶주림과 추위에 시달리던 소년은 앙뜨웨르뻰교회당의 루벤스의 그림밑에서 사랑하는 개를 껴안은채 숨져있었다.

작품은 고아 네르로와 그가 사랑하는 개 빠뜨라쉐의 형상을 통하여 자본주의사회에서의 가난한 사람들의 비참한 처지를 보여주고있다.

당대 사회에서 재능있고 부지런한 네르로와 일 잘하는 빠뜨라쉐가 아무리 애를 써도 그들에게 차례지는것은 가난과 슬픔뿐이였다.

작품은 이들의 불행한 운명에 깊은 동정을 표시하는 한편 가난한 사람들을 학대하는 꼬제쯔와 같은 지주, 자본가들의 비인간성을 비판하였다.

소설은 소년과 개의 우정에 대한 독특한 이야기를 통해 가난한 사람들의 생활을 보여주고 화려한 문체와 풍부한 공상으로 형상을 돋군것으로 하여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아동문학작품의 하나로 되였다.

크릴로브의 우화

꿀벌과 파리

파리 두마리가 딴 나라로 날아갈 차비를 하며
꿀벌보고 같이 가자 꾀이였네
먼 나라가 좋다는 이야기는
앵무새한테서 들은거지만
그러잖아도 파리는 이곳이 언짢았었다
나서자란 땅이건만 어디를 가나
대접을 못 받고 쫓겨나기만 하였으니
그뿐인가, 사람이란 무슨 괴물들인지
파리들이 푸짐한 식탁에서
단맛을 조금 보기로서니
유리뚜껑 씌우는 법까지 궁리해낸다구야
어쩌믄 그리고도 부끄럽지 않은지…
게다가 또 거미들이 파리를 노리고있지…
《편안히들 가세요》 꿀벌이 대답했다
《나는 제 고장이 더 좋아요
　내가 꿀을 친다고 해서
　다들 나를 사랑해주는걸요
　높은분들도 여느 사람들도…
　그러나 당신들은 떠나가세요
　내키는 곳으로 날아가세요
　어디를 가든 당신들의 행복이란 다를게
　　없지요
　남에게 리로운 일을 하지 않는 한
　존경이나 사랑은 못 받을테니까요
　거기서도 다만 거미들만이
　당신들을 반겨줄거예요》

조국에 리로운 일을 하는 사람일진대
어찌 조국을 쉽사리 떠나려 하랴
허나 아무런 리익도 못 주는 사람에겐
언제나 딴 나라가 좋게 뵈는 법이더라
그 나라 공민이 아니니만치
미움도 한결 덜 받을것이요
사시장철 건달을 부린대야
나무랄 사람도 없으리라고

개집에 든 승냥이

승냥이가 양우리에 기여든다는것이
밤중이라 그만에야 개우리엘 들었다
별안간 개우리에 큰 소동이 일어났다
재빛싸움쟁이 다가든 냄새를 맡고
개들은 왕왕 싸움을 걸고
사냥개주인은 고함을 질렀다
《에키! 얘들아, 도적놈이다!》
순식간에 대문이 잠기고
삽시간에 개우리는 수라장이 되더라
몽둥이와 사냥총을 모두 들고 달려온다
《불 가져오너라! 불을 가져와!》
웨치는 소리에 홰불들을 가져왔다
이를 갈며 털을 곤두세운 승냥이
한구석에 엉뎅이를 붙이고앉아
달려드는자들을 잡아먹을듯이
눈알만 데굴데굴 부라리더니
예가 바라고온 양떼앞이 아닌지라
잡아먹은 양값을 치르게 되였음을
능구렝이는 어느새 알아차리고
화해라도 해보리라 말을 꺼내보았다
《벗님네들! 대체 이게 웬 소동이요?
　옛날부터 당신네와는 사돈간이라
　나는 싸우러 달려온건 전혀 아니고
　오히려 화해하러 찾아온것이요
　지난 일은 죄다 잊고 화평을 하기요!
　그래서 내 말인즉 나는 다만
　이 고장 양들을 건드리지 않을뿐더러
　그들을 위해서면 솔선 자진하여
　못된 놈과만 물고뜯고 싸울테요
　뿐더러 승냥이의 맹세로써 단언하지만
　나는 워낙…》
《여보게 이웃량반》사냥개주인이 대꾸하
　기를—
《너는 재빛이지만 난 벌써 백발이야
　너희네 승냥이를 오래전부터 알고있단 말야
　승냥이들한테선 가죽을 벗겨버리는것밖에
　다른 화해를 한다는 본새는 모른단 말야》
그리고 그 자리에서 승냥이를 물도록
사냥개떼를 풀어놓더라

춤추는 물고기

법관들과 권세가들 그리고 부자들이
행패를 부린다는 제소가 들어왔는데
사자임금께서 이를 알고 대노하시여
친히 령내를 시찰하러 떠나셨다
그가 가는 길에 한 사나이가 불을 피워놓고
낚은 물고기를 끓이려 하고있었다
물고기들은 가엾게도 불이 뜨거워
제가끔 펄떡펄떡 뛰쳐오르며
죽음을 앞에 두고 몸부림을 쳤다
사자임금께서 큰 입을 쩍 벌리고
《그대는 어인자며 무엇을 하느뇨?》
엄하게 사나이를 따지고들자
《오, 전능하신 임금님!》
엉겁결에 사나이가 아뢰기를—
《소인은 여기 물고을의 원이옵고
　저것들은 물고을 좌상들이옵니다
　소인네는 임금님을 반겨맞고저
　이 자리에 모인것으로 아뢥니다》
《그래 백성들의 형편은 어떤고?
　이 고장이 물산은 풍부한고?》
《위대하신 임금님!
　여기는 살기 좋다 하느니보다
　숫제 극락이라 할것이옵니다
　그러기에 소인들은 밤낮으로 한가지
　임금님의 옥체건강만을 비옵니다》
(그러는 동안에도 물고기들은
남비안에서 뛰고있었다)
—사자임금께서 묻는 말이—
《저것들은 어이하여
　꼬리 대가리를 저리도 내젓는고?》
《현명하신 임금님!》
—사나이가 대답하였다—
《저것들은 황공하게 임금님을 뵈옵고
　저렇게 기뻐서 춤을 추옵니다》
사자임금께서는 인자하게 원의 가슴을 핥아
　주시고
대견스럽게 춤추는 물고기들을 한번 더
　보시더니
가던 길을 다시 떠나시였다

뿌슈낀의 시

챠아다예브에게

사랑과 희망과 영광의 속임도
우리를 오래 유혹할수 없어
청춘의 즐거움은 사라졌다
꿈결같이 아침안개같이
그래도 가슴에선 욕망이 불타
운명적인 권력의 중압밑에서
우리는 참을수 없는 마음으로
조국의 부름에 귀를 기울인다
충실한 련인과의 상봉을 고대하는
젊은이처럼 우리는
성스런 자유가 닥쳐올 시각을
애타는 심정으로 기다리나니
우리 가슴 자유에 불타는 동안
영예위해 심장이 뛰노는 동안
우리 마음의 아름다운 열정을
오, 나의 벗이여 조국에 바치자!
동무여 믿으라 우리의 눈부신
행복의 별은 기어이 떠오르리라
로씨야는 꿈에서 깨여나리라
그리고 전제의 페허우에는
우리의 이름들이 새겨지리라!

씨비리로 보냄

씨비리의 광산 깊은 지하에 설망정
자랑높은 견인성 고이 지니라
그대들 리상의 숭고한 지향
고달픈 노력은 헛되지 않으리

불행의 진실한 벗인 희망
그는 어두운 땅굴에서도
용기와 즐거움을 깨우쳐주리
그리고 기다리던 때는 오리

사랑과 우정이 그대들을 찾아
검은 옥문을 뚫고 비쳐가리라
그대들이 갇히운 감방속으로
내 자유의 목소리 울려가듯이
무거운 철쇄들이 끊겨나가고
옥문이 부서질 때 문어구에서
자유는 그대들을 반가이 맞고
형제들은 장검을 들려주리라

기념비

나는 인공으로가 아닌 나의 기념비를 세웠노니
그리로는 인민의 발길 그칠새 없으리라
그 탑은 굴함없는 머리 치여들고 창공높이
  솟았도다
저 알렉싼드르탑보다 더 높이

아니다 나는 죽지 않으리라—거룩한 거문고
  줄에 울린
나의 시혼 육체보다 길이 살아 불멸하리라
그리하여 나는 영광에 싸이리라— 이 세상에
한사람만이라도 시인이 살아있다면

나의 명성은 위대한 온 루씨에 퍼져
이 땅에 사는 모든 인민 내 이름을 부르리라
자부심 많은 슬라브후손도 핀족도
지금은 미개한 뚠그스인도 초원의 갈믜크인도

나는 오래동안 인민의 사랑을 받으리라
내 거문고로써 어진 감정을 깨우쳤고
이 가혹한 세기에 자유를 찬양했으며
억눌린 사람을 동정하라 웨쳤으매

오, 나의 거문고여 신의 뜻에 순종하라
모욕을 두려워말고 영예를 탐하지 말라
칭송과 비방을 랭정히 받아들이라
미욱한자와 다투지 말라

※니꼴라이1세를 말함.
뿌슈낀이 희생되기 몇달전인 1836년 8월에 창작되였으나 시인이 죽은 후 4년만에야 발표되였다.

《나는 폭동자들의 대렬속에서 시를 읊었을것이요!》

1826년 9월 류형지에서 뿌슈낀은 로씨야황제 니꼴라이1세로부터 뻬쩨르부르그로 돌아오

라는 내용의 친서를 받았다.

짜리전제제도를 반대하는 12월파의 폭동에 앞서 농노제도를 반대하고 농민해방을 선전하는 자유애호시를 썼다는 리유로 미하일롭스끄예촌에서 6년동안이나 류배살이를 하고있던 뿌슈낀은 의혹을 품은채 수도를 향해 떠났다.

호송경찰의 감시를 받으면서 뿌슈낀은 왕궁으로 들어갔다.

황제는 뿌슈낀에게 친절히 자리를 권하면서 《류배살이에 싫증이 나지 않는가?》고 물었다.

《사람인 이상 어찌 천대받는 류배살이가 좋을리 있겠습니까?》

《그럴테지, 그대는 천재적시인이 아닌가.》

황제는 잠시 말을 끊었다가 다시 이었다.

《그대를 부른것은 다름이 아니라 12월파의 처형때문에 소란해진 민심을 수습할것을 위임하기 위함이였소.》

《안될 말입니다. 12월파의 폭동은 로씨야의 전국에 미친 한점의 불꽃입니다.》

《진정하시오, 뿌슈낀! 그래, 그때 그대가 뻬쩨르부르그에 있었더라면 어떻게 했을것 같소?》

《나는 폭동자들의 대렬속에서 시를 읊었을것이요!》

하고 뿌슈낀은 단호히 말하였다.

뿌슈낀의 창작과정을 보여주는 시 한구절

나는 세상을 잊고 달콤한 고요속에서
상상에 몸을 맡겨 곤히 잠든다
그러면 나에게서 시가 태여나거니
서정깊은 흥분에 죄여드는 마음이
속삭이며 소리치며 꿈속에서 그러듯이
자유로운 형상으로 솟아날 길을 찾는다
그러면 나에게로 오는구나 보이지 않는
  한무리의 손님들이
나의 공상의 열매들인 오랜 친구들이
하여 머리속에 생각은 담차게 술렁대고
  가벼운 운률은 마주향해 달려가거니
손은 펜을 찾고 펜은 종이를 찾고
순간—시는 자유로이 흘러나온다

뿌슈낀의 격려

뿌슈낀은 뛰여난 재능을 가지고있었을뿐아니라 다른 작가들, 특히 새로 자라나는 작가들의 재능을 귀중히 여길줄 알았다.

뻬쩨르부르그에 새로 나타난 한 젊은 시인이 처음으로 뿌슈낀을 찾아온 일이 있었는데 뿌슈낀은 선배연하는 기미도 보이지 않았다.

젊은 고골리도 뿌슈낀의 고무와 격려를 받으며 자란 작가였다.

한번은 그가 뿌슈낀에게 자기 작품의 한 대목을 읽어준적이 있었다. 고골리의 랑독이 끝나자 뿌슈낀은 흥분된 목소리로 이렇게 말하였다.

《인간을 통찰할줄 알고 모든것을 약간의 특징으로써 마치 산것처럼 만들줄 아는 이런 재능을 가지고서 왜 큰 작품을 쓰지 않는단 말이요!

이건 두말할것도 없이 죄악이요!》

뿌슈낀이 고골리에게 《검찰관》과 《죽은 넋》의 줄거리를 시사해주고 큰 작품을 쓰도록 격려해준것도 이때라고 한다.

뿌슈낀은 벨린스끼를 《큰 희망을 보여주는 재사》로 높이 평가하면서 그의 평론활동을 격려하였다.

뿌슈낀이 자기에게 준 평가에 대하여 벨린스끼는 고골리에게 다음과 같이 써보냈다.

《…나는 현명한 사람들이 나를 칭찬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것보다 나를 더 기쁘게 한것은 나에 대해서 뿌슈낀이 한 평가, 나의 훌륭한 재산으로 된 그의 한마디 평가의 말이였습니다.》

이렇듯 뿌슈낀은 새로 나타난 문학의 재사들을 고무격려하는것을 자기의 작가적의무로 여긴 시인이였다.

레르몬또브의 시

시인의 죽음

시인은 쓰러졌다! 영예의 화신
그는 비방에 싸여 쓰러졌다
복수에 뒤끓는 가슴 총알을 안고
자랑스런 머리 내려뜨리고!…
비렬로 하여 악명떨친 선조들의

너 오만한 후손들아…
옥좌를 둘러싼 탐욕의 무리들
너 자유, 천재, 영예의 교형리들아!
너희들 법의 비호밑에 숨어있으니
너희들앞에선 재판도 진리도 소용없고나!

허나 음탕간사한자들아, 하늘의 심판이 있어
엄격한 재판관 있어 기다리려니
황금으로도 매수하지 못하리라…
하여 너희들의 검은 피 모두 모아도
시인의 깨끗한 피 갚지는 못하리라

※이 시는 1837년 1월 뿌슈낀의 희생을 반동세력의 고의적인 살인으로 인정한 인민들의 강력한 항의의 목소리를 담아 창작되였다.

레르몬또브는 이 시를 쓴것으로 하여 박해를 받고 수도에서 추방되여 귀양살이를 하였다.

돛

푸른 안개 짙은 바다우에
외로운 흰돛 하나
그대 이 먼 이역에서 무엇을 찾느뇨?
그대 고향땅에 무엇을 버렸느뇨?

물결은 사납고 바람은 휘몰아쳐
돛대는 휘며 삐걱거린다
오, 그는 행복을 찾음도 아니요
행복을 피함도 아니노라

꽃빛보다 푸른 물결우에
금빛태양 받들어 떠가는 저 돛
아, 그 반란의 돛은 폭풍을 부르거니
폭풍속에 안식을 얻으려는듯

※로씨야에서 1825년 12월파의 폭동이 실패한 후 진보적랑만주의문학이 쇠퇴하던 1830년대의 반동기에 창작된 대표적인 랑만주의서정시이다.

여기서 망망한 바다우에 홀로 떠다니며 폭풍을 고대하는 《외로운 흰돛》의 랑만적형상은 봉건적암흑속에서 자유를 그리며 폭정을 반대하는 폭동을 기다리면서도 그 현실적바탕을 잃은 고독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있는 서정적주인공—1830년대 반봉건인사의 사상감정과 기분을 우의적수법으로 표현하고있다.

《검찰관》

고골리가 1836년에 쓴 5막희곡.

19세기 30년대 짜리로씨야의 현실을 시대적배경으로 하여 짜리로씨야관료기구의 부패성과 탐관오리들의 부정부패를 풍자한 희극이다.

검찰관이 내려오게 되였다는 불쾌한 소식을 알리는 시장의 대사로부터 시작되는 희극에서는 궁벽한 지방소도시의 관리들의 뒤생활이 펼쳐진다.

때마침 수도에서 굴러온 12등관인 경박한 흘레스따꼬브가 려비를 다 써버리고 려관을 떠나지 못하고있었는데 도시의 관리들은 그를 변장한 검찰관이라고 생각한다. 직권을 악용하여 사리사욕을 채우는데 급급해온 시장과 재판소장, 자선기관감독관, 학교감독관, 우편국장 등 관리들은 자기들의 비행이 드러날가봐 몹시 꺼리면서 저마다 검찰관에게 뢰물을 바친다. 특히 시장은 자기 집까지 숙소로 제공하고 온갖 환대를 다 한다.

그러자 흘레스따꼬브는 거짓말을 늘어놓으면서 진짜 검찰관행세를 한다. 그는 허영심에 가득찬 시장의 처와 수작하는 한편 시장의 외딸과 약혼까지 하며 신소하러 온 상인들한테서 숱한 돈을 받아먹고는 마차를 타고 뺑소니친다. 얼마후 우편국장이 뛰여들어와 흘레스따꼬브의 편지를 보이면서 그가 가짜검찰관이라는것을 밝힌다. 시장을 비롯한 관리들이 아연해있는데 헌병이 들어와 검찰관의 도착에 대해 보고한다. 관리들은 모두 입을 딱 벌리고 돌처럼 굳어져버리는데 막이 내린다.

희극은 시장을 비롯한 관리들의 형상을 통하여 짜리로씨야관료배들의 썩어빠진 생활을 날날이 풍자비판하였다.

희극에 등장하는 시장이란자는 상부에는 아부굴종하고 하부에는 호령하며 온갖 부정부패를 일삼으면서 자기 리속만 채우는 사기군이며 자선기관감독관이라는자는 자선병원에 내려오는 자금을 횡령하며 환자들을 죽게 만드는 악당이다.

그런가 하면 재판소장이란자는 뢰물을 받아먹고 재판에서 흑백을 전도하는것을 례사로 여기며 학교감독관이란자는 학교안에서 새 사상이 전파될가봐 벌벌 떨면서 학교를 거의 전폐하다싶이

하였다.

작품은 이러한자들의 형상에서 붕괴기에 처한 짜리로씨야통치배들의 부패성을 일반화하였다.

작품은 구성과 성격창조, 풍자적전형화의 수법들에서도 전진을 가져옴으로써 로씨야극문학에서 사실주의극으로서의 내용과 형식을 갖춘 작품으로 되였다.

희곡 《검찰관》은 당대 현실을 폭로비판하면서도 사회악의 근원인 봉건제도자체를 뒤집어엎어야 한다는 사상을 제기하지 못한것과 같은 제한성을 나타내였으나 새로운 사회풍자희극형식을 통하여 붕괴기 짜리로씨야의 부패성을 폭로하고 극작법을 혁신함으로써 로씨야 비판적사실주의극문학발전의 새로운 장을 열어놓았다.

《황제페하도 법에 걸어야 하지 않을가요?》

어느날 로씨야작가 고골리는 뻬쩨르부르그시 경찰국장의 호출을 받았다. 틀림없이 탐관오리들을 폭로풍자한 희곡 《검찰관》때문일것이라고 짐작한 그는 《부정부패를 척결할데 대하여》라는 황제의 칙령이 실린 신문을 찾아내여 품속에 찌른 후 경찰국으로 갔다. 아니나다를가 그를 만난 경찰국장은 《검찰관》을 당신이 썼는가고 따지면서 로씨야를 모독한 죄로 기소하겠다고 을러댔다.

《아니, 내가 신성한 로씨야를 모독하다니요?》

《그래, 로씨야관리를 모욕하고 조롱한것이 로씨야모독죄가 아니란 말이요? 그런 자유를 누가 주었는가?》

《나도 로씨야의 작가요. 우리의 로씨야를 좀먹고 병들게 하는 관리들을 비판하는것은 로씨야작가들의 권리요.》

고골리는 만만치 않게 응수하였다.

《뭐라구? 그래, 당신은 로씨야관리들을 모욕하고 짜리제도를 중상한 죄를 인정할수 없단 말이지. 그렇다면 좋소. 우리는 당신을 법에 따라 엄하게 다스릴수밖에 없소.》

고골리는 사리를 따져서는 안된다는것을 알고 수를 바꾸었다.

《국장나리, 그러면 이 글을 쓰도록 나를 충동한 사람도 법에 따라 엄하게 처리해야 하겠지요?》

국장은 그의 말에 구미가 당긴듯 한결 누그러진 어조로 물었다.

《그래, 그게 누구요?》

《니꼴라이황제페하요.》

《뭣이? 황제페하께서? 여보, 허튼수작을 마시오.》

국장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고래고래 소리질렀다.

《황제페하가 아니였던들 나는 〈검찰관〉을 쓰지 못했을것이요.》

《페하께서 쓰라고 했단 말이요?》

《국장나리, 그래, 당신은 페하께서 내린 칙령을 모른단 말이요?》

《페하의 칙령?! 칙령에 그런 글을 쓰라고 했단 말이요?》

《그렇소. 페하의 칙령이 나로 하여금 그런 글을 쓰게 했소.》

《함부로 페하를 모독하지 마시오. 페하의 이름을 더럽히지 말란 말이요.》

그러나 고골리는 품속에서 신문을 꺼내들고 자기가 페하의 칙령을 읽어줄터이니 귀담아 들어주기 바란다고 하면서 다음의 한대목을 소리내여 읽었다.

《로씨야를 좀먹는 탐관오리들을 사회적으로 폭로하고 그들의 부정부패를 엄격히 척결할지어다.》

물론 이 칙령은 온갖 사회악과 부정부패를 일소할것을 요구하는 인민들의 항의를 눅잦혀보려고 황제가 꾸며낸것이였다.

《국장나리, 들으셨지요? 나는 우리 로씨야가 건전하기를 바라는 페하의 령을 받들고 〈검찰관〉을 쓴거요.》

그의 당당한 말에 기가 질린 국장은 《페하를 걸지 마시오.》라는 외마디비명을 질렀다.

《국장나리, 나를 법으로 다스리겠거든 〈검찰관〉을 쓰도록 추동한 황제페하도 법에 걸어야 하지 않을가요?》

고골리의 계속되는 야유에 국장은 어쩔줄을 몰라하며 허둥거렸다.

《자, 난 가겠소. 똑똑히 알아두시오. 진짜 범인은 내가 아니요.》

분연히 자리에서 일어난 고골리는 황제의 칙령

이 실린 신문을 책상우에 놓은채 유유히 경찰국장방을 나섰다.

스승의 충고에 힘을 얻어

고골리는 20살때 도이췰란드의 랑만주의시인 훠스의 시를 모방하여 《간쯔규헬가르텐》이라는 전원시를 쓴 일이 있었다. 그의 첫 작품이 발표되자마자 평론가란 평론가들은 다같이 입을 모아 《훠스의 시를 원숭이같이 모방하였다.》는 비난과 악평을 퍼부었다.

첫 작품에서부터 된서리를 맞아 기가 꺾인 그는 아버지의 령지가 있는 우크라이나의 와씰리예브촌으로 되돌아갈것을 결심하였다. 그무렵 잡지 《쏘브레멘니크》(현대인)를 발간하면서 왕성한 창작활동을 벌리고있던 뿌슈낀이 고골리를 잡지사로 불렀다.

로씨야문단의 거장인 뿌슈낀이 촌뜨기에 불과한 자기를 불러준것은 그에게 있어서 커다란 영광이 아닐수 없었다. 고골리는 울렁거리는 가슴을 안고 뿌슈낀을 찾아갔다. 그를 반갑게 맞아준 뿌슈낀은 고골리의 차후행동에 대하여 묻고나서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하였다.

《그래, 고향에 내려가겠단 말이지?》

《예, 문학으로 성공하려는 저의 희망이 깨여진 이곳에 있고싶지 않습니다. 귀향하여 거기서 문학수업을 쌓고 힘을 축적했다가 때가 오면 다시 문단에 나설 생각입니다.》

《뜻을 버리지 않고 각오만 든든히 가진다면 성공할수 있네. 문제는 결심이 중요해. 나도 자네의 시를 보았네만 길을 옳게 잡기만 하면 꼭 문학을 할수 있다고 생각했네. 그렇게 믿었기에 자네를 부른거야.》

언제나 문학의 새싹을 귀중히 여겨오는 뿌슈낀이였다.

《선생님, 정말 고맙습니다. 신심과 용기를 가지고 문학을 해보겠습니다.》

고골리는 감격에 목이 메여 진정을 터쳤다.

《평론가들이 자네 시에 대해서 아프게 비평했지만 다른 나라 시인의 시를 앵무새처럼 따라외우다니 참… 모방문학은 우리 로씨야문학에 죽음을 가져다주는 암초란 말일세. 내 말의 뜻을 알겠나?》

뿌슈낀은 이렇게 깨우쳐주고나서 말을 이었다.

《나는 로씨야냄새가 아니라 외국풍의 맛이 풍기는 자네의 시를 읽고 혐오감과 환멸을 느꼈네. 그런 모방시가 로씨야사람들의 심금을 울릴줄 아나? 모방문학은 우리 로씨야문학에 금물이란 말일세. 요즘 외국문학, 더우기 프랑스문학이 번창하고있을 때 우리 문학이 대를 세우지 못하고 그에 물젖거나 휘말려들어간다면 로씨야문학이 장차 어떻게 되겠나. 고유한 로씨야문학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모방문학을 배격하고 우리 문학의 전통을 고수하고 계승해야 하네.》

뿌슈낀은 근엄한 표정을 짓고 그를 엄하게 꾸짖었다.

《선생님, 그 말씀을 듣고보니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가를 절감하게 됩니다.》

이렇게 말하고난 고골리는 죄를 지은 사람처럼 고개를 푹 떨구었다.

《모방문학에 맞서고 그것을 제압하려면 로씨야적인 정서와 감정, 향취가 풍기는 시나 소설을 아름답고 풍부한 통속적인 로씨야말로 구사할줄 알아야 하네.》

고골리는 그의 말을 심중하게 들으며 화려한 시어나 시구로 사람들을 현혹시키려고 한 자신의 어리석음을 다시금 통절히 느꼈다. 그러면서 문학의 세계에 첫발을 들여놓으려다가 혹독한 비난을 받고 주저앉은 자기를 스승다운 부드러운 손길로 일궈세워주고 이끌어주는 뿌슈낀의 충고에 격정을 금할수 없었다.

《저는 선생님의 가르침을 명심하고 로씨야맛이 나는 작품을 쓰기 위해 사색과 탐구, 체험을 많이 하겠습니다.》

뿌슈낀의 말에서 문학창작의 새로운 길을 찾은 고골리는 자신심에 넘쳐 이렇게 정중히 말했다.

《저는 앞으로 소설을 쓸가 합니다.》

《되게 얻어맞더니 시에는 자신이 없는게지?》

뿌슈낀은 빙그레 웃음을 지으며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로씨야풍의 소설을 써보라구. 소설로 재간을 부려보게.》

《선생님, 저의 문학수업에 지침이 될만 한 조언과 고견이 있으면 기탄없이 더 이야기해주셨으면 합니다.》

《생활을 진실하게 그릴줄 아는거네. 생활을 진실하게 그린다는것은 관조자로서가 아니라 적

극적인 탐구자로, 뜨거운 체험자로서의 립장에서 옳게 관찰하고 인식하고 받아들여 그것을 예술적으로 재현한다는것을 의미하네. 고골리군, 로씨야적인 맛이 나는 소설, 오늘의 로씨야현실을 그린 소설을 대담하게 써보라구. 나는 자네가 굳은 각오와 결심을 품고 그런 소설을 꼭 쓰리라고 믿네.》

《선생님, 저를 이렇게 친절하게 만나주시니 무슨 말로 고마운 인사를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선생님의 가르침을 좌우명으로 삼고 꼭 기대에 보답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고골리는 감격에 젖어있었다.

고골리는 후날 이때를 회상하여 《뿌슈낀은 이날 내가 100년을 받아도 다 못 받을 문학수업을 해주었다. 뿌슈낀이야말로 나를 참다운 문학의 길로 이끌어주고 소설가로 키워준 어머니이고 스승이다. 이때부터 나는 그의 충실한 제자가 되였다.》고 말하였다.

벽난로속에 들어간 원고

무릇 모든 이름있는 작가들과 마찬가지로 고골리도 자기 작품에 대한 요구성이 매우 강했다. 그는 아무리 큰 힘을 넣어 쓴 작품일지라도 평론가들이나 동시대 문인들의 긍정적인 평가를 받지 못하면 가차없이 없애버리군 하였다. 그의 엄격성을 말해주는 하나의 일화가 있다.

언제인가 고골리는 새로운 희곡을 완성하였다. 고심어린 노력끝에 자기로서도 만족할만 한 작품의 초고집필을 끝낸 그는 매우 기분이 좋았다.

그는 어서빨리 작품을 동료들에게 보이고싶었다. 고골리는 집에다 푸짐한 점심상을 차려놓고 당시 시인으로서 이름이 높았던 루꼽스끼를 초청하였다.

고골리와 함께 마주앉아 점심을 먹고난 루꼽스끼는 유쾌한 기분에 사로잡혔다. 훌륭한 료리들을 포식한데다가 벽난로에서 타번지는 불길로 하여 방안이 훈훈한데야 더 말해 무엇하랴. 고골리는 손님이 만족해하자 방금 끝낸 원고뭉치를 꺼내놓으며 한번 봐줄것을 그에게 요청하였다.

《어서 읽게.》루꼽스끼가 말하였다.

고골리는 자리에서 일어나 작품을 읽어내려갔다.

그런데 루꼽스끼는 점심식사후 낮잠자는 습관이 있는지라 얼마 지나서부터 끄떡끄떡 졸기 시작하였다. 그는 눈을 비벼가며 지꿎게 달려드는 졸음을 쫓으려고 애썼지만 참지 못하여 끝내 잠들고말았다.

이런줄을 모르고 고골리는 점점 자기 작품세계에 빠져 열정적으로 읽고 또 읽었다. 하지만 루꼽스끼는 잠꼬대까지 하며 꿈속에서 헤매였다.

한동안 작품을 읽어내려가던 고골리는 자기 작품에 대한 루꼽스끼의 반응을 알아보려고 얼핏 그에게로 눈길을 돌렸다. 쏘파에 비스듬히 기대여 달콤하게 자고있는 루꼽스끼를 보는 순간 고골리는 손맥이 탁 풀려 랑독을 그만두었다.

갑자기 닥쳐온 방안의 고요때문인지 루꼽스끼는 이상한 예감에 눈을 번쩍 떴다. 그는 자기가 졸았다는것을 알자 당황해하였다. 그는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왜 랑독을 계속하지 않는가고 고골리에게 물었다. 그러자 고골리는 그의 눈앞에서 원고뭉치를 불길이 활활 이는 벽난로속에 휙 집어던졌다. 그가 오래동안 애쓰며 완성한 작품이 순식간에 재가루가 되고말았다.

게 르 쩬

알렉싼드르 이와노비치 게르쩬(1812—1870)은 로씨야의 이름난 작가이며 혁명적민주주의자이다.

그는 모스크바의 명문귀족가정에서 태여났다. 그의 어머니는 도이췰란드인이였다. 모스크바종합대학 물리수학부 재학중에 오가료브와 함께 혁명적소조를 조직하고 18세기의 사상가들과 공상적사회주의자들의 리론을 연구하였으며 농노전제제도를 반대하여 투쟁할 결심을 가졌다. 이로 하여 대학을 졸업한 다음해인 1834년에 소조성원들과 함께 체포되여 6년간 씨비리에서 류배살이를 하였다. 1842년부터 모스크바에서 문필활동에 전념하면서 벨린스끼 등과 함께 서유럽파를 대표하여 슬라브파와 론쟁하였다. 이 과정에 그는 1840년대 사상운동과 문학운동의 중심인물로 되였다.

1847년에 외국에 망명하고 프랑스를 거쳐

1852년부터 영국 런던에 거주하였으며 자유로씨야출판소를 조직하고 문집 《북극성》(1855—1862, 1869)과 신문 《종》(1857—1868)을 발간하여 비밀리에 로씨야에 보급하였다. 이 시기 그의 출판물들은 로씨야국내에서 커다란 인기를 끌었으며 농노제와 전제통치를 반대하는 투쟁의 무기로 되였다. 그후 빠리로 옮겨가 그곳에서 객사하였다.

사상가로서의 게르쩬의 견해는 철학론문 《과학에서의 노리개적태도》(1843), 《자연연구에 관한 서한집》(1845—1846) 등에 반영되였다. 그는 혁명적민주주의자로서 관념론과 형이상학적유물론을 반대하고 변증법적유물론에 접근하였으며 농민적인 공상적사회주의를 리상으로 삼고 농노제도가 폐지된 후의 로씨야는 자본주의적발전의 길을 거치지 않고 농촌공동체를 리용하여 사회주의에로 이행할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게르쩬은 미학에서도 가치있는 견해를 제기하였으며 순수예술리론의 비정치성, 무사상성을 비판하고 예술과 생활과의 관계를 유물론적으로 해결하였다.

게르쩬은 또한 작가로서 농노제사회에서 인간이 당하는 여러가지 불행을 그린 장편소설 《누구의 죄인가?》(1846—1847), 중편소설 《의사 크루뽀브》(1847)와 《까치도적》(1847) 등을 창작하여 자연파문학을 풍부히 하였다. 그가 남긴 회상기 《과거와 사색》(1852—1868)은 19세기의 로씨야사회현실을 연구하는데서 중요한 자료로 되고있다.

《이 배를 돌려서 그대로 돌아갑시다》

오래동안 빠리에서 살고있던 뚜르게네브가 오래간만에 고향으로 돌아오던 길에 있은 일이다.

뚜르게네브는 배를 타고 고향이 바라보이는 부두 가까이까지 이르렀다.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아들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강가의 선창까지 마중 나왔다.

뚜르게네브는 부모를 멀리에서 보자 매우 반가와하며 배전에서 손을 흔들었다. 그런데 뚜르게네브를 놀래운것은 몇백명이나 되는 자기 집 농노들이 차렷자세를 한채 쭉 늘어서있는것이였다. 배가 기슭에 닿으려고 하자 뚜르게네브의 어머니가 《시작!》하고 명령조로 신호를 하였다. 그러자 700명이나 되는 농노들이 일제히 두손을 쳐들어 《이완 뚜르게네브 만세!》하고 소리를 질렀다.

뚜르게네브는 갑자기 지금까지 느끼던 즐거움이 가뭇없이 사라지고 그립던 부모에 대한 노여움이 사무쳤다.

《아버지와 어머니만 마중나와도 좋을텐데 농노들까지 무리로 데리고 나와 명령으로 만세를 부르게 하다니!》

인간의 자유와 인권을 귀중히 여기는 뚜르게네브에게는 지주—농노주인 부모의 행동이 매우 못마땅하게 여겨졌다.

그는 배에서 내릴 생각을 버리고 《이 배를 돌려서 그대로 돌아갑시다. 나는 내리지 않겠습니다.》라고 선장에게 부탁하였다.

그리하여 뚜르게네브는 놀라며 탄식하는 부모들을 그대로 두고 다시 빠리로 돌아가버렸다.

어머니에 대한 반발, 전제농노제도에 대한 뚜르게네브의 강한 비판은 1847년에 첫 작품이 발표되고 1852년에 단행본으로 출판된 실화 및 단편소설집 《사냥군의 수기》에 반영되였다.

《뢰 우》

로씨야작가 알렉싼드르 오스뜨롭스끼가 1859년에 창작한 장막희곡. 그의 대표작이다.

희곡은 완고한 상인가정의 착한 며느리 까쩨리나의 비극적운명을 통하여 그를 둘러싸고있는 모순에 찬 사회현실을 비판하고 전제제도를 반대하는 투쟁기운이 높아가고있던 당시의 시대적분위기를 반영하고있다.

희곡의 사건은 19세기 50년대 짜리로씨야의 어두운 현실을 시대적배경으로 하여 볼가강변에 자리잡은 자그마한 상업도시 깔리노브에서 벌어진다. 마음씨 착하고 자립적이며 결단성있는 성격을 가진 처녀로 자라난 녀주인공 까쩨리나는 상인 까바니하의 집에 며느리로 들어가 늘 마음고생을 하며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게 된다. 도시에서 제일 돈많고 권세있는 상인의 하나인 까바니하는 매우 완고하고 고루한 아낙네로서 돈밝

에 모르며 주위사람들은 물론 가족들도 폭력적으로 대한다. 까쩨리나의 남편 찌혼은 안에서는 어머니 까바니하에게 순종하고 밖에서는 주색에 빠지는 비겁하고 나약한 무골충이였다. 이런 사람들속에서 숨막히는 생활을 하게 된 까쩨리나는 그로부터의 출로를 안타깝게 찾는다. 까쩨리나는 그후 상인 지꼬이의 아들인 교양도 있고 자기처럼 이 세계에 혐오를 느끼고있는 청년 보리스를 알게 되자 그를 열렬히 사랑하여 그와 인연을 맺는다. 그후 량심의 가책을 받은 까쩨리나는 남편에게 모든것을 고백하고 구원을 바라나 우유부단한 남편은 그의 기대를 저버린다. 하여 보리스는 씨비리의 벽촌으로 쫓겨가고 주위의 몹쓸 여론과 시어머니의 혹독한 추궁에 견디지 못한 까쩨리나는 뢰우가 쏟아지는 어느 야밤에 볼가강에 몸을 던져 죽고만다.

희곡은 녀주인공 까쩨리나의 형상을 통하여 봉건적인 가정적질곡으로부터의 녀성해방문제를 제기하고 녀성들에게 예속과 무권리를 강요하는 부당하고 불합리한 현실을 비판하고있다.

작품이 제기한 문제는 비단 녀성문제에 국한되지 않고 나아가 짜리전제제도하의 노예적생활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문제로까지 확대되고있다. 희곡에서 까쩨리나의 항거의식은 시어머니 까바니하에 대한 원한이거나 어떤 개인에 대한 불평이라기보다 그를 둘러싼 암흑적인 사회현실에 대한 불만과 울분이였으며 그의 죽음은 출로를 찾지 못한 녀주인공의 현실에 대한 반항이며 항거였다.

이처럼 까쩨리나의 반항은 당시 로씨야에서 압박받고 학대받던 사람들의 마음속에 움트고있던 불만과 울분, 반항정신을 일반화하였다.

하기에 당시의 진보적평론은 까쩨리나의 형상을 돈과 권력, 무지몽매가 지배하는 암흑의 시대에 비낀 한줄기 빛으로, 이 야만의 세계가 언젠가는 붕괴되리라는 예언으로 받아들였다.

희곡 《뢰우》는 당시로서는 진보적인 내용과 함께 째인 극구성과 첨예한 극적갈등의 조성, 전형적성격창조, 과장의 수법을 통한 부정인물들에 대한 풍자, 입말에 가까운 생동한 극적언어의 도입 등 극작술에서 특징을 보여준것으로 하여 로씨야 근대사실주의극문학의 발전에 이바지하였다.

《안나 까레니나》의 창작동기

어린 나이에 부모를 잃은 레브 똘스또이는 야스나야 뽈랴나의 별장에서 따찌야나고모의 보살핌을 받으며 자랐다.

1873년 3월 어느날 앓아누운 따찌야나고모를 위로하느라고 똘스또이의 맏아들 쎄르게이소년이 뿌슈낀의 단편소설을 읽어주었다. 그때 옆에서 듣고있던 똘스또이는 그 작품의 첫 문장인 《손님들은 별장에 모여들기 시작하였다.》라는 대목에 몹시 감동되여 이렇게 말했다.

《시작이란것은 이렇게 돼야 옳다. 뿌슈낀은 우리의 스승이다. 이렇게 허두를 떼면 독자들을 휘여잡고 대번에 흥미있는 사건에로 끌고가게 될것이다.》

그러자 그 자리에 있던 한 손님이 《그렇다면 당신도 한번 그렇게 해보시지요.》하고 권하였다. 똘스또이는 곧 서재에 들어가 당장 여러장의 글을 써냈다.

《오블론스끼네 집안은 온통 뒤죽박죽이였다. 남편이 전에 가정교사로 있던 프랑스녀자와 관계가 있은것을 알게 된 안해는 더는 남편과 한집에서 살수 없노라고 선언하였다.》

이것이 장편소설 《안나 까레니나》의 시작으로 되였다.

《행복한 가정은 어디나 서로 어슷비슷하지만 불행한 가정은 제나름으로 불행하다.》라는 그 유명한 허두는 똘스또이가 후에 이 작품을 수정하면서 첫머리에 덧붙인것이다.

물론 이 흥미있는 일화는 하나의 계기에 지나지 않는다.

똘스또이는 벌써 한해전부터 한가지 소재를 쥐고 구상을 무르익히고있었다. 그것은 안나라는 지주의 안해가 철도에서 자살한 사건이였다.

안나는 남편이 녀자가정교사와 남다른 사이가 된것을 알고 집을 뛰쳐나가 《하수인은 당신이예요. 만약 살인자가 행복해질수 있다면 그 녀자와 함께 행복하게 살아보세요. 그리고 나를 만나고싶으면 역으로 오세요. 그러면 나의 시체를 보게 될것입니다.》라는 편지를 보내고 철길에서 자살하였다.

똘스또이는 그 시체를 해부하는것까지 보러 갔었다.

프랑스의 어느 한 신문에 실린 살인사건기사에서 스땅달의 장편소설 《붉은것과 검은것》이 창작된것처럼 로씨야의 신문 3면에나 실을만 한 자그마한 철도자살사건을 계기로 《안나 까레니나》와 같은 이름난 장편소설이 창작되였다.

《바보 이완》

로씨야작가 레브 똘스또이가 1885년에 창작한 동화. 원제목은 《바보 이완과 그의 두 형제에 대한 이야기》이다.

일 잘하고 선량한 바보 이완과 그의 두 형제, 늙은 악마와 세마리의 작은 악마에 대한 이야기이다.

옛날에 부유한 농민이 있었다. 그에게는 아들 셋과 딸 하나가 있었는데 맏아들 쎄묜은 군인이 되여 크게 출세하고 둘째아들 따라스는 상인이 되여 큰 부자가 되였으며 셋째아들인 바보 이완과 벙어리인 딸 마리아나는 부지런히 농사를 지었다. 바보 이완은 형들이 와서 그가 벌어놓은 재산을 나눠가지자고 하자 마음좋게 선선히 내주었다.

세 형제가 사이좋게 지내는데 화가 난 늙은 악마는 세마리의 작은 악마를 불러 세 형제가 서로 싸워 망하게 하라는 과업을 준다. 쎄묜을 맡은 작은 악마와 따라스를 맡은 작은 악마는 손쉽게 자기 임무를 수행했으나 이완을 맡은 작은 악마는 이완에게 붙잡혀 톡톡히 혼이 난다. 그러자 다른 두 악마까지 합세하나 그들마저 혼이 난다.

이완은 세 악마로부터 각기 병을 고치는 나무뿌리와 짚으로 병사를 만드는 마술, 나무잎으로 금화를 만드는 마술을 얻는다. 신세를 망치고 이완네 집에 와서 살고있던 쎄묜과 따라스는 이완에게 졸라 숱한 군대와 돈을 얻어 다시 세력을 늘여 각기 나라의 왕이 된다. 바보 이완도 앓는 공주의 병을 고쳐주고 공주와 결혼하여 왕이 된다.

그러나 이완은 왕이 된 다음에도 그냥 농사일을 계속하며 그가 통치하는 나라에는 일밖에 모르는 바보들만이 남는다.

세 작은 악마의 복수를 하러 온 큰 악마는 쎄묜과 따라스를 헐하게 파멸시킬수 있었으나 이완만은 갖은 수를 다 써도 도저히 이발이 들지 않아 자연히 물러나고만다.

동화에서는 일 잘하고 부지런하며 고지식하고 그지없이 어진 주인공 바보 이완의 형상을 통하여 근로인민의 미덕을 강조하고있다. 부르죠아신사로 변신한 악마의 우두머리의 형상에서는 특권계급의 기생충생활이 날카롭게 풍자되여있다. 동화는 그 사상적경향성에 있어서 하나의 사회정치적풍자작품으로 되였다.

작품은 1886년에 처음으로 발표되였으나 그 강한 풍자적성격으로 하여 당국으로부터 배포금지당하고 1906년까지 공개되지 못하였다.

레브 똘스또이와 고리끼

어느날 고리끼가 똘스또이를 잘 아는 잡지편집원 뽀쎄와 함께 레브 똘스또이를 찾아간 일이 있었다.

고리끼는 이때 처음으로 똘스또이와 면목을 익히였다.

걸상에 앉은 고리끼는 담배불을 붙이려고 성냥을 긋다가 벽에 걸린 《금연》이라는 글이 눈에 띄여 잠간 망설이였다.

이것을 본 똘스또이는 고리끼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담배를 피우고싶소? 그럼 그걸 보지 말고 피우시오. 그러면 되오.》

고리끼는 친근하고 따뜻하게 대해주는 똘스또이앞에서 힘을 얻어 대담하게 담배를 피워물고 이렇게 물었다.

《저의 장편소설 〈포마 고르제예브〉를 읽으셨습니까?》

《읽기 시작하다가 내버렸소. 읽을수가 없더군. 너무 따분하게 꾸며놓았소. 죄다 머리로 고안해냈으니까. 그런것은 있은적도 없고 또 있을수도 없는 일이요!》

《아니, 포마의 유년시대는 꾸민게 아닙니다.》

《천만에, 죄다 머리로 꾸민거요! 미안하지만 내 마음엔 안 들었소. 당신의 단편소설 〈골도바의 정기시장〉은 좋았소. 소박하고 진실하고… 두번도 읽을수 있는 작품이요.》

똘스또이는 그 단편소설에 꾸밈이 없고 생활이 있을뿐아니라 해학이 있다고 말하였다.

《현대작가들에게서는 해학이 사라졌소. 체호브에게 있었는데 최근에는 없어졌소. 해학은 큰 힘이요.

악의없는 선량한 웃음은 사람들을 서로 접근하도록 하오. 사람들을 접근시키는것은 예술의 임무요.》

똘스또이는 다음날 뽀쎄에게 고리끼와의 첫 상봉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했다.

《어제 내가 당신의 친구를 너무 노엽혔소. 그의 큰 공적을 말하지 않았으니까. 그는 류랑인의 산 넋을 보여주었소. 도스또옙스끼는 범죄자의 본질을 보여주었고.》

그리고 그는 소설에서의 허구에 대한 자기의 의견을 내놓았다. 그것은 바로 줄거리는 꾸밀수 있으나 성격은 꾸미지 말아야 한다는것이였다.

겸 손

어느날 체호브는 녀동생 마리야와 함께 기차려행을 떠났다.

도중역에서 탄 손님이 잡지를 샀는데 거기에는 체호브의 단평이 실려있었다.

손님은 《체호브는 내가 사랑하는 작가입니다. 당신은 그의 작품중에서 뭐든 읽은것이 있습니까?》하고 체호브에게 물었다.

《음— 글쎄요.》체호브는 뜨직하게 대답하였다. 《그렇다면 당신에게 체호브의 작품을 읽을것을 꼭 권고합니다.》 그때 다른 한 손님이 체호브를 향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였다.

《그분은 참말로 가장 훌륭한 작가들중의 한사람입니다. 그의 작품들을 한번 진지하게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생각해보십시오. 그러면 당신앞에는 로씨야라는 생활의 넓은 화폭이 펼쳐질것입니다. 그래 당신은 체호브가 마음에 듭니까?》

《글쎄요, 잘 모르겠습니다.》체호브는 애매하게 대답하였다.

마리야는 미소를 지으며 오빠를 쳐다보았다.

그러나 체호브는 태연히 앉아있었다.

이윽고 렬차칸의 사람들이 다시 그에 대한 이야기를 펼쳐놓았다.

《체호브는 본시 의사요. 그는 지금도 자기가 살고있는 멜리호보에서 무상으로 사람들을 치료하고 약을 주고있습니다. 혹시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요 얼마전에는 체호브가 농민들을 위하여 학교를 열었답니다. 사람들은 그를 사랑하고 또 그는 사람들을 사랑하지요. 그러니까 그가 쓴 작품들도 모두 훌륭합니다.》

손님들은 오래동안 체호브와 그의 작품에 대한 이야기로 꽃을 피웠다.

그러나 체호브는 때때로 《흠—흠》하는 소리를 내면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기만 하였다.

안달아난 마리야는 몹시도 사람들에게 오빠를 자랑하고싶어서 그의 귀에 대고 소곤거렸다.

《오빠, 말씀하세요. 자기가 누구라고, 예?…》

《흠…》 체호브는 대답을 하지 않았다.

어느덧 정거장이 가까와오자 마리야는 더는 진정하지 못하고 오빠에게 졸랐다.

《오빠, 허락해주세요. 난 이 사람들에게 오빠가 체호브라고 이야기할테예요.》

체호브는 웃으면서 세차게 도리질을 하였다.

다음정거장에서 손님들은 로씨야문단에는 체호브라는 훌륭한 작가가 있는데 그의 작품을 꼭 읽어야 한다는것을 체호브에게 당부하고 내렸다.

체호브는 이처럼 겸손한 작가였다.

체호브와 모스크바예술극장

체호브와 모스크바예술극장(략칭《므하뜨》)사이는 끊을래야 끊을수 없는 뉴대로 련결되여있다. 그것은 체호브의 희곡이 이 극장에서 공연되여 커다란 파문을 일으켰기때문이다.

체호브의 극작품이 물론 처음부터 인기를 끈것은 아니였다.

체호브의 희곡 《갈매기》가 1896년에 뻬쩨르부르그의 알렉싼드르극장에서 공연되였을 때의 일이다.

원래 이 극장은 로씨야황제가 직접 관할하는 권위있는 극장으로 알려져있었다.

그런데 희곡 《갈매기》가 얼마나 흥미없었던지 관객들의 태반이 공연도중 극장에서 나가는 현상이 일어났다. 연극은 완전히 실패하였다.

바로 그 희곡 《갈매기》를 당시 갓 조직된 모스크바예술극장의 신진연출가와 배우들이 자기 극장의 무대에 재현하였는데 관중들의 절찬을 받았다. 이것은 로씨야연극사에서 하나의 사변이 아닐수 없었다.

왜 유능한 배우집단이 실패했는데 젊은 배우들이 성공하게 되였는가? 이것은 당시 로씨야연극계의 화제거리로 되였다.

체호브의 희곡의 밑바탕에는 낡은 세대들이 리해할수 없었던 새로운것이 맥박치고있었다. 바로

이것을 진취성이 강한 젊은 배우들이 정확히 포착하였던것이다. 즉 젊은 배우들은 《갈매기》에 담긴 사상을 관중들에게 형상적으로 전달할수 있었던것이다.

희곡 《갈매기》의 매력은 갈매기처럼 나래치는 주인공 니나의 형상에 있었다. 모스크바예술극장의 창조집단은 니나의 쓰라린 체험에서 교훈을 찾고 새생활을 개척해나가야 한다는 사상을 관중들로 하여금 정서적으로 느낄수 있게 함으로써 성공했던것이다.

희곡 《갈매기》공연에 이어 그 다음해인 1897년에 희곡 《와냐아저씨》가 이 극장에서 공연되여 대성공하자 그때부터 모스크바예술극장과 체호브의 련계는 더욱 밀접해졌다.

희곡 《갈매기》의 공연으로 하여 재정난에 시달리던 이 극장의 재정밀천이 튼튼히 마련되였으며 이 극장의 이름이 세상에 알려졌다.

모스크바예술극장은 이 공연성과를 잊지 않기 위해 자기 극장무대의 면막에 갈매기의 모습을 수놓았으며 자기 극장을 《갈매기극장》 또는 《체호브의 집》이라고 불렀다.

체호브는 1901년 이 극장의 재능있는 녀배우 오. 뻬. 크니뻬르와 결혼하였다. 그는 처녀시절에 《갈매기》의 아르까지나, 《와냐아저씨》의 옐레나, 《세 자매》의 마샤 등의 역을 훌륭히 형상하였으며 결혼후에도 《벗나무동산》의 라넵스까야역을 담당하여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쉡 첸 꼬

따라스 그리고리예비치 쉡첸꼬(1814—1861)는 우크라이나의 이름난 시인, 소설가, 미술가이다.

그는 끼예브현의 농촌마을 농노의 아들로 태여나 일찌기 부모를 잃고 목동으로, 머슴으로 일하였다. 지주를 따라 뻬쩨르부르그로 올라가 미술제작소에서 견습공으로 일하는 과정에 미술가들의 눈에 들어 그들의 도움으로 1838년에 농노신분에서 해방되였다. 그해부터 그는 1845년까지 뻬쩨르부르그미술학교에서 공부한 후 미술가로, 시인으로 활동하였다.

그러나 급진적인 반정부비밀단체에 가담한것으로 하여 1847년에 짜리당국에 체포되여 1857년까지 10년간 병졸로서 류배살이를 하였다. 류형지에서 풀려나온 후 뻬쩨르부르그로 돌아와 혁명적민주주의자들의 잡지 《쏘브레멘니크(현대인)》의 필자들과 접촉하였으며 체르늬쉡스끼, 도브롤류보브, 네크라쏘브 등과 친교를 맺었다. 그는 자주 우크라이나로 려행하면서 우크라이나인민들속으로 들어갔으며 쇠약해진 몸으로 적극적인 창작활동을 벌리다가 수도로 돌아온지 3년만에 47살을 일기로 세상을 떠났다.

쉡첸꼬는 재능있는 미술가인 동시에 인민창작에 기초한 뛰여난 시인이였다.

농노였던 시인은 창작에서 시종일관 농노들을 비롯한 피압박인민들의 지향과 사상감정을 표현하고 그들을 전제제도를 반대하는 해방투쟁에로 불러일으켰다.

일찌기 농노로 있던 시기부터 시를 쓰기 시작한 시인은 미술학교에 다니던 때에 발표한 처녀시집 《꼬브자리(방랑시인)》(1840)에서 농노들의 불행한 처지와 자유를 요구하는 그들의 목소리를 노래하였으며 서사시 《가이다마끼》(1884)에서는 1768년에 일어났던 뽈스까귀족들의 압박을 반대하는 우크라이나인민들의 봉기를 노래하면서 피압박인민들을 자유를 위한 투쟁에로 호소하였다.

이 시기 쉡첸꼬의 창작에서는 랑만주의적경향이 우세를 차지하였으나 그후 점차 사실주의적경향이 뚜렷해지기 시작하였다. 특히 서사시《깝까즈》(1845), 시 《꿈》(1844), 《유언》(1845)에서는 전제제도를 규탄하며 압박을 반대하는 인민들의 투쟁을 찬양하는 목소리가 힘있게 울려나왔다.

그는 류형기간에 쓴 《악사》(1854—1855), 《미술가》(1856), 《산보》(1856—1858)를 비롯한 중편소설들과 류형지에서 돌아와서 쓴 《새 종교를 믿는 사람들》(1857), 《마리야》(1859)를 비롯한 서사시들, 《가난하고 눈먼 사람들》, 《아르키메데스와 갈릴레오》를 비롯한 서정시들에서 불합리하고 모순에 찬 당대 사회에 대한 비판과 항의의 목소리를 계속 높이였다.

쉡첸꼬의 시작품들은 주제가 다양하고 인민들의 지향을 반영하였으며 우크라이나인민시가에 기초한 점에서 특징적이였다.

쉡첸꼬의 창작은 혁명적민주주의사상이 가지고있던 제약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일부 감상적

이며 박애주의적인 요소를 나타냈으나 우크라이나문학에서 혁명적민주주의방향과 비판적사실주의를 확립하는데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시인의 대답

농노출신의 이름난 우크라이나시인 쉡첸꼬는 대가 바르고 강의한 사람이였다.

한번은 짜리가 쉡첸꼬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를 만나보려고 령을 내렸다.

궁전에 짜리가 나타나자 문무관리들은 모두 허리를 굽히고 머리를 숙이는데 유독 쉡첸꼬만은 꼿꼿이 서서 짜리를 쳐다보았다.

짜리는 성이 머리끝까지 치밀어 《너는 도대체 뭐길래 허리를 굽히지 않는가!》라고 추상같이 소리쳤다.

시인은 쓴웃음을 지으며 《폐하가 저를 보시겠다고 부르셨는데 저 사람들처럼 허리를 굽히고 머리숙여 대령할라치면 폐하께서 저를 어떻게 보실수 있겠사옵니까!》라고 말했다.

그러자 짜리의 튀여나올듯이 부라렸던 눈은 맥없이 풀리고 입은 꿀먹은 벙어리처럼 되였다.

고리끼의 선배작가 꼬롤렌꼬

우크라이나출신의 로씨야작가 울라지미르 갈락찌오노비치 꼬롤렌꼬(1853—1921)는 창작생활에서 고리끼의 성실한 방조자, 스승이였다. 한때 그는 씨비리에서 정치범으로 류형살이를 하였다.

그가 류형살이를 마치고 니쥬니 노브고로드에서 살고있던 때의 일이다.

고리끼는 이미전부터 꼬롤렌꼬를 선배작가로 존경하고있었다.

어느날 그는 자기가 쓴 작품 《늙은 참나무의 노래》를 꼬롤렌꼬에게 보아달라고 부탁하였다. 꼬롤렌꼬는 원고를 무릎우에 올려놓고 뒤적거리면서 작품의 결함과 그 원인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지적하고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우리들이 바라는것은 많은데 달성하는것은 조금밖에 안되기때문에 그런가봅니다.》

고리끼는 부끄럽고 어색하여 얼굴이 숙어졌다. 그러나 그는 처음으로 꼬롤렌꼬에게 자기 작품을 보이고 그 자리에서 정확하고도 랭혹한 비평을 받은 행복감으로 하여 가슴이 부풀어올랐다.

꼬롤렌꼬와의 첫 상봉이 있은 얼마후 고리끼는 노브고로드를 떠나 각지를 돌아다니며 현실체험을 하였다. 약 3년만에 다시 돌아온 고리끼는 꼬롤렌꼬와 만나 로씨야농민들의 고된 생활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후 고리끼는 한 지식인이 죽은 다음 농민들이 그의 묘지에 찾아가 감사의 뜻을 표하는 이야기가 담겨진 단편소설을 썼다.

거리에서 고리끼를 만난 꼬롤렌꼬는 선량한 웃음을 지으며 말하였다.

《소설이 졸렬합니다. 그러한 소설은 쓸 필요가 없습니다.》

고리끼는 얼굴이 뜨거워졌다. 그후 그는 꼬롤렌꼬를 찾아가지 않았지만 거리에서 만날 때마다 꼬롤렌꼬로부터 귀중한 조언을 받군 하였다. 어떤것은 잡지에 실을수 있었다던가 또는 괜히 서둘렀다던가 등… 그리고는 거의 한번도 빼놓지 않고 이렇게 말하였다.

《당신은 너무 어휘에 매혹되고있습니다. 좀더 말을 절약하며 정확히 써야 하겠습니다. 사람들을 분석하지 마십시오. …》

꼬롤렌꼬의 충고들은 언제나 간단하였지만 그것은 고리끼에게 절실히 필요한것이였다.

고리끼는 꼬롤렌꼬를 고맙게 생각하면서 그에 대해 자주 회고하군 하였다.

《나는 꼬롤렌꼬로부터 좋은 충고들과 주의를 많이 받았다. 따라서 만일 내가 불가피한 여러 원인들로 하여 그의 충고를 받아들이지 못하였다면 그것은 죄스러운 일이고 불행한 일이였다. 꼬롤렌꼬의 방조로 내가 잡지들에 작품을 실을수 있었다는것은 다 아는 사실이다.》

《첼까슈》

고리끼가 1895년에 쓴 단편소설.

19세기말 제정로씨야의 현실을 시대적배경으로 한 《첼까슈》는 대항구도시의 로동일의 전경에 대한 묘사, 그속에서 움직이는 부랑인 첼까슈와 탐욕적인 농민 가브리라사이의 갈등을 통하여 인간을 노예화하는 자본주의사회의 부패성을 예리하게 폭로한 작품이다.

어느날 밤 첼까슈는 농촌에서 살다 왔다는 순박해보이는 농민 가브리라를 자기 일의 조수로 끌어들여 뽀트를 타고 예정했던 물건을 훔쳐내는데 성공한다. 물건을 처분하여 얻은 돈의 일부를 가브리라에게 주자 돈에 욕심이 난 가브리라는 돈을 몽땅 자기에게 달라고 애걸하다가 첼까슈를 돌로 까기까지 한다. 가브리라의 너절한 행동에 모멸감을 느낀 첼까슈는 그에게 돈을 몽땅 던져주면서 자기는 도적놈이고 집도 없고 가족도 없는 부랑인이지만 절대로 이런 비렬한 짓은 하지 않으리라고 마음먹는다.

이를 통하여 소설은 인간을 황금의 노예로 만드는 자본주의사회의 부패성을 폭로하고있다.

소설은 특히 환경전개부분에서 형상한 항구도시의 로동일의 전경, 자기들이 만들어낸 그 기계에 혹사당하는 로동자들과 그들을 억압착취하는 자본가들, 즉 기계와 화물선의 소유자들을 대치시킴으로써 자본주의사회의 계급적모순을 예리하게 폭로하고있다.

소설은 또한 《주위의 모든것은 긴장하여 안정을 잃고 그 어떤 장엄한 전변이나 폭발을 일으킬 전야에 놓여있는듯》하다는 풍유적묘사를 통하여 사회의 물질적재부의 창조자들인 로동하는 사람들, 근로대중을 무참히 짓밟고 학대하는 자본주의사회는 반드시 뒤집어져야 하며 뒤집혀질것이라는것을 암시하고있다.

《첼까슈》는 뜻이 깊은 내용과 째인 구성, 단편소설창작의 높은 기교로 하여 고리끼의 초기 프로레타리아단편소설의 대표작의 하나로 되고있다.

《최하층》

1902년에 고리끼가 창작한 희곡. 무산계급의 립장에서 온갖 사회악을 낳는 자본주의사회의 부패성과 썩고 병든 사회와의 타협을 설교하는 무저항주의의 해독성을 예리하게 폭로하고 인간에 대한 사랑을 열렬히 호소한 작품이다.

희곡은 19세기말—20세기초 제정로씨야의 어두운 현실을 시대적배경으로 하고 소시민 꼬스띄료브가 경영하는 룸펜숙박소를 무대로 하고있다. 이 숙박소는 대낮에도 해빛이 겨우 스며드는 동굴을 련상시키는 더러운 지하실이다. 여기서 자본주의사회에서 버림받은 각계각층의 가난하고 헐벗은 사람들이 절망적인 나날을 보내고있다. 한평생을 가난에 쪼들려 오금을 펴지 못하고 살아오다가 폐병으로 죽어가는 대장쟁이의 안해 안나, 일생을 로동속에 살아왔으나 끝내 이 룸펜숙박소에 떨어지고만 안나의 남편 클레슈, 짐을 나르다가 팔을 다쳐 자르지 않으면 안될 지경에 이른 따따르의 짐군 등이 그러한 사람들이다. 이들의 모습을 통하여 자본주의사회에서 아무리 피땀을 흘려 일을 하여도 날이 갈수록 가난에 쪼들리기만 하는 근로인민대중의 처지를 보여주고있다.

희곡은 또한 이 숙박소거주자들인 뻬뻴, 배우 싸찐, 나스쨔 등과 숙박소주인 꼬스띄료브와 그의 젊은 마누라 와씰리싸의 형상을 통하여 당대의 암흑적인 사회환경이 사람들을 타락시키고 도적놈, 술주정뱅이, 도박군, 건달군, 매춘부들을 낳으며 온갖 죄악을 산생시킨다는것을 까밝히고 자본주의사회가 얼마나 썩고 병든 사회인가를 보여주고있다.

희곡은 최하층의 사람들이 이와 같은 절망적인 처지에서 벗어나 사람다운 생활을 하자면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하는 문제를 제기하고 앉아서 한탄만 할것이 아니라 놈들을 반대하여 싸워야 한다, 이것이 진리이며 이 진리로 최하층의 사람들을 깨우치고 그들을 투쟁에로 불러일으켜야 한다는 사상을 밝히고있다.

희곡의 이 사상은 작품에서 현실과의 타협과 무저항주의사상의 체현자로 등장하는 늙은 순례자 루까의 위안의 거짓이 숙박소 사람들에게 미친 영향과 그 후과, 루까와 대치된 싸찐의 형상을 통하여 밝혀지고있다.

희곡은 진보적인 사상과 재치있는 극적형상으로 하여 그 당시에 세계 여러 나라에서 번역공연되면서 큰 영향을 주었다.

도적맞힌 책

고리끼는 어려서 부모를 잃고 11살때부터 집을 떠나 방랑생활을 시작하였다. 이때부터 고리끼는 로씨야사회의 최하층에서 갖은 천대와 멸시를 받으며 생활의 대학을 거치게 되였다.

고리끼에게는 하층평민들속에서 겪은 체험의

일화도 적지 않다.

한번은 고리끼가 당시 가혹한 짜리제도의 압제밑에서 살길을 찾아 헤매는 류랑민들을 싣고 볼가강을 오르내리는 짐배에 오른 일이 있었다. 그 배에는 좀도적대왕이라는 별명을 가진 손버릇 사나운 젊은이가 타고있었다. 해빛가리우개도 없는 갑판우에서 지루하게 계속되는 먼 려행에 지친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 잘 타지는 못하지만 손풍금을 타는 젊은이의 둘레에 모여앉아 풍금소리에 귀를 기울이고있었다.

이윽고 지친 손풍금수는 고리끼에게 이야기를 하나 해달라고 조르는것이였다. 할수없이 고리끼는 자기의 작품이 수록된 책을 읽어주기 시작하였다. 그의 주위에는 사람들이 하나, 둘 모이기 시작하더니 마침내 조타수를 제외하고는 선장을 비롯한 선원들까지 모두 모여들었다.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웃기도 하는 군중속에는 그 좀도적대왕의 얼굴도 보였다.

그의 읽기가 끝났을 때였다. 소설에 깊이 감동된 군중은 누구도 떠나려고 하지 않았다. 이때 손풍금을 타던 청년이 흥분을 누르며 손풍금을 고리끼에게 안겨주면서 《선생님의 글은 금을 주고도 바꿀수 없습니다. 이 손풍금을 선물로 아주 받으십시오. 그리고 계속 좋은 글을 많이 써주십시오.》라고 말했다.

날이 어두워 래일 다시 읽어주기로 약속한 고리끼는 그 책을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검은 책보따리속에 쑤셔넣은 다음 그것을 베고 잠들어버렸다. 그런데 이튿날 아침 일어나보니 책보따리가 없어지지 않았는가! 틀림없이 좀도적대왕이 훔쳐갔다고 하면서 사람들은 야단법석하였으나 그 좀도적은 그림자도 찾을수 없었다. 분명 그 좀도적대왕이 한 짓이라고 단정하면서도 이상하게 생각한것은 그가 값나가는 손풍금을 그냥 놔두고 책보따리만 훔쳐간것이다. 사람들이 의문을 품고 머리를 기웃거리자 고리끼는 옆에 놓인 손풍금을 만지면서 《여러분! 됐습니다. 그것을 가져갔다면 그는 사람구실을 할것입니다. 그가 그 책의 진짜값을 알았으니까요.》 라고 하면서 호탕하게 웃는것이였다.

이렇게 말하는 고리끼의 얼굴에는 자기의 글이 구렁텅이에 빠진 한 젊은이에게 갱생의 길을 열어주었다는 기쁨이 한껏 어려있었다.

알렉싼드르 브레쥬네브의 시

복수하리라

(신천박물관에서)

눈물없이는
이 땅에 서있지 못하리
죽음의 고비를
넘고넘어온
영웅병사들
머리숙이며
주먹으로 눈물을 닦는다

여기 이 땅이 통채로
관통상을 입은듯
몸부림치며 신음하는
너 신천이여!

눈물이 흘러 강을 이루고
무쇠도
바위도
분노에 떨게 하는
사무친 원한이여
조선인민의 피로 얼룩진
미국의 교형리들
너털웃음치며 서있거니
내 오늘 신천땅에서 보았노라
인류력사가 알지 못하는
파쑈 미제의 야만행위를
신천땅의 산천초목도
어린이들의 울음소리 새겼고
온 신천땅이 피로 젖었다

자동총 억세게 틀어잡은
병사는 나에게 말한다
《양키들과는
한하늘을 이고 살수 없다!
죽어도 기어이 복수하리라》
작열하는 조선의 심장
얼음산도 녹여버리리

복수, 복수를 부른다
애어린 령혼들이

임신부들의 령혼들이
복수를 부른다 천백배의 복수를
살아남은 사람들과
불구자들과 고아들이
소리높이 웨친다
원쑤 양키들을 복수해달라!
머리를 번쩍 드니
피 거꾸로 솟는다
힘줄이 불끈불끈 일어선다
나는 로씨야사람
허나 내 맹세하노니
조선이 흘린 피
기어이 복수하리라

마야꼽스끼의 시

좌익행진곡

행전을 펼치라!
아니다 말공부할 때가
웅변가들이여, 입을 다물라!
모제르 (권총)동무
이제는 당신이
본때를 보여줄 차례

…

왼발에 맞춰
하나 둘!
하나 둘!

…

틀어쥐라
프로레타리아트의 손아귀에
세계의 운명을!
용감한 가슴을 앞으로!
기발로 하늘을 뒤덮어라!
누구냐 거기 오른발로 걷는건!

왼발에 맞춰
하나 둘!
하나 둘!

이싸꼽스끼의 시

까쮸샤

사과꽃 배꽃 하얗게 피고
강우엔 물안개 서렸네
까쮸샤는 나왔네 강기슭으로
그 높고 험한 강기슭으로

기슭에 나와 서서 노래부르네
초원의 재빛수리의 노래
그가 사랑하는 사람의 노래
그가 지닌 편지임자의 노래

오, 너 노래야, 처녀의 노래야
밝은 해따라 날아가다오
먼 국경의 병사 한사람에게
까쮸샤의 인사를 전하여다오

순진한 이 처녀를 잊지 말라고
이 처녀의 노래를 들으시라고
그리고 조국땅 굳게 지키라고
까쮸샤는 사랑을 간직하리라고

사과꽃 배꽃 하얗게 피고
강우에 물안개 서렸네
까쮸샤는 나왔네 강기슭으로
그 높고 험한 강기슭으로

쑤르꼬브의 시

원쑤가 내 집에 들어왔다

원쑤가 내 집에 들어왔다 그리고
내가 길러내고 사랑하던 모든것을
내가 눈동자처럼 소중히 여기던 모든것을
짓부시고 행길먼지속에 날려버렸다
아버지의 묵직한 도끼를
사랑의 이름으로 나는 드노라
끝까지 무자비하게 될것을
벨라루씨여 나는 너에게 맹세하노라!

…

한없는 나의 분노는 그에게
피를 피로써 갚으리라
무너진 어버이 집을 위하여
짓밟힌 나의 논밭을 위하여

내 손으로 가꾸었던 정원을 위하여
자녀들의 짧아진 일생을 위하여
그리고 나의 벨라루씨강들에서
놈들이 퍼먹은 한모금 한모금의 물을 위하여

착상과 어리석음

한 청년이 시쓰기를 좋아하여 책상에 앉아 쓰기는 많이 쓰지만 현실에 발을 붙이지 못하니 좋은 시가 나오기 만무하였다. 그리하여 이 어리석은 청년은 자기에게는 착상이 떠오르지 않는다고 모대기기만 하였다.

하루는 길거리에서 마야꼽스끼를 만났는데 그는 너무 좋아 대뜸 그에게로 뛰여가 인사말도 없이 《시인선생! 듣건대 당신은 매우 풍부한 착상을 가지고있다는데 나에게는 왜 착상이 오지 않을가요?》라고 물었다.

이전부터 그를 알고있는 마야꼽스끼는 《오, 그렇소? 아마도 착상은 책상머리의 어리석은것과 벗으로 사귀기 싫어하는가부지! 내 경험에 의하면 현실에 발을 들여놓으니까 착상이라는 물건이 내 머리에서 요동을 치더구만, 친하자고 하는것 같애!》라고 눈을 껌벅이며 대답하였다.

마야꼽스끼는 현실에 뛰여들어 사색하지 않고 어리석게 성과를 바라는 청년을 이런 유모아로 야유하였지만 그속에는 그를 따끔하게 충고하고 고무해주는 진정이 어려있었다.

《전 당신을 전혀 모르겠는데요?!》

시인으로서의 마야꼽스끼의 이름이 널리 알려지자 시짓기를 즐기는 많은 청년들이 그의 주위에 모여들었다. 그가운데는 마야꼽스끼의 이름을 도용하여 자기를 나타내보려는 서푼짜리시인도 있었다.

한 젊은이가 시짓기를 몹시 좋아하였다. 그는 4년동안 신고를 하다가 마침내 시 한편을 써서 자그마한 신문에 발표하게 되였다. 이 청년은 4루블짜리 원고료 송금통지서까지 받게 되였다.

이렇게 되자 젊은이는 너무 기뻐 만나는 사람마다 자기를 자랑하면서 시가 발표된 신문과 송금통지서까지 보여주었다. 그는 가끔 찬양하는 목소리도 듣군 하였다. 그러자 그는 몸가짐도 달라지고 우쭐해져서 자기를 시문학계에 혜성처럼 나타난 존재라고 생각하게 되였다.

어느날 이 젊은이는 렬차려행을 하다가 한 중년사나이와 자리를 같이하게 되였다. 중년사나이도 시집을 펼쳐들고있었다. 젊은이는 중년사나이도 시를 좋아한다는것을 알고 시에 대해 일장 사설을 늘어놓다가 나중에는 신문과 송금통지서도 내보였다.

그런데 중년사나이는 웃기만 할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더욱 기세가 오른 젊은이는 국내외의 이름있는 시인들에 대하여 쭉 렬거하고나서 이렇게 말하였다.

《당신은 유명한 시인 마야꼽스끼를 압니까? 솔직히 말하여 나는 그와 매우 가까이 지냅니다. 전번날에는 그의 집에 가서 술까지 마셨습니다.》

중년사나이는 큰소리로 웃었다.

《제가 바로 마야꼽스끼입니다. 전 당신을 전혀 모르겠는데요?!》

《동지의 소원은 이루어질것입니다》

알렉쎄이 똘스또이는 열렬한 조국애를 지닌 작가였다.

그의 애국주의는 특히 파쑈도이췰란드의 침략을 반대하는 쏘련인민의 조국전쟁시기에 높이 발양되였다.

히틀러강도배들을 반대하는 전쟁은 처음부터 간고하고도 준엄하였다. 그러나 아. 똘스또이는 조국전쟁이 정의의 전쟁이며 반드시 자기 인민의 승리로 끝나리라는것을 확신하고있었다.

파쑈도이췰란드군대가 쏘련경내에 깊이 침입했던 1941년 10월 18일에 똘스또이는 《원쑤놈들은 모스크바를 노리고있다》는 글을 써서 방송으로 발표하였다.

그는 이렇게 말하였다.

《도이췰란드파쑈군대를 공격하는 전쟁의 결

정적단계는 곧 펼쳐질것입니다.》

이 단호하고도 격동적인 말은 자기 당과 인민의 불패의 힘에 대한 똘스또이의 확신에서부터 우러나온것이였다.

그는 필승의 신념을 가지고 단편소설집 《이완 쑤다레브의 이야기》를 비롯한 소설들과 전투적인 형식의 수많은 글을 써서 쏘련인민을 전쟁승리에로 고무하였다. 그는 열정에 넘쳐 창작사업을 진행하였을뿐아니라 전쟁의 종국적승리를 위한 여러가지 사회사업에 적극 참가하였다.

1943년이였다. 그에게 큰 영예가 차례졌다. 1921년에 착수하여 1942년에 창작을 끝낸 3부작장편소설 《고난의 길》에 국가상이 수여되였던것이다.

똘스또이의 생각은 깊었다. 그는 영예를 느끼기에 앞서 조국의 운명을 판가리하는 준엄한 전쟁에 대하여, 전선에서 피어린 싸움을 벌리고 있는 장병들에 대하여 생각하였다. 언제나 전쟁의 승리를 위해 모든것을 바쳐온 똘스또이는 거액의 창작료를 땅크헌납금으로 바침으로써 조금이나마 조국에 이바지하고싶었다.

드디여 작가는 그 생각을 담은 편지를 써서 쓰딸린에게 올렸다.

1943년 3월 21일부 《쁘라우다》지상에는 쓰딸린의 회답서한이 실렸다.

《알렉쎄이 니꼴라예비치동지!

붉은군대 기계화부대를 위한 동지의 지성어린 소행에 대한 나의 인사와 붉은군대의 감사를 받아주기 바랍니다. 동지의 소원은 이루어질것입니다.》

그후 땅크 《준엄》호는 전쟁승리에 대한 작가와 전체 쏘련인민의 념원을 안고 서쪽으로, 서쪽으로 진격하면서 히틀러파쑈군대를 격멸소탕하는데 이바지하였다.

장편소설 《챠빠예브》창작에 깃든 이야기

장편소설 《챠빠예브》를 쓴 푸르마노브의 창작경험은 매우 교훈적이다.

공민전쟁에 참가하여 챠빠예브사단의 정치위원으로 활동한 푸르마노브는 제대후 모스크바에서 살면서 자기가 챠빠예브와 함께 겪은 군인생활체험과 일기와 력사자료들, 론문과 군부대일군들과의 담화자료에 근거하여 소설을 쓰기로 결심하였다.

챠빠예브의 영웅적성격에 매혹되였던 그는 창작에 착수하기 전에 두가지 생각에 사로잡혔다.

(력사적으로 존재하였던 챠빠예브라는 인물을 년대기식으로 그릴것인가, 사건과 전투들, 도시와 지형들에 대하여 사실그대로 그리는데 충실할것인가? 아니면 예술적환상과 허구가 날개를 자유로이 펼수 있게 자료들을 활용할것인가?)

작가는 이 두가지 안을 놓고 사색하였다. 그리고 그에 대하여 친구들과 여러번 의견을 나누었다. 많은 의견이 후자에 기울어졌다. 작가도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였다.

하지만 국내전쟁의 한 영웅을 예술적인 전형으로 창조한다는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그는 그때까지도 미처 모르고있었다.

그는 몹시 힘들게 초고의 첫장을 쓴 후에 《그것은 말그대로 손에 무기를 들고 진행한 전투보다 어려운 전투였다.》 고 회상하였다.

우랄초원에서 챠빠예브와 함께 벌린 싸움 그자체가 그대로 예술로 되는것은 아니였다. 모든 전투와 사건, 일화, 각이한 인물들과 성격들은 그의 체험의 세계에서만 머물러있었다.

그는 불타는 열정을 안고 밤낮으로 펜을 달리였다.

작가의 머리를 때때로 사로잡은것은 모든 세부들을 섬세하고 진실하게 다듬을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그것을 예술적인 전형으로 끝까지 창조해낼 인내성이 있겠는가 하는 우려였다.

그러나 레브 똘스또이도 방대한 《전쟁과 평화》를 무려 여덟번이나 옮겨 쓰면서 수정작업을 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그에게 용기와 신심을 주었다.

그리하여 공민전쟁때 인민영웅의 전형적성격을 체현한 주인공을 그린 장편소설 《챠빠예브》가 한 정치위원에 의하여 이 세상에 나올수 있었던것이다.

《개간된 처녀지》

1932－1960년에 숄로호브가 창작한 장편소설. 제1부는 1932년에, 제2부는 1960년에 발표되였다. 쏘련에서 농업집단화운동이 본격적으

로 벌어지던 1930년대초를 시대적배경으로 하여 돈강류역의 어느 한 까자크마을 농민들의 생활을 통하여 농촌에서 일어난 혁명적변혁을 보여준 작품이다.

1930년 1월 어느날 이전 백파장교 뽈롭쩨브가 남몰래 마을에 기여든다. 그자는 부농 오스뜨롭노브의 집에 숨어 반혁명반란음모를 꾸민다. 같은 시각에 당이 농촌에 파견한 로동자당원들중 한사람인 다비도브가 전권위원으로 마을에 도착한다. 그는 비서 나굴노브, 쏘베트위원장 라즈묘뜨노브와 힘을 합쳐 농업집단화운동을 힘있게 밀고나간다. 부농들의 재산이 몰수되고 꼴호즈가 조직되며 다비도브가 위원장으로 선거된다. 오스뜨롭노브는 자진하여 꼴호즈에 들어가 회계장사업을 맡고 겉으로는 열성을 내면서 뒤에서는 암해책동을 벌린다. 게다가 나굴노브가 폭력으로 종곡을 징발하는 좌경적오유를 범한것으로 하여 농민들이 동요하고 꼴호즈에서 탈퇴하는 사람들까지 나온다. 또한 다른 꼴호즈에 종곡을 나누어주라는 지시를 오해한 농민들이 부농들의 사촉을 받아 폭동까지 일으킨다. 그러나 당원들과 열성분자들의 헌신적노력으로 난관을 이겨내고 꼴호즈는 날로 강화발전되며 밭갈이와 씨뿌리기, 풀베기로 바쁜 나날을 보낸다. 이러한 때 다비도브는 나굴노브와 리혼한 방탕한 루슈까의 유혹에 빠진다. 그런데다가 루슈까의 이전 정부인 부농의 아들 찌모페이가 추방지에서 도망쳐온다. 그는 루슈까의 집에 숨어 나굴노브를 암살하려고 꾀하다가 사전에 발각되여 처단당한다. 다비도브는 자기의 일시적과오를 시정하고 일에 전심전력한다. 이무렵 반혁명조직을 조사하러 왔던 내무원들이 뽈롭쩨브일당에게 피살된다. 다비도브일행은 적들의 소굴을 알아내고 오스뜨롭노브의 집을 포위하나 다비도브와 나굴노브는 반동들의 총에 맞아 희생되고 뽈롭쩨브는 도주한다. 그러나 인차 체포되며 반혁명조직은 일망타진되고 음모는 분쇄된다.

작품은 새생활창조를 위한 평범한 까자크마을 농민들의 투쟁을 통하여 사회주의의 승리의 력사적필연성과 합법칙성, 농촌의 사회주의적 개조를 위한 당의 령도적역할을 예술적으로 확증하고있다. 소설의 이 기본사상은 마을의 당원들인 다비도브, 라즈묘뜨노브, 나굴노브의 형상에 구현되여있다. 중농 마이단니꼬브, 빈농 슈까리령감의 성격도 인상깊게 형상되여있다. 작품은 당시 쏘련농촌에서의 치렬한 계급투쟁도 진실하게 그려내고있다. 소설은 생동한 개성적성격의 창조, 독특한 구성과 문체, 자연묘사와 성격묘사의 유기적결합, 인민적인 언어구사 등 높은 예술성을 보여주었다. 소설은 쏘베트문학에서 고전적 작품의 하나로 되고있다. 소설은 영화로도 옮겨졌다.

가이다르의 노력

이전 쏘련의 저명한 아동문학작가 아르까지 가이다르(1904—1941)는 혁명투쟁의 실천속에서 실로 풍부한 생활체험을 쌓은 작가이다.

공민전쟁시기 그는 14살의 어린 나이에 붉은군대의 지휘관으로 활동하였으며 여러 전선에서 용감하게 싸워 적기훈장을 수여받았다. 그는 열성적인 공청원이였다.

그는 16살에 련대장이 되여 잘 싸웠으나 부상으로 1924년에 제대되여 예비역군관으로 되였다. 당시 그의 나이는 불과 20살이였다. 이때부터 그는 꾸준히 자습하여 본격적인 문학작품창작에 들어섰다.

그는 왜 아동문학작가가 되였는가 하는 물음에 이렇게 대답하였다.

《군대에 복무할 때 나는 아직 소년이였습니다. 그때 나는 적지 않은것을 볼수 있었던것만큼 그 생활이 어떠하였고 그것이 모두 어떻게 시작되였으며 또 어떻게 계속되였는가를 새로 자라나는 소년, 소녀들에게 이야기하여주고싶었기때문입니다.》

가이다르가 작가로 되기 위해 얼마나 노력하였는가 하는것을 보여주는 일화가 있다.

어느때인가 그가 동료인 소설가와 함께 숲속마을에서 지낸 일이 있었다.

두어주일이 지나서 가이다르는 아동소설 《고수의 운명》을 탈고하고 동료에게 유쾌한 기분으로 물었다.

《내가 쓴 소설을 읽어줄가?》

동료는 물론 듣기를 원했다.

《그럼 들어보게!》 가이다르는 이렇게 말하고 방가운데 서서 두손을 주머니에 넣었다.

《원고는 어디 있나?》 동료가 물었다.

그러자 가이다르는 원고는 자기 방 상우에

서 쉬고있다고 대답하였다. 그리고 중편아동소설을 첫줄부터 마지막줄까지 따로외워나가는것이였다.

동료는 도무지 믿어지지 않았다.

《자넨 그래도 어느곳에서든지 상당히 혼돈했을걸세.》 하고 의문을 던졌다.

허나 가이다르는 《내기하세!》 하고 소리치며 틀린 곳이 열곳은 넘지 않을것이라고 장담하였다. 잠시후 가이다르는 원고를 가져다 동료에게 주고 두번째로 소설을 외워나갔다. 동료는 원고를 놓고 대조하였는데 틀린 곳은 불과 몇군데뿐이였고 그것도 큰것이 아니였다.

동료는 탄복하여마지 않았다.

가이다르가 자기의 소설을 그토록 정확히 외울수 있은것은 그의 남다른 암기력에만 있는것이 아니였다. 보다는 소설의 매 문장을 쪼아박듯이 세련시키고 다듬어나가는 가이다르의 작가적진지성과 관련되는것이였다.

가이다르는 쏘련—도이췰란드전쟁때 종군기자로 전선에 파견되였으며 1941년 가을 자진하여 적후에 남아 빨찌산부대 기관총수로 용감히 싸우다가 적과의 조우전에서 전사하였다.

가이다르의 주요작품에는 《고수의 운명》(1939)외에 《혁명군사위원회》(1926), 《학교》(1930), 《군사비밀》(1935), 《찌무르와 그의 부대》(1940) 등이 있다.

《찌무르와 그의 부대》

이전 쏘련작가 아르까지 가이다르가 1940년에 창작한 중편아동소설.

모스크바교외의 별장마을을 무대로 한 이 소설은 찌무르와 그의 부대의 활동모습을 통하여 쏘련소년들의 애국심을 보여준 작품이다.

쏘련군대 장갑렬차지휘관 알렉싼드로브대좌의 딸들인 18살난 올가와 14살난 쥬냐자매는 아버지의 권고로 여름방학의 나머지나날을 모스크바교외의 별장에서 보내게 된다.

언니보다 한발 늦어 마을에 도착한 쥬냐는 길을 잃고 그만 알지 못할 별장에서 하루밤을 보낸다. 그 집에는 찌무르라는 소년이 살고있었는데 쥬냐는 그와 친숙해진다. 그러나 올가는 쥬냐가 찌무르와 사귀는것을 엄금한다. 그는 찌무르를 과수원을 털고 꽃밭을 짓뭉개는 불량소년으로 잘못 알고있었던것이다.

찌무르는 자기의 부대를 지휘하여 남몰래 후방가족들을 도와주는 훌륭한 소년이였다. 찌무르와 그의 부대는 쥬냐의 별장 창고다락에다 사령부를 설치하고 비밀전화와 신호줄까지 련결하여 정보수집, 비상소집을 하면서 후방가족들을 도와주고있었다.

그들은 군대복무자가 있는 집 대문에는 붉은별표식을, 전사자가 있는 집 대문에는 그 붉은별표식에다 검은 테두리를 하고 아무도 몰래 땔나무를 패주거나 물을 길어주는 등 좋은 일을 많이 하고있었다.

그런데 마을에는 미슈까 크바낀을 우두머리로 하는 불량소년들의 패가 있었다. 그들은 돌아가며 못된 짓만 하였는데 그 오해를 찌무르와 그의 부대가 받고있었다. 찌무르와 그의 부대는 크바낀패에 최후통첩을 들이대여 되게 혼쌀낸다.

어느날 쥬냐의 아버지가 전선으로 가는 길에 잠간 들린다는 소식이 온다. 올가가 쥬냐와 싸움을 하고 혼자서 모스크바에 간 후 홀로 있던 쥬냐는 그만 마지막기차를 놓쳐 울음을 터뜨린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찌무르는 삼촌의 오토바이를 타고 밤중에 쥬냐를 모스크바까지 데려다준다.

올가는 찌무르에 대한 오해를 풀고 찌무르는 대좌와 굳은 악수를 나눈다. 곧 찌무르의 삼촌도 입대하여 전선으로 떠나간다. 찌무르는 앞으로도 조국을 위해 좋은 일을 계속 할 결심을 다진다.

작품은 당시 쏘련소년들의 생활과 정신세계를 매우 생동하게 반영하고있다. 주인공 찌무르를 비롯한 소년들의 성격에서 특징적인것은 집단주의정신, 조국과 인민에 대한 사랑이 강할뿐아니라 용감하고 의젓하며 우정이 깊은것이다.

작품은 활기에 넘친 소년주인공들의 명랑한 성격을 잘 그려내였다.

《찌무르와 그의 부대》는 가이다르의 대표적인 아동작품으로서 발표당시 쏘련의 어린이들에게 큰 영향을 주어 전국에서 찌무르운동이 벌어지게 하였다.

《련대의 아들》

이전 쏘련작가 왈렌찐 까따예브(1897—1986)가 1945년에 발표한 중편소설.

소설에서는 쏘도전쟁시기 적후에서 쏘련군대 정찰병들에게 구원된 한 고아와 군인들의 생활을 통하여 쏘련군대의 영웅성과 고상한 애국심을 보여주고있다.

예나끼예브대위가 지휘하는 포중대의 정찰조는 어느날 적후정찰의 길에서 만난 고아를 부대로 데리고 온다. 그는 아버지가 전사하고 가족들이 모두 피살되여 적강점지구에서 3년동안이나 방랑한 와냐 쏜쩨브소년이였다.

예나끼예브대위는 그를 후방의 고아원으로 보낼것을 명령한다. 와냐는 후방으로 가는 도중 인솔자인 이름난 정찰병 비젠끄의 손안에서 감쪽같이 빠져나와 다시 포중대를 찾아간다.

적들의 폭격에 안해와 어린 외아들을 잃은 예나끼예브대위는 와냐의 절절한 소망을 헤아려 그를 련대의 아들로 등록하고 부대에 두기로 결심한다.

정찰병들은 와냐를 리발, 목욕시킨 다음 군복과 장화까지 마련해준다. 예나끼예브대위는 와냐를 양아들로 삼고 자기곁에 련락병으로 둔다.

와냐는 이 세상에서 정찰병아저씨들이 제일이라고 생각한다. 후에 포병들과 사귀면서 포병아저씨들도 참 좋은 사람들이라는것을 알게 된다. 그는 특히 제1포의 유명한 조준수이며 쏘련영웅인 끄바료브아저씨에 대하여 깊은 존경심을 품게 된다.

파쑈침략군을 쏘련국경밖으로 내쫓기 위한 총공격의 나날에 중대앞에는 엄혹한 시련이 닥쳐온다. 예나끼예브대위는 최후순간을 앞두고 와냐를 사단지휘부에 련락보낸다.

와냐가 련락임무를 수행하고 련대에 돌아와보니 전원이 전사한 뒤였다.

소설은 와냐가 쑤보로브유년군사학교로 떠나는것으로 끝난다.

작품은 전재고아인 와냐 쏜쩨브소년을 둘러 싸고 벌어지는 이야기를 통하여 전쟁시기 군사임무에 대한 붉은군대 병사들의 충실성, 뜨거운 애국심과 무비의 영웅성을 생동하게 보여주고있다.

씨모노브

꼰스딴찐 미하일로비치 씨모노브(1915—1979)는 쏘련의 이름있는 작가의 한사람이였다.

레닌그라드의 로동자가정에서 태여나 1938년에 고리끼문학대학을 졸업하였다. 1934년부터 작품을 발표하기 시작하여 초기에는 서사시 《승리자》(1937), 희곡 《우리 도시에서 온 청년》(1940, 국가상) 등 시와 희곡을 창작하였다. 1942년에 쏘련공산당에 입당하고 신문 《크라스나야 즈베즈다》 종군기자로 활동하였으며 희곡 《로씨야사람들》(1944, 국가상), 중편소설 《낮과 밤》(1943—1944, 국가상), 시집 《그대와 함께, 그대없이》(1942), 《전쟁》(1944) 등을 발표하였다. 그가운데서 쓰딸린그라드격전을 형상한 《낮과 밤》이 널리 알려져있다.

제2차 세계대전후에 그는 희곡 《로씨야문제》(1946, 국가상), 《남의 그림자》(1949, 국가상), 시집 《친우들과 원쑤들》(1947, 국가상) 등 시와 희곡창작을 계속하면서 전쟁주제의 장편소설창작에 힘을 넣었다. 그리하여 할힌골사건때 쏘련군대의 작전을 박력있게 묘사한 장편소설 《전우들》(1953), 제2차 세계대전을 반영한 3부작장편소설 《산 사람과 죽은 사람》(1959—1971, 제1부 《산 사람과 죽은 사람》, 제2부 《타고난 병사는 없다》, 제3부 《마지막여름》, 레닌상) 을 발표하였다.

그는 이전 쏘련최고쏘베트 대의원, 쏘련작가동맹 중앙위원회 비서였으며 사회주의로력영웅(1974)이였다.

전쟁물소설창작에서 새 길을 열어놓은 중편소설 《여기 노을은 고요히》

보리스 와씰리예브(1924—?)의 중편소설 《여기 노을은 고요히》(1969)는 전쟁주제의 소설창작에서 새 길을 열어놓은것으로 하여 유명해진 작품이다. 소설은 1971년에 연극작품으로 옮겨져 공연되였으며 1972년에 영화로 옮겨졌다. 또한 이 작품에 쏘련국가상과 레닌공청상이 수여되였다.

이 소설이 이처럼 큰 반향을 불러일으킨것은 무엇때문인가?

그것은 전쟁물주제소설창작에서 류행되던 대작주의적편향을 타파하고 하나의 작은 소재, 작은 전투이야기를 통하여 쏘도전쟁에서 쏘베트군인들이 발휘한 높은 애국주의정신과 전투위훈을 감동깊게 그려내였기때문이다.

소설은 1942년 5월 도이췰란드침략군에게 포위된 레닌그라드 북쪽 어느 한 수림속에서 벌어진 사건에 대하여 이야기하고있다. 어느날 이름없는 작은 철도역을 지키고있는 고사기관총분대(남자인 분대장과 5명의 녀성병사로 구성)가 수림속에 몰래 기여든 두 적병을 발견한다. 분대장은 5명의 녀성병사를 데리고 적을 추격한다. 철도역에서 멀리 떨어진 깊은 수림속에서 그들은 중무장한 16명의 적들과 불의에 맞다들게 된다. 그놈들은 끼로브철도선과 쓰딸린운하를 파괴하기 위하여 투입된 적륙전대원들이였다. 6 대 16! 력량상으로 보나 준비상태로 보나 매우 불리한 조건이였지만 분대는 지휘부와 미처 련계를 취할 사이도 없이 고립무원한 상태에서 지체없이 전투에 진입한다. 하루종일 계속된 치렬한 전투에서 분대는 적의 대부분을 소멸한다. 그 과정에 5명의 녀병사는 모두 희생되고 부상당한 분대장 혼자만이 살아남는다.

농촌출신의 리자는 상급에 련락하러 가다가 진펄에 빠져 희생되고 대학생출신의 쏘냐는 적의 칼에 맞아 희생된다.

고아원에서 자라난 갈랴는 적의 총탄에 맞아 쓰러지고 녀병사들중에서 비교적 침착한 리따는 중상을 당한다. 그러자 그는 전우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자결한다. 미인으로 불리우는 렌까는 전우들의 안전을 위하여 적의 화력을 자기에게 유인하여 장렬히 전사한다. 부상당한 몸으로 혼자 남은 상사 와스꼬브는 강을 사이에 두고 진행된 마지막격전에서 끝까지 용감히 싸워 남은 적병들을 소멸한다.

《온 로씨야가 자기의 뒤에 서있는듯 그의 가슴은 격정으로 부풀어올랐다. 바로 이 시각 페도뜨 예프그라피치자신은 로씨야의 마지막아들이며 방위자인듯싶었다. 오로지 그자신과 원쑤, 로씨야가 있을뿐 세상은 텅 비여있는듯싶었다.》

작가는 전쟁의 가혹성과 비극성을 숨김없이 보여주고있지만 그것을 알면서도 나어린 녀병사들이 생명보다 귀중한 조국을 위해 한목숨 바쳐 용감히 싸우는 투쟁모습을 생동하고 진실하게 그려냄으로써 쏘베트인민들의 영웅주의를 보여주고있다.

소설은 5명의 녀전사들의 아름다운 정신세계를 서정적으로, 랑만적으로 형상하고있는 점에서도 특징적이다.

1980년대 쏘련문학계에서 많은 론의를 불러일으킨 본다레브의 3부작장편소설

본다레브의 장편소설 《기슭》(1975), 《선택》(1980), 《놀음》(1985)은 취급된 생활과 문제성, 인물관계에서 아무런 공통성과 련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3부작으로 널리 알려진 작품들이다.

그것은 이 작품들이 전쟁과 평화, 사랑과 증오문제를 다루고 주인공들을 지식인으로 설정했으며 정치적 및 사회도덕적견지에서의 지식인문제를 철학적으로 해명하려고 지향한 점에서 공통성이 있기때문이였다.

《기슭》은 주인공의 회상과 사색, 체험을 통하여 쏘베트조국과 사회주의제도에 대한 사랑, 인간의 건전한 륜리도덕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다.

전쟁참가자인 작가 니끼찐은 전후 26년만에 서부도이췰란드의 출판업계에서 조직한 《작가와 현대문명》이라는 토론회에 참가해달라는 초청을 받고 함부르그로 가게 된다. 니끼찐은 자기 작품의 열렬한 애독자인 헤르베르트부인의 안내를 받는다.

그는 낯선 땅에 들어서 헤르베르트부인을 보는 순간 어디서 본듯 한 인상에 사로잡혀 부지런히 과거를 더듬는다.

그러다가 마침내 녀인의 이야기를 통하여 잊을수 없는 젊은 시절의 사랑을 감회깊이 회상하게 된다. 하지만 추억에서 벗어나 눈을 뜨고보니 현실세계는 참으로 랭혹하였다.

작품은 사건을 따라 전개되는 명백한 이야기줄거리가 없으며 현재생활로부터 시작하여 과거생활—파쑈도이췰란드의 마지막잔당들을 소탕하는 전투에서 발휘된 주인공을 비롯한 쏘련군대의 인도주의, 인간성의 견지에서 오늘의 모순에 차고 기형화된 서방세계를 다방면적으로 해부하여 비판하고있다.

장편소설 《선택》 역시 정치적 및 사회도덕적문제를 보다 심각하게 제기한 작품이다.

작품에는 쏘련의 유명한 미술가 울라지미르 와

씰리예브가 이딸리아에 려행갔다가 전쟁시기 같은 중대에서 싸우다 전사한줄로만 알았던 일리야 람진을 만난 이야기와 그후 람진이 쏘련을 방문하여 와씰리예브와 그의 어머니를 만나고 떠나기 전날 려관에서 자살하는 이야기가 담겨져있다.

작품은 두 주인공의 형상을 둘러싸고 인간의 량심과 리기심, 결백성과 위선이라는 정신도덕적 갈등을 인간의 가치와 조국에 대한 심각한 문제로 심화시키고있다.

그리하여 작품은 조국이 없이는 인간의 삶의 의의가 없으며 인간의 존재가치가 없다는것을 형상적으로 밝혀내고있다.

장편소설 《놀음》에서는 재능과 무능, 결백성과 비렬성, 선과 악의 도덕적갈등이 날카롭게 대치되여있다.

소설의 주인공 크릐모브는 모스크바의 이름난 영화연출가이다. 그는 조국전쟁시기에 정찰소대장으로 용감히 싸웠으며 전후시기에 다년간 영화계에서 일하면서 독창적인 창작적개성을 가진 연출가로 두각을 나타낸다. 그의 재능은 국내에서뿐아니라 국외에서도 인정하게 된다.

그런데 그가 연출하는 새 영화의 녀주인공으로 설정된 처녀 이리나의 원인 모를 죽음과 관련한 사건을 둘러싸고 주인공과 그를 시기질투하는 사람들사이의 갈등이 첨예화되여 주인공은 매우 난처한 처지에 빠지게 된다. 지칠대로 지친 크릐모브는 될대로 되라고 자포자기하며 악몽에 시달린다.

소설은 이를 통하여 재능이 없는 사람들이 재능있는 사람들을 시기질투하며 비렬한자들이 결백한 사람들을 모해해나서는것과 같은 불건전한 비도덕적현상이 쏘베트사회에서는 있어서는 안된다는 사상을 보여주고있다.

본다레브의 세 소설은 문제의 제기가 심각하고 형상수법이 독특하며 장편소설의 형식을 새롭게 혁신하려는 시도를 보이고있다. 소설들은 현재와 과거, 과거와 현재의 생활을 자유롭게 교차시키면서 속도감과 밀도를 보장하고있으며 여기에 심리적분석과 감각적묘사를 배합하고있다.

반면에 이 소설들은 사회적지향성과 목적 등이 명백하지 못하며 사회주의제도에 대한 의문이 부분적으로 나타나고있는 심중한 결함도 가지고 있다.

소설들이 가지고있는 이러한 문제성은 많은 론의를 불러일으켰다.

조국과 인민의 버림을 받은 작가의 말로

빠스쩨르나크는 이전 쏘련에서 알려진 작가였으나 사회주의에 대한 신념을 가지지 못한것으로 하여 조국과 인민의 버림을 받고 고독하게 생을 마친 사람이다.

보리스 레오니도비치 빠스쩨르나크(1890—1960)는 모스크바의 이름있는 미술가의 가정에서 태여나 모스크바종합대학을 졸업하고 이딸리아녀성과 결혼하였다.

그는 1913년부터 시를 발표하기 시작하여 1920년대에는 마야꼽스끼, 예쎄닌과 함께 시단에서 영향력이 있는 시인의 한사람으로 되였다.

그러나 그는 시집 《구름속의 쌍둥이》(1914), 《장애물우로》(1917) 등 초기창작에서부터 상징주의적경향을 드러냈으며 10월혁명후에는 의식적으로 사회주의혁명과 사회주의건설을 노래하지 않았기때문에 《상징주의자》, 《형식주의자》, 《현실로부터 리탈한 탐미주의자》로 비판받고 랭대를 받았다.

그리하여 그는 1930년대에는 거의 시를 발표하지 못하고 주로 번역을 하였다. (《그루지야 시인선집》 1946, 기타)

빠스쩨르나크는 1940년대 중엽부터 모스크바교외의 자기 집에 들어박혀 10년세월을 장편소설 《쥐바고의사》 창작에 몰두하여 1955년에 탈고하였다.

작가는 흐루쑈브집권시기의 자유화바람에 편승하여 작품을 발표하려고 했으나 그 당시에조차 혁명에 부정적이며 반쏘적이라는 비난을 받고 관계부문에서도 감히 출판승인을 하지 못하였다.

그러자 작가는 배신적으로 그 원고를 서방에 넘겨 1957년 11월 이딸리아에서 출판되게 하였다. 작품은 이딸리아에서 영문판으로 나온 후 영국, 미국, 스웨리예, 프랑스, 일본을 비롯한 여러 자본주의나라들에서 번역출판되여 반공, 반쏘선전수단으로 리용되였다.

서방은 빠스쩨르나크의 이러한 《공적》을

《평가》하여 1958년 그에게 노벨문학상을 수여하는 결정까지 채택하였다.

쏘련당국은 이 결정을 《쏘련에 대한 적대적정치공작》으로 인정하였으며 쏘련작가동맹은 1958년 10월 빠스쩨르나크를 작가동맹에서 제명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이런 환경에서 빠스쩨르나크는 노벨문학상을 받는것을 거절하지 않을수 없었다. 그로부터 2년후 1960년 5월 30일 빠스쩨르나크는 모스크바교외의 자택에서 쓸쓸하게 생을 마쳤다.

빠스쩨르나크의 말로는 조국과 인민의 버림을 받은 작가의 비참한 운명을 보여주고있다.

이전 쏘련과 서방사이에 대결을 불러일으킨 장편소설 《쥐바고의사》

장편소설 《쥐바고의사》는 이전 쏘련작가 빠스쩨르나크가 1957년에 서방에서 비법적으로 번역출판하게 하여 쏘련과 서방사이에 대결을 불러일으킨 작품이다.

1900년초부터 1929년까지의 시기를 시대적배경으로 한 이 작품은 모스크바의 백만장자의 아들 쥐바고의 비극적운명을 그리고있다.

백만장자의 집안에서 태여나 유년시절과 소년시절을 호화롭게 지낸 쥐바고는 가문이 령락하고 부모가 세상을 떠나면서 더는 그러한 생활을 할수 없게 된다. 의학대학을 졸업한 쥐바고는 제1차 세계대전시기에는 짜리군대 군의로, 1917년 2월혁명과 10월혁명의 복잡한 시기에는 적십자병원 의사로 있었다. 그는 처음 혁명에 긍정적인 태도를 취하였으나 집단적인 광기가 개인의 가치를 짓밟는데 의문을 느껴 점차 혁명을 회의적으로 대하게 된다. 먹고 살기 위해 우랄에 있는 처가켠 옛 령지로 피난갔던 쥐바고는 그곳에서 빨찌산부대의 군의로 강제동원되며 안해는 두 아이를 데리고 프랑스로 망명한다. 쥐바고는 2년째 되는 어느날 빨찌산부대에서 도망쳐 우랄의 유라찐시에 사는 애인 라라(전쟁때 간호원)의 집에 거처한다. 얼마후 그와도 갈라져 모스크바로 돌아간다. 다시 의사로 일하게 된 쥐바고는 이전 처가집 마당지기의 딸과 부부가 된다. 그러나 그는 1922년부터 1929년까지의 8년동안 아무런 기쁨도 희망도 없이 마지못해 살아가면서 혁명후 로씨야에 조성된 새 현실을 회의적으로 대한다. 그러던 어느날 그는 아침 출근길에서 심한 가슴아픔으로 하여 그만 숨지고만다.

소설의 주인공 쥐바고는 혁명에 의하여 숙청된 낡은 부르죠아지식인의 립장을 대변한 인물이며 조국과 인민, 사회와 집단의 운명보다 자기 일신의 안일과 향락에 대해서만 생각하는 개인리기주의자이다. 작가는 이러한 인물을 주인공으로 설정하고 그에게 련민과 동정을 보내면서 똑똑하고 재능있는 주인공을 불행하게 만들고 그에게 비극적운명을 강요한 사회주의를 의문시하고 부정하고있다.

작가는 주인공의 체험과 시점을 통하여 고의적으로 사회주의혁명과 그 결과에 실현된 사회주의현실의 《부정적측면》을 골라가면서 그것을 과장확대하여 묘사하였으며 사회주의를 인도주의와 인간성에 어긋나는 사상으로, 개인의 자유와 가치를 유린하는 사상으로 비난하였다.

작품이 당시 쏘련국내에서 출판금지당한것은 응당한 귀결이였다.

쏠제니찐은 왜 추방당하였는가?

쏠제니찐은 이전 쏘련시기에 공민권을 박탈당하고 국외로 추방된 다음 서방나라들에서 반쏘, 반사회주의활동을 벌려 악명을 떨친 작가이다.

쏠제니찐은 도대체 어떤 작가이기에 자기 조국에서 추방당하게 되였는가?

알렉싼드르 이싸예비치 쏠제니찐(1918—?)은 1941년 로스또브종합대학 물리수학부를 졸업하고 쏘도전쟁시기 쏘련군대에 복무하였으나 전쟁말기인 1945년에 정치범으로 체포되여 8년 징역형을 받고 교화 및 류형살이를 하였다.

그러던것이 흐루쑈브집권시기에 해제되여 중학교교원을 거쳐 작가가 되였으나 정치범수용소생활을 묘사한 반동적인 중편소설 《이완 제니쏘비치의 하루》를 문예잡지 《노브이 미르》(1962)에 발표하여 물의를 일으켰다.

그후 자기가 쓴 반쏘, 반사회주의적작품이 국내에서 발표금지되자 서방나라들에서 출판하여 반공선전수단으로 리용되게 하는 배신행위를 하였다.

이로 하여 쏠제니찐은 응당한 제재를 받고 1969년에 쏘련작가동맹에서 출맹당했으며 장편실화작품 《수용소군도》(전 3권, 1973—1976)를 외국에서 출판한것을 계기로 쏘련당국은 그의 공민권을 박탈하고 국외추방하는 단호한 조치를 취하였다.

서방은 이 반동작가를 비호하고 내세우기 위하여 1970년 그에게 노벨문학상을 수여하는 놀음을 벌렸다.

쏠제니찐은 자기 나라에서 추방된 후 서부도이췰란드, 스위스를 거쳐 미국에 영주하여 반사회주의적활동을 계속하였다. 그는 이 시기 장편소설 《암병동》(1968), 《련옥속에서》(1968), 《1914년 8월》(1971) 등 여러편의 반동작품들을 창작하였다.

그런데 개편시기 쏘련에서 쏠제니찐의 《명예회복》문제가 상정되였다.

당시 고르바쵸브대통령리사회 성원이였던 개혁파작가 라스뿌찐은 1986년 11월 일본방문시에 한 담화에서 쏠제니찐의 작품이 쏘련국내에서 공개되는것은 적어도 가까운 장래에는 있을수 없다고 언명하였다.

서방의 관평가들은 개편된 쏘련에서 정치에서의 마지막타부(금지령)가 뜨로쯔끼의 부활로써 없어졌다면 문학에서의 마지막타부는 쏠제니찐과 《수용소군도》일것이라고 떠들었다.

그렇지만 끝내 쏠제니찐은 《명예회복》되고 문제의 《수용소군도》가 잡지 《노브이 미르》 1989년 8—11호에 공개되였으며 1990년 12월 이 작품에 로련국가상이 수여되였다.

서방과 현대사회민주주의자들이 악명을 떨친 쏠제니찐과 그의 작품을 아무리 내세워도 반사회주의작가로서의 그의 정체는 가리우지 못할것이며 쏠제니찐과 같은 반동작가들은 력사의 준엄한 심판을 받고야말것이다.

사회주의에 대한 신념을 저버린 아이뜨마또브

끼르끼즈스딴 작가 친기즈 아이뜨마또브(1928—)는 이전 쏘련시기에 쏘련작가동맹중앙위원회 비서, 최고쏘베트 대의원, 쏘련사회주의로력영웅, 끼르끼즈스딴인민작가로 당과 정부의 크나큰 신임과 배려를 받은 인물이다.

그러나 그는 그후 변질되여 사회주의에 대한 신념을 저버리고 반사회주의작가로 전락되였다.

친기즈 아이뜨마또브는 1953년에 농업대학을 졸업하고 축산기사로 일하다가 직업적인 작가로 되였다. 대학에 다니던 시기인 1952년부터 끼르끼즈의 신문, 잡지들에 단편소설과 실화들을 발표하기 시작했던 아이뜨마또브는 1958년에 중편소설 《쟈밀랴》를 발표하면서 이름이 나기 시작하였다.

그의 초기작품들은 비교적 건전한것들이였다. 레닌상을 받은 중편소설집 《산과 들의 이야기》(1962)만 해도 그러하였다. 작가는 이 소설집에서 새 세계를 창조하는 인간, 새 사회제도가 낳은 인간의 정신세계를 다양하게 그리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소설집에 수록된 중편소설 《첫 교원》에서는 공민전쟁직후에 중앙아시아의 산간마을에 첫 학교를 세우고 마을아이들을 새 인간으로 키운 붉은군대출신 공청원의 형상을 창조하였으며 중편소설 《락타의 눈》에서는 처녀지개간자들인 주인공들사이에 벌어진 갈등을 통하여 새 제도가 낳은 새 세대 인간들의 정신세계를 펼쳐보이였다.

그러나 그후 수정주의사상에 오염된 아이뜨마또브의 창작에서는 점차 이색적인 반사회주의적경향이 눈에 띄게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그것은 작가가 중편소설들인 《굴싸리야, 잘가거라!》(1966), 《흰 기선》(1970), 《바다가를 달리는 얼룩수개》(1977)와 같은 작품들에서 현대의 사회륜리문제를 다룬다고 하면서 로동계급성을 부인하고 지난날 쏘련인민의 혁명력사를 먹칠하며 사회주의사회의 《부정면》을 폭로하려는 시도를 비친데서 나타났다.

아이뜨마또브의 이러한 이색적경향이 집중적으로 나타난것은 1983년에 쏘련국가상을 받은 장편소설 《하루는 한세기보다 길다》(1980)였으며 그것이 로골화된것이 개편시기에 창작한 장편소설 《단두대》(1986)였다.

아이뜨마또브는 고르바쵸브집권시기에 그의 눈에 들어 《대통령리사회》성원으로, 외국주재대사로까지 등용되였다.

그러나 아이뜨마또브는 신념이 투철하지 못한것으로 하여 인민의 버림을 받았다.

반사회주의적경향을 로골적으로 드러낸 장편소설 《하루는 한세기보다 길다》와 《단두대》

이전 쏘련시기에 아이뜨마또브가 내놓은 장편소설 《하루는 한세기보다 길다》(1980)와 《단두대》(1986)는 1980년대 쏘련문학계에서 반쏘, 반사회주의사상을 강하게 표현한 이색적인 작품이다.

《하루는 한세기보다 길다》는 중앙아시아(까자흐스판) 의 황막한 초원지대의 자그마한 철도대피역에서 일하는 철도로동자의 생활에서 있은 하루동안의 이야기를 펼쳐보인 작품이다.

소설의 이야기줄거리에서 주선을 이루는것은 이 역의 오랜 철도로동자 까잔가쁘로인이 외롭게 숨을 거두자 그의 친구 예지게이(주인공)가 장례를 치르며 30㎞나 되는 먼곳에 있는 나이만족의 세습적인 묘지에 고인을 안장하러 다녀오는 이야기이다.

소설에서는 주인공의 사색과 회상을 통하여 지난날 예지게이자신이 걸어온 생활의 길과 그의 가장 가까운 벗이였던 까잔가쁘의 사람됨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예지게이가 친숙하게 지냈던 교원 아부딸리쁘와 그의 가족들에 대한 이야기가 펼쳐진다. 이들은 모두 기구한 운명의 길을 걷고 막심한 피해를 입는다.

이러한 이야기를 통하여 작가는 지난날 쓰딸린이 령도하던 시기의 쏘련은 암흑시기였으며 사람들의 인권이 마구 짓밟힌 비인도주의적인 제도였다고 비난하였으며 나아가서 이 모든것의 장본인으로서 쓰딸린의 권위를 헐뜯었다.

장편소설 《단두대》에서는 그 당시 쏘련의 현실을 배경으로 하여 쏘련사회에 존재하는 사회악탓으로 수난의 길을 걷게 되는 사람과 짐승의 기구한 운명과 그들의 비극에 대하여 그리고 있다.

소설에는 세 주인공이 나오는데 그 하나인 암승냥이 아크바라와 그의 가족은 자연환경을 마구 파괴하는 인간들의 압박으로 하여 정든 보금자리를 잃고 방랑하다가 모두 망하고만다.

두번째 주인공인 종교광신자 아브지 깔리스뜨라또브청년은 범죄를 반대하는 도덕적투쟁의 길에 나섰다가 목숨을 잃으며 세번째 주인공인 꼴호즈방목장 책임자 보스똔은 《나쁜 사람들》때문에 참을수 없는 불행을 당하자 보복을 가하고 자결하고만다.

이 작품은 쏘련사회를 사회악으로 충만된 사회로 그리고있을뿐아니라 작가가 내세운 긍정적주인공들이 모두 비극적운명을 지니게 그려놓고 그 출로를 종교와 신에게서 찾고있다.

소설의 기본주인공 아브지는 부목사의 아들로서 그자신도 신학교에 다니다가 새로운 형태의 신을 찾는 이교의 길에 들어선것으로 하여 출학당한다.

그는 《우리들우에는 량심과 정의의 가장 고상한 계시인 신이 있다.》고 생각하는 구신주의(새로운 신을 찾는 주의)자이다.

아브지는 타락하기 시작한 청년들을 구원하는 도덕적투쟁에 나서는것을 자기의 사명으로 여기고 위험한 범죄자들의 소굴에 자진하여 들어갔다가 폭행을 당하고 나무에 결박된채 숨지고만다.

작품에서는 아브지의 비극에 대한 이야기를 옛날 예수가 고르고타언덕우에서 십자가에 못박힌 이야기와 결합시킴으로써 그를 현대의 예수, 구세주로 묘사하고있다.

이와 같이 아이뜨마또브의 장편소설 《하루는 한세기보다 길다》와 《단두대》는 사회주의적사실주의문학의 근본원리를 줴버린 반사회주의적작품으로서 소문을 냈다.

로씨야의 빨찌산처녀영웅 조야

조야는 로씨야사람들이 지금도 잊지 못해하는 제2차 세계대전시기 이전 쏘련의 빨찌산처녀영웅이다.

조야 아나똘리예브나 꼬스모제미얀스까야(1923—1941)는 땀보부주 오씨노븨예 가이마을 사무원가정에서 태여나 모스크바201중학교에서 공부하였다. 학과학습과 조직생활에서 언제나 모범적이였던 조야는 1938년 공청에 가맹하는 영예를 지니였다.

쏘련이 파쑈도이췰란드의 강도적인 무력침공을 당했을 때 조야는 졸업반인 중학교 10학년생

이였다. 적에 대한 불타는 적개심과 열렬한 조국애에 충만된 조야는 1941년 10월 쏘련군대입대를 탄원해나섰다.

적군이 모스크바교외에까지 침공해 들어오고 수도가 위험에 처했던 시기였던것만큼 공청조직은 조야를 비롯한 공청원들을 모스크바부근 빨찌산부대에 파견하였다.

조야가 소속된 공청원그루빠는 야밤에 전선을 넘어 적후에서 활동하고있던 빨찌산부대에 입대하였다.

1941년 11월말 조야는 모스크바주 웨레이구역 뻬뜨리쉐보마을에서 전투임무수행중 파쑈놈들에게 체포되였다.

적창고를 날려버리고 다음임무를 수행하려고 할 때 그만 적들에게 발각되였던것이다.

조야는 적들의 모진 고문과 악형을 받으면서도 마지막까지 굴하지 않았다.

파쑈도이췰란드강점군은 조야에게서 비밀을 알아내려고 그의 얼굴을 불로 지지고 잔등을 톱으로 켜는 등 상상조차 할수 없는 악착한 고문을 들이댔다.

그러나 조야는 놈들에게 조금도 굴하지 않고 비밀을 끝까지 지켜냈다. 그는 빨찌산부대의 위치와 동지들의 이름을 대지 않았을뿐아니라 자기 이름이 따냐라고 하면서 본명도 대지 않았다.

악에 받친 놈들은 1941년 11월 29일 조야를 교수대로 끌고가 마을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처형하였다.

이렇게 조야는 18살의 꽃다운 청춘을 조국에 바쳤다.

조야의 영웅적위훈은 파쑈도이췰란드침략자들을 반대하는 쏘련인민의 영웅적투쟁을 크게 고무하였다. 이러한 공로로 하여 조야는 1942년 쏘련영웅칭호를 수여받았다. 그해에 조야의 묘지를 위인들과 명인들이 안장되여있는 모스크바의 노보제비치예묘지에 옮겼다.

조야는 비록 애젊은 나이에 희생되였으나 그 영웅적위훈으로 하여 전설적인물로 되고 문학예술작품(영화, 연극, 미술) 의 주인공으로 형상되였으며 여러 도시의 거리들에 그의 이름이 명명되였다.

조야를 형상한 문학작품들가운데서 대표적인 것은 녀류시인 마르가리따 요씨포브나 알리게르의 장편서사시 《조야》(1942)이다.

실재한 인물인 조야 끄스모졔미얀스까야를 원형으로 하여 창작한 이 서사시에서 시인은 조야의 짧은 생애와 빛나는 위훈을 서정적으로 잘 시화하였으며 조야를 민족의 장한 딸로, 쏘베트애국주의의 귀감으로, 처녀영웅으로 칭송하였다.

서사시는 그것이 담고있는 사건의 비극성에도 불구하고 혁명적랑만과 락관주의가 차넘치는것으로 하여 특징적이다.

조야가 희생된 다음해에 창작되고 출판된 서사시는 전쟁의 포화속에서 쏘련군인들과 인민들, 청년들이 즐겨읊는 시로 되였으며 그들을 전쟁승리를 위한 투쟁에로 힘있게 고무하였다. 작품은 영화로 옮겨져 전국적으로 상영되였으며 대환영을 받았다.

조야와 같이 신념과 지조를 지키고 조국과 인민을 위해 목숨도 청춘도 아낌없이 바치는 사람들은 인민들의 사랑을 받으며 후세에 전해지는 법이다.

동 궁

1905년까지 로씨야황제들이 거처하던 겨울궁전. 로씨야의 싼크뜨-뻬쩨르부르그에 있다. 1754-1762년사이에 건설되였다.

궁전은 모두 1 000여개가 넘는 방으로 이루어진 매우 웅장한 건물이다. 건물의 구성에서 특징적인것은 단조로움을 피하고 미를 돋굴 목적으로 건물의 외부를 여러가지로 변화시키면서 정면과 어울리게 하였다. 이 동궁은 그 웅장한 규모와 아름다움으로 해서 이름이 높다.

녀황제 예까쩨리나2세는 선대황제들이 꾸려놓은 동궁도 모자라 그 주변에 정원과 궁전들을 확장하여 짓고 동서방의 많은 나라들에 특사들을 파견하여 명화들과 골동품들을 끌어들였다.

인민들은 극도로 헐벗고 굶주리는데 그들의 피와 땀을 짜내여 향락만을 추구하였으니 그에 대한 인민들의 원성은 날로 높아졌다. 뿌가쵸브농민전쟁과 같은 국내전쟁이 일어난것도 바로 이 시기이다.

로씨야로동계급과 병사들은 1917년 순양함 《아브로라》의 포성과 함께 동궁을 습격점령함으로써 사회주의10월혁명의 승리를 이룩하였다.

크레믈리

로씨야의 력사유적과 유물이 있는 모스크바시의 가장 오랜 성새. 크레믈리는 도시성새로 1156년에 처음으로 건설되였다. 1238년 몽골침략자들에 의해 불타버린 후 13세기말 나무대신 돌로 쌓아졌다. 크레믈리성벽의 연장길이는 2 250m이고 면적은 27.5ha이다. 성벽의 높이는 5～19m, 두터이는 3.5～6.5m이다. 성벽에는 모스크바를 상징하는 스빠쓰끼탑을 포함한 20개의 탑이 있는데 중요한 5개의 탑에는 질량이 1～1.5t, 크기가 3～3.5m의 보석별이 설치되여있다. 이밖에 탑에는 구멍이 있는 1 045개의 치가 있어 성벽의 위용을 돋구어주고있다. 성안에는 700개의 방을 가진 크레믈리대궁전을 비롯한 여러개의 궁전과 전통적인 로씨야건축술의 높은 조형예술적기교를 보여주는 많은 사원들이 있다. 성안에는 로씨야인민의 높은 수공예기술을 보여주는 국보적가치가 있는 유물들도 많다. 스빠쓰끼탑에 설치된 하나가 약 25t에 달하는 대형시계와 세계에서 가장 큰 짜리종(질량이 200t), 40t의 질량과 890mm의 대구경 짜리포 등이 있다.

이름있는 정치활동가들의 묘가 있으며 성벽으로부터 좀 떨어진 곳에는 레닌묘가 있다. 모스크바의 크레믈리는 로씨야인민이 긍지를 가지고 자랑하는 건축물이며 로씨야의 상징으로 되고있다.

작가의 망각증

어느날 저녁 창작에 열중하던 아나똘 프랑스는 나뽈레옹3세의 4촌누이 마띠엘공주가 자기를 저녁식사에 초대하였다는 생각이 문득 떠올랐다.

그는 서둘러 차비하고 공주의 집으로 달려갔다. 그런데 벌써 시간은 저녁 8시였다. 옹근 반시간이나 늦어졌던것이다. 자리에 앉으면서 그는 다른 사람들이 말을 하기 전에 주인과 좌중의 손님들에게 돌아가며 사죄의 뜻을 표시하였다.

그의 례절바르고 멋들어진 사죄의 말과 열정적인 태도는 모든 사람들을 감동시켰다. 그가 늦어진것은 모든 사람들의 량해를 받은듯 하였다.

저녁식사가 끝난 후 손님들은 응접실로 향하였다.

공주는 한 친구곁으로 다가가서 조용히 말했다.

《아나똘씨는 반시간 늦었다고 깊이 사죄하는데 사실은 자기가 한주일이나 먼저 왔다는것을 전혀 모르고있구나. 나는 그를 다음주 월요일에 초청했는데…》

싸르뜨르

프랑스작가 쟝 뽈 싸르뜨르(1905—1980)는 실존주의문학의 대표자의 한사람이며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져있는 작가이다.

그는 빠리에서 해군기술장교의 가정에서 태여났으나 두살때 아버지를 여의고 외할아버지의 집에서 자랐다. 1929년에 빠리고등사범학교 철학과를 졸업하고 1944년까지 지방과 빠리의 여러 고등학교들에서 철학교원으로 일하였으며 1930년대 후반기부터 문학창작활동을 시작하였다.

싸르뜨르는 초기작품인 장편소설《구토》(1938)와 단편소설 《벽》에서 박두한 전쟁의 위협앞에서 갈피를 못 잡던 부르죠아지식인들의 정신적혼란상태를 반영하였다. 이 작품들에서는 현대인의 위기의식, 불안의식을 반영한 실존주의문학의 경향성이 드러났다.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자 징병되여 전선에 나갔던 작가는 다음해 도이췰란드군에 포로되여 수용소생활을 하였으나 1년만에 탈출하여 빠리로 돌아와 반파쑈저항운동에 참가하였다.

전후 싸르뜨르는 1945년에 잡지 《레 땅 모데르느》(새시대)를 창간한데 이어 미완성장편소설《자유에로의 길 》(1945—1949), 희곡 《더러운 손 》(1948), 《악마와 하느님》(1951) 등의 작품들을 창작하였으며 그를 통하여 실존주의를 선전하였다.

《자유에로의 길》에서는 빠리의 고등학교 철학교원인 마찌우 드라류라는 지식인이 자유를 지켜내는 과정과 그와 련결된 여러 인물들이 실존적자유를 찾는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통하여 이른바 인간의 자유로운 선택에 의한 절대적자유를 설교하는 실존주의철학의 반동적견해를 담았다.

공산주의도 아니고 자본주의도 아닌 그 어떤 제3의 길을 표방하던 싸르뜨르는 1950년대에 와

서 제국주의자들의 격화되는 전쟁과 침략책동에 반감을 품고 1952년에 프랑스공산당에 입당하였으나 1956년에 탈당하였다.

그는 조선인민의 조국해방전쟁을 지지하는 국제반전, 평화옹호운동에 참가하고 웰남, 알제리인민들의 민족해방전쟁을 지지하였으며 프랑스정부의 식민주의정책을 반대하여나섰다. 그는 1953년에 세계평화리사회 리사로 선거되였다. 이로 하여 그동안 친교를 맺었던 까뮤로부터 절교당하고 극우익분자들의 습격을 당하기까지 하였다.

그러나 그 이후시기에 창작된 희곡 《네크라쏘브》(1955), 《아르또나의 유폐자》(1959), 《트로야의 녀자들》(1965)과 같은 작품들에서는 여전히 실존주의적경향이 나타났다.

그는 1964년에 노벨문학상을 받게 되였으나 거절하였다.

싸르뜨르의 작품들은 작가의 주관적의도가 어떻든지간에 썩어빠진 실존적자유에 대한 사상을 대중속에 퍼뜨림으로써 사람들이 조국과 인민의 운명은 아랑곳하지 않고 건전한 정치적신념이 없이 패륜패덕에 물젖어 되는대로 살아가도록 온갖 수단을 다하고있는 제국주의자들의 사상적도구로 되였다.

까 뮤

알베르 까뮤(1913－1960)는 프랑스실존주의문학의 대표자의 한사람이다.

그는 알제리의 몽도비에서 프랑스인로동자의 아들로 태여났으나 출생후 곧 아버지를 여의고 빈궁속에서 자라났으며 고학으로 오랑종합대학 철학부를 졸업하였다. 대학재학중인 1934년 공산당에 입당했다가 다음해 탈당하였으며 졸업후 여러가지 일에 종사한 다음 1938년에 신문기자가 되였다. 그가 소설과 희곡을 쓰기 시작한것은 이 시기부터이다.

1940년부터 빠리에서 살게 된 작가는 제2차세계대전시기 파쑈도이췰란드군대가 프랑스를 강점하자 저항운동에 참가하였다. 전후 신문 《꽁바(전투)》 책임주필로 있었으며 자동차사고로 사망하였다. 까뮤는 1957년노벨문학상 수상자이다.

그는 자기의 실존주의적미학견해를 서술한 론설 《시지포스의 신화》(1942)에서 무거운 돌을 산마루에 굴려올리는 영원한 형벌을 받고있는 그리스신화의 환상적인물 시지포스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이 인물의 모습이 곧 현대인의 모습이라고 하였다. 그러면서 무거운 돌을 겨우 산마루에 굴려올리면 또 굴려내려가고 굴려올리면 또 내려가군 하기때문에 아무리 애써봐야 끝이 없는 시지포스처럼 인간의 존재와 현실생활은 허무하고 아무런 의미도 없는것이라고 설교하였다.

까뮤는 자기의 이러한 견해를 대표작인 중편소설 《이방인》(1942)과 장편소설 《페스트》(1947)에서 구현하였다.

《이방인》에서는 모순된 세계에서 허무적으로 살아가다가 살인죄를 범하고 사형언도를 받은 퇴페적인 소부르죠아청년이 죽음과 직면해서야 비로소 행복을 느끼는 이야기가 벌어진다.

《페스트》는 1940년대 알제리의 오랑시에서 페스트가 발생하여 도시전체가 외부로부터 격리된 몇달동안의 페쇄된 사람들의 생활을 그린 작품이다. 여기서는 이 도시에서 방역사업을 하는 의사 류를 인간세계의 모순에 반항해나서는 인물로 설정하고 자기의 반항이 헛된 일이며 영원한 패배로 끝날것이라는것을 알면서도 싸우는 주인공의 성격을 부각시키고있다.

이 작품들은 자본주의사회의 모순에 대한 반항을 표방하고있으나 본질적으로는 인간의 존재와 현실생활 그자체가 무의미하기때문에 아무렇게나 살아갈수밖에 없다는 사상과 현실에 대한 극도의 비관주의적이며 염세주의적인 사상을 담고있으며 자본주의사회의 사회악은 영원히 없앨수 없기때문에 그와 투쟁하는것은 허무한 일이라고 설교하고있다.

까뮤는 이 작품들외에도 희곡 《오해》(1944), 《까리규라》(1945), 《계엄령》(1948), 《정의로운 사람들》(1949), 단편소설집 《추방, 왕국》(1957) 등을 썼다.

그 어떤 실존의 세계를 묘사한다는 명목밑에 멸망해가는 낡은 계급에게 고유한 병적심리상태를 마치도 인간의 본성인것처럼 외곡묘사한 까뮤의 창작은 극단한 허무주의와 개인리기주의, 염세주의와 비관주의사상을 고취함으로써 인민대중의 자주의식을 마비시키며 그들을 타락시키려고 악랄하게 책동하고있는 제국주의자들의 사상적도구로 되였다.

세계최초의 비행사작가

프랑스의 앙뜨왕 드 쌩－떽쥬뻬리(1900－1944)는 세계최초의 비행사작가로 널리 알려져있다. 그것은 그가 직업적작가가 아니라 비행사로 근무하면서 세계소설사에서 처음으로 비행사와 하늘을 소재로 한 작품을 창작하여 소설령역에서 새 경지를 개척하였기때문이다.

쌩－떽쥬뻬리는 프랑스의 지방도시 리옹에서 귀족의 후예로 태여나 미술학교에서 건축미술을 전공한 후 1920년 프랑스군대에 입대하여 스뜨라스부르의 비행대에 복무하였다. 이것이 그가 비행사작가로 자라나게 된 중요한 계기로 되였다.

제대후 그는 자동차공장을 비롯한 여러 직장에 다니면서 소설습작을 시작하였으며 1926년에 첫 단편소설 《비행사》를 잡지에 발표하였다.

그해 10월부터 민용항공비행사가 되여 다시 비행기를 타게 된 쌩－떽쥬뻬리는 줄곧 비행기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는 항공회사의 정기항로비행사, 사하라사막의 비행장주임, 아르헨띠나항공우편회사 개발부장, 장거리항공로의 시험비행사 등으로 있다가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자 프랑스공군에 복대하여 정찰비행기를 탔다.

프랑스가 파쑈도이췰란드군에 항복한데 항의하여 군대복무를 그만둔 쌩－떽쥬뻬리는 미국에 망명했다가 련합군의 대도이췰란드작전이 개시되자 알제리에 이동해있던 프랑스정찰비행대에 복대하였다.

그는 1944년 7월 꼬르스섬의 기지에서 출격했다가 지중해 상공에서 벌어졌던 공중전에서 격추당하여 전사하였다.

그가 창작한 작품들가운데는 《남방우편비행기》(1927), 《야간비행》(1931), 《인간의 대지》(1939), 《싸우는 조종사》(1942), 《성새》(미완성, 사망후 1948 출판) 등의 중편 및 장편소설들과 동화 《별의 왕자님》(1943)이 들어있다.

이 작품들은 거의다 비행사생활을 반영한 작품들이다.

특히 중편소설 《야간비행》은 지드의 감동적인 서문을 붙여 1931년에 발간되였는데 그해에 페미나상을 받았으며 비행사의 생활을 그린 소설가로서의 그의 명성을 높이는 하나의 계기로 되였다.

소설의 이야기줄거리는 다음과 같다.

비행사 파비앙이 조종하는 우편비행기가 부에노스 아이레스를 향하여 야간비행을 하고있다. 위험한 야간비행이 성공해야 갓 시작된 항공우편사업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수 있는것이다. 그런데 폭풍예고무전이 온다. 파비앙은 비행기가 폭풍우속에 들어갔다는것을 알게 된다. 기체가 심하게 요동한것이다. 비행장에서는 밤중에 지배인이하 항공회사성원전원이 비상소집되여 비행기의 도착을 안타깝게 기다린다. 파비앙의 집에서는 젊은 안해가 남편을 걱정하고있다. 파비앙은 필사적으로 노력한 끝에 높이 상승하여 비구름우에 올라서는데 성공한다. 그는 하늘의 총총한 별무리를 보게 된다. 그런데 이제 30분이면 연료가 떨어질것이였다. 그 시간으로는 비행장도착이 불가능하였다. 마지막무전이 지상에 전해진다. 비행장에서는 단념하고 나머지 2대의 비행기로 날라온 우편물만 싣고 유럽으로 가는 우편비행기를 떠나보낸다.

작품은 작가의 직접적인 체험에 기초하여 항공우편초창기에 위험한 야간비행에 종사하는 비행사들과 관계부문 일군들의 군상을 생동하게 그려보임으로써 그들의 용감성과 자기희생성, 헌신성을 찬양하였다.

《누보 로망》

20세기 50－60년대에 프랑스를 비롯한 부르죠아문학계에 퍼진 모더니즘소설문학류파. 처음에는 《앙띠 로망》(반소설)으로 불리우다가 후에 《누보 로망》(새 소설)이라는 명칭으로 고착되였다.

이 류파는 소설을 위기에서 구원하고 소설혁명을 한다는 요란한 선언을 들고 1950년대중엽에 프랑스의 부르죠아문단에서 먼저 대두하였다. 《누보 로망》이라는 표현은 이 류파의 작가들이 어떠한 계급적립장에도 서지 않고 현실을 관찰하며 그것을 표현할수 있는 새형식을 찾아낸다고 하면서 사실주의소설을 반대해나선데서 나온것이다.

이 류파의 대표자인 알렝 로브 그리에, 나딸리

쌀로뜨 등의 작가들은 1956—1957년에 자기들의 선언과 강령을 밝힌 평론들을 발표하고 프랑스에서 당시까지 내려온 전통적인 사실주의 장편소설은 이미 자기 시대를 다 살았으며 발자끄의 《고리오령감》과 같은 소설은 이젠 그 의의를 상실하였다고 하면서 바로 자기들, 전위문학의 대표자들이 소설발전의 새로운 길을 개척하고있는듯이 표방해나섰다.

이자들은 자기들의 주장을 《미래의 소설의 길》(1956, 알렝 로브 그리에), 《의혹의 시대》(1956, 나딸리 쌀로뜨) 등의 평론들에서 정식화하였을뿐아니라 그것을 창작실천에 구현하여 일련의 《누보 로망》작품들을 만들어냈다. 알렝 로브 그리에의 《지우개》(1953)와 《질투》(1957), 나딸리 쌀로뜨의 《하늘비침틀(플라네타리움)》(1959)과 《황금과일》(1963), 미쉘 뷰또르의 《미라노거리》(1954)와 《마음의 변화》(1957), 끌로드 씨몽의 《플랑도르에로의 길》(1961) 등은 대표적인 소설들이다.

《누보 로망》은 새것이나 특별한 점도 없는 퇴페주의문학류파로서 20세기 초엽이후 유미부르죠아반동소설분야에 퍼졌던 《의식의 흐름》의 변종에 지나지 않는다.

《누보 로망》의 특징과 반동성의 하나는 사물의 탄탄하고 뚜렷한 표면만 조용히 묘사한다고 하면서 작가가 현실을 분석평가하고 일반화하는것을 거부하고 저들의 시야안에 들어오는 대상이나 표상을 갖은 형식과 기교를 다하여 그대로 기록하고 늘어놓은것이다. 또한 문학작품에서 현실반영의 기본수단의 하나인 등장인물의 성격창조를 거부하고 뚜렷한 주제와 사상, 구성과 이야기줄거리가 없는 잡꼬대와 같은 작품을 만들어낸것이다. 이와 함께 인간의 복잡한 심리세계의 움직임을 추구한다는 구실밑에 사회생활과 동떨어진 개인의 병적이며 기형적인 심리를 인위적으로 과장확대하여 보여주는것이다.

《누보 로망》은 앞날에 대한 전망을 잃은 부르죠아지의 정치도덕적파산의 산물로서 그 해독성은 사람들의 건전한 정신세계를 좀먹고 인민대중의 혁명의식을 마비시키며 제국주의자들의 반인민적이며 침략적인 본질을 가리우는데 있다.

《누보 로망》은 그 내용의 반동성과 형식의 반사실주의적성격으로 하여 그것이 류포되자 퇴페적인 부르죠아독자들의 흥미거리로 되였을뿐 진보적인 작가들과 광범한 인민대중으로부터는 규탄을 받았다.

도적이 주인공으로 되여있는 추리소설

프랑스작가 모리스 르블랑(1864—1941)은 비상한 도적 아르쎈 루빵을 주인공으로 한 추리소설을 써낸 후 대단한 인기를 끌었다.

여기서 힘을 얻은 작가는 《강도신사 아르쎈 루빵》(1907), 《아르쎈 루빵 대 샬로크 홈즈》(1908), 《이상한 바위섬》(1909) 등 루빵을 주인공으로 한 탐정소설들을 련이어 써내여 더욱 명성을 떨치게 되였다.

그의 추리소설들은 세계 각국에 널리 번역소개되여 독자들의 사랑을 받았으며 어떤 나라에서는 《루빵전집》을 출판하기까지 하였다.

르블랑의 추리소설들은 종래의 추리소설과는 전혀 다른 성격을 띠고있다.

르블랑이전의 추리소설들은 대체로 어떤 범죄사건을 내놓고 추리와 론리적판단의 힘으로 그 수수께끼를 풀어나가는것이 보통형식이였다. 실례로 세계에서 처음으로 추리에 의하여 사건의 수수께끼를 풀어나가는 문학형식을 창조한 미국작가 포우나 추리소설을 문학형식으로 완성한 영국작가 코넌 도일의 주인공들은 례외없이 범죄의 실머리를 풀어나가는 비상한 추리력과 뛰여난 기지로 하여 독자들에게 잘 알려져있다. 그러나 르블랑의 추리소설에는 거꾸로 도적이 주인공으로 등장하여 탐정의 추리를 앞질러나감으로써 지략에서나 인간적측면에서나 경찰이나 탐정, 당국자들보다 월등하게 웃자리에 서게 하였다. 말하자면 강도신사 루빵을 만들어놓고 도적을 잡는 추리소설이 아니라 도적이 판을 치는 추리소설을 썼다.

이런 점에서 르블랑의 추리소설은 종래의 추리소설을 뒤집어놓은것이라고 말할수 있다.

실례로 《아르쎈 루빵 대 샬로크 홈즈》에서는 값비싼 금강석반지를 훔친 루빵과 그것을 찾으려는 샬로크 홈즈와의 대결이 줄거리로 되여있다. 그런데 루빵의 비상한 재주와 정정당당한 행동앞에 프랑스경시 가니만은 물론 홈즈까지도 언제나

피동에 빠진다. 마지막대결장면에서 루뺑이 애인을 위기에서 건지기 위하여 그 녀자를 체포하지 않는다는 조건부로 훔쳤던 금강석반지를 홈즈에게 내주고 홈즈는 그 조건을 수락한 후 범인체포를 단념하고 돌아간다. 그리고 루뺑은 경찰의 포위속에서 유유히 사라진다.(여기에 나오는 홈즈는 코넌 도일의 홈즈가 아니다.)

르블랑의 추리소설에 등장하는 루뺑은 귀신같이 나타났다가 귀신같이 사라지는 행동과 뛰여난 변장술 그리고 하나를 보고 열을 알아내는 날카로운 관찰력과 슬기로운 지혜, 뛰여난 추리력과 판단력을 가진 도적이다.

그러나 르블랑은 자기 작품에서 도적을 주인공으로 설정하고 이야기를 아슬아슬하게 엮어 흥미를 자아내는데만 골몰하였기때문에 그의 작품을 읽으면 안팎이 뒤바뀐듯 한 인상을 받는다. 부정인물인 도적이 주인공으로 되여있는 르블랑의 추리소설은 교양적의의를 도외시한 흥미본위적인 작품이다.

쇼와 《죽음의 상인》

《죽음의 상인》이란 말은 프랑스어로는 《대포상인》이라는 뜻이다. 즉 《대포를 파는 상인》이라는 뜻이다.

죽음의 상인은 무기를 대량생산하여 그 특수한 상품을 팔아 막대한 리윤을 얻어낸다. 리윤, 이것이 그들의 신조이다. 전쟁은 이 리윤을 얻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

어느 편이 이기건지건 승패는 그들에게 문제로 되지 않는다. 그러니 그들에게는 적아간의 구분조차도 없다.

쇼는 이러한 죽음의 상인의 속성을 희곡《바바라소좌》(1905)의 주인공 바바라의 아버지 언더샤프트의 형상을 통하여 풍자적으로 보여주었다.

언더샤프트는 자본가라기보다 전쟁상인이라고 해야 할 독점체의 대표자이며 무기제조업자이다.

그의 신조는 다음과 같은 말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맞춤한 대가를 치르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가 누구라 할지라도 개의치 않는다. 주의주장에 관계없이 무기를 판다. 귀족이건 공화주의자이건 허무주의자이건 자본가이건 사회주의자이건 강도이건 경관이건 백인이건 흑인이건 황색인이건 어떤 종류, 어떤 사정에 관계없이, 모든 민주, 모든 신조, 모든 만행, 모든 대의명분, 모든 극악무도한짓도, 그 무엇에 대해서건 적당한 값만 받을수 있다면 무기를 파는것이다.》

이 말은 말그대로 《애국자》이며 동시에 《애국자》가 아니라는 이률배반을 아주 교묘하게 나타내고있다.

이 모순을 해결하는 계기는 두말할것없이 리윤인것이다.

기아의 근원

버너드 쇼는 키가 크고 비교적 몸이 여위고 약하였다.

한번은 몸이 비대한 자본가가 성대한 연회석상에서 웃으며 그에게 《당신을 보면 지금 마치도 영국사람들이 모두 기아에 허덕이고있는것 같구만요!》라고 넌지시 떠보았다.

쇼는 그가 딴 생각할 여유를 주지 않고 그 즉석에서 《그렇습니까! 나는 당신을 보기만 해도 영국사람들의 기아의 근원을 제꺽 알수 있구만요.》라고 야유하였다.

연회에 참가한 모든 사람들의 폭소가 터지는 가운데 그 뚱뚱보자본가는 눈 흰자위까지 빨개져 황망히 뺑소니치고말았다고 한다.

녀류탐정소설가 아가타 크리스티

아가타 크리스티(1890—1976)는 《현대의 코넌 도일》로 불리운 영국의 이름난 녀류탐정소설가이다. 크리스티의 이름은 탐정소설의 대명사로 되였으며 그의 탐정소설은 성서와 쉐익스피어 다음가는 많은 독자들을 획득하였다고 한다.

그의 본명은 아가타 밀러이다.

중산층가정에서 자라나 1914년 륙군장교 아치볼드 크리스티와 결혼한 후부터 크리스티라는 성을 쓰게 되였다.

간호원으로 일하면서 처녀작 《스타일즈별장의 괴이한 사건》(1920)을 발표한 후 탐정소설가로 등장하였다.

1926년 결혼생활의 파탄으로 이어진 실종사건으로 그는 사람들의 화제거리가 되였다. 그해에 발표한 《아크로이드살인사건》이 가장 많

이 팔림으로써 널리 알려지게 되였다.

1930년 고고학자 막스 말로완과 재혼한 후 정열적인 창작활동을 벌려 영국탐정소설작가들가운데서 1인자로 되였다.

그의 탐정소설은 간결하고 알기 쉬운 문장과 교묘한 구성으로 특징적이다.

그의 작품들은 세계의 103개 언어로 번역되였다고 한다.

주요작품으로 우에서 든 소설외에 《비밀기관》(1922), 《목사관살인사건》(1930), 《골프장에서 일어난 사건》(1933), 《푸른색렬차》(1938), 《10명의 흑인소년》(1949) 등이 있다.

그는 극대본도 썼는데 《쥐덫》은 세계에서 가장 긴 련속극으로서 1988년말까지 총 1만 5 000회에 걸쳐 공연되였으며 관람자수는 무려 750만명에 달했다고 한다.

영국의 이름난 추리소설가 코넌 도일

코넌 도일(1859—1930)은 사설탐정 샬로크 홈즈를 주인공으로 한 소설을 련속 써내여 추리소설을 하나의 문학형식으로 완성한 작가이다. 사람들속에서는 챠플린이 희극명배우의 상징으로 통하였고 샬로크 홈즈는 명탐정의 상징으로 통하였다.

도일은 원래 직업적인 안과전문의사였다.

스코틀랜드의 수도 에딘버러에서 태여난 코넌 도일은 자기 고향에서 의학대학을 졸업하고 의학박사학위까지 받았다. 그후 런던에 가서 개인병원을 차려놓고 환자를 치료하는 일을 하였다.

그러면 이런 사람이 어떻게 되여 유명한 추리소설가로 되였는가.

그것은 도일이 어려서부터 사물에 대한 세심한 관찰력을 가지고 추리소설을 많이 탐독한것과 관련되여있다.

도일은 미국작가 포우, 프랑스작가 가브리오의 소설을 즐겨 읽었다. 특히 그는 《모르그거리의 살인사건》을 비롯한 포우의 소설에 등장하는 탐정 듀팡의 형상에 얼마나 심취되였던지 자신도 그런 작품을 창작하리라 속다짐하였다고 한다.

코넌 도일이 추리소설가로 된데는 또한 그의 스승이였던 의학박사 죠세프 벨의 영향을 받았기때문이다.

죠세프 벨은 환자의 외형을 보고도 그의 성격과 직업적특성을 추리해내고 정확히 진단하였다. 도일은 그로부터 론리학을 비롯한 다방면적인 지식을 습득하고 추리와 관찰능력을 배웠다.

이렇게 되여 도일은 추리소설을 창작하는 길에 들어섰다.

그의 소설들에는 홈즈와 함께 와트슨이라는 의학박사가 등장하여 그의 충실한 방조자로 활약한다. 그는 홈즈의 뛰여난 재능과 노력을 글로 써서 세상에 전하는 인물로 형상되여있다.

코넌 도일이 추리소설가로 세상에 이름이 널리 전해지기 시작한것은 1891년에 《스트랜드》라는 잡지에 홈즈를 주인공으로 하는 단편소설을 련재한 다음부터이다.

작가는 홈즈의 이야기를 《최후의 사건》이라는 단편소설로써 일단락 지으려고 했다. 이 소설에 의하면 홈즈는 범죄의 세계에서 자신을 나뽈레옹이라고 자처하는 위험한 적수와 스위스의 알프스산꼭대기에서 1 대 1로 싸우다가 악당과 함께 절벽에서 떨어져 죽는것으로 되여있다.

이 소설이 발표된 다음날이였다. 격분한 시위군중은 샬로크 홈즈를 죽인 작가에게 《코넌 도일은 살인자이다. 홈즈를 당장 살려내라!》고 웨치면서 팔에 검은 띠를 두르고 온 런던시를 누볐다고 한다.

지어는 빅토리아녀왕까지 이 사건에 개입하였다. 그는 홈즈가 절벽에서 떨어진것은 악당을 소멸하기 위한 하나의 기발한 수법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면서 홈즈의 죽음을 믿으려고 하지 않았다.

이렇게 홈즈를 죽여서는 안된다는 여론이 제기되자 작가는 《빈집사건》을 내놓아 홈즈에 대한 소설을 계속 써냈다.

샬로크 홈즈는 오늘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영화로 각색된 주인공으로 알려지게 되였다. 그것은 1900년부터 1980년사이에 무려 61명의 배우가 홈즈의 역을 맡아 175편의 영화에 출연한 사실만 가지고도 잘 알수 있다.

1980년에 어떤 나라에서는 《샬로크 홈즈와 와트슨박사의 모험》이라는 TV련속극까지 만들어 방영하였다.

《바스커 빌의 개》

코넌 도일이 1901년에 내놓은 장편추리소설.

500년동안 내려오는 한 가문의 재산상속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살인사건을 해명하는 이야기를 담고있다.

소설의 사건은 바스커 빌집안에서 일어난 찰즈경의 돌발적인 죽음으로부터 시작된다. 얼마전부터 건강이 좋지 않던 찰즈경은 자기 동생의 아들인 헨리에게 이 가문의 재산을 양도한다는 증서를 남기고 런던으로 떠나던 찰나에 살해당했던것이다.

이어 찰즈경의 재산을 상속받게 된 헨리경이 카나다로부터 런던에 도착하여 어느 한 려관에 류숙하게 되였다. 이때 헨리앞으로 정체불명의 편지가 날아드는가 하면 구두 한짝을 도난당하기도 하고 어느 한 괴한이 그의 뒤를 미행하는 등 복잡한 사건이 련이어 벌어진다.

샬로크 홈즈는 찰즈경의 재산을 상속받게 된 헨리경이 신발을 도적맞힌 보잘것없는 사건에서 단서를 잡고 살인사건에 개가 관계하고있다는것을 추리해내였다. 한편 바스커 빌 집근처에는 곤충학자 스테블튼이 살고있었는데 홈즈는 바스커 빌가문의 선조들의 초상화를 하나하나 유심히 보다가 그중 하나가 스테블튼과 모색이 꼭 같다는것을 알아낸다.

이로부터 홈즈는 이 스테블튼이 바스커 빌가문의 한사람으로서 변성명하고 이 집재산을 노리는 범죄행위를 꾸민다는것을 낱낱이 밝혀낸다. 스테블튼은 사나운 개를 악마처럼 길들여서 밤중에 찰즈경에게 풀어놓아 그가 심장발작을 일으켜 죽게 하고는 이 가문의 전재산을 자기가 가로채기 위하여 재산을 상속받게 된 헨리마저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였던것이다. 극악한 범죄자 스테블튼은 개의 눈과 입언저리에 류황을 칠하여 밤중에 눈과 입에서 불을 뿜게 만들고 헨리경의 신발을 냄새맡게 한 다음 그마저 죽이려다가 홈즈의 지략에 의하여 여지없이 실패하고만다.

이처럼 소설에서 샬로크 홈즈는 하나의 실머리를 단서로 산발적인 매개의 요소들을 하나로 련결시키고 사실에 립각하여 범인을 밝혀내는 재치있는 탐정가로 형상되여있다.

몸

20세기 영국의 이름난 소설가, 극작가의 한사람이다.

윌리엄 싸머씨트 몸(1874－1965)은 아버지가 프랑스주재 영국대사의 고문변호사로 있었기에 빠리에서 태여나 어릴 때부터 프랑스말과 프랑스문화에 친숙해졌다. 8살에 어머니를, 10살에 아버지를 잃고 고아가 되였으므로 영국에서 목사로 있던 숙부의 집에서 고독하고 불행하게 소년시절을 보냈다. 18살에 런던의 병원부속의학교에 입학하고 23살에 졸업하여 의사자격을 받았으나 뜻을 바꾸어 작가생활에 들어섰다. 의사공부를 할 때 학교부근의 빈민거리의 환자들과 접촉하는 과정에 받은 체험이 그가 작가로 되는데 도움을 주었다고 한다.

그가 작가로 될 결심을 하게 된것은 졸업반때 빈민거리의 처녀를 주인공으로 한 처녀작 장편소설 《람베스의 라이자》(1897)를 발표한것이 호평을 받았기때문이였다.

몸이 쓴 소설과 희곡은 한동안 성공하지 못했으나 1907년경부터 희곡이 런던에서 성공하여 사교계출입을 하게 되였다. 특히 1915년에 장편소설 《인간의 기반》을 발표하고 작가로서의 지위를 확립하였다.

그러나 1914년에 제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자 군대에 자원입대하여 정보부의 비밀요원으로 복무하였다.

제1차 세계대전후는 몸의 창작활동의 전성기였다. 《지위가 높은 사람들》(1917), 《돌아보기》(1921) 등은 전통적인 풍습희극계렬의 풍자희곡으로서 호평을 받았다. 장편소설에서도 《달과 6펜스》(1919), 《과자와 맥주》(1930), 《면도날》(1944), 《카탈리나》(1947) 등 작품들을 련속 발표하였다. 단편소설의 명수이기도 했던 몸은 《비》, 《빨간 머리》 등을 포함한 단편소설집《나무잎의 설레임》(1921)을 비롯하여 100여편의 단편소설을 내놓았다.

그는 《요약한다면》(1938), 《작가수첩》(1949) 등의 수필집과 《세계의 10대소설》(1948)과 같은 평론도 발표하였다.

몸의 대표작은 《인간의 기반》과 《달과 6펜스》이다. 《인간의 기반》은 한 평범한 사람

의 반생을 묘사하면서 인생의 교훈을 찾은 자서전적인 작품이며 《달과 6펜스》는 인상주의화가 고갱의 생활에서 취재하여 주인공의 인간적고민을 그린 작품이다.

몸의 창작은 기본적으로 비판적사실주의계렬에 속하나 자연주의적요소를 적지 않게 드러내고있다. 그러나 풍속묘사를 현실에 대한 폭넓은 묘사, 섬세한 심리묘사와 결합하고 자본주의사회현실에 대한 비판을 담고있으며 문체의 평이성과 단순성, 듣기 좋은 어감으로 특징지어지는 몸의 작품들은 20세기 영국비판적사실주의문학의 발전에 영향을 주었으며 세계의 광범한 독자들속에서 애독되였다.

《피터 팬》

영국작가 쩸즈 매슈 배리(1860—1937)가 1911년에 창작한 동화. 원제목: 《피터와 웬디》, 작가가 1904년에 쓴 아동극 《피터 팬》을 소설로 옮긴것이다.

작품은 런던의 캔씽톤공원에 있는 요정들의 나라에서 사는 사내아이 피터 팬의 환상적인 형상을 통하여 아이들의 동심세계를 시적으로 펼쳐보이고있다.

주인공 피터 팬은 세상에 태여나서 7일째 되는 날에 창문을 넘어 집에서 달아나 요정들의 나라에 들어갔기때문에 영원히 어른으로 될수 없는 요정과 같은 아이이다.

이야기는 그가 어느 한 집의 어린이방으로 날아들어가 녀자아이 웬디와 그의 남동생 죤과 마이켈의 몸에 요정의 가루를 뿌려 함께 옛말의 나라로 날아가는데로부터 시작된다. 그곳에는 지하의 집에 6명의 남자아이와 꼬마요정 틴카 벨이 피터와 함께 살고있다. 피터는 웬디를 자기들의 어머니로 삼는다.

그 나라에는 해적과 인디안들, 큰 악어가 있었는데 피터와의 격투에서 한팔을 잃은 후크선장은 복수의 기회를 노리고있으며 그의 한팔을 삼키고 그 맛을 잊지 못한 큰 악어는 선장을 쫓아다니였다.

어느날 웬디는 자기 집이 그리워져 6명의 남자아이들까지 데리고 집으로 돌아가게 된다. 그런데 도중에 해적들에게 붙잡힌다. 이것을 알게 된 피터는 해적들과 격투를 벌려 아이들을 구원해낸다.

집으로 돌아온 웬디가 피터에게 자기 집에 남을것을 권고하자 그는 어른이 되기 싫다고 요정들의 나라로 돌아가버린다.

이 동화가 세계적으로 유명해진것은 작가가 창조한 피터 팬의 독특한 성격형상과 관련되여있다.

동화의 주인공 피터 팬은 어린이들의 동심세계와 꿈의 상징이며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이 자리잡고있는 동심을 구현하고있다.

작품에서는 동화적환상을 자유분방하게 구사하여 어린이들만이 가질수 있는 천진란만하고 무사태평한 성격과 꿈나라에 대한 동경, 풍부한 공상의 세계를 아이들의 년령심리적특성과 감정에 맞게 생동하고 재미있게 그리고있다.

기지와 해학이 담긴 옛말의 세계에 대한 묘사가운데는 작가의 예리한 관찰력과 인간심리에 대한 깊은 통찰력을 엿보게 하는 대목들도 있다.

작품은 개성적인 환상적형상을 창조한것으로 하여 세계적으로 많이 읽히는 동화작품의 하나로 되였다.(오늘 영국의 수도 런던의 캔씽톤공원에는 피터 팬의 전신조각상이 세워져있다.)

오늘의 영국문학을 대표하는 작가로 알려져있는 그레암 그린

그레암 그린(1904—1991)은 20세기 영국소설가들가운데서 세계적으로 가장 널리 알려져있는 작가의 한사람이다.

런던에서 중학교 교장의 아들로 태여나 중산층가정에서 자라났다. 옥스퍼드대학졸업후 카톨릭교도로 되였다. 1926년부터 신문 《타임즈》 기자, 주간잡지의 영화평론가, 출판사고문 등으로 출판보도부문에서 일하면서 작가활동을 시작하였다.

제2차 세계대전때에는 정보국에 근무하였다. 자주 해외려행을 다녔으며 1930년대초에는 미국을 려행하고 메히꼬에서 한동안 살았는가 하면 1941—1943년에는 서아프리카와 웰남에 체류하였다. 1950—1960년대에 이전 쏘련도 여러번 방문하였다.

그레암 그린은 1950년대초까지만 하더라도 자

기의 작품들에서 현대부르죠아사회의 모순을 일정하게 반영하면서도 뚜렷한 비판적립장을 취하지 못하고 카톨릭교에 대한 신앙과 종교적신비주의에서 그 피난처를 찾았다. 그가 카톨릭작가로 불리운것은 이와 관련되여있다.

그의 대표작으로 알려져있는 장편소설 《권력과 영광》(1940), 《사건의 핵심》(1948), 《련애놀음의 결말》(1951) 등은 다 이 시기에 나온 작품이다. 《권력과 영광》은 메히꼬혁명시기 심한 종교탄압속에서도 포교활동을 계속한 카톨릭교사제에 대한 이야기이다.

그러나 1950년대 중엽부터 그의 창작에서는 변화가 일어나 신비주의적색채가 사라지고 그대신 식민주의에 대한 비판과 피압박인민들에 대한 동정을 나타내기 시작하였다. 미제의 침략성을 폭로한 《온순한 미국인》(1958), 군국주의와 파쑈독재를 비판한 《아바나에 사는 우리 사람》, 《위선자들》(1966) 등의 장편소설들을 그 례로 들수 있다. 그밖에도 《명예령사》(1973), 《휴먼팍터》(1978)를 비롯하여 여러편의 장편소설들을 썼다.

《온순한 미국인》은 1950년대초에 남부윁남에 주재하는 영국기자인 주인공과 미국경제원조사절단의 탈을 쓰고 이곳에 기여든 미국인사이의 개인적 및 사상적갈등을 그린 작품이다. 이 미국인을 점잖은 사람으로 잘못 알고 그와 친교를 맺았던 주인공은 미제의 침략전쟁의 대변인인 《온순한 미국인》의 《깨끗한 손》으로 조작된 범죄행위의 목격자가 되면서 더는 참을수 없어 빨찌산과 련계를 취하여 그자를 처단하는데 협력한다. 이를 통하여 작품은 미제에 대해서는 그 어떤 환상도 가지지 말아야 한다는 교훈을 주고있다.

소설은 반미경향을 강하게 나타낸 작품으로서 영국비판적사실주의문학에서 뚜렷한 자리를 차지하고있다.

그레암 그린의 창작은 자본주의사회의 부패성을 륜리도덕적인 면에서 비판하는데서 더 벗어나지 못한 제한성을 가지고있으나 영국뿐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를 무대로 하여 현대부르죠아사회의 사회악을 재치있는 사실주의적필치로 파헤친것으로 하여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지고있다.

성난 젊은이파

1950—1960년대에 영국에서 류포된 문학류파. 원명은 《앙그리 양 맨》이며 분노한 청년파로도 번역되고있다.

이 파의 명칭은 당시 이름없던 작가 죤 오스번(1929—)의 희곡《성난 얼굴로 뒤돌아보라》가 1956년에 런던의 극장무대에서 공연되여 크게 성공하면서 유래된것이다. 그후 이 작가와 비슷한 경향의 신진작가들을 가리켜 성난 젊은이파로 부르게 되였다.

이 파의 주요성원들은 극작가 오스번외에 소설가로서 장편소설 《럭키 짐》(1954)을 쓴 킹즐리 에이미스(1922—), 장편소설《빨리 내려오라》(1953)를 쓴 죤 웨인(1925—), 장편소설 《상층사회에 끼여들어》(1957)를 쓴 죤 브레인(1922—1986), 평론가로서 평론 《아우트싸이더》(1956)를쓴앵거스윌슨(1913—?) 등이다.

그들은 주로 중산층출신의 작가들로서 영국정부의 《복지국가》정책에 대한 불만과 부유한 상층사회의 위선에 대한 증오심을 문학적으로 표현하려고 하였다. 대표작인 희곡 《성난 얼굴로 뒤돌아보라》에서는 주위현실에 성을 내고 그를 비판하면서도 사회개조를 위한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으며 실망과 고민을 안고 갈림길에서 모대기는 소부르죠아지식인청년의 정신상태를 형상하였다.

성난 젊은이파의 창작은 개혁을 부르짖으면서도 사회적병집의 근본원인과 그 해결방도를 알지 못하고 비관과 실망에 빠짐으로써 결국 현실을 도피한 소부르죠아문학조류에 물젖고말았으며 1960년대에 자기의 존재를 마쳤다.

이 파 출신의 작가들가운데서 그 이후까지 이름을 날린것은 녀류작가 아이리스 머도크(1919—?)이다. 그는 《종》(1958), 《바다여, 바다》(1978)를 비롯하여 1953년이후 30여년동안에 26편의 장편소설들을 발표하여 1950년대이후 영국작가들가운데서 가장 재능있는 사람의 하나로 알려졌다.

릴 케

라이네르 마리아 릴케(1875—1926)는 오스트리아의 저명한 시인이다.

당시 도이췰란드에 소속되여있던 쁘라하에서 철도관리의 아들로 태여나 청소년시절을 그곳에서 보내고 베를린, 빠리(1902—1910), 스위스(제1차 세계대전후) 등 여러 나라들에서 살았다. 그는 군사학교(1891)를 졸업하고 쁘라하, 뮨헨, 베를린의 대학에서 교육받았다. 1899년과 1906년에 로씨야를 방문하고 레브 똘스또이를 만나 그로부터 영향을 받았으며 빠리에 있을 때 조각가 로당의 서기로 있으면서 그의 영향도 받았다.

시창작은 1894년부터 시작하여 처음에는 하이네를 모방하다가 곧 독자적인 경지를 개척하여 1900년대초에 널리 알려졌다.

그의 시들은 초기에 사회적문제에 대한 관심을 보여주었으나 점차 범신론적립장에 선 사랑과 죽음, 고독과 불안을 주되는 문제로 삼게 되였다. 그 시풍에서는 초기에 몽상적이며 랑만적인 신랑만주의적경향을 보여주었다면 후기에는 상징주의적경향을 심하게 나타내는 등 일관하지 않았으나 감수성이 민감하고 시어의 기교에서 두드러진 특징을 보여주었다.

주요작품으로 《형상에 대한 책》(1902), 《기도시간》(1905), 《신시집》(1907—1908), 《두이네의 애가》(1923), 《오르페우스에 대한 쏘네트》(1923) 등의 시집들이 있다.

카프카

프란쯔 카프카(1883—1924)는 세계적으로 알려져있는 오스트리아작가이다. 그는 주로 도이취어를 썼다.

쁘라하(당시 오스트리아—마쟈르제국소속)의 부유한 유태인상인가정에서 태여나 도이췰란드계 고등학교를 거쳐 쁘라하종합대학 법학부를 졸업하고 로동재해보험국 사무원으로 일하였으며(1908—1922) 페결핵에 걸려 윈교외의 료양소에서 41살에 사망하였다.

대학시절에 단편소설창작을 시작한 카프카는 보험국에서 일하면서 하루일이 끝난 밤시간을 리용하여 작품을 썼다. 그가 살아있을 때에는 《변신》(1916), 《사형선고》(1916), 《시골의사》(1919), 《류형지에서》(1919), 《단식자》(1923)를 비롯한 일련의 단편 및 중편소설들이 발표되였을뿐이고 죽은 다음에야 유고로 남아있던 장편소설 《심판》(1925), 《성》(1926), 《미국》(1927)이 공개되였다.

카프카의 이름은 오래동안 알려져있지 않다가 제2차 세계대전시기와 특히 전후시기에 와서 알려지게 되였다.

카프카의 창작에서 두드러지고있는것은 부르죠아사회에서 막다른 처지에 이른 인간의 운명의 불합리성, 인간존재의 불안스러움과 무근거성을 문제로 삼고 현대사회에 사는 인간의 실존적체험을 극한점에까지 밀고나가 표현하고있는것이다.

어느날 아침 꿈에서 깨여나자 한마리의 커다란 벌레로 변해버린 주인공이 얼마동안 사람들과 같이 살다가 그들을 괴롭히지 않기 위해 굶어죽는 이야기인 《변신》, 갑자기 까닭모르게 체포되여 재판에 회부된 은행사무원이 신비스러운 판사들앞에서 까닭모를 판결을 받는 이야기인 《심판》과 같은 작품들에는 카프카창작의 반동성이 그대로 드러나있다.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사회적존재인 인간의 본성을 심히 외곡하고 인간의 존재 그자체와 현실생활을 아무런 의미도 없는 불합리한것으로 그린 카프카의 창작은 다름아닌 몰락에 직면하고 공포에 떨고있는 제국주의적부르죠아지의 절망적인 정신상태를 그대로 반영한것이다.

카프카의 창작은 서유럽자본주의나라들에서 실존주의문학의 시초를 열어놓았다.

《밤 비》

오스트리아작가 펠릭스 잘텐(1869—1945)이 1923년에 발표한 장편아동소설.

새끼사슴 밤비가 세상에 태여난 후 어미사슴과 늙은 수사슴에 이끌려 훌륭한 수사슴으로 성장해가는 과정을 생동하게 그려낸 작품이다.

화창한 봄날 아름다운 숲속에서 귀여운 사슴새

끼가 태여난다. 밤비라고 불리우는 꼬마사슴은 처음 엄마곁을 잠시도 떨어지지 못했으나 벌써 그해 여름에는 혼자서 나다닐수 있게 된다. 밤비는 엄마의 사촌언니 에나아주머니도 알게 되고 그의 아들 고호, 딸 파리네와도 친숙해진다.

어느날 갑자기 어디론가 가버린 엄마를 찾아다니던 밤비는 나이는 많으나 매우 훌륭한 수사슴—사슴왕을 만나게 된다. 그는 밤비보고 혼자서 살아갈줄 알아야 한다고 일깨워준다.

밤비는 사냥군의 총에 맞아 피투성이가 되여 쓰러진 사슴왕자를 보고 사람이 가장 무서운 존재라는것도 알게 된다. 겨울이 오자 추위와 식량난을 겪게 되는데 숱한 사냥군들이 몰려오는 바람에 엄마가 총에 맞아죽는다.

다음해 봄 밤비는 아름다운 뿔이 돋아난 씩씩한 수사슴으로 자라나며 암사슴 파리네와 사랑을 맺는다.

밤비가 위험에 처하거나 곤난에 부닥칠 때마다 어디선가 사슴왕이 나타나 여러가지로 도와준다. 사냥군이 꾸며낸 암사슴의 울음소리에 홀려 유인될번 했던 밤비를 막아준것도 사슴왕이였으며 밤비가 다리에 총알을 맞아 위험에 빠졌을 때 구원해준것도 사슴왕이였다.

어느덧 밤비도 사슴왕과 똑같은 훌륭하고 세련된 수사슴으로 자라난다.

작품에서는 계절에 따라 변화되는 아름다운 숲을 배경으로 사슴 밤비의 성장모습을 눈앞에 보듯이 생동하게 펼쳐보이고있으며 의인화된 사슴의 생활묘사를 통하여 아이들이 스스로 생활의 교훈을 찾을수 있게 하고있다.

작품은 동물을 교묘하게 의인화하고 동물들의 생활을 시적정서가 넘치게 생동하게 그려낸것으로 하여 아동소설명작의 하나로 유명해졌다.

헤 쎄

헤르만 헤쎄(1877—1962)는 세계적으로 알려진 도이췰란드 및 스위스의 소설가, 시인이다. 1923년부터 스위스국적을 가지게 되였다.

도이췰란드 남부 슈와벤지방의 소도시 칼브에서 프로테스탄교목사, 선교사의 아들로 태여났다. 목사가 되려고 신학교에 입학했다가 시인을 지망하여 도주하였다. 견습직공, 서점점원 등 여러가지 직업에 종사하면서 문학을 독학하여 부르죠아문단에서 이름난 작가가 되였다. 1912년부터 스위스에서 살면서 제1차 세계대전시기에 로맹 롤랑과 접근하고 반전평화주의적립장을 취하였으며 파시즘을 반대하고 제2차 세계대전이후에 평화옹호운동에 참가하였다.

처음 문단에서 신진시인으로 알려졌던 헤쎄가(《시집》, 1902) 작가로서 이름이 알려지게 된것은 장편소설 《페테르 까메찐드》(1904) 창작으로였다. 소설은 문명세계를 편력한 끝에 모든것에 환멸을 느끼고 고향인 스위스의 산촌에 들어와서야 비로소 안정을 찾는 주인공의 체험과정을 그리였다.

헤쎄는 도이췰란드문학의 전통인 교양소설형식을 이어받아 주로 사회와의 호상관계속에서 자립적이며 조화로운 개성의 형성문제를 다루었으며 그것을 애수에 찬 서정적인 문체로 그려내는 특기를 보여주었다. 그는 창작에서 현실도피적경향을 강하게 나타내였으나 점차 현실과의 대립충돌로 나갔다. 반면에 지나치게 정신적인 측면에 쏠리는 편향을 드러냈다.

그가 쓴 많은 장편소설들가운데서 《차바퀴밑에서》(1906), 《게르트루드》(1910), 《데미안》(1919), 《황야의 승냥이》(1927), 《나르찌스와 골드문드》(1930), 《유리알유희》(1943) 등이 알려져있다.

헤쎄의 소설들은 다 부르죠아반동소설의 한 종류인 부르죠아심리소설들이다. 헤쎄의 심리소설의 특징은 등장인물들의 심리추구를 기본으로 엮어나간것이다.

특히 《유리알유희》에서는 등장인물들의 심리를 분석하여 구체적으로 깊이있게 그린다는 구실밑에 현실생활에서 반영되는 인간의 고상하고 진실한 심리가 아니라 병적이며 기형적인 심리를 인위적으로 과장확대하여 그렸다.

헤쎄의 심리소설은 반동적부르죠아사회의 모순을 숨기고 인민대중의 투쟁의식을 마비시키는데 복무하였다.

물의 도시 베네찌아

이딸리아의 동북부에 있는 도시. 영어로 베니스라고 부른다. 베네찌아현 소재지이다. 인구

는 약 33만 4 000명(1986년 당시). 아드리아해 기슭의 주요항구이며 상공업중심지이다. 도시구역은 150개의 운하들에 의하여 갈라진 118개의 섬들로 이루어져있으며 섬들사이는 약 400개의 다리로 련결되여있는 특이한 물의 도시로서의 경관을 이룬다. 시안의 기본교통수단은 《곤돌라》라고 하는 작은 쪽배로부터 발동선에 이르는 각종 배들이다. 452년경에 형성된 이 도시는 중세기에 서유럽과 동방을 련결하는 교통의 요지로, 상업중심지로 번성하였다. 도시중심에는 싼마르끄광장이 있고 부근에는 싼마르끄사원(10—11세기), 싼마르끄도서관(16세기), 시계탑(15—16세기) 등 유적, 유물들이 많다. 베네찌아는 이름있는 관광지로서 매해 수많은 관광객들이 모여든다. 이 도시에서는 자주 국제영화축전이 열린다. 쉐익스피어의 《베니스의 상인》, 《오셀로》 등 많은 문예작품들이 공연된 이 도시는 력사적으로 널리 알려져있다.

매때를랭끄

모리스 매때를랭끄(1862—1949)는 세계적으로 알려진 벨지끄극작가이다. 그는 주로 프랑스어로 창작하였다.

간의 공증인가정에서 태여나 간대학을 졸업하였다. 빠리에 가서 법학을 연구하고 돌아와 변호사로 있다가 방향을 전환하여 작가로 되였으며 1898년에 프랑스로 이주하였다.

그는 순수예술리론의 지지자가 되여 처음에는 《온실》(1889), 《12편의 노래》(1896)와 같은 상징주의시집을 발표하였으나 그것으로 시창작을 중단하고 그 이후에는 희곡창작에 전념하였다.

작가는 19세기말—20세기초에 그림형제의 동화에 기초하여 동화극 《말레느공주》(1889), 시동생을 사랑한 주인공의 비극적인 사랑을 주제로 한 희곡 《뻴레아스와 멜리쌍드》(1892, 이 희곡은 작곡가 더뷰씨에 의하여 가극으로 옮겨졌다.), 력사적주제의 희곡 《몽나 반나》(1902), 동화극 《파랑새》(1905)를 비롯한 많은 극작품들을 련이어 발표하였다.

이 희곡들은 그 대부분이 내용에서는 운명의 희롱에 의한 인간의 비극을 통하여 비관주의와 숙명론을 설교하고 형식에서는 신비주의적이며 상징주의적인 수법으로 일관된 전형적인 퇴폐주의적운명극들이였다.

그러나 그의 일부 작품들에는 사실주의적인 요소도 나타났다. 특히 그의 가장 유명한 작품인 《파랑새》에서는 가난한 나무군아이 치르치르와 미치르남매가 꿈속에서 행복의 상징인 파랑새를 잡으려고 모든 노력을 다하였으나 끝내 실패하고마는 이야기를 통하여 자본주의사회에서는 참다운 행복이란 있을수 없다는것을 보여주었다. (이 희곡은 1908년에 로씨야의 연출가 스따니슬랍스끼에 의하여 모스크바예술극장에서 처음으로 공연된 후 널리 알려지게 되였다.)

그후 작가의 극창작에서는 신비주의적경향이 더욱 심해졌다.

그는 1940년 프랑스가 파쑈도이췰란드군에 강점당하게 되자 미국에 피신하였으며 1947년에 프랑스로 돌아와 그곳에서 사망하였다.

매때를랭끄는 상징주의연극의 대표자로 알려져있다.

안네 프랑크

도이췰란드의 소녀(1929—1945). 프랑크푸르트의 유태인가정에서 태여났다. 부모는 유태인에 대한 히틀러파쑈무리들의 박해를 피하여 1933년에 네데를란드의 암스테르담에 옮겨가서 살았다. 1942년 6월 이 나라를 강점한 히틀러악당들은 이곳에서도 유태인에 대한 탄압을 감행하였다. 놈들은 모든 유태인들에게 가슴에 노란색의 6각별표식을 달게 하였고 극장과 영화관출입, 전차와 뻐스의 승차, 식당출입을 엄금하였을뿐아니라 오후 5시반이후에는 바깥출입을 못하게 하였다. 마침내 게스타포는 유태인들을 강제수용소로 압송할데 대한 폭압령을 내리였다. 그리하여 수많은 유태인들이 수용소로 끌려갔다.

하지만 안네의 가정은 네데를란드의 한 선량한 사람의 희생적인 도움으로 폭압망에서 빠져 그의 옛 사무실 2층에서 숨어살게 되였다. 가슴조이는 일이 여러번 있었으나 두해동안 간신히 피신생활을 할수 있었다.

그러나 끝내 1944년 8월 안네의 일가는 베르겐—벨젠에 있는 강제수용소로 끌려가지 않으면 안되였다. 여기서 16살의 소녀 안네는 굶주림과 질병에 시달리다가 비참하게 죽었다.

네데를란드의 암스테르담에는 그가 숨어살던

집이 있으며 그곳은 안네 프랑크기념관으로 꾸려져 파시즘의 야만성을 고발하고있다. 그의 생활기록장이 《안네 프랑크의 일기》로 출판되여 세계의 이목을 끌고있다.

《안네 프랑크의 일기》

안네가 고향을 떠나 가족들과 함께 암스테르담에 피신하여 살면서 1942년 6월 14일부터 1944년 8월 1일까지의 기간에 직접 보고 느낀 사실과 감정을 적은 일기이다. 이 글에는 나어린 소녀의 시점에서 목격하고 체험한 유태인들의 숨막힐듯이 고통스러운 생활과 제국주의전쟁이 인류에게 들씌운 불행과 재난, 미래에 대한 동경과 소녀의 가슴속에 싹트기 시작한 사랑의 감정이 꾸밈없이 기록되여있다.

책에는 제2차 세계대전시기 히틀러도당이 감행한 야만적인 인간도살행위와 놈들이 벌린 전쟁의 참혹성이 피력되여있다. 또한 글에는 전쟁의 참화와 궁핍, 삼엄한 감시속에서도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남의 불행과 고통을 덜어주기 위하여 희생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는 소박하고 선량한 사람들의 모습도 진실하게 그려져있다. 일기에는 자립적의식과 이성에 대한 감정이 싹트고 자라기 시작하는 사춘기소녀들의 심리적특성, 이 시기 자녀들에 대한 부모들의 교양에 관한 문제들도 제기되여있다.

미래에 대한 아름다운 꿈과 생에 대한 뜨거운 애착을 간직하고있던 안네소녀는 그처럼 바라던 자유롭고 행복한 세상을 보지 못한채 파쑈악당들의 수용소에서 비참하게 목숨을 잃었다. 그가 남긴 일기에는 동심의 세계에서 본 파시즘의 야수성과 비인간성이 똑똑히 기록되여있다.

일기는 신앙심에 깊이 물젖어있었던 안네의 사상정신적미숙성으로 하여 피신자들의 생활세계를 그대로 펼쳤을뿐 파시즘과 전쟁을 반대하는 인민들의 적극적인 투쟁정신을 반영하지 못하고 고통을 앉아서 감수하는 숙명적이고 비관적인 기분을 나타낸 부족점도 있다.

이 글은 1947년에 도이췰란드에서 《안네 프랑크의 일기》라는 제명으로 출판되였으며 1950년에는 연극으로 각색되였다. 《안네 프랑크의 일기》는 그후 세계의 수많은 나라들에서 출판되였으며 영화와 TV로 광범히 소개되였다.

베주비오화산

이딸리아의 남서해안 나뽈리부근에 있는 화산. 유럽대륙에서 유일한 활화산이다. 3개의 원추형 봉우리로 이루어져있으며 그중 가장 높은 봉우리는 해발 1 277m이다. 이 화산의 특징은 용암과 많은 량의 화산재 및 가스를 뿜는것이다. 화산분출은 흔히 화산재가 섞인 무더기비를 동반한다. 이때 흐르는 진탕흐름은 용암흐름보다 더 위험한 경우가 많다. 력사적으로 있은 큰 분출은 79년, 1631년, 1794년, 1822년, 1906년, 1944년에 있었다. 그중 79년에 있은 분출은 뽐뻬이, 헤라끌라눔, 쓰따비 등 주변의 도시들을 묻어버린것으로 세상에 알려져있다. 근세에 와서 화산재에 묻혔던 뽐뻬이시가 발굴되여 옛 모습을 드러내놓았다.

빗또리니

엘리오 빗또리니(1908—1966)는 20세기 이딸리아의 이름난 소설가의 한사람이다.

씨칠리아섬의 씨라쿠자에서 철도로동자의 아들로 태여나 건축로동자, 인쇄로동자 등 여러 직업에 종사하면서 자습으로 문학을 공부하였다.

1927년에 북이딸리아에 옮겨간 후부터 문학창작을 시작하였으며 2년후에는 반파쑈문학잡지 《쏘라리아》의 편집에 참가하면서 단편소설들을 발표하였다. 1933년부터 장편소설 《붉은 설죽화》를 련재하기 시작하였으나 작품에 반영된 반파쑈사상으로 하여 출판금지 당하였다. 1936년에 그는 파시스트들의 에티오피아침략을 주제로 한 장편소설 《에리까와 그 형제》(미완성)를 창작하기 시작하였으나 같은해 여름에 일어난 에스빠냐공민전쟁에서 큰 충격을 받아 집필을 중단하고 반파쑈투쟁에 참가하였다.

1942년 밀라노에 옮겨간 후에도 계속 투쟁에 참가하였으며 1945년에 반파쑈투쟁주제의 장편소설 《인간과 비인간》을 발표하였다. 1954년에 공산당에 입당하였으나 자신을 비맑스주의공산당원으로 선포하고 문학과 정치와의 관계문제에서 문학예술창작에 대한 공산당의 령도를 부정하였다. 그는 1951년에 공산당에서 탈당하였으며 출판사에서 문학편집과 신진작가양성

에 종사하였다.

그의 대표작인 장편소설 《씨칠리아에서의 대화》(1938—1939)는 이딸리아의 초기신사실주의문학의 대표작의 하나로 간주되고있다. 작품은 씨칠리아에서의 생활을 통하여 파쑈정권의 만행과 그로 인한 인민들의 가난과 고통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작가는 파시즘의 본질을 똑똑히 보여주지 못한데로부터 그것을 다만 인간의 성품에 관한 문제로 귀착시키는 제한성을 발로시켰다.

알베르띠

라파엘 알베르띠(1902—1999)는 20세기 에스빠냐진보적시문학의 대표자의 한사람이다.

그는 안달루씨아지방 까디스의 어촌에서 태여나 마드리드에서 미술공부를 하여 처음에는 미술가로 되였으나 1923년부터 시창작으로 넘어가 여러 잡지에 발표도 하고 시집을 단행본으로 출판하기도 하였다. 그는 1930년대에 들어서면서 진보적인 세계관을 소유하게 되고 에스빠냐공산당에도 입당하였다.

알베르띠는 파쑈통치를 반대하는 투쟁을 벌리고있는 인민들속에 들어가 폭동을 일으킨 대학생들, 바리케트를 쌓고 싸우는 폭동군중을 찾아다니며 그들을 고무하고 투쟁에로 불러일으키는 시를 읊었으며 헌병들, 기마대와 맞서 싸웠다. 공민전쟁시기에는 확고하게 공화군편에 서서 프랑꼬반란군을 반대하는 싸움에 참가하였다.

그는 공민전쟁에서 공화군이 패배하고 프랑꼬파쑈독재가 수립되자 망명의 길에 올라 아르헨띠나, 미국, 이전 쏘련, 이딸리아 등지에서 시창작활동을 계속하다가 프랑꼬독재가 붕괴된 후 1977년에 고국으로 돌아왔다. 알베르띠는 국제레닌평화상 수상자이다.

알베르띠의 시문학에서 가장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있는것은 인민들의 정의의 위업을 지지하고 그 위업을 위한 투쟁에로 사람들을 불러일으킨 혁명적작품들이다.

《가을의 마드리드》, 《나는 5련대출신이다》, 《국제려단에》, 《그대들은 죽지 않았다》, 《병사들이 자고있다》를 비롯한 여러 시들에서 시인은 프랑꼬파쑈도당을 반대하고 인민전선정부를 옹호하기 위하여 손에 무장을 들고 일어난 에스빠냐인민들을 정의의 위업에 떨쳐나선 사람들로 칭송하면서 그들에게 적극적인 지지성원을 보내였다.

그는 특히 공민전쟁시기에 공화군의 핵심부대로 활동하였으며 마드리드방어전에서 큰 역할을 한 5련대를 찬양한 시 《나는 5련대출신이다》에서 정의의 위업에 한몸바쳐 나선 전사의 긍지를 노래하였다.

알베르띠의 시가운데는 《혁명과 시인의 대화》, 《꽃이 되기 위하여 노래하고 또 노래하고 싶노라》와 같이 정의의 위업을 노래하고 인민의 사랑을 받는 시인이 되려는 작가의 지향을 노래한 작품들, 《까디스의 가난한 어부들의 노래》, 《빵굽는 로동자 후안의 꿈》, 《쏘리따의 농민들에 대한 로만쎄》와 같이 로동자, 농민, 어부 등 근로인민의 사상감정과 지향을 노래한 작품들도 적지 않다.

알베르띠의 시들은 일부 초현실주의와 곤고라식, 형식주의의 영향이 나타나있으나 혁명적내용과 개성적인 시형상으로 하여 20세기 에스빠냐의 진보적시문학에서 특출한 자리를 차지하고있다.

고이띠쏠로

후안 고이띠쏠로(1931—)는 1950년대이후에 창작활동을 시작한 에스빠냐의 새 세대작가들가운데서 세계적으로 가장 널리 알려져있는 사람이다.

그는 바르쎌로나에서 태여나 공민전쟁시기에 부모를 잃고 친척집에서 양육되였다. 자신을 전쟁피해자로 간주한 그는 전후에 수립된 프랑꼬파쑈통치하에서의 현실에 가득찬 사회악과 불의를 민감하게 인식하고 그에 혐오감을 느꼈다.

고이띠쏠로는 마드리드의 종합대학 법학부에서 공부하던 시기인 1951년부터 소설을 쓰기 시작하였으며 1956년부터 프랑스에 영주하여 빠리에서 직업적작가로 활동하였다.(프랑스에서 살았을뿐 그는 에스빠냐현실을 반영한 소설을 에스빠냐말로 발표하여 해외 에스빠냐작가로 유명해졌다.)

고이띠쏠로의 소설창작에서 주되는 자리를 차지하고있는것은 에스빠냐의 합법적인 인민전선정부를 반대하는 반란을 일으켜 인민들에게 온갖

불행을 들씌운 프랑꼬도당의 죄행과 파쑈통치가 살판치는 전후 에스빠냐의 암담한 현실을 폭로규탄한 작품들이다.

대표적인 작품은 공민전쟁 말기 하루동안에 일어난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통하여 에스빠냐사람들이 겪은 불행과 고통을 실감있게 형상한 장편소설 《엘 빠라이쏘의 비극》(1955)이다.

또한 1950년의 마드리드를 무대로 청년학생들의 운명을 통하여 파쑈통치를 규탄한 장편소설 《손재간》(1954), 이틀동안의 종교명절기간에 어느 한 지방소도시에서 일어난 이야기를 펴나가면서 죄악에 찬 당대 사회현실을 폭로한 장편소설 《교예》(1957)와 그와 류사한 장편소설 《명절》(1958), 실화소설 《나하르의 땅》(1960), 단편소설집 《여기서 살아야 한다》(1960), 어느 한 관광도시에 온 외국관광객들과 부유한 국내사람들의 생활을 보여주면서 당대 현실의 불합리를 비판한 장편소설 《섬》(1961) 등이 다 이 계렬에 속한다.

고이띠쏠로의 창작에는 인민들의 생활을 반영하고 그들의 지향과 미래에 대한 희망을 담은 작품들도 적지 않다. 그 주요한 작품이 장편소설 《파도》(1958)와 중편소설 《챤까》(1962) 그리고 꾸바를 려행하고 꾸바혁명에 련대성을 표시한 려행기 《인민의 행진》(1962)이다.

그밖에도 《신원확인》(1966), 《플리안백작의 명예회복》(1970), 《뿌리없는 풀 후안》(1975), 《마끄발라》(1980), 《싸움이 끝난 후의 풍경》(1982)을 비롯한 많은 작품들을 썼다.

《닐스 홀게르쏜의 신기한 스웨리예려행》

스웨리예녀류작가 쎌마 라게를뢰프(1856—1940)가 1906—1907년에 창작한 장편동화.

동화는 주인공 닐스소년의 신기한 려행이야기를 통하여 스웨리예의 자연과 지리를 펼쳐보이고있다.

닐스는 원래 게으르고 고약한 소년이였다. 어느날 부모가 교회당에 간 사이에 그는 가정의 수호신인 난쟁이 톰테를 발견하고 그에게 해를 주어 보복을 받고 자기도 난쟁이가 되여버린다. 울상을 하고 톰테를 찾아다니다가 집에서 기르는 흰 게사니가 기러기들의 무리에 섞여 날아가려고 하는것을 본 닐스는 급히 게사니를 붙잡는다. 게사니는 난쟁이가 된 그를 등에 태운채 하늘로 날아오른다.

이리하여 닐스는 북쪽으로 가는 기러기떼속에 섞인 게사니 모르텐과 함께 스웨리예의 맨 남쪽에 있는 고향마을에서 날아올라 마을들과 섬들, 호수들을 지나 여러가지 모험과 체험을 하면서 극지의 다플란드까지 려행한다.

그 사이 산과 들의 수많은 동물들의 생활도 알게 되면서 괴로움과 슬픔도 맛보고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기쁨도 느낀다. 이런 체험과정에 닐스는 점차 사려깊고 친절하며 훌륭한 소년으로 성장한다. 동시에 조국의 자연과 지리, 사람들의 따뜻한 인정을 알게 된다.

그는 가을이 되자 남쪽으로 돌아가는 기러기떼에 섞여 고향으로 향한다. 훌륭한 소년으로 다시 태여난 닐스는 모르텐과 함께 기러기떼와 작별하고 그리운 부모곁으로 돌아간다.

동화는 작가가 스웨리예교육회로부터 아이들이 저도 모르는 사이에 조국의 자연과 지리를 배울수 있는 동화를 써달라는 부탁을 받고 고심끝에 써낸 작품이다. 따라서 작품에는 동화적인 이야기속에 스웨리예의 자연과 지리에 대한 폭넓은 지식이 담겨져있다.

작가는 자기 나라에 대한 깊은 사랑을 안고 풍치 아름다운 향토의 모습을 생동하게 펼쳐보이고있다. 이와 함께 동화에서는 품행이 단정치 못했던 소년주인공이 여러가지 체험을 쌓는 과정에 점차 품행이 바르고 자기 나라와 인민을 사랑할줄 아는 좋은 사람으로 자라나는 모습도 잘 보여주고있다.

작품은 모순된 자본주의사회현실에 대한 비판정신이 약하고 목가적인 제한성이 있으나 거기에 담긴 비교적 건전한 내용과 함께 예술적향기가 높은것으로 하여 세계적으로 이름난 동화의 하나로 되였다.

《논니의 모험》

이슬란드작가 욘 스테판 스베인쏜 (1857—1944)이 1914년에 발표한 아동소설.

원래 《이슬란드소년 논니의 체험》(1913)과 《논니와 만니》(1914)의 두 책으로 씌여졌는데 후에 그것을 합하여 《논니의 모험》이라는 제목으로 보급되였다.

이슬란드의 바다가 작은 마을에서 자라난 논니는 12살나던 해에 동생 만니와 함께 뽀트를 타고 고기잡이하러 바다에 나갔다가 큰 모험을 하게 된다. 날씨가 사나와지는줄도 모르고 정신없이 고기잡이만 하다가 그만 조수에 밀려 바다한가운데 떠있게 된것이다. 그들은 고래들의 무리속에 끼여 혼나기도 하는 등 모험을 하다가 요행 프랑스의 군함을 만나 구원된다. 프랑스사람들은 지나가던 단마르크군함에 그들을 인계하고 이슬란드까지 데려다주게 해준다.

그후 대서양을 건너 단마르크에 가게 된 논니는 바다에서 폭풍을 만나 다시 표류하게 된다. 이번에도 논니는 타고있던 배가 얼음산에 부딪치기도 하고 백곰의 습격을 받아 다리 하나를 잃은 선원을 간호하기도 하는 등 여러가지 모험을 겪고서야 단마르크에 도착하게 된다.

작품은 주인공 논니소년의 모험이야기를 소년들의 심리와 꿈, 동심세계에 맞게 흥미있게 펼쳐나가고있으며 그 과정에 고향을 사랑하는 마음과 서로 돕고 이끄는 품성을 키우며 바다에 대한 지식을 가질수 있게 하고있다.

《논니의 모험》은 종교적신앙심을 높일데 대하여 강조하고있는것을 비롯하여 일련의 제한성을 가지고있으나 북유럽의 섬나라 이슬란드 소년들의 생활과 꿈을 흥미있게 그려낸것으로 하여 이슬란드아동문학의 대표작의 하나로 되였다.

2002년 노벨문학상수상자 께르떼즈 임레

2002년 노벨문학상을 수여받은 께르떼즈 임레는 유태인출신의 마쟈르작가이다.

그는 1929년 11월 9일 마쟈르의 수도 부다뻬슈뜨의 유태인가정에서 태여났다. 그의 아버지는 가구목재상이였고 어머니는 평범한 하급사무원이였다.

께르떼즈는 15살나던 해인 1944년에 유태인박멸을 위해 세워진 오스벵찜집중수용소에 끌려갔다가 도이췰란드의 부헨왈드강제수용소로 이송되였다. 1945년에 그가 구사일생으로 살아나 마쟈르로 돌아왔을 때에는 이미 그의 온 가족이 나치스들에 의해 학살당한 뒤였다.

그는 1948—1951년에 마쟈르공산당 기관지의 신문기자로, 1951—1953년에는 마쟈르공업성 출판국이 경영하는 공장에서 로동을 하다가 그후 직업적인 작가로 되였다.

1950년대말—1960년대에 그는 음악극대본을 위주로 창작하였다. 그의 작품들은 부다뻬슈뜨의 극장들에서 공연되여 환영을 받았다. 그는 또한 도이췰란드의 많은 문학작품들과 철학도서들을 번역소개하였다.

그는 1960년대말부터 나치스의 강제수용소생활을 주제로 한 자서전적장편소설 《운명없는 존재》의 창작을 시작하였다. 소설은 1975년 출판 당시에는 별로 알려지지 않았다. 그러던것이 1985년에 재판되면서 널리 알려지게 되였다.

1980년대말에 당시 마쟈르의 개혁, 개방을 반영한 장편소설《거절》을 쓴 께르떼즈는 자기 조국에서 사회주의가 좌절되자 도이췰란드로 이주하였으며 그곳에서 서유럽나라들의 현실을 반영한 탐방기형식의 소설 《또 다른것》을 썼다.

그는 각종 문인협회에 망라되여 문학활동에 종사하는 한편 《디 짜이트》신문에 글을 써내고있다.

2002년에 73살나이에 이른 께르떼즈는 일체 정치활동과는 담을 쌓고 베를린에서 장편소설 창작에 열중하고있다.

스웨리예과학원은 그에게 노벨문학상을 수여하면서 《력사의 가장 횡포무도한 잔인성앞에서의 나약한 인간의 체험과 정치적권력에 대한 불복종의식을 〈운명없는 존재〉에 담은 공로로 그에게 〈노벨문학상〉이 수여되였다.》라고 주를 달았다.

양키라는 말이 어떻게 생겨났는가

양키란 미국 남북전쟁시기(1861—1865)에 남부의 군인들이 북부의 군인들을 가리켜 부른 별명이다.

당시 북부의 군인들은 남부의 군인들을 《반도》(레벨)라고 불렀는데 여기에 반발하여 남부의 군인들은 북부의 군인들을 《양키》

(yankee)라는 별명을 붙여 불렀다.

양키라는 말은 네데를란드사람들속에서 흔한 이름인 얀 코르니스의 애칭형이다. 따라서 양키라는 말에는 북부의 군인들을 얕잡아 멸시하는 뜻이 담겨져있다.

남북전쟁시기에 유래된 양키라는 말은 지금에 와서 미국인들에 대한 총칭으로 되고말았다.

오늘 자주성을 지향하는 세계 진보적인류는 국제헌병으로 등장하여 세계도처에서 침략과 간섭, 략탈과 전횡을 일삼는 미제침략자들을 양키라고 부르면서 놈들에게 증오와 저주를 보내고있다.

어리석은자에게 준 대답

마크 트웨인은 생활에서도 위선을 부리며 렴치없는 사기한들을 무한히 증오하였다.

한번은 노력은 전혀 하지 않고 이름을 떨칠 몽상만 하고있는 어느 한 사람에게서 편지를 받은적이 있었는데 그 편지의 내용이 가관이였다.

《듣건대 물고기뼈에는 많은 린이 포함되여있다고 하는데 그 린은 뇌의 보양제로서 유명하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알려진 유명한 작가가 되려면 많은 물고기를 먹어야 할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당신이 반드시 많고많은 물고기를 잡수셨다고 보는데 도대체 어떤 물고기를 얼마나 먹어야 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크 트웨인은 곧 답장에 《보건대 당신은 한쌍의 고래를 먹어야 할것 같습니다.》라고 써보냈다고 한다.

기차를 타고가는 길에서

마크 트웨인의 본명은 쌔뮤얼 랭그혼 클레먼스이다. 어려서부터 10여년동안 인쇄공장의 식자공과 미씨씨피강에서 수로안내원 겸 수로안내소에 있으면서 힘겨운 로동도 하였다.

마크 트웨인이라는 이름도 두길깊이라는 뜻으로서 배가 무사히 통과할 수심이 된다는 수로안내원들의 입말에서 나온것이다.

로동을 통하여 생활을 체험한 그는 사회생활에서 무질서와 시간관념이 없는것에 대하여 참지 못하였다.

한번은 그가 기차를 타고 외지에 가서 강연을 하게 되였다.

차에 몸을 싣고 출발을 기다렸으나 땅에 붙어버렸는지 움직일념을 안했다. 그러다가 겨우 떠나기는 했지만 달린다는 기차가 걸어가는 하늘소걸음보다 더 뜬것만 같았다. 강연장소에 제 시간에 도착하지 못할것만 같아 몹시 조급해난 마크 트웨인이 서성거리는데 차표검열원이 다가와 말했다.

《여보시오, 차표를 봅시다.》

지루한 기차려행에 부아가 치민 마크 트웨인은 아무말없이 주머니에서 어린이용차표를 한장 내보이였다.

차표검열원이 의아한 눈길로 그를 찬찬히 훑어보았다.

《내가 잘못 보았는가? 당신이 어떻게 어린애란말이요?》

마크 트웨인은 검열원의 항의하는듯 한 어조에 태연하게 대답했다.

《내가 차표를 살 때만 해도 난 어린애였소. 차가 지독하게 느리다나니 그새에 난 이렇게 어른이 되였구려. 이렇게 가다가는 늙어죽기 전에 목적지에 가닿기나 하겠는지…》

차표검열원은 말문이 막혀 입만 다시였다.

죽음을 힘으로 바꾸어

신문기자로 일하면서부터 문학창작활동을 시작한 마크 트웨인은 풍부하고 재치있는 소재로 엮어진 소설작품들과 예리한 정론적필치로 당대 미국식민주의의 반동적본질과 사회정치생활의 부패성을 풍자적으로 신랄하게 발가놓은탓으로 하여 보도계에서도 증오를 받았다고 한다.

한번은 이런 일도 있었다고 한다.

어느해 만우절에 뉴욕의 부르죠아신문에 마크 트웨인이 사망하였다는 보도가 실렸다.

마크 트웨인의 친척들과 많은 벗들이 각지에서 크나큰 슬픔을 안고 그의 집으로 모여들었다. 그런데 그의 집에 들어선 사람들은 아연실색하지 않을수 없었다. 죽었다는 마크 트웨인이 자기 집 책상에 마주앉아 태연하게 글을 쓰고있지 않는가!

놀라움과 반가움이 뒤범벅이 된 속에 마크 트웨인의 특유한 웃음소리가 방안을 울리였다.

《이거 왜들 이러시우. 내 죽음에 대한 그자들의 보도가 천만번 정확하네. 헌데 다만 그들이 그 일을 너무 앞당겨놓았구만!》라고 말하던 마크 트웨인은 《미국을 발견한것은 좋으나 발견하지 않았더라면 차라리 훨씬 더 좋았을것이다. 나의 죽음에 대한 요언은 나로 하여금 죽음을 힘으로 바꾸어 나머지 여생을 그들과 맞서라는 반작용으로 되였다는것을 그자들이 왜 몰랐을가?!》라고 만우절의 황당함을 예리하게 풍자하며 그들을 얼싸안았다.

흑인의 어머니 스토우

미국녀류작가 해리어트 일리저버스 비쳐 스토우는 어려서부터 글재주가 무척 뛰여나서 12살때에는 학교의 학예회에서 재치있는 작문으로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하였다.

흑인노예들의 비참한 생활에 항상 동정과 의분을 금치 못해하던 스토우는 도망친 노예를 붙잡으면 주인에게 돌려준다는 《도망노예법》이 제정되자 참을수 없어 가정주부의 몸으로 유명한 소설 《톰아저씨의 집》을 쓰기 시작하여 1852년에 출판하였다.

이 작품은 선량하고 충실한 흑인노예들과 횡포하고 잔인한 백인노예주들을 대조적으로 그린것으로 하여 책이 나오자 40만부이상 팔렸다.

이 책은 독자들에게 깊은 감명을 주어 항간에서는 《노예해방을 위한 남북전쟁발발의 원동력이 되였다.》고 소문이 났으며 《톰아저씨의 집》을 쓴 스토우는 커다란 전쟁(남북전쟁)을 일으킨 조그마한 부인이라고 미국의 16대대통령에게 소개되였다고 한다.

그의 책은 거의 40개 나라말로 번역출판되였으며 스토우는 흑인노예들에게 희망의 빛을 준 《흑인의 어머니》로 불리우게 되였다.

《귀공자》

미국녀류작가 프란씨스 호지슨 버네트(1849—1924)가 1886년에 쓴 장편아동소설.

평민출신인 어린 손자의 순진한 모습앞에서 귀족인 할아버지가 감화되는 이야기를 통하여 사랑과 믿음이 편견과 리기주의를 타승하는 내용을 담고있다.

미국 뉴욕의 뒤골목에서 어머니와 함께 가난하게 살고있던 7살난 총각아이 쎄드리크는 어느날 뜻밖에 영국에 사는 부유한 귀족이며 백작인 할아버지의 부름을 받게 된다. 원래 그의 아버지는 백작의 셋째아들이였는데 미국려행중에 부모없는 가난한 처녀와 련애결혼을 한것으로 하여 집에서 쫓겨나 평민생활을 하다가 병을 만나 세상을 떠났다. 그런데 백작의 다른 아들들까지 다 죽어 상속자가 없어졌으므로 쎄드리크를 백작의 상속자로 받아들이게 된것이다. 그러나 미국을 싫어하고 신분이 낮은 며느리에 대한 편견에 사로잡혀있던 백작은 손자만 자기 집에서 함께 살게 하고 며느리는 집에서 따로 살게 한다. 백작은 린색하고 심술이 사나와 령지안의 백성들의 미움을 받고있었으나 천진란만한 쎄드리크는 백작의 행동을 다 선의로 해석하고 할아버지는 아주 좋은 사람이라고 믿는다. 어린 손자로부터 사랑과 존경을 받는 과정에 백작의 완고한 마음은 점차 풀려나간다. 백작의 다른 아들과 관계가 있던 한 천한 녀자가 상속권을 빼앗으려고 한 사건을 계기로 백작은 쎄드리크의 어머니의 선하고 아름다운 마음을 리해하게 되고 셋이서 함께 살게 된다.

작품은 쎄드리크와 그의 어머니를 한편으로 하고 로백작을 다른편으로 하는 인간관계를 통하여 인간에게 있어서 중요한것은 재산이나 신분이 아니라 사랑과 신뢰의 마음이라는 사상을 제기하고 있다. 소설에서는 주인공 쎄드리크소년이 어머니의 사랑에 의하여 세상의 추하고 악한것으로부터 보호받아 순진하고 아름다운 마음을 간직하는것으로 되여있으며 쎄드리크의 이 사랑과 신뢰의 마음이 리기주의적이고 랭혹한 할아버지의 마음속에 사랑의 감정을 불러일으키고 그를 감화시키는것으로 되여있다. 작품은 재산과 신분, 귀천의 차이에 따라 사람을 차별하는것을 반대하는 사상도 담고있다.

이 작품의 제한성은 썩어빠진 자본주의사회환경의 영향을 무시하고 주인공의 성격을 리상화하였으며 문제를 순수 도덕륜리적인것으로 보고 생활을 미화분식한것이다.

작품은 세계아동문학사에서 가정소설형식의 아동문학종류를 고착시키는데 이바지하였다.

미씨씨피강의 유래

미씨씨피강은 세계에서 큰 강의 하나이다.

북쪽으로 미국중부의 호수에서 시작되여 메히꼬만으로 흘러든다. 그 길이는 3 950㎞이다.

《미씨씨피》라는 강이름은 인디안의 한 부족의 말에서 유래된것이다.

여기에서 《미씨》는 《큰》이라는 뜻이고 《씨피》는 《물》이라는 뜻이다.

미씨씨피강은 얼레스키에서 흘러나오는데 얼레스키는 《젖줄기》라는 뜻이다.

그러므로 미씨씨피강을 어머니의 젖줄기처럼 흘러나오는 강이라고도 한다.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의 창작동기

미첼은 일생에 소설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한편만을 쓰고 1949년 자동차사고로 고향 애틀란타시에서 사망하였다.

그는 1922년부터 신문기자생활을 하다가 1926년에 다리를 다쳐 신문사를 그만두게 되였다. 그후 10년동안에 쓴것이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이다.

소설은 작가가 사망하기 전까지 자본주의나라들에서 1 000만부이상 팔렸다고 한다. 소설은 영화로도 각색되였는데 당시 가장 많은 수입을 올린것으로 알려져있다.

미첼이 이 소설을 쓰게 된데는 일정한 동기가 있다.

작가가 아직 소녀였을 때 그의 어머니는 어느날 고향인 애틀란타시의 교외로 딸을 데리고 가서 남북전쟁으로 황페화된 농토를 보여준 일이 있었다. 전쟁이 끝난 후 많은 세월이 흘렀으나 전화의 자욱은 력력히 남아있었다.

미첼의 어머니는 페허로 된 건물들을 하나하나 가리키면서 힘이 없었던탓에 몰락하지 않을수 없었던 가문들에 대하여 이야기해줌으로써 미첼의 마음속에 세파를 뚫고나갈 힘을 키워주었다고 한다.

이때의 일을 언제나 잊을수 없었던 미첼은 후날 바로 이것을 주제로 소설을 쓰기로 마음먹었다. 미첼은 력사학회 회장이였던 아버지로부터 남북전쟁에 대한 풍부한 지식을 물려받았다. 이렇게 하여 창작된 소설이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이다.

원래 남북전쟁(1861—1865)은 흑인노예제도를 유지하려고 발악하는 남부의 농장주들과 흑인노예제도를 페지하여 값싼 로동력을 공장, 기업소들에 리용하려는 북부의 부르죠아지들사이의 모순과 대립의 결과에 일어난 전쟁이다.

이 전쟁에서 북부의 부르죠아지들이 승리한 결과 흑인노예들을 부리면서 흥청거리며 살아오던 남부의 낡은 봉건적체제는 여지없이 무너지고 미국의 전국적판도에서 자본주의가 급속히 발전할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였다.

이 전쟁에서 패전의 폭풍이 휘몰아치자 미첼의 부모들이 경영하던 농장은 황페화되고 노예제도는 페지되였다.

소설은 미국의 남북전쟁과 전후의 이른바 재건시대를 반영하면서 그 제목이 말해주고있는바와 같이 남북전쟁의 폭풍이 휘몰아치자 어떻게 남부의 봉건적생활질서가 하루아침에 바람과 함께 사라지였는가를 보여주었다.

여기에서 세찬 바람은 흑인노예들을 부리며 재부와 영광과 전통을 자랑하던 남부의 낡은 사회를 흩날려버리는 자본주의조류를 말한다.

작품은 이러한 동란속에 농장주의 맏딸 스칼레트가 시련을 거쳐 어떻게 지독한 부르죠아로 변모되여가는가를 보여주었다.

펄 바크

미국의 녀류소설가인 펄 바크(1892—1973)는 서버지니어주의 선교사의 집안에서 태여나 부모를 따라 중국에서 소녀시절을 보냈다. 7살때 귀국하여 대학교육을 받은 다음 다시 중국에 건너갔으며 1917년에 남경대학 교수인 선교사 존 바크와 결혼하였다. 북벌군이 남경에 들어온 1927년에 중국을 떠나 미국에 돌아갔다. 귀국후 1934년에 남편과 리혼하고 다음해 출판사경영주와 재혼하였다.

작가는 1922년부터 문학창작을 시작하여 주로 중국을 무대로 한 장편소설을 많이 써서 유명해졌다.

대표작은 3부작장편소설 《대지의 집》(제1부 《대지》1931, 제2부 《아들들》1932, 제3부

《분렬된 집》1935)이다. 이 작품은 미국에서 2년동안 인기소설의 첫자리를 차지하고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그후 《제1부인》(1933), 《어머니의 초상》(1936), 《싸우는 사도》(1936), 《자랑스러운 마음》(1938), 《애국자》(1939), 《결혼초상》(1945) 등 역시 중국을 무대로 한 장편소설들을 썼다.

작가는 제2차 세계대전후에도 《중국의 하늘》(1944), 《녀자들의 저택》(1948), 《황태후》(1956) 등을 썼다.

1938년 미국녀류작가들가운데서 처음으로 노벨문학상을 받았다.

《대 지》

미국녀류작가 펄 바크가 1931년에 창작한 장편소설.

청나라 말기, 중화민국성립 초기 중국의 력사적현실을 배경으로 농민 왕룽일가의 생활사를 보여준 작품이다.

가난탓으로 나이가 들었어도 장가를 가지 못하고있던 빈농 왕룽은 드디여 소원이 풀려 지주 왕가의 노비 아란을 안해로 삼게 된다. 아란은 못생기고 발이 큰 녀자였으나 그래도 왕룽은 기뻤다. 그는 없는 돈을 털어 이웃들을 대접하였다.

그날부터 왕룽은 더욱 열심히 농사를 지었으며 말없이 참을성있게 일하는 안해와 힘을 합쳐 얼마후에는 왕가의 땅의 일부를 살수 있게 된다. 그러나 심한 가물이 닥쳐와 갓 태여난 애기는 굶어죽고 그들도 고향을 떠나 남방으로 류랑의 길에 오른다. 그곳에서 그는 인력거를 끌고 가족들은 동냥을 하였다. 그러다가 폭동소동에 말려들어간 왕룽은 뜻밖에 뭉치돈을 손에 쥐게 되며 그의 안해도 막대한 값이 나가는 보석을 얻는다.

고향에 돌아간 그들은 그 돈으로 땅을 사들이고 큰 지주가 된다. 그동안 자식들도 다섯으로 늘어난다. 왕룽은 고운 창부를 첩으로 맞아들이고 안락한 생활을 보내나 늙고 못생긴 아란은 여전히 부엌에서 묵묵히 일한다. 그후 몰락한 왕가의 큰집을 사들인 왕룽은 아들들과 함께 거리에 나가 살게 된다. 맏아들은 멋쟁이신사로, 둘째아들은 날랜 상인으로, 셋째아들은 군인으로 된다.

세월이 흘러 안해도 죽고 왕룽자신도 늙는다. 아무런 불편도 없는 처지였으나 어쩐지 그의 마음은 즐겁지 않다. 세 아들의 가족들이 서로 반목하고있는것과 백치인 딸의 앞날이 마음에 걸렸던것이다. 그는 손녀벌되는 둘째첩 리화한테서 유일한 위안을 찾는다.

림종을 앞두고 원래 살던 옛집으로 돌아온 왕룽은 아들들에게 절대로 땅을 팔아서는 안된다, 땅만이 일가를 지탱하는 힘이라고 유언한다. 그러나 아들들은 겉으로만 아버지의 말을 따르겠다고 하면서 딴속심을 차린다.

작품은 주인공 왕룽일가의 생활묘사를 통하여 지난날 중국에서의 농민들의 비참한 처지를 어느 정도 생동하게 반영하고있다.

소설의 전반부에서 펼쳐지고있는 빈농 왕룽의 기막힌 생활, 땅에 명줄을 걸고 그 땅에서 더 많은 수확을 거두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차례지는것은 가난과 슬픔뿐인 그들의 불행한 모습은 지난날 수많은 중국농민들의 비참한 생활처지 그대로이다.

또한 소설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있는 아란은 지난날 중국녀성들의 불행한 처지를 체현한 인물로 형상되여있다.

작품은 당시 중국농촌의 토지제도와 가족제도, 농촌생활풍습, 군벌들의 전횡과 빈번한 폭동, 주기적으로 닥쳐오는 큰물과 가물에 의한 피해 등 시대현실에 대해서도 알수 있게 하고있다.

작품은 그리스도교적박애주의와 무저항주의가 농후하고 생활의 론리에 맞지 않은 비전형적인 장면들이 많은것 등 제한성을 가지고있다. 그러나 지난날 착취사회에서 중국인민들이 겪은 불행과 고통을 반영하고 당시의 시대적모습을 보여준것으로 하여 많은 나라들에서 번역소개되였으며 영화와 연극으로도 옮겨졌다.

《나는 서서 글을 씁니다》

헤밍웨이의 작품은 간결하고 참신한것으로 하여 유명하다.

한번은 한 기자가 그에게 묻기를 《당신의 작품은 미사려구나 군더더기가 없는데 그 비결은 어데 있습니까?》라고 하였더니 그는 단마디로 《나는 서서 글을 씁니다.》라고 대답하였다.

기자는 무슨 말인지 리해하지 못하였다.

그러한 그에게 헤밍웨이는 《다시 말하지만 나

는 서서 글을 씁니다. 서서 한쪽무릎을 구부리고 넙적다리우에 종이를 놓고 씁니다. 이렇게 하면 일종의 긴장한 강박상태에 놓이게 되는데 이런 강박상태에서는 자기의 사상을 보다 더 간결하게 표현할수밖에 없지요. 쓸데없는 미사려구와 군더더기로 엮어질라치면 육체가 견디지 못하니까요. 어떻습니까, 한번 해보시지요.》라고 설명해주었다.

노먼 메일러

노먼 메일러(1923—)는 제2차 세계대전후에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미국작가(유태계)의 한사람이다.

뉴져지주 롱브랜치에서 태여나 4살때 가족과 함께 뉴욕으로 이사하였다. 어릴 때부터 비행기에 흥미를 가지고있던 그는 하버드대학에서 항공학을 전공하였다. 1944년 군대에 징집되여 제2차 세계대전에 참가하였으며 전쟁직후에 일본에 있었다.

대학생시절부터 소설을 쓰기 시작했던 메일러는 전후 프랑스에 류학하여 쏘르본대학에 다니던 시기에 첫 장편소설 《벌거벗은자와 죽은자》(1948)를 발표하고 유망한 전쟁물작가로 알려지게 되였다. 작품은 태평양전쟁을 배경으로 어느 한 섬을 사수하는 일본군과 섬에 상륙한 미군사이의 전투를 묘사하였는데 작품에 관통되여있는 반전사상으로 하여 독자들의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이어 《바바리해변가》(1951), 《사슴공원》(1955) 등의 장편소설들과 인종차별을 비판한 긴 수필 《흰 흑인》(1957)을 발표하였으나 이 작품들에 대한 평가는 각이하였다.

그는 사람들의 주목을 끌기 위해 소설, 수필, 평론, 기록 등을 모아 《나자신에 대한 광고》를 1959년에 발표하였는데 그것이 젊은 세대들속에서 큰 인기를 끌었다. 특히 드라이저의 《미국의 비극》(원명은 《아메리카의 비극》)의 현대판을 시도한 장편소설 《아메리카의 꿈》(1965)으로 널리 알려지게 되였다. 작품은 안해를 죽인 남편에 대한 이야기를 통하여 부패타락한 현대미국사회를 강하게 비판하였다.

작가는 《우리는 왜 웰남에 갔는가?》(1967)에서 미국의 웰남침략을 비판하기도 하고 《밤의 군대》(1968)에서 1967년 10월의 워싱톤반전평화시위를 반영하기도 하는 등 적극적인 반전평화옹호적립장을 취하였다. 그자신도 직접 이 시위에 참가했다가 구류되고 벌금형을 받기까지 하였다. 또한 공화당과 민주당의 대통령후보지명을 위한 전당대회를 취재한 《마이아미와 시카고의 포위공격》(1968), 달탐험에 대한 내용인 《달에서 타오른 불》(1970) 등의 실화작품들도 썼다.

그후에도 메일러는 왕성한 창작의욕을 발휘하여 실재한 살인자를 원형으로 한 《사형집행인의 노래》(1979), 출판사로부터 많은 계약금을 받아 화제거리가 된 련작소설의 제1부《고대의 밤》(1983)을 비롯하여 《사나이는 춤추지 않는다》(1984), 《할로트의 환영》(1991), 《청년시절의 삐까쏘의 초상화》(1997), 《신의 아들의 복음서》(1998) 등의 장편소설들을 련이어 써내여 널리 알려져있다.

노먼 메일러는 창작수법에서는 스타인베크, 포크너 등의 영향을 받고 사상적으로는 아서 밀러에 가까운 작가로 알려지고있으며 당대 미국사회에 대한 비판정신이 강한 반면에 퇴폐주의적경향도 드러내고있다.

흑인녀성으로서 처음으로 노벨문학상을 받은 토니 모리슨

미국의 흑인녀류작가 토니 모리슨(1931—)은 미국 중서부 오하이오주 로레인시에서 태여나 워싱톤과 뉴욕에서 대학공부를 하였다. 그는 1955년부터 1964년까지 택사스와 워싱톤의 대학에서 교편을 잡다가 1965년부터 소설편집을 맡아보면서 소설창작을 시작하였다.

극도의 인종차별이 지배하는 미국사회에서 자라나 어려서부터 흑인들이 당하는 온갖 모욕과 천대, 그들의 비참한 운명을 직접 체험한 모리슨은 자기의 작품들에서 흑인들의 생활, 특히 흑인녀성들의 처지를 독특한 수법으로 생동하게 보여주었다.

그의 첫 장편소설 《파란눈》(1970)은 파란눈을 가지고싶어하던 흑인소녀의 비참한 운명을 그린 작품이며 두번째 장편소설 《쑬라》(1973)는 두 흑인처녀의 결혼과 우정에 대한 이야기이다. 그후

《쏠로몬의 노래》(1977), 《타르인형》(1981) 등의 장편소설들을 련이어 써낸 토니 모리슨은 1970년대를 대표하는 미국흑인작가로 되였다.

작가는 특히 대표작인 장편소설 《소중한 사랑》(1987)에서 자기와 같은 노예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2살밖에 안되는 딸을 제 손으로 죽이는 한 흑인녀성의 비극적인 형상을 통하여 이른바 자유, 평등, 민주주의를 표방하는 미국사회의 위선과 허위를 적라라하게 폭로비판하였다. 소설은 발표되자마자 큰 파문을 일으키고 비평계의 격찬을 받았으며 토니 모리슨은 반인종주의투사로, 《복수의 천사》로 불리우게 되였다.

모리슨은 그후에도 《쟈즈》(1992)를 비롯한 여러편의 소설들을 내놓았다.

토니 모리슨의 작품은 흑인사회에 대한 사실주의적묘사와 함께 흑인들의 민간구전문학전통을 살린 신화적이며 환상적인 요소가 풍부하며 암시적인 시적문체, 힘있는 문장과 치밀한 구성으로 특징적이다.

비록 소극적인 반항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였지만 자주성을 지향하는 시대적요구에 맞게 반인종주의주제의 소설창작에서 성과를 거둔것으로 하여 작가의 이름은 세계적으로도 널리 알려져있다.

토니 모리슨은 1993년에 흑인녀성으로서 처음으로 노벨문학상을 받았다.

논픽숀

픽숀, 즉 허구가 없는 문학.

허구가 없는 문학이라고 할 때에는 실화문학, 보고(기록)문학, 려행기, 전기, 회고록, 회상기 등 그 적용범위가 넓으며 그 전통도 오래다.

논픽숀이라는 말은 그와는 달리 20세기에 들어와서 미국을 비롯한 서방자본주의나라들에서 생긴것이며 철저한 조사와 취재에 기초한 제3자의 경험을 기록하고 구성한 작품을 념두에 두고 있다.

대표적인 작품은 《논픽숀 노벨》(무허구소설)로 불리운 미국작가 카포티의 《랭혈》(1966)과 미국작가 메일러의 《밤의 군대》(1968)이다.

논픽숀소설에서는 종래의 실화문학작품들에 특징적이였던 현실비판정신에서 크게 후퇴하고있다. 결국 논픽숀소설은 사실그대로 허구없이 보여준다는 미명하에 사실주의적전형화를 거세하려는 부르죠아자연주의문학의 일종에 불과하다.

매맞은 세대파

미국의 문학류파. 원명은 《비트 제네레이슌》이다. 1950년대 중엽—1960년대초에 류행하였다.

이 파는 전후 미국의 사회현실에 대한 불만과 반항을 표방하였으나 실상은 더욱 극단화된 퇴폐주의문학의 변종에 불과하였다.

당시 《매맞은 청년들》로 불리운 타락한 청년들은 현실에 반항한다고 하면서 해괴망측한 옷을 입고 전통적인 관념을 무시하며 학업과 일자리를 버리고 장기간 방랑생활을 하였다. 그러면서 마약, 쟈즈, 성해방, 속도, 불교 등을 저들의 《무기》로 삼았다.

매맞은 세대파의 작가들은 이러한 극도로 타락한 퇴폐적인 청년들의 생활과 사상감정을 문학적으로 표현하였다.

긴즈버그는 시집 《울부짖음, 기타》(1956)에서 미국의 자본주의사회현실에 대한 불만으로부터 새로운 자극을 찾는다고 하면서 온갖 발광적인 행위로써 자기를 마취시키며 덮어놓고 모든것을 반대하는 타락한 청년들의 무정부주의적사상을 반영하였다.

케루어크의 장편소설 《로상(길우)에서》(1957)는 1인칭주인공이 몇몇 친구들을 따라 미국을 방황하는 과정을 묘사하면서 매맞은 청년들의 생활을 반영하였다. 이 작가들외에 스나이더, 마클루어, 레크스로스, 바로즈를 비롯한 여러 작가들이 이 파에 망라되였다.

매맞은 세대파의 류행은 극히 짧았으며 1960년대에 들어서면서 저절로 사라지고말았다.

포스트모더니즘

극도로 기형화되고 부패화된 20세기 후반기의 자본주의사회에 맞게 종래 모더니즘의 퇴폐주의적반동성을 더욱 로골화하고 심화시킨 반사실주의적조류. 《포스트》라는 접두사의 뜻으로 하여 탈모더니즘 혹은 후기모더니즘이라고도 한다.

포스트모더니즘론자들은 현대자본주의세계를 탈산업사회, 대중소비사회, 정보사회 등으로 평가하면서 세계가 마치도 탈중심화 즉 중심을 종잡을수 없는 복잡다단한 상태에 처했다고 보았다.

포스트모더니즘예술은 이러한 상태에 맞게 선행시대의 전통적인 리념과 진리, 권위와 질서 등을 모두 부정하고 파괴하며 그 어떤 중심도 인정하지 않는것을 자기 특징으로 하고있다. 전통적으로 문학예술의 내용을 이루는 리념이나 도덕을 부인한다는것은 작품의 사상적내용을 거부한다는것을 의미한다.

포스트모더니즘은 문학예술이란 무의미하며 인간의 본능적충동과 쾌락만이 실감적이고 인생에 큰뜻을 부여한다고 주장하면서 로골적인 색정문화와 부화방탕한 동물적생활을 꺼리낌없이 찬미하며 불안과 절망속에 헤매는 타락한 인간의 괴상한 심리세계를 추구한다.

포스트모더니즘예술에서는 또한 중심이 없거나 중심 아닌 중심을 무질서하게 많이 설정함으로써 내용을 혼탕시키며 본질적으로는 문학의 고유한 형식을 여지없이 파괴한다.

실례로 미국작가 토마스 핀촌의 소설 《V》를 들수 있다. 이 작품에서는 뉴욕에서 벌어지던 무대가 갑자기 제2차 세계대전시기의 말타섬에 옮겨지는가 하면 도이췰란드의 식민지였던 서남아프리카가 묘사되는 등 장소와 시간이 끊임없이 뒤바뀌고 줄거리가 명백하지 않아 중심을 도저히 종잡을수 없다.

물론 의식의 흐름파소설과 같이 종래의 모더니즘문학에서도 이와 류사한 작품들이 창작되였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문학이라는 형상적 형식을 인정하는 한계내에서의 형식유희에 지나지 않았다.

이와는 달리 탈중심을 추구하는 포스트모더니즘예술에서는 예술의 무대가 아니라 이른바 인생의 무대를 론한다고 하면서 문학의 모든 형식자체를 완전히 부인하고 파괴하는것이다. 이것은 본질에 있어서 내용과 형식을 분리시키고 극단한 형식주의를 추구하는 모더니즘의 최신판변종에 지나지 않는다.

포스트모더니즘은 한정된 사람들만이 향유하는 중심문학을 배척하고 대중성을 추구한다는 미명하에 문학작품을 상품화한다. 포스트모더니즘이 추구하는 대중성이란 전자공업과 정보과학 등의 발전으로 보급망이 늘어난 대중소비사회에 맞게 사람들의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렵기적인 작품들을 상품처럼 찍어내고 대중을 우매화하고 자본의 노예로 전락시키기 위한것이다.

문명세계를 표방하면서 동물세계로 전락되여가는 현대판자본주의의 썩어빠진 실태를 반영한 포스트모더니즘은 오늘 제국주의문화적침투의 교활한 수단으로 리용되고있다.

아메리카인디안

꼴룸부스가 아메리카대륙을 발견하기 전부터 산 원주민들을 아메리카인디안이라고 부른다.

꼴룸부스는 15세기말에 이 대륙을 새로 발견하고서도 이 땅과 이곳 원주민을 인디아땅, 인디아사람으로 잘못 여기고 본국에 돌아가서 그렇게 보고하였다. 아메리카인디안이라는 말은 이렇게 되여 생겨났다.

아메리카에서는 류인원이나 원인 등의 뼈가 발굴되지 않았다. 따라서 원주민들이 언제 어떤 길을 거쳐 이 대륙에 정착하게 되였는가에 대해서는 아직도 과학적으로 확증하지 못하였다. 현재까지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원주민들은 약 2만년전(즉 제4빙하기의 마지막시기이면서 베링그해협이 생기기 시작할무렵)에 아시아대륙으로부터 아메리카대륙으로 넘어온 사람들이라고 보고있다.

아메리카인디안은 수천년전부터 발전된 문화를 창조하여왔다. 그들은 메히꼬를 중심으로 한 중부아메리카에 마야문화(륭성기는 12－16세기), 톨레크문화(10－13세기), 아즈떼끄문화(14－16세기), 남아메리카의 안데스고원의 인까문화(최대륭성기 14－16세기 중엽)를 각각 창조하였다.

아메리카인디안은 B.C.부터 웅장한 신전, 궁전, 성벽 등을 일떠세웠으며 천문학과 수학, 관개와 도로공사, 금속세공과 질그릇제조 등에서도 높은 재능을 보여준 슬기로운 민족이였다. 그들은 일찍부터 강냉이, 감자, 고추, 카카오나무, 고무나무, 단감자, 도마도, 땅콩, 호박, 담배 등을 재배하여왔으며 그것이 16세기에는 온 세계에 퍼졌다.

그러나 에스빠냐와 뽀르뚜갈정복자들은 아메리카에로의 이민을 개시하면서부터 아메리카인디안들의 문화를 닥치는대로 략탈, 파괴하고 그들을 무자비하게 학살하였다. 식민주의자들의 만행으로 그들의 인구는 급격히 줄어들었다.

인디안들의 언어에서는 통일성이 없다. 그들의 말은 지역과 지방에 따라 언어구조와 어휘가 서로 다르며 따라서 많은 언어로 나뉘여진다. 학자마다 분류를 달리하는데 대체로 보면 북아메리카에는 45개 언어, 남아메리카에는 12개 언어가 지역 또는 지방에 따라 쓰이고있다.

얼래쓰커의 코파강하류에서 사는 약 200명의 인디안집단은 그들사이에서만 통하는 언어인 에야크어를 쓰고있다. 메히꼬의 유까딴반도와 그 주변 원주민들은 B.C.부터 사용하던 그림글자를 18세기초까지 썼다. 미국과 카나다의 동부원주민들은 1820년에 정식화한 이로코와어와 다른 형태인 체로키어의 독특한 음절문자(85개 문자로 된것, 체로키문자라고도 한다.)까지 쓰고있다.

인까인들의 가장 큰 명절

안데스산줄기에 찬란한 문화와 강력한 제국을 건설한 인까인의 후손들은 뻬루, 볼리비아, 에꽈도르 등지에서 살고있는데 그 인구는 570만명이나 된다고 한다. 지난날 인까제국에서는 태양을 숭배하였는데 그들은 자신들을 태양의 자손이라고 자부하였다. 그리하여 태양과 될수록 가까이 있기 위하여 높은 산정에 도시를 건설하였다고 한다. 해마다 6월 24일이 오면 태양제가 시작된다. 이날은 남반구의 동지이기때문에 이 명절이 새로운 한해의 시작으로도 된다. 명절놀이는 9일간이나 계속된다. 명절의 첫날에는 꽃으로 장식한 모자를 쓰고 명절옷차림을 한 사람들이 태양신에게 바치는 제물을 들고 제단이 있는 산정에 모여든다. 정오에 의식이 시작되면 인까왕이 산꼭대기에 나타나는데 이것은 태양이 하늘중천에 떠있다는것을 상징하는것이라고 한다. 인까왕과 왕후는 새깃으로 만든 두개의 큰 양산을 씌운 금가마를 타고 무사들의 호위를 받으면서 제단에 내려온다. 그러면 광장에 모여선 사람들이 태양신에게 바치는 제물을 제단에 올려놓는다. 인까왕은 태양신에게 술을 바치고 제사를 관할하는 집사는 제단우에 성화를 붙이고 죽인 말의 내장을 태양신에게 바친 다음 모든것이 잘되여나가게 해달라고 빈다.

마지막으로 왕이 만민이 화목하게 지내고 제국에 충성할것을 강조한다. 오늘도 인까사람들은 태양제를 지내고있다. 이날이 오면 전국의 예술단체들이 다채로운 민간예술종목들을 가지고 공연하면서 명절을 쉰다고 한다.

식민주의의 후과로 생긴 새로운 인종

16세기부터 시작된 유럽식민주의자들의 아프리카, 중앙, 남아메리카에로의 대량적인 침투는 새로운 인종들을 만들어냈다. 그 대표적인 인종에 대해서 보기로 하자.

메리스 에스빠냐, 뽀르뚜갈, 영국, 프랑스를 비롯한 서유럽의 백인들이 대서양을 건너 중앙아메리카와 남아메리카의 많은 지역을 자기들의 식민지로 만들고 거기에 살고있던 원주민(아메리카인디안)들을 학살하거나 그들에게 노예로동을 강요하였다. 이런 과정에 백인과 원주민사이에 혼혈아들이 적지 않게 생겨났다. 이들의 자손들을 메티스라고 부른다. 메티스란 말은 라틴어 《믹스투스(혼혈)》에서 유래되였다. 현재 남아메리카의 빠라과이인구의 80%이상이 메티스이며 뻬루, 꼴롬비아, 볼리비아 등의 주민구성에서도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고있다.

물라트 백인과 흑인(아프리카흑인)의 혼혈아를 말하는데 흑인의 피가 절반정도 섞인 백인을 말한다. 물라트라는 말은 라틴어 《물루스(노새)》에서 유래된 말이다.

쌈보 흑인과 물라트 혹은 미국원주민들과의 혼혈아를 말한다. 서유럽식민주의자들이 아프리카의 흑인들을 노예로 아메리카대륙으로 끌어오면서 생겨난것이다.

크레올 중앙아메리카와 남아메리카, 아프리카남부에 이주해와서 수백년간 살면서 비록 그곳

원주민과 혼혈은 되지 않았어도 종래의 백인과 달라진 프랑스, 에스빠냐계의 백인들의 후손을 이르는 말이다. 오늘날 그들이 쓰고있는 말은 《크레올말》이라고 부를 정도로 완전히 달라졌다.

볼리바르

씨몬 볼리바르(1783—1830)는 라틴아메리카독립전쟁의 지도자의 한사람이며 대꼴롬비아공화국의 초대대통령이였다.

베네수엘라 까라까스의 에스빠냐인가정에서 출생하였다. 유럽에서 교육을 받고 돌아온 후 1810년부터 미란다의 지도밑에 베네수엘라공화국을 수립하는 사업에 적극 참가하였다. 볼리바르는 에스빠냐식민주의자들을 몰아내고 1813년 8월 까라까스를 해방하였다. 그후 볼리바르를 수반으로 하는 베네수엘라제2공화국이 선포되였다. 그러나 그는 노예제의 철페를 비롯하여 인민대중의 리해관계에 맞는 정책을 실시하지 못함으로써 인민대중의 지지를 받지 못하였으며 1814년 에스빠냐군과의 전투에서 패하고 국외로 망명하였다.

볼리바르는 1815년에 에스빠냐침략자들을 반대하는 새로운 봉기를 지도하였으며 1819—1822년에 빠나마, 베네수엘라, 에꽈도르지역을 해방하였다. 1819년 대꼴롬비아공화국을 선포하고 대통령으로 되였다. 1824년 12월 볼리바르군대는 아야꾸쵸전투에서 에스빠냐강점군에게 섬멸적타격을 주었으며 상부뻬루를 해방하고 그곳에 볼리비아공화국(그의 이름을 따서 붙인것이다.)을 세웠다.

청소한 라틴아메리카나라들의 독립을 공고히 하며 또한 자기의 세력을 넓힐 목적밑에 그는 이 나라들을 하나의 련방국가로 통합하기 위한 회의를 소집하였으나 참가자들의 의견상이와 미영반동지배층의 방해책동으로 실패하였다.

볼리바르의 독재정치는 인민대중의 불만을 불러일으키고 봉건세력이 이를 리용하였다. 1827—1828년 뻬루와 볼리비아에서 볼리바르의 정권이 전복되였으며 1829—1830년에 베네수엘라와 에꽈도르가 대꼴롬비아로부터 떨어져나갔다. 1830년초 그는 대통령직에서 사임하였으며 그해에 병으로 죽었다.

볼리바르는 대부호출신으로서 일련의 제한성을 가졌으나 에스빠냐식민지기반에서 라틴아메리카나라들을 해방하는데 큰 역할을 하였다.

싼 마르띤

호쎄 데 싼 마르띤(1778—1850)은 라틴아메리카독립전쟁의 지도자의 한사람이다.

아르헨띠나의 크레올귀족의 가정에서 태여났다. 1808—1812년 에스빠냐군대에 들어가 나뽈레옹침략군을 반대하는 에스빠냐인민들의 해방투쟁에 참가하였다. 1812년 아르헨띠나에 돌아와 1814년에 아르헨띠나애국적무장대의 지휘관으로 되였다. 1816년 라쁠라따와 뚜꾸만주대표들의 의회지도자의 한사람으로 되였다. (이 의회에서는 라쁠라따합중국의 독립을 선포하였는데 1826년에 아르헨띠나련방공화국으로 고쳤다.)

싼 마르띤은 1817년에 칠레에로의 원정을 지휘하였으며 군대를 이끌고 안데스산줄기를 넘어 차까부꼬(1817), 마이뽀(1818)전투들에서 에스빠냐침략군을 격파하고 칠레를 해방하였으며 1821년에는 에스빠냐식민주의자들의 지배밑에서 뻬루를 해방하고 뻬루의 지도자로 되였다.

싼 마르띤은 그후 남아메리카 전지역을 통합하려는 볼리바르와의 의견상이로 하여 프랑스로 망명하여 그곳에서 죽었다.

체 게바라

에르네스또 체 게바라(1929—1967)는 아르헨띠나태생의 국제주의전사이다.

건축가의 가정에서 태여나 14살때 혁명적청년단체에 가담하였으며 일찍부터 라틴아메리카 여러 나라들에서 혁명활동을 하였다. 1953년 부에노스 아이레스의학대학을 졸업한 후 자기 나라를 떠나 과떼말라혁명에 참가하였다.

1954년 메히꼬로 망명하여 이듬해 거기서 피델 까스뜨로와 만났으며 7월 26일운동에 참가하였다. 1956년 꾸바에 상륙하여 유격전쟁에서 재능있는 지휘관으로서 주도적역할을 훌륭히 수행함으로써 꾸바혁명승리에 크게 이바지하였다.

꾸바혁명승리후 아바나경비를 담당한 라까바니오요새수비대 사령관, 꾸바국립은행 총재

(1959), 꾸바공업상(1961), 꾸바통일혁명조직 전국지도부 및 비서국성원 등으로 사업하였다.

1960년 꾸바경제대표단 단장으로서 우리 나라를 공식방문하였다. 1961년 8월 우루과이에서 진행된 아메리카경제사회리사회에 꾸바대표단 단장으로 참가하여 꾸바에 대한 미제의 경제봉쇄정책을 규탄하는 연설을 하였다.

1965년 4월 볼리비아로 간 후 이듬해 유격대를 조직하고 무장투쟁을 지휘하였다. 1967년 7월 아바나에서 진행된 제1차 라틴아메리카인민단결대회에서 명예의장으로 선거되였다.

1967년 10월 볼리비아의 친미반동정부군과의 전투에서 장렬하게 전사하였다.

포크너

윌리엄 해리슨 포크너(1897—1962)는 드라이저, 헤밍웨이, 스타인베크와 함께 20세기 미국문학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있는 작가이다.

미국남부 미씨씨피주의 소도시 뉴올버니의 령락한 농장주의 집안에서 태여났다. 어릴 때 같은 주에 있는 도시 옥스퍼드로 이사한 후 그곳에서 생애를 마쳤다.

체계적인 교육은 받지 못했다. 고등학교를 중퇴하고 제1차 세계대전때 카나다주재 영국공군에 입대했으나 전투에는 참가하지 못했다. 퇴역후 미씨씨피주립대학에 다녔으나 또 중퇴하고 옥스퍼드에 돌아와 목수, 뼁끼도장공, 우편국직원 등 여러가지 일을 하다가 1920년대부터 직업적작가가 되였다.

처음 시인이 되려고 처녀작 시집 《대리석반신상》(1924)을 발표했다가 인정받지 못한 포크너는 소설창작으로 방향을 바꾸고 전쟁에 나가 불구가 되여 돌아온 공군장교의 비참한 운명을 그린 장편소설 《군인의 봉급》(1926)을 썼다. 그후 《싸토리스》(1929), 《음향과 분노》(1929), 《죽음의 침상에 누워》(1930), 《쌩크츄어리》(1931), 《8월의 빛》(1932) 등 장편소설들을 련이어 발표하여 이름을 날렸다.

그후에도 소설창작에 힘을 넣은 작가는 1930—1950년대에 《항공목표탑》(1935), 《아브쌀롬, 아브쌀롬!》(1936), 《무덤의 침입자》(1948), 《우화》(1954), 3부작 《마을》(1940), 《도시》(1957), 《저택》(1959) 등 장편소설들과 단편소설들을 발표하였다.

포크너의 장편소설들가운데서 1920년대말—1930년대초의 작품인 《음향과 분노》, 《8월의 빛》이 대표작으로 간주되고있다.

《음향과 분노》는 남부농장주일가의 몰락을 의식의 흐름의 특징적인 내면독백의 수법으로 그려낸 작품이며 《8월의 빛》 역시 같은 수법으로 무지와 퇴페, 폭력 등 온갖 악이 살판치는 미국 남부사회의 부패성을 파헤쳐보인 작품이다.

포크너의 대다수 작품들은 요크나파트라는 미국 남부주의 가상적인 군을 무대로 하고 북부산업자본가들의 압박밑에 몰락하고 타락해간 남부농장주들의 생활과 남부의 사회현실을 반영하고있다. 작품은 남부에 첫 이주민들이 들어선 때로부터 19세기 30—40년대에 이르는 약 200년간의 미국남부주들의 력사를 포괄하고있다. 그리하여 그의 작품들은 남부사회의 일종의 년대기로 되고있으며 발자끄의 소설총서 《인간희극》과도 대비되고있다.

그의 작품들에는 극도로 타락한 퇴페적인 미국자본주의사회의 부패성을 반영하고 인종차별을 비판하는 등 긍정적인 면이 있는 반면에 무지, 퇴페, 폭력 등의 묘사에 치중하고 옳은 리상을 제시하지 못하고있으며 신비주의적이고 종교적인 색채가 진한 제한성이 나타나있다. 이 작품들은 그 수법에서도 사실주의적인 경향이 있는 반면에 구성이 복잡하고 자연주의와 프로이드주의 모더니즘적인 경향이 강하다.

이러한 모순으로 하여 포크너의 창작은 사람들을 부패타락시키고 그들의 계급의식을 마비시키려는 현대부르죠아반동문학의 리용물로 되고있다.

1992년 노벨문학상수상자 데레크 월코트

쎄인트루씨아시인, 극작가. 1930년생.

서인디아대학을 졸업하고 1957년부터 2년간 미국의 뉴욕에서 연극을 연구하였으며 귀국후 트리니대드연극단을 조직하고 서인디아제도의 연극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였다.

초기에 시집 《시 25수》(1948), 《푸른 달

밤에》(1962) 등에서 종교의 영향을 많이 나타내였으나 점차 가난과 빈궁, 인종문제와 같은 첨예한 사회현실적문제들과 자기 민족의 고유한 력사, 생활풍습을 주제로 한 시작품들을 창작하는데로 나갔다.

주요작품들로서 시집 《표류자》(1965), 《또 하나의 생》(1973), 《행복한 려행자》(1982), 시극《헨리 크리스토프》(1950), 《몽키산의 꿈》(1967) 등이 있다.

월코트는 쎄인트루씨아뿐아니라 까리브해에 위치한 섬나라들가운데서 노벨문학상을 받은 첫 작가이다.

아메리카에서 제일 높은 산 아끈까과산

남아메리카의 남부 칠레와의 국경가까이의 아르헨띠나지역에 있는 산. 높이 6 960m로서 서반구에서 가장 높은 산으로 되고있다. 퇴적암석층우에 옮겨쌓인 안산암으로 이루어져있다. 산꼭대기에는 눈과 얼음이 덮여있으며 여기로부터 7개의 빙하가 흘러내린다. 이 산은 1897년에 처음으로 발견되였다.

진주의 섬—꼰따도르섬

꼰따도르섬은 빠나마운하의 태평양쪽입구에서 약 56㎞ 떨어진 곳에 있는 작은 섬이다.

섬의 이름은 에스빠냐말로 계산원이라는 뜻이다.

이 섬에서 유명한것은 진주이다. 빠나마가 수출하는 진주가운데서 가장 진귀한 진주는 이 섬에서 생산된다.

지난날 식민지통치시기 빠나마는 진주를 에스빠냐왕실에 바치군 하였는데 그 진주들은 이 섬에 집결되여 그 량을 계산한 다음에야 에스빠냐로 실려갔다고 한다. 그래서 이 섬을 계산원이란 뜻에서 꼰따도르로 부르게 되였다.

꼰따도르섬은 10여개의 백사장과 검푸르고 맑은 바다물, 진귀한 진주, 무성한 식물들로 하여 보석섬이라고도 부른다.

이 섬은 최근년간 꼰따도르그루빠의 출현으로 하여 더욱 유명해졌다.

1983년 1월 꼰따도르에서 빠나마, 메히꼬, 베네수엘라, 꼴롬비아 4개 나라 외무상들의 회의가 있었다.

이 회의에서는 중앙아메리카나라들의 내정에 대한 외국의 간섭을 종식시키며 민족자결의 원칙에서 대화를 통하여 이 지역문제를 해결할것을 주장하고 그를 실현하기 위하여 중재활동을 벌리기로 하였다.

그때부터 이 4개 나라를 꼰따도르그루빠로 부르고있다.

사람의 키가 커지는 섬 마르띠니끄

마르띠니끄는 아메리카대륙의 중부 까리브해의 소안띨제도 중부에 자리잡고있는 섬이다.

이 섬은 1635년부터 프랑스의 식민지로 되였으며 1946년 3월에는 프랑스《해외령》으로 되였다.

마르띠니끄란 이름은 원주민인디안말로 《꽃섬》이라는 뜻인 《마띠이아》에서 유래되였다.

이곳 원주민들은 예로부터 자기들이 살고있는 섬을 아름답고 향기로운 꽃들이 만발한다고 하여 《꽃섬》이라고 부르면서 자랑하였다.

1502년 꼴룸부스가 이 섬에 상륙한 다음부터 원주민들이 부르던 《마띠이아》란 이름이 《마르띠니끄》로 고쳐졌다고 한다.

마르띠니끄는 뱀이 욱실거린다고 하여 뱀의 락원으로 세상에 알려져있을뿐아니라 신기하고도 수수께끼같은 사람의 키가 커지는 섬으로 또한 이름난 섬이다.

이 섬사람들의 키는 보통 남자들인 경우 1.9m이고 녀자들은 평균 1.74m이상이라고 한다. 하기에 이 섬에서는 키가 1.8m아래인 성인남자들을 키가 작은 사람들로 취급한다.

한번은 브라질의 한 동물학자가 이 섬에 와서 석달동안 있었는데 돌아갈 때 그의 키가 4㎝ 더 커졌다고 한다.

감자이야기

감자가 남아메리카의 안데스산줄기에서 인디안들이 처음으로 재배한 작물이라는것은 누구

나가 다 알고있다.

이 감자가 처음으로 대서양을 넘어 유럽에 건너온것은 1565년이였다. 당시 유럽사람들은 땅밑의 감자를 먹는것이 아니라 조그마한 도마도처럼 열리는 열매를 먹는줄 알았다. 그들은 감자열매를 먹어보고는 《이것은 써서 어떻게 먹겠는가. 이 열매에는 독이 있다. 틀림없이 악마의 딸기이다.》라고 하면서 감자를 심으려 하지 않았다.

그때로부터 200년이 지나서 이 악마의 딸기라고 부르는 감자가 아주 훌륭한 작물이라는것을 정력적으로 소개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바로 프랑스의 빠르만뜨이에였다.

빠르만뜨이에가 터밭에 감자를 심어보니 수확이 대단히 많을뿐아니라 료리를 하니 아주 맛이 있었다. 그는 감자로 료리를 직접 만들어 사람들에게 먹여도 보고 책까지 써서 감자를 널리 소개하였다.

그러나 농민들은 감자를 심으려고 하지 않았다. 그는 당시(18세기) 프랑스의 왕이였던 루이16세에게까지 감자가 좋은 작물이기때문에 널리 보급할 필요가 있다는것을 제기하였다.

루이16세는 그의 간청을 수락하고 감자를 보급하는데 자기도 힘쓰겠다고 약속하였다. 그후 얼마 지나지 않아 궁전에서는 큰 연회가 있었다. 이때 국왕은 감자꽃을 손에 들고 왕후인 마리 안뜨와네뜨는 감자꽃으로 머리단장을 하고 나타났다.

감자꽃은 대단히 아름답게 보이였다.

그때로부터 감자꽃은 귀족들의 치레거리로 널리 쓰이였으나 감자는 아직 보급되지 않았다.

빠르만뜨이에는 생각끝에 자기 밭에 감자를 심고 울바자로 둘러막은 다음 《이 밭에 심은 작물의 뿌리에 손을 대지 말것. 손을 댄자는 법으로 다스린다.》라는 표말을 써붙이였다.

오가는 사람들은 그 작물의 뿌리가 틀림없이 대단한것이라고 생각하고 감자알을 슬금슬금 파가기 시작하였다. 빠르만뜨이에는 파가는 사람들을 못 본척 하고 내버려두었다.

감자알을 파서 심어보니 참말로 수확이 많았으며 맛도 좋았다. 이렇게 되여 감자가 보급되기 시작하였다. 그후 감자는 유럽에 널리 퍼지였는데 제1차 세계대전을 전후로 하여 유럽에 흉년이 들었을 때 감자가 굶어죽게 된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데 큰 역할을 하였다.

아마조나스강(아마존강)

남아메리카의 브라질, 뻬루, 볼리비아, 에꽈도르, 꼴롬비아지역을 흐르는 강. 안데스산지의 동쪽 비탈면의 해발 4 840m높이에서 발원하여 북동방향으로 흐르다가 아마조나스저지에 이르러서부터는 동쪽으로 흘러 대서양으로 흘러든다. 상류는 마라논강이라고 한다. 길이 7 872㎞, 류역면적 718만㎢로서 세계에서 길이가 가장 긴 강이며 류역면적이 가장 넓은 강이다. 상류는 산악지대의 깊은 골짜기를 따라 흐르다가 아마조나스저지에 이르러서는 넓고 평탄한 저지대를 뱀이 기여가듯이 열대수림을 누비며 유유히 흘러내린다. 아마조나스강류역일대는 식물종수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울창한 천고의 수림지대로서 사람들이 접근하기조차 힘들다. 물속에는 아나콘다와 같이 길이가 10m를 넘는 뱀이며 700V이상이나 센 전기를 내는 뱀장어가 있으며 그 기슭의 수림지대에는 앵무새, 게으름뱅이 등 특이한 동물들이 많다. 강에서 살고있는 물고기 종수만 하여도 2 000종이 넘는다고 한다. 이 강은 에스빠냐식민주의자들이 이곳에 기여들었을 때 머리칼을 드리운 원주민들이 완강하게 반항해나서는것을 보고 그 사람들을 녀자인줄 착각하여 그리스신화에서 나오는 아마조나스(싸움을 잘하였다는 녀자들)라고 부른데서 유래되였다.

서인디아제도

북아메리카와 남아메리카대륙사이의 까리브해에 널려있는 수천개의 섬들로 이루어진 제도. 대안띨제도, 소안띨제도 및 바하마제도로 나눈다. 총면적은 약 24만㎢이다. 서인디아란 1492년 꼴룸부스가 인디아로 가는 항로를 찾아 항행하던 도중 처음으로 이곳에 도착하여 인디아의 일부라고 잘못 생각한데로부터 나온 말이다. 서인디아제도에는 오늘 꾸바를 비롯하여 아이띠, 도미니까, 쟈메이커, 트리니대드 토바코, 바베이도즈, 안티구아 바부다, 도미니카, 쎄인트루씨아, 쎈트빈쎈트그레너딘즈, 바하마 등 여러 독립국가들이 있다. 이 지역에는 또한 뿌에르또 리꼬, 앵컬러, 과들루쁘 등

미, 영, 프랑스의 식민지들이 있다. 서인디아제도에는 약 2 000만명의 주민이 살고있는데 그 대부분이 흑인, 혼혈인(물라트) 및 크레올 등이며 그들은 주로 야자나무, 커피, 사탕수수, 코코아, 목화, 담배 등을 재배하고있다. 주요지하자원은 망간, 크롬, 쇠돌, 피치, 보크사이트, 원유, 린회석 등이다.

띠띠까까호

남아메리카의 뻬루와 볼리비아국경지대의 중앙안데스산지에 있는 호수. 해발 3 812m높이에 있는 호수로서 세계에서 높은 곳에 있는 호수가운데서 제일 큰 호수이다. 면적 8 300㎢, 최대깊이 304m, 물온도는 약 11℃이다. 호수는 구조운동에 의하여 이루어졌으며 호수가는 굴곡이 심하고 북동 및 남서기슭은 산지로 둘러싸여있다. 띠띠까까호는 수상운수, 수력발전 및 일부 관개용수로도 리용되며 호수에서는 물고기도 잡는다. 띠띠까까호 남동부와 호수가운데 있는 섬들에는 고대인디아문화와 유적유물들이 많으며 그가운데서도 볼리비아의 띠아와나꼬지역은 남아메리카에서 가장 오랜 문화의 중심지이다.

비행사의 이름을 딴 안헬폭포

남아메리카의 베네수엘라에 있는 안헬폭포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절경의 하나이다. 폭포의 락차고는 979m이다. 1 005m라는 설도 있다. 이것은 세계적으로 제일 높은 폭포이다.

폭포가 하늘높이에서 쏟아져내리면서 무수한 구슬과 같은 물방울을 튕기고 안개를 일으키는 모습은 절경을 이루고있다.

그러나 이렇듯 굉장한 폭포가 밀림속 심산에 있었기때문에 오랜 기간 알려지지 않고있었다.

1937년에 베네수엘라의 비행사 안헬이 폭포의 상공을 날다가 이 폭포를 발견하였다. 이때로부터 이 폭포가 소문나기 시작하여 수많은 탐험가들과 관광객들이 앞을 다투어 이곳을 찾아오게 되였다.

베네수엘라에서는 이 폭포를 발견한 사람의 이름을 따서 《안헬폭포》로 명명하였다.

황금박물관

꼴롬비아의 수도 보고따시중심에 자리잡고있는 세계적으로 이름있는 력사박물관.

고대인디안이 만든 23 500점의 금속제품들이 전시되여있다.

이 물품들은 B.C.2 000년부터 A.D.16세기까지의 사이에 만든것인데 대부분이 금박과 금실로 만들어졌으며 거기에는 여러가지 도안들이 새겨져있다.

치첸 이짜의 천문대

메히꼬 유까딴반도에 있는 고대천문대. 마야족사람들이 B.C.에 건설한것이다.

천문대의 창문은 태양, 달, 금성을 관측할수 있도록 정확히 나있다.

마야사람들은 시계, 광학기구경위가 없는 조건에서도 1년을 365.2420날로 측정해냈다.(현재 측정한 날자는 365.2422날)

이 천문대는 우슈말제단과 함께 마야문화의 상징으로 알려져있다.

조선전쟁의 진상을 그린 첫 작품과 꼴롬비아작가 말로

꼴롬비아작가 네스또르 마드리드 말로의 단편소설 《조선에서 온 편지》는 우리 인민의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이른바 유엔군의 명목하에 조선전쟁에 참가하였던 한 꼴롬비아고용병의 고백을 통하여 침략전쟁의 진상과 그 패망의 불가피성을 확증하고있다.

꼴롬비아는 1950년 미제가 일으킨 조선침략전쟁에 가담한 나라이다. 이 소설에서는 조선전쟁에 미제의 대포밥으로 끌려나간 꼴롬비아병사 호쎄 또마싸 빠하르도의 전쟁체험담이 편지형식으로 씌여져있다.

그는 조선인민군의 호된 불벼락에 팔이 부러져 병원에 입원한 후 자기 집에 편지를 쓴다.

병사는 아버지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조선전쟁에 참가하여 영웅적조선인민군에 의하여 거듭 참패를 당하는 꼴롬비아고용병들의 처참한 몰

글을 솔직하게 쓰고있다.

그는 1952년 8월에 쓴 편지에서 조선인민군의 총에 맞아 팔에 관통상을 입고 오른팔을 팔굽까지 잘라냈다는 불행한 소식을 전하면서 이것은 다 하느님의 뜻이여서 어쩔수 없는것이라고 비명을 올렸다.

편지에서 그는 자기 개인의 비극적처지에 대해서뿐아니라 꼴롬비아병사들, 인민들의 비극적운명에 대해서도 쓰고있다. 그는 편지에서 유엔군공동묘지에는 값없이 죽은 꼴롬비아사람들도 많이 묻혀있다는것을 숨기지 않고있다.

꼴롬비아고용병의 이 편지는 유엔군에 참가하였던 꼴롬비아괴뢰군의 패망을 예술적으로 확인하고있으며 영웅적조선인민군의 불패의 위력을 뚜렷이 반증해주고있다. 편지는 조선전쟁의 진상을 담은 꼴롬비아의 첫 작품이라는 의미에서 꼴롬비아문단에서 주목을 끄는 작품으로 되였다.

꾸스꼬유적

꾸스꼬는 뻬루 남부 해발 3 500m나 되는 험준한 안데스산줄기의 골짜기에 자리잡고있는 도시이다. 인구는 약 10만가량인데 주민의 대부분이 아메리카인디안들이다. 이곳은 지난날 라틴아메리카에 강대한 국가를 건설하였던 인까제국의 중심지였다.

이곳에는 왕실과 태양의 신전 그리고 비끼라꼬따의 성문, 사꾸샤와만의 성새 등 석조구조물의 유적들이 많이 남아있다.

그가운데는 길이 11.4m, 너비 5.4m, 두께 18m나 되는 어마어마한 돌로 쌓은것도 있는데 어느것이나 면도날조차 들어갈 틈이 없이 맞물려있다. 당시에 철기도구를 몰랐던 그들이 어떻게 큰돌들을 다듬어 그처럼 정교하게 쌓았는가에 대해서는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이다.

이런 까닭으로 여러차례의 큰 지진이 있었으나 넘어지지 않고 오늘까지도 그 웅장한 모습을 보존하고있다.

꾸스꼬에는 당시의 발전된 농업기술을 보여주는 관개시설, 로마시대의 포장도로와 맞먹는 각 지방으로 뻗어나간 포장도로의 유적들이 남아있다.

그리고 꾸스꼬에서 110㎞ 떨어진 산정에 마추삐끄츄의 성새유적이 남아있는데 인까제국이전 2 000～3 000년전에 건설된것이라고 한다. 어느 민족이 무슨 목적으로 이처럼 험준한 산정에 거대한 석조구조물을 건설하였는가에 대해서는 아직도 수수께끼로 남아있다.

인까제국은 에스빠냐식민주의자들의 침입으로 16세기 중엽에 멸망하였다. 당시 침략군의 우두머리였던 삐싸로라는자는 인까제국의 마지막왕 아따마르와를 생포하여 그의 몸값으로 한방을 가득 채울 정도의 금은보화를 받아먹고 신의를 어겨 학살하였다고 한다.

이곳에서는 인까제국의 정교한 금은세공품, 각종 채색도자기, 독특한 격자문양을 한 천 등의 유물들이 많이 발굴되였다.

인까제국의 유명한 유적 마츄 삐끄츄

뻬루의 남부산간지역 해발 약 3 400m 되는 곳에 한때 인까제국의 수도였던 꾸스꼬가 자리잡고 있다.

오늘 꾸스꼬는 세계문화재부의 하나로 불리우고있다.

꾸스꼬에서 서북쪽으로 120㎞정도 떨어진 곳에 인까제국의 이름있는 유적 마츄 삐끄츄가 있다. 마츄 삐끄츄는 인디안들이 안데스산줄기의 어느 한 봉우리에 건설해놓은 돌성새이다.

마츄 삐끄츄는 돌건물들이 줄줄이 늘어서있고 건물과 건물사이는 돌계단으로 이어져있다. 황홀할 정도의 신전과 넓은 정원 그리고 들쑹날쑹하면서도 규모있게 앉은 살림집들, 이것을 보느라면 참으로 인까사람들의 뛰여난 재능에 감탄을 금치 못한다.

유적은 비록 허물어진 담벽만 남아있지만 번창하던 초기의 휘황찬란한 모습과 규모를 어렴풋이나마 엿볼수 있다.

유적이 차지하고있는 면적이 약 15㏊에 달하는것으로 미루어보아 당시 이곳에 1 000세대정도의 주민들이 살았다고 추측된다.

이 유적부근에서 300여장의 무덤이 발견되였는데 그중 묘주가 녀자로 된 무덤이 다수를 차지하였다. 이것은 당시 녀자의 지위가 대단히 높았다는것을 말하여준다.

마츄 삐끄츄는 해발 2 800m되는 높은 곳에 위치하고있다. 그옆의 해발 3 500m나 되는 다른 산봉우리꼭대기에 태양신전이 건설되여있다.

인디안들은 정기적으로 이곳에 와서 태양신에게 제를 지냈기때문에 가파로운 벼랑에도 구불구불한 오솔길이 나있다.

인디안들은 자기들이 태양의 자손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들은 태양이 하늘에 영원히 떠있으면서 대지를 밝게 비쳐줄것을 갈망하여 태양신전앞에 해를 매여놓는 돌기둥을 세워놓았다.

그들은 자기들의 근면한 두손과 원시적인 공구로 큰 돌을 몇㎞ 떨어진 골짜기에서 산꼭대기까지 운반하여 가공한 다음 그우에다 각종 꽃무늬를 새겨 그것으로 웅장한 건물을 지었다.

사람들의 기억속에서 400여년동안 사라졌던 이 고대성새가 1911년에 와서야 고고학자에 의하여 발견되여 세상에 알려져 세계고고학계의 주목을 끌게 되였다.

그후 인까제국의 력사를 연구하며 유적을 참관하는 사람들이 물밀듯이 쓸어듦으로써 마츄 삐끄츄는 일시에 뻬루에서 외국인들이 제일 많이 찾아가는 고장으로 되였다.

그리하여 뻬루정부는 꾸스꼬로부터 마츄 삐끄츄까지 철길을 부설하였다. 그후부터 이곳은 뻬루의 관광명승지로 되였다. 지금 해마다 마츄 삐끄츄를 찾는 관광객수는 약 10만명에 달한다.

띠아와나꼬유적

남아메리카 볼리비아에 있는 고대인디안문화유적. 세계에서 제일 높은 곳에 있는 볼리비아의 띠띠까까호 동남쪽 21㎞지점에 있다.

유적은 금자탑과 절간, 릉묘 등으로 이루어진 대건축군으로서 그 부지면적은 45만㎡이며 인디안들의 최초의 종교의례중심지였다.

띠아와나꼬의 건물은 하나의 정연한 설계도에 의하여 건설되였는데 지하궁전도 있다.

띠아와나꼬의 건축물들중에서 제일 이름난것은 태양문이다. 그 문의 너비는 3.84m, 높이는 2.73m, 두께 0.5m로서 하나의 통돌을 깎아서 만든것이다. 놀라운것은 해마다 하지날에 해가 문의 중심선을 따라 서서히 떠오르는것이다.

일반적으로 몇t, 제일 무거운것이 400t에 이르는 돌들을 네모나게 잘 다듬었을뿐아니라 아무런 접착제를 쓰지 않고 집을 지은 건축술은 인디안들의 높은 건축술을 그대로 보여주고있다.

특히 놀라운것은 이 유적의 200㎞ 범위안에서는 석재가 날 곳이 없는데 당시의 조건에서 3 800m의 높은 산에 400t이나 되는 돌을 끌어올린 그것이다.

인까제국이전의 인디안고대문화를 대표하는 유적으로서 이 도시는 3～8세기에 존재했던것으로 보고있다.

《띠아와나꼬》란 말은 《세계를 창조하는 중심》이란 뜻이다.

모이아스인상

칠레의 서쪽해안에서 3 000여㎞ 떨어져있는 이스터섬(부활절섬)에 오늘까지 수수께끼로 남아있는 인상.

이스터섬의 변두리에 사품치는 대양을 향해 통돌을 조각하여 만든 600개의 크고 생동한 반신상이 세워져있다. 이 반신상들의 높이는 7～10m까지 각이하며 하나의 무게는 90t이다. 이 돌사람들은 높이가 4m를 넘는 대돌우에 줄지어 놓여있으며 어떤것은 붉은 암석으로 조각한 높이가 수m나 되는 원추형의 모자를 쓰고있다. 돌사람들의 얼굴은 길고 코는 두드러졌으며 눈확은 깊고 귀는 길며 입은 내밀었다.

이 섬에서는 이밖에도 높이가 22m, 무게가 약 400t이나 되며 모자의 무게만 하여도 30t이나 되는 제일 큰 조각상을 비롯하여 완성되지 않은 300여개의 돌조각상들과 돌에 새겨놓은 해득하지 못한 상형문자도 발견되였다.

모이아스인상이 언제 누구에 의하여 만들어졌으며 그 유물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아직 해명되지 않고있다.

세계에서 가장 넓은 폭포— 이과쑤폭포

이과쑤폭포는 아르헨띠나와 브라질경계의 이과쑤강에 있다.

이과쑤강은 이 지대를 통과할 때 295줄기의 폭포와 급류로 갈라진다. 폭포의 너비는 4～5㎞

이고 높이는 60～80m이다. 폭포의 요란한 소리는 25㎞까지 울린다. 폭포가 떨어지면서 일으킨 안개는 30～150m까지 올라가서 커다란 장막을 이룬다.

이미 오래전부터 인디안들은 이 폭포에 형상적으로 《이과쑤》라는 이름을 붙였다. 이과쑤란 큰물 또는 대량의 물이라는 뜻이다.

유럽식민주의자들이 들어온 후 이 폭포를 《성모 마리아폭포》라고 명명하였으나 그 이름은 오래 가지 못하고 인차 사람들의 버림을 받았다.

이리하여 다시 《이과쑤폭포》라는 명칭으로 널리 불리워지고 세계적으로도 공인되게 되였다.

2001년 노벨문학상수상자 나이폴

트리니대드 토바고작가.

비디아다르 쑤라이프라싸드 나이폴(1932－)은 트리니대드 토바고에서 힌두계 인디안인의 후손으로 태여났다. 트리니대드 토바고는 까리브해의 소안띨제도 남쪽에 있는 트리니대드섬과 토바고섬으로 구성되고 면적이 5 128㎢, 인구가 130만명밖에 안되는 작은 나라이다. 브이. 에스. 나이폴이 소설창작에서 성공하여 작은 섬나라출신으로 노벨문학상까지 받게 된것은 트리니대드 토바고와 라틴아메리카 신생독립국가사람들의 생활을 생동하게 반영하고 민족적독자성을 지켜나가려는 그들의 자주적인 지향을 담았기때문이다. 이것이 유럽사람들의 주목을 끌었던것이다.

나이폴은 고향에서 대학을 나온 후 1950년 영국에 건너가 옥스퍼드대학에서 공부하였으며 영국에 영주하였다. 졸업후 한동안 BBC방송국에 근무하다가 런던에서 소설창작활동을 시작하였다.

그는 까리브해의 작은 섬나라사람들의 생활을 반영한 초기 장편소설 《수수께끼의 아바나》(1957), 《엘비라의 참정권》(1958), 《미겔거리》(1959), 4번째 장편소설《비스와스씨를 위한 집》(1965)에 이르러 문단의 인정을 받고 작가로서의 지위를 확립하였다. 작품은 트리니대드 토바고를 무대로 하여 자주권을 지켜나가려는 인디안사람들의 모습을 형상적으로 보여주었다.

나이폴이 그후에 발표한 소설들은 그 배경을 다른 나라로 바꾸긴 했으나 여전히 민족고유의 유산을 지켜나가려는 새로 독립한 나라 인민들의 지향을 반영하였다. 《원숭이흉내를 내는 인간》(1967), 《자유국가에서》(1971), 까리브해의 어느 한 섬에서 일어난 봉기를 묘사한 《게릴라》(1975), 중앙아프리카의 한 새로 독립한 나라를 무대로 한 《강이 구부러지는 곳》(1979)등이 다 그러한 작품들이다.

나이폴은 소설뿐아니라 《어둠의 령역》(1964), 《인디아, 상처받은 문명》(1977), 《신도들속에서 이슬람교순례려행》(1981)과 같은 려행기들도 썼다.

△ △ △

오늘 유럽과 아메리카나라들의 움직임에서 특징적인것은 이 나라들이 점차 자주화의 길로 나가고있는것이다.

유럽과 아메리카에서 자주성을 지향하는 나라들의 대렬이 날을 따라 늘어나고있는것은 자주성의 시대의 추세이다.

이러한 시대의 흐름을 따라 유럽과 아메리카나라들의 문학은 자주화의 길로 나가고있는 시대적 추세를 반영하는데로 지향하고있다.

유럽과 아메리카문학의 전도는 밝다.

세계문학의 어제와 오늘(2)

(제2판)

저 자	후보원사, 교수, 박사 **김 왕 섭**
편 집	**김 은 금**
표 지	**류 명 구, 김 정 화**
편 성	**김 남 숙**
교 정	**김 경 희**
낸 곳	**문 학 예 술 출 판 사**
인 쇄 소	**평 양 종 합 인 쇄 공 장**
1판발행	주체97(2008)년 3월 5일
2판인쇄	주체100(2011)년 2월 20일
2판발행	주체100(2011)년 2월 25일

ㄱ－06509ㄴ 값 570원